ترجمة معاني

القرآن الكريم

إلى

اللغة الكورية

وقف لله تعالى من خادم الحرمين الشريفين
الملك فهد بن عبد العزيز آل سعود
ولا يجوز بيعه

إِنَّا نَحْنُ نَزَّلْنَا الذِّكْرَ وَإِنَّا لَهُ لَحَافِظُونَ

إِنَّهُ لَقُرْآنٌ كَرِيمٌ فِي كِتَابٍ مَكْنُونٍ لَا يَمَسُّهُ إِلَّا الْمُطَهَّرُونَ تَنْزِيلٌ مِنْ رَبِّ الْعَالَمِينَ

신성한 꾸란의 의미번역 출간 지시
두 성지의 수호자 파하드 이븐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

تشرف بالأمر بطباعة هذه الترجمة لمعاني القرآن الكريم
خادم الحرمين الشريفين الملك فهد بن عبد العزيز آل سعود
ملك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وقفٌ لله تعالى من خادم الحرمين الشّريفين
الملك فهد بن عبد العزيز آل سُعُود
ولا يجُوز بيعُه

توزّع مجّانًا

ترجمة معاني

القرآن الكريم

إلى
اللّغة الكوريّة

مجمّع الملك فهد لطباعة المصحف الشّريف

본서는 두 성지 수호자의 기증서
파하드 이븐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왕
비매품

무료배포

의미 번역

꾸란

한국어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مقدمة

بقلم معالي الشيخ: صالح بن عبد العزيز بن محمد آل الشيخ
وزير الشؤون الإسلامية والأوقاف والدعوة والإرشاد
المشرف العام على المجمع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 القائل في كتابه الكريم :
﴿ ... قَدْ جَآءَكُم مِّنَ ٱللَّهِ نُورٌ وَكِتَـٰبٌ مُّبِينٌ ﴾ .
والصلاة والسلام على أشرف الأنبياء والمرسلين ، نبينا محمد ، القائل :
((خيركم من تعلم القرآن وعلّمه)) .
أما بعد :

فإنفاذاً لتوجيهات خادم الحرمين الشريفين الملك فهد بن عبدالعزيز آل سعود ، حفظه الله، بالعناية بكتاب الله، والعمل على تيسير نشره ، وتوزيعه بين المسلمين في مشارق الأرض ومغاربها، وتفسيره، وترجمة معانيه إلى مختلف لغات العالم .

وإيماناً من وزارة الشؤون الإسلامية والأوقاف والدعوة والإرشاد ب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بأهمية ترجمة معاني القرآن الكريم إلى جميع لغات العالم المهمة ، تسهيلاً لفهمه على المسلمين الناطقين بغير العربية ، وتحقيقاً للبلاغ المأمور به في قوله ﷺ : ((بلّغوا عنّي ولو آية)) .

وخدمة لإخواننا الناطقين باللغة الكورية، يطيب لمجمع الملك فهد لطباعة المصحف الشريف بالمدينة المنورة ، أن يقدم للقارئ الكريم هذه الترجمة الكورية التي قام بها فضيلة الشيخ الدكتور حامد تشوي يونغ كيل .

ونحمد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أن وفق لإنجاز هذا العمل العظيم الذي نرجو أن يكون خالصاً لوجهه الكريم، وأن ينفع به الناس .

إننا لندرك أن ترجمة معاني القرآن الكريم، مهما بلغت دقتها، ستكون قاصرة عن أداء المعاني العظيمة التي يدل عليها النص القرآني المعجز، وأن المعاني التي تؤديها الترجمة إنما هي حصيلة ما بلغه علم المترجم في فهم كتاب الله الكريم، وأنه يعتريها ما يعتري عمل البشر كلّه من خطإ ونقص.

ومن ثم نرجو من كل قارئ لهذه الترجمة أن يوافي مجمع الملك فهد لطباعة المصحف الشريف بالمدينة النبوية، بما قد يجده فيها من خطإ أو نقص أو زيادة للإفادة من الاستدراكات في الطبعات القادمة إن شاء الله .

والله الموفق ، وهو الهادي إلى سواء السبيل، اللهم تقبل منا إنك أنت السميع العليم .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문

쉐이크 살레흐 이븐 압둘아지즈 이븐 무함마드 알 쉐이크
이슬람 · 아우까프 · 다우와 · 지도부장관
출판청 총감독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성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성서가 여러분에게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이며 하나님의 사자인 무함마드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은 꾸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성지의 수호자이신 파하드 이븐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께서 하나님의 책을 보호하고 꾸란의 출간을 촉진하여 전세계 무슬림들에게 배포, 꾸란의미 해석, 그 의미를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라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의 이슬람 · 아우까프 · 다우와 · 지도부처는 꾸란의 의미를 전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하여 비아랍인 무슬림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전파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언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나를 대신하여 꾸란의 한마디라도 전해야 합니다))

메디나 소재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최영길 박사가 번역한 한국어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이 훌륭한 작업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사업으로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꾸란의 의미를 번역한다 해도 신비스러운 꾸란의 원본이 담고 있는 위대한 의미를 모두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번역 작품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란 고작 번역자가 하나님의 책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류 모두가 수행한다 하여도 오류를 범하게 되고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번역서에서 발견되는 어떤 형태의 오류나 빠진 부분, 첨가된 부분을 메디나 소재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에 알려주시기를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지적한 부분은 다음 출간시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게 하는 분이시며 바른 길로 안내하는 분 이십니다. 주여,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의미번역

꾸란

한국어

제 1 장
수라트 알파티하

1.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1] 하나님[2]의 이름으로[3]

2.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1]를 드리나이다

3.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4. 심판의 날[1]을 주관하시도다

5.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하오니[1]

6.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7.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1]나 방황하는 자들이[2]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제 2 장
수라트 알바까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밈[1)]

2. 의심할 바 없는 이 성서는[1)] 하나님을 공경[2)]하는 자들의 이정표요

3.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1)]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베풀어 준 양식을[2)] 선용하는 사람들의 이정표라

4. 그들은 그대에게 계시된 것과[1)] 그 이전에 계시된 것과[2)] 또한 내세를 믿나니[3)]

5. 그들이[1)] 바로 주님의 안내를 받아 영화를 누릴 사람들이라

6. 믿음을 부정[1)]하는 사람들은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하던 또는 경고하지 아니하던 믿으려 하지 아니하매[2)]

7.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사 그들의 마음을 봉하고 그들의 귀를 봉하고[1)] 그들의 눈을 봉하여 버릴 것이라

8.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척 말하는 무리가 있으나 실로 그들은 신앙인들이 아니거늘[1)]

9. 믿는 척 하나님을 속이는[1)] 것은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과 같으나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라

10. 그들의 마음속에 병이[1)]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악화시키니 그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벌을 받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배반했기 때문이라

11. 이 세상에 해악을[1)] 퍼뜨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은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라 말하더라

12. 실로 그들은 해악을 퍼뜨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노라

13. 그 사람들이[1] 믿는 것처럼 믿으라고 그들에게[2] 말씀이 있었을 때 어리석은 자들이[3] 믿는 것처럼 믿으란 말이뇨 라고 대답하더라 보라 실로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면서 깨닫지 못하노라

14. 그들은[1]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저들도 믿는다고 말하나 사탄과 함께 있을 때는 저희는 당신과 함께 있나니 실로 우리는 조롱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15.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하사 그들을 암흑속에 버리시니 그들은 장님처럼 방황하노라

16. 그들은 진실을 팔고 허위를 사니[1] 그들의 장사가 흥할리 없으며 인도 받지 못하리라

17. 그들을 비유하사 그들이 불을 켜 놓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의 빛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암흑속에 버리시니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2]

18.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장님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노라[1]

19. 그들을 비유하사 하늘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암흑속에서 천둥과 번개가 진동하니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귀를 막으매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포위하시노라[1]

20. 번개가 그들의 시력을 할퀴어 가니 그들에게 빛을 비출때에는 걷다가 그들을 암흑으로 덮칠 때는[1] 멈추어 서도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청각과 시력을 앗아가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하심이라

21. 인간들이여[1] 주님을 경배하라[2] 그분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고 또 너희 선조들을 창조하셨나니[3] 경배함으로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22. 그대들을 위해 대지를 침상으로[1] 그리고 하늘을 천정으로 두셨노라 하늘로부터는 비를 내리게하여 과일을[2] 맺게 한 후 그대들의 양식으로 주셨노라 하나님께 우상을 비유하지 말라 그대들은 이를 알지 않느뇨[3]

23.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한 것에[1] 관하여 의심한다면 그와 같은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가져오라 너희들이 사실이라고 고집한다면 하나님 외에 증인들을 대어보라[2]

24.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1] 또한 그렇게도 할 수 없다면[2] 지옥을 두려워 하라 그곳에는 인간과 돌들이[3] 불에 이글거리고

있으며 그곳은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

25.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1]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르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2] 주어질 때면 이것은 이전에도 저희에게 베풀어졌던 것이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노라 또한 그들에게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주어지리니 그곳에 순결한 동반자가[3] 있어 그 안에서 함께 영생할 것이라[4]

26.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기나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비유하길 서슴치 아니하시매[1] 믿는 자는 그 비유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믿으나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비유를 들어 무엇을 원하느뇨 라고 하더라 일러 가로되 그것으로 많은 불신자들을 방황케도 하고 또 많은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이단자들만을[2] 방황케 하시니라

27.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자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결합하라 하였으나 거역한 자들이며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자들이니 저들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라[1]

28. 생명이 없었던[1]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하사[2] 다시 생명을 앗아가고[3] 또 부활[4]케하여 그분 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한단 말이뇨

29. 그분은 너희들을 위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어 일곱개의 하늘을 두신 분이시니 진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노라

30. 주님께서 천사들에게[1] 지상에 대리인을 두리라 하시니 천사들이 가로되 이 세상을 해치고 살상을 하려 하십니까 저희들은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만을 경배하나이다 이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실로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31. 아담에게 모든 사물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후 천사들에게 제시하며 말씀하시길 만일 너희가 옳다면[1] 너희가 이것들의 이름을 말해 보라하니[2]

32.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받으소서 저희는 당신이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실로 당신은모든것을 아시고지혜로우십니다

33. 하나님이 이르시길 아담아 그들에게[1] 이름들을 일러주라 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그 이름들을 가르쳐주매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이르시길 내가 천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 너희가 드러내거나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았더뇨

34. 하나님이[1]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라 하니[2]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하나 이블리스만 거절하며 거만을 부렸으니 그는 불신자들중에 있었노라[3]

35. 하나님이 말씀하사 아담아 아내와[1] 함께 천국에 거주하며 너회가 원하는 양식을 먹되 이 나무에[2]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지은 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36.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곳으로부터 나가게 하매 하나님이 말씀하사 서로가 서로의 적이되어 지상에서 얼마 동안 안주하여 살라 했노라[1]

37. 이때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그를 용서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진실로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38.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사 모두 세상으로 내려가 살라 내가 너회에게 복음을 보낼 것이니 이를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1]

39.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 속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이라

40. 이스라엘 자손들이여[1] 내가 너회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고 나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라[2] 내가 너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리라[3] 그리고 나만을 두려워하라[4]

41. 내가 계시한 것을 믿고 이전에 내려보낸 계시를 믿으라 이를 불신하는 우두머리가 되지 말것이며 나의 계시를 어떠한 것과도 교환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하라[1]

42. 진리를 부정하게 왜곡하지 말고 진리를 숨기지 말라 너회는 알고 있지 않느뇨[1]

43.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받칠 것이며 다같이 고개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라[1]

44. 선을 행하라 너회 백성들에게 일렀으되 너회는 망각하고 있느뇨 성서를 낭독하면서도 모른단 말이뇨[1]

45.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을 강구하라 실로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라[1]

46.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가니라[1]

47.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가 너회들에게 베푼 나의 은총을 기억하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 했노라[1)]

48. 그 날을[1)] 두려워 하라 그 날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며 어떤 중재도 수락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니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니라

49.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라오의 압박으로부터 구출한 사실을 상기하라 그들은 너희를 구속하고 남성들을 학살 하였으며 여성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내리신 시련이라[1)]

50. 바다를 둘로 쪼개어 너희들을 구출하고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파라오의 군대를 익사케 하였노라[1)]

51. 모세에게 사십일 밤을 은거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대들은 송아지를 택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으매 너희는 죄를 범한 자들이라[1)]

52.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여 주었나니 이에 감사하라[1)]

53.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서와 식별서를[1)] 보냈나니 이것으로 너희가 안내받을 것이라

54.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들이여 너희는 송아지[1)]를 숭배하여 자신들을 우롱했노라 주님께 회개하고 속죄하라 주님의 은총이 있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라 진실로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55. 모세야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때 천둥과 번개가 그들을 불태워버렸음을 너희는 지켜보지 아니했더뇨[1)]

56. 그런데도 너희가 죽은 후 내가 너희를 부활시켰으니 이에 감사하라

57.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고 만나와 쌀와를 보내며 그대들에게 준 양식 가운데 좋은 것을 먹으라 했거늘 그들은 나를 속이지 못하고 자신들을 우롱했을 뿐이라[1)]

58. 하나님이 말한 것을 상기하라 이 마을로 들어가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먹되 엎드려 문으로 들어가 겸손히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대들의 죄를 용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더하여 줄 것이라

59. 그러나 그 우매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변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우매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흑사병을 보냈더라

이는 그들이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1]

60. 상기하라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해 물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 하여 때리니 그곳으로부터 열 두개의 샘이 솟아나와 각 부족들은[1] 그들이 마실 곳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되 현세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하셨노라

61.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여 음식 한가지로만 살 수 없나니 목초와 오이와 마늘과 아다스와 그리고 양파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소서 모세 가로되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1] 주셨는데 너희는 이 하찮은 것과 바꾸려 하느뇨 아무 곳이나 가 보아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잘 것 없고 처량한 족속으로 만들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음이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언자들을 부당하게 살해하려 했기 때문이라[2]

62. 꾸란을 믿는 자들이나 구약을 믿는 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천사들을 믿는 사비안들이나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선행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1]

63. 구약성서에 있는대로 너희 유대인과 약속했으며 뚜르 산을 너희들 위로 올렸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려준 것을 확고히 잡고 그 안에 있는 뜻을 생각하라 의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1]

64. 그러나 너희는 이를 불신했나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했던들 너희는 분명 멸망하는 자 중에 있었을 것이라

65.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안식일을 위반한 자들이 있음을 아시고 이르시길 그대들은 원숭이가 되어 저주를 받으라[1] 하셨노라

66.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세대의 백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벌을 내려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셨노라

67.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암소 한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를 조롱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대답했더라 이때 모세 가로되 주여 저들같은 무지몽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1]

68.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암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간청하여 설명하여 달라 하니 가로되 그 소는 늙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는 중간의 것이라 이제 너희가 명령 받은대로 행하라 하였노라

69. 그것은 또 무슨 색갈인지 당신의 주님께 간청하여 설명하여 달라고[1] 하니 가로되 그 소는 암갈색이며 맑고 풍부한 느낌을 주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노라

70.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암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간청하여 설명하여 달라 실로 모든 암소가 우리에게는 닮아보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71. 가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암소는 땅을 갈거나 물을 주기 위해 멍에를 지지 아니하며 결함이 없는 건전한 것이라 하니 이제 당신은 사실을 설명 하였소 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암소를 죽였더라

72. 너희가 한 인간을 살인하고서 이 사실을 감추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숨긴 것을 들추어 내시니라

73. 그 소의 일부로 그 시체를 때리라[1]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소생시켜 너희에게 그분의 징표를 보여 너희가 알도록 하시니라

74. 그런 후에도 너희의 마음은 바위처럼 아니 그 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졌노라 바위가 쪼개져 강이 흐르고 그 강이 갈라져 물이 흘러 나오며 하나님이 두려워 바위도 무너지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노라

75. 너희들은 그들이[1] 너희와 더불어 믿음을 갖기를 바라느뇨 그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말씀을 왜곡하였더라[2]

76. 보라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때는 우리도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각자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시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란 말이뇨[1] 그리고도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느뇨[2] 라고 하더라

77. 사람들은 자신들이 숨기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78. 그들 중에는 글을 읽지 못하여 그 성서를 알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의 생각으로 추측만을 할 뿐이라[1]

79. 그들의 손으로 그 성서를 써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값싸게 사소서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1] 재앙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쓴 그들의 손에도 재앙이 올 것이요 그것으로 금전을 모으는 자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2]

80. 그들은 불의 재앙이 몇 일간을 제외하고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느뇨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니 너희는 하나님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려 하느뇨[1]

81. 그러하니라 악을 행하는 자 죄악이 그를 포섭하니 그는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하리라

82.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83.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약속을 받았노라[1]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며 부모와 친척에게 고아와[2] 불우한 사람들에게[3] 자선을 베풀고 겸손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했거늘 너희 중에 소수를 제외하고는 외면하며 등을 돌렸더라

84. 내가 너희로부터 약속을 받았노라[1] 너희 백성들이 피를 흘려서도 아니되며 사람들을 너희의 주거지로부터 추방해서도 아니된다 하였거늘 너희는 엄숙히 약속한 증인들이 아니더뇨

85. 그러나 아직도 너희는 서로 살생하고 주거지로부터 추방을 하며 죄악과 앙심을 조성하고 포로가 될 때는 보석금을 갈취하도다 실로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며 성서의 일부만 믿고 일부를 불신하는 자[1] 그들을 위한 현세의 보상은 무엇이겠느뇨 실로 현세에서는 치욕을 맛볼 것이요 심판의 날에는 엄한 벌이 있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시니라

86. 그들은 내세를 팔아 현세를 사는 자들이니 그들의 죄는 절대 경감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라

87.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1] 주고 그의 뒤를 이어 오는 예언자들로 하여금 그의 뒤를 따르도록 하였노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권능를 내려 성령으로[2] 그를 보호하였노라 너희들이[3] 바라지 않는 한 선지자가 왔을 때 너희들은 자태를 부리고 일부는 거짓을 일삼고[4] 일부는 살인을 저지른단 말이뇨[5]

88. 이때 그들은 저희의 마음이 굳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에[1] 저주를 내리시니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

89.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성서가 도래하였을 때[1] 예언자의 소식이 이미 그들의 책에 확증된 것이었거늘[2]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승

리라고 말했던 그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오시자 그들은 그것을[3] 불신하였나니 이들 불신자들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4]

90.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과[1]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시기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불신하는 자들에게[2] 재앙이 있을 것이라[3] 그들은 분노에 분노를 초래하였으니 불신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징벌이 있을 것이라

91. 하나님이 내리신 계시를 믿으라 했을 때[1]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믿나이다[2] 라고 대답하되 그 이후의 것은 예언자의 소식이 이미 그들의 책에 확증된 것인데도 불신하도다[3] 가로되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예전에 선지자들을 왜 살해하였는가 그들에게 물어보라

92. 모세가 분명한 징표들을 갖고 너회에게 왔는데도 그가 없는 동안[1] 너회는 송아지를 숭배했나니 너회는 죄지은 자들이라

93. 내가 너회로부터 약속을 받고 시나이 산을 너회들 위로 올리면서 내가 너회에게 내려준 것을 지키며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했을 때 저회는 듣고 복종하나이다 라고 말했으나 이들의 마음이 송아지에 대한 사랑으로 물들어 불신의 이유가 되고 암송아지 가루의[1] 물을 마셔야만 했더라 가로되 너회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해도 너회의 믿음이 너회에게 강요한 것 때문에 저주가 있게 되었노라

94. 이르노니 하나님과 함께 할 내세의 집이 누구도 들어 갈 수 없는 너회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너회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천국으로 이르는 죽음을 동경하라

95. 그러나 그들은 전에 그들의 손으로 저지른 죄의 대가로 결코 죽음을 동경하지 않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96. 그대는 그들의[1] 현세적 삶에 대한 탐욕과 불신자들의 탐욕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되리라 그들 각자는 천년을 장수하고자 하나 그 장수는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2]

97. 일러 가로되 가브리엘 천사의[1] 적은 하나님의 적이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대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꾸란을 계시하셨나니 그것은 이미 이전의 것을 충족시키었노라 그것은 믿음이 진실한 자의 길이요 복음이니라

98.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가브리엘과 미카엘에게의 적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적이거늘 실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대적이시라

99. 하나님이 그대에게 분명한 징표를 보냈으니 그분의 적이 아니고는 그 안의 내용을 불신하지 아니하리라

100. 그들이 약속을 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것을 불신했으니 그들 대다수는 믿음이 없었더라

101.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한 선지자가[1] 왔을때 구약에서 확증 되었노라 그런데 그 성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서를 불신하며[2] 뒤에서는 모르는 척 하였더라

102. 그들은 사탄들이 솔로몬 왕의 권능에 대항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을 따랐노라 솔로몬이 이를 불신한 것은 아니었으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사탄들로 백성들에게 마술을[1] 가르쳤노라 그리고 이들은 바빌론에서 하루트와 마루트 두 천사에게 내려졌던 것[2]을 추구한다고 하였더라 그러나 이 두 천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하길 우리는 단지 시험에 들었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지 말라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들로부터 남자와 아내를 구별하는 것을 배웠으나 이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해치고 그들에게 유용하지 않는 것을 배웠노라 그리고 저들은 마술을 선택한 자들이 내세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노라 영혼을 팔아버린 저들 위에 저주가 있다는 것도 저들은 알고 있노라[3]

103. 만일 저들이 믿음을 갖고 악을 멀리하였다면 저들에게는 마술을 배운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어야 할 것이라

104.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에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말며 존칭어로 말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1]

105.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음을 계시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선택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한없는 은총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106. 내가 어떤 말씀도 폐기하거나 망각하게 하지 아니하고 보다 좋은 혹은 그와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뇨[1]

107. 천지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뇨 그분 외에는 보호자도 그리고 원조자도 없노라

108. 전에 모세가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의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려 하느뇨 믿음을 버리고 불신을 택하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노라

109. 성서의 많은 백성들은[1] 너희가 믿음을 갖자 불신하기를 원하도다 이는 진실이 그대들에게 명시되매 저들이 시기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저들을 용서하고 간과 할지니 실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행하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노라

110.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1] 너희 스스로를 위해 자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 할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111.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나 그것은 그들의 바램에 불과하니라 일러 가로되 그들이 진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하라

112. 하나님께 귀의하여[1] 자선을 베푼다면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

113.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 라고 말하고[1]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며[2] 성서를 읽고 있도다[3]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처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그렇게들 말하도다[4]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날 그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니라

114. 하나님의 사원에서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을 막는것 보다 더 사악한 자가 누구이뇨 그들의 질투가 그들을 파멸하고 있지 않느뇨 그들을 공포로 몰아 넣으며[1] 현세에서는 수치와 내세에서는 큰 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115. 동쪽과 서쪽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어 어느 방향에 있던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앞에 있노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1]

116. 하나님이 아들을 두셨으니 그분께 찬미를 드리라고 그들은[1] 말하나 그렇지 않노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노라[2]

117.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어떤 목적을 두시고 있어라 말씀하시니 거기에 있더라

118. 무지한 자들은 말하도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계시를 내리지 않는가 라고 마치 이전의 우매한 자들

이 그랬듯이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닮았도다 하나님은 신념을 가진 백성을 위해 계시를 내리셨노라

119. 하나님은 그대를 진리의 복음자로써 그리고 경고자로써 보냈나니 지옥에 들어갈 자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노라[1)]

120.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대를 기꺼이 반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종교를 따르라 할 것이라 이르노니 하나님의 복음이 길이라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대에게 복음이 내려졌는데도 그들이 저들의 욕망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121. 성서를 받은 그들이[1)] 이슬람에 귀의하여 사실대로 그 성서를 낭송할 때 그들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며 이를 불신한다면 그들은 손실자들이라

122.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은혜와 너희들을 다른 백성 위에 두었던 나의 은혜[1)]를 기억하라

123.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수락되지 아니하며 어떤 중재도 효용이 없으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날을 두려워하라

124. 상기하라[1)] 주님이 명령으로써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는 그것들을 이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사 보라 내가 너를 인류의 지도자로 임명하도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의 자손들을 이르시나이까 물으니 나의 약속은 법을 어기는 자들을 포함하지 아니 하시노라 하시더라

125. 상기하라 하나님은 그 집을[1)] 인류의 안식처와 성역으로 만들었으니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멈춘 그 곳을 경배의 장소로 택하라 또한 신전을 도는 사람과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나의 집을 정화할 것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명령하였노라

126. 아브라함이 기도하였더라 주여 이곳을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소서[1)]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과실들을 주옵소서[2)] 주님께서 말씀하사 불신들에게도 당분간 은혜를 베풀었다가[3)] 불지옥으로 안내하여 비참한 종말이 되게 하리라

127.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집의 주춧돌을 세우며 주여 저회의 기도를 받아 주소서 주여 실로 당신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128. 주여 저회가 무슬림으로서 당신에게 귀의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

회 자손들도 무슬림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당신에게 귀의하도록 하여 주소서 당신을 경배하는 방법을 알려 주소서 저희들에게 관용을 베푸소서 실로 당신은 너그럽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129. 주여 그들 중에서 선지자를 택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1] 그들을 당신에게로 인도할 선지자를 보내 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청결케하여 주소서 실로 당신은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130.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반하는 자 곧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과 같나니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세상에 보냈으니 그는 내세에서 정의의 편에 있을 것이라

131. 주님께서 그에게 내게로 귀의하라고[1] 말씀하사 그는 온 누리의 주님에게 귀의하였다고 대답 하였더라

132.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종교를 따르라 하였고 야곱도[1] 그랬더라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종교를 선택하여 주셨나니[2] 그 안에서 무슬림으로 일생을 마칠 것이라

133. 야곱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지켜보고 있었나니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내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라고 물으니 당신의 신이며 당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유일신만을 경배하며 그 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더라

134. 이들은 지나가버린 민족이라 그들의 것은 그들이 얻은 것이요 너희들의 것은 너희들이 얻은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책을 받지 않을 것이라

135. 그들이 말하길[1]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그러나 일러 가로되 우리는 가장 올바른 아브라함의 종교를 따르노라 그분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었노라[2]

136. 이렇게 말해보라[1]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2]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것들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선별치 아니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할 따름이라

137. 너희가 믿는 것처럼 그들이 믿을 때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은 지옥에 빠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그들에 대항하도록 충만하게 할 것이니 그분은 들

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138.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나니 세례를 주심에 하나님보다 훌륭한 분이 누구이뇨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는 종들이라[1]

139. 일러 가로되 너희는 우리의 주님이요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관해 논쟁을 하느뇨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이 있고 너희에게는 너희의 일이 있노라[1]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노라

140.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유대인 혹은 기독교인들이라 말하느뇨 일러 가로되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느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증언을 숨기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가 누구이뇨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일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141. 이들은 지나가 버린 한 백성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따라 얻을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에 따라 얻을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문 받지 않을 것이라

142.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더라 그들이 예배하던 예배의 방향을 무엇이 바꾸었느뇨 일러 가로되 동서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으며 그분께서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라[1]

143.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중용의 한[1] 공동체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그 공동체의 증인이 될 것이며 선지자도 너희들을 위한 한 증인이 될 것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전에 향했던 기도의 방향을[2] 지정하셨나니 이는 선지자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자 함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커다란 시험이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좌절시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은 실로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라[3]

144.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한 그대의 얼굴을 보고 계시었노라 그대가 원하는 방향을 기도의 방향으로 하라[1] 그대의 고개를 영원한 경배의 장소로 향하라 어디에 있든 그 쪽으로 고개를 향하라 성서를 계시 받은 이들은 이 계시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2]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145. 그대가 성서의 백성들에게 모든 증표를 가져온다 해도 그들은 그대의 기도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요 너희도 그들의 기도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1] 서로가 서로의 기도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2] 너희가 알면서도 그들의 바램을 따른다면 그대 또

한 우매한 자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라

146. 성서의 백성들은 그들의 자손들을 알고 있듯이 무함마드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1] 숨기고 있노라

147.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이니 의심하지 말라[1]

148. 모든 인간은 그가 지향하는 목적이[1] 있나니 선을 행함에 서로 경쟁하라 너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실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권능을 갖고 계시니라

149. 그대가 어디로 여행을 하던 신성한 사원으로 고개를 돌리라 이것은 그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며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무관심하지 아니 하시니라[1]

150. 그대가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하던 그대의 얼굴을 신성한 사원으로 돌릴 것이며 너희가 어디에 있던 얼굴을 그 쪽으로 향하라[1] 사악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그대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나만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 위에 충만하게 하여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리라

151. 내가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지자로 택하여 너희들에게 나의 말씀을[1] 낭송하고 너희들을 순결하게 하며 율법과 지혜를 가르쳐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었노라

152. 나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것이라 그리고 내게 감사하되 거역하지 말라[1]

153. 믿는 자들이여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을 강구하라 실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라[1]

154. 순교자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들은 살아 있으나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155. 하나님은 두려움과 기아로써 재물을 축내고 생명을 잃게 하며 과실 수확을 축내어 너희들을 시험하되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주시니라

156. 재앙이 있을 때 오 주여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 있나니

157.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 그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158. 사파와 마르와 두 구릉은 하나님의 징표라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

여 대순례를 하거나 이 두 구릉 사이를 오가며 소순례를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스스로 선을 실천하는 자를 인식하시고 알아보시니라[1)]

159. 내가 성서[1)]에서 명시한 것과 사람들에게 설명한 진리를 감추는 자들을 저주할 것이며 저주할 힘을 가진 자들이 저주할 것이라

160. 그러나 속죄하고 개선하며 진리를 밝히는 자들은 제외 되나니 나[1)]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것이라 내가 바로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161. 믿음을 부정하며 불신자로 죽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진실한 사람들의 저주만이 있을 뿐이라

162. 그들은 지옥에서 영주하고 벌이 경감되지 않을 뿐더러 고통이 잠시도 모면 되지 않을 것이라

163. 너희들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는 신이 없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164. 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구별케 하셨으며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바다를 달리는 배들을 두셨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죽은 땅을 재생하시며 그곳에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퍼뜨리셨고 바람을 두시매 구름은 천지에서 하나님의 운용에 순종하나니 이것이 바로 이성을 가진 자를 위한 예증이라[1)]

165. 그러나 무리 중에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하나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은 우상 숭배자보다 더욱 강하니라 우매한 자들은 징벌을 맛볼 것이라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벌은 엄하시니라

166. 추종을 받던 자들이 그들을 따르던 추종자들과 의절하니 그들은 징벌을 맛볼 것이며 그들 사이의 모든 관계는 단절될 것이라

167. 추종자들이 말하더라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의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의절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에게 밝히시니 그들은 불지옥으로부터 피하지 못할 것이라

168. 사람들이여 지상에 있는 허용된 좋은 것을 먹되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실로 너희들의 적이니라

169. 실로 사탄은 너희게게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시키면서 하나

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바를 속삭이고 있을 뿐이라[1)]

170.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길을[1)] 따르라 하니 선조들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하더라 가로되 그들의 선조들은 지혜도 없고 안내도 못받지 않했더뇨

171. 불신자들을 비유하매 목동이 양떼를 고함질러 부르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로 밖엔 들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귀머거리요 벙어리며 장님이라

172.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양식 중에서 좋은 것을 먹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173.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말라[1)]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말라[2)] 그러나 자의가 아니고 어쩔수 없이 한계를 넘지 않는 분량을 먹었을 경우는 죄가 아니라[3)]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174. 하나님이 성서에서 계시한 것을 은폐하고[1)] 하찮은 것을 얻고자 이 것과 교환하는 자는 그의 배속에 유황불을 삼키는 자와 같으며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도 하지 않을 것이요 순화시켜 주지도 않으며 가혹한 벌만 내리실 것이라

175. 그들은 진리를 버리고 방황을 택하였으며 관용을 마다하고 벌을 원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 유황불의 벌을 이들이 얼마나 견디겠느뇨

176. 그것은[1)] 하나님께서 그 성서를 진리로 보내셨을 때 그 성서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이라

177. 동서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거늘[1)] 진정한 신앙인이란 하나님과 내세와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까운 친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과 여비가 떨어진 여행자와 자비를 구하는 자와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자신의 돈을 베푸는 자들이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며 약속했을 때 약속을 이행하고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길이며[2)] 이들이 바로 진실하게 사는 의로운 신앙인들이라

178. 믿는 자들이여 살인의 경우 자유인대 자유인 종복대 종복 여성대 여성으로 동등한 처벌규정이 계시되었노라 그러나 피해자의 형제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는 감사의 보상을 해야 되나니 보호자는 율법을 따를 것이라 이것은 너희 주님으로부터의 감형과 자비라 그러나 그후 범행을 저지른 자는 고통스러운 징벌을 받을 것이라[1)]

179. 이 동등한 처벌법은 생명을 보호함에 있나니 현명한 사람들이여 스스로를 자제할 것이라

180. 너희 가운데 죽음이 다가온 자는 재산을 남기게 되나니 부모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글로서 유서를 남기라[1]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신앙인의 의무라

181. 그러나 유언을 듣고서 그것을 변조하는자 있나니 변조하는 것은 죄악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182. 그러나 유언 작성자의 편견이나 부정이 염려된다고 생각하는 자 있다면 그가 두 당사자 사이를 화해시키라 이는 죄악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럽고 자비스러운 분이시라

183. 너희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1] 의무라 인내심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

184. 정하여진 날에 단식을 행하면 되나[1] 병중에 있거나 여행중에 있을 때는 다른 날로 대체하되 불쌍한 자를 배부르게 하여 속죄하라 그러나 스스로 지킬 경우는 더 많은 보상이 있으며 단식을 행함은 너희에게 더욱 좋으니라 실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2]

185. 인간을 위한 복음으로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라마단 달에 꾸란이 계시되었나니 그달에 임하는 너희 모두는 단식을 행하라 그러나 병중이거나 여행중일 경우는 다른 날로 대체하면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고충을 원치 않으시니라 그 일정을[1] 채우되 너희로 하여금 편의를 원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라

186. 나의 종들이 그대에게 나에 관해 물을때 나는 너희들 가까이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부름에 따르라 나를 믿는 자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리라[1]

187. 단식 날 밤 너희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녀들은 너희들을 위한 의상이요 너희들은 그녀들을 위한 의상이라[1]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2] 너희들에게 관용과 은혜를 베푸셨노라 그러나 지금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추구하고 하얀 실이 검은 실과 구별되는 아침 새벽까지 먹고 마시라 그런다음 밤이 올 때까지 단식을 지키고[3]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것이며 사원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한한 것이니 아내에게 가까이 하지말라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계시를 내리어 경건한

자가 되도록 하였노라

188. 허위로 너희 가운데 너희의 재산을 삼키지 말 것이며[1] 또 타인의 재산을 탐내어[2] 재물을 교만스럽게 재판의 미끼로서 사용치 말라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뇨

189. 그들이 그대에게 초생달에 관해 묻거든[1] 그것은 인간과 순례를 위한 시간이라[2] 말하라 너희가 뒷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의롭지 아니하며[3] 의로운 사람은 정문으로 오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190. 너희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적들에게 맞서 싸우되 그러나 먼저 공격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제 공격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1]

191. 그들을 발견한 곳에서 그들에게 투쟁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추방한 곳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하라 박해는 살해보다 더 가혹하니라[1] 그들이 신성한 사원에서 너희들을 살해하지 않는 한 그들을 살해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살해할 때는 살해하라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이라

192. 만약 그들이 싸움을 단념한다면[1]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 것이라

193. 박해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보장될 때까지 그들에게 대항하라[1]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니라 그들이 박해를 단념한다면[2] 사악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적대시 하지 말라

194. 살생이 금지된 달은 성스러운 달이거늘 살생을 금지하노라 위반자는 동등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너희를 공격할 때는 그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을 공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신앙인들과 항상 함께 하시니라[1]

195.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되 너희 스스로 파괴를 초래하지 말라 자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자선을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196. 하나님을 위해 대순례와 소순례를 행하라[1] 할 수 없을 경우는 네가 할 수 있는 제물을 바칠것이요[2] 그 제물이 제단에 오를 때까지는 머리를 깍지 말 것이며 너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머리에 상처가 있을 때는 머리를 깍아도 되나 단식으로써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혹은 제물을 바쳐 보상하도록 하라[3] 너희가 평안할 때 회망하는 자는 소순례로부터 대순례까지 계속하고 가능한 제물을 바쳐야 되며 만일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는 순례기간 중 삼일간을 단식하고 집에 돌아와 일곱 날을 더 단식하여 열흘을

채워야 하나니 이것은 성역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벌이 가혹하심을 깨달아야 하니라

197. 대순례는 명시된 달에 행하되[1] 순례를 행하는 자는 성욕과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이며 언쟁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 내세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되 가장 좋은 양식은 이성이 있는 자들의 정직한 품행이라 그러므로 현명한 자들아 나만을[2] 두려워 하라

198. 순례 중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강구하는 것은[1] 죄가 아니라 아라파트로부터 군집하여 나올 때 성비[2]에서 하나님을 염원하고 비록 이전에 우매한 자들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으니 그분을 기억하라

199. 그런후 사람들이 서두르는 곳으로부터 서둘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스러운 분이시라

200. 순례의 의식을 행하면서 너희 선조들에게 그랬던 것 보다 더욱 하나님을 염원하라 무리 중에는 하나님이여 현세의 축복을 주소서[1] 라고만 기도하는자 있으나 그들에게는 내세에서 몫이 없을 것이라

201. 또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나니 주여 현세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세에서도 축복하여 주소서[1] 그리고 불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202. 이들에게는 그들이 노력한 만큼 몫이 할당 되리니 하나님은 계산하심에 빠르시니라

203. 지정된 날[1] 하나님을 염원하라 이틀 전에 서둘러 떠났어도 잘못이 아니며 뒤늦게 떠났어도 잘못이[2] 아니거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너희가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204. 사람들 중에는 현세의 기쁜 말로 그대를 놀라게 할 무리가 있으리라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러나니 그는 논쟁을 일삼는 위선자라[1]

205. 그가 그대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를 입혀 재앙을 가져오려하나 하나님은 어떤 재해도 좋아하지 아니하시니라

206. 하나님을 공경하라 일렀거늘 거만으로 죄악을 낳았으니 악마의 휴식처인 지옥에서 기거할 것이라

207. 자신의 생명을 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무리가 있나니 하나님은 그 종을 사랑하시니라

208. 믿는 자들이여 이슬람으로 온전히 귀의하라[1] 그리고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야말로 사악한 자로 너회의 분명한 적이니라

209. 너회에게 말씀이 있었는데도 이슬람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을 너회는 알게 되리라[1]

210. 그들은 하나님이 구름의 그림자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너회들에게 강림함을 기다리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느뇨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니라[1]

21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분명한 증표를 그들에게 주었더뇨[1]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불신하니 실로 하나님의 벌이 가혹할 것이라

212. 속세의 삶이 불신자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을 조롱하더라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이 그들 위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분 의지에 따라 풍성한 양식을 주시니라[1]

213.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였으며 이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서 경고자로서 그곳에 보내셨노라[1] 또한 그들과 함께 진리의 성서를 보내어 이로 하여금 그들이 달리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더라 그 성서의 백성들은 분명한 증표가 있은 후 그들 사이에 아무 이견이 없었으나 불신자들의 증오는 그렇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들이 달리했던 것에 대하여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였나니 하나님은 그분의 뜻으로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를 인도하시니라

214. 너회 이전에 떠난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시련없이 너회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느뇨 그들에게 고통과 역경과 정신적 진통이 있었으니 선지자와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믿음이 진실한 자들도 언제 하나님의 승리가 오느냐고 묻더라 실로 하나님의 승리는 가까왔노라

215. 그들이 그대에게 어떻게[1] 자선을 베풀어야 하느냐고 물을 때 대답하여 가로되 부모를 위해서 친척과 고아와 구걸하는 자와 여행자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라

216. 비록 싫어하는 것이지만 너회에게 성전이 허락되었노라 그러나 너회가 싫어해서 복이 되는 것이 있고 좋아해서 너회에게 악이 되는 것이 있나니 하나님은 너회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217. 그들은 성스러운 달 동안에 살생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지니 그 기간에 살생은 죄악이라 하되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신성한 사원에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그곳으로부터 주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며 교사하고 박해하는 것은 살생보다 더 나쁜 죄악이라 그들은 너희가 너희의 종교를 배반할 때까지 너희들에 대항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너희 중에 믿음의 배반자가 되어 죽는 자가 있다면 그의 일은 현세와 내세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불지옥의 거주자가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이라[1)]

218. 믿는 자와 이주한 자와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나니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219. 술과 도박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 때 일러 가로되[1)] 그 두 곳에는 큰 죄악과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2)] 있으나 그것의 죄악은 효용보다 크다 이르되 또 그들이 무엇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하느냐고 물을 때 일러 가로되 그것은 여분이라 하여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계명을 주신 후 너희로 하여금 숙고하도록 하였노라

220. 현세와 내세에서 고아들에 대해 그대에게 물을지니 일러 가로되 그들을 위한 복지는 자선이며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을 행하는 척 하는 자들 중에서 해악을 의도하는 자를 알고 계시나니[1)]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리라 하나님은 실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21. 믿음이 없는 여성과 결혼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여성 노예가 믿음이 없는 매혹의 여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믿음이 없는 남성들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딸들을 결혼시키지 말라 믿음을 가진 노예가 믿음이 없는 매혹의 남성보다 나으니라 이들 모두는 지옥으로 유혹하니라[1)]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사 관용을 베푸시며 사람들에게 그분의 계시를 설명하나니 이를 기억하고 찬양하라

222. 사람들이 그대에게 여성의 생리에 관해 묻거든 이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일러 가로되 생리 중에 있는 여성과 멀리하고 생리가 끝날 때까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나 생리가 끝났을 때는 가까이 하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라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청결을 기뻐하시니라

223. 여성들은 너희들이 가꾸어야 할 경작지와 같나니 너희가 원할때 경작지로 가까이 가라 그리하여 씨를 뿌리되 너희 스스로를 위해

조심스러워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언젠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224. 선행이거나 정의의 일이거나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일이 아닌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225. 너희의 맹세속에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나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의도적 맹세는 책망하시니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226. 아내와 멀리하고자 하는 자는 사개월을 기다려야 되니라[1] 만일 그 간에 다시 돌아온다면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227. 만일 이혼을 하고자 맹세했다면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1]

228. 이혼한 여성은 삼개월을 기다리게 되나니[1] 이는 하나님이 태내에 창조한 것을 숨기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내세를 믿어 남편이 돌아올 의사가 있을 때 남편은 이 기간에 돌아올 권리가 있으며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나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하노라 실로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심이라[2]

229. 화해를 통한 두 번의 이혼은 허락되나 그 후의 두 당사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재결합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되며 너희가 그녀들에게 주었던 지참금을 되돌려 가져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두 당사자가 하나님의 법수행을 두려워 할 경우는 제외라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그녀가 그녀의 자유를 위해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두 당사자에게는 죄가 아니며[1]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 그러나 그 이상의 한계를 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자는 죄인들이라

230. 만일 한 남편이 세 번째로 이혼을 했다면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다시 새 남편이 그녀와 이혼할 때까지는 그녀와 결혼 할 수 없노라 그 경우에 그들이 재결합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나니 그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

231. 아내와 이혼을 하고 법정기간을 채웠을 때[1] 그녀들에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녀들을 자유롭게하여 줄 것이며 그녀들을 괴롭히기 위해 또는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 그녀들에게 돌아오지 말라 그것을 위반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우롱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말라 너회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서와 지혜를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너회에게 이를 권고하시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라

232. 아내와 이혼하고 법정기간을 채웠을 때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합당한 조건하에 그녀들이 전 남편들과 재혼하고자 한다면 이를 방해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신앙인들을 위한 교훈이며 그것은 또한 너회들을 위해 보다 고결하고 청결케 하기 위한 과정이라 하나님은 너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1)]

233. 어머니는 아버지가 원할 때 자녀들을 이년 동안 젖을 먹어야 되나니[1)] 이때 아버지는 그녀의 양식과 의복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노라 아무도 자신의 능력보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하노라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로 인해서 고생을 해서는 아니되며 아버지도 그의 자녀로 인해 고생을 해서는 아니되나니 상속인에게도 그와 마찬가지라 젖을 떼고 싶을 경우는 상호 동의에 따를 것이니 이는 당사자에게 죄가 아니라 너회가 유모에게 너회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도 정당한 사례만 지불하였다면 너회에게 아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는 너회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너회는 명심하라

234. 남편이 죽어 과부를 남길 때 그 과부는 사개월 십일을 기다려야 하노라[1)] 만약 법정기간에 이르렀을 때 과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에는 죄가 없나니 하나님은 너회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35. 이혼한 여성과 약혼을 하거나 마음에 뜻을 두는 것은 죄가 아니거늘 이는 하나님께서 너회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음을 알고 계심이라 그러나 기다리는 법정기간 동안에 비밀히 약혼을 해서는 아니되며 그 법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혼을 해서도 아니 되니라 하나님은 너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236. 여성과 동침하기 전에 또는 여성에게 지참금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혼을 하여도 죄가 아니나 그녀들에게 합당한 선물을 하라 부유한 자는 부유한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자기의 능력에 따르되 합당한 선물은 의로운 자들에 대한 의무라[1)]

237. 만일 너회가 그녀들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지참금을 결정한 후 이혼을 했다면 결정된 지참금의 절반을 지불해야 되거늘[1)] 그러나 여

성이나 보호자가[2] 양보한다면 제외라 또한 그 양보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 양자 사이에 서로가 관대할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38. 예배 시간들과 중간 예배[1] 시간을 지킬 것이며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2]

239. 만일 적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선 자세에서 또는 승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되 안전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이니라

240. 너희들 중에 아내를 남기고 임종하는 자는 아내를 위해 유언을 하고[1] 일년간 아내는 나가지 아니하고 부양을 받노라[2] 만일 그녀들이 스스로 떠나거나 스스로를 위해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한다 해도 죄가 아니거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현명하시니라

241. 이혼한 여성들에게도 능력에 따라 부양금을 주어야 하거늘 이것은 의로운 신앙인들의 의무라

242. 이와같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계율을 밝히셨나니 너희는 이해할 것이라

243. 수천의 무리가 죽음이 두려워 그들의 집을 떠난 이들을 보지 아니했느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교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시 소생하리라[1] 하셨노라 실로 하나님은 인류에 은혜를 베푸시나 많은 백성들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

244.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라[1]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245. 하나님을 위해 빌려준[1] 그에게 수십 배의 보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궁핍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니라 너희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246. 모세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의 얘기가 그대에게 이르지 아니했느뇨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장들이 예언자에게[1] 우리에게 한 분의 통치자를 보내 주소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 적에 대항하여 성전하리라 하더라 예언자 가로되 그러나 성전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너희는 성전하지 아니하려 하였더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의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추방된 우리가 왜 성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나 성전 참여를 명령받았을 때는 도주하고 남은 사람은 소수였더라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알고 계시니라

247.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너회에게 사울을 왕으로 보냈노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그보다 탁월한데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한단 말이요 그는 재산도 넉넉하지 못하오 그분이[1] 이르되 너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니 그에게 풍부한 지혜와 신체를 주셨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권능을 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48.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의 권능의 한 증표로 너회에게 계약의 상자가 오니[1] 그 안에는 너회 주님으로부터의 평안과 모세의 가문과 아론의 가문이 남긴 것으로 천사들이 운반한 성물이 있더라 너회가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너회들을 위한 징표가 그 안에 있을 것이라

249. 사울이 군대를 지휘하여 나가며 이르길 하나님이 강에서[1] 너회를 시험하사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맛보지 아니한 자만이 나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러나 한줌의 물을 뜨는 것은 예외라 그런데 소수를 제외한 무리가 그것을 마셔버리더라 그리하여 그 강을 건널 때 사울과 그를 따라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말하길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그의 군대에 대항할 힘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리라 확신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수이더라도 대부대를 정복한 적이 있지 않더뇨 하나님은 인내한 자와 함께 하시니라

250. 그들이 골리앗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진격했을 때 그들은 기도하였더라[1] 주여 저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거점을 확보하여 주시며 불신자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25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패배시키고 다윗은 골리앗을 살해하였으며[1]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더라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여 인류를 보호하지 아니했다면 이 지구는 멸망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한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라

252. 이것이 그대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

253. 이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은혜를 베풀었나니 어떤 선지자와는 직접 대화를[1] 하셨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위상을 높이 주셨더라[2]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명백한 징표를[3] 주어 그를 성령[4]으로 강하게 하셨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 있은 후 다음 세대들은 서로 싸우지 아니했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의견을 달리했으니 그들 가운데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있었노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은 싸우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니라

254.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양식으로 자선을 베풀라 심판의 날이 오면 그 때는 상거래도 우정도 중재도 아무 효용이 없나니 이를 배반한 자 진실로 우매한 자들이라

255.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노라 졸음도 잠도 그분을 엄습하지 못하노라[1]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그분의 허락 없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수 있겠느뇨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그들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허락한 것 외에는 그분의 지식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르니라[2] 권자가 천지에 펼쳐져 있어 그것을 보호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시니 그분은 가장 높이 계시며 가장 거룩하시노라

256. 종교가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니라[1] 진리는 암흑으로부터 구별되노라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끊기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을 잡은 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57. 하나님은 신앙인의 보호자로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의 보호자는 사탄들로 광명에서 암흑으로 유혹하매 그들은 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주할 것이라

258.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었다 해서 그의 주님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논쟁을 하려 하느뇨 이때 아브라함 가로되 나의 주님은 생명을 부여하고 또 생명을 앗아가는 분이시라 하니 이에 그가 대답하길 내가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노라 이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분은 동에서 태양을 뜨게 하시니 당신은 서쪽에서 태양이 뜨도록 하라 하니 믿음을 불신한 그들은 당황하였노라 하나님은 죄지은 자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1]

259. 황폐한 촌락을 지나는 사람을 비유하여 말하길[1]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소생시킬 것인가[2] 라고 물으니 백년 전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여 그를 다시 소생시킨 후 주님께서 너는 얼마동안 체류했느뇨 라고 물으니 그 사람 말하되 하루나 반나절 체류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 주님께서 이르시길[3] 너는 백년을 체류하였노라 하시며 너의 음식과 음료수를 바로 보라 이는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너의 당나귀를 보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금

인류를 위한 증표로 하셨노라 뼈들을 보라 어떻게 그 뼈들을 맞추어 그 위에 살을 부합시켰는가 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말하길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더라

260. 이때 아브라함이 강구하기를 주여 죽은 자를 어떻게 소생시키나이까 이에 가로되 네가 믿지 못하겠느뇨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가로되 네 마리의 새를 잡아 그들을 길들여 각 언덕 위에 두고서 그들을 다시 불러 보라 그 새들이 서둘러 너에게로 오리라 그리하여 권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리라[1)]

261.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한 알의 밀 알과 같으니 이 낟알이 일곱 개의 이삭으로 번식할 것이요 매 이삭마다 백여 개의 낟알로 풍성하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그 분이 원하는 자에게 몇 배의 보상을 베푸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1)]

262.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바치되 그 재산을 바라지 아니하며 모욕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보상이 있으며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263. 겸손한 말 한마디와 관용은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자선보다 좋으니라 하나님은 풍요하시고 관대하신 분이시라

264.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네가 바치는 자선을 상기시키거나 모욕하여 이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는 곧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선을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하나님과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그들은 매끄러운 돌과 같나니 그 위에 한줌의 흙이 덮여 있으나 폭우가 내려 그것을 쓸어가 버리고 벌거벗은 돌만 남은 것과 다를 바가 없노라 그리하여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하나님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265.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바치고 그들의 마음이 강직함은[1)] 기름진 과수원과 같아 많은 비가 내려 곱절의 수확을 거두게 하니라 만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벼운 습기로 적셔주시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266. 너희 가운데 종려나무와 포도나무가 자라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며 모든 종류의 열매가 열리는 과수원을 갖고 있으나 인생이 늙고 자식들이 어려 돌보지 못해 강한 폭풍우에 휩싸여 유황불의 밥이 될 희망자가 있겠느뇨 그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징후를 밝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노라[1)]

267.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얻는 좋은 양식 가운데서[1]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땅으로부터 거둬주신 것 가운데 좋은 것으로 자선을 베풀 것이며 너희가 눈을 감지 않고는 받지 아니하는 나쁜 것으로 베풀지 말라 하나님은 풍요로우시고 훌로 영광받을 분이시라

268. 사탄은 빈곤으로써 너희를 위협하여 악을 행하도록 명령하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용서와 은혜를 약속하셨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69.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그리고 지혜를 받을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라 진실로 은혜가 넘쳐흐르나 이성을 가진 자 외에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

270. 너희가 자선으로 베풀었던 것과 너희가 결심한 신앙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므로 우매한 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노라

271. 너희가 자선을 공개하는 것도 좋으나[1]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이 더 좋으니라 이는 너희의 죄를 속죄하여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72.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그대의 의무가 아니거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니라[1] 너희가 베푼 선행은 너희 스스로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선이라 너희가 베푼 선행은 너희에게 충만하여 돌아오나니 너희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라

273. 자선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있나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의 여행에 제한을 받아 지상에서 일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있노라 지각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1] 궁핍하지 아니하다 생각하나 이는 그들의 겸손 때문이라 너희들은 표적으로 그들을 알 수 있나니 그들은 집요한 구걸을 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너희가 베푸는 모든 자선을 다 알고 계시니라[2]

274. 언제나 밤낮으로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며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275. 고리대금을 취하는 자들은 악마가 스침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면서 말하길 장사 또한 고리대금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상거래는 허락하였으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리대금업을 단념한 자는 그의 지난 모든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라 그러나 고리대금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있다면 그들은 지옥의 동반자로써

그곳에서 영주할 것이라[1]

276. 하나님은 이자의 폭리를 제거하고 자선의 행위에 축복을 더하시며 사악한 모든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277.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두려움도 슬픔도 갖지 않을 것이라

278.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는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하라

279. 만일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면 원금은 갖되 부정을 저지르지도 말고 부정을 당해서도 아니 되니라[1]

280. 채무자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지불을 연기하여 줄 것이며 더욱 좋은 것은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 부채를 자선으로 탕감하여 주는 것이라

281.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어느 날을 두려워하라 모든 인간은 자기가 얻은 것으로 대가를 받게 되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하게 대접받지 않을 것이라

282. 믿는 자들이여 일정기간 채무를 계약할 때는 서식으로 기록하되[1] 양자 사이에 서기로 하여금 공정하게 쓰게 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시니 기록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아니되며[2] 또한 채무를 진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쓰게 할 것이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라 당사자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허약하여 받아 쓸 능력이 없을 경우는 그의 후원자로 하여금 공정하게 기록하도록 하라 그리고 두 남자의 증인을 세울 것이며 두 남자가 없을 경우는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선택하여 증인으로 세우라[3] 한 증인이 잘못 한다면 다른 증인이 기억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 증인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거절하지 말라 그 계약의 기간 또는 규모가 적던 크던 기록하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다 옳은 것이며 증거로써 보다 적합하며 서로간의 의심을 없애는 보다 편리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즉석에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기록을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나 상거래일 때는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이나 서기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말라 만일 손상이 있다면 너희가 사악한 자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83. 너희가 여행중이거나 서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신탁을 하면 족

하니라 서로가 신뢰 할 수 있다면 수탁자로 하여금 그의 위탁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라 그리고 증언을 감추지 말라 숨기는 자마다 그의 마음은[1] 죄악으로 얼룩지게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84. 하늘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며 너희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밝히거나 숨기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계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한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행하실 권능을 갖고 계시니라

285. 선지자는 주님이 계시한 것을 믿으며 또한 믿음을 가진 자도 그와 마찬가지라[1] 그들 각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믿으며 말하길 우리는 선지자들을 차별[2]하지 아니하며 듣고 복종하며 당신에게 용서를 빕니다 주여 여정의 종말을 당신에게로 돌리나이다

286.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지우지 아니 하시니라[1] 인간은 그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으며 그가 저지른 것으로 대가를 받을 것이라 주여 망각을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희를 벌주지 마옵소서 주여 저희의 선조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처럼 저희가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저희가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짐만 지우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 주소서 당신은 저희의 보호자이시니 불신자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2]

제 3 장
수라트 알 이므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밈[1)]

2.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니라[1)]

3.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내리셨고 앞서 온 것을 진리로 충족하면서 그대에게 꾸란을 계시하노라

4.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라 그리고 옳고 그름의 지침서라[1)]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반하는 자 있다면 그들에게는 가혹한 벌이 내려질 것이라 하나님은 강하사 그들을 패배하게 하시니라

5. 천지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은폐될 수 없노라.

6.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궁속에서 너희를 만드시니[1)]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7. 그대에게 꾸란을[1)] 계시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는 근본의 말씀이 있어 성서의 모체가 되고 다른 것은 비유적이라 그러나 마음속에 의심을 가진 자들은 비유적인 것을 따라 이설을 조성하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을 갈구하나[2)]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하노라 어떤 지식에 인식되어버린 자들은 우리는 그것을 믿나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왔나이다 라고 말하나 지식을 가진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노라

8. 주여 당신께서 저희를 인도하신 후 저희의 마음이 방황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내려 주소서 진실로 당신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9. 주여 당신은 의심할 바 없는 어느 날에 모든 인간을 한곳에 모이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 하시니라[1)]

10. 믿음을 배반한 그들의 재산과 자손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용이 되지 못하고[1)] 불의 연료가 될 것이라

11. 파라오의 백성들과 그 이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불신 했

으매[1]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을 포획하셨으니 하나님의 벌은 가혹하시니라

12. 믿음을 부정한 자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곧 멸망하여 악마의 거주지인 지옥에 모이게 되리라 말하라[1]

13. 이미 너희를 위해 계시가 있었노라 두 부대가 전쟁을 하매 한 부대는 하나님의 길에서 싸웠고 다른 부대는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숫자는 곱절이었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승리를 거두시니 실로 이것은 눈을 가진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1]

14. 여성들과 자녀들과 금은 보화들과 말들과 가축들과 농경지들은 인간의 현세적 즐거움으로 장식되었으니 이것들은 현실생활의 즐거움이라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보다 즐거운 안식처라[1]

15. 그것[1]들보다 훨씬 좋은 복음을 내가 그대에게 주리니 일러 가로되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위한 천국이며 그 밑에는 강이 흐르고 티없는 배우자와[2]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6. 그들은 말하길 주여 저희는 믿나니[1]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지옥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17. 이들은 인내하는 자들이며[1] 진실한 자들이며[2] 순종하는 자들이며[3] 자선을 베푸는 자들이며[4]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까지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라

18. 하나님께서 증거하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천사들과 학자들도 전지전능하신 그분 외에는 신이 없음을 증거하노라[1]

19.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 뿐이며 이전에 성서를[1] 받은 자들도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하였으나[2] 그후 그들에게 그른 지식이 도래하였더라[3]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 있다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20. 만일 그들이 그대에게 논쟁한다면 일러 가로되 나는 하나님께 귀의하였으며[1] 나를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노라 성서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2] 일러 가로되 너희는 귀의하였느냐고 말하라 만약 그들이 귀의한다면 그들은 옳은 길로 인도될 것이며 그들이 등을 돌린다해도[3] 그 계시를 전하는 것은 그대의 의무이니라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21.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예언자들을 부당하게 살해하며[1]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살인하는 자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벌이 내려질 것이라[2)]

22. 그들의 일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도 무의미할 것이며 그들을 도와 줄 자가 아무도 없노라

23. 너희는 성서의 일부를[1)] 받은 그들을 보지 아니하였느뇨 그들의 분쟁이 하나님의 성서로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촉구되었으나 그들 일부는 뒤돌아서 반대하더라

24. 그들이 말하길 그 불은 우리를 스치지 아니할 것이며 스치더라도 단지 한정된[1)] 며칠간에 불과하리라 이렇듯 그들이 종교에 관해 지어낸 말이 자신들을 배반하였더라

25. 그러나 하나님이 의심할 바 없는 하루를 대비하여 그들을 모았을 때[1)]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뇨 각자는 그들이 얻은 것만큼 대가를 받되 불공평한 보상은 받지 않노라

26. 일러 가로되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권능을 주시기도 하고 권능을 빼앗기도 하시며 또 영광과 천함을 주시나니 당신의 손안에 모든 영광이 있나이다 진실로 당신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1)]

27. 당신은 밤을 낮으로 하고 낮을 밤으로 하시며 죽은 것을 살게하고 살아 있는 것을 죽게 하시며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8. 신앙인들은 믿는 자들에 우선하여 불신자들을 친구로 택하지 아니하노라[1)] 그렇게 하는 자 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는 자라 항상 경계하여 그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는 길밖엔 없노라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을 기억케 하여 주시니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니라

29.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나 들어내는 것을 모두 아시며 또한 천지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30. 모든 사람이 행하였던 선과 저질렀던 악이 나타나는 그 날에[1)] 각자는 그것과 그것 사이에 굉장한 공간의 거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징벌로써 너희에게 경고하시니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31.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1)] 따를 것이라 그리

하면 하나님께서 너회를 사랑하사 너회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32.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라[1] 하였으니 이를 거역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33.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므란의 가족을 선택하셨노라[1]

34. 그들은 서로가 한 후예들이거늘[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35. 이므란의 여성이[1] 말하길 주여 저의 태내에 있는 것을 당신에게 바치겠나니 이를 받아 주소서[2] 당신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36. 그녀가 분만을 하고서 말하길 주여 제가 여자 아이를 분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녀가 분만한 것을 잘 아시노라 남자가 여자와 같지 아니하니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1]라 하였나이다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자손들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2]

37. 주님께서 그녀를 수락하사 그녀가 순결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사가라[1]로 하여금 돌보도록 하셨노라 그가 그녀[2] 가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마다 그녀에게 먹을 양식[3]이 있음을 발견하고서 말하길 마리아여 이것이 어디서 왔느뇨 라고 하니 그녀가 말하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풍성한 양식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38. 그런 후 사가라는 주님께 기도하며 말하길 주여 훌륭한 당신의 자손을 제게 주옵소서 당신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나이다[1]

39. 그가 그 방에 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께서 요한[1]으로 하여 너에게 소식을[2] 전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아이가 잉태하여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의로운 한 예언자가 되리라

40. 그가 말하길 주여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나이까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으며[1] 저의 아내는 임신을 못하나이다 이에 천사가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41. 그가 말하길 주여 저에게 증표를 주옵소서 이에 천사가 말하길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몸짓 외에는 삼일간을 말하지 말며 항상 너의 주님을 염원하고 조석으로 그분을 영광되게 하라

42. 또 천사가[1]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사 순결하게 하

였으며 이 세상 모든 여성들 위에 두셨노라[2)]

43. 마리아여 경건한 자세로 너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허리 굽혀 예배하라

44. 이것은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보이지 않는 복음의 일부이거늘[1)] 누가 마리아를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이 화살을[2)] 던졌을 때 그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에 관해 논쟁을 할 때도 그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 하였노라

45. 천사들이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주시니 마리아의 아들로써 그의 이름은 메시아[1)] 예수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서 훌륭한 주인이시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가운데 한 분이라

46. 예수는[1)] 요람에서 그리고 성장해서[2)]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것이며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47. 그녀가 말하길 주여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남자도 저를 스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렇게 되리라 그분이 원하시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있어라 그러면 그것이 있게 되니라

48. 하나님은 예수에게 성서와 지혜와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시어

49.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로 보내니 그가 말하길 나는 주님으로부터 증표를 받았노라 내가 너회를 위하여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숨을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새가 될 것이라[1)]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는 장님과 문둥이들을 낫게하며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죽은 자를 살게하며[2)] 너회가 무엇을 먹으며 너회가 무엇을 집안에 축적하는지를 너회에게 알려 주리라 너회가 믿는 자들이라면 그 안에 너회를 위한 증표가 있노라[3)]

50. 내 이전에 율법이 있었음을 확증하고 너회에게 금지되었던 몇 가지를 허용하기 위해 내가 너회에게 왔으며[1)] 주님으로부터 증표를[2)] 너회에게 가져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할 것이라

51.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자 너회들의 주님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

52. 예수가 그들의 불신을 알고 소리쳐 가로되 누가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따를 것인가 그들이[1)] 대답하길 저회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임을 증언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53. 주여 당신이 계시한 것을 믿사오며 당신이 보낸 선지자를[1] 따르나이다 저희들을 증언자 가운데[2] 있게하여 주소서

54. 저들이[1] 음모를 꾸미나 하나님은 이에 대한 방책을 세우셨으니[2]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계획자이십니다

55. 하나님이 말씀하사 예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게로 승천하게 한 후 너를 다시 임종케 할 것이라[1] 불신자들로부터 너를 깨끗하게 하여 너를 따르는 자 있다면 부활의 그 날까지 불신자들 위에 있게 하리라[2] 그런 다음 너희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나니 너희가 달리한 것에 대하여[3] 내가 가름하리라

56. 불신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가혹한 징벌을 내릴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

57.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신앙인들이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베풀 것이나 죄인들은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58. 이것이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말씀이며 지혜요 복음이라

59.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가 없노라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빚어 그것에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가 있었노라[1]

60. 예수에 관한 소식은[1]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이거늘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2]

61. 그대에게 지식이 이른 후에도 예수에[1] 관하여 논쟁을 하는 자가 있다면 일러 가로되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과 너희의 자손들과 우리의 여성들과 너희의 여성들과 우리 자신들과 너희 자신들을 함께 소집한 후 주님께 기도하여 거짓말 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벌이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2]

62. 참으로 이것은 사실이거늘[1]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노라 실로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라

63.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실로 하나님은 이단자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64. 성서의 백성들이여 우리나 너희들을 막론하고 똑같은 하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고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 비유하지 말 것이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님과 비교하지 말라 일러 가로되 만일 그들이 배반한다면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무슬림임을 지켜보라고 하라[1]

65.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브라함에 대해 논쟁을[1] 하느뇨 구약이나 신약은 그분 이후에 계시되었음을 너희들은 알지 않느뇨

66. 너희는 알고 있는 것에 관하여도 논쟁을 하느뇨 그러면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않느뇨[1] 하나님은 알고 계시나 너희는 알지 못하노라

67.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성실한 무슬림이었으며 우상을 숭배한[1] 분도 아니었노라

68. 아브라함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를 따랐던 신앙인들로 선지자와[1]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라[2]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보호자이시라

69. 성서의 백성 중에 한 무리가 너희들을 방황하게 하려하나[1] 그들은 자신들을 방황케 하였노라 그리고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더라

70.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느뇨 너희는 그것이 진리임을 알지 않느뇨

71.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왜 진실과 허위를 혼동시키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1] 감추려 하느뇨

72. 성서의 일부 백성들이 말하길 아침에는[1] 믿는 자들에게 계시된 것을 믿되 저녁에는 그것을 불신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더라

73. 또 너희들의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말라 하니 진실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 계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계시를 받을 그들이 너희들의 주님 앞에서 논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유대인들 서로가 말하니 그들에게 말하라 실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있어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74.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위대한 은총의 주님이시라

75. 성서의 백성들 중에는 천금을 보관하여도 그것을 돌려주는 무리가 있고 일전을 보관하여도 요구하지 아니하면 돌려주지 않는 무리가 있더라[1] 그리고서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길 우리는 문맹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노라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노라

76.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77.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종교를 팔아 하찮은 대가를 얻은[1] 자들은 내세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아니 하시며 부활의 날에는 눈길도 주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여 주지도 아니 하시고 참혹한 징벌만 내리시니라

78. 유대인들 중에는[1] 자신들의 혀로 성서의 내용을 왜곡하여 그것이 성서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무리가 있으나 그것은 성서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은 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늘 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2]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노라

79. 하나님으로부터 성서와 지혜와 예언자의 직분을 부여받은 예수가[1] 백성들에게 말하길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를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학자가 되어 성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라고 하였노라[2]

80. 너희에게 천사들이나 예언자들을[1]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이 경배하지 말라 했거늘 무슬림이 된 너희로 하여 불신하라고 명령했단 말이뇨

81. 하나님이 예언자들로부터 약속을 받고 성서와 지혜를 주셨노라 한 선지자가 진리와 함께 너희에게 올 것이니 그를 믿고 그를 도울 것이라[1] 너희는 이에 동의하느뇨 너희들에 내린 나의 말씀을 지키겠느뇨 그들이 대답하길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증언하라 내가 증인으로써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82. 이후로 배반하는 자 있다면 그들은 이단자들이라

83. 그들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이 싫든 좋든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종교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단 말이뇨

84. 일러 가로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내려진 계시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진 법을 믿으며 모세와[1] 예수와[2]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법을 믿으며 예언자들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노라

85. 이슬람 외에[1]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86. 믿음을 가진 후 선지자가 증인으로 오셨을 때[1] 분명한 증표들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불신하는 백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겠느뇨 하나님은 우매한 백성들을[2]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87. 그들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의 저주만 있을 뿐이라

88. 그들은 그 저주 속에서 영생할 것이요 징벌이 감소되지 아니하며 고통이 일시도 모면되지 않을 것이라

89. 그러나 회개하고 개선하는 자는 제외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90. 믿음을 가진 후 배신을 하고 배신에 배신을 일삼는 자는[1] 그들의 회개가 수용되지 않나니 그들은 길을 잃고 방황자가 될 것이라

91. 하나님을 불신하고 죽은 자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금으로 가득찬 지구를 바친다 하더라도 수락되지 않을 것이라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내려질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는 한명의 원조자도 없을 것이라

92. 너희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 때[1] 너희는 진실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베푼 자선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라

93. 구약이 계시되기 이전에는 모든 음식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되어 있었으나[1]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금기한 것이 있었노라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약을 읽어보라

94. 그런후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조성하는 자 있다면 그들은 죄인들이라

95. 일러 가로되 하나님은 진리를 밝히셨나니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라[1] 그는 불신자 무리 중에 있지 않했노라

96. 최초의 집이[1] 인류를 위하여 세워졌나니 이는 축복 받는 박카에[2] 있으며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축복이요 길이라

97. 그 곳에는 증표로써[1] 아브라함의 성소가 있나니 그곳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 안전할 것이며 능력이 있는 백성에게는 순례를 의무로 하셨노라 그러나 믿음을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절대자임을 보여 주실것이라

98. 성서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계시를[1]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뇨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99. 성서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인들을 방해하며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이뇨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뇨

100. 믿는 자들이여 만일 너희가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한 분파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너희의 신앙을 불신자로 만들 것이라

101. 하나님의 계시가 너희에게 낭송되고 그분의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그분을 불신 한단말이뇨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광명의 길로 인도되리라

102.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1] 그리고 무슬림으로써 임종하라

103. 모두가 하나님의 동아줄을[1] 붙잡으라 그리고 분열하지 말라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라 너희가 서로 적이었다면[2]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희 마음들이 하나 되어 한 형제가 되게하여 주실것이며 만일 너희가 지옥의 문턱에 있었다면 그로부터 구원하여 주실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계시를 밝히셨나니 너희는 광명으로 인도되리라

104. 그럼으로 너희는 한 공동체가 되어 선을 촉구하고 계율을 지키며 악을 배제하라 실로 그들이 번성하는 자들이라[1]

105. 계시가 그들에게[1] 있었는데도 분열하며 분쟁을 일삼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이라

106. 심판의 날 하얗게 되는 사람과 검게되는 사람이 있나니 얼굴이 검게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후 배반한 자로 이에 대한 재앙을 맛볼 것이며[1]

107. 얼굴이 하얗게 되는 자들은[1] 하나님의 자비가운데 들게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108.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거늘 그분은 그것을 그대에게 진리로써 낭송하도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모두에게 공정하시니라

109.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되니라

110. 너희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백성이라[1] 계율을 지키고 악을 배제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으라 만일 성서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더라면[2] 그들에게 축복이 더했으리라 그들 가운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자도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사악한 자들이더라

111. 그들은 하찮은 것 외에는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만일 그들이 너희들에게 싸우려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뒤돌아설 것이니 그

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노라

112. 그들이 어느 곳에서 발견되던 그들 위에 치욕스러움이 내려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동아줄이나 사람들의 보호속에 있는 자들은[1] 제외라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했으니 그들 위에 빈곤함이 내려지도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예언자들을 부당하게 살해하였으며[2]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대가라

113. 그들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니거늘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는 충실한 무리가 있어[1]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며 밤을 지새우는 참 신앙인도 있노라

114. 그들은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으며 선을 실천하고 추악함을 피하며 선행에 경쟁을 하나니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 계열에 있더라

115. 그들이 행하는 선행가운데서 어느 무엇도 거절되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116. 실로 믿음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재산과 자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하여[1] 아무런 효용이 없거늘 그들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117. 그들이 현세에서 베푼 것은 마치 살을 에이는 추위를 실은 바람이 자신들을 우롱한 백성들의 농작물을 망쳐 놓은 것과 같도다[1]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우롱한 것이라

118. 믿는 자들이여 불신자들을[1] 친구로 택하지 말라 그들은 너회를 해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들은 단지 너회가 파괴되기를 바랄 뿐이라 그들의 입들에서 증오가 발산되며 그들의 마음은 더욱 사악하도다 하나님은 너회에게 그 말씀을 설명했나니 지혜가 있다면 알게 될 것이라[2]

119. 너회는[1] 그들을 사랑하느뇨 그러나 너회가 그들의 모든 성서를 믿는데도 그들은 너회를 사랑하지 않도다 그들이 너회를 만날때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나 홀로 있을 때 그들은 너회에게 그들의 손가락을 깨물며 분노하니 일러 가로되 너회의 노여움으로 멸망할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들을 다 알고 계시니라[2]

120. 어떤 행운이 너회에게 있을 때 이것은 그들을 슬프게 하며 어떤 불행이 너회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기뻐하나니 너회는 항상 인

내하고 정의에 살라 그들의 교활은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121. 그대가 이른 아침 가족을 떠나 전쟁터에 나가 신도들을 배치하며 적과 싸웠던 것을 상기하라[1] 하나님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122. 너희 가운데 두 무리가[1] 불안해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었나니 믿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노라

123. 하나님은 바드르 전투에서 너희가 소수인데도 승리토록 하였노라 그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사하라[1]

124. 너희 동료들에게 말한 것을 상기하라 너의 주님께서 삼천명의 천사들을 보내 너희들을 승리케 했던 것이 너희에게 흡족치 않더뇨

125. 이렇듯 너희가 인내하고 정의에 산다면 적이 갑자기 너희를 공격하더라도 너의 주님께서는 오천명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제압하리라

126.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복음을 준비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너희 마음을 평안케 하라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나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1]

127.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무리를 멸하시거나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좌절케하여 돌아가도록 하니라[1]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벌을 주는 것은 그대에 관한 일이 아니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1]

129.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귀속하여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관용을 베풀거나 그분의 뜻에 따라 벌이 있나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30. 믿는 자들이여 이자를 거듭하여 삼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성하리라[1]

131. 불지옥을 두려워 하라 이는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니라

132.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라

133. 서둘러 너희 주님께 회개하라 천국은 하늘과 땅처럼 넓으나 이는 정의에 사는 백성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

134. 부유함과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자선을 베풀되 노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라

135.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염원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1]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느뇨 그리고 저질렀던 잘못을 지속하지 말라

136. 그들에게 보상이 있어 주님의 관용이 있을 것이며 물이 흐르는 천국이 있어 그곳에서 영생하며 무한한 은혜가운데 있을 것이라[1]

137. 너희 이전에 멸망한 자들의 흔적이[1] 있었거늘 이 땅위를 여행하며 살펴보라 진리를 거부한 자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알 것이라[2]

138. 이것이[1] 인류에게 내린 말씀이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요 교훈이라

139. 그럼으로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믿는 신앙인이라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

140. 너희가 상처를 입었다면[1] 그 백성들도 그만큼 상처를 받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흥망성쇠 이거늘 하나님은 믿는 신앙인들을 알고 계시어 너희 가운데서 순교자들을 택하시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141. 이렇게하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순결케[1] 하사 불신자들은 멸망케 하시니라

142.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느뇨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노력하는 자와 인내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143. 너희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음을 원했을 때가 있었으리라 이제 너희들은 그것을 너희 눈으로 지켜보리라

144. 무함마드는 한 선지자에 불과하며 그 이전 선지자들도 세상을 떠났노라[1] 만일 그가 죽거나 혹은 살해당한다면 너희는 돌아서겠느뇨 만약 어느 누가 돌아선다 하더라도 조금도 하나님을 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라

145.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죽지 아니하며 그 기간은 기록되어 있노라 누구든지 현세의 보상을 원하는자 있다면 그에게 보상을 줄 것이요[1] 누구든지 내세의 보상을 원하는자 있다면 그에게 보상을 줄 것이며 또 감사하는 자들에게도 보상을 주리라

146.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였더라[1]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어려운 일에 부디칠 때도 실망치 않고 허약하지 아니하였으며 항복하지도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실로 인내하는 자들을 사랑하심이라

147.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이러하였노라 주여 저희의 죄와 과오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발길을 고정시켜 주옵시고 불신자들의 무리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48. 그리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세의 보상과 내세의 보상을 주셨나니 하나님은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심이라

149.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불신자들에게 복종한다면 그들은 발꿈치로 너희를 돌려 보내리니[1] 너희는 믿음에서 벗어나 손실을 보게 되리라

150. 그러나 하나님만이 너희를 위한 보호자요 가장 훌륭한 원조자이시라

151.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심중에 공포를 불어 넣으리라 이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과 비유하려 했기 때문이라 불지옥이 그들의 거주지가 되며 재앙이 우매한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152.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을 이행하사 너희가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을 전멸하였노라 그때 너희는 절망에 있었고 질서가 붕괴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탐내는 것을 주었는데도 선지자의 명령에[1]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 가운데는 현세를 원하는자가 있었고 또 너희 가운데는 내세를 원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그들 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분은 너희를 사하여 주사 믿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총을 주시노라

153. 너희가 언덕에 올라 어느 누구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했을 때 너희 뒤에 계시던 선지자께서 너희를 부르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슬픔과 슬픔으로 보상을 주시었으며[1] 너희가 잃은 것과 너희에게 닥친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 하시었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154. 이 슬픔 이후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으니 너희들 가운데 무리는[1] 평온을 찾았으나 다른 무리는 근심으로 동요되어 있었노라[2] 무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하더라 가로되 모든 것

은 하나님 권능안에 있다 말하라 그들은 마음속에 숨기고 밝히지 않는 것이 있노라 우리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살해되지 않했을텐데 라고 말들하나 일러 가로되 너희가 만일 너희집에 있었다 하더라도 살해되었거나 또한 임명된 그들은 죽음터로 분명히 갔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심중에 있는 것을 시험하여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화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니라

155. 두 무리가[1] 만나는 날 너희 가운데 등을 돌렸던 자들을 헛되게 한 것은 사탄이며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2]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56.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위선자가 되어 멀리 떠나는 자에게 또는 전쟁에 나가는 자에게 만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했다면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살해되지도 안했을텐데 라고 그들 형제에게 말하지 말라[1] 하나님은 그들 심중에 고뇌를 심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고 앗아가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라

157. 하나님의 길에서 살해 당했거나 죽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관용과 자비가 있을지니 이는 생전에 축적한 것보다 나으리라[1]

158. 만일 너희가 죽었거나 살해 당했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159.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대는 그들을 인자함으로 대하였노라[1] 만일 그대가 혹독하고 가혹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그대로부터 멀어져 갔을 것이라 그들을 인자하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며 일을 다룰 때는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라 만일 결정을 했을때는 하나님께 구원하라 하나님께 구원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을 받노라

160. 하나님이 너희편에 있을 때 아무도 너희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를 거두실 때 누가 너희를 돕겠느뇨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의지하라[1]

161. 예언자가 결코 믿음을 배반하지 않거늘 위선을 하는 자가 있다면 심판의 날 그가 위선했던 것이 함께 오니라 인간은 그가 축적한 모든 것을 되돌려 받되 불공평하지 않노라[1]

162.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같을 수 있느

뇨 그들은 지옥에서 거주할 것이며 불행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

163.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다른 보상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64.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들을 세제하며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 주시었노라 실로 그들은 분명히 방황하고 있었더라

165. 너희가 재앙을 입었을때 그들은 두배 이상의 재앙을 입었더라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말하니 너희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하라[1]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166. 너희가 재앙을 당한 것은 두 군대가 마주치는 날이었으며[1] 이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성실한 신앙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167. 또한 위선자들을[1] 아시고자 하셨노라 그들에게 말하여지길[2] 오라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하라 아니면 너의 고을을 적으로부터 방어하라 하니 그들이[3] 말하길 우리가 적과 싸운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너희를 따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 그날 그들은 믿음보다는 불신에 가까웠으니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써 심중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었노라[4] 하나님은 그들이 숨기는 것을[5] 아시고 계시니라

168. 살해된 형제들에게 그들이 남아있어 우리를 따랐다면 그들은 살해당하지 않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있나니 너희가 만일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너희 자신들에 관한 죽음을 방어하라 하시니라

169. 하나님의 길에서 순교한[1] 자가 죽었다고 생각치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곁에서 살아 있노라

170.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뒤에 올 순교자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곳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171. 그들은 기뻐하리니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그것이로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보상을 삭감치 아니 하시니라

172. 그들이 부상을 입은 후에라도 하나님과 선지자의 부름에 응하여 정의를 실천하고 사악을 멀리 한다면 크나큰 보상을 받으리라[1]

173. 무리가 그들에게 말하길 많은 군중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오나니[1] 그들을 두려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더욱 두터워졌

으니 그들이 말하더라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나니 승리는 그분에게 의탁하는 자에게 있노라

174.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고 돌아왔으며 그들을 해치는 것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추종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무한한 은총으로 충만하심이라

175. 그들 무리를 두렵게하는 것은 오직 사탄일 뿐이라[1]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믿는 자라면 나만을[2] 두려워하라

176. 믿음을 쉽사리 저버리는 자들이 그대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저해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내세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양식도 주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는 가혹한 재앙만 있을 따름이라

177. 믿음을 버리고 불신을 택하는 자들이 있나니 이들 또한 하나님을 조금도 저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재앙을 가져다 주리라

178. 하나님이 불신자들과 잠시 머물러 있음이 그들에게 길보라고 생각치 않게 하리라 실로 그분이 그들과 잠시 체류함은 죄악을 증가시켜[1] 그들에게 재앙이 있게 할 따름이라

179.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처하고 있는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사악으로부터 구별하고 길보로 인도하사[1] 보이지 아니한 영계는 밝히지 않으시니라[2]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로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으라 믿는다면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회에게 크나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

180. 하나님이 베풀어[1] 그들이 축적한 재물을 사용하는데 인색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을지 모르나 오히려 그 인색함이 그들에게 더욱 사악 하리라는 것을 생각케 하리라 인색했던 것들이 심판의 날 그들의 목을 죄아리도다[2] 천지에 남아 있는 유산이 하나님께 귀속되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니라[3]

181. 궁핍하나 우리는 부유하도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선지자들을 살해한 죄악을 기록하시며 가로되 이글거리는 유황불을 맛볼지어다[1]

182. 이것은 너희들이 저지른 것이로되 하나님은 실로 그 종들에게 절대로 부당하지 아니 하시니라

18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삼켜버린 제물을 우리에게 가져올 때까지 선지자를 믿지말라 말하는 자 있나니 일러가로되 내 이전에 말씀과 너희가 요구한 것들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오셨을 때 너희가 진실이라면 왜 그들을 살해하였느뇨[1]

184. 만일 그들이 그대를 부인한다면 그 이전의 말씀과 시편과 구약과 신약을 가져온 선지자들도 부정되노라[1]

185.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 심판의 날 보상을 받게 되니라[1] 지옥으로부터 구제된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노라 이 세상은 단지 기만의 속세에 불과하니라

186. 너희가 가진것과 그리고 너희안에서 시험을 받을 것이며[1] 너희 이전에 있었던 성서의 백성들로부터 또 우상 숭배자들로부터도 많은 험담을 들으리라 그러나 인내하고 사악을 멀리하는 것이 만사의 정도라

187. 하나님이 성서를 받은 그들에게 일러가로되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숨기지 말라 했거늘[1] 그들은 그것을 감추어 하찮은 것과 매매하여 버렸으니 그들이 매매한 것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

188. 그들이 이룬 것으로 기뻐하며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칭찬받으리라 생각치 말것이며 그들이 재앙으로부터 피하리라 생각치 말라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189.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190. 천지창조를 보고 또 낮과 밤의 변화를 보라 이해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 권능의 상징이라

191. 서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하나님을 염원하고[1] 천지창조를 숙고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말하길 주여 당신은 아무 의도없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나니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나이다 저희를 유황불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192. 주여 당신은 누구를 불지옥에 들어가도록 하나이까 이는 당신께서 그를 치욕스럽도록 하심이니 우매한 자들에게는 어떤 구원자도 없나이다[1]

193. 주여 저희는 주님을 믿으라 라는 믿음의 부름을[1] 듣고 믿었나이다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속죄하여 저희

가 의로운 자들과 함게 하도록하여 주소서

194. 주여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저회에게 주옵소서 심판의 날에 저회를 방황치 않도록 하여주소서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옵니다

195. 주님께서 그들에 응하사[1] 나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들이 행한 어떠한 일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라 너회는 서로 동등하니라 그들의 집을 떠났거나 추방당했거나 나의 길에서 수고한자 성전하였거나 살해당한 그들을 속죄하여 줄 것이며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라 그 중에 좋은 보상은 하나님께 있노라

196. 지상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의 홍망성쇠가 그대를 기만치 않도록 하리라

197. 쾌락은 순간이요 그들의 주거지는 지옥이니 얼마나 저주받은 거처이뇨

198.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강이 흐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요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으로써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은 의로운 자들을 위한 축복이라

199. 성서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너회에게 계시되었던 것과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을 믿으며[1]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매하지 아니한자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가장 빠르게 계산하는 분이시라

200.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인내하라 인내함에 경쟁하며 단결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너회가 번성하리라[1]

제 4 장
수라트 니싸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사람들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몸[1]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어 그 둘로 하여금 남녀가 풍성히 번성토록 하였노라 너희가 너희 권리를 요구하매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너희를 낳아 준 태아를 공경하라[2] 실로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보시고 계시니라

2. 고아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돌려줄 것이며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대체하지 말며 그들의 재산을 너희 재산으로 갈취하지 말라 이것은 커다란 죄악이라[1]

3.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배려하여 줄 수 없을 것같은 두려움이 있다면[1]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두번 또는 세번 또는 네번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 또는 너희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여성과 결혼하라 그것이 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보다 적합한 것이라[2]

4. 결혼할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라 만일 너희에게 그것의 얼마가 되돌아온다면 기꺼이 수락해도 되니라

5. 미성년자에게는 재산을 위탁하지 말고 관리하여 주되 먹을 양식을 주고 입을 옷을 주라 그리고 친절하라[1]

6. 결혼할 연령에[1] 이를 때까지 고아들을 보살피되 그들이 건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들의 재산을 돌려주라 그것을 탐내거나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시기하지 말라 그 보호자가 부유하다면 그 고아의 재산을 맡아 준 대가를 삭제할 것이며 그 보호자가 가난하다면 합당한 보호료만 가질 것이라 또한 그 재산을 고아에게 돌려 줄 때는 증인을 세우라 하나님은 완전한 증인이시라[2]

7.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남자에게 귀속되며 또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여자에게도 귀속되나니 남긴 것이 적던 또는 많던 합당한 몫이 있노라[1]

8. 남겨진 몫의 일부에는 친척이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의 것이 있나

니 그들에게 그 유산의 일부를 분배하여 주고 친절을 베풀라[1]

9. 재산을 처분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갖도록 하라 그들의 자손도 허약하게 되나니 그들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며 고아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라[1]

10. 고아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탐내는 자는 그들의 복부에 불길을 삼키는 것과 같나니 그들은 타오르는 화염속에 밥이 되리라

11. 하나님께서 상속에 관한 말씀을 하셨나니 아들에게는 두명의 딸에 해당하는 몫을 그리고 두명 이상의 딸만 있을 때는 상속의 삼분의 이를 그리고 한명의 딸만 있다면 절반이라 죽은 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죽은 자의 부모에게는 각기 육분의 일씩을 그러나 자녀가 없을 때는 부모가 상속자라 그리하여 어머니가 삼분지 일을 취하며 죽은 자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어머니는 죽은 자가 남긴 재산 가운데서 유언한 몫과 부채를 지불한 후 육분지 일을 취하니라 부모들과 자식들 중 어느 쪽이 너회에게 더 유용한지 너회는 모르니라 이 몫의 분할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이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면하신 분이시라[1]

12. 네 아내들이 남긴 것 가운데 너회에게 절반이며 이 때는 아내에게 자녀가 없을 때라 아내에게 자녀가 있을 때는아내가 남긴 것 가운데서 사분의 일이며 이 때는 아내의 유언과 부채를 해결한 이후라 너회가 남긴 것 가운데 부인에게는 사분의 일이며 이 때는 자녀가 없을 때라 너회에게 자손이 있다면 부인에게는 팔분의 일이며 이 때는 죽은 남편의 유언과 부채를 지불한 이후라[1]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의 유산이 분배되어져야 할 경우 그들에게 부모나 자녀는 없으나[2] 형제자매가 있을 때 이들은 각각 육분의 일을 취하노라 그러나형제자매가 둘 이상일 때 그들은 유언 또는 부채를 청산한 후 삼분지 일을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노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너그러우시니라

13.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법이거늘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물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영생하며 영광을 누릴 것이라

14.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거하며 고통스러운 벌을 받을 것이라

15. 너회 여인들 가운데 간음한 자 있을 때[1] 네명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2]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인정할 경우 그 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집안에 감금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

16. 너회 가운데 두명이 간음했다면 그 둘을 함께 벌할 것이되 그들이 회개하고 개선한다면 그대로 두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1]

17. 하나님은 알지못하여 악을 저지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반성할 때 이들의 참회를 받아 주시며[1]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라

18. 그러나 죄악을 계속 저지른 자의 회개는 효용이 없나니 그들 가운데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저는 지금 회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나 그들은 불신자들로써 죽음을 맞게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

19. 믿는 자들이여 강제로 여성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하며 그녀들이 재혼하려 할 때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너회가 그녀들에게 준 것의 일부를 빼앗기 위해 그녀들을 학대해서도 아니 되니라 그녀들이 분명한 비행을[1] 저질렀을 경우는 예외라 그녀들과 의롭게 살것이며 만일 너회가 그녀들을 싫어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너회에게 주신 풍성한 선의 일부를 증오한 것이라[2]

20 만일 너회가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를 얻으려 할 때[1] 너회가 그녀에게 준 금액 가운데서[2] 아무 것도 가져 올 수 없노라 너회는 그것을 부정하게 취득하려 하느뇨 그것은 분명한 죄악이라

21. 어떻게 취하려 하느뇨 너회는 이미 서로가 동거하여 생활하였고 그녀들은 너회로부터 엄숙한 맹세를[1] 받지 아니 했더뇨

22. 너회 아버지들이 결혼한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과거에 지나간 것은 제외되나 그것은 수치요 증오이며 저주받은 관습이라

23. 너회들에게 금지된 것이 있으니 어머니들과 딸들과 누이들과 고모들과 외숙모들과 형제의 딸들과 누이의 딸들과 너회를 길러준 유모들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양녀들과 아내들의 어머니들과 너회 부인들이 데려와 너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의붓 딸들이라 그러나 너회가 그들의 후견인이 아닌 경우에는 너회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해도 죄악이 아니라 너회 아들의 아내들과의 결혼도 금지라 또한 너회가 두 자매를 동시에 부인으로 맞아도 아니되나 지나간 것은 예외라[1] 하나님은 실로 너그러우시고 어진 분이시라

24. 이미 혼인한 여성과도 결혼은 금지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라[1]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것 외에는 너희를 위해 허락이 되었으며 간음이 아닌 합법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 합의에[2] 의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라

25. 너희 가운데 부유하고 신앙이 두터운 일반 여성과 결혼할 수 없는 자는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1] 자들 가운데서 신앙심이 두터운 하녀들과 결혼하는 것이 더 좋으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을 잘 아시고 계시며 또한 너희는 아담의 한 자손이라 그럼으로 그녀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 결혼하되 적절한 지참금을 지불할 것이라 그녀들은 순결하고 간음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부를 두지도 아니했노라 만일 그녀들이 결혼해서 간음을 한다면 그녀들에게는 자유 신분을 가진 여성이 받은 벌의 절반이라 이것은 너희들 가운데 간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라 또한 자신을 자제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으리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어진 분이시니라

26. 하나님이 원하사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를 너희 선조들의 길로[1] 인도하시며 너희에게 관용을 베푸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라

27. 하나님이 원하사 너희에게 관용을 베푸시나 그들이 저속한 욕망을 추구한다면 크게 방황하도록 할 것이라

28. 하나님이 원하사 너희 짐을 가볍게 하시나니[1] 인간은 연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29.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재산을 부정하게 삼키지 말라 서로가 합의한 교역을 따라야 하니라 또 너희의 사람들을 살해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비로운 분이시라[1]

30. 만일 증오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불지옥 속에 던져 넣으리니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31. 금지된 가장 가증스러운 것을 너희가 피한다면 내가 너희의 사소한 죄들을 사하여 너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는 자비의 문으로 너희를 들게 하리라

32.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일부에게 다른 자보다 많은 은혜를 베풀었나니 이를 시기하지 말라 남자는 자신들이 얻은 것의 몫을 가질

것이요 여성은 그들이 얻은 것을 취하리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강구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계시니라

33. 부모와 형제들이 남긴 재산을 각자와[1] 너희가 함께 한 그들에게 몫을 할당하였나니[2]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34.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1] 이는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양해야 하고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이 부재시[2]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는 가볍게 때려 줄 것이라[3] 그러나 다시 순종할 경우는 그들에게 해로운 어떠한 수단도 강구하지 말라 진실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니라

35. 너희 부부사이에 헤어질 우려가 있다면 남자 가족에서 한 사람 여자 가족에서 한 사람 중재자를 지명하라[1] 만일 화해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마음으로 하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라

36. 하나님을 경배하되 다른 것에 비유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척과 고아와 불쌍한 사람들과 이웃 친척과 친척이 아닌 이웃과[1] 주변의 동료와 방랑자와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종들에게[2] 자선을[3] 베풀라 하나님은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37. 재산을 축적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욕하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숨기는 자가 있도다 하나님은 이들과 불신자들을 위해 수치스러운 운명을 준비하셨노라[1]

38.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나니 이들은 사탄을 친구로 선택한 가증한 동반자들이라

39.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으며 하나님이 부여한 양식으로 자선을 베푼다하여 그들에게 얼마나 손실이 있겠느뇨 하나님은 그들을 잘 알고 계시니라

40. 하나님은 조금도 불공평하지 않으시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곱절로 크게 보상하여 주시니라

41. 하나님이 각 민족으로부터 증인을[1] 부르고 그들에 대해 그대를 증인으로 세울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뇨

42.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선지자를 거역했던 자들은 대지가 그들을 숨겨주었으면 하나[1] 그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노라

43. 믿는 자들이여 술에 취하여 예배하지 말라[1] 너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때까지라 불결해서도 아니되나 여행자는 제외라 너희가 아프거나 여행 중 일때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여성을 만졌을 때 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깨끗한 흙위에 따이얌뭄을[2] 하고 너희 얼굴과 양손을 문질러 깨끗이 하라 실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너그러운 분이시라

44. 성서의 일부를 계시받은 자들을 보지 못했느뇨 그들은[1] 방황의 길을 선택하여 너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하노라

45.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적들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46. 유대인 가운데의 무리가 그들의 문맥을 변경하여[1] 말하길 우리는 그대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순종할 수 없나니 그대가 들어보지 못한 우리의 말을 들어보라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며 그들의 혀를 뒤틀어 진리를 왜곡하였더라 우리는 들었으며 순종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에게 더욱 좋았을 것이며 보다 정당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니 소수를 제외하고는 믿음을 갖지 않더라[2]

47. 성서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믿고[1] 그 이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을 확신하라[2] 하나님은 그들의 명예를 거두고[3] 그들을 후미로 돌렸버렸더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저주했듯이 그들을 저주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이행되니라

48. 하나님은 그분에 비유하려 한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시나 그 외에는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시니라 어떤 것을 하나님에 비유하려 하는 자는 죄인이라[1]

49.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다고 자찬하는[1] 자들을 너희는 보지 못했느뇨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분의 뜻에 따라 성결하게 하시나니 그들은 조금도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50.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지 보라 그것만으로도 분명한 죄악이라[1]

51. 성서의 일부를 받은 자들을 보지 못했느뇨 그들은 우상과 악마를 믿으면서 자신들이 믿는 자들보다 바른 길로 인도된다고 불신자들에게 말하더라[1]

52.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구원자도 없다는 것을 그대는 발견하리라[1]

53. 그들은 그 왕국에서 몫을 가지고 있느뇨 그들은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사람들에게 아무 것도 주지 못하니라

54. 하나님께서 부여한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시기하느뇨[1]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성서와 지혜와 위대한 왕국을 주시었노라[2]

55. 그들 중에는 믿는 자가 있었고[1] 믿지 아니한 자가 있었나니 이들에게는 타오르는 지옥이 적절한 대가라[2]

56. 나의 계시를 불신하는 자들을 불지옥으로 들여보내니 그들은 그들의 피부가 불에 익어 다른 피부로 변하는고통을 맛보더라 실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이라

57.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찾고 선을 실천하는 자는 천국에 들게하여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하게 하리라 그곳에는 순결한 아내가 있노라 또한 그들을 온화한 그늘로 들어가게 하리라

58. 하나님은 모든 기탁물을 그것의 소유자들에게 환원하도록 명령하셨으며 너희가 판별 할 때는 공정하게 판정하라 하셨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니라

59.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선지자와 너희가운데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1] 순종하라 만일 너희 사이에 어떤 일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위탁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다면 그것이 가장 적절한 최선의 방법이라

60. 그대에게 계시된 것과 이전에 계시된 것을 믿는 척하면서 우상에 의지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그들을[1] 그대는 보지 못했느뇨 그들은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사탄이 그들을 방황시키려 하노라

61. 하나님이 계시한 법에 따라 그리고 선지자의 중재로 그 분쟁을 해결하라 했을 때 그대를 불신하는 그 위선자들을 그대는 보았느니라

62. 그들 자신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자 그들이 그 재앙을 이겨낼 수 없게 되자 그대를 찾아와 하나님에게 맹세하며 그 분쟁의 해결을 부탁한다고 했더라

63.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니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훈계하여 그들의 마음 속에 교훈이 되게 하라

64.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낸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노라 스스로 죄악을 저지른 그들이 그대를 찾아와 하나님의 용서를 간청하였다면 선지자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에게 용서를 강구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였을 것이라

65. 그들이 그대로 하여금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그대가 조정한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고 이에 순응할 때까지는 그들을 진실한 신앙인들이라 할 수 없노라

66. 너희 자신들을 희생하라 그리고 너희 거주지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위선자들에게 명령[1] 했던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라 만일 그들이 충고 받은대로 행하였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더욱 좋았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신앙이 더욱 충만했으리라

67.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커다란 보상을 주셨을 것이며

68.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라[1]

69.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예언자들과 성인들과 순교자들과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동반자이뇨[1]

70.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도 충분하시니라

71. 믿는 자들이여 적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분산하여 혹은 모두가 함께 전진하라

72. 너희 가운데 주저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순교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

73.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올 때면 그 위선자는 마치 너희와 그사이에 아무 것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나는 전쟁에서 큰 행운을 얻었을텐데 라고 말하더라

74.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 참여하도록 하여 내세를 위해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하건 승리를 거두건 하나님은 그에게 커다란 보상을 주실 것이라

75.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성전에 참여하지 않느뇨 그들은 주여 이 어두운 압박의 마을로부터[1]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노라

76.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하고 믿음을 불신하는 자들은 사탄을 위해서 투쟁하나니 사탄의 무리와 투쟁하라 실로 사탄의 교활함은 허약할 뿐이라

77. 너희의 손들을 자제하라 그리고 이슬람세를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던 그들에게 성전에 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들 중에 한 무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 주여 당신은 왜 우리로 하여금 전투에 임하도록 하나이까 우리의 생명을 얼마동안 유예하여 주소서 라고 말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현세의 쾌락은 순간이나 영원한 내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이 되니라 그리고 업적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노라[1]

78. 너희가 어디에 있던 죽음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라 비록 높은 탑위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어떤 행운이 그들에게 이르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어떤 불운이 그들에게 닥치자 그것은 그대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라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뇨[1]

79. 너희에게 오는 행운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나 너희에게 오는 불행은 너희 자신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을 위해 한 선지자를 보냈으니 증인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80.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 만일 거절한 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를 그에 대한 감시인으로 보내지 아니 했노라[1]

81.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1] 말하나 그들이 그대를 떠났을 때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그대의 가르침과 상반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라 하나님에게 의탁한 것으로 충분하니라

82. 왜 그들은 꾸란을 숙고하지 않느뇨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

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으리라[1)]

83. 무슬림의 승리나 재앙의 소식이 위선자에게 이를 때 그들은 이 소식을 퍼뜨리더라 만일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선지자나 또는 그들 가운데 책임자에게 문의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 만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너희에게 없었더라면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사탄의 길에 빠졌으리라

84. 그러하매 그대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고 믿는 신앙인들을 격려하라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힘을 미리 제지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되 가장 강하시고 벌을 주시되 가장 큰 것을 주시니라

85. 정의를 위해 중재하는 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며 악을 위해 중재하는 그에게 그와 같은 대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권능의 힘도 크시지만 벌을 주실 때도 강하시니라

86. 너희가 인사를 받았을 때 그보다 겸손하게 인사하라 혹은 응답하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심히 헤아리시니라

87.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노라 그분은 심판의 날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의심할바 없는 진리라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실되겠느뇨

88. 왜 너희는 위선자의 일로 인하여 두 무리로 나누어지려 하느뇨[1)]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신자로 만들었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한 그를 구하려 하느뇨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한 그를 위해 그대는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하리라[2)]

89. 그들이[1)] 그랬듯이 너희도 불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너희가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거늘 너희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올 때까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럼에도 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하는대로 살해할 것이며 그들로부터 친구나 후원자를 찾지 말라

90. 그러나 너희와 동맹을 맺고 있는 부족으로 피신을 오는 자나 또는 그들의 마음이 너희와 그 부족과 싸움을 억제하려는 그들에게는 제외라 만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너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너희와 싸우도록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로부터 물러나 너희와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 하시니라

91. 한편 너희로부터 안전함을 꾀하고 그들의 부족을 안전하게 하려는

또 다른 위선자의 무리를 볼 것이라[1)] 그들이 돌아서 불신할 때마다 패배할 것이라 만일 그들이 너희로부터 물러서지 아니하고 또 평화를 제안하지 아니할 때는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던 그들을 볼 때마다 살해하라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노라

92. 믿는 자가 믿는자를 살해하지 아니하니라[1)] 실수는 불가항력이나 이 때는 믿음이 강한 한명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상하라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그를 용서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교전상태에 있는 적군 중에 믿는 자가 실수로 살해되었다면 한명의 노예 해방으로 충분하며 그가 상호동맹관계에 있는 부족의 일원이라면 마땅히 그의 가족에게 보상하고 한명의 믿음이 강한 노예를 해방시킬 것이라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두달 동안 단식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한 분이시라

93. 고의적으로 믿는 자를 살해한 자에 대한 대가는 지옥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내시고 그를 저주하시며 그에게 무서운 벌을 준비하시니라[1)]

94.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 나섰을 때 주의깊게 살필 것이며 이슬람으로 인사하는 그에게 너는 믿는 자가 아니라 말하지 말라 너희는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나 풍성한 전리품은 하나님 곁에 있노라 이것이 과거의 너희였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95. 아무런 장애도 없이 남아있는 믿는 자와 성전에 출전하여 재산과 생명을 바치며 성전하는 투사들이 같을 수 없거늘 하나님께서는 남아 있는 자들보다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이 두 부류에게도[1)]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었노라 하나님은 남아 있는 자들보다 성전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니라

96.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두시며 그들에게 관용과 자비도 베푸시니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1)]

97. 천사들이 스스로 죄지어 죽은 자들을 불러 너희들의 신앙은 어떠했느뇨 라고 물으니 저희는 지상에서 허약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더라 이때 하나님의 영역은 방대했으니 너희는 이주할 수 있지 않했느뇨 라고 천사들이 말하더라 그러하여 그들의 주거지는 지

옥이 되매 최후의 종말이 비통하더라[1]

98. 그러나 언약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길을 따를 수 없었으매 제외되었노라

99.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용서하여주시고 관용을 베푸는 분이시라

100. 하나님을 위해 이주 하는자는 지상에서 넓고 많은 은신처를 발견할 것이며 하나님과 선지자를 위해 그의 집을 떠나 죽은 자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101. 여행 중에는 예배를 단축해도 되나 이때는 불신자들의 공격이 있을까 너희가 염려될 때라[1] 실로 불신자들은 확실한 너희의 적이라

102. 그대가 전시 중에 그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1] 일부는 무기를 소유한채 적을 향하여 경계토록 하고 그 일부가 예배를 마쳤을 때 다른 일부를 그들의 위치로 오게하여 그대의 후미에서 예배 하도록 하며 무기를 소유하고 경계를 하도록 하라 불신자들은 너희가 무기와 장비에 소홀히 하기를 바라매 너희를 일격에 공격하고자 함이라 그러나 비가 오거나 몸이 아플때는 무기를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죄악이 아니지만 모두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 경계하라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위해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

103. 예배를 본 후 서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을 염원하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때는 온전하게 예배하라 믿는 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도록 되어있노라[1]

104. 적을 추적할 때 약한 마음을 갖지 말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갖게 되나 그들은 그렇지 못하니라[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한 분이시라

105. 하나님이 그대에게 성서를 내려주셨나니 이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그대를 주시하고 계시니 믿음을 배반하는 자를[1] 변호하지 말라

106.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107.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들과 논쟁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기만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108.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숨기지 못하니 그분은 그들이 밤을 새워 모략하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노라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109. 현세에서는 그들을 옹호하려는 자가 있으리라 그러나 심판의 날 누가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그들을 옹호할 수 있겠느뇨 아니면 누가 그들을 위해 대변하겠느뇨

110. 잘못을 저지른 자여 그리고 자신을 우롱한 자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라

111. 타인에게 저지른 죄악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거늘[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한 분이시라

112. 잘못이나 죄악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무고한 자에게 돌리나니 그는 스스로의 허위와 죄악으로 죄악을 더하여 가도다[1]

113. 만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그대에게 없었다면 그들 가운데 무리가 그대를 방황하게 할 음모을 꾸몄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해쳤을 뿐 그대를 해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노라 하나님은 그대에게 성서와 지혜를 주셨고 그대가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셨나니 그대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총은 위대 하심이라

114. 그들이 속삭이는 비밀 이야기[1] 속에는 복이 없으나 자선과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사람들간에 평화를 중재하는 대화는 제외라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니 하나님은 그에게 커다란 보상을 주실 것이라

115. 하나님의 복음이 선지자에게 있었노라 그럼에도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는 신앙인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따르는 자가 있나니 그들이 선택한 길로 가도록 두라 그길은 불행한 여정이니라

116. 실로 하나님은 그분에게 어떤 것을 비유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나 그것 외에는 당신이 원하는 자마다 용서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비유하는 자는 멀리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

117. 그들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불러들이니[1] 사탄을 숭배하고 있노라

118. 하나님께서 그를[1] 저주하자 사탄이 말하길 나는 당신의 종들 중에서 일부를 데려가리라

119. 나는[1] 그들을 방황케 하고 그들에게 위선적 회망을 조성할 것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가축들의 귀를 자르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변경하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탄을 택하는 자는 분명히 손해를 볼 것이라

120. 사탄은 약속으로 그들을 현혹하면서 헛된 욕망을 선동하나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도다

121. 이들의 주거지는 지옥이라 그들은 그곳에서 빠져나갈 돌출구를 찾지 못하리라

122.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가 강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니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음직스럽다 할 수 있느뇨

123 그것은 너회가 원한다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성서의 백성들이 원한다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어떤 보호자나 후원자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

124.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남녀가 천국에 들어 가나니 그들이 받을 보상은 조금도 부정함이 없노라

125. 가장 훌륭한 믿음이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선을 실천하며 아브라함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반려자로 택하셨노라[1)]

126.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니라

127. 그들이 여성의 일에 관하여 그대에게 질문할 때 가로되 하나님께서 여성에 관한 말씀이 있으리라 그리고 계시된 성서에도 말씀이 있노라 또한 너회가 지불해야할 지참금을 주지 아니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고아 여성과 언약한 어린이들에 관한 말씀이 있나니 고아들에게 공정하라[1)] 너회가 행하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은 그것에 관해 잘 알고 계시니라[2)]

128. 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냉대를 두려워하는 경우 그들이 서로 합당하게 화해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노라 화해가 최선의 방책이라 비록 남성의 물심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회가 선과 정의를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너회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129. 너회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아내들을 공평하게 할 수 없으리라 한쪽으로 치우쳐 다른 부인들을 매달린 여인처럼 만들지 말라 너회가 화해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관용과 자비가 있을 것이라

130. 만일 그들이 이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들 각자에게 보상하시니라 하나님은 풍요로우시고 현명한 분이시라

131.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귀속되어 있나니 너회 이전 성서의 백성들과 너회는[1]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였노라 만일 너회가 불신한다 하더라도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귀속되나니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모든 찬미의 주인이시라

132.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귀속되어 있나니 보호자는 하나님만으로써 충분하니라

133. 그분이 원하시면 너회를 멸망하게 하고 다른 백성을 세우시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능을 갖고 계시니라

134. 현세의 보상을 원하는 자 있다면 현세와 내세의 보상이 하나님께 있다 하여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

135. 믿는 자들이여 정의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위한 공정한 증인이 되라[1] 너회 자신들에게도 부모님과 친척들에게도 부유하건 또는 가난하건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나니 탈선하지 않도록 마음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 만일 너회가 왜곡하거나 치우친다면 하나님은 너회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136.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에게 계시된 성서와 너회 이전에 계시된 성서를[1] 믿어라 했거늘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과 내세를 부정하는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황하리라

137.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이 믿음을 부정한 후 또 믿음을 가지다가 또다시 배반하는 자는 불신에 불신을 더해간 것이라[1]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138. 위선자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

139. 신앙인들이 아닌 불신자들을 동반자로 택하는 자들이 있노라 그들은 저들에게서 명예와 힘을 찾고 있느뇨 실로 모든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노라

140. 이미 성서에서 말씀이 있었으니[1] 너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2] 불신하며 조롱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들이 다른 화제로 돌릴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만일 너회가 함께 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노라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들과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부르시니라

141. 이들은 기다리며 너회를 주시하는 자들이라 만일 너회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다면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너회와 함께 있지 아니했느뇨 만일 불신자들이 승리한다면 우리가 너회들 위에 있지 아니했느뇨 우리는 너회를 신앙인들로부터 보호하였도다 라고 말할 것

이라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들이 신앙인들을 지배하도록 두지 아니 하시니라

142. 실로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나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아시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직하지 못함이 사람들 눈에 뜨이더라 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염원하지 않더라

143. 그들은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니 이들에게도 아니요 저들에게도 아니라[1]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황하게 하면 그대는 그를 위한 길을 찾지 못하리라

144. 믿는 자들이여 불신자들을 반려자로 택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자신들에게 해가되는 명백한 증거를 하나님에게 제공하려 하느뇨

145. 위선자들이야말로 불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게 되나니[1] 그대는 그들을 위해 어떤 구원자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146. 그러나 회개하고 개선하여 하나님의 동아줄을 잡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자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커다란 보상을 주실 것이라

147. 너희가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이유가 없노라[1]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148. 하나님은 언사의 욕됨이 대중에 들어남을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나 죄지은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149. 너희가 드러나게 선을 행하던 모르게 행하던 또는 잘못을 관용으로 용서하던 실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라

150.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불신하며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이간시키려 하는 자들이 일부는 믿고 일부는 부정하나이다[1] 라고 말하며 그 중간의 길을 택하겠다고 하더라

151. 실로 이들이야말로 불신자들이거늘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에게 치욕스러운 벌을 준비하여 두셨노라

152.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믿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선별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보상이 준비되어 있노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53. 성서의 백성들이 그대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성서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세에게는 이보다 더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

였더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번개가 그들을 덮쳐 갔노라 그들은 계시가 있은 후에도 우상을[1] 숭배하였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였으며 모세에게는 분명한 권위를 주었노라[2]

154. 하나님은 그들 위에 시나이 산을 올려놓았노라 이것은 그들과의 약속이었노라 그들에게 겸손히 그 문으로 들어가라 이르면서 안식일을 위반하지 말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노라[1]

155. 그들은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불신하면서 선지자들을 살해하려고 음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봉해져 버렸도다 라고 말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봉하여 버렸으나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를 믿지 않더라

156. 그들의 불신과 마리아에 대한 중상은 커다란 죄악이었노라[1]

157.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못하였고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1] 의심을 할 따름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라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2]

158. 하나님께서 그를[1] 하늘로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라

159. 성서의 백성들은 그가 죽기 전에[1] 그가[2] 심판의 날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노라

160. 유대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좋은 음식을 금지하셨고[1] 또한 그들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였더라

161. 그들은 금지된 이자를 거두어 갔으며 백성들의 자산을 부정하게 삼키었더라 하나님은 그들 불신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

162. 그들 가운데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과 그대와 그대 이전에 계시된 것을 믿는 신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이슬람세를 바치는 자와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신도들에게는 커다란 보상이 있을 것이라

163. 실로 내가 그대에게 계시하였거늘 이는 노아나 그 이후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으며 또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과 예수와 욥과 요나와 아론과 솔로몬에게 계시한 것과 같으며 다윗에게 시편을 내린 것과 같으니라[1]

164. 그대에게 이미 언급한 선지자들이 있고 그대에게 언급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있노라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계셨노라[1)]

165. 선지자들을 보낸 것은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며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논쟁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실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이라

166. 하나님께서는 그대게게 계시한 것으로 증거하실 것이라 그분은 그것을 그분의 지식으로 계시하였으며 천사들이 이를 증거할 것이라 증인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167. 믿음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들은 크게 방황하게 될 것이라

168.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부정하고 사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떤 길로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169. 지옥으로 가는 길 외에는 길이 없으매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170. 사람들이여 선지자께서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가지고 너회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믿으라 그러면 너회에게 복이 될 것이라 아직도 너회는 불신하고 있느뇨 천지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현명하시니라

171.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회 종교의 한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1)]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써 마리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혼이라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회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천지의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거늘 보호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17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 이상으로[1)] 자만하지 아니했으며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그랬노라 하나님에게 경배드리기를 꺼려하는 자와 교만해 하는 자 모두를 그분에게로 모이게 하리라

173.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은혜가 더하여지도다 그러나 조롱하고 교만해 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며 하나님 외에는 어떤 동반자나 구원자도 찾지 못할 것이라

174. 사람들이여 확실한 증거[1)]가 주님으로부터 너회에게 왔으니 이는 내가 너회에게 보낸 광명[2)]이라

175. 누구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동아줄을 붙잡는 자들을 자비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176. 그들이 그대에게 질문하리니[1] 대답하여 가로되 상속받을 자식이나 부모를 두지 않고 누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누이는 남자가 남긴 것의 절반을 상속받으며 아이를 남기지 못한 여성이 있을 경우 그녀의 형제가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으며 만일 누이가 둘이 있다면 그 둘은 남자가 남긴 것 가운데 삼분의 이를 가지며 형제와 자매가 있을 경우 남매는 자매의 두곱을 가지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법을 설명하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제 5 장
수라트 알마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믿는 자들이여 모든 의무를[1] 다하라 모든 가축들이 너희들의 양식으로 허락되었으되[2] 순례상태로 성역에 있을 때 사냥은 금기라[3] 실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대로 지배하시니라

2.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상징을[1] 욕되게 하지 말것이며 성스러운 달을[2] 불경케 하지말며 제물과 목걸이를 자랑하지 말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람사원으로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순례복을 벗을 때는 사냥이 허용되니라 또한 너희가 하람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나 그들을 증오하거나 공격하지 말고[3] 정의와 신앙을 위해 서로 협동하라 그러나 죄악과 증오에는 협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엄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

3.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은 고기가 아닌 것[1] 목졸라 죽인 것과 때려서 잡은 것과 떨어져서 죽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2] 다른 야생이 일부를 먹어버린 나머지와 우상에 제물로 바쳤던 것과[3] 화살에 점성을 걸고 잡은 것이니거늘[4] 이것들은 불결한 것들이라 오늘 믿음을 거절한 자들이 너희의 종교를 체념하나니[5]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 하라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6]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종교로 만족케 하였노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기울이지 아니한 자[7]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를 받을 것이라

4. 허락된 것이 무엇이냐고 그대에게 묻거든 그것은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라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길들여진 동물이 너희를 위해 사냥하여 온 것도 허락된 것이거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라[1] 하나님의 이름을 염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계산에 빠르시니라

5. 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것들이 허락되었으니 성서를 받은 자들의 음식이 허락되었고[1] 또한 너희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락되었으며 믿

음이 강하고 순결한 여성들과 그대 이전에 성서를 받은 자들의 여성들도[2] 너희가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녀들과 화목하게 살때는 허락된 것이거늘 간음을 해서도 아니되며 내연의 처를 두어서도 아니되나니 믿음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든 그의 일이 공허하게 되어 내세에서 손실자가 될 것이라

6.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예배드리려 일어났을 때 너희 얼굴과 두 손을 팔꿈치까지 씻을 것이며 머리를 쓰다듬고 두 다리를 발목까지 닦을 것이라 또한 너희가 불결하였다면 깨끗이 하라[1] 너희가 병중에 있거나 여행중에 있거나 화장실에 다녀왔거나 여성을 만졌는데 물을 찾지 못했을 때는 깨끗한 흙위에 따이얌뭄을 하고[2] 너희 얼굴과 두 손을 씻으라 하나님은 너희가 곤경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자신들을 청결하게 하고자 하심이라 그분은 너희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려하시매 너희는 감사해야 되니라

7. 하나님의 은혜를 염원하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약[1]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하나님은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8. 믿는 자들이여 정의에 의거하여 입증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공정한 증인이 되라 타인에 대한 증오로 공정성을 잃어서는 아니되나니 정의롭게 행동하라 그것은 가장 독실한 신자의 의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니라[1]

9.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나니 그들은 관용과 커다란 보상을 받을 것이라[1]

10.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짓하는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지옥의 주인들이라

11.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라 그들이 무력으로 너희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저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위탁하라[1]

1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로부터 약속을 받았노라 그리하여 그들 중에 열두 사람을 지도자로 보내면서[1] 말씀하셨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나니 만일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고 나의 선지자들을 믿고 그들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대부하는 자는[2]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며 강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불신한 자가 된다면 그들은 바른 길을

벗어나 방황하게 될 것이라[3]

13. 그들이 그들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1]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고[2] 그들의 마음을 거칠게 하셨노라 그들은 말씀을 위조하고 그들에게 계시된 진실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나니 너희는 그들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배신함을 발견하리라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라 실로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14.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 말하는 자들로부터도 약속을 받았노라[1] 그들은 자신들에게 계시된 것을 망각하매 하나님은 심판의 날까지 그들에게 증오와 대립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곧 그들이 행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15. 성서의 백성들이여[1]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2] 오셨나니 그가 너회들이 성서에서 은닉했던 많은 것과 설명되지 아니한 많은 것들을 밝혀줄것이라 이렇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성서가[3] 너희에게 왔노라

16.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1] 그를 따르는 자를 평안의 길로 안내하시니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라[2]

17.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라[1]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벌을 막지 못할 것이라 그분이 원하시면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와 그의 어머니와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데 이때 누가 하나님에게 대항하겠느뇨 지상의 모든 것과 하늘의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사이의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힘을 가지셨노라

18.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1] 그분의 사랑받는 자들이라 하니 일러 가로되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는 너희의 죄악에 대해 벌을 내리겠느뇨 너희도 그분이 창조한 인간이라 하나님은 본인이 원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자를 벌하시니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며 그 사이의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거늘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19. 성서의 백성들이여[1] 선지자가 와서 그전 선지자들 이후의 일들을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라 이것은 너희가 복음도 경고도 너희에게 오지 아니했다고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실로 복음과 경고가 너희에게 이르렀노라[2]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라

20.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길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라 그분은 너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1] 왕들처럼[2] 되게 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3] 주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셨노라

21.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성역으로[1] 들어가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2] 그리하면 잃은 자들이 될 것이라

22. 이때 그들이 말하길 모세여 그곳에는 폭군들이 있나니 우리는 그들이 그곳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소 그들이 물러난다면 그곳에 들어가리라 하더라[1]

23.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남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두 남자가 말하길 그들에게로 공격하여 들어가라 너희가 입성한다면 승리는 너희의 것이니라 하더라[1]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였노라

24. 그들이 말하길 모세여 그들이 그곳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나니 당신과 당신의 주님이 가서 투쟁하라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으리라 하더라[1]

25. 그가[1] 가로되 주여 저 자신과 저의 형제를[2]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권세가 없나이다 그러므로 저희와 우매한 백성들을 당신이 구별하여 주옵소서[3]

26. 이때 말씀이 계셨으니[1] 이곳은 그들에게 사십년동안 금지되나니 그들은 지상에서 방황하리라 그러므로 그 우매한 백성들에 대해 근심치 말라 하시더라[2]

27. 그들에게 아담의 자손인 두 아들의 얘기를 진실되게 들려주라 하셨으니[1]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매 그들 가운데 한 자손의 것이 수락되지 아니하자[2] 한 자손이 꼭 내가 너를 살해하겠다고 말하니 다른 자손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자의 것을 받으시노라 하더라[3]

28.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대의 손을 나에게 뻗친다 해도 나는 너를 살해하기 위해 나의 손을 너에게 내밀지 아니하리라 나는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1]

29. 나에 대한 죄악과 너의 죄악으로 네가 벌을 받게 되리니[1] 너는 지옥의 주인이 되리라 이것은 죄인들에 대한 대가라

30. 타인에 대한 오만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형제를 살해했으니[1] 그는 손실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더라

31. 이때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까마귀를 보내니 이 까마귀는 땅을 파

고 형제의 시체를 묻는 방법을 그에게 보여주더라[1] 이때 그가 오 슬프도다 내가 이 까마귀처럼 내 형제의 시체를 매장한단 말이뇨 라고 말하며 후회로 가득차더라

32. 이런 일로 말미암아[1]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법을 내리셨나니 타인과 그리고 지상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해했다면 그것은 모든 백성을 살해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구제하는 것과도 같다 고 하였더라 그리하여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셨노라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상당수는 지상에서 과오를 저지르고 있노라[2]

33. 실로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항하여 지상에 부정을 퍼트리는 자들은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이 서로 다르게 절단되거나[1] 또는 추방을 당할 것이라[2] 이렇듯 그들은 현세에서 치욕을 그리고 내세에서는 무거운 벌을 받을 것이라[3]

34.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회개한다면 제외되노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35.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하는 방법을[1] 강구하며 그분을 위하여 성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36. 불신자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바쳐 심판의 날에 있을 징벌로 부터 면죄받고자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고통스러운 벌만이 있을 것이라

37. 그들은 지옥에서 빠져나가려 하나 그렇지 못하고 그들에게의 벌은 지속되니라

38. 물건을 훔친 남녀의 손을 자르라 이는 그 두 손이 얻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현명하시니라[1]

39. 그러나 회개하여 모범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40.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뇨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벌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자를 용서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권능을 가지셨노라

41. 선지자여 서둘러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라 그들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없노라 유대인들 중에는 위선에 귀를 귀울이는 자들이 있고 그대에게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른 백성에게 귀를 기울인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말씀을 위조하며[1] 말하더라 이것이 너희에게 명령된 것이라면 그렇

게 하라 또한 그것이 너희에게 명령된 것이라면 수락하지 말라고 하더라[2]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시련을 주시려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항하여 이를 막을 어느 누구도 없노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려 하지 아니하신 자들로 이들은 현세에서는 수치를 그리고 내세에서는 무거운 벌을 받을 것이라

42. 그들은 허위를 귀담아들으며 금기된 재산을 탐내는 자들이라[1] 그들이 그대에게 오거든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라 그대가 거절한다 해도 그들은 그대를 조금도 해치지 못할 것이라 그대가 심판할 때는 공평하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43. 그들이 그대에게 심판을 부탁하려 오겠느뇨 그들은 구약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규범이 있지 않느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니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44. 내가 빛과 복음이 담겨진 구약을 내리셨노라 그리하여 이슬람을 믿는 예언자들은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심판하였으며 율법학자들과 유대학자들도 하나님의 성서에 의존하였노라 그들은 그에 대해 증인들이었으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1] 나만을 두려워할 것이며 하찮은 대가로 나의 말씀을 매도하지 말라고 했거늘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심판하지 못한 자들은 불신자들이라

45.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코에는 코로 귀에는 귀로 이에는 이로 상해에는 상해로 대하라 하셨노라 그러나 자선으로 보복에 대한 권리를 철회하는 자는 속죄받을 것이라[1]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라

46.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 이전에 계시된 구약의 내용을 충족시키면서 그들의[1]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였노라 또한 하나님은 신약을 계시하여 그 이전에 계시된 구약의 내용을 확증하면서 그 안에 빛과 복음을 주었으니 이것은 신앙인들을 위한 교훈이라

47. 그러므로 신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심판하게 하라[1]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 자들이 죄인들이라

48. 하나님은 그대에게 그 이전에 계시된 내용을 확증하고 증언하면서 꾸란을 계시하나니[1]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되 정의에서 벗어난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각자에게 법을 주셨나니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너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를 시험하고자 하셨으니 선행에 경주하라 너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귀의

하며 너희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밝혀주시리라

49. 그대에게 계시한 법으로 그들을 심판하라[1]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그들을 심판했다면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며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으로부터 그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만일 그들이 배반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주려하심을 그대는 알라 실로 많은 사람들이 불복하는 자들이라

50.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지 시대의[1] 심판이 아니겠느뇨 그러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훌륭한 재판관이 어디 있겠느뇨

51. 믿는 자들이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그리고 보호자로 삼지 말라 그들은 서로가 친구들이라 그들에게로 향하는 너희가 있다면 그는 그 무리의 일원이거늘 하나님은 이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52. 그들의 마음에 병이 들어 서두르는 자 있나니[1] 우리에게 불운이 오지 않을까 두렵나이다 말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승리나[2] 다른 결정을 내리시니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속에 감추어 둔 것을 후회하더라

53. 믿는 자들이 말하길 이들이 바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두고 굳게 맹세한 자들로[1] 그들의 업적이 공평하여 손실자가 된 자들입니다[2] 라고 하더라

54. 믿는 자들이여 너희 중에서 믿음을 배반한 자 있다면[1]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은 그분을 사랑하며 믿는 자들에게 겸손하고 불신자들에게는 강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고 어떤 비방자의 험담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으로 대체하여 주실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55. 실로 너희의 보호자는[1]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라

56.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믿는 자들을 보호자로 삼는 자들만이 실로 하나님안에 있으며 그들이 바로 승리자들이라

57.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종교를 조롱하고 회롱하는 자들을[1] 친구로 삼지말라 이들은 너희 이전에 성서를 받은 자들로 믿음을 배반했노라 너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58. 그대가 예배시간을 알리자 그들은 조롱하고 회롱하였나니[1] 그들은

지혜가 없는 백성이었노라

59. 성서의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이전에 계시된 것을 믿는다하여 우리를 배반하느뇨 너희 대다수는 거역자들이라

60. 일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그것보다 사악한 것을 일러주리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으리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초래하는 자들이라 그들 가운데 일부는 원숭이나 돼지가[1]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저주를 받았더라 이들은 올바른 길을 벗어나 가장 나쁜 곳에서 방황하리라

61. 그들이[1] 너희에게 우리는 믿나이다 라고 말하나 그들은 불신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62.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서둘러 죄를 낳고 증오하며 금기된 것을 삼키니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분명 저주가 있을 것이라

63. 유대인 성직자들이나 학자들은 그들의 민족이 죄를 낳고 금기된 것을 삼키는 것에 막지 않느뇨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분명 저주가 있을 것이라

64.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은 묶여 있어[1] 그들의 손들도 묶여 있다고 하더라 그들이 말하는 것에 저주가 있을 것이라 그러나 그분의 두 손은 펼쳐져 있어 원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니라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은 분명히 그들 대다수에게 거역함과 불신을 더하여 줄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적대시하며 심판의 날까지 증오하리라 그들이 불을 질러 싸움을 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을 끄시도다 그들은 지상에서 악을 퍼트리나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65. 성서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정의로웠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죄를 사하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였으리라

66. 그들이 구약과 신약과 그들의 주님이 계시한 것을 지켰다면 그들은 그 이상의 참된 진리를[1] 맛보았을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올바른 길로 향하는 무리도 있었으나[2]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을 사악한 길을 따랐더라

67. 선지자여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전파하라 네가 그리하지 못한다면[1] 너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못한 것이라[2]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대를 보호하시나 믿음이 없는 불백성들은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68. 일러 가로되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구약과 신약과 너희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을 지킬 때까지 너희는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할 것이라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이[1] 분명 많은 무리에게 적의와 불신을 증가시키나 믿음이 없는 무리를 보고 슬퍼하지[2] 말라

69. 믿는 자들과[1] 유대인과 사비 사람들과[2] 기독교인들이[3]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선행을 실천할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슬픔이 없노라

70.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약속을[1] 받았노라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으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올 때마다 그들의 무리는 거절했고 그들 가운데의 무리는 부정했고 그들 가운데 무리는 살해하였더라[2]

71. 아무런 벌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들은[1] 눈을 감고 귀를 막더라[2]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으나[3]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도 눈을 감고 귀를 막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72. 하나님은 마리아 아들 메시아일 뿐이라 말하니 그들은 분명 불신자들이라 메시아 가로되[1]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나의 주님이고 너희의 주님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2]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금지하시고 불지옥을 그의 거주지로 하셨노라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73. 하나님이 셋 중의 하나라[1]고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한 것을 단념하지 않는다면 믿지 아니한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이 내릴 것이라

74. 그들이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뇨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1]

75. 예수는 마리아 아들로써 선지자이니라 그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들과 같음이라 그의 어머니는 진실하였으며[1] 그들은 모두 음식을 섭취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그 징표를 설명하노라 그런데도 그들은 배반하는 자들이라

76. 일러 가로되[1] 너희는 하나님 외에 너희에게 좋은 것도 해로운 것도 행할 권능이 없는 것들을 경배하느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니라

77. 일러 가로되 성서의 백성들이여[1] 너희 종교에 관한 사실 외에는 과장하지 말며[2] 이전에 과오를 범한 무리의 공허한 욕구를[3] 따르지 말라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였고 또한 자신들도 옳은 길에서 벗어났노라

78. 이스라엘 자손가운데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다윗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혀를 통하여 저주 받았더라[1] 그들은 거역했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

79.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사악을 단념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저지른 것에 저주가 있을 것이라

80. 그들 가운데 다수가[1] 불신자들을[2] 보호자로 선택한 자들을 보리니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것에 대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불쾌히 여기실 것이니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영생하리라

81. 그들은[1] 하나님과 예언자와 그에게 계시된 것을 믿었어야 했고 그들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아야 했거늘 그러나 그들 대다수가 거역하였더라

82. 그대는 믿는 신앙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유대인들과 이교도들 가운데서 발견하리라 또한 그대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요 라고 말하며 믿는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1] 자들도 발견하리니 이들은 오만하지 않는 성직자들과 배움에 열중하는 학자들이라

83. 그들은 선지자에게 계시된 것을 들을 때 자신들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는 것을[1] 보더라 이는 그들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라 주여 우리는 믿나이다[2] 순교자들과 함께 하게 하여주소서 라고 하더라

84. 우리는 하나님과 저회에게 계시된 진리를 믿으매 무엇이 막으리요 저회는 선량한 백성들과 함께 천국 가기를 주님께 바라나이다

85.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1] 들어주시니 아래에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보상하더라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니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보답이라

86. 그러나 말씀을 불신하고 나의 징표를 거부하는 자들은[1] 지옥이 그들의 것이라

87.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회에게 허락한 것을 금기하지 말며[1] 범주를 벗어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범주를 벗어난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88. 하나님이 너회에게 허락한 양식을[1] 먹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회는 믿는 신앙인들이라

89. 하나님은 너회의 헛된 약속보다는 너회의 의도와 마음을 계산하시니라 그에 대한 속죄로써 너회 가족들이 먹는 음식과 같은 것으로 열 명의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라 또한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도 되나니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삼일간[1] 단식을 하라 그것이 네가 사람들에게 취한 헛된 약속에 대한 속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약속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징표를 설명하시어 너희가 은혜가운데 있게 하리라

90.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1] 우상숭배와[2] 점술은[3] 사탄이 행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91. 사탄은 술과 도박으로서[1] 너희가운데 원한과 증오를 유발시키며 하나님을 염원하고 예배하려 함을 방해하려 하노라 너희는 단념하지 않겠느뇨

92.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에게 순종하며 악을 경계하라 너희가 배반한다면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을 명심하라

93. 하나님을 믿고 선을 실천하는 자들이 전에 먹었던 것들은 죄악이 아니나[1]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갖되 선을 행하라 그런 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질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선을 베풀지니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니라

94.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은 너희 손과 창으로 얻는 사냥감으로[1] 너희를 시험하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를 가려내시니라 그 이후로 죄악을 저지른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

95. 믿는 자들이여 순례 중에 있을 때는 짐승을 살생하지 말라[1] 고의로 살생한 자가 있었다면 속죄해야 되나니 너희가 살생한 것과 같은 가축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 이것은 너희 가운데 공정한 두 사람에 의해 판결되므로 카으바에서 제물로 바친 후 굶주린 자들을 배불려 주어 속죄하고 또는 단식을 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맛보는 것으로 속죄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2] 만일 역행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시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벌이 엄하신 분이시라

96. 그러나 바다의 사냥과[1] 그 음식은 허락되노라 이는 너희와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며 육지의 사냥은 너희에게 금하니 이때는 너희가 순례중일 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그분에게로 모이게 되니라

97. 하나님은 카으바를 성스러운 집으로 두셨으니 이는 인간과 성스러운 달들과[1] 제물과 영화를 위해 세우셨노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천지의 모든 삼라만상을 알도록 하셨노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98. 하나님의 벌이 가혹하심을 알라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99. 선지자는 다만 말씀을 전달하는 분으로 너희가 드러내는 것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라[1)]

100. 사악함이 그대를 유혹할지라도 악과 선은 같지 아니하니라[1)]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101. 믿는 자들이여 분명한 것은 묻지 말라 했으니 그것이 오히려 해롭게 하느니라 또한 꾸란이 계시되는 것을 묻는다면 이는 더욱 너희들에게 해악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용서하시니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102. 너희 이전의 한 무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였으니 그들은 그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되었노라[1)]

103. 하나님은 바히라나 싸이바나 와실라나 하미 같은 미신을 두지 아니하셨노라 이는 믿음을 배반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더라[1)]

104.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따르며 선지자에게로 오라 하매 우리는 우리 조상의 종교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더라 그들의 선조들도 종교와 진리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105. 믿는 자들이여 너희 자신들을 보호하라 너희가 바른 길을 따를 때 너희를 해칠 것이 없으며 너희 모두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분께서는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니라[1)]

106. 믿는 자들이여 죽음이 너희에게 도래했을 때 증인을 두라 했거늘 너희 가운데 두 명의 증인을 두거나 또는 다른 사람 가운데서 두 명을 두어야 하니라[1)] 너희가 여행 중에 있을 때 임종이 다가왔는데 그들이 의심스러울 때는 예배한 후에 그 둘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라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허위의 몫을 갖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감추지 아니하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게 하라

107. 그러나 이들 두 명이 죄인으로 밝혀지면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른 두 사람으로 그들의 위치를 대신하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하라 진실로 우리의 증언은 그들의 증언보다 진실되며 우리는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라고 맹세하게 하라

108. 그것이 가장 적절하나니 그들은 증언을 사실대로 하리라 또한 그들은 맹세한 후 다른 맹세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109.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모아놓고[1] 너희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2] 어떠 하였느뇨 물으니 저회는 모를 뿐입니다 당신만이 보이지 않은 것을 알 뿐입니다 하더라

110.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내가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내린 나의 은총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성령으로[1] 보호하여 네가 요람에서 그리고 성숙하여 사람들에게 말을 하도록 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말씀과 지혜를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가르쳤노라 너는 흙으로 나의 뜻에 따라 새의 모양을 빚어 그곳에 호흡을 하니 나의 뜻에 따라[2] 새가 되었노라 또한 나의 뜻에 따라 장님과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였노라 또한 죽은 자를 살게하니 이도 나의 뜻이었노라 또 네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음모하여 살해하려 하였을 때[3] 내가 이를 제지하였노라 이때 그들 가운데 불신자들은 이것은 분명한 마술에 불과하도다고 하더라

111. 보라 내가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나의 선지자를 믿으라 하니 믿나이다 우리는 무슬림으로써[1] 하나님께 복종합니다라고 말하더라

112.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주님께 강구하여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음식이 마련된 식탁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1] 하였더라

113. 우리는 그 식탁의 음식을 먹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평안하여지며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진실을 알고 우리가 증인이 되고싶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더라

114. 마리아의 아들 예수 가로되[1] 주여 하늘로부터 저희에게 음식이 마련된 식탁을 주어 우리에게 처음과 끝이[2] 축제가 되도록 하여 주시며 그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징표가 되게하여 주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당신은 가장 훌륭한 양식의 주인이십니다

115. 하나님이 말씀하사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내리노라 그 이후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가하지 아니했던 벌을 내릴 것이라

116.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쳐놓고 너 예수와 너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말하였느뇨 라고 물으시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며 그렇게 할 권

리도 없나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였다면 당신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 저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분은 오로지 당신 뿐입니다.

117. 당신께서 저에게 명령한 것 외에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이요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승천시킨 후에는 당신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나니 당신은 모든 것의 증인이십니다

118. 당신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해도 그들은 당신의 종들이요 그들을 용서하신다해도 당신은 당신으로서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119.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오늘은[1] 진실이 그들의 진실을 증거하는 날이니 강이 흐르는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만족해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그것이 커다란 승리이라

120. 천지의 모든 것과 그 안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라

제 6 장
수라트 알안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천지를 창조하신 후 어둠과 빛을[1] 두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나 아직도 불신자들은 주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노라
2. 흙으로 너희들을 만드신 후[1] 운명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또 다른 운명이[2] 그분께 있노라 그러나 아직도 너희들은[3] 부활을 의심하느뇨
3. 그분은 하늘과 지상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숨기는 것과 너희들이 드러내는 것과 너희들이 얻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노라
4.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징표가[1] 도래하였는데도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외면하더라[2]
5. 그것이[1] 그들에게 도래했을 때 그들은 그 진리를 불신하나 그들은 곧 그들이 조롱했던 것의 진리를 알게 되리라
6.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그들 이전의 많은 세대를 멸망케 하였노라 그 세대를 지상에 두신 후 너희들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한 권능을 주었으며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하여 물을 풍부하게 하였고 물이 흐르는 강들을 두었으되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다른 세대를 두시었노라[1]
7. 그대에게 성문화 된[1] 성서를 계시하여 그것이 그들의 손안에 있다 하여도 믿지아니한 자들은 이것은 분명한 마술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으리라[2]
8. 그들은 또 천사가 그에게[1] 임하지 아니하느뇨 라고 말하더라 그러나 천사를 그에게 내려보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도 모르나 그들은 유예되지 아니했을 것이라
9. 하나님이 그에게 한 천사를 보냈다하더라도 그를[1] 한 인간의 형태로[2] 내려보냈을 것이라 그리하여 혼돈중에 있는 그들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었을 것이라
10. 그대 이전의 많은 선지자들이 조롱을 당했으나 그들의 조롱이 그들을 조롱하였노라[1]

11. 그들에게[1] 일러 세상을 여행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라고 하라

12. 그들에게 이르되 천지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뇨 이르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현시하셨으며 심판의 날 너회들을 모이도록 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노라[1] 그래도 자신들의 영혼을 잃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려 할 것이라

13. 밤에 사는 것과 낮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노라 그 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노라

14. 일러 가로되 내가[1]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보호자로 택하겠나이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나 그분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치 아니하신 분이시라[2] 일러 가로되 내게[3] 명령하셨으니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복종하되 불신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지 말라 하셨노라[4]

15. 일러 가로되 제가 나의 주님께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실로 저는 심판의 날에 있을 벌을 두려워 하나이다

16. 그 날 그것을[1] 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푼 덕분으로 그것은 분명한 승리라

17. 하나님이 그대에게 번민을 주사 그것을 제거하는 자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이 그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그러하니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

18. 그분은 그분의 종들 위에 계시는 절대자이시며 현명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라

19. 그들에게[1] 이르라 무엇이 가장 훌륭한 증거이뇨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와 너회들 사이의 증인이시라 하여라[2] 내게 꾸란이 성령으로 계시되었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너회들과 그 성서가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 너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할련지 모르나 나는 그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한분이시라 나는 너회가 섬기는 우상들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노라

20. 하나님으로부터 성서를 받은 그들이[1] 그들의 자손들을 알듯이 그대를[2] 알고 있노라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잃은 자들로 믿으려 함을 거절하더라

21.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꾸미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려 하는 자 보다 더 부정한 자가 누구이뇨[1] 실로 이들은 번성하지 못하리라

22. 내가 그들을 모두 한곳에 불러 모으는 날을 생각하라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너희가 주장한 너희들의 동료들이[1] 어디에 있느뇨 라고 물을 것이라

23. 이때 그들은 변명[1]만 털어놓으며 주여 맹세하나니 저희는 여러 신을 받들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

24. 보라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기만하고 있느뇨 그들이 기만한 것들이 그들을 방황하게 했을 뿐이라

25. 그대에게 귀를 기울인 척 하는 자가 있으나 내가 그들의 마음 속에 베일을 씌우니[1] 그들은 그것을[2]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귀를 봉하니 그들이 모든 징표를 보아도 그것들을 믿지 않더라 이에 더하여 그들은 그대에게 다가와 반론하며 이것들은 옛 선조들의 얘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더라

26.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를 따르지 못하게 하며 자신들 스스로도 그를 멀리하려 하니[1] 이는 그들 스스로의 영혼을 피멸시키고 있노라 그러나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더라

27. 그들이 불지옥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믿는자 가운데 있을텐데 라고 말하는 그들을 그대는 보리라

28. 그렇지 못하니라 그들이 숨겼던 것들이 그들에게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그들이 다시 현세로 돌아간다해도 그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금지된 것들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29. 또한 이들은 이 세상의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으며 결코 부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더라

30.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진리가 아니더뇨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라고 그들이 대답하매 너희는 벌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믿음을 거절했노라 하심을 그대가 보리라

31.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자[1]는 실로 큰 손실을 보리라 종말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그때서야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느뇨 라고 말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짐을 등에 짊어질 것이며 그들이 짊어질 짐은 바로 사악함이라

32. 현세의 삶은 오락과 유희에 불과하며 가장 좋은 것은 내세의 안식처로 이는 바르게 사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느뇨[1]

33.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1] 그대를 슬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노라 그들이 거역하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2] 거역하고 있을 따름이라

34. 그대 이전의 선지자들도 배척당했지만 그들은 그 배척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여 승리하였더라[1]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었으며 선지자들의 소식이[2] 그대에게 전해졌노라

35. 그들의 거역함이 그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땅으로는 돌출구를 하늘로는 사다리를 구할 수 있게하여 그들에게 증표가 되도록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들 모두를 인도하셨으리라 그러므로 그대는 우매한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하셨노라

36. 진리를 듣는 자들은 유익한 대답을 받을 것이며 불신으로 죽은 자들은[1]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니 그분에게로 돌아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노라

37. 이때 그들은 왜 그의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증표가 오지 않했느냐고 묻더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은 증표를 보내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나 그들 대다수가 알지 못할 뿐이라[1]

38.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도 두 날개로 나는 새들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일부라 내가 성서에 빠뜨린 것이 없으니 그들 모두는 종말에 그들 주님께로 불려 갈 것이라[1]

39.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1] 암흑속에 거하는 귀머거리와 벙어리 같노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방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라

40.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벌이 너희에게 덮쳐 오거나 내세가 너희들 위에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원을 하겠느뇨

41. 그렇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고민을 제거하여 주사 이때 너희들은 너희가 숭배했던 것을 잊으리라

42. 내가 그대 이전 여러 민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겸손함을 배우도록 하였노라

43. 재앙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은 스르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으니 사탄이 그들의 행위를 올바른 것처럼 보이게 하였더라[1]

44. 그들이 충고를 잊었을 때 그들에게 모든 은혜의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때 그들은 이에 기뻐하며 거만을 더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연히 벌을 내렸노라 이때 그들은 온전히 실망하여 있더라

45. 이리하여 죄지은 자들은 근절되었으니[1] 모든 영광이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음이라

46.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청각과 시각을 앗아가고 너희들의 마음을 밀폐하실때 그것을 너희게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뇨 내가 어떻게 그 증표를 설명하는가 보라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거역하더라

47.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연히 또는 공공연히 벌을 내리시니 이를 숙고하느뇨 죄지은 백성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멸망되지 아니하니라

48. 내가 선지자들을 보낸 것은 복음을 전달하고 경고하기 위해서라[1]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49. 그러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그들이 지은 죄악으로 벌이 내려질 것이라

50.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보물이 나에게 있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며 숨겨진 것을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며 내가 천사라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단지 내게 계시된 것을 따를 뿐이라[1] 일러 가로되 장님이 보는 자와 같을 수 있느뇨 그런데도 너희는 생각하지 아니하느뇨

51. 그들이 주님의 앞으로 불려가는 것을 마음으로 두려워 하는 자 있나니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어떤 보호자나 중재자도 없노라[1]

52.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구원하는 자들을 추방하지 말라[1]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고 있노라 그대가 그들을 계산할 아무런 책임도 없으며 또한 그들이 그대를 계산할 아무런 책임이 없거늘 그대가 그들을 추방한다면 죄지은 자 가운데 있게 되노라

53.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무리를 다른 무리와[1] 비유하여 시험하셨나니 이들이[2]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느뇨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뇨 라고 그들이[3] 말하더라

54.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대에게 왔을 때 너희 위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1] 너희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고자 현시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여 죄지은 자[2] 있다면 곧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 실로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55. 그리하여 내가 그 징표를 자세히 설명하나니 이는 죄지은 자들의 길을 밝혀 주고자 함이라

56. 일러 가로되 하나님 외에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1]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나에게[2] 내려졌노라 일러 가로되 나는[3] 너희들의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는[4] 인도받는 자들 가운데에 있지 못할 것이라

57. 일러 가로되 실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나[1] 너희들이 그것을 거역하였노라[2] 너희가 서두르고 있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며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 그분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니 그분만이 가장 훌륭한 심판자이시라

58. 일러 가로되 너희가 서두른 것이[1] 나의 소관[2] 이라면 나와 너희들 사이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리라[3] 그러나 하나님은 죄지은 자들을 다 알고 계시니라

59.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들은[1] 하나님이 갖고 계시나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없노라 그분은 땅위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것을 알고 계시며 떨어지는 나뭇잎도 대지의 어둠속에 있는 곡식 한 알도 싱싱한 것과 마른 것도 그분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 그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노라

60. 밤에 너희를 잠들게 하며 낮에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아는 분이[1] 그분이시며 낮에 너희들을 일깨워 정하여진 기간을 수행하게 하는 분도 그분이시거늘 너희도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분은 너희들이 행한 모든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61.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시며 그분의 모든 종들 위에 계시니라 그리하여 너희를 감시하는 천사를[1] 보내 죽음이 너희 중 누구에게 임했을때 그 천사가 영혼을 거두어 가나니 그들은 조금도 자신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 하니라

62. 그런 후 그들이[1] 보호자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그분의 심판이 시작되노라 그분은 계산하심에 가장 빠르신 분이시라

63. 일러 가로되[1]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알게 모르게 욕되게 하면서 그분께 구원할 때 육지나 바다의 암흑으로부터 너희를 구하신 분이 누구였느뇨 너희는 그때 저희를 이것으로부터 구하여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였노라

64.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런 모든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하시나 너희는 그분과 사신들을 혼동하노라

65. 일러 가로되 그분은 행하실 권능을 갖고 있어 너희 위로부터[1] 또는 너희 아래로부터[2] 너희에게 재앙을 보내어 너희를 혼돈케 하며 너희를 무리로 두어 서로 반목하게 하노라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증표를 설명하노라 너희는 이해하리라

66. 그러나 그대의 백성들은[1] 그것이[2]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역했노라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수호자가 아니라

67. 모든 소식마다 정해진 시기가 있거늘 너희는 곧 그것을 알게 되리라

68. 말씀을 거짓으로 대화하는 자들을[1] 그대가 보았을때 그들이 화제를 바꿀 때까지는 그들을 멀리하라 또한 사탄으로 인하여 그대가 잠시 망각한 후 다시 생각이 났다면[2] 죄를 저지른 백성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69.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책임은 아니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도록 깨닫게 하는 일이라[1]

70. 종교를 유희와 오락으로 삼는 그들을 홀로 두라 그들은 현세의 삶에 현혹되어 있을 뿐이라 그러나 그들에게 이 진리를 명심하게 하리니 모든 영혼이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보호자나 중재자도 없으며 어떤 배상금도 수락되지 아니하니[1]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불신의 대가로 이글거리는 물을 마시고 참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

71. 일러 가로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자는 말이뇨 그것들은 우리에게 이익도 손실도 줄 수 없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은 후에 사탄에 유혹되어 이 진리를[1] 거역하고 지상을 방황하는 우매한 자들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들에게로 오라 하더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복음만이 길이요 생명으로 우리는 인류의 주님께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 받았노라

72.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거늘 그분이 바로 너희가 바로 돌아갈 곳이라

73. 하늘과 땅을 진리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 두시고자 하는 날에 그분께서 있어라 그러면 있느니라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나팔이 울리는 날[1] 모든 권능이 그분의 것이 되노라[2] 그분은 너희가 안으로 감추는 것과 밖으로 내보이는 것도 모두 아시는 분이시니 그분은 현명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74. 일러 가로되[1] 아브라함이 그의 부친 아자르에게 우상을 신으로 모시

나이까 아버지와[2] 그리고 아버지의 백성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3]

75.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1] 하늘과 땅의 왕국을 보여주면서 그가 확고한 신앙을 갖는 자 중에 있도록 하였노라

76. 그리하여 밤이 그를 어둠으로 가리우니 그는 별을 보고[1] 이 별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뇨 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사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이라 말하였더라

77. 찬란하게 떠오르는 달을 보았을 때 이것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뇨 하더니 그 달이 사라졌을 때 만일 나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분명히 방황하는 자 가운데 있게됩니다 하였더라

78.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이것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뇨 이것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큼이라 하더니 태양이 사라졌을 때 백성들이여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혼동하여 숭배하고 있는 것을 알았노라

79. 나는 실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로 나의 얼굴을 돌렸으니[1] 나는 결코 하나님에게 다른 우상을 비유하지 아니하노라

80. 그의 백성들이 그에게 반론하더라[1] 그가 이르길 하나님에 관하여 너희가 나에게 반론하느뇨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 나는 주님께서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는 한 너희가 하나님에게 우상을 비유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2] 주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지식안에 두셨으니 그래도 너희는 생각하지 않느뇨

81. 너희가 하나님께 비유하여 숭배하는 우상을 내가 어떻게 두려워 하겠느뇨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아무런 권능도 부여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비유함을 두려워 하지 않느뇨 어느 쪽이 안전하느뇨 너희가 알고 있다면 내게 말하라 하니

82. 믿음을 갖고 그들의 믿음을 사악함으로 혼돈하지[1] 아니한 그들에게 실로 안전함이 있을 것이요 그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리라[2]

83.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증표로[1] 그것으로 백성에게 임하도록 하였노라[2]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나니 실로 그대의 주님은 현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84.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고 그들 모두를 인도하였으며 그 이전의 노아도 인도하였노라 또한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과 욥과 요셉과 모세와 아론을 인도하였노라[1]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주시노라[2]

85. 자카리야와 요한과 예수와 엘리야 모두도 의로운자 중에 있었노라[1]

86. 이스마엘과 엘리샤와 요나와 롯 모두를 다른 민족 위에 두었노라[1]

87. 그들의 선조들과 후손들과 형제들 가운데서 일부를 선택한 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노라

88.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분은 그분의 종들 중에서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니라 만일 그들이 그분께 다른 우상을 비유했다면 그들의 모든 것이 헛되었으리라

89. 이들에게 성서와 능력과 예언자의 지위를 부여했노라 그들이[1] 그것을[2] 믿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하지 아니한 백성에게 부여하였으리라

90. 이들은[1]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예언자들이니 그들의 안내를 따르라 일러 가로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보상을[2] 너희에게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것은 백성을 일깨워 주는 것에 불과하니라

91. 그들은[1]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하길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 것도 계시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 일러 가로되 모세가 인간을 위한 빛과 복음으로 가져온 성서는 누가 보냈느뇨 너희는 그것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각각의 종이에 기록하여 보이며 한편으로는 많은 내용을 숨기더라[2] 너희는 너희와 너희 선조들이 알지 못한 것을 배웠노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것을[3] 보내셨으며 그들이 공론에 빠지도록 두어라 하셨느니라

92. 이것은[1] 축복받은 성서로서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충족시키고 그대로 하여금 그 고을의 백성과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니 내세를 믿는 자는 이 성서를 믿으며 예배를 준수하노라

93. 하나님께 거역하며 거짓하는 자와 아무 것도 계시되지도 아니했는데 나에게도 계시가 있었다고 말하는 자[1]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과 같은 것을 계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2] 보다 더 사악한 자 누구이뇨 그대는 그 사악한 자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헤매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펼치며 너희의 영혼을 포기하라 오늘 너희는 수치스러운 벌을 받으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거역하며 거짓하고 그분의 말씀에 거만하였노라 하더라

94.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빈손으로 홀로 오니라[1] 또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너희 뒤에 남기며[2] 또한 너희가 너희의 일에 중재자로 생각했던 너희의 중재자를[3]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보지 아니하니라 그리하여 너희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너희가 주장한 모든 것들이 너희를 떠나니라

95. 새싹을 피게하고 씨앗이 열매가 되게 하며[1] 죽은 것을 살게 하고 산 것을 죽게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거늘 너희는 어떻게 진리를 외면하며 유혹에 빠져 있단 말이뇨

96. 그분은 또한 아침을 두었으되[1] 밤을 두어 쉬게하였으며 태양과 달을 두어 시간을 알도록 하셨으니 그것이야말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그분의 배열이시라

97. 하나님은 별들을 두어 육지와 바다의 어두운 영역을 그것으로하여 너희를 안내하고자 하였으니 그분은 지혜를 가진 백성을 위해 말씀을 상세히 설명하였노라

98. 한 몸에서[1] 너희를 창조하신 후 너희가 머무를 곳과 떠날 곳을[2]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을 위해 징표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노라

99. 하늘에서[1] 비를 내리게 하사 그것으로 모든 식물이 싹트게하고 그것으로 푸른 잎들을 피게 하며 그것으로 이삭에 싸인 낱알을 거두게 하시고 종려나무와 그의 줄기에서 열매가 송이 송이 열리며 보기에 유사하나 맛을 다르게하여 포도와 올리브와 석류나무의 과수원을 두시었노라 그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 열매로 너희의 눈을 기쁘게 하라 하시니 보라 이 안에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2]

100.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마를[1] 그분과 대등한 자로 섬기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무지하여 하나님에게 아들과 딸들이 있다고 하더라[2]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분은 그들이 묘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고귀한 분이시라

101.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이라 그분께는 배우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손이 있느뇨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심이라

102. 그분이 하나님이사 너희 주님이시거늘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노라 그럼으로 그분만 경배하라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라

103. 너희는 눈으로 그분을 뵐 수 없으나 그분은 너희를 보시니라 그분은 자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1]

104. 실로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증표들이[1] 도래하였으니 그 진리를 보고 믿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요 눈이 어두운 자는 스스로에게 악이 되나니 나는 너희들을 위한 보호자가 아니라[2]

105.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표를 통하여 말씀을 설명하자 그들은[1] 말하길 그대는 성경을 공부하여 이것을 가져왔느뇨[2] 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지식층의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분명히 밝혀줄 것이라

106.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따르라[1]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멀리하라

107.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들이 다른 것을 그분에게 비유하며 거역하지 아니했을 것이라[1] 하나님은 그대를 그들에 대한 감시자로써 그리고 그들을 위한 수호자로 두지 아니했노라

108. 그러하매[1]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것들을[2] 험담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이라[3]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그럴듯 하게 보이도록 함이라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행했던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109. 그들은[1] 하나님께 크게 맹세하였으니 그들에게 증표가 이르렀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믿었으리라 일러 가로되 실로 모든 증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노라 그러나 그들에게 증표가 이르면 믿지 아니하니 무엇으로 너회들을 알게 하리요[2]

110.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시력을 혼동상태로 둘 것이니 처음에 믿음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1] 그리고 그들을 사악함 속에서 방황하게 할 것이라

111. 그들에게[1] 천사들을 보내고 죽은 자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며 모든 것들을 그들 눈앞에 갖다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한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들 대다수는 무지속에 행동하리라

112. 그리하여 내가 인간과 영마 가운데서 각 예언자에게 사탄을 두니[1]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며 거짓을 조성하더라 그대의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은 그렇지 아니했으리라 그러하매 그들이 거짓한 대로 두라 하셨노라

113.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기만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들이 얻는 것을 계속하여 얻을 목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말들을 화려하게 꾸며대더라[1]

114. 일러 가로되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심판을 요청하겠느뇨[1] 그분은 나에게 성서를[2] 보내시어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신 분이시라 성경을 받은 그들은[3] 꾸란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임을[4] 알고

있나니 너희는 의심하는 자 가운데 있지 말라

115. 그대 주님의 말씀은 진리와 정의로 완성되었나니 그분의 말씀을 변경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노라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116. 그러므로 그대가 지상의 많은 사람들을[1] 따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 있는 그대를 유혹하리라 그들은 공상을 따르고 거짓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

117. 실로 주님께서는 누가 그분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니라

118.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고기를 먹되 그분의 이름으로 도살된 것을 섭취하라[1]

119.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된 것을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뇨 그분께서는 금지된 것과 불가항력의 경우를[1] 너희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무지하니 많은 것들이 그들을 유혹하더라 주님은 거역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시니라

120. 보이는 죄악도 보이지 않는 죄악도 모두 버리라 하였으니 저지른 죄악은 그가 저지른 죄악으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

121.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는 먹지 말라 그것은 죄악이니라[1] 그러나 사탄은 그들의 동료들로 하여금 너희와 논쟁하도록 고무하도다 만일 너희가 그들에게 복종한다면 너희는 실로 불신자들이라

122. 내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에게 빛을 비추니 그는 그것으로 사람들 사이를 걸으매 그가 결코 나올 수 없는 암흑에 있는 자와 같지 아니하더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그럴듯하게 보이니라[1]

123. 그리하여[1] 고을마다 사악한 자를 두니 이들은 그 안에서 음모를 꾸미더라 그러나 그들이 음모함은 단지 그들의 영혼을 음모할 뿐이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함이라

124. 그들에게 징표가 올 때면[1]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 주어질 때까지 믿지 않겠다고 말하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메시지를 수행할 자와 방법을 아심이라[2]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굴욕과 그들의 음모에 대한 대가로 가혹한 벌을 받으리라

125.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여 인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가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며 그분이 원하여 방황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의 가슴을 좁게 하시니 이것은 하늘 높이 오를 때 가슴조여지는 것과 같더라 이렇듯 하나님은 믿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니라

126. 이것이 그대 주님의 바른 길이라 내가 사람들을 위해 계시를 자세히 밝혔나니 모두가 이를 상기하라

127. 그들을[1] 위해 그들 주님안에 평화로운 집이[2]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니 그들이 참됨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128. 그분께서는 어느 날 그들 모두를 모이게 한 후 말씀이 있으실 것이라 영마의 무리여 너희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방황하게 하였노라[1] 이때 사람의 한 무리가 주여 서로가 이익이 되나이다 그러나 저회는 당신께서 정하신 기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길 불지옥이 너희가 살 곳이니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제외라 실로 그대의 주님은 현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129. 그리하여 하나님은 무리의 죄인들에게 그들이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니라

130. 영마와 인간의 무리여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맞을 이 날을 경고하기 위해 선지자들이 오지 아니했더뇨 그렇습니다 저회에게 경고하려 왔음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현세의 삶이 그들을 기만하니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 역행하는 증언을 하며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었더라[1]

131. 그것이 바로[1] 주님께서 경고하지 아니하고 고을의 사람들을 파괴하지 아니하시는 이유이니라

132. 누구나 그가 행한 업적에[1] 따라 자신의 성적을 갖게 되나니 주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모르실 리가 없노라

133. 주님은 자족하시고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그분이 원하시면 너회를 멸망시키고 그분이 원하는 백성으로 대체하시니라 그것은 다른 백성 대신에 너회를 일어세웠던 것과 같노라

134. 너회에게 약속된 모든 것은 반드시 너회에게 도래하나니 너회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1]

135. 일러 가로되 백성들이여 너회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실로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리라[1] 곧 내세에서 그 결과를 알게 되리니 실로 죄지은 자들은 번성하지 못하리라

136. 하나님이 곡식과 가축을 풍성하게 하사 그들은 그것으로 그분의 몫을 할당하며 그들의 생각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것은 저들의 신들을 위한 몫이라 말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신들에게 바친 몫은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나 하나님의 몫은 그들의 우상에 이른다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사악함이 있으리라

137. 또 그들이 믿는 신과 우상은[1]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손들을 살생하는 것 까지도 훌륭한 것이라 유혹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를 멸망케 하고 그들의 종교를 혼란케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을 그리고 그들이 날조한 대로 두라

138. 이 가축과 저 작물들은 금기되었으며 우리가 원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양식으로 섭취할 수 없다고 그들이 말하더라 그들은 또 이것은 금기된 가축이매 그것의 등에 짐을 싣지 말며 그 가축을 도살하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된다[1]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니 그분께서 곧 그들에게 거짓함에 대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

139. 그들이 말하더라 이 가축들 배속의 모든 것은 남성을 위한 양식으로 여성에게는 금기라 그러나 죽은 채로 태어난다면 그것은 남녀 모두가[1]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에 대하여 벌을 내리실 것이라 그분은 현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140. 알지못한 무지로 인하여 그들의 자손을 살해하고[1]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신 양식을 금기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들은 이미 죄악에 빠졌나니 그들은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하노라

141. 포도의 정원을 두시매 시렁이 많은 것과 없는 것을 두시고 종려나무를 두시매 그의 열매를 주시며 그 열매를 주시매 여러 가지로 주시고 올리브와 석류와 유사한 것과 서로 다른 것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라 그러므로 그 열매가 익을때 먹고 수확하는 날 이슬람세를 바치라[1] 그러나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은 낭비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142. 가축가운데는 짐을 실을 가축이 있고 고기로 사용할 가축이 있노라[1]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양식으로 주셨으니 사탄의 발걸음을 따르지 말라 하셨노라 실로 그는[2] 너희의 공개적인 적이니라

143. 여덟 종류의 가축을 양식으로 주셨으니 양의 암컷과 수컷이며 염소의 암컷과 수컷이라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금기하신 것이 두 마리의 수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의 배속에 있는 것인가 너회가 진실함이라면 사실로써 내게 말하라

144. 두 마리의 낙타와[1] 두 마리의 소를[2] 양식으로 주셨으니 일러 가로되 너회에게 금기 하심이 두 마리의 수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의 배속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 너회가 목격하였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3] 자보다 더 사악한 자 없나니 이들은 아무런 사실없이 백성들을 유혹하더라 실로 하나님은 죄지은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니라

145. 일러 가로되 내가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것 가운데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하지 아니했노라 그러나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46. 유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금기하사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모든 짐승은 먹지 말라 하고 소와 양의 지방질도 금기하되 등에 붙어 있는 것과 장에 붙어 있는 것과 뼈와 섞여있는 것은 제외하셨노라[1]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대가에 대한 보상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하셨노라

147. 그들이 그대를 거짓으로 비난한다면 일러 가로되 주님은 은혜로 충만하시나 죄지은 백성은 그분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하리라

148. 불신자들이 말하더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불신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또한 우리의 선조들도 그러했으리라 또한 우리에게도 금기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이렇듯 그들의 선조들도 거짓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노라 일러 가로되 너회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이라 너회는 억측만을 따를 뿐으로 너회가 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니라

149.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증표가 있었노라 그러므로 그분이 원하셨다면 그분께서는 너회 모두를 인도하셨으리라[1]

150.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금기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을 이르게 하라 그들이 그러한 증인을 이르도록 하였다 하더라도[1] 그대는 거짓하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또한 말씀을 거역하고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에게 다른 것을 비유하는 저들의 거짓 욕망을 따르지 말라고 일렀노라

151. 일러 가로되 내게로 오라 내가 하나님이 금기하신 것을 일러 주리

라 그분께 아무 것도 비유하지 말며 그대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난을 구실로 너희 자손을 살해하지 말라 너희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리라 또한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죄악에 가까이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신성시한 생명을 살해하지 말라 그것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지혜를 배우도록 한 것이니라[1]

152. 고아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고아의 재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복지를 위한 것은[1] 제외라 치수와 무게를 공평하게 하라[2]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주지 아니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짐만 주시노라 너희가 말을 할 때는 정직하게 말하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기억하도록 한 것이니라

153. 실로 이것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의 길이니 그것을 따르되 다른 길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길로부터 탈선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니 정직하라

154. 모세에게 성서를[1] 주었으니 이는 바른 일을 행하는 이들을 위해 나의 은혜를 완성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여 주며 복음과 은혜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의 주님을 영접하도록 함이라

155. 이것은[1]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계시한 성서이거늘 이것을 따르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156. 그 성서는 너희가 우리 이전 두 백성에게만 계시되었으니 우리는 실로 그들이 읽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1]

157. 그 성서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바르게 인도 되었으리라 말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이제 너희에게 주님의 증거와[1] 복음과 은혜가 도래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보다 사악함이 없노라[2]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자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라

158. 천사들이 그들에게[1] 오지 않기를 바라느뇨[2] 아니면 주님과 주님의 증표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느뇨[3] 주님의 말씀이 도래하는 날 이전에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선을 실천하지 아니한 자가 그때에 가서 믿으려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유용하지 못하니 일러 가로되 기다리라 우리도 역시 기다리고 있노라[4]

159. 실로 종교를 분열시켜 파벌을 조성하는 자 있도다[1] 그러나 그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며 그들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께 이르니 그분께서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라

160. 선을 실천한 자에게는 열배의 보상이 있으며 사악한 짓을 행한 그에게는 그와 같은 것 외에 다른 것이 보상되지 아니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노라[1)]

161. 일러 가로되 실로 나의 주님께서 나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였으며 그 길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진리의 길이라 또한 그분은[1)] 하나님께 아무 것도 비유하지 아니했노라

162. 일러 가로되 실로 나의 예배와 내가 바치는 제물과[1)]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 모두가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라

163. 하나님은 유일신이라 나는 이에 관한 명령이 나에게 내려졌으니 내가 제일 먼저 그분에게 복종하는 신앙인이더라

164. 일러 가로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강구한단 말이뇨 그분은 만물의 주님이시라 누구나 그가 얻은 것은 그에게로 돌아오거늘 누구든 타인의 짐을 대신하여 질수 없노라[1)] 너회는 주님께로 돌아가나니 그분께서는 너회들이 달리했던 모든 사실을 너회에게 알려주리라

165. 하나님이 너회를 이 세상에 보내사 그분의 대리인으로 두었으며 너회 가운데 무리를 다른 무리 위에 두었더라 이는 그분이 너회에게 주신 것으로[1)] 너회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실로 주님은 벌을 주심에 빠르시며 또한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제 7 장
수라트 알아으라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밈 싸드[1]

2. 이것은 그대에게 계시된 성서이거늘[1] 그대의 마음을 조아리지 말며[2]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3] 위해 경고하고 가르치라 하였으니[4]

3. 백성들이여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1] 따르라 그리고 그분 아닌 다른 것을[2] 보호자로 택하지 말라 그러나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아니하더라[3]

4.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백성을[1] 멸망시켰더뇨 그들이 밤과 낮에 잠에[2] 취해 있을때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벌이 있었노라[3]

5.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있었을 때[1] 실로 저희가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라는 것 외에는 말하지 못하더라[2]

6.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맞이했던 그들에게 물을 것이요[1] 또한 선지자들에게 물어 볼 것이라[2]

7. 하나님은 지혜로써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여 주리니[1] 그분은 계시지 아니한 때와 곳이 없노라[2]

8. 그 날의[1] 저울은 공평하나니[2] 선행으로 저울이 무거운 자가[3] 번성하리라

9. 저울이 가벼운 자는[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잃게 되리라

10. 하나님은 너희가 대지 위에서 거하고[1] 너희가 그 안에서 삶을[2] 영위하도록 하였으나 소수를 제외하고는 감사할 줄 모르더라

11.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사[1] 형상을 두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인사하라[2] 하니 그들 모두가 인사하였으나 이블리스는 그렇지 아니하고[3] 인사하는 자 중에 있기를 거절하였더라

12.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인사하라 무엇이 못하게 하느뇨 라고 물으니 내가 그보다 훌륭합니다[1] 당신께서는 나를 창조하시매 불에서 창조하셨고 그를 창조하매 흙에서 창조하

셨습니다

13.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로부터[1] 네가[2] 내려가라 네가 여기서 거만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3] 나가라 너는 가장 비천한 존재이니라

14. 이때 이블리스가 말하길 부활하는 그 날 까지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1] 라고 하더라

15. 이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유예하는 자 중에 두었노라[1]

16. 이블리스가 말하길 당신께서 나를 쫓았으니 나는 그들이 당신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리라[1]

17. 그런다음 내가 그들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또한 그들 오른편과 왼편에서 그들을 방해하리니[1] 당신께서는 감사하는 그들을 발견치 못하리요

18.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곳에서[1] 나가라 저주스러워 추방함이라 그들 가운데 너를 따르는자[2] 있다면 그들 모두를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9. 아담아 너와 네 아내가[1] 천국에서 거하며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먹되 허락된 것을 먹으라 그러나 이 나무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악을 낳게 되리라[2]

20. 이때 사탄이 그들에게 속삭여 유혹하고 숨겨진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게 하며 그대의 주님께서 이 나무를 금기한 것은 너희가 천사가 되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그들을 유혹하였더라[1]

21. 또한 그는 맹세하며[1] 그 둘에게[2] 그들의 진실한 조언자라 하더라

22. 이렇게하여 그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았더라 이때 그들의 수치가[1] 드러나매 그들은 낙원의 나뭇잎으로 몸을 감싸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내가 너희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금하고 사탄은 너희 적이라 이르지 아니했더뇨

23. 이때 아담과 하와가 기도하길 주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주지 아니 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 한다면 저희는 잃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1]

24.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적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1] 그곳에 정착하여 얼마 동안 즐기며 살라고 하시더라

25. 또 말씀이 계셨으니 너희가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임종하며 그 곳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라[1)]

26. 아담의 자손들이여 너희들에게 의상을 주었으니 너희의 부끄러운 곳을 감추고 아름답게 꾸미라[1)]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상이[2)] 제일이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증표이거늘 그들은 그 진리를 상기할 것이라

27. 아담의 자손들이여 사탄이 너희의 선조를 유혹하여[1)] 그들의 의상을 빼앗아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게하여 너희 부모[2)]를 천국에서 나가게 하였으니 그가 너희를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와 그리고 그의 무리는 너희가 그들을 볼 수 없는 곳에서 너희를 보고 있노라 실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만 사탄을 적으로 두었노라

28.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할 때면[1)] 변명하여 말하길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2)]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3)] 라고 하니 일러 가로되 그렇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노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려 하느뇨

29. 일러 가로되 나의 주님께서 진리를 명령하사 너희가 예배할 때와 예배하는 곳에서 그분께로 향하여[1)] 그분이 지켜보는 것처럼 그분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라[2)] 태초에 너희를 창조했으니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가니라

30. 인도된 무리가 있었고 그분의 길을 잃어버린 무리가[1)] 있었으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들을 친구로써 그리고 보호자로 택한 후 그것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더라

31. 아담의 자손들이여 너희가 예배하는 때와 예배하는 곳에서는 의상으로 단장하되[1)] 사치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며 과음하지 말라[2)] 실로 하나님은 낭비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32. 일러 가로되[1)] 하나님께서 종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아름답고 깨끗한 장식을 누가 금기하느뇨[2)] 일러 가로되 이것은 현세에 살며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심판의 날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3)] 이렇게 하나님은 아는 자들을 위해 이슬람법을 설명하노라

33. 일러 가로되 실로 나의 주님께서 금기하신 것 중에는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아니한 수치스러운 행위들이 있나니 진리에 거역하는 죄악이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아니한 다른 것으로 하나님에게 비유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것이라[1)]

34. 모든 백성에게 정하여진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이 도래하면 그들은 단 한 시간도 유예하거나 앞당길 수 없노라[1]

35. 아담의 자손들이여 너희 중에서 선지자들이 도래하여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리니[1]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슬픔이 없을 것이라[2]

36.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며 거만하고 오만을 피우는 자들은[1] 불지옥의 동반자가 되어 그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37.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 누구이뇨[1] 그로 말미암아 성서에 주어진[2] 그들의 기한이 완료되자 천사들이 내려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며[3] 하나님을 마다하고 너희가 숭배한 너희의 신들이 어디 있느뇨 라고 물으니 그들은 저희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불신하여 방황하였다는 것을 인식하더라

38.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1] 너희 이전의 지나간 사람들과 영마와 그리고 너희가 함께 불지옥으로 들어가라 새로 온 사람들이 들어가니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며[2] 그들 모두가 그 안으로 모이매 나중에 온 자들이 먼저 온 자들에게 이야기 하길[3] 주여 저들이 우리를 유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옥의 벌을 두배로 하여 주소서 라고 말하니 일러 가로되 모두에게 벌이 배가 되리라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이라 하시더라

39. 그때 먼저온 자들이 나중에 온 자들에게[1] 너희가 우리 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니 너희도 너희가 행하는 것으로 벌을 받으라 말하더라

40.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오만하고 거만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며[1]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2] 이것이 죄지은 자들에 대한 대가라

41. 그들을 위해 지옥에 침상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는 불의 이불이 있을 뿐이니[1] 이것이 죄지은 자들을 위한 대가라

42.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아니할 것이니[1] 이들이 천국의 증인들로서 그 안에서 영생하니라

43.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였고[1] 그들 밑에는 강이 흐르니 그들이 말하길 저희를 이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는 인도되지 못하였으리라 실로 그것이 주님의 선지자들이 저희에게 전한 진리였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니 천사들이 너희 앞에 있는 천국을 보라 그것

은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

44. 그리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지옥에 사는 자들을 부르더라 실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알았노라 너희는 역시 너희 주님의 약속이 진리이더뇨 라고 물으니[1]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죄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더라

45. 저들은[1]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를 방해하며 바른 길을 왜곡하는 자들로 내세를 부인했던 자들이라

46. 그들 사이에 베일이 있고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들을 상징으로 알아보는 자들이 높은 곳에[1] 있으면서 천국의 사람들에게 그대들 위에 평온함이 있으리라 말하면서 그들은 천국에 들지 않고[2] 그들도[3] 들어가길 원하더라

47. 그들이 지옥의 사람들을 볼 때는 주여 저희를 죄지은 백성들에게로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더라[1]

48. 벽에 있으면서 상징으로 알 수 있는 이들이 그들을[1] 불러 말하길 너희가 축적한 것과 너희가 오만하고 거만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더뇨[2]

49. 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맹세한 자들이[1] 아니더뇨 그러나 너희는 천국으로 들라 너희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2]

50. 지옥의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을 불러 물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달라고 애걸하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이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1]

51. 그들은 종교를 유희와 오락으로만 생각하고 현세의 삶에만 몰두하여 있었노라 그들이 이 날을[1] 맞게 되리라는 것을 잊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리니[2]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52. 하나님은 그들에게[1] 성서를[2] 보내어 믿는 백성을 위한 복음과 은혜가 되도록 설명하셨노라[3]

53. 그들은 그것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느뇨[1] 그것의 결과가 이를 때[2] 이전에 게을리 했던[3] 자들이 말하길 실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진리를 보내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중재자가 되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재앙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아니면 저희를 다시 보내어 선을 행하도록 하여 주소서 라고 원하나 그들은 이미 그들의 영혼을 잃었으며 그들이 거짓한 것이 드러났니라

54. 실로 주님께서 엿새 동안에[1] 천지를 창조하신 후 권좌에 오르신[2] 하나님 이시라 그분은 밤을 두어 낮을 가리고 또 서둘러 밤을 쫓으며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어 그분의 권능아래 두시었더라 창조하시고 자비하심이 그분이 아니더뇨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받으소서

55. 하나님께 기도함에 겸손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라 하였으니 실로 하나님은 드러내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1]

56. 하나님께서 지상에 질서를 두셨으니[1] 해악을 끼치지 말라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갈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선을 행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노라

57. 하나님이 바람을 보냄은 그분의 은혜로 비를 보내는 징조라[1] 그것이[2] 무거운 구름을 동반하니 그분은 그것을 불모지로 유도하여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하사 그것으로 모든 종류의 열매를 주시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것을 상기하리라

58. 좋은 땅에서 작물이 풍성하니[1]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나 좋지 아니한 땅에서는[2] 잡초 뿐이거늘 이렇듯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을[3] 위하여 말씀으로 비유하시노라

59.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내었을 때 노아 이르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심판의 날 너희가 벌을 받을까 내가 두렵도다 경고했더라[1]

60. 이때 백성의 족장들이[1] 말하길 우리가 지켜보리니 당신이 분명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2] 라고 대답하매

61. 그가 말하길 백성들이여 내가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실로 나는 온 누리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낸 예언자로

62. 너희게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위하여 충고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1]

63. 이르되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경고하고[1]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의 은혜를 받으리라고 말함이 너희를 놀라게 한단 말이뇨

64.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역하였으니[1]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를 따라 방주에 올랐던 자들만을[2]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물로서 멸망시켰노라 그들은 실로 장님이었더라[3]

65. 하나님이 아드 백성에게[1] 그들의 형제 후드를 보내니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너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뇨

66. 그의 백성가운데 믿지 아니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말하길 우리는 당신을 어리석은 자로 보며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한다고 하더라

67. 이때 후드가 말하길 백성들이여 내가 어리석지 아니함이라 나는 온누리의 주님이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로

68. 내가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진실로 충고하니라[1]

69. 주님께서 너희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 너희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희를 경고함이 놀라운 일이란 말이뇨[1] 노아의 백성을 멸망케한 후 너희가 이를 계승토록 하고 너희에게 힘을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너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숙고할때 너희는 번성하리라

70. 우리 조상이 섬기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뇨[1]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약속된 벌을 보여달라고[2] 하매

71. 후드가 말하길 이미 주님으로부터 벌과 노여움이 너희에게 이르렀노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조상이 고안한 우상들에 관하여 나와 논쟁하려 하느뇨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부여하지 아니 했노라 기다리라 나도 너희와 함께 기다릴 것이라[1]

72.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와 함께 하였던 자들을[1]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믿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시켰노라[2]

73. 하나님이 사무드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살레를 보내니 그가 이르더라 백성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이제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증표가 이르렀거늘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증표로 보낸 암낙타라 하나님의 대지 위에서 풀을 뜯도록 놓아두되 해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고통스러운 벌을 받으리라[1]

74. 이르되 아드의 백성을 멸한 후 너희가 이를 계승토록 하고 너희가 그 대지 위에서 살도록 하였으니 너희는 평원에 궁전을 세우고 산에 집을 지었으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상기하고 대지 위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75. 이때 살레의 백성 중에서 거만한 족장들은 억압 받은 자들에게[1] 실로 살레가 주님이 보낸 예언자인가 라고 물으니 그는[2] 주께서 보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나

76. 거만한 자들은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것을[1] 불신함이라 말하더라

77. 그리하여 그들은 암컷의 낙타를 살해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레여 당신이 예언자라면 우리에게 약속한 벌을 보이라 말하더라

78. 그리하매 땅이 진동하여 그들을 덮치니 그들은 죽은 시체가 되어 자신들의 집에 엎드려 있더라

79. 이때 살레는 그들로부터 돌아서 이르길 백성들이여 실로 내가 너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너희를 위해 충고하였으나 너희는 충고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느뇨[1]

80. 하나님이 롯을 보내니 그가 그의 백성에게[1] 이르더라 너희 이전 어떤 사람도 저지르지 아니한 부끄러운 일을[2] 너희들은 저지른단 말이뇨

81. 너희는 여성을 마다하고 남성에게 성욕을 품으니 실로 너희는 죄지은 백성들이라[1]

82. 이때 그의 백성들의[1] 대답은 이러하였으니 그들을 고을에서 추방하라[2] 실로 이들은 순수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

83.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1] 그의 아내를 제외한 그의 가족을[2] 구하였노라 그러나 그녀는 그의 백성과 함께 남아있었더라[3]

84. 그리고 그들 위에 유황 비를[1] 내리게 했으니 죄지은 자들의 말로가 어떠 했더뇨

85. 하나님은 마드얀의[1]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슈와이브를 보내니 그가 이르더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이제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증표가[2] 이르렀거늘 치수와 무게를 공평케 하고 그들의 것을 삭감하지 말며 개심한 후[3] 대지 위에서 해악을 퍼트리지 말라 너희가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86. 길에 웅크려 앉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방해하며[1] 그 안에서 그릇된 것을 찾으려 하지 말라[2] 너희가 소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증가시켜 주었던 은혜를 생각하고 죄지은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지켜보라

87. 나를 보내진 선지자로 믿는 무리와 믿지 아니한 무리가 있었다면 기다리며 인내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 그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시라[1]

88. 그의 백성 중에 오만한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말하더라 슈아이브여 우리는 그대와 그리고 그대와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의 고

을에서 추방하리라 아니라면 그대들이 우리의 종교로 돌아오라고 하자 슈아이브가 이르더라 우리는 그것을 증오함이라[1]

89.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사 우리가 너회 종교로 돌아간다면 실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거짓한 것이라[1]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그것으로 돌아감이 합당치 아니함이라 주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지혜안에 두셨으니 주여 저회는 하나님께 의존하나이다 진리로써 저회와 이 백성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당신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심판자이십니다

90. 그의 백성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말하더라 너회들이 슈아이브를 따른다면 너회들은 분명히 멸망하리라

91. 그때 땅이 진동하며[1] 그들을 덮치니 그들은 시체가 되어 넘어지더라[2]

92. 이렇듯 슈와이브를 거역한 자들은 그들이 살지 아니했던 것처럼 멸망했으니 실로 슈아이브를 거역한 자들이 손실자들이라

93. 그리하여 슈아이브는 그들을 떠나면서 백성들이여 실로 내가 주님이 보낸 메시지를 이미 너회에게 전하였고 너회에게 충고하였음이라 그러하매 내가 어찌 믿음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리요[1]

94. 하나님이 고을에 예언자를 보냈을 때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을 맛보도록 하여 그들이 겸손함을 배우도록 했노라[1]

95. 그런 후 하나님이 그날의 고난을 거두고 번성하게 하니[1] 그들은 번성하여 말하길 우리의 선조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였으나 풍요로웠습니다[2] 하더라 이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매 하나님은 그들을 갑자기 덮쳐 갔노라[3]

96. 그 고을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였다면[1]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늘과 땅으로부터 축복을 열어 주었으리라[2]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거역했으니[3] 하나님은 그들이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덮쳐 갔노라

97. 고을의 백성들이 잠드는 밤에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안전하더뇨[1]

98. 오락을 즐기는 밝은 낮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도래하였을 때 그 고을의 백성들이 안전하더뇨

99.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안심하느뇨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안심하지 아니하나 멸망한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 하였더라[1]

100. 선조들로부터 대지를 물려 받은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 아니더뇨 그들이 죄지을 때 하나님이 원하사 그들을 멸망케 하고 마음을 봉하니 그들은 듣지 못하였더라[1)]

101. 하나님이 그대에게[1)] 그 고을에[2)] 관해 이야기 하리라 실로 선지자들이 증표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래하였으나 이전에 거역하였듯이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매 하나님은 믿음을 거역한 이들의 마음을 봉하셨더라

102. 하나님은 그들 대다수가 그들의 약속에 진실되지 못하고[1)] 진실로 그들의 대다수가 악을 행하는 자들임을 알았더라[2)]

103. 그리하여 하나님은 후에[1)] 모세를[2)] 통하여 파라오와[3)] 그의 우두머리들에게 하나님의 증표들을[4)] 보냈으나 그들은 그것을 거역하였으니 보라 악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하더뇨

104. 이때 모세가 이르길 파라오여[1)] 내가 온 누리의 주님이 보낸 선지자라[2)]

105. 나 모세는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 외에는 얘기할 권리가 없으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 함께 떠나도록 하여 주소서 라고 요구하니[1)]

106. 파라오가 대답하길[1)] 그대가 진실이라면 가져온 증표를 보이라 하더라

107. 이때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던지니 보라 그것은 분명한 뱀이 되었더라[1)]

108. 또 모세가 그의 손을 꺼내니 보라 그것은 모든 구경꾼들에게 하얀 손으로 보였더라[1)]

109. 이때 파라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말하길 이는 숙련된 마술사라

110. 모세가 너희의 땅에서 너희들을 추방하려 의도하니[1)]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뇨

111. 그들이 말하길 그와 그리고 그의 형제를[1)] 잠시 보류하고 사람을 각 도시로 보내

112. 모세에게 대항할 숙련된 우리의 모든 마술사들을 데려오게 하리요

113. 그 후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로 와 말하길[1)] 물론 저희가 승리한다면[2)]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되겠지요 라고 말하니

114. 파라오가 말하길 그 이상이라 또한 직책이 올라가 내 옆에 있게 되리라[1)] 하니

115. 그들이 말하길[1] 모세여 네가 먼저 던지겠느뇨 아니면 우리가 먼저 던질까 라고 묻자

116. 모세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먼저 던지라 하니 그들이 먼저 던져 사람들의 눈을 유혹하고 그들을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하는 마술을 보였더라[1]

117. 그 후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감화시켜 그대의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 보라 그것이 그들이 꾸며낸 허위를 삼키더라

118. 그렇게하여 진리가 입증되고 그들이 하던 모든 일들이[1] 공허하게 되었더라

119. 그리하여 그들이[1] 그곳에서 패배하여 물러서니

120. 그 마술사들은 엎드려 경배하며[1]

121. 말하길 저희는 온 누리의 주님을 믿나이다 말하며

122. 또한 그분은[1] 모세와 아론의 주님이시라 하니

123. 파라오가 말하길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기 전에 너희가 그를[1] 믿는단 말이뇨 실로 이것은 너희가 이 도시에서 꾸민 음모이며 너희는[2] 이 도시의 거주민들을 추방하려 계획한 자들이라 너희는 그 결과를 알게 되리니[3]

124. 내가 너희들의 두 손과 두 발을 서로 다르게 잘라[1] 너희들 모두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리라[2]

125. 그들이[1] 대답하길 우리는 주님께로 귀의 할 뿐이요[2]

126. 그러나 주님의 증표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하여 너희는 우리를 보복하지 못하리요 주여 저희에게 인내함을[1] 주옵시고 저희가 당신에게 복종하는 신앙인으로 임종하게 하여 주소서

127. 파라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말하더라 폐하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지상에 해악을 퍼트려 폐하와 폐하의 신들을 우롱하도록 둘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 그가 대답하였더라 그들의 아이들이 남자이거든 살해하고 여아만 살아남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1]

128. 이때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일러[1] 하나님께 구원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실로 대지가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종들에게 그것을 상속하리라[2] 그리하여 축복의 결과는 경외하는 자들의 것이 되리라

129. 그들이[1] 대답하되 저희는 당신이 저희에게 임하기 전에도 그리고 저

회에게 도래한 이후에도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하니 그가[2] 이르길 너희들의 주님께서 너희들의 적들을 멸망시킨 후 너희로 하여금 그 대지를 통치하게 하리라 그런 후 그분께서 너희가 행동함을 지켜보실 것이라[3]

130. 그리하여 하나님은 파라오 백성들에게 수년 동안 가뭄의 벌을 주어 수확을 감소시켰노라[1] 그들은 기억할 것이라

131. 그러나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이것은 우리 덕분이라 그러나 불운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것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 실로 불운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나[1]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2]

132. 이때 그들이 말하길[1] 그대가 우리를 유혹할 증표를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그대를 믿지 아니하리라

133.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한 증표로 홍수와 역병을[1] 보내 생명을 앗아가게 하고 메뚜기들과 나방들과 개구리들과 피를 보냈으나 그래도 그들은 거만하였으니 그들은 죄지은 백성들이었노라

134. 역병이[1] 그들에 이를 때마다 모세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약속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소서 그대가 우리에게서 그 역병을 거두어 준다면 우리는 그대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겠소 라고 그들이 말하더라[2]

135.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그 역병을 거두어 주었더라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 그들은 약속을 저버리더라[1]

136.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다른 재앙을 내려 그들을 바다에 익사하게 하였으매[1] 이는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라

137. 이렇게하여 하나님은 겸손했던 백성에게[1] 축복을 보내고 축복의 땅 동편과 서편을 차지하게 하였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이 충족된 것이라 이것은 그들의 인내에 대한 보상이라[2] 또한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백성이 세운 것들을 파괴하였노라

138.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하여 바다를[1] 안전하게 건너게 하니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더라 그들이 말하길 모세여 그들이 가진 것과 같은 신을 만들어 주오[2] 라고 하니 모세 가로되 실로 너희는 무지한 백성들이라

139. 실로 이 백성들이 숭배하는 것은[1] 멸망할 것이니 그들이 드리는 숭배는 헛됨이라

140. 모세가 일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구하라 하느뇨 다른 백성보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1)]

141. 기억하라 하니[1)] 하나님께서 파라오 백성들로부터 너희를 구하사 그들은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너희의 남아들을 살해하고 여아들은 살려 두었으니 그 안에는 너희 주님께서 내린 큰 시험이 있었더라[2)]

142. 하나님이 모세에게 서른 밤을 약속하고 거기에 열흘을 더하여 사십일을 채웠으니 주님과의 교화가 사십일로 끝났더라[1)] 그리고 모세는 형제 아론에게 일러 가로되 저를 대리하여 저의 백성을 다스려 교화하여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마소서[2)]

143.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로 오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있었노라 이때 그가[1)] 주여 제가 당신을[2)]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소서[3)] 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직접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저 산을 보라 그것이 제자리에 남아 있으면 그때 네가 나를 보리라 그때 주님께서 그 산에 영광을 보이시어 그것을 먼지처럼 만드니 모세가 기절하여 넘어지더라 그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 말하길 당신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저는 당신께 회개하며 제일먼저 믿는 사람이 되겠나이다[4)]

144.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모세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나의 메시지와 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 위에 두었으니[1)] 내가 그대에게 준 것을 가지라 그리고 감사하라[2)]

145. 하나님은 만사에 관한 법을 서판[1)]에 기록하여 그에게 주니 그것은 만사에 관한 교훈이요 설명이라[2)]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것을[3)] 굳게 잡아 그대의 백성들로 하여금 최선의 것으로 따르도록 명령하라 곧 내가 사악한 자들의 거처가 어떠함을 그대에게 보여주리라

146. 세상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거만해 하는 자가 있으니 나의 징표로부터 그들을 멀리 두리라 그들이 모든 증표를 보매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보매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릇됨을 보고 그 길을 따름이라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게을리 했노라[1)]

147.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만남을[1)] 거역하는 그들의 모든 일이 헛되니라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 외에 무엇으로 보상받으리요[2)]

148. 모세의 백성들이 그의 부재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으니 그것은 하나의 형체로 음매하며 우는 듯 보였으나[1)]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음이라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숭배하였으니 그들은 우매한 자들이라

149.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죄지음을 알았을 때[1] 그들이 말하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 하셨다면 실로 우리는 멸망한 백성가운데 있게 되었으리라[2]

150.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돌아와[1] 분노하고 슬퍼하며[2] 가로되 나의 부재중에 너희가 행한 것들에 저주가 있을 것이라 너희는 주님의 심판을 서둘러 재촉 하였느뇨 그리하여 그가[3] 서판을 던지며 그의 형제 머리를 잡아 그에게로 끌어 당기니[4] 그가[5] 일러 가로되 내 어머니의 아들이여 실로 백성들이 내가 약하다 생각하여 나를 살해 하려 하였음이라[6] 나를 꾸짖어 적들을 기쁘게 하지 말며 나를 죄지은 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치 말라 하더라

151. 모세가 기도하며 주여 저와 그리고 저의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1] 저희가 당신의 은혜 가운데 들도록 하여 주소서 당신은 은혜를 베푸는 가장 은혜로운 분이옵니다

152. 송아지를 택하여 숭배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노여움이 있을 것이며 현세에서도 수치스러움이 있으리라[1] 이렇듯 하나님은 거짓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153. 그러나 죄지은 자가 회개하고 진실된 믿음을[1] 가질 때 보라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라

154. 노여움이[1] 가라앉아 모세는 던졌던 서판을[2] 집어올렸더라 그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복음과 은혜가 있더라

155. 모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흔 사람을 선발하더라 땅이 크게 흔들려 그들을 덮쳤을 때 그가 기도하더라[1] 주여 당신이 원하셨다면 당신은 오래 전에 그들과 그리고 저를 멸망 케 하였으리요 당신께서는 우리 중에서 우매한 자들이 행한 것으로 저희를 멸망케 하려 하십니까 이것은 당신께서 보낸 시험이니 그것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 방황하는 자 있을 것이요 그것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 옳은 길로 가는 자 있을 것이니 당신은 저희들의 보호자이시라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은 죄를 사하여 주는 가장 훌륭한 분이십니다

156. 주여 현세와 내세에서 저희에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당신께로 귀의하였나이다[1]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그러나 나의 자비가 모든 것을 포용하나니[2]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리라[3]

157. 그들은 예언자이며 무학자인 선지자를[1] 따르는 자들이라 그들은 그들의 기록서인 구약과 신약에서 그를[2] 발견하리라 그분은 그들에게 옳은 것을 명령하였고 그릇된 것을 금기하였으며 또 그들에게 성결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과 그들의 멍에들을 벗겨 주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도와 그분에게 계시된 빛을 따르는 자들은 번성하리라 하였노라

158. 일러 가로되 사람들이여[1] 실로 너희 모두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보내셨노라 그분 외에는 어떤 신도 없으며 생명을 주시며 앗아가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러하매 하나님을 믿고 무학자인 그분의 선지자를 믿으라[2]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인도되리라

159. 모세의 백성들 중에는 진리의 편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무리가 있었으니[1]

160. 하나님은 그들을 열두 부족으로 나누었노라[1] 목마른 그의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것을 요구할 때 그가 물을 요구하자 모세에게 계시하여 말하길 그대의 지팡이로 그 바위를 때리라 하시더라 그곳으로부터 열두개의 샘물이 솟아나니 각 부족들이 마실 장소를 알았더라[2] 하나님은 그들 위에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그들에게 만나와[3] 쌀와[4]를 보내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베푼 좋은 것을 먹으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의 거역함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를 해쳤을 뿐이라

161.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 고을에서[1] 기거하고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겸손히 말하고[2] 고개숙여 문안으로 들라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162. 그러나 그들 중에 죄지은 자들 있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더라[1]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 하늘에서 역병을[2] 보내었노라

163. 바다가 가까이 있는 그 고을에 관하여 그들에게[1] 물어보라[2] 그들은 그들의 안식일 날[3] 물고기가 그들에게로 와 물위에 나타났으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다른 날에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들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험하였더라[4]

164. 그들 중에 한 무리가[1]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고 또는 엄한 벌을 주시려 하는 백성에게 충고한 이유가 무엇이뇨 라고 말하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이 그분을 경외하기 위함이요 라

고 그들이[2] 대답하더라

165.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된 교훈을 망각한 무리가 있었으니 하나님은 사악함을 멀리한 백성만을 구하고 죄지은 백성에게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엄한 벌을 내리셨노라

166. 그들이 그들의 무례함으로 금기된 것을 넘어서니 원숭이가 되어 증오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1] 말씀이 있었노라

167. 보라 그대 주님께서는 부활의 그 날까지 그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라 말씀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라[1] 주님은 벌을 내리심에 신속하면서도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68.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의 여러 무리로 분산하였으매[1] 그들 중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 그들을 축복과 불행으로 시험하여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귀의하도록 하였노라

169. 그들 이후 사악한 한 세대가 그 성서를[1] 계승받아 현세의 헛된 것들을 선택하며 말하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용서될 것이요 라고 변명하나 그와 같은 헛된 것들이 그들에게 이를 때 그들은 다시 그것들을 취하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성서에 약속이[2] 있지 않더뇨 또한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교훈도 배우지 아니했느뇨 내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너회는 알지 못하느뇨

170. 그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며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리라

171. 하나님이 뚜르 산을 흔들어 그들 위에 올려 두었던 때를 상기하라[1] 그들은 그것이 덮치는 덮개처럼 그들 위에 떨어지리라 확신했더라[2] 이때 말씀이 있었노라 하나님이 너회에게 계시한 것을[3] 붙잡으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상기하라 그리하면 너회가 하나님을 두려워 하게 될 것이라

172. 주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언케 하리라는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회 주님이 아니더뇨 라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저회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증언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더라 이는 너회가 심판의 날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 하도록 함이라

173. 실로 저회 이전 선조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을지도 모르나 저회는 그들의 후손에 불과함일 뿐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회를 멸망하려 하심이요 라고 너회가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174. 이렇듯[1] 하나님은 징표를 자세히 설명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2] 귀의하게 하려함이라

175. 그들에게 그 사람의 얘기를 낭송하여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으나 그는 사탄의 유혹으로 그 말씀들을 훌러버리매 그는 방황하게 되었더라[1]

176.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를 높은 위치에[1] 두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세상에 눈을 돌리어 그의 욕망을 따랐으니 그를 비유하사 한 마리의 개와 같음이라 그대가 그를 내쫓아도 그는 그의 혀를 내밀고 그를 남겨두어도 그의 혀를 내밀고 있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과 같음이니[2]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리하면 그들이 숙고하리라

177.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에게[1] 사악함이 있으리라 이는 곧 자신들의 영혼을 우롱한 것에 불과하니라

178. 하나님이 인도하사 그는 바른 길에 있는자요 그분께서 방황케하사 그들은 잃은 자들이라

179. 하나님이 지옥을 두매 많은 영마와 사람을 위해서라 그들은 마음이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며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니 짐승과 같더라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방황할 것이라

180.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1] 하나님께 속하니 그것들로 그분을 부르라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피하라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 벌을 받으리라

181. 하나님이 창조한 공동체 중에는[1] 진리로 백성을 인도하고 그것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백성들이 있더라

182.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1] 거역하는 자들이 있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183. 내가[1] 그들을 유예하고 있을 뿐 실로 나의 벌은 강하시니라[2]

184. 그들과[1] 함께 있었던 그가[2] 미친자가 아니며 확실한 경고자 임을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했더뇨

185. 그들은 하늘과 땅의 왕국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가운데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느뇨 또한 그들의 운명이 가까이 왔음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 이후에[1] 어떤 메시지를 얻으려 하느뇨

186. 하나님께서 방황케 하면 그를 인도할 자 아무도 없으며 그들을 버

려두사 불신으로 방황하니라

187. 그들이 그대에게 최후의 그때가 언제 일어날 것이요 라고 물을지니[1] 일러 가로되 그것은 나의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며 그것이 언제 있을지 그분 외에는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하늘과 대지 위에 무겁게 놓여있어 너희들에게 갑자기 닥칠 것이라 그들은 그대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할 것이니 일러 가로되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심이라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라[2]

188. 일러 가로되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1] 제외하고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게 할 수도 없으며 해칠 수도 없노라 내게 보이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나는 많은 재물을 받았을 것이요 나에게 어떠한 불행도 닥치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 그러나 나는 하나의 경고자로써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음의 전달자에 불과하니라

189. 하나님이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배우자를[1] 두어 그로 하여금 그녀와 거주하게 하니 둘이서 결합하여 그녀가 가볍게 임신하고 생활을 계속함이라 그녀의 몸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저희에게 착한 아이를 주소서 실로 저희는 감사하는 자 중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190.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한 아이를 주셨더라 그러나 그들은[1] 그분이 주신 은혜에 우상을 섬기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위에 높이 존재하시니라

191. 아무 것도 창조하지 못하는 창조된 우상을 섬긴단 말이뇨

192. 우상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도울 수도 없으며 그들 스스로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노라

193. 너희가 그것들로부터 복을 구하나 그것들은 대답하지 못하고[1] 그것들을 위한 너희 기원도 그리고 침묵도 효용이 없노라

194.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들도 너희와 같은 종들이라 너희가 그것들을 신으로 확신한다면 그것들이 응답하는지 기도하여 보라[1]

195. 그들에게도[1] 걸을 수 있는 발이 있으며 접을 수 있는 손이 있으며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뇨 일러 가로되[2] 너희가 숭배하는 우상을 불러 내게 대적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하라

196. 성서를 계시한 하나님이 보호자이시니 그분이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니라

197.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들은 너희를 보호할 수 없으며 그들 스스로도 도울 수 없노라

198. 너희가 그것들로부터 복을 기원하나 그것들은 듣지 못하며 그대는 그것들이 그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것들은 보지 못하니라[1)]

199.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되 우매한 자들을 멀리하라[1)]

200. 사탄이 유혹하여 그대의 마음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 구원하라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20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사탄이 너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상기하라 그리하면 빛을 보리라

202. 그러나 사탄의 무리는 너희로 하여금 과오를 더하게 함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니

203. 그대가 그들에게 기적을[1)] 보이지 않는다면 그대는 왜 그것을 꾸며내지 않느뇨 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라 일러 가로되 나는 나의 주님께서 내게 계시한 것을 따를 것이라 이것이[2)]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빛이요 복음이요 은혜라

204. 그러므로 꾸란이 낭송될 때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205. 그리고 마음 속에 주님을 염원하라 그리하되 겸손하고 크게 소리냄이 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태만하지 말라

206. 그대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은[1)] 그분을 경배함에 거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스스로 부복하여 엎드리더라

제 8 장
수라트 알안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그들이 전리품에 관해 그대에게 묻거든[1] 그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것이라 말하라[2]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토록 하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순종하라[3] 하셨노라

2.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자이며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낭송될 때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들이라[1]

3. 또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양식으로 자선을 베푸는 자들이라

4. 그들이[1] 진실한 신앙인들이니 그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명예와[2] 관용과[3] 풍성한 양식이 있으리라

5. 마찬가지로[1] 너의 주님께서 그대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집을 떠나게 했을 때 믿는 자들 가운데 혐오하는 무리가 있었더라[2]

6. 진리가 밝혀졌음에도 그 진리에 관해 그대에게 논쟁하는 것은[1] 그들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과 같으니 그들은 그것을 지켜보리라

7.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사 두 무리 중에 하나가 너희의 것이 되게 하리라 하셨으매 너희는 무장하지 아니한 것이 너희의 것이 되기를 원함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뜻을 두사 말씀으로 진리를 세우시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뿌리를 근절하시고자 하셨노라[1]

8. 진리가 승리하고 허위가 무용되게 하니[1] 죄인들은 증오하였더라

9. 너희가 주님께 구원할 때 그분께서 일천 명의 천사들을 너희에게 보내 도왔던 그 때를 상기하라[1]

10. 하나님이 그렇게[1] 하심은 승리의 소식으로 너희의 마음이 그것으로 평안하리라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니 실로 하나님은 강하시고 현명하시니라

11.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온하게 하사 너희를 잠들게 하고[1]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사 너회를 순결케 하고자 하심이라[2] 이는 너회로부
터 사탄의 불결함을 제거하여 너회 마음을 강하게 하고[3] 너회의 발
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심이라[4]

12. 그대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으로 이르시길 내가 너회와 함께
하여[1] 신앙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리니
그들의 목을 때리고 그들 각자의 손가락을 때리라[2]

13. 그것은[1] 그들이 하나님과 선지자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선
지자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거운 벌을 내리시니라

14. 너회를 위한 벌이 있나니 그것을 맛보라 실로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유황의 벌이 준비되어 있노라[1]

15. 믿는 자들이여 너회가 싸움터에서[1]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라[2]

16. 그러한 날에 등을 돌리는 자는 그것이 전쟁을 위한 준비나[1] 어떤
무리에[2] 합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것이며 그의 주거지는 지옥이 되리니 최후가 저주스러우리라

17.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회가 아니라[1]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한 것
이요 그들에게 던진 것은 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이라[2]
이는 훌륭한 시험으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함이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18. 그것은 사실이니[1] 믿지 아니한 자들의 음모를 약하게 하는 것도 바
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회가 알라 하셨노라

19. 불신자들이여 너회가 승리를 구하였으나 이미 최후의 판단이[1] 너회
에게 이르렀으니 너회가 그릇됨을 단념할 때 너회에게 복이 되리라[2]
너회가 다시 공격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하매 너회의 군
대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군대는 너회에게 무용하리니 실로 하나
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20.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복종하라 하셨으니 너회가 말
씀을[1] 들을 때 돌아서지 말며

21. 듣지 아니하면서 듣는척 하는 자가 되지말라

22. 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나쁜 동물은[1] 알지 못하는 귀머거리
와 벙어리라[2]

23.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진실됨을 발견하셨다면 들을 수 있도록 하셨
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였다하더라도 그들은

외면하고 돌아섰을 것이라[1]

24.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자의 부름에 응하라[1] 그분은 너희를 불러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은 인간과 그 마음 사이를 오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라 하셨으니 실로 너희 모두는 그분에게로 집산되니라

25. 유혹을 멀리하라 너희 가운데 우매한 자만을 힐책하는 것이 아니매 실로 하나님의 벌이 강하심을 너희가 알라 하셨노라

26. 너희의 무리가 땅 위에서 소수라 허약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포획할까 두려워 하였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시었고[1] 그분의 원조로 너희를 강하게 하셨으며 좋은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으니 이에 감사하라

27.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자를 배반하지 말며 너희에게 위탁된 것도 배반하지 말라 하셨으니 너희가 알고 있으리라

28. 너희 재산과 자손들은[1] 하나의 시험에 불과하나니 실로 큰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니라

29.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그분은 너희를 위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을 주셨으며[1]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30. 불신자들이 그대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그대를 속박하고 살해하려 하였으며 그대를 추방하려 음모를 하나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 계획을 하시나니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계획자이시라[1]

31. 하나님의 말씀이[1] 그들에게 낭송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이미 전에도 들었으며 우리가 원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으니 이것들은 옛 우화에 불과하다[2]고 하더라

32. 덧붙여 말하더라 하나님이여 이것이 당신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라면[1] 하늘로부터 돌비를[2] 내려 보소서 아니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내려 보소서

33.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대가 그들 안에 있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였고[1] 또한 그들이 용서를 빌었노라[2]

34. 사람들이 신성한 하람사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때[1]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구실로 삼았단 말이뇨 의로운 사람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보호자가 될 수 없나니 그들 대다수가 알지 못할 뿐이라[2]

35. 신성한 하람사원에서 그들의 예배는 휘파람이나 손뼉치는 것이었으니[1] 그들은 그들이 불신한 것으로 벌을 받게 되리라[2]

36. 불신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털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인들을 방해하며[1] 그러함을 계속하나 그들에게는 후회만 있을 것이요 결국에는 항복하리라 그리하여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집산되니라

37. 하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시어[1] 나쁜 것끼리 함께 하도록 한 후[2] 지옥에 들게하니 실로 그들은 손실자들이라

38.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1] 그들이 불신을 단념한다면 그들의 과거가 용서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지속한다면 이전과 같은 벌이 있으리라

39.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될 때 까지[1] 성전하라[2] 만일 그들이 단념한다면[3] 실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

40. 그러나 그들이 거절한다 하여도 하나님만이 너희를 위한 가장 훌륭한 보호자이시라 실로 그분은 가장 훌륭한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시라[1]

41.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오분의 일은[1] 하나님과 선지자와 친척들과[2] 고아들과 불우한 자들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의 것이거늘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두 부대가 만나 식별하는 날[3]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된 것을 믿을 때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노라

42. 너희가 계곡 언저리에 있고[1] 그들이 저곳에 있을 때[2] 대상들은[3] 너희보다 낮은 곳에 있었노라 너희가 그들과의 회합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약속을 위반했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이미 이행되도록 처리하시니 말씀을 파괴하는 자는 곧 멸망할 것이며 말씀을 생동케 하는 자는 곧 생명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알고 계심이라[4]

43. 이때 하나님은 그대의 꿈속에서 그들이 소수로 보이도록 하였으니[1] 그분께서 그들이 다수로 보이도록 하였다면 너희는 분명 방황하고 서로 분쟁하였으리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대를 구제하였으니 실로 그분은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니라

44.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 안중에 소수로 보이도록 하였고 또한 너희가 그들 안중에 소수로 보이도록 하였으니[1]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이 완성되시게 하심이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라

45.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적을 만날 때 확고부동하고 하나님을 염원하

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

46.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복종하고[1] 서로 다투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기를[2] 잃어 힘을 상실하나니 인내하라 실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47. 그들이 주거지를 떠났을 때 거만하고 사람들에게 오만을 피우며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처럼[1] 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48. 사탄은 그들의 행동을[1] 그들에게 그럴 듯하게 장식하며 말하길 어느 누구도 오늘 너희를 정복할 수 없나니[2] 내가 너희의 이웃이라[3] 하더라 그러나 두 부대가 각각 대면하니 그는 후퇴하며 나는 너희에 대해 아무런 죄지은 것이 없으며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으니[4] 실로 나는 하나님의 벌이 엄하심으로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더라

49. 위선자들과[1] 마음이 병든 자들은[2] 종교가 그들을 현혹했다고 말하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는 실로 하나님이 강하시고 현명하심을 알게 되니라

50. 천사들이 불신자의 영혼을 앗아가는 것을 너희가 보리니[1] 그들의 얼굴과 뒤를 때리며 가로되 지글거리는 불길의 징벌을 맛보라[2]

51. 그것은[1] 너희 스스로가 얻은 것으로[2] 실로 하나님은 치우쳐 벌하지 아니 하시니라

52. 파라오의 자손도 그러하였으며 그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자들에게도[1]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으니 실로 하나님의 힘은 강하시고 벌은 엄하시니라

53. 그것은[1]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베푼 은혜를[2] 바꾸지 아니하시나 그들이 자신들의 흉중에 있는 것을 변경하기 때문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3]

54. 파라오의 백성처럼 또 그들 이전의 백성들처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였으매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그들을 파멸하였노라 파라오의 백성을 익사하게 하였으니[1] 그들 모두는 우매하였더라

55. 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악한 동물은 불신하며 믿지 아니하려는 자들이라[1]

56. 그대가 그들과 약속을[1] 하였으나 그들은 매번마다 그들의 약속을 깨뜨리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라

57. 그대가 전쟁에서 승리 한다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욕되게 하라 아마도 그들에게 교훈이 되리라[1]

58. 그대가 한 백성으로부터 배반을 두려워 한다면[1] 그들과의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되돌려 보내라 실로 하나님은 배반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2]

59. 불신자들이 나의 벌을 피하였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실로 그들은 주님을 좌절케 할 수 없노라[1]

60. 군대와 무기로 너회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 대항할 준비를[1] 하라 하셨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적과 너회들의 적과 그들 외의 다른 위선자들을[2] 두렵게 하라 너회는 그들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들을[3] 아심이요 너회가 하나님을 위해 바친 하찮은 것이라도 그릇됨 없이 정당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

61. 적이 평화를 제의하여 온다면 너회 또한 평화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62. 그러나 그들이 그대를 속이려한다면 그대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나니 그분과 믿는 사람들이 그대를 도와 승리하게 할 것이라

63. 그분은 그들의 마음 속에 사랑을 불어 넣으셨노라[1] 너회는 지상의 모든 것을 사용한다 하여도 그들의 마음 속에 사랑을 주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사랑을 베푸셨으니 이는 그분이 강하시고 지혜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라

64. 선지자여 하나님과 그대를 따르는 신앙인들만으로 그대를 충만하게 하였노라[1]

65. 선지자여 믿음으로 싸움에 임하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우라 너회 가운데 이십명이 인내한다면 이백명을 물리칠 것이며[1] 너회가 백명이라면 천명의 불신자들을 물리치리니 그들은 우매한 백성이니라[2]

66. 하나님이 너회의 짐을 덜어주사 너회 가운데 언약함이 있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너회 가운데 백명이 인내하는 자 있다면 이백명을 물리칠 것이요 천명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천명을 물리치게 하시니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라

67. 사상자가 많아 한계를 넘을 때는 제외이나 예언자가 포로로부터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되노라[1] 너회는 현세의 유혹을 원하나 하나님은 내세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강하시고 현명하시니라

68. 하나님으로부터 법이 없었다면 너희가 취한 대가로 너희 위에 무서운 벌이 있었으리라[1)]

69. 너희가 얻은 허락된 전리품을 취할지니 이는 허락된 좋은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70. 예언자여 너희 수중에 있는 포로들에게[1)] 일러 가로되 하나님이 너희 마음 속에서 믿음의 진리를 발견할 때 너희에게[2)] 복음을 주리니 이는 너희가 잃은 것보다 좋으며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71. 그러나 그들이 그대를 배반한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 그리하여 그대에게 힘을 주셨으니[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

72. 믿음으로 이주하고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쳐가며 하나님을 위해 싸운 자들과 그들을 보호하여 주고 도와준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들이라 그러나 믿음은 있으되 이주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주할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에게 신앙의 원조를 구할 때는 그들을 도와 줄 의무가 있으되 너희와 그들 사이에 계약이 있는 백성은 제외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1)]

73. 불신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더라 너희 무슬림들이 그들과 같이 협력하지[1)] 않는다면 지상에는 혼동과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

74. 믿음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는 자들과[1)]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 주는 자들이[2)] 진실한 신앙인들이라 그들에게는 관용과 자비로운 양식이 있을 것이라

75. 후에 믿음을 갖고 이주하여[1)] 너희와 함께 성전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도 너희 가운데 있으되[2)] 상속에 관한한 혈연에 의한 친척의 일원이 하나님이 명령한 성서 속의 일원보다 우선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제 9 장
수라트 타우바

1. 이것은 너희가 불신자들과 맺은 계약에 대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로부터의 면책 선언이라[1]

2. 믿음이 없는 자들아 사 개월 동안[1] 대지위를 여행하여 보라 너희는 하나님을 좌절케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당황케[2] 하심을 알게 되리라

3.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로부터 발표가 있었으니 대순례 날[1] 이었노라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그분의 선지자도 마찬가지라 그러므로 회개하라[2]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너희가 거역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좌절케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며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만이 있을 것이라[3]

4. 그러나 너회와[1] 조약을 맺은 불신자들이 너회와 맺은 조약을 조금도 깨뜨리지 아니하고 너회의 적을 지원하지 아니한 자들은 제외되나니 기간 만료까지 그들과의 조약을 이행하라[2] 실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5. 금지된 달이 지나면[1] 너회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리니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6. 불신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대에게 보호를 구한다면 그를 보호할 것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것이며 그후 그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라 그들은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노라

7. 하나님과 선지자 앞에서 어떻게 불신자들을 위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성한 하람사원에서 체결한 조약은[1] 제외로 그들이 너회에게 진실할 때 너회도 그들에게 진실하라 실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니라[2]

8. 어떻게 그러한 조약이 있을 수 있느뇨 그들이 너회보다 우세할 때는 너회와의 조약을 존중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입으로만 너회를 기쁘게 하는 듯 하나 그들의 마음은 거역하고 있노라 실로 그들 대다수는 사악한 자들이라

9.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싼 값에 팔아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막았으니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에 불행이 있으리라

10. 그들은 신앙인들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조약도 준수치 아니하니 범주를 넘어선 자들이라

11.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바칠때 그들은 곧 믿음의 너희 형제들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성이 있는 백성들을 위해 말씀의 증거를 설명하시노라

12. 그들이 조약을 하고서 조약을 위반하는 것은 너희의 종교를 공격한 것이라 불신자들의 우두머리들에 대항하여 성전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사악한 행위가 저지될 것이라

13. 조약을 위반하고 선지자를 추방하려 음모하였으며[1] 너희를 공격한 무리에게 성전하지 않느뇨 하나님께 권능이 있나니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2]

14. 그들에 대항하여 성전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손으로 그들에게 벌주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면서 믿음이 있는 백성의[1] 마음을 치료하여 주실 것이라

15. 그들 마음 속의 분노를 지워주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니[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

16. 너희 중에 성전하는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믿는 자들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채 외면당하리라 생각하느뇨[1]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2]

17. 스스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원들을 방문할 권한이 없나니[1] 곧 그들의 일들이 헛될 것이요 그들은 불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18. 실로 하나님의 사원을 방문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거늘 그들은 인도받는 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1]

19. 너희가 순례자의 갈증을 식혀주며 신성한 하람사원을 유지하였다 하여[1] 하나님과 내세를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하는 자와 같다 생각하느뇨 이들은[2] 하나님 앞에서 비교될 수 없나니[3] 하나님은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아니 하시니라

20. 믿음을 갖고 이주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치며 성전하는 자들은[1]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니 이들이 승리한 자들이라

21.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기쁨의 복음과 천국의 소식을 전하시며 그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이라 하시더라

22.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리니 실로 큰 보상은 하나님께 있노라[1]

23. 믿는 사람들아 너희의 아버지들과 형제들이 믿음 보다는 불신을 택한다면 그들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라[1] 그들을 보호자로 하는 자는 누구든 우매한 자들이라[2]

24. 일러 가로되 너희 선조들과 너희 후손들과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친척들과 너희가 획득한 재산과 거래가 없을까 두려워하는 상품과 너희가 바라는 주거지들이 하나님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것보다 귀중하고 생각한다면[1]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2]

25.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러 전쟁에서 그리고 후나인 전투에서[1] 승리를 가져다 주셨노라 보라 너희의 숫자가 많음에 너희가 놀랐으나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노라 너희를 위하여 대지를 곧게 만들자 너희는 뒤로 뒤돌아 왔노라

26. 그런후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와 믿는 자들에게는 안정을 주시고[1] 너희가 보지 못한 군대를 보내었으며[2] 불신자들에게는 벌을 내렸노라[3] 그것이 불신자들에 대한 대가라

27. 그 후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셨으니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28. 믿는 자들이여 실로 불신자들은 불결하나니[1] 그들로 하여금 그해 이후부터[2] 신성한 하람사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가 거래의 손실로 가난을 두려워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너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라[3]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

29.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1] 하나님과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2]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3] 하더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그들에 대항하여 성전하라[4]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낄 것이라

30. 유대인들은 에즈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있노라[1] 이는 이전에 불신한 자들의 말과 유사하니[2] 하나님이 그들을 욕되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진

실에서 멀리 현혹되어 있기 때문이라

31. 그들은 하나님 외에 랍비와 목자들과[1]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경배하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니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라 하셨노라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것 위에 계시는 신성한 분이시라

32. 그들은 하나님의 등불을[1] 그들의 입으로 끄려 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지 아니하고 그 등불을 완성시키시니[2] 불신자들이 싫어하더라

33. 그분이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선지자에게 보내어 그것을 모든 종교 위에 있도록 하시었으나 불신자들이 증오하더라

34. 믿는 자들이여 많은 랍비와 목자들이[1] 부정으로 사람의 재물을 축적하며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들을 방해 하도다 또한 금과 은을 저장[2]하여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3]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라

35. 지옥의 불에서 달구어질 그 날 그들의 앞 이마와 그들의 옆구리와 그들의 등 위에 그들이 얻은 것이 표시될 것이라 이것은 너희가 네 자신만을 위해 저장한 것이거늘 너희가 저장한 것을 맛보라

36. 하나님은 그분의 성서에서 열 두 달을 일년으로 하고[1] 천지를 창조한 그 날을 두셨노라 그중 네 달은 성스러운 달이니[2] 그것이 올바른 법칙이라 그 안에서 너희 자신을 우롱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들 모두에게 투쟁하듯 모든 불신자들에게 대항하여 성전하라 실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37. 성스러운 달을 연장하는 것은 불신을 추가하는 것이니 이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잘못 인도될 것이라 한 해는 허락된 해로 하며 한 해는 금지된 해로 하여[1] 하나님이 금기한 달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이 금기한 것을 정당케 하려 하니 그들의 행위에 불행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불신하는 자들의 무리를 인도하지 아니 하시노라

38. 믿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느뇨 하나님을 위해 전쟁에 임하라 하매[1] 너희가 주저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내세보다 현세에 만족 하고 있기 때문이라 현세의 삶이 내세에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노라

39. 너희가 전쟁에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주셨을 것이오 너희 대신에 다른 백성을 선택하셨을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조금도 해칠 수 없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

심이라

40. 너회가 너회 지도자를 도울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우시니 불신자들이 그분을 추방했을 때도 그랬느니라 그분께서 한 명의 동반자와 동굴 안에 있었을 때 그의 동료에게 일러 가로되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1]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회가 보지 못하는 군대로[2] 그를 지원하사 불신자들의 교만한 언행을 꺾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3] 높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강하시고 현명하시노라[4]

41. 가볍게든 또는 무겁게 무장하여[1] 나아가라 너회의 재산과 너회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라 너회가 알고 있다면[2] 그것이 너회에게 더욱 좋으리라

42.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고[1] 여행이 쉬웠다면[2] 아마 그들은 그대를 따랐을 것이나[3] 거리가 그들에게 멀었도다[4]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저회가 할 수 있었다면 저회는 그대와 함께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바쳤을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43. 하나님은 이미 그대에게 관용을 베풀었노라 왜 그대는 그들에게 남아있도록 허락하여 주었느뇨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밝혀지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알 때까지는 성전참여를 촉구했어야 했노라

44.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데 제외시켜 달라 그대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잘 아시고 계시니라

45. 그러나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대에게 허락하여 줄 것을 요구하매 그들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차 있으니 그들은 의심 속에서 방황하고 있노라

46. 만일 그들이 성전에 참여하고자 하였다면 그들은 그에 대비하여 준비 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출전을 싫어하셨으므로 그들을 제지하시며 남아 있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 하셨더라

47. 만일 그들이 너회와 더불어 출전하였다면 그들은 너회에게 해악을 끼칠 뿐이며 너회 가운데 해악을 퍼트리고 너회를 교란하였을 것이며 너회 가운데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인자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알고 계시었노라

48. 그들은 그 이전에도[1] 교란을 음모하여 그대를 괴롭히려 하였으나 진리와 그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였노라

49. 그들 가운데 저를 제외시켜 주시고 저를 시험하지 마옵소서[1] 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으나 그들은 이미 유혹되어 지옥이 그들 불신자들을 에워싸고 있었노라

50. 그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1] 그들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그대에게 불행이 닥칠 때면 그들은 기뻐하며 우리는 이미 주의를 주었노라고 말하며 돌아서리라[2]

51.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 닥치지 아니하나니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분이시라

52. 일러 가로되 영광스러운 일 두 가지 중에서[1] 하나를 우리에게 기대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내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손으로 직접 너희에게 벌을 주고자 하니라 기다리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노라

53. 일러 가로되 너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너희로부터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1] 너희가 사악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54. 그들이 바치는 어느 것도 수락되지 아니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선지자를 불신하면서 예배를 행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증여하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이라[1]

55. 그들의 재산과 자식들이 그대를 놀라게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현세에서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니 그들의 영혼은 죽어서 불신자의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

56.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너희와 함께 하려하나[1] 그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며[2] 오히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하는 무리이니라

57. 그들은 피신할 장소나 동굴이나 들어가 숨을 곳을 발견했더라면 서둘러 들어갔으리라

58. 그들 중에는 자선금[1] 문제에 있어 그대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노라 그들이 그 일부를 받을 때는 기뻐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를 보라 그들은 분개하고 있지 않느뇨

59. 그들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베푼 것으로 만족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니 그분의 선지자도 그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풍요롭게 하여달라고 소망하노라

60. 실로 자선금은[1] 가난한 자와[2] 불쌍한 자와[3] 거기에 종사하는 자와[4]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을 자와[5] 노예와[6] 채무자와[7]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와[8] 그리고 여행자들을[9] 위한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

61. 그들 중에[1] 선지자를 괴롭히려고 그분은 귀가 있는가 또 그는 들은 것마다 믿는 사람이[2] 아닌가 라고 묻는 자 있나니 일러 가로되 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만 들으시는 분이시라[3]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오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힌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4]

62. 그들은 너희를 기쁘게하려고 하나님께 맹세하노라 실로 그들이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과 선지자는 그들로부터 기쁨을 받아야 할 권한을 갖고 계시니라

63.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대적하는 자[1] 에 대한 대가는 불지옥이며 그곳에서 영생하리니 그것이 큰 수치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64. 위선자들은 그들에게 말씀이 계시되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1] 드러낼까 두려워하노라 일러 가로되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실 것이라[2]

65. 그대가 그들에게 질문할 때[1] 우리는 잡담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2] 일러 가로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선지자를 너희는 아직도 조롱하고 있느뇨

66. 변명하지 말라 너희는 믿음을 가진 후 불신한 자들로 너희 가운데 용서 받을 무리가 있을 것이요[1] 벌을 받을 무리가 있으리니 그들은 죄인들이라

67. 남자 위선자가 그렇고 여자 위선자가 그러하거늘[1] 금기한 것은[2] 행하고 의무화한 것은[3] 실천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손들을 움켜쥐고[4] 하나님을 망각하니 그분도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더라 실로 위선자들은 해악을 퍼트리는 자들이라

68. 하나님은 남자 위선자와 여자 위선자와 불신자들에게 불지옥을 약속하셨나니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그것이 그들을 위한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와 영원한 징벌만이 있을 것이라

69. 너희 이전의[1] 사람들처럼 그들은[2] 너희보다 강했고 재산과 자손이 번성했노라 그들은 그들의 몫을 즐겨했고 너희는 너희의 몫을 즐겼으니 이는 너희 이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과 같으며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탐닉했음이라[3] 보라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아무런 업적이 없으니 큰 손실자들이라

70. 그들 이전에 노아와[1] 아드와[2] 사무드와[3] 아브라함과[4] 마드얀과[5] 망한 마을[6]에 대한 얘기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더뇨 그들의 예언자들이 증표들을[7] 그들에게 제시하였노라 실로 그들을 우롱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었노라

71. 남녀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라 그들은 선을 행하고 사악함을 멀리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노라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강하시고 현명하시니라

72. 하나님께서 남녀 신앙인들에게 아래로 강이 흐르는 천국을[1] 약속하셨노라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할 것이며 에덴의 천국에는 아름다운 주거지가[2] 있노라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3]

73. 예언자여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 대항하여 성전하되[1] 그들에게 엄하게 대항하라[2] 지옥이 그들의 안식처이며 종말이 저주스러울 것이라

74. 위선자들은[1]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 맹세하나 이미 불신의 말을 하였으며 이슬람에 귀의한 후에도 불신하였고 그들이 실현 할 수 없는 음모를 꾸미었으며[2]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은혜를 증오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에게 복이 되리요 그들이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그것은 고통스러우나 그들에게는 현세에서 보호자나 구원자도 없노라

75.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슬람세를 바치고 참된 인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무리가[1] 있었더라

76.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자 그들은 자선에 인색하고 등을 돌리며 거절하였더라[1]

77. 이처럼 그들은 약속을 저버리며 거짓말을 하였노라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그들의 마음을 위선으로 가득 차게 벌을 내리셨노라

78. 하나님은 위선자들이 마음 속에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1]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79. 믿는 자 가운데 자선을 베푸는 자선가와 노동 외에는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보내는 위선자들이 있으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사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

80. 그대가 그들을 위해[1] 용서를 구하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건 비록 그들을 위해 일흔번이나 용서를 구한다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2] 그들이 하나님과 선지자를 불신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81. 타북 원정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뒤에 남아 있는 것에 기뻐하는 자들은[1]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참여하기는 커녕 오히려 뜨거운 기후에 참전하지말라고 하였더라[2] 일러 가로되 지옥의 불길이 이 열사보다 더욱 뜨겁노라 그런데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3]

82. 그들로 하여금 잠시 웃게 하다가 그들이 얻은 것 만큼 크게 울게 하리라[1]

83. 하나님께서 그대를 한 위선자 무리에게 보냈을 때[1] 그들은 자신들도 원정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그대에게 허락을 구하였더라[2] 일러 가로되 너희는 결코 나와 함께 행군할 수 없을 것이며 나와 함께 적에 대항하여 싸우지도 못할 것이라 너희는 처음에[3] 남아 있을 것에 기뻐했으니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

84.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며 그의 무덤 옆에 멈추어 서지도 말라[1] 그들은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들로 죽은 자들이라

85. 그들의 재산과 자손들이 그대를 놀라게 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현세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이 불신자가 되어 사라지게 할 것이라

86.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와 함께 성전하라는 말씀이 계시되었을 때 그들 중에 재산과 명예를 가진자들은 그대에게 출정하지 않게 하여달라고 하면서 남아 있는 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하더라

87. 그들은 여인들과 함께 남아 있는 것을 원하더라[1] 그들의 마음들이 봉하여져 있으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2]

88. 그러나 선지자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니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요 번성할 것이라[1]

89.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밑으로 물이 흐르는 천국을 준비하셨으며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승리라

90. 아랍의 사막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에 그대를 찾아와 출정을 면제하여 달라고 구실을 삼는 자들과[1] 집에 머물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하여 거짓말 하는 자들이 있나니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2]

91. 연약한 자나 병든 자 그리고 바칠 것이 없는 자들이 남아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1] 이들은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충실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길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비난할 이유가 없거늘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92. 그들이 그대에게 찾아와 타고 갈 것을 요구하나 너희가 타고 갈 것이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돌아서며 슬픈 눈물을 흘리더라[1] 그들은 제공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2]

93. 실로 부유하면서도 남아있겠다고 그대에게 요구하는 자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나니[1] 그들은 여인들과 함께 남아 있는 것을 원할 뿐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봉하셨으니 그들은 알지 못하노라

94. 너희가 돌아왔을 때[1] 위선자들은 너희에게 변명할 것이라 일러 가로되 변명하지 말라 우리는 너희를 믿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의 소식을[2] 알려주셨으며 하나님과 선지자는 너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너희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알고 계신 그분에게로[3] 돌아갈 것이며 그때 그분은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라

95. 그들이[1] 너희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라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갔을 때[2] 그들을 홀로 두거나 그대로 두라[3] 그들은 불결함으로 그들의 주거지는 지옥이라 이것은 그들이 얻은 것에 대한 대가이니라

96. 그들이 너희에게 맹세하기를 너희가 함께 기뻐할 것이라 하더라 그러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기뻐할 지라도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들을 좋아하지 아니 하시니라

97. 사막의 아랍인들은 불신과 위선을 더하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계시한 법을 알지 못하는 문맹인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

98. 사막의 아랍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불하는 것을[1] 벌금으로 생각하며 너희에게 재앙이 있기를 원하더라 그러나 재앙은 그들 위에 떨어지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이라

99. 아랍인 가운데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으며 그들이 바친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하고 또 그것으로 선지자의 기도를 원하는 자들이

있나니 실로 자선은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1]

100. 선구자였던 메카 이주자들과 메디나 후원자들과 선을 실천하면서 그들을 뒤따랐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 또한 그분을 기쁘게 하셨으니 그분은 그들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사 그들은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할 것이라 이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1]

101. 너희 주변의 아랍 유목민 가운데에 위선자가 있었고 메디나 주민 가운데도 위선자가 있었노라[1] 그들은 지독한 위선자들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두 차례 벌을 내리사[2] 그들은 가혹한 벌을 받았노라[3]

102. 그들 가운데 다른 주민은[1] 자신들의 잘못을 아는 자들이 있었노라 선한 업과 나쁜 업을 함께 쌓았으니 아마도[2]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라

103. 그들의 재산 중에서 자선금을[1] 받으라 그것으로 그들을 정화하고 순화하며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라 실로 그대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평온의 근원이라[2]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104. 하나님께서 종의 회개함을 받아주시고 자선금을 수락한다는 것을 그들은[1] 알지 못하느뇨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05. 실천하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과 선지자와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1] 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그런후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에게 돌아가나니 그분은 너희가 행하였던 모든 것을 보여 주시니라

106. 거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벌이 아니면 관용이 내려질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

107. 하나의 사원을[1] 세워 해악과 불신을 조성하고 믿는 신도들을 이간질시켜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대항하려하는 자들이 맹세하며 선행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고 말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실 것이라

108. 그러므로 그곳에서 결코 예배하기 위해 서 있지 말고[1] 첫째 날 신앙심에 뿌리를 두고 세워진 사원에서[2] 예배하라 그 안에는 순결하게 되고자 원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 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순결케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109.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원을 세운 분에게 은혜가 더하겠느뇨 아니면 흔들거리고 파괴된 낭간에 집을 지은 자에게 더하겠느뇨 실로 그것은 부수워져 불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실 것이라

110. 그들이 세운 집은 그들의 영혼이 산산조각 날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씨앗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1]

111. 하나님은 믿는 자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재산을 사시고 천국을 주실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하고 투쟁하며 순교하는 자를 위해 구약과 신약과 꾸란에 약속된 것이라 하나님보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뇨 너희가 하나님과 거래한 것에 기뻐하라 그것이 영광된 승리라[1]

112. 승리는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자의 것이요 경배하는 자의 것이며 감사하고 단식하는 자의 것이며 허리 굽혀 예배하는 자의 것이요 의무사항을 실천하고 금기한 것을 멀리하는 자의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와[1] 신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의 것이니라

113. 우상을 숭배하여 지옥의 거주자가 된 자들에 대하여 비록 그들이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와 믿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에게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온당치 아니하니라[1]

114.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를[1] 위해 용서를 간구하였으나 이는 그가 아버지에게 한 약속 때문이라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여졌을 때 그는[2] 아버지와 의절하였노라 실로 아브라함은 온순한 마음으로 슬픔을 억제하였더라

115.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가 방황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멀리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시니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1]

116. 실로 천지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 생명을 주시고 또 앗아 가시니 너희는 하나님 외에 어떤 보호자나 후원자도 갖지 못하노라

117. 예언자와[1] 메카 이주민과 고난의 시기에[2] 그를 따랐던 메디나 후원자들에게[3]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셨노라 그들 가운데 무리의 마음들이 이탈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으니 실로 그분은 그들을 위한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심이라

118. 타북 원정에 참가하지 않고 남아있던 세 사람에게도[1] 관용이 베풀어졌노라 이때는 넓다란 지구가 그들을 압박하였고 그것으로 인하

여 그들의 영혼이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였으니 하나님은 스스로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셨노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19.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며[1] 항상 정직한 자들과 함께하라

120. 메디나 주민들과 그들 주변의 아랍 유목민들이 선지자의 따름을 거절하고[1] 그분 보다 자신들의 생명을 더 중히 여긴 것은 옳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갈증도 피곤함도 굶주림의 고난도 당해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또한 불신자들을 화나게 하는 길도 걸어보지 아니했으며 적으로부터 어떤 피해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실천하는 자들의 보상이 헛되이 되도록 두지 아니하노라

121. 그들은 적던 크던 그들이 바친 것도 없으며 계곡을 가로질렀던 일도 없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였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보상하시니라[1]

122. 신앙인 모두가 함께 전투에 나가서는 아니 되나니 그들 가운데 일부만 출전하고 일부는 남아 신앙과 학업에 열중하게 하여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 백성에게 충고하며 그들 스스로 경각하도록 하라 하셨노라[1]

123. 믿는 자들이여 너희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대항하여 투쟁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엄함을 알게하라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124. 말씀이[1] 계시될 때마다 그들 중의 일부는 말하길[2] 너희 가운데 누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더하여 졌느뇨 라고 말하였으나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 기쁨을 누렸더라

125. 그러나 마음이 병든 자들은[1] 불결함을 더하여 가니[2] 그들은 불신으로 멸망할 것이라

126. 그들은 자신들이 매년 한 두번씩 시험받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1] 회개도 아니하고 주의도 아니하더라

127. 말씀이 계시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며 말하길[1] 누가[2] 너희를 보고 있느뇨 라고 하면서 사라지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앗아갔노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였기 때문이라

128.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서[1] 한 선지자가 너희에게 오셨으니 너희가 멸망하는 것은 그분에게 슬픔이라 그분은 항상 너희를 염려하시어 믿는 신도들에게 천절하고 자비를 베푸시니라

129. 만일 그들이 돌아선다면[1] 일러 가로되 내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2]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3] 나는 가장 높은 권자에 계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노라

제 10 장
수라트 유누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라[1] 이것들은 지혜로운 성전의 말씀이니라[2]

2. 하나님이 그들중 한 사람에게 계시를 내리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도록 한 것이 그들을 놀라게 하였단 말이뇨[1]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그들은 주님 앞에서 높은 진리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노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것을 분명한 마술이라고 말하더라[2]

3. 너회의 주님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좌에 오르시어 만물을 주관하시더라 그분의 허락없이는 중재자가 없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요 너회 주님이라 그분만을 경배하라 그래도 너회는 상기하지 않느뇨

4. 너회 모두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나니[1]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분은 창조를 개시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반복하사[2]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있게 하시며 불신자들로하여금 이글거리는 물을 마시게 하니 이것은 그들이 불신한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징벌이라

5. 그분께서 태양을 빛나게 하고 그것으로 달은 빛을 비추며 아름답게 하사 일년의 날과 계산을 알게 하시도다[1]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리로 창조하시어 이성이 있는 백성들을 위해 말씀을 설명하시노라

6. 실로 낮과 밤을 달리한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도 그분을 공경하는 자들을 위한 예증이라

7.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지 아니하고 현세에 만족하여 그것으로 안주하려 하는 자는 그분의 징표에 무관심하는 자들이라

8. 그럼으로 불지옥이 그들의 거주지가 될 것이라 그것은 그들이 얻은 것에 대한 대가라

9.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한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대가로 그들을 강이 흐르는 고요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라

10.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더라 주여 훌로 영광을 받으소서 그들은 그곳에서 평화의 인사를 주고받더라[1]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기도에서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더라

11. 사람들이 조급하게 행운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서둘렀다면 그들의 운명은 끝났으리라[1]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방황케 하여 고난을 주리라

12. 인간에게 재난이[1] 닥칠 때는 기대거나 앉아서 또는 서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바라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재난을 거두어주면 인간은 그에게 있었던 재난을 하나님께 구원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가버리니 불신자들의 행동은 그들의 면전에서 그럴듯 보일 뿐이라

13. 하나님은 너희 이전의 여러 세대들을 멸망케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악한 짓을 했을 때라 그들의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1] 이처럼 하나님은 죄지은 자들에게 벌을 주시니라

14. 그후 하나님은 너희로하여 이 땅을 계승하도록 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지켜보실 것이라[1]

15.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될 때 그분과의 만남을 원하지 아니한 자들이 말하길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낭송하던지[1] 아니면 바꾸라[2] 하더라 일러 가로되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3] 바꿀 수 없으며 나는 나에게 계시된 것만을 따를 뿐이라 만일 주님께 거역한다면 나에게 무서운 벌이 있음을 두려워하노라

16. 일러 가로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낭송하지 아니 했으리라[1] 또한 그분은 그것을 너희에게 알리려 하지도 아니 하셨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2]

17.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꾸미고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보다 사악한 자 누구이뇨 실로 죄인들은 번성하지 못하니라

18. 그들은 하나님 외의 다른 것을[1] 숭배하나 이것들은[2] 그들을 해치지도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길 이들은 우리의 중재자들이라 일러 가로되 너희는 천지에 있는 것 중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느뇨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은 그들이 숭배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시니라

19. 인간은 최초에 하나의 공동체였으나[1] 후에 스스로 갈라졌노라 만일 그대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

20. 이때 그들이[1]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증표가 내려오지 않느뇨[2] 라고 묻더라 일러 가로되 실로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노라 기다리라 실로 나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노라

21. 또한 그들에게[1] 여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노라[2]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대항하는 음모를 꾸미니[3] 일러 가로되 하나님은 보다 빠르신 계획자이시며[4] 그분의 선지자들이[5] 그들의 음모를 기록하니라

22.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육지와 바다를 여행하게 하셨노라[1] 너희가 순풍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게 할 때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였으나 그후 폭풍우가 오고 파도가 사방에서 밀려와 그들이 전복되리라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 구원하며 만일 당신이 저회를 구하여 주신다면 저회는 진실로 감사 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23. 그들을 구제하였을 때 보라 그들은 지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더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에 대한 거역은 너희 자신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순간의 환회에 불과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1] 너희가 행한 것들을 상기시켜 주리라

24. 현세의 삶을 비유하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게 한 물을 배합하여 채소와 목초를 일구매 땅이 아름답게 장식되고 그 땅의 주인들은 권세를 자랑하나 사람과 동물이 먹어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노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밤이나 혹은 낮에 멸망케 하여 어제의 풍요로움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교훈이 되도록 징표들을 설명하시노라[1]

25.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의 집으로[1] 불러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을 바른 길로[2] 인도하시니라

26.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더하여 지니라[1] 그들의 얼굴에는 먼지도 추함도 없으며 그들은 천국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노라

27. 그러나 사악한 방법으로 얻는 자는[1] 그와 같은 사악한 대가를 받을 것이며[2] 치욕이 그들의 얼굴을 덮을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보호해줄 자가 아무도 없으니 마치 그들의 얼굴이 밤의 암흑처럼 되더라 그들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노라

28.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모이게 하리라[1] 그리고 불신했던 그들에게 말하리니 너희가 함께 했던 자들과 함께 하라 하나님이 그들 사이를 분리하니 불신자들이 말하더라 너희가 숭배했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2]

29. 우리와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만이 증인으로 충만하니 우리는 너희가 우리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노라[1]

30.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되고[1] 하나님께로 불리어 가니 그들은 자신들이 위조했던 것들로부터[2] 회피하지 못하더라

31. 일러 가로되 하늘과 대지에서 누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느뇨[1] 또한 듣게 하고 보게 하는 분이 누구시뇨 죽은 자를 살게 한자는 누구시뇨 누가 산 자를 죽게 하느뇨 누가 일들을 주관하느뇨[2] 하나님이요 라고 그들이 말하니 이르되 그러면 왜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느뇨

32. 그분이 하나님이요 주님이시며 진리이시니 그 진리 외에는 방황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배신한단 말이뇨

33.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진실이 증명되었노라[1]

34. 일러 가로되 너희가 믿는 사신들 가운데서 창조하고 거두는 자가 있느뇨[1] 일러 가로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거두시매 너희가 어떻게 거역하려 하느뇨

35. 일러 가로되 너희가 믿는 사신들 가운데서 진리를 인도하는 자가 있느뇨 일러 가로되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하심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을 따르겠느뇨 아니면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따르겠느뇨 너희는 어떻게 판정하느뇨

36.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따르지 아니하고 공상에 집착하니 실로 그 공상은 진리에서 벗어나 무용할 뿐이라 실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37. 꾸란은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되어지지 아니하며[1] 이전에 계시된 것을[2] 충족시키며 그 성서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계시되었으니 이것은 온 누리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노라

38. 그가 그것을 위조하였다 말하더뇨[1]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정 진실한 자들이라면 그와 같은 말씀을[2] 가져와 보라하고 너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외에 구원하여 보라

39. 그러나 그들은 거짓하며 또한 알지 못하더라[1] 또한 해명도 그들에게 이르지 못하더라 이처럼 그들 이전의 백성들도 거짓말하였으니 우매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느뇨

40.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1] 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한 자가 있으나[2] 그대의 주님은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3]

41. 만일 그들이 그대에게 거짓말한다면[1] 일러 가로되 내게는 나의 일이 있고 너회에게는 너회의 일이 있으며[2] 너회는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이 없고 나는 너회가 하는 일에 책임이 없다 하여라[3]

42. 그들 가운데 그대에게 귀를 기울인자가 있으나[1] 그대는 귀머거리요 이성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듣게 할 수 있겠느뇨[2]

43. 그들 가운데 그대에게 시선을 돌린 자가 있으나 그대는 장님이며 보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있느뇨[1]

44. 실로 하나님은 인간을 조금도 우매하게 하지 아니하시나[1] 사람들 스스로가 우매한 짓을 하더라[2]

45. 어느 날[1]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다만 하루의 한 시간 정도 밖에 체류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여 그들을 모이게 하시니 그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게되고 하나님의 만남을 부정했던 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되며 인도 받지 못하노라

46.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벌을 그대에게 보여 주거나[1] 아니면 그 이전에 그대를 임종케 한다 하더라도[2]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3]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증인이시니라[4]

47. 각 민족에 선지자가 파견되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은 정당하게 심판될 것이며 부정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1]

48. 그들이 말하길 그대가 진실이라면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뇨 라고 묻더라

49. 일러 가로되 나 자신을 해치거나 유용하게 하는 권세가 나에게 없노라[1]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노라[2] 각 민족에는 정하여진 시간이 있나니 그 시간이 도래하면 지체하거나 서두르지 못하니라

50. 일러 가로되 너회는 생각해 보았느뇨 하나님의 벌이 낮에나 혹은 밤에 너회에게 도래할 때 한 순간도 지체하거나 서둘러 갈 수도 없노라

51. 그 시간이 너회에게 도래하였을 때에야 믿겠느뇨 너회는 이미 서둘러 불신을 재촉했노라[1]

52. 죄지은 자들에게 말씀이 있을 것이라 영원한 벌을 맛 보라 이것은 너회가 얻은 것에 대한 대가라

53. 그것이 진리냐고 그들이 그대에게 물으니 일러 가로되 나의 주님께

맹세하나니 그것은 진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피할 수 없으리라

54. 죄지은 사람들이 대지 위의 모든 것을 소유하여 그것으로 속죄하며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1] 그들은 또한 공평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결코 부당하게 처리되지 아니할 것이라

55.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56.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니 너희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1]

57. 인간들이여 너희 주님으로부터 교훈과 마음의 치료와 믿는 사람을 위한 복음과 은혜가 도래하였노라[1]

58. 일러 가로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로부터[1] 오나니 이는 그들이 축적한 것보다 더욱 좋은 것이라

59.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창조한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여 보았느뇨[1] 너희는 그 중의 일부를 금기하고 일부는 허락하였더라[2]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느뇨[3]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꾸미느뇨

60.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이 심판의 날에 무엇을 생각하겠느뇨 실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내리시나[1] 그들 대다수는 감사하지 않더라

61. 그대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던 또는 꾸란의 어떤 부분을 낭송하던 또는 어떤 일을 하던[1]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인이시니 천지에 있는 티끌 하나도 주님께 숨길 수 없노라 그것보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두가 한 기록서에 기록되어 지노라[2]

62. 실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63.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는[1]

64. 현세와 내세에서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라[1]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나니[2]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65. 그들의 얘기가 그대를 슬프지 않게 하리라 실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노라[1]

66. 보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더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들은 억측을 따를 뿐이며 단지 거짓말 밖에는 못하더라

67.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밤을 두사 너희가 휴식을 갖게 함이요 낮을 두사 보도록 하였으니 실로 귀를 기울이는 백성을 위한 징표가 그 안에 있노라

68. 하나님이 아들을 두셨다고[1] 말하는 자들의 말을 지워주소서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자족하시어 아들이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뇨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려 하느뇨

69. 일러 가로되 실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은 번성하지 못하니라

70. 그들은 세상을 잠시 향락한 후 하나님께로 돌아오나니 그분은 그들이 불신한 것에 대하여 가혹한 벌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

71. 그들에게 노아의 얘기를 들려주라[1] 그는[2] 그의 백성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충고하기 위해서라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의 일을 계속할 때 어느 누구도 나의 임무를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라 그럼으로 너희의 일은 너희 스스로 그리고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과 함께 결정하라 나에 대한 너희의 적대적 행위가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저하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

72. 너희가 나의 선교를 거역한다 하여도 나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요 너희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노라 나의 보상은 하나님 손 안에 있노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슬림[1]으로 있으라는 명령을 내리셨노라

73. 그러나 그들은 그를 부정하였으니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을 방주에 태워 구제한 후 그들을 계승자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자들은 물에 익사하게 하였노라 보라 경고받은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겠느뇨

74. 노아 이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1] 다른 백성들에게 보내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록 하였을 때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노아의 백성들처럼 선지자들을 부정하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봉하여 버렸노라

75. 그들 이후에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파라오와 그의 수장들에게 하나님의 증표들을[1] 보냈으나 그들은 오만하게 행동하였노라 이로인하여 그들은 죄지은 백성들이 되었더라

76.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도래했을 때 그것을 분명한 마술이라 말하더라[1)]

77. 모세 이르되 너희에게 도래한 진리를 마술이라 말하느뇨 마술장이들은 결코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

78. 그들이 말하였더라 당신은 우리 선조들이 믿어온 종교로부터 우리를 이탈시켜 당신과 당신 형제가 이 지상에서 군림하려 하느뇨[1)] 우리는 당신들을 믿지 않으리요 하더라

79. 파라오가 명령하여 모든 마술사들을 데려오라 하니

80. 마술사들이 왔더라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길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술을 보이라 하매

81. 그들이 마술을 보이더라 모세 이르되 너희가 보인 것이 바로 마술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능하게 만들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일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시니라

82.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으로 증거하자 죄인들은 증오하더라

83. 그 백성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세를 믿지 아니하니 파라오와 그의 수장들의 박해가 두려웠기 때문이라 파라오는 지상의 폭군이었으니 그는 실로 죄인 가운데 있었노라

84. 모세가 이르되 백성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분에게 의탁하라 하니

85.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주여 우매한 백성들이 저희를 시험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86. 그리고 당신의 자비로써 불신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87.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아우에게 계시를 내리며 너희 백성들을 위해 애굽에서 거주할 집을 짓고[1)] 너희 집들을 경배하는 장소로 삼아[2)]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니

88. 모세가 이르되 주여 당신께서 파라오와 그의 수장들에게 현세의 영광과 부귀를 주었나이다 주여 저들은 백성을 당신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려합니다 주여 저들의 부귀를 파괴하시고 믿지 아니한 저들의 어두운 마음을 내버려두어 저들이 고통스러운 벌을 받도록 하여주소서

89.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기도를 받아들이노라[1)] 그러므로 너희는 바른 길을 따르며 인내하라[2)]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말라

9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하여 바다를[1] 건너게 하사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뒤쫒으나 홍수로 그들을 익사케 하니 그가 말하길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아니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 가운데 있겠나이다 하더라

91. 이제 무어라 하느뇨 조금 전 까지도 너희는 거역하면서 우매한 자들 가운데 있었노라

92. 오늘 하나님이 너를 시체로 건져냄은 네 이후에 오는 자들에게 예증이 되도록 함이라[1]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눈을 돌리더라

93.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름다운 주거지로[1] 안내하고 가장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노라 진리와 불의가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그들은 의견을 달하였노라[2] 실로 너회 주님께서는 그들이 달리했던 것을 부활의 날 심판하시리라

94.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대하여 그대가 의심한다면[1] 그대 이전에 성서를 읽은 자들에게 물어보라[2] 실로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진리가 도래하였나니 의심하지 말라

95.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가 되지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손실자가 될 것이라

96. 실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97. 모든 증표가 그들에게 이르러도 고통스러운 벌을 맛볼 때 까지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라[1]

98. 벌을 목격하고서 믿었던 고을이 있었으며 그 순간의 믿음이 그 고을을 구제하였더뇨 요나의 백성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아니했더라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현세의 벌을 거두어 그들로 하여금 잠시 동안 즐기도록 유예하였을 뿐이라

99. 그대의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대는 강요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느뇨[1]

100.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믿지 아니하며 그분께서는 무관심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니라

101. 일러 가로되 천지의 모든 것을 보라 그러나 말씀도 경고도 믿지 아니한 백성에게는 유용하지 아니하노라

102. 그들은 이전에 지나갔던 선조들이 받은 징벌의 날들을 기다리느뇨 기

다리라 일러 가로되 실로 내가 너희와 함께 기다리며 지켜볼 것이라

103. 그런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믿는 자들을 구하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구하시니라

104. 일러 가로되 인간들이여 너희가 나의 종교에 대하여 의심하나 나는 하나님 외에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운명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1] 믿는 자 가운데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노라[2]

105. 그대 자신의 모든 것을 진실한 종교에[1] 바치되 불신자가 되지 말라

106.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기원하지 말라[1] 그것들은 그대에게 이득도 그리도 해도 주지 못하니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우매한 자 중에 있게 되니라

107.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해를 미치신다면 그분 외에는 그것을 거두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면 그분의 은혜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08. 일러 가로되 인간들이여 너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진리가[1] 도래하였으니 진리의 길로 걷는 자가 되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요 방황하는 자는 그것으로 길을 잃게 되나니 나는 너희를 위한 보호자가 아니라[2]

109. 그러므로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따르며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인내하라 그분이 가장 훌륭한 심판자이시니라[1]

제 11 장
수라트 후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라[1] 이것은 말씀이 구체화 되고 세분화 된 성서로[2]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2. 일러 가로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위한 경고자로서[1]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서[2] 그분으로 부터 보냄을 받았노라[3]

3. 그러므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회개하라[1]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정하신 기간까지[2] 너희에게 기쁨과 복음을 주실 것이요 선을 실천한 모두에게 은총을 내리실 것이라[3] 만일 너희가 거역한다면 위대한 날[4] 너희에게 내려질 벌이 나를 두렵게 하노라

4. 너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1]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2]

5.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접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감추려 하노라 그들이 자신들을 옷으로 감춘다할지라도[1] 그분께서는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아시노라 실로 그분께서는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니라

6.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고는 지상에 어떤 동물도[1] 생존할 수 없으며 또한 그분은 그것들이 사는 곳과 그것들이 있는 곳을 아시노라[2] 이 모든 것이 성서에 분명히 쓰여 있노라

7. 그분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물 위에 있는 권자에 앉으시어[1] 너희의 선행을 시험하시노라[2] 그러나 죽은 후 다시 부활한다고 그대가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 마술이라고 불신자들이 말할 것이라[3]

8.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정기간 벌을 유예하여 준다면 무엇이 그것을 보류시켰느뇨 라고 말할 것이라[1] 벌이 그들에게 닥치는 그 날이 오면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조롱했던 것들이 그들을 완전히 에워싸리라

9.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를 맛보게 한 후 그것을 거두어가면[1] 보라 인간은 절망에 빠지며 감사할 줄 모르더라

10. 그러다가 역경을 거두어 주면서 은혜를 맛보게 하면 그들은 모든 재앙이 떠났도다고 말하면서 자만에 빠지며 거만해지더라[1)]

11. 그러나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용서받고 또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1)]

12. 아마도 그대에게 계시된 것 가운데서 일부가 버려질까 염려되노라[1)] 왜 그대에게 보물이 내려오지 아니했으며 왜 그대와 함께 천사가 오지 않느뇨 라는 그들의 조롱에 그대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 염려됨이라 그러나 그대는 경고자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라

13. 그대가 그것을 위조하였다[1)] 그들이 말하리라 일러 가로되 그와 같은 열개의 장을 제시하고 너희가 진실이라면[2)] 하나님 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두에게 구원하여 보라고 하라

14. 그리하여 그대에게 응답하지 못하거든 내게 하나님의 지식이[1)] 내려졌으며 그분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순종하지 않겠느뇨

15. 하나님은 현세의 부귀영화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보상을 주실 것이라[1)]

16. 내세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지옥 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현세에서 행하여 얻은 모든 것들이 헛되고 무의미할 것이라[1)]

17. 주님으로부터 온 분명한 증거에 의지하고 그분이 보낸 증인이 따르는 꾸란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같을 수 있느뇨[1)] 그 이전에 모세에게 인도와 은혜로써 계시된 성서에서도[2)] 확증되어 있었노라 그들 중에는 거역한 무리가 있었으니 불지옥이 그들에게 약속되었노라 그러므로 그것에 관하여 의심하지 말라 실로 그것은 그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이니라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18.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 보다[1)] 우매한 자 누구이뇨 그들은 주님에 거역하니 천사들이 말하길[2)] 이들은 주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3)]

19.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를 방해하고[1)] 그것을 왜곡 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세를 불신하는 자들이라[2)]

20. 그들은 현세에서도 도피할 수 없으며[1)] 하나님 외에는 어떤 보호자도[2)] 갖지 못할 것이요 내세에서는 그들에게 벌이 배가되니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라

21.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들을 상실한 자들이며[1] 그들이 위조한 것이[2] 그들을 방황케 하리라

22.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내세에서[1] 가장 큰 손실자들이라

23. 천국은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1] 주님께 겸허한 자들의 것이거늘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니라

24. 두 무리가[1] 있나니 불신자는 장님과 벙어리 같으며 믿는 자는 보는 자와 듣는 자에 비유됨이라[2] 어들 두 무리가 같을 수 있느뇨 그래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느뇨

25.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냈을 때[1] 실로 나는 너희를 위한 경고자로서 왔노라[2]

26.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 어느 것도 숭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날의 벌이 있을까 두렵도다

27. 그의 백성 중에[1] 불신자들의 수장이 말하길 우리는 그대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밖엔 보지 아니하며[2] 우리 중에 가장 비천한 자들 외에 그대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우리는 너희 중에서 우리보다 우월한 것을 보지 못했으니 우리는 너희를 거짓말장이로 생각할 뿐이라

28. 노아가 이르되 백성들이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1] 받아 너희가 그것을 수락하도록 하려하나 너희는 눈이 어두어 그것을 증오하려 하도다[2]

29.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노라[1] 나의 보상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믿는 자들을 저버리지 아니하니[2] 그들은 주님을 상봉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무지한 백성임을 내가 보고 있노라

30. 백성들이여 내가 믿는 자들을 저버린다면 누가 하나님의 벌로부터 나를 보호하리요 그래도 너희는 생각하지 않느뇨

31. 나에게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며[1]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지 아니하며[2] 내가 천사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연약하여 경멸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3]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없다 말하지 아니 하니라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것을 알고 계시니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4] 실로 나는 부정한 자 가운데 서게 되리라

32. 그때 그들이 말하더라 노아여 그대는 우리와 논쟁에 논쟁을 더하였

으니 그대가 진실한 자라면 그대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뇨[1]

33. 노아가 이르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1] 그것이 너회에게 이르게 하시리니 이때 너회는 결코 피할 수 없으리라

34. 내가 너회에게 이득이 되는 충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회를 방황하게 하려 하시면 나의 충고가 너회에게 도움이 되지 않노라 그분이 너회 주님이시니 너회는 그분께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노라

35. 그가 그것을 위조하였다고 그들이 말하리라[1] 일러 가로되 내가 그것을 위조한 것이라면 나의 죄는 내가 질 것이며[2] 너회가 지은 죄는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노라[3]

36. 노아에게도 계시가 있었으니 이미 믿음을 가졌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너회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아니했더라[1] 그러므로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며[2]

37.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1]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2]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죄지은 자들을 위해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3] 그들은 곧 익사하리라[4]

38. 그리하여 그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니 그의 백성의 수장들이 그의 곁을 지날 때마다 그를 조롱하매[1] 그가 이르길 너회가 우리를 조롱한다면 우리는 너회가 조롱하는 것처럼 너회를 조롱하리라

39. 누구에게 벌이[1] 내려질 것인지 너회는 곧 알게 되리니 수치스럽게 하는 영원한 벌이 그에게 내려질 것이라

40. 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 지표에서 물이 솟아오르더라 각자의 자웅 한 쌍과 그대의 가족과 멸망될 자들을 제외한 믿는 자들을 그 방주에 태우라 하셨는데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믿지 아니하였더라[1]

41. 그리하여 그가[1] 이르되[2]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오르고 출항하며 정박하라 실로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42. 그들이 탄 방주가 산처럼 높은 파도를 따라 표류하기 시작하자[1] 노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아들을 부르더라 아들아 우리와 함께 방주에 오르라 그리하여 불신자들과 함께 하지말라

43. 아들이 대답하더라 물에서 나를 구해줄 산으로 도피하겠나이다 하니 노아 이르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 외에는 이제 어느 누구도 너를 구할 수 없노라 파도가 그들 사이를 갈라놓는 순간 그는[1] 익사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더라

44. 이때 말씀이 있었노라 대지여 물을 삼킬 것이며 하늘이여 비를 그치라 하니 물이 줄어 일이 끝남이라[1] 그리하여 방주가 주디산에 정

박하니 죄지은 백성들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있었노라[2]

45. 노아가 주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더라 주여 저의 아들은[1] 저의 가족 입니다 당신의 약속은 진실이며 당신이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46. 이때 주님께서 가라사대 노아여 그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대의 가족 가운데 있지 아니하노라[1]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에게 구하지 말라[2] 실로 내가 네게 충고 하나니 그대가 무지한 자 중에 있지 말라 이르노라

47. 노아가 다시 기도하였더라 주여 당신께 구원 하나니 제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에게 구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손실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48. 이때 말씀이 있었노라 노아여 방주에서 편안히 내리라 너와 그리고 너와 함께 한 백성들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당분간 다른 백성이 기쁨을 누릴 것이나 고통스러운 벌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

49. 이것이 그대에게[1] 계시한 보이지 않는 복음이라 그대와 그대의 백성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으니 인내하라[2] 실로 말세는 정의에 사는 자들을 위해 있느니라

50. 아드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후드를 보내니 그가 이르되 백성들이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분 외에는 너희를 위한 신이 없나니 다른 신은 너희가 거짓으로 조작한 것에 불과하니라[1]

51. 백성들이여 그에 대한 보상을[1] 너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노라 나의 보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나니 그래도 너희는 알지못하느뇨

52. 백성들이여 너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 그분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실 것이며[1] 너희의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거역하여 죄인이 되지말라

53. 이때 그들이 대답하길 후드여 그대는 우리에게 증표를 보이지 아니했으니 우리가 그대의 말에 따라 우리의 신을[1]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대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2]

54. 우리의 신들이 그대에게 사악함을 불어넣어 그대가 혼동하고 있을 뿐이라 후드 가로되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증거하도록 할 것이라 나에게는 너희가 불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노라

55.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한시도 게을리하지 말고 나에게 대항하여 음

모하여 보라[1)]

56. 실로 나는 나의 주님이요 너회의 주님인 하나님께 의지하노라 모든 생명체가 그분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노라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실로 나의 주님이 올바른 길이라[1)]

57. 너회가 거역하여도[1)] 나는 이미 너회에게 보내어진 말씀을 전했으니 주님께서 다른 백성으로 하여 너회를 승계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너회는 그분을 조금도 해치지 못하리니 실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니라

58. 하나님의 명령이[1)] 내려지면서 하나님은 후드와 그와 함께 믿었던 자들을 은혜로 구하고 무서운 벌로부터 그들을 구하셨노라

59. 그들이 바로 아드 백성이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선지자들께[1)] 거역하며 폭군의 모든 명령을 따른 자들이었더라

60. 현세와 내세에서도 저주가[1)] 그들을 뒤따를 것이라 보라 아드의 백성들은 그들의 주님을 불신하여 멸망되었노라 후드의 백들성은 어떻게 되겠느뇨

61. 사무드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제 살레를 보내니 그가 이르더라 백성들이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분 외에는 너회를 위한 신이 없으며 그분이 흙으로부터 너회를 창조하신 후[1)] 너회로 하여금 그곳에 안주하게 하셨으니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분에게 회개하라 나의 주님은 가까이 계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니라

62. 이때 그들이 대답하더라 살레여 그대는 우리의 회망이었노라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이 숭배하던 것을 금지하느뇨 그대가 안내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뿐이라

63. 살레 이르되 백성들이여 나는 주님으로부터 증표와 은혜를[1)] 받았노라 내가 그분을 거역한다면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구하겠느뇨 실로 너회는 나를 방황케 하여 파멸을 재촉하려 하도다

64. 백성들이여 이것이[1)] 하나님께서 증표로 너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암낙타이니 그 암낙타를 홀로 두어 하나님의 땅에서 살찌게 하되 조금도 해치지 말라 만약 그리한다면 재빠른 징벌이 너회를 엄습하리라

65. 그러나 그들은 그 낙타를 살해했으니 살레 이르되 너회의 고을에서 삼일을 즐기라 곧 너회가 멸망하리니 그것은 거짓 아닌 약속이니라[1)]

66. 하나님의 벌이 내려졌을 때[1)] 하나님은 살레를 구하고 그와 함께 하였던 믿는 자들을 은혜로써 수치스러운 날로부터 구하였노라 실로

주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니라

67. 천벌이[1] 죄인들을 엄습하니 그날 아침 모두가 그들의 집에 엎드려 죽어 있었더라

68. 그것은 마치 그들이 그곳에서 살지 아니했던 것과 같았으며[1] 사무드 백성들도 그들의 주님을 불신했으니 보라 그들도 멸망했더라

69. 천사들이[1] 복음을[2] 가지고 내려와 아브라함에게 평안하소서 라고 말하니 그도 서둘러 평안하소서 라고 대답하고서[3] 서둘러 구운 송아지 고기로 그들을 대접하였더라

70. 그들의 손들이 그것에[1] 다가가지 않음을 보고 그는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자[2] 그들이 말하길 두려워 말라 우리는 롯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파견되었노라[3]

71. 이삭이 탄생하고 그 이후에 야곱이 탄생하리라는 소식을 전하자 옆에 서있던 그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미소지며 웃더라

72. 그녀가 말하길[1]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 나는 이미 늙은 여자요 나의 남편은 노인이 아니더뇨 이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로다[2]

73. 그들이[1] 말하길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느뇨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라 가족들이여[2] 실로 그분은 찬미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이시라

74. 그러자 두려움이 아브라함에서 떠나고 기쁨의 소식이 그에게 왔을 때 롯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1]

75. 실로 아브라함은 온화하고 상냥하며 회개하는 분이시라

76. 아브라함이여[1] 이것은[2] 간구하지 말라 네 주님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벌이 내려질 것이라

77.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렀을 때[1] 그는[2] 그들을 보호할 힘이 없어 슬퍼하면서 오늘은 괴로운 날이라고 말하더라

78. 그의 백성들이 서둘러 그를 찾아왔으나 그들은 이미 사악한 행위를 저질렀노라 이때 롯이 이르되 백성들이여 여기 내 딸들이 있으니 결혼하라[1]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손님 앞에서 나를 저주하지 말라 너희는 정직한 자들 가운데 있지 않느뇨

79. 이때 그들이 말하매[1] 우리는 당신의 딸들을 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는 알고 있으리라

80. 이에 롯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제지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거나 강력한 후원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좋으련만

81. 이때 천사들이 말하더라 롯이여 우리는 그대 주님으로부터 온 사자들이라 그들이 결코 그대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대의 가족과 함께 어둠을 타고 떠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누구도 뒤돌아 보지 말라 그러나 그대의 아내가 그렇지 아니했으니[1] 그들에게 있을 재앙이 그녀에게도 있을 것이라 아침이 되면 벌이 내려질 것이라 아침이 다가오고 있지 않느뇨

82. 하나님의 명령으로 소돔의 도시가 뒤엎어지고 구운 진흙 돌비가 그들 위에 끊임없이 떨어지더라

83. 그대 주님으로부터 돌비가 계속되었더라[1] 그들 죄인들에게도 머지 않았노라

84. 마드얀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제[1] 슈아이브를 보내니 그가 이르더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분 외에는 너희를 위한 신이 없노라 또한 양과 무게를 속이지 말라 나는 너희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 있으나[2] 멸망되는 날[3] 너희에게 벌이 있을까 두렵노라

85. 사람들이여 양과 무게를 가득 채우고 그들의 물품을 횡령하지 말며 지상에서 부패를 일삼지 말라

86.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1] 나는[2] 너희의 수호자가 아니라[3]

87. 그들이 말하길[1] 슈아이브여 그대의 기도는[2] 우리 선조들이 숭배하였던 것을 단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뇨 아니면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뜻대로 함을 포기하란 말이뇨 그대야 말로 은혜가 깊은 지도자가 아니더뇨

88. 슈아이브가 이르길 백성들이여 나의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증표가 있었고[1] 내게 좋은 양식을 주셨노라[2] 내가 너희에게 금기한 것을 내가 위반하지 아니하며 나의 능력을 다하여 너희를 참되게 하고 싶을 뿐이라 그러나 나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나니 나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89. 백성들이여 너희를 죄되게 함은 나와의 반목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 노아와 후드와 살레 백성들이 벌을 받았듯이[1] 너희도 벌을 받을 것이라 롯의 백성도 멀지 않았노라

90. 그러므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 실로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니라

91. 이때 그들이 말하더라 슈아이브여 그대가 말한 것 중에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나니 실로 그대는 우리 중에서 약한 자이라 만일 그대의 가족만 없었다면 그대에게 돌팔매질을 했을 것이요 그 때 그대는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했을 것이라

92. 슈아이브가 이르길 백성들이여 나의 가족이 너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뇨 너희는 하나님을 등너머로 경멸하였으니 실로 주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93. 백성들이여 너희 능력에 따라 행하라 나는 나의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저주할 벌이 누구에게 오는가를 알게 될 것이며 누가 거짓하는 자인가를 알게 되리라 그럼으로 기다려라 나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노라

94.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슈아이브를 구하고 그와 함께 믿음을 가졌던 자들을 그분의 은혜로써 구한 후 하늘의 함성이 죄지은 자들을 엄습하니[1]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시체가 되어 아침을 맞이했더라

95. 그들이 그곳에서 살지 아니했던 것처럼 보였더라 사무드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마드얀의 백성들도 그렇게 되리라[1]

96.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과 권능을 주어[1]

97. 파라오와 그의 수장들에게 보내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길이 아닌 파라오의 명령을 따랐으매[1]

98. 그는 심판의 날 그의 백성들 앞에 서서[1] 그들을 불지옥으로 안내하리니[2] 그곳은 불이 이글거리는 곳이라

99. 그리하여 현세에서 저주가 그들을 뒤따랐듯이 내세에서도 그러할 것이라 이것은 불행한 선물이라

100.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에게[1] 전달한 멸망된 고을의 소식이거늘 그 가운데 일부는 서있고 일부는 넘어져 있더라[2]

101. 하나님이 그들을 죄짓게 하여 멸망케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죄지은 대가라[1] 하나님 이외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니[2]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파멸을 자초했을 뿐이라[3]

102.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죄짓고 있을 때 그 도시들을 멸망시켜 벌하시니라 실로 그분의 벌은 가혹하고 처참하시니라

103. 그 소식 안에는[1] 내세의 벌을 두려워 하는 자를 위한 증표가 있노라[2] 그것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날이며[3] 모두에 의해 증거되어지는

심판의 날이라[4]

104. 다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1] 일정 기간까지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라

105. 다가오는 그 날엔 어느 누구도 그분의 허락없이 말하지 못하고[1] 그들 중에 불행한 자와 행복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

106. 이 불행한 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되며 그곳에는 한탄의 소리와 통곡밖엔 없노라[1]

107. 천지가 존속하는 한 그들은 그안에서 영생하나[1] 그대 주님의 뜻이 있는 자는 제외될 것이라[2] 실로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니라

108. 그러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천지가 존재하는 한 천국에 있게 되며 주님의 뜻에 따라 그곳에서 영생하리니 실로 그것은 영원한 선물이라

109. 저들이 섬기던 것에 관하여 의심하지 말라[1] 저들은 이전에 저들의 선조들이 섬기던 대로 숭배할 뿐이라 하나님은 조금도 감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저질른 그만큼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

110.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서를 보냈을 때 그에 관하여 의견을 서로 달리 하였더라[1] 만일 주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있었을 것이라[2] 이 성서를 승계한 자들이 그것에[3] 관하여 의심하고 있느뇨

111. 주님께서는 업적에 따라 각자에게 보상하시니라[1] 실로 그분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112. 그대는 명령받은 대로 행하라[1] 그대를 따라 회개한 자도 그러하니라[2] 그리고 죄악을 범하지 말라 실로 그분은 너희가 행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13. 그리고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의 불길이 너희를 엄습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어느 무엇도 너희를 위한 후원자가 될 수 없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니라

114. 그리고 하루 낮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 시간에 예배를 하고 밤이 시작하는 이른 시각에 예배를 드리라[1] 실로 선행은 악을 제거하여 주나니 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을[2] 위한 교훈이라

115. 그리고 인내하라 실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을 저버리지 아니 하시니라[1]

116. 그대 이전에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행위를 금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한 소수 외에는 없었단 말이뇨[1] 죄지은 자

들은 저들의 향락을 쫓아 죄악을 더하여 갔더라

117. 주님은 백성들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한 그들의 단순한 잘못으로 그들의 고을을 절대 멸망시키지 아니 하시니라[1]

118. 주님이 원하셨다면 모든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두셨을 것이라[1] 그러나 그들은 논쟁을[2] 그치지 아니하더라

119. 그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제외라 그것을 위하여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셨노라[1] 그러나 그대 주님의 말씀은 충족될 것이니 거역하는 영마와 사람들로 지옥이 채워질 것이라[2]

120.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대에게 전함은 그것으로 하여 그대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자 함이라[1] 그 안에서 진리가 그대에게 도래하였으며 교훈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도 그와 마찬가지라

121.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행하라[1]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하리라

122. 그리고 기다리라 우리도 기다리고 있느니라

123. 천상과 지상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1] 만사가 그분에게로 귀의 하나니 모두가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하라 주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2]

제 12 장
수라트 유스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라 그것은 분명한 성서의 기적이라[1)]
2. 하나님이 꾸란을[1)] 아랍어로 계시하사 너희는 깨달을 것이라
3. 하나님이 이 꾸란의 계시를 통하여 그대에게 가장 아름다운 얘기를 전하노라[1)] 실로 그대도 이전에 알지 못한자 가운데 있었노라
4.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열한 개의 별과 해와 달이 그에게 부복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니[1)]
5. 아버지 이르시되[1)] 얘야 너의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음모하려 할 것이라[2)] 실로 사탄은 인간에게 적이니라
6. 주님께서 너를 선택하사 너에게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시어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니 이는 너의 두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은혜를 충만케 했던 것과 같음이라 실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
7. 실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에는[1)] 구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 있노라[2)]
8. 그들 형제들이 말하더라 요셉과 그의 아우는 힘이 센 우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있으니 실로 우리 아버지는 잘못하심이라[1)]
9. 그리고 말하길 요셉을 살해하던지 아니면 먼곳으로 보내라[1)] 그리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모두 너희의 것이 될 것이며[2)] 그후[3)] 너희는 정의로운 백성들이 될 것이라 하니
10. 그 가운데 한 형제가[1)] 말하기를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를 우물속으로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지나가던 대상이 그를 주어가리라
11. 그들이[1)] 말하기를 아버지 요셉에 대하여 왜 저희를 믿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그를 위한 친구들입니다[2)]
12. 저희와 함께 보내어 그가 즐겁게 놀도록 하여 주소서 저희는 그를 위한 보호자들입니다 하더라

13. 야곱이 말하되 너희가 그를 멀리 데리고 감은 나를 슬프게 함이라 또한 너희가 그를 돌보지 아니할 때 늑대가 그를 먹어버릴까 두렵노라[1)]

14.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늑대가 그를 삼킨다면 저희는 한 형제로써 손실자들이 되나이다

15.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을 때[1)] 합의하여 그를 우물 안에 던지기로 하였으니 보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여 그들이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 일렀으되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2)]

16. 그들이 저녁에 울면서 아버지께로 와[1)]

17. 말하기를 아버지 저희가 밖으로 나가 서로 경주를 하면서 요셉을 저희 짐[1)] 옆에 두었는데 늑대가 그를 삼켰나이다 당신은 저희를 믿지 않으시나 저희는 실로 진실한 자들입니다

18. 그 증거로 그들은 거짓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가져왔더라 이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스스로 어떤 일을 속이고 있으나[1)] 나는 너희의 거짓말에 참고 있나니 너희가 거짓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

19. 대상들이 그곳에 이르러 물을 구하려 보내니 그가 두레박을 우물속으로 넣었더라 그가 소리쳐 말하기를 좋은 소식이라 이것은 소년이 아닌가[1)] 그들은 그를 상품으로 감추었으나[2)]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알고 계셨더라

20. 그들은 그를 소액의 은전 몇푼으로 팔아버렸으니 그를 하찮게 여겼더라[1)]

21. 그를 산 한 애굽인이[1)]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잘 보살피시요 이 애는 아마 우리에게 유용할 것이요 아니면 그를 아들로 삼자고[2)] 하더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그 땅에 거주케 하고 꿈의 해몽을 가르쳤노라 하나님은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22. 요셉이 성장하매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었으니 이렇듯 그분은 선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니라[1)]

23. 그러나 그가 있던 집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며 문들을 잠그고[1)] 그녀에게로 오라하니[2)]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거두어 주소서[3)] 그분은[4)] 저의 주인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로 죄인들은 번성하지 못함이요 라고 하였더라

24. 그녀가 그에게 욕정을 품었으매 그도 주님의 증표를 보지 못했더라 면 그녀에게 관심을[1] 두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간음으로부터 피하게 하였으니 그는 한 충실한 성인이 되었노라

25. 둘이 쫓기고 뒤따르며 문쪽으로 피하여 가고 있을 때[1] 그녀는 그의 등어리 옷을 찢었더라[2] 둘이는 문전에서 그녀의 남편을 만나매 그녀는 당신의 가문을 더럽히려는 자에게 투옥이 아니면 고통스러운 벌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거짓말하더라

26. 이때 요셉이 저를 유혹한 것은 그녀였다고 말하자 그녀의 가족 중에[1] 한 사람이[2] 증언하길 그의 옷 앞부분이 찢어졌다면 그녀의 말이 사실이고 그가 거짓말 하는 자입니다 하더라

27. 그러나 그의 옷 뒷부분이 찢어졌다면 그녀가 거짓이며 그가 정직한 자입니다[1]

28. 그의 옷 뒷부분이 찢어졌음을 보았을 때 그가[1] 말하길 보라 이것은 당신 여자의 술책이며 당신 여자의 술책은 실로 훌륭하오 하더라[2]

29. 요셉아 이 사실을 비밀로 하여주오[1] 그리고 아내에게 일러 죄악에 대한 용서를 빌라고 하면서 그녀가 사악한 자였다고 하더라

30. 그 도시의 여성들이[1] 말하기를 아지즈의 아내는 그녀의 종을 유혹하고 그가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니 우리는 그녀가 방황하게 됨을 보게 될 것이라

31. 줄라이카가 여자들의 심술궂은 얘기를 듣고서 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각자에게 칼을 준다음 요셉에게 여인들 앞으로 나오라 하더라 여인들이 그를 보자 찬양하며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며[1] 하나님이여 저희를 지켜주소서 이 분은 인간이 아닌 훌륭한 천사가 아닙니까 라고 말들하더라

32. 이때 부인이 말하길 이 남자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비난했음이라 실로 내가 그를 유혹했으나 그는 완고히 거절하였노라 이제 그가 나의 명령을 이행치 않는다면 그는 투옥되어 보잘것 없는 동반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

33. 요셉이 말하기를 주여 그녀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보다 감옥이 더 좋습니다 당신께서 그녀들의 간교함으로부터 저를 구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녀들에게 유혹되어 어리석은 자중에 있게 되나이다

34.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는 그녀들의 간교함을 물리쳤노라[1]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노라

35. 요셉의 무죄가 확인되었지만 그들은 그를 잠시 투옥시키기로 결정하였더라[1)]

36. 그리하여 그와 함께 두 젊은이가 감옥에 들어갔더라 그 중에 한 청년은 꿈에서 술을 짜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다른청년은 머리 위에 빵을 이고 가는데 새가 그것을 먹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서[1)] 그 꿈을 해몽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저희는 당신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더라

37. 이때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가 먹을 음식이 오기 전에 그 꿈을 너희에게 해몽하여 주리니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것이라[1)] 실로 나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가 된 백성들을 떠나

38. 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을 따랐으며[1)] 하나님을 조금도 불신하지 아니했노라 그것은 우리와 모든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 은혜라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

39. 감옥의 두 동료여 서로 달리하는 많은 신들이[1)] 좋으뇨 아니면 절대자인 하나님이 더 좋으뇨

40.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선조들이 붙여논 이름에 불과할 뿐[1)]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아무런 권능도 부여하지 아니했노라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노라 하나님께서는[2)] 너희가 하나님 이외의 어느 것도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노라 그것이 진실된 종교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

41. 감옥의 두 동료여 너희 둘 중에서 한 사람은 술로 주인의 갈증을 식혀줄 것이며[1)]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지니 새들이 그의 머리를 쪼아 먹더라[2)] 이렇게 하여 너희 둘이서 질문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3)]

42. 그는 곧 석방될 한 사람에게 얘기하면서[1)] 너의 주인에게[2)] 나에 대해 이야기하라[3)] 일렀으나 사탄이 그로 하여금 그의 주인께 이야기 하는 것을 잊게 하였으니 그는 감옥에서 몇년 동안[4)] 더 남아 있었더라

43. 애굽 왕이 말하길 꿈에 야윈 일곱 소가 살찐 일곱 소를 잡아먹는 것과 푸른 일곱 이삭과 메마른 일곱 이삭을 보았노라 수장들이여 나의 꿈을 해몽하라 너희는 꿈을 해몽하는 자들이라[1)] 명령하니

44.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혼돈된 꿈이라 저희는 그처럼 혼란한 꿈을 풀이할 줄 모릅니다 하더라

45. 석방된 둘 중에 한 사람이 한참 동안 기억을 더듬어 말하기를[1)] 제가 그 꿈을 풀이할테니 저를 보내어[2)] 주소서 하였더라

46. 진실한 요셉이여[1] 야윈 일곱 소가 살찐 일곱 소를 탐식하는 꿈과 푸른 일곱 이삭과 메마른 일곱 이삭에 대한 꿈을 풀이하여 주소서 제가 백성들에게 돌아가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려 하옵니다[2] 하니

47. 요셉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평상시대로 칠년을 경작하되 수확기가 오면 너희가 먹을 소량의 양식만 제외하고는 이삭 그대로 보관할 것이며[1]

48. 그런후 혹독한 칠년이 오면 너희가 준비했던 것을 양식으로 섭취하매 소량만이 남게되더라[1]

49. 그후 백성들은 풍부한 비가 오는 한 해를 맞이하니 그 해에 술과 기름을 빚었더라[1]

50. 왕이 그를 그에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신이 그를 찾아갔더라 이때 요셉이 이르길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 손들을 짜른 여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보라 하며 실로 주님은 그녀들의 간교함을 알고 계시니라[1]

51. 이때 왕이 여자들에게 말하기를[1] 너희가 요셉을 유혹했느뇨 라고 물으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저희는 그를 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아지즈의 아내가 말하기를 지금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그를 유혹했으며 그는 실로 정직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더라[2]

52. 그렇게 하여 집주인은 내가 비밀리에 그분을 배반하지 아니했음을[1] 알게 되었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배반자들의 간교함이 성공하도록 두지 아니 하시니라

53. 나는 내 자신을 변명치 않으리라[1] 실로 인간은 죄악에 물들기 쉬우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이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54. 그 왕이 말하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로하여금 나를 위해 봉사케 하려함이라 요셉이 와 말하자 왕이 말하기를 그대는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직위에 오르고 신임을 받게 될 것이라 하니[1]

55. 요셉이 말하기를 이 땅의 창고들을 저에게 맡겨주소서 제가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이다

56.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요셉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는 그가 원하는 곳에서[1]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선을 실천하는 자들의 보상을 저버리지 아니 하시노라[2]

57. 믿음을 갖고 정의에 사는 자들에 대한 내세의 보상은 이보다 더욱 훌륭하니라

58. 요셉의 형제들이 와 그에게로 들어가자 그는[1] 그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그를 모르더라[2]

59. 그는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주며 말하기를 한 형제를 내게 데려오라 그는 너희 아버지 옆에 있노라 내가 저울을 가득채웠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훌륭히 대접함이라[1]

60. 만일 너희가 그를[1] 내게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로부터 더 이상 양식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요 또한 가까이[2] 할 수도 없으리라

61.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그의[1] 아버지로부터 그를 데려오겠습니다 저희는 실로 실천하는 자들이옵니다 하더라

62. 그러자 요셉이 그의 하인들을 시켜 그들이 가져온 상품을[1] 그들의 안낭속에 넣으라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것을 알고 그들이 다시 올 것이라

63. 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 아버지 이 이상의 양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양식을 얻어올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저희의 형제를 보내주십시오[1] 저희가 그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64.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전에 그의 형제를 너희에게 맡겼던 것과 같지 아니하게 그를 맡길 수 있느뇨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보호자이시니 그분은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65. 그들이 안낭을 열어보니 그들의 상품이 되돌아 왔더라 아버지 저희가 더 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에게 되돌아온 저희의 상품입니다 저희는 가족을 위해 곡식을 가져올 것이며 저희의 형제를 보호하면서 낙타의 힘이 넘치도록 곡식을 가져오겠습니다[1]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라고 하니

66. 야곱이 말하기를 완전한 포위를 당하지 않는한[1] 그를 데려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함께 그를 보내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니 그들은 맹세하더라 이에 야곱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감시하고 계시니라

67. 야곱이 말하기를 아들들아 애굽에 들어갈 때 한 문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해악을 막아줄 능력을 갖고 있지 않노라 어떤 해악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그분에게만 의존하며 의탁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에게만 의지하도록 할 것이라

68. 그리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말씀한 곳으로 들어가니[1] 하나님 외에는 아무 것도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노라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나니 실로 그는 하나님이 부여한 지혜를 갖고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69.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는[1] 그의 형제를[2] 껴안으며 내가 바로 네 형제 요셉이니 그들이 저질렀던 것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 하더라[3]

70. 요셉이 그들에게 필요한 곡식을 채워주며 그의 형제 벤자민의 안장에는 금주전자를 넣었더라 그런 후 너희 대상은 도둑이 아니요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으매[1]

71. 소리치며 다가오는 그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른 형제들이 물으니

72. 그들이[1] 말하기를 우리가 왕의 금잔을 잃었으니 그것을 가져온 자는 낙타 등에 넘치도록 양식을 줄 것이며 내가 그것을 보증할 것이라

73. 이에 형제들이 말하길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저희는 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려 온 것이 아님을 당신들이 잘 아시리니 진실로 저희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74.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벌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니

75. 그들이 답하여 말하기를 벌이 있어야 하되 그의 안낭속에서 발견되는 자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1] 이렇듯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시니라

76. 요셉은 동생의 안낭이[1] 있는 앞에서 형제들의 안낭을 조사하였더라 마침내 그의 친형제 안낭에서 그것을 꺼내었더라 이렇듯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계획을 하도록 하셨노라 그는[2] 그의 친형제에게 왕의 법을 적용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더라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어떠한 지식을 가진 자보다 높이 홀로 계시니라

77. 이때 그들이 말하길 만일 그가 훔쳤다면 그 이전에 그의 형제 요셉도 훔쳤을 것이라 말하더라 그러나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비밀로 하고 그들에게 밝히지 아니하고서 너희가 보다 나쁜 자들이니 하나님은 너희가 주장하는 것을 알고 계실거라고 혼자 중얼거렸더라[1]

78. 그들이 말하길 통치자여 그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을 그를 대신하여 구류하옵소서[1]

실로 우리는 당신이 훌륭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

79. 요셉이 말하기를 맙소서 우리의 물건을 훔쳐 가지고 있는 자 외에는 구류할 수가 없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죄인이요 라고 답하더라

80. 지금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으니 그들은 몰래 모임을 갖고 그들 중에 장남이[1]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맹세하여 너희로부터 맹세를 받아낸 것을 너희는 모르느뇨 이전에 요셉일로 인하여 실패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거나 가장 훌륭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까지는 나는 이땅을[2]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

81. 아버지께 돌아가 말하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실로 훔쳤습니다 이는 저희가 아는 바를 증거함이며 저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호자가 아니옵니다[1]

82. 저희가 있었던 도읍의 사람들과 또 저희와 함께 있었던 대상들에게 물어보소서[1] 실로 저희가 말함이 진실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83. 그들이 돌아와 얘기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속이고 있으나 나는 참고 있느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내게 오도록 하시리니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1]

84. 야곱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며 요셉이 가엽구나 라고 슬퍼하였더라 그의 두 눈은 슬픔으로 창백해지고 우울하여 지더라

85. 이때 아들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요셉의 생각에서 벗어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최악의 병이 들거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86. 이에 야곱이 말하기를 나의 근심과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 할 뿐이라 또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87. 아들들아 가서 요셉과 그의 동생 벤자민에 관해 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 실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망시킬 수 없나니 불신하는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 하니라[1]

88.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에게[1] 통치자여 저희와 그리고 저희 가정에 불행이 들어 저희가 초라한 상품을 가져왔나이다 저희에게 양곡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2] 실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보상하십니다

89.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는 요셉과 그의 형제 벤자민에게 대했던 것을 알고 있느뇨 실로 너희는 무지했노라[1] 이르니

90. 그들은 당신이 바로 요셉입니까 라고 물으니 내가 요셉이요 이 애는 나의 친형제 벤자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노라 실로 하나님은 사악함을 멀리하고 인내하며 선을 실천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을 저버리지 아니 하시노라

91.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를[1] 우리 위에 두셨으며 실로 우리가 죄지은 자들입니다 하매

92. 요셉이 말하기를 오늘에 와서 여러분을 꾸짖고 싶지 않노라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리니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93. 나의 옷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아버지 얼굴에 대어드리시요 그리하면 다시 앞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가족 전부를 제 곁으로 데려와 주시요 라고 하더라[1]

94. 대상이 애굽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1] 실로 내가 요셉의 냄새를 맡음이라 내가 노망해서가 아니요 라고 말하니

95. 이때 주위 사람들이[1]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당신은 옛날 일로 방황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96. 소식을 갖고 돌아와 그것을[1] 야곱의 얼굴에 대니[2] 아버지가 앞을 보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아니 했더뇨

97.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인들이옵니다

98. 너희를 위해 주님께 용서를 구하겠노라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99. 그들이 요셉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는[1] 양친에게 그와 함께 있을 안식처를 제공하며[2] 애굽으로 들어오소서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그리고 안심하소서 라고 말하더라

100. 요셉이 그의 부모를 권자에 모시니 모두 엎드려 그에게 절을[1] 하더라 이때 요셉이 아버지 이것은 전에[2] 제가 꾼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감옥으로부터 구출하셨으며[3] 사막으로 부터[4] 여러분을 오게하셨습니다[5] 단지 사탄이 저와 제 형제들 사이를 이간시킨 것 뿐이었습니다 실로 주님은 원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십니다[6]

101. 주여 당신께서 저에게 권세를 주셨고 꿈을 풀이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여 당신이야말로 현세와 내세의 주인이십니다 저회가 무슬림으로써 생을 마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저를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여 주소서[1]

102. 그것은[1] 하나님이 그대에게[2] 계시한 보이지 않은 복음으로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때 그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 했노라

103. 그대가 열망하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 하더라[1]

104. 그대는 이것으로[1] 그들에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것은[2] 전 인류를 위한 메시지라

105. 수 많은 증표가 천지에 있지 않느뇨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들을 지나쳐버리며 외면하더라

106.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더뇨

107.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또는 그들에게 돌연 종말이 닥쳐올 때 그들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느뇨

108.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것이 나의 길이라 나와 그리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은 그 증표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는 불신자가 아니옵니다

109. 하나님은 보통 사람 중에서 그에게 영감을 주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파견하였노라[1] 그들은 세상을 여행하면서 그들 이전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지 못하느뇨 천국의 주거지가 사악을 멀리하는 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거처임을 너회는 알지 못하느뇨

110. 선지자들이 백성들로 인하여 실의에 빠지고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말장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나 죄지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111.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1] 인간을 위한 교훈이 있나니 그것은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입증된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요 은혜라

제 13 장
수라트 라아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밈 라[1] 그것은 성서의 기적으로[2] 이는 주님께서 그대에게 계시한 진리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 하더라

2. 하나님은 지주도 없이 하늘을 세우신 분으로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1] 그런 후 그분은 권자에 오르시어[2] 태양과 달이 한정된 기간까지 각자의 과정을 운행하도록 하셨노라 그분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증표들을 자세히 밝히시어 너희가 주님을 영접하리라는 확신을 주시니라[3]

3. 그분께서 대지를 넓히시고 그 안에 산을 세우셨으며 강을 흐르게 하사 모든 종류의 열매를 두셨음이라 그 안에 자웅을 두었고[1] 밤이 낮을 가리도록 하셨으니 실로 그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4. 대지 위에는 다양한 땅들이 근접하고 있고[1] 포도밭과[2] 전답과 풍성한 종려나무와 그렇지 않는 것이 있으되 한가지 물로 자라니라 하나님은 그 중의 일부를 다른 것 보다 먹기에 더 좋도록 하였으니[3] 실로 그 안에는 백성이 알아야 할 증표가 있노라

5. 그대가 놀랄 것이 있다면 놀라울 것은 우리가 흙이 되었을 때 실로 우리가 새로히 창조될까 라고 말하는 그들의 얘기라[1] 그들은 주님을 불신한 자들로[2] 그들의 목에 멍에가 채워져[3] 불지옥의 주인들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라[4]

6. 그들은 선보다는 징벌을 재촉하도다[1] 이미 그들 이전에 본보기로 징벌이 있었노라[2] 그러나 주님은 관용으로 충만하사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도 하시며[3] 또한 주님께서는 가혹한 벌도 내리시니라[4]

7. 왜 그대에게 주님의 증표가 내리지 아니 하느뇨 라고 불신자들이 말하나 그대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경고자요 안내자 일 뿐이라[1]

8. 하나님은 모든 암컷의 태내에 있는 것과 부족한 것과 넘는 것도 알고 계시나니[1] 실로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안에서 이루어지노라

9.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도 알고 계시며 가장 위대하시고 높이 계심이라

10. 그분은 너희 가운데 자신의 말을 비밀로 감추는 자나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나[1] 밤에 숨어있는 자나 낮에 걷는 보행자나 모두를 알고 계시니라

11. 모든 인간의 앞과 뒤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있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바꾸기 전에는 사람들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아니 하시니라[1]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주려 하실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나니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가 없노라

12. 두려움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번개를 보이시는 분도 그리고 비구름을 만드시는 분도 그분이시라[1]

13. 천둥은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며 천사들도 그분을 경외하고 찬미하노라[1] 또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2] 그분의 뜻에 따라 벼락의 재앙을 보내 가혹하게 벌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라

14. 그분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진리이니라[1] 그분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마치 물을 향하여 물이 그의 입에 이르도록 두 손을 벌리나 물이 그의 입에 이르지 않는 것과 같나니 불신자들의 기도는 방황에 불과하니라[2]

15. 천지의 모든 것이 좋아서든 싫어서든[1] 하나님께 복종하나니 아침 저녁의 그림자들도 그러함이라

16. 일러 가로되[1] 천지의 주님이 누구이뇨[2] 일러 가로되 하나님이시라 자신들게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못하고 해칠 수 있는 힘도 없는 자를 보호자로 택하였느뇨 일러 가로되 장님과 보는 자가[3] 같을 수 있으며 암흑과 빛이 같을 수 있느뇨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게 동반자들을 두어 그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처럼 창조하게 하려하는가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분만이 홀로 절대적 힘을 가지고 계시노라

17. 그분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사 그 양에 따라 계곡의 물이 흐르게 하시더라 그러나 급류는 부풀어 오르는 거품을[1] 동반함이라 또한 장식품이나 용구를 만들 목적으로 불에 녹이는 금속에서도 거품을 동반케 하시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진리와 허위를 비유하고자 하심이라 그런 후 그 거품은 쓸모없이 사라지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땅에 머물러 있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느니라

18. 주님을 따르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요[1]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는[2] 지상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악에 대한 속죄를 받지 못하니라 그들에게는 죄악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며[3] 그들의 주거지는 사악한 휴식처인 지옥 뿐이라

19.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진리로 믿는 자가 장님과 같을 수 있느뇨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만이 이해하는 사람들이라[1]

20.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수행하고[1] 그 성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21.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함께하라[1] 함에 같이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불행한 심판을 두려워하노라

22.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풀며 사악함을 선으로 대처하는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최후의 거주지라[1]

23. 그들이 들어가는 곳은 에덴의 천국으로 그들의 선조들과 배우자들과 후손들 가운데서 선을 행한 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리니 천사들이 각 문으로[1] 들어오며

24. 너희가 인내하였으므로[1] 이제부터 너희는 평안할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최후의 거주지인가

25.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서 이를 깨뜨리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함께 하라 함에 거역하며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요 그들을 위해서 무서운 거처가 마련되어 있노라

26.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거나 줄이시니라 불신자들은 현세의 생활로 기뻐하나 현세의 생활은 내세의 기쁨에 비하여 스쳐가는 순간의 기쁨에 불과하니라

27. 왜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증표가 내리지 아니한가 라고 불신자들이 말하니[1] 일러 가로되 실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방황케 하시나 회개하는 자는 그분께로 인도하시니라[2]

28.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염원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나니 실로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이 평안하니라[1]

29.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축복과 아름다운 최후의 거처가 그들의 것이라[1]

30. 이미 많은 민족이 멸망하여 사라졌지만 그대 이전에 예언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그대를 공동체에 보내매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을 그들에게 낭송하기 위해서라 그러나 그들은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불신하니 일러 가로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나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로 귀의하니라[1)]

31. 산들을 이동하고 대지를 쪼개며 죽은 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꾸란이 있다하여도 그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노라[1)]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인류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뇨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들에게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주거지를 맴돌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 하시노라

32. 그대 이전의 선지자들도 많은 조롱을 받았노라[1)] 그러나 불신한 그들을 잠시 유예하다가 그들을 멸망케하였으니 사악함에 대한 나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벌이뇨

33. 모든 인간의 업적를 감시하는 분이 누구이뇨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우상과 대등하게 하려하니 일러 가로되 우상의 이름을 들어보라[1)] 너희는 대지 위에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려 한단 말이뇨 아니면 말의 장난에 불과하느뇨 그들의 계획이 불신자들에겐 그럴듯 보이나 그들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노라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신 자는 어느 누구도 인도하지 못하니라

34. 그들은 현세에서도 벌을 받으나 내세에서의 벌은 더욱 고통스러우니라[1)] 하나님께 대항하여 저들을 보호할 자는 아무도 없노라

35. 천국을 비유하사 이는 정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것이라 그 밑에는 강이 흐르고 일용할 양식이[1)] 영원히 준비되어 있고 그늘이 있으니 이는 사악을 멀리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며[2)] 불신자들에 대한 대가는 지옥 뿐이라

36.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자들은 그대에게 계시된 것으로 기뻐하니라[1)] 그러나 그것을 불신하는 무리가 있나니 일러 가로되 하나님을 경배하되 어떤 것도 그분께 비유하지 말라 명령을 받았으니 내가 백성을 그분께로 인도할 것이요 나도 그분께로 귀의하노라

37. 그처럼[1)] 하나님이 그것을 아랍어로 계시하노라 그것으로 백성을 심판하라는 계시가 있었음에도 그대가[2)] 그들의 공허한 욕구를 따른다면 그대는 하나님에 대적하여 보호할 자나 원조자를 갖지 못하니라

38. 그대 이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그들에게 배우자를 주어 자손을 갖게 했노라[1)] 증표와 기적은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며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에 의한 것이며 각 시대마다 법이 있었노라

39.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멸하시고[1] 원하시는 대로 세우시노라 그리고 모든 계명의 근원은[2] 하나님께 있노라

40.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벌의 일부를 그대에게 보여주던 또는 그것 모두가 완성되기 전에[1] 그대의 영혼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그대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의무일 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니라

41. 하나님께서 외곽으로부터 그들의 통치하에 있는 영토를 좁히어 가면서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느뇨[1]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분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또한 그분은 계산에 신속시니라

42. 그들 이전의 불신자들도 음모를 꾸몄으나[1]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어 모든 인간의 행위를 알고 계시나니 불신자들은 내세에서 누가 안식처를 갖게 될 것인가를 곧 알게 되리라

43. 불신자들이[1] 그대는 선지자가 아니라 말하니 일러 가로되 나와 그리고 너희 사이의 증인은 하나님 만으로 충분하며 또한 성서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2] 있노라

제 14 장
수라트 이브라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라[1] 이것은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한권의 성서 이거늘[2] 이것으로 주님의 허락에 따라 백성들을 암흑으로부터 광명으로 인도하여 권세와 찬양의 길로 이르도록 하라[3]

2. 하나님에게 천지의 모든 것이 귀속되며 불신자들에겐 가혹한 응벌의 재앙이 있으리라[1]

3. 내세보다 현세의 삶을 좋아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과 비뚤어짐을 갈구하는 자들 모두는 오랜 방황 속에 있게 되리라[1]

4.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뜻을 분명히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계시하셨노라[1]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방황하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니[2] 그분은 강하시고 현명하시니라

5.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표를 주어 일러 보내었으니 그대의 백성들을 암혹에서 광명으로 안내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들을[1] 기억하게 할 것이니 실로 그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자를 위한 증표가 있노라

6.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파라오 백성으로부터 구하셨노라 그들은 너희를 무서운 학대로 괴롭혔으니 여아들은 그대로 두었으나 남아들은 학살하였으매[1] 그것은 너희 주님께서 내리신 커다란 시험이었노라

7.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할지니 만일 너희가 감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더할 것이며[1] 너희가 감사하지 않을 때[2] 실로 나의 벌이 무서우리라 하셨노라

8. 모세가 말하더라 너희와 그리고 지상의 모두가 감사하지 않는다 해도[1] 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며 모든 찬양을 홀로 받을 분이시라

9. 너희 이전의 노아와 아드 그리고 사무드 백성과 그들 이후에 온 백성들에 관한 얘기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 했느뇨[1] 하나

님 외에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리라[2] 그들의 선지자들이 증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은 손으로 그들의 입들을 막으며 실로 우리는 너희에게 보내어진 것을 믿지 아니하며 우리를 초대하는 너희 종교에 의심할 뿐이라 하더라

10. 선지자들께서 말했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 의심하느뇨 그분께서 너희를 부르심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약속된 기간까지 너희를 유예하고자 하심이라[1] 그들이 말하길 실로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도다 당신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숭배하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하려 하느뇨 우리에게 분명한 증표를 보이라 하더라

11. 이에 답하여 선지자들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너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1]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너희에게 증표를 이르게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느니라

12.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을 이유가 없나니[1]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야할 길로 인도하셨으니[2] 우리는 너희가 우리에게 가하는 박해를 인내로 참으며 하나님에게만 의탁하리라

13. 이때 불신자들이 선지자들에게 말하더라 우리는 이 땅에서 너희를 추방하거나 아니면 너희를 우리의 종교로 귀의하게 하리라 그러자 주님께서 저들을 멸망하도록 하겠다는 계시를 내리셨노라

14. 이렇게하여 너희와 그 이후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게 하리라 이는 내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와 나의 벌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함이라

15. 선지자들이 기도하니 거만을 피우며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되었더라

16. 그들[1] 앞에 지옥이 있고 그들은 그 안에서 피가 섞인 곪은 물을 마시니라

17. 그것을 마시되 거의 삼킬 수 없으며 죽음이 모든 곳에서 그에게 다가오나 죽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벌이 계속될 뿐이라

18. 주님을 불신하는 자를 비유하사 저들이 하는 일은 폭풍이 부는 날 폭풍에 휘날리는 재와 같아 저들이 얻은 것을 감수하지 못하고[1] 최후의 방황을 할 뿐이라[2]

19. 하나님께서 진리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그분이 원하실 때 너희를 제거하시고 새로이 창조하시니라[1]

20.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

21. 저들은 무덤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나오매 연약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에게 말하길 실로 우리는 너희를 추종했으니 너희는 우리를 하나님의 벌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었더라면 우리도 너희를 인도했으리라 이제 우리가 노여워하거나[1] 인내한다 하더라도 별도리가 없으니 우리에게는 피신처가 없노라고 하더라[2]

22. 그 일이 결정되었을 때[1] 사탄이 말하길 실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실의 약속을 하셨기에 나도 너희에게 약속하였으나 실패하였노라 나에게는 너희를 지배할 권능이 없었으나 내가 너희를 부르매 너희가 내게 응답하였을 뿐이라 그러므로 나를 비난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비난하라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으며 너희가 나를 도울 수 없노라 실로 나는 너희가 이전에 나를 하나님과 대등하게 대했던 것을 불신하니라 실로 우매한 자들에겐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2]

23.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강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의 허락으로 영생하며 그곳에서 평안하소서 라는 천사의 인사를 받노라

24.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알지 못하느뇨 훌륭한 한 마디의 말은 좋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고 했거늘[1] 그 뿌리는 단단하고 그 가지는 하늘로 향하니라 하셨노라

25. 그 나무는 주님의 허락에 따라 계절마다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비유로 설명하시노라[1]

26. 비유를 들어 한마디의 나쁜 말은 좋지 못한 나무와 같으니 뿌리가 땅에서 나와 있어 안정이 없노라 하셨더라[1]

27.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서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나[1] 죄지은 자들은 방황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니라

28.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으로 보답하여[1] 그들의 백성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보지 못했느뇨

29.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 불에 태워지니 그곳은 불행한 거처라

30. 그들은 하나님에 대적할 우상을 세워 백성들을 그분의 길에서[1] 벗어나게 하니 일러 가로되 만끽하라[2] 실로 그들의 목적지는 불지옥이 되리라

31. 믿음이 깊은 나의 종들에게 일러 가로되 어떤 거래도 유익하지

아니할 그 날이 오기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 일용할 양식으로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풀라[1)]

32.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사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으며 그로부터 열매를 맺게하여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노라 또한 너희를 위해 우주를 주관하시매 그분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운행케 하고 강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셨노라

33. 그분은 해와 달이 항상 그 운행을 지키게 하여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시며 또한 밤과 낮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셨노라

34. 그분은 너희가 요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베푸시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려 하도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으니 실로 인간은 우매하여 감사할 줄 모르더라

35. 아브라함이 기도하였더라 주여 이 도시를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저와 저의 자손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1)]

36. 주여 이 우상들은 실로 많은 인류를 방황케 하였나이다 그러나 저를 따르는 자는 저의 안에 있나니[1)] 저를 따르지 아니한 저들에게 관용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37. 주여 저는 당신의 명령에 따라 제 자손의 일부를 계곡에서 거주토록 하였으니[1)] 그곳은 경작지가 없는 당신의 성스러운 집이었습니다[2)] 주여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과실을 일용할 양식으로 베푸시어 저들이 감사하도록 하여 주소서

38. 주여 당신은 저희가 숨기는 것과 밖으로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께는 천지의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나이다

39. 나이가 많은 저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실로 주님은 기도를 들어 주시나이다[1)]

40. 주여 저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하여 주소서[1)] 저의 자손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소서 주여 그리고 기도를 받아 주소서

41. 주여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저의 부모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는 날에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1)]

42. 죄인들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실로 그분은 그 날[1)] 까지 그들을 유예할 뿐이니 그 날 그들의 눈들은 공포로 가득차리라

43. 그들은 서둘러 목을 길게 하고 머리를 세우며[1)] 그들의 눈들은 두려움으로 가득차 바라보지 못하나니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니라

44. 사람들에게 재앙이 다가올 그 날을 경고하니[1] 죄인들이 말하길 주여 얼마 동안 저희를 유예하여 주소서 저희는 당신의 부름에 복종하고 선지자들을 따르겠나이다 하니 가라사대 너희는 이전에 너희에게 종말이 오지 아니할 것이라 맹세하지 아니했더뇨

45. 너희가 죄인들이 거하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분명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노라

46. 그들이 음모하였으나[1] 그 음모가 비록 산들을 진동한다 하여도 그들의 음모는 하나님 안에 있었노라[2]

47.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강하시며 엄한 벌을 내리는 분이시라

48. 어느 날 지구가 다른 것으로 변하고 하늘도 그렇게 되는 날[1] 모든 것이 무덤에서 나와 홀로 계시며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로 오느니라

49. 그 날 그대는 족쇄에 묶여 있는 죄인들을 보리라

50. 그 날 그들의 의상은 역청으로[1] 되어 있으며 불길이 저들의 얼굴을 둘러싸노라

51.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가 얻은 것 만큼 보상하시니 실로 하나님은 계산에 능하시니라

52. 이것이 백성을 위한 메시지로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홀로 계심을 알게 하고 이로하여 지식인들이 교훈을 삼도록 함이라[1]

제 15 장
수라트 알히즈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라 이것은 성서의 말씀으로 진리를 밝혀주는 꾸란이라
2. 아마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자신들이 일찌기 무슬림이 되었을 것을 하고 원할 때가 오리라[1)]
3. 그들이 먹고 인생을 향락하며 그들의 소망이 그들을 기쁘도록 두라 그들이 곧 그 결과를 알게 되리라
4. 이미 정하여진 계율이 이르지 아니한 민족을 하나님이 멸망케 하지 아니 했으니[1)]
5. 어느 민족도 그들의 운명을 서두르거나 지연시킬 수 없노라[1)]
6. 이때 그들이 말하더라 그대에게 꾸란이 계시되었다니 그대가 미친자가 아니뇨
7. 그대가 진실한 자 중에 있다면 왜 천사들을 이르게 하지 않느뇨[1)]
8. 하나님은 진리의 목적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냈을 뿐이라 만일 천사들이 그들에게 왔다면 그들은 유예되지 못했으리라[1)]
9.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계시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리[1)]
10. 그대 이전 옛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1)]
11.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면 그들은 오히려 그를[1)] 조롱하였더라[2)]
12.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1)] 죄인들의 마음 속에 죄의 씨가 들도록 하였노라
13.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멸망한 선례를 보았음에도 그것을[1)] 믿지 않더라
14.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저들이 그 곳을 향하여 오르게 한다 하여도
15. 저들은 틀림없이 우리의 눈들이 도취되어 우리가 마술에 걸려 있을 뿐이라고 말할 것이라[1)]
16.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늘에 천도를 만들고 보는 자들을 위해 그

것을 장식하였으며[1]

17. 하나님은 그것을[1]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였노라

18. 그러나 몰래 엿듣는 자는 타오르는 선명한 불꽃이 그를 쫓으리라

19. 하나님은 대지를 펼쳐 그 안에 산들을 세워 고정시키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적절한 비율로 자라도록 하였노라

20. 하나님은 그 안에서 너회의 일용할 양식을[1] 구하도록 하였고 너회가 제공할 책임이 없는 피조물들을 위한 생존 수단도 그 안에서 찾도록 하셨노라

21.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1] 가득찬 창고를 가지고 계시나 필요한 양 외에는 내려주지 아니 하시니라

22.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보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사 너회가 마시도록 하였노라 물의 공급자는 너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1]

23. 생명을 부여하고 앗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상속되니라[1]

24. 하나님은 너회 가운데 앞서 온 자와 뒤에 온 자를 알고 계시니라[1]

25.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모이게 하시니[1] 실로 그분은 현명하시고 전지하시니라

26. 하나님께서는 검고 건조한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노라[1]

27. 하나님은 앞서 뜨거운 살인적인 불로 영마를 만드셨노라[1]

28. 보라[1] 주님께서 천사들에게[2] 건조한 진흙으로 인간을 빚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노라

29. 내가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나의 영혼을 불어넣을 때 너회가 그에게 부복[1] 하라하니

30. 천사들 모두가 부복하더라[1]

31. 그러나 이블리스는 부복하는 자 중에 있기를 거절하였더라[1]

32. 하나님이 이르시길 이블리스여 네가 부복하는 자 중에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뇨 라고 물으니

33. 이블리스가 말하길 당신께서 건조한 검은 진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왜 내가 부복하여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더라[1]

34. 이리하여 하나님은 명령하셨나니 그곳으로부터[1] 나가라 너는 저주를 받았노라[2]

35. 심판의 그 날까지 너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36. 이때 이블리스가 주여 부활의 그 날까지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
37. 하나님이 이르시길 네가 유예되는 자 가운데 있으되[1]
38. 정해진 그 시간 그 날 까지라 하시니
39. 이블리스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이 나를 버리셨기에 지상에서 내가 그들을[1] 유혹하여 그들 모두를 방황케 하리요[2]
40. 그러나 당신의 진실한 종들은 제외됨이라[1] 하매
41. 하나님이 이르시길 나의 성실한 종이 가는 길은 내게로 이르는 올바른 길이라
42. 실로 너 사탄은 탈선하여[1] 너를 따르는 자 외에는 나의 종 어느 누구도[2] 지배 할 수 없노라
43. 실로 지옥은 그들 모두를[1] 위한 약속된 곳으로
44. 그 곳에는[1] 일곱 개의 문이 있으며 그것은 그들 죄인들에 배당된 각각의 문이라[2]
45. 그러나 실로 정의롭게 사는 자는[1] 우물이 있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2]
46. 그 안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들어갈 것이라
47.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증오를 제거하리니[1] 그들은 형제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더라
48. 그 안에서 피곤함이 그들을 엄습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들은 결코 그곳으로부터 추방되지 않노라
49. 나의 종들에게 일러 가로되[1] 실로 내가 너그럽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50. 그러나 나의 벌은 고통스러운 징벌이라[1]
51. 아브라함의 손님들에[1] 관하여 그들에게 일러주라
52. 이때 천사들이 문으로 들어와 그에게[1] 평안하소서 라고 인사하니 실로 당신들이 두렵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더라[2]
53. 이에 천사들이 말하더라 두려워 하지 말라 우리는 총명한 지혜를 가진 사내 아이의[1] 소식을 당신께 전하려 왔나이다
54. 아브라함이 말하였더라 나이가 많은 저에게 사내 아이의 소식을 전하려 오셨다니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매

55. 우리가[1] 진실로 당신께 진리의 복음을 전하였으니 실망하는 자 중에 있지 말라
56. 아브라함이 대답하더라 방황하는 자 외에는 누가 주님의 은혜를 실망시키리요
57. 천사들이여 당신들의 사명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니[1]
58. 죄지은 롯의 백성에게 저회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천사들이 대답하더라[1]
59. 그러나 롯의 가족을[1] 제외하고 우리는 그들 모두를 구제하리요
60. 그러나 롯의 아내는 구제 될 수 없으매[1] 그녀는 벌을 받게 되리라
61. 천사들이 롯과 그의 추종자들에게[1] 이르렀을 때
62. 롯이 내가 알지 못하는 당신들은 누구이뇨 라고 말하니
63. 우리는 사자로써 백성들이 의심하는 것을[1] 완성하고자 당신께 왔나이다
64. 우리는 진리의 소식을[1] 가지고 와 당신께 그 진리를 전함이라
65. 그러므로 당신 가족과 함께 밤중에 떠나라[1]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르되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뒤돌아보지 말라 너희가 명령받은 그곳으로 떠나라
66.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될 때 죄인들 모두에게 은혜가 단절되리라는[1] 소식을 그에게[2] 전하였더니
67. 그 도시의 백성들이[1] 기뻐하며 서둘러 오더라
68. 이때 롯이 말하길 이분들은 나의 손님들이니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69.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욕되게 하지 맙소서 라고 말하니
70.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당신께서 저마다에게 대접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더뇨
71. 롯이 말하길 너희가 원한다면 결혼할 나의 딸들이[1] 있노라
72. 맹세하건대[1] 실로 그들은 그들의 불신에 도취되어 방황하고 있노라[2]
73. 그리하여 해가 뜰무렵 폭풍우가[1] 그들을 멸망시켰더라
74. 하나님은 그 도시를 뒤엎고 열에 달구어진 돌비를 그들 위에 퍼부었노라[1]

75. 실로 그 안에는 이해하는 자들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76. 그 도시들은[1] 아직 지워지지 않는 길위에 있노라
77. 실로 그안에는 믿는 자들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78. 실로 그곳의 백성들은[1] 죄인들이었노라[2]
79.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1] 내리셨고 그 두 고을이[2] 멸망한 흔적이 아직도 길위에 있노라
80. 히즈르[1] 백성들도 예언자들을 불신하였더라
81.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표를[1] 보냈으나 그들은 그에 관하여 불신하며
82. 그 산에 집을 세워 하나님의 벌을 피하며 안전하게 살려고 하였으나
83. 하늘의 천벌이 아침 직전에 그들을 멸망케 하였으니
84. 그들이 얻었던 모든 것이[1] 그들에게 무용지물이었더라
85. 하나님이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진리로 창조하셨으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1] 그대는[2] 그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하라
86. 실로 그대의 주님은 창조주이시며[1]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2]
87. 하나님은 그대에게 자주 낭송하는 일곱절과 위대한 꾸란을 주었노라[1]
88. 하나님이 일부 불신자들로하여 향락을 즐기도록 한 것에 그대는 눈을 크게 뜨지 말며[1] 그들의 불신으로 슬퍼하지 말고 믿는 자들을 위해 그대의 날개를 낮추라[2]
89. 일러 가로되 실로 내가 분명한 경고자이라[1]
90. 꾸란을 여러 파로 분열시키는 백성들에게[1] 경고하노라
91. 꾸란을 부분으로 분리한 불신자들이 있었으므로[1]
92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질문하시니라
93.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1] 관해 심문할 것이라
94. 그러므로 그대가 명령받은 것을 선언하되 불신자들로부터 멀리하라[1]
95. 하나님은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그대를 보호할 것이라
96. 하나님께 다른 신을 비유하는 자들은[1] 그 결과를 곧 알게 되리라

97. 그들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대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니

98.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여 영광되게 하고 엎드려 부복하는 자 중에 있으라

99. 확실한 그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경배하라[1)]

제 16 장
수라트 나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의 명령이 가까오니 서둘러 재촉하지 말라[1] 그분을 영광되게 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 위에 두시라 하시고
2. 천사들을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선지자들에게[1] 명령의 말씀을[2] 보내사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3] 나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었노라
3. 그분께서 진리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분은 그들이 비유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노라
4.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지으셨노라 보라 아직도 그는[1] 논쟁하고 있더라[2]
5. 너회를 위해 가축들을[1] 두셨으니 그 안에는 온기가 있어[2] 유용하며 또한 너회는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섭취하노라[3]
6. 너회가 그 가축들을 집으로 데려올 때와 목장으로 몰고 나갈 때 그 곳에는 너회를 위한 아름다움이[1] 있노라
7. 너회가 수고 없이는 먼 지역까지 운반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축들이 운반하여 주나니 실로 주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이시니라
8. 하나님은 말과 노새와 당나귀를 두어 너회가 승차하고 장식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회가 알지 못하는 것도[1] 창조하시니라
9.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있으되 어떤 길은 고르지 못한 길도[1] 있노라 그러나 그분이 원하신다면 너회들 모두를 인도하셨으리라[2]
10.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사[1] 그 중의 일부를 너회의 음료수로 두셨고 그 중의 일부는 가축이 먹을 식물을 자라게 하셨노라
11. 그분은 그것으로[1] 너회를 위해 곡식과 올리브와 종려나무 열매와 포도와 모든 종류의 열매를 키우시노라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2]
12. 그분은 너회를 위해 밤과 낮을 교차시키고[1] 태양과 달과 별들이 그분의 명령에 복종케 하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

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13. 대지 위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1] 여러 색깔로 두어 너희에게 유용케 하였으니 실로 그 안에는 기억하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14. 그분께서 바다를 두시매 너희가 그로하여 신선한 생선을 먹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너희가 걸칠 장식품을[1] 얻도록 하였으며 파도를 일구어 배가 가는 것을[2] 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추구하고 감사하도록 하였노라

15. 그분은 산들을 대지 위에 고정시키셨으니[1] 이는 너희로하여 안정케 하고자 함이요 또 그 위에 강과 길을 두셨으매 너희가 스스로를 인도하도록 함이라

16. 사람들이 이정표와 별들을[1] 보고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노라

17. 이처럼 창조하시는 그분을 창조할 수 없는 것과 비유하느뇨[1] 너희는 깨닫지 못함이라

18.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려 하지만 너희는 그 수를 셀 수 없노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9. 하나님은 너희가 감추는 것과 밖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시니라

20. 하나님 외에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은 아무 것도 창조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라[1]

21. 그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로 언제 부활될련지 모르니라[1]

22. 너희의 신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1] 그러나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2] 마음은 오만으로 가득찻노라

23. 하나님은 그들이 숨기는 것과 밖으로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오만한 자들을[1] 사랑하지 아니 하시노라

24. 그대 주님께서 무엇을 계시했느뇨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옛 우화들[1]이라 대답였더라

25. 저들은 심판의 날 저들이 낳은 죄악과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들이 방황하게 만든 일부 사람들의 짐까지 짊어지게 되나니 저들의 짐들은 저주스러울 뿐이라

26. 저들 이전에도 음모을 꾸미는 자들이 있었으매 하나님께서 저들 집들의 지주를 무너뜨리사 지붕이 그들 위에서 무너지더라 이렇듯 징벌은 저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도래하니라[1]

27. 심판의 날이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며 이르시더라 너희가 논쟁하던 나의 동반자들이 어디에 있느뇨 라고[2] 하시니 실로 이날 치욕과 저주가 불신자들 위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학자들이[1] 대답하더라

28.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생명을 거두어 갈 때 저들은 순종하듯 우리는 어떤 죄악도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렇지 아니함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였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하더라

29. 그러므로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생하라 저주가 오만한 자들의 거처에 있을 것이라

30. 너희 주님께서 무엇을 계시했느뇨 라고 정의로운 자들에게 물으매 복음이라 이는 현세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복이요 내세를 위해서는 더 큰 복이며 정의에 사는 자들을 위한 은혜라 대답하노라[1]

31. 그들이 들어가는 곳은 에덴의 천국으로 그 밑에는 강들이 흐르고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더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정의에 사는 자들에게 보상을 하노라

32. 천사들이 선량한 자들의[1] 생명을 거두어 갈 때는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으소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소서 이것은 당신들이 현세에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요[2] 라고 말하노라

33. 그들은 천사들의 도래와 그대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느뇨[1] 저들 이전에도 그러하였거늘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우롱하지 아니하셨으나 저들이 스스로를 우롱했노라

34. 저들이 행하였던 악이[1] 그들을 덮칠 것이며 저들이 조롱했던 것들이 저들을 에워싸리라

35. 불신자들은[1] 만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우리도 그리고 우리 선조들도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 했으리라 또한 우리는 어떤 것도 금기하지 아니 했을 것이라고[2] 거짓말 하노라 저들 이전의 불신자들도 그리하였으나 선지자들의 임무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뿐이라[3]

36. 하나님이 각 민족에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피하라 하였으니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한 자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도 있었으니[1] 대지 위를 여행하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라[2]

37. 실로 그대가 염려하여 그들을 인도하려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방황하는 자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매 그들은 어떠한 후원자도

갖지 못하리라

38.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지 않는다고 불신자들이 굳게 맹세하였더라 이때 말씀이 있었으니 그렇지 아니함이라[1]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이라

39. 하나님은 저들을 부활시켜 저들이 달리했던 것을 설명하고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었음 알게 하시리라

40. 실로 하나님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관하여 있어라 말씀하시어 있게 하시니라

41. 박해를 받은 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주한 자들에게[1] 하나님은 현세에서 안식처를[2] 마련하여 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알기만 한다면 내세의 보상은 더욱 크니라

42. 이들은 인내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이라

43. 하나님이 그대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보냈으되 그들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노라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학자들에게 물어보라 하셨노라[1]

44. 하나님은 증표와 율법서를 그들에게 보냈으며 또한 그대에게 메시지를[1] 보냈나니 무엇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지 백성들에게 알리라[2] 아마도 그들은 숙고하리라

45. 사악함을 음모한 저들이 평안하려 하느뇨 실로 하나님께서는 대지로 하여금 저들을 삼키도록하리라 또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벌을 내릴 것이라[1]

46. 저들의 여행 중에 벌이 내려질 것이라[1] 그러나 저들은 피할 수 없노라

47. 하나님은 저들을 점차적으로 두렵게 하여 멸망케 하리라 실로 주님은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48. 저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지 아니 하느뇨[1] 그것들의 그림자들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움직이며 가장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가

49.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대지 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천사들도 그러하되 오만하지 아니하며

50. 그들 모두가 위에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 하고 명령 받은대로 행할 뿐이라

51. 하나님이 말씀하사 두 신을[1] 섬기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나 하나뿐 나만을 두려워하라

52.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귀속되어 있어 이 모든 것이 항상 그분께 순종하거늘[1]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 한단 말이뇨

53. 너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하라

54.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의 고난을 제거하여 주시니라 보라 그런데 너희 가운데 무리는 주님을 섬기매 다른 신을 비유하여 섬기고 있나니

55.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푼 은혜를 불신한 것이라 향락하라 너희가 곧 결과를 알게 되리라

56. 저들은 하나님이 베푼 양식으로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몫을 분배하니[1]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너희는 너희가 거짓한 것들에 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57. 저들은 하나님께서 딸들을 두었다고 말하노라[1]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하려 하도다

58.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얼굴이 검어지며[1] 슬픔하더라

59. 그에게 전해온 나쁜 소식으로 그는 수치스러워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며 그 치욕을 참을 것인가 아니면 흙 속에 묻어버릴 것인가[1] 생각하였나니 저들이 판단한 것에 저주가 있을 것이라

60.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사악한 자라[1] 하나님은 비유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그분은 강하시고 현명하시노라

61.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벌을 주시려 하셨다면 그분은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도 남기지 아니 하셨으리라 그러나 그분은 저들을 어느 기간 유예하시니 저들의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저들은 벌을 단 한시간도 지연시킬 수도 그리고 앞당길 수도 없노라

62. 저들은 자신들이 증오하는 것에[1] 대해서는 하나님께로 돌리며 저들의 혀들로서는 저들이 복을 누릴 것이라[2] 거짓말하니 분명 저들이 거할 곳은 불지옥이며 서둘러[3] 그곳에 버려질 것이라

63. 하나님은 그대 이전에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노라 그러나 사탄은 저들의 사악함을 그럴듯하게 장식하여 오늘날까지 유혹하고 있나니[1] 고통스러운 벌이 저들에게 있으리라

64. 하나님이 그대에게 성서를 보냄은 그대로 하여금 저들이 달리하는 것을 설명하려 함이라 그것은 복음이요 은혜로 믿는 백성

을 위한 것이라[1]

65.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사 죽은 대지를 재생하시니 이는 실로 귀를 기울이는 백성을 위한 증표라

66. 가축에도 너희를 위한 교훈이 있나니 몸 안에 있는 물질과 피와 침전물 사이에서 마시기에 순수하고 유쾌한 순수한 우유를 만드니라

67. 과일 중에는 종려나무 열매와 포도나무가 있어 그로부터 마실 것과 일용할 양식을 얻나니[1] 실로 그 안에는 지혜가 있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68. 그대의 주님께서 벌에게 영감을 주시어[1] 산과 나무와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 집을 지으라 하시고

69. 모든 꽃에서 일용할 양식을 섭취하되 주님의 길을 따르라 이는 쉬우니라 하셨더라 벌들의 몸에서는 여러가지 색깔의 마실 것이 나오며 인간에게 유용한 치료약이 있으니 실로 그 안에는 숙고하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1]

70. 너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노령이 되게 하여 알았던 것을 잊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

71.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우열을[1] 두셨노라 그러나 부여받은 양식으로 부유한 자들은 그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어 서로 똑같이 갖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려 하느뇨

72.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너희 중에서 배우자를 만들어 아내로부터 아들과 자손을 갖게 하고 너희를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는 좋은 것을 주시었노라 그런데도 저들은 헛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 하느뇨

73. 저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나 그것은 하늘과 대지위에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도[1] 주지 못하고 어떠한 권세도 없노라

74.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라[1] 실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75. 하나님께서 비유하사 예속되어 있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한 종과 하나님의 좋은 일용할 양식으로 은혜를 받아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자가 있나니 이들이 같을 수 있느뇨 라고 하셨더라[1]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러나 저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더라

76.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1] 비유하사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벙어리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그의 주인에게 무거운 짐만 되노라 주인이 심부름을 보내지만 그는 좋은 것을 이루지 못하니 이러한 그가 진리요 올바른 길에 있는 자와 같다 할 수 있느뇨

77. 천지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노라 종말의 문제는 눈 깜박할 사이에 도래하니라[1]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 권세를 갖노라

78.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 것도 모르는 동안 어머니 자궁에서 너희를 보내면서 청각과 시각과 지혜를 주셨으니 너희는 감사하라

79. 인간은 하늘에 날으는 새들을 보지 않느뇨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새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없나니 실로 그 안에는 믿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1] 있노라

80.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집을 주어 그곳에서 기거하게 하사 가축의 가죽으로는 천막을 지어 여행 때 기거하도록 하고 가축의 털과 모피를 주어 얼마 동안의[1] 생활 필수품으로 유용하게 하셨노라

81.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늘을 주사 산 계곡에 피서지를 주시고 의복을 주어 더위를 피하게 하셨으며 갑옷으로는 적을 방어토록 하셨노라 이렇듯 그분은 너희를 위해 은혜를 완성하셨으니 너희가 복종해야 하노라

82. 그러나 저들이 불신한다 하여도 그대는 다만 계시를 전달하는 임무일 뿐이라

83. 저들은 하나님의 은총을[1]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나니 저들의 대다수는 완고한 불신자들이라

84. 하나님이 각 백성으로부터 증인을 부활시키는 그 날 불신했던 저들에게는 변명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구원의 간청도 거절되노라[1]

85. 죄인들이 벌을 받으매 감형되지도 아니하고 유예되지도 않노라

86. 불신자들이 저들의 동료들을 보매 주여 이들이 당신 아닌 다른 것을 섬긴 불신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니 저들이 대답하되 실로 너희가 거짓말장들이라 반박하더라

87. 그리하여 저들은 그 날에서야 하나님께 복종하나 저들이 거짓말했던 모든 것이 저들을 곤경에 빠뜨리더라

88.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1] 저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이 저지른 해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2]

89. 하나님이 각 민족으로부터 증인을[1] 부활시키는 그 날 그대도 그들에 대한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2] 하나님이 이 성서를 그대에게 계시하사 이로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라[3] 이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요 은혜요 복음이라

90. 하나님께서 정의와 선을 실천하라 명령하셨노라[1] 친인척에게 자선을 베풀라 하셨으되 추한 언행과 사악함과 범죄를 금하시노라 너희에게 교훈이 되어 주의하도록 하셨노라

91. 너희가 하나님에게 행한 약속을 수행하되 너희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확증한 맹세를 깨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92. 약속을 깨뜨린 자를 비유하사[1] 실을 단단하게 짜아 굳게 감은 다음 그것을 헤쳐버리는 여자와 같노라 너희는 너희의 맹세를 기만하여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하려 하느뇨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너희를 시험할 것이며 부활의 날 너희가 달리하는 것에 관하여 너희에게 진리를 밝혀 주실 것이라

93.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 모두를 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노라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자를 방황케하고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니 행하였던 것에 관하여 너희가 심문을 받으리라

94. 너희 사이에서 기만의 수단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는 안전한 그의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사악함을 맛보지 말라 무서운 재앙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95.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은 것으로 바꾸지 말라 너희가 사실을 안다면 실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희에게 큰 복이 될 것이라

96. 너희에게 있는 것은 사라지나 하나님께 있는 것은 영원하노라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선행에 최선의 것으로 보상하시니라

97.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1] 부여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선에 대하여 최상의 것으로 보상 하시니라

98. 그러므로 너희가 꾸란을 낭송하려 할 때 저주 받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99. 실로 사탄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없노라

100. 사탄의 능력이란 그를 보호자로 택하며 하나님께 다른 것을 비유하는 자들에게만 미칠 뿐이라

101. 하나님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그 계시의 본뜻이 무엇인가는 하나님만 아심이라 이때 저들이 말하기를[1] 그대는 거짓말쟁이 라고 하더라 그러나 저들 대다수가 알지 못할 뿐이라[2]

102. 일러 가로되 성령이[1]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이로하여 믿는 자를 강하게 하라 그것이 무슬림의 길이요 복음이라

103. 한 인간이 그를[1] 가르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나니 저들이 말하길 외국인이 그를[2] 가르친 것이라 하더라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아랍어라[3]

104.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105. 실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로 저들이야 말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106.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하나 강요된 것은 제외되노라[1] 그러나 믿음을 가진 후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의 마음에 불신을 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참혹한 벌이 있을 것이라

107. 이것은 그들이 내세의 삶보다 현세의 삶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 실로 하나님은 불신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108.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청각과 시각을 봉하여 버린 자들로 주의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109. 저들이 내세에서 멸망하는 자 중에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노라

110. 그러나 박해를 받아 이주하여 성전분투하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나니 실로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11. 각자가 스스로를 위하여 변론하고 행한대로 보상되는 그 날을 상기하라 그 날은 부정하게 다루어지지 아니하노라[1]

112.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온했던 한 고을을 비유하사 모든 곳으로부터 그곳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와 풍성하였노라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저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기아와 공포를 맛보게 하였노라[1]

113. 한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저들은 그를 거절하였으니 재앙이 죄지은 자들을 엄습하였더라

1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푼 허락된 좋은 것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섭취하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115.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고기와 피를 금지하셨고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것도 금지하셨노라 그러나 필요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한계선을 넘지 아니한 정도로 섭취한 자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관용과 자비를 베푸시니라[1)]

116. 그러나 너희의 혀가 거짓말로 이것은 허락된 것이며 저것은 금지된 것이라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에 대항하여 거짓말하는 것이거늘 실로 하나님에 대항하여 거짓말하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니라

117. 쾌락은 순간일 뿐이며 고통스러운 벌이 그들에게 있을 뿐이라

118. 하나님이 이전에 그대에게 언급 했듯이[1)] 유대인들에게도 금기하셨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욕되게하지아니 하였으나 그들이 스스로 욕되게 하였노라

119. 그러나 알지 못하여 죄악을 저질렀으나 회개하고 개선한 자들을 위해 주님이 계시나니 실로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20. 분명 아브라함은[1)]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자였으니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가운데 있지 아니했노라

121.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를 선택하사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더라

122. 하나님은 현세에서 그에게 복을 주었고 또한 그를 선행하는 자 중에 있도록 하였나니 내세에서도 그러하리라

123.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대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신앙과 올바른 길을 따르라 하셨노라

124. 안식일은 그것의 준수에 관하여 서로 다투었던 자들에게 강요되었던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부활의 날 저들이 달리한 것에 관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1)]

125.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되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그들을 맞으라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벗어난 자와 바른 길로 가는 자를 알고 계시니라

126. 벌을 가하되 너희가 당한 고난과 같은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인내한다면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라[1)]

127. 인내하라 그대의 인내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거늘 저들을 위해 슬퍼하지도 말며 저들이 음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말라

128. 실로 하나님은 악을 멀리하는 자들과 선을 실천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하시니라

제 17 장
수라트 알이스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의 종을[1] 밤중에 하람사원에서[2] 아크사 사원으로[3] 밤하늘 여행을 시킨[4]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곳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 이웃으로 하나님의 일부 표적들을 보여주고자 함이라[5]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지켜보고 계시니라

2.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 주어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복음이 되도록 하였으니[1] 너희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라

3. 그들은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태웠던 자손들이라 실로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종이었노라[1]

4. 하나님은 성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사 너희가 대지 위에서[1] 두 차례나 해악을[2] 범하고 크게 오만하니 너희에게 벌이 있으리라

5. 그리하여 두 번 중에 첫번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 대항하여 대단히 용맹스러운 종들을 보내 그들로하여금 집들을 탐색하게 하니 그것은 이행될 약속이었노라[1]

6. 하나님은 다시 너희로 하여금 저들에 대항하여 승리하게 하였으며 재산과 자손을 더하여 주었고 저들보다 병력이 더 강하도록 하였노라[1]

7. 너희가 선을 행하매 이는 너희 스스로를 위한 것이요 너희가 사악함을 행하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그리하여 두번째 경고가[1]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 대항하는 백성을 세워서 너희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차게 하고 예루살렘 사원에 들어가[2]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게 할 것이라

8. 그러나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다시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벌을 내리고 불신자를 위하여 지옥을 만들어 놓았노라[1]

9. 실로 꾸란은 가장 올바른 것으로 인도하며 믿는 신앙인들을 위한 복음이라 선을 행하는 자들은 큰 보상을 받으리라

10. 그러나 하나님은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해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1]

11. 인간은 진리를 강구해야 하나 악을 서둘러 추구하는 인간이 있더라

12. 하나님은 낮과 밤을 표적으로[1] 제시하여 밤의 표적은 어둡게 하고 낮의 표적은 밝게 하였노라 이것은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추구하도록 하고[2] 햇수의 계산과 셈의 학문을 알 수 있게 하였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였노라

13.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그 자신의 목에 매어 놓았으니 심판의 날 한권의 기록으로 그에게 이르게 하니 모든 인간은 배열된 자신의 업적을 보게 되니라[1]

14.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있으리니 너의 기록을 읽으라 너를 계산하는 오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니라[1]

15. 정도로 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방황하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를 방황하게 하는 것이라 짐진 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니[1]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낼 때까지 벌을 내리지 않노라

16. 하나님이 한 고을을 멸망코자 했을 때 안이한 생활을 누리던 저들에게 명령을 내렸노라 그러나 저들은 그 안에서 거역하였노라[2] 밤에는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낮에는 노동을 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함이니 그리하여 그분은 진리로서 저들을 멸망시켰노라[1]

17. 노아 이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망시켰더뇨[1] 주님은 종의 과오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니라

18. 스쳐가는 현세를 서둘러 원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은 본인이 원하는 자에게 서둘러 벌을 내리고 지옥을 마련하여 주리니 그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

19. 그러나 믿는 자로서 내세를 갈망하며 노력하는 자들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1]

20.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그리고 저들에게도[1] 보상을 주리라 그대 주님의 보상은 제한됨이 없노라

21.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우열을 두었는지 보라 내세에서는 그 우열함이 더욱 더 크노라

22. 하나님께 다른 신을 비유하지 말라 너희가 멸시와 버림을 받으리라

23. 주님이 명령하사 그분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했으며[1]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셨노라 부모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늙었을 때 부모를 멸시하거나 대꾸하지 말라 그리고 고운말만 쓰라 하셨노라

24. 부모에게 공손하고 날개를[1] 낮추며 겸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주여 두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두 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하였나이다

25. 너희 주님은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너희가 선을 행할 때[1] 하나님은 그분에게 귀의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니라

26. 친척과 불쌍한 사람과 여행자에게 자선을 베풀되 낭비하지 말라

27. 실로 낭비는 사탄의 친구로 사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니라

28. 만약 그대가 하나님이 명령한 그들에 대한 의무를 가진 것이 없어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기대하는 은혜를 바라고 있다면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히 말하라[1]

29. 너희의 손이 너희 목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되[1] 너무 펼쳐도 아니 되나니 이는 너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고 빈곤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30. 실로 주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고 또 궁핍하게 하시니 그분은 종들을 잘 아시며 지켜보고 계시니라

31. 가난이 두려워 너희의 자손을 살해하지 말라[1]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나니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라 그럼으로 그들을 살해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

32. 간통하지 말라 실로 그것은 부끄러운 죄악으로 가는 길이라[1]

33. 정당한 이유없이[1]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노라 부당하게 살해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보호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노라[2] 그러나 살해하더라도 범주를 넘지 말라[3] 그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

34. 고아가 성년에[1] 이를 때까지 최선의 방법이 아니거든[2] 고아의 재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라 그 모든 계약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35. 물건을 재되 되를 가득 채울 것이요 무게를 달되 저울의 균형을 이루게 하라 이것이 선이요 내세에서 가장 좋은 재산이라

36.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들었던 것과 보았던 것과 마음 속에 있었던 모든 것에 관하여 심판의 날 심문을 받으리라

37. 거만한 자세로 대지를 걷지 말라 너희가 그 대지를 가르지 못하며[1] 산 높이에 이르지 못하니라

38. 이 모든 것들이[1]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이라

39. 이것이 주님께서 그대에게 계시한 지혜라 그럼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이는 너희가 지옥에 떨어져 비난과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함이라

40. 주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을 주셨으며 그분을 위해서 천사들을 딸들로 택하셨단 말이뇨 실로 너희는 가증스러운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1]

41. 하나님이 꾸란을 통해서 경고를[1] 되풀이 하사 이로하여 너희가 교훈을 얻도록 함이라 그러나 저들은 진리에서 더욱더 벗어나더라

42. 일러 가로되 하나님 외에 그들이 주장하는[1] 신들이 있었다면 그 신들은 분명 권자에 계신 주님에로의 길을 찾으려 했으리라

43.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당신은 저들이 말하는 모든 것 위에 크고 높이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44. 일곱 개의 하늘과 대지가 그분을 영광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니 그분을 찬미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노라[1] 너희가 그것들의 찬미를 알지 못하나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관대하시니라

45. 그대가 꾸란을 낭송할 때[1] 하나님은 그대와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베일을 두었노라

46.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 속에 베일을 씌우고 저들의 귀에 무거운 것을 놓아 저들이 그것을[1]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노라 그대가 꾸란에서 주님 한 분 만을 염원할 때 저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등을 돌리더라

47. 하나님은 저들이 그대에게 귀를 기울임을 알고 계시니라 저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너희가 추종하는 것은 마술에 걸린 한 남자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사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1]

48. 보라 저들이 그대를 어떻게 비유했느뇨 그리하여 저들은 방황하고 복음의 길을 찾지 못하였더라[1]

49. 불신자들이 말하더라 우리의 뼈가 산산조각이 된 후에도 우리

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단 말이뇨

50. 일러 가로되 너희가 돌과 쇠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아니 하니라

51. 너희의 마음 속에 단단한 것으로 생각되는 어떠한 종류의 피조물이라도 그것을 부활시키기에 창조주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노라 하니 그들이 누가 우리의 생명을 재생하느뇨 라고 묻더라 일러 가로되 최초에 너희를 창조한 분이시라 그들은 또 고개를 흔들며 그것이 언제이뇨 라고 물으니 멀지 않았노라

52.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는 어느 날 너희는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의 부름에 응하리라 또한 너희는 너희가 머물렀던 것이 순간이라 생각하리라

53. 나의 종들에게[1] 일러 가로되 가장 좋은 말을 하도록 하라 사탄은 그들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니 실로 사탄은 인간의 적이니라

54. 주님은 너희를 알고 계시니 그분이 원하실 때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분이 원하실 때 너희에게 벌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1]

55. 그대의 주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종들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일부 예언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사[1] 다윗에게 시편을 주었노라

56. 일러 가로되 하나님 외에 너희가 주장하는 것에[1] 구원하여 보라 그것들은 너희의 불행을 제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시킬 아무런 능력이 없노라

57. 그들이 주장하는 신들도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추구하고 있으며 그분의 자비를 바라고 그분의 벌을 두려워 하노라 실로 주님의 벌은 이미 경고 되었노라

58. 부활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멸망케 하거나 벌하지 않을 고을이[1] 없나니 그 벌은 혹독하며 그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노라

59. 어느 무엇도 하나님이 계시함을 방해하지 못했노라 옛 세대가 그것을 거부했으나 하나님이 사무드에게 암낙타로써 예시하였을 때 저들은 그것을 배척했더라 하나님이 증표를 보내 저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함이라[1]

60.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인간들을 에워싸고 있으며[1] 하나님이 그대에게 보여준 것은[2]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또한 꾸란에 있는 저주받은 나무도[3] 그러하거늘 하나님이 저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저들의 마음은 더욱더 오만하여 지더라

61.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일러 아담에게 부복하라 하니[1] 그들 모두가 부복하였으나 이블리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부복하란 말이요 라고 하면서 거역했더라

62. 이블리스가 또 말하더라 이것이 당신께서 나 보다 더 높이 두신 자이뇨 당신께서 나를 심판의 날까지 유예한다면 나는 그의 후손들을[1] 소수만 제외하고는 멸망케 하리요

63. 이때 주님께서 이르시니 가라 저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 있다면 실로 지옥이 너희를 위한 넘치는 보상이 되리라

64. 또 이르시길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유혹의 목소리로[1] 저들을 멸망으로 유인해 보라 너의 자손들을 부유케 하겠노라 약속해 보라 사탄은 저들에게 약속을 이행치 못하고 기만하더라

65. 실로 너는 나의 종들 위에 아무런 권세가 없노라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보호만으로 충분하니라

66.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1] 배로하여 바다를 항해하게 하니 이로하여 너희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도록 함이라 이렇듯 그분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노라

67. 너희가 바다에서 불행을 만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을 한다면 방황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육지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면 너희는 다시 등을 돌리나니 실로 인간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더라

68. 너희가 대지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지가 너희를 삼키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안심하고 있느뇨 강한 돌 회오리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으리라 안심하고 있느뇨[1] 그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한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69. 하나님께서 두번 다시 너희를 바다로 보내지 않는다고 안심하느뇨 그분은 너희에게 폭풍우를 보내어 너희가 불신한 것으로 너희를 익사케 하리니 너희는 하나님에게 대항할 어떤 후원자도 발견치 못하리라

70.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에게 은혜를[1] 베풀어 주셨노라 육지와 바다 이곳 저곳을 여행하도록 하고 좋은 양식을 부여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것보다 인간을 높이 두셨노라

71.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와 함께 모든 인간을 소환할 것이라 그들의 오른 손에 기록이 놓여진 자는 그들의 기록을 읽을 것이며 조금도 부당하게 취급되지 않으리라

72. 현세에서 눈이 먼 자는 내세에서도 눈이 멀어져 길을 방황하게 되리라[1]

73. 저들은 그대를 유혹하여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등을 돌리도록 하고[1] 하나님에 대항하여 다른 것을 조성하도록[2] 그대를 저들 친구로 삼으려 하노라

74. 하나님이 그대를 지키사 그대는 조금도 저들에게 기울지 아니했으니[1]

75. 만일 그대가 그랬었다면[1]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금 현세의 벌과 내세의 벌을 맛보게 하였을 것이며[2] 그때 그대는 그대를 위한 어떤 구원자도 발견치 못했으리라

76. 저들은 그대를 위협하였으매 그 땅으로부터 그대를 추방하려고 하였노라[1] 그러나 저들은[2] 잠시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

77. 이것은 하나님이 이전의 선지자들에게 보낸 전통으로 그대는 그 전통의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78. 서산에 해가 기울어 어둠이 질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꾸란을 낭송하라 진실로 새벽의 꾸란 낭송은 천사가 지켜보니라[1]

79. 한밤중에 일어나 예배를 근행함은[1] 그대를 위한 은혜가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여 영광의 지위에 오르게 하시리라

80. 일러 가로되 주여 저로하여금 진실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그와 마찬가지로 진실의 출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1] 당신 가까이에서 승리의 권한을 부여하여 주소서

81. 일러 가로되 진리가 도래하였으니 허위가 멸망하리라 실로 허위는 멸망토록 되어 있노라

82. 하나님이 꾸란을 계시함은 이로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치료와 은혜가[1]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손실이 되도록 함이라

83.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사[1] 그가 등을 돌리고 거만해 할 때 사악함이 도래하면 그는 절망할 뿐이라

84. 일러 가로되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방법에 따라 행동하려 하거늘 그러나 주님은 누가 가장 옳은 길로 인도되는가를 아시노라

85. 불신자들이[1] 성령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으리라 일러 가로되 성령은 주님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며[2] 너희가 아는 것은 미량에 불과하니라

86.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을 거두어 갔을 것이라 그 때에 그대는 그대를 보호할 수호자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

87.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실로 그분의 은혜가 그대 위에

크게 있었노라[1])

88. 일러 가로되 인간과 영마가[1]) 서로 같이하여 이 꾸란과 같은 것을 만들려 해도 저들은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리라 비록 저들 서로가 서로를 도운다 해도 그러하니라

89. 실로 하나님은 이 꾸란에서 인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거역하고 불신하더라

90. 그대가 우리를 위하여 땅에서 물을 솟게 할 때까지는 그대를 믿지 않으리라[1]) 말하더라

91. 그대가 종려나무와[1]) 포도나무의 정원을 만들어 그 안에 물이 넘쳐 흐르도록 할 때 까지는 그대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

92. 그대의 주장대로 하늘을 산산조각 내어 우리 위에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데려와 대면시키라 하더라[1])

93. 그대가 금으로 장식된 집을 갖거나 그대가 하늘로 승천한다 하여도 읽을 기록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대의 승천을 믿지 않으리라 말하니 일러 가로되 나의 주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나는 인간으로써 한 선지자에 불과함이라

94. 복음이 저들에게 이르렀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방해했던 것은 단지 저들이 말한 이것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선지자로 보냈단 말이뇨

95. 일러 가로되 땅위에 정착하여 평온히 걷는 천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천사를 한 선지자로 저들에게 보냈으리라[1])

96. 일러 가로되 나와 너희 사이에 증인으로써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노라 그분은 그분의 종을 아심과 보살핌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라[1])

97. 하나님이 인도하사 그는 옳은 길을 따르는 자이며[1]) 그분께서 방황케 하사 너회는 그를 위하여 그분 외에 어떤 보호자도 발견치 못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저들이 부활의 날에 장님과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어 고개를 숙여 모이게 하리니 저들의 거주지는 지옥이라 그 불이 약하여 질 때는 불길을 세차게 하리라

98. 이것이 저들을 위한 보상이니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증표를 불신하였기 때문이라 저들이 말하였거늘 뼈만 남아 흙으로 돌아갈 때 진실로 우리가 새로이 부활된단 말이뇨

99.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창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 못하느뇨 저들에게 한정된 기한을 준 것은 의심할 바 없노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거역하고 불신할 뿐이더라

100.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의 보물을 소유한다 하여도 그것이 고갈될까 두려워 사용하지 아니하니 실로 인간은 인색할 뿐이라

101.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백한 아홉 가지의 증표를[1] 주었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으라 그가 저들에게 이르렀을 때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모세여 나는 그대가 마술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라

102. 모세 이르되 하늘과 대지의 주님께서 명백한 증표로 계시한 이것들을 당신은 알고 있나니 파라오여 당신은 실로 멸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3. 파라오는 저들을 그 땅으로부터 추방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두를 익사케 하였노라[1]

104. 그런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1] 거주하라 하였으며 내세의 약속이 이를 때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뒤섞인 군중으로[2] 모이게 하리라

105. 진리 속에서 하나님은 꾸란을 계시했나니 진리로써 그것이 왔노라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복음을 전달하고 경고하도록 함이라[1]

106. 점차적으로 낭송하여 주도록 하기위해 하나님은 그것을 단계적으로 계시하였노라[1]

107. 일러 가로되 너희가 그것을 믿던 또는 믿지 아니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식이 있었던 자들은[1] 그것이[2] 낭송될 때 부복하고 경배하더라

108. 주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실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라

109. 그리고 저들은 엎드려 흐느끼니 저들의 겸손함이 더하여 지더라

110. 일러 가로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구원하라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아름다우시니라[1] 그대가 예배할 때 소리를 높이지 말되 너무 낮추어도 아니되며 그 사이의 중간을 택하라[2]

111.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그분은 자손을 두지 아니하시며 동반자도 두지 아니하시며 어떤 보호자도 필요하지 아니하시니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을 찬미하라

제 18 장
수라트 알카흐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그분의 종에게 성서를 계시한 하나님께[1] 찬미를 드리나니 그 안에는 일점의 왜곡됨도[2] 없노라
2. 그것은 올바른 진리로 이로하여 무서운 벌을 경고하고[1]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보상이[2] 그들의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노라
3.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노라
4.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셨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도 경고하노라[1]
5. 저들에게는 그에 대한 지식이 없고 저들의 조상도 그러했으니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슬프게도 거짓이노라
6. 아마도 그대는 저들이 말씀을[1] 믿지 아니함으로 괴로울 때가 있으리라
7. 실로 하나님은 대지 위의 모든 것을 장식으로 두었을 뿐 이로하여 저들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가를 시험코자 함이라[1]
8.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한 흙으로 만들 것이라[1]
9. 동굴의 백성들과 그 기록에 관한 것을 이상히 생각하느뇨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증표가운데 하나라[1]
10. 보라 젊은이들이 동굴로 은신하여[1] 말하길 주여 저희에게 당신의 자비를[2]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라고 하였더라
11.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도록 하여[1] 수년간 그곳에 있게 하노라
12. 그런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에서 깨우니 이는 두 무리 중[1] 어느 무리가 그들이 지체한 수년간에 대한 계산에 우월한지 알기 위함이라
13. 하나님이 그대에게 진리로서 저들의 이야기를 전하노라[1] 저들은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으니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었노라[2]

14.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였으니[1] 저들이 일어나[2] 말하더라 우리의 주님은 천지의 주님이시니 우리는 결코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리하였다면 우리는 실로 과장된 말을 지꺼렸을 뿐이라[3]

15. 그런데 이 고을의 백성들은 그분 외의 다른 신을[1] 섬겼더라 그런데 왜 저들은 분명한 증표를 대지 못하느뇨[2]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가 누구이뇨

16.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저들을 멀리하려 한다면[1] 동굴로 가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너희의 일이 평안하고 쉽도록 하여 주리라

17. 동굴로부터 오른편으로 기울며 뜨는 태양을 보며 서산에 질 때는 왼편에서 그들로부터 멀리하니 저들은 동굴 속 넓은 곳에 있었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증표라[1] 하나님이 인도한 자는 좋은 길로 인도되나[2]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 자는 그대가 그를 인도할 보호자를 발견치 못하리라

18. 저들이 자고 있으되 너희에게는 저들이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리라 하나님은 저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돌려 놓았으며 저들의 개들이 두 다리의 발톱을 뻗치고 있으매[1] 너희가 저들을 바라볼 때 너희는 분명 저들을 피하여 돌아설 것이며 저들로 인하여 너희는 공포로 가득차리라

19. 하나님이 저들을 잠에서 깨우니 저들이 서로 묻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체류하였느뇨[1] 라고 물으니 저들이 대답하길 우리는 하루 또는 반나절 정도 머물렀을 것이라[2] 다른 이들은 너희 주님만이 너희가 체류한 것을 알 뿐이라 하더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이 금전을 가지고 고을로 보내라 그로 하여금 어느 것이 가장 깨끗한 음식인지 보아 그것을 양식으로 가져오도록 하되 그로 하여금 예의를 갖게하고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의 경우를 알게 해서는 아니되노라

20. 저들이 너희에게 나타나 돌을 던져 너희를 살해하려 하거나 저들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결코 번성치 못하니라

21. 이렇듯[1]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저들의 경우를 알게 하니 이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임과 심판의 날에 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함이라 그럼에도 백성들은 논쟁함이라[2] 저들 중의 무리는 저들 위에 건물을 지으라 저들의 주님께서 저들을 아시리라 말하니 다른 무리는 그곳에 사원을 세워 경배하자 하더라

22. 어떤 무리가 말하더라 저들은 세 명이며 네 번째는 저들의 개라

23. 분명 내가 내일 그것을 행하리라 말하지 말며

24. 하나님의 뜻이라 하되 그대가 잊었을 때는 주님을 염원하라 내가 바라보니 나의 주님께서 이것보다 더 가까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말하라

25. 그리하여 저들은 그 동굴 속에서 삼백 년 하고도 구 년을 더 머물렀더라[1]

26. 일러 가로되 저들이 얼마나 체류하였는가는[1] 하나님 만이 아시노라 그분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지켜보시며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분 외에는 보호자가 없으며 그분의 영역에서 어느 것도 비유될 자 없노라

27. 주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낭송하라 어느 누구도 그분의 말씀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분 외에는 어떤 안식처도 발견치 못하리라

28. 그러므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주님께 강구하는 자들과[1] 함께하되 아름다운 현세의 삶을 원하여 그대의 눈이 그것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을 염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 그의 경우는 모든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

29. 일러 가로되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렀으니 원하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불신하도록 두라 하나님은 그 불신자들을 위하여 연기와 화염이 에워싸는 불지옥을 준비하셨노라 또한 저들이 물을 구하나 저들의 얼굴을 태우게 할 녹은 납과 같은 물이 저들 위에 부어지리니 그 음료수와 거주지는 저주스러운 것이라

30.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보상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

31. 그리하여 에덴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리니 그들의 밑에는 강들이 흐르며 그들은 그 안에서 금팔찌로 장식을 하고[1] 섬세하고 초록색 실크와 능라로 몸을 감고서 높은 권자에 기대노라 얼마나 큰 보상이며 얼마나 안락한 곳이뇨

32. 두 사람의 이야기를[1] 저들에게[2] 설명하라 하셨거늘 저들 중 한 사람에게[3] 두 개의 포도원을 주었으며 그 주변을 종려나무로 에워싸고 그 가운데는 경작지로 하였노라

33. 그 두 정원은 열매로 풍성하고 아무 것도 부족됨이 없었으며 하나님은 그 사이에 강이 흐르도록 하셨노라

34. 그리하여 그는[1]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더라 이때 그가 그의 동료에게[2] 자랑스럽게 말하길 내가 너보다 부유하니 사람 가운데 존경함이 더하고 힘이 더하니라 하였더라[3]

35. 그는 스스로를 욕되게 하면서 과수원으로 들어가 이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1] 하더라

36. 그는 심판의 날이 오리라 생각하지 아니하며 만일 내가 주님께 가더라도 나는 분명히 이곳보다 더 좋은 안식처를 갖게 되리라 하더라

37. 이때 그의 동료가 대꾸하여 말하더라[1] 흙과 정액의 한 방울로 너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느뇨

38.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며 주님께 어느 무엇도 비유하지 않노라

39. 네가 너의 과수원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보다 가난하고 네가 나보다 재산과 자손이 많아 강함을 보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 외에는 권능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 하였느뇨[1]

40. 아마 나의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의 과수원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너의 과수원에는 하늘로부터 우뢰를[1] 보내 광활한 불모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

41. 그곳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 흘러버리나 너는 결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

42. 그리하여 그의 과수원은 몰락하였으니 그는 그곳에 공들였던 것에 관하여 그의 손을 비벼꼬나 그 때는 이미 포도의 시렁이 망한 때이라 이때 그는 하나님 한분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아니 했어야 했었는데 라고 말하더라

43. 하나님 외에는 그를 도와줄 무리가 없었고 또한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었노라

44. 이러한 때의 보호는 하나님밖엔 없노라 그분은 보상을 주시는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벌을 내리는 최고의 권력자이시라

45. 현세의 생활을 비유하여 저들에게 말하라 하셨거늘 그것도 마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니 대지의 식물들이 흡수하나 초목은 시들어져 바람이 그것을 날려 버리는 것과 흡사하거늘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46. 재물과 자손은 현세의 장식에 불과하나 선행은[1]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보상과 가장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47. 하나님이 산들을 움직이는 날 그대는 노출되어진 대지를 보리라 하나님은 저들 모두를 불러 모을 것이며 저들 가운데 아무도 남겨 두지 아니 하리라[1]

48. 그리하여 저들은 주님 앞에 줄지어 서서[1] 하나님이 너회를 최초에 창조했던 것처럼 너회는[2] 노출된대로 하나님에게 오니라 너회는 하나님이 너회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느뇨

49. 저들 앞에 행위의 기록이 제시될 때 이 기록이 도대체 무엇이뇨 작은 일도 큰 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전부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말하는 죄인들을 그대가 보게 되리라 이때 저들은 저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그곳에서 발견하리니 실로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대하시지 아니하시노라

50.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담에게 부복[1] 하라 하였을 때 모두가 부복하였으나 이블리스는 그렇게 아니 했더라 그는 영마의[2] 부류로써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라 그런데 너회는 나 아닌 그와 그의 자손을[3] 보호자로 삼느뇨 그들은 너회의 적이니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51. 내가 천지를 창조함에 저들을 부르지 아니했으며 저들 자신들을 창조함에도 그랬으니 나는 유혹하는 저들의 도움을 필요치 아니 하노라

52.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1] 나에 비유하여 너회가 주장한 나의 동반자들을 부르라 그리하여 저들이 부르더라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저들 사이에 지옥을[2] 두었노라

53. 그리하여 죄인들은 불지옥을 맛볼 것이며 저들은 그 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나 피할 곳을 절대 찾지 못할 것이라

54.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꾸란 속에 모든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인간은 모든 일에 말이 많더라

55. 안내서가 저들에게 이르렀으니 저들이 주님께 회개할 때가 되었노라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을 방해하느뇨 저들에게 선조들의 선례가 일어나거나 재앙이 닥칠 것이라

56.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음은[1] 복음을 전달하고 경고하여 허위로 진리를 거짓하는 불신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라[2] 저들은 나의 말씀과[3] 저들에게 경고한 것들을 조롱하였노라

57. 주님의 징표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하고 그의 손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자보다 사악한 자 누구이뇨 그리하여 하나님

은 저들의 마음을 봉하니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의 귀를 막으니 듣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그대가 저들을 복음으로 인도한다 하여도 저들은 결코 바른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58. 그대의 주님은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나 저들이 얻은 것에 벌을 내리려 하실 때 그분은 서둘러 저들을 벌하시니라 저들은 곧 그분 외에 피난처를 발견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할 것이라

59. 그 고을을 보라[1] 저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멸망시켰노라 하나님은 저들을 멸망하게 할 시간을 정하셨노라

60. 모세가 그의 추종자에게[1] 두 바다가 만나는 교차점에[2] 이를 때까지 발거름을 멈추지 아니 할 것이며 긴 세월동안 여행을 계속하리라 말하더라[3]

61. 그리하여 두 사람이[1] 교차점에 도달했을 때 저들은 물고기를 잊었으며 그때 물고기는 재빠르게 바다속으로 사라졌노라[2]

62. 저들이 그곳을[1] 지났을 때[2] 모세가 그의 추종자에게 조반을 가져오라 여행으로 피곤하니라 말하니

63. 이때 그가[1] 대답하였더라 우리가 반석위로 은신했을 때 제가 그 물고기를 잊었던 일을 생각합니까 사탄이 저로 하여금 당신께 상기시킴을 망각케하여 그 물고기는 신비스럽게 바다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64. 이에 모세가 말하길 그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곳이라 그리고 그 둘은 그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 갔더라

65.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지식을[1] 가르쳐 준 한 종을[2] 발견했노라

66. 그리하여 모세가 그에게 이르길 당신의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1] 제가 당신을 따라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67. 키드르가 대답하였더라 당신은 나와 함께 인내하지 못할 것이요

68.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인내하리요 라고 하니

69.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내하고 내가 당신을 거역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리요

70. 그가[1] 말하길 당신이 그리하라 만일 그대가 나를 따르겠다면 내가 당신에게 설명할 때 까지 아무것도 묻지 마시요 라고 하더라

71. 그리하여 그 둘은 출발한지 얼마 안되어 배에 올랐는데[1] 그가[2] 배에 구멍을 뚫었노라 이때 모세가 묻기를 당신은 그 배의 동료들을 익사하도록 하려 함이뇨[3] 실로 당신은 이상한 일을 하

십니다 라고 하자

72. 그가[1] 말하길 당신은 나와 함께 인내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하지 아니했소 라고 하매

73. 모세가 말하였더라 제가 잊었습니다 나무라지 마옵소서 그리고 저의 잘못으로 저를 힘들게 마소서

74. 그런 후 그들 둘이는 계속하여 가다가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가[1] 그를 살해하였더라 이때 모세가 말하길 당신은 죄없는 사람을 살해하였으니 실로 당신은 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75. 그가[1] 대답하길 당신은 나와 함께 인내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하지 아니했소 라고 하매

76. 모세가 이르되 만일 제가 이 후에도 어떤 것에 관하여 당신께 묻는다면 저를 데리고 가지 마시요 저는 당신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였더라

77. 그리하여 두 사람은 여행을 계속 하는 중 한 마을에 이르러 주민에게 먹을 것을 구하나 그들은 그 두 사람을 손님으로 접대하기를 거절하더라 둘은 막 넘어질려는 담을 보고 키드르가 그것을 고쳐세우니[1] 모세가 이르길[2] 당신이 원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3] 받았을 것이요 라고 하니

78. 그가[1] 대답하길 이제 당신과 제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소 내가 당신이 인내할 수 없었던 것을 해명하여 주리요

79. 그 배로 말하자면 그것은 바다에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으로 내가 그 배에 구멍을 내려했던 것은 저들 뒤에 모든 배들을 강제로 빼앗는 한 왕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80. 그 소년으로 말하자면[1] 그의 부모는 믿는 사람들이었으나 믿지 아니한 그가[2] 부모에게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신하지 않을까 두려워 했기 때문이라

81. 우리가 그 소년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그 소년의 부모를 위해 주님께서 그의 자리에 그 보다 순수하고 효도하는 자로 대체하길 원했기 때문이며

82. 그 담벽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그 고을 두 고아의 소년의 것이었는데 그 밑에는 그 둘을 위한 보물이 있었으니 그의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들이 성년에 이를 때 주님의 은혜로 그 보물을 꺼내도록 원하셨노라 이것이 당신께서 인내할 수 없었던 일의[1] 내막이라 하였더라

83. 저들이[1] 그대에게 줄까르나인[2] 왕에 관하여 질문하리니 일러

가로되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 하리라

84. 실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상에 정착하게 하사[1] 모든 것에 이르는 수단을 그에게 부여하였노라

85. 그리하여 그는 그 길을 따라갔노라

86. 태양이 지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것이 검은 바다로[1] 지는 것을 보았으며 또 그 주변에서 한 무리의 백성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줄까르나인이여 저들을 벌하든지 아니면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87. 그가[1] 대답하길 사악한 자에게는[2]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주님께로 데려가겠으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더 가혹한 벌을[3] 내리실 것이요 라고 하더라

88.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고귀한 보상이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는[1] 그의 일을 편하게 하여 주리라[2]

89. 그런 후 그는 또 다른 길로[1] 따라 갔노라

90. 해뜨는 곳에 도착하여 그는 그곳에서 햇빛을 가리는 의복도 없이 자연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더라

91. 실로 그러하노라 하나님은 줄까라나인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셨노라[1]

92. 그런 후 그는 또 다른 길을[1] 따라갔노라

93. 두 산봉우리에 도착하여[1] 한 마디 말도 이해 못하는 한 무리를 만났더라[2]

94. 저들이 말하길 줄까리나인이여 고그와 마고그[1] 부족이 이 땅을 해치고 있습니다 당신께 재물을 드리오니 저희와 그들 사이를 요새로 보호하여 주소서 라고 구원하더라[2]

95. 이때 그가 말하길 주께서 내게 주신 힘은 재물보다 더 훌륭하노라 그러므로 힘으로[1] 도우라 내가 너희들과 그들 사이에 방벽을 만들어 주리라

96. 내게 쇠붙이를 가져오라 저들이 쇳덩이를 가져오자 그는 두 산 사이의 공간을 채운다음 풀무질을 하라고 하더라 그것이 빨갛게 달구어지니 그 위에 부을 수 있도록 녹은 구리를 가져오라 하더라

97. 그래서 고그와 마고그는 둥성이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곳을 파헤치지도 못하더라

98. 줄까르나인이 말하길 이것이 내 주님의 자비시라 주님의 약속이 임하였을 때는 그것을 먼지로 만들어버리니 주님의 약속은 진리라

99. 그날 하나님은 저들 서로가 파도와 같이 서로 격돌시킬 것이며 트럼펫이 울리면[1]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모이게 하리라[2]

100. 그 날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것이라

101. 이때 불신자들의 눈들은 하나님의 증표를 볼 수 없도록 가리워지며 듣지도 못하노라

102. 불신자들은 나의 종을 보호자로 택하려 생각하느뇨[1]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주거지로서 지옥을 마련하였노라

103. 일러 가로되 하나님이 저들의 행위로 손실이 가장 큰 자를 너희에게 일러주리요

104.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선행이라 생각하면서[1] 현세의 삶에만 매달리노라

105. 저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만남을 부정하는 자들이니[1] 저들의 일들은 무용지물로 끝날 것이라 심판의 날 하나님은 저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으리라

106. 지옥이 저들을 위한 보상이라 이것은 저들이 믿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107.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가장 높은 천국을[1] 가질 것이라

108. 그리하여 그곳에서 영생하니 그들은 아무런 변화를 바라지 않노라

109. 일러 가로되 바다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잉크[1]라 한다해도 주님의 말씀이 다하기 전에 그 바다는 말라 버릴 것이며 만일 하나님이 바다 하나를 더한다 하여도 그러하리라

110. 일러 가로되 실로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한 인간이라 단지 신은 단 한 분 뿐이라는 계시가 내게 내려졌노라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는 어느 무엇과도 비유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제 19 장
수라트 마르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카프 하 야 아인 솨드[1]
2.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 자카리아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관한 언급이라[1]
3. 보라 자카리아가 은밀히[1] 그의 주님을 부르더라
4. 그가 말하길[1] 주여 저의 뼈들은 허약하여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나이다 저는 주님께 기도하여 축복받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2]
5. 내 후에 올 내 친척들이 행할 것이 두렵나이다 제 아내가 불임이오니 당신께서 한 상속인을 주옵소서[1]
6. 그리하여 저의 대를 잇고 야곱의 가계를 잇게하여 주소서 주여 그를 당신께서 만족하시는 자로 하여 주소서[1]
7. 자카리아여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의 소식을 주리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1] 그 이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했던 이름이니라[2]
8. 이때 그가 말하길 주여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의 아내는 불임이며 저는 이미 노쇠하였습니다 하더라[1]
9. 그분께서 이르시길 그렇게 되리라 너의 주님이 말씀하사 그것은 내게 쉬운 일이니라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너를 창조하지 아니했더뇨
10. 그가[1] 주여 제게 그 예증을[2] 주옵소서 라고 말하니 주님께서 이르시길 그 증표로 네가 건전하면서도 삼일 동안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리라[3]
11. 그러자 그는[1] 기도실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저들에게 손짓으로[2] 말하더라
12. 요한이여 이 성서를 단단히 지키라[1] 하나님은 그가 어렸을 때 그에게 지혜를 주었노라[2]
13.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은총을 받았으니 경건하였더라

14. 그는 부모에게도 효도하며 거만하지 않고 오만하지도 않았느니라

15. 그가 탄생한 날과 그가 임종하는 날과 그가 부활하는 날에 그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1)]

16. 성서에 있는 그대로 마리아에[1)] 관하여 이야기하라 그녀가 가족을 두고 동쪽 어느 곳으로[2)] 떠났던 얘기이니라

17. 사람들이 보지 아니 하도록 그녀가 얼굴을 가리웠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천사를[1)] 보내자 천사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났더라

18. 이때 그녀가 말하길 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구원하나이다 실로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저를 해치지 마소서

19. 그가 말하길[1)] 실로 나는 당신 주님의 사자로써 성스러운 아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하니

20. 그녀가 말하길 어느 남자도 저를 접촉하지 아니했고 또한 부정을 저지르지도 아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21. 이에 그가 말하길 그렇게 되리라[1)] 당신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내게 쉬운 일이라 그로하여금 백성을 위한 증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이미 그렇게 명령하셨노라

22. 그렇게하여 그녀는 잉태하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1)] 옮겨갔더라

23. 출산의 진통이 심하여 그녀는 종려나무 줄기에 기대고 말하길 이전에 죽어버렸다면 조용히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데

24. 그때 종려나무 밑에서 천사가 그녀를 부르더니 슬퍼하지 말라 네 주님께서 네 밑에 흐르는 냇물을 두셨노라[1)]

25. 종려나무 줄기를 네가 있는 쪽으로 흔들어라 그러면 잘 익은 열매가 너에게로 떨어지리니[1)]

26. 먹고 마시어[1)]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2)] 그리고 네가 사람을 만나거든[3)] 저는 하나님에게 단식할 것을 맹세하였으매 오늘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여라

27. 얼마 후 그녀가 아들을 안고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니 마리아여 너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라고 조롱하더라[1)]

28. 아론의 자매여 너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네 어머니도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노라[1)]

29. 그러자 그녀는 아기를 가르키더라[1)] 이때 모두가 요람 안에 있는 아기와 어떻게 말을 하란 말이뇨 라고 말하더라

30. 아기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께서 내게 성서를 주시고 나를 예언자로 택하셨습니다

31. 내가 어디에 있던 저를 축복받은 자로 하셨고 내가 살아 있는 한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2. 나의 모친에게 효도하라 하셨고 나로 하여금 거만하지 아니하고 불행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33. 내가 탄생한 날과 내가 임종 하는 날과 내가 살아서 부활하는 날에 나에게 평화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34. 그것이[1]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은 저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라

35.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두실 필요가 없노라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실 때 말씀을 내리시니 있어라 그러면 있느니라

36. 예수가 말하길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요 너희 주님이시니 그분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1]

37. 그런데 저들 가운데 무리들이 의견을 달리하니[1] 위대한 심판의 날 불신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38. 저들이 하나님에게로 오는 날 저들은 분명히 듣고 또 볼 것이라 그러나 오늘의 어리석은 자들은 분명히 방황하게 되리라

39. 저들에게 고통의 날을 경고하라 저들이 믿음을 게을리 할 때 일은 결정되어지노라[1]

40. 진실로 하나님은 대지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하나니 저들 모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니라

41. 성서에 언급된 아브라함은 진실한 예언자였음을 상기시키라[1]

42. 그가[1] 그의 아버지께 말하길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당신께 효용도 없는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43. 아버지에게 없는 지식이 저에게 이르렀나니 저를 따르십시요 제가 아버지를 바른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44. 아버지 사탄을 섬기지 마십시오 실로 사탄은 하나님[1]을 배반하였습니다

45.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사탄의 친구가 될까 두렵습니다

46. 이때 아버지께서 대답하사[1]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신들을 싫어

하느뇨 네가 단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돌로 때릴 것이라 그리고 나로부터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하리라

47. 아브라함이 말하길 아버지 평안하소서 아버지를 위해 주님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48. 저는 아버지와 하나님 외에 아버지가 숭배하는 사신들을 떠나겠습니다[1]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도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49.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저들을 버리고 떠났을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어[1] 그들로 하여 예언자가 되게 하였노라

50.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1] 진실의 말씀으로 그들을 높였노라

51. 성서에 언급된 대로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는 선택받은 예언자이며 선지자이었노라[1]

52.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 우편에서 신비의 얘기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불렀노라

53.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1] 은혜를 베푸사 그의 형제 아론을 예언자로 두었노라

54. 성서에 언급된 대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는 약속을 지키는 충실한 자로 예언자이며 선지자이었노라[1]

55. 그는[1] 그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2] 바치라고 촉구하였으며 주님께서는 그로하여 기뻐하셨노라

56. 성서에 언급된 대로 이드리스의 이야기를[1] 들려주라 그는 진실한 예언자이었노라

57.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높은 위치에[1] 두셨노라

58. 이들은[1]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예언자들이라 그 중에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오른 자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자손이 있으며 그 중에는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한 자가 있으며 선택한 자가 있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들은 부복하고 경배하여 눈물을 흘렸노라[2]

59. 그런데 그들의 후손 중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욕정을 추구한 자들이 있었으니 저들은 멸망할 것이라

60. 그러나 회개하여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는 제외되어 천국

에 들어갈 것이며 조금도 그릇되지 않으리라

61.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는 에덴의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니라

62. 그들은 그 안에서 잡담이 아닌 평안의 인사를[1] 들으며 그 안에서 조석으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만끽하니라

63. 그것은 악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상속하여 준 천국이라

64. 천사가 말하길[1]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내려갈 수 없노라 우리 앞에 있는 것이나 우리 뒤에 있는 것이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노라 그대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노라

65. 천지에 있는 것과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주님의 것이거늘 그분을 섬김에 있어 그분과 동등한 다른 것을 알고 있느뇨

66.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말하길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매[1]

67. 인간이 존재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간은 망각하고 있느뇨[1]

68. 하나님이 저들과[1] 사탄들을 불러모아 무릎을 꿇도록 하여 지옥의 주변으로[2] 모이게 하리라

69. 그리고 하나님은 각 무리마다 하나님에 대해 제일 오만했던 자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70. 하나님은 그곳에서 누가 불에 타야할 자인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니라

71. 너희 가운데[1] 거기에 이르지 아니할 자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단호한 결정이시라

72.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경계하는 자들은 구제할 것이되 사악한 자들은 그 안에서 무릎을 꿇게 하리라

73.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1] 그들에게 낭송될 때 불신자들은 가난한 신앙인들에게 어느 쪽이 지위가 더 나으며 살기에 더 좋은가 라고 말하더라

74.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이전에 더 부유하고 보기좋은 장비를 가진 세대들을 멸망시켰노라

75. 일러 가로되 미혹에 빠진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유예하시니 저들로 하여금 약속된 벌과 내세에 갔을 때 어느 쪽이

더 나쁜 곳이며 어느 쪽이 더 약한 군대인가를 알도록 하리라

76.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가는 자들에게 인도함을 더하시며 선행의 일들은 주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리라

77.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재산과 자손이 주어질 것이라 말하는 자를[1] 그대는 보았느뇨

78. 그는 보이지 않는 지식을 얻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이라도 하였단 말이뇨

79. 결코 그렇지 않노라 하나님은 그가 말하는 것을 기록할 것이며 그에게 벌을 더하리라

80.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될 것이라[1]

81. 저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숭배하여 그것으로 힘과 영광을 얻으려 하나

82. 결코 그렇지 되지 않으리라 저들은 저들의 우상을 불신하게 되고 저들에게 적이 되리라

83. 그대는 모르는가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사탄들을 보내어 저들을 화나게 했노라

84. 그러므로 저들에 대항하여 서둘지 말라 하나님은 저들의 날자를 헤아리고 있노라

85. 그 날에 하나님은 악을 경계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영광을 줄 것이라

86. 그러나 죄인들은 지옥으로 안내하니 목마른 가축처럼 쓰러질 것이라

87. 하나님의[1] 약속[2]을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중재하지 못하니라

88. 하나님께서 자손을 두셨다고 말하는 자들이[1] 있더라

89. 실로 저들은 불결한 주장을 하노라

90. 그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대지가 갈라지며 산들은 산산조각이 될 것이라

91. 이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두었다고 불결한 말을 했기 때문이라

92. 하나님은 자손을 두실 필요가 없노라

93. 천지의 모든 것이 종으로써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이라

94. 진실로 하나님은 저들을 알고 계시며 또한 저들을 헤아리고 계시니라

95. 저들 각자는 심판의 날 모두가 그분에게로 오니라

96.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노라

97.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논쟁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경고하기 위해 꾸란을 그대의 언어로[1] 쉽게 했노라

98. 저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세대를 멸망시켰노라 그대는 그 중 한 가지라도 발견할 수 있으며 저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느뇨

제 20 장
수라트 따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따 하[1]
2. 하나님이 그대에게 꾸란을 계시함은 그것으로 하여 그대를 고생되게 하려함이 아니라[1]
3.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 되게 했노라[1]
4. 그것은 대지와 높은 하늘을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5. 하나님은 권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
6.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사이에 있는 것과 대지 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노라
7. 그대가 큰 소리로 말하던 또는 그렇지 아니하던 실로 하나님은 모든 비밀과 숨겨진 모든 것도 아시노라
8.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니라[1]
9. 모세의 얘기가 그대에게 이르렀느뇨[1]
10. 보라 그가 불을 보고서 그의 가족에게[1] 말하길 기다리라 내가 불을 분명히 보았으니 불덩이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 길로 안내하는 어떤 안내자를 발견하리라[2]
11. 그가 거기에 갔을 때 모세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1]
12. 실로 내가 너의 주님이거늘 너의 신을 벗으라[1] 너는 성역인 뚜와 계곡에[2] 와 있노라
13.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1] 계시되는 것에 경청하라
14. 실로 내가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만을 생각하라
15. 실로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나 내가 그것을 숨기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가 노력한 대로 보상을 받도록 함이라

16.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너를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하리니 이는 네가 멸망치 아니하도록 함이라
17. 모세여 네 오른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뇨
18. 그가 대답하길 그것은 제 지팡이입니다 제가 그것에 기대고 그것으로 나무 잎들을 때려서 양을 먹이며 그 안에서 다른 유용함을 찾나이다 라고 하니
19.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야 그것을 던져라 하시매
20. 그가 그것을 던지니 한 마리의 뱀이되어 재빨리 기어가더라
21.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야 그것을 쥐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1]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 주리라[2]
22. 그대의 오른손을 너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으라 아무런 손상이 없이 하얐게 나오리니 이는 또 다른 증표이니라[1]
23. 이렇게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증표를 보이려 함이라
24. 파라오에게 가라 그는 실로 모든 한계를 넘어선 오만한 자라
25. 이때 모세가 말하길 주여 저를 위해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소서
26.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1] 쉽게 하여 주소서
27. 저의 혀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조서[1]
28. 그리하여 저들이 나의 말을 이해하도록 하여 주소서
29. 저의 가족 중의 한 사람이[1] 저를 돕도록 하여 주소서
30. 아론은 저의 형제입니다
31. 그로 하여금 저를 강하게 하고
32. 그가[1] 저의 일에 함께 하도록 하여 주소서
33. 저희는 당신을 크게 찬미하고
34. 저희가 당신을 크게 염원하고자 하옵니다
35. 실로 당신은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나이다
36.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모세야 너의 요구가[1] 이루어졌노라
37. 하나님은 다른 때에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노라
38. 보라 너의 어머니에게 너의 생애에 대하여 영감으로서 계시를 보냈노라[1]

39. 아이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던져라 그 강이 그 애를 강 언덕으로 올릴 것이니 나의 적이며 또 그의 적인 자가[1] 그 아이를 데리고 가리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었으니 이는 네가 나의 안에서 양육되도록 하였노라[2]

40. 보라 너의 누이가 와 말하길 제가 이 아이를 양육할 한 사람을 안내하여 드릴까요[1] 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를 너의 어머니께로 보내니 그녀의 눈은 평안을 찾고 슬퍼하지 않더라 네가 그 때에 한 사람을 살해하였으나[2] 하나님은 너를 큰 재앙으로부터 구하고 너를 시험으로부터 구하였노라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서 수년 동안 머물다가 명령에 따라 모세 네가 여기에 왔노라[3]

41.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이는 나를 위함이라

42. 너와 네 형제가 나의 징표를[1]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에 대한 염원을 게을리 하지 말라

43. 너희 둘 모두 파라오에게로 가라 그는 실로 한계를 넘어선 오만한 자라[1]

44. 그러나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라 아마도 그는 경각심을 갖거나 하나님을 두려워 할 수도 있느니라

45. 그 둘이[1] 말하길 주여 저희는 실로 그가 서둘러 저희를 해치지 않을까 또는 포악한 짓을 하지 않을까 두렵나이다

46. 이에 하나님께서 말하길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듣고 그리고 보고 있노라

47. 그러니 너희 둘은 그에게 가서 말하라 우리는 주님이 보낸 선지자라 그러니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되 그들을 괴롭히지[1] 말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징표를 가져 왔노라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

48. 불신하고 등을 돌리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가 있었노라

49. 이때 파라오가 말하길 모세야 너희의 주님은 누구이뇨

50. 모세가 대답하길 우리의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각에게 기능을 주신 분이시라

51. 이때 파라오가 말하길 그럼 이전 세대들의 운명은 어떠 했느뇨

52. 모세가 말하길 그에 대한 지식은 나의 주님께 있노라 나의 주님은 실수 하시거나 잊지 아니 하시노라

53.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위해 대지를 요람으로 만드셨으며 그 안에 길을 주시었노라 또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그것으로 하여 여러가지 초목을 싹트게 하셨노라

54.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섭취하고 그리고 너회들의 가축도 먹이라 실로 지혜가 있는 자를 위한 증표가 그 안에 있노라

55. 하나님은 너회를 땅의 흙으로 빚으셨고 다시 그곳으로 너회를 돌려 보내며 그곳으로부터 너회가 부활하니라

56.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모든 증표를[1] 보여 주었으나 그는 거역하고 배반하였더라

57. 파라오가 말하길 모세야 너는 너의 마술로써 우리의 땅에서[1] 우리를 추방하려 왔느뇨

58.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술을 보이겠노라 그러니 우리도 그리고 너도 위반하지 않을 약속과 장소를 정하자고 하더라

59. 모세가 말하길 당신의 약속은 축제의 날로 하되 태양이 솟은 후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요

60. 그러자 파라오는 잠시 물러가 술책을 꾸민 후 다시 나타났더라[1]

61. 모세가 말하길 너회들에게 재앙이 있을지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재앙으로 너회를 멸망케 하시니 거짓말 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62. 그러나 저들은 서로간에 저들의 일을 논쟁하며 그것을 비밀로 하더라

63. 저들이 말하길 이 두 사람은 마술사로 너회를 너회 땅으로 부터[1] 마술로써 추방하고 너회들의 훌륭한 전통을[2] 파괴하려 하노라

64. 그럼으로 너회들의 계획을 의논하여 오라 오늘을 압도한 자가 승리자가 되리라

65. 이때 저들이[1] 말하길 모세야 네가 먼저 던지겠는가 또는 우리가 먼저 던질까 라고 하니

66. 모세가 말하길 너회가 먼저 던지라 그 때 저들의 밧줄과 지팡이가 저들의 요술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1]

67. 그때 모세는 그의 마음에 불안함을 느꼈더라

68. 하나님이 말하길 두려워 하지 말라 실로 네가 위에 있노라

69. 너의 오른손에 있는 것을 던져라 그것이 재빨리 저들의 요술과 마술의 술책이 꾸미는 것을 삼켜버릴 것이요 마술사는 그가 어

디를 가던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70. 그러자 마술사들이 부복하면서 저희는 아론과 모세의 주님을 믿나이다 하더라

71. 이때 파라오가 말하길 너희는 내가 허락하기 전에 그를 믿었느뇨 그는 바로 너희에게 마술을 가르쳐준 자 이거늘 나는 너희의 손들과 발들을 엇갈리게 잘라 종려나무가지에 걸어 놓으리라 이때 너희는 우리 가운데 어느 편이 보다 심하고 오랜 벌을 내리게 되는지 알게 되리라 하니

72. 저들이 말하더라 우리는 당신보다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좋아 하나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당신은 실로 현세의 생활만을 결정할 수 밖엔 없으리요

73. 실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은 우리의 죄와 당신이 강제로 시킨 요술 행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분이시오 영원한 분이십니다

74. 실로 죄인이 되어 당신 주님께 온 자를 위해 지옥이 있나니 그는 그 안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살지도 못하니라

75. 그러나 선을 행하고 믿는 자로서 당신께 오는 자를 위해서는 최고의 월계관이 있노라

76. 아래에 물이 흐르는 에덴의 천국이 있어 그 안에서 영생하리니 이것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한 자에 대한 보상이라

77.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였나니 나의 종들을 데리고 밤중에 떠날 것이며[1] 그들을[2] 위해 바다에 마른 길을 내어라 그리고 추격을 당할까[3] 두려워 하지 말며 익사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노라

78. 이때 파라오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으나 바다가 저들을 완전히 덮쳐 삼켜버렸노라

79. 이렇듯 파라오는 그의 백성을 방황케 했을뿐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노라

80.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하나님이 적으로부터 너희를 구하고 시나이 계곡 오른편에서 너희에게 약속을 하셨으며[1] 너희에게 만나와 쌀와를[2] 주었노라

81.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양식 중에서 좋은 것을[1] 일용할 양식으로 섭취하되 낭비하지 말라 이는 나의 노여움이 너희에게 내려지지 않기 위함이요 나의 노여움을 받은 자는 누구든 멸망하노라

82. 실로 내가 관용을 베풀거늘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노라 그는 바른 길로 인도 받으리라

83. 모세야[1] 무엇이 너로 하여금 너의 백성에 앞서 서둘도록 하였느뇨[2]

84. 이때 그가 대답하길 저들이 제 뒤에 오나이다 제가 당신께 서둘러 온 것은 당신을 기쁘게 하고자 했습니다[1]

85. 하나님이 말씀하길 네가 없는 동안에 우리가 너의 백성을 시험하였으니 사미리 사람들이 저들을 방황케 하였노라[1]

86. 그러자 모세는 크게 화를 내고 슬퍼하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와[1] 말하길 백성들이여 주님께서 좋은 약속을[2] 하지 않했더뇨 그 약속이 너희에게 오래된 것 같이 보였더뇨 아니면 주님의 화가 너희에게 내려지기를 원했느뇨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깨뜨렸노라[3]

87. 저들이 대답하길 우리가 당신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지 아니 했나이다 우리는 파라오 백성들의 무거운 장식품들을[1]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사미리인들의 제안이었습니다[2]

88. 그리하여 사미리 사람이[1] 저들을 위해 송아지[2] 한 마리를 만들어 바람을 불어넣으니 소의 울음소리[3] 같더라 그리고 말하길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며 모세의 신이었는데 그가[4] 잊었노라

89. 그러나 송아지는 저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못하며 저들을 해롭히거나 이롭게 할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90. 이전에[1] 이미 아론이[2] 앞에서 저들에게 말하길 백성들이여 실로 너희가 그것으로[3] 시험을 받았노라 너희의 주님은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라[4]

91. 그러자 저들이 말하길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그것을 숭배할 것이라

92. 모세가 말하길 아론이여 방황하는 저들을 보고서 무엇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느뇨[1]

93. 너는 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명령을[1] 거역했느뇨

94. 이때 아론이 대답하길[1] 내 어머니의 아들이여 나의 수염과 나의 머리카락을 붙잡지 마소서[2] 나는 실로 당신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분열시켰고 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말할까 두렵나이다

95. 모세가 사미리에게 말하길 너의 목적은 무엇이뇨
96. 사미리가 대답하길 저는 저들이 보지 못한 천사를 보고 그 천사의 발밑에서 한 줌의 흙을 집어 송아지에게 던졌습니다 제 영혼이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97. 모세가 사미리에게 말하길 물러가라 그대는 평생동안 내게 손대지 말라고 말할 것이라[1] 어김없는 약속이[2] 네게 올 것이라 네가 숭배했던 너의 신을[3] 보라 하나님이 그것을 화염속에 불태워 바다에 산산히 뿌릴 것이라
98. 그러나 너희의 신은 하나님 뿐이거늘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1]
99. 이렇게 하나님은 그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1] 들려주었고 메시지도[2] 주었노라
100. 이로부터[1] 등을 돌리는 자는 누구든 심판의 날에 무거운 짐을 질 것이며
101. 저들은 부활의 그 날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것이라
102. 나팔이[1] 울리는 그 날 하나님은 죄지어 두려움으로 가득 찬 푸른 눈을 가진 죄인들을 불러 모으리라
103. 저들은 낮은 소리로 너희는 열흘 정도 밖에 체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더라
104. 하나님은 저들이 말하는 것을 알고 계시노라 그때 저들 중에 약삭빠른 자가 너희는 겨우 하루 머물렀을 뿐입니다 하더라
105. 저들이 그 산들에 관하여[1] 묻거든 일러 가로되 나의 주님께서 그것들을 조각으로 부수어 먼지로 흩어지게 하시니라
106.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평지로 남겨둘 것이라
107. 그대는 그 안에서 낮은 곳도 높은 곳도 보지 못하리라
108. 그 날 사람들은 하나님의[1] 부름을 받아 똑바로 따라갈 것이며 모든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여지매 저들이 조용히 발딛는 소리만 들릴 뿐이라[2]
109. 그 날에는 어떤 중재도 효용이 없으되 하나님이 허락한 자는 제외라 그분은 그의 말을 들어주시니라
110. 하나님은 저들 이전에 있었던 것과 저들 이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 저들은 그분에 관하여 지식이 없노라
111. 모든 얼굴들이[1]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지며 불신

했던 자는 실로 절망하니라[2]

112.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는 절망도 손실도 염려하지 않노라

113. 하나님은 아랍어로 꾸란을 계시하였고 그 안에 여러 가지로 경고를 했으니 이로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공경하도록 하였노라

114.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왕이요 진리이시니 그분의 말씀이 종료될 때까지 꾸란의 계시를 서둘지 말고[1] 주여 저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라

115. 오래 전에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나[1] 아담은 그 약속을 잊었더라 그러나 그에게서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했노라[2]

116. 그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복하라고[1] 천사들에게 말했을 때 모두가 그렇게 하였으나 이블리스는 거역했더라

117.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길 아담아 이것이[1] 바로 너와 네 아내의[2] 적이라 그가 너희를 유혹하여 천국에서 쫓아내 너희를 불행하게 하려 하노라[3]

118. 그곳에서 너희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헐벗지 않으리라

119. 그곳에는 갈증도 없으며 뜨거운 열사도 없노라

120. 그러나 사탄이 유혹하길 아담아 내가 당신을 영생의 나무와 불멸의 왕국으로 안내하여 주리요 라고 속삭이더라

121. 그렇게 하여 그 둘이[1] 그것을[2] 먹으매 그들의 벌거벗음이[3]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러자 그들은 천국의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시작했고 아담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방황하게 되었더라

122.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자비로 그를 택하사 그는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노라

123. 그분께서 너희 모두는[1] 여기서[2] 나가라 너희 중 일부는 서로가 적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3] 보낼 것이라 나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불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124.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에[1] 등을 돌리는 자는 누구나 궁핍할 것이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를 장님으로 만들어 부활하게 할 것이라

125. 그때 불신자가 말하길 주여 왜 저를 장님으로 부르셨나이까 저는 시력이 있었나이다

126. 그분께서 말씀하사 우리가 너에게 증표를 보냈으나 너는 그것을 무시했으니 오늘은 네가 무시 당하리라

127. 하나님은 방탕한 자와 주님의 계시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 보상하노라 실로 내세의 응벌은 한층 심하고 계속되니라

128. 하나님께서 저들을[1] 위한 증표로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망케 하셨더뇨 저들이 지금 그 거주지에서[2] 살고 있지 않더뇨 그 안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증표들이 있노라

129. 저들을 벌하는 시기와 기간을 유예하는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미 벌이 저들에게 있었을 것이라

130. 그러므로 그대는 저들이[1] 말하는 것에 인내하며 태양이 뜨고[2] 지기 전에[3] 또 밤에[4] 그대의 주님을 찬양하라 낮에도[5] 그분을 찬미하라 그대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

131. 하나님이 저들 중 일부에게 준 현세의 영화에 눈을 돌리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저들을 시험하시노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가장 좋은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

132. 그대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 인내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양식을 베푸시노라 내세의 열매는 경건한 자를 위한 것이니라

133. 저들이 말하길 그는[1] 왜 우리에게 그의 주님으로부터 증표를 보이지 않느뇨 라고 하나 이전의 성서에서 저들에게 증표가 이르지 아니하였더뇨[2]

134. 만일 하나님이 저들을 징벌로 멸망시켰다면 저들은 틀림없이 말하길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저희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면 저희는 분명히 불명예와 수치를 갖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135. 일러 가로되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나니 너희도 기다리라 누가 옳은 길을 걷고 있으며 올바른 길로 인도되는가를 곧 알게 되리라

제 21 장
수라트 알안비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저들에 대한 계산이[1] 가까왔으나 저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있노라[2]
2. 저들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1] 이를 때 마다 그것을[2] 듣고 조롱하노라
3. 저들의 마음은 경박하고[1] 죄지은 자들은[2] 자신들의 밀담을 숨기며 이 사람은[3] 너희와 같은 인간이 아니뇨[4] 너희는 요술을 보면서 그를 따르느뇨[5]
4. 그대여 말하라[1] 나의 주님은 천지에서 속삭이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2]
5. 보라 저들이 말하기를 그것은[1] 꿈의 착란에서 온 것으로 그가[2] 날조한 것이며 그는 또한 시인이라 그렇다면 예언자들이 선조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증표를[3] 보이라고 하더라
6. 하나님이 멸망시킨 고을의 어느 백성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저들이라고 믿겠느뇨
7. 하나님께서 그대 이전에 계시를 내린 선지자들도 인간이었거늘[1] 백성들이여[2]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메시지를 아는 자들에게[3] 물어보라
8. 하나님은 그들에게[1] 아무런 음식도 섭취하지 않고[2]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을 주지 않았느니라
9. 그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사 그분이 원했던 대로 그들을 구하고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켰노라[1]
10.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너희를 위한 말씀으로 한 성서를 보냈으되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뇨[1]
11. 하나님이 죄지은 백성을[1] 얼마나 많이 멸망시켰으며 그 후에 얼마나 많은 다른 민족을 세웠더뇨
12. 저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알자 그 때 저들은 서둘러 도망했노라[1]

13. 도주하려 말고 너회에게 주어졌던 현세의 기쁨과 너회의 주거지로 돌아오라 아마도 너회는 심문을 받으리라

14. 이때 저들이 말하길 슬프도다 실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1] 라고 하매

15. 하나님이 저들을 낫으로 베어논 사멸한 식물처럼 만들 때까지 저들의 그 절규는 그치지 아니하더라

16.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장난이 아니라

17. 하나님이 향락을[1] 누리고자 원했더라면 그분의 것으로 그렇게 하셨으리라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18.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시고 허위에 대항하여 진리인 꾸란을 보내니 진리가 허위를 파괴하더라 이때 위선은 망하고 너회가 묘사한 것에[1] 재앙이 있느니라

19.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며 그분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함에 거만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더라

20. 천사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더라

21. 저들은 죽은 자를 살게할 수 있는 지상의 신을 선택했단 말이뇨

22. 만일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하늘과 땅은 모두 붕괴하였으리라 옥좌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저들이 묘사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라

23.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질문을 받지 아니하나 저들이 행한 것은 심문을 받느니라

24. 저들은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느뇨 일러 가로되 증거를 가져오라 꾸란은 나와 함께 한 메시지요[1] 내 이전에 있었던 자들을 위한 메시지라[2] 그러나 저들 대다수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등을 돌리더라

25. 그대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어 계시를 내릴 때도 나 외에는 신이 없었나니 나만을 경배하라 하였노라

26. 하나님께서 자식을 두셨다고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노라[1]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받으소서 저들이 말하는 그들은[2] 존경받은 종들이라

27.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 이전에 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

28. 하나님은 저들 앞에 있는 모든 것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를[1] 제외하고는 중재 하지 아니하니 천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노라

29. 천사들 중에[1]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이 신이라 말하는자 있다 면 하나님은 그를 지옥으로 보상하며 죄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보상하느니라

30. 불신자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였음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하 늘과 땅을 분리하고[1] 물을 모든 생명체의 근본으로 두셨으나 저들은 믿지 아니하려 하노라[2]

31. 하나님은 대지 위에 산들을 고정시켰으니 산들이 흔들리지 못 하도록 함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 넓은 도로를 두어 사람 들이 인도받도록 하였노라

32. 하나님은 하늘에 잘 보호된 지붕을[1] 두셨노라 저들은 아직도 그것의 증표에[2] 등을 돌리고 있느뇨

33. 그분께서 밤과 낮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니 모든 것이 그 안에 서 궤도에 따라 운행하노라

34. 하나님은 그대 이전에 어떤 인간에게도 영생을[1] 부여하지 아니 했거늘 또한 그대도 영원할 수 없으매 저들이 영원히 살 수 있 겠느뇨

35.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되며 하나님은 너희를 악과 선으로 시험하리니[1] 이때 너희는 하나님에게로 귀의하노라

36. 불신자들이[1] 그대를 볼 때면 자신들의 신들을 비방하는 자가 이 사람이뇨 라고 그대를 조롱할 따름이라 실로 저들은 하나님 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이라

37. 인간은 성급한 속성으로 창조되었노라 내가 지금 그대에게 나 의 증표들을 보여주리니 서둘지 말라

38.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언제 이 약속이 오느뇨[1] 라고 저들 이[2] 물을 것이라

39. 만일 불신자들이 저들의 면전과 뒤에서 불을 막을 수 없다는 시기를 알았을 때 저들은 구원을 받겠느뇨

40. 그렇지 못하리라 종말이 갑자기 저들에게 도래하여 저들을 혼 란케 하니 저들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으며 유예되지도 않노라

41. 그대 이전의 많은 선지자들도 조롱을 당했으나 조롱을 하던 저 들이 조롱했던 것에 둘러싸이고 말았노라

42. 일러 가로되 밤과 낮으로 누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부터 너희를 지켜 주겠느뇨 그러나 저들은 아직도 주님을 기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43. 아니면 하나님 외에 저들을 지켜 줄 신들이 있느뇨 사신들은 저들 스스로를 도울 수도 없으며[1]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노라

44.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 불신자들과[1] 저들의 선조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 오래 살도록 했으나 신앙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역을 측면서부터 축소해감을 저들은 알지 못하지 않느뇨 그런데도 저들이 승리자라고 할 수 있느뇨[2]

45. 일러 가로되 실로 나는 계시에 의하여 너희들에게 경고할 뿐이라 그러나 귀머거리는 경고하는 부름을 들을 수 없노라

46. 그러나 주님의 조그마한 벌만 저들을 스쳐가도 말하길 우리에게 재앙이 있다니 분명 우리가 죄인들이라 하더라

47. 하나님은 심판의 날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이라 비록 겨자씨만한 무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 계산하시니라 계산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시니라

48.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식별의 증표를[1] 주었나니 이는 경건한 자들을 위한 빛이요 교훈이라

49. 하나님을 보지 않고 두려워 하는 자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 하노라

50. 꾸란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한 축복받은 메시지이거늘 너희는 그것을 거부하겠느뇨

51. 하나님은 이전에[1] 아브라함에게도 지침서를 주었으며 또한 그를 잘 아시노라[2]

52.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백성들에게 말하길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이 우상들이 무엇이뇨

53. 이때 저들이 말하길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숭배했노라고[1] 말하자

54. 아브라함이 말하길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조들이 분명히 방황했노라

55. 저들이 말하길 당신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느뇨 아니면 우리를 조롱하느뇨

56. 이때 아브라함이 말하길 너희의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늘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한 증인이라

57. 하나님께 맹세하사 나는 너희가 등을 돌리고 떠난 후에 너희 우상들에 대항하는 계획을 세우리라[1)]

58.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가장 큰 우상을 제외한 모든 것을 깨뜨렸노라 아마도 저들이 그 우상에게로 돌아오리라[1)]

59. 저들이 돌아와 말하길 누가 우리의 신들에게 이런 짓을 했느뇨 실로 사악한 자들이라

60. 저들이 말하길 아브라함이라는 청년이 그 우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1)]

61. 저들이[1)] 말하길 아브라함을 사람들 앞으로 데려오라 아마 그들이 증언하리라

62. 저들이 말하길 이 신들을 파괴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 너이뇨

63. 그가 말하길 아마도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그랬을 것입니다[1)]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물어보라[2)]

64. 그러자 저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말하길 실로 우리가[1)] 잘못하고 있노라[2)]

65. 그런 후 저들은 수치스러움으로 당황하며 말하길 너는 이 우상들이 말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노라

66. 그가 말하길 하나님 대신 너희에게 유익하지도 아니하고 해로움도 없는 것을 숭배하고 있느뇨

67.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당신들이 가련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68. 그러자 저들이 말하길 승리하려면 그를 불태워 버리고[1)] 신들을 보호하라

69. 하나님이 명령하사 불아 식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하라 하였노라

70. 이렇듯 저들이 그에게 음모를[1)] 꾸몄으나 하나님은 저들을 패배자로 만들었노라

71.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내린 땅으로[1)] 안내하였노라

72.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손자로 야곱을 주었으며 그들[1)] 모두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노라

73.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의 명령에 따라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로 만들었고 선행을 실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

도록[1] 계시를 내리니 그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하였더라

74. 하나님은 롯에게[1] 지혜와 지식을[2] 주어 불결한 일을 하여 왔던 고을로부터 그를 구하셨노라[3] 실로 저들은 사악을 행하는 백성들이었노라

75.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노라 그는 실로 의인 중의 한 사람이었더라

76. 노아가 이전에 하나님에게 구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답하여 그와 그의 가족을[1] 큰 재앙으로부터 구하였노라

77.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백성으로부터 그를 구한 후 저들 모두는 사악한 백성이였으므로 하나님은 저들 모두를 익사하게 하였노라

78. 다윗과[1] 솔로몬을[2] 상기하라 어떤 백성의 양들이 밤중에 길을 잘못들어 농장을 짓밟아 놓았을 때 그 둘[3]은 심판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지켜보고 계셨노라

79.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 그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고 그들 각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1] 산들과 새들로 하여금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게 하였노라[2]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노라

80. 하나님은 다윗에게 갑옷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셨나니[1] 이는 너희가 전쟁에서 너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감사하고 있느뇨

81. 솔로몬에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이 축복한 땅으로[1] 그의 명령에 따라 폭풍우가 불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82. 솔로몬을 위하여 잠수부들로 하여 그에게 순종토록 하였고[1] 그 밖의 다른 일을 하게 하였으며[2] 이에 하나님은 저들이[3] 솔로몬[4] 명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노라

83. 욥을[1] 상기하라 그는 주님께 강구하였노라 재앙으로 제가 괴롭나이다 당신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84. 하나님은 그의 간청에 답하여 그가 처한 재앙을 거두고 그가 잃어버린 자손들을 다시 얻게 하셨노라[1]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종들을 위한 교훈이라[2]

85. 이스마엘과 이녹과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의 백성에게 상기시키라 그들 모두는 인내하는 자 중에 있었노라

86.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의 은혜속에 들게하였으니 그들은 실로 의로운 자들가운데 있었더라

87. 요나에[1] 관한 이야기를 그대의 백성에게 상기하리니 그는 화가나 떠나며 하나님이 그를 제압하지 못하리라 추측했노라 그러나 그도 역경에 처할 때는 실로 당신 외에는 신이 없나니 당신만을 찬미하나이다 저는 실로 죄인들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하더라

88.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하사 그를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믿는 신앙인들을 구원했노라

89. 자카리야의 이야기를 상기시킬지니 그는 주님께 구원하였노라 주여 저를 자손이 없이 홀로 두지 마옵소서[1] 당신은 가장 훌륭한 상속자이십니다

90. 그의 간청에 하나님이 응하사[1] 그에게 요한을 보냈고 그를[2] 위해 그의 아내의 병을 낫게 하였노라[3] 이들은 선행을 실천함에 서둘러 하며 기대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에게 호소하고[4] 하나님을 두려워 하였더라[5]

91. 마리아의 이야기를 상기하라[1] 그녀는 순결을 지켰으니 하나님은 그녀에게 성령을 불어넣어[2] 그녀와 그녀의 아들로 하여 온 백성을 위한 증표로 하셨노라

92. 이슬람은 너희를 위한 유일한 종교이며 내가 너희의 주님이거늘 나만을 경배하라[1]

93. 그러나 저들은 분열하였노라[1] 저들 모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94.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리니 실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기록하노라[1]

95. 하나님이 멸망시킨 고을이 있나니 그 고을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노라[1]

96. 고그와 마고그[1] 백성들이 장벽을 뚫고 높은 곳으로부터 쇄도하여 올 것이라[2]

97. 진리의 약속이[1] 가까와 올 때 불신자들의 눈들은 공포로 가득차 우리에게 이런 불화가 웬일이뇨 우리가 이것을 무시했으니 우리가 죄인들이라 하더라

98. 실로 너희와 너희가 하나님 외에 숭배한 것들은[1] 지옥의 땔감이거늘[2] 너희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리라[3]

99. 만일 이들이[1] 신들이었다면 저들은 거기에 오지 아니했으리라 저들 모두는 그 안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니라

100. 그곳에[1] 번민의 소리는 있으나 저들은 듣지 못하니라[2]

101. 하나님에게서 훌륭한 보상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곳으로부터[1] 먼 곳에 있게 될 것이라

102. 그곳에는 소음이[1] 없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들은 원하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

103. 가장 큰 무서움도[1] 그들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들이 그들을 영접하며[2] 오늘은 당신들이 약속받은 날이라 하면서 맞이하니라

104. 하나님이 하늘을 접어버릴 그 날을 상기하라 태초에 창조했듯이 그분은 그것을 다시 창조하리니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수행되노라

105. 그 계시 이후에[1] 하나님은 이전 시편에서[2] 대지는 성실한 종들이 상속할 것이라[3] 기록하여 두셨노라

106. 진실로 이 안에는[1]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을 위한 소식이 있노라

107.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온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1]

108. 일러 가로되 실로 내게 계시가 내려졌으되 너희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늘[1] 순종하지 않겠느뇨

109. 저들이 등을 돌린다면[1] 일러 가로되 나는 내가 명령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며[2] 너희가 약속받은 것이 가까왔는지 멀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110. 실로 그분은 밖으로 들어내어 말하는 것과 숨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111. 이것은[1] 너희에 대한 시험으로 순간의 향락에 불과하니라

112. 그가[1] 말하였더라 주여 진리로서 저희를 다스려 주소서 저들이 주장하는 불신의 행위를 인내할 수 있도록 자애로우신 주님께 구원하나이다

제 22 장
수라트 알핫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사람들이여 주님을 두려워하라[1] 실로 심판의 날의 지진은[2] 무서우니라
2. 그 날[1] 너희는 지켜보리니[2] 모든 유모가 젖먹이는 것을 잊을 것이며 임신한 모든 여성이 유산할 것이라 그대는 술취한 사람들을 볼 것이나 저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웠기 때문이라
3. 사람들 중에는 무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논쟁하고 반역하는 사탄을 따르고 있느뇨[1]
4. 사탄을 추종하는 자는 사탄에 의해 방황하게 되며 타오르는 불의 징벌로 인도될 운명을 맞을 것이라
5. 사람들이여 부활에 관하여 의심한다면 태초의 창조를 보라 실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은 후[1] 성을 식별하는 한방울의 정액을 넣고 일부는 형성되고 일부는 형성되지 않은 응혈과 살로서 창조하셨노라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함이라[2]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태내에서 자라게 한 후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성년이 되도록 하느니라 너희 중에 일부는 젊어서 죽음의 부름을 받게 하고 일부는 노령에 이르게 하여 자식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노라 또한 너희는 황폐하여 생명을 잃은 대지를 보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내릴 때 대지는 다시 생동하고 솟아 오르며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초목들이 자라는 것을 보느니라
6. 이것은[1] 곧 하나님이 진리로 죽은 자를 살게 하시며 모든 일에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7. 의심할바 없는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무덤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니라[1]
8. 사람들 중에는 아무런 지식도 인도자도 성전도 갖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하는 자가 있노라
9. 오만으로 타인을 하나님의 길로부터 탈선케 하려한 자가 있나니 그에게는 현세의 치욕이[1] 있을 것이며 심판의 날에는 그로 하여

금 화염의 응벌을 맛보게 하리라[2]

10. 그것은 네 두 손이 내민 행위 때문으로 하나님은 종들을 결코 부당하게 대하시지 아니하시노라

11. 사람들 중에는 모서리에서[1] 하나님을 경배하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만족해 하다가 시련이 있을 때는 저들의 안면을 돌리노라 저들은 현세와 내세를 잃게되니 이것은 명백한 손실이라

12. 해치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숭배하니 그것은 커다란 방황이라

13. 해로움이 이로움보다 더 많은 것에 의지하고 있나니 실로 사악한 것이 그의 친구요 후원자라

1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천국에 들게하나니 그 밑에는 물이 흐르도다 실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니라

15.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는 물론 내세에서도 예언자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1] 그분의 도움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천정에[2] 밧줄을 매고 그의 목을 매어 질식시키도록 하여보라 그의 음모가 하나님의 후원을 차단할 수 있겠느뇨

16.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한 증표로 꾸란을 계시했나니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니라

17. 믿는 자들과[1] 유대인들과[2] 사비이인들과[3] 기독교인들과[4] 마주스인들과[5] 불신자들이[6] 있나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저들을 심판할 것이라 실로 하나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8.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태양과 달과 별들과 산들과 나무와 동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복하여 경배함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어느 누구도 그를 명예롭게 하지 못하노라 실로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행하시니라

19. 주님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 두 무리가[1] 있나니 불신하는 자들은 불길에 옷이 찢기며 끓는 물이 저들의 머리 위에 부어지니라

20. 그리하여 저들의 내장과 피부도 녹아 내릴 것이라

21. 저들을 벌할 철로된 회초리도 준비되어 있노라

22. 그로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나 저들은 다시 그 안으로 되돌려와 불의 징벌을 맛볼 것이니라

2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천국에

들게 하나니 그 밑에는 물이 흐르노라 그들은 그 안에서 진주와 황금의 팔찌로 장식되고 비단의 옷을 입노라

24. 그들은 현세에서 좋은 말씀과[1] 칭송받는 길로 인도되니라

25. 믿음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와[1] 방문하려 온 사람들을[2]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원에[3]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와 그 안에서 신성함을 불결하게 하는 자는 저들로 하여금 고통의 징벌을 맛보게 하리라

26.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전으로 인도하면서 어느 무엇도 하나님에게 비유하지 말며 순례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허리 구부려 예배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집을 신성하게 하라 하셨노라

27. 그곳으로 순례하도록 사람들에게 알려라[1] 그들은 걸어서 또는 낙타를 타고 먼 곳으로부터 오리라

28. 그들은[1] 순례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얻을 것이며 규정된 날 동안[2]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3] 하나님이 베푼 가축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하여 너희도 먹고 가난하며 궁핍한 자에게도 먹이도록 하라

29. 그런 후 그들로 하여금 순례 의식을[1] 완성케 하고 그들의 결심을[2] 이행하게 하며 다시 카으바 신전을[3] 순례하도록[4] 하라

30. 그것은[1] 인간이 수행해야 할 의무로 신성한 의식을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 곁에 자신을 위한 축복이 있노라 금기된 것을[2] 제외하고는 고기를 섭취해도 무관하니라 그러므로 협오스러운 우상의 짓을 피하고 위선의 말들을 삼가하라

31. 다른 것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불신하는자 그는 마치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새들이 그것을 낚아채 먹어버리거나 바람이 그것을 먼곳으로 날려보낸 것과 같노라

32. 그러하니라 신성한 의무와 의식을 행하는 것은[1] 하나님의 상징들을[2]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경건한[3] 마음의 소산이라

33. 제단에 바친 제물에는[1] 정하여진 기간 동안 너희에게 유익함이 있으며 회생제의 장소는[2] 옛 집이라[3]

34.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식을[1] 행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가축을 도살할 때 하나님을 염원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35. 이들은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자들이며 어려울 때 인내하는 자들이며 예배를 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양식으로 베푸는 자들이라

36. 하나님께서 그분의 징표로 너회에게 보내준 낙타들은[1] 너회를 위해 유익함이 많으니라[2] 그러므로 도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염원하고 땅에 넘어질 때[3] 회생된 고기를 먹되 가난한 자와 불우한 자에게 분배하여 주라 그분은 낙타가 너회에게 그토록 순종하도록 하였으니 너회는 감사해야 하노라

37. 고기와 피는 하나님께 이르지 아니하고 너회의 경건함과 의로움만[1] 그분에게 이르니라 그분께서 그것들로[2] 하여금 너회에게 순종케함은 너회를 인도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함이니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38.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시나 배신하며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시노라

39. 침략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이 너회에게 허락되나니[1] 모든 잘못은 침략자들에게 있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너회에게 승리를 주시니라

40.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말한 것 하나로 부당하게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한 자들이 있노라[1] 만일 하나님의 보호가[2] 없었더라면 불신자들이 지배한 수도원도[3] 교회들도[4] 유대교 회당들도[5] 하나님을 염원하는 사원들도[6] 파괴되었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종교에 같이 하는 자를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니라

41. 하나님께서 이들에게[1] 영토를 장악할 권한을 주었다면 그들은[2]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세를 내며 선을 실천하고 악을 멀리하라고 했을 것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노라

42. 불신자들이 그대를 거역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1] 저들 이전의 노아의 백성이나 아드와 사무드 백성도 불신을 당했노라

43. 아브라함과 롯 백성도 마찬가지였노라

44. 메디안의 백성들도 그러하였으며 모세도 배반 당했노라 내가 불신자들을 잠시 유예하다가 벌을 내렸나니 저들에 대한 나의 벌은 얼마나 무서웠더뇨[1]

45.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불신의 고을들을 멸망시켰느뇨 지붕들이 무너지고 우물들이 메마르고[1] 높이 솟은 궁전들이 파괴되었노라

46. 저들은 마음과 귀로써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 지상을 여행하지 아니 했더뇨[1] 실로 장님이 된 것은 저들의 눈들이 아니라 저

들의 가슴속에 있는 마음들이라

47. 저들이[1] 그대에게 벌을 서둘러 보이라 재촉하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 하시니라 실로 그대 주님 곁에서의 하루는 너희들 계산으로는 천년 같으니라

48. 죄 많은 고을을 잠시 유예하다가 벌을 내리니 모두가 내게로 돌아오더라

49. 일러 가로되 사람들이여 실로 나는[1] 너희를 위한 분명한 경고자에 불과하노라

50.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1] 관용과 풍성한 양식이 있느니라[2]

51.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좌절코자 하는 저들은 불지옥의 동반자들이 되리라

52. 하나님이 그대 이전에 선지자나 예언자를 보내 그가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사탄은 유혹으로 방해하였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를 제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확립하셨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1]

53.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병들고 굳어버린 자들을[1] 사탄이 던진 유혹으로 시험하시니 실로 죄지은 자들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노라

54. 지식을 부여받은 자들은 꾸란이 그대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임을 알고 있노라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그것에 순종하더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55. 그러나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은 꾸란에 관하여 심판의 날이 오고 재앙의 날 징벌이 저들에게 올 때까지 계속하여 의심하노라

56. 그 날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 그분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노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1] 환희의 천국에 있게 되노라

57. 그러나 믿음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굴욕의 징벌이 있으리라

58.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주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생명을 바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훌륭한 양식을 주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가장 훌륭하신 양식의 공급자 이시라

59. 하나님은 그들이 기뻐하는 천국으로 들게 하노라 실로 하나님은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니라

60. 그러하심이라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것과 같은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그러운 분 이시라

61. 승리는 하나님께 쉬운 것이라 그분은 밤을 낮으로 그리고 낮을 밤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니라

62. 하나님은 진리이시라 그분 외에 저들이 구원하는 것은 단지 거짓된 허위에 불과하노라 실로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시고 위대하시니라

63.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대지가 초원이 되도록 하심을 너희는 보지 못했느뇨 실로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64. 하늘과 대지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하노라 실로 하나님은 자족하시며 찬양받을 분 이시라

65. 하나님께서는 대지 위의 모든 것과 그분의 명령으로 바다를 다니는 배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셨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그분의 허락 없이는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시었노라 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시며 자비로우시니라

66.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또한 영생을 주심도 하나님이시거늘 실로 인간은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라

67. 하나님은 각 백성에게 저들이 지켜야 할 경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노라 이 일에 관하여 저들이 그대와 논쟁치 않도록 하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대야 말로 옳은 편에 있노라

68. 저들이 그대에게 논쟁을 한다면 일러 가로되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노라

69.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달리한 것에 관하여 너희를 심판하시니라

70. 하늘과 땅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너희는 모르느뇨 실로 그것은 서판에 기록되어 있으며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71. 저들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분께서 권한을 내리시지 아니한 것과 지혜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노라 우매한 저들에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72.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낭송되어졌을 때[1] 그대는 불신자들의 얼굴에서 싫어함을 알게 되었노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신앙인들을 공격하였노라 일러 가로되 내가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을 너희에게 경고하나니 불신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은 지옥뿐이니 저주스러운 운명이 되리라

73. 사람들이여[1] 비유들어 말하노니 귀를 기울이라 실로 너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숭배하는 것들은 파리 한 마리 조차도 창조하지 못하며 그 파리가 저들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간다해도 저들은 그것을 도로 찾아오지도 못하니 숭배자나 우상은[2] 허약할 뿐이라

74.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평가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라

75. 하나님은 천사들과[1]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셨노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니라

76. 하나님은 저들 이전에 있었던 것과 저들 후에 있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

77. 믿는 자들이여 허리숙여 주님께 부복하고 경배하며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78.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라[1] 그 성전은 그분의 권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사 종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노라 그럼으로 너희의 선조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라 그분은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2] 너희를 무슬림이라 부르셨으며 그 선지자가 너희에의 증인이 되고 너희는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분은 보호함과 도와 주심이 가장 으뜸가신 보호자 이시라

제 23 장
수라트 알무으미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믿는 사람들은 번성하노라[1)]
2. 이들은 예배에 임하고 겸손하며[1)]
3. 헛된 말을[1)] 하지 않는 자들이라
4. 이들은 이슬람세를 바치며
5. 자신들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라[1)]
6. 이들의 아내와 이들의 오른 손이 소유하는 것은 제외로 그들에 대해서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7.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1)] 욕망을 가진 자는[2)] 실로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8. 믿음이 있는 자들은 신용을 지키고 계약을 준수하는 자들이며
9. 예배를 충실히 지키는 자들로[1)]
10. 바로 이들이 상속자들이 되어[1)]
11. 천국을[1)] 상속받아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느니라
12. 실로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빚었으며
13. 아담의 자손은 한방울의 정액으로써 안정된 곳에[1)] 두었노라
14. 그런 다음 그 정액을 응혈[1)] 시키고 그 응혈로써 살을[2)] 만들고 그 살로써 뼈를 만들었으며 살로써 그 뼈를 감싸게 한 후 다른 것을 만들었노라[3)] 가장 훌륭하신 하나님께 축복이 있으소서
15. 그런 후 너희 모두를[1)] 임종케 하여
16. 심판의 날 너희 모두를 다시 부활하노라[1)]
17.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 위로 일곱 개의 하늘을[1)] 두셨으며 창조하심에[2)] 결코 무관심하지 아니하시노라
18.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적당한 양의[1)] 비를 내리게 하여 땅 속에 저장하다가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노라

19. 그것으로[1]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종려나무와 포도가 열리는 정원을 두시노라 그 안에 과일들이 풍부하니 너희가 그 중에서 먹으라

20. 시나이 산에서[1] 나무를[2] 자라게 하여 이것으로 올리브 기름과 식용의 양념을[3] 생산케 하셨노라

21. 가축에도[1] 너희를 위한 교훈을 두었나니 그의 몸 안에 있는 것[2]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실 것을 주시노라 너희가 그 안에서 유익한 것을 많이 얻고 또 그것을 고기로 섭취하노라

22. 너희는 가축과 배를 타고 다니노라[1]

23.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내자[1] 그가 말하길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너희는 두렵지 않느뇨

24. 이때 그의 백성가운데 불신자들의 우두머리가[1] 말하길 이 사람은 너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너희 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라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천사들을 내려보냈을 것이라[2] 우리는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들어보지 못했노라

25. 실로 이 자는 미친자에 불과하니 잠시동안 기다려 보라 하더라

26. 이에 노아가 말하길 주여 저들이 저를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27. 그리하여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그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의 계시에[1] 따라 방주를 만들도록 하였노라 하나님이 명령하사 계곡이 물로 넘치기 시작하자 거절한 자를[2] 제외하고 노아의 가족과 종류 별로 각각의 한 쌍을 태우라는 말씀이 있었노라 죄지은 자들을 위해 내게 구원하지 말라 저들은 익사할 것이라

28. 너와 그리고 너와 함께 한 자가 배를 타고 난 후 죄지은 백성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라고 말하라

29. 주여 축복받은 땅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1]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분 이십니다

30. 실로 그 안에는 증표가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으로 저들을[1] 시험하셨노라

31. 하나님은 저들 이후에 또 다른 세대를[1] 세우셨노라

32. 아드 백성 중에서 후드를 택하여 저들에게 보내자 그가 말하길 이는 너희가 한 분 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배토록 함이라 너희는 두렵지 않느뇨

33. 이때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백성의 족장들은 믿음을 불신하고 내세에서의 만남을 부정하며 말하길 이 사람은 너희와 마찬가지로 한 인간에 불과하노라 너희가 먹는 것처럼 그도 먹고 너희가 마시는 것처럼 그도 마시는 인간일 뿐이라

34. 만일 너희와 다를바 없는 한 인간에게 복종한다면 너희는 분명 잃은 자들이 되리라 하더라

35. 너희가 죽어 흙이되고 뼈만 남을 때 너희가 다시 소생할 것이라 그가 약속하였더뇨

36. 너희가 약속받은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1]

37. 실로 현세의 삶 외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노라 우리가 죽어 다시 살아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38. 실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한 사내에 불과하거늘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노라

39. 이때 후드가 말하길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들은 저를 부정하나이다

40.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사 저들은 곧 뉘우치게 되리라

41. 그후 저들에게 적절한 벌이[1] 내려졌으니 하나님은 저들을 고목의 낙엽처럼 만들어 죄지은 자들을 멸망케 했노라

42. 그런 다음 하나님은 저들 이후의 다른 세대를[1] 세우셨노라

43. 어느 백성도 저들의 운명을 재촉할 수 없고 또한 유예할 수 없노라

44. 하나님은 차례로 선지자들을 보냈노라 선지자가 고을에 이를 때마가 저들은 그를 부정하였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저들을 차례대로 멸망시켜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만들었노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멸망하니라

45. 그후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형제 아론을 말씀과 증표를 주어[1] 보냈노라

46. 파라오와 그의 우두머리에게도 보냈으나 저들은 오만한 백성으로 거만을 피웠노라

47. 저들이 말하길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두 인간을[1] 믿어야 하느뇨 그 두 인간의 백성들은[2] 우리의 종들이 아니더뇨

48. 이렇듯 저들도 두 예언자를 불신하였으니 멸망하게 되어 있었노라[1]

49.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 주어 저들을 인도하도록 하였노라[1)]
50.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과[1)] 그의 어머니를 하나의 증표로 삼고 높은 곳을[2)] 그들에게 안식처로[3)] 제공하였노라 그곳에는 목초와 샘이[4)] 있었더라
51. 선지자들이여 허락된 좋은 것들을[1)] 섭취하되 선을 행하라 너희가 행하는 일들을 내가 알고 있노라
52. 실로 너희의 공동체는[1)] 하나이며 내가 너희의 주님이거늘 항상 나를 두려워하라
53.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의 종교에서 여러 종파로 분열한 후 각 종파에 만족하고 있노라
54. 그러나 잠시 동안 저들을[1)] 혼란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도록 두라[2)]
55.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산과 자손을 주리라 저들은[1)] 생각하느뇨
56.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서둘러[1)]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노라 저들이 모를 뿐이라[2)]
57. 실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생활하고
58. 주님의 징표를 확증하며
59.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60.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며 마음으로 자선을 베푼자 있나니
61. 이들은 서둘러 선을 행하며 앞장 서서 실천하노라
62. 하나님은 능력 이상으로 무거운 짐을 주지 아니하시며 진리를 보여주는 기록을[1)] 가지고 있으니 저들은 결코 불공평한 대접을 받지 않노라
63.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꾸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며 혼돈과 그밖의 다른 행위를[1)] 계속하노라
64. 안이하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벌을 내렸노라[1)] 이때 저들은 애원하더라
65. 오늘에 이르러 애원하지 말라 말씀이 있을지니 너희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66.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낭송될 때마다 너희는[1)] 돌아보지 아니했노라
67. 그것에[1)] 관한 무지한 말들은 밤에 우화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68. 저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지 아니 하느뇨 저들의 선조

들에게 없었던 것이 저들에게 왔다고 생각하느뇨[1]

69. 아니면 저들이 저들의 선지자를 알지 못하여[1] 그를 부정하려 하느뇨

70. 아니면 그가[1] 미친 사람이라고 말들 하느뇨 그러나 그는 저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왔으나 저들 대부분이 그 진리를 싫어하더라

71. 아마도 그 진리가[1] 저들의 욕망을 따랐다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질서 속에 있었으리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꾸란을 보냈는데도 저들은 꾸란에 등을 돌리더라

72. 너희는 저들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느뇨[1] 주님의 보상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수여자이시라

73. 실로 그대가 저들을 옳은 길로[1] 인도하고 있으나

74. 내세를[1]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길로부터 탈선하고 있으니

75. 만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저들의 고통을[1] 제거하여 준다하더라도 저들은 죄악을 더하여 방황하게 되리라

76. 하나님이 저들에게 벌을[1] 내렸는데도 저들은 주님께 겸손치 아니하고 간청하지 않더라

77.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혹한 벌의[1] 문을 열 때에 보라 저들은 그 안에서 절망하게 되리라

78.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청각과 시각과 촉각을 주셨건만 너희는 감사하는데 인색하노라

79. 너희를 지상에 번식하게[1]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분께로 집합되리라

80. 생명을 주시고 앗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낮과 밤을 달리하여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라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81. 그러나 저들은[1] 선조들이 말한 것과 다를 바 없으니

82. 저들이 말하길 우리가 죽어 흙과 뼈가 되었을 때 다시 부활될 수 있느뇨

83. 이러한 일은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약속되었지만 실로 이것은 옛 얘기에 불과하노라

84. 일러 가로되 대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뇨 너희가 만일 알고 있다면 말하라

85. 저들은 말하길 하나님께 귀속하여 있노라 일러 가로되 그래도 너희는 교훈을 수락하지 않느뇨

86. 일러 가로되 칠천의 주인은 누구이며 권자의 주인은 누구이뇨

87. 저들이 말하길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노라 일러 가로되 너희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느뇨

88. 일러 가로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뇨 또 모든 것을 보호하시나 보호받지 아니한 분은 누구시뇨 만일 너희들이 아는 자들이라면 말하라 하니

89. 저들이 말하길 하나님이시라 일러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는 현혹되고 있느뇨

90.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리를[1] 주었건만 실로 저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

91. 하나님은 자식을 두지 아니하셨으며 그분을 대적할 어떠한 신도 없노라 만일 다른 많은 신들이 있었다면 각 신들은 자기가 창조한 것을 빼앗아 갔을 것이며 다른 신을 지배했으리라 하나님이여 저들이 묘사하는 것을 초월하여 홀로 영광받으소서

92.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저들이 비유하려는 것 위에 계시니라

93. 일러 가로되 주여 저로 하여금 저들에게 약속된 것을 보이시려면

94. 주여 저를 죄지은 백성가운데 두지 마옵소서

95. 실로 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 줄 수 있노라[1]

96. 선행으로 악을 쫓으라 하나님은 저들이 말하는 것을[1] 알고 계시니라

97. 일러 가로되 주여 사람들의 유혹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

98. 저들이 제 앞에[1] 나타나지 않도록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

99. 죽음이 저들에게 이를 때 주여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

100. 저의 여생 동안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말하나 그것은 단지 그가 지껄이는 말에 불과하며 저들 앞에는 부활하는 그 날까지 장벽이 있을 뿐이라

101. 그날 나팔이 울리면[1] 저들 사이에 모든 유대 관계가 없어지며 서로가 묻지도 아니하노라

102. 그 때 그의 선행이 많았던 자들은 번성할 것이며[1]

103. 그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잃고 지옥에서 영

원히 살 것이라

104. 불이 저들의 얼굴을 태우니 저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맛보니라

105. 나의[1] 말씀이 너희에게 낭송되지 않았더뇨 너희는 그것을 부정하였노라

106. 이때 저들이 말하길 주여 불행이 저희를 덮치나이다 저희는 방황하는 백성이었습니다

107. 주여 그것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저희가 다시 죄악을 반복한다면 실로 저희가 죄인들이옵니다 라고 하더라

108.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게 말하지 말라

109. 주여 믿나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자비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무리가[1] 나의 종들 가운데 있었더라

110. 그러나 너희들은[1] 항상 그들을 조롱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염원하는 것을 망각케 했으며 그때 너희가 그들을 비웃고 있었노라

111. 실로 나는 오늘 그들이 인내한 것으로 보상을 하나니 그들이 승리자들이라

112.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몇해 동안 지상에 체류하였느뇨

113. 저들이 대답하길 하루 아니면 하루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셈을 계산하는 자에게[1] 물어보십시요

11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알고 있다면 실로 너희는 잠시 체류한 것에 불과하노라

115. 하나님이 너희를 목적없이 장난으로[1] 창조하였다 생각하였느뇨 그리고 너희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느뇨

116.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옥좌의 주인이시라

117. 하나님과 더불어 아무런 권한도 없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계산하시니 실로 불신자들은 번성치 못하리라

118. 일러 가로되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이야말로 은혜를 베푸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옵니다

제 24 장
수라트 누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법으로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셨나니 이로하여 너희가 교훈을 받게 하고자 함이라
2. 간통한 여자와 남자 각자에게 백대의 채칙을 가하라[1]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되 저들에게 동정하지 말며 믿는 신도들로 하여금 저들에 대한 형집행을 입회하도록 하라[2]
3. 간통한 남자는 간통한 여자 또는 신을 믿지 아니한 여자 외에는 결혼할 수 없으며 간통한 여자는 간통한 남자 또는 신을 믿지 아니한 남자 외에는 결혼할 수 없나니 믿는 신도들에게 금지되어 있노라
4. 정숙한 여인을 비방하는 자들이 네명의 증인을 내세우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여든 대의 채칙을 가하되[1] 그들의 증언도 수락해서는 아니 되나니 저들은 사악한 죄인들이라
5. 그러나 회개하고 개선하는 자들은[1] 제외이거늘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6. 자기의 부인들을 비방하면서[1] 자신들 외에는 어떤 증인도 없이 단독으로 증언할 경우 하나님께 맹세케 하여 자기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네번 증언케 하라
7. 다섯 번의 맹세에서 만일 저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저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
8. 그러나 아내가 하나님께 그 남자의 거짓 증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번 증언하면 그녀에게의 벌이 면제되며[1]
9. 그녀 남편의 다섯 번 째 증언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녀에게 있을 것이라
10. 만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현명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는 패망했으리라
11. 실로 중상을[1] 퍼뜨린 무리가 너희 가운데 있었으되 그것을 너희에[2] 대한 죄악으로 생각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위한 선으로

생각하라[3] 모든 인간은 그가 죄악으로 얻은 만큼 보상되며 그 가운데의 우두머리는 더 큰 벌을 받느니라

12. 너희가 비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백성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분명한 거짓말이라고 하였느뇨

13. 왜 비방자들은 그것을 입증할 네명의 증인을 세우지 못했느뇨 저들이 증인들을 세우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1]저들은 거짓말쟁이 들이라

14. 만일 현세와 내세에서 너희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었다면 너희가 비방했던 것으로 인하여[1] 큰 벌을 맛보았으리라

15. 보라 너희는 단지 너희의 혀로써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는바 없이 너희 입으로만 얘기하며 또한 그것을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여 버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중대한 일이라[1]

16. 너희가 비방의 소식을[1] 들었을 때 너희가 말하길 우리는 이것을 말할 권리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이것은 큰 거짓입니다

17.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훈계하사 진실로 너희가 믿는 자라면 결코 그런행위를 되풀이 하지 말라

18.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증표들을[1] 밝혀주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

19. 믿는 자들 가운데에 추문이[1] 퍼뜨려지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고통스러운 벌을[2] 받으리니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니라

20.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은혜가 없었다면 실로 너희는 일찍 패망했으리라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21. 믿는 자들이여 사탄의 뒤를 따르지 말라 사탄의 뒤를 따르는 자에게 사탄은 그로 하여금 항상 죄악과 비행을 범하도록 하니라 만일 너희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었다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순수하지 못했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순수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현명하시니라

22.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친척과 필요한 자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집을 떠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아니하려 맹세하는 자가 너희 중에 없도록 하라[1]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관용을 베풀도록 하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원하지 아니하느뇨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23.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순결한 여성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저들에게는 크나큰 벌이 있느니라[1]

24. 그날에는 그들의 혀들과 손들과 발들이 그것들이 저질렀던대로 증언할 것이라

25.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1] 하시나니 하나님만이 정당한 진실이심을 알게 되리라

26. 순결치 못한 여성은 순결치 못한 남성을 위해서 순결한 남성은 순결한 여성을 위해서 훌륭한 여성은 훌륭한 남성을 위해서 훌륭한 남성은 훌륭한 여성을 위해서 있나니 이들은[1] 그들이[2] 무엇이라 중상하여도 결백하나니 그들에게는 관용과 양식과 은혜가 충만하리라

27. 믿는 자들이여 허락을 받고 그 집안 가족에 인사를 하기전 까지는 너희집이 아닌 어떠한 가정도 들어가지 말라[1]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너희가 교훈으로 삼으라

28. 집 안에 아무도 없을 때는 너희에게 허락이 있을 때까지 들어가지 말라 만일 돌아가라고 하거든 돌아갈지니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9.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그 안에 너희를 위한 유익한 것이 있는 곳에는[1] 들어가도 죄악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밝히는 것이나 숨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2]

30. 믿는 남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라 할지니 그것이 그들을 위한 순결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니라

31.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드러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1]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수건을 써서[2]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의 아버지와 그녀의 아들과 남편의 아들과 그녀의 형제와 그녀 형제의 아들과 그녀 자매의 아들과 여성 무슬림과[3]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와 성욕을 갖지 못한 하인과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외에는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또한 여성은 발걸음소리를 내어 유혹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나니 믿는 사람들이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32. 너희 중에 독신과[1] 너희 가운데 성실한 하인과 하녀들을 결혼시켜주라 그들이 가난하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33. 결혼할 능력을 갖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능력을 줄 때까지 자제하라고 하라 그리고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하인들 중에서 일정금액으로 노예해방증서를 원할 경우 너희가 그들에게서 신임을 발견한다면 그들에게 증서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푼 재산중에서 일용할 양식도 주라 그러나 현세의 이익을 얻으려[1] 하녀들에게 간음행위를 강요하지 말라 그들은 순결을 지키고자 하니라 만일 그녀들에게 강요하는 자가 있어 강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시니라

34.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사실을 밝혀주는 증표와 너희 이전에 살다간 선조들의 본보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을 내려보냈느니라

35.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빛이시라[1] 그 빛을[2] 비유하사 벽위의 등잔과 같은 것으로[3] 그 안에 등불이 있으며 그 등불은 유리 안에[4] 있노라 그 유리는 축복받은 올리브 기름으로 별처럼 밝게 빛나도다 그것은 동쪽에 있는 나무도 아니요 서쪽에 있는 나무도 아니라 그 기름은 불이 닿지도 아니하나 더욱 빛나 빛 위에 빛을 더하도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며 사람들에게 증표를 보이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36.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된 집 안에서[1] 빛이 발산하니 이는 그분의 이름이 염원되고 그 안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분께 영광을[2] 드리도록 함이라

37. 하나님을 염원하기 위하여 상품을 팔고 사는 것에 소홀히 하는 자들은[1]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자들로 마음과 눈이 변하는 그 날을 두려워 하노라

38.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최선의 보상을 하실 것이며[1] 그들 위에 은혜를 더할 것이라[2] 또한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한없이 양식을 베푸시니라

39.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아니한 불신자들의 행위는 목마른 자에게 보이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노라 목마른 자가 신기루를 물로 생각하고 다가가지만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라 그리하여 그분은 그가 행한 것에 따라 계산을 하시니 하나님은 계산에 빠르시니라

40. 그들의 행위는 넓고 깊은 바다속의 암흑과도 같노라 파도가 그 위를 덮으니 또 파도가 그 위를 덮으며 구름이 그 위에 더하매 어둠은 아래로 겹쳐 있더라[1] 그가 손을 내밀어도 그것을 볼 수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한자 그에게는 빛이 없노라

41. 하늘과 대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며[1] 새들은 날개를 펴 찬미하고 있음을 그대는 보지 못하느뇨 모든 것은 제 스스로 경배하고 찬미함을 알고 있으며[2] 하나님은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42. 하늘과 대지 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안에 있으니 하나님께로 되도라 가느니라[1]

43. 하나님께서 구름을 두사 그것을 흐르게하고 그것을 다시 모아 비구름으로 만들어 그 사이로 비를[1] 내리게 하심을 그대는 보지 못했느뇨 그분께서는 우박을 담은 산과 같은 구름을 하늘에서 내려 그분께서 원하는 자를 멸망케 하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를 보호하기도 하시며 번개의 섬광으로는 시력을 앗아가기도 하시니라

44.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서로 교체하시매[1] 그 안에는 지혜를 가진 자들을 위해 교훈이 있노라

45. 하나님은 물로써 동물들을 창조하셨나니 동물 중에는 배로 기는 동물이 있고 두 발로 걷는 동물이 있고 네 발로 걷는 동물이 있더라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창조하시니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권능을 가지시노라

46.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계시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올바른 길로[1] 인도 하시니라

47.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고 순종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등을 돌리는 무리가[1] 있나니 저들은 결코 믿음을 가진자들이 아니라

48. 저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소환되어 심판을 받게 될 때도 저들 중에 무리는 등을 돌릴 것이라

49. 만일 저들이[1] 진리의 편에 있었다면 저들은 선지자에게 달려와 순종하였을 것이라

50. 저들의 마음이 병들었느뇨[1] 아니면 의심을 하느뇨[2] 아니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저들을 부당하게 하리라 두려워 하느뇨 보라 죄인들은 바로 저들 자신들이라

51.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소환되어 심판을 받을 때 저희는 듣고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 번성할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

52.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승리하노라

53. 만일 그대가 우리에게 떠나라 명령하였다면 우리는 떠났을 것이

요 라고 위선자들이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라[1] 일러 가로되 맹세하지 말라 순종은[2] 이미 알려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54. 일러 가로되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거역한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는 그분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뿐이며[1]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의무가[2] 있노라 만일 너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너희가 올바른 길로[3] 인도될 것이라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무밖엔 없노라

55. 너희 중에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 하셨나니[1] 이전에 그들에게 부여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지상을 다스리는 힘을 주실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선택한 종교를 확립하여 주실 것이며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그들이 나를 경배함에 다른 것을 비유하지 아니 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 믿음을 배반하는 자 있다면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라

56.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그리고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느니라

57. 불신자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좌절시키리라 생각치 말라 저들의 주거지는 불지옥으로 그곳은 참으로 사악한 곳이라

58.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하인과 아직 이성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출입의 허락을 받도록 할지니 아침예배 이전과 여름 한낮에 잠을 자기위해 옷을 벗고 있을 때와 밤중예배 이후라 이 세 경우는 너희의 사생활을 위한 것으로 이 외에는 드나들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를 위해 드나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말씀을 밝히셨나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1]

59. 그러나 아이들이 이성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을 때는 성인들이 허락을 받듯이 그들로 하여금 허락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말씀을 밝히셨나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노라

60. 나이가 들어 성생활을 원하지 아니한 여성들은 유혹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겉옷을 벗어도 죄악은 아니라 그러나 자제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더 좋으니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61. 장님과 불구자와 병자와 너희가 너희 가정에서 또는 너희 아버지 가정에서 또는 어머니 집에서 또는 형제의 집에서 또는 자매의 집에서 또는 아버지 형제의 집에서 또는 아버지 자매의 집에

서 또는 어머니 형제의 집에서 또는 어머니 자매의 집에서 또는 열쇠를 인수 받은 집에서 또는 너의 진실한 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허물이 아니라 또한 너희가 한자리에서 또는 각각 식사를 하는 것도 허물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집을 들어갈 때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사를[1]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말씀을 밝히셨나니 너희는 이해 하리라

62.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 자들만이 신앙인들이라 어떤 일로 선지자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그분의 허락을 받을 때 까지 자리를 떠나지 아니 했노라[1] 실로 그대의 허락을 구하는 그들은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대에게 그들의 어떤 일로 허락을 구할 때[2] 그대가 원하는 그들에게는 허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위해 관용을 구하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63. 선지자를 부름에 너희가 너희 사이에 부르듯 부르지 말라[1]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구실로 대의에서 벗어나가려 하는지를 알고 계시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에 거역한 자를 경계할지니 이는 그들 위에 시련이 이르지 아니하고 그들 위에 고통스러운 벌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64. 실로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노라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느지를 잘 알고 계시며[1] 그리하여 저들이 그분께로 소환되어 가는 날 그분께서는 저들이 행하였던 모든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 주시니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제 25 장
수라트 알푸르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온 인류를 위한 교훈이 되도록 그분의 종에게[1] 꾸란을[2] 계시한 하나님께 축복이 있으소서

2. 하늘과 대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자손을 두지도 않고 그분에 대등한 주권의 동반자도 두지 않했노라 모든 것을 창조하사 사물의 정립하심도 하나님이시라[1]

3. 그러나 저들은[1]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숭배했으니 이것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2] 또한 우상들은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못하고 이로움을 주지도 못하며 죽음과 삶과 부활을 통제하지도 못하노라

4. 불신자들이 말하길 꾸란은 무함마드가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며 다른 사람들이[1] 그가 그렇게 하도록 도왔을 뿐이라 실로 저들이 바로 죄악과 허위를 가져온 자들이라

5. 또 저들이 말하길[1] 꾸란은 옛 선조들의 우화로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여 아침 저녁으로 낭송되도록 한 것이라

6. 일러 가로되 그것은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신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라 실로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7. 저들은 또 말하길 이 선지자는 사람들처럼 음식을 먹고 시장을 걸어다니는 자가 아니더뇨[1] 왜 천사가 그에게 내려와 훈계자로써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느뇨

8. 왜 보물이 그에게 쏟아져 내려오지 아니하고 왜 그에게는 과일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이 없느뇨[1] 죄인들이 말하길[2] 너희는 마술에 걸린 한 남자를 따르고 있을 뿐이라

9. 보라 저들은[1] 그대를 어떻게 비유하였느뇨[2] 저들은 방황하여 길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10.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것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대에게 강이 흐르는 낙원과 궁전을 주실 그분에게 축복이 있으소서

11. 보라 저들은[1] 부활을 부정하니 하나님은 내세를 부인하는 저들

에게 화염을 준비하셨노라

12. 불지옥이 먼곳으로부터 저들의 시야에 들어올 때 저들은 타오르는 불길의 소리와 광음을 듣게 되니라

13. 저들이 쇠사슬에 묶여 협소한 곳에[1] 버려졌을 때 여기 저기서 죽음을 애원하리라

14. 오늘에 와서 한 차례의 멸망만을 애원치 말고 거듭하여 멸망을 애원하라

15. 일러 가로되 지옥이 더 좋으뇨 아니면 의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이 더 나으뇨 그들에게는 보상과 휴식처가 있노라

16. 그들은 그 안에서 영생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갖게 될 것이라 이것이 그대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요 너희가 원했던 것이라[1]

17.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라 나의 종들을 방황케한 자들이 너희였느뇨[1]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방황하였느뇨

18. 저들이 대답하길 당신께 영광이 있으소서 우리가 당신 외에 다른 것을 보호자로 택한 것이 아니오며 당신께서 저들과 저들의 선조들에게 현세의 즐거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망각하고 멸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19. 우상들은 불신자들이 말한 것에 대하여 부정하나니 너희는 형벌로부터 회피할 수 없으며 도움도 받을 수 없노라 너희 가운데 죄지은 자는 누구든지 크나큰 벌을 맛보게 될 것이라

20. 그대 이전에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도 모두가 음식을 먹고 시장을 걸어다녔노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험 하셨노라 너희는 인내할 수 있느뇨 하나님은 실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21. 하나님 뵙기를 바라지 않는 불신자들이 말하길 왜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느뇨 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보지 못하느뇨 실로 저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불손하더라

22. 저들이 천사들을 보는 그 날 모든 죄인들에겐 아무런 기쁨이 없노라 천사들이 말하길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금지되었노라[1]

23. 하나님은 저들이 현세에서 행한 모든 것을 돌아볼 것이며 그러한 행위들을 허공에 나부끼는 먼지로 만들 것이라[1]

24. 그러나 천국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 날에 가장 좋은 거주지요 가장 좋은 휴식처에 있게 될 것이라[1]

25. 그 날 하늘과 구름이 갈라지면서 천사들이 줄을 지어 내려오니라

26. 그 날의 왕국은 하나님께 속하노라 그 날의 불신자들에게는 고역의 날이라

27. 그 날의 죄인은 자기의 손을 깨물며[1] 말하길 내가 선지자의 길을 따라야 했었노라

28. 오 슬프도다 나를 후원할 친구를 한 사람도 두지 못했단 말인가

29. 말씀이 내게 이르자 그가 꾸란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1] 유인하였나니 사탄은 모든 인간에의 반역자라

30. 선지자께서 말하길 주여 저희 백성들이[1] 꾸란을 외면하고[2] 있습니다[3]

31. 그렇듯 하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모든 예언자들에게 적이 되게 하였노라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은 그대 주님만으로 충분하니라

32. 불신자들이 말하길 왜 꾸란 전체가 한 번에[1]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했느뇨 그렇게 함은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자 점차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계시했노라[2]

33. 불신자들은 그대에게 어떤 증표도 대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대에게 진리와 가장 훌륭한 해설을 주시었노라

34. 얼굴을 수그려 지옥으로 이끌려 온 자들은 비참한 곤경에 빠지며 구원의 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방황하게 되노라

35.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1] 주고 그의 형제 아론을 보조자로 하였노라

36.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말씀을 부정한 백성에게로[1] 가라 하고 그런 후 하나님은 저들을 멸망시켰노라[2]

37. 노아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1]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익사케 하여 인류를 위한 교훈이 되도록 하고 죄인들을 위해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

38. 아드 족과 사무드 족과 라스의 주민들과[1] 그밖의 많은 세대들도 멸망케 하였노라

39. 하나님은 각자에게 비유로써 경고하고 저들 각각을 멸망시켰노라

40. 저들은[1] 재앙의 비가 내린 고을을 지나갔노라[2] 그런데도 저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느뇨 실로 저들은 부활을 바라지 않노라

41. 저들이 그대를 볼 때면 저들은 그대를 조롱하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뇨

42. 만일 우리가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우리를 우리의 신들로부터 방황케 했으리라 일러 가로되 저들이 심판의 날에 이르러 벌을 받게될 때 누가 방황하는지 알게 되리라

43. 자기의 욕망과 사욕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는 자를 보았느뇨 그대가 그에 대한 보호자가 된단 말이뇨[1]

44. 저들 불신자들이 듣고 또는 이해한다고 생각하느뇨 실로 저들은 가축들과 다를바 없나니 저들은 더욱 방황하게 될 것이라

45. 주님께서 어떻게 그림자를 길게 두시는지 그대는 알지 못하느뇨 그분이 원하셨다면 고정시킬 수도 있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을 그림자의 안내자로[1] 두셨노라

46. 그런 후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그늘을[1] 거두어 가시노라

47. 너희를 위해 밤을 덮개로 하시고[1] 수면을 두어 휴식을 갖게 하며 낮을 두어 깨어나게 하심도 바로 하나님이시라

48.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만들어 하늘에서 깨끗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49. 하나님은 그것으로 불모의 땅을 소생시켜 그분이 창조한 가축들과 사람들로 하여 마시게 하노라

50. 이렇게 하나님은 저들에게 비유를 들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염원토록 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신하고 감사할 줄 모르더라

51.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분은 각 고을마다 예언자를 보냈으리라[1]

52.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따르지 말고 꾸란으로 저들과 대적하라

53. 두 바다를[1] 두고 그 둘 사이에 장벽을 두어 각각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여 이쪽은 향긋하고 달콤하게 하사 다른 쪽은 짭짤하고 쓴 맛을 나게한 분도 하나님이시라

54. 물로 인간을 창조한 후 혈연과 결혼으로 친족이 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늘 그대의 주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니라

55. 그럼에도 저들은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는 것을 숭배하니 불신자는 주님에 거역하고 사악함을 돕는 자라

56.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복음을 전달하고 경고하기 위해서라[1]

57. 일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라

58.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라 그분은 그분 종들의 모든 잘못을 아시고 계시노라

59.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권좌에 오르셨나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에 관하여 아는 자에게[1] 물어보라

60.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누구이뇨 그대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에 경배하란 말이뇨 라고 대답하니 저들의 믿음은 멀어져 갔더라

61. 하늘에 성좌를 배치하시고 그 안에 큰 등불을[1] 두셨으며 등불과 같은 달을 두신 하나님께 축복이 충만하소서

62. 밤과 낮을 교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을 염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

63.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대지 위를 걸으매 겸허하고 무지한 자들이 시비를 하매 평안하소서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

64. 그들은 주님 앞에서 부복하고 일어서 밤을 지새우는 자들이며

65. 저희들을 지옥의 벌로부터 멀리하여 주소서 실로 지옥의 벌은 고충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며

66. 실로 지옥은 정착지와 거주지로써 좋지 않은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며

67. 돈을 쓰되 낭비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며 항상 그 사이의 중용을 택하는 자들이며

68. 하나님과 대등히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정당함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금지한 생명을 살해하지 아니하며[1] 간음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크게 벌을 받을 것이라

69. 벌을 받을 짓을 한 자는 심판의 날 곱절의 벌을 받을 것이며 그 안에서 굴욕스럽게 살 것이라

70. 그러나 회개하여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선으로 받아 주시거늘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71.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이며

72. 거짓 증언을 하지 아니하고 좋지 않은 곳을[1] 지나갈 때 멀리하며 위엄있게 스쳐가는 자이며

73.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귀머거리나 소경처럼 소홀히 하지 않는 자들이며

74. 기뻐할 수 있는 아내와 자손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정직한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

75. 이들은 인내하였으므로 가장 높이 있는 천국으로 보상받을 것이며 그 안에서 환영과 평안의 인사를 받으며

76.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얼마나 훌륭한 안식처이뇨

77.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나의 주님은 걱정하지 아니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거역한 것으로 인하여 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제 26 장
수라트 슈아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똬 씬 밈[1]
2. 이것은 꾸란의 기적으로[1] 하나님만이 그 의미를 아시니라
3. 아마도 그대는 저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대 마음이 슬퍼지리라[1]
4.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증표를 내려 저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하셨을 것이라[1]
5.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이 저들에게 이르지 아니했으니 저들은 등을 돌리었더라
6. 저들은 그 메시지를 부정하였으니 저들이 조롱했던 사실을 알게 되리라
7. 저들은 대지를 바라보지 아니하느뇨 하나님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을 생성하게 하느뇨
8. 실로 그 안에는 증표가 있거늘 그러나 저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더라
9. 실로 그대의 주님은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0. 그대의 주님이 모세를 불러 죄지은 백성[1]에게로 가라 하셨으니
11.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라오의 백성들이었더라
12. 모세가 말하길 주여 실로 저는 저들이 저를 거역하지 아니할까 두렵나이다
13. 저의 가슴이 답답하고[1] 제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2] 아론을 저와 함께 보내주소서
14. 저들이 저에게로 죄를 돌려 저를 살해할까 두렵나이다
15. 하나님께서 둘에게[1] 말씀하시길 결코 그렇지 아니 하거늘[2] 나의 증표를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너희의 기도에 응하리라
16.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라 실로 우리는 만유의 주님이 보낸 선지자라

17. 저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주소서[1] 라고 하니
18.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길 우리가 너를 자식으로 양육하였고 너는 우리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1] 살았노라
19. 네가 행한 너의 행위로 보아 너는 은혜를 배반한 자 중 하나라
20. 모세가 말하길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나의 주님과 그분의 계시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1. 그리하여 나는 당신들이 두려워 도주하였노라[1]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를 선지자들 중의 한 선지자로 선택하셨습니다
22.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취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내게 베푸는 은혜입니까 라고 하니
23. 파라오가 말하길 만유의 주님이란 무엇이뇨
24. 모세가 말하길 당신이 믿게 된다면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25. 파라오가 주위의 신하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모세가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뇨
26. 모세가 말하길 태초부터 당신들의 주님이었고 당신 선조들의 주님이셨습니다
27. 파라오가 말하길 실로 너희에게 보내어진 너희의 선지자는 미친 자라
28. 모세가 말하길 당신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실로 그분은 동쪽과 서쪽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29. 파라오가 말하길 만일 네가 나 외의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너를 투옥하리라
30. 모세가 말하길 내가 당신께 명백한 증표를 보여준다 해도 그렇습니까
31. 파라오가 말하길 만일 네가 정직한 자라면 그 증표를 보이라
32. 그리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보라 그것이 분명한 뱀으로 변하고
33. 그가 그의 손을 내미니 보라 그것은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얀색이 되었더라
34. 이때 파라오가 그의 주위에 있는 우두머리에게 말하길 실로 이 자는 숙련된 마술사라

35. 모세가 그의 마술로써 너회를 너회의 땅에서 추방하려 하니 지금 내가 어찌하면 되겠느뇨
36. 신하들이 대답하길 그와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 벌을 잠시 보류하고 여러 도시로 사람을 보내 모든 우리의 마술사들을 집합시켜
37. 능숙한 모든 마술사들을 데려 오도록 하소서
38. 그리하여 마술사들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모였더라
39. 너회도 다들 모였느뇨 라고 군중에게 소리치니
40. 군중들이 묻기를 만일 우리의 마술사들이 승리한다면 우리는 파라오의 종교를 따르게 됩니까
41. 마술사들이 와서 파라오에게 말하길 만일 저회가 승리한다면 저회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42. 파라오가 대답하길 물론이라 그렇게만 된다면 너회는 내 가까이 있을 것이라
43. 모세가 저들에게 말하길[1)] 너회가 던지려하는 것을 던져보라
44. 저들이 밧줄과 지팡이를 던지며 말하길 파라오의 권세로 우리가 승리하리라
45. 그때 모세도 그의 지팡이를 던졌더라 보라 그때 저들이 던진 것을 삼켜 버렸더라
46. 그때 파라오의 마술사들 모두가 땅에 부복하며
47. 말하길 저회는 실로 만유의 주님을 믿고
48. 모세의 주님이시며 아론의 주님을 믿나이다
49. 파라오가 말하길 내가 너회에게 허락하기 전에 모세를 믿는단 말이뇨 분명 그가 너회에게 마술을 가르쳐 준 우두머리이거늘 너회는 곧 알게 되리라 나는 너회의 손과 발을 서로 다르게[1)] 절단하여 너회 모두를 십자가에 달아 놓으리라
50. 이때 저들이[1)] 말하길 아무런 피해가 없나이다 저회는 분명 주님께로 돌아가나이다
51. 진실로 저회는 주님께서 저회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 저회가 최초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52.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기를 나의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라 너회가 추적을 당하리라

53. 파라오가 모든 도시로 심부름꾼들을 보내며[1] 말하길
54. 실로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55. 우리를 화나게 하고 있노라
56. 우리는 숫자가 많고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노라
57.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1] 낙원과 샘으로부터 추방하고
58. 보물들과 영예로운 거처에서 추방한 후
59.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노라
60. 동녘에 파라오의 군인들이 추격하여 따라오니
61. 쌍방이 서로를 보았더라 이때 모세의 추종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우리가 패배하고 있습니다
62. 모세가 말하길 결코 그렇지 아니하거늘 나의 주님께서는 나와 같이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니라
63.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여 너의 지팡이로 바다를 때리라 하니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 양쪽 부분이 거대한 산처럼 되었더라
64. 하나님은 파라오의 군대를 접근하도록 하여 익사하게 하고
65. 모세와 그리고 그를 동반한 모두를 구출한 후
66. 파라오의 군대를 익사하게 하였노라
67. 실로 그 안에는 증표가 있거늘 그래도 저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더라
68. 진실로 주님은 강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69. 저들에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려주라[1]
70.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71. 저들이[1] 대답하길 우리는 우상들을 숭배하며 이에 헌신하니라
72. 아브라함이 말하길 여러분이 기도 드릴때 우상들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던가요
73. 아니면 유익하던가요 아니면 해를 끼치던가요
74. 저들이 대답하길 그렇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온 것을 알고 있노라

75. 아브라함이 말하길 여러분은 여러분이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뇨
76. 여러분의 옛 조상들이 숭배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느뇨
77. 우상들은 나의 적으로 나는 온 누리의 주님만을 경배하노라
78.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인도하시며
79. 주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음료수를 주시며
80.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하여 주시며
81. 나의 생명을 앗아가신 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82. 심판의 날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83.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의로운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84. 다음 세대에서 제가 의로운 자로 입에 오르도록 하여 주소서
85. 축복의 낙원을 물려받는 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6. 저의 아버지에게 관용을[1]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은 방황하는 자 가운데 있었나이다
87. 부활되는 날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88. 그 날은 재산도 자식도 소용이 없는 날입니다.
89.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90.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위해 천국이 가까이 있을 것이요
91.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는 지옥이 나타날 것이며
92. 너희가 숭배하는 신들이 어디 있느뇨 라고 심문을 받으리라
93.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너희를 돕거나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느뇨
94. 이 우상들과 사악한 자들은 머리를 앞으로 하고 불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며
95. 이블리스의 군대도 그러하니라
96. 저들은 그 안에서 서로 다투면서 말할 것이라
97. 하나님이여 실로 저희가 잘못하였습니다
98. 그때 저희가 우상을 온 누리의 주님과 동등한 위치로 숭배하였나이다

99. 저희를 잘못 인도한 자는 바로 저 죄인들이었습니다
100. 그리하여 저희에게는 중재자도 없으며
101. 가까운 친구도 없나이다
102. 지금 저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희는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103. 실로 그 안에는[1] 증표가 있으나 저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104. 실로 그대의 주님은 강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05. 노아의 백성들도 선지자들을 부정했더라
106. 저들의 형제 노아가 저들에게 말하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뇨
107. 실로 나는 충실한 선지자로 너희에게 왔노라
108.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나를 따르라
109. 나는 너희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매 실로 나의 보상은 온 누리의 주님께서 주시니라
110.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나를 따르라
111. 저들이[1] 대답하길 가장 미천한 자들이 따르고 있는 너를 믿으란 말이뇨
112. 노아가 말하길 저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바 없노라
113. 저들에 대한 계산은 단지 주님께서 하시니 너희는 알고 있으리라
114. 나는 믿는 자들을 추방하는 자가 아니라[1]
115. 실로 나는 분명한 경고자라[1]
116. 저들이 말하길 노아여 네가 만일 단념하지 않는다면 너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
117. 노아가 말하길 주여 저의 백성들이 저를 거역하나이다
118. 저와 저들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고 저와 더불어 믿는 자들을 구하여 주소서
119.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와 함께 짐을 가득 싣고 배에 탄 자들을 구하였노라[1]
120. 그런 후 하나님은 뒤에 남은 자들을 익사케 했으니
121. 실로 그 안에는 증표가 있었으나 저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122. 실로 그대의 주님은 강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23. 아드의 백성도 선지자들을 배척했더라[1]
124. 저들의 형제 후드가 말하길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느뇨
125. 실로 나는 충실한 선지자로 너희에게 왔노라
126.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따르라
127. 그것으로[1]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니 나의 보상은 온 누리의 주님이 주시니라
128. 너희는 명예를 위해 높은 곳마다 높은 건물을 세우느뇨
129.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1] 궁전을 세우느뇨
130. 너희는 사람들을 마치 폭군처럼 공격했노라
131.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나를 따르라
132. 너희가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을 두려워 하라
133. 그분은 가축들과 자손들을 너희에게 주셨으며
134. 낙원과 우물도 주셨노라
135. 실로 나는 심판의 날 너희에게 내려질 벌이 두렵노라
136. 저들이 대답하길 네가 설교하든 아니하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라
137. 실로 이것은 옛 선조들의 관습에 불과하며
138. 우리는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139. 이렇듯 저들이 후드를 배척하매 하나님은 저들을 멸망시켰노라 그 안에는 증표가 있으나 저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140. 실로 그대의 주님은 강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41. 사무드의 백성도 선지자들을 배척했더라
142. 저들의 형제 살레가 저들에게 말하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뇨
143. 실로 나는 충실한 선지자로 너희에게 왔노라
144.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따르라
145. 그것으로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나니 실로 나의 보상은 온 누리의 주님께서 주시노라
146. 현실에서 너희가 소유한 것들이 너희의 향락을 위해 영원히 남아 있으리라 생각하느뇨
147. 정원과 샘터가

148. 경작지와 무르익어가는 종려나무 열매와[1]
149. 너희가 돌로 정교하게 세운 집들이 그대로 안전하리라 생각하느뇨
150.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따르라
151. 그리고 방탕한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
152. 저들은 지상에서 사악함을 행할 뿐 개선하지 않는 자들이라[1]
153. 저들이 말하길 너는 마술에 걸려 있는 자 중에 하나라
154. 너는 우리와 다를바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나니[1] 네가 진실한 자 중에 있다면 증표를[2] 대라
155. 이때 살레가 대답하길 여기 암컷의 낙타가 있나니[1] 정하여진 어느 날 이 낙타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을 것이라[2]
156. 그 낙타를 해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위대한 날 징벌이 너희를 엄습하리라
157. 그러나 저들은 그 낙타를 살해하고서 후회하였으나[1]
158. 저들에게 징벌이 내려졌노라 실로 그 안에는 증표가 있었으니 저들 대다수가 믿지 아니하였더라
159. 실로 그대의 주님은 강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60. 롯의 백성도 선지자들을 배척했더라
161. 저들의 형제 롯이 저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뇨
162. 나는 충실한 선지자로 너희에게 왔노라
163.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나를 따르라
164. 그것으로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나니 실로 나의 보상은 온 누리의 주님께서 주시니라
165. 너희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남성에게만 접근하려 하느뇨
166.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창조하신 너희 배우자들을 버려두려 하느뇨 실로 너희는 한계를 넘어선 백성들이라
167. 저들이 대답하길 롯이여 네가 단념하지 않는다면 너는 추방 당하는자 중에 있게 되리라
168. 롯이 대답하되 실로 나는 너희의 관습을 증오하노라
169. 주여 저와 저의 가족을 저들의 관습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170.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고
171. 뒤에 남아있던 늙은 한 여인과[1]
172. 다른 자들을 멸망케 하셨노라
173. 저들 위에 돌 우박을 퍼부었으니 이것은 경고를 거역한 백성에게 내려진 것이라
174. 실로 이 안에는 증표가 있으나 저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175. 실로 그대의 주님은 강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76. 메디안의 백성들도[1] 선지자들을 배척하였더라
177. 슈아이브가[1] 저들에게 말하길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뇨
178. 나는 실로 충실한 선지자로 너희에게 왔노라
179.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따르라
180. 그것으로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나니 실로 나의 보상은 온 누리의 주님께서 주시노라
181. 저울을 공정하게 달고 부정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치지 말며
182. 균형이 되도록 무게를 달라
183.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보류하지 말며 지상에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184.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 선조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185. 저들이 말하길 네가 마술에 걸려 있노라
186. 너는 우리와 같은 한 인간에 불과하노라 우리는 네가 거짓말장이라 믿노라
187. 네가 진실이라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벌을 내리게 하여 보라
188. 슈아이브 대답하길 나의 주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189. 저들은 슈아이브를 거역했으니 어둠의 날의[1] 벌이 저들을 엄습했노라 실로 그것은 위대한 날의 벌이노라
190. 실로 그 안에는 증표가 있으나 저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191. 실로 그대의 주님은 강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92. 실로 꾸란은 온 누리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193.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강하여

194. 그대 마음에 내리고 그것으로 그대가 경고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195. 명료한 아랍어로 계시했노라
196. 그것에 관한 소식은[1] 선조들의 성서에서도[2] 언급이 되었거늘
197.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학자들이[1] 사실로 인정한바 징표가 되지 않느뇨
198. 만일 하나님이 비아랍인에게 계시하여
199. 꾸란을 저들에게 낭송했더라도 저들은 믿지 아니했으리라
200.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 꾸란의 소식이 스며들게 하였지만
201. 저들은 고통스러운 벌을 목격할 때까지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202. 그 벌이 저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도래할 때
203. 저들은 말하리라 저희가 유예 될 수 없을까요
204. 저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벌을 재촉하고 있노라
205.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수년간 향락하도록 내버려 둔 것을 그대는 아느뇨
206. 약속된 벌이 드디어 저들을 엄습할 때
207. 현세에서 즐겼던 향락이 저들에게 유용하지 아니하더라
208. 하나님은 경고자를 보냈던 고을들을 멸망케 하여
209. 교훈이 되도록 하였으되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벌함에 부당하지 아니 하셨노라
210. 사탄이 꾸란을 가지고 오지 아니했으며
211. 그것은 사탄에게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할 권세도 없노라
212. 사탄은 꾸란을 듣는 기회조차도 금지되어 있었노라
213.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벌을 받는 자 중에 있게 되리라
214. 그대의 친척들에게 경고하라
215. 믿는 자 중에서 그대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대의 날개를 낮추라[1]
216. 저들이 그대를 배척한다면 일러가로되 실로 나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없노라

217. 전능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에게 의지하라
218. 그분은 예배하기 위해 홀로 서 있는[1] 그대를 지켜보고 계시며
219. 그대가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 중에[1] 있을 때도 보고 계시나니
220.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221. 일러 가로되 사탄이 누구에게 내려오는지 너희에게 일러주리요
222. 사탄은 거짓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내려 올 뿐이라
223. 귀를 기울이나 저들 대다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224. 시인들은[1] 그릇됨 속에서 방황하며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라
225. 시인들은 이성을 잃고 모든 계곡에서 방황하는 것을 너희는 보지 않했느뇨
226. 시인들은 자신들이 행하지도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노라
227.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 항상 하나님을 염원하고 박해를 받은 후에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들은 제외라 사악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자신들이 돌아갈 최후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라

제 27 장
수라트 나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똬 씬[1] 이것은 꾸란의 기적으로 하나님만이 그 의미를 알 뿐이요 사실을 밝혀주는 성서이며
2. 믿는 자들을 위한 길이요 복음이라[1]
3.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내세를 확신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4. 내세를[1] 믿지 아니한 자들의 행위들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매 저들은 방황하였으니
5. 가혹한 징벌이 저들에게 내려질 것이며 내세에 가서는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되리라
6. 그대는 현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꾸란을 계시받게 되었노라
7. 보라 모세가 그의 가족에게[1] 말하기를 내가 불을 보았으나 소식을 듣고 오거나 불꽃을 가져와 너회를 따뜻하게 하여 주겠노라[2]
8. 모세가 불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소리가 들려왔더라 불속에 있는 자와[1]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2] 축복이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3]
9. 모세야 내가 바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이시라
10. 이제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때 모세가 그것이 마치 뱀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고 뒤돌아 물러서니[1] 모세야 두려워 하지 말라 실로 선지자들은 내 앞에서 두려워 하지 아니하노라[2]
11. 잘못을 저지른 후 바로 선행으로 보답하는 자는 제외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2. 모세야 네 손을 주머니에 넣은 후 빼내어보라 아무런 상처없이 새하얀 손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네가 파라오와 그의 백성에게 보여 준 아홉가지[1] 증표 가운데 둘[2]이라 실로 저들은 죄많은 백성이라
13. 하나님의 분명한 증표가 저들에게 이르렀을 때 저들이 말하길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라

14. 저들은 그 증표를 마음속으로는 진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불의와 거만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고 있으니 죄악을 저지른 자들의 종말을 볼 것이라

15.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자 그들이 말하길 믿음이 많은 그분의 종들보다[1]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16. 솔로몬이 다윗을 상속하고[1] 말하길 백성들이여 우리는 새들의 말을 배우고 모든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라

17. 영마와 인간과 새들의 무리가 솔로몬 앞에 대열을 지여 각각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노라

18. 그들이 개미의 계곡에[1] 이르렀을 때 한 마리의 개미가 말하길 개미들아 솔로몬과 그의 군대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을 짓밟아 죽일지도 모르니 우리들 거주지로 들어가자

19. 솔로몬은 개미의 말에 웃음을 터트리며 말하길 주여 저와 저의 부모에게 베풀어 준 당시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기뻐하는 선행을 하도록 하여 주소서 당신의 은혜로서 당신의 성실한 종들 중의 한 종이 되게 하여주소서

20. 솔로몬이 새들을 불러모아 말하길 오디새가 보이지 않는데 어찌 된 일이뇨

21. 그 새가 오지 아니한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가 엄하게 다스려 그를 죽이리라

22. 얼마 후 오디새가 돌아와 말하길 저는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바[1]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3. 저는 그곳에서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는 한 여성을[1] 발견했는데 그녀는 왕권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24. 저는 그녀와 그녀의 백성들이[1]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양을 숭배하고[2]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탄들은 저들의 행위를 그럴듯하게 보여 저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했으니 저들은 지금 인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5. 저들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 하늘과 땅위에 감추어진 것에 빛을 비추시고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합니다

26. 하나님이시여 당신 외에는 신이 없으며 당신께서는 위대한 권자

의 주님이십니다
27. 솔로몬이 말하길 네가[1] 사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는지 살펴보겠노라
28. 나의 이 서신을 가지고 가서 저들에게[1] 전하고 잠시 물러나 있으면서 저들이 무어라 응답하는지[2] 기다려 보라[3]
29. 그 여왕이 말하길 족장들아 내게 고귀한 한 서신이 왔노라
30. 그것은 솔로몬으로부터 온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노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31. 나에 대항하여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나에게 복종하시오
32. 그녀가 말하길 족장들이여 이 일에 관하여 자문해 주시요 너희가 참여하지 않고는 이 일을 결정하지 못하겠소
33. 족장들이 대답하길 저희는 힘이 세고 용감합니다 명령하실 것을 숙고하여 주소서
34. 그녀가 말하길 보라 왕들이 한 도읍에 들어갈 때는 그 고을을 파괴하고 그 고을 백성들을 비천하게 하나니 저들도 그러하리라
35.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하나의 선물을 보내리니 사신들이 어떤 응답을 가지고 오는지 기다려 보겠노라[1]
36. 그리하여 여왕의 사신들이 오자 솔로몬이 저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나에게 재물을 주려하느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1] 그분께서 너희에게 준 것보다[2] 좋으니라 선물을 만끽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니라[3]
37. 돌아가라 우리는 저들이 대적할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곳으로부터 저들을 추방하리니 저들은 불명예스러운 굴욕을 맛보리라[1]
38. 솔로몬이 말하길 족장들이여 저들이 내게 귀순하여 오기 전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여왕의 옥좌를 내게 가져올 수 있느뇨
39. 영마 가운데의 한 요정이[1] 대답하길 당신께서 자리를 일어서기 전에 제가 그것을 가져오겠나이다 실로 저는 힘이 강하니 믿어 주소서
40. 성서의 지식이 풍부한 자가[1] 말하길 당신이 눈깜짝 할 사이에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은 그것이 자기곁에 있음을 보고서 말하길 이것은 내 주님의 은혜로써 이것은 내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누구든 감사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감사하는 자이며 은혜

를 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라 실로 나의 주님은 자족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41. 솔로몬이 말하길 그녀를 위해 그녀의 옥좌를 변경하라 우리는 그녀가 옳은 길로 인도되는지 아니면 인도되지 아니한지 알 수 있노라[1)]

42. 여왕이 왔을 때 이것이 당신의 옥좌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와 비슷합니다 라고 그녀가 대답하자[1)] 당신에 앞서 지혜를 부여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였더라

43. 그녀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한 것이 그녀를 방황케 했으니 실로 그녀는 불신자 가운데 있었노라

44. 그녀에게 궁궐에 들어가라 말하니 궁전을 본 그녀가 그것을 연못이라 생각하여 그녀의 치마를 걷어 올리매 솔로몬이 이것은 유리로 평탄하게 만든 궁전이라 말하니 그녀가 말하길 주여 실로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솔로몬과 더불어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나이다

45. 그후 하나님은 사무드에게 그의 형제 살레를 보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니 저들은 두 패로[1)] 나누어 싸움을 하더라

46. 이때 살레가 말하길 백성들이여 어이하여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서둘러 행하려 하느뇨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면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47. 저들이 말하길 우리는 당신과 함께함으로서[1)] 불행을 당하고 있노라 살레가 말하길 너희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나니 너희는 시험을 받고 있노라

48. 그런데 지상에 해악을 퍼뜨리고 개선하지 아니한 아홉 사람이[1)] 그 도시에[2)] 있었나니

49. 저들은 말하길 우리는 살레와 그의 가족을 밤중에 살해하고 그의 보호자에게는 그의 가족이 피살당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로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1)] 라고 말하기로 서로 맹세하자 하더라

50. 저들은 공모하고 음모를[1)] 꾸몄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노라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하였느니라

51. 저들 음모의 결과가 어떠했느뇨 보라 실로 하나님은 저들의 백성 모두를 멸망시키셨느니라

52. 이것들이 폐허된 저들의 집들이거늘 이는 저들의 죄 때문이라 실로 그 안에는 지혜가 있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53.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하셨노라

54. 롯을 한 선지자로 보내니 그가 그의 백성[1]에게 말하길 너희는 너희가 지켜보면서 죄를 범하느뇨

55. 너희는 여자가 아닌 남자들에게 성욕을 갖느뇨 실로 너희는 무지한 백성들이라

56. 그러나 그의 백성은 대답을 피하고 말하길 롯과 그의 추종자들을 이 고을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실로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57. 그러나 하나님은 롯과 그의 추종자들을 구하였으나 그의 부인은 벌 받을 자들과 함께 하도록 두었노라

58. 그리하여 하나님은 저들 위에 돌우박을 내렸으니 경고받은 자들에게의 돌우박은 불행이었노라

59. 일러 가로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선택한 그분의 종에게[1] 평안의 인사를 드리라 하나님은 저들이 숭배한 우상보다 훌륭하시니라

60.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신 분이시라 이 비로서 정원을 아름답고 무성하게 하며 그 안에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뇨 보라 저들은 벗어난 백성들이라

61. 대지를 안식처로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강들을 두셨으며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산을 세우시고 강과 바다 사이를[1] 두신 분이 누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단 말이뇨 저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62. 필요한 자가 부를 때 이에 대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악을 제거하여주사 그대들을 대지의 후계자로 하여 주신 분이 누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뇨 그런데도 너희는 숙고하지 않느뇨

63. 육지와 바다의 어둠 속으로부터 그대들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의 은혜를[1] 예고하여 주는 바람을 보내주신 분은 누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뇨 하나님은 저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64. 창조를 하시고 그후 창조를 거듭하시며 하늘과 땅으로부터 그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누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뇨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너희의 증거를 보이라

65. 일러 가로되 하나님 외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비밀을 아는 자가 없으며 또한 죽은 후 저들이 언제 부활되는지 아는 자 없노라[1)]

66. 내세에 대한 저들의 지식은 천박하여 저들은 의심할 것이거늘 저들은 그에 관하여 장님이라

67. 불신자들이 말하길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이 흙이 된 후 다시 부활 된단 말이뇨

68. 우리와 우리 선조들 이전에도 이 약속이 있었지만 이것은 옛 선조들의 전설에 불과하노라

69. 일러 가로되 대지 위를 여행하면서 죄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 살펴보라

70. 저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고 저들의 음모에 대하여 괴로워 하지도 말라

71. 그때 저들이 말하길 너희가[1)] 진실한 자들이라면 언제 이 약속이 도래하느뇨

72. 일러 가로되 너희가 서둘러 구하는 것의 일부가 너희에게 도래했는지도 모를 일이라

73. 실로 그대의 주님은 인간을 위한 은혜로 충만하시나 저들 다수는 감사할 줄 모르더라

74. 그대의 주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이 감추는 것과 나타내는 것도 아시고 계시니라

75. 하늘과 땅 위에 숨겨진 것이 없노라 그것은 분명히 성서에 기록되어 있노라

76. 실로 이 꾸란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대다수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으며

77. 실로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길이요 은혜라

78. 실로 주님께서는 저들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심판하시니 그분은 강하시고 전지하시노라

79. 하나님께 의지하라 실로 그대는 분명한 진리의 길에 있노라

80. 그대는 죽은 자로 하여금 듣게 할 수 없으며 귀머거리로 하여금 부름을 듣게 할 수 없나니 저들은 바로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이라

81. 그대는 저들의 죄악으로 장님이 된 자들을 위한 안내자도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을 믿는 무슬림 외에는 아무도 듣게 할 수 없노라

82. 저들 위에[1] 말씀이 이행될 때 대지로부터 야수를 끌어내어 그 짐승으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자들을 저주하게 하리라

83. 그 날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의 말씀을 부정한 자들을 모이게 하니 저들은 줄을 서게 되리라

84. 저들이 심판대 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니 너희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말을 부정했느뇨 아니면 알고 있었느뇨

85. 죄지은 저들 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때 저들은 말문을 열지 못하리라

86. 밤을 두어 저들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게 하고 낮을 두어 빛이 있게 하였음을 저들은 알지 못하느뇨 실로 그 안에는 믿는 백성들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87. 나팔이[1] 울리는 그 날을 상기시킬지니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두셨던 자들은 제외되나니 그들 모두는 겸손하게 그분에게 오느니라

88. 그대가 산들을 보매 견고하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구름이 지나가듯 사라지거늘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실로 그분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89. 선을 행한 자는[1] 누구든 그것으로 보상을 받으며[2] 그 날의 공포로부터 안전하노라

90.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1] 누구든 저들의 얼굴이 불속에 머물게 되나니 너희가 저지른 것 외에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느뇨

91. 나는[1] 이 도시를[2] 성역화 하여 주신 주님만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모든 것은 그분의 권능 안에 있노라 또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노라

92. 꾸란을 낭송하도록 명령 받았으니 옳은 길을 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가는 자이며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일러 가로되 내가 바로 저들을 위한 경고자라

93.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너희에게 증표를 보여주시리니 곧 너희가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제 28 장
수라트 알까싸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따 씬 밈[1)]
2. 이것은 사실을 밝혀주는 꾸란의 한 기적이라
3. 하나님이 모세와 파라오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에게 사실대로 전하니[1)] 이는 믿는 백성을 위한 교훈이라
4. 파라오는 그의 땅 위에서[1)] 오만하였고 그의 백성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그 가운데 한 무리를[2)] 박해하였으니 남아들을 살해하고 여아들만 살려 놓았으매[3)] 실로 그는 사악한 자 가운데 하나였노라
5.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학대받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1)] 그들을 신앙의 지도자가 되게하고 또 그들을 후계자로 하고자 하였으매
6. 그 땅에서[1)] 그들에게[2)] 권능을 부여하여 파라오와 하만과[3)] 저들의 군대로 하여금 저들이 경고받았던 것을 지켜보도록 하였노라
7.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에게 계시하여 그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고 만일 그의 신변에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를 강물로 던지되[1)]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를 너에게로 돌려줄 것이며 그를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만들 것이라 하셨노라
8. 파라오의 가문에서 그를 건져내어 양육하였으매 그는 저들에게 적이 되었고 저들에게 슬픔의 원인이 되었으니 파라오와 하만과 저들의 군대가 죄지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
9. 파라오의 아내는 말하였더라 이 아이는 나와 당신을 위한 기둥이니 이 아이를 살해하지 마소서 그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를 우리의 아들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1)] 이렇듯 저들은 그로 인하여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더라
10. 모세의 어머니는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생각밖엔 없었으니 하나님이 그녀로 하여금 믿는 자 가운데 있도록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아니했다면 그녀는 아들의 정체를[1)] 드러냈으리라
11. 어머니가[1)] 모세의 누이에게 일러 그를[2)] 따르라 하니 그녀는[3)] 그를[4)]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더라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하였노라
12.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유모의 젖을 빨지 않도록 하였으니 그때

그의 누이가 나타나 말하길[1] 당신들을 위해 이 아이를 양육할 한 가문을 소개할까요 그들은 성실히 그를 돌볼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니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차고 그녀는 슬퍼하지도 아니 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알게 되었더라 그러나 저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였노라

14. 그가 성장하여[1] 성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총명함과 지혜를 주었나니 이렇듯 하나님은 선을 실천하는 자에게 보상하노라

15. 그는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1] 그 도시에[2] 들어가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으니 한 사람은 그의 편이었고[3] 다른 한 사람은 적이었더라[4] 그 때 그의 편이었던 사람이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니 모세는 그의 주먹으로 그를 때려 죽게하고 말하였더라 이것은 사탄의 짓이라[5] 실로 그는 유혹하는 적이라

16. 모세가 기도하였더라 주여 실로 제가 제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1]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으니 실로 그분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7. 모세가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로 저는 사악한 자 편에 결코 있지 않겠나이다

18. 모세가 그 도시 안에서[1] 두려움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노라니 보라 어제 그의 도움을 청했던 그가 또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더뇨 모세가 그에게 말하길 실로 당신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라

19. 그래서 모세가 둘에게의[1] 적이었던 그를[2] 붙잡으려 하였을 때 그가[3] 말했더라 모세여 어제 한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뇨 당신은 지상에서 폭군이 되려하는 것 외에는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느뇨

20. 이때 그 도시로부터 어느 한 남자가[1] 달려와 말하길 모세여 족장들이 당신을 살해하려 공모하고 있나니 곧 떠나시요 실로 나는 당신께 진실로 충고하나이다

21. 모세는 두려움으로 주위를 살피며 그곳으로부터 나가며 말하였더라 주여 이 사악한 백성들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소서

22. 모세가 마드얀 땅을[1] 향하여 가며 기원하길 주께서 평탄하고 옳은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23. 그가 마드얀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가축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목동들과 그들 외에도 가축들을 지키고 있는 두 여인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뇨[1] 라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목동들이 그들

의 양들을 우물로부터 데리고 갈 때까지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대단히 연로하셨습니다[2] 하였더라

24. 그래서 그는 두 여인을 위하여 양에게 물을 먹여주고 나무그늘 아래 앉아[1] 말했더라 주여 당신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나이다

25. 그때 두 여인 중의 한 여인이 수줍어하며 모세에게로 다가와 말하길 저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초대하여 저희를 위하여 양에게 물을 먹여준 은혜에 보답하려 하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성의 아버지에게로 가 이야기를[1] 하였더니 그 여성의 아버지가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시요 당신은 사악한 백성들로부터 구제되었습니다

26. 두 여인 중 한 여인이 말하길 아버지 그를 고용하소서[1] 그는 아버지께서 고용하고자 한 가장 훌륭한 자 중에 한 사람으로 힘이 세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27. 아버지가 말했더라 내가 내 두 딸 중의 한 딸을 나를 위해 팔년 동안 봉사할 조건으로 내가 내 두 딸 중의 한 딸을 당신에게 결혼시키고자 함이라 당신이 십년을 채우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며 내가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부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신은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28. 모세가 대답하였더라 이것은 저와 당신 사이의 약속으로 두가지 조건 중의[1] 하나를 수행해도 저에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29. 모세가 그 기간을 채우고[1] 그의 가족과[2] 함께 여행을[3] 하던 중에 뚜르산 방향에서 불을 발견하고 그의 가족에게[4] 말하길 멈추시요 내가 불을 보았나니 내가 그곳으로부터 너희에게 소식을 가져오리라 아니면 불덩이를 가져와 당신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리라

30. 모세가 그곳에[1] 이르렀을 때 축복받은 나무가 있는 그 계곡의 오른편으로부터 소리가 들려 왔으니 모세야 실로 내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라

31. 너의 지팡이를 던져보라 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그때 그것이 마치 뱀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으매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니 모세야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두려워 하지 말라 실로 너는 믿는자 중에 있노라

32. 네 손을 주머니에 넣은 후 빼어보라 얼룩 한 점 없는 새하얀 손이 되어 나오리라 네 손을 너에게 가까이 하여[1] 무서움을 제지하라 이것이 너의 주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족장들에게 보여준 두개의 예증이니[2] 실로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라

33. 모세가 말하길 주여 제가 그들중의 한명을[1] 살해하였나이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를 살해할까 두렵나이다

34. 저의 형제 아론은 저보다 웅변에 능숙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저의 원조자로써 저와 함께 보내어 주소서 그가 저의 진실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실로 저는 그들이 저를 위선자라고 비난하지 아니할까 두렵나이다

35.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우리가 너의 팔을 튼튼하게 하리라 또한 우리는 형제를 통하여 너희 둘을 권능케 하리니 그들이 너희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예증으로써 너희 두 형제와 너희를 따르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

36. 모세가 하나님의 예증을[1] 가지고 그들에게[2]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말하길 이것은 위조된 마술에 불과하도다 우리는 결코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것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도다 하니

37. 모세가 말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복음을 가져 왔으며 내세의 은혜가 누구의 것인지 나의 주님께서는 아심으로 충만하시니 실로 죄지은 자들은 번성하지 못하리라

38. 파라오가 말하길 족장들이여 나 외에는 너희를 위한 어떤 신도 내가 아는바 없나니 하만아 진흙으로 벽돌을 구어[1] 내가 모세의 신을 볼 수 있도록 높은 궁전을 짓도록 하라 실로 나는[2] 그가[3] 거짓말 하는자라 생각하니라

39. 파라오와 그의 족장들과 군대는 그 땅에서 거만하고 오만하여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귀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더라[1]

40. 하나님이 그와 그의 군대를 바다속에 익사케 하였으니 죄지은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보라

41.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 이르는 인솔자가 되게 하였으니 부활의 날 그들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리라

42.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현세에서 저주를 받게 하였으니 심판의 날 그들은 경멸받는 자 가운데 있으리라

43. 하나님이 전세대들을[1] 멸망케 한 후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나니 이로하여 백성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되며 교훈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2] 은혜가 되도록 하였노라

44.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내릴 때 그대는 서산에[1] 있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증인 가운데 있지도 아니하였노라[2]

45. 하나님은 여러 세대를 일으키어 오랜 세월을 두니 말씀을 망각하였더라[1] 그대가 마드얀의 백성 가운데 거주하지 아니 했으나 그

대에게 계시하나니 하나님 말을 그들에게 낭송하라 그대를 선지자로 하여 말씀을 보낸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46.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대는 뚜르산 중턱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으나[1] 주님께서 너회에게 은혜를 베풀었나니 이로 하여 그대가 너회 이전에 예언자가 오지 아니한 백성에게[2] 경고하여 그들이 교훈을 얻도록 함이라

47. 만일 하나님이 그대를 선지자로 보내지 아니하여 그들에게[1]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리라 주여 당신께서는 어이하여 저회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나이까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믿는 자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48.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1] 진리가[2]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말하길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들이[3] 왜 그대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했느뇨 라고 말하나 보라 그들은[4] 모세에게 주어진 것을 믿었던가 또 그들이 말하길 두 마술사가 서로가 서로를 후원하고 있나니[5] 우리는 모두를 부정하노라 하더라

49. 그들에게 일러가로되 이 두권의[1] 성서보다 더 나은 다른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라 너회가 진실이라면 내가[2] 그것을 따르리라

50. 그들이[1] 그대에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단지 저속한 욕망을 따랐을 뿐이니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저속한 욕망을 따른 자 보다 더 방황한자 누구이뇨 실로 하나님은 죄지은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노라

51. 하나님은 그들에게[1] 말씀을[2] 전했나니 이로 인하여 그들이 교훈을 얻도록 함이라

52.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서를 받은 이들은[1] 그것을[2] 믿고 있나니

53. 그것이[1] 그들에게 계시될 때 그들은 저회는 그것을 믿나이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이나니 저회는 이전에도 무슬림 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

54. 그들은 두배의[1] 보상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인내[2]하였고 악을 선으로 이겨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양식을 자선으로 베풀었기 때문이라

55. 그들이[1] 공허한 말을 들을 때에는 등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이 있고 너회에게는 너회의 할 일이 있나니 당신들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

56. 그대는 그대가 사랑하는 자를[1] 인도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인도하시니 그분은 인도받을 자들을 아시니라

57. 그들은[1] 말하길 우리가 그대와 함께 복음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붙잡혀 가니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안전한 성역을 마련하여 그곳에 우리의 양식인 모든 종류의 과일을 주지 아니했더뇨 그들 대다수가 알지 못하더라

58. 하나님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많은 세대를 멸망케 했으니 이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주거지는 황폐되고 초라한 것 뿐이며 또한 우리가 상속하였노라

59. 주님께서 도읍을 멸망케 하실 때는 그 도읍에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낭송케 한 이후로 하나님이 그 도읍을 멸망케 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

60. 너희에게 주어진 물질은 현세의 일시적 향락과 허식에 불과하되 하나님께 있는 것은 선이요 영원한 것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61.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약속을 받아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자와[1] 하나님이 베푼 현세의 향락만을 즐기다가 부활의 날에 벌을 받는 자가[2] 같을 수 있느뇨[3]

62.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너희가 주장한 나 외에 대적할 자가[1] 어디에 있느뇨 물으시매

63. 판결을 받은 그들은 주여 이들이[1] 저희를 방황케했던 자들로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방황케 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들을 방황케 하였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밝히나니 저희는 그들과 관계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 했노라

64. 너희 동반자들에게[1] 구원을 요청하라 불신자에게 말씀이 있어 그들이 우상들을 부르나 우상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니 그들이 징벌을 목격하고서야 바른길을 따를 것을 하고 후회하더라

65.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선지자들에게 무어라고 대답했느뇨 라고 물으시매

66. 그때의 모든 이야기가 몽롱하여지니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묻지도 못하더라[1]

67.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며 선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는자 중에 있게 되리라

68.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나니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그들이 비유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69. 주님께서는 그들이[1] 마음에 숨기고 있는 것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시니라

70.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현세와 내세에서의 모든 영광이 그분의 것이라 심판하심도 그분이시니 너희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71. 일러 가로되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에 밤을 심판의 날까지 지속시켰다면 하나님 외에 어느 신이 너희에게 빛을 줄 수 있겠느뇨 너희들은 듣고 있지 않느뇨

72. 일러 가로되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에 심판의 그날까지 낮을 지속시켰다면 하나님 외에 어느 신이 너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밤을 가져다 주겠느뇨 너희는 보고 있지 않느뇨

73.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은 밤과 낮이 있도록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양식을 구하며[1] 하나님에게 감사하도록 함이라

74.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1] 불러 너희가 주장한 나에게 대적할 자가 어디에 있느뇨 라고 물으시리라

75. 하나님은 각 세대에서 각 증인을[1] 불러내어 너희의 증거를 제시하게 하리니 이때 그들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으며 그들이 꾸민 허위는 그들을 곤경에 버려둔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76. 고라는[1] 모세의 백성이었으나 그는 그들에게[2] 오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물을 주고 힘센 남자들의 무리가 짊어질 수도 없는 보물창고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이라 보라 이때 그의[3] 백성들은 그에게 오만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가진 것으로 오만한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하였노라

77.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준 것으로 내세의 안식처를 구하라 그리고 현세에서 너의 몫을 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베푸셨던 것처럼 선을 베풀되 땅 위에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해악을 퍼뜨리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78. 그가[1] 대답하길 내가 가진 지혜로 말미암아 재물이 내게 주어졌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다 힘이 강하고 재산이 그보다 더 많았던 이전 세대들을 멸망케 한 것을 그는 알지 못하였느뇨 죄인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질문도 받을 필요가 없노라

79. 그가 단장을 하고 그의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 현세의 삶을 갈구하던 자들이 말하길 고라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실로 그는 위대한 행운의 주인공이라 하더라

80.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가 가엾도다 내

세에 있을 하나님의 보상은 믿음으로 선을 실천한 자의 것으로 누구나 얻을 수 없노라 인내하며 선을 실천하는 자의 것이라

81. 하나님은 대지로 하여금 그와[1] 그의 거주지를 삼키도록 하였나니 하나님에 대적하여 그를 도울 무리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었노라

82. 이때 어제까지 그의 지위를 부러워 했던 이들이 말하길 하나님이 원하사 그분의 종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거나 감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분은 대지로 하여금 우리를 삼켜버리도록 하였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코 번성하지 못하노라

83. 하나님은 거만해 하지 아니하고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아니한 이들에게 내세의 안식을 주리니 축복 받은 종말은 사악함을 멀리하는 이들을 위해 있노라

84. 선을 실천하는 자 그들은 그것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게되며 악을 퍼뜨리는 자 그들이 행한 것으로 벌을 받을 것이라

85. 실로 그대에게 꾸란을 계시하신 분이 그대로 하여금 돌아갈 곳으로[1] 돌아가게 하시리라 일러가로되 주님께서는 인도하는 자가 누구이며 방황케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노라

86. 그 성서가[1] 그대에게 계시되니라 그대는 예기치 아니했으나 그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은혜라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후원하는 자가 되지 말라

87. 말씀이 너희에게 계시된 이후 불신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함을 방심하지 말며 사람들을 너희 주님께로 인도하되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가운데 있지 말라

88.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멸망하고 심판하심도 그분이시니 너희 모두는 그분께로 돌아가니라

제 29 장
수라트 알안카부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밈[1)]

2. 우리는 믿습이다 라고만 말하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느뇨[1)]

3. 하나님은 이미 이전의 사람들을 시험하였듯이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식별하시니라

4. 사악함을 행하는 자들은[1)]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뇨 실로 그들의 판단이 사악함이라

5. 하나님 영접하기를 희망하는 자여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노라[1)]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노라

6. 믿음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1)] 곧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거늘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사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치 아니하노라

7.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며 그들이 행한 가장 훌륭한 행위에 따라 보상하리라

8.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1)] 너희로 하여금 나 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을 숭배하라 강요한다면 그들에게 순종하지 말라 너희는 곧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라

9.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이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가운데[1)] 들게 하리라

10. 사람들 중에는 저희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라고 말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박해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승리가 이를 때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있었도다[1)] 라고 말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11.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자들과 믿음을 가장하는 위선자들을 잘 아시노라

12. 불신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길을 따르라 우리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리라고 말하나 그들의 죄도 대신할 수 없나니 실로 그들은 거짓말장이라

13.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짐과 그밖의 다른 짐들을 심판의 날에 짊어지고 와 그들이 거짓을 꾸몄던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리라

14. 하나님은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오십년이 모자란 천년을[1] 머물게 하였을 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대홍수가 그들을 덮치게 했노라

15.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리고 방주에 있던 추종자들을 구하여 그것을 온 백성을 위한 예증으로 하였노라

16. 아브라함도 구했으니 그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분을 두려워 하라 너희가 아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하였더라[1]

17. 실로 너희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꾸미고 있을 뿐이라 하나님 외에 너희가 숭배하는 것들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능력이 없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라 너희 모두가 그분께로 돌아가니라

18. 너희 이전의 백성들이 그랬듯이 너희들이 그 말씀을 거역한다 하여도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라 선지자는 그 메세지를 전하는 것 뿐이라

19.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재창조하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지 않느뇨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20. 대지 위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후기의 창조가 어떠한가를 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하심이라

21.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그분에게로 귀의하노라

22. 너희가 지상에 있든 또는 하늘에 있든 너희는 그분의 계획을 좌절케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너희를 보호할 자가 아무도 없노라

23.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상봉을 불신하는 자들은 나의 은혜를 포기한 것이며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24. 그가[1] 그의 백성을 인도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으니 그를 살해하라 아니면 불에 태워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그를

구하였으니 이 안에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25. 그가[1] 말하길 현세에서 너희들간의 상호이익을 위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느뇨 그러나 심판의 날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저주하게 되나니 너희의 거주지는 불지옥으로 어떤 구원자도 너희를 구원치 못하노라

26. 그러나 롯은[1] 그를[2] 따랐으니 그가[3] 말하길 실로 나는 주님께 안식처를 찾나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7. 하나님은 그에게[1] 이삭과 야곱을 주어 그의 자손들 중에서 예언자로[2] 선택하여 성서를 주었으며 그에게[3] 현세의 보상을 베풀었고 내세에서는 의로운 자 중에 있게 하였노라

28. 그리고 롯이 그의 백성에게 말했더라 너희는 일찌기 너희 백성도 그러한 적이 없는 음란한 행위를[1] 저지는 죄인들이라

29. 너희는 남성에게 성욕을 갖고 여행자의 길을 막아 물건을 빼앗으며 너희가 모인 곳에서조차 사악한 행위를 하느뇨 하니 네가[1] 진실을 말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벌이 이르게 하라고 하더라

30. 이때 그가[1] 주여 사악한 백성들로부터 저를 구하여주소서 라고 말하였더라

31. 하나님의 천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우리가 이 고을의 백성들을[1] 그들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하니

32. 그가[1] 말하길 그 안에는 롯이 있나이다 라고 하매 그들이[2] 말하였더라 우리는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나니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구하되 그의 아내는 제외라 그녀가 뒤에 남아 있었던 자들 중에[3] 있었기 때문이라

33.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렀을 때 그는 그들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으며 스스로 그들을 보호할 힘이 없음을 느꼈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두려워 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가 그대와 그대의 추종자들을 구할 것이되 그대의 아내는 제외라 그녀가 뒤에 남아 있었던 자들 중에 있었기 때문이라

34. 실로 하나님께서 이 고을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벌을 내리게 하리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라

35.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해하는 백성을 위하여 한 예증을 남겼노라

36. 마드얀의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슈아이브를 보내매 그가 말하였

더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최후의 날을 두려워하며 지상에서 사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37. 그러나 그들은 그를[1] 거역하였으니 큰 지진이 그들을 엄습하매 그들은 그들의 주거지 안에서 넘어져 움직일 수 없는 몸들이 되었더라

38. 아드와 사무드 백성의 이야기를 상기할지니 그들 주거지의 황폐함이 너회에게 명백하리라 사탄은 꾸며진 행위로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바른 길에서 이탈케 하였노라 그들 백성에게는[1] 지혜와 기술도 있었노라

39. 고라와 파라오와 하만의 이야기를 상기할지니 모세가 예증을 가지고 그대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지상에서 오만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었노라

40. 하나님은 그들 각자의 죄악에 따라 벌하였으니 그들 중에는 돌 폭풍우로 벌을 받은 백성이[1] 있고 큰 벼락을 맞은 백성도[2]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대지로 하여금 그들을[3] 삼켜버리도록 하였고 또 물에 익사하게도[4] 하였노라 이것은 곧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욕되게 한 것 뿐이라

41.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비유하사 스스로를 위해 집을 짓는 거미와 같나니 가장 허약한 집이 거미의 집임을 너회는 알 것이라

42.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모두 아시고 계시나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43. 하나님이 비유를 드사 이것은 온 백성을 위해서라 지혜 있는 자들은 이해하리라

44. 하나님은 천지를 진리로써 창조하셨나니 이 안에는 믿는 자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45. 그대에게 계시된 그 성서를[1] 낭송하며[2]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수치와 그릇된 행위를 예방하여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은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심할 바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46. 성서의 백성들을 인도함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되 논쟁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 중에 사악함으로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일러가로되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1] 너회에게 계시된 것을[2] 믿노라 우리의 하나님과 너회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순종함이라

47.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에게 그 성서를[1] 계시했노라 그리하여 그 성서의 백성들은[2] 믿는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것을 믿었느니 불신자들을[3] 제외하고는 믿지 아니한 자가 없었노라

48. 그대는 이 성서가[1] 계시되기 전에 글을 읽을 수 없었으며 그대의 바른 손으로 쓸 수도 없었거늘 만일 그대가 그럴 수 있었다면[2] 불신자들은 그것을[3] 의심하였으리라

49.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니 지혜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분명한 예증이 있나니 불신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아니하니라

50. 그들은[1] 왜 그의 주님께서 그에게[2] 예증을[3] 내리지 않느뇨 라고 말하나 일러가로되 그 예증들은 실로 하나님께 있으며 나는 분명한 경고자라

51.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하여 그들에게[1] 낭송된 그 성서가 그들에게 예증으로 충분하지 않단 말이뇨 실로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은혜와 교훈이 있노라

52. 일러 가로되 나와 너회 사이의 증인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나니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위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노라

53. 그들이[1] 벌을 재촉하여 그대에게 요청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정기간 유예하지 아니했다면 이미 그들에게 벌이 있었을 것이라 또한 갑자기 벌이 그들에게 내릴것이되 그들은 알지 못하니라

54. 그들이 그대에게 벌을 재촉하니 지옥이 믿음을 거역하는 자들로 가득하리라

55. 벌이 그들을 에워싸는 날 위로부터 벌이 있을 것이요 아래로부터도 벌이 있을 것이며 너회가 행한 결과를 맛보라 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

56. 믿음을 가진 나의 종들이여 나의 대지가 방대하노라 그러므로 너회가 나만을 홀로 섬기라

57.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58.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밑으로 강이 흐르는 천국에 높은 저택을 주리라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니 이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

59. 이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이라

60.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피조물이 얼마나 많으뇨 너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듣

고 아시기 때문이라[1]

61.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뇨 라고 그대가 그들에게[1] 묻는다면 하나님 이라고 그들은 대답할 것이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찌하여 진리에서 벗어나 유혹되어 있느뇨

62.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종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기도 하고 제한하시기도 하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노라

63.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사 죽은 대지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뇨 라고 그대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대답하리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더라

64. 현세의 삶은 향락과 오락에 불과하나 그들이 내세의 집을 안다면 그것은 곧 생명이니라

65. 그들이 배에 오를 때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귀의하나[1] 그분에 의해 안전하게 육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보라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더라

66.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망각하며 현세만의 향락을 쫓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67.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약탈됨에[1] 하나님이 성역을[2] 두어 안전케 하였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실로 그들은[3]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면서 무익한 것을 믿고 있을 뿐이라

68. 사악한 자 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며 꾸란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 그 진리를 거역한자로 믿음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되니라

69.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는 자들은[1] 그분의 길로 인도되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제 30 장
수라트 루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밈[1)]
2. 로마는[1)] 망하였으되
3. 가까운 지역에서[1)] 비록 그들이 패배하였지만 승리를 거두리라[2)]
4. 몇년 안에[1)] 하나님은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을 통치하시리니 그 때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리라[2)]
5.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승리케 하시니[1)] 그분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 하심이라
6.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7. 그들은 현세의 외형만을[1)] 알뿐 내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노라
8. 그들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지 아니 하느뇨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진리로 창조하셨으며 정하여진 기한을 두셨으니[1)]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주님과의 상봉을 불신하고 있노라
9. 그들은 대지 위를 여행하면서 그들 이전 선조들의 말로가 어떠했음을 알지 못하느뇨 저들은 그들보다 강하였고[1)] 땅을 일구어 저들의 번성함 보다 더 번성하였으며[2)] 선지자들이 말씀을[3)] 가지고 왔으나 그들은 거절하여 멸망하였더라 그들을 해함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노라
10. 악은 악을 저지른자의 말로이니[1)]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2)] 부정하였고 조롱하였노라
11. 하나님은 창조를 개시하사 그것을 되풀이 하시니[1)] 너희는 그분에게로 귀의하노라[2)]
12. 심판의 날이 오는 날 죄인들은 절망 하리라
13. 그들은[1)] 그들의 동반자들 가운데서[2)] 중재자를 갖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동반자들은 이를 부정할 것이라

14.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 그때 그들은 서로 헤어지니라[1)]
15.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환대를 받을 것이요[1)]
16.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에서의 상봉을 불신하며 이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1)] 벌이 있으리라
17. 그러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면[1)] 하나님을 찬양하라
18. 천지의 모든 것이[1)] 저녁 때와[2)] 한낮에[3)] 그분을 찬미하노라
19. 하나님은 죽은 자를 소생케 하시고 산자를 임종케 하시며 죽은 대지를 생동케 하시니 그와 같이 너희들도 다시 살아나리라
20. 너희가[1)] 흙에서 창조되어 인간으로서[2)] 번성하게 됨도 그분의 예증의 하나라
21. 너희 자신들로 부터 배필을[1)] 창조하여 그 배필과 함께 살게 하심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며 그분은 또한 너희간에 사랑과 자비를 주셨으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22.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언어들과 피부색을 달리 창조 하셨음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시니 실로 그 안에는 전 인류를 위한 예증이 있노라
23. 밤에는 잠을 자게 하고 낮에는 그분의 은혜로부터 양식을 구하게 함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거늘 실로 그 안에는 듣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24. 공포와 희망을 갖도록 너희들에게 번갯불을 보이심과 하늘로 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불모지의 땅을 생동케 하심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시니 실로 그 안에는 지혜가 있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25. 하늘과 대지가 그분 명령에 의해 존재함과 그분께서 너희를 지상으로부터 부르실 때 너희가 재현됨도 그분 예증의 하나라[1)]
26. 하늘과 대지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 모든 것이 그분께 순종하노라
27. 창조를 개시하신 후 다시 되풀이 하심도 그분이시니 그것은 그분께 쉬운 일이라 그분은 하늘과 땅위에서 완전함으로 존재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8.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들에 관한 예를 드셨노라 너희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1)] 가운데서 우리가 너희에게 베푼 일용할 양식에 동등하게 분배받을 자가 있느뇨[2)] 너희가 서로를 두려워 하듯 너희는 두려워 하느뇨[3)]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해하는

백성을 위해 말씀을 분명케 하노라

29. 그러나 지식을 회피하며 그들의 저속한 향락을 따르는 자들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 저들을 누가 인도하리요 그들에게는 어떤 구원자도 없노라

30. 그러므로 그대의 얼굴을 확고히 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향하라[1] 창조된 인간의 본성에 근본을 두고 이 종교를 두셨노라[2] 하나님의 창조성은 변경되지 아니하매 그것이 진리의 종교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31.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그분을 두려워 할 것이며 예배를 드리어 불신하는 자들 중에 있지 말라

32. 그들의 종교를 분리하여 한 무리가[1] 되매 각 무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기뻐하더라

33. 재난이 인간에게 이를때면 주님을 향하여 부르나 그분께서 그로하여 은혜를 맛보게 할 때면 보라 그들중의 무리는 주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니라[1]

34. 그들은[1]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저버림과 같음이라 잠시 향락하라 너회는 곧 알게 되리라

35. 혹은[1]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한을 주어 불신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말하도록 하였단 말이뇨

36.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맛보게 할 때면 그들은 그것으로 기뻐하나 그들의 손이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이를때 보라 그들은 절망에 빠지노라

37.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자마다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나 제한하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그 안에는 믿는 백성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38. 그러므로 친척과 필요로 하는 자와 여행자에게 자선을 베풀라[1]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2]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번영하리라

39.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1] 증가시킨 것은 하나님 곁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될 수 없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2] 구하기 위하여 이슬람세로 이익을 증가함은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게 되니라

40. 너회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는 너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또한 그분께서는 너회의 생명을 앗아가며 또 너회에게 생명을 주시노라 너회가 섬기는 우상중에 이러한 일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우상이 있느뇨 그러므로 그분을 찬미

하라 그분은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시니라

41. 인간의 손이[1] 저지른 부패가 육지와 바다에 만연했나니 그들이 행했던 일부를 맛보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니[2]

42. 일러 가로되 지상을 여행하여 그대 이전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라[1] 그들 대다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였노라

43.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날이[1] 도래하기 전에 그대의[2] 얼굴을 올바른 종교로 향하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두 무리로[3] 나누어 지노라

44. 믿음을 거역한 자들은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선행을 실천한 신앙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보상이 있으리라

45.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보상이라 그분은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46. 하나님의 예증 가운데 하나는 바람을[1] 보내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과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과[2] 배들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항해하는 것과[3] 너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것과 너희가 이에 감사하는 것이라

47. 실로 하나님이 그대 이전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매 그들 선지자는 분명한 예증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노라 죄지은 백성들에게 벌을 내렸고 믿는 백성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라[1]

48.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니 그것이[1] 구름을 일으키도다 이에 그분이 뜻을 두어 그것이 하늘에 퍼지도록 하고 때로는 조각구름으로 하니 그 사이에서 비가 내림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후 그분이 뜻을 둔 종들에게 이르게 하니 보라 그들은 기뻐 하니라

49. 그들에게 비가 내리기 바로 이전에 그들은 실망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으니

50.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예증을 보라 그분께서 죽은 대지를 어떻게 생동케 하느뇨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죽은자를 살게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라

51. 만일 바람을 보내어 그들의 경작지가 노랗게 됨을 볼 때 보라 그래도 그들은 불신을 계속 함이라

52. 실로 그대는 죽은자로 하여금 듣게 할 수 없으며 귀머거리로 하여금 부름을 듣게 할 수 없나니 그때 그들은 그들의 등을 돌리며 도망 하리라[1]

53. 그대는 길을 벗어난 장님을 되돌아 오게 할 수 없으며 단지 하나님의 예증을 믿어 순종하는 그들만을 듣게 할 수 있노라

54. 너희를 허약한 상태로 창조하신 후[1] 허약한 너희에게 강함을 주시고[2] 강한 너희에게 다시 허약함과 백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3]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 하시니 그분은 아심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다

55. 시간이 도래할 때 죄인들은 한 시간밖에 체류하지 아니했다 맹세하리라 이렇게 그들은 유혹 되곤 했노라

56. 그러나 지혜와 믿음을 소유한 자는 말하리니 실로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부활의 날까지 체류했으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

57. 그날 그들의 변명은 죄인들을 유용케 하지 못할 것이며 회개하여 은혜를 구함에 초대도 받지 못하리라

58.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 꾸란에 모든 종류의 비유를 들었노라 그러나 그대가 어떤 증표를[1] 그들에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신자들은 그대는 단지 거짓장이에 불과하니 라고 말할 것이라

59.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봉하였노라

60. 인내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리라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대의 신념을 동요하도록 두지 말라

제 31 장
수라트 루끄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밈[1]
2.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성서의 말씀이며[1]
3.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며 자비라
4.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내세를 확신하도다[1]
5.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을 자요 이들이 번성할 자들이라
6.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무익한 이야기로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의 길을 탈선케 하거나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나니[1] 그들은 굴욕적인 벌을 받게 되리라[2]
7.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낭송 될 때면 그의 두 귀가 벙어리로 마치 그것을 듣지 않는것처럼 오만을 피우니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라
8. 그러나 실로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천국이 있거늘
9. 그 안에서 영생하니라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이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10. 하나님은 너회가 보듯 기둥없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대지 위에 고정된 산을 세워 너회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 하도록 하였으며 그 안에 모든 동물이 번성하도록 하셨도다 또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그 안에 온갖 귀한 종들이 자웅으로 자라게 하셨노라
11.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거늘 그분 외에 누가 무엇을 창조했느뇨 내게 보여다오 그러나 죄인들은 분명히 잘못속에 빠져있노라
12. 하나님은 루끄만에게 지혜를[1] 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했거늘 감사를 드리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족하시며 은혜로우시니라
13. 루끄만이 그의 아들에게 훈계하사[1] 아들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을 불신함이 가장 큰 죄악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여 부모를 존경하라 했거늘 그의 어머니는 태아를 가짐과 이년간 젖을 먹이므로 말미암아 허약하여지니라 내게 감사하고 그리고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내게로 옴이 최후이니라

15. 그러나 부모가 그대로 하여금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케 하여 나를 불신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1)] 현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게로 향해 회개하는 자의 길을 따르라 그후 너희는 내게로 귀의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행한 일들을 알려 주리라

16. 나의 아들아[1)] 겨자씨 만큼이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돌속에 있던 하늘위에 있던 깊은 땅속에 있던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추어 내시거늘 실로 하나님은 세심히 아시는 분이시라

17. 나의 아들아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며 네가 당하는 모든 것에 인내하라 이것은 실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니라[1)]

18. 그리고 너의 얼굴을 돌려 사람들을 경멸하지 말것이며 걸음을 걸을 때면 거만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사랑하시지 아니 하니라

19. 걸을 때는 겸손하고 너의 목소리를 낮추어라 가장 증오스러운 목소리는 당나귀 같은 소리라

20.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속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용하도록 하였으며 그분의 은혜를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너희를 위해 완성하셨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사람들 중에는 지식도 없고 인도 받음도 없이 그리고 그들을 교화시키는 성서도 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논쟁하는자가 있더라[1)]

21.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따르라 하니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하는대로 하리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이는 실로 사탄이 그들을 타오르는 불지옥의 형벌로 유혹함이 아니더뇨

22.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가장 단단한 손잡이를 붙잡으니 만사의 종결이 하나님께 있게 되니라

23. 믿음을 거역한자 있다 하여 그의 불신이 그대를 슬프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하나님께 귀의하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알려 주리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 속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24. 하나님은 잠시 그들로 하여금 향락케 하다가 그들을 엄한 벌로 유도하니라[1)]

25. 만일 그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고 그들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라 말하리라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26.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나니 실로 하나님은 풍요와 자비로 충만 하심이라

27. 지상에 있는 모든 수목이 연필이 되고 일곱개의 바다를 더하여 물로 가득찬 바다가 잉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모두를 기록할 수는 없나니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8. 너회를 창조하고 또 부활시키는 것은 한 생명을 창조하고 부활하는 정도와 같아서 실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노라

29. 하나님께서는 낮 다음에 밤이 오게하고 밤 후에는 낮을 오게 하시며 태양과 달을 그분의 법칙에 따르게 하시니 모든 것이 제 운행을 하고 있음을 너회는 알지 못하느뇨 실로 하나님은 너회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30. 이는 하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라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허위라 실로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심이라

31.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들이 운행함을 알지 못하느뇨 이는 그분 예증을 너회에게 보여주심이니 실로 그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32. 산과 같은 파도가 그들을 덮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그분께 성실히 복종하매 하나님이 그들을 육지로 구출하니 그들 중에는 중간에 있는자 있고 또 거역하는자 있도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예증을 거역하지 아니하나 은혜를 망각한 불신자들은 제외더라

33. 백성들이여 너회 주님을 경외하고 다가올 그날을 두려워 하라 그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들이 그의 아버지께 무익 하도다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이나니 이 현세가 너회들을 현혹토록 해서는 아니되며 유혹하는 자들이 너회를 유혹케 하지 않도록 하라

34. 심판의 날과 비가 내림과 태아에 있는 것과 너회가 매일 무엇을 얻을 것이며 너회가 어느 곳에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심이라[1] 실로 하나님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제 32 장
수라트 싸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밈[1)]
2. 이것은[1)] 의심할 바 없는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성서의 말씀이라
3. 혹은 그가[1)] 그것을 날조하였다[2)] 라고 그들이[3)]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계시된 진리이며 이는 그대 이전에 어떠한 경고자도 오지 아니한 백성에게 그대로 하여금 경고하여 그들이 인도 받도록 함이라
4.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1)] 창조하신 후 권자에 오르셨으니 그분이 아니면 너회에겐 어떤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노라[2)] 너회는 이를 교훈으로 받아 들이려 하지 않느뇨
5.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 까지 만사를 주관하시며 하루 동안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 귀의하니 그 기간은 너회가 헤아리는 천년과 같으리라
6. 이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아시는 분이시며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7.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장 조화있게 두셨으며 인간을[1)] 흙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셨노라
8. 이리하여 한방울의 정액으로부터 인간의 자손을 지으셨노라
9. 그런 후 그것을 형상으로 만드사 그 안에 그분의 영혼을 불어 넣고 청각과 시각과 심장을 주셨노라 그러나 너회는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 못하더라
10. 땅속에 묻혀 흙이 된 후 다시 창조된다는 말이뇨 라고 그들은[1)] 말하도다 그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불신하고 있더라[2)]
11. 일러 가로되 너회를 맡고 있는 죽음의 천사가[1)] 너회를 임종케 하리니 너회는 너회 주님께로 귀의하노라
12. 죄인들이 그들의 주님께 그들의 고개를 숙이며 주여 저회들은 지켜 보았으며 들어 보았습니다 저회가 다시 현세로 돌아가도록

하여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선을 행하여 믿는 자들이 되리라 하더라

13.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주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실현되리니 하나님께서 영마와 사람들 모두로 지옥을 채우리라

14. 너희가 오늘의 만남을 망각하였으매 맛을 보라 또한 하나님은 너희를 생각치 않으리니 너희가 저질러온 것에 대해 영원한 벌을 맛보게 하리라

15. 말씀이 낭송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부복하고[1]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노라

16. 그들의 손발은 그들의 침상을 멀리하고[1] 두려움과 회망으로 그들의 주님을 부르며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양식으로 자선을 베푸노라

17. 아무도 모를 것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 그들을 기쁘게 할[1] 숨겨진 것이라

18. 믿음을 가진자가 사악한 자와 같을 수 있느뇨 그 둘은 결코 같을 수 없나니[1]

19.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안식처가 되매 이는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환대라

20.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불지옥이 그들의 거주지거늘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도주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불지옥의 벌을 맛보라 이는 너희가 불신한 것에 대한 죄값이라는 말을 그들은 듣게 되리라

21. 하나님은 가장 큰 벌에 앞서[1] 가까운 현세의 벌을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속죄하기 위함이라

22.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후 그 말씀을 배반한 자보다 더 사악함이 어디에 있느뇨 실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23.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1] 주었나니 그가 성서를 받았음에[2]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복음이 되도록 하였노라

24.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1] 지도자들을 두어 그분의 명령으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였으니 그들이 인내할 때라 그들이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라

25. 실로 그대의 주님은 심판의 날 그들이 서로 달리했던 것들을[1] 심판하시니라

26. 하나님이 이전에 많은 세대를 멸망시킨 것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지 아니 했느뇨 그들의 거주지에서 그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느뇨 실로 그 안에는 말씀이 있건만 그들은 듣지 아니 함이라

27. 메마른 황무지에 물을 대어 그것으로 농작물을 재배케하여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 자신들이 그로부터 섭취하도록 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느뇨

28. 만일 그대가 진실이라면 언제 심판이 오느뇨 라고 그들이 물으매

29. 일러 가로되 심판의 날 불신한 자들의 믿음은 유용함이 없으며 그들에게는 믿음을 가질 기회도 기다리지 아니 함이라

30. 그러하매 그들로부터 멀리하고 기다리라 그들은 실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제 33 장
수라트 알아흐잡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예언자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1] 실로 하나님께서는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 그대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따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노라
3.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만이 보호자로써 충분하니라
4.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한 몸에 두 개의 심장을 두지 아니했으며[1] 또한 그분은 너희가 너희 아내를 어머니처럼 가장하여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2] 또한 그분은 양자로 택한 아들을 너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 하도록 하셨노라[3] 그것은 단지 너희 입으로 하는 말일 뿐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여 주시노라
5. 그들을 부를 때는 그를 낳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를 낳은 아버지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믿음을 가진 그의 형제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부르라[1] 실수한 것은 너희에게 죄가 아니나 너희 마음이 의도적이었다면 너희가 죄인이라[2]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6. 예언자는 자기 자신들 보다 믿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며[1] 그의 아내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이요 그들 서로간의 혈육관계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믿는 사람들과 이주자들이 형제 관계보다 더 가까운 인간관계라[2] 그러나 가까운 동료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노라[3]
7.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성약을 하사[1] 그대와 성약했듯이[2]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도 하나님은 신성한 성약을 했노라
8.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심을 묻고자 함이요[1]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
9.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적군이[1] 너희를 공격 하여 왔을 때[2]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보지 못한 폭풍과 군대를 보냈노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0. 그들이 너희 위쪽과[1] 너희 아래쪽으로부터[2] 공격하여 왔을 때 눈은 몽롱하여지고 마음은 공포로 목까지 올랐으며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무익한 생각들을 시작하였노라

11. 그곳에서 믿는 자들은 시련을 받고 격렬하게 동요되었노라

12. 그때 위선자들과 마음이 병든자들은 하나님과 선지자는 우리를 기만하는 약속밖엔 하지 아니하였도다[1] 라고 말하며

13. 그들 중의 어떤 무리는[1] 야쓰리브[2]의 주민이여 여기는 당신들이 설 자리가 없나니 돌아가라고 말하고 그들 중의 다른 무리는 선지자께 허락을 구하며 우리 집들은 텅 비어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나 노출되어 있지 아니 하도다 그들은 단지 도주하려 할 뿐이라[3]

14. 적이 곳곳으로부터 침입하여 들어와 무슬림들을 살해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1] 그렇게 하는데 지체하지 안했더라

15. 그들은 앞서 하나님께 성약하여 등을 돌리지 않으리라 했으니[1] 하나님과의 성약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리라

16.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죽음이나 전쟁에서 도피하여 잠시동안의 향락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를 유용케 하지 못하리라

17.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하실때 또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실 때 누가 이를 막으료 하나님 외에는 어떤 보호자나 돕는자도 그들은 발견치 못하리라

18. 너희 가운데 선지자를 방해하는 자와 그의 형제들에게 우리에게로 오라 말하는 자들을[1]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도다 그들은 잠시동안 싸움터에 갔을 뿐이라[2]

19. 너희 믿는 자들을 위한 그들의 도움은 하찮은 것이거늘 그러나 공포가[1] 엄습할 때 그대는 그들을 보리니 그들의 눈은 죽음에 이른 휘둥거리는 눈이더라 그러나 공포가 사라지면 그들은 그들의 날카로운 혀로 그대들을 비난하니 이는 전리품에 대한 욕심일 뿐 그들은 믿지 않했도다[2]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무익하게 하였으니 그러한 일이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20. 그들은[1] 연합군이 아직 떠나지 아니 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 만일 그 연합군이 다시 진격하여 온다고해도 그들은 유랑하는 유목민과 더불어 사막에 은폐한 후[2] 너희에 관하여 알고자 할 것이며[3] 만일 그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해도 그들 소수를 제외하

고는 싸우지 않으리라

21.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훌륭한 모범이 있었거늘 이는 하나님과 내세와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를 위해서라

22. 믿는 사람들이 연합군을[1]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길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께서 약속한 것이거늘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는 무엇이 진실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도다[2] 이리하여 그들에게는 신앙심이 더해지고 순종함이 더하여 졌더라

23.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성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고[1] 그들 중에는 그들의 맹세를 다 하는 자 있으며[2] 아직 기다리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결코 그들의 결심을 바꾸지 아니 하니라

24.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진실함으로 보상을 주실 것이며 위선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이요 또는 그분의 뜻이라면 그들을 용서하리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25.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불신자들을 물리치시니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믿는자들은 전쟁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였으매 하나님은 강함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26. 그분께서는 그들을[1] 도운 그 성서의 백성들을[2] 그들의 본거지로부터 쫓아내고 그들의 심중에 공포를 던지매 너희는 일부를 살해하고[3] 일부는 포로로 잡았노라[4]

27. 그리하여 그들의[1] 땅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재산과 너희가 보지 아니한 대지를[2] 너희에게 상속하여 주었나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심이라

28. 예언자여 그대 아내들에게[1] 일러 가로되 그녀들이 현세의 삶과 허식을 원한다면 이리로 오라 세상을 즐기도록 이혼을 하여 줄 것이니 이것은 해가 없는 이혼이라

29.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내세를 원한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훌륭한 보상을 준비하셨노라

30. 예언자의 아내들이여 너희 가운데 밖에 드러나는 추악한 짓을[1] 하는 자에게는 그분께서 두배로 벌을 내리시니[2]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31.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님과 선지자께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분은 두배의 보상을 줄 것이요 또한 은혜로운 양식을 그녀를 위해 준비하였노라

32. 예언자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다른 여성들과 같지 않나니[1]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 한다면 남성들에게 나약한 말을 하지 말라 마음에 병든 남성들이 너희에게 욕정을 갖노라 필요하고 정당한 말만 함이 좋으니라

33. 너희 가정에서 머무르고 옛 무지의 시대처럼[1] 장식하여 내보이지 말며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세를 내며 하나님과 선지자께 순종하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가문의[2] 모든 불결함을 제거하여 한점의 티도 없이 순결케 하셨노라

34. 너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낭송되는 것을 기억하라 실로 하나님은 섬세히 아시는 분이시라

35. 실로 무슬림 남녀에게 믿음이 있는 남녀에게 순종하는 남녀에게 진실한 남녀와 인내하는 남녀에게 두려워하는 남녀와 자선을 베푸는 남녀에게 단식을 행하는 남녀와 정조를 지키는 남녀에게 하나님을 염원하는 남녀에게 하나님은 관용과 크나큰 보상을 준비하셨노라[1]

36. 믿음이 있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그들이 선택하려 함은 온당치 아니 하나니[1] 만일 하나님과 선지자께 거역하는 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길을 잘못들어 있노라

37.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대가 은혜를 베풀었던[1] 그에게[2] 너희 아내를 네 곁에 간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고 그대가 말한 것을 상기하라 그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밝히셨던 것을 그대 마음속에[3] 숨기었고 사람들을 두려워 하였으나 그대가 더욱 두려워 할 것은 하나님 이었노라 제이드가 그녀와의 결혼생활을 끝냈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절차와 함께[4] 그녀를 그대의 아내로 하였으니 이는 양자가 그의 아내와 이혼했을 때 장래에 믿는 사람들이 이혼녀와 결혼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이라 이것은 이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노라

38.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을 이행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거늘 그것은 이전에 지나갔던 하나님의 순나라[1]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 법령이라

39.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 하였으니 하나님은 미리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40. 무함마드는 너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지자이자[1] 최후의 예언자라[2]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노라

41. 믿음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을 많이 염원하라

42. 그리고 그분을 조석으로 찬미하라

43. 그분과 천사들은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니 너희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심이라 실로 그분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자비로우셨노라[1)]

44.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그들의 인사는[1)] 평화로우소서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위해 은혜로운 보상을 준비하셨노라

45. 예언자여 우리가 그대를 보내매 증인으로서[1)] 복음의 전달자로써[2)] 그리고 경고자로써[3)] 보냄이라

46.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자로써 불을 비추는 등불로써 보냄이라

47.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있음이라 전하라

48. 그리고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을 따르지 말며 잡담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충분하니라

49.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믿는 여성과 결혼하여 동침하기 전에 이혼하려 할 때 너희는 일정기간을[1)] 계산할 권리가 없나니 그녀들에게 일정한 자선금을[2)] 지불하고 그녀들을 자유롭고 친절하게 대하라

50. 예언자여 실로 하나님이 그대에게 허용하였나니[1)] 그대가 이미 지참금을 지불한 부인들[2)] 하나님께서 전쟁의 포로로써 그대에게 부여한 자들로[3)] 그대의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과 삼촌의 딸들과 고모의 딸들과 외삼촌의 딸들과 이주하여온[4)] 외숙모의 딸들과 예언자에게 스스로를 의탁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여성들과[5)] 예언자가 결혼하고자 원할 경우[6)]그대에게는 허용되나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부인들과 그들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관하여 믿는 자들에게 의무화 한것도[7)] 알고 있노라 이는 그대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함이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51. 그녀들 가운데 그대가 이혼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선택이며 그대가 받아들이고자 할 때도 그러하며 멀리했던 그녀를 다시 불러도 되나니 이는 그대에게 죄악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라 이는 그녀들의 안중이 안정을 찾고 그녀들이 슬퍼하지 아니하며 그대가 그들에게 베푼 것으로 그들 모두가 기뻐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의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아심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52. 그 이후는 그대가 그 이상의 여성과[1)] 결혼함이 허용되지 아니하

며[2] 미모의 여성이 그대를 유혹한다 하여도 그녀들을 대체할 수 없으되 그대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들은 제외라[3]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는 분이시라

53. 믿는자들이여 예언자의 가정을 들어가되 이때는 식사를 위해 너희에게 허용되었을 때이며 식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는 아니되노라 그러나 너희가 초대 되었을 때는 들어가라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자리에서 일어설 것이며 서로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말라 실로 이것은 선지자를 괴롭히는 일이라[1] 예언자는 너희를 보냄에 수줍어 하사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심에 주저하지 아니 하심이라 그리고 너희는 선지자의 부인으로 부터 무엇을 요구할 때 가림새를 사이에 두고 하라 그렇게 함이 너희 마음과 선지자 부인들의 마음을 위해 순결한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처신하라 너희는 이 부인들과 결혼할 수 없노라 이것은 실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

54. 너희가 드러나게 하는 일도 숨기어 하는 일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니라

55. 여성들이 그녀들의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의 아들과 자매의 아들과 여성들과 그들의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하인들 앞에서는 가리우지 아니해도[1] 죄악이 아니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56. 실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예언자를 축복하여 주셨으니 믿는자들이여 그분께 축복을 드리고 정중한 인사를 하라[1]

57.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을 저주하시니 그분은 그들을 위해 굴욕의 징벌을 준비하셨노라

58. 믿음을 가진 남성과 여성을 부당하게 하거나 욕되게 대하는 자 있다면 실로 그들이 위증의 죄인으로 명백한 죄악이라

59.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 베일을[1] 쓰라고 이르라 그때는 외출할 때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2] 간음되지 않도록 함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60. 위선자들과 마음이 병든자들과 그 도시에서[1] 교사하는 자들이 단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그들을 지배하도록 하리니 그때 그들은 그 안에서 그대의 이웃이 되지 않을 것이며 체류함이 잠깐 동안에 불과하리라

61.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며 체포되어 살해 되리라

62. 그것은 그 이전의 선조들에게도 있었던 과정이니 그대는 하나님의 운행이 변경됨을 발견치 못하리라

63. 사람들이 심판날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지니 일러 가로되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심판이 가까와 왔음을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리요[1)]

64.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저주하여 그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지옥을 준비 하셨으니

65. 그 안에서 영생토록 함이라 실로 그들은 어떤 보호자나 구원자도 발견치 못하리라

66. 그들의 얼굴들이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지자께 순종했을 것을 라고 하면서 후회하더라

67. 주여 저희는 저희 지도자들과 훌륭한 분들에게 복종하였을 뿐으로 그들이 저희를 유혹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리라

68. 주여 그들에게 곱절로 응징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저주하시되 크게 저주하여 주옵소서

69. 믿는 자들이여 모세를 험담한 자들같이 되지 말라[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험담을 그로부터 거두어 가셨나니 그는 하나님 곁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70.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올바른 말을 하라

71. 하나님은 너희의 일들을 완전하고 건전하게 하시며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자 그는 이미 가장 높은 업적을 얻었노라

72. 하나님이 하늘과 대지와 산들에 신뢰를 보였으나 그것들은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으니[1)] 두려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들은[2)] 그렇게 하였으니 실로 그는 정직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였더라[3)]

73. 그렇게하여 하나님은 남녀 위선자들과 남녀 다신교도들을 벌하실 것이며 믿는 남녀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제 34 장
수라트 싸바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니 하늘과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비롯되며 내세의 찬미도 그분께 드리노라 그분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2. 그분은 대지속에 무엇이 들어 있으며[1] 그곳에서 무엇이 나오며[2]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며[3] 그곳으로 무엇이 오르는지[4] 아시노라 그분은 자비와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

3. 우리에게 결코 종말이 아니 오리라[1]고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일러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두고 명세하매[2] 그것은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노라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신분으로 하늘과 대지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미아도 그보다 더 작은 것도 또한 큰 것도 그분을 피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이 분명한 성서 속에 기록되어 있노라

4. 이는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라 그들에게는 관용과 풍성한 양식이 있으리라

5. 그러나 하나님의 예증들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벌이 내릴 것이니 그것은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벌이 되리라

6. 지식을 수여 받은 자들은[1]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그것이[2] 진리로서 권능과 자비가 충만하신분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게 되리라

7. 그러나 불신자들은 조롱하며 말하길 너희가 산산조각이 된 후[1] 다시 창조되리라[2] 말하는 한 남자를[3] 너희에게 알려 주리요

8.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거나 미쳐 있다[1] 라고 말하나 그렇지 아니함이라[2]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로 벌을 받게 되고 멀리서 방황하게 되리라

9. 그들은 그들 앞뒤로 펼쳐져 있는 하늘과 대지를 보지 못함이뇨 만일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분은 대지로 하여금 그들을 삼키도록 하거나[1] 하늘을 조각내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리라[2] 실로 그 안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든 종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3]

10.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니[1] 산들이여 그리고 새들이여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쇠를 부드럽게[2] 하였노라

11. 그것으로 갑옷을 만들되[1] 갑옷 쇠줄들의 균형을 맞추라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라 실로 나는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

12. 그후 솔로몬에게는 바람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도록 했으니 아침에 부는 바람은 한달과 같고 저녁에 부는 바람도 한달과 같도다 또한 하나님은 녹은 동의 샘이 그를 위해 흐르게 했으매 영마의[1] 무리 중에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하는 자 있었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었나니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화염의 형벌을 맛보게 하리라

13. 그들은[1] 그의[2] 뜻에 따라 그를 위해 일하매 궁전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연못 같은 대야를 만들고 화로에 고정된 큰 솥을[3] 만들었노라 그러하매 다윗의 자손들아 일하며 감사하라 했거늘 내종 가운데는 감사하는 자가 적더라

14. 하나님이 솔로몬의 죽음을 결정하니 그의 지팡이를 갉아먹던 나무 벌레가 그의 임종을 예시했으며 그가 지팡이로부터 쓰러졌을 때 만일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고통스러운 벌을[1] 받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리라

15. 싸바아 백성들의 거주지에도 예증이[1] 있었으니 오른편과 왼편에 두 정원이 있었더라 그러하매 너희 주님의 양식을 먹되 그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기름진 땅이며[2] 주님은 관대하시노라

16.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으니[1] 우리는 그들에게 댐으로부터 홍수를 보내니 그들 두 정원의 나무에는 쓰디쓴 과일이 열리고 무용한 아쑬나무와 씨드르 나무가 자라는 불모의 땅이 되었더라

17. 그것은 그들의 불신에 대한 우리의 벌이거늘 불신자 외에 우리가 그러한 벌을 내린 적이 있더뇨[1]

18. 우리는 그들 싸바아의 고을과 우리가 축복을 내린 그 고을[1] 사이에 가까이 인접한 고을을[2] 두어 그곳을 거쳐 여행토록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밤과 낮으로 근심하지 않고 여행케 하고자 함이라

19. 그들은 주님이여 저희의 여행이 멀도록 하여 주소서 라고 말하니 스스로를 우롱하더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을 화제의 얘기로 만들어 그들을 산산히 흩어지도록 하였으니 실로 그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1]

20. 이블리스는 그의 생각이 사실이라 증언하니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를 따르더라

21. 그러나 그는[1] 그들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며 우리는 내세를 믿는 자와 그것을 의심하는 자를 시험하고자 하였으니 실로 그대의 주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노라

22. 일러 가로되 하나님 외에 너희가 주장한 다른 것에 구원해 보라 그들은[1] 하늘과 대지속에 있는 먼지 하나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도 없으며 그들은 그 안에서 아무런 몫도 없으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분을 도울자 없노라

23.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분께는 중재도 유익하지 아니 하도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공포가 사라질 때에 그대들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니 그것은 진리이며 그분은 높이 계시며 위대하시도다 라고 그들은 대답하노라

24. 일러 가로되 하늘과 땅으로부터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뇨 일러 가로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면 너희가 옳은 길에 있거나 또는 분명한 방황의 길에 있을 것이라

25. 일러 가로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너희가 문책을 당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문책을 받지 않노라

26. 일러 가로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사 정의와 진리로써 우리를 판결하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가름자이시라[1]

27.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으로 숭배한 것들을 보이라 하니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실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한 분은 하나님 뿐이라

28. 하나님이 그대를 보내매 만인을 위한 복음자로 그리고 경고자로써 보내거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더라

29. 오히려 그들은[1] 너희가[2]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언제 이 약속이 오느뇨 라고 그들이 말하니

30. 일러 가로되 한시간도 너희가 지연시키거나 재촉할 수 없는 약속된 시간이 있노라

31. 이때 불신자들은 우리는 결코 이 꾸란도 믿지아니하며 그 이전에 온 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나 죄지은 자들이 주님앞에 불리워 왔을 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함을 그대는 보리니 지상에서 경멸받은 자들이 오만한 자들에게 만일 너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을텐데 라고 말할 수 있겠느뇨

32. 이때 오만한 자들이 경멸을 당한 자들에게 그것이[1]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우리가 너희를 그 복음으로부터 멀리했단 말이뇨 결코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가 죄인들이었도다 하더라

33. 이때 경멸을 당한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에게 결코 아니라 그것은 밤낮으로 꾸며낸 너희의 음모이거늘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과 동등한 우상을 믿으라 명령하지 아니했더뇨 그들은 그들이 응벌을 받으매 후회로 가득차더라 하나님은 불신한 자들의 목에 멍에를 채웠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

34. 하나님이 한 고을에 경고자를 보낼 때면 그들 가운데 한 부유한 자가[1] 말하길 우리는 너희와 함께 보내진 메세지를 믿지 아니하도다

35.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보다 많은 재산과 자손들이 있으며 또한 우리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36. 일러 가로되 실로 주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고 또 제한하시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37. 너희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게 함은[1] 너희 재산과 너희 자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선행이거늘[2] 이들은 그들이 실천한 것에 대해 불어나는 보상을 받으며 천국의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노라

38.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하는 그들은 형벌 속으로 불리워가리라

39. 일러 가로되 나의 주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종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제한도 하시나니 너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어떤 것도 그분께서는 보상을 하시거늘 그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라

40. 그분께서 어느날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천사들에게 이들이 너희를 숭배하던 자들이뇨 라고 물으시리라

41. 당신께 영광이 있으소서 저희를 수호하시는 분은 당신이오며 그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수 없사옵니다 그들이 영마를 숭배하였고 그들 대다수가 그것을 믿었다고 천사들이 대답하리라

42. 그리하여 그날에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용함도 해함도 없으리니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지옥의 벌을 맛보라 실로 너희가 불신하였노라는 말씀을 하실 것이라

43.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송되었을 때 그들은 말하도다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숭배하여 온 것으로부터 너희를 방해하고자 하는 한 사내에 불과하도다 또 그들은 말하도다 이것은 단지 고안된 위조에 불과하노라 또 불신자들은 진리에 관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도래하니 실로 이것은 분명한 마술에 불과하도다 라고

말하였노라

44.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읽을 성서를 주지 아니했고 그대 이전에 그들에게 경고자를 보내지도 아니 했노라

45. 그들의 선조들도 그 진리를 부정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것 가운데[1] 십분의 일도 받지 못했더라 아직 그들이 나의 선지자들을 부정하매 그들에 대한 나의 형벌은 무서우니라

46. 일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오직 한가지만 충고하나니 하나님을 위해 둘씩 그리고 하나씩 깨어라 그리고 숙고하라 너희의 동반자는 마술에 걸리지 않았으며[1] 그는 단지 무서운 형벌 이전에 너희를 위한 경고자라

47. 일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보수를[1] 구하지 아니 했으니 이는 너희를 위함이요 실로 나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거늘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48. 일러 가로되 실로 나의 주님은 오만한 자를 진리로 물리치며[1] 숨겨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49. 일러 가로되 진리가 도래하였으니 허위가 멸망하여[1] 다시 오지 못하리라

50. 일러 가로되 내가 방황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가 방황함이요 내가 길을 인도받으매 그것은 주님의 나에 대한 계시었거늘[1]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가까이 계시노라

51. 그대는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 때에는 도피 할 수 없어[1] 가까운 곳에서 붙잡히게 됨을 보리라

52. 이때서야 그들은 우리는 믿나이다 라고 말하나 어떻게[1] 멀리에 있는 그들이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뇨

53. 그들은 이전에도 그것을 불신하였고 멀리서 보이지 않는 것을[1] 의심하였노라

54. 그 이전 그들과 같은 무리의 불신자에게[1]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그들이 바라는 것 사이에 장벽이[2] 놓여지니 실로 그들은 불안해 하며 의심하는 자들이었더라[3]

제 35 장
수라트 파띠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께 찬미를[1] 드릴지니 그분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2] 천사들을 두쌍 세쌍 네쌍의[3] 날개를 가진 전령으로 두셨으며 그분의 뜻대로 창조를 더해 가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2.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인류를 위해 보내신 그 은혜를[1] 누구도 제재할 수 없으며 또한 그분께서 제지하신 것을 누구도 자유롭게 할 수 없나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3.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베풀어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지니 하나님 외에 하늘과 대지로부터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다른 창조주가 있느뇨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어찌하여 너희는 그분의 유일성을 모르느뇨

4. 그들이 그대를 부정한다면 그대 이전의 선지자들도 부정되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귀의하노라[1]

5. 사람들이여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1] 진실이거늘 현세의 삶이 너희를 유혹케 해서는 아니되며 유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속이게 해서도 아니 되노라

6. 실로 사탄은 너희의 적이거늘[1] 그를 적으로 대하라 그는 항상 그의 무리들을 초대하니 이들은 지옥의 반려자들 중에 있게 되리라

7. 불신하는 자들에게는[1] 가혹한 벌이 있으며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관용과 큰 보상이 있노라

8. 그의 위장된 사악한 행위를 선이라 할 수 있느뇨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방황케 하고 옳게 인도하기도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대의 영혼이 그들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9.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사 그것이 구름을 일으키고 그것을 죽은 대지로 보내어 죽은 땅을 다시 소생케 하니 부활이 바로 그와 같노라

10. 영화와 권세를 구하는 자여 모든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노라 좋은 언행도 그분께 이르며 좋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

올리시되[1]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에게는 무서운 벌이 있으며 그러한 음모는 수포로 끝나노라[2]

11. 하나님이 흙에서 너회를 창조하사[1] 다시 정액에서 너회를 재창조 하셨으며 너회를 쌍으로 두셨노라 어떠한 여성도 그분의 아심이 없이는 잉태와 출산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인간도 생명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없나니 이 모든 것은 성서 안에[2] 있노라 이러 한 것은 실로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3]

12. 두 갈래로 흐르는 물이[1] 같지 아니하니 그 하나는 달콤하여 마 시기에 적합하고 그 다른 하나는 짜고 쓰더라 너회는 그들 각각 으로부터 신선한 생선을[2] 섭취하며 또한 너회가 몸에 장식하는 보석을 채굴하리라 또한 너회는 파도를 일구며 항해하는 선박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리라 이에 너회는 감사해야 하노라

13. 하나님은 밤을 낮으로 하시고 낮을 밤으로 두시게 하시며 해와 달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토록 하셨으니 각자는 정하여진 시간에 제 운행을 함이라[1]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모든 영 역이 그분께 있으매[2] 그분 외에 너회가 숭배하는 것들은 지푸라 기 하나도[3] 다스릴 힘이 없노라

14. 너회가 그들에게 구하나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너회의 구원에 응할 수 없노라[1] 심판의 날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비유하여 숭배했던 것들을 거역할 것이라[2] 모든 것을 알 고 계시는 그분처럼 그대에게 진리를 말할 자 아무도 없노라

15.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필요로 한 이들이 바로 너회들이라 하나님 은 풍요함으로 충만하시니 모든 찬미를 홀로 받으소서

16. 그분께서 뜻을 두실 때 너회를 멸망케 하사 새로운 세대를 두 시리니

17. 그렇게 하심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1]

18. 짐을 짊어진 자가 다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없으매 무거 운 짐을 진 자가 다른 사람을 불러 그의 짐을 덜어달라 구하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조금도 덜어 줄 수 없노라[1] 그대는 단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두려워 하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 뿐이라 스스로를 정화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일 뿐 최후의 여정은 하나님께로 가니라

19. 보지 못한 자와 보는 자가 같지 아니하며[1]

20. 암흑과 광명이 같지 아니하며[1]

21. 서늘한 그늘과 작렬하는 열이 같지 아니하며[1]

22.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같지 않노라[1]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있는 자로 하여 듣게 하시노라

23. 그대는 무덤속에 묻힌 자를 듣도록 할 수 없으며 그대는 단지 경고자일 뿐이라[1]

24. 하나님은 그대를 복음의 전달자와 경고자로써 진리와 함께 보냈으되 실로 어떠한 백성 중에서도 경고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노라

25. 그들이 그대를 부정했듯이[1] 선지자들이 분명한 예증과 시편과 빛나는 성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 이전의 선조들도 부정했노라

26. 나는 불신한 그들을 벌하였노라 그들에 대한 나의 벌이 얼마나 무서웠더뇨

27.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사 그것으로 여러가지 색깔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너회는 보지 못했느뇨 산들에는 여러가지 색깔의 하얀층 붉은지역 그리고 검은 곳도 있게 하였노라

28. 사람도 동물도 가축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색깔을 두셨노라 그분의 종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은 지식을 가진 자들 뿐이나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

29. 하나님의 성서를 낭독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양식으로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자들은 불멸의 이익을 얻노라

30.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족한 보상을 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실로 그분은 관대하시며[1] 응답하시는 분이시라

31.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성서는 진리로 그 이전에 계시된 것을[1] 확증하고 있나니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관찰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니라

32. 그런 후 하나님은 종 가운데서 선택한 그에게[1] 그 성서를[2] 상속하였으나 그들[3] 중에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주저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또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선행에 앞장서는 자들도 있었더라 그것은 바로 커다란 은혜라

33. 이들은 에덴의 천국으로[1] 들어가리니 그곳에서 금과 진주로 된 팔찌로 장식되고 명주가 그들의 의상이 되리라

34. 이때 이들은 말하더라 저희에게서 슬픔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실로 우리의 주님은 관대하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라[1]

35.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에[1] 두시니 그 안에는 어려움이[2] 없으며 그곳에서는 피곤함도[3] 없노라

36.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불지옥이[1] 그들을 위해 있고 고통은 끝남이 없으며 그들은 죽지도 아니하니라 또한 그들에 대한 벌이 감소되지도 않노라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벌을 내리니라

37. 이때 그들은 그 안에서 소리질러 구원을 청하니 주여 저회를 구하여 주소서 저회가 하지 아니했던 선행을 실천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너회들에게 그 안에서 숙고할 충분한 삶을 주지 아니했더뇨 또한 너회에게 경고자도[1] 도래했었노라 그러하매 이제는 너회 행위의 결과를 맛볼 때이니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38. 실로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마음도 알고 계심이라[1]

39. 그분께서는 너회를 지상의 계승자로[1] 두셨노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곧 자신을 부정하는 자라 그들의 불신은 주님께 증오만 더해 갈 뿐 불신자들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만 더해가나 불신자들을 더해가지는 못하니라

40. 일러 가로되 너회가 하나님 아닌 너회의 신들을 보았느뇨[1] 아니면 그들이 넓은 대지에서 창조한 것이 무엇이뇨 아니면 하늘을 창조함에 그들이 동참이라도 하였느뇨 아니면 그들이 예증할 수 있는 한 성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뇨 그렇지 않노라 우매한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나 그것은 기만에 불과하노라

41. 하늘과 땅이 운행을 멈추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것들이 운행을 벗어날 때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유지시킬 수 없나니 실로 하나님은 관대하심과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

42.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맹세하여 경고자가 그들에게 이른다면 그들은 어느 백성보다 더욱 그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했거늘 그러나 한 경고자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남을 증가시키더라

43. 지상에서 오만해 하고 사악한 음모를 하였으나 그 사악한 음모는 음모자를 에워쌀 뿐이었노라[1] 지금 그들은 선조들의 길을 걷고 있느뇨 그대는 하나님의 운행에서 어떠한 수정도 발견치 못할 것이며 어떠한 변화도 발견치 못할 것이라

44. 그들은 대지를 여행하면서 다른 자보다 더 힘이 강한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지 아니 했느뇨 하나님은 하늘과 땅 위에서 어떤 무엇에 의해서도 좌절되지 아니 하시니 그분은 아심과 권능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라

45. 인간이 행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케 하신다면 땅 위에 어떤 생물체도 남을 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그분은 일정 기간 까지 그들을 유예했을 뿐 그들의 기간은 완료되니라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종들을 지켜보고 계심이라

제 36 장
수라트 야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야 씬[1]
2. 지혜로 충만한 꾸란을 두고 맹세하나니[1]
3. 그대는 선지자들 가운데 한 선지자로[1]
4. 오른 길을 가는 자라[1]
5. 그것은[1]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계시로써
6. 이는 그들의 선조들이 경고받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여금 경고케 하고자 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주의하지 않했노라
7. 그 말씀이 그들 다수 위에 진리로 나타났으나[1]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8. 하나님은 그들의 목에 멍에를 씌우니 그것이 그들의 턱까지 이르매 그들의 고개가 위로 올라 볼 수 없게 되었더라
9.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고 그들 뒤에도 장애물을 두며 그들 위에 덮개를 씌우니 그들은 보지 못하더라
10.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를 하던 경고를 아니 하던 그들은 마찬가지로 믿지 않노라
11. 말씀을 따르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에게는 관용과 은혜로운 보상이[1] 있을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라
12. 보라 하나님이 죽은자를 소생시켜 그들이 앞서 행한 것들과 그들이 남긴 것들을[1] 기록하노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분명한 장부에 적어 두노라
13. 그 고을의[1] 주민들에게 선지자들이[2] 비유를 들어 설명하노라
14.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명의 선지자들을[1] 보냈으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부인하매 그분은 세번째 선지자를 보내어 강하게 하니 이들이 말하길 실로 우리는 너희를 위해 보내어진 선지자들이라 하더라
15. 이때 백성들이 너희는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며[1]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시도 내리지 아니했는데 실로 너희는 거짓말을 하

고 있을 뿐이라 말하니

16.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아시노라 실로 우리는 너희를 위해 보내어진 선지자들로써

17. 우리의 의무는 단지 분명한 말씀을 전하는데 있을 뿐이라

18.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분명히 당신들로부터 악운을 점쳤으니 만일 너희가 중지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투석 할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부터 고통스러운 벌을 받으리라 하더라

19. 이때 선지자들이 말하길 너희의 흉조는 너희와 함께 있노라[1] 너희가 훈계를 받았음에도[2] 그러느뇨 너희는 죄악에 빠진 백성이라

20. 그때 그 마을 먼곳으로부터 한 남자가[1] 달려와 말하길 백성들이여 선지자들을 따르소서

21. 여러분께 보상을 구하지 아니한 그분들을 따르소서 그분들은 인도하심을 받은 분들이라

22. 나를 창조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분에게로 귀의할 그분을 내가 경배 아니할 이유가 없으니

23.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해야 되느뇨 하나님께서는 내게 재앙을 주실 때 그들의 중재는 내게 소용이 없으며 나를 구원할 수 없노라

24.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1] 실로 나는 방황하게 되리라

25. 실로 나는 당신들의 주님을 믿나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요[1]

26. 천국으로 들어가라[1] 말을 들으매 나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더라[2]

27.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사 나로 하여금 은혜받는자 가운데 있게 하였노라

28. 하나님은 그 이후로 그의 백성에[1] 대하여 하늘에서 어떤 병사도[2] 보내지 아니했으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노라

29. 실로 하늘로부터 한번의 강한 질풍이 있었을 뿐인데 그때 그들 모두는 재처럼 사라지고 없더라[1]

30. 가엾은 종들이라 그들에게 선지자가 이를 때마다 그들은 조롱할 뿐이었노라

31. 하나님이 그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망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함이뇨 실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니라

32. 그러나 그들 모두는[1] 하나님에게 불리워 오매

33. 이때 그들을 위한 예증은 죽은 대지가 되리니 하나님은 그것을 생동케 하여 그곳으로부터 곡식이 나오도록 하니 그들은 그것을 먹도다

34. 하나님은 그 안에 종려나무와 포도나무가 있는 낙원을 두고 그곳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여

35. 그들이 만들지 아니한 과일을 먹도록 했으나 그래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더라

36.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분께서는 대지가 생산하는 모든것을 자웅으로 두셨고 인간도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자웅으로 지으셨노라

37. 그들을 위한 예증으로 밤이 있나니 하나님이 낮을 거두어 간다면 그들은 암흑 속에 있게 되리라

38. 태양은 그의 궤도를 운행하니 그것은 권능과 아심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명령이시라

39. 달을 두어 그의 궤도를 운행케 하니 오래된 메마른 종려나무 가지처럼 다시 돌아오니라

40. 태양이 달을 잡을 수 없으며 밤이 낮을 추월하지 못하니 각자는 각자의 궤도를 법칙에 따라 운행할 뿐이라

41. 그들을 위한 예증이 있거늘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들을 짐 실은 방주에 태웠노라[1)]

42.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승선할 그와 유사한 배를[1)] 만들어 주셨노라

43.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었다면 익사하게 했을 것이라 그때 그들은 구원의 외침을 들어줄 자가 없으니 구제되지 못했을 것이라

44.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동안 그들을 향락케 했노라

45. 너희 이전의 것을[1)] 두려워 하고 너희 이후에 있을 것을 두려워하라[2)] 그들에게 경고가 있었거늘 그리하면 그들이 은혜를 받으리라

46.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표 가운데 어떤 증표가[1)] 오던지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었노라

47.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일용할 양식으로 자선을 베풀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분께서 양육할 그들을 우리가 양육하란 말이뇨 실로 너희는 크게 방황하고 있을 뿐이라

48. 더하여 말하길 너희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이 약속은 언제 오느뇨[1)]

49. 그러나 그들은 강한 질풍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그들이 서로가 논쟁하고 있을 때 그것이 그들을 휩쓸어 가리라

50. 그때 그들에게는 유언할 기회도 없을 것이며 그들 가족으로 돌아갈 기회도 없을 것이라

51. 나팔의 소리가 들리니[1] 보라 그들은 무덤으로부터 서둘러 주님께로 나가니라

52. 그들은 말하리라 오 슬프도다 우리의 침상에서[1] 우리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뇨 이때 한 음성이 들려오니 그것은 자비로운 분이[2]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이 그 진리를 말한 것이라

53. 강한 질풍이 몰아치자 보라 그때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불리워 오더라

54. 그날에는 조금도 부정하게 처리되지 아니 하니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55. 실로 그날 천국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56. 그들은 그의 아내들과 시원한 그늘에서 장식된 침상에 기대어

57. 모든 과일을 즐기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며

58. 평안하라는 자비로운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59. 죄인들이여 오늘은 너희를 의로운 자들로부터 분리시키리라

60. 아담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 그는 너희들의 분명한 적이라

61. 그러므로 나만을 경배하라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하지 아니했더뇨

62. 그러나 사탄은 너희 가운데 많은 무리를 방황토록 했나니 너희는 이해하지 못했느뇨

63. 이것이 너희에게 반복하여 약속한 지옥이라

64. 화염을 맛보라 이것은 너희가 고집하여 진리를 거역한 때문이라

65. 그날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봉하니 그들의 손들이 하나님에게 이야기 하고 그들의 발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증언하더라

66.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시력을 앗아 갔으리라 그때 그들은 길을 더듬어 찾으나 그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느뇨

67.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의 장소에 고정시켰을 것이며 그때 그들은 움직일 수도 없었을 것이며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것이라

68.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로 하여 다시 되돌아 가게 하나니 그래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느뇨

69.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시를 가르치지 아니했으며[1] 시인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노라 이것은 메세지로 사실을 밝혀주는 꾸란이라

70. 이것으로[1] 살아있는 이들에게[2] 경고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였노라[3]

71.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창조한 가축들을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느뇨

72.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하여금 그들의 쓰임에 순종케 하여 일부는 그들을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는 식용으로 하였노라

73. 그들은 그것들로 다른 유용함을 얻나니 마실 우유를 얻노라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느뇨

74.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니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느뇨

75. 우상들은 그들을 도울 힘이 없으며 오히려 그들은 우상의 병사로써 불리워 가노라[1]

76. 그들의 말이[1] 그대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그들이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아시노라

77. 인간은 하나님이 그를 정액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보라 그러나 그는 아직도 논쟁하고 있노라[1]

78.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을 지어내며[1] 그가 창조된 것을 잊어버리고 말하길 부패하여 버린 이 뼈에 누가 생명을 부여하느뇨 라고 하더라

79.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태초에[1] 그들을 창조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심을 알고 계시노라

80. 너희를 위해 푸른 나무에서 불을 일으키새 보라 그때 너희는 그것으로 불을 밝히노라

81.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것들과 유사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단 말이뇨 그렇지 아니함이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아시노라

82. 실로 그분께서 무엇에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83.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 모든 것은 그분에게로 귀의하노라

제 37 장
수라트 사파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스스로 열지어 선 그들로 하여 맹세하고[1]
2. 사악함을 저지하는 그들로 하여 맹세하고
3. 하나님의 말씀을 염원하는 그들로[1] 하여 맹세하나니
4. 실로 너회의[1] 하나님은 홀로 계시니라
5. 그분은 하늘과 대지의 주님이시며 그 사이에 있는 만물과 동서의[1] 주님이시라
6. 하나님께서 지상의 하늘을 별들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나니
7. 거역하는 모든 악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1]
8. 그리하여 그들은[1] 천사들의 회의를 엿들을 수 없고 사방에서 화염의 돌을 맞으며
9. 쫓겨나 영원한 벌을 받으리라
10. 몰래 무엇인가 훔쳐가는 자 있다면 치솟는 화염의 불길이 그를 추적하리라
11. 그들에게 물어보라[1] 그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어느 것이 강하뇨 하나님은 그들을 진흙으로 창조하였노라[2]
12. 그대는 놀라고 감탄하나[1] 그들은[2] 비웃고 있노라
13. 그들은 훈계를 받으나[1] 주의하지 아니하며
14. 그들은 예증을 지켜보나 조롱하며
15. 이것은 분명한 마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
16. 우리가 죽어 흙과 뼈가 된 후 다시 부활된다는 말이뇨
17. 우리의 지나간 선조들도 그렇게 된단 말이뇨[1]
18. 일러 가로되 그러하니라 그때 너회는 너회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되리라
19. 그때 한 소리가 울려 퍼지리니[1] 보라 그때 그들은 서로 보게 되매

20. 그들은 말하리라 슬프도다 이것이 심판의 날이구나
21. 이것이 바로 너희가 거역했던 심판의 날이라[1)]
22. 불러 모으라 말씀이 있으니 죄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이 숭배했던 것들이라
23. 하나님 외에 숭배한 것들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불지옥으로 안내하여
24. 그들을 멈추게 하니 그들은 질문을 받게 되노라
25. 너희가 서로 돕지 못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뇨
26. 그렇지 못하니라 그날 그들은 심판에 복종하게 되나니
27. 그들은 서로 다가서며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더라
28. 실로 너희가 오른편으로 부터 우리에게 왔으며 라고 말하니[1)]
29.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믿음이 없었노라[1)]
30. 우리는[1)] 너희를 다스릴 아무런 힘도 없도다 그것은 오히려 너희가 오만한 백성중에 있었노라
31. 진리인 주님의 말씀이 입증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뿐이라
32. 실로 우리는 너희를 방황케 했으며 우리 스스로도 방황했노라
33. 실로 그들 모두는 그날 벌을 받음에 함께 하리라
34. 하나님은 이렇듯 죄지은 자를 다스리니
35.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은 오만하곤 하였으며
36. 제정신이 아닌 시인을 위하여 우리의 신들을 포기해야 되느뇨[1)] 라고 그들은 말했더라
37. 그렇지 않노라 그는 진리로 도래하여 선지자들을 확증하였노라
38. 실로 너희는 고통스러운 벌을 맛볼 것이요
39. 너희가 행한 것으로 대가를 받으리라
40. 그러나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제외이며
41. 그들을 위해서는 알려진[1)]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42. 기쁨의 과일들과 명예와 존엄이 그것이라
43. 그들은 가장 축복받은 천국에서

44. 옥좌에 앉아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45. 흐르는[1] 샘물에서 잔으로 순배를 들게 되나니
46. 그것은 수정같이 하얗고 마시는 이들에게 맛이 있더라
47. 그것은 머리가 아프지 아니하고 취하지도 않더라[1]
48. 그들 주위에는 순결한 여성들이 있나니 그녀의 눈은 잘 보호되었고[1] 눈은 크고 아름다우매
49. 마치 잘 보호받은 달걀과 같더라[1]
50.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서로가 질문을 하니[1]
51. 그 중에 한 사람이[1] 말을 시작하더라 현세에서 저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52. 그가 말하길 당신은 계시를 믿는자 중에[1] 있느뇨
53. 우리가 죽어 흙이되고 뼈만 남는데도 보상과 벌을 받는단 말이뇨[1]
54. 이때 여러분이 내려다 보고 싶은가요[1] 라는 한 음성이 들려와
55. 그가 내려와 보고 지옥에 있는 그 친구를 발견하고서[1]
56.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 맹세하나니 너는 나를 멸망으로 유혹하려 했노라[1]
57. 내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들 실로 나는 그곳에 끌려온 자중에[1] 있었으리라
58.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그와 같지 않느뇨
59. 우리가 한번 죽으면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했느뇨[1]
60. 실로 이것은[1] 최후의 승리라[2]
61. 이러한 것을[1] 위하여 모든 인간은 노력해야 되니라
62. 그와 같은 환대가 더 나으뇨 아니면 자꾸무[1] 나무가 더 나으뇨
63.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한 시험으로 그것을[1] 두었노라
64. 그것은 불지옥의 밑바닥에서 자라는 나무로
65. 열매를 맺는 새싹은 사탄의 우두머리들과 같으니
66. 그들은[1] 그것을 먹어 배를 채우며
67. 그 위에 이글거리는 물이 더하여 채워지고
68. 그들은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향하니라

69. 그들은 방황하는 그들의 선조들을 발견하고
70. 서둘러 그들의 발자취를 따랐노라
71. 그들 이전의 많은 선조들도 방황하고 있었더라
72.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충고하도록 하였으니
73. 경고를 받고도 주의하지 아니한 이들의 종말이 어떠 했더뇨[1)]
74.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한 종들은 제외라
75. 노아가 하나님에게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하사
76. 큰 재앙으로부터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하고[1)]
77.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생존케 하였노라[1)]
78. 하나님은 후에 올 세대들을 위해 그에게 축복을 남겨
79. 후세대 가운데 노아에게 평안이 있도록 하였노라
80. 이처럼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하나니
81. 하나님의 충실한 한 종이었노라
82. 그리고 하나님은 불신한 나머지를 익사케 하였노라
83. 실로 노아를 따르는 무리중에 아브라함이 있었노라[1)]
84. 아브라함이 경건한 마음으로[1)] 주께로 왔을 때
85. 아버지와 그의 백성에게[1)] 여러분이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뇨
86. 여러분이 숭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허위의[1)] 우상이 아니더뇨
87. 만유의 주님에 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뇨[1)]
88. 그런 후 그는 별들을 쳐다 보고서
89. 말하길 실로 내 마음이 아프도다
90. 그러자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났더라[1)]
91. 그후 그가 그들의 신에게 다가가 너희는 너희 앞에 마련된 음식을 먹지 못하느뇨[1)]
92.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뇨
93. 그런 후 그는 다가가 오른 손으로 그것을 부수워 버렸더라[1)]
94. 그후 우상 숭배자들이 급히 서둘러 달려와 그를 대하니[1)]

95. 그가 말하길 여러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뇨
96.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만든 것도 그러하다고 하니
97. 그들이 말하길 화덕을 만들어 타오르는 불속으로 그를 던지라
98. 이것이 실패하니[1] 그들은 다른 음모를 꾸몄으나[2]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비천한 자들로 만들었노라
99. 그가 말하길 나의 주님께로 가리니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1]
100. 주여 저에게 순종할 자손을 주옵소서
101.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내하며 순종할 아이가 있을 복음의 소식을 그에게 주었노라[1]
102. 아들의 나이가 그와 함께[1] 일할 나이에 이르렀을 때[2] 그가 말하길 내 아들아 너를 제단에 올리라는 명령을 내가 꿈에서[3] 보았노라 너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구나 라고 하니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당신께서 명령받은 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께서는 제가 인내하는 한 종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였더라
103. 그 둘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일로 하여금 그의 이마를 숙이도록 했을 때[1]
104. 하나님은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105. 그대는 이미 그 꿈을 이행하였노라 하나님은 이렇듯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내리니라
106. 실로 이것은 분명한 하나의 시험이었나니
107. 하나님은 훌륭한 회생으로[1] 그를[2] 대신하였노라
108.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내려 후에 올 세대들의 기억속에 남게 했노라
109. 아브라함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
110. 이렇듯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그들에게 보상을 내리니라
111. 그는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종들 중에 있었노라
112.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운 자 중에 있을 한 예언자 이삭의[1] 소식을 주어
113. 그와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내렸으나 그들의 후손 중의 무리

는 의로움을 행하였으되 다른 무리는 사악한 행위를 했었노라
114. 다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은혜를[1] 베풀었노라
115.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백성 모두를 큰 재앙으로부터[1] 구하고[2]
116. 그들을 도왔으매 그들은 그 재앙을 극복하였고[1]
117. 그들에게 사실을 밝혀 주는 성서를[1] 주었으며
118.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후
119.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 후에 올 세대들의 기억 속에 남게 하였노라
120. 모세와 아론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
121.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여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내리노라
122. 실로 그들은 믿음이 강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 중 두 종이었노라
123. 일리야스도[1]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 한 선지자로
124.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느뇨
125. 바을라[1]를 숭배하고 가장 훌륭한 창조주를 버리느뇨
126. 하나님은 너희 주님이사 지나간 선조들의 주님이 아니더뇨 라고 말하였으나
127. 그들은 그에게 거역하였으니 그들은 분명 불리워 갔으리라
128. 그러나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지 아니했노라
129.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내려 후에 올 세대들의 기억속에 남게 하였노라
130. 일리야스와 같은 이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
131. 이렇듯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베푸니라
132. 실로 그는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종 중의 한 종이었노라
133. 롯도[1]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 한 선지자로
134.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의 추종자 모두를 구하였노라
135. 그러나 뒤에 남은 한 늙은여성[1]은 제외되었노라
136. 그후 하나님은 나머지도 멸망케 했나니
137. 실로 너희가 아침이 되매 그들의 사적지를 지나갔노라[1]
138. 저녁에도 그러하거늘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느뇨

139. 요나[1]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 한 선지자로
140. 그는 한 노예처럼 가득 실은 배로 도주하여[1]
141. 점술을 던졌으니 그가 비난을 받았더라[1]
142. 그때 큰 고기가[1] 그를 삼켜 버렸으니 이는 그의 비난받을 행위[2] 때문이었노라
143.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라고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다면[1]
144. 그는 분명 그 물고기 뱃속에 부활의 그날까지 있었으리라[1]
145. 하나님이 그를 불모의 해변으로 구제하니 그는 병들어 있었더라
146. 하나님은 조롱박 나무가 그의 위로[1] 자라게 하였노라
147. 하나님이 십만명 이상의 백성들에게 그를 보냈더니[1]
148. 그들이 믿음을 가졌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시동안 그들의 삶을 즐기도록 허락하였노라
149. 그대의 주님에게는 딸들만 있고 그들에게는 아들만 있는지 물어보라[1]
150.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여성으로 창조한 것을 그들이 목격이라도 했느뇨
151. 실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꾸며낸 것에 불과하니라
152. 하나님께서 자손을 낳는다 하니 그들은 거짓하는 자들이라
153.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딸들을 선택했단 말이뇨
154.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느뇨
155. 너희는 교훈을 받지 아니했더뇨
156. 아니면 너희가 어떤 분명한 권능이라도 있단 말이뇨
157. 너희가 진실이라면 권능을 입증하는 너희의 성서를 가져오라
158. 그들은 하나님과 영마 사이가 혈연관계라고[1] 꾸며대더라 그러나 영마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아니됨을 잘 알고 있노라
159. 그들이 묘사한 것과는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160. 그러나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지 아니 하니라
161. 너희와 그리고 너희가 숭배하는 우상들은
162.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관하여 유혹할 수 없노라

163. 그러나 스스로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가는 자는 제외라
164. 주어진 임무가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아니하며
165. 우리는 줄을 지어
166.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라
167.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168. 선조들로부터 우리에게 메세지가 있었다면
169. 실로 우리는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리라
170. 이에 꾸란이 왔으나 그들은 거역하였으니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171.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이미 전하여 졌으니
172. 그들은 실로 승리하리라[1)]
173.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1)] 정복을 할 것이니
174. 잠시 동안 그들로부터 떨어져
175. 그들을 지켜보라 그들도 지켜 보리라[1)]
176.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서둘러 구함이뇨[1)]
177. 그러나 벌이 그들의 넓은 뜰에 이르니 경고받고 주의하지 아니한 사악한 자들의 아침이 비천하더라
178. 그러므로 잠시 동안 그들로부터 떨어져
179. 그들을 지켜보라 그들도 지켜보리라
180.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한 그대의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그들이 묘사한 것과는 관계가 없노라
181. 선지자들 위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
182.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제 38 장
수라트 솨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사드[1] 교훈으로 충만한 꾸란은 진리라
2. 그러나 불신자들은 거만해 하고[1] 의심으로 불신하나[2]
3. 하나님은 그들 이전 세대들을 얼마나 많이 멸망케 하였으며 그때 그들은 은혜를 구하며 소리쳤으나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더라
4. 그들에게 한 경고자가 이르렀을 때[1] 불신자들은 놀라며 말하길 이는 거짓하는 마술사라
5. 무함마드가 여러 신들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뇨 실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1]
6.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들이 당황하여 떠나며 말하길 돌아가 너희의 신들을 숭배함에 인내하라 이것은 실로 계획된 어떤 것이라
7. 우리는 지금까지의 종교에서[1]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이것은 꾸며낸 우화에 불과하노라
8. 우리 가운데서 그에게 그 메세지를 보냈단 말이뇨 라고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심하고 있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의심으로 하나님의 벌을 아직 맛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9.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권능과 수여하심으로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뇨[1]
10. 아니면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만물을 그들이 주관하고 있단 말이뇨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늘에 오르라 하라
11. 그러나 그들이 연합한 어떤 군대도 거기에서 멸망하였노라[1]
12. 그들 이전의 선지자들을 거역한 노아의 백성과 아드와 오만함의 주인 파라오의 백성이 그랬노라
13. 사무드와 롯과 숲속의 동료들도[1] 그러한 연합군[2] 이었노라
14. 그들 중 선지자들을 거역하지 아니한 백성이 없었으니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노라
15. 불신자들은[1] 단지 한번의 나팔소리를[2] 기다리고 있나니 그것이

이를 때는 유예될 수 없노라

16. 그들은 말하기를 계산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서둘러 벌을 내려보라[1]고 하더라

17. 그들이 말하는 것에 인내하라[1]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며 강한 남성인 다윗을 상기하라[2] 실로 그는 하나님께 귀의한[3] 자라

18. 실로 하나님은 산천으로 하여금 그와[1] 함께 아침과 저녁으로 합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노라[2]

19. 그리하여 모인 새들 모두가 그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1] 하였더라

20.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강하게 하사 그에게 지혜와 분명한 판단력을 주었노라[1]

21. 논쟁하던 무리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이르렀느뇨 그들은 개인의 기도실 벽위로 올라갔더라

22. 그들이 다윗 앞으로 갔을 때 그가 그들을 두려워 하니 그들이 말하길 두려워 마시요[1] 저희는 의견을 달리하는 두사람으로 누가 잘못하였습니까 저희들을 진리로써 판단하여 주시되 부정하게 마옵시고 옳은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소서

23. 이는 저의 형제[1]로 아흔 아홉마리의 양을[2] 소유하고 있으며 저에게는 한마리 밖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나의 보호아래 두라고 말하며 저에게 거친 말을 했습니다

24. 다윗이 말하길 그가 너에게 단 한마리 뿐인 너의 양을 그의 양떼로 두라 요구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 실로 많은 동업자들이 서로에게 잘못 하나니 이것은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이들과 같지 않노라 그러나 그들은 소수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함을 알고 주님께 부복하여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귀의하였더라

25.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일에 대하여 그를 용서하니 그는 하나님 가까이에 이르러 아름다운 안식처를 찾았더라

26. 다윗이여 우리가 너를 지상의 대리자로서 두었거늘 사람들을 진리와 정의로[1] 판결하라 그리고 네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매 하나님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계산하는 그날을[2] 망각한 이유로 무서운 벌이 있으리라

27. 하나님이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만물을 창조함은 목적이 있었노라 그것은 불신자들의 그릇된 생각으로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불지옥의 벌이 있으리라

28.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지상에서 해악을 저지른 자들처럼 대우한단 말이뇨 하나님이 사악함을 멀리하는 자와 사악한 자를 동일하게 다룰 수 있겠느뇨[1]

29. 여기에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성서가 있나니 축복으로 충만하사 그것으로 그들이 말씀을 숙고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 들이고자 함이라

30.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들로 솔로몬을 주었으니[1] 그는 훌륭한 종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에게로 귀의 하였더라

31. 오후가 되어[1] 그의[2] 앞으로 말들이[3] 나타나 서 있으니 안정하고 달림에 신속했더라

32. 그가 말하길 실로 나는 나의 주님을 염원하는 것 같이 그것을 사랑했으니[1] 태양이 밤의 베일 속으로 숨을 때까지였더라

33. 솔로몬이[1] 내게로 이것을[2] 가져오라 하더니 발들과 목들을 내려치기 시작하더라[3]

34. 하나님은 솔로몬을 시험하였으니[1] 그의 옥좌에 한 시체를[2] 놓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였더라

35. 솔로몬이 말하길 주여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내 다음에는 오지 아니 할 왕국을 주소서[1] 실로 당신은 은혜를 베푸시는 수여자이십니다

36. 그후 하나님은 바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순종토록하니 그의 명령에 따라 그가 원하는 곳으로 유순하게 흘러가더라[1]

37. 사탄과 목수들과 물에 들어가는 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했으며[1]

38. 쇠사슬에 함께 묵여 있는[1]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했나니

39.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네가 그것으로 타인에게 부여하든 또는 네가 그것을 보관하던 계산에 대하여 질문을 받지 아니하리라

40. 그렇게 하여 그는 하나님 가까이 이르매 최후의 안식처로 아름다운 곳이 있더라

41. 하나님의 종 욥을[1] 상기하라 그는 주님께 강구하길 사탄이 고통과 재난으로 저를 괴롭히나이다

42. 이때 말씀이 있었노라 네 발로 때리라 여기에 씻을 물과 마시기에 깨끗한 물이 있을 것이라[1]

43.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번성케 하사[1] 그의 수를 곱절로 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는 이들을 위한 교훈이라

44. 네 손에 한다발의 풀을 가지라 그리고 그것으로 때리라 그리하되 맹세를 깨뜨리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그가 인내함으로 충만함을 알았노라 실로 그는 하나님께 귀의한 훌륭한 종이라[1)]

45.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상기하라 그들은 강하고 시야를[1)] 가졌노라

46.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사 그들을 선택하여 내세의 메세지를 알리는데 있었노라

47. 실로 그들은 선택받은 훌륭한 동반자들로 하나님 안에 있었노라

48. 이스마엘과 엘리샤와 줄키플을 상기하라 그들도 선인들로 선택받은 자 중에 있었노라[1)]

49. 이것은 하나의 교훈이라 실로 의로운 자는 아름다운 최후의 거주지를 가질 것이라

50. 에덴의 천국이 바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나니[1)]

51. 그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풍성한 과일과 달콤한 음료수를 청하매

52. 같은 나이의 눈을 내리감은 순결한 여성들이[1)] 그들 옆에서 시중을 드니라

53. 그와 같이 계산의 날을 위해[1)] 천국은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라

54.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일용할 양식은 실로 영원한 것이라

55. 사악한 자는 최후의 안식처가 저주받은[1)] 곳이 될 것이라

56. 그곳은 지옥이라 그들이 그곳에 이르니 그들이 있을 곳은 저주받은 침상으로

57. 끓는 액체와 굳어가는 액체를 맛보리라[1)]

58. 그와 유사한 또 다른 벌들이 있노라[1)]

59. 여기에 너희와 함께 들어온 한 무리가 있나니 그들은 환영받지 못하도다 실로 그들은 불지옥을 맛보리라

60. 추종자들이 그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도다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를 위한 환대가 없음이라 우리에게 이 벌이 있게 한 것도 너희들이라 이제 저주할 곳은 저주받은 곳이라[1)]

61. 주여 저희에게 이 벌이 있게 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그들이 말하자[1)]

62. 우두머리들은 우리가 헤아리곤 했던 사악한 자들을 볼 수 없는

것은 어떤 일이뇨[1)]

63. 우리가 그들을 조롱했기 때문이뇨 아니면 우리의 눈이 그들을 보지 못함이뇨[1)]

64. 실로 그들이 불지옥에서 서로 논쟁한다는 진리는 사실이라

65. 일러 가로되 실로 나는 경고자에 불과하며 홀로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노라

66.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 만물의 주님이시며 권능과 관용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67. 일러 가로되 꾸란은 가장 중요한 계시라

68. 그런데 너희는 등을 돌린단 말이뇨

69. 천사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것에 대하여[1)] 나는 알지 못했노라

70. 이것은 내가 분명한 경고자에 불과하다는 계시라

71.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이 있었노라 내가 흙으로 인간을 빚을 것이라

72. 내가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내 영혼을 불러 넣으리니 그를 경배하라[1)]

73. 모든 천사들이 다함께 그렇게 하였으나

74. 이블리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만하여 불신자 중에 있게 되었더라

75.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블리스야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내가 나의 두 손으로[1)] 창조한 그에게 부복함을 방해하느뇨 너의 오만함인가 아니면 네가 가장 위에 있는 자 가운데 있느뇨

76. 이블리스가 대답하길 제가 그보다 훌륭함이요 당신께서 저를 만드심에 불에서 창조하였고 그를 만듬에 흙에서 빚었습니다

77. 하나님이 말씀하사 이곳에서[1)] 나가라 실로 너는 저주받은 자라

78. 심판의 그날까지 나의 저주가 너에게 있으리라

79. 이블리스가 말하길 주여 죽은자가 부활되는 그날까지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

80.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러면 네가 유예되나니

81. 결정된 그 시간의 날까지라

82. 이블리스가 말하길 당신의 권능에 맹세하건데 내가 그들 모두를 유혹하리라

83. 그러나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실한 당신의 종들은 제외라 하니

84.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것은 진리요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말하리라

85. 너와 그리고 너를 따르는 모두로 지옥을 가득 채우리라

86. 일러 가로되 내가[1] 이것으로[2] 너희에게 어떠한 보상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또한 위선자가[3] 아니라

87.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교훈이라

88. 실로 너희는 잠시 후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리라

제 39 장
수라트 주마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이 성서는[1]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2.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 성서를 그대에게 계시했나니 그분을 경배하고 순종하되 경건하라
3. 경건한 순종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보호자로 받드는 자들이[1] 말하길 우리는 그들만 섬기고 있나니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데려다 주리라 하더라 실로 하나님은 논쟁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거짓하여 불신하는 자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4. 하나님께서 아들을 원하셨다면 그분께서 창조한 자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신 자를 선택하셨으리라[1] 그러나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분은 홀로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5.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를 진리로써 창조하사 밤으로 하여금 낮을 덮게 하고 낮으로 하여금 밤을 덮게 하였으며 태양과 달로 하여금 그분의 법칙에 복종케 하니 각자는 정하여진 시간에 운행하니라 실로 그분은 권능과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
6. 하나님은 한 인간으로[1] 부터 너희 모두를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배우자를[2] 창조하신 후 너희를 위하여 여덟마리 자웅의 가축을[3] 두셨노라 그분께서 어머니 태내에서 너희를 만드사 차례로 단계를 두시어 어둠으로 가리워진 세 곳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주님 하나님이시니 왕국이 그분의 것이라 실로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래도 너희는 등을 돌리느뇨
7.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시나 그분의 종들이 불신함은 좋아하시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감사한다면 그분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도다 짐진자가 타인의 짐을 대신할 수 없으며 최후에 너희가 돌아갈 곳은 너희 주님으로 그때 그분께서는 너희가 행했던 모든 사실을 너희에게 일러 주시니 그분은 마음속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8. 인간은 재앙이[1] 그에게 이른후에야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더라도 그분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나 인간은 그가 구원하여 기도했던 것들을 망각하고 다시 우상을 세워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부터 방황케 함이라 일러 가로되 불신함으로 너희가 잠시 즐기라 실로 너희는 불지옥의 동반자들이라

9. 밤에 스스로 엎드려 예배하거나 서서 기도하며 내세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원하여 예배하는 자가 그렇지 아니한 자와[1] 같을 수 있느뇨 일러 가로되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같을 수 있느뇨[2] 실로 이해하는 자들은 교훈을 받아들이니라[3]

10. 일러 가로되 믿음을 가진 나의 종들이여[1] 주님을 두려워 하라 보상은[2] 현세에서 선을 실천하는 이들에게만 있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지는[3] 넓도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들은 계산없는 보상을 받게 되니라

11. 일러 가로되 하나님을 섬기되 경건하고 진실되게 섬기라 내가 명령을 받았으며

12. 이슬람에 귀의하는 첫번째가 되라 명령을 받았노라

13. 일러 가로되 내가 주님을 거역할 때 실로 어느 위대한 날에[1] 무서운 벌을 내가 받을 것이라 명령을 받았으며

14. 일러 가로되 나의 경건한 헌신으로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라

15.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보라 일러가로되 실로 잃은 자란 심판의 날 자기의 영혼과 그들의 가족들을 잃은 자들이니 보라 그들이 분명한 손실자들이라[1]

16. 불의 덮개가 그들 위와 그들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종들을 경고하사 나의 종들이여 그러므로 너희가 나만을 두려워 하라

17. 사악함을 회피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귀의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소식들이 있나니 그 복음의 소식들을 나의 종들에게 전하라

18. 말씀을 듣고 그것을 최선으로 따르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들이며 그들이 곧 이해하는 자들이라

19. 벌의 심판을 받을 그가 사악함을 회피한 그와 같을 수 있느뇨 불지옥에 있는 자를 그대가 구할 수 있느뇨

20.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 지워진 높은 곳에 있게 되리니 밑으로는 강들이 흐르고 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니라

21. 그대는 보지 못하였느뇨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땅속에 우물을 두셨으며 그런 후 가지각색의 서로 다른 초목을 생성케 하시고 그런 후 그것이 시들어 노랗게 됨에

그분께서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하심을 그대는 보리니 실로 그 안에는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의 계시가 있노라

22. 하나님께서 이슬람으로 그의 가슴을 열어주사 주님으로부터 광명을 받은 자가 마음이 굳은 자와 같을 수 있느뇨 마음이 굳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앙이 있나니 실로 그들은 크게 방황하고 있음이라

23.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사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성서를 주셨나니[1] 때로는 서로 유사하게 하여[2] 때로는 반복[3] 하셨더라 주님을 두려워 한 자들의 피부는[4] 떨리고 그런 후 그들의 피부와 마음은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편안하여 지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나 방황케 하고자 원하는 자 그에게는 안내자가 없노라

24. 심판의 날에 직면할 벌을 두려워 한 그와 그의 얼굴에 벌을 직면할 그가 같을 수 있느뇨[1] 죄인들에게 말씀이 있으리니 너희는 너희가 얻은 것을 맛볼 것이라

25. 그들 이전의 선조들도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벌이 그들에게 있었노라

26. 하나님은 현세에서도 그들에게 굴욕을 주었으나 내세에서의 벌은 더욱 크니라 그들이 알았더라면 불신하지 아니 했으리라

27.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이 꾸란속에 모든 종류의 비유를 두었나니 이로 하여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자 함이라

28. 그것은 아랍어로 계시된 꾸란이며 그 안에는 이견이 없나니 이로 하여 그들이 사악함을 막는데 있노라

29. 하나님이 비유하사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여러 주인을 섬기는 사람과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같을 수 있느뇨[1] 모든 찬미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30. 어느날 그대도 죽을 것이며 그들도 어느날 죽을 것이라

31. 그리하여 너희 모두는 심판의 날 주님 앞에서 논쟁을 하게 되리라

32. 하나님을 거역하고[1] 진리가[2] 도래하였을 때 그것을 거역한 자보다 사악한 자 누구이뇨 불신자들을 위한 거주지는 지옥이 아니겠느뇨

33. 진리로 도래한 그와[1] 그것을 진리로 확증하는 자들은[2]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

34.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갖게 되나니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들의 보상이라

35. 하나님은 그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거두어 주시고 그들이 행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니라

36. 하나님만으로 그분의 종에게 충분하지 않느뇨 그러나 그들은 그분 아닌 다른 신들로 그대를 두렵게 하려 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방황케 두사 안내자가 없노라

37.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 어느 누구도 그를 방황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권능과 대처하심으로[1] 충만하지 않더뇨

38. 대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뇨 라고 그대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라 그들은 말하리라 일러가로되 너희가 숭배하는 그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느뇨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주시려 할 때 그분의 벌을 제거할 수 있느뇨 또한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 할 때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제지할 수 있느뇨 일러가로되 내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며 그분에게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39. 일러 가로되 백성들이여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여 보라 나는[1] 나의 할 일을 다하리니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라

40. 누구에게 수치스러운 벌이 있으며 누구에게 영원한 벌이 있을 것인가를 알게 되리라

41. 하나님이 그대에게 진리로써 그 성서를 계시했나니 이로 하여 인류를 인도하라 그 복음을 따르는 자는 그의 영혼을 이익되게 하는 자요 방황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욕되게 할 뿐 그대는 그들을 위한 보호자가 아니라

42. 죽음에 이른 인간의 영혼을 앗아가며 수면의 상태로 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기한이 된 영혼을 앗아가며 기한이 이르지 아니한 영혼을 잠시 유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실로 이 안에는 숙고하는 백성들을 위한 교훈이 있노라

43. 그들은 숙고하지도 않고 중재자로써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택한단 말이뇨 일러 가로되 그것들은 능력도 그리고 지혜도 없는 것들이라

44. 일러 가로되 모든 중재는 하나님의 것이거늘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그분께 있어 최후에는 그분께로 귀의하노라

45.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라 언급되니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심중은 혐오와 공포로 가득차나 그분 아닌 다른 신들이 언급되었을 때 보라 그들은 기뻐하더라

46. 일러 가로되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고 숨겨진 것과 드러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서로 의견을 달리한 당신의 종들을 심판할 분은 당신이옵니다

47. 스스로 죄지은 자들이[1] 대지에 있는 모든 것과 그와 유사한 모든 것으로 심판의 벌을 대신하려 할 것이나 그것은 무용한 것이며 그들이 생각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

48.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밝혀질[1] 것이며 그들이 조롱했던 것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

49. 보라 재앙이 인간에게 이르니 그는 하나님에게 구원하더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 인간은 이것은[1] 내가 가진 지혜 때문으로 베풀어진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렇지 않노라 이것은 하나의 시험으로 그들 대다수가 모를 뿐이라

50. 그들 이전의 선조들도 그렇게[1]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그들에게 유용하지 못했더라

51. 그들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있었듯이 오늘의 죄인들에게도 그들이 얻은 사악한 결과로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하지 못하니라

52. 하나님께서는 뜻을 주신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도 하시며 제한도 하심을 그들은 모르느뇨 실로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증들이 있노라

53. 일러 가로되 스스로에 대하여 죄지은 나의 종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실수들을 사하여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십이라

54. 그러므로 너희 주님께 귀의하여 벌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분께 순종하라 그 후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55.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1] 따르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벌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이라

56. 이는 영혼이 오 슬프도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임무를 게을리 했으며 내가 조롱한 자 가운데 있었단 말이뇨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57.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더라면 나는 의로운 자중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58. 너희가 벌을 당하여 또 한번의 기회가 있다면 나는 선을 행하는 자중에 있으련만 하고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59. 그렇지 않노라[1] 너희에게[2] 하나님의 예증들이 이르렀거늘 너희는 그것들을 거역하고 오만하며 믿음을 거역한 자가 되었노라

60. 심판의 날 하나님께 거역했던 자들을 너희가 보리니 그들의 얼굴은 검게 변하노라 오만한 자들을 위한 거주지가 지옥이 아니

겠느뇨

61.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승리의 장소로[1] 인도하시니 어떠한 불운도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며 그들에게는 슬픔도 없노라

62.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63. 하늘과 대지의 열쇠들이 그분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1] 거역한 그들에게는 손실만 있을 뿐이라

64. 일러 가로되 무지한 사람들이여 너희가 나로 하여금 숭배하게 할 어떤 것들이 있느뇨

65. 그대 이전에도 그랬듯이[1] 이미 그대에게도 계시가 있었노라 만일 그대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그대의 일은 헛수고가 되어 모든 것을 상실하는 자 서열에 있게 되리라

66. 그리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배하여 감사하는 자 가운데 있으라

67. 그들은 하나님께 해야 할 감사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매 심판의 날 대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을 것이요 하늘이 그분의 오른손에 감기게 되리라 그분에게 영광이 있으소서 그분은 그들이 묘사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노라

68.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 그때 하늘에 있는 것과 대지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을 잃어 시들어지되[1]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제외라 그후 또 다른 나팔이 울려 퍼지니[2] 보라 그때 그들은 서서 지켜보리라

69. 대지는 주님의 빛으로 빛을 발산하니 업적의 기록들이 펼쳐지고 예언자들과 증인들이 앞으로 나오니 진리로써 그들 사이가 결정되매 그들은 조금도 부정하게 다루어지지 않노라

70. 모든 영혼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되돌려 받으니 실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71. 불신자들은 군집하여 지옥으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매 문이 열릴 것이라 이때 문지기들은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하여 주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이날에 너희가 그분을 상봉하리라 경고하지 아니 했더뇨 라고 말하리라 이에 그들은 사실입니다 벌은 불신자들을 위해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72. 지옥의 문들로 들어가 그곳에서 거주하라 오만한 자들의 거주지는 저주스러운 곳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더라

73. 주님을 두려워 한 자들은 군집하여[1] 천국으로 인도되니 보라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매 문들이 열리며[2] 문지기들은[3] 당신들 위에

평안이 있으소서 당신들은 좋은 일을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들어와 거주하소서 라고 말하리라

74. 이때 그들이 말하더라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그분은 약속을 이행하사 우리에게 이 대지를 유산으로 주셨도다[1]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천국에서 거주할 수 있나니 의로운 자들을 위한 보상은 얼마나 훌륭하뇨

75. 그대는 옥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보리라 그들은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되게 하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진리로써 판결이 내려지니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가 있으소서 라는 소리가 모든 곳에서 들려오더라

제 40 장
수라트 가피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 밈[1]
2. 이 성서의 계시는 권능과 아심으로[1]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3.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사 회개함을 받아 주시되[1]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이 엄하니라 또한 그분은 풍요로운 분이시며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최후의 목적은 그분께로 가는 것이라
4.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할 수 있는자 없으되 불신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매 고을에서[1] 그들의 활보가[2] 그대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라
5. 그들[1] 이전에도 거역한 백성들이 있었으니 노아의 백성과 또 다른 백성들이[2] 있었노라 각 백성들은 그들의 선지자를 음모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며[3] 허위로 진리를 논쟁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내가 그들을 멸망케 하였노라 보라 나의 벌이 얼마나 무서웠느뇨
6.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1] 불신자들에게 있었거늘 실로 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들이라
7. 하나님의 권자를 유지하는 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은[1] 주님을 찬미하며 그분을 믿고 믿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더라 주여 당신은 모든 것 위에 자비와 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회개하여 당신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불지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8. 주여 당신께서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과 아내들과 후손들 중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한 에덴의 천국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실로 당신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옵니다
9.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그날 악으로부터 당신의 보호를 받는 자는 당신의 자비를 받은 자로[1] 그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2]
10. 불신자들에게 언급이 있었으니[1] 너희가 믿음으로 초대되었을 때 거절하여 너희 스스로를 혐오한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함이 더 큼이라

11. 그들은[1] 말하리라 주여 당신은 저희로 하여금 두차례의 죽음을 맛보게 하고 두차례의 생명을 주셨나이다[2] 이제 저희는 저희의 죄악을 인식하나니 빠져 나가는 길이 있나이까[3]

12.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경배하라고 했을 때 너희가 믿음을 거역하고 그분과 함께 우상을[1] 섬긴 것 때문이라 실로 심판은 가장 위에 계시고 가장 훌륭하신 하나님이 하시니라

13.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분의 예증을 보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1] 베풀었으되 하나님께 회개한 자만이 그 교훈을 받아들일 뿐이더라

14.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혐오하더라도 하나님에게만 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15. 가장 위에 계시며 옥좌에 계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그분의 명령으로 그분이 원하는 종들에게 계시를 내리어[1] 그것으로 상봉할 그날의[2] 인간에게 경고하시고자 함이라

16. 그날이 되어 그들 모두가 나오매 그들에 관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숨겨지지 못하더라 그날에 왕국은 누구의 것이뇨 그것은 홀로 계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것이라

17. 그날에 모든 영혼은 그가 얻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사 공평함이 있는 날이 그날이라 실로 하나님은 계산하심에 빠르시니라[1]

18. 가까이 다가오는 그날을 그들에게 경고하라[1] 그때가 되면 마음의 공포가 목까지 이르러 그들을 질식케 하니 죄인들은 친구도 그리고 귀를 기울일 중재자도 없노라

19. 하나님은 눈으로 기만하는 술책과[1] 인간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20. 하나님은 진리로써 심판하시나 그들이 숭배했던 다른 것들은 심판할 수 없도다 실로 듣고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

21. 그들은 대지를 여행하며 그들 이전 백성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보지 않느뇨 저들은 그들보다[1] 힘이 더 강하였고 지상에서 더 많은 영향력이 있었지만[2]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항하여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더라

22. 그것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예증과 더불어 도래하였을 때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였으니 실로 그분은 벌하심에 강하시고 엄하시니라

23. 하나님이 모세를[1] 통하여 그분의 말씀과[2] 분명한 능력을[3] 주었나니

24. 파라오와 하만과 까룬에게 보냈노라 그들은 말하길 그는[1] 거짓하

는 한 마술사라고 하더라

25. 모세가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와 더불어 믿는 사람의 남아들을 살해하되 여아들은 살려두라[1] 말하였으나 불신자들의 음모는 방황과 파멸을 초래했을 뿐이라[2]

26. 파라오가 말하였더라 내가 모세를 살해할 것이며 그로 하여금 그의 주님께 구원을 하도록 하리라[1] 실로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그가 너희의 종교를 개종케 하여[2] 대지 위에 해악을 퍼트릴 것이라

27. 모세가 말하였더라 실로 나는 나의 주님이며 너희 주님이신 하나님께 계산하는 그날을[1] 믿지 아니한 모든 거만한 자들로부터[2] 보호하여 달라 구원하니라

28. 파라오 가족 중에 믿음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으니[1] 그는 그의 믿음을 숨기고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말한 것을 이유로 살해하려 하느뇨 라고 말하였더라 실로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예증을 가지고 당신께 왔도다 만일 그가 거짓하는 자라면 그의 거짓이 그를 해할 것이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가 너희에게 경고한 재앙이 너희 위에 있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넘어선 자와 거짓하는 자를 인도하시지 않노라

29. 백성들이여[1] 오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요 그 나라의 주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온다면 누가 우리를 도와 주리요 이때 파라오가 말하였더라 내가 본 것을[2]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오른 길로 인도하리라

30. 그때 믿음을 가졌던 그 남자가 말하였더라 백성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가 죄지은 무리들의 재앙의 날처럼 되지 않을까 두렵도다[1]

31. 노아나 아드 그리고 사무드와 그들 이후에 온 세대들의[1] 운명처럼 되지 않을까 두렵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이 불의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노라

32. 백성들이여 너희가 서로 울부짖는 그날이 염려되노라

33. 그날 그들이 돌아서 도망하려 하나 너희는 하나님의 벌로부터 피하게 할 아무런 보호자도 갖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방황케 하시고자 한 인간은 인도할 자 아무도 없노라

34. 전에 요셉이 분명한 예증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는 그가 온 임무를 끊임없이 의심하였더라 그가[1] 임종하였을 때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을 것이요 라고 너희는 말하였으니 하나님은 죄악을 낳고 의심속에 사는 그들을 방황토록 하였노라

35. 그들이 부여받은 아무 예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하는 그

들에게는 실로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의 큰 혐오가 있노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마음을 봉하여 버리시도다

36. 이때 파라오가 말하였더라 하만이여 내게 높은 궁전을 지어다오[1] 내가 길과 방법을 얻고자 함이라[2]

37. 하늘에 이르는 길과 방법을 알아 내가 모세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내가 생각하니 그는 거짓하는 자라 이렇게 사악한 그의 행위가 파라오의 눈을 유혹하였으니 파라오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의 음모는 자신을 멸망의 길로 유인했을 뿐이라[1]

38. 믿음을 가진 그 남자가 계속하여 말하길 백성들이여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리라

39. 백성들이여 현세의 삶은 지나가는 향락에 불과하니 영주할 곳은 내세뿐이라

40. 사악한 자 그와 같은 것 외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며 선을 실천한 믿음의 남녀는 천국으로 들어가리니 그곳에서 그들은 계산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리라

41.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초대하사 너희는 나를 지옥으로 초대하려 하느뇨

42. 너희는 나를 초대하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과 더불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숭배하라고 하나 나는 너희를 권능과 관용으로 충만하신 분에게로 초대하노라

43. 너희는 현세와 내세에서도 숭배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초대하려 함이 의심할 바 없으나 우리가 귀의하는 곳은 하나님이며 죄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1]

44.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할 것들을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나니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라

45.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불로[1] 이끌려 가며 심판의 날이 이르면 파라오의 백성들은 최악의 벌로 들게 하라는 심판이 내려지노라

46.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불로[1] 이끌려 가며 심판의 날이 이르면 파라오의 백성들은 최악의 벌로 들게 하라는 심판이 내려지노라

47. 그들은 불지옥에서 서로가 논쟁하니 추종했던 약자들은 오만했던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만을 추종했나니 이 불지옥의 몫을 당신들께서 막아 줄 수 없느뇨 라고 말하노라

48. 오만했던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길 우리 모두가 불지옥에 있지 않느뇨 실로 하나님만이 그분의 종들을 심판하시니라

49. 불속의 그들은 지옥의 수호자들에게[1] 당신의 주님께 기도하여 하루만이라도 그 벌을 가볍게 하여 주소서 라고 말하리라

50. 그들이 대답하기를 분명한 예증과 더불어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 했더뇨 라고 물으니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 이때 천사들이 구원을 간청하여 보라고 말하니 불신자들의 기원은 무익할 뿐이라

51.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현세와 그리고 증인이 나타날 그날 승리케 하리라

52. 그날은 불신자들의 변명이 그들을 유용케 하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저주와 사악한 거주지가 있을 뿐이라

53. 하나님은 모세에게 복음을 주었고[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성서를[2] 주어

54. 이해하는 사람들의 길이요 교훈이 되도록 했노라

55. 그러므로 인내하라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라 너희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저녁과 아침으로 주님만을 찬미하라

56. 그들에게 부여된 아무런 능력도[1]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논쟁하는 자들의 심중에는 오직 오만 뿐이니 그들이 바라는 것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구하라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

57. 실로 하늘과 대지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1] 것이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58. 눈먼자와 보는 자가 같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사악한 자와 같지 아니하나 소수를 제외하고는 교훈으로 삼지 못하더라

59. 실로 그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으나 대다수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1]

60. 그러므로 나에게 구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답하여 주리라 나를 경배함에 거만해 하는 자는 굴욕속에 있는 자신을 지옥에서 발견하리라

61. 밤을 두어 너희로 하여금 휴식을 갖게 하고 낮을 두어 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실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베푸시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

62.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너희의 주님 하나님이시니 그분 외에 신이 없노라 그러하므로 너희가 어떻게 유혹되어 진리에서 벗어나려 하느뇨

63.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자들은 유혹되노라[1]

64. 너회를 위해 대지를 안식처로 하사 하늘을 지붕으로 하고 너회를 창조하사 가장 아름다운 형체로 지으셨으며 좋은 양식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너회 주님 하나님은 그러하시니라 그러므로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여 축복을 받으소서

65.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께 경배하여 구하라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66. 일러가로되 내게 나의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었을 때 너회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한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시와 더불어 오직 만유의 주님만을 경배하라 내가 명령 받았노라

67. 너회를 흙으로 빚은 후 부터는 한방울의 정액이 응혈이 되게 하여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너회를 아기로써 태어나게 하고 노인이 되게 하며 그 중에는 그 이전에 임종케도 하고 너회가 정해진 기간이 이르도록 하게 하니 이로 하여 너회가 지혜를 알도록 함에 있노라[1]

68. 생명을 주사 앗아가시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분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 때 있어라 하시매 그것이 그렇게 되니라[1]

69.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논쟁하는 무리들을 보지 않느뇨 그들은 어찌하여 진리에서 벗어나려 하느뇨

70. 이들은 성서와[1]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낸 것들을[2] 거역하고 있으나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71. 그때에 그들 목에는 멍에와 쇠사슬이 씌여져 끌리어 가노라

72. 끓는 액체 속으로 들어가 불속에서 태워지며

73. 너회가 숭배했던 신들이[1] 어디에 있느뇨 라는 질문을 받노라

74. 그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요 라고 그들은 말하며 그것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아니 했습니다 라고 하도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방황토록 버려두시노라

75. 그것은 너회가 현세에서 진리 아닌 다른 것에 탐닉하였고 오만하였기 때문이라

76. 너회는 지옥의 문들로 들어가 그곳에서 거주하라 저주받은 거주지는 오만한 자들의 곳이라

77. 인내하라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던 일부를 그대에게 보여 주리라 아니면 하나님이 그대의 영혼을

그것[1] 이전에 그분의 은혜가운데 있게 하리니 그들 모두가 귀의할 곳은 하나님 뿐이라

78. 그대 이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되[1] 그중에 그대에게 언급한 자 이었고 언급하지 아니한 자 있었으며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예증도 이르지 않했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진리로써 심판이[2] 있었고 그때 그곳의 불신자들은 멸망하였노라

79. 너희를 위하여 가축을 두사 이로 하여 너희가 타기도 하고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라

80. 그 안에는 너희를 위한 또 다른 유익함이 있나니[1] 그것들을 통하여 너희 마음속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또는 그것을 타거나 물건을 싣고 이동하노라[2]

81. 하나님은 너희에게 항상 그분의 예증을 보이고 있으나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예증을 거역하느뇨

82. 그들은 대지를 여행하며 그들 이전 백성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보지 않느뇨 그들은 이들보다 더 많았고[1] 강함이 우월하였으며 대지에 자취들을 남겼노라 그러나 그들이 얻었던 모든 것은 그들에게 이롭지 못하노라

83. 선지자들이 분명한 예증으로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오만해 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조롱한 것이[1] 그들을 에워싸 버렸노라

84.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홀로 계심을 믿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숭배했던 것들을 부정하나이다 라고 말하나

85. 하나님의 벌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을 유용케 하지 못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것은 그분의 종들에게 행하셨던 것이니 불신자들에게는 멸망만이 있을 뿐이라

제 41 장
수라트 푸실라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 밈[1]
2. 이 꾸란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이[1] 계시한 것으로[2]
3. 말씀이 세분화되어[1] 아랍어로 계시한 성서이거늘 이는 이해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
4. 복음과 경고를 전하고[1] 있노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외면하고 듣지 아니하며
5. 말하길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 그대가 초대하는 것이[1]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며 우리의 귀가 막혀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와 그대 사이에는 장벽이 있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일을 하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리라 말하더라
6. 일러 가로되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라[1] 단지 하나님은 홀로 계신다는 계시가 내게 있었을 뿐이라 그러므로 그분께로 향하는 올바른 길을 따르고 용서를 구하라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으리라
7. 그들은 이슬람세를 내지 아니한 자들로[1] 내세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라
8.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보상이 있노라
9. 일러 가로되 이틀만에 대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부정하며 그분과 더불어 다른 것을 숭배한단 말이뇨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라
10. 하나님은 대지위에 견고한 산들을 두시되 그 위로 높이 두시고 그 안에 축복을 두시었으며[1]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흘간의 양식을 주었노라
11. 그런 후 그분은 스스로 수증기로[1] 가득한 하늘로 오르시며 하늘과 대지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좋든 싫든간에 너희가 함께 오라하니 그것들이 답하여 우리는 다함께 순종하나이다 하더라
12. 하나님은 이틀만에 일곱개의 하늘을 완성하신 후 각 하늘에 임무

를 부여하사 지상에 가까운 하늘을[1] 빛으로[2] 장식하고 그리고 보호되도록 하였나니[3] 그러함이 권능과 아심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창조이시라

13. 그래도[1] 그들이 외면한다면 일러 가로되 아드와 사무드에 있었던 벌과 같은 징벌을 너희에게 경고하노라

14. 선지자들이 그들을 전후하여 그들에게 이르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을 때 그들은 말하길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면[1]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셨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믿지 않도다 라고 하더라

15. 아드 백성은 지상에서 진리에 대항하여 거만을 피우며 우리 보다 강한자 누구이뇨 라고 하였더라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함을 그들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단 말이뇨

16. 그리하여 하나님은 궂은 날[1] 그들에게 추운 폭풍을[2]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현세의 벌을 맛보게 했노라 그러나 내세의 벌은 더욱 수치스러운 것이 되며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노라

17. 하나님께서 사무드 백성에게도[1] 옳은 길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은 옳은길 보다는 소경의 길을[2] 택하였으며 그들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3] 치욕스러운 벌이 그들위에 있었노라

18.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정의를 행하는 이들은 구제하였노라

19. 하나님의 적들이 불지옥으로 모여 줄지어 행진할 그날을 상기하라

20. 그들이 불지옥에 이르는 동안에 그들의 귀와 시야와 피부는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증언하노라

21. 그들은 그들의 피부에게 너희는 왜 우리에게 반대하여 증언하느뇨 라고 말하니 그것들은[1] 만물에 화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도록 한 것이요 최초에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늘 너희는 그분에게로 귀의 하리라

22.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귀와 눈과 피부가 너희에게 반대하여 증언하지 못하도록 너희 자신을 숨길 수 없노라 오히려 너희는 너희가 저질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리라 생각했을 뿐이라

23. 너희 주님에 대한 잘못 생각이[1] 너희를 멸망케 하여 너희가 손실중에 있게 되었노라

24. 그들이 인내한다 하여도[1] 불지옥은 그들의 주거지로 결정되었노라 그들이 은혜를 구하나 그때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중에 있게 되노라

25.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까운 동반자들을[1] 두니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그들 뒤에 있는 것들을 그럴듯 보이게 하더라 그것으로 인하여 이전의 영마와[2] 사라진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말씀이 그들에게도 내려진 것이라 그들은 손실자 중에 있게 되었노라[3]

26. 불신자들은 말하니라 이 꾸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시끄럽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하리라[1]

27. 하나님은 불신자로 하여금 가혹한 벌을 맛보게 할 것이며 그들이 행한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28. 그것이 하나님의 적에 대한 벌이니 그것은 곧 불지옥이라 그곳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거주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

29. 믿음을 불신한 자들이 말하리라 주님이여 저희를 유혹했던 영마와 사람들을 보여 주소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발로써 짓밟아 그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 되게 하고자 하나이다

30.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옳은 길에 있는 자들을[1] 위해서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강림하여 두려워 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약속된 천국의 복음이 있노라

31.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서 너희의 보호자들이라 너희는 그 안에서 너희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과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니

32. 이것이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1]의 관대한 선물이라

33. 하나님께 구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며 나는 이슬람에 순종하는자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 만큼 아름다운 말을[1] 하는 사람이 누구이뇨

34. 선과 악이 같을 수 없노라 그러므로 더 좋은 것으로[1] 악을 퇴치하라 그렇게 할 때 그대의 적도 가까운 친구[2]처럼 되노라

35. 인내하여 스스로 자제하는 자 외에는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훌륭함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큰 은혜를 가진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을 수 없노라

36. 사탄이 간섭하여 그대를 교란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그분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라

37. 하나님의 예증 가운데 밤과 낮이 있고 태양과 달이 있노라 그러므로 태양과 달을 숭배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것들을 창조한 그분만을 경배하라

38. 그러나 그들이[1] 오만해한다 하여도 그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들

은[2] 밤과 낮으로 그분 하나님을 찬미함에 피곤해 하지 않노라[3]

39. 하나님의 예증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있나니 그대는 불모의 대지를 보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내리니 생명이 움트고 수확이 증가하도다 실로 그것을 생동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실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40.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 숨겨질 수 없노라 부활의 날 불지옥으로 던져지는 자와 안전하게 오는 자중 어느 쪽이 더 나으뇨 너희가 하고 싶은대로 하라 실로 그분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41. 메세지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것을 거역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노라 실로 그것은 권능의 성서라

42. 어떤 허위도 뒤에서나 또는 앞에서[1] 그것에 접근할 수 없나니 그것은 지혜로 충만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그분에 의해 계시된 것이라

43. 그대 이전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것들이 그대에게도 있었노라[1] 실로 그대 주님은 관용의 주님이요 또한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

44. 하나님이 꾸란을 아랍어 아닌 다른 언어로 계시했다면 불신자들은 말했으리라 이 계시는 왜 분명하지 않느뇨 선지자는 아랍인인데 성서는 아랍어가 아니지 않느뇨 일러 가로되 그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요 치료라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귀머거리요 소경이니 먼곳에서 부르는 것을 듣는 자 같느니라

45. 실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을 때에 그것에 관하여 이론이 있었노라[1] 그대 주님께서 유예하지 아니 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2] 있었으리라 실로 이들도 그것에 관하여[3]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노라

46. 선을 행하는 자 그의 영혼을 위해서요 악을 행하는자 그의 영혼을 위해 역행하는 것이니 그대 주님은 종들에게 조금도 불공평하지 아니 하시니라[1]

47. 그때를[1]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또한 열매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과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심이라 그날 그들을 불러 하나님에 비유했던 것들이 어디에 있느뇨 라고 질문하시리니 이때 그들은 저희 가운데 한 사람의 증인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리라

48.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은 그들을 방황케한 후 떠나버리고 그들은 도피할 길이 없음을 인식하리라

49. 인간이 선을 구할 때는 지치지 아니하나 사악함이 그를 스칠 때면 소망을 단념하고 절망에 빠지노라[1]

50. 인간에게 재앙이 있은 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맛보게 하니 이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요 심판의 시간이 오리라 생각지 아니하며 내가 내 주님께 이른다면 나는 그분에게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라고 그는 말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행하였던 것을 알려 줄 것이며 또한 그분은 그들에게 가혹한 벌을 주리라

51.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면 이에 등을 돌리며[1] 거만해 하고 재앙이 그를 스칠때는 계속하여 구원하더라

52. 일러 가로되 이것이[1]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거역할 때 너희는 어떻게 됨을 알지 않느뇨 멀리서 의심 속에 있는 자보다 더 방황하고 있는 자 누구이뇨

53.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예증을 대지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보여 주리니 이것이 진리임을 그들이 알때까지라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느뇨

54. 지금도 그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의심하고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에워싸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뇨

제 42 장
수라트 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 밈[1]
2. 아인 씬 카프
3. 이렇게 하여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대에게 계시했나니 그것은 그대 이전에 계시했던 것과 같노라
4.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늘 그분은 높이 계심과 위대하심으로 충만하시니라
5. 하늘이 위로부터 벌어지고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지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 관용을[1] 구하니 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6.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호자로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시하나니 그대는 그들의 책임자가 아니라[1]
7. 이렇듯[1] 하나님은 그대에게 아랍어로 꾸란을 계시하나니 이로 하여 그대가 어머니 도시의[2] 주민들과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에게[3] 경고하고 일부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이요 일부는 타오르는 불지옥에 있게 될 의심할 바 없는 그날을 경고하라
8.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분은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1] 두셨으리라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악한 자들은 보호자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9.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것을 보호자로 숭배한단 말이뇨[1] 그러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며 죽은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10. 너희가 어떤 일에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라[1]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분께 의탁하여 그분께로 돌아가리라
11.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너희를 위해 자웅을 두사 가축에도 자웅을 두었노라 이로 하여 너희를 번식케 하니 그분에 비유할 것 아무 것도 없도다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니라

12. 하늘과 대지의 열쇠들이[1] 그분께 있어 그분이 원하는 자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도 하시며 제한도 하시니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13. 그분은 노아에게 내려진 종교를[1] 너회를 위해서 확립하였나니 그분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이라 또한 그분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도 명령하여 그 종교에[2] 충실하고 그 안에서 분열하지 말라 하셨노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한 자들을 그대가 그것으로[3] 인도하려 하는 그 길은 어려운 것이라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그분이 원하는 자를 선택하시며 그분께로 귀의하는 자를 인도하시니라

14. 그들은 지식이[1] 이른 후에도 그들간의 이기심과 시기로 분열하였노라 그대 주님께서 일정 기간까지[2] 말씀을[3] 유예하지 아니했다면 이미 그들 사이를 심판했으리라 그들 이후 성서를 물려받은자들도 그것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더라

15. 그러한 이유로[1] 그대로 하여금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라 함이니 그대가 명령받은대로 강직하라 그리고 그들의 유혹을 따르지 말며 일러 가로되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성서를 믿으며 내가 명령받은 대로 너회를 정당하게 맞이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요 너회 주님이시니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너회에게는 너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노라 그러므로 우리와 너회 사이에 논쟁이 필요치 않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불러 가시니 우리의 목적지는 그분이시라

16.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한 후 그분에 관한 그들의 논쟁은[1] 그들 주님앞에서 무익한 것으로 그분의 노하심이 있을 것이요 무서운 벌이 있을 것이라

17. 진리와 저울로서[1] 성서를 계시한 분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내세가 가까왔음을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리요

18. 그것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그것을 성급하게 재촉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 하며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노라 실로 내세에 관하여 논쟁하는 그들은 크게 방황하리라[1]

19.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자비로우사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노라 실로 그분은 강하심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20. 내세를 위한 경작지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경작지를 더하여 줄 것이며 현세를 위한 경작지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것의 일부를 주리라 그러나 내세에서 그에게는 아무런 몫이 없노라[1]

21. 이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불신을 조성한 사탄의 동반자들이라 최후 심판에 대한 나의 말씀이[1] 없었더라면 이

미 그들을 심판하였으리라 실로 죄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준비되어 있노라

22. 그대는 그들이 저지른 것이 그들에게 닥쳐오리라[1] 두려워 하는 죄인들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의 목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들의 주님과 더불어 만끽하게 되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크나 큰 은혜이라

23.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 중의 하나라 일러 가로되 내가 이것으로[1] 너희에게 보상을 구하지 아니하나 가까운 천척에 대한 사랑은 제외라[2]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으로 보상을 더하여 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선행에 보답하시는 분이시라[3]

24. 무함마드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 한다고 그들이[1] 말하느뇨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분은 그대의 마음을 봉하여 버렸으리라[2]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짓을 제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진리를 입증하셨으리라 실로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계시노라

25. 하나님은 그분 종들의 회개함을 받아 주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1]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심이라

26.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행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사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벌이 있을 뿐이라

27.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크게 넘치게 한다면[1] 그들은 지상에서 죄악을 낳으리라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적절한 양을 부여하시니 실로 그분은 그분의 종들을 관찰하며 지켜보고 계심이라

28. 사람들이 절망속에 있을 때 비를 내리게 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리고 그분은 보호자이자 홀로 찬양 받을 분이시라

29. 하나님의 예증으로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산재한 모든 생물들이 있노라 그리하여 그분이 원하실때 그것들 모두를 집결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노라

30. 너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 손들이 얻은 것 때문이라[1] 그러나 그분은 아직 그들 대다수를 용서하고 계시니라

31. 너희는 지상에서 회피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32. 산같은 큰 배들이 바다를 순항하는 것도 그분의 예증 가운데 하나라[1]

33. 그분의 뜻이 있을 때 그분은 바람을 멈추게하여 배들이 바다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실로 이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1] 모든 인간을 위한 예증들이 있노라

34. 그분은 그들이 저지른 사악함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실수 있으나 많은 것을 용서하시니라

35. 그러나 하나님의 예증들에 관하여 논쟁하는 자 그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음을 알게 하리라

36. 여기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현세의 삶을 위한 순간의 양식에 불과하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더 좋으며 영원한 것으로 이는 믿음으로[1] 주님께 의탁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

37. 이들은 큰 죄악들을[1] 피하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피하며[2] 화가 날 때도 용서하는 자들이라[3]

38. 이들은 주님의 부름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고 일을 처리함에 상호 협의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일용할 양식으로 자선을 베푸는 자들이라

39. 이들은 그들에게 박해가 있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자들이라[1]

40. 사악함에 대한 보상은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으되 그러나 관용을 베풀어 개선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노라 실로 그분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41. 그러나 부당함을 당한 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함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있지 않노라

42. 실로 비난을 받을 자는 지상에서 백성들을 박해하고 의롭지 못하게 죄를 지은 자들이니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43. 그러나 인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실로 그것들이 인내요 굳은 결심중의 하나라

44.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 자 그에게는 보호자가 없나니 벌을 받는 그들이 다시 돌아갈 길이[1] 없나이까 라고 말하는 죄인들을 그대는 보리라

45. 그대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옥에 이르며 두려움으로[1] 서로가 서로를 훌려보는 그들을 보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손실자들은 부활의 날 자기 자신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상실한 자들이라 말하는 것을 보리라 실로 죄인들은 영원한 벌속에 있게 되노라

46. 그들은 하나님 외에 그들을 도울 보호자를 갖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 자 그에게는 길이 없노라

47. 되돌아 갈 수 없는 어느 날이[1] 임하기 전에 너희 주님의 부름에[2] 응하라 그날 너희에게는 피할 곳도 없을 것이며 너희 죄악을 부인할 여지도[3] 없노라

48. 불신자들이 거역한다 하더라도 그대를 그들의 감시자로 보내지 아니 했나니 그대의 임무는 메세지를 전하는 것이라[1] 실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인간으로 하여금 맛보게 할 때 그는 그것으로 기뻐하나 그들의 손들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때면 보라 실로 인간은 불신하노라

49. 하늘과 대지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분께서 뜻을 두시고 계획한 것을 창조 하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남아와 여아를 주시니라

50. 그분은 남성과 여성을 다같이 두시고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불임으로 두시니 실로 그분은 아심과 능력으로 충만하시니라[1]

51.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낸 것은 인간을 통해서가[1]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또는 가리개 뒤에서[2] 사자를[3] 통하여 계시되었으며 이는 그분께서 뜻을 두고 허락하신 것이라 실로 그분은 높이 계시며 지혜로운 분이시라

52.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으로 그대에게 계시하나니 그대는 이전에 성서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노라[1] 그러나 하나님은 꾸란을 광명으로 하고 그것으로 그분의 뜻이 있는 종들을 인도하도록 하였노라 실로 그대는 인간을 옳은 길로 인도하리라

53. 그 길은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길이라 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느뇨

제 43 장
수라트 주크루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 밈[1)]
2. 사실을 밝혀주는 이 성서에 맹세하니라
3. 하나님은 그것을 아랍어로 계시하였으니 이로 하여 너희가 이해하고 배우도록 함이라
4. 실로 그것은 하나님 성서의 모전에 있는 것으로[1)] 지혜가 가득 채워진 것이라
5. 너희가 벗어난 백성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방치할 수 있겠느뇨[1)]
6. 하나님이 옛 백성들에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으매[1)]
7. 예언자가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노라[1)]
8.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들보다[1)] 힘이 강한 그들을[2)] 멸망케 하고 옛 백성들의 비유가 교훈이 되도록 하였노라
9. 그대가 그들에게 천지를 창조한 분이 누구시뇨 라고 묻는다면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하리라[1)]
10. 그분은 대지를 두어 너희의 휴식처[1)]로 하시고 그 안에 길을 두시니 이로 하여 너희가 인도되도록 하고자 함이라
11. 그분은 일정한 양의[1)] 비를 내리게 하시어 죽은 대지에 생명을 주시도다 그와 같이 너희도 부활 하노라[2)]
12.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매 자웅을[1)] 두고 또 너희가 탈 배들과 가축들을 두었노라
13. 이리하여 너희가 등위에서 안정하고 너희가 그곳에 안전하게 앉아 있을 때 너희 주님을 염원하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저희에게 순종케 하여 주신[1)]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라고 말하고
14. 저희는 저희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함이라

15.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분의 일부 종들이 하나님의 분신이라[1] 말하니 실로 인간은 오만불손하도다
16.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 딸들을 택하시고 너희는 아들을 선택하도록 하였단 말이뇨[1]
17.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비유했던 소식이 그들에게 이를때면 그의 얼굴은 어두어지며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더라[1]
18. 장식으로 양육된 그녀들을 하나님께 비유하려 하나 그것은 하나님과 비유할 이유가 되지 못하지 않느뇨
19. 그리고 불신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을 여성이라 하더라 그들은 천사들이 창조될 때 목격이라도 하였단 말이뇨 그들의 증거는 기록되어[1] 질문을 받게 되리라
20. 그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저희는 결코 그것들을[1] 숭배하지 아니했으리라고 말하나 그들의 말에는 지식이 없는 거짓말이라
21.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1] 이전에 성서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2] 따르도록 했단 말이뇨
22. 그렇지 않노라 저희는 저희 선조들이 따랐던 종교를 발견하여 그들의 길을 스스로 따를 뿐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더라
23. 하나님이 그대 이전 백성들에게 경고자를 보냈을 때마다 그들 중의 부유한 사람들도 저희는 저희 선조들이 따랐던 종교를 발견하여 그들의 길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하더라
24. 모든 선지자는 너희가 선조들로부터 발견 한 것보다 더 나은 복음을 가지고 왔노라고 말했으나 불신자는 당신들을 통하여 보내어진 것을 믿지 않는다 말하더라
25.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니 보라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 했더뇨
26.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백성들에게 말하길 실로 저는 여러분이 숭배하는 것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27.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나니 실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28.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말을[1] 남겼으니 아마도 그들은[2]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29.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과[1] 이들 선조들에게[2] 진리와[3] 사실을 밝혀주는 한 선지자가[4] 임할 때까지 현세의 삶을 향락하도록 두었노라

30. 그러나 진리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것은 마술에 불과 하니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으리라고 말하더라

31. 불신자는 이 꾸란이 두 도시의[1] 지도자에게는[2] 계시되지 아니 하였더뇨 라고 묻더라

32. 그들이 그대 주님의 은혜를 분배한단 말이뇨[1] 현세의 생활속에서 그들에게 생활의 양식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들중 일부에게는 지위를 다른 자 보다 높이 두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자들을 지도하도록 하였노라 그러나 그대 주님의 은혜는 그들이 축적한 재물보다 더욱 좋은 것이라

33. 백성들이 불신의 무리가[1] 되려 하지 아니 한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그분을 모독한 각자를 위해 그들의 집 지붕과 그들이 오르는 계단을 은으로 장식하여 줄 수도 있으리라

34. 그들의 집 문들도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침상도 은으로 장식될 수 있으며

35. 금으로도[1] 장식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2] 현세생활의 향락에 불과하며 그대 주님 앞의 내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있노라

36.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우신 교훈으로부터 외면하는 자를 위해 사탄을 두사 사탄이 그의 친구가 되더라[1]

37. 그리하여 사탄들이 그들로[1] 하여금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나 그들은[2] 스스로가 옳은 길로 인도되는 것으로 생각하노라

38. 그가[1] 하나님께 이르러 말하더라 너와[2] 나 사이에 동쪽과 서쪽 사이의 거리 만큼이나 사이가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실로 사악한 무리라

39. 너희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그날에는[1] 어느 것도 너희에게 유용하지 못하니 너희는 함께[2] 벌을 받으리라

40. 그대는 귀머거리로 하여금 듣게 할 수 있으며 장님과 방황하는 자를 인도할 수 있느뇨[1]

41. 하나님이 그대를 거두워간 후에라도[1] 그분은 그들에게 응벌을 내리시니라

4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 주리니[1] 실로 그분은 그들을 제압할 능력으로 충만하시니라

43.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지키라 실로 그대는 곧바른 길위에[1] 있노라

44. 실로 꾸란은 그대와 그대 백성을 위한 복음이니 너희가 곧 질문을 받으리라

45. 그대 이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라[1] 자비로우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라 하였더뇨

46.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모세를 파라오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보내니 나는 만유의 주님이 보낸 한 선지자라 말하였더라

47.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비웃었노라[1]

48. 그리하여 하나님은 차례로 이전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그들을 벌하여[1]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귀의하기를 바랬노라

49. 그들이 말하길 오 마술사여 그분께서 당신께 성약한 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으리요 라고 하더라

50.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벌을 거두어 주니[1] 보라 그들은 약속을 깨뜨리노라

51. 파라오는 그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여 애굽의 왕국이 나 안에 있지 않느뇨 또한 강물이[1] 내 궁전 밑으로 흐르지 않느뇨 그래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느뇨

52. 보잘것 없는 그리고 웅변도 없는 이 사내를[1] 보라 내가 더 훌륭하지 않느뇨

53. 그에게는 금팔찌도 없으며 천사들도 그를 따라오지도 않는단 말이뇨

54. 이렇듯 그는 그의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니 그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으매 실로 그들은 죄지은 백성들이었노라

55.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응벌을 내리사 그들 모두를 물에 익사케 하였노라[1]

56. 하나님은 그들의 선례를 후세대를 위한 교훈으로 삼았노라

57.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예를 들면[1] 그대의 백성은 그를 조롱하며 소란을 피우고

58. 우리의 신들이 훌륭하뇨 아니면 그가 훌륭하뇨 라고 그들은 말했더라 이렇듯 그들은 그대에게 논쟁하려 하였으니 논쟁을 일삼는 무리들이라

59. 그는 한 종에 불과하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교훈이 되게 하였노라[1]

60.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분은 천사들로 하여금 대지위의 계승자가 될 수 있게 하였으리라[1]

61. 실로 예수의 재림은 심판이 다가옴을 예시하는 것이라[1] 일러 가로되[2] 그 시각에 대하여 의심치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옳은 길이라

62. 그리고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실로 그는 너희의 분명한 적이라

63. 예수가 분명한 예증과 더불어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길 내가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나니 너희가 논쟁하는 것을[1] 밝혀 주겠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내게 순종하라

64.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요 또한 너희의 주님이라 그러므로 그분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바른 길이니라

65. 그러나 그들 중의 무리들은 의견을 달리 했으니[1] 그들 죄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날[2] 벌이 있으리라

66. 그들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닥쳐올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뇨

67. 그날의 친구들은[1]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리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만은 제외라

68. 나의 종들이여 그날의 너희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69.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슬람에 귀의한 자들이니[1]

70. 너희와 그리고 아내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기뻐하리라

71. 황금의 접시들과 컵들이 그들 주위를 맴돌며 그 안에는 그들의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과 그들의 눈들을 기뻐하게 할 모든 것들이 있나니 너희는 그 안에서 영생할 것이라

72. 그것은 너희가 행한 대가에 따라 물려 받은 천국으로

73. 너희는 그 안에서 풍성한 과일을 맛보며 그것에 만족하리라

74.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지옥의 벌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주하게 되노라

75. 그들을 위해 그 벌이 가벼워 질 수 없으니 그들은 그 안에서 절망하도다

76.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욕되게 한 것은 그들 자신들이었노라

77. 이때 그들은 주인이시여[1] 주님으로 하여금 벌을 거두어 주도록 하여 주소서 라고 호소하니 그럴 수 없노라 너희는 그곳에서 살게 되리라 대답하시더라[2]

78.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리를 주었건만 너희 대다수는 그 진리를 증오하며

79. 그들 스스로 음모를[1] 꾸몄으나 하나님은 승리케 하였노라[2]

80.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기는 것과 그들이 주고받는 비밀의 대화를 듣지 못함이라 생각하느뇨 아니라[1] 또한 천사들이[2] 기록하니라[3]

81. 일러 가로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졌다면 내게 제일 먼저 경배하는 자가 되리라[1]

82. 천지의 주님이시며 권자에 오르실 주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실로 그분은 불신자들이 묘사한 분이 아니시라

83. 그러므로 거짓과 욕되는 말에 탐닉한 그들을 그대로 두라 그들이 약속받는 그날을 맞이하리라

84.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며 대지위에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85.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왕국이 그분의 것으로 그분께 축복이 있으소서 그분만이 심판의 날을 알고 계시니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가노라

86.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한 자들에게는 중재할 능력이 없으되 진리를 증언한 자는[1] 예외로 그들은 그를 알고 있노라

87. 그들을 창조한 분이 누구이뇨 묻는다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말하니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리로부터 외면하려 하느뇨

88. 주여 실로 그들은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의 외침이 들렸노라[1]

89. 그대여 그들로부터 멀리 하라 그리고 안녕히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1]

제 44 장
수라트 두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 밈[1]
2. 사실을 밝혀주는 이 성서에[1] 맹세하며
3.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받은 밤에[1] 계시했나니 그것으로 경고하고자 함이라
4. 그날 밤[1] 모든 지혜로운 일들이 명백하여지니
5. 하나님의 명령이라 실로 그분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노라[1]
6. 그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자비라 실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7. 너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은 하늘과 대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의 주님이시라
8.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앗아 가시는 분도 그분으로 너희의 주님이요 또한 너희 조상의 주님이시라
9.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며 조롱하니
10. 하늘이 짙은 연기로 가득 차는 그날을 그대는 지켜보리라[1]
11. 연기가 사람들을 덮어 가리우니 고통스러운 벌이라
12. 불신자들은 주여 저희에게 이 벌을 거두어 주소서 저희가 믿겠나이다[1]
13. 그 교훈이 그들에게 유용하겠느뇨 진리를 밝혀주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미 임하셨도다[1]
14. 그러나 그들은 그로부터 등을 돌리며 그가 미친자라 말하더라[1]
15. 하나님께서 잠시 응벌을 거두어 주면 너희는 다시 사악함으로 돌아갈 것이라
16. 가장 격렬한 응벌이 있을 그날[1]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벌을 가하리라
17. 하나님은 그들 이전의 파라오 백성을[1] 시험하였으니 훌륭한 선지자가[2] 그들에게 임하여

18. 하나님의 종들을[1] 내게 넘겨주오 실로 나는 너회에게 온 믿음의[2] 선지자라 말하더라
19. 하나님께 거역하며 오만하지 말라 실로 내가 분명한 능력을 너회에게 보여 주리라
20. 너회가 나를 해치려[1] 할 때 나는 나의 주님이며 너회 주님인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리라
21. 너회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면 나를 홀로 두라[1]
22. 실로 이들은 죄지은 백성입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더라[1]
23. 이에 대답이 있었으매 너회가 추적을 당하리니[1] 나의 종들과 더불어[2] 밤에 떠나라
24. 바다는 갈라진 채로 두어라 그들은[1] 익사하게 될 무리들이라[2]
25. 그들이 남긴 과수원과 우물들이 얼마나 많으뇨
26. 전답과 훌륭한 휴식처와[1]
27. 향락에 탐닉했던 그 풍요로운 재물도
28. 그렇게 하여 끝이 나고[1]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른 백성에게 상속케[2] 했노라
29. 그들을 위해 하늘도 땅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했으며 그들에게는 유예도 없었노라
30. 하나님은 굴욕의 재앙으로[1] 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였으니
31. 파라오로 부터라 실로 그는 오만한 죄인이라
32. 하나님은 지혜로써 여러 민족 중에서 그들을[1] 선택해서[2]
33. 그들에게 증표들을[1] 주었나니 그 안에는 분명한 시험이 있었노라
34. 이들은[1] 말하였더라
35. 우리가 한번 죽으면 다시 부활되지 않노라[1]
36. 그러므로 너회가 진실이라면[1] 우리 선조들을 되돌려 주라 하니
37. 그들은 투바의[1] 백성과 이전의 백성들 보다[2] 강하다 생각하느뇨 하나님은 그들이 낳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케 했노라
38.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1]
39. 그것들을 진리로 창조하였으되 그들 대다수는 이해하지 못하노라

40. 실로 심판의 날은 그들 모두를 위해 정하여진 날이니
41. 그날은 친구가 그의 친구에게 유용하지 아니하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날이라
42.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는 제외라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43. 실로 자꾸무 나무가[1]
44. 죄인들의 음식이 되어
45. 녹은 쇳물처럼 되어 그들의 위 속에서 끓어 오르니
46. 들끓는 뜨거운 물과 같더라
47. 그때 음성이 들려오니[1] 그를 데려가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넣으라
48.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들끓는 물이 부어지며
49. 이것을 맛보라 실로 너야말로 훌륭하고 힘이 센 자라[1]
50. 실로 이것이 네가 의심했던 것이라[1]
51.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안전한 곳에 있게 되나니
52. 낙원과 우물들이 있는 곳이라
53. 섬세한 실크와 비단 옷을 걸치고 서로의 얼굴을 맛보게 되리라
54. 그렇듯 은혜를 베풀고 아름답고 눈이 큰 배우자를[1] 결합시켜 주니
55.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과일을 평화롭게 즐기도다
56. 그들은 한번의 죽음 외에는[1]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지옥의 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니라
57. 이것이 그대 주님의 은혜요 최고의 승리라
58. 하나님은 꾸란을 그대의 언어로 계시했거늘 이로 하여 그들이 교훈을 얻도록 함이라
59. 그러므로 그대는 기다리며 지켜보라 그들도 역시 기다리고 있노라

제 45 장
수라트 알자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 밈[1]
2. 이것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1] 계시된 성서라
3. 실로 하늘과 대지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증이 있으며[1]
4. 너희를 창조한 것과 대지위에 산재하여 있는 것도 믿는 자들을 위한 예증이라
5.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1] 주시는 것도 그리고 죽은 대지를[2] 소생케하며 바람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도[3] 이해하는 백성들을 위한 예증이라
6.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리로써 그대에게 낭송한 그분의 예증들이라 그래도 하나님과 그분의 예증을 거역한다면 그들은 어떤 말을 믿는단 말이뇨[1]
7. 거짓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8.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거만하고 오만해 하니 그에게 고통스러운 응벌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라
9. 하나님의 예증을 들었을 때 그것들을 조롱한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
10. 그들 앞에는 지옥뿐이며 그들이 얻었던 어떤 것도 유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외에는 그들을 위해 어떤 보호자도 없나니 그들에게는 무서운 응벌 밖엔 없노라
11. 꾸란은 바로 길이라 그럼으로 주님의 증표들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12. 바다로 하여금 너희에게 순종케 하여 그분의 명령으로 배가 항해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1]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라
13. 그분은 하늘과 대지위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순종토록 하였

나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증들이 있노라

14. 하나님의 날들을 두려워 하지 아니한 그들을 용서한 믿는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1] 하나님은 그들이 얻은 것에 따라 백성들에게 보상하시니라

15. 의로움을 실천한 자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요 악을 퍼뜨린 자 그것은 스스로 역행되는 것으로 너희 모두가 너희 주님께 귀의하노라

16. 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서와[1] 주권과[2] 예언자들을[3] 주었으며 또한 다른 백성에 우선하여[4]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었노라[5]

17.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에[1] 분명한 예증을 주었으되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들에게 지식이 이를때 까지는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했노라 실로 주님께서 부활의 날 그들이 의견을 달리했던 것에 관하여 심판을 하시리라

18. 그후 하나님은 그대를 바른 길 위에 두었으니[1] 그대는 그 길을 따르되 알지못하는 자들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

19.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에게 유용치 못하니라 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만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노라

20. 이것이 인간을 위한 빛이요 길이며 의로운 백성을 위한 은혜라

21.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행위를 한 자들의 생명과 죽음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과 같게 할 것이라 생각하느뇨[1]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22. 하나님께서 진리로 천지를 창조하사 모든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하시니 어느 누구도 부정하게 다루어지지 않노라

23. 멋대로 신을 만들어 내는 자를 그대가 보리니 하나님은 그를 방황케 하셨으매 그의 귀와 마음을 봉하여 버리고 그의 시각도 봉하여 버렸으니 하나님 외에 누가 그를 인도하리요[1] 그럼에도 너희는 숙고하지 않느뇨

24. 현세에서는 사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느뇨[1] 우리가 죽으면 다른 세대가 살게 되리니 이것은 세월이 그렇게 할 뿐이라고 말하니 실로 그들은 알지 못하고 단지 추측할 뿐이라

25.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송될 때 너희가 진실이라면 우리의 선조들을 다시 이르게 하여 보라는 논쟁 밖엔 하지 못하더라

26. 일러 가로되 너희에게 생명을 주사 생명을 앗아 가시며 의심할

수 없는 심판의 날 너희를 다시 모이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시라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27.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하나님의 것이며 심판의 시각이 확립되어 있노라 그날이 되면 거짓했던 그들은 멸망하게 되니라

28. 그날 무릎을 꿇은 무리가 그들의 기록에 의해 불리워 가는 무리를 그대가 보리니 오늘은 너희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소리가 들려 오더라

29. 이것은 진리로써 너희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줄 하나님의 기록으로 그분은 너희가 행한 것을 기록하시노라[1)]

30. 믿음으로 의로움을 실천한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혜[1)]가운데 들게 하시니 그것이 최고의 승리라

31.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 했느뇨[1)] 너희는 오만한 죄인들이었노라

32.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며 의심할 바 없는 내세가 진리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내세가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며 믿지 않는다고 너희는 말하곤 했노라

33. 그때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의 결과가 나타나니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했던 것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 되더라

34. 이날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망각했던 것처럼 그분은 너희를 기억하지 아니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거주지는 불지옥이며 너희는 구원자도 갖지 못하노라

35.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예증들을 조롱했고 너희가 현세생활에 유혹되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날로부터 그곳에서 헤어날 수도 없으며 은혜를 받을 수도 없노라

36. 그러므로 하늘의 주님이요 대지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라

37. 하늘과 대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제 46 장
수라트 알아흐까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 밈[1)]
2. 이것은 꾸란의 기적 가운데 하나로 그 의미는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라[1)]
3.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을 창조함은 일정기간 동안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라 그러나 믿음을 거역한 자들은 그들이 경고받은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더라
4. 일러 가로되 하나님 외에 너희가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보았느뇨 그것들이 대지에서 창조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라 아니면 그것들이 하늘을 창조함에 동참이라고 하였단 말이뇨 이것[1)]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라 계시된 성서가 있다면 내게 이르게 하라 아니면 너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너희의 말을 뒷받침 하는 지식의 흔적이라도 보이도록 하라
5. 하나님을 제쳐놓고 심판의 날 응답도 못하며 그들의 부름에 관심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보다 크게 방황한 자 누구이뇨
6. 사람들이 부활하여 모이는 날 우상들은 자신들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적이 되어 저들의 숭배를 부인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송되면 불신자들은 이 진리에 관하여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라 하더라[1)]
8. 저들은 또 무함마드가 꾸란을 만들어 낸 것이라 말하더라 일러 가로되 내가 그것을 위조했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벌을 막지 못하리라[1)]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을[2)] 알고 계시니 나와 너희 사이의 증인은 그분으로써 충분하노라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9. 일러 가로되 내가 새로운 교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며 내게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을런지 내가 모르니라 나는 다만 계시된 것을 따르는 자로 분명한 경고자에 불과하니라

10. 일러 가로되 꾸란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으로 너희가 이 사실을 거역했을 때를 너희는 숙고해 보았느뇨[1]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증인이[3] 그것을 증언하고 믿음을 가졌으나 너희는 거만해 하였으니 실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11.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길 꾸란이 복음이었다면 나약한 사람들에 앞서[1] 우리가 먼저 믿고 따랐을 것이라 자신들이[2] 그것으로 인도받으려 하지 아니하면서 그것은 옛 우화에 불과하다고 하더라

12. 이보다[1] 이전에도 가르침과 은혜로써 내려진 모세의 성서가[2] 있었노라 아랍어로 된 이 성서는[3] 이전의 말씀을[4] 증거하면서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

13.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말하며 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1]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14. 그들은 천국의 주인들로 그곳에서 영생하리니 그것이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15.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말씀하셨노라 어머니는 고통으로 잉태하고 고통으로 출산하느니라 임신한 기간과 양육하는 기간은 삼십개월이라 그가 성년이 되고 나이 사십이 되면 주여 당신께서 저와 그리고 저의 부모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에 저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실 의로운 일을 하고 저의 후손도 의로운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실로 저는 당신께 회개하며 당신께 순종하나이다[1]

16.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훌륭한 행위를 받아주사 그들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니 그들은 천국에 사는 주인들 가운데 있게 되니라 그것이 현세에서 그들에게 약속된 진리라

17. 그러나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말하길 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부활하지 아니하는데 제가 부활된다고 믿음을 강요하나이까 이때 부모는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며 슬픈일이라 믿음을 가져라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라 그러자 그가 말하길 이것은 옛 선조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

18. 저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으며[1] 저들 이전의 영마와 인간들도 그들의 오만함으로 사라져 갔으니 실로 저들은 손실자들이라[2]

19. 모든 인간에게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등급이 있나니[1]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하시매 그들은 공평한 대우를 받으리라

20. 불신자들이 불지옥에 들어가는 날 말씀이 있을 것이라 너희는 현세의 생활에서 좋은 것들을[1] 부여 받고서 향락과 오락에 탐닉했으니 오늘 너희에게는 수치스러운 응벌의 보상만이 있을 뿐이라 이는 너희가 지상에서 오만하고 방탕했기 때문이라

21. 아드의 한 형제 후드가 굴곡진 모래 언덕에서[1] 그의 백성에게 경고했던 것을 상기하라 그의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곳에 경고자가 나타나 말하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실로 나는 위대한 어느 날 너희에게 있는 응벌이 두려울 뿐이라[2]

22. 이때 저들이 대답하길 당신은 우리를 우리의 신으로부터 멀리하려고 왔느뇨 당신이 진실이라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보이라

23. 후드가 말하길 그것은[1] 하나님만이 아실 뿐 나는 내게 주어진 계시만을 너희에게 전할 뿐이라 그러나 너희는 오만한 백성임을 내가 알고 있노라

24.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 그들의 계곡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길 이것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구름이라 그렇지 아니함이라[1] 그것은 너희가 서둘러 구한 재앙이요 고통스러운 응벌의 바람이라

25.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멸망 할 것이라 아침이 되니 저들 집들의 황폐한 흔적 밖엔 보이는 것이 없었더라 그렇듯 하나님은 죄지은 백성들에게 보상을 내리시니라[1]

26. 하나님이 너희에게[1] 부여하지 아니했던 번영과 힘을 저들에게[2] 주었고 그리고 귀와 눈과 마음을 주어 그 은혜를 인식하도록 하였으나 저들의 귀도 눈도 그리고 마음도 저들에게 유익하지 못하여 저들은 계속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저들은 자신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것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노라[3]

27. 하나님께서 너희 주변의 고을들을 멸망케 하고[1] 여러가지 증표를 보여 저들로 하여금 그분에게 귀의하도록 하였노라

28. 하나님을 제쳐놓고 저들이 가까이 했던 신들은[1] 왜 저들을 돕지 못하였느뇨[2] 그렇게 할 수 없노라 그것들은[3] 저들을 방황케 했을 뿐으로 그것은 거짓의 결과이며[4] 위조한 것의 결과이니라

29. 하나님께서 영마의 무리로[1] 하여 그대에게 보내 꾸란을 듣도록

하니 그들이 거기에 나타나 말하길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 말하고 꾸란의 낭송이 끝났을 때 백성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라고 하더라[2)]

30. 저들이 말하길 백성들이여 우리는 모세 이후에 계시된 꾸란에 관하여 들어나니 그것은 그 이전에 계시된 것을 증거하고 진리와 바른길로 인도하는 성서이더라

31.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과오를 용서하실 것이며 고통스러운 응벌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1)]

32.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한 자는 땅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케 못하니 그 때 그는 하나님 외에 어떤 보호자도 갖지 못하여 크게 방황하게 될 것이라

33.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시고 또 끊임없이 창조를 계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저들은 알지 못하느뇨 그러함이라 실로 그분께서는 만사를 지배하시는 힘을 가지고 계시니라

34. 불신자들이 불지옥으로 끌리어 가는 날 그래도 사실이 아니뇨 라고 질문하니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매 너희가 진리를 거역한 것으로 너희는 이 벌을 맛보라 하더라

35.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랬듯이 그대도 인내하라 그리고 저들에 대한 징벌을 서둘러 구하지 말라 저들에게 약속된 것을 저들이 지켜 볼 그날이면 저들은 현세에서 한 시간도 체류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되리라 그대는 계시를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노라 불신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노라

제 47 장
수라트 무함마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길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업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니라[1)]

2.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진리를[1)] 믿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며 그들의 위상을[2)] 높여 주시니라

3. 그것은[1)] 불신자들이 거짓을 따름에 반해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내려주신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라 이렇듯 하나님은 비유로써 인간에게 교훈을 내리시니라

4.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저들의 목들을 때리라[1)] 너희가 완전히 저들을 제압했을 때는[2)] 저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런 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3)] 석방을 하던지 아니면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보상금을 받고 저들을 풀어주라[4)] 그렇게 하라 너희에게 명령이 있었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저들에게 징벌을 내렸을 것이라 그러나 그분은 너희로 하여금 성전하도록 하였으니 이로 하여 너희를 다른 자들에 비유하여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살해된 자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행위가 결코 손실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

5.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의 위치를 높여주시고

6. 그들에게 알려준 천국으로 그들을 들게 하실 것이라

7.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돕고 너희의 발이 디딜 곳도 견고하게하여 주실 것이라[1)]

8.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멸망만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저들의 행위를 헛되게 하시니라

9.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1)] 혐오한 것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저들의 행위를 무익하게 했을 뿐이라

10. 그들은 지상을 여행하면서 그들 이전 백성들의[1]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셨으니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들도 그와 같이 되니라

11.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한 보호자이시고 불신자들에게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라

12. 실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게 하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현세에 탐닉하며 가축처럼 음식을 먹는 저들의 거주지는 불지옥이 될 것이라

13. 그대를 추방한 그 도시의 백성들보다[1] 더 큰 힘을 가졌던 도시의 백성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멸망케 했더뇨 그러나 그들을 도울 자 아무도 없었노라[2]

14. 주님의 길위에 있는 자가 사악한 행위에 유혹되어 그의 욕망을 따르는 자와 같을 수 있느뇨

15.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천국을 비유하사[1] 그곳에 강물이 있으되 변하지[2] 아니하고 우유가 흐르는 강이 있으되 맛이 변하지[3] 아니하며 술이 흐르는 강이 있으니 마시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며 꿀이 흐르는 강이 있으되 순수하고 깨끗하더라 그곳에는 온갖 과일이 있으며 주님의 자비가 있노라 이렇게 사는 자들이 지옥에 살며 내장이 찢어지는 끓는 물을 마시는 자들과 같을 수 있느뇨

16. 저들 중에는[1] 그대에게 귀를 기울인 자 있으나 너희를 벗어나서는 지식을 부여받는 자들에게 말하길[2] 그가 방금 말했던 것이 무엇이뇨 저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봉하여 버렸노라

17.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침을 더하여 주시며 사악으로부터 그들을 더욱 보호하여 주시니라

18. 저들은 갑자기 닥쳐올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느뇨 이미 저들에게 몇 증표가 있었노라[1] 그것이 저들 위에 닥쳐올 때 저들은 어디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이뇨[2]

19.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대의 잘못과 믿는 남성과 믿는 여성의 과오를 위해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1] 너희가 거주할 곳을[2] 알고 계시니라

20. 믿는 자들은 말하니[1] 왜 우리에게 말씀이[2] 계시되지 않느뇨 그러나 말씀이 계시되고 성전이 촉구되자 마음이 병들어[3] 죽음에 이르는 자가 쳐다보는 것처럼 그대를 바라보는 자들을 그대가 보리니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21. 그들에게는 순종과 온유한 말이 더 이로울 것이니라 그러나 성전이 결정되면 하나님께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22. 너희가 권력의 자리에 앉을 때면 지상에 해악을 퍼뜨리며 혈연관계를 단절하려 하느뇨[1]

23.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저주하사[1] 그들의 귀는 들리지 않게 하고 그들의 눈은 장님으로 만드시노라

24. 그런데도 그들은 꾸란을 숙고하지 않느뇨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단 말이뇨

25.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밝혀진 후에도 외면하는 자 있나니[1]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거짓 희망으로 기만했을 뿐이라

26. 이것은 위선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꾸란을 증오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 우리는 형편에 따라 당신들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마음 속에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7. 그러나 천사들이 저들의 생명을 거두어가며 저들의 얼굴과 뒤를 채찍질 할 때 저들은 어떻게 되겠느뇨

28. 그것은[1] 저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을[2] 따르며 그분의 기쁨에 역행되는 짓을 하기 때문으로 하나님은 저들의 행위들을 무익하게 할 것이니라

29. 마음이 병든 자들은[1]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의를[2] 밝히지 아니 하리라 생각하느뇨

30.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분은 그대로 하여금 저들의 표적을 보고 저들을 알게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대는 저들의 말투로도 저들을 곧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31.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성전하며 인내하는 너희를 시험할 것이며 또한 행위들로 시험하실 것이라[1]

32. 하나님을 거역하고[1]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들을[2] 방해하며 복음이 저들에게 밝혀진 후에도 선지자를 배척하는 자들 있나니 저들

이 결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노라 그분께서 저들의 행위를 무익하게 만드실 것이니라

33.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에게 순종하여 너희들의 행위가 헛되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34.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들을 방해하며 불신자로 세상을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시니라[1]

35. 휴전을 촉구하는 약자가 되지 말라[1] 너희가 저들 위에 있노라[2]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어[3] 너희의 일들이 헛되이 되도록 두지 아니하시니라

36. 현세의 삶은 유희에 불과한 것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보상을 주시되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니라

37.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산을 요구하기 위해 너희들을 강요라도 하신다면 너희는 인색하여 질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가 품고 있는 모든 악의를 밝히실 것이라

38.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재물을 쓰라고 하셨지만 너희 가운데는 인색해 하는 자 있나니 인색해 하는 자는 그의 영혼에 거역하여 인색해 하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풍요로우시니 너희가 가난한 자들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노라 그래도 너희가 외면한다면 그분은 너희의 거주지를 다른 백성으로 대체하실 것이라 그들은 너희와 같지 아니하니라

제 48 장
수라트 알파트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분명한 승리를[1] 베푸셨노라[2]
2.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그대의 과오를 용서하고 그대에게 그분의 은혜를 충만케 하며 그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3. 강력한 권능으로 그대를 도우시려 하셨노라[1]
4.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고자 하셨노라 실로 하늘과 대지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현명한 분이시라
5. 하나님은 믿는 남성과 믿는 여성으로 하여금 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게 하여 그곳에서 영생하게 하며 그들의 과오를 제거하여 주시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큰 승리라
6. 하나님에 대하여 사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남녀 위선자와 우상숭배자들을 벌하시려는 것이니라 저들에게는 악의 재앙이 덮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저주하여 저들이 머무를 지옥을 마련해 두셨느니라 이는 실로 악의 종말이라
7. 하늘과 대지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나니 실로 하나님은 강하시고 현명한 분이시라
8. 하나님이 그대를 한 증인으로써 복음의 전달자로써 그리고 경고자로서 보냈노라[1]
9. 이는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고 그를 도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려 함이라
10. 실로 그대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한 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나니[1]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놓이니라[2] 그런 후 자신의 맹세를 깨뜨린 자는 스스로의 영혼을 해치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시니라

11. 뒤에 남아 있던 사막의 아랍인들 중에[1] 저희는 재산과 가족을 돌보느라 분주했던 것이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그들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대에게 말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행운을 주시려 할 때 어느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억제할 수 있느뇨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12. 선지자와 믿는 신도들이 원정에서 그들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 너희는 생각했느뇨[1] 그렇지 아니 했노라 그러한 생각이 너희 마음속에 장식되어 너희가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실로 너희는 멸망할 백성이니라

13.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불지옥을 준비하여 두셨노라

14.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하나님께 있나니 그분은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1]

15. 너희가 전리품을 획득하려 떠날 때 뒤에 남아 있던 위선자들이 말하길[1] 저희로 하여금 여러분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여 주소서[2] 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려[3] 원하도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결코 우리를 따를 수 없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노라[4] 하니 그들이 말하길 그렇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우리를 질투할 뿐이라 실로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해하지 못하더라

16. 뒤에 남아 있던 사막의 아랍인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곧 힘이 강한 백성에[1]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라 저들이 항복할 때까지 싸워야 하노라 너희가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큰 보상을 베풀 것이요 이전에 그랬듯이 너희가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벌을 너희에게 내리시니라

17. 장님이나 불구자 그리고 환자가 출전하지 아니함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과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로 하여금 강이 흐르는 천국에 들게 하시며 외면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내리시니라

18. 실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나무 밑에서 그대에게 충성을 맹세했을 대 크게 기뻐하셨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들에게 평안을 내려주셨느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올 승리를 주셨노라[1]

19.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많은 전리품을 얻도록[1] 하였으니 하나님은 강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라

20. 이렇듯 하나님은 너희가 갖게 될 많은 전리품을 약속하신 후 너희를 위해 이것을 서둘러 주사 적의 손들을 제지하여[1] 주셨노라 그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증표로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라[2]

21. 너희 능력안에 있지 아니한 다른 전리품들이[1] 있으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준비하여[2] 두셨노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

22. 불신자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저들은 분명 뒤로 물러서리니 그때 저들에게는 보호자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을 것이라

23.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었으며[1] 너희는 하나님의 법이 변경됨을 발견치 못하니라

24. 메카의 계곡에서 적의 손들을 제지하여 주사[1] 너희에게 승리를 부여한 후 너희의 손들을[2] 제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25. 저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1] 하람사원에 들어가는 것과[2] 회생제를 지내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알지 못한 믿음을 가진 허약한 남성과 여성들이[3] 없었다면 너희는 그들을 알지 못한 이유로 증오스러운 어떤 것들이[4] 너희를 괴롭혔을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면 누구든 당신의 은혜속에 들게[5] 하였노라 만일 저들이 구별 되었다면 하나님은 저들 중 불신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내렸을 것이라

26.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가득찬 무지시대의 분노를 품고 있을 때[1]하나님은 선지자와 믿는 자들 위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말씀을[2] 준수케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을 권리요 가치였으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7. 실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꿈이 사실임을 입증시켜 주었노라[1]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삭발한 사람들과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하람사원에 들어가게 하시니라[2]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이전에도[3]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서둘러 승리를 준비하여 두셨노라

28.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1] 선지자를 통해 다른 모든 종교 위에 두셨노라 증인은 하나님만으로써 충분하니라

29.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에 대항하여 마음이 강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 정이 오가니라[1] 그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기원하는 그들을 그대가 보리라 그들의 얼굴에는 부복한 흔적이 있노라[2] 그것은 구약에 묘사한 것과[3] 신약에 비유되어 있나니 씨앗이 돋아나 잎을 피우고 튼튼하여 지며 줄기로 자라나 씨앗을 뿌린 자를 기쁘게 하며 그로써 불신자들을 분개하게 하는 것과 흡사하도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관용과 큰 보상을 약속하셨노라

제 49 장
수라트 알후즈라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1]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니라

2. 믿는 자들이여 예언자의 목소리보다 너희의 목소리가 높아서는 아니 되나니 그분과 대화할 때는 소리를 높이지 말라[1] 너희가 알지 못하여 너희의 행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3.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경건함을 시험받는 자들이라 실로 그들에게는 관용과 큰 보상이 있느니라

4. 안방 뒷편에서[1] 큰 소리로 그대를 부르는 자들은[2] 대부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5. 그대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6. 믿는 자들이여 사악한 자가 너희에게 소식을 전할 때는 그 소식을 확인하라 이는 너희가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백성에게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후회하지 않도록 함이라

7. 그리고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라 만일 그 선지자가 너희가 바라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따르기만 한다면 실로 너희는 곤경에 빠질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더 사랑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하사 너희로 하여금 불신과 죄악과 거역함을 혐오하도록 하셨노라 실로 이들이 옳은 길을 걷는 자들이라

8. 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한 분이시라

9. 믿음을 가진 신도들이 두 무리로 분리되어 싸운다면 그들 사이를 화해시키되 그들 중의 한 무리가 다른 무리에 대하여 죄악을 범한다면 너희 모두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1] 동의할 때까지 죄

악을 범한 무리와 싸우라 그러나 그들이 동의한다면 정의롭고 공정하게 그들을 화해시키라 실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만을 사랑하시니라

10. 믿는 자들은 한 형제라[1] 그러므로 싸우는 너희 두 형제 사이를 화해시키며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11. 믿는 자들이여 사람이 사람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후자가 전자보다 훌륭할 수도 있노라 여성이 여성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후자가 전자보다 훌륭할 수도 있노라 서로가 서로에게 중상하지 말 것이며 저속한 별명도 사용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후의 저속한 이름은 사악한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 실로 그는 죄인이라

12. 믿는 자들이여 가능한 의심을[1] 피하라 어떤 일에 있어서의 의심은 하나의 죄악이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지 말며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지 말라 너희 중에 죽은 형제의 살을 먹고자 하는자 아무도 없노라 실로 너희는 그것을 증오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3.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사 남성과 여성을 두고 종족과 부족을 두었으되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하셨노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라

14. 사막의 유목민들이 말하길 저희는 믿나이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노라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라 저들의 마음에 아직 믿음이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분께서는 너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조금도 감소하지 아니하시니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5. 믿는 신앙인이란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되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하는 자들이라[1]

16.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에게 너희의 종교를 알리겠다는 것이뇨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17. 그들이 무슬림 됨이 그대에게 은혜를 베푼 것으로 생각하나 일러 가로되 너희가 무슬림 됨이 나에게 은혜된 것이라 생각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나니 너희는 진실되고 성실해야 하니라

18. 실로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제 50 장
수라트 까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까프[1] 이 영광스런 꾸란으로 맹세하사 그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라[2]
2.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한 경고자가[1] 그들에게 나타나니 그들은 놀라며 이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불신자들은 말하더라
3. 죽어 흙이 된 후 다시 우리가 소생한단 말이뇨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
4.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무리를 대지가 앗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그분에게 보존된 기록이 있노라
5. 그러나 진리가[1] 그들에게 도래하자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으니 실로 그들은 혼돈속에 있었노라[2]
6. 그들은 머리위의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창조하고 장식하였으며 그 안에 한 점의 결함도 없이 세우셨는가를 그들은 숙고하지 않느뇨
7. 대지를 넓게 두사 그 안에 부동의 산들을 두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초목이 자웅으로 자라게 하심을 숙고하지 않느뇨
8.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모든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귀의하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도록 하셨노라
9.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축복의 비를 내리게 하사 이로하여 과수원을 가꾸고 곡식을 수확하도록 하셨노라
10. 높은[1] 종려나무에 주렁주렁 겹치도록[2] 열매를[3] 주시어
11.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양식으로 하사 죽은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부활도[1] 그와 같으니라
12. 그들 이전에도 내세를 부인한 자 있었노라 노아의 백성과 라쓰[2]와 사무드와[3]
13. 아드와[1] 파라오와[2] 롯의 형제들과[3]
14. 숲속의 동료들과[1] 투바의[2] 백성들이었노라 이들 백성들은 선지자

들을 배척함으로서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 내려졌노라

15. 하나님의 최초 창조에 부족함이 있었더뇨 그렇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새로운 창조에 관하여 혼돈하여 의심하고 있을 뿐이라[1)]

16.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사 인간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인간의 목에 있는 혈관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노라[1)]

17. 두 명의 천사가[1)] 임명되어 우측과 좌측에 앉아 인간의 일거일동을 관찰하고 있노라

18. 인간이 말할 때마다 함께 있던 천사에[1)] 의하여 감시되고 기록되며

19. 죽음의 도래는 진리라[1)] 그것이 바로 너희가 피하려 노력했던 것이라

20. 나팔이 울려퍼지면 그것이 바로 약속된 경고의 날이라

21. 그때 모든 인간에게 그를 인도할 천사와 증언할 천사가 오니라

22. 너희가 오늘을 무관심했나니 이제 우리가 그 베일을 거두어 주리니 그 날을 분명히 보리라

23. 그를 동반한 천사가 말할 것이라 저에게 그의 업에 관한 기록이 여기 있나이다

24. 이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유일신을 믿지 않고 거만했던 자들을 모두 지옥으로 던지라[1)]

25. 저들은 선을 실천함에 방해하고 의심으로 죄악을 일삼았던 자들이며

26. 하나님을 제쳐놓고 신들을 숭배했던 자들이니 참혹한 고통속으로 던져버리라

27. 이때 그의 동반자 사탄이 말하길 주여 제가 그를 죄악으로 유혹하지 아니했으며 자기 스스로 잘못하여 방황하였나이다[1)]

28.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앞에서 서로가 논쟁하지 말라 이미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었노라

29. 내가 내린 선고는[1)] 변경되지 않노라 내가 나의 종들에게 절대 부당하지 않노라

30. 그 날 하나님께서 지옥이 만원인가 라고 물으니 아직 더하여 올 자가 있나이까 라고 지옥이 대답하니라

31.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 가까이 있노라

32. 이것은 참회한 후 하나님께 귀의하고 그분의 법을 준수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며

33. 보이지 아니한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그분께 헌신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34. 편안히 그리고 안전하게 그곳에 들어가라 이것이 영생의 날이니라

35. 그곳에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으며 하나님 곁에는 더 많은 것이 있노라[1]

36.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전에 그들 보다[1] 강하였던 세대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멸망케 하셨더뇨 그때 저들은 지상을 방황하였으나 저들이 피할 곳은 없었노라

37. 실로 이 안에는[1] 마음을 가진 자와 귀를 기울인 자와 그리고 진실되게 관찰하는 자를 위한 교훈이 있노라

38.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육일 동안에 창조하심에도 전혀 피곤하지 아니하셨노라[1]

39. 그러므로 그대는 저들이 말하는 것에[1] 인내하라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해가 지기전에 주님을 찬양하라

40. 밤중에도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도[1] 하나님을 찬양하라

41. 그리고 가까이 있는 천사의[1] 부름에 귀를 기울이라

42. 저들이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될 그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니라[1]

43. 하나님이 생명을 주사 생명을 앗아가시니 최후의 목적지는 바로 그분이시라

44. 대지가 갈라지는 날 저들은 서둘러 나와[1] 다함께 모이게 하나니[2]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45. 하나님은 저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1] 알고 있나니 그대는 저들에게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 하는 자들에게 이 꾸란을 낭송하라

제 51 장
수라트 자리야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분산케 하는 바람으로[1] 맹세하며
2. 습기를 운반하는 구름으로[1] 맹세하며
3. 순항하는 배로 맹세하며[1]
4.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축복을 전달하여 주는[1] 천사를 두고 맹세하노니
5. 실로 너희에게 약속된 것은 진리라
6. 심판이 곧 있을 것이라
7. 완전한 궤도를 가진 하늘로 맹세하나니
8. 실로 너희는 일치하지 않는 논쟁을[1] 일삼는 자들이라
9. 진실로부터 멀어져 현혹된 자 마찬가지로 유혹되노라[1]
10. 거짓하는 자들 위에[1] 저주가[2] 있으리니
11. 저들은 혼란의 홍수 속에서 무관심했던 자들로[1]
12. 심판의 날이 언제 오느뇨 질문했던 자들이라
13. 그 날은 저들이 불지옥에 들어가 태워지는 날이라
14. 이 벌을 맛보라 너희가 서둘러 재촉했던 것이라
15.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샘이 있는 천국에서 거주하며
16. 주님께서 부여한 은혜속에서 기뻐하나니 이는 그들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라
17. 그들은 밤에도 많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1]
18. 이른 새벽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빌더라
19. 그는 그가 가진 재산 중에서 필요로 한 자와 요구하지 못한 자에게[1] 일정한 몫을 베푸는 자라

20. 대지 위에는 믿음이 확고한 자들을 위한 증표들이 있으며
21. 그것은 너희 마음속에도 있노라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22. 하늘에는 너희가 일용할 양식과[1] 너희에게 약속된[2] 것이 있노라
23. 하늘과 대지의 주님으로 맹세하사 이것은 너희가 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진리이니라
24. 아브라함의 존경받는 손님의 얘기가[1] 그대에게 이르렀느뇨
25.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평안하소서 라고 인사하니 그도 평안하소서 라고 알지 못한 그들에게[1] 인사하였더라
26. 그때 아브라함은 재빨리 그의 집안으로 들어가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요리하여 가져와[1]
27. 그들 앞에 놓으면서 드시라고 권장하였더라
28. 그들이 먹지 아니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두려워 하였노라 이때 그들이 두려워 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에게 총명한 아들이[1] 있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더라
29. 이때 그의 아내가 크게 웃으며 다가와 그녀의 이마를 때리며[1] 늙고 불임의 여성이[2] 애를 갖는단 말이요 라고 말하매
30. 천사들이 말하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노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라
31. 아브라함이 말하길 사자들이여[1] 당신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32. 천사들이 대답하길 우리는 죄악에 빠진 백성에게 파견되어
33. 저들 위에 찰흙의 돌을 빗발처럼 보낼 것이며
34. 그 돌마다에는 주님의 표시가 찍혀[1] 죄지은 자들에게 보내진 것이라
35. 그때 하나님은 그 고을에[1] 있었던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구하노라
36.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정 외에는[1] 어떤 무슬림도 발견하지 못하여
37. 무서운 징벌을 두려워 하는 그들을 위해 그곳에 증표를 남겨 두셨노라
38. 모세의 이야기 속에도 증표가 있나니 보라 하나님은 그에게 명백한 권능을 주어 파라오에게 보냈노라

39.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그를 배척하며 말하길 그는 마술사인가 아니면 미친 자인가
40. 그리하여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포획하여 바다속에 익사시키니 파라오에 대한 비난이 쏟어졌더라[1)]
41. 아드의 백성에게서도 증표가 있나니 보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파멸의 바람을 보냈노라
42. 바람이 불었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겨진 것 없이 재처럼 파괴되어 버렸더라
43. 사무드 백성에게서도 증표가 있나니 보라 잠시동안 향락하도록 두었으되
44. 저들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노라 그리하여 천둥번개가 덮쳤으며 저들은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노라
45. 저들은 일어설 수도 없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었노라[1)]
46. 그들 이전의 노아의 백성도 그랬으니 그들도 사악한 백성이었노라[1)]
47.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사 권능과 능력으로[1)] 높이 두고 넓게 두셨으며
48. 대지를 두되 넓게 두었노라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졌느뇨
49.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자웅을[1)] 두셨으니 이로 하여 너희가 교훈을 얻도록 함이라
50. 그러므로 서둘러 하나님께로 오라[1)] 실로 나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보낸 분명한 선지자라
51.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라 실로 내가 그분으로부터 온 분명한 경고자라
52. 그들 이전에도 선지자가 왔을 때 저들이 말하길 그는 마술사가 아니면 미친자라[1)] 하였느니라
53. 저들의 선조들로부터 이러한 표현을 상속이라고 받았단 말이뇨[1)] 실로 저들은 오만한 백성들이라
54. 그러므로 저들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문책받지 않을 것이라
55. 그러나 그대의 메시지를 가르치라 믿는 신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
56. 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도록 함이라
57. 내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나를 부양

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노라

58.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힘의 주님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는 수여자이시라

59. 죄지은 무리는 저들 동료의 무리와 유사한 벌을 받느니라[1] 그러므로 내게 징벌을 재촉하지 않도록 하라

60. 그들이 약속받은 그 날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제 52 장
수라트 뚜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뚜르 산으로 맹세하고[1]
2. 기록된 성서로 맹세하나니[1]
3. 그것은 펼쳐진 양피지에 기록된 것이라
4. 경배하기 위해 방문이 잦은 카으바 신전으로 맹세하고[1]
5. 높은 하늘로[1] 맹세하며
6. 만조가 된 바다로 맹세하나니
7. 그대 주님의 벌은 반드시 내릴 것이라
8.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노라
9. 하늘이 진동하는 날
10. 그리고 산들이 휘날리는 날
11. 그 날을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12. 저들은 허위에 몰두한 자들로
13. 그 날 저들은 지옥의 불속으로 여지없이 던져질 것이라
14. 이것이 바로 너희가 거역했던[1] 불지옥이라
15. 이것도 마술이뇨 아니면 너희가 보지 못하느뇨[1]
16. 그곳으로 들어가 징벌을 맛보라[1] 그것을 인내하고 못하고는 너희가 현세에서 행한 것에 대한 대가이니라
17.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은혜의 천국으로 들어가
18.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축복을 만끽하고 또한 주님은 불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노라
19. 너희가 지상에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즐거이 먹고 마시라
20. 그들이 줄지어 놓여있는 침상에 기대 앉으니 하나님은 눈이 큰 아

름다운[1] 배우자로 짝을 지어 주시니라

21. 믿음을 가진 자와 그들을 따라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있나니 하나님은 후손들을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라 인간은 모두가 그가 행한 바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니라

22.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과실과 고기를 주시니라

23. 서로가 서로에게 해악이 없는 잔을[1] 주고 받을 때

24. 진주처럼 잘 보관된 소년이 주위를 돌며 시중을 드니라

25.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으매

26. 실로 우리는 현세에서 살고 있을 때[1] 하나님의 벌을 크게 두려워하였노라고 대답을 하니라

27.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작열하는 열풍의 벌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셨노라

28. 실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 구원하였으매[1] 그분은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29.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유일신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라 그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1] 점장이도 아니며 미친자도 아니라[2]

30. 그대를 시인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흐름면 그대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저들이[1] 말하니

31. 일러 가로되 기다리라 나도 역시 너희와 함께 기다리노라[1]

32. 저들이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1] 말하는 것이뇨 아니면 저들이 사악한 백성이뇨

33. 무함마드가 꾸란을 지어냈다고 저들이 말하느뇨 그렇지 않노라 저들이 믿음을 거역할 뿐이라

34. 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1] 말씀을 말하여보라고 이르라

35. 저들은 스스로 창조되었느뇨[1] 아니면 저들 스스로가 조물주이더뇨

36. 아니면 저들이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였다 하더뇨 그렇지 아니하니라 저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을 뿐이라

37. 주님의 보물이[1] 저들에게 있다 하더뇨 아니면 저들에게 절대적 권능이 있다고 하더뇨

38. 아니면 저들이 비밀을[1] 엿듣기 위해 하늘에 오를 사다리라도 가지고 있느뇨 그렇다면 그 비밀을 들었던 자로 하여금 명백한 증거를 입증하도록 하라

39. 너희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딸들만 두었다는 것이뇨[1]

40. 그대가 저들에게 보상을[1] 요구하여 저들이 부채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단 말이뇨

41. 아니면 저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1] 그것을 기록하고 있느뇨

42. 아니면 저들이 그대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느뇨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 스스로 그 음모에 빠지게 되노라

43. 아니면 저들에게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있다 하더뇨 저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44. 저들은 저들 위에 떨어지는 하늘의 조각을 보고서도 그것은 구름 덩어리라고 말할 것이라

45. 저들이 공포로 쓰러지는 그 날을[1] 맞이할 때까지 버려두라

46. 그 날이 되면 저들의 음모는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될 것이며 구원도 받지 못하니라

47. 실로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그 외에도 다른 벌이 내려질 것이라 그러나 저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48. 그러므로 인내하며 그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실로 하나님이 그대를 보호하고 있느리라 그리고 네가 잠에서 깨어날 때 주님을 찬미하라

49. 밤중에도 그리고 별들이 질 때에도[1] 하나님을 찬미하라

제 53 장
수라트 나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지는[1] 별을 두고 맹세하사
2. 너희의 동료는[1] 방황하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아니 했으며
3. 자신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1]
4. 꾸란은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에게 내린 계시로[1]
5. 능력을 갖춘 가브리엘 천사으로부터 전달 받았노라
6. 가브리엘 천사는 흠이 없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1]
7. 지평선 가장 높은 곳에[1] 나타났더라
8. 그런 후 그는 선지자에게로 가까이 다가왔으니[1]
9. 그 거리는 활 양쪽 끝 사이의 길이[1] 혹은 그보다 더 가까웠더라
10.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의 종에게 계시를 내렸으며
11. 선지자의[1] 마음은 그가 본 것에 대하여[2] 거짓함이 없었더라
12. 그래도 너희는 그가 본 것에 관하여[1] 논쟁하고 있느뇨
13. 실로 선지자가 다시 한번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을 때
14. 가브리엘 천사는 칠천 위의 시드라[1] 나무 옆에 있었더라
15. 그곳 가까이에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더라
16. 보라 시드라 나무가 가리워지매[1]
17. 선지자의[1] 시선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계도 넘지 않더라
18. 실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증표들을[1] 보았노라
19. 너희는 라트와 웃자[1] 우상과
20. 세 번 째의 우상 마나트[1]를 보았느뇨
21. 너희에게는 남자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여자가 있단 말이뇨

22. 실로 이것은 가장 공평치 못한 분배라

23. 실로 이것들은 너회와 너회 선조들이 고안했던 이름들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그 우상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부여하지 아니 했나니 불신자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측과 자신들의 저속한 욕망을 따를 뿐이라

24. 인간은 그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려 하느뇨

25. 그러나 만물의 종말과 시작은 하나님께 달려 있노라

26. 하늘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으되 하나님의 선택과 허락을 받은 자가 아니면 중재할 수 없노라[1]

27.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천사들을 여성이라[1] 부르나

28. 저들이 알지 못하여 억측만을 따를 뿐이라 실로 억측은 진리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노라

29.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자에게 그대도 그들을 외면하라 그들은 현세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니라

30.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고작 그것이라 실로 주님은 그분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과 복음을 받은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31.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노라 사악함을 퍼뜨리는 자는 그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요 선을 실천하는 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

32. 큰 죄악과[1] 수치스러운 행위를[2] 피하려 하는 자가 작은 실수를[3] 하였을 때 주님은 그에게 관대한 용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회를 흙으로 빚었을 때부터 그리고 너회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부터 너회를 잘 알고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회의 순결함이 너회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잘 알고 계시니라

33. 그대는 이슬람을 외면하는 자를 보았느뇨[1]

34. 조금 주면서 아까워 하는 자라[1]

35. 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그 세계를 볼 수 있단 말이뇨[1]

36. 아니면 그가 모세의 성서속에 있는 기록을[1] 알지 못하고

37. 명령을[1] 이행한[2]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알지 못하였단 말이뇨

38. 짐을 진 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니[1]
39. 인간은 그가 노력하여 얻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노라[1]
40. 노력의 결과가 곧 밝혀지면
41. 인간은 노력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1] 받게 되며
42. 최후의 목적지는 그대 주님이라
43.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며[1]
44.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니라
45.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매
46. 보존된 정액으로 그렇게 하시니라
47.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재창조를 약속하셨노라
48. 하나님은 부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며
49. 시리우스[1] 별의 주님이시라
50. 하나님은 힘센 옛 아드의 백성을 멸망케 하고[1]
51. 사무드 백성도 그렇게 하여 아무 것도 남지 않게 하였으며
52. 그들 이전의 사악하고 오만했던 노아의 백성도 그렇게 하셨노라
53. 하나님은 롯의 도시를 전복시켜
54. 징벌로서 그들을 덮어버렸노라
55.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에 관하여 논쟁하느뇨[1]
56. 무함마드는 옛 선지자들에 뒤이어 온 경고자라[1]
57. 부활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58.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리라
59. 그래도 너희는 꾸란에 대하여 조롱하고 있느뇨
60. 너희는 울지 아니하고 그것을 비웃으며
61. 시간을 헛되이 보내려 하느뇨
62. 하나님께 부복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제 54 장
수라트 알까마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니 달이 쪼개지면서 궤도를 잃더라[1]
2. 불신자들이[1] 그 증표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일상적인 마술에 불과하다고 저들은 말하노라[2]
3. 저들은 진리를 거역한 채[1] 저들의 욕망을 따를 뿐이라 그러나 모든 일은 끝이 있느니라[2]
4. 이미 저들에게 경고된 이야기들이[1] 저들에게 이르렀노라
5. 완성된 꾸란의 경고가 있었으나 저들에게 유용하지 못했더라
6. 저들을 멀리하라 천사가[1] 저들을 자신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호출하리라
7. 저들은 초라한 눈동자로 무덤에서 나오매 메뚜기가 흩어져 나오는 것과 같더라
8. 저들은 천사에게로 달려가 오늘은 너무 힘든 날입니다 라고 말하니라
9. 노아의 백성이 선지자들을 배척했듯이 저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하며 여기에 한 미친자가 있으니 그가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
10. 그때 노아가 주님께 기도하였더라 제가 허약하오니 저를 도와 주소서
11.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문들을 열고 비를 쏟아부었으며
12. 대지로부터 수 많은 샘들이 솟아나게 하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밑에서 솟는 샘물이 이미 정해진 목적을 위해 합해지더라[1]
13. 하나님께서 노아가 널판지와 못으로 만든 방주에 그를 태우니
14. 그 방주는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떠 있었더라 그것은 배척당한 노아에 대한 보상이라

15. 하나님께서 이것을[1] 증표로 남겼으나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자 있겠느뇨

16. 하나님의 징벌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더뇨

17. 하나님께서 꾸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에 쉽도록 하였으나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자 있느뇨[1]

18. 아드 백성이 진리를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징벌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더뇨

19. 격렬한 재앙의 날 저들 위에 모진 바람을[1] 보내매

20. 종려나무의 뿌리들이 뽑힌 것처럼 사람들을 잡아 채었더라

21. 하나님의 징벌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더뇨

22. 하나님께서 꾸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쉽도록 하였으나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자 있느뇨

23. 사무드 백성도 그들의 경고자들을[1] 배척했더라

24. 저들이 말하길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을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느뇨 그렇게 한다면 실로 우리는 방황하며 미쳐버릴 것이라

25. 우리 중에서 살레를 통해[1] 경고가 내려졌단 말이뇨 아니라 그는 거만한 거짓말쟁이라

26. 내일이면 누가 거짓말하며 오만한 자 인가를 저들은 알게 되리라

27. 하나님께서 암컷의 낙타를[1] 보내니 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저들을 지켜보며 인내하라[2]

28. 그리고 물이 저들 사이에[1] 분배되면서 암낙타와 저들이 마실 물의 몫과 순서가 정해지더라

29. 그때 저들이 동료를 부르니 그가 칼을 들고 와 암컷의 낙타를 살해하였더라[1]

30. 이때 하나님의 징벌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더뇨

31. 하나님이 저들에게 돌풍을 몰아치니 저들은 가축 사료사가 만든 메마른 나무잎처럼 되어버리더라

32. 하나님은 꾸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에 쉽도록 하였으나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자 있느뇨

33. 롯의 백성도 경고를 거역했으니

34. 하나님은 저들에게 돌풍의 소나기를[1] 보내 롯의 가족을[2] 제외하고 멸망시켰노라 그리고 그의 가족은 이른 새벽녘에 구제되었노라

35. 이것이 하나님 은혜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36. 롯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경고했으나 저들은 그 경고에 대하여 논쟁을 했노라

37. 저들은 그의 손님마저[1] 저들에게 항복시키려고 하였으니 하나님은 저들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2] 이제 나의 징벌과 경고를 맛보라 하시더라

38. 다음날 이른 아침 영원한 징벌이 저들에게 내려졌으니

39. 나의 응벌과 경고를 맛보라

40. 하나님은 꾸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에 쉽도록 하였으나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자 있느뇨

41. 파라오 백성에게도 경고자가 도래하였으나

42. 저들은 하나님의 증표들을 거역하였으매 하나님은 뜻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당신의 징벌을 저들에게 내리셨노라

43. 너희 불신자들이 선지자들보다[1] 우월하느뇨 아니면 성서들[2] 속에 너희들에 대한 징벌이 제외되어 있다 하더뇨

44. 서로 도와 승리할 수 있다고 저들이[1] 말하느뇨

45. 저들 모두는 패배하여 뒤돌아 서게 되리라[1]

46. 그 시각은 저들에게 약속된 것으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각이 되리라

47. 실로 죄인들은 방황하는 미친자들이라

48. 저들이 고개 숙여 불지옥으로 끌리어 가는 날 지옥의 징벌을 맛보라 하는 소리를 들으리라

49. 하나님은 적절한 조화를 두고[1] 모든 것을 창조하셨노라

50.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의 말로서[1] 눈 깜박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니라[2]

51. 하나님은 너희와 유사한 무리들을 멸망시켰으나 이를 교훈으로 받아 들이는 자 있느뇨

52. 저들이 행한 모든 것은 기록되니라[1]
53. 작은 것도 그리고 큰 것도 모두 기록되니라
54. 실로 의로운 자들은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서 기거하게 되나니
55. 그곳은 권능으로 충만하신 주님 곁으로 영광스러운 곳이라

제 55 장
수라트 라흐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2. 꾸란을 가르쳐 주셨노라
3.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사
4. 표현의 방법을[1] 가르쳐 주셨으며
5. 태양과 달로 하여금 정하여진 궤도를 따르게 하고
6. 초목들도[1] 그분께 순종하게 하셨노라
7. 하늘을 두되 높이 두시고 균형을[1] 두신 것은
8. 너희가 저울을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9. 그러므로 무게를 달아 저울이 부족하지 않게 하라
10.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 대지를 펼쳐두시니
11.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과실이 있고 송이를 이룬 종려나무가 있으며
12. 껍질이 있는 곡식과 향기로운 식물들이 자라더라
13. 인간들이여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14. 하나님은 도자기를 만들듯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으며
15. 영마를 창조하되 연기가 없는 불꽃으로 만드셨노라[1]
16.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17. 하나님은 동쪽의 주님이요 서쪽의 주님이시거늘
18.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19. 하나님께서 두 바다를[1]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만나게 하되
20. 둘 사이에 장벽을[1] 두니 그들 각자는 침범하지 아니 하노라
21.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22. 그 두 곳에서 진주와 산호가 나오니라
23.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24. 산처럼 높은 배가 바다에 순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표라
25.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26. 대지 위의 모든 것은 소멸하느니라[1]
27. 그러나 그대 주님은 영원히 계시며 지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
28.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29. 하늘에 있는 것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간청하며[1] 하나님은 매일 사안에 따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니라[2]
30.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31. 하나님께서 너희 두 무리의[1] 분쟁을 해결하실 것이라
32.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33. 영마와 인간의 무리여 너희가 하늘과 대지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 보라 권능이 주어지지 않고는 벗어나지 못하니라[1]
34.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35. 화염과[1] 연기가[2] 너희 두 무리 위에 이르게 하리라 그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노라[3]
36.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37. 하늘이 갈라져서[1] 새빨간 장미빛 색깔이[2] 되나니
38.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39. 그 날이 되면 인간과 영마는 그의 죄악에 관하여 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나니[1]
40.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41. 죄인들은 저들의 외형으로[1] 식별되나니 저들의 머리와 발들이 붙잡히게 되니라[2]
42.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43.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부인하고 거역했던 지옥이라
44. 들끓는 뜨거운 물 속에서 그들은 방황하노라

45.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46. 그러나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때를 두려워 한 자들에게는 두 개의 천국이 있노라[1]
47.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48. 그곳에는 온갖 나무와 열매가 있노라
49.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50. 그 두 곳에는[1] 두 개의 샘물이 자유로이 흐르고 있노라
51.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52. 그 두 곳에는 온갖 종류의 과실이 쌍으로 있노라
53.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54. 그들은 융단 위에 놓여진 두툼한 금란으로 장식한 침대 위에 기대어 앉게 될 것이며 두 낙원의 잘 익은 과일들이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열려 있노라
55.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56. 그 안에는 눈을 다소곳이 내리깔고 있는 정숙한 여인들로 어떤 인간과 영마도 접촉하여 보지 못한 배우자가 기다리고 있노라
57.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58. 그 여인들은[1] 마치 루비와 진주 같노라
59.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60. 선에 대한 보상은 선 외에 다른 것이 있겠느뇨[1]
61.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62. 이 두 개의 천국 외에도[1] 다른 두개의 천국이[2] 있노라
63.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64. 그 두 곳은 짙은 초록색으로 장식되어 있노라[1]
65.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66. 그 두 곳에는 풍성하게 넘치는 두개의 샘물이 있노라
67.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68. 그 두 곳에는 온갖 종류의 과실과[1] 종려나무와 석류가 있노라
69.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70. 그 두 곳에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노라
71.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72. 눈을 내려 감은 배우자가[1] 정자에 앉아 있노라
73.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74. 인간과 영마 그 누구도 스치지 아니한 배우자가 있노라
75.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76. 그들은 초록빛 방석과 아름다운 융단에 몸을 기대노라
77. 그래도 너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78.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위에 축복이 있으소서

제 56 장
수라트 알와끼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불가피한 대사건이 도래하면[1)]
2. 아무도 대사건의 도래가 거짓이라 말하지 못하며
3. 그때 어떤 무리는 굴욕을 받을 것이요 어떤 무리는 찬양을 받을 것이라[1)]
4. 대지가 격렬하게 흔들릴 것이요
5. 산들은 산산조각이 되어
6. 먼지로 산산히 흩어질 것이라
7. 너희는 세 무리로 분류되나니[1)]
8. 그 중에 첫 번째 무리는 우편의 동료가[1)] 될 것이라 너희는 우편의 동료가 무엇인지 아느뇨[2)]
9. 두 번째 무리는 좌편의 동료가 될 것이라 너희는 좌편의 동료가 무엇인지 아느뇨
10. 세 번째 무리는 맨 앞에 선 자가[1)] 될 것이라 너희는 맨 앞에 선 자에 대하여 아느뇨
11.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서
12. 축복의 천국에서 기거하노라
13. 그 곳에는 옛 선조의 무슬림들은 많으나
14. 후세의 무슬림들은 소수이더라
15. 그들은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침대에 앉아
16.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을 마주보며 기대고 있노라니
17. 영원히 사는 소년들이[1)] 그들 주위를 돌며
18. 술잔과 주전자와 깨끗한 물과 가득찬 잔들로 시중을 들더라

19. 그들은 이 잔을[1] 받아 마셔도 머리가 아프거나 취하는 일이 없으며
20. 과일도 취향에 따라 선택하노라
21. 그들은 새종류의 고기도 즐기며
22. 눈이 크고 아름다우며 정숙한 배우자가[1] 그들 옆에 있노라
23. 그 배우자는 잘 간직된 진주와도 같노라[1]
24. 이것들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25. 그들은 그곳에서 무익하고 욕된 말들을 듣지 아니하며
26. 단지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라는 인사의 말만 듣노라
27. 우편의 동료가 있나니 너희는 우편의 동료에 대하여 아느뇨[1]
28. 그들은 가시가 없는 시드라[1] 나무 가운데 있을 것이며
29. 주렁주렁 달린 바나나 나무 가운데[1] 있노라
30. 그늘이 길게 넓게 펼쳐져 있고
31.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32. 과일이 풍성하게 있노라
33. 계절에 제한받지 않고 공급되는 것들이라
34. 높은 곳에[1] 옥좌가 있노라
35.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새로운 배우자들을 두시고
36. 그녀들을 처녀로 두셨노라
37. 나이들이 비슷한 사랑스러운 여인들이
38. 우편의 동료들 곁에 앉아 있노라
39. 그 곳에는 옛 선조의 무슬림들도 많이 있으며
40. 후세의 무슬림들도 많이 있더라
41. 좌편의 동료가 있나니 너희는 좌편의 동료가[1] 무엇인지 아느뇨
42. 그들은 작열하는 불지옥과 들끓는 물속에 있게될 것이요
43. 검은 연기 속에 있게 될 것이며
44. 서늘함도 즐거움도 전혀 없노라

45. 이는 그들이 이전에 재물과 사치에 탐닉하여
46. 크게 사악하고 오만하였으며
47. 우리가 죽어 흙이되고 뼈만 남는데 다시 부활한단 말이뇨
48.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된단 말이뇨 라고 말하더라
49. 일러 가로되 그러하니라 옛 선조들도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도
50. 모두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질 상봉을 위하여 다함께 모이니
51. 방황하고 거짓했던 자들이여
52. 너희는 자꿈나무를[1] 먹고
53. 그 열매로 배를 채우될 것이라[1]
54. 그리고 그 위로 끓는 물을 마시매
55. 갈증에 허덕이는 낙타가 마시는 것과 같더라
56. 이것이 저들이 받을 보상의 날 대접이라
57.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였나 너희는 그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느뇨[1]
58. 너희는 인간의 정액을 생각해 보았느뇨
59. 그것은 너희가 창조한 것이뇨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뇨
60.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죽음을 이르게 할 때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며
61. 너희의 양상을 바꾸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상으로[1] 너희를 재창조 하시니라[2]
62. 너희는 최초의 창조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느뇨
63. 너희가 땅에 심는 씨앗을 보지 아니 했느뇨
64. 너희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뇨 아니면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느뇨
65.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분은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만드시니라 그때 너희는 비탄에 빠지며
66. 실로 저희는 멸망했노라
67.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노라고 말할 것이라
68. 너희는 너희가 마시는 물을 생각하여 보았느뇨

69. 너희가 비를 내리게 하느뇨 아니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느뇨[1]

70.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짜게[1] 하셨으리라 그래도 너희는 감사하려 하지 않느뇨

71. 너희가 지피는 불을 생각하여 보았느뇨

72. 불을 지피기위해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이 너희이뇨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장케 하시느뇨[1]

73. 하나님은 그것으로 교훈이 되게 하였고 여행자들에게[1] 유익하도록 하였노라

74. 그러므로 위대한 그대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라

75. 실로[1]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나니

76. 너희가 알고만 있다면 실로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맹세로

77. 이것은 성스러운 꾸란이라[1]

78. 그것은 잘 보호된 성서로

79. 청결한 자[1] 외에는 아무도 스치지 아니한

80.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81. 그래도 너희는[1] 이 말씀을[2] 조롱하느뇨

82.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신하려 하느뇨

83. 너희의 영혼이 죽음에 이를 때

84. 너희는 지켜볼 것이라

85.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너희보다 더 가까이 있으나[1]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86. 계산되어 징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너희의 주장이

87. 진실이라면 그 영혼을 불러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뇨[1]

88.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를 위해서는

89. 행복과 풍성함과 축복받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노라

90. 그가 우편의 동료들 중에 있다면

91. 우편의 동료들로부터 평안하소서 라는 인사를 받을 것이며

92. 거역하여 방황하는 자 중에 있다면

93. 그는 들끓는 물을 마시며

94. 불지옥에서 태워지게 될 것이라

95. 실로 이것은 진리요 사실이니

96. 위대한 그대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라

제 57 장
수라트 알하디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나니[1] 실로 그분은 강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라

2. 천지의 왕국이 하나님께 속하며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앗아가시는 분은[1] 바로 하나님이시라 실로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

3. 그분은 태초에도 계셨고[1] 마지막에도 계시며[2] 현존해 계시되[3] 나타나지 아니하시나[4]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4.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를 엿새 동안에 창조한 후 권좌로 오르셨나니 대지 속에 들어가는 것과[1] 그곳에서 나오는 것과[2]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3]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4] 모두를 알고 계시며 너희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매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5. 하늘과 대지가 하나님께 속하며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6. 하나님은 밤을 낮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으로 바꾸시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7.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상속케 한 재물을 바치라 믿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자들 위에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니라

8.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뇨 선지자께서 주님을 믿으라 촉구하였고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너희의 약속을 받으셨노라 너희는 믿는 자가 아니더뇨

9.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1] 말씀을[2] 내리사 이는 너희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구제하고자 함이니 실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애로운 분이시라

10.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재물을 바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뇨 하늘과 대지에 있는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1] 재물을 바치고 성전하여 승리한 자와[2] 그렇지 아니한 자가[3] 같을 수 있느뇨 승

리하기 전에 베풀고 또 성전하는 자가 승리한 후에도 베푸는 자가 같을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으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4]

11. 하나님을 위해 대부를 해주는 자에게 그분은 그것을 두배로 증가하여 주시니 그 보다 더 훌륭한 보상을 받는 자 누구이뇨[1]

12. 그 날이 되면 너희는 믿음으로 충실한 남녀를 보리니 그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우편에서 빛이 날 것이라 그것이 오늘의 너희를 위한 기쁜 소식으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이라 그러므로 그곳에서 영생하라 그것이 가장 큰 승리라

13. 그 날에는 남녀 위선자들이 믿음으로 충실한 자들에게 말하리라 잠깐만 기다려 주소서 우리도 광명을 찾고자 합니다 그때 돌아가 광명을 찾으라고 말이 들리더라 이때 그들 사이가 분리되고 문이 하나밖에 없는 벽이 생기니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것이지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을 것이라

14. 위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고함쳐 부르더라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있었지 않느뇨 라고 하매 믿는 자들이 사실이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스스로 유혹에 빠지고 주저하였으며 의심하였으니 무익한 욕망이 너희를 기만하여[1] 하나님의 징벌이 너희에게 이르렀노라

15. 그러니 오늘에 이르러서는 당신들이나 불신자들부터 어떤 속죄의 보상금도 수락되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의 거주지는 불지옥이라 그곳이 너의 거처요 사악한 목적지라

16.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계시된 진리에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되지 않했느뇨 그들이 이전에 성서를 받았으나[1] 시간이 흐르자[2] 마음이 굳어져[3] 저들 대다수가 사악해졌더라[4]

17. 하나님께서 죽은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어 너희에게 증표를 보이셨나니 너희가 이해하도록 함이라

18. 자선을 베푸는 남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재산을 바치는 자들을 위해 두배의 보상이 내려질 것이니 그들은 훌륭한 보상을 받으리라

19.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진실한 증인들로 보상과 광명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과 증표를 거역한 자들에게는 불지옥에

거처가 정해지니라

20. 실로 현세는 유희와 오락에[1] 불과하며 허식과 권세도 풍성한 재산과 자손도 그러하거늘 그것을 비유하사[2] 식물을 성장케 하여 농부를 기쁘게 한 후 비가 내려 시들어 누렇게 되고 메말라 부스러지고 지푸라기가 된 것과 같더라 그러나 내세에서는 사악한 자들에게 가혹한 징벌이 있으되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관용과 기쁨을 받노라 실로 현세의 삶은 현혹된 향락에[3] 불과하니라

21. 그러므로 주님의 용서와 하늘과 대지 만큼 넓은 천국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라[1]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은총이니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은총을 지니신 분이시라

22. 지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1]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은[2]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기록된 것이라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23. 이는 너희로 하여금 지나간 일들에 관하여 슬퍼하지[1] 아니하고 너희에게 베푼 은혜에[2] 관하여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실로 하나님은 오만하고 자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24.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인색하여 타인에게도 인색하라 종용하는 자들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노라[1]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요 찬미받는 분이시라

25. 실로 하나님은 분명한 증표와[1] 더불어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냈으며 또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스스로를 인도할 성서와[2] 균형을[3] 함께 보내셨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힘을 상징하고 여러가지로 유용한 무쇠를[4] 보냈나니 이로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분의 선지자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를 구별하시려 함이라[5] 실로 하나님은 강하심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26.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보냈고 그들의 후손을 두어 예언자의 자격과 성서를 주시었나니 그들 중에는 바른 길로 인도받은 자 있었으나 대다수는 사악한 자들이었더라[1]

27.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들로[1] 하여금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였으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에게 신약을 보내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를 주었노라 그러나 그

들은 하나님이 묘사하지 아니한 자신들만을 위한 수도 생활을[2]
고안하였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라 했을 뿐이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준수하지 못했더라 그리하
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3] 보상을 주었으나 그들 대다수는[4] 사
악한 자 중에 있었노라

28.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선지자를 따르라 그
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그분의 은혜를 두배로 더하여 주실
것이며 너희가 걸어갈 길에 빛을 주실 것이며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29. 성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것이
라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것으로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부여하시
나니 하나님은 무한한 은총을 지니신 분이시라

제 58 장
수라트 알무자달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에 관하여 그대에게 변론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그녀의 진술을 수락하사[1] 쌍방 간의 진술을 듣고 계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2]

2. 너희 가운데 아내를 어머니라 부르는[1] 형태로 아내와 이혼하려는 자 있으나 그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이 될 수 없으며 자신을 낳아 준 여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머니가 결코 될 수 없나니 실로 저들은 혐오스럽고 거짓된 말을 하고 있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여주시고 너그러운 분이시라

3.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아내와 이혼한 자가 자신의 말을 취소할 때 그는 그녀와 동침하기 전에 한 명의 노예를 해방시켜야 하느니라 너희가 충고를 들었거늘[1]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4. 그러나 노예가 없는 자는 동침하기 전에 계속하여 두 달을 단식하고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자는 육십명의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도록 함에 있으며 또한 이것들이 하나님의 규범이라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을 뿐이라[1]

5. 그들 이전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께 거역했던 자들은 멸망하게 되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한 증표들을[1] 보냈나니 불신자들은 굴욕적인 징벌을 맛보게 될 것이라[2]

6.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사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기록하여 두셨거늘 그들이 그것을 잊고 있었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만사에 증인이 되시는 분이시라[1]

7. 하나님께서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뇨 셋이 모여 비밀을 나누면 하나님은 네 번째 참석자가 되시며 다섯이 모여 밀담을 하면 여섯 번째의 참석자가 되시며 그보다 많든 적든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라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8. 비밀의 모임이 금기된 저들을[1] 보지 아니했느뇨 그러나 저들은 금기된 것을 어기고 선지자에 대한 죄악과 음모와 거역을 위한 비밀의 모임을 가진 후 그대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그대를 맞이하지 않는 인사로써 그대를 맞이하더라[2] 그리고 스스로들 말하길 우리의 이야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벌하지 않느뇨 라고 말하니 그들에게는 지옥만으로 충분하며 그들은 그 안에서 불타게 되매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 되느뇨

9.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모임을 가질 때 선지자에 대하여 죄악과 음모와 거역을 위한 비밀의 대화를 나누지 말고 진리와 의로운 모임을 가지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 모두는 그분께로 돌아가느니라

10. 비밀의 음모는 오직 사탄의 행위로 믿는 자들을 슬프게는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해칠 수는 없노라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되니라[1]

11. 믿는 자들이여 너희 회의 중에 공간을 두라는 얘기를 들으면 공간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리라[1] 그리고 일어서라는 말을 들을 때면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더 높이 일으켜 주시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와 지식을 가진 자에게[2] 더 높은 곳을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2.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선지자와 사적인 의논을 할 때는 의논하기 전에 자선으로 무엇인가를[1] 베풀지니 그것이 너희를 위한 은혜요 더 깨끗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없다 하더라고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3. 너희는 그분과[1] 의논하기 전에 자선을 베풀 수 없으리라 두려워하느뇨[2]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시나니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4. 그대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자들과 함께 한 자들을 보지 아니했느뇨 그들은 너희편도 아니며 저들편도 아니며 그들은 알면서도 거짓 맹세하고 있을 뿐이라

15.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무서운 징벌을 준비하셨나니 실로 저들이 행한 모든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16. 그들은 거짓된 믿음으로 자신들을 숨기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 하니 그들에게는 굴욕적인 징벌이 있을 뿐이라

17. 그들의 재물도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에 대항하여 자신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나니 그들은 불지옥의 동료가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되니라

18.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어느 날 그들은 너희에게 맹세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도 맹세하여 무엇인가 얻어내려 하노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라 그들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니라[1]

19. 사탄은 저들을 유혹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망각케 하더라 저들은 사탄의 무리들로 사탄의 무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니라

20. 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 대적하는 자들이 가장 사악한 자들이라

21.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두셨노라 하나님과 그분은 선지자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노라 실로 하나님은 강하심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22. 그대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아버지든[1] 자식이든[2] 또는 형제들이거나[3] 천척들이든[4]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거역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라[5]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기록하셨고 그분의 영혼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노라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족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니 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당원이라 실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 성공하리라

제 59 장
수라트 알하쉬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나니 실로 하나님은 강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라
2.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불신자들을 모아 그들의 주거지로부터 최초로 추방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그들이 나갈 것이라 생각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요새가 하나님에 대항하여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임하시어 그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주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손들과 믿는 사람들의 손들로 그들의 집들을 파괴하였느니라 그것이 지켜보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
3.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지 아니했더라도 그분께서는 현세에서 그들에게 다른 징벌을 내렸을 것이며 내세에서 그들은 반드시 불지옥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4.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했기 때문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는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니라
5. 너희가 종려나무를 베어 넘어 뜨리거나 또는 뿌리를 내리고 세워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라 이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고자 하셨노라[1)]
6.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빼앗아 선지자에게 되돌려 주신 모든 것은[1)] 너희가 말이나 낙타를 타고 원정에 나가지 않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분이[2)] 원하는 자들 위에 있도록 능력을 주셨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
7. 하나님께서 그 고을의[1)] 백성들로부터 빼앗아[2)] 그분의 선지자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와[3)] 친척과[4)] 고아들과 필요로 한 사람과 여행자를[5)] 위한 것이니라 이는 그 전리품이 부유한 자에게만 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6)] 그리고 선지자가 너희에게 준 것은 수락하고 선지자가 금기한 것은 삼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하나님은 엄한 징벌을 내리시니라[7]

8. 이러한 전리품들의 일부는 메카 이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돕기 위하여 가정과 재산을 버려둔 채 이주한 자들로 이들 이야말로 믿음이 진실한 자들이라[1]

9. 그러나 그들[1] 이전에 그 도시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신앙을 받아들였던 자들은[2] 그들에게로 이주하여 온 자들을 사랑하였고[3] 이주 온 자들에게 베풀어진 것에 대하여 시기하지 아니했으며 가난하면서도 자신들보다 그들을 우선 사랑하였으며[4] 누구에게든 마음이 인색하지[5] 아니했으니 이들이 바로 번성할 자들이라

10. 그들 이후에 온 자들은[1] 말하길 주여 저회와 저회 이전에 믿음을 가졌던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저회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가[2]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실로 당신은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11. 그대는 위선자들이 성서의 백성 중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1] 만일 너회가 추방 당한다면 우리도 너회와 함께 나갈 것이며 너회의 일에 반대하는 자의 어느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며 너회가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가 너회를 도우리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 했느뇨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거짓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니라[2]

12. 그러나 저들이[1] 추방당하여도 위선자들은[2] 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며 저들이 공격을 받아도 위선자들은 결코 저들을 돕지 않을 것이라 설사 위선자들이 돕는다 하더라도 곧 뒤돌아 서리니 저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라

13. 오히려 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너회가[1] 더욱 두려울 것이라 이것은 저들이 이해하지[2] 못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라

14. 저들은 요새의 마을과 성벽 뒤가 아니고는 너회와 싸우지 아니하며 오히려 저들간의 싸움만 격렬할 뿐 저들이 하나로 단결된 것처럼 보이나 저들의 마음들은 분열되어 있노라[1] 이는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라

15. 그들 이전의 불신자들처럼[1] 저들도 사악한 결과를 맛보리니 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내려질 것이라

16. 그들은 사탄과 같으니라 사탄은 인간에게 믿지 말라고 하고서 인

간이 그렇게 하면 사탄이 말하길 나는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니라

17. 그리하여 저들의 말로는[1] 모두가 불지옥으로 떨어져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무르게 되며 이것이 사악한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

18.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1] 내일을 위해[2] 스스로가 무엇을 했는지 각자가 숙고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고 계시니라

19.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자[1]처럼 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로 하여금 망각케 하시나니 그들이야말로 죄인들이라

20. 불지옥에 사는 자들과 천국에 사는 자들이 같지 않노라 승리하는 자들이 천국의 거주자들이니라

21. 하나님께서 꾸란을 산에 내렸더라면 산도 하나님이 두려워 겸손해 하고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에게 비유하셨나니 이로하여 그들이 숙고하도록 함이라[1]

22.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도 알고 계시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시라

23.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왕이시요 성스러운[1] 분이시며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가장 위대하시고 권세와 모든 위대함의 소유자이시라 그들이 비유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24.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시요 형상을[1] 만드는 분이시라 가장 훌륭한 이름들은 그분의 것이며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있노라[2] 실로 하나님은 강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라

제 60장
수라트 알뭄타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적과 너희 적을 친구로 삼아 너희에게 도래한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선지자와 너희를[1] 추방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려 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려 한다면[2]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가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니 이렇게 행하는 자 누구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니라[3]

2. 저들이 너희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되면 너희의 적이 되어 악의를 품고 저들의 손과[1] 혀를 내밀어 너희를 저주할 것이며 너희가 그 진리를 거역하기를 원할 것이라

3. 부활의 날에는 너희의 친척이나 너희의 자손도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라[1]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4. 여기에 너희를 위한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했던[1] 자들의 교훈이 있노라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길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숭배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노라 또한 우리는 너희가 믿는 것을 믿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와 너희 사이에 적의와 증오가 생겨날 것이라[2] 그러나 아브라함은[3] 그의 아버지를 향해 말하길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용서를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께 관용을 바라는 것 외에는 저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여 실로 저희는 당신만을 의지하오며 당신에게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에게로 돌아가나이다

5. 주여 저희가 불신자들을 위한 시험이[1]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로 당신은 위대하고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6. 실로 너희를 위한 교훈이 그 안에[1] 있나니 이는 하나님과 내세를 원하는 자를 위한 것이며[2] 외면한 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모든 찬미를 받는 분이시라

7. 하나님은 너회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저들과 우정을 나누게 할 수 있으시니라 실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너그러우시며 자비로운 분이시라

8. 하나님은 종교를 이유로 너회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너회를 너회 고향으로부터 추방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너회가 그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셨노라 실로 하나님은 공정하게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1]

9. 하나님은 종교를 이유로 너회에게 대적하고 너회를 너회 고향으로부터 추방하며 너회를 추방함에 협력한 자들과 우정을 맺는 것만을 금지하셨노라 그들과 우정을 맺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지 못한 자들이라

10. 믿는 자들이여 믿음을 가진 여성이 너회에게 이주하여 올 때[1] 그녀들을 시험하라 하나님은 그녀들의 믿음을 온전히 알고 계시니라 그때 너회가 그녀들이 믿는 자들임을 발견했다면 그녀들을 불신자들에게로 보내지 말라 또한 이 여성들은 저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며 또한 불신자들은 그녀들에 대한 권리가 없노라[2] 그리고 저들이 그녀들에게 지불한 것은 돌려주되[3] 너회가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녀들과 결혼할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4] 그러나 믿지 않는 여성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너회가 지불한 것을 요구하되[5] 그들도 지불한 것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노라[6]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한 분이시라

11. 너회 아내 중에서 너회를 버리고 불신자에게로 도망쳐 갔을 때 그들을 공격하여 전리품을 획득한 것이 있다면 도망간 아내의 남편에게[1] 남편이 그녀에게 지참금으로 지불했던 만큼 지불하되 너회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12. 선지자여 믿는 여성들이[1] 그대에게 와서 하나님과 어떤 것도 비유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간음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살해하지 아니하며[2] 스스로 허위를 조작하여 중상하지 아니하고 그대의 일에 거역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면[3] 그녀들의 맹세를 받아드리라 그리고 그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3.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 자들을[1] 친구로 삼지 말라 믿음이 없는 무리가 무덤 속에 든 자들에 대하여 절망하듯이 그들도 내세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노라

제 61 장
수라트 사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라
2.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말하느뇨[1]
3.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한 것을 가장 싫어하시니라[1]
4.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명분을 위하여 대열에 서서 견고한 건물처럼 자리를 지키며 성전에 임하는 자들을 가장 사랑하시니라[1]
5. 모세가 말하길 백성들이여 너희는 왜 나를 해치려 하느뇨[1]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뇨 그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이라
6.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1] 말하길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선지자라 나 앞에 온 구약과 나 이후에 올 아흐맏이란[2]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그러나 그가[3]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4]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라 하였더라
7. 이슬람에 귀의하도록 권유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짓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 누구이뇨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8. 그들은 입바람으로 하나님의 빛을 끄려하지만[1]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싫어 할지라도 그 빛으로 종교를 완성시키시니라
9.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보내시고 꾸란이 다른 모든 종교 위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것을 싫어하더라
10.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고통스러운 징벌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거래를 가르쳐 주리라[1]

11.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너희의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것이라[1]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위한 복이 될 것이라

12.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사 강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인도하시어 아름다운 낙원에서 살게 하여 주실 것이라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13.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좋아하는 또다른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 그것은 너의 적에 대한 하나님의 원조와 가까오고 있는 승리라[1]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2] 전하라

14.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길에서 돕는 자가 되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1] 그의 제자들에게[2] 말하길 하나님의 길에서 누가 나를 돕겠느뇨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길 저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으나 믿음을 갖지 않는 무리도 있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적에 대항할 힘을 주어 승리하도록 하셨노라

제 62 장
수라트 알주므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권자이시고 거룩하시며 강하시고 현명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노라

2.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 중에서 무학자인 무함마드를[1] 선지자로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2] 낭송하고 그들을 정화하며[3] 그 성서와 지혜를[4] 가르치도록 하셨노라 실로 이전의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노라

3. 하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백성과 다음에 올 백성에게도[1] 무함마드를 보내셨노라 실로 하나님은 강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라

4.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참으로 무한한 은총을 지니신 주님이시라

5.구약의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1] 비유하사 책들을 짊어지고 다니는 당나귀와[2]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6. 일러 가로되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다른 백성 위에 군림하여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실이라면[1] 사악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기원해 보라

7.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로[1] 말미암아 사악한 자들에게 죽음을 기원하지 못하니라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8. 일러 가로되 너희가 아무리 피하려고 애를 써도 죽음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 그때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저질렀던 모든 사실을 말하여 주실 것이니라

9. 믿는 자들이여 금요일의 합동예배시간이 되어 모이라는 부름을 들을 때면 서둘러[1] 하나님을 염원하면서 거래를 중단하라[2]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위해 복이 될 것이니라

10. 예배가 끝나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염원하라[1] 그리하면 너회가 번성할 것이라

11. 그러나 거래와 어떤 오락을 보면 그곳을 향해 흩어지는 자들이 있나니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오락이나 거래보다 나은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양식의 수여자이시니라

제 63 장
수라트 알무나피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위선자들이[1] 그대에게 와서 말하길 저희는 그대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선지자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위선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계시니라

2. 저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방패로 삼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니[1] 실로 저들의 행위가 얼마나 사악하느뇨

3. 그것은 저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불신의 길로 되돌아가 저들의 마음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라 저들은 아무 것도 이해못하는 자들이라[1]

4. 그대가 저들을 볼 때 저들의 겉모습이 그대를 놀라게 할 것이며 저들이 말할 때면 그대는 저들의 화술에 기를 기울일 것이라[1] 그러나 저들은 벽에 기대어진 재목과 같아[2] 모든 외침이 저들에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노라[3]실로 저들은 적이라 그러므로 저들을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 저들은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나 현혹되어 있느뇨

5. 하나님의 선지자께로 오라 그분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줄 것이라 그러나 저들은 얼굴을 돌리나니 그대는 저들이 크게 오만하며 외면하는 것을 보리라

6. 그대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기도하든 아니하든 저들에게는 똑같은 것이니[1]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노라

7. 저들이 말하길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말라 그리하면 그들은 선지자를 떠날 것이라 하늘과 대지의 보화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노라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노라[1]

8. 저들이 말하길 우리가 메디나로 돌아간다면 더 강한 자가 더 천한 자를 추방하리라[1]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믿는 자들에게 있나니 위선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노라

9. 믿는 자들이여 너회의 재물과 너회의 자손들로 인하여 너회가 하
나님을 염원함에 벗어나서는 아니되나니 그렇게 하는 자 있다면
누구든 손실자들이라

10. 죽음이 너회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베푼 일용할 양식으로 자
선을 베풀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여 잠시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
제가 자선을 베풀어 의로운 자 중에 있겠나이다 라고 말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

1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정할 때가 오면 어느 누구도 유예하지 아
니하시노라 하나님은 너회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제 64 장
수라트 타가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노라 왕국이 하나님께 속하여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라
2.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으나 너희 중에는 이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고 있고 이를 믿는 신앙이들이 있노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3.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형상을 만드사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셨나니 너희가 돌아갈 최후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4.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너희가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1]
5. 이전에 믿음을 불신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악함을 맛보고 고통스러운 징벌이 저들에게 내려졌던 이야기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 했느뇨[1]
6. 그것은 분명한 증표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저들이 말하길 인간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뇨 이렇듯 저들은 선지자를 배척하고 외면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족하시며 찬양받는 분이시라
7. 믿음을 부정한 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러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며 주님에 의하여 부활되어 너희가 행한 모든 것에 관해 심문을 받게 되니라 그렇게 함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니라
8.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하나님이 계시한 꾸란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9. 군집하는 어느 날을[1]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집합시키는 그 날은 너희 가운데 잃은 자와 얻은 자가 있게 되는 날이라[2]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며

강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그곳에서 영생하게 하시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10. 그러나 믿음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증표들을 거역한 자들은 불지옥의 거주자가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나니 그것은 비참한 운명이라

11.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노라[1]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의 마음을 인도하실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12.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를 따르라 너희가 외면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는 것 뿐이라

13.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만 의지하라[1]

14. 믿는 자들이여 너희 아내와 자손 중에도 믿지 않는 너희의 적이 있거늘[1] 그들을 조심하라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5. 너희가 가진 재산과 자손은 하나의 시험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보상을 가지고 계시니라

16.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1]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자선을 베풀라 그것이 너희 스스로를 위한 복이 될 것이라 그리고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만이 번성함을 누릴 것이니라

17.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으로 자선을[1]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몇 배로 크게하시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며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보답하시며 자비로운 분이시라

18.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것과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강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라

제 65 장
수라트 딸라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선지자여[1] 너회가 여성과 이혼 하고자 할 경우 정하여진 기간을[2] 두고 이혼하되 그 정하여진 기간을[3] 헤아릴 것이며 너회 주님을 두려워 할 것이라 그녀들을 가정으로부터 내보지말며 그녀들 스스로 나가서도 아니되나니 이는 그녀들이 간음하지 않도록 함이라 이것들이 하나님의 법이거늘 누구든 이 법을 벗어난 자는 자기 스스로를 욕되게 한 자라 그후 하나님께서 다시 재결합하게[4] 하려 하시는 지를 너회는 모르기 때문이라[5]
2. 그녀들이 정하여진 기간을 채웠을 때 정당히 재결합을 하던지 아니면 정당히 헤어지되[1] 너회 중에 건전한[2] 두명의 남자 증인을[3] 세워[4] 하나님께 증언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교훈이라 하나님을 두려워 한 자를 위해 하나님은 항상 그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하나의 길을 준비하여 주시니라
3.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아니했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는 누구든 그분으로 족하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일정한 한계를 두셨노라
4. 생리 기간이 끝난 여성이라도[1]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그 여성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석달이며 월경이 아직 보이지 않는[2] 여성도 마찬가지라[3] 또한 임신한 여성이 기다리는 기간은 출산할 때까지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쉽도록 하여 주시니라
5.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회에게 내리신 명령이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큰 보상을 내리시니라
6. 이혼된 여성도 너회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너회가 사는 집에서 살도록 하라[1] 그리고 그녀들을 곤경에[2] 빠뜨리게 하기 위해 그녀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녀들이 임신에 있다면 출산을 할 때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보호할 것이며 그녀들이 젖을 먹인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고[3] 서로가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이며[4]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모로 하여금 젖을 먹이도록 하라

7. 남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불하되[1] 그의 능력이 한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푼 것 중에서 지불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베푸신 것 이상의 무거운 짐을 어느 누구에게도 부과하지 아니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일을 쉽게 하여 주시니라

8.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과 선지자에게 거역하였더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엄격한 계산에 따라 가혹한 징벌을 내리셨노라

9. 그렇게 하여 저들은 불신의 대가로 그 결과를 맛보았으니 불신에 대한 저들의 종말은 멸망이었노라

10.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 가혹한 징벌을 준비하셨노라 믿음으로 지각있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회에게 교훈을[1] 내리셨노라

11.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낭송한 선지자이며[1]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 강물이 흐르는 낙원에서 영생하게 하시며 가장 훌륭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라[2]

12. 하나님께서 일곱 층의 하늘을[1] 창조하시고 대지도 그와 같이 창조하셨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 사이를 통하여 내려졌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회가 알도록 함이라

제 66 장
수라트 타흐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예언자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허용한 것을[1] 스스로 금기하느뇨 그대는 아내들의 기쁨을 사려하느뇨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2.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한 맹세에 대하여 속죄하는 것을 허락하셨노라[1]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이시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현명하신 분이시라

3. 선지자께서 그의 아내 하프사에게 비밀로 하여 달라고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한 기밀을 이야기 했을 때[1] 그녀는 그 이야기를 그의 다른 아내 아이샤에게 말해버렸느니라[2]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자[3] 선지자는[4] 일부를 확인하고 일부는 거절하고서 하프사 아내에게 묻자 그녀가 대답하길 누가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셨습니까[5] 라고 물으매 선지자가 대답하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노라

4. 당신 둘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당신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 또한 당신들의 마음도 이미 그렇게 기울었노라 당신들이 함께하여 선지자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가브리엘 천사와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그를 도울 것이며 천사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1]

5. 선지자가[1] 너희와 이혼한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너희보다 더욱 훌륭한 아내로 너희 자리를 대체하여 주실 수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믿음에 충실하며 헌신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고 믿음을 위해 이주하며 단식하는 과부이거나 쳐녀들이 될 것이라[2]

6. 믿는 자들이여 인간과 돌들이[1] 연료가 되어 타고 있는 불지옥로부터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을 구하라 불길 위에 자리잡고 있는 엄하고 가혹한 천사들이[2]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거역하지 않고 집행할 것이라

7. 불신자들이여 이 날에 와서 변명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에 따라 벌을 받을 뿐이라

8.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라[1]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그를 따라 믿는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그 날 너희의 과오를 거두어 주사 너희로 하여금 강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게 하실 것이니라 그들의 광명이 그들의 앞과 오른쪽에서 빛날 것이라 그들은 말할 것이라 주여 광명으로 완전케 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당신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9. 선지자여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 대항하여 성전하되 그들에 대하여 엄격하라[1] 그들의 거주지는 지옥이니 그들의 말로가 불행할 것이라

10.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노아의 아내와 롯의 아내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노라[1] 그들 둘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 밑에 있었으나 그 둘은 자신들의 남편이 믿는 신앙을 배척하였노라 이러한 그들의 행위로[2] 말미암아 그들의 두 남편은 아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벌을 전혀 막을 수가 없어 두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노라

11.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파라오의 아내를[1] 비유하셨나니 보라 그녀가 말하였노라 주여 저를 위하여 천국에 당신 가까이에 궁궐을 지어 주소서 그리고 파라오와 그의 소행으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소서 또한 사악한 백성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소서

12. 순결을 지킨[1] 이므란의 딸 마리아가 있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몸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당신의 영혼을 불어 넣으셨노라[2] 그리하여 그녀는 주님의 말씀과 계시의 진리를 증거하였으며 순종하는 자 중에 있었노라[3]

제 67 장
수라트 알물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왕국을 소유하고[1] 계시는 하나님께 축복이 있으소서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행사실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
2.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생명을 두시어 그것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행사실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
3. 하나님께서는 일곱 개의 하늘을 층으로 하여 차례로 창조하셨노라 너희는 그것이 완전무결하여 무엇하나 결함이 없음을 볼 것이니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라 결함을 찾아볼 수 있느뇨
4. 그런 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보라 피곤하여 있던 눈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눈으로 돌아올 것이라[1]
5.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하늘을[1] 등불로[2] 장식하셨고 그것으로 사탄을 쫓아내도록 하였으며 그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지옥의 징벌을 준비하여 두셨노라
6. 주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불지옥의 징벌이 내려질 것이니 그것은 가장 비참한 최후라
7. 저들이 그곳으로 던져질 때[1] 저들은 타오르는 불길의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을 것이라
8. 지옥은 맹렬한 열기로 폭발할 것이라 불신자의 무리가 그곳으로 던져질 때마다 문지기의 천사가 그들에게 질문할 것이라 너희에게 한 경고자가 이르지 아니 했었느뇨
9. 이때 그들이 말하길 실로 저희에게 한 경고자가 도래하였으나[1] 저희가 그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도 계시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신들은 크게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10. 더하여 말하길 우리가 귀를 기울였다면 또는 숙고 했더라면 우리는 타오르는 불지옥의 동료 중에 있지 아니할 텐데 라고 말하면서 후회하더라

11. 저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나 타오르는 불지옥의 동료들로부터 외면되노라[1)]

12. 그러나 보이지 아니한 주님을 두려워 한 자들에게는 관용과 큰 보상이 내려질 것이라

13.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숨기어 말하는 것과[1)] 드러내어 말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14. 너희를 창조한 그분께서 모를리가 있겠느뇨 실로 그분은 모든 세세한 것도 모두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시라

15.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대지를 평평하고 고르게 하셨나니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그분이 베푼 양식을 섭취하라 죽은 후에는 모두가 그분께로 돌아가니라

16.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대지를 흔들어 그것이 너희를 삼켜버리게 하실 때 너희는 안전하리라 생각하느뇨

17.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징벌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안심하느뇨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리라[1)]

18. 실로 그들 이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했을 때 그들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무서웠더뇨[1)]

19. 머리 위에서 날개를 폈다가 접었다 하면서 먹이를 채려고 덮치는 새들을 보지 못했더뇨그 새들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뿐이시니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이라

20. 자비로우신 하나님 외에 너희를 도울 자가 누구이뇨[1)] 실로 불신자들은 환상에 빠져 있노라

21. 하나님이 양식을 거두신다면 너희에게 누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느뇨 그런데도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오만하도다

22. 고개를 숙이고 걷는 자와[1)] 곧은 길을 똑바로 보고 걷는 자[2)] 중에서 어느 쪽이 인도를 받겠느뇨

23. 일러 가로되 너희를 창조하사 성장케 하고 듣는 능력과 보는 능력과 감각의 능력과 이해의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래도 너희는 감사하지 않느뇨

24. 일러 가로되 대지 위에 너희를 번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늘 너희 모두가 그분께로 집합되노라

25. 그러나 그들이[1] 묻더라 그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이 약속이 언제 실행되느뇨

26. 일러 가로되 그것은[1]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으로 실로 나는 단지 경고자에 불과하니라

27. 그러나 약속된 것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면 불신자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찰 것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구하고 있던 것이라는 말씀이[1] 들려올 것이라

28.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한 자들과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멸망케 하신다면 불신자들을 고통스러운 징벌로부터 누가 구제할 수 있겠느뇨

29.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우리는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에게만 의지하였노라 너희는 방황했던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30. 일러 가로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물을 잃게 되었을 때 누가 너희에게 흐르는 물을 공급하여 주겠느뇨

제 68 장
수라트 알깔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눈[1] 연필과 천사들이 기록한 것으로[2] 맹세하사
2. 주님의 은혜로 맹세하사 그대는 미친자가 아니라
3. 진실로 그대에게는 무한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
4. 실로 그대는 고상한 성품의[1] 소유자로
5. 누가 미친 자 인지 조만간 그대도 알게 될 것이며 저들도[1] 알게 되리라
6. 너희 중에 누가 미친 자이뇨[1]
7. 실로 그대의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이며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인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니라
8. 그러므로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9. 저들이 순응하는 척하며 그대가 순응하기를 저들은 원하고 있노라[1]
10. 비열한 저들의 맹세에 귀를 기울지 말라
11. 저들은 중상모략하는 자들로[1] 비방하고 배회하면서
12. 모든 선행을 방해하고[1] 한계를 넘는 죄인들로
13. 저들은 잔인하고 태생이 저질스러우니라
14. 많은 재물과 자손들을 가지고 있어 거역한단 말이뇨
15.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될 때마다 저들이 말하길 그것은 옛 선조들의 우화라고 하더라
16. 하나님께서 저들의 콧등에 낙인을 찍어 두실 것이라
17. 아침에 과수원의 과일을 수확하려고 했을 때 과수원 주인들을 시험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시험하고 계시니라[1]
18. 그들은 수확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아니 했으니[1]

19. 그들이 잠든 사이에 주님께서 그 정원에 재앙을 내리셨노라[1)]

20. 그리하여 그 정원은 검은 불모지가 되어 버렸으니

21. 아침이 되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더라

22. 과일을 수확하려면 아침 일찍 과수원으로 나가라 하니

23. 그들은 서둘러 떠나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더라

24. 오늘은 가난뱅이가 당신의 과수원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라

25. 그들은 그렇게 작정하고 아침 일찍[1)] 가난한 자들을 피하여[2)] 떠났더라

26. 그들이 도착하여 망가진 과수원을 보고 말하길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노라[1)]

27. 실로 우리는 크게 털렸노라

28. 그들 중에 보다 정직했던 자가 말하길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했더노

29. 이때사 저들이 말하길 주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실로 저희가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30. 그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31. 실로 우리가 사악한 자들이었으니 비참할 뿐이라

32. 주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정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 실로 우리는 그분께 회개하노라

33. 그러함이 현세의 벌이라 너희가 알고 있다면 내세의 징벌은 더욱 크니라[1)]

34.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천국이 준비되어 있노라

35.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죄인의 백성들처럼 대우하시겠느뇨

36. 도대체 너희가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뇨

37. 너희가 배울 수 있는 한 성서가 있었느뇨

38. 너희가 그 안에서 선택할[1)] 무엇이 있었느뇨

39. 심판의 날까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받았느뇨[1)]

40. 그대여[1] 그들 가운데 누가 그것을 보장할 것인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41. 그들에게 신과 대등한 무리의 동료가 있다는 거뇨 그들이 진실이 라면 무리들을 이르게 하라

42. 가혹한 재앙이[1] 있을 그 날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복하라 부름을 받으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라

43. 그들의 눈들은 아래로 처지고 굴욕이 그들을 애워싸노라 그들이 건전하고 온전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복하라 권유를 받았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노라

44. 그러므로 꾸란을 거역한 자들을 나에게[1] 맡기라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부터[2] 점차로 징벌을 내릴 것이니라

45. 내가 그들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나 실로 나의 계획은 확고하니라

46. 그대가 그들에게 보상을[1] 요구하여 그들이 부채로 짐을 지고 있느뇨

47. 보이지 않는 것이[1] 그들 곁에 있어 그들이 그것을 기록이라도 할 수 있느뇨

48. 그러므로 인내하라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며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르고 비탄에 잠겨있을 때 물고기에게 삼켜버린 자와 같이[1] 되지 말라

49.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지지 아니 했으면 그는 벌거벗은 채 불모의 땅에 버려져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으리라

50. 그러나 주님은 그를 선택하사 의로운 자 중에 있게 하셨노라

51. 불신자들이 그 교훈을 들을 때면 그들의 눈으로써 그대를 괴롭히며 말하길 실로 그는 미친자라

52. 그러나 꾸란은 분명히 온 인류를 위한 교훈이라

제 69 장
수라트 알하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실제의 날이[1] 있나니
2. 실제의 날이 무엇이뇨
3. 실제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가르쳐 주리요[1]
4. 사무드와 아드 백성은 부활의 날을[1] 부정했노라[2]
5. 그리하여 사무드 백성은[1] 무서운 천둥과 번개의 벼락으로 멸망했으며
6. 아드 백성은 춥고 성난 폭풍에 의해 멸망되었노라
7.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을 일곱 밤과 여덟 날을 계속하여 휘몰아치게 하였을 때 그 백성들은 마치 넘어져 있는 종려열매 나무들처럼 쓰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노라
8. 그대는 그들 중 살아 남은 어느 누구를 볼 수 있었더뇨
9. 파라오와 그 이전의 자들과 멸망된 도시들도[1]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렀노라
10. 주님이 보낸 선지자를 배척하였기에 그들은 혹독한 벌을 맛보게 되었노라
11. 물이 넘쳤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방주에 태워 보냈노라
12. 이로 하여 너희에게 교훈이 되고 귀를 가진 자는 그것을 기억하여 교훈이 되도록 하였노라
13. 나팔 소리가 한번 울려 퍼질 때[1]
14. 대지와 산들이 들어 올려려 한번에 산산조각이 나며
15. 그 날에 커다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니라
16. 그 날 하늘이 갈라지고 힘을 잃게 되노라
17. 천사들이 주변에 줄지어 있으며 그 날 여덟[1] 천사가 주님의 권좌

를 받들고 있노라

18. 그 날은 너희가 심판을 받은 날로 너희의 어떤 행위도 숨겨질 수 없노라

19. 그의 우편에 기록부를 받아 든 자는 여기에 기록부가 있나니 읽어 주소서 라고 말하며

20. 실로 저는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1. 그리하여 그는 기쁨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

22. 높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

23. 송이송이 달린 과일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있으며

24. 즐겁게 먹고 마시라 이것은 너희가 현세에 있을 때 행한 선에 대한 보상이니라

25. 그러나 그의 좌편에 기록부를 받아든 자는 자신의 기록부가 그에게 이르지 않았더라면 하고 탄식할 것이니라

26. 내가 저지를 행위에 대한 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27. 차라리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탄식하노라

28. 나의 재산도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29. 내가 가졌던 권세도 내게서 사라져 버렸구나

30. 그를 포획하여 구속하라는 엄한 명령이[1] 내려지자

31. 타오르는 불속에 던져진 후

32. 칠십 척 길이의 쇠사슬에 묶어 걷게 하더라

33. 그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34.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도 베풀지 아니 했노라

35. 이 날 이곳에는 친구도 없으며

36. 그가 먹을 음식이란 피고름 섞인 것으로

37. 그것은 죄인들만이 먹는 것들이라[1]

38. 너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1]

39. 또한 너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사[1]

40. 실로 이것은 훌륭한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 전하여진 말씀으로
41. 한 시인의 말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는 자가 소수라
42. 이것은 점장이의 말도 아니거늘 너희 중에 숙고하는 자가 소수라
43. 이것은 온 누리의 주님이 내리신 계시로
44. 만일 무함마드가 하나님께 거역하여 말씀을 위조하였다면
45.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 손을 붙잡아
46. 그의 대동맥을 절단하였을 것이라
47. 이때 너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지할 수 없느니라[1)]
48. 실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
49.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50. 실로 이 꾸란은 내세를 부정한 불신자들에게 큰 슬픔이 될 것이라
51. 실로 이 꾸란은 분명한 진리이니라
52. 그러므로 위대한 그대 주님을 찬양하라

제 70 장
수라트 알마아리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한 질문자가[1] 곧 닥칠 징벌에 관하여 질문하였나니
2. 그것은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불신자들을 위한 징벌에 관한 것으로
3. 그것은 승천의 길[1]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니라
4. 오만년과도 같은 하루 동안에[1]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2]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5. 그러므로 그대는 훌륭한 인내심을 갖고 참고 견디라[1]
6. 실로 저들은 징벌이[1] 멀리 있다 생각하고 있노라
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까이 있음을 예고하고 계시니라
8. 그 날에는 하늘이 용해된 구리처럼 될 것이며
9. 산들이 양털처럼[1] 될 것이며
10. 친구가 친구의 안부를 물을 수 없으며
11. 부활의 날 비록 그들이 서로가 만나게 되지만[1] 죄인들은 그 날의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의 자손이나
12. 그의 아내와 형제나
13. 그를 보호한 친척이나
14.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 그 징벌을 피하려 하나
15.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으며[1] 그들에게는 불지옥이 있을 뿐으로
16. 머리부터 불태워질 것이라
17. 외면하고 거역했던 자들을 호출하며[1]
18. 재물을 축적하여 감추었던 자들을 호출할 것이라[1]
19. 실로 불신자들은 조급하고 인색하게 창조되었노라[1]
20. 재앙이 닥칠 때면 크게 슬퍼하며

21. 행운이 찾아들 때는 인색해 하더라[1]
22. 그러나 예배에 충실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23. 그들은 항상 예배하는 자들이라
24. 그들의 재물은 정당한 것으로
25. 구하는 자들이나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26.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며
27. 주님의 징벌을 두려워 하는 자들이라
28. 실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부터 안전할 자는 아무도 없노라
29.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잘 지키는 자들과
30. 아내들과 오른 손이 소유한 여하인들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지키는 자들은 제외라
31.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것은 불의한 자들이니라[1]
32. 신용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과
33. 증언을 함에 정직한 자들과
34. 예배생활에 충실한 자들은
35. 축복받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
36. 그러나 불신자들이 서둘러 그대에게 오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뇨[1]
37. 오른쪽과 왼쪽에서 왜 떼지어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었이뇨
38. 그들 모두가 축복받은 천국으로 들어가려 갈망하느뇨
39. 아니라 그런 것 같지가 않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1] 그들을 창조하였노라
40. 동쪽과 서쪽의 주님께 맹세하사 권세는 그분께 있노라
4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보다 더 훌륭한 다른 백성들로 대체하시나니 그분께서는 그렇게 함에 부족함이 없노라
42. 그러므로 그들이 무익한 대화에 빠져 그들이 약속받은 그 날 직면때까지 만끽하도록 내버려두라
43. 그들이 그들의 무덤으로부터 서둘러 나오는 그 날 그들은 마치 서둘러[1] 우상에게로[2] 가는 것 같더라

44. 실의에 빠진 그들의 눈들은 아래로 내려져 있으며 굴욕감이 그들
을 사로잡고 있노라 그들에게 약속된 날이란 바로 이런 것이니라

제 71 장
수라트 누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실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낸 것은[1]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응벌이[2] 임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경고하고자 하셨노라
2. 노아가 말하길 백성들이여 실로 나는 분명한 경고자로서 너희에게 왔노라[1]
3.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만을 두려워하며 나를 따르시오
4.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을[1] 용서하사 일정 기간까지 너희를 유예하실 것이라[2] 실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더 이상 유예받을 수 없노라
5. 노아가 말하길 주여 저는 밤낮으로 저희 백성들을 인도하려 하였습니다
6. 그러나 믿는 자들은 증가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7. 당신께서 저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제가 저들에게 말할 때마다 저들은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옷을 여미며[1] 거역하고 오만할 뿐입니다
8. 그리하여 저는 저들에게 공개적으로 소리높여[1] 호소하였습니다
9. 대중 앞에서도 그랬고 사적으로도 호소했으며[1]
10. 주님에게 용서를 빌라 실로 그분은 너그러운 분이시라 하였고
11. 너희에게 비를 풍부하게 내려주는 분이시며
12. 재산과 자손을 더하여 주시고 과수원과 물이 흐르는 강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
13.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두려워 하지 아니한 것은 어떤 일이뇨[1]
14. 실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여러 단계를 거쳐[1] 너희를 창조하셨노라

15. 하나님께서 완전한 조화로써 일곱 층의 하늘을 만드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16. 달을 두시매 빛을 반사케 하고 태양을 두시매 등불이 되게 하셨노라

17.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흙으로 빚어 대지 위에서 성장하도록 하신 후

18. 너희를 땅으로 돌려보내 다시 태어나도록 하실 것이니라

19.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대지를 융단처럼 펼쳐 주셨으니

20.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안의 넓은 길들을 활보하도록 함이라

21. 노아가 말하길 주여 실로 그들은 저를 배척하고 그들의 재산과 자손들에게 해악만을 끼치는 자들을[1] 따를 뿐입니다

22. 그들은 커다란 음모를[1] 꾸미며

23.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신들을 버리지 말라 왓드 우상과 수와드 우상과 그리고 야구스 신과 야우끄 신과 나스르 신들을[1] 단념하지 말라

24. 그들은 이미 많은 무리를 유혹하였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더 이상 그들이 죄악을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25.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1] 그들은 익사하였고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외에는 그들을 도울 자 아무도 없노라

26. 노아가 말하길 주여 땅 위에 믿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맙소서

27. 당신께서 그들 중에 한 불신자라도 남겨 두신다면 그들은 당신의 종들을 유혹하여 사악한 자들로 만들 것입니다

28.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사 저의 부모와 믿음으로 저의 집에 들어온 자들과 믿는 사람들과 믿는 여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들에게만 벌을 증가하여 주소서

제 72 장
수라트 알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일러 가로되 내게 말씀이 계시되었고 한 무리의 영마가 꾸란을 듣고 말하길 실로 우리는 아름다운 꾸란 낭송을 들었노라 하더라[1)]
2. 꾸란의 말씀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믿되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비유하지 아니할 것이라
3.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으로 아내도 그리고 자손도 두지 않으신 분이라
4. 우리 가운데 우매한 자들이[1)]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 있으나
5. 우리는 사람도 영마도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노라[1)]
6. 사람 중에 영마의 무리에게 보호를 구하는 자 있으나 영마들은[1)] 오히려 인간에게 어리석음을 더하여 주니라
7. 불신자들은 너희 영마의 무리가 생각했듯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부활시키지 않으리라 생각했노라[1)]
8. 영마들이 말하길 우리가 하늘에 이르려고 시도하였으나 힘센 수호자들과 빛나는 별들로 가득차 있음을 알았노라[1)]
9. 실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소식을 엿듣곤 하였으나 그렇게 엿들으려는 자는 유성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노라[1)]
10. 우리는[1)] 주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그들을 인도하실런지 알지 못하노라[2)]
11. 우리 중에는 의로운 자들이 있고 의롭지 못한 자들이 있어 제각기 다른 길을 따르고 있노라
12. 우리는 땅 위에서 어느 것도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하고 그분을 피하여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노라
13.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노라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 어떤 손실과 수치도 두려워 하지 않노라[1)]

14. 우리 중에 하나님께 귀의하는 자 있고 이탈하는 자 있나니 귀의하는 자는 누구든 올바른 길을 추구하노라[1)]

15. 그러나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은 불지옥의 연료가 되니라[1)]

16.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있다면[1)]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풍성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

17.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그들을 시험하였나니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자 있다면[1)] 그분은 그를 고통스러운 징벌 속에[2)] 들게 하리라

18. 모든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의 것이거늘 하나님 외에는 아무 것도 숭배하지 말라[1)]

19. 하나님의 종 무함마드가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니 영마들이 떼지어 그를 둘러 싸더라[1)]

20. 일러 가로되 실로 나는 주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 어떤 것도 비유하지 아니하노라

21. 일러 가로되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해악을 끼칠 힘도 그리고 이롭게 할 힘도 없노라[1)]

22. 일러 가로되 하나님에 대항하여 나를 보호하여 줄 어느 누구도 없으니 그분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노라

23. 실로 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를 전하는 것 뿐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24. 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것을 보게 되리니 그때 그들은 누가 더 약한 자이며 어느 쪽이 열세인가를 알게 되리라[1)]

25. 일러 가로되 너희들에게 약속된 것이 다가왔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셨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1)]

26. 하나님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뿐으로 그분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지 아니하시니라

27. 그러나 당신께서 선택한 선지자는 제외라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의 수호자들로[1)] 하여금 그의 앞뒤를 행진케 하시니라

28.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는지 알고자 하심이며 또한 당신께서는 선지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숫자로 기록하시니라

제 73 장
수라트 알무잠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망투 속에[1] 싸여진 그대여[2]
2. 밤을 새워가며 예배하라
3. 밤의 절반도 좋고 그 보다 짧아도 좋으며
4. 그보다 더 길어도 좋으니라[1] 그리고 꾸란을 낭송하되 느리고 리듬을 두어 읽으라
5. 내가 그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내고 있노라
6. 실로 밤중에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이라[1]
7. 실로 그대는 낮에 해야할 임무가 많노라[1]
8. 그대 주님의 이름을 상기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만을 섬기라[1]
9. 하나님은 동쪽과 서쪽의 주님으로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만사를 그분에게 맡기라
10.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1] 인내하고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멀리하라[2]
11.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나의 계시를 부정하는 자들은 내게 맡기라 그리고 그들을 잠시 유예하여 두라
12. 나에게는 그들을 묶을 족쇄와 그들을 태울 불과
13. 질식시킬 음식과 고통스러운 벌이 준비되어 있노라
14. 그 날은 대지와 산들이 크게 동요하고 산들이 무너져 모래산처럼 흘러내리니라
15. 실로 내가[1] 너희들에게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보냄은 너희를 위한 증인이 되도록 함이니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낸 것과 같노라
16. 그러나 파라오는 모세를 배척하였노라 그리하여 나는 파라오에게 무거운 징벌을 내렸노라

17. 너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어린이가 호호백발이 되는 그 날 너희는 너회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려 하느뇨

18. 그때 하늘은 갈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수행되니라

19. 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라 그러므로 원하는 자는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라

20. 실로 주님은 그대가 밤의 삼분의 이 또는 이분의 일 때로는 삼분의 일을 자지 않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대와 함께한 무리가 그리하는 것도 아시노라 하나님께서 밤과 낮의 길이를 정하시며 너희가 온 밤을 지새워가며 예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1] 베푸셨으니 꾸란 가운데 읽기에 쉬운 부분을 많이 읽으라[2]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병든 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 지상을 여행하는 자 있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 있음을 알고 계시나니[3] 꾸란 가운데 읽기에 쉬운 부문을 많이 읽으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4]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대부하라[5] 너희가 너희 영혼을 위해 바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으로 보상 받게 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제 74 장
수라트 알무다씨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망투를 걸친 자여[1)]
2. 일어나서 경고하라
3. 그리고 그대 주님만을 찬양하고
4. 그대의 망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1)]
5. 부정한 것을 피하고
6. 필요 이상의 것을 주지 말며[1)]
7. 주님을 위해 인내하라
8.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때[1)]
9. 그 날은 곧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
10.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평탄함이 없느니라
11. 내가 홀로 창조한 그 불신자를 내게 맡기라[1)]
12. 실로 나는 그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었고[1)]
13. 자손들을 주어 그와 함께 살게 하여[1)]
14.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였노라
15. 그런데도 그는 내가 더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느뇨[1)]
16.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노라 그는 하나님의 증표들을 거역하였노라
17. 곧 내가 그에게 산더미 같은 재앙들을[1)] 가져다 주리라
18. 그는 숙고하고서도[1)] 음모하였으니
19. 음모한 그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20. 그러하니라 음모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느니라
21. 그런 후 그는 생각하고[1)]

22.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

23. 그리고 외면하며 오만해 하더라[1]

24. 그리고 말하길 꾸란은 옛 선조들로부터 유래된 마술이요

25. 한 인간의 말에 불과하다고 하였더라

26. 내가 곧 그를 불지옥으로 이르게 하리라

27. 그 불지옥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28. 그곳은 죄인의 살도 그리고 뼈도 남기지 않고 불태워지는 곳으로[1]

29. 태우고 그슬러 버리는 곳이라

30. 그 위에는 열 아홉의 천사들이[1] 지키고 있노라

31.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지옥의 수호자들로 두시었노라 그 숫자로 한정한 것은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을 위한 시험이라 그리고 성서의 백성들을 확신시키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더하며 성서의 백성들과 믿는 신도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병든 자들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비유로 무엇을 의도하려 하느뇨 라고 말하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방황케 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수호자들을[1] 알 수 없노라 이것은 인간을 위한 경고이니라

32. 달을 두고 맹세하사[1]

33. 사라져 가는 밤을 두고 맹세하며

34. 빛나는 아침을 두고 맹세하나니

35. 실로 그것은 가장 중대한 재앙 중의 하나라

36. 그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의 경고로

37. 너희 중에 앞서려는 자와 유예하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1]

38. 모든 인간은 그가 행한 바에[1] 따라 정하여 지노라

39. 우편의 동료들은[1]

40. 천국으로 들어가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물으며

41. 죄인들에 묻더라

42.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불지옥에 들게 하였느뇨

43. 그들은 대답하길 우리는 예배하는 자 중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44.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45. 공론에 빠진 자들과 무익한 잡담만 하였으며
46. 심판의 날을 믿지 않고
47.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1)]
48. 그리하여 어떤 누구의 중재도 저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노라
49. 교훈을 거역한 저들이 어떻게 되겠느뇨
50. 저들은 마치 놀란 당나귀들이
51. 한 마리의 사자에 놀라 도망치는 것과 같더라[1)]
52. 실로 펼쳐진 성서가 저들에게도 내려지기를 원하고 있노라[1)]
53.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들은 내세를 두려워 하지 않노라
54. 실로 꾸란은[1)] 교훈이라
55. 그것을 원하는 있거든 그것을 읽도록 하라
56.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 외에는 그것을 읽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인간이 두려워 해야 할 분은 하나님 뿐으로 그분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1)]

제 75 장
수라트 알끼야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부활의 날을 두고 맹세하사
2. 스스로 책망하는 영혼을 두고 맹세하나니[1)]
3.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뼈들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뇨[1)]
4.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손가락 끝의 뼈까지도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노라
5. 그래도 인간은 부활을 부정하며 사악한 행위를 계속하려 하노라[1)]
6. 그러면서 부활의 날이 언제이뇨 라고 묻더라
7. 그리하여 시야는 현혹되고
8. 달은 어둠속에 묻히며
9. 태양과 달이 하나로 모아지는 날[1)]
10. 은신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그날 인간은 질문하나
11. 보라 피할 은신처가 없노라
12. 그 날의 안식처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1)]
13. 그 날 인간은 그가 앞서 행한 모든 것과 행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을 알게 되매[1)]
14. 그 때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증인이 되노라[1)]
15. 어떤 변명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노라[1)]
16. 무함마드여 꾸란을 계시 받을 때 성급하게 혀를 움직이지 말라[1)]
17.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암송케 하리니
18. 하나님께서 읽으신 후에 그대가 따라 읽으라[1)]
19. 그런 후 하나님께서 그것의 의미도 설명하여 주리라[1)]
20. 그러나 너희는 지나가는 현세의 삶을 사랑하고

21. 내세를 무시하고 있노라
22. 그 날 어떤 자들의 얼굴은 밝게 빛나며
23.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24. 그 날 어떤 자들의 얼굴은 슬픔과 고뇌로 가득차며
25. 자신들에게 큰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노라
26. 그 때 죽음의 영혼이 목구멍까지 이르매[1]
27. 그를 구할 마술사가 누구이뇨 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
28. 그는 떠날 때가 되었음을[1] 확신하고
29. 한 다리가 다른 다리에 포개어져
30. 주님께로 운반되어 가노라
31.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도[1]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도 아니했으며
32. 진리를 거역하고 등을 돌리며[1]
33. 완전히 기만된 무리를 따르면서 친척들에게 오만한 자태를 부렸노라
34. 너희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35. 너희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더하여 있으리라[1]
36.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인간을 내버려 두리라 생각하였더뇨[1]
37. 인간은 단지 흘러나온 정액의 한 방울에 불과하지 않느뇨
38. 그것이 응혈이 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39. 남성과 여성으로 자웅을 두셨노라
40.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소생시킬 수 없단 말이뇨

제 76 장
수라트 알인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인간에 관하여 언급할 만한 어떤 가치도 없었던[1] 오랜 기간이[2] 흘렀노라
2. 실로 하나님께서는 혼합된 한 방울의[1]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이는 그를 시험하기[2] 위해서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청각과 시력을 부여하고[3]
3. 길을 제시하여 주었으되[1] 인간이 감사하고 불신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라
4. 그러나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쇠사슬과 멍에와 타오르는 불지옥을 준비하였고
5.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는 카푸르가 혼합된 술을[1] 마실 잔을 준비하셨노라
6. 카푸르는[1] 하나님의 종들이[2] 마실 샘물로 그들이 원하는대로 길러오니라
7. 그들은 약속을[1] 수행하였고 악이 넓게 퍼지는 어떤 날을 두려워했노라
8.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난한 자와 고아와 포로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하며
9.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 여러분에게 음식을 제공할 뿐 어떤 보상이나 감사도 원치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고
10. 실로 우리는 주님께서 엄하고 크게 노여워 하실 어느 날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하더라
11.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날의 재앙으로터 그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니라
12. 이는 그들이 인내하였기 때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명주의 의상으로[1] 그들에게 보상하실 것이니
13. 그들은 천국의 높은 안락의자에 기대어 작열하는 태양의 열사와 추위도 맛보지 아니하노라

14. 천국의 그늘이 그들 위로 내려져 있으며 과일들은 그들의 손이 닿기에 가까운 곳에 있으며

15. 은과 수정으로된 잔들이 그들 사이를 오가고

16. 그들은 수정같은 맑은 은잔에 좋을 만큼 따라 마시더라

17. 잔자빌이[1] 혼합된 술잔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18. 그곳에는 쌀싸빌이라는[1] 우물이 있으며

19. 그들 주위를 도는 청순한 소년들을 너희가 보리니 너희는 그들이 뿌려논 진주들처럼 생각하리라

20. 너희가 그곳을 볼 때 너희는 그곳에서 축복과 위대한 왕국을 목격하리라

21. 그들은 초록색 명주와 두꺼운 금실로 짠 명주를 걸치고 은팔찌로 장식을 하고 있으며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음료수를 마시게 하더라

22. 실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보상으로[1] 너희의 노력은 이처럼 보상되니라

23. 하나님이 그대에게 단계적으로 꾸란을 계시했노라

24. 주님의 명령에 인내하고 죄인들이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말며[1]

25.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염원하고

26. 밤중에는 그분께 부복하여 경배하며 긴 밤을 통하여 그분을 영광되게 하라

27. 실로 이들은[1] 잠시 지나가는 현세를 사랑할 뿐 고통스러울 어느 날은[2] 소홀히 할 뿐이라

28.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고 강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할 때 그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노라

29. 실로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거늘 원하는 자 누구든지 주님으로 이르는 길을 따르도록 하라

30. 너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아니 되나니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31.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그분의 은혜속에 들게 하시나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응벌을 준비하셨노라

제 77 장
수라트 알무르쌀라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연이어 보내는 바람을 두고 맹세하사
2. 분노한 폭풍우를 두고 맹세하며
3. 멀리 구름을 나르는 그들을[1] 두고 맹세하며
4. 서로를 격리시켜 주는 자들을[1] 두고 맹세하며
5. 계시를 전하여 주는 자들을[1] 두고 맹세하나니
6. 진리를 밝히고 경고하노라
7. 실로 너희에게 약속된 것들이[1] 다가오고 있노라[2]
8. 별들이 빛을 상실하고
9. 하늘이 쪼개어 지며
10. 산들이 먼지가 되어 휘날려 가고
11. 선지자들이 약속된 시간에 모이게 되는 때
12. 이것들은 어떤 날을 위하여 유예되었더뇨[1]
13. 분류하는 그날을[1] 위해서라
14. 분류하는 그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15.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16.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옛 선조들을[1] 멸망케 하고
17. 그들 후에 새로운 세대를[1] 오도록 하게 했으니
18.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루니라
19. 그날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1]
20.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매 하찮은 정액으로 창조하지 아니했더뇨
21. 하나님은 그 정액을 안전한 곳에[1] 두었으되

22. 알려진 기간까지라[1)]
23.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형상을 결정하니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시라[1)]
24.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1)]
25. 하나님이 그 대지를 모이는 곳으로 하지 아니했느뇨[1)]
26. 이는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서라
27. 그 안에 높은 산들을 두어 너희에게 마실 달콤한 물을 주지 않았더뇨
28.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29. 너희가 거짓이라 했던 그곳으로[1)] 가라는 말이 있을 것이며
30. 세 갈래의 연기가 싸인 그곳으로 가라
31. 그곳은 시원하게 할 그늘도 화염을 막을 것이 없는 곳이라
32. 실로 궁궐과 같은 크기의 불길이 치솟으니
33. 그 불길은 노란 낙타가 뛰는 것과 같노라
34.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35. 그날은 그들이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며
36.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명도 허락되지 아니하니
37.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38. 그날은 분류를 하는 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너희 모두와 너희 이전의 모든 자들을 함께 모이게 하리니
39. 너희가 계략이나 음모한 것이 있다면 나에 대항하여 음모하여 보라
40.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41.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시원한 그늘과 우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42. 그들은 과실들과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라
43. 너희는 기꺼이 먹고 마시라 이는 너희가 행한 의로움 때문이라
44. 이렇듯 하나님은 선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하니라
45.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니
46. 오만한 자들이여 너희도 먹고 마시라 그러나 순간에 불과하나니 이는 너희가 죄인들이기 때문이라

47.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48. 부복하여 경배하라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 했으니

49.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50. 이 말씀 이후에[1] 그들은 어떤 메세지를 믿으려 하느뇨

제 78 장
수라트 나바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그들은 무엇에 관하여[1] 서로가 서로에게[2] 질문하느뇨
2. 위대한 소식에[1] 관하여 질문하느뇨
3. 그것에 관하여 그들은 의견을 달리하나
4. 실로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1]
5. 실로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6. 하나님이[1] 대지를 두매[2] 넓다랗게 두셨으며
7. 산들을 두매 기둥으로 두었고
8. 너희를 창조하매 자웅으로 두셨으며[1]
9. 수면을 두매 너희 휴식을 위해 두었고[1]
10. 밤을 두매 의상으로 두었으며[1]
11. 낮을 두매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두었노라[1]
12. 하나님은 너희위에 칠천을 두었으며
13. 그 안에 찬란한 빛을 두고[1]
14. 풍부한 비구름을[1] 보내어
15. 이로 하여 곡식과 채소들을 생산케 하고
16. 울창한 정원들이 되도록 하지 아니 했더뇨
17. 실로 분류하는 그날은 정하여진 것으로[1]
18. 나팔이 울리는 그날 너희는 떼를 지어 앞으로 나오게 되며[1]
19. 하늘은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고
20. 산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며
21. 지옥은 기다리고 있으니[1]

22. 사악한 자들을 위한 목적지라
23. 그들은 그곳에서 영주하니라[1)]
24. 그들은 그곳에서 시원함도 맛보지 못할 것이며 마실 음료수도 없으며[1)]
25. 오직 끓어 오르는 액체와 검고 어두운 혹독한 액체 뿐으로[1)]
26. 이것이 그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라
27.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계산도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1)]
28.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 부정하였으매[1)]
29.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보관 하시니라
30. 그러므로 너희 행위의 결과들을 맛보라 응벌 외에는 너희에게 더 하여주지 아니 하리라
31.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승리한 것이 있나니[1)]
32. 천국과 포도들이 있고[1)]
33. 나이가 같은 청순한 배우자가 있으며[1)]
34. 넘치는 잔이 있도다[1)]
35.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무익한 대화나 거짓된 말도 듣지 아니하며
36. 주님의 계산에 따라 보상을 받노라
37.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의 주님이신 가장 자비로운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그분의 능력에 견주지 못하리라
38. 영혼[1)]과 천사들이 앞으로 줄지어 서는 그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 사실을 말할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나니
39. 그날이 진리의 날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원하는 자는 그로 하여금 주님께 귀의토록 하리라
40.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가올 응벌에 관하여 경고했나니 인간은 그가 행한 그 행위들을 지켜볼 그날 불신자들은 저에게 재앙이 있나니 차라리 흙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말하리라

제 79 장
수라트 나지아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사악한 자들의 영혼을 강력하게 끌어가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사[1)]
2. 축복받은 자들의 영혼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1)]
3.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를 두고 맹세하며[1)]
4. 경주하듯 인도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1)]
5.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나니[1)]
6. 어느날 동요하게 될 모든 것은 크게 동요하고[1)]
7. 뒤를 이어 동요가 반복되도다[1)]
8. 그날의 마음들은 두근거리고[1)]
9. 그들의 눈들은 밑으로 쳐져있으며
10. 저희가 실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뇨 라고[1)] 말하며
11. 우리가 부패한 뼈들만 남는데도 그러하느뇨
12. 그리하면 그것이 실로 잃은 귀로가 되리라[1)] 말하더라
13. 그러나 그것은 단 한번이[1)] 될 것이라
14. 그때 그들은 심판을 위하여 깨어나 있지 않느뇨
15. 모세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이르렀느뇨
16. 주님께서 성스러운 계곡 뚜와로[1)] 그를 불러
17. 파라오에게 가라 실로 그는 모든 영역을 벗어난 자이니
18. 그에게 이르러 죄악으로 부터 스스로를 청결케 하고자 하느뇨
19.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리니 당신은 그분만을 두려워 하라고 하라
20. 그래서 모세는 그에게 큰 증표를[1)] 보였더라
21. 그러나 파라오는 그 진리를 거역하고 오만해 하였으며[1)]

22. 둥을 돌리고 서둘러 떠나[1]
23.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소리쳐 말하길[1]
24. 내가 가장 높이 있는 너희 주님이라 하였으니
25. 하나님은 그에게 내세와 현세의 벌을[1] 내리셨느니라
26. 실로 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 있노라
27. 너희를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렵느뇨 아니면 그분이 세우신 하늘이 겠느뇨[1]
28. 하나님은 하늘을 가장 높이 두시고 거기에 질서와 온전함을 두셨노라
29. 그분은 밤을 어둡게 두사 빛을 두셨노라[1]
30. 대지를 두시되 넓다랗게 펼치시어[1]
31. 그곳으로 부터 물과 초목을 생산케 하셨으며
32. 산들을 두시되 온전하게 고정하셨으니
33. 너희와 가축들에게 유용케 하기 위해서라
34. 그러나 대 재앙이[1] 다가올 때
35. 그날은 인간이 행한 것들을 회상하는 날이며
36. 지옥이 보는 자 앞에 나타날 때
37. 오만하며 불신하고
38. 현세의 삶만을 좋아했던 자들에게는
39. 거주지가 불지옥이 될 것이라
40. 그러나 주님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저속한 욕망들로부터 자신을 자제하였던 자들에게는
41. 거주지가 천국이 될 것이라
42. 그들은 그때가 언제 있을 것이냐고 그대에게 질문하나
43.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그대에게 관계되는 일이뇨[1]
44. 종말은 그대 주님만 아시는 것으로
45. 그대는 그것을 두려워 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경고자에 불과하니라
46. 그것을 보는 날 그들은 저녁이나 아침시간 정도 머문 것 같이 느껴질 것이라[1]

제 80 장
수라트 아바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선지자께서 눈살을 찌푸렸고 등을 돌리셨나니[1]
2. 장님이 그분께 다가와 방해하였기 때문이라[1]
3. 그가[1] 스스로를 순결케 하려 하는지를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리요
4. 그가 교훈을 받고 그대의 교훈이 그를 유익하게 할런지도 모르니라
5. 스스로 충만하다 생각하는 자 있나니[1]
6. 그대여 그를 경계하라[1]
7. 그가 스스로를 순결케 하지 아니한 것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1]
8. 그러나 진실로 열망하여 그대에게 다가오는 자와[1]
9.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에게
10. 그대가 그를 소홀이 하였으매
11. 결코 그래서는 안되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이라
12.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게 그로 하여금 교훈을 간직하도록 하라[1]
13. 그것은 명예롭게 기록되어 있으며[1]
14. 순결하고 성스럽게 그리고 명예스럽게
15. 서기들의 손들에 의해 기록되나니[1]
16.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이라
17. 하나님을 불신한 인간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18. 그 무엇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느뇨[1]
19.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운명을 주었을 뿐이라[1]
20. 그런 후 인간이 출생하기에 순탄한 길을 두었으며[1]

21. 그런 다음에는 인간을 죽게하여 무덤으로 향하도록 한 후
22. 하나님은 뜻이 있을 때[1] 인간을 다시 부활하시니라
23. 실로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수행치 않노라
24.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먹는 음식을 숙고하여 보게 하라
25. 실로 하나님은 흡족한 비를 내리게 한 후
26. 대지를 펼쳐 그곳으로 부터 식물을 재배케 하여
27. 그곳에서 곡식들을 성장케 하며
28. 포도와 푸른 식물과
29. 올리브와 종려나무와
30. 울창한 정원과
31. 과실과 목초가[1] 있으니
32. 이 모든 것은 인간과 가축들을 위한 것이라
33. 고막이 터질듯한 소리가 들릴 때면[1]
34. 그날 인간은 그의 형제들로부터 도주하나니
35.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36. 그의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도주하노라
37. 그날 그들 각자는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스스로의 일에만 열중하노라
38. 그날 그들 중의 일부는 얼굴에 빛이 나며
39. 웃음짓고 기뻐 할 것이나
40. 일부는 그날 그들의 얼굴이 먼지로 싸여지며
41. 어둠이 그를 감싸니라
42. 그러함이 오만한 불신자들에게 있을 것이라

제 81 장
수라트 타크위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태양이 은폐되어 그의 빛이 사라지고
2.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며
3. 산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4. 새끼를 밴지 열달이 된 암낙타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며
5. 야생동물이 떼지어 모이고
6. 바다가 물이 불어 넘쳐흐르며
7. 영혼들이 유사하게 분리되고[1)]
8. 여아가 산채로 매장되어 질문을 받으니[1)]
9. 어떤 죄악으로 그녀가 살해되었느뇨[1)]
10. 기록부들이 펼쳐지고[1)]
11. 하늘이 그의 베일을 벗을 때[1)]
12. 타오르는 불지옥이 열을 세차게 발산하며
13. 천국이 의로운 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14. 그때 모든 영혼은 그가 행한 것들을 알게 되니라
15. 실로 내가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사[1)]
16. 나타나고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며
17. 어둠을 맞이하는 밤을 두고 맹세하며[1)]
18. 빛을 맞이하는 아침을 두고 맹세하나니
19. 실로 이것은 고귀한 사도가 전한 말씀이라[1)]
20. 그는[1)] 하나님 권좌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강한자로
21. 순종하고 믿음직하노라

22. 그럼으로 너회의 동반자는 미친자가 아니며[1)]

23. 그는[1)] 청명한 지평선에 있는 그를[1)] 보았으되[2)]

24. 그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지식을 인색하게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25. 이것은[1)] 저주받은 사탄의 말이 아니매

26. 너회는 어디로 가려하느뇨[1)]

27. 실로 이것은 만인을 위한 메세지이며

28. 너회 가운데 그 진리를 원하는 자 그것을 따르도록 하려 함이라

29. 그러나 만유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이 없이는 너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노라

제 82 장
수라트 알인피따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이 갈라지고[1)]

2. 별들이 흩어지며

3. 바다가 열리어 하나가 되고[1)]

4. 모든 무덤이 열리어 뒤엎어지며[1)]

5. 그때 모든 인간은 앞서 있었던 것들과 미루었던 것들을 알게 되노라[1)]

6. 인간들이여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너회를 유혹했느뇨

7. 그분께서 너회를 창조하고 형상을 만든 후 균형을 주시었고[1)]

8. 그분이 원하시는 형태로써[1)] 너회를 지으셨으나

9. 너희는 진리와 심판을 거역하매
10. 너희를 감시하는 자들을 두었노라[1)]
11. 이들은 명예로운 기록자들이매[1)]
12. 그들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13. 실로 의로운 자들은 축복속에 있게 되나
14. 사악한 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되나니
15. 그곳은 심판의 날 그들이 들어갈 곳으로
16. 그때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결코 나갈 수 없노라
17.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18.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19. 그날은 누구도 타인에게 효용이 없는 날로 그날은 하나님의 명령만 이 있을 뿐이라

제 83 장
수라트 알무따피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저울을 속이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1)]
2.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 저울을 넘치게 하여 받으나
3. 그들이 사람들에게 줄 때는 무게를 낮추어서 주노라
4. 그들은 그들이 부활되리라 생각지 않느뇨
5. 그날은 위대한 날로[1)]

6. 모든 인간이 만유의 주님앞에 서는 날이며
7. 사악한 자들의 기록은 씨진[1]에 보관되어 있노라
8. 씨진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9. 그곳에 기록된 기록부가 있노라[1]
10. 그날에는 불신한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요
11. 심판의 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재앙이 있을 것이라
12.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나 오만한 자들은 영역을 벗어난 죄인들이라
13.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낭송될 때 이것은 옛 선조들의 우화요 라고 말하더라
14. 그렇지 않노라 그들의 마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노라
15. 실로 그날 그들은 베일로 가리워져 바라보지도 못하며[1]
16. 그들은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니
17. 이것은 너희가 거짓이라 거역했던 현실이라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
18.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기록은 일린에[1] 보관되나니
19. 일린이 무엇인가를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20. 그곳에 기록된 기록부가 있노라
21.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들이[1] 그것을 증언할 것이니
22. 의로운 자들은 축복속에 있게 될 것이며
23. 그들은 안락 의자에서 바라볼 것이라[1]
24. 너희는 그들의 얼굴에서 밝은 축복의 빛을 인식할 것이며
25. 봉인된[1] 순수한 술로써 그들의 갈증을 식힐 것이며
26. 최후의 음료수는 미스크[1]가 될 것이니 그것을[2] 소망하는 자 갖게 하리라
27. 거기에 타쓰님이[1] 혼합되어지니
28. 그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마시는 샘물이라
29. 죄인들은 믿음을 가졌던 자들을 비웃어

30. 그들 옆을 지나갈 때면 눈짓으로 조롱하곤 하였고[1)]

31. 그들이 무리에게로 돌아왔을 때는 우쭐 댔노라

32. 믿는자를 볼 때면 보라 이들이 방황한 자들이라 하더라

33. 그러나 불신자들은 믿는자를 감시하기 위해 보내어진 자가 아니매

34. 오늘은[1)]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불신자들을 조롱하리라

35. 이들은 안락의자에 앉아 바라다 보리라[1)]

36. 불신자들은 그들이 행하였던대로 보상을 되돌려 받지 않느뇨[1)]

제 84 장
수라트 알인쉬까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이 산산히 갈라지고[1)]

2. 주님께 순종하며 의무를 다하도다[1)]

3. 대지가 편편하게 펼쳐지고[1)]

4. 그안의 모든 것이 내던져지어 텅비게 되매[1)]

5. 주님께 순종하며 의무를 다하도다

6. 인간들이여 실로 너희가 주님을 향해 노력하나니 너희는 그분을 만날 것이라[1)]

7. 그의 기록이 오른 손에 있는 자는[1)]

8. 그의 기록이 편안히 계산되니

9. 기뻐하며 그의 가족으로 돌아가노라[1)]

10. 그러나 그의 기록이 뒤에 있는 자는
11. 죽음을 향하여 소리칠 것이니
12. 그는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들어가니라
13. 실로 그는 그의 무리들과 즐거이 방황 했을 뿐[1]
14. 하나님에게로 귀의하리라 생각지 아니 했노라[1]
15. 그렇지 않노라 실로 주님께서는 인간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6. 해질 때의 황혼을[1] 두고 맹세하사[2]
17. 밤과 모여든 모든 것을[1] 두고 맹세하며
18. 완전히 차오른 달을 두고 맹세하나니
19. 실로 너희는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1] 옮겨 가니라
20.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려 한 것은 무슨 일이뇨
21. 꾸란이 그들에게 낭송되나 부복하여 경배하지 아니하며
22. 오히려 그것을[1] 거짓이라 불신하더라
23.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심중에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24.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라
25.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단절되지 않는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

제 85 장
수라트 알부르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별들의 궤도를 둔 하늘을 두고 맹세하사

2. 약속된[1] 심판의 날을 두고 맹세하며
3. 증언하는 자들과[1] 증언받는 그들을[2] 두고 맹세하며
4. 함정을[1] 만든 그들에게 저주가[2] 있으리라[3]
5. 그들은 화염을 그곳에 던졌노라[1]
6. 그들은 그 화염 옆에 앉아
7. 그들이 믿는 신도들에게 저지를 모든 것을 증언하노라[1]
8. 그들은[1] 그들이[2] 권능과 찬미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학대하였노라
9.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0. 실로 믿음을 가진 남성과 여성을 학대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응벌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타오르는 불지옥의 응벌을 맛보리라
11.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강물이[1] 흐르는 천국이 있나니 실로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12. 실로 그대 주님의 응벌은 엄하니라
13. 그분께서 창시하셨기에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노라[1]
14. 그분은 관용과 사랑으로 충만하사
15. 영광의 권좌에 앉아 계시며
16. 뜻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니라[1]
17. 군대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이르렀느뇨
18. 파라오와 사무드 군대의 이야기라
19.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그 진리를 거역하고 있나니
20. 하나님은 그들 뒤에서 그들을 포위하시니라
21. 실로 이것이 영광의 꾸란으로
22. 보호된 곳에[1] 보관된 것이라

제 86 장
수라트 따리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과 샛별을[1] 두고 맹세하사
2. 샛별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3. 그것은 빛나는 별이라[1]
4. 모든 인간에게는 그를 감시하는 자가 있나니[1]
5. 그가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는지 생각케 하라
6. 떨어지는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되며
7. 그 정액은 등뼈와 늑골 사이에서[1] 나오는 것이라
8. 이렇듯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부활케 하실 수 있으시며[1]
9. 숨겨진 모든 것들이[1]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날
10. 인간은 아무런 힘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11. 비를 보내는[1] 하늘을 두고 맹세하사
12. 식물을 싹트게 하는 대지를 두고 맹세하나니[1]
13. 실로 이것은[1] 선악을 구별하는 말씀으로
14. 농담을 위한 것이 아니라
15. 음모하는 그들에게
16. 내가 방책을 세워 두었으니
17. 잠시 불신자들을 그대로 두라 얼마후에 그들을 벌하리라

제 87 장
수라트 알아올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가장 위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라[1]
2.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사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3. 모든 것에 특징을 두사 그것으로 유용케 하였으며[1]
4. 그분은 목초를 생성케 하시고
5. 그것을 갈색의 마른 풀로 하시도다
6.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씀을 계시하니 암기하여 잊지 말라
7.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외라[1] 실로 그분은 있는 것과 숨겨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8. 하나님은 그것이 그대에게 쉽도록 하여 주었으니[1]
9. 그 교훈을 전달하여 듣는 자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라
10.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은 그 교훈을 받아들일 것이며
11. 불행한 불신자들은 그것을 회피하니
12. 큰 불지옥으로 들어가[1]
13. 그곳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살지도 못하리라[1]
14. 그러나 스스로를 청결케 한 자 번성하리니
15.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기도하라
16. 그래도 너희가 현세의 삶을 좋아하나
17. 내세가 더 좋으며 영원하니라
18. 실로 이것은 옛 성서에도 계시되어 있으며
19. 아브라함과 모세의 성서에도[1] 그러하니라

제 88 장
수라트 알가쉬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저항할 수 없는 재앙의 소식이 그대에게 이르렀느뇨[1)]
2. 그날 굴욕을 맛볼 얼굴들이 있나니
3. 심한 노동으로 지친 상태에서[1)]
4. 그들이 불지옥으로 들어가니[1)]
5. 끓고 있는 화염의 물을 마시게 되도다
6. 모진 가시 외에는 그들을 위한 음식도 없으니[1)]
7. 영양이 없어 굶주림에 무익할 뿐이라
8. 그러나 그날 기쁨을 만끽할 얼굴들이 있나니
9. 그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것에 기뻐하며[1)]
10. 높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매
11. 그들은 무익한 말한마디 듣지 아니하며[1)]
12. 그곳에는 흐르는 샘물이 있고
13. 높은 곳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으니[1)]
14. 이미 준비된 잔들이 있노라
15. 안락한 베개들이 줄지어 있고
16. 화려한 융단이 펼쳐져 있노라
17. 낙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들은 숙고하지 않느뇨
18. 하늘은 어떻게 높이 올려졌으며
19. 산들은 어떻게 고정되었고
20. 대지는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숙고하지 않느뇨
21. 경고하라 실로 그대는 경고자일 뿐으로

22. 인간을 감독하며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1]
23. 그러나 외면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자 있다면
24.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요
25.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
26. 그들을 불러 계산하리라

제 89 장
수라트 알파즈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새벽의 여명기를 두고 맹세하사
2. 열흘 동안의 밤을 두고 맹세하며[1]
3. 짝수와 홀수를 두고 맹세하며[1]
4. 사라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니
5. 실로 그 안에는 이해하는 자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6. 주님께서 아드 백성에 행한 이야기와[1]
7. 높은 빌딩을 소유한 이람의 백성에 관한 얘기를 아느뇨[1]
8. 그와 같은 힘센 백성이 대지 위에서 창조된 적이 없었노라[1]
9. 산의 바위로 계곡에 집을 세운 사무드 백성의 이야기와[1]
10. 강한 군대를[1] 가진 오만한 파라오의 이야기를 아느뇨
11. 실로 이들 모두는[1] 도읍에서 죄악을 낳고
12. 그곳에서 해악을 더해만 갔으니

13. 주님께서 그들 위에 여러가지의 응벌을[1] 내렸노라
14. 실로 그대 주님은 항상 감시하고 계시니라[1]
15. 주님께서 인간을 시험삼아 명예와 은혜를 베풀면 이것은 주께서 내게 영광을 주시었노라 하더라
16. 그분께서 일용할 양식을 감소하실 때면 주께서 나를 처량하게 만드시도다 말하고 있으나[1]
17. 그렇지 아니함이라 너회는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했으며
18.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지 아니하며
19. 오히려 너회는 욕심을 내어 그들의 유산을 삼키고
20. 오만하게 재물만을 사랑하였노라
21. 그러나 대지가 산산조각이 되고[1]
22. 주님이 임하시고 그분의 천사들이 줄지어 나올 때
23. 그날은 지옥이 나타나니라 그날 인간은 그의 업적을 상기하나 그의 회고가[1] 어떻게 그를 유익하게 하겠느뇨
24. 그때야 인간은 내 미래의 생을 위하여 선행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한탄하여 말하나
25. 그날은 어느 누구도 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벌만이 있을 것이라
26.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속박이 있으리라
27. 의로운 영혼들에게는 영혼들아 너회는 완전한 휴식과 기쁨속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28.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29. 나와 함께 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와
30. 나의 천국으로 들라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

제 90 장
수라트 알발라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이 도읍을[1] 두고 맹세하사
2. 그대는 이 도읍의 자유로운 거주인이라[1]
3. 선조와 자손을 두고 맹세하사[1]
4. 실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노력과 시련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였나니[1]
5. 어느 누구도 불신자를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 하느뇨[1]
6. 실로 나는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1] 라고 불신자는 말할 것이라
7. 어느 누구도 그를 지켜보지 아니한다고 불신자는 생각하느뇨[1]
8. 하나님이 그에게 두 눈을 주지 아니 했더뇨
9. 하나의 혀와 두 입술을[1] 주지 아니 했더뇨
10. 하나님은 그에게 두 길을[1] 설명하였노라
11. 그는 힘든 길에서 수고하려 아니 하느뇨[1]
12. 그 힘든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13. 그것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일이요
14.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이며
15. 친척의 고아들과
16. 먼지 투성이가 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
17. 그런 후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18. 이들만이 우편에 있는 동료들이라[1]
19.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좌편에 있는 동료들로
20. 그들 위에는 닫혀진 불지옥만이 있을 뿐이라

제 91 장
수라트 샴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태양과 그 빛을 두고 맹세하사
2. 그 뒤를 이은 달을 두고 맹세하며[1]
3. 태양의 영광을 보여주는 낮을 두고 맹세하며
4. 그것을 숨기는 밤을 두고 맹세하며
5. 하늘과 그것을 세운 주님을[1] 두고 맹세하사
6. 대지와 그것을 펼쳐 놓으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며
7. 인간과 그것을 창조한 주님을 두고 맹세하사
8.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셨나니[1]
9. 스스로를 순결하게 하는 자가[1] 승리자이며
10. 스스로를 불결하게 하는 자 실패한 자라
11. 사무드 백성은 그들의 오만으로 예언자를 거역하였으매
12. 그들 중 가장 사악한 자가 일어섰을 때[1]
13. 선지자가[1] 그들에게 말하길 그것은 하나님의 암낙타이니 그것이 물을 마시매 방해하지 말라 하였으나
14. 그들은 그를[1] 거역한 후 그 암낙타를 살해하였으니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사 구별없이 완전 멸망케 하셨노라
15. 실로 그분은 그 결과에 대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 하시니라

제 92 장
수라트 라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어두워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사
2. 빛을 비추이는 낮을 두고 맹세하며
3. 남녀를 창조하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나니
4. 실로 너희들의 행위는 여러가지라
5. 자선을 베풀고 두려워 하며[1]
6. 진리를 증언하는 자를 위해[1]
7. 하나님은 그가 축복으로 가는 길을 쉽게 하여 주시노라
8. 그러나 인색하고 자기자신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며
9. 진리를 거역하는 자[1]
10. 하나님은 그가 불행으로 가는 길을 쉽게 하리니
11. 그가 지옥으로 향할 때는 그의 재산이 그를 유익하게 못하니라
12.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13. 내세와 현세도 그분께 있노라
14. 그러므로 내가[1] 너희에게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지옥을 경고하나니
15. 가장 불행한 자들만이 그곳에 이르게 되니라
16. 그는 바로 진리를 거역하고 외면하는 자라
17.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그곳으로부터 제외 되거늘
18.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바치며 스스로를 순결케 하사
19. 그가 베푼 은혜에 대한 보상을 그의 마음속에 갖지 아니하고[1]
20. 오직 가장 위에 계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로
21. 이들은 곧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제 93 장
수라트 두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아침을 두고 맹세하고
2. 어둠이 짙어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사[1)]
3. 주님께서 그대를 버리지 아니했으며 미워하지도 않으시니라
4. 실로 그대에게는 내세가 현세보다 나으리니
5. 주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것이매 그대는 이로하여 기뻐하리라
6. 그분은 고아인 그대를 발견하여 그대를 보호하지 아니 했더뇨[1)]
7. 그분은 방황하는 그대를 발견하여 그대를 인도하지 아니 했더뇨
8. 그분은 가난했던 그대를 부유하게 하여 주지 아니 했더뇨
9. 그러므로 고아들을 거칠게 대하지말며
10.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11.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 하라[1)]

제 94 장
수라트 샤르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이 그대의 마음을 펼치사[1)]

2. 그대의 무거운 짐을 덜어 주었으며[1]
3. 그대의 등에 있는 그 짐은 무거운 것 이었노라
4. 하나님이 그대의 위치를 높이 두었으며
5.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라[1]
6. 실로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라
7. 그러므로 쉬지 말고 노력하며
8. 주님께 강구하라[1]

제 95 장
수라트 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무화과와 올리브를 두고 맹세하사[1]
2. 시나이 산을 두고 맹세하며[1]
3. 안전한 이 도읍을 두고 맹세하나니[1]
4.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신 후
5. 그의 위치를 가장 낮게 하였노라[1]
6.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제외되어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보상이 있노라
7. 다가올 심판의 날에 관하여 그대를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뇨
8. 가장 훌륭한 심판자는 하나님이 아니더뇨

제 96 장
수라트 알알라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읽으라[1)]
2. 그분은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
3. 읽으라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으로
4.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5.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노라[1)]
6. 그러나 인간은 오만하여 범주를 넘어서
7. 스스로 충만하다 생각하도다[1)]
8. 실로 모든 인간은 주님께로 귀의하노라
9. 기도를 금지한 자를 보았느뇨
10. 그는[1)]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2)] 방해하였노라
11. 그가 복음의 길 위에 있었다 생각하느뇨
12. 아니면 신앙에 경건하라 명령을 받았다 생각하느뇨
13. 그가 진리를 거역하고 외면하였다 생각하느뇨
14. 하나님께서 지켜 보심을 그는 알지 못하느뇨
15. 그로 하여금 알게 하리니 그가 단념하지 않는다면 그의 앞머리를 끌어가리라[1)]
16. 그 머리는 거짓과 죄악의 머리라
17. 그런 후 그로 하여금 그를 도울 동료들을 불러 모이게 하고
18.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응벌의 천사들을 부르리라
19. 그러므로 그를 따르지 말라 부복하여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1)]

제 97 장
수라트 알까다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께서 거룩한 밤에[1] 이 계시를 내리셨나니[2]
2. 거룩한 밤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3. 거룩한 이 밤은 천개월보다 더 훌륭한 밤으로[1]
4. 이 밤에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강림하여
5. 아침 동녘까지 머무르며, "평안하소서"라고 인사하더라[1]

제 98 장
수라트 알바이이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성서의 백성들[1] 가운데 진리를 거역한 자들과 불신자들은[2] 분명한 예증이[3] 그들에게 이를 때 까지 그들은 길을 떠나려 하지 아니 하였노라
2. 이 예증은 성스러운 말씀을 낭송할[1] 하나님의 선지자로
3. 그 안에는 올바른 율법이 있노라
4. 성서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분명한 예증이 이를 때 까지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 했으니[1]
5.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1]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한[2] 믿음이 되도록 그분께 헌신하며 기도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것들이

참된 신앙이라[3]

6. 실로 성서의 백성들 중에 진리를 거역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되리니 그들은 그 안에서 영주하매 가장 사악한 무리들이라

7.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자들은 가장 의로운 자들로

8. 그들을 위해 주님의 보상이 있나니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영생할 에덴의 천국이라 하나님은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그분으로 기뻐하리니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라

제 99 장
수라트 질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대지가 심하게 진동을 하며[1]

2. 대지가 그속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도다[1]

3. 인간은 비탄하고 고함치며 어찌된 일이뇨

4. 그날 대지는 그의 소식을 얘기하리니[1]

5. 실로 주님은 그에 관해 계시하였노라

6. 그날 사람들은 여기 저기 무덤에서 떼지어 나와 그들의 업적들을 보이노라[1]

7. 티끌만한 선이라도 실천한 자는 그것이 복이 됨을 알 것이며

8. 티끌만한 악이라도 저지른 자는 그것이 악이 됨을 알리라

제 100 장
수라트 알아디야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질주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사[1]
2. 불꽃을[1] 튀기는 말을 두고 맹세하며
3. 새벽에 공격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나니
4. 먼지를 일으키며
5. 적 깊숙이 돌진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사[1]
6. 실로 인간은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더라[1]
7. 인간은 그가 행한 것을 증언 할 것이매
8. 재물에 탐익하는데만 열중하노라
9. 무덤속에 있는 것들이[1] 밖으로 나와 산산히 흩어지고
10.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이 밝혀지며
11. 그날[1] 주님께서 그것들을 아심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인간은 알지 못하느뇨

제 101 장
수라트 알까리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부활의 날[1]

2. 부활의 날이 무엇이뇨
3. 부활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리요
4. 그날은 인간이 나방처럼 흩어지는 날이며
5. 산들은 가지런한 양털처럼 되는 날로
6. 그날 그의 선행이 무거운 자는
7. 안락한 삶을 영위할 것이나
8. 그의 선행이 가벼운 자는
9. 불지옥의 함정에 있게 되리라[1]
10. 불지옥의 함정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려 주리요
11. 그것은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지옥이라

제 102 장
수라트 타카쑤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축적한 것들이 너회를 벗어나게 하리니[1]
2. 너회가 무덤으로 갈 때 까지 오만하려 하느뇨[1]
3. 그러나 너회는 곧 알게 되리라
4. 실로 너회는 곧 알게 되리라
5. 너회가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너회는 알게 되리니
6. 너회는 지옥의 불을 볼 것이라
7. 실로 너회는 분명히 눈으로서 목격할 것이라
8. 그런 후 너회는 너회가 탐닉했던 향락에 관하여 힐문을 받을 것이라

제 103 장
수라트 알아스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세월을 두고 맹세하사[1)]
2. 실로 모든 인간은 멸망케 되니라
3. 그러나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실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를 권고하며 인내하는 자들은 제외라[1)]

제 104 장
수라트 알후마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지니[1)]
2. 그는 재산을 모아 계산에 열중하며[1)]
3. 그 재산이 현세에서 그를 영원케 하리라 생각하도다[1)]
4.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지옥에 던져지리라
5. 그 지옥이 무엇이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6.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타는 불지옥이거늘
7. 그 뜨거움이 가슴을 에워싸고
8. 그들에게 문이 잠겨져 버리며
9. 기둥들로 빗장이 내려지노라

제 105 장
수라트 알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 했느뇨[1]
2. 그들의 음모를 파멸시켜 버리지 아니 했더뇨
3.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떼를 보내어
4. 모래와 흙으로 된 돌맹이들을 던지셨나니
5. 그들은 다 갉아 먹어버린 마른 잎과도 같았더라[1]

제 106 장
수라트 꾸라이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꾸레이쉬 부족의 보호를 위하여
2. 대상으로 하여금 겨울과 여름에 안전하게 여행케 하였노라[1]
3. 그러므로 이 집의[1] 주님을 그들로 하여금 경배토록 하라
4. 그분은 그들을 기아로부터 배불려 주셨고 공포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셨노라[1]

제 107 장
수라트 알마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내세를[1] 부정하는 자를 그대는 알았느뇨
2. 그는 고아를 학대하고
3.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이니[1]
4. 위선적인 기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5. 이들은 그들의 기도생활을 태만히 하면서
6. 남에게 보이기 위해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자들로
7.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한 자들이라

제 108 장
수라트 카우싸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이 그대에게 풍성한 은혜를[1] 베풀었나니
2. 주님께 기도하고 제물을[1] 바치라
3. 실로 그대의 적은 모든 희망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이라

제 109 장
수라트 알카피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1)]
2.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내가 숭배하지 아니하며[1)]
3. 내가 경배하는 분을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고
4. 너희가 숭배했던 것들을 내가 숭배하지 아니할 것이며
5. 내가 경배한 그분을 너희가 경배하지 않을 것이니
6.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을 뿐이라

제 110 장
수라트 나스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그때에[1)]
2. 떼지어 하나님의 종교로 귀의하는 백성들을 그대는 보리니[1)]
3.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관용을 구하라 실로 그분은 관용으로 충만하시니라[1)]

제 111 장
수라트 알마싸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아부라합의 두 손이 멸망하고 파멸할 것이며[1)]
2. 그의 재물과 그가 얻은 것이[1)]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3. 그는 곧 타오르는 불지옥에 이르게 될 것이라
4. 그의 아내는[1)] 연료를 운반할 것이요
5. 그녀의 목에는 단단히 꼬인 동아줄이 감기리라

제 112 장
수라트 알이클라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일러 가로되 하나님은 단 한분이시고[1)]
2. 하나님은 영원하시며[1)]
3.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며[1)]
4. 그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노라[1)]

제 113 장
수라트 알팔라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일러 가로되 동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며[1]
2. 창조된 사악한 것들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1]
3. 어둠이 짙어지는 밤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4. 매듭으로 마술을 부리는 자들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1]
5. 시기하는 자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노라

제 114 장
수라트 나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일러 가로되 인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고[1]
2. 인류의 왕이며
3. 인류의 신에게[1]
4. 인간의 흉중에 도사리는 사탄의 재앙으로부터
5. 인간의 가슴속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6. 영마와 인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나이다

제1장 수라트 알파티하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7절로 자주 낭송되는 꾸란의 진수이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낭송할 부분은 일곱절의 꾸란(15:87)이라고 하였다. 무슬림이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를 통해서 최소한 17회 이상 암송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장을 암송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바다 이븐 사미트는 전하고 있다.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비롯하여 우주만물의 운행질서를 주관하는 주체자, 즉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 내세관, 경배와 구원의 대상, 인류가 걸어야 할 바른 길,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던 민족과 방황했던 민족에 대한 역사적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알파티하' 외에도 책중의 책(Ummul Kit b), 영광(al Hamdu), 질병의 치료(al Shif 'a), 무궁무진한 지식의 창고(al Kanj) 등 12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모든 예배는 본 장이 제일 먼저 암송됨으로써 시작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즉 본 장이 암송됨으로써 신앙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에서 개경장(F tiha)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본다. 본 장이 책 서두에 있으나 그것은 계시된 순서가 아니라 편집상의 순서일 뿐이다.

1-1) 같은 어원에서 유래된 창조주에게만 있을 수 있는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말하며 99개 창조주의 은총 가운데 2개의 은혜로 해석되고 있다.

2) 지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다. 이 모든 언어에는 창조주를 호칭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 창조주의 이름을 영어권 사람은 '가드(God)' 라 하고, 페르시아인들은 '쿠다(Khuda)', 인도인들은 '데바(Deva)',아랍인들은 '알라(Allah)', 라틴어로는 '데우스(Deus)', 독일어로는 '고트(Gott)', 한말로는 '하나님' 이라 한다.

3) 창조주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말씀을 계시할 때 예언자로 하여금 말씀을 계시받는 방법이며 또한무슬림이 꾸란을 읽는 예절이기도 하다. 아랍어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의 약자는 '비쓰밀라' 로 다음 사항에서는 이 '비쓰밀라' 를 암송하는 것이 무슬림의 예의로 되어 있다.
첫째 ; 말이나 웅변, 일을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둘째 ; 우두(예배하기전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하기 위해 몸을 씻는 것)를 할 때.
셋째 ; 짐승을 도살할 때.
넷째 ;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다섯째 ; 부부 생활에 들어갈 때.

2-1) '슈크르' 가 인간의 어떤 물질적이며 제한된 은혜에 대한 '상대적 감사' 의 표현이라 한다면, '함두' 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절대적 '감사' 를 의미한다.

4-1) 인간의 현세 업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심판의 날.

5-1) 우리가 경배함에 당신만을 경배하고, 우리가 구원할 때 당신께만 구원을 하며 당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경배하지 아니하며,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예의와 경의를 창조주 당신께로 돌리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전능으로부터 구원을 빌겠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으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만 경배와 구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7-1) "노여움을 받은 자들"이란 '유대인' 을 가르킨다. 모세를 통하여 구약이 계시되었을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가 하면 말씀을 조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노여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받은 자들로 풀이되고 있다.

2) "나스라니운" 즉 기독교인들의 모체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신약을 계시하여 인류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모든 백성이 말씀대로 행하다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는 등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변질시켜가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방황케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는 자들"로 풀이되고 있다.

제2장 수라트 알바까라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286절로 전체 114장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다. 서두에서 온전한 신앙인, 불신자, 위선자에 관하여 언급된 후 진실한 신앙인이 누구이며 불신자, 위선자 그리고 행복한 인간이 누구인가를 묘사하고 있다.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286절로 전체 114장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다. 서두에서 온전한 신앙인, 불신자, 위선자에 관하여 언급된 후 진실한 신앙인이 누구이며 불신자, 위선자 그리고 행복한 인간이 누구인가를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지상의 대리자(칼리파)로서 땅으로 내려온 이야기, 성서의 백성들(Ahl al Kitab), 특히 이스라엘의 자손 유대인들과 메디나에서 거주하고 있던 무슬림들과의 관계, 그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음모와 죄악 등 일련의 사건들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슬람법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도 소개하고 있다. 그 당시는 무슬림들이 이슬람 국가 건국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법 내지는 규범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단식, 성지순례, 성전, 결혼과 이혼, 자녀양육 및 이혼한 여성이 재혼하고자 할 경우 기다려야 할 법정 기간, 믿음이 없는 무신론자와의 결혼금지, 여성이 생리할 때 부부 생활의 관계 등에 관한 가족법,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고리대금의 죄악상 그리고 신앙인들의 회개와 기원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바까라'는 암소라는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암소의 장이라 불려지게 된 동기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살해되었으나 살인자를 찾아낼 수가 없자 이 문제를 모세에게 이야기하여 살인자를 알아내기로 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를 내려 그들로 하여금 암소 한 마리를 도살하여 도살된 시체의 일부분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때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체가 살아나 그들에게 살인자가 누구인가를 말할 것이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따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예증이라고 풀이하였다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6)

1-1) 이 문자를 해설하는데는 학자들간에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이 세 문자는 꾸란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거나 또는 훌륭한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문자 또는 생략된 약어로서 '알리프'는 하나님(Allah)을, '람'은 자비(Latf), '밈'은 영광(Majd)의 생략형으로 보는 학자가 있고, 또는 어떤 심오하고 신비한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어로도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8).

2-1) 무함마드여! 이 계시된 꾸란은 의심할 바 없는 성서이거늘

2) '따끄와'는 여러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견제하여 혀와 손과 마음이 유혹되지 아니하며 정의와 경건함과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의미를 전부 내포하는 아랍어로 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정직한 신앙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3-1) 인간의 오관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역, 즉 하나님, 천사들, 정명, 부활, 천국, 지옥, 심판 등 꾸란과 예언자가 언급한 불가시계의 영역.

2)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물질적·정신적 은혜를 모든 인간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

4-1)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

2) 하나님으로부터 무함마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것들로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구약(Taurat),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신약(Injil), 다윗의 시편(Jabr), 아브라함의 책(Suhuf) 등을 일컫는다.

3) 현세 다음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 그 때에는 심판과 부활과 보상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5-1) 그들이라함은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꾸란과 그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성서들과 내세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양식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6-1) '카파라'(불신하다), '쿠프르'(불신), '카-피르'(불신자),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정하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메시지를 불신하는 것.

2) 앞절까지는 진실한 믿음으로 영화를 누리는 신앙인들에 관한 말씀이었으며, 6절과 7절에서는 믿음을 부정한 불신자들에게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다.

7-1) '카타마'는 어떤 것을 봉하여 그 안에 들어 갈 수도 없으며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다는 언어적 해석이며, 이절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전자로, 마음을 봉했으니 그 안에 광명이 들어 갈 수 없으며, 믿음이 있으나 그 마음에 이르지 못하고, 귀와 눈을 봉했으니 광명을 볼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20).

8-1) 1-5절까지는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 관하여, 6-7절에서는 불신자에 관하여 묘사하였고, 8-11절에서는 위선자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 이 위선자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병들고, 이 병들은 다른 사악함과 마찬가지로 번지게 된다. 이 병들은 치료 될 수 있으나 그들은 자신들을 망각한 채 광명과 진리를 고의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치료될 수 없는 다른 사악의 세계로 쉽사리 빠져 들고 만다.

9-1) '키다-아' 또는 '무카-디으'의 뜻은 부패 또는 사악함이란 뜻의 언어적 해석으로, 타인 앞에서는 이슬람에 충실한 척 행동하나 홀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아니하며, 혀로써는 이론에 충실하나 실천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10-1) 병이라함은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신앙의 정신적 병을 의미한다. 즉 신앙에 대한 회의, 의심, 위선 등을 말하고 있다.것이라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배반했기 때문이라

11-1) 해악이라함은 창조주를 불신하고 자신을 속이며 꾸란을 믿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사악함을 일컫는다.

13-1) '무하지린'과 '안사리' 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신앙인들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의 추종자들처럼.

2) 위선자들. 알칼라비는 유대인들이라고 전하고 있다.

3) 위선자들은 조롱하여 말하길, "무지하고 어리석은 '수하이브'나 '암마르' 또는 '빌랄' 처럼 믿으란 말인가?"라고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싸르. 제1권. p.22).

14-1) 위선자들.

16-1) 위선자들이 믿음을 마다하고 불신의 길을 걷는 것이나 광명의 길에서 방황의 길을 선택하는 것 혹은 공동사회를 이탈하거나 무함마드 전통(Sunna)에서 벗어나는 행위.17

17-1) 불신자들

2) 17절의 계시말씀은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그 신앙을 버렸거나 또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암흑속으로 인도하니, 그들은 복음의 길과 구원의 길로 이르지 못함을 제시하고 있다.

18-1) 그들은 귀머거리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은 벙어리처럼 유용한 말을 못하며, 그들은 장님처럼 옳은 길을 보지 못하도다.

19-1) 혼돈과 방황속에 있는 그들을 비유하며, 그들은 마치 세찬 폭풍우와, 천둥과 번개가 진동하는 암흑속에서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르는 무리와도 같음을 비유하고 있다.

20-1) 암흑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일때만 그 불빛으로 걷다가 번개불이 그치면 걸음을 멈춘다. ※ 하나님은 위선자의 속성을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10가지 속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거짓말, 기만, 현혹, 오만, 조롱, 해악, 무지, 방황,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행위, 경멸(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25)

21-1)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여! 야 아이유하 : 꾸란에는 여러 차례의 호격이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강조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종들에게 언급된 호격의 표현으로써 촉구하는 모든 것을 인간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알바이돠위 16/1).

2)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 만이 유일신으로 섬기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라.

3)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수여자로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써 홀로 존재 하심을 제시하고 있다.

22-1) 요람과 거주지

2) 아담의 후예를 위한 모든 종류의 양식

3) 즉 우상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고 인류에게 양식도 주지못함을 너희 위선자 및 불신자들은 알고 있지 않는가?

23-1)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

2) 앞절에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써의 유일성과 모든 것을 주재하는 주관자로써의 말씀이 있었고, 여기서는 무함마드가 예언자 및 선지자로써 창조주의 선택받음과, 꾸란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말씀을 가져올 수 없는 기적으로써 예증되고 있다.

24-1) 선지자에게 계시된 꾸란과 같은 한 문장이라도 이르게 할 수 없거나

2)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3) 불신자들과 우상들

25-1) 믿음으로 현세에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생활한 자.

2) 천국에 있는 일용할 양식, 천국에 사는 이들에게 천사들이 일용할 양식을 가져다 그들 앞에 놓으면 이들이 말하길, "이것은 전에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졌던 것이옵니다"라고 말하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여! 즐겨 먹어라. 색깔은 하나이되 맛은 서로 다르니라"라고 말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29).

3) 천국에 있는 아내는 '히와르 아인'으로써 피부색이 새하얗고 눈이 크며 아름답기가 그지 없는 순결한 여성.

4)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지옥을 언급하신 후 이번에는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계시하고 있다.

무함마드여! 현세에서 믿음이 진실하고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그곳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과, 온갖 과일이 풍부한 과수원이 있으며, 또한 그곳에는 풍성하고 맑은 물이 흐르도다. 또한 때묻지 아니한 순결한 부인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26-1)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이든 가장 큰 것이든 또는 가장 하찮은 것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든 간에 그분이 원하실 때는 어느 것으로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길 서슴치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파리 및 거미 같은 것을 언급하였을 때 불신자들 및 유대인들은, "이것을 언급하여 무엇을 하려 하느뇨?"라고 조롱하자 본절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30).

2) 이단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27-1) 이단자들이란 하늘에서 계시된 성서들의 율법과 무함마드의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간의 계보를 단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듯이, 형제들과 친척들 간의 우의를 명령했으나 이를 거역하며, 현세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사람들로써 이들은 스스로를 파멸로 유혹하는 자들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31).

28-1)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2) 세상에 태어나는 것

3) 임종

4) 무덤으로부터 나와 부활하는 것

30-1)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염원하며 그것을 그대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창조주께서 아담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도록 지상의 대리자(Khalifa)로 두었음을 상기시키라.

31-1) 만일 너희 천사들이 대리자가 될 자격이 있다면

2) 이 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천사 위에 둠으로써 아담의 후예인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제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34).

33-1) 천사들

34-1) 꾸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로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전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엎드려 절을 하는 것(Suj d)은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게 한 것은 야곱과 그의 자손이 요셉에게 그랬듯이 인사와 존경의 표시였다.

3) 이블리스의 속성에 관하여 천사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블리스는 천사가 아님이 증명된다(하싼 알바스리). 그 증거로써는 :

1-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아니하는데 이블리스는 거역을 했으며,

2-천사들은 빛으로부터 창조 되었는데 이블리스는 불에서 창조되었고

3-천사들은 자손이 없는데 이블리스는 자손이 있었으며

4-특히 카흐프 장에서 이블리스가 '영마'에서 왔음을 계시하고 있다.

35-1) 이브(하와)아담과 이브가 거주한 에덴 동산을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아라파트 동산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의 견해로 보아서는 지상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 36절에서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으로 보아서는 지상 아닌 다른 곳에 에덴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2) 금단의 나무도 에덴동산과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었던 나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있었는가? 그 나무는 포도 나무인가? 무화과 나무였는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뿐이다.

36-1) 사탄의 유혹으로 에덴 동산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쫓겨내려가는 이블리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적임을 경고하고 있다.

38-1) 아담과 그의 후손이 거주할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상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인 성서들이 계시되리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40-1) 이스라엘은 외래어로써 하나님의 종복(압달라)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예언자 야곱의 자손들을 일컫는다.

2)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약속

3) 훌륭한 보상의 약속

4) 40절부터 142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과 꾸란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꾸란에서는 유대인들의 진상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사악함과 음모와 파괴 등 그들의 잔악함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의 유일성으로 경배할 것을 인간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의 선조인 아담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케 하고 특히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진실한 신앙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성서인 구약

(Taura)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최후로 선택한 최후의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41-1)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과 그 전에 계시된 구약이 창조주에 대한 유일성 및 예언자의 출현을 예시한 것을 믿어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항상 하나님을 염원하라고 훈시하고 있다.

42-1)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와 구약의 최초 말씀을 조작하지 말며, 구약에 언급된 무함마드에 관하여 숨기지 말라.

43-1) 유대인 및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방황했을 때 고개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계시됨

44-1)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무함마드를 믿으라 말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이를 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힐책과 견책으로써 계시되고 있다.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도 유대인들의 종교지도자들이 이슬람에 귀의한 그들 친척들로 하여금 무함마드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니 이를 따르라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실천하지 아니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41).

45-1) 인내(Sabr)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예배를 지칭한다.

ㅇ 성급히 서둘지 아니하고 침착하며

ㅇ 어떤 목적을 향한 꾸준한 자세

ㅇ 감정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이성에 의한 행위

ㅇ 희·노·애·락을 조절하는 마음의 정적자세 등으로, 꾸란에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다.

46-1) 믿음이 확실한 자는 부활의 날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들의 업적을 심판받게 된다.

47-1) 창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함은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종(압달라)들로써,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 선조들에게 예언자들과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서들을 다른 백성에 앞서 보내주었다는 의미다.

48-1) 심판의 날 불신자들에게 있을 무서운 응벌의 날(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41)

49-1) 애굽인의 속박은 무서운 시련이었다. 남성들은 모조리 학살당하고 부녀자들은 그대로 두어 자기들의 종복으로 이용하였으며(출애굽기. i. 14), 애굽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고난으로 속박하였으니 몰타르와 벽돌속에다 넣어 구속하였고, 들판에서는 온갖 노동을 시켰으며, 파오라의 십장은 지푸라기 하나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는 등 학대와 학살을 일삼았으며,(출애굽기. V. 5-19), 태어나는 모든 남아는 강에 버리고 여아는 그대로 두라는 파라오의 칙령이 내려졌다(출애굽기. i. 22). 이 시기에 태어난 모세는 3개월 동안 숨겨졌으나 그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모세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으로 던졌다. 이리하여 모세는 파라오의 딸과 아내에게 발견되어(출애굽기. xxviii. 9) 파라오 가족이 된다. 그리하여 모세는 적에 의해 양육된 후 하나님이 선택하사 그의 백성을 구하게 하고 애굽인의 잔인함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도록하여 그의 백성을 인도하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남아들을 살해하도록 파라오의 칙령이 내려진 동기는, 어느날 파라오가 그의 꿈속에서 불을 보았는데 이 불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애굽을 휩싸고 모든 애굽의 콥뜨교도들을 불태웠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에 놀란 파라오는 점장이들을 불러 그의 꿈을 해석하라 명하였다. 이때 점장이들이 해석 하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아가 탄생하여 당신을 멸망케 하고 당신의 권자를 무너뜨릴 것입니다"라고 하자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가운데 태어나는 어떤 남아도 남기지 말고 살해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50-1) 파라오의 학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여 홍해에 이르매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뒤따라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홍해를 빠져나갔고 뒤를 추격하던 파라오의 군인들은 익사를 한다(출애굽기. xiv 5-31).

51-1) 이것은 십계명과 율법과 계율이 시나이 산상에서 있은 후의 일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시나이 산상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있게되자(출애굽기 xxlv. 18) 그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고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곳에 제사를 지내며 숭배를 하였다. 이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파라오 학대로부터 구출한 후 40일 동안 시나이 산상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게한 후 구약을 계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52-1) 모세가 그의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였다(출애굽기. xxxii. 14).

53-1) '알키탑'이란 '그 책'이라는 언어적 해석으로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을 말하며, '푸르깐'이란 '구별하는 것, 즉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기준'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나, 어떤 학자는 기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어떤 학자는 '알키탑'이나 '푸르깐'이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때는 '알키탑'은 구약으로써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 같다.

54-1) 아랍어의 원어 발음은 '까틀'이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의 대가로 '너희 자신들을 살해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나 학자들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죄지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살해야 한다. 2) 서로가 서로를 살해해야 한다. 3) 송아지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이 송아지를 섬긴자들을 살해해야 한다는 등 다소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의 '까틀'은 은유법으로 '회개 또는 속죄'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원뜻에 가깝다.

55-1)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죄를 지은 후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 그로 하여금 그들 백성의 죄를 사과하도록 하였다. 모세로 하여금 70명의 남성들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하고 마음을 청결케 할 것이며 의복을 깨끗이 하라하니 그렇게 하였다. 그런 후 모세는 그들과 함께 시나이 산상으로 가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길 "모세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하여 주시오." 하니 모세가 "그렇게 하리라" 대답하였다. 모세가 산상에 이르렀을 때 구름이 다가와 그 산상 전체를 덮어 버렸다. 그때 그 백성들이 다가와구름속에 들어가 부복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얼마후 구름이 모세에게서 사라지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말하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계시가 내려지게 되었다. 출애굽기. xxxiii. 2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사,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나니, 이는 어느 인간도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니라"이로써 하나님의 관용은 무한정하시어 믿음을 부정한 자들까지도 관용을 베푸시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다는 불신은 용서되지 아니한다.

57-1)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열을 가리워 안식처처럼 만들어주고 "만나"는 헤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데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처럼 둥글며 아주 작은 것(출애굽기 xvi : 14)으로, 아랍어 해설에서는 꿀과 같은 것이 떨어져 그것을 물과 혼합하여 마시는 액체, 또는 달콤한 음료수 등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하늘로부터 나무위나 돌위에 떨어져 꿀 형태로 있다가 마르면 진과 같은 껌의 형태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쌀와"는 조류떼로 일년중 어느 계절에 동부지중해에 바람을 따라 날아드는 맛이 좋은 조류로 보고 있으며 1914-1918년 대전쟁때 참가했던 인도 장교들이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사이에서 목격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후스나인 무함마드 마클루프는 쌀와를 메추라기로 해석하고 있다(꾸란 어휘해설, p.11).

59-1) "이 마을"은 요르단 동쪽에 있는 고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탕과 우상숭배의 죄를 짓자(민수기 xxv. 1-2, 8-9) 흑사병으로 24,000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형벌이 내려졌다. "이 마을"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60-1)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의 부족 형태로 40년동안 아라비아 사막을 행진하다가 (민수기 i. ii)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였다.(여호아수기 xiii. xiv). 그 후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열두부족이 유래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신의 종복)이라고 불리워졌다.(창세기 xxxii. 28) 이스라엘(야곱)은 레위와 요셉을 포함하여 열두 아들(창세기 xxxv. 22-26)을 두었는데 이 열두 자손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 레위는 유태 신전에서 사제를 돌보았기 때문에 군복무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로 말

미암아 인구조사(민수가 I. 47-53)가 시행되어 가나안 땅이 구획정리(여호아수기 xiv. 3)가 되면서 그들은 여러 부족으로 분산이 되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요셉은 애굽에서 자라 파라오 통치하에 제상의 높은 직책으로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딴 이프라임(Ephraim)과 미나세(Manasseh) 두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전부 열두 부족이 된 것이다.

61-1) 맛나와 쌀와

2)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여러 가지 재앙을 겪었으며, 앗슈리아까지 노예로 끌려갔는가 하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랍의 통치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구상에 뿔뿔히 헤어져 방황을 하였다. 이러한 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도 있었지만 예언자들을 학살한 죄의 대가이기도 하였다. 아벨을 학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예언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다. 야곱의 장남이 요셉을 살해하려 어린 동생을 우물에 밀어 넣었으며 또 예수를 살해하려 음모하였고 무함마드를 살해하려 하였다.

62-1) '사비안'은 유대교나 기독교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천사들을 믿는 신도들을 일컫는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 약 2,000여명의 사비인 신도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63-1)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구약에 있는대로 너회와 약속을 하였고 시나이 산을 너회 안식처가 되게하였으니 너회는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시나이 산(뚜-르 씨-니)은 홍해에 위치하고 아라비아반도 사막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급한 산이다. 여기서 십계명과 율법이 모세에게 계시되었다. 그 이래로 지금까지 모세의 산(자발무사)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65-1) 모세의 율법하에서 '사바트'를 위반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다. 어느 누구든 '사바트'를 모독하는 자는 분명 사형에 처하게 되며 그날 일을 한자는 그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었다(출애굽기. xxxi. 14).

67-1)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라오의 모진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내하였기 때문에 다른 백성에 앞서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69-1) 흰 색인지 검은 색인지 아니면 그밖의 다른 색깔인지 물어보았다.

73-1)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거부가 있었는데 이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재산은 그의 조카가 상속자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조카는 거부인 삼촌을 살해한 후 밤중몰래 그 시체를 어떤 사람의 집 대문에 갖다 놓았다. 이로 인하여 그 주변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밀고하매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 고을의 군수가 "왜들 서로가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들은 예언자인 모세에게로 갔다.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암소 한 마리를 잡으라 너회에게 명령했노라)"라고 그들에게 이르니,이때 이들은 왜 암소를 잡아야 할 이유에 대해 서로가 논쟁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암소 한 마리를 잡도록 하였으니…그리하여 그들은 암소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남자를 발견하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송아지의 벗긴 가죽에다 금을 가득채워 그 송아지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니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 송아지를 도살하여 그 송아지 시체 일부분으로 살해된자의 시체를 때렸더니 그 시체가 살아 일어나도다. 이때 그들이, "누가 당신을 살해하였습니까?" 물으니 그의 조카를 가르키고는 다시 송장이 되어버렸다. 그 후로 살인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아니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52-53).

75-1) 유대인들

2) 이절은 메디나 토박이(Ansari) 신앙인들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같이 살아온 이웃 유대인들이 이슬람에 귀의하기를 기대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알바호르 알무히뜨 271/1). 본절에서 말씀을 왜곡하였다 함은 유대인이 모세를 통해 계시 된 구약 말씀을 왜곡했음을 뜻한다.

76-1) 구약에 묘사된 무함마드에 관한 소식을 무함마드 동료들에게 전해주려 하느뇨 오히려 그것은 내세에 가서 무슬림 신앙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

2) 이절은 산재해 있었던 유대인들의 위선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만일 메디나의 무슬림들이 그들 유대인 성서에 예언된 무함마드를 선택된 예언자로 그곳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를 희망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이었다. 신명기. xviii. 18 절을 보면 "내가 그대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대(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를 보내리라" 이 절은 그들 박사들에 의해서 무함마드로 풀이되었다. 형제들이라 함은 셈족으로써 아랍백성도 셈족으로 무함마드가 올때까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출현하지 아니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모세이후 수세기 동안 기록된 신명기 후기에서는, "그 이래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오지 아니했나니"로 묘사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무함마드를 시기 및 질투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슬림 공동사회가 강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들도 무슬림들인척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성서 원래의 말씀을 감추어 버렸다.

78-1) 글을 알지 못하여 구약의 내용을 읽지 못하고 단지 추측에 의해서만 구약의 진실을 이해 하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것이라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 씨르. 제1권. p.57).

79-1)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의 진리를 변경한 그들위에

2)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점 하나라도 변경되거나 보완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여 져서는 아니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부 알싸우드는 유대인들이 구약성서에 비친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묘사를 변경하였다고 말하고 있다.(타르씨르 아비 알싸우드 94/1)

80-1)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자기들의 죄는 용서받고, 불지옥의 벌은 다른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며, 불의 재앙을 받더라도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기간이 칠일동안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58).

83-1) 유대인들이여! 우리(하나님)가 너희 선조들과 성약한 것을 상기하라!

2) 야타마 : 아버지가 별세한 어린아이

3) 마싸킨: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

84-1) 서로가 서로를 살해하지 말라.

85-1) 구약(타우라)의 일부 규범만 믿고 일부 규범은 불신하는 사람

87-1) 구약성서

2) 가브리엘 천사, 신약성서인 인질 또는 살세포와 뼈등 형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영혼일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3) 유대인

4) 모세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5) 요한이나 자카리야를 살해하였듯이

88-1) "쿠푸르"는 여러가지 뉴앙스를 갖고 있다. 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②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것, ③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는 것.

89-1) 그 성서는 마지막 선지자에게 계시된 꾸란을 말하며,

2) 마지막 선지자는 구약에 기록되어 확증되고 있다.

3)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

4)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를 불신한 죄악으로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내렸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

90-1) 유대인들

2) 하나님께서 계시한 꾸란을 불신하는 자

3) 유대인들의 인종적 오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복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를 불신하였다. 유대인들만이 신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보는 오만! 어떻게 한

민족 또는 한 백성만이 신의 선택을 받도록 되어있단 말인가?

91-1) 하나님께서 계시한 꾸란을 믿고 따르라 하니,

2) "우리에게 계시된 구약으로 충족하도다"라고 그들은 대답하였도다.

3) 꾸란의 계시가 무함마드를 통하여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그들 성서인 구약에 기록되었음을 그들이 확증하면서도.

92-1)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나이 산상으로 가고 없는 동안.

93-1) 시나이 산상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계시된 후 백성들은 엄숙히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모세가산상으로 간후 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화가났다. "그는 그들이 만든 암송아지를 가져가 그것을 불에 태운후 가루로 만들어 물위에 뿌린다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도록 했으니"(출애굽기. xxxiii. 20), 이 사건이 꾸란에서 비유하여 묘사되고 있다. 암송아지는 불신과 오만의 상징이고 물에 뿌려진 그 암송아지의 가루는 독약과 같은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들이 불신한 죄의 대가로 물에 뿌려진 가루를 마셔야만 했다.

96-1) 유대인

2)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에게 말하길, "주님으로부터 천사들가운데 한 천사가 메시지와 계시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예언자가 아닌데 당신의 천사는 누구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오"라고 하니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가브리엘" 천사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말하길 "가브리엘은 전쟁과 살인을 일삼은 자로써 우리의 적이도다! 만일 당신이 비를 내리게 하고 자비를 가져온 "미카엘"천사가 당신께 왔다고 했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랐을 것이오"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36/2).

97-1) 무함마드 시절 일부 유대인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무함마드에게 나타났을때, 무슬림들의 믿음을 조롱하였다. "미카엘 천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변하는 가장 훌륭한 왕자(다니엘. xii. 1)로 불리웠고, 가브리엘 천사의 출현은 두려움을 자아냈으니"(다니엘. viii. 16-17) 이러한구실로 미카엘 천사는 그들의 친구였고 가브리엘 천사는 자기들의 적이라는 구실은 단순히 천사들과 예언자들을 불신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한 것과 다를바 없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한 천사를 믿고 다른 천사를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다.

101-1) 선지자 무함마드

2) 이 성서는 꾸란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으나 본 절에서는 구약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구약을 불신하였다 함은 최후의 선지자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된 그 말씀을 불신하였다는 뜻으로 본다.

102-1) 마술의 방법과 관습의 행위2) 바벨 왕국 쿠파의 땅에 거주 했던 하루트 왕과 마루트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 했던것(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69).

3) 이 계시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솔로몬을 언급했을 때 유대인의 교구장들은 "다윗의 아들이 예언자였다고 주장하는 무함마드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는(솔로몬) 마술장이가 아니었는가?"라고 하자. (솔로몬이 마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탄들이 마술을 가르쳤느니라)라고 계시가 내려졌다.이 당시는 여러 가지의 마술이 번성하였던 시기로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을 요술장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천사 하룬과 마룬을 보내어 백성에게 마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요술과 기적을 구별하도록 하였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41/2).

104-1) "라～이나"를 "애매 모호한"말로 표현하였다. "라～이나"는 "리아～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류의 복지를 보살핀다"는 뜻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뜻을 조소하기 위하여 철자를 생략하여 "루우-나"에서 파생되고 있는 "라～이나"로 바꾸어 "어리석음"이란 뜻으로 만들어 버렸다.

106-1)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이나 예수나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모든 말씀은 그 당시의 필요성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말씀의 표현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의 율법은 다를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이라도 폐기, 보완되거나 삭제되거나 변조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수차례 경고되고 있다. 한편 꾸란 2장 115절의 말씀이 2장 144절(끼블라 : 기도의 방향)의 말씀으로 폐기된 것처럼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한 장소에만 계신다고 믿지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다 나은 또는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절이 계시된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말하길, "무함마드의 명령이 마음에 드는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명령도 했다가 금지도 하고 또 그들에게 서로 다르게 명령하니, 오늘은 이 말을 하고 내일은 그 말을 취소하니 이것은 꾸란이 아니고 무함마드 자신의 얘기가 아닌가"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파와트 타파-씨르. 제1권. p.71).

109-1) 유대인과 기독교인

110-1) 육체적 신앙의 상징인 예배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여질 재물을 바쳐 실천하는 신앙,

112-1)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따르며

113-1) 유대인들은 예수를 불신하고 기독교는 원래의 종료가 변질된 종교라 말하고(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74-75)

2)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유대교가 본래의 것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있다.

3) 유대인은 예수를 불신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이교도라 말하고, 기독교들은 모세를 불신하면서그들의 종교를 불신하였다. "이브누 압바쓰"는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나즈란 백성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선지자를 찾아왔을때 유대교의 교구장들은 선지자앞에서 논쟁을 하였다. 이때 "라피으 이븐 하르말라"가 말하길, "너희들은 이교도들이다."라고 하면서예수와 신약을 불신하매, 기독교인들 중의 한 남자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길, "너희들이야 말로 이교도들이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구약을 불신했을때 하나님께서 이 절을 계시하였다(무크타싸르이브누 까씨르 108/1).

4) 그 성서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했듯이 마찬가지로 아랍인 가운데 불신자들은 무함마드를 불신하였다.

114-1) 사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멸망하니 그것은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메카 꾸라이쉬족이 카으바 신전에서 무슬림들의 신앙을 막아 그들이 멸망한 것과 다를바 없다.

115-1) 이 말씀은 "끼블라"(예배의 방향)를 잃어버린 자에게 계시된 것으로,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아니계신곳이 없기 때문에 여행중이거나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예배의 방향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자기가 서있는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16-1) 유대인과 기독교인

2)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면서, 유대인은 "아지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불신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서로 주장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정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76).

119-1)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을 위한 복음으로써, 불신자들을 위한 경고로써 이 진리를 보내며, 그대가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들이 믿음을 갖든 또는 불신하든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

121-1) 성서의 백성(구약을 믿는 유대인과 신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식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읽어 올바른 신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스라엘(야곱)이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며, 아브

라함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한 교인이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상징의 장소로 "카으바"신전을 세워 전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122-1) 모세 시대에 있어 하나님을 경배한 이들에게 베푼 은혜

124-1)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앞으로 나오는 우리말의 상기하라는 말은 무함마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라는 뜻이며 "그대"는 모두가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리킨다.

125-1) "카으바" 신전의 건축은 아브라함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신전은 다음 몇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① 그곳은 아랍부족들의 상업 중심지, 시 낭송, 강연장 및 경배하는 중심지였고,

② 그곳은 성역이었으므로 어떤 일정한 시기에는 그 성역 안에서 싸움이나 무기 반입이 금지되었고 살생도 금지되었다. 그것은 모세 율법시대에 살인자들이 은신할 수 있었던 은신처와도 같았고(민수기. xxxv. 6), 또는 중세 유럽에서 범인들을 추적할 수 없었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③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보이는 아브라함 신전이 남아있다.

126-1) "이곳은" 멕카를 말하며,

2) "풍성한 과실들"이란, 멕카는 돌산의 계곡에 자리잡은 불모지였으므로 현세의 물질적번영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불신자들을 불지옥으로 보낸다"는 계시로 미루어 보아서 "내세의 번영과 행복"을 의미 할 수 있다. 이슬람은 현세의 행복과 내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당분간 만족케 한다"함은 현세란 내세를 향하여 잠깐 지나가는 곳이므로 현세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적 양식을 주나 영원히 사는 내세에서는 불신자들에게 지옥의 벌이 온다는 뜻

129-1) "지혜"는 무함마드의 전통, 신앙에 관한 지식, 이슬람법과 규범을 가르킨다.

131-1)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라

132-1) 야곱도 그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라고 하였다.

2)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너희 종교로 선택했다는 이야기

135-1) 유대인과 기독교인, 즉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각자의 주장

2) "하니프" : 정교의, 믿음이 온전한, 진실한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통일성을 잃었고 기독교는 삼위일체설로써 유일신 사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유일신 사상을 따른다.

136-1) 무슬림들이여

2) 이 절은 바로 이슬람의 기본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유일신 사상과

②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말씀, 즉 꾸란을 믿고

③ 모든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말씀, 즉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수후프"와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

④ 모든 예언자들을 믿고 따른다.

138-1) "시브가"는 세례 또는 영세라는 뜻으로 언어적 해석은 염색 또는 색깔을 의미한다. 아랍 기독교인들은 물에다 색깔을 넣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색깔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슬람에서의 영세 또는 세례라 함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세를 의미하며 "시브가"(색깔)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시브가"가 "이슬람"으로 풀이 될 수도 있다.기독교인들이 자손들

을 물로써 세례를 하자 하나님께서 "시브가타 알라" 즉 이슬람으로 세례하라는 은유로 계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를 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되는데 반하여 이슬람에 귀의하고자 할 때 "목욕"하는 것으로 "시브가"를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

139-1)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며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너희가 책임질 것으로 어느 누구도 타인의 행위를 대신 할 수 없다는 뜻

142-1) "알바라"에 의해 전하여 오길, 선지자께서 메디나에 오셨을 때 약 16개월에서 17개월 가량은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를 하였다. 그 후 선지자께서 메카에 있는 카으바 신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의 계시를 내렸다우리는 그대의 얼굴이 하늘로 향한 것을 보고 있도다(2장 144절). 그러자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배하던 기도의 방향을 무엇이 변경하는가?"라고 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87).

143-1) "중용의 공동체"라함은 이슬람의 본질가운데 하나로 중용은 편견과 아집을 배제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집 카으바 신전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신전이므로 지역적으로도 동, 서, 남, 북의 한 중심지에 있게되어 "중앙"이란 지역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2) 예배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카으바"로 변경되자 사람들이 묻기를, "이미 고인이 된 선조들은 예배의 방향이 변경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했는데 그 선조들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자 "실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3) 예배의 방향이 메카 카으바 신전으로 옮겨지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근행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라 "라는 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88).

144-1) 무함마드 그대가 원하는 방향을 그대의 선조 아브라함의 기도방향 "카으바"신전으로 향하게 하리라.

2) 예배의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 카으바 신전으로 전환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의심을 하였다.

145-1) 유대인과 기독교인

2) 기독교인은 유대인의 기도방향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유대인은 기독교인의 기도방향을 따르지 아니하며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는 등 다른 점들이 많았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89).

146-1) 구약과 신약에 "아흐마드"이란 이름으로 최후의 선지자가 온다는 사실

147-1) 하나님이 계시한 기도의 방향과 그 종교가 진리이니 이슬람 공동체는 이를 의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

148-1) "후와"(그것)는 "목적"으로 풀이하는 학자와, "끼블라"(예배의 방향)로 해석하면서 움마(이슬람의 공동체)가 지향할 방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49-1) 여행자에 대한 예배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여행자도 거주민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방향은 하람 사원으로 메카에 있는 카으바 신전을 가리킨다.

150-1) 예배를 드릴 때는 카으바 신전을 향해야 한다는 것은 3번째 언급하고 있다.

151-1) 꾸란

152-1) 경배하고 순종함으로써 나 하나님을 염원하라. 그리하면 "나"는 보상과 관용으로 너희들을 기억하리라. 모세가, "주여! 제가 당신께 어떻게 감사 드려야 합니까?"라고 질문 했을때, "나만을 염원하되 잊지 아니하며, 나만을 염원 했다면 내게 감사한 것이 될 것이요 나를 망각 했다면 나를 불신한 것이 되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였다(이브누 까씨르 알무크타싸르 142/1).

153-1) 인내는 모든 은혜를 얻으며 예배는 모든 악을 제거하여 준다.

158-1) "사파"와 "마르와"는 조그마한 동산으로써 지금은 메카에 있는 신성한 사원(마쓰지둘하람) 안에 있다. 성지순례(하지 및 우무라)로 이곳을 찾는 신도들은 "싸이"(사파와 마르와 두 구릉 사이를 7차례 걷다가 뛰다가 하는 것)를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인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이 사막의 열사와 갈증으로 사경에 이르자 이 두 동산 사이를 뛰면서 하나님께 물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하사 "잠잠"우물을 주었는데 이 두 동산 가까이에 있다.

이절은 그 당시 아랍 이교도들이 남, 여 우상을 이곳에 갖다두고서 초기 무슬림들을 욕되게 하자"사파와 마르와 동산은 하나님의 상징이나니"라는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59-1)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올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성서(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둘째 천사들의 저주를 받으며
셋째 진실한 신앙인들의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예시이다.

160-1) 본절의 "나"는 하나님을 가리킴

164-1) 창조주는 그분의 형상을 직접 보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지혜로써 창조주의 유일성과 창조주의 존재하심과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창조주가 한 분이 아니고 둘 이상이라면 서로의 경쟁으로 인하여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파괴 되었을 것이며, 책상이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들 목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듯이, 이 우주와 만물이 있는 것은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밤과 낮의 구별이 있고, 계절이 있으며,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창조주의 섭리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섭리에 순종함을 알 수 있다.

169-1)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금지하고, 금지한 것은 권고하며 인간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행위.

170-1) 무지와 암흑과 방황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인 꾸란

173-1) 죽은 고기라 함은 육식동물로써 식용으로 도살된 고기가 아니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 물론 바다의 물고기 또는 바다 동물의 고기는 허용되는 것으로 대다수 학자들은 풀이하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육식동물과 유사한 바다 동물의 죽은 고기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 제단에 올리기 위해 도살된 고기,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하지 않고 우상의 이름으로 도살된고기도 금지되고 있다. 식용으로 고기를 도살할 때는 "비쓰밀라"(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라후 아끄바르(하나님이 가장위 대하시다)라는 꾸란 귀절을 암송하고서 도살하게 되어있다. 자세한 도살법은 하디쓰 40선(최영길 번역 및 해석 p.74참조)

3) 기아의 상태에서 생명이 위험할 때, 목숨을 구할 때, 또는 알지못하고 무의식 중에 먹었을 때는 허용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74-1) 구약에 예언된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온다는 기록을 숨겼던 유대인들의 교구장들에게 계시된 말씀이다(알파크르 알라-지 28/5).

176-1) 유황불속에서 벌을 받게 된 것은

177-1) 진실한 신앙이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사람으로써 ① 신앙에 진실하고 성실하며, ② 진실과 성실은 자선을 실천 함으로써 행위의 모범이 되며, ③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강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자세로써, ④ 사회조직에 협조하는 선량한 시민이 될 때 진실한 신앙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2) 지금까지는 종교의 원리와 이스라엘 자손의 창조주에 대한 불신에 관한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러나 본 절부터는 바까라 장의 대다수가 이슬람법에 관한 계시다.

178-1) 이슬람이전 사회에서는 무서운 보복행위가 잦았으나 이슬람이 도래함으로써 경

감 및 완화되었다. 보다 나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는 우선 자비와 관용의 촉구를 우선으로 하면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살해 하였을 경우 그와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동등한 권리로 부유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회의 유명한 사람이 살해 당했다 하여 그의 생명이 빈자, 또는 하류계급 사람들의 2-3명의 생명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것 만큼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를 준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그 이상의 요구, 그 이상의 처벌은 지위고하를,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의 번역된 꾸란에서는 "끼싸-쓰"를 보복(Retaliation)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앞서 풀이된 것으로 보아서는 "동등한 처벌"로 풀이해야함이 원래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 즉 유대인들은 동등한 처벌법(끼싸-쓰)만 있었고 보상제도(디야)가 없었으며, 기독교에서는 그 반대로 동등한 처벌(끼싸-쓰)은 없었고, 보상제도(디야)만 있었으나 이슬람에서는 동등한 처벌(끼싸-쓰), 보상제도(디야), 관용(아프우)의 세가지가 적용되고 있다.

180-1) 공정하게 양도하되 1/3를 넘지 아니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본절이 계시될 때까지의 유산 분배법이었으나 후에 재산분배법에 관한 다른 말씀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05).

183-1) 라마단 달의 단식의 언어적 의미는, 무엇을 정지 또는 중단 하는 것으로 아부 우베이다는 음식이나 대화 또는 활용하는 것을 중지하는 모든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슬람에서의 단식은 단식을 하는 의도와 더불어 낮에 음식과 음료수와 부부생활을 중단하는 것을 가르킨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06-107).

184-1) 하나님께서는 라마단 달에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도 단식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유대인은 한달 동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년중 하루, 즉 그들이 말하는 파라오가 익사한 그날 하루만 단식 하였으며, 기독교인들은 라마단 달 단식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열사의 무더위가 그들을 엄습하자 기후 변화가 없는 다른 기간으로 바꾸었다. 그대신 10일을 더 추가했다.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의 왕이 병을 앓게되자 7일동안 더 단식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후 다른 왕이 군림하여 말하길, 3일을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말하자 3일을 추가하여 50일이 되었다.(하싼에 의해서 전하여 지고 있음 : 알타프씨르 알카비르 76/5)

2) 어려움을 무릅쓰고 단식을 실천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나이가 많은 노인들, 또는 특수 환경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단식을 했을때 보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샤피 법학자는 임신중이거나 어린이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샤피를 제외한 다른 학자들은 임신중이거나 젖을 먹이는 유모가 단식을 할 수 있더라도 단식을 연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185-1) 라마단 달의 일수대로 단식해야 한다는 뜻.

186-1) 한 무리의 아랍인들이 선지자께 묻기를, 무함마드여! 우리들의 주님은 가까이에 계시는가? 아니면 멀리 계시는가? 가까이 계시면 그분께 속삭여 보고 멀리 계시면 불러보자 라고 하자 "나는 그대들 가까이 있어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도다"라는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07).

187-1) 의복이 인간의 몸을 감싸주고 덮어주며 보호하여 주듯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 생활도 상부상조함을 내포하고 있다.

2) 이슬람초기 라마단 달에는 밤이나 낮이나 라마단 기간이 끝날때까지 부부생활이 금지되었다. 이로인해 남성들은 여성들을 기만하거나 배신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라는 계시가 내린 것으로 "부카리"가 전하고 있다.

3) 샤리프 리다에 따르면 하얀실이라 함은 아침 동녘을, 검은실이라 함은 어두운 저녁을 은유법으로 묘사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시간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부부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이 허락되나 낮동안(아침 동녘부터 저녁해가 서산에 질 때까지)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부부생활을 금지하고 있다.

188-1) 인간의 기본적 욕망은 먹는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성생활외에도 부와 재산에 대한 욕망이 있다. 그래서 단식의 궁극적 목적은 언급한 3가지를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와 재산에 대한 욕망을 자제함으로써 단식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된다고 본다. 본절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재산을 무익하게 삼키지 말것이며-"의 의도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매수하여 자기 재산을 더욱 증식하려는 것과 돈으로써 타인들을 타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남의 재산과 단체 및 국가의 공익재산의 부정축재 금지

189-1) 선지자의 일부 추종자들이 선지자께 질문하길, 실처럼 가늘었다가 점점커져 온달이 되고 다시 줄어드는 저 초생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태양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타프씨르 알라지 132/5).

2) 단식과 성지순례 그리고 축제(이둘 피트르와 이둘아드하) 및 이슬람세의 지불시기 등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시간을 초생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 아랍인들은 옛풍습과 미신에 따라 성지순례 기간이나 순례직후에 사람들이 자기 집을 들어올때 뒷문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미신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정문으로 들어오도록 계시를 내림으로써 미신을 타파하였다.

190-1) 이슬람에서는 먼저 공격하는 것은 배제되어 있으나 적이 선제 공격을 했을 경우는 자체방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적의 여성, 어린이, 노인, 허약자 그리고 나무나 곡식등에는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였다.

191-1) 헤즈라 6년 "후데이비야"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 이 당시 이슬람이 번성하기 시작함으로서 영향력을 가진 무슬림 공동사회가 조성되자 많은 불신자 및 이교도들이 멕카로부터 추방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무슬림들을 학살하고 우무라 및 성지순례를 방해하는 등 무슬림들과의 휴전조약을 깨뜨리고 그곳의 무슬림에 대한 박해가 심하여지자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92-1) 불신을 버리고 회개하여 믿음을 갖게 될 때

193-1) 지상에서 불신자가 없어져 하나님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을 지배 할 때까지

2) 불신을 버리고 회개하여 믿음을 가질 때까지

194-1) "하람"이란 "금지된" 또는 "성스러운"이란 뜻이다. 성지순례 달(둘힛지)은 성스러운 달로 아랍관습에 의하여 모든 전쟁행위가 금지되었다. 역시 헤즈라역 11월(둘 까으다)과 1월(무하르람) 성스러운 달로 전쟁행위 및 살생 행위가 금지되었다. 헤즈라역 7월 "라잡"월에도 전쟁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이라 할지라도 적이 공격을 했거나 휴전 및 평화조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이 공격한 만큼은 공격을 할 수 있다.

196-1) 이슬람의 다섯가지 실천사항(이슬람의 5행 이라고도 함) 중의 5번째 사항으로 능력이 있는자는 일생에 한번 이상은 하나님의 집(바이투 알라)을 순례하게 되어있다. 소순례는 성지순례(하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일년중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소순례이지만, 성지순례(하지)는 성지순례 달(둘힛지) 첫 10일 동안에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우무라 및 성지순례"(최영길 번역) 참조바람.

2) 몸이 아프거나 적의 공격이 있거나 어떤 사정으로 우무라나 성지순례를 완전히 마칠 수 없을 경우에 소나 양을 잡아 회생제를 지내면 된다.

3) 3일간 단식을 하거나 60명의 불쌍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거나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된다.

197-1) 성지순례기간은 샤왈(헤즈라 10월), 둘까으다(11월), 둘힛자(12월) 첫 10일간이

다. 첫 순례예식은 샤월 초부터 시작되나 주요 의식은 다음과 같다.
① 순례복(이흐람)은 메카로 이르는 지정된 장소(마와 끼뜨)에서 입고
② 메카에 있는 하람사원으로가 카으바 신전을 7차례 돈후(따와프), 카으바 신전에 있는 검은 돌(하자르 알아쓰와드)에 입을 맞춘다.
③ 아브라함 신전에서 기도를 드리고(2장 125절), 사파와 마르와 동산 사이를 왕복 싸이하고(2장 158절),
④ 둘힛자 7일날 대설교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으며,
⑤ 8일째는 미나계곡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무르면서 밤을 세운다. 9일째 계속해서 아라파트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자발 라흐만 : 자비의 산)에 올라 아담과 하와의 재회를 기념한 후
⑥ 10일째는 "이둘아드하"로 미나 계곡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 희생제를 지내면서 사탄에 7개의 조약돌을 그 다음날까지 연이어 던진다. 물론 이런 의식들은 아브라함의 행적에 따른 것이다. 여기까지의 의식을 마침으로써 대순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나 2-3일간 더 체류하면 더 복이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우무와 성지순례(최영길 번역) 참조.

2) 하나님

198-1) 성지 순례기간 중에 장사 및 무역과 같은 거래를 하는 허용하는 것으로 순례비용이 부족하여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물건을 팔아 여행경비로 충당하는 행위.

2) 무즈달리파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으로 메카와 아라파트 사이에 놓여있다. 여기서 예언자가 석양예배와 저녁예배를 행하였으며 해가 뜰 때까지 밤을 새우며 명사의 기도를 드렸다. 메카로부터 약 6마일 가량 떨어져 있다.

200-1) 내세에서 있을 행복보다는 현세에서 많은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

201-1)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동시에 기원하는 자가 지혜있는 신앙인이라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16).

203-1) 희생제 지내는 날(야우무 안나흐르) 이후 3일(아이얌 앗타스리-끄)간 사탄에 조약돌을 던지는 그 기간

2) 미나에서 완전 이틀을 보낸 후 서둘러 떠나거나 3일째 조약돌을 던질때까지 남아 있는 것.

204-1) "알아크나쓰 이븐 샤리-끄"가 선지자에게 찾아와 이슬람을 믿는척 이슬람을 좋아한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찻으니 위선자(무나-피크) 임에는 틀림없었다. 얼마후 선지자로부터 나와 한 무슬림 형제의 농작물과 당나귀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그 농작물에 불을 지르고 그 당나귀들을 죽여버렸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내린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알파크르 알라지 215/5).

208-1) 이슬람에 귀의한 후 모든 이슬람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209-1)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210-1)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려 한다. "만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반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또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부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한다.

211-1) 모세에게 계시된 복음과 기적들

212-1) 비록 현세에서는 가난하지만 믿음이 진실하면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위에 있다는 말씀

213-1)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써,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215-1) (1) 무엇을 (2) 누구에게 (3) 어떻게 자선을 베풀것인가? 라고 선지자의 추종자들이 질문을 하자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23).

217-1) 선지자께서 "압둘라 이븐 자하쉬"를 분대로 하여 꾸라이쉬족의 대상을 관측하도록 하였다. 꾸라이쉬족의 대상은 "아므루 이븐 알하뜨라미"를 포함 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명을 살해하고 2명은 포로로 생포하였으며 그들의 상품은 노획물로 가져갔다. 이때의 날짜는 "라잡"달 첫째 날이었는데 그들은 이 날이 "주마다아~키라"달 마지막 날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꾸라이쉬족이 말하길 "무함마드는 살생이 금지된 성스러운 달에 살생을 하고 전리품은 합법화 했도다"라고 하자(그들은 성스러운 달 동안에 살생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지니…)라고 계시가 내렸다.

219-1) 메디나에 거주하던 "안사리"(메카에서 메디나로 도읍을 옮기어 이주하여 온 메카 주민들을 도와주었던 메디나 주민들)의 단체가 "우마르 이븐 알카탑"과 선지자에게 찾아와 말하길 술과 도박이 우리의 이성을 잃게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하였고 우리의 재산을 탕진케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계시가 내려졌다.

2) 판매에서 오는 금전적 소득으로 이슬람 율법에서는 음주가 금지되고 있다. "술은 모든 악의 모체"라고 하디스에서 묘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육체, 건강, 정신, 재산 등은 물론 공동사회의 윤리를 해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말리키, 샤피, 아호만 학파는 술 자체는 물론 원료 자체가 발효되어서 알콜의 효능을 발효할 때 술로 간주하며, 아부 하니파 학파는 그것을 마셔서 취할 경우 술로 간주하고 있다.

220-1) 고아를 돌본다는 핑계로 영리를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니 이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는 뜻.

221-1)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간의 결혼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경배하는 무슬림 형제들간의 결혼이 이상적이나 무슬림형제가 없을 경우는 기독교나 유대교 형제들과의 결혼은 허락하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 무신론자들과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226-1) 부부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맹세할 경우

227-1) 만일 이혼할 마음으로 그런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모를리가 없다는 뜻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부인이 4개월을 기다리며, 만일 이 기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가까이한다면 그것은 복이되며 남편의 의도적 맹세는 무효가 되고 그에게는 보상이 있으나 그 기간에 부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이별과 이혼을 의미한다.(아부 하니파) 한편 4개월 동안 남편이 부부생활을 회피할 경우 법관에게 이 문제를 상정하여 재결합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조정하도록 하면되나 만일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혼으로 간주된다(샤 피).

228-1)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저주받을 일은 이혼하는 것이라고 이슬람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이혼을 했을 경우 여성은 이혼한 날자로부터 3개월이 넘어야 재혼이 허락된다. 그 이유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이 되어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남성이 여성위에 있다"함은 신체의 구조상 여성보다 강하고 통솔력과 지도력이 감성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냉철하며 양식은 대부분 남성의 노동력으로 얻어진다는 점에서 남성이 여성위에 있다는 뜻이다.

229-1) 여성의 경제적 또는 어떤 이익을 위해 이혼을 거절하는 남편이 횡포와 폭행 및 비행으로 여성을 괴롭힘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권리와 그녀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할 경우 여성은 그녀가 받은 지참금이나 또는 일정한 금액의 물질을 남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이 그것을 주어야 하는 필요성과 공평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그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 종류의 이혼을 "쿨라으"이혼이라 한다.

이슬람이전 암흑시대에는 한 남성이 이혼 후에도 부인이 기다리는 법정기간 만료 전에 자기 마음대로 천번 이상이라도 부인과 이혼했다가 또 재혼할 수 있었

다. 어느날 이 남자는 자기 부인에게 와서 말하길, “나는 당신을 가정에 들어오게 할 수 없소. 그러나 당신을 버리지는 않겠소”라고 하자 부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하길, “당신과 이혼하기 전에 다시 당신께로 돌아가겠소”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부인은 이 사실을 선지자께서 상정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이혼은 두 번이거늘…)이라는 계시를 내리게 되었다.

231-1)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될 경우 또는 이혼을 한 여성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임신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기다린 다음에야 재혼 할 수 있는 기간

232-1)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에 “무으깔 이븐 야샤르”는 그의 여동생을 한 무슬림 청년에게 결혼 시켰다.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 그 청년은 부인과 별거하였다. 기다리는 법정기간이 지났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되어 그 남자는 재결합을 원했다. 이때 “무으깔”이 그 남자에게 말하길. “나쁜 사람아! 내가 자네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자네에게 여동생을 결혼시켰는데 자네는 별거를 했단 말인가! 내가 맹세하건대 절대로 자네에게 여동생을 돌려보내지 않겠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자는 그녀를 필요로 하고 그녀도 역시 남편을 필요로 함을 아시고 계셨으므로,(아내와 이혼을 하고 합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합당한 조건하에 그녀들이 전 남편과 재혼하고자 한다면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나니…)라고 계시를 내리자 이 말씀을 들은 “무으깔”은 “주여! 들었나이다. 그리고 순종하나이다”라고 말하고 그를 불러 재혼을 시켰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34).

233-1) 2년동안 자녀를 양육 할 어머니의 의무

234-1) 이혼을 한 여성은 3개월의 법정기간을 기다려야 하나(2장 228절), 남편이 사망하여 홀로된 과부는 4달 10일의 법정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과부가 이혼한 여성보다 10일을 더 많이 기다리는 이유는

첫째, 남편과의 사이에 임신의 여부를 알아야 하고

둘째,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오는 부인의 슬픔과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남편이 남긴 유언이나 재산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혼을 한 여성보다 시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236-1) “안사-리” 출신의 한 남자가 “하니파” 자손가운데 한 여성과 아직 지참금도 지불하지 않고 결혼한 후 그녀와 동침하기전 이혼 하였다. 이에(여성과 동침하기전 또는 여성에게 지참금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혼을 하여도 죄악이 아니거늘…)라고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타파씨르 알꾸르뚜비 202/3).

237-1) 동침 하기전의 이혼이므로 약속된 지참금(마호르)의 절반을 지불하는 것이 남성의 의무다.

2) 동침하기 전의 여성과 그 여성의 보호자

238-1) 아스르 예배

2) 사람이 가장 게을리 하기 쉬운 예배시간이 “아스르” 시간이며 또한 이 “아스르” 예배시간에는 천사들이 예배를 지켜보는 시간이므로 예배에 게을리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240-1) 임종하기 전에 유언을 하고

2) 초기 이슬람에서는 남편이 사망한 부인은 가정에서 1년을 기다렸으나 후에 4월 10일로 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40).

243-1)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하라 호소했을 때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8일 동안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가 다시 그들의 예언자 “자즈낄”을 보내어 그들을 소생케 한후 100년을 평화롭게 살았다고 전하여지고 있으며, “이브누 카씨르”는 흑사병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42).

244-1) 하나님의 적인 불신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라.

245-1) 하나님 사업을 위해 바치는 재산

246-1)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요르단을 건너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25년을 통치하였고, 그 뒤 320년 동안은 메디안족과 아밀리크족과 팔레스타인 부족에 의해 여러 차례의 고난과 수난을 당하였다.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공동사회의 혼란과 분열과 부패는 계속되어 그의 백성들은 아론의 혈통인 사무엘 예언자로 하여금 한 통치자를 임명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247-1) 그들의 예언자

248-1) "타-부뜨" : 하나님의 증언과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성물이 들어있는 순금무늬가 새겨진 5ft×3ft×3ft 크기의 아카시아 나무상자(출애굽기 xxv. 10-22),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성물의 재산으로써 초기 사뮤엘 통치기간중에 적에게 잃었다가 그것을 다시 찾아 어느 시골에 20년을 간직한 후 왕권이 확립되면서 다시 그것을 수도로 옮김으로써 단결과 전능의 한 예증이 되었다.

249-1) 사울이 8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샤리파 강을 건느면서 그들의 신앙과 지도자를 따르는 그들의 자세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었다. 사막의 열사로 갈증에 지친 군인들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 하였으나 76,000명이 그 명령을 어기고 물을 마심으로써 불신자가 되어 적이 되었으나 명령에 따라 물을 마시지 아니한 군인은 비록 4,000명에 불과했으나 승리는 믿음을 갖고 명령에 따른 소수에게로 돌아갔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44).

250-1) 다음 3가지를 하나님께 기원 하였다. 첫째는 인내하도록 하여주시고, 둘째는 전쟁에서 거점을 확보하는 것과, 셋째는 불신자들을 제압하여 승리하도록 하여 달라는 기도였다.

251-1) 다윗은 어떤 무기나 투구로 무장을 해본 적도 없었고 양을 치는데도 경험이 미숙한 한 청년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도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의 청년이었으므로 거인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고 조롱할 뿐이었다. 게다가 다윗의 큰 형까지도 양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윗을 꾸짖고 나무랄뿐… 그러나 다윗은 외형적으로 초라한 목동으로 밖엔 보이지 아니했으나 그의 깊은 신앙은 유대인의 강적이었던 팔레스타인 상대자로써 대적하는 지혜를 준 것이다. 사울 왕이 그의 투구와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을 때 그는 그 투구와 무기를 다루어 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것을 거절하고 강가에서 5개의 조약돌을 주어 목동의 기술인 돌팔매질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것으로 골리앗을 살해하였다.

253-1) 모세게에 어떤 중개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름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2) 선지자 무함마드는 최후의 선지자로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게 되었으며

3) 여러 가지 기적, 즉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환자를 치료하고 장님으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하였으며,

4) 성령이라 함은 가브리엘 천사를 가르킴

255-1) 하나님은 잠을자지 아니하며 눈한번 깜박할 필요조차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디스는 전하고 있다.

2) 예언자들을 통하여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며,

256-1) 한 안사리 가족 가운데 두 아들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때는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오기 이전이다. 이들 두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메디나로 왔는데 이때 두 아들의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이슬람에 귀의 할 때까지 너희를 그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자(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암흑으로부터 구별되노라…)라고 계시가 있었다.

신앙은 강요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강요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슬람의 원리다. 그 이유는 첫째 종교란 자기 신앙과 의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강제에 의한 유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둘째 진리와 죄악은 하나님에 의해 분명히 선별되며, 셋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영속하므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258-1) 가나안의 자손 니모르데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논쟁 하였다. 그 당시 국가가 번성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창조주의 존재와 모든 만물의 창조성을 부인하려 함으로써 수세기를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불신자들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259-1) 벽들이 넘어지고 지붕들이 무너져 황폐된 예루살렘의 한 촌락을 당나귀를 타고 지나던 아지-르의 질문으로 이 사건은 유대인 예언자였던 에스겔의 말라버린 뼈의 환상의 얘기거나(에스겔 xxxvii, 1-10), 기원전 5세기의 히브리의 지도자였던 느혜미아가 황폐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얘기거나(느혜미아, i. 12-20),, 유대인의 바빌론 유수이후 페르시아왕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우제이르 또는 에스라에 관한 얘기라고도 전하여지고 있다.

2) 어떻게 그리고 언제 소생시킬 것인가?

3)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 하시길.

260-1) 다른 학자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 새들을 죽여 여러 갈래로 자른 다음 머리만 손에 쥐고 있으면서 다른 날개며 발, 살등 다른 부분은 뒤섞어 각각 다른 산꼭대기에 갔다 두고서 하나님이 명령하였듯이 그것들을 부르면 날개는 날아와 날개가 되고, 피는 피가되고, 살은 살이 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백성들이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이브누 까씨르).

261-1) 이것은 타북전쟁시 "우스만 이븐 아판"과 "압두 라흐만 이븐 아우프"에 관하여 계시된 말씀이다. 그곳에서 우스만은 1,000 마리의 낙타와 1,000 디나르의 돈을 선지자 양손에 놓아드렸다. 그러자 선지자께서 거기에 입을 맞추시고 말씀하시길, "우스만이 행한 것은 오늘 이후 우스만에게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고 하셨다. 또 "압두 라흐만 이븐 아우프"가 선지자에게 4,000 디르함을 가지고 와서 말하길, "선지자여, 저에게 8,000디르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 4,000 디르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4,000 디르함은 저의 주님을 위해서 빌려 주었습니다"라고 하자, 선지자께서는 그에게 말하길, "네가 가진것과 네가 빌려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길을 위해 재물을 희사한자는 한알의 밀알과 같으니…)라고 계시가 내려졌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54).

265-1) 자선을 베풀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을 때.

266-1) 제2장 216, 264, 265절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되는 자선으로 자선은 일생을 통하여 해야 할 의무임을 제시하고 있다.

267-1) 허락된 좋은 양식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다음 3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좋고 유용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고, 둘째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셋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서 생산된 것 등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271-1) 오른 손으로 자선을 베풀되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했듯이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더 나으나 베픈 자선을 공개하여도 된다. 이때는 그 사람의 자선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선을 베풀 수 있는 동기를 일깨워 줄 경우이다.

272-1) "싸이드 이븐 주베이르"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무슬림들은 "아홀루 딤마"(기독교인 및 유대인들)에게 자선(사다까)을 베풀었다. 그런데 무슬림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선지자께서(너희들의 종교를 가진 형제들 외에는 자선을 베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무함마드여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가 아니거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시니라…, 라고 계시가 내려짐으로써 이슬람 종교외의 타종교인에게도 자선(사다까)이 허락되고 있다(2장 256절 해설참조).

273-1) 궁핍한 이들

2) 소위 분별 없는 자선은 오히려 악을 초래함으로써 비난을 받는다(2장 262절 참조). 진실한 자선이란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본 절은 묘사하고 있다.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성전으로 전쟁에 나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 지식이나 기술을가르치며 전달하는 사람,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 등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필요하지만 그들의 겸손과 진실과 신앙 때문에 이집 저집 문전구걸을 하지 않는다. 도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선이 베풀어질 때 진실한 자선임을 묘사하고 있다.

275-1) 리바는 증액이란 언어적 뜻에서 고리대금, 부당이익 또는 사기성 상행위 등으로 풀이된다. 대출된 원금 외에 그 이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자 행위도 포함된다. "리바"란 불법적인 거래 행위이다.고리대금이 초래하는 빈익빈 부익부를 이슬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고리대금 행위는 나태한 습성을 조장해 주며 이기적인 자기 본위로 사로 잡히게 됨으로써 공동사회의 윤리와 도덕의질서를 문란케 하기 때문이다.(믿는자들이여, 2배 3배의 이자를 탐내지 맒며,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실로 번성하리라 : 3장 130절) 이 계시는 이슬람이 오기 이전에는 아랍인들의 관례에 따라 복식 이자로 행하여 지고 있을 때 계시된 것으로 사려된다.두려움도 슬픔도 갖지 않을 것이라

279-1) "아루 이븐 싸끼프"는 "무기라"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대여금이 있었다. 그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싸끼프"가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 하자 :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할 지어다. 만일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면 자본금을 가질 것이니 부정을 저지르지 말 것이며, 부정을 당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계시가 내렸다. 이때 "싸끼프"는 :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께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서 단 원금만을 받았다(알바흐르 알무히뜨 337/2).

282-1) 이 절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된다. 후불거래 및 선불과 후상품인도에 관한 조항과 현금지불 및 현장인도시의 거래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불거래 및 선불과 후상품인도란 예를 들어, 상품은 즉시 인도하고 지불은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에서 장래에 지불하거나 또는 현금은 현재 지불하고 상품인도는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에서 장래에 지불하거나 또는 현금은 현재 지불하고 상품 인도는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에서 장래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 "…그것은 증거로써 보다 적합하며 너희들간의 의심을 없애는데 보다 편리한 것이니라"라고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지불 현장인도의 경우는 서류계약의 증거는 필요치 아니하나 구두증인은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2) 기록하는 서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신탁을 받은자로써 도덕적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의 공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기록하여야 하며, 그 기술의 재능은 창조주가 주신 선물로써 하나님께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하여야 한다. 특히 문맹인이나 거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기들의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증인으로써 2명의 남자가 없을 경우 남자 1명과 여자 2명을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는, 남성은 사물이나 사건을 판별할 때 감성보다는 이성에 의존하나 여성일 경우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잘못

을 저질렀을 때 엄마는 그 애의 잘못을 아버지로부터 벌을 피하게하여 줌으로써 사랑을 베풀어 준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도 어떤 사건을 진술할 때 감정이 예민한 여성일 경우는 그 환경 및 질문자의 질문을 받을 때 감성에 치우치게 된다. 그러나 2명의 여성을 증인으로 세울때는 한 여성이 감성에 치우쳐 그릇되게 진술했을 때 또 한 여성은 여성의 본성, 시기 및 질투로 인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부정하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83-1) 그것이 건전할 때 전체가 건전하며 그것이 병들 때 전체가 병드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

285-1)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무함마드를 확증하고 마찬가지로 믿는 신도들도 그렇게 믿고 확증하도다.

2)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구별하여 믿음.

286-1)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인간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인간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 까지만 요구하고 있다.

2) 파티하 장과 바까라 마지막 장 286절을 밤에 읽을 때 그것은 그것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이브누 마쓰우드가 전하고 있으며, 부카리는 파티하와 바까라 마지막 286 절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베풀지 아니하고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만 베푼 2개의 빛이라고 전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67).

제3장 수라트 알 이므란

「이므란」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200절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하나님의 일위일체와 유일성에 관한 신앙과 예증.둘째: 이슬람법과 성전(Jihad).

본 장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유일한 분이라는 것과 예언자의 도래, 변질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의 꾸란 그리고 이슬람과 꾸란과 무함마드에 관한 의심을 일소하고 있다. 「바까라」장이 유대인들의 진상과 그들의 권모술수와 책략에 관하여 묘사하였다면 「이므란」장은 예수의 임무와 삼위일체설에 의한 예수 신격화를 부정하면서 무함마드가 최후의 예언자로서 택함을 받고 계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또한, 마리아와 예수에 관한 유대인들의 부정한 의혹을 제거하는 한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더불어 그들의 권모술수에 현혹되지 말라고 무슬림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슬람법에 관한 구체적 조항으로써는 성지순례, 성전, 고리대금업 및 불로소득의 이자문제, 이슬람세에 관한 조항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바드르 전투와 우흐드 전투에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얻은 교훈과 바드르 전투의 승리가 가져다 준 교훈이 묘사되고 있다.

하나님은 군사력이 절대적 열세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강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과 확신을 주고 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위선과 위선자들의 속성을 묘사한 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우주만물을 생각하고 숙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성과 조화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게 하여 창조주의 존재를 인식케 하고 있으며 선을 실현하기 위한 성전과 성전하는 사람들의 인내의 미덕과 그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면서 신앙인들의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고 있다.「이므란」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여 예수를 출산한 마리아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가문을 기념하는 것으로 「알 이므란」 즉, 이므란 가문의 장( )이라 불려지게 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1-1) 이 문자를 해설하는데는 학자들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세 문자는 꾸란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거나 또는 훌륭한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만이 알수 있는 문자 또는 생략된 약어로서 「알리프」는 하나님(Allah)을, 「람」은 자비(Latf), 「밈」은 영광(Majd)의 생략형으로 보는 학자가 있고, 또는 어떤 심원하고 신비한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어로도 풀이하고 있다.

2-1) 하나님 외에는 신(God)이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그 분 외에는 어느 무엇도 경배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 분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심을 말한다.

이 절은 「나즈란」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대표들에게 계시된 것으로 그때 말이나 낙타를 타고온 그들의 숫자는 60명이 넘었으며 그 가운데 14명의 지도자들과 3명의 고관이 있었다. 이 3명의 고관중에는 「압두 알마씨흐」가 그들의 통치자였고, 「알 아이홈」은 고문이며, 「아부 하리싸 이븐 알까마」는 학자였다. 이들이 예언자에게 와서 말하길, "예수는 바로 하나님 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때로는 예수는 「성부=성자=성신」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대답하기를 "우리의 주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하자 그들이 말하길 "그렇습니다" 또 선지자께서 "하나님은 자손이 없지 아니한가?" 라고 하자 그들이 말하길 "그렇습니다" 또 선지자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에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도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자 그들이 말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하늘과 땅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예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지 아니한가?"라고 하자, 그들이 말하길 "그렇습니다" 또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시고 음료수도 마시지 아니 하시며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아니한데 예수는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아니했는가?" 라고 하자 그들이말하길 "그렇습니다" 그러자 또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고집할 뿐이었다(알파크르 알라지 165/7 및 이브누 까씨르 알무크타싸르 288/1).

4-1) 「푸르깐」이란,

하늘에서 계시된 성서로 사실과 허위를 또는 광명과 멸망을 구별하여 주는 지침서로 해석되고 있는 꾸란을 의미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5).

6-1)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성자), 神(성신)이라고 주장한 이설에 대한 계시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궁에 인간을 잉태하게 할 수있다는 것과 예수도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복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 생명이 자궁에서 잉태될 때 누가 이 생명의 신비와 조화를 알수 있겠는가? 오로지 창조주 밖에는 알수 없는 것이며, 예수의 잉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의 형성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7-1) 이 절은 우리에게 꾸란을 해설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꾸란의 뜻을 2가지 측면에서 해설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문자 그대로 성서의 모체(Ummu al Kitab)로서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것과, 둘째로는 애매한 부분, 은유법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써 창조주의 의도를 정확히 묘사할 수 없으며 인간의 지혜로써도 무한대에 있는 창조주의 지혜를 완전 파악할 수 없는 말씀들로써 이것들은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2) 그들의 신앙에 이설을 불러 일으켜 불화를 조성하고, 즉 길을 잘못 들어선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한 것을" 구실삼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나님의 일부분이며 예수를 신성화 하고 있으나, "그(예수)는 우리(하나님)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 한 종복이니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는 하나님의 한 종복이며 선지자들 가운데의 한 선지자로써만이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9-1) 이 절은 지식과 이성에 근거를 둔 사람들의 기원으로 그들이 알면 알수록 그들이 정신 세계의 심오한 모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순간마다 그들이 얻은 광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원하며 그들의 모든 의심이 해결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귀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여기서 의심할 바 없는 그날이라 함은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

10-1) 내세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 현세에서 얻었던 모든 재물과 자손과 권세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며 오직 그가 현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실천한 선행만이 유용할 뿐이다.

11-1) 불신자들의 상태는 오만했던 파라오의 백성들과 파라오 이전에 선지자들의 안내를 거역했던 후드, 살레 및 슈와이브 백성들 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벌을 받는다는 교훈으로 메카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9).

12-1) 모세가 애굽인들에게 경고하였듯이 이 절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불신자 및 우상을 숭배하던 아랍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또, 바드르 전투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도 다음 절에서 언급 되고 있다.또한, 비쟌틴제국과 페르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멸망된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13-1) 헤즈라2년「라마단」달에 있었던「바드르」전투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예증으로 메카에서 온 소수의 무슬림(Muhajirin)들과 메디나에 있었던 소수의 무슬림(Ans ari)들이 소규모의 부메카의 불신자들과 메디나 주변 또는 메디나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고 위선자들로 구성된 대 규모의 부대를 갖고 있는 이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대항하여 싸워왔다.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무함마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려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아부 수피얀」은 시리아로부터 군지원과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은 메디나에서 약 50마일 떨어진「바드르」평원에서 전개되었는데 이때 무슬림으로 구성된 부대는 단지 313명으로 무기도 갖지 못한 군인들이었지만 무함마드가 지휘한 이 군대는 믿음과 신앙으로 그들에 대항하여 결투하였다. 한편, 메카 군대는 훌륭한 무기와 장비로 무장하였으며 그 숫자도 1,000명 이상이 되었으며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들 가운데에는「아부 자흘」을 포함하여 전쟁에 경험이 많은 무사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슬람을 박해하였던「아부 자흘」과 많은 군지도자들이 살해되었으며 무슬림들의 훌륭한 승리로 끝났다.

14-1) 인간을 가장크게 유혹하고 치장을 하는 것은 여성이며 그 다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믿음직스럽게 하여 주고 눈을 기쁘게 하는 자손이며 그 다음으로 금은 보화와 재물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현세 삶의 한 장식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순간의 기쁨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내세의 기쁨과 행복은 영원하며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5-1) 인간을 위하여 장식된 현세의 모든 것들

2) 제2장 25절 참조 및 비교

16-1) 당신 하나님과 당신의 성서들과 당신의 선지자들을 믿나이다.

17-1) 시련과 고난과 시험에 인내하고 참는자들(제2장 52절 참조)

2) 믿음에 진실하고 주님앞에 충실한 자들

3)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4) 재물과 재산을 하나님 사업을 위해 바치는 자들

18-1) 선지자께서 메디나에 정주하고 있을 때 샴(지금의 시리아, 팔레스타인, 레바논)지역으로부터 2명의 교구장이 찾아왔다. 이들 교구장은 그분께 들어가자마자 그분의 모습과 품성으로써 그분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 교구장들이 그분에

게 말하길 ; "당신이 무함마드입니까?"라고 하니, 말씀하시길, "그렇습니다" ; 이때 또 그들이 묻기를 "당신이 아흐마드입니까?"라고 하니 말씀하시길, "그렇습니다" 이때 또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당신께 「쉬하다」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일러 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확신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길 ; "질문하시요"하니, 그들이 말하길 ' "성서에 있는 가장 훌륭한 「쉬하다」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옵소서"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증언하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라고 계시가 내려졌다. 그후 이 두 교구장은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증하였다(알 꾸르뚜비 4/41 및 알바흐르 알무히뜨 2/401).

19-1) 구약 및 신약성서를 가리킴

2)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도 이슬람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지 아니하였다.

3) 시기심과 교권 장악과 욕망 때문에 서로 다른 자기들의 견해를 주장하게 되었다.

20-1) 「와즈히」란 나의 얼굴이란 언어적 뜻으로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종복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또한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또한 그분께서는 부인도, 자손도, 그분과 대등한 어떤 동반자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2) 성서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인류의 종교사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로써 그것이 다시 이슬람에서 완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우상을 숭배하던 아랍인들을 의미한다.

3) 이 계시가 성서의 백성들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들은 말하길 ; "우리는 이슬람에 귀의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선지자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길 ; "너희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종복이며 선지자임을 증언하는가?"라고 하자 그들은 "주여! 마옵소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시하길 "만일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라고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타파씨르 아비 알싸우드 1/233).

21-1)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유대인들을 말하며 이들 유대인들은 「자캬리야」와 「야히야」의 아들과 많은 예언자들을 살해하였다. 「이부누 카씨르」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루 동안에 300명의 예언자를 살해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13).

2)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자, 예언자들을 살해하는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살해하는자, 이 3가지 부류의 죄악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벌을 말함.

23-1) 성서의 일부란 하나님의 말씀가운데서 일부분으로 모세의 율법도, 예수의 복음서도 성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며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꾸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음을 예증하고 있다.

24-1) 하나님을 부정한 이들이 주장하길, 우리는 예언자들의 자손들이니 불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아니 하리라, 만일 불 재앙이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소를 숭배했던 40일간에 불과하리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14)

25-1) 부활의 날 심판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모이게 하였을 때

26-1) 앞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예언자의 도래와 이슬람에 관한 말씀에 이어, 25절~28절에서는 이슬람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가까웠음을 예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안에 있어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앗아가시며 그분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곧 그분의 종교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선지자께서 메카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와 로마의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다. 이때 위선자들과 유대인들이 말하길,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페르시아와 로마의 모든 것이 어떻게 무함마드에게 온단 말인가? 그들 로마인과 페르시아인들은 그들보다 더 강하지 아니한가?"라고 하자 26절이 계

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티프씨르 알꾸르뚜비 4/52)

28-1) 믿음과 신앙이 인간생활의 기본적 과제라 한다면 사교나 우정의 교환은 자연히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 사악한 교우는 올바른 예의와 믿음과 신앙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 업무속에서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공동사회의 조직을 강화하고 단결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형제애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

30-1) 부활의 날 모든 인간은 알게 또는 모르게 행하였던 모든 선행과 악행의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선행은 선행으로써 보상이 있을 것이요 악행은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있다.

31-1) 하나님의 최후의 선지자.

32-1)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33-1) 「아담」을 인류의 선조로, 「노아」를 최초의 예언자로,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서 「이스마엘」과「야곱」 그리고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 「이므란」의 가문에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예언자로 「예수」를 지도자로 선택하였다(꾸르뚜비가 전함).

34-1)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예언자들 모두는 같은 계보에서 유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한 가정이라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개체의 인간은 그 가정의 구성원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분의 예언자들을 사랑하고 예언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인간의 사랑과 순종과 고행은 바로 인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시험인 것이다.

35-1) 「예수」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탄생하고, 「사가라」의 아들 세례 요한이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부터 시작된다.「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사촌이었으므로(누가복음 136), 「요한」과 「예수」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사촌간이었다.「엘리자베스」는 「아론」의 딸이었고(누가복음 1:5), 또한 「아론」은 「모세」의 형(출애굽기 4:14)이며, 「모세」는 「이므란」의 아들이었다.그녀의 남편 「사가라」는 성직자였음으로 그녀의 사촌 「마리아」는 성직자 가정의 출신으로 간주된다. 전통적으로 「마리아」의 어머니는 「한나」(라틴어로는 안나, 영어로는 안네)라고 불리워졌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이므란」이라 불리워졌다. 그리하여 「한나」는 「이므란」의 부인으로, 「이므란」 성직자의 한 가정을 이루었다.

2) 「무하르라르」의 의미는 모든 속세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뜻. 나이가 많아 아이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 대신 딸을 주었다. 그러나 그 딸은 바로 여성들 가운데서 선택 받아 「예수」를 낳은 「마리아」였다.

36-1) 「마리아」의 언어적 의미는 주님께 헌신하는 여종이란 뜻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20).

2) 「마리아」의 어머니는 남자 아이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자 아이라 해서 실망하지는 아니했다. 그녀의 딸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으로 동정녀 몸에서 「예수」 아기를 탄생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마리아」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을 주님께 구원하였다.

37-1) 자카리야

2) 마리아

3)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속에서 성장하여 갔다. 그녀를 위해 하나님은 물질적 양식은 물론 정신적 양식까지 보내셨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겨울철에도 여름 과일을, 여름철에도 겨울 과일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무자히드」는 "이렇게 하여「마리아」는 순결하고 아름답게 성장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

교인들이 말하길, 「마리아」는 12살 때까지 성전에서 양육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한 마리의 비둘기 같았다라고 말하고, 또 천사들이 그녀를 양육했다고 하였다.

38-1) 사가라(자카리야)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 정상적으로 아이를 더이상 낳을 수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하여 나이가 많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므로 더이상 아들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라나는 신비의 여자아이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을 잉태하여 주길 기원하였다.

39-1) 야히야

2) 「칼리마 미날라」는 하나님으로 부터의 한 말씀이란 뜻으로,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있었라"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40-1) 이때 남편의 나이 120, 부인의 나이 98세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였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따라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21)

42-1) 가브리엘 천사

2)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써 일반 여성들과 다른점이 있다. 육체적 교제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써 아들을 잉태한 점이다. 그녀의 아들 「예수」가 인간 이상의 존재가 아니듯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인간 이상의 존재는 물론 아니다. 유니테어리언과(Unitarian 1744년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신교의 일파)는 삼위일체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며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한편 다른 이론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며,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르며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다. 이 카톨릭 이름은 431년에피수스 회의(The Council of Ephesus)에 의해 시인된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란 뜻은 주님에의 종복 또는 봉사자란 뜻이다.

44-1) 보이지 않는 복음의 일부 : 「이므란」의 부인과 그녀의 딸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로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보이지 않은 예언자들의 이야기

2) 화살을 던져서 점을 친 옛 관습중의 하나(제2장 219절 참조)

45-1) 「메시아」란 헤브리아 및 아랍어로 표시된 이름이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 Christ」,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 Christos」, 한국어로는 「그리스도」라 번역되어 있다. 그 뜻은 "기름으로 세례를 받음"이란 내용으로 왕들이나 교구장들은 그들 직책에 등천할 때 기름으로 성별식을 하였다.

46-1) 예수

2)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예수가 예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고(누가복음 제2장 40절) "사흘 후에 성전에 가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예수의 12살 시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누가복음

49-1) 흙으로 빚어 만든 새가 생명이 있는 새로 되는 기적은 경외성서(Apocryphol Gospels)에서 발견되고한편 장님 및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게하는 기적은 정성서(Canonical-Gaspel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 성서(Original Gospels)는 후에 제자들이 기록한 이야기는 아니나, 실질적인 기적들은 「예수」에 의해 행하여졌다.

2) 예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 죽은자를 살게 했으니 예수의 친구였던 「아지르」, 「알아주즈」의 아들 「알아으쉬르」와 그의 딸, 그리고 「노아」의 아들 「샘」등 4명의 죽은자를 살게 했다고 「꾸르뚜비」가 전하고 있다.

3) 최초 예수의 기적으로써 새의 형상을 만들어 숨을 불어 넣으니 새가되어 날아갔고, 두 번째 기적은 장님과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셋째는 죽은자를 살게 하였고, 넷째는 보지 아니하고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축적 하였는가를 알게 되었다.

50-1) 모세의 율법을 확증하고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했던 몇가지 율법을 허용하며 (이브누 카씨르가 전함)

2) 하나님께서 허용하여 예수가 행한 기적들

52-1) 하나님의 길로 선교하는 길에 있어서 도운 사람들, 「무자히드」는 하나님의 길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53-1) 예수

2)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성만을 믿었고 하나님만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선지자이었음을 증언하는 자

54-1) 예수를 살해하려 했던 음모자들

2) 유대인들이 「예수」를 살해하려는 음모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다. 즉, 그들은 「예수」를 살해하려고 음모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로부터 그를 구하여 하늘로 승천시키고 대신 유대인을 「예수」와 흡사하게 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26).

55-1) 4장 157절에 계시되고 있듯이 유대인은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하지 아니했으며 「예수」를 살해하지도 아니했다. 유대인 음모자를 그와 비슷한 형상으로 하여 「예수」를 대신케 하였다. 「예수」를 음모 살해하려한 유대인의 죄악은 남아있으나 「예수」는 하나님께로 승천하시었다.

2)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난하였다. 크리스챤들은 그 삼위일체설을 그들의 기본 신앙으로 삼고 있으나, 유대교는 물론 유니테어리언파와 이슬람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3장 42절 해설 참조).

3) 「예수」의 삼위일체설에 관한 이설.

59-1) 「예수」가 예언자로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뜻에 따라 많은 기적을 낳고 또 「예수」가 아버지 없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그를 신격화하여 그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설을 만들자 이 계시가 내려졌다. 「아담」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흙을 빚어 "있어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 「예수」도 그와 마찬가지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내에 "있어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60-1) 예수에 관한 사실

2) 진리는 일반 사람이나 성직자들의 미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 진리이므로 이를 의심하지 말라.

61-1) 예수

2) 사절단의 해(The year of Deputations)라고 할 수 있는 헤즈라 10년 사나아에서 북쪽으로 50마일가량 떨어진 「나즈란」 지역으로부터 한 기독교 사절단이 방문하여 꾸란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에 관하여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무슬림국가와 예속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이미 뿌리박힌 관습과 전통은 공동체가 이슬람으로 귀의하는 것을 배제하였다. 예언자는 모임을 갖기로 제안하고 그 회합에 양 당사자의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를 소집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거짓말을 한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 기원하자고 하였다. 이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저하지 아니했으나 크리스챤들은 반대하였다.

62-1) 2장 87절에서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 예수에 관한 계시가 있었다. 87절에서는 「예수」가 어떤 위치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하여주고 있는 절로써 「예수」는 한 인간으로서 예언자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니 「예수」가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이야기가 사실로써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말해주고 있다.

64-1)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그대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성서의

백성들이여!,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무슬림들로 하나님께만 경배드림을 지켜보라.

65-1)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 1,000년 후에, 예수는 모세 이후 2,000년 이후에 왔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들의 종교를 믿었다고 서로가 논쟁하는가

66-1)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하여 논쟁을 일삼았으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종교에 관해서 어떻게 논쟁을 할 수 있는가!

67-1)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키는 신앙인

68-1) 무함마드

2)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무함마드의 공동체를 따르는 신앙인들

69-1) 유대인들이 무함마드의 일부 교우들을 유대교로 유인하자 "성서의 백성가운데의 일 무리는 너희들이 방황하길 원했으나…)라고 계시가 내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30).

71-1) 그들의 율법과 구약에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로 온다는 것

72-1) 와즈흐 : 첫 부분이란 뜻으로 이슬람에 대한 조소이다. 처음에는 믿는 자들(무슬림)과 함께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는 불신하라는 음모이다.

73-1) 선지자로 선태 받은 것도, 복음도, 그리고 은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수여함을 말함.

75-1) 유대인 가운데 「쌀람」의 아들 「압둘라」에게 많은 재물을 보관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돌려주었고「아주라」의 아들 「파나하쓰」에게 디나르를 맡긴 후 그것을 요구했는데도 돌 모독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32).

77-1) 선지자 무함마드가 온다는 사실이 기록된 성서의 일부분을 변경하여 위선과 거짓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것

78-1) 유대인의 일부

2)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왜곡하고 변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79-1) 예수

2) 예언자인 「예수」가 하나님 대신 자기를 경배하라 명령하였다고 성서의 백성들의 한 무리가 거짓을 말하자 이 말씀이 계시됨으로 그들의 허위를 예증하였다.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 「예수」는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80-1)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따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한 인간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받아 그 복음을 인류에게 전할 임무를 받았을 뿐 예수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지는 아니했다.

81-1) 구약 신명기 xviii-18(Deut. xviii18)에 무함마드가 온다는 것이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고, 아랍국가의 창설은 이사야서(Isaiah. xlii)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케다르(Kedar)는 「이스마엘」의 아들로 그 이름이 아랍국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16, 15~26, 16~7(Gospel of St John xiv 16, xv 26, xvi 7)장에서 무함마드가 예언되고 있다.여기에 나오는 "The future Comforter"란 어휘는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성령(The Holy Ghost)로 풀이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예수」를 도우며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Comforter란 단어는 그리스어의 Paracletos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으로 그것은 Periclytos 단어가 잘못 와전된 것이다. 이 Periclytos라는 어휘는 문자 그대로 무함마드(Muhammad) 또 아흐마드(Ahmad)이다. (꾸란 lxi-6) 참조

그밖에도 무함마드에 대한 기록은 한 이태리 번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Vienna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태리 번역판 「바르나바」 복음서(The Gospel of st Barnabas)에 언급하고 있어 1907년 Mr Lonsdale와 Loura Ragg가 영어 번역에서 이것을 인용하였다(유스프 알리 해설 p.144. 주 416번).

84-1) 구약성서(타우라트)
2) 신약성서(인질)
85-1) 이슬람이란 하나님에의 절대 복종과 순종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슬림의 위치는 분명하다. 즉, 이슬람은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종족 또는 국가에 소속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견지에서 볼 때 모든 종교는 하나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곧 하나요, 하나님도 한분이기 때문이다.하나님이 제시한 모든 성서에서나 하나님이 보낸 모든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즐거이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
86-1)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온 것
2) 유대인과 기독교인들로 이들은 그들의 성서에 기록된 무함마드에 관하여 사실을 알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되자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진리를 불신하였다고 하싼은 말하고 있다(알따브리 575/6).
90-1)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불신하고 또 「모세」도 불신하였으며 나아가 「무함마드」와 「꾸란」을 불신하여 죄악을 더해간 이들을 일컫는다.
92-1) 이 말씀은 자선에 대한 인간의 시험이다. 타인에게 자선을 베풀 때에는 자기가 좋아하며 가치있는 것으로 해야한다. 하나님은 자기자신을 바치는 것을 가장 좋은 자선으로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인간은 지혜와 노력과 학문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93-1) 구약이 모세에게 계시되기 이전에는 모든 음식이 허용되었으나 야곱은 그의 백성들에게 낙타고기와 낙타의 우유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 하였으며 또한 고기의 지방 같은 것도 금기하였다. 이는 그들 백성들이 창조주를 모독한 죄의 대가였다고 풀이되고 있다. 물론 이슬람에서는 낙타고기가 허용되고 있으나 레위기 모세의 율법에서는 금기되고 있다(레위기 xi:4).
95-1) 이슬람의 자율성은 모세 율법의 강제성과 책망에 비하여 권고적이다. 그리하여 이슬람은 유대교 이전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기독교도 유대교도 아닌 하나님의 유일성만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96-1) 메카에 있는 하람사원
2) 「박카」란 지금의 메카 도시의 옛 이름으로 이 도시안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마엘」이 세운 카으바 신전이 들어 있는 하람사원이 있다. 이 곳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고 하는 자비의 산이 있는 아라파트 지역과 함께 성역화되어 있다(제2장 197절 참조).
97-1) 아브라함이 카으바 신전을 세우면서 남긴 발자욱, 잠잠우물, 사파와 마르와 동산 등이 있다.
98-1)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과 그 예증들
102-1)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① 비겁한 두려움이 있고, ② 어린이나 또는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떤 미지에 직면했을 때 갖게되는 두려움이 있으며, ③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사회를 해치는 해악을 회피하기 위해 멀리 하려는 이성을 가진 사람의 두려움이 있고, ④ 사랑과 선에 역행되는 어떤 행위를 유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숭고한 두려움이 있다. 첫 째번의 두려움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두려움이요, 두 번째 두려움은 정신적으로 성숙치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며, 셋째는 악에 대하여 경고하여 주는 두려움이며, 넷째는 믿음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숭고한 두려움이다.
103-1) 하나님의 동아줄이란 하나님이 계시한 유일성의 신앙과 그분이 계시한 모든 성서를 믿음과 아울러,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종교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교에는 의견을 달리 하지 말며 오로지 하나님의 동아줄, 즉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의 종교만을 따르라는 교훈이다.
2) 이슬람이 오기 이전 야쓰립(지금의 메디나)에는 내란과 부족간의 불화와 갈등

이 만연된 상태였다. 그 후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 이슬람이 도래하였을 때 이슬람의 형제애(Brothership)로써 내란과 불화와 갈등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도시, 광명의 도시(알마디나 알무나우와라)가 되었다.

104-1) 「무플리흐」는 「아플라하」와 「팔라하」에서 파생된 명사로 그 뜻은 현세와 내세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평온한 마음의 정적 상태를 뜻한다.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아자브」란 어휘로 다음 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무슬림 공동체의 이념이 바로 갈등과 불안, 초조, 근심이 배제된 번영과 행복 그리고 평온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선행과 정의를 추구하며 동시에 모든 사악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5-1)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분명한 말씀과 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교에 관하여 이설을 주장하는 그들

106-1) 「와즈후」는 아랍어로 얼굴이란 뜻이며 여기서는 어떤 개인 또는 개체를 의미한다. 또한 하얀색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부활의 날에 믿음과 순종으로 광명을 갖게 된다는 뜻이며, 한편 검은색은 그 반대의 개념이다.

107-1) 믿음으로 선을 실천했던 신앙인들이 부활의 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

110-1)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백성들

2)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증들을 믿고 따랐다면

112-1)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과의 성약을 지키는 자들

2) 제3장 21절 참조

113-1) 압둘라 이븐 쌀람 및 그의 동료들

116-1)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재산과 자손과 권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 뿐이다.

117-1) 「나파크」는 "베풀기 위해 소비한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허위적 또는 위선적인 자선"을 의미한다. 자선의 본질은 어떠한 목적이 없는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다.자선을 장래의 권력이나 명예욕을 위한 희망으로 생각한다면 그 희망은 마치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다가 살을 에이는 추위와 바람이 스쳐 농작물을 망쳐 놓은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하고 있다.

118-1) 위선자까지도 포함된다. 아시니라

2) 하나님과 그분이 명령한 것과 금기한 것을 알고 있으리라는 뜻으로 「이브누 자리르」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46).

119-1) 믿음을 가진자들이여!

2) 마지막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성서(The Whole of the Book)라 하며, 마지막 예언자 이전에 계시된 모세의 율법, 예수의 복음서까지는 아직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계시되지 아니한 부분적 성서(Aportion of the book)로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이완전한 성서(Complete book)임을 꾸란5장 제3절에서 계시하고 있다(5장 "알마이다" 제3절 참조).

121-1) 「우흐드」 전투는 초기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커다란 시험이었다. 그들의 용기와 그들 지도자의 지혜 및 능력은 메카 이교도들을 패배시켰던 「바드르」 전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3장 13절 참조).

그래서 메카 이교도들은 그들이 패배했던 치욕을 씻기 위하여 메디나에 있는 무슬람들을 전멸하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대 군대를 이끌고 메디나를 진격하였는데 「아부 수피얀」이 이끄는 군대는 3,000명이 넘었으므로 그들의 승리를 확신한 나머지 여성들까지 동반한 그들은 이 전쟁후 가장 수치스러운 야만성을 보였다. 이 공격의 위험에 대처하여 무슬림의 지도자인 "무스타파 무함마

드"(선택받은 무함마드)는 그의 일상 통찰력과 용기와 주도권으로 메디나를 내려다보는 북으로 약3마일 거리에 있는 「우흐드」산 기슭에 진을 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헤즈라 3년 샤우왈 달 7일(서력 625년 1월) 아침일찍 전쟁에 실전 배치를 하였다.

메디나의 겨울 날씨는 고르지 못하고 가혹함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700~1,000명 가량의 무슬림 전투병을 아침일찍 배치하였고 남쪽 계곡과 산 기슭의 통로 후미에는 50명의 활을 가진 궁수들을 배치하여 적의 후방공격을 방어토록 하였다. 적은 메디나성을 공격하였으나 무슬림군대가 후미에 있었으므로 초기의 전황은 무슬림에게 유리하였다. 그래서 적은 당황하였으나 활을 쏘는 궁수들이 그들의 진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쟁 노획물에 눈이 어두워 그들의 진지를 떠났다. 게다가 「압둘라 이븐 우바이」가 이끄는 300명의 위선자들이 탈선을 하였다.

그 결과 무슬림 병사들은 활을 쏘는 병사들의 탈선으로 백병전으로 돌입하였으나 선지자의 많은 동료들과 지원병들이 살해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선지자의 아버지 형제되는 「함자」도 살해되었다.

이 당시 전쟁 순교자들의 무덤은 지금도 「우흐드」에 있다. 이 전쟁에서 선지자도 머리와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그분의 앞니도 상실되었으나, 그분의 신념과 용기와 냉정한 지휘는 무슬림 형제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그 다음날 「아부 수피얀」과 그의 메카 병사들은 철수하기에 이르러 메디나는 구원되었다. 이것으로 무슬림은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었다.

122-1) 마음이 흔들렸던 「바누 쌀마 카즈라즈」 부대와 「바누 하리쓰」 부대를 가르키는 것으로 이들 두 부대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격려와 감화와 영도하에 다시 용기를 회복하였다.

123-1) 창조주에 대한 감사는 말로써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만일 모든 무슬림들이 「바드르」전투에서 진실된 교훈을 얻었더라면 「우후드」전투에서 활을 쏘는 사수들이 그들의 진지를 탈선하지도 아니했을 것이며 위에 언급한 두 무리가 불안해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126-1) 기적이던 또는 그밖에 발생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이따금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써 자연의 흐름을 변경하기도 하나 그것은 그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127-1) 「따라프」는 선단 또는 맨끝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메카 이교도들의 족장을 의미한다. 이들은 메디나 군대에 비하여 월등한 군사력으로 그곳의 무슬림 병사들을 섬멸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공격하였다가 좌절하여 후퇴하였다.또한, 이들이 전쟁에서 이교도들이 보인 그들의 잔악성은 그들의 영구적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그들 이교도들의 속성은 그들을 위해 싸웠던 「칼리드 이븐 왈리드」에게도 노출되어 그후 「칼리드 이븐 왈리드」는 이슬람으로 귀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지키는 가장 탁월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메카 정복시 무슬림편에 있었고 후에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용맹과 예를 떨쳤다. 「우흐드」 전투는 「바드르」 전투 못지않게 이슬람을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128-1) 어떠한 환경과 조건하에서도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과 순종, 그에 따른 고행과 단결,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정신만 있다면 신은 항상 그와 함께 한다는 교훈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의 자비는 적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그들로 하여금 항상 회개토록 한다는 교훈도 제시하고 있다.

130-1) 참된 번영은 욕심과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은혜를 베푸는데 있다(제2장 275절 참조).

135-1) 자기자신이 타인으로 인하여 또는 자기 실수로 인하여 어떤 죄악에 빠져있음을 발견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아니하며 곧바로 하나님께 용서와 관용을 기도함으로써 그의 믿음은 그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 만일

그가 진실이었다면 그는 그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회개할 것이다.

136-1)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천국을 약속하신다.

137-1)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래한 선지자들을 거역하여 멸망한 백성들의 흔적

2)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존속하여 종말을 지배한다. 실패하여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좌절되어서는 아니되며 실망하거나 노력을 포기하여서도 않된다. 믿음은 항상 희망과 활력을 주어 끊임없는 노력으로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138-1) 이 꾸란

140-1) 이 상처는 「우흐드」 전투에서 입은 상처를 일컫고 있다. 정의와 진리를 위한 전투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적군도 역시 그 만큼의 상처를 받게 되며 믿음이 없는 병사 스스로를 지탱할 희망까지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성공과 실패가 거듭되는 것이 현세의 생활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실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진실된 용맹이란 어려운 역경속에서 나타날 때이다. 그것은 마치 금이 불속에서 타지 아니하고 남아 나타나는 것과도 같다(3장 154절 해설참조). 순교는 그 자체가 명예요 특권이다. 「함자」의 순교와 「하산」 및 「후세인」의 순교는 얼마나 명예스러웠는가?

141-1) 순결케 한다 함은 2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는 무슬림 병사들 가운데 숨어 있는 위선자들을 일소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바로 시련과 역경은 인생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상처를 입고 갈증이 심했지만 그럴수록 보다 강한 믿음과 신념으로 그 역경을 이겨낸 모범이 무슬림 공동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다.

144-1) 이것은 「우흐드」 전투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선지자가 전사하였다는 소식이 와전 되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심한 상처를 입었을 뿐 전사하지는 아니했다. 이때 「딸하」와 제1대 칼리프였던 「아부 바크르」, 제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선지자 무함마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선지자 무함마드의 예기치 아니했던 모범과 용맹으로 혼란에 빠진 무슬림 병사들을 구출하였다. 구후, 선지자 무함마드가 별세한 8년이 지난 후 「아부 바크르」는 백성들에게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복음을 내리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상기시켰다.

145-1) 「우흐드」 전투에서 물질적 욕망으로 자기들이 지키던 진지를 떠나 활을 쏘았던 병사들을 일컫는다. 이들 병사들은 전투의 와중에서 얻은 전리품을 갖게 됨으로써 물질적 욕망 즉, 현세의 욕망을 충족했는지는 모르나 그들 스스로는 내세의 영혼과 영생을 상실하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진지를 지키다가 전사했더라면 그들은 순교자의 월계관을 썼을 것이요 그들이 전사하지 아니하고 살아 있었다면 내세에서는 물론 현세에서도 영웅이 되었으리라.

146-1) 립비유나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우하여 선지자들과 함께 성전했던 학자들

149-1) 불신자와 위선자들의 명령에 따른다면 그들은 믿는 신앙인들을 불신자로 만들 것이라.

152-1) 「우흐드」 전투에서 무함마드가 내린 명령으로, 물질적 욕망을 위해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탐내지 말라 하였으며 엄격한 군기를 유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초기 전투에서는 무슬림의 승리로 기울어져 많은 적군들이 살해되었다. 그런데 무슬림병사들 가운데 일부 위선자 병사들이 물질적 욕망으로 인하여 무함마드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지키던 진지를 떠나 전세를 다시 적에게 우세하게 만들었다(3장 121절 해설 참조).

153-1) 「칼리드 이븐 왈리드」 가 이끄는 승마병들이 왔을 때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에 대한 욕심으로 진지를 떠났던 활쏘는 병사들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이 얻으려 했던 전리품은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의 전능으로 전세는 무슬림 병사들에게 우세해졌다. 그러자 그들의 생명도 위험했으며 또한 그들의 동료들도 탈선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다.

154-1) 믿음으로 의로운자들

2) 적군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무슬림 병사들은 최선을 다하여 대항하였다. 이들의 용맹성을 지켜본 적들은 진지를 철수하였다. 전투가 소강상태에 이르자 부상병들은 휴식을 갖게 었는데 전투에서 전력을 다 했던 병사들에겐 수면이 찾아들었고 위선자들에겐 근심과 불안만이 그들을 괴롭힐 뿐이었다.

155-1) 무슬림과 불신자들의 무리

2) 「우흐드」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꺼이 전투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무리는 두려워 할 뿐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처럼 사악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줌과 동시에 또다른 기회가 있을때는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자비로써 그들을 용서하였다.

156-1)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도피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삶을 위하여 또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기를 회피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는 죽음도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는다. 인생의 생(生)과 사(死)는 창조주 안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며, 모든 것은 신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발생되며 종결되기 때문이다. 신의 계획이었다면 집에서 은신하고 있더라도 죽음을 맛볼 것이며 신의 계획이었다면 전쟁과 어떠한 위험속에서도 살아 남는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창조주의 은혜에 이르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외롭지 아니하다. 신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157-1) 인간이 죽으면 3가지가 무덤까지 따라간다. 가족과, 부와 그리고 업적이다. 그중 2가지는 돌아오고 1가지는 남는다. 가족과 부는 돌아오고 그의 업적만이 무덤에 남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언급한 하디스에서 예시하듯 물질적 욕망으로 믿음을 소홀히 했을 때 그가 쌓아둔 물질적 축적은 인간의 임종과 함께 무용지물이 된다. 내세에서의 자산은 믿음의 척도에 달려 있을 뿐이다.

159-1)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무함마드의 천성적인 그의 인자함은 신의 자비가운데 하나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 창호들 가운데 하나가 모든 "피조물에의 자비"라는 것이 주어졌다. 그의 인자함은 시간과 장소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이었으며 특히 「우흐드」 전투에서 보여준 그의 인내, 즉 그의 병사들 중 위선자들에게도 너그러운 아량과 관용을 베풀었다.

160-1) 「바드르」 전투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이 없어졌다. 그러자 일부 위선자 및 사악한 백성들이 예언자께서 그것을 가져 갔으리라 의심을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

161-1) 예언자로 선택받은 무스타과 무함마드의 천성적인 인자함은 어릴때부터 나타났다. 그래서 그는 신뢰받으며 충실한 사람이란 칭호를 얻었다. 그런데도 사악한 무리들은 이따금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그들을 헤치려 한다.

「우흐드」 전투 이후 일부 위선자들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분배에 관하여 의심을 하고, 특히 전리품이 탐나 전지를 떠났던 병사들로 하여금 의심을 갖도록 그들의 심중에 위선을 조성하였다. 이 계시에서 예언자에 대한 신뢰와 충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예언자는 세속적 동기로 인하여 행동하고 그러한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저속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다.

165-1) 만일 「우흐드」 전투가 무슬림들에게 역전이 되었다면 적들은 「바드르」 전투에서 입은 피해보다 더 이상의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창조주는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을 시험하여 순화하려 하였던 것이다. 만일 무슬림 병사들이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임무에 게을리 했었다면 그들은 재난을 받았을 것이다. 물

론 이것은 창조주로부터 온 재앙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저지른 재앙인 것이다.

166-1) 「우흐드」 전투에서 믿는 신앙인들과 불신자들이 격전하던 날

167-1) 「압둘라 이븐 아비 이분 쑬룰」 위선자를 비롯 선지자 무함마드를 실망시킨 300여명의 위선자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63)

2) 믿는 신앙인들이 그들에게, "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하라…"라고 말하니

3) 위선자들

4) 입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마음은 위선으로 가득차 있었다.

5) 위선과 불신

169-1) 순교란 죽지 아니하고 살이 있으며 그가 떠난 그곳 생활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안락한 곳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순교자는 항상 여러 세대를 통하여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세대에 까지도 그 영혼이 그들속에 살아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순교자의 정신과 영혼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살아있다. 불멸의 생명이라 한다면 창조주의의 불멸과 비유하지 아니한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육체적 생명은 물적 양식에 의하여 유지될 뿐이며 그의 기쁨과 쾌락은 기껏해야 현세에서만 있을 수 있는 순간적 것이다. 그러나 순교자는 영적 양식으로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갖게되며 항상 창조주 가까이 있게 된다(2장 154절 비교).

172-1) 「우흐드」 전투에서 있었던 혼란과 분규가 있은 후 병사들이 선지자께 다시 접근하였다. 그때는 선지자께서도 물론 병사들도 부상을 당하였으나 모두가 다시 싸울 준비를 하였다. 「아부 수피얀」은 다음해에 「바드르 수그라」 전쟁터에서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메카부대를 이끌고 철수하였다.

그래서 그 도전은 수락되었다. 그리하여 선발된 무슬림 부대는 용맹스러운 영도자 지휘아래 도전에 약속을 이행하려 나갔으나 적군은 오지 아니 하였다. 그리하여 무슬림 병사들은 전쟁의 피해를 보기는 커녕 오히려 그곳에서 장사 및 무역으로 부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하여 갔다.

173-1) "헤아릴 수 없는 꾸레이족이 모여 대항하여 오나니 그들을 두려워 하라"고 겁에 질린 무리는 말하였다.

175-1) 본절에서의 사탄은 무슬림들을 저지하고 교란하기 위해 「아부 수피얀」이 보낸 「나임 이븐 마쓰우드 알아쉬자이」를 가르키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사탄처럼 사람들 사이에 모사를 꾸미어 교란하고 선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아부 하이얀」은 덧붙이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사르 340/1).

2) 하나님

178-1)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차 있었다. 죄악이 죄악을 낳는다는 말처럼 죄인은 회개함을 포기하고 더 큰 죄악을 낳게된다. 그러나 창조주의 은혜와 관용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죄가 지구와 하늘을 덮을 만큼의 큰 죄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실로 회개할 때 창조주는 그 회개를 받아들인다(하디쓰 40선 최영길 해설 p.183참조).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할 때 무서운 재앙이 있음은 창조주의 약속이다.

179-1)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선량한 사람의 선행을 그리고 믿는자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재앙으로서 그들을 시험하며 사악한 사람에게는 향락과 쾌락으로 그들을 시험한다. 그러나 선택하는 자유는 창조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2) 약한 상태에서 있는 인간은 미래의 신비나 보이지 않은 영계의 신비를 알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따금 창조주가 선택한 선지자들에 의해 암시되는 것이다. 믿음이 강할 때 참된 삶이 영유된다는 신념은 인간의 의무이다.

180-1) 물질적 은혜, 즉 부와 재산 또는 보이지 않는 영적재산, 지혜며 기술이며 지식등 이 모든 것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은혜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것을 자선이라고 하며 그 자선은 자기자신을 정화시켜준다. 자기 자신을 위해 소모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까지 축적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이로움이 될 수 없다.

2)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은 창조주가 인간으로 하여금 유익하게 선용하도록 주신 은혜이다. 이 은혜의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고 축적하여 둘 때 그 축적된 재물은 그의 목에 걸어진다. 그는 그것을 제거하려하나 그렇게 할 수 없으며 그 무거운 재물은 그의 목을 더욱 조아릴 뿐이다. 신약 마태복음 xviii장 6절에는 "멧돌과 같은 무거운 짐을 그의 목에 짊어지리라"라고 표현되고 있다.

3) 물질적 제물은 인간이 잠시 살아있는 동안에만 인간의 소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상속자가 있겠지만 최후의 상속자는 창조주이다. 모든 재물은 인간에게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181-1) 내세에서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 "이글거리는 유황불을 맛볼지어다"라는 말씀이 그들 유대인들에게 있으리라

183-1)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삼켜버린 제물"의 표현은 모세율법과 모세 이전 종교적 의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모세의 율법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삼켜버리고 제물로 선지자들의 신뢰를 시험하려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본다. 만일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것으로서의 예증을 믿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레위기 ix. 23~24절에서 모세와 아론에 의해 준비된 불에 탄 제물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밖에서 불이 주님 앞으로 와 불에 탄 제물이 올려져 있는 제단을 삼켜버리더라" 그러나 백성들은 이따금 모세에 반대하였고 선지자에 대한 그 반역은 그를 살해 하려한 시도였다. 「아벨」이 바친 제물은 아마도 불에 태운 제물이었다고 본다. 그 제물은 신에 의하여 수락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시기와 질투에 혈안이된 「카인」에 의하여 살해되었기 때문이다(창세기 lv. 3~8 참조).

184-1) 무함마드여! 그들의 거짓과 거역함이 그대를 슬프게 하지 아니 하리라.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면 그들은 이미 이전의 선지자들을 부정한 것이니라.

185-1) 영혼은 죽지 아니하나 육체는 죽으며 그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할 때 영혼에게도 죽음이란 것을 맛보게 한다. 그때의 영혼은 생명이란 단지 시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되며 심판의 날에는 그가 행한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됨을 알게 된다.

186-1) 재물과 재산은 인간을 시험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인간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지혜, 재능, 기회 또는 그 반대의 사실들, 즉 우리인간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도 시험을 받는다. 인간의 인격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다.

187-1)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구약성서의 율법과 규범을 전하되 그 율법과 규범을 숨기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지 말라고 했거늘

191-1) 혀와 귀와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염원하다.

192-1) 불신자들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벌을 막아줄 어떤 누구도 없도다.

193-1) 선지자 무함마드가 촉구한 유일신 신앙의 믿음

195-1) 이슬람에서 남녀 지위 동등권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 동등권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남녀의 구별이라 함은 단지 본질적으로 남과 여자는 생리적 측면에서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이슬람의 견해이다. 정신적 측면에서도 남녀의 차별은 허락되지 아니한다. 물론 인위적인 차별, 즉 계급이나 부나 지위, 민족, 피부색깔이나 출생에 의한 차별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움무 쌀마」에 의하여 전하여지길 "나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선지자여! 저는 하나님께서 이주하는 여성에 관하여 언급하심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자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에 응하사…"라고 계시가 되었다.

199-1) 유대인과 기독교인 중에 진실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들이 있었다. 「압둘라 이븐 쌀람」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구약과 신약 그리고 꾸란을 믿고 따랐다.

200-1) 「싸브르」는 인내로써 그 인내는 참되고 오래 가며 자제하되 사악함을 거절하여 슬기와 용기로서 그 사악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제4장 수라트 니싸아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176절로 무슬림들을 위한 국내외 문제에 관련된 이슬람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 가정, 가족, 국가 및 사회법,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장의 명칭이 '니싸아'(여성들)의 장이라 불려진 것으로 본다. 본 장에 언급된 주요 사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과 고아의 권리, 결혼과 유산 등에 관련된 여성의 권리.
2. 남자의 결혼지참금 및 유산 분배에 관한 사항.
3. 평등에 입각한 공평한 유산분배의 세부 사항, 양육과 결혼에 관한 사항.
4.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와 정신적 관계.
5. 남편의 아내에 대한 권리와 아내의 남편에 대한 권리.
6. 가정과 공동사회에서의 역할.
7. 국내문제와 국외 안보문제.
8. 무슬림 국가 사이의 국제거래와 비무슬림 국가와의 관계.
9. 위선자들에 대항한 성전.
10.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 예수 관한 기독교인들의 입장.

사람과 사람과의 선린우호관계가 강조된 후 여성과 고아의 권리 및 가족관계 그리고 유산분배에 관한 내용(1~14절), 가정생활의 예의범절, 여성의 명예와 권리, 결혼과 재산 및 유산분배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15~42절), 무슬림 공동사회가 형p.4).성되기 이전 메디나에 거주하면서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선지자를 맞이하여 그분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서 형제애(Ikhwa)가 싹트기 시작하였다는 내용(43~70절),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조직을 하고 위선자들의 음모와 해악에 항상 주의하면서 공동사회를 이탈한 위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79~91절), 전쟁 중이라도 종교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92~104절), 특히 여성과 고아는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승리는 항상 정의와 성실 그리고 중용의 편에 있다는 내용(127~152절), 그리고 성서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따르고 있다는 내용(153~176절)이 언급되고 있다.

1-1) 「낫쓰의 언어적 해석은 (1) 영혼 (2) 자신 (3) 사람 (4) 의지 등으로 풀이된다. 여기서는 인류의 선조인 「아담」을 의미하여 「민하」는 "그것으로 부터"가 언어적 해석으로 그 뜻은 아담으로부터 또는 성경의 해설에서 말하는 아담의 일부 즉 갈비뼈로 부터라고 추리할 수 있다.

2) 창조주의 섭리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것은 성(性)의 신비다. 그런데 이따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갖지 못한 남성은 그의 육체적 강함으로 말미암아 여성이 인간사회 집단에 기여하는 여성들의 역할을 망각하기 쉽다.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는 언제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어머니가 되는 아내도 역시 존경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적 생활을 지배하며 특히 인간의 정서생활을 높은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성의 생활도 높이 존경되어야 한다.

2-1) 고아의 재산을 수탁받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3가지에 대한 의무가 주어진다.
① 시기가 왔을 때 고아의 모든 재산을 환원하여 돌려 주는데 지체해서는 아니되며
② 만일 재산의 목록이 있을 경우 그 목록만 가지고서는 충분치 아니하며, 환원되는 재산의 가격은 수탁했을 때의 가격과 일치해야 하고
③ 수탁받은 재산과 자기재산을 공동관리 하다가 분리하려 할 때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3-1) 고아의 복지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결혼 준칙을 소개하고 있다.
이 결혼 준칙의 선포 시기는「우흐드」전투 이후였다. 이 전투에서 많은 무슬림 병사들의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무슬림 공동체 내에는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대우는 최선을 다해 인간의 박애정신과 평등원칙에 의하여 다루어져야만 했었다.

2) 이슬람이 오기 이전 "암흑시대" 또는 "무지의 시대"라고 불리워지던 시기에는 아내의 숫자에 관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일부다처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이 오면서 4명으로 제한함은 물론 4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는 특수한 환경과 조건이 부여되고 있다. 첫째, 부인이 불임중이어서 자손을 갖지 못할 경우 인간의 본능에 의해 남성은 물론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인까지도 어린애를 갖고 싶어한다. 이럴 때 첫부인과 이혼하느니 보다는 그 부인을 보살피면서 다른 여성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며, 둘재, 부인이 성불능이거나 심한 질병으로 성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을 할 경우 그 부인은 보호해줄 보호자를 잃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질병에 걸린 부인을 보호하면서 다른 여성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 전쟁이나 사고로 인하여 여성의 숫자가 남성의 숫자보다 절대적으로 많을 때 여성의 본능을 치료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성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4명의 부인을 맞아들일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가장 본질적 인간 본능 특히 여성 본능에서 오는 사랑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4명의 부인을 거느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본 절에서도 이러한 특수 환경을 제외하고 또 부인들에게 공평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는 한 부인이 낫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 일부 일처제이나 위에 언급한 특수 환경에서만 일부 4체제가 허용되며 그 조건으로써는 공평성을 제시하고 있다.

5-1) 쑤파하 : 어리석은, 이성을 판가름하지 못한 이란 언어적 해석으로 여기서는 미성년자 고아들을 말한다. 재산과 재물을 관리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슬람 사상이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창조주가 잠시동안 위탁한 것으로 인간은 창조주의 목적을 위해, 즉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편 창조주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책임과 한계가 따른다. 미성년자 고아들에게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성년이 될때까지 맡기지 말고 관리보관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6-1) 결혼할 연령은 성년이 된 나이를 말한다.

2) 보관하던 고아의 재산을 성년이 된 고아에게 넘겨줄 때 증인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창조주가 증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도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

7-1) 이슬람 이전 사회에서는 여성이나 어린이에게는 재산을 유산으로 주지 아니한 일부 아랍인들의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본절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고인이 남긴 재산을 아들이나 친척 그리고 딸이나 여성들에게도 유산을 물려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8-1) 남긴 유산을 분배하는 곳에 상속자가 아닌 고아의 친척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이 참석하였을 경우 남긴 유산의 일부가운데서 그들에게 분배한다는 내용

9-1) 이 절은 위탁을 받는 위탁자들에게 계시된 것으로 고아들을 보살핌에 자기자식처럼 보살피고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손도 허약해 질 수 있고 고아가 되어 다른 위탁자에 의하여 보살핌을 받기 때문이다.

11-1) 꾸란에서는 상속법의 근본 원칙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세칙은 「하디스」와 「끼야스」 그리고 「이즈마아」에서 다루고 있다. 학자들이 꾸란에서 제시한 상속법의 근본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유언을 처분할 수 없는 한계는 재산의 삼분의 일(1/3)에 해당하며 나머지 삼분의 이(2/3)를 상속자들에게 규정된 대로 처분한다.

② 모든 상속분배는 유언과 장례비를 포함한 고인의 모든 부채가 지불된 이후에 시행된다.

③ 유언된 것은 어떤 상속자들에게도 상속될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남자 상속자는 여자 상속자보다 두배에 해당하는 상속을 받는다

본절은 또한 상속 받을 대상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자손 ② 부모 ③ 고인의 남편 또는 아내 ④ 친지들

한편 자손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배는 고정되어 있으나 그 양은 부모가 생존하여 계시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양친이 생존하여 있고 자손이 있을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1/6)의 몫을, 양친이 생존하여 있고 자손이나 다른 상속자가 없을 경우 어머니는(1/3)의몫을 그리고 아버지는 나머지 (2/3)를, 자손은 없으나 고인의 형제 및 자매들이 있을 경우 어머니는 (1/6)를 아버지는 나머지를 갖게 되어 있다.

12-1) 자손을 두지 아니하고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남편은 사망한 부인 재산의 (1/2)를분배받으며, 아내가 자손을 두었을 경우 남편은 (1/4)몫을 갖게 된다. 여성의 경우는 11절에서 규정되었듯이 여성은 남성 몫의 절반을 갖게 되어 있으므로 과부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 (1/4)}을, 만일 남편의 자손이 있을 경우는 (1/8)을 갖는다.

2) 「칼라라트」 어휘는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에 그 정의가 정확히 설명되지 아니한 3가지 어휘중의 하나다. 제2대 칼리프 우마르는 이 어휘와 다른 두 어휘 그리고 다른 두 어휘 즉 「칼리파트」와 「리바」 단어가 선지자 무함마드 생전에 정의되어지기를 바랬었다. 학자들은 「칼라라트」의 해설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유산을 상속받을 자손이나 웃어른 또는 남편이나 부인이 없어 단지 가까운 친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5-1) 여성이 간음 및 간통을 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 이슬람 초기 그들에 대한 벌은 죽을 때 까지 가정에 감금시켜 두었다.(이브누 카씨르 해설) 그후 태형 및 투석형으로 규정되었다.(제2장 2절 참조)

2) 여성의 명예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4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제24장 4절 참조).

16-1) 남녀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간음을 했을 경우 그 쌍방을 똑같이 벌하되 그들이 회개하고 개선하여 공동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관용을 베풀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관용의 방법에서 「파크르 아르라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여성은 가정에 구류시키고 남성에게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되 구류하지 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여성은 외출이 금지됨으로서 또 다른 간음 및 간통을 하지 않게 되며, 한편 남성은 가정에 구금한다 하여도 남성의 본능으로 보아 가정에 앉아 있지 아니하며 또한 가정을 이끌어갈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7-1) 하나님께서 반복되지 않는 종복의 회개를 받아 주신다고 하디스는 언급하고 있다. 한편 죽을때까지 죄악을 반복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87).

19-1) 간음 및 간통

2) 이슬람이 오기전 무지의 시대에서는 형제가 일부 의붓 자식이나 고인의 부인을 하나의 재산으로써 취급하였다. 또한 과부가 재혼을 하려 했을 때 이를 막았으며 또한 남편이 결혼전에 그 여성에게 주었던 지참금을 갈취하는 관습이 있었다.

20-1) 본처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할 때

2) 남자가 여성에게 결혼전에 지급한 지참금

21-1) 혼인서약

23-1)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에 있었던 것들

24-1) 전쟁의 포로와는 이미 결혼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간음이 아닌 합법적인 결혼일 경우는 결혼이 허락된다. 이는 이미 불신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때는 포로의 상태에서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 결혼이 허락됨을 의미한다.

2) 여성의 입장에서 본 결혼의 개념은 그녀 자신의 대부분을 양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성도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 사상이며, 남성이 여성에게 지불하는 지참금(Mahr)은 그 가운데의 하나이다. 최소 한도액의 지참금이 제정되어 있지만 꼭 그 최소한의 지참금에 집착할 필요성은 없으며 당사자간의 신뢰와 사랑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25-1)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란 "지하드"(성전)나 전쟁의 포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이라는 뜻이 아니다. 전쟁의 포로나 모든 전리품은 그 공동사회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란 인칭접미사의 복수형태로 보아서 모든 전리품은 공동의 것임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26-1) 예언자 및 선지자들과 믿음을 가진 의로운 자들의 길

28-1) 율법과 규범을 지키는데 어렵지 아니하고 인간 본능에 따라 지키도록하여 어렵지 않도록 하였으니,

29-1) 본절은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① 위탁받은 재산은 물론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나 공동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이며

② 제2장 188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언급되고 있듯이 남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죄악으로써 경고하고 있다.

여기서는 건전한 경제적 수단과 방법으로써 재산을 증식하도록 언급하고 있으며, 신약성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언급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13절~30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무릇 있는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자는 그 있는것 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어 쫓으리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③ 낭비는 곧 자기 자신의 파멸은 물론 타인의 재산에 대한 욕망으로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된다.

33-1) 「마왈라」의 복수형태로 이 단어의 어근은 「왈라」이다. 「왈라」의 언어적 해석은 "한곳에 또는 친족관계로써 가까이 있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마왈리」의 개념은 (1) 긴밀한 관계자. (2) 상속자 (3) 분배자 및 협력자란 세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44장 44절에서는 "이웃, 친구, 보호자, 피보호자" 등의 의미를, 16장 76절에서는 "주인"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2) 「메카」에서 「메디나」로 천도하였을 때 메디나로 이주했던 메카 사람들과 메디나에 거주했던 그곳 주민사이에 형제애가 결속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람들이 남긴 유산을 서로가 분배받고 분배하게 되었다. 그후 공동사회가 확고히 정

립되자 「메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개됨에 따라 「메카」에서는 혈맹관계의 권리가, 메디나에서는 형제애가 조성되었다.

34-1) 「까우왐」이란 타인의 사업에 열중하고 정직하며 주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인의 업무를 잘돌보아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로써 또는 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한 자세로써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4장 135절과 비교 및 참조).

2) 남편의 부재시 여성이 남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지켜져야 한다. 훌륭한 아내일수록 남편이 있을 때는 순종하여 조화를 이룰려고 노력하고 남편의 부재시는 남편의 명예와 재산과 자녀들과 부인의 순결을 보호한다.

3) 아내로 인한 가정의 불화를 제거하는데는 다음 4가지 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1) 충고로써 가정의 화목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2) 충고로써 어려울 때는 부부생활을 같이하지 않거나 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3) (1)(2)사항으로써 불가능할 때는 가볍게 때려 줄 것이며

(4) 그래도 불가능한 경우는 가족회의를 열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되고 있다(제4장 35절 참조).

35-1)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처럼 법적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즉 남편쪽의 중재자와 부인쪽의 중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한 해결방법이 이상적이라 본다. 법적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 할 때 가정의 치부가 노출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공동사회에 까지 오염되기 때문이다.

36-1) 이웃이란 잘아는 이웃은 물론 알지 못하는 이웃 또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잘 아는 친척, 동료들까지도 포함한다. 친척이 아닌 이웃이란 멀리서 이주하여 온 새로운 이웃과 외국인 이웃을 의미한다.

2) 소유하고 있는 종복들이란 자유시민권이 없는 노예나 포로 또는 자기 권한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까지 포함한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창조주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3) 이슬람의 근본사상은 하나님을 경배함과 아울러 동시에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이다. 이 근본사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보다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37-1)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욕하는 것은 일종의 죄악을 낳게 된다.

41-1) 증인이란 그 시대에 있었던 예언자 또는 그 시대의 민족을 이끌어 갔던 지도자를 불러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인이 되게 하고 무함마드를 증인으로 세울 때 그 시대에 있었던 불신자들 및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했던 자들의 운명을 예시하고 있다.

42-1)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지자들을 거역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벌 앞에 직면했을 때 차라리 땅속에 묻혀 흙으로 돌아 갔으면 하고 갈망하다.

43-1) 티르미지는 알리가 전하는 하디스를 인용하고 있다. 「압두라흐만 이븐 아우프」가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고 우리를 초대하여 술로서 우리의 목을 적셔 주었도다. 나는 술을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였더니 그들이 나를 앞으로 내세워 나는 다음과 같이 읽었다. 불신자들이여! 나는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내가 숭배하며 우리는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숭배하도다 라고 읽었을 때 믿는 신앙인들이여! 술에 취하여 예배하지 말라는 본절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98).

2) 「따얌뭄」이란 깨끗한 모래, 흙, 벽돌, 돌 위에 두 손바닥을 댄다음 손을 털고 얼굴을 한 번 쓰다듬고 두 손을 비빈다. 이것은 물로 씻는 「우두」대신으로

① 예배시간이 되어 “우두”할 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② 병중에 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③ 병중에 물을 사용함으로써 상처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④ 추운 겨울철에 찬물을 이용하여 건강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44-1) 구약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유대인의 장로들

46-1) 구약성서에 계시된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묘사와 투석형의 규범등(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101)

2) 2장 93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유대인들의 오만과 불신의 태도가 그대로 묘사되고 있다. 사실과 진리를 듣고 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과 진리는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조롱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불신자와 다를바가 없다.

47-1) 최후의 예언자에게 계시된 「꾸란」

2) 「구약성서」에 기록된 사실들

3)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을 제거하고 그들을 후미로 가게하리라"가 원뜻이다. 얼굴은 곧 한 인간의 본질을 대표한다. 다시 말하여 얼굴은 바로 그 인간의 명예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성서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명예를 가질 가치가 없다고 입증할 때, 그들은 그들의 얼굴 곧 명예를 잃을 것이다.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의 명예는 가치를 잃게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위치를 갖게 된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된 자로써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써 먼저 될자가 많으니라"

48-1) 하나님께 어떤 것을 비유하며 신격화 하려하는 것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은 용서되지 아니하나 그 밖의 것은 인간이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 용서된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102).

49-1)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민임으로 그들 스스로가 죄악을 순결케 할 수 있다고 말하나 그러나 인간의 죄악을 순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알따브리 452/8).

50-1)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분명한 죄악이다.

51-1) 유대인들이 메카 꾸라이쉬 백성들의 불신자들에 말하길 "당신들은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 보다 더 훌륭한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무지와 신앙에 대한 지식의 그릇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서를 불신함으로써 그들은 무슬림보다 불신자들을 더 좋아하였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403/1).

52-1)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함마드에 대항하기 위하여 「메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교들에게 원조를 구하려 시도하였으나 원조는 커녕 유대인 및 이교도들도 패망하고 말았다.

54-1)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무함마드를 최후의 예언자로 보내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자 이들 유대인들은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2) 다윗의 왕국와 솔로몬의 지혜

55-1) 유대인 중에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믿는자가 있었고

2) 시기함과 질투함은 불과 같은 것으로 그 자체가 지옥인 것이다.

59-1) 「울리 알아므르」 : 어떤 문제를 결정하여 해결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의 최후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가운데서 찾아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인간의 대리인으로 선택받은 예언자들의 말씀과 최후로는 예언자의 순나에 따라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이맘의 가르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슬람의 해결 방법이다.

60-1) 구약과 신약과 꾸란을 믿는 척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위선자들

66-1)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신들을 희생하고 거주지를 떠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68-1) 믿음을 처음 갖게된 초보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첫째는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요.

둘째는 그의 믿음이 점차 온전하여짐에 따라 그는 영적 세계에서 더욱 편안함을 갖게 되고

셋째는 그럼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보상(천국)이 그의 것이 되며

넷째는 올바른 신앙의 길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69-1) 이 절은 가장 심오한 정신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신앙을 갖고 선을 실천하게 될 때 그는 바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적 동반자 가운데 일원이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이는 양지에서 영원한 삶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삶은 바로 성스러운 영역가운데의 하나로 가장 위에 있는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인간을 가르치고 그의 모범과 실천으로 인간을 인도하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영역이다. 이슬람은 선택받은 예언자이며 선지자 무함마드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그 다음 영역은 성실과 진실을 겸비한 사람들의 영역이다. 그들은 그들의 인격으로써 진리를 사랑하고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인품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써 그 진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그 영역은 무함마드의 교우들로써 정립되었다. 초대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가 대표적 인물로써 그의 진실과 성실성으로 진실한 친구(Siddiqi)란 호를 받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순교자들이 정립한 영역이다. 이맘 「하산」과 「후세인」이 대표적 인물이다. 또한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 또는 선교사 또는 신앙을 위해 일생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영역이라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 생활에서 또는 일상업무 및 사업에서 항상 정당한 길을 따르는 정직한 사람들이 정립하는 영역이다.

75-1) 마을이란 「메카」를 일컬으며 압박은 무슬림들에 대한 다신교 특히 우상을 숭배하던 「메카」사람들의 박해를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예언자가 「메디나」로 천도한 이후 이슬람을 믿는 노예나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는 더욱 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원하였다. 이에 응하사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로 하여금 「메카」에 다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이들 약자들에 대한 구원의 기도에 응하셨다.

77-1) 길지도 않는 인간의 수명을 개인적 이익도 없는 전투에 도전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는 위선자들에 대한 대답이 다음 4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1)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현세의 쾌락은 순간이며 그 삶은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인간무상이다.

(2) 자기 본분과 의무를 다함이 곧 정의를 실현함이니 항상 자기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3) 어떤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4) 그러하므로 하나님의 길에 서서 정의와 진리를 위해 성전할 때 그 인간은 현세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됨은 물론 영원한 내세의 행복이 그를 기다린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78-1) 위선자들은 항상 모순을 조성하는 자들로 죄인들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야기된 재앙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이따금 행운이 있을 때는 자기의 탁월한 능력과 수완으로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고 한

다. 어떤 위선자는 그것이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하나님께로 귀의함으로써 이 우주에서 발생되는 모든 원인과 동기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간은 인식해야 한다.

80-1) 하나님께서 예언자 및 선지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하여 가르치고 지도하고 안내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선지자들은 인류를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어진 것이지 악을 감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이들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가 전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81-1) 선지자 무함마드 앞에서 "믿고 순종하나이다"라고 믿는척 말하는 위선자들

82-1)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꾸란이 위조된 것이라면 그들은 큰 모순들을 그 안에서 발견했으리라.

88-1) 믿는 신앙인들이여! 위선자들의 일에 관하여 일부는 그들을 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일부는 그들을 살해 해서는 아니 된다는 두가지의 의견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뇨?

2) 「우흐드」전투에서 위선자들의 탈영은 무슬림 명분에 재앙을 야기시켰다. 이때 「메디나」 무슬림 형제들 가운데는 이들 이탈자들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그들을 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그들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극단적인 이 두가지 방법은 채택이 되지 아니했다. 이슬람에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중용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회개하여 선을 행하고 정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며, 또 다시 무슬림 공동사회를 이탈하는 반 사회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는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시의 법을 적용하였다.

89-1) 위선자들

91-1) 또 다른 위선자들이 있으니 「아싸드」와 「가뜨판」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들은 메디나에 와서는 이슬람에 귀의한 후 무슬림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살 것을 맹세하였으나 그들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면 그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 다시 불신하면서 그들의 맹세를 위반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116-117).

92-1) 이슬람 형제애에서 본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이며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살해하고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하여 야기되는 것은 보상을 함으로써 속죄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우후드」 전투에서 같은 무슬림 형제가 적으로 잘못 간주되어 살해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의도적 살해가 아니었으므로 죄는 아니었으나피해자의 가족이 완전 용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그 가족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됨으로써 가해자는 보상과 또 한명의 믿음이 강한 노예를 해방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그 보상은 피해자가 같은 무슬림 형제이거나 농맹관계를 맺고 있는 부족 및 국가의 일원일 때 보상이 된다. 살해된 자가 믿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소속되어 있는 부족 및 국가와 교전상태에 있을 때는 보상을 하지 않고 한명의 믿음이 강한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충분하다. 만일 가해자가 보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는 두달동안 계속하여 단식을 함으로써 속죄해야 한다(제2장 178조 참조).

93-1) 믿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것으로 그는 곧 불신자라고 이브누 압쓰바는 풀이하고 있다.

95-1) 「쿨란」은 "양쪽"이란 언어적 의미를 갖고 있다. 본문 해설에서는 "두 부류"라고 했는데 두 부류라 함은 재산과 생명을 바쳐가면서 성전하는 사람(Mujahidin)의 부류와 믿음은 강하나 환자, 장님, 불구자등 신체장애로 성전에 임할 수 없는 부류를 의미한다.

96-1) 천국안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참전한 사람(Mujahidin)을 위해 마련한 보상의 등급이 있으되 그 보상의 등급 사이는 하늘과 땅사이 만큼이라고 「니싸이」가

전하고 있다.

97-1) 이주하지 아니하고 메카에 남아 있었던 일부 위선자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조롱하였다. 그런데 불신자였던 메카 군대가 그들 무슬림들을 바드르 전투에 내보냈으며 이들 위선자의 무슬림들이 상처와 부상을 입자 말하길, "저희 동료들은 무슬림이란 것 때문에 강제로 끌려나왔습니다"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427/10).

101-1) 본절은 여행중 의무예배 가운데 4번의 절(Raka'a)을 2번의 절로 단축해서 예배를 근행해도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102, 103, 104절에서는 전쟁시 적의 공격의 위험이 있을 경우 예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 두 경우 의무예배를 단축해서 보는 절차는 선지자와 그분 교우들의 실천사항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여행이라 할 때 그 여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적의 공격의 두려움이 있을 때 의무예배를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여행은 2장 184절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최저거리는 3번 행진코스거리 이상이어야 한다는 해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16 파르싸크, 즉 48마일 또는 걸어서 8-9마일 이상으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말이나 낙타, 기차, 배, 비행기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는 그 여행자의 건강상태와 그때의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한편 적의 공격의 두려움이 의무예배를 실천할 때 단축해야 될 조건인가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필수적 조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즉「주흐르」,「아스르」,「이샤」예배는 4라카아에서 2라카아로 단축하였고「파즈르」와「마그립」은 그대로 예배를 보았다.

102-1) 전시 두려움의 예배를 드릴 때

103-1) 전쟁중이거나 적의 공격위험에 직면하고 있을 때의 예배하는 방법이다.먼저 두 소대로 나누어 1소대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2소대는 후미에서 경계를 하고 제1소대의 예배가 끝나면 제2소대가 예배를 드리는 한편 제1소대 후미로 나가 경계하게 된다. 무기나 장비는 본장 101절에서 언급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소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한편 적의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을 때는 단축해서 드렸던 예배를 단축하지 않는 의무 예배를 행하여야 한다.

104-1) 신앙은 매사에 있어서 희망과 힘의 근원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은 신앙의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없으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은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람과 신앙을 가진 사람과는 같을 수 없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힘이 더 있기 때문이다.

105-1)「따으마 이븐 아비리즈」와 그의 무리들

111-1)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 다음 3가지 형태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첫째,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용서하나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은 용서되지 않는다.

둘째, 지은 죄를 은닉하려 할 경우 그것은 곧 악행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악도 은닉할 수 없으므로 내세에 가서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된다.

셋째,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할 경우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 자기의 죄를 타인이 대신할 수 없어 그 죄악이 그 죄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선지자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112-1) 110절, 111절, 112절을 통하여 다음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첫째,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것과둘째, 인간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 사실을 숨기려 할 때 현세에 사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과 셋째, 인간이 어떤 크고 작은 죄악을 범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하려 할 때 그 인간은 그가 저지른 죄악과 허위로 그의 죄를 더해간다는 사실이다.

114-1) 일반적으로 비밀이라 함은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의심할 여지가 많으므로 이슬람에서는 비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여 협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3가지 경우는 비밀이 허용된다. 이때는 물론 그 동기가 사심이 없이 순수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때이다.

① 물질적, 정신적 또는 어떤 수단에 의한 것이든 자선의 행위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위해서 공개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하고

② 어떤 부정을 시정할 때 그 부정을 가능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당사자와 공동사회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 비밀히 해결함도 허락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제외이다.

③ 양 당사자 간에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그것을 공개하기 전에 중재인을 통하여 먼저 해결하는 것도 허용된다.

117-1) 이나쓰 : 여성의 우상들로 옛 아랍 사람들은 우상들을 여성으로 불렀다. 그 대표적 우상으로는 라트(L t), 웃자(Uzza), 마나트(Man t)가 있었다.

118-1) 사탄의 대부인 이블리스

119-1) 사탄의 대부인 이블리스

125-1)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반려자(Khalil)라는 칭호를 가진 이슬람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한 인간에 불과하나 그의 믿음은 진실하고 순수하였으며 그의 신앙의 실천은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또한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의 근원이 되었으며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에 가서 구체화 되었다.

127-1) 이슬람이전 무지의 시대에서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였다.

2)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이라(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443/1).

131-1) 무슬림

135-1)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서를 믿는다면 진리와 정의를 이행함에 최선을 다하라

136-1)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모든 성서라고 「아부 싸우드」는 말하고 있다(아부 싸우드 389/1).

137-1) 유대인들에게 계시된 절로 모세를 믿다가 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그 모세를 불신하다가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자 다시 모세를 믿다가 그후에 온 예수를 불신하였으며 그후 최후의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불신함으로써 그들 유대인의 불신은 죄악을 더욱 더해만 갔다고 「까따다」와 따브리」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132).

140-1) 구약성서

2) 꾸란

143-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과 불신자들

145-1) 지옥의 7층 가운데서 가장 아래층으로 「이브누 압바스」는 그곳을 가리켜 불속의 가장 아래부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147-1) 위선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 4가지 조건을 실천할 때이다.

첫째, 회개하되 진실되어야 하고 그들의 마음이 개선되어야 하며

둘째, 그들의 행위를 개선하여 그들의 행위가 순수해져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들의 신앙심을 깊게 하고 다시 유혹하는 악을 이겨내야 하며넷째, 신앙생활에 성실해야 한다.

150-1) 본절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관한 말씀으로 이들은 그들의 선지자들만 믿고 무함마드와 그밖의 선지자들을 불신하였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 즉, 선지자들을 불신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

약성서와 모세를 믿었으나 꾸란과 무함마드를 불신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믿음의 중용을 선택하려 하였으나 믿음(Im n)과 불신(Kufur) 사이에는 중용의 길이 있을 수 없다.

153-1) 금송아지

2) 2장51절 본문과 해설참조

154-1) 구약성서의 율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대가로 그들 위에 산을 세웠으며, 겸손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안식일(토요일)날 사냥을 하지 말라 했으나 사냥을 하였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창조주의 말씀에 오만 불손하였다. 제2장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높이 솟은 시나이 산 아래서의 성약과(제2장 63절)

(2) 겸손히 도읍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오만을 부렸으며(2장 58절)

(3) 안식일을 위반하였다(제2장 65절).

156-1) 유대인의 「예수」에 대한 불신과 「마리아」에 대한 모독을 의미한다.(19장 27-28 참조)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모독함은 곧 하나님의 권능을 조롱함이다. 특히 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을 험담할 때는 4명의 증인을 대도록 하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80대의 태형으로 중상모략자를 다스리며 또한 그 중상모략자는 증인이 되는 것도 불허하고 있다(24장 4절 참조).

157-1) 서로 다른 3가지 견해로 첫째,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견해, 둘째,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살해되었다는 견해, 셋째, 예수의 인성(人性)은 십자가를 졌고 신성(神性)은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서로 다른 견해다.

2)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주요 3년을 제외하면 그의 생애는 물론 그가 탄생해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또한 성장이후 그후 사생활은 너무나 신비에 싸여있는 것들이 많다. 특히 예수의 마지막 생애에 관하여는 더욱 그렇다. 정통 기독교 학파는 그가 십자가에 못박혀 생을 마쳤으며, 장사 지낸지 3일 후에 상처입은 그대로 일어나 주위를 걷다가 그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은 후 그의 몸이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학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해되었다고 믿지 않고 있다. 「바실리단」 학파는 예수 대신 어떤 누가 십자가에 살해되었다고 믿고 있다. 한편 「마르시오니트」 복음(A.D 138)에서는 예수가 태어난 것까지 부정하고 단지 그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성 「바르나바」 복음서는 예수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살해당한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꾸란에서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혀 살해되지도 아니했으며 또한 유대인에 의해서 살해된 것도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다. 예수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다음 158절은 제시하고 있다.

158-1) 예수

159-1) "그가 죽기전에" 여기서 "그가"는 학자에 따라 2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즉 예수가 죽지 아니하였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학파는 "그가를" 예수로 풀이하고 있다. 예수는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는 최후의 날이 오기 이전에 나타나 「이맘 마흐디」가 오는 것을 준비하게 되니 이때는 세상이 죄악과 불신으로부터 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다른 학파는 "그의" 뜻은 그 성서의 백성들 모두를 가르키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2) 예수

160-1) 유대인의 율법은 낙타와 토끼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레비기 11장 4-6절). 또한 황소와 양 그리고 염소의 지방질도 금지되고 있다(레비기 7장 23절).

163-1) 말씀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으며, 무함마드에게도 이들 선지자들에게 계시

되었던 것처럼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메세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지자는 각 공동체에 보내어졌으며 선지자들의 이름이 꾸란에 명시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있고(꾸란 10장 47절) 또 언급되지 않는 선지자들도 있다(4장 164절).

164-1) 하나님은 시나이 산에서 구름을 통하여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출애굽기 34장 5절).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모세를「칼림무 알라」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자"라고 칭호를 붙이고 있다.

171-1) 예수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첫째, 예수는 아담의 후예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마리아에게 한 남자가 있었다고 보아 예수는 한 인간의 아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

둘째, 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는 선지자로 볼 때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

셋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있어라 : 쿤」「그러면 있을 것이니라 : 파야쿤」에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는 있었다(3장 59절).

넷째, 예수는 하나님의 영혼에 의해 태어났으니 다른 선지자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써 존경해야 한다는 삼위일체설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홀로 계심을 부정하고 있다.

172-1) 예수는 이따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겸손한 종복으로써 나타나시곤 하였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의 번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괴로움과 겸손으로 가득차 있었다(마태복음 26장 36-45절 창조).

174-1) 선지자 무함마드

2) 꾸란

176-1) 유산을 물려 받은 부모와 자식(Khalila)을 두지 않고 임종할 경우

제5장 수라트 알마이다

본 장은「바까라」,「니싸」또「안팔」장과 마찬가지로 이슬람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리 및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신성과 유일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큰 죄로 간주하고 있다. 모든 의무—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해야 할 의무이건 또한 신성한 신의 세계를 향한 의무이건 간에—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본 장이 시작되고 있다. 음식에 관한 규정(1~6절), 몸을 깨끗이 하고 거래를 올바르게 하는 신앙(7~12절), 만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성스러운 약속을 위반할 경우 경고를 받게 된다는 내용(13~29절), 카인에 의한 아벨의 살인을 예로 들면서 정직한 사람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그러나 그 시기와 질투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필연적이므로 정직한 인간은 슬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제30~46), 무슬림은 편견이 없는 정의를 실천하되 형제애와 믿음은 어떠한 모욕과 조롱이 있더라고 보호해야 하며 항상 겸허하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야한다는 내용(47~89절), 무슬림은 항상 허락된 일용할 양식을 섭취하되 낭비해서는 아니 되며 욕설과 비방, 음주와 도박, 미신과 우상숭배 허위와 위조와 위증은 용서될 수 될 수 없다는 것(90~111), 그리고 예수가 행한 기적들에 관한 내용(112~120절) 등을 다루고 있다.본장의 명칭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만찬을 위해 하늘로부터 식탁(마이다)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4).

1-1) 의무라 함은 인간과 창조주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약속 의무를 말한다. 한편 「이브느 압바스」는 창조주께서 꾸란이 허락한 것과 금지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5).

2) 낙타, 소, 양 등 본장에서 금기하지 아니한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다. 한편 죽은 짐승, 짐승의 피, 돼지고기 등은 금기이다.

3) 「후르문」 즉 ① 성역안에 있거나 ② 「이흐람」 상태에 있을때는 사냥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사냥에서 잡은 짐승도 사용해서는 않된다(제5장 97-98절 참조).

2-1) 「사파」와 「마르와」 동산은 하나님의 상징이라 불리우고 있다. 여기서는 그 상징이 순례와 관계되는 것으로
① 장소 즉 「사파」와 「마르와」동산, 카으바 신전, 아라파트
② 예식과 그 기간
③ 금기(무슬림의 사냥금기)
④ 시기와 계절 등을 말한다(제2장 158절, 2장 194-200절 참조).

2) 성스러운 달이란 성지순례하는 달을 포함하여 다음 4달을 말한다. 라잡(7월), 둘 까으다(11월), 둘핫지(12월), 무하르람(1월) 4개월은 성스러운 달로써 전쟁이 금지되어 있다(4장 36절 참조).

3) 이슬람역 6년 이교도들은 무슬림들에 대한 증오와 확대로서 무슬림이 하람사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후 무슬림들이 메카를 회복했을 때 소수의 무슬림들은 그들 이교도들에게 보복을 하고자 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순례를 하는 것도 제외하려 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며 경고하였으니 악을 악으로, 증오를 증오로 보복해서는 아니되며 진리와 신앙을 위해서 악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의 일반원칙이다.

3-1) 제2장 173, 174절 해설참조 : 죽은 고기, 피, 돼지고기, 우상숭배로 제단에 바친 고기 등.

2) 목졸라 죽은고기, 때려서 잡은고기, 떨어져서 죽은고기, 서로 싸워서 죽은고기는 피가 응결되기 때문에 부패성이 있다. 그러나 그 동물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그 피는 살아있는 혈구이므로 이슬람 도살법(하디쓰 40선 해설. 최영길. p.74 참조)으로 도살하면 허용된다.

3) 우상에 바쳤던 음식은 물론 제사 지냈던 고기, 고사를 지낸 고기 등을 의미한다.

4) 이슬람에서는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도박, 내기, 투기, 복권등은 금기이다. 제2장 291절 참조

5) 이슬람 초기에 불신자들 및 이교도들은 자기 공동체의 법률로써 이슬람을 배우는 신앙인들을 약하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슬람공동체가 형성된 후 그러한 이교도들의 기대는 사라졌다.

6) 이슬람법(샤리아)

7) 그러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기아 상태에서 오는 죽음으로부터 구제되기 위해서 또는 고의적이 아닌 실수에 의해서 금기된 고기를 섭취했을 경우 용서가 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샤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7).

4-1) 도살하는 이슬람 도살법은 「바쓰밀라」,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암송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창조주가 주신 짐승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또한 그 짐승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귀의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길들인 짐승이 잡은 고기는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이슬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길들인 짐승이 사냥한 고기는 허용되나 다음 사항에 준해서이다.

첫째는 주인이 사냥하도록 짐승을 훈련시킬 때 단순한 주인의 식욕이나 어떤 사냥의 오락으로 길들여진 짐승이 아니라 주인의 식량으로 사냥 하도록 길들어져야 하며, 둘째는 길들인 짐승에 의하여 쫓기는 사냥감에 대해 「타크비르」 즉 "알라후 아크바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라고 암송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The Holy Quran, Text, Translation & Cornmentary, Yusuf Ali p.241) 길들인 짐승이 사냥하여 사냥된 짐승의 일부분이라도 먹었다면 그것은 다음 하디스에 근거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너희가 길들인 사냥개를 보내어 그 사냥개가 사냥을하여 먹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양식으로 하되 그 사냥개가 일부분을 먹었을 경우는 음식으로 취하지 말라"

5-1) 짐승을 식용으로 도살하는 방법은 이슬람이나 기독교 및 유대교가 엄숙하게 창조주에게 경의를 표시하고서 도살한다는 점과, 이교도들이 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잡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와 일치하고 있다(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사도행전 15장 20절).

2) 이슬람에서는 성서의 백성들, 즉 기독교인 및 유대인들과의 사회적 일상거래는 물론 결혼까지도 허용된다. 한편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무슬림의 여성이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무슬림 여성의 윤리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6-1) 우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니야(의도)
② 비쓰밀라(비쓰밀라 히르라-흐 마-니르라힘)
③ 오른손부터 팔목까지 3번씻고
④ 왼손 팔목까지 3번
⑤ 입안에 물로 3번 양치질하여 내고
⑥ 콧구멍 속을 물로 3번 씻어내고
⑦ 얼굴 3번 씻고
⑧ 오른발을 발목까지 3번
⑨ 왼발을 발목까지 3번 씻는다.

2) 따얌뭄은 우두(세수)나 구슬(목욕) 할 물을 발견치 못했을 경우 물 대신 깨끗한 모래, 흙, 자갈, 돌 등에 양 손바닥을 살짝 댄후 묻은 먼지를 털어버린 후 얼굴을 한 번 쓰다듬은 다음에 손바닥으로 양손을 비비면 된다. 따얌뭄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① 물이 없을 경우
② 병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③ 추운 겨울에 물을 사용하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7-1) 이 성약은 「미나」 계곡 근처 「아까바」에 있었던 백성들에 의한 약속이며 서약이었다. 헤즈라 이전 14개월간의 성약이 있었고 그 이후의 성약이 있었으며 이 성약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충성의 성약이었는데 이는 「모세」 시절에 「시나이」 산 계곡 아래서 있었던 성약과 비교가 된다(2장 63절 참조).

8-1) 하나님의 적들이었던 불신자들과도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잠카샤리」는 풀이하고 있다(알카샤프 476/1).

9-1) 내세에서의 관용과 용서 그리고 가장 큰 보상이며 은혜인 천국을 믿고 의로움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약속 되었다.

11-1) 「바누 나디르」가 선지자 무함마드 머리 위에 맷돌을 던져 그분과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고통을 주려했을 때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496/1)

12-1) 이때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대

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출애굽기 19장 7-8절) 이것은 시나이 산 아래서 있었던 것이다.(민수기 4-16절, 8장 1-16절 참조)

2)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돈과 재산

3) 파라오 멸망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정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샴」지역의 아리하로 가라 하였다. 이 당시 이곳에는 오만하고 거만한 가나안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내가 그곳을 거주지와 안식처로 하였나니 그곳에서 성전하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후 모세에게 명령하여 열두 장로를 선발하여 그들과 함께 가라 하였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사람들을 보내 정탐하였더니 몸이 크고 힘이 세고 갑옷으로 무장한 백성들을 발견하고서 도망하여 돌아와 그들 백성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누설하지 말라 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두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계약을 위반하였다(알카샤프 478/1).

13-1)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에 크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낳았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오용하여 죄를 지었고,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세지와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여 갔으며,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새로운 이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2)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추방하였고

14-1) 기독교인과의 성약은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그 제자들은 「아흐마드」가 온다는 성약을 받아들였다(꾸란 lxi 6절 참조). 또한 요한복음 16장 26절, 16장 7절에서도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15장 26절)"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16장 7절)"

15-1)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여

2)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

3) 꾸란

16-1) 꾸란

2) 불신의 상태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가장 곧바른 길인 이슬람으로 인도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17-1) 나사라 즉 기독교의 일파는 예수가 주님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어떤 파는 매시아가 곧 하나님이라 하며, 어떤 파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무리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요 아들이라는 성부=성자=성신의 삼위일체설을 주장하는 무리도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48/3).

18-1) "하나님의 아들" 욥기 38장 7절과 비교 :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19-1)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여!

2) 예수그리스도 이후 무함마드가 도래할 때까지의 650년간은 암흑의 공백기간이었다. 신앙은 부패되었고 도덕과 윤리는 타락되었으며 허위와 위선이 범람하였다.

20-1) 이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야곱 등 예언자들을 말함

2)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니 그들은 마치 왕들이 된 것 같았다.

3)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출애굽기 19장 5절)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로써 창조주의 은총을 크게 받았던 백성이었다.

21-1) "성역"이라함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바이다위」는 예언자들의 정착지였으며 믿는 사람들의 거주지였던 「예루살렘」으로 풀이하고 있다(알바이돠이 p.148).
2) 폭군들이 무서워 돌아오지 말라는 뜻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 성역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들은 그곳의 폭군들이 두려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였다(알타쓰힐 1/173).
22-1)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무화과가 풍성한 가나안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유산을 위해 성전하려 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적들이 나가면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23-1) 가나안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모세의 백성가운데 두 남자가 있었으니 이들은 신앙과 용기로 가득차 있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리브」였다. 여호수아는 모세 통치 40년이후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들 두 남자는 서둘러 가장 적합한 입구를 통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The Holy Quran. Text, Translatioin Commentary · Yusuf Ali. p.249. No.726).
24-1) 여호수아와 갈리브의 충고, 계시에 따라 지시한 모세의 제안은 이들 군중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했다. 여호수아와 갈리브와 함께 동행했던 10명의 다른 남성들이 가나안에 세워두었던 큰 우상들에 놀라 그릇되게 보고한 것으로 인하여 군중들은 크게 오해하고 편견을 하게 되어 오히려 군중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리브에게 공공연하게 적대시하며 돌을 던지려까지 하였다.
25-1) 모세
2) 하론
3)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앞에서 엎드린지라"(민수기 14장 5절),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답하시길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민수기 14장 12절)
26-1)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말씀하셨으니,
2)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들 백성들은 크게 방황 하였다.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기적으로 보고도 이같이 열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경청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이십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야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수사십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환산하여 그 사십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찌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에 탐지하려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민수기 14장 22절-38절)

27-1) 무함마드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교훈을 일러주도록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17).

2) 아벨의 제물은 수락되었으나 카인의 제물은 수락되지 아니했다.

3) 아담은 카인과 아벨의 두 자손을 두었다. 카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그의 아우였는데 아우인 아벨은 그의 형인 카인에 비해 어떤일에 있어서이던 정직하였고 성실하였다. 카인은 오만과 질투로 아벨을 살해하였으니 카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기독교인 중에는 카인을 기독교에 대항하는 전형적 유대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유대인은 예수를 살해하려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 하였다. 마찬가지로 한 핏줄을 이어받은 샘족인 무함마드에 대하여도 그러했다(창세기 4장 3-12절 참조).

28-1) 아벨은 카인보다 힘이 더 강하였기 때문에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려 했을 때 카인을 살해할 수 있었으나 아벨의 형제를 살해한다는 것은 죄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였기 때문에 카인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17).

29-1) 내가(아벨) 당신(카인)을 살해 하는 것 보다는 당신이 나를 살해하는 편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인자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알바흐르 463/3).

30-1) 질투와 시기로 카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다.

31-1) 하나님은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내어 그 까마귀로 하여금 그의 부리와 발톱으로 땅을 파 살인자 카인으로 하여금 그의 아우 아벨의 시체를 매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편 「무자히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아담의 자손으로는 최초로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마리의 까마귀를 보내어 그 둘이 싸워 한 마리가 살해되자 살아남은 까마귀가 부리와 발톱으로 땅을 파고 죽은 까마귀를 매장하도록 함으로써 카인은 죽은 아벨의 시체를 매장하게 되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18).

32-1) 카인과 아벨의 사건 그리고 그의 아우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2) 의로운 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를 율법으로 금기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살해하였다.

33-1) 오른손과 왼발 또는 왼손과 오른발

2) 국외 추방이라고 「샤피」는 풀이하고, 「아부 하니파」는 투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브누 하리르」는 국외추방으로 그곳에서 투옥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3) 율법과 국가법을 모독하는 반역자에 대한 형벌로써 4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즉 ① 목을 자르는 사형, ② 형틀에 못박혀 처형하는 것, ③ 손발을 절단하는 형, ④ 추방하는 형의 4가지 형사 체벌이 있다. 한편 고문은 제외되고 있다.

35-1) 하나님 법에의 순종과 선의 실천

38-1) 일반교회 법률가들은 물건을 훔친 죄인에 대한 벌로써 손목을 자른다는데 있어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범일 경우는 이 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가들의 견해이다. 한편 초범일 경우는 한쪽 손만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로 이것은 다음에 의거한 것이다. :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마태복음 18장 8절). 한편 예수시절에는 십자가에 못박혀 형을 받았다.

41-1) 구약에 있는 창조주의 율법을 변조한 것으로 투석형을 가죽태형으로 바꾼 것

등을 의미한다(알바흐르 488/3).

2) 무함마드가 가죽태형을 명령할 때는 수락하고 투석형을 명령할때는 수락하지 말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23).

42-1) 금기된 재산이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취하는 고리대금, 뇌물, 권력을 이용한 약자의 재산을 모으는 것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44-1)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즉 구약은 많은 사실이 변절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를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인간과 그 통치자들을 두려워 했기 때문에 그들 목적에 적합하도록 변절하였으며, 또한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율법위에 역사와 전설과 시귀절이 첨가 되었다. 꾸란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약은 최초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원본 대로의 구약(Torah)을 의미한다.

45-1) 의도적이 아닌 실수나 정신이상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일정한 보상내지는 순수한 관용으로 용서할 때 피해자에게는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으로 「이브누 압바스」는 설명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522/1).

46-1) 예언자들

47-1)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신약(Injil)을 계시하고 예수와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신약의 율법대로 심판하라 하였다.

48-1) 우리(하나님)가 그대 무함마드에게 의심할 바 없는 진리와 정의로써 꾸란을 계시하니라.

49-1) 그대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의 율법으로 성서의 백성들을 심판하되 변질된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

50-1) 하나님 율법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이슬람 이전 암흑시대의 재판을 의미

52-1) 「압둘라 이븐 우바이아」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의심과 위선으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무리에게로 갔다.

2) 메카의 불신자들에 대한 승리(알카샤프프 499/1)

53-1) 어떤 현세적 이익이 엿보일때나 이슬람의 승리가 엿보일 때만 무슬림인척 행세하는 위선자들.

2) 위선자들

54-1) "진리의 종교를 이탈하여 다른 종교로 전환 하거나 믿음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자 있다면"라는 뜻으로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 및 제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 시디끄」 시절에는 「무싸이라마」같은 배교자가 있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29).

55-1) 무슬림을 위한 보호자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지자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로 믿는 신앙인들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항상 겸손하고 예의바른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57-1) 「라파아 이븐 제이드」와 「쑤와이드 이븐 알하-리쓰」는 이슬람에 귀의한 후 다시 위선자가 되었으며무슬림들이 이들 두 위선자들을 동료로 삼자 이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아쓰바-브 알누줄 일와-히드 p.114).

58-1) 유대인들은 아잔 소리를 듣자 선지자 무함마드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말하길, "예언자들에게 없었던 어떤 것을 그대가 만들었느뇨? 가장 추한 당나귀 같은 소리를 어디서 가져왔느뇨?" 라고 조롱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알바흐르 515/3).

60-1) 원숭이에 관한 해설은 제2장 65절 참조

여기서 원숭이와 돼지는 풍자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사람은 원숭이와 같이 무법적이며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고 무질서에 탐닉하는 자를 돼지에 비유하고 있다. 마태복음 8장 30-32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며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61-1) 위선적으로 이슬람에 귀의한 유대인들

64-1) 종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양식을 베푸심에 인색하며,마글룰라"는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어 인색하다는 뜻

66-1) "그 이상의 참된 진리"란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을 참된 진리로 풀이하였고 원래 이 절이 갖고 있는 언어적 해설은 "그들 위로부터 그리고 그들 발밑으로부터 그들은 섭취하느니라"이다. 여기서 "그들 위로부터"가 의미하는 것은 정신적 진리 또는 내세적 행복으로 "그들 발밑으로부터"는 물질적 행복 또는 현세적 행복으로 풀이된다.

2) 「압둘라 이븐 쌀람」, 「나좌씨」, 「쌀만」

67-1)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하여 「이브누 압바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나는 그것을 수행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였는바 사람들중에 나를 거짓장이라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아쓰바브 알누줄 p.115).

2) 주님께서 그대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전하라. 만일 그 가운데 일부라도 숨긴 것이 있다면 그대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알꾸르뚜비 242/6).

68-1) 「압바스」는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으로 풀이하고 있다.

2) 예언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 슬픔을 금기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되고 있다(알꾸르뚜비 476/10).

69-1)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 무슬림들

2) 별들을 숭배하던 기독교의 일파

3) 예수를 따르는 이들

70-1)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선지자에 대한 믿음

2) 2장 87절과 해설 참조

71-1)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살해하고서도 그들에게 아무런 재앙이 없으리라 생각하였다.

2) 해악을 퍼트리며 복음에 눈을 돌리고 진리의 소리에 귀를 막는다.

3)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으나(알꾸르뚜비 248/6)

72-1) 예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경배함에 소홀히 하는 백성과 또한 유혹하는 사탄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마태복음 4장 10절) 또 예수는 자기를 훌륭한 주인이라 부르는 한 통치자를 나무랬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누가복음 18장 19절) 또 예수는 창조주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다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마가복음 12장 29절) 즉 삼위일체설을 부정하고 있다.

2) 예수가 어렸을 때 최초로 한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말했을 뿐 "내가 하나님이요" 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아니했다. 실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성서를 주시고 나를 예언자로 하셨도다"(이브누 카씨르 536/10)

73-1) 하나님은 「누쓰뚜리야」와 「말리카니야」 그리고 「알라」 셋 신중의 하나라 말하는 나사라의 일파가 있고, 하나님과 예수와 마리아의 합일이 하나님이라 표현한 무리가 있었고, 성부=성자=성신 곧 삼위일체설로 하나님을 보는 견해도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36 참조).

74-1)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며 은혜를 베푼다고 「바이돠위」는 풀이하고 있다.

75-1) 마리아는 그녀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말하지 아니 하였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라 말하지 아니 하였으니 마리아는 진실했다.

76-1) 예언자 무함마드여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에게 이익도 줄 수 없고 손실도 줄 수 없는 것을 숭배하려 하는가?"라고 말하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37).

77-1)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여!

2) 예수가 신이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기독교인의 무리나,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간음에서 탄생한 아들이라 말한 유대인의 무리처럼 과장하지 말라(알꾸르뚜비 252/6).

3) 최후의 예언자가 도래하기 전 선조들의 방황

78-1) 다윗의 시편에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저주의 구절들이 있다.

시편 109장 17-18에서,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또 시편 18장 22-22에서 ;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명령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80-1) 유대인중에 많은 무리가

2) 최후의 선지자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들을 불신한 자들로 「카아브 이븐 아쉬라프」와 그의 추종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절 p.38).

81-1) 유대인들

82-1) 믿는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의 진가를 인정하는 성실한 기독교인을 의미한다. 즉 무슬림 피난민들이 메카 이교도들의 박해를 피하여 온 이들에게 아비시니아 백성들이 베풀어주었던 사랑을 말한다. 이들 아비시니아인들이 무슬림 피난민들에게 말하길 "우리가 기독교인임은 사실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견해를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맞아 준 이들을 의미한다.

83-1) 이 절은 백성들에게 「자으파르 이븐 아비 딸립」이 꾸란의 말씀을 낭송했을 때 그 진리를 깨닫고 그들의 눈이 눈물로 가득찼음을 얘기하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539/1).

2) 주여! 당신의 예언자와 당신이 보내주신 성서를 믿나니

85-1) 그들의 믿음과 진리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실천.

86-1)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도래를 조롱하는 자들.

87-1) 「따브리」가 「아크라」를 인용한 풀이에 따르면 선지자 무함마드의 동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아름다운 의상이나 맛있는 고기 및 여성에 대해 멀리하려 하였다. 이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알타쓰힐 p.186).

88-1) 모든 할랄(허용된 것) 음식과 여성 그리고 그밖에 허용된 모든 것

89-1) 「하니파」와 「한발리」는 3일간을 연속해서 단식해야 한다고 풀이하고 「샤피」와 「말리키」는 연속할 의무는 없다고 풀이하였다. 「따브리」는 어떻게 단식을 하였던 간에-연속해서 단식하던 또는 그렇게 아니하던-보상이 있다고 해석을 붙이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42).

90-1) 취하게 하는 모든 술과 도박이 이슬람이전 무지의 시대에 성행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제2장 219절 참조).

2) 안-싸브 : 제물을 바치던 돌 제단들
3) 화살을 이용한 점성술
91-1) "술과 도박은 2가지를 크게 해치게 되니 현세와 내세를 해치는 것"이라고 「아부 하이얀」은 말하고 있다.
93-1) 슬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계시되었을 때 백성들이 묻기를 "우리 가운데 술을 마셨으며 도박을 하다가 이 말씀이 계시되기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전에 먹은 것들은 죄악이 아니다"라고 계시가 내려졌다.
94-1) 성지순례 및 「우무라」로 「이흐람」 상태에 있을 때 사냥은 금지되어 있다. 그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면 그것은 곧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경배함이 없는 것과 같다(사프와트 타파씨르 p.43). (제3장 154절 및 166절 참조)
95-1) 「이흐람」 상태에서 살생은 금기지만 부주위에 의한 살생은 벌을 받지 아니하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의도적 살생은 물론 부주의에 의한 살생도 예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부주의로 인한 살생을 하였을 경우는 다음 3가지의 보상 방법이 있다.

첫째는 그가 살생한 가축과 같은 가축을 「카으바」 신전에서 희생하여 그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주거나,

둘째는 양곡 및 현금으로 그가 살생한 동물의 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려 대접하는 것과,

셋째는 살생자가 배불리 먹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에 해당하는 날 만큼 단식을 함으로써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하는 방법이다.

2) 금지가 되기 이전에 살생을 의미한다.
96-1) 「이흐람」 상태에 있더라도 바다고기를 잡거나 사냥하여 먹는 것은 제외된다.
97-1) 성스러운 달은 「둘 까으다」 「둘 힐자」 「무하르람」 그리고 「라잡」 4개월을 말한다.
99-1) 피조물의 모든 상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안으로 숨기는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기에 보상과 벌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의미(알바흐르 27/4)
100-1) 좋은 땅은 주님의 뜻에 따라 식물을 생성시키나 나쁜 땅은 재앙에는 배출하는 것이 없느니라(알바흐르 27/4).
102-1)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부질없는 질문들을 한 것은 곧 그들의 마음에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있을 수 없으며 부질없는 질문은 어리석은 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제2장 68-71절 참조)
103-1) 이슬람이전 및 초기에 아랍인들이 믿었던 미신의 종류로써 암컷의 낙타나 다른 암컷의 가축동물이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을 경우 암컷이나 또는 새끼 한 마리의 귀를 잘라 신에게 바쳤다. 이때 바쳤던 그 짐승을 "바히라"라고 하며,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거나 병에서 회복되었을 경우 암컷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바쳤다. 이때 그 짐승을 "싸이바"라 한다. 또한 짐승이 쌍둥이 새끼를 낳은 그곳에는 우상에게 어떤 제물을 바쳤다. 이때 바친 제물의 동물을 "와씰-라"라 하며 어떤 예식에 따라 신에게 바쳤던 낙타는 "하미"라고 불리워졌다. 이러한 미신은 무지에서 기인된 것으로 인간을 저하시켜 창조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105-1)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 개인이 행한 결과의 사실에 따라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이다.
106-1) 유언의 증인으로 2명을 두되 무슬림 증인이 원칙이나 무슬림의 형제가 없을 경우는 무슬림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도 2명의 증인을 두어야 한다.
109-1) 심판하여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모든 선지자들과 피조물을 모아
2)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믿음과 진리로 인도했을 때 그들 백성들의 응답 및 태도
110-1) 가브리엘 천사를 가르킴

2) "나의 뜻"이란 예수의 기적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능력과 의지에 의한 기적이 아니라 "나의 뜻" 곧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3)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음모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살해하려 하였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누가복음 4장 28-29절), 그러나 그들의 음모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꾸란 4장 157절).

111-1) 무함마드 이전이나 무함마드 이후를 막론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한 모든 신도들은 무슬림이었으며 그들의 종교는 이슬람이었다.

112-1) 예수 제자들의 그러한 질문은 다음 3가지 의미로 풀이된다.첫째는 이들 제자들의 믿음이 결여되었거나, 둘째는 육체적 양식에 너무나 탐닉하여 있거나, 셋째는 어린이가 아무런 의도없이 기적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들 제자들도 어린이와 같은 질문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은 성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므로 그를 떠나달라고 요구하였다(누가복음 5장 8절). 그후 베드로는 그의 주인이 적중에 있을 때 그의 주인을 여러차례 부정하였다. 또한 유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배반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들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거나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음식과 음료수 등 여러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 술이 되었고(요한복음 2장 1절-11절) 다섯 조각의 빵과 2마리의 조그마한 물고기로 5,000명을 배불리 먹었고(요한복음 6장 5-13절)

배가 고파 무화과 나무에 이르렀을 때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 나무를 저주하여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것(마태복음 21장 18-19절),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요한복음 6장 53-57절)의 비유법 등은 제자들의 물적욕심과 탐닉으로 볼 수 있으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가 그들의 마을로 입성함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면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누가복음 9장 54절)

114-1) 제자들이 풍성한 식탁을 선지자에게 요구하매 주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 그 식탁(마이다)을 말씀으로 비유하여 계시하심을 의미한다.

2) 저희와 저희 이후에 올 이들을 위해

119-1) 심판의 날 또는 부활의 날

제6장 수라트 알안암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65장으로 이슬람의 기본원리 그리고 믿음의 진수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첫째 창조주로써의 유일신과 피조물, 둘째는 계시 및 메시지, 셋째는 부활과 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과 이교도들의 허약성(1~30절), 현세의 인생과 삶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의 오감으로써 알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알 수 없는 영역까지를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는 것(31~60절),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은 창조주 유일성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는 것(61~82절), 아브라함 이후 많은 선지자 및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오면서 최후의 예언자 무하마드를 통해서 꾸란으로 완성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과 우주만물과 인류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생각하여

볼 때 하나님의 위대성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83~110절), 오만하고 거만하며 불손한 인간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벌이 필연적이라는 것(111~129절), 죄악과 미신에 젖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것(130~150절), 그러나 가장 올바른 길은 꾸란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로써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151~165절).

본 장이 '안암'(가축들)장이라 불려진 된 동기는 가축들의 이름들이 본 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56).

1-1) 어둠과 빛 그리고 밤과 낮을 창조하시어 피조물로 하여금 유용케 하였으니… 본 절은 불과 그밖의 여러 빛을 숭배하던 마주쓰들의 "선은 빛으로부터 오며 악은 어둠으로부터 온다는 그들 미신에 대하여 계시된 점도 피조물은 절대로 신(God)이 될 수도 없으며 또한 어떤 사건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알타쓰힐 2/2)

2-1) 흙으로부터 너희 선조 아담을 창조하신 후

2) 또 하나의 운명이란 부활하는 운명을 말하며 그 첫째의 운명은 죽음으로, 죽음과 부활은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하고 있다.

3) 너희 불신자들

4-1) 증거, 어떤 기적 또는 꾸란의 어떤 절

2)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천지창조 그리고 주님의 존재에 대하여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행한 기적들 및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예증에 관하여 숙고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였다(알꾸르뚜비 390/6).

5-1) 그것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꾸란」을 가르킨다.

6-1) 이전의 백성들이 창조주의 율법을 거역했을 때 그들을 멸망케 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교훈의 제시로 「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77/4).

7-1) "성문화 된"의 해설은 아랍어의 "끼르따-쓰"(양피지)에 기록된 것에서 유래한다. 선지자 시절에는 기원전 2세기 동안 서부 아세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이 양피지가 있었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 차르테스(chartes)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중국인들이 기원전 2세기까지 사용하던 것을 서기 751년 사마르칸트 정복이후 아랍인들에 의하여 사용되다가 아랍인에 의하여 유럽으로 전하여졌으며 그리스에서는 11~12세기에, 스페인에서는 시실리를 거쳐 12세기에 사용되었다.

이 애굽의 갈대에서 만들어진 파피루스는 기원 2500년전 이집트에서 사용되었으나 종이는 13세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메카 불신자들이 말하길, "무함마드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우리는 그대가 기록된 성서를 가지고 오되 그 성서에 대해 4명의 천사들이 그 성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대가 그분의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그대를 믿지 않겠다"고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아쓰바브 알누줄 122).

8-1) 무함마드

9-1) 천사

2) 천사의 속성은 빛으로 창조된 인간의 시안으로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창조주께서 불신자들이 요구한대로 천사를 무함마드에게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인간의 형태로하여 임하도록 할 수 밖에는 없다.이때 불신자들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천사를 보고 천사라고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욱 혼돈케 할 뿐이다(이브누 카씨르 알무크타싸르 569/1).

10-1) 사도 바울의 친구 디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그 곳에 있던 예수를 조롱하던 불신자들 및 무함마드를 메카로부터 추방하여 조롱하던 불신자들, 이들

모두는 무함마드가 승리하여 메카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그들은 용서를 강구하였다.

11-1) 조롱하고 비웃던 이들에게

12-1) 부활의 날 무덤으로부터 너회를 부활시켜 행한 업적에 따라 보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다.

14-1) 무함마드

2) 일용할 양식을 수여하실 뿐 받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는 절대자를 의미한다.

3) 무함마드

4)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슬람을 믿되 하나님께 피조물을 비유하지 말라 하였다.

16-1) 벌.

19-1) 메카 부족장들이 무함마드에게 말하길, "그대 무함마드가 말하는 것을 믿는자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으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그대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그들은 그대에 관한 어떤 언급이나 묘사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니 누가 그대 무함마드를 선지자라고 믿을 증언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다오"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아쓰바 브 알누줄 122).

2)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말씀하사,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 증언이냐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와 너회 사이의 증인이라 그들에게 말하여라"(알타쓰힐 5/2)

20-1) 유대인과 기독교인

2)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의미한다. 그들의 성서 즉 구약과 신약에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로 임하심이 계시되고 있음을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제2장 146절 참조).

21-1) 하나님에 대한 거짓함과 거역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꾸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을 마술이라 조롱한 것

22-1) 우상들 및 하나님외에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신들. 「바이돠위」는 꾸란에 있는 불신자들의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풀이하고 있다(알바이돠이 169).

23-1) "피트나"는 "파타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시험하다, 유혹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2장 102절에는 "피트나"가 유혹 또는 시험으로, 제2장 191, 193, 217절에서는 박해나 학대, 제3장 7절에서는 불화로 여기서는 핑계 또는 구실, 변명으로 풀이되고 있다.

25-1) 「아부 수피얀」과 「알왈리드 이븐 알무기라」와 「알나다르 이븐 알 하리쓰」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꾸란을 낭송하는 곳에 앉아 「나다르」에게 말하길, "무함마드가 무어라 말하느뇨?" 라고 말하니 「나다르」는 "너회에게 지난 일에 관해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옛 선조들의 우화를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에 의하여 전하여지고 있다(알꾸르뚜비 414/6).

2) 그것은 꾸란을 의미하며 그것들은 무함마드가 낭송한 모든 꾸란의 절들을 의미한다.

26-1) 불신자 및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꾸란의 말씀을 믿고 무함마드와 그의 전통을 따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31-1) 부활을 거역한 불신자들.

32-1) 내세가 현세보다 좋다는 것을 그래도 알지 못하겠는가?

33-1) 마술사, 시인, 점쟁이 또는 미친자라고 그들 불신자들이 말한 것.

2) 무함마드는 "아민"(정직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워 졌다. 불신자들이나 위선자들도 무함마드는 어떠한 일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부 자흘」이 말하길 "무함마드야 너야말로 진실을 말하는자로 우리곁에 있느니라. 우리는 네가 계시받는 것을 부정하느니라" 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전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112/4).

34-1) 본절은 인내의 교훈을 제시하면서 인내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2) 조롱과 학대를 받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인내하였을 때 승리하였다는 교훈의 소식.

36-1) 진리를 듣는자란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진리에 진실로 그리고 성실하게 귀를 기울인다면 정신적 기능이 마비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능을 다시 재생하며 그런후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귀의하게 된다. 또한 진실한 자는 믿게 되나 그의 마음이 죽은자는 들을 수 없게 되니 그들은 하나님 앞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37-1) 모든 예증이 그들 주변에 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그들의 무지를 충족시키는 예증이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그들의 수준으로 밖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38-1) 땅위에 걷는 동물이라 함은 물속에 사는 것도 포함된다. 물고기류, 파충류, 곤충류, 갑각류와 네발을 가진 짐승들을 말한다. 날개를 가지고 나는 것 즉 "따이르"를 새로 해석을 하였으나 박쥐같은 포유동물이라도 날아가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모든 짐승이나 조류도 인간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대로의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삶이 있으며 이 모든 삶은 하나님 계획의 의지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39-1) 꾸란을 거역하는 자는 귀머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불신의 암흑속에 거하게 된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577/1).

43-1) 슬픔과 고난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일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선물이 될 수 있다.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악을 예방하여 많은 덕을 쌓을 수 있는 반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슬픔과 고난을 잘못받아 들일때 불만과 불평을 낳게 되어 마음이 약하여 진다. 이때 사탄은 인간을 유혹한다.

45-1)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정의의 한 표준으로써 진실된 것과 옳은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곧 그분의 율법을 유지하는 것이다.

48-1) 선지자들을 보냄은 인간의 제한된 자유 의지를 없애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달 하고 가르치며 회개하는 자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고 그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벌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50-1) 불신자들은 무함마드에게 요구하길, "당신이 선지자라면 당신의 주님으로부터 구원하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복지와 우리에게 해가 됨이 무엇인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무함마드에게 이절이 계시됨으로써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 대답하였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16/2).

51-1) 죄지은 자들 중에는 아직 심판을 믿는 자들이 있다. 바로 이들에게 경고하여 사악함을 피하도록 하며 그들의 보호를 하나님께 의존할 때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하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52-1) 부유하고 명성이 있었던 일부 꾸라이쉬족은 수준이 낮은 서민들과 함께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하나님께 진실로 구하는 이들 서민들을 추방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였다. 그들의 세속적 현실 입장에서 볼때 그들은 가난했던 무함마드로부터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았고 또 무함마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로부터 얻을 것이 없기 때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을 추방할 이

유는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진실은 세속적 현실에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53-1) "무리를 다른 무리와 비유하여 시험하니" 즉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과 명성이 없는 일반 서민들과 비유하여 시험함을 의미한다.

2) 가난하고 명성이 없는 사람들

3) 부유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

54-1) 무함마드는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이들을 부유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 밖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들 위에 평화가 있을것이라"고 이슬람의 인사를 하였다.

2) 고의적이 아닌 실수. 금기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여 일어난 일.

56-1) 불신자들이 숭배한 우상들

2) 무함마드

3) 무함마드

4) 무함마드

57-1)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법 샤리아에 근거하고 있으나

2)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른 그 진리를 거역하였다.

58-1) 죄악을 거듭하여 서두러 벌을 받으려 한다면

2) 벌을 선지자가 내릴 수 있다면

3)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죄지은 자들의 진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선지자들과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 문제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을 뿐이며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며 죄악에 대한 경고자 일 뿐이다.

59-1) 열소들이라 함은 보이지 아니하고 숨겨져 있는 보물들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수 없는 것들로 풀이되고 있다.

60-1) "야타왓파쿰"은 생명을 앗아가다. 즉 "죽게하다"가 언어적 해석이나 이것은 실질적 죽음이 아니라 잠시동안 영혼이 압류된 상태로 풀이하고 있다(꾸르뚜비).
한편 「이브는 압바쓰」는 잠자는 동안 잠시 숨이 막히는 상태로 풀이하고 있다.

61-1) 천사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인류를 인도하고 가르치도록 보내어 졌기 때문에 "라술"이라 하며 복수는 "루술"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한 인간의 생명이 끝날때 천사들이 보내어 진다.
그래서 "보내어 진다"는 같은 의미에서 천사들도 "루술"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62-1) 하나님의 모든 종복들

63-1) 바다에서 또는 육지에서 그들 불신자들을 위협으로부터 구하여 주었을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신한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65-1) 하늘로부터 천둥과 번개와 벼락 그리고 홍수 및 폭풍우 등을 보내어 벌을 주었고

2) 「까룬」과 마드얀의 동료에게 있었던 것처럼 땅속에 빠지게 하거나 지진 그리고 진동 등을 일으켜 벌을 주었다.

66-1) 꾸레이쉬 백성들은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진리의 꾸란을 거역하였다.

2) 꾸란

68-1) 진리의 말씀인 꾸란을 거역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불신자들

2) 꾸란의 말씀을 거역하고 조롱하는 불신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는 교훈을 망각했다가 다시 생각이 났을때

69-1) 사악함을 생각하는 자와 사악함을 행하는 자에게 그 사악함이 돌아간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

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2가지 의무가 있다 자신을 사악함에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의무가 그것이다.

70-1) "지구를 금으로 가득채워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상으로 수락되지 아니한다"라고 「까타다」는 말하고 있다(알따브리 447/11).

71-1) 이슬람

73-1) 이스라펠이 두 번째로 나팔을 부는 그날(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78)

2) 있어라 그리하면 있을 그날 하나님의 가혹한 벌을 두려워 하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78).

74-1) 무함마드여 우상을 숭배한 그대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아자르」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던 아브라함의 말을 상기시키라.

2)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자르

3)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자르

75-1) 아브라함은 별들과 천체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칼테아 점성가들 가운데서 살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연계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정신세계를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그에게 무의미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 두고 그에게 자연게의 위력과 법칙의 배후에 있는 정신적 영광을 보여주었다. 하늘과 땅이 그를 위해 열리자 그는 그의 시야로 가장 높은 왕국과 가장 낮은 왕국을 보았다고 「무자히드」는 말하고 있다(알바흐르 165/4).

76-1) 이절은 아브라함의 영적 교환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다. 그가 별이나 천체를 경배한 것으로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조상들의 우상숭배를 보고 그는 멀리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무익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그 안에서 미신을 믿을 수 있었으나 그는 그것이 떴다가 사라지는 어떤 법칙 그것은 창조주의 법칙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79-1) 유일신 하나님께만 내가 경배한 것을 나의 신앙으로 하였으니

80-1) 유일신에 관한 그들 백성들의 반론

2) 듣지도 못하고 보지고 못하며 이롭게 하지 못하고 해악을 끼치지 못한 너희가 주장한 신들에 대하여 나는 두려워 하지 아니한다.

82-1) 믿음과 하나님의 유일성과 비유하려는 모든 행위

2) 선지자 무함마드의 동료들이 "저회가 스스로 죄 짓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선지자에게 물었을때, "그것은 너희가 추측한 대로가 아니라 「루끄만」이 그의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께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악이니라 라고 말한 것과 같느니라"라고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82).

83-1)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홀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예증

2) 아브라함의 이같은 영적 교화는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 위에 있게 되어 그는 그 지식과 명예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하려 기대하고 있었다.

84-1) 18명의 예언자는 네가지 부류로 기록되고 있다.

첫째 부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성서를 받은 최초의 예언자였으나(꾸란 87장 18-19절) 지금은 잃어버리고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복음을 받은 부류이다. 두 번째 부류로는 대 가문들의 시조를 이룬 예언자들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유대 군주의 실질적 시조이다. 140년 동안 살면서 4대를 보았으며, 그의 생애 말년에는 목축에 의한 많은 부를 축적한 욥과 또 애굽의 한 장관으로써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요셉은 이두 종족의 후예들이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지도자들이다.

2)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듯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진실되고 그의 업적이 훌륭한 이들에게 보상이 있다는 내용이다.

85-1) 세 번째 부류로는 고독한 삶을 영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부류이다. 이들은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예언의들의 부류이며 「자카리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다.

86-1) 네 번째 부류로는 은혜를 받은 자로 모든 고난과 싸우며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지켜 내려온 네 사람으로 구성된다. 아브라함의 장손인 이스마엘의 경우 그가 어린애였을때 그와 그의어머니 히갈은 메카에서 열사와 갈증으로 사경에 이르렀으나 잠잠샘의 물로 생명을 구하였으며 그후 그는 아랍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엘리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유대인 두 왕국의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사악한 왕들이 또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위협했을 때 그는 많은 기적을 보였고 그의 충고로써 적들이 제지되기도 하였다. 또 요나는 고래가 그를 삼켜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제되어 그후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의 도시 "니네베"가 구제되었다. 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소돔의 도시가 그의 백성의 사악함으로 멸망되었을 때 그는 정직한 인간으로써 구제되었다(The Holy Quran Yusuf Ali p.312, No.906).

89-1) 후손들

2) 그것이란 성서와 예언자의 권능으로 풀이된다.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였으므로 무함마드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The Holy Quran Yusuf Ali p.313, No.907).

90-1) 위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예언자들

2)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보상

91-1)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을 불신했던 유대인들

2)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유대인들의 성서에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로 온다는 사실을 감추어 버린 것이라고 「따브리」는 풀이하고 있다(알따 브리 527/11).

3) 꾸란

92-1) "이것"이라 함은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을 말하며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확증"한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내용을 확증한다는 뜻이다. 또 메카 주변의 백성 및 지구상의 모든 백성으로 「이브느 압바쓰」는 해석하고 있다.

93-1) 「무싸일라마」와 「아쓰와드 우느싸」는 계시가 자기들에게 있었으니 스스로가 에언자라고 주장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84).

2) 「나다르 이븐 하리쓰」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계시된 절로 그는 언급할 수 없는 그의 어리석은 말로써 꾸란을 거역하였다고 「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180/4).

94-1) 현세에서 얻었던 모든 재산과 가족과 자손을 두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집합하게 되나니 그때 너희는 우리(하나님)가 태초에 창조했을 때 처럼 빈손으로 오게 하느니라"

2) 현세에서 축적했던 모든 것은 심판의 날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3) 너희가 하나님에 비유하며 너희 신으로 숭배했던 신들.

95-1) 죽은 씨앗을 트게하여 그곳으로부터 푸른 잎을 피게하고 그렇게하여 열매도 맺히게 한다고 「꾸르뚜비」는 말하고 있다(알꾸르뚜비 44/7).

96-1) 어둠을 빛으로 깨뜨려 아침을 두시니. "밤의 어둠과 암흑의 아침을 기둥으로 깨뜨리니"라는 뜻으로 「따브리」는 말하고 있다(알 따 브리 554/11).

98-1) 아담

2) 머무를 곳을 어머니의 자궁으로, 떠날 곳은 인간이 임종하는 대지위의 어느 곳이라고 「이브누 마쓰우드」는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머무를 곳을 대지위로 떠날 곳은 대지밑으로 풀이하는 해설가도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87).

99-1) 구름을 생성케하여
2) 이렇게 모든 식물과 과일과 곡식을 창조하시는 분은 죽은자를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예증(타프씨르 알자우지 96/3)
100-1) 진「Jinns」란 무엇인가?
꾸란 8장 50절에 "이블리쓰"는 "진" 가운데 하나라고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절과 또 다른 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복하라 천사들에게 명령했을 때 "이블리쓰"를 제외하고는 순종하였다. 이것은 "이블리쓰"가 천사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여러 구절에서 "진"과 인간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꾸란 55장 14-15절에 인간은 흙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한편 "진"은 화염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묘사되고 있다. "진의 근원은 "자난", "야잔누"로 그뜻은 "감추어졌거나 숨겨진"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능동태형일 때의 뜻은 "숨기다 또는 감추다"란 뜻을 갖고 있다.(6장 76절)" 그래서 일부 학자는 "진"이 인간속에 숨겨진 자질이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들은 언덕이나 숲속에 감추어진 야생적 부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꾸란 여러 구절에 나오는 "진"이 암시하는 내용으로 보아 어떤 하나의 혼 또는 악마이거나 보이지 아니한 힘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풀이라고 본다.
2) 아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딸들이라 하였다.
103-1)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으나 내세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이브누 카씨르」는 말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89).
104-1) 모든 설명과 복음이 들어 있는 꾸란(타프씨르 이브누 알자우지 99/3)
2) 무함마드 너는 말씀을 전달하고 사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자일 뿐.
105-1) 불신자들
2) "무함마드 그대는 성서들을 공부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읽어 이 꾸란을 가지고 왔느뇨?" 라고 불신자들은 말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0권 p.105).
106-1) 무함마드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계시한 꾸란을 따르라.즉 그들 불신자들의 말에 그대 마음과 그대 생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생각하고 마음을 쓰라는 뜻으로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60/7).
107-1) 하나님께서 그들 불시자들을 인도하시고자 뜻을 두셨다면 그들은 인도하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는 대로 하시나니
108-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아부 딸립」에게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이 그들의 신들을 험담하는 것을 단념하고 그의 신을 험담한다면 그들은 그를 따르겠다고 말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으며 「아쓰바브 알누줄」이란 책 127에서는 "우리의 신들을 험담하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대 주님을 따르리라"라고 하자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불신자들이 숭배한 신들과 우상들.
3) "우리의 신들을 험담하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는 그대의 주님을 따르리라"고 불신자들이 말했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험담하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607/1).
109-1) 멕카의 불신자들
2) 불신자들이 단순한 고집을 내세운다면 그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의 기적보다 자세하고 완전한 기적의 얘기는 없다. 예수가 말하길 "악하고 음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저회를 떠나가시다(마태복음 16장 4절)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표적을 보였다.
110-1) 최초에 꾸란이 계시되었을 때 믿지 아니한 것.

111-1) 메카 불신자들에게
112-1) 그대의 적인 불신자들로 그대를 시험하였듯이 우리(하나님)는 그대 이전 예언자들을 사탄과 인간과 영마로 시험하였으니 그대 무함마드도 이전 예언자들이 인내하였듯 인내하라. 이는 곧 인내하는 자의 보상을 더 크게 하고자 함이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92).
113-1)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능력에 의한 것으로 각 예언자들은 각자의 적이 있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아부 싸우드 131/2).
114-1)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우리와 그대 사이를 심판하여 보라. 만일 그대가 유대인과 기독교의 장로들을 원한다면 우리가 그대에 관하여 그들 성서에 있는 그대 일에 관하여 알려주리라" 고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06/4).
2) 꾸란
3) 유대인과 기독교인 학자들
4)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로 그들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116-1) 지상의 사람들이란 유일신을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말한다.
118-1)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짐승을 도살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하라. 불신자들이 믿는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살해하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살해한 것을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93).
119-1) 불가항력의 경우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이나 어떤 사태로 인한 기아상태에서 야기되는 죽음으로 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금지된 음식이 허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제5장 4절 참조).
121-1) 제단 또는 제사 및 우상 숭배 목적으로 도살된 고기
122-1) 이 절은 신성한 임무를 가진 선인과 악의 임무를 가진 악인과를 비유하고 있다. 영적 삶을 갖기 이전에는 죽은자와 다를바가 없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삶을 주고 빛을 주어 그것으로 그가 걸어갈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안내한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자는 암흑속에서 살며 선을 실천하려는 모든 일에 음모와 술책을 일삼는다. 그러나 그가 음모하는 악이 선인을 해치리라 생각하나 그 악은 오히려 그에게 돌아오며 선인은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된다.
123-1) 메카에 사악한 자들을 두었듯이
124-1) 선지자 무함마드의 진실에 대한 분명한 예증이 그들 불신자들에게 있을 때마다.
2) 하나님은 누가 메세지를 받을 자인가를 알고 계셨으니 불신자들인 「아부 자홀」이나 「왈리드 이븐 무기라」가 아니라 가장 정직하고 믿음이 두터운 무함마드를 아시고 계셨다.
127-1) 하나님을 믿는 그들
2) 천국
128-1) 「진」 : 4장 100절 및 해설참조 "서로의 이익이 된다" 함은 현세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에 이익을 얻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의한 현실적 오락과 유희등을 얻는다.
130-1) 선지자들이 복음의 전달자로써 그리고 경고자로써 그들에게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거역하였다. 이는 곧 현세적 오락과 물욕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기만한 것이다.
131-1) 선지자들을 인류에게 보낸 것을 일컬으며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여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다.
132-1) 업적이라 함은 그가 선을 실천하였을때 그의 업적은 선이 될 것이며, 그가 악

을 저질렀을 때는 그의 업적은 악이 된다.
134-1)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복음과 경고가 완성될 것이며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계
135-1) 주님께서 그분의 종교를 위해 나 무함마드에게 명령할 뿐이라.
137-1) 아랍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신으로 믿었던 그들의 잡신과 우상숭배 사상은 이따금 인간을 희생시키기도 했다. 그러한 인간의 희생은 우상숭배와 미신적 신앙 및 관습에 의한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으로 유혹에서 온 것으로 본다.
138-1) 불신자들은 가축과 곡식을 그들의 잡신을 위한 것으로 그들의 잡신 외에는 금지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가축을 도살할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써가 아니라 그들 잡신의 이름으로 도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제5장 5절 및 해설 참조).
139-1) 남성과 여성
140-1) 가난과 가뭄이 두려워 여아를 생매장 했던 이슬람이전에 살았던 아랍인에게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잠카샤리」는 해석하고 있다(알카샤프 57/2).
141-1) 마른 곡식의 무게를 달아 무게를 알게 되는 날 의무적으로 이슬람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624/1).
142-1) 「후물라」는 짐을 실어 나르거나 사람의 교통으로 이용하는 가축을 말하고, 「파르샤」는 고기나 우유로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102).
2) 사탄
144-1) 수컷과 암컷
2) 수컷과 암컷
3) 그들 불신자들은 때로는 동물의 수컷을 금기하였다고 말하고 때로는 암컷을, 때로는 새끼들을 금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아부 싸우드 142/2).
146-1)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이자놀이와 부정하게 타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구약 레위기 11장 3-8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리라"(레위기 11장 3-8절) 한편 유대인 율법에서 식용으로 금기된 낙타와 집토끼 및 산토끼가 이슬람에서는 허용되고 있다(꾸란 4장 160 비교). 소의 기름에 대하여도 레위기 7장 23~24절에서 예시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또 기름과 내장에 덮인기름 및 지방질에 관하여 레위기 7장 3~5절은 "그 모든 기름을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149-1) 그들 아랍 불신자들에게 말하라, "만일 너희에게 예증이 없다면 하나님께는 분명한 예증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어 너희 모두를 믿음으로 인도하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믿음과 불신을 스스로 택하도록 자유

의 선택을 두시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셨느니라"
150-1) 그들 불신자들이 증인을 데려와 거짓 증언을 하게 하더라도
151-1)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 다른 것을 비유하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즉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효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한 길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 순교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지 아니한 살생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생명은 물론 모든 생명체를 살생해서는 않되는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또한「하디쓰」에서도 생명의 신성함이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무슬림의 피는 다음 3가지를 제외하고는 피를 흘려서는 아니 되나니 간음한 미혼자, 살인자, 그의 종교를 버리고 공동체를 이탈한 자"가 그것이니라.「부카리와 무슬림」
152-1) "그의 복지를 위한다"는 것은 두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고아가 성장할 때까지 그 고아가 필요로 한 것과, 둘째는 그 고아 대신 위탁받은 자가 고아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이라 풀이되고 있다(이브누 압바쓰).
2) 치수와 무게를 공평하게 하라함은 고아의 재산을 위탁 받은 자는 고아가 성숙할 때 그 재산을 돌려주되, 이때 적당한 양육비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됨
154-1) 구약성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금기한 것을 믿음과 선행으로 실천하도록 하였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기 위해 모세에게 구약성서를 계시한 것으로「따브리」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236/12).
155-1) 인류의 복음이요 현세와 내세의 행복으로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
156-1)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성서가 계시되지 아니했고 유대인과 기독교인 두 백성에게만 계시되어 우리는 그 성서안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 꾸란을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157-1) "예증"은「꾸란」과 선지자의 생애와 가르침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꾸란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여 믿지 아니한자
158-1) 불신자들
2) 불신자들의 영혼을 조아리는 천사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가?
3) 심판의 날 주님께서 이르러 피조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또는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그러한 예증을 가져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4) "기다려라 우리도 역시 기다리고 있느니라" 즉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의 기다림은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일어날 일들은 그들을 놀라게 할 것들이다. 한편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기다림은 그가 희망한 것이 확실히 오는 진리의 열매를 기다리며 또한 이들에게 올 일들은 높은 정신적 영감이다.
159-1) 일신교를 분열시켜 파벌을 조성한 것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로서 일신교를 신봉해 왔던 아브라함의 유일신 사상의 종교를 분열시켰다.
160-1)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선을 실천한 그에게는 열배 이상의 보상이 있으며 악을 범한자에게는 그와 같이 보상이 있느니라"
161-1) 아브라함 너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실로 주님은 벌을 주심에 빠르시며 또한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162-1) 짐승을 도살하는 것(이브누 압바쓰)
164-1)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는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그 결과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죄악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시되고 있다.
165-1) 부와 가난 지식과 무지, 강한자와 약한자, 질병 등 모든 것은 곧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111).

제7장 수라트 알아으라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것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206절로 되어 있다.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자들의 임무가 상세히 기록된 최초의 장이라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일위일체설(Tawhid)에 대한 이슬람의 원리, 부활과 보상 그리고 계시와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 다른 메카 계시들과 유사하다.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있었던 영원한 기적으로 이 꾸란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내려진 은혜이므로 이 꾸란의 말씀을 준수하고 따름으로써 현세와 내세의 두 가지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담을 창조한 후 그로부터 인류를 번성하게 하고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경배하도록 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유혹과 술책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아담과 이블리스가 천국으로부터 땅위로 내려오면서 지구상에는 선과 악이 그리고 진리와 부정의 범례가 있게 되었다는 것과 인간에 대한 이블리스의 술책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블리스는 온 인류의 적이라고 네 차례나 경고하고 있다.

그런 다음 심판과 부활의 날에 있을 세 가지 부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의 주인이 될 믿음으로 충만한 부류와 지옥의 주인이 될 불신자들의 부류 및 본 장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아으라프 주인들의 부류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이 아으라프 장이라 불려진 것도 바로 여기서 유래되고 있다. 부활의 날 천국의 주인들과 지옥의 주인들이 구별되는 한 예증으로써 천국의 주인들은 그의 얼굴이 하얗고 빛이나며 지옥의 주인들은 그의 얼굴이 새까맣고 먼지 투성이가 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아, 후드, 살레, 롯, 슈와이브 및 모세 등 여러 예언자들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오만한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 했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폭군 파라오와 대결했던 모세에 대하여 상술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성스러운 약속을 깨뜨린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련과 징벌을 내린 교훈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다시 일위일체의 유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되 이롭지도 아니하고 해롭지도 아니한 우상숭배를 단념할 것을 촉구하면서 태초부터 말세까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경배해야 한다는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본장의 명칭이 '아으라프' 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위에 언급한 대로 본 장에 아으라프 주인들이란 명칭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브누 자리르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으라프 주인들이란 그들의 선행과 잘못이 똑같아 그들의 잘못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그들이 남긴 선행은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니 이들은 울타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류라고 설명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6).

1-1) 「바까라」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철자들을 해설하는 데는 학자들 사이에 다소 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꾸란의 기적"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이거나 또는 단어의 약자로써 「알리프」는 알라로서 하나님을, 「람」은 라띠프로써 자비를, 「밈」은 마지드로써 영광을, 「싸드」는 싸디끄로써 진리를 의미하는 생략어 또한 신비한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어로 풀이되고 있다.

2-1)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

2) "마음을 조아리지 말며"의 뜻은 백성들이 거짓하고 거역한다 하여 두려워 하

지 말고 그에게 계시된 성서(꾸란)를 전파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3) 은혜로운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이들을 꾸란으로 경고하여

4) 그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훈을 얻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꾸란을 유용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3-1) 길이요 빛이며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꾸란.

2) 우상, 승려 및 점술장이 또는 마술 등을 가르킨다.

3) 소수를 제하고는 꾸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는 뜻으로 「알카진」은 설명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173/2).

4-1) 「까르야」는 고을, 또는 마을이 그 언어적 해석이나 여기서는 그 고을의 백성으로 풀이 된다.

2) 까이룰라 : 낮 중간으로 가장 편안히 쉬는 시간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벌은 어느때 어느 장소에서 눈깜박 할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3) 밤과 낮의 쉬는 기간에 벌과 재앙이 있었던 이유는 쉬는 시간에 갑자기 오는 벌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 벌의 무서움이 더하고 더 큰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알바흐르 269/4).

5-1) 그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벌과 재앙 또는 그것들의 징조를 지켜 보았을때

2)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후회하나 그때의 후회가 그들을 유용케 하지 못하였다.

6-1)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우리(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너희는 어떻게 응답하였느뇨? 라는 뜻으로 이 절에서의 질문은 곧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신자들에 대한 질책을 의미한다.

2) 선지자들이 메세지를 전하고 임무를 다하였는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도 질문을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백성들에 대하여 묻는 하나님의 질문은 그들의 오만함과 거만함 그리고 불신에 대해 하나님의 응벌이 있을 것이라는 질책이요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은 오만한 백성들로 부터 조롱당한 선지자들을 위안하며 은혜와 보상을 주기 위한 질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70/4).

7-1)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지혜와 근거에 의해 그들에게 알려준다는 뜻으로 본다. 「이브누 압바쓰」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부활의 날 성서가 놓여지니 그것이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말하리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8)

2)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어 만물을 지켜보고 계시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절대자 앞에서는 어느것 하나도 숨겨 질 수 없다는 뜻으로 본다. 「이브누 카씨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알려 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6/2)

8-1) 심판의 날.

2) 인간이 현세에서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심에 공정하시니

3) 믿음이 두텁고 그와 더불어 선행을 많이 실천한 자

9-1) 불신과 사악함과 죄악을 저지른 자는 자기 영혼과 행복을 잃게 된다.

10-1) 대지를 주거지와 농경지로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나(알바이돠위 p.160)

2) 일용할 양식과 마실 물 등 생활에 필요한 그밖의 것들

11-1) 인류의 아버지 아담을 비롯 그 후손들의 창조

2) 아담과 그 후예인 인간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

3) 이블리스는 일순간도 천사들 중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의 오만과 거만으로 아담에게 인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사프와프 타파씨르 제4권 p.9).

12-1)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블리스는 스스로를 인간위에 올려 놓고 있다. 이것은 흙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신체적 형상을 주고 그안에 정신을 불어넣어 천사들 위에 있도록 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13-1) 천국

2) 이블리스

3) 이블리스가 오만하고 거만하였으매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시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그를 높이 올려주며 하나님에 대하여 거만한 자는 그를 저주 하신다고 「잠카샤리」는 말하고 있다(알카샤프 90/2).

14-1) 죽음으로 부터 구하여 주소서

15-1) 하나님께서 이블리스를 유예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죽은 첫번째 타격(나파카 울라)까지만 유예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만유의 주님 앞에 일어서는 두번째 타격(나파카 싸나야)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147/7).

16-1) 심판의 날까지 유예하여 주니 또 이블리스는 거역을 하고 있다. 아담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혹하겠다는 이블리스의 오만이다.

17-1) 동서남북으로 부터 인간들을 유혹하고 기만하여 하나님의 길에 이르는 것을 방해 할 수는 있으나 종복과 하나님 사이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말하고 있다(알따브리 341/12).

18-1) 천국

2)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모든 인간과 영마

19-1) 하와 즉 이브.

2) 하나님은 최초에 인간이 완전한 축복의 정신적 낙원에서 거주하도록 하면서 선택이란 능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신이 부여한 이 제한된 선택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한 그루의 나무를두고서 가까이 하지 말라 하였으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20-1) 최초에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물질적 세계에서나 정신적 세계에서 동시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곧 인간은 최초에 선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맹자의 성선설과 일치하고 있으며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기독교사관과는 반대적 개념을 말해 주고 있다. 최초의 인간에게 선택의 능력이 주어졌고 천사위에 있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21-1) 사탄은 아담과 이브(하와)가 쉽사리 유혹되도록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였다(사프와프 타파씨르 제4권 p.10).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 할때는 거짓 맹세하는 자가 없다고 아담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기만할 때 하나님을 두고맹세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180/7).

2) 아담과 이브

22-1) "수치"라 함은 아담과 이브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기전 까지는 그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수치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빛으로 되었기 때문이다(와합 이븐 만바하). 그런데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 빛으로 된 옷을 잃게 됨으로써 그들이 벗고 있다는 수치를 깨닫고 나무잎으로 몸을 가렸다(알꾸르뚜비 181/7).

23-1) 아담은 실수를 인식하고서 곧 회개하고 주님의 관용과 은혜를 구원하였다. 본절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따바리」가 전하고 있다.

24-1) 이절은 아담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11) 아담과 이브 그리고 이블리스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탄은 인간의 적이요 인간은 사탄의 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된 상태로 성스러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가라는 내용으로 본다.

25-1) 지상에서 살다가 그곳에 묻혀 있다가 심판을 받기 위해 그곳으로 부터 부활된다.

"그곳으로부터 우리(하나님)가 너희를 창조하였으니 우리(하나님)는 너희를 그곳으로 환원시킬 것이며 그곳으로부터 우리(하나님)는 너희를 끌어내리라"

26-1) 하나님은 인간에게 2가지 종류의 의상을 주셨으니 하나는 인간 신체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다. 본절의 「리쉬」는 새의 깃털이란 뜻인데 장식을 위한 의상으로 비유되고 있다(알카샤프 97/2).

2)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의상은 인간이 장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간의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미덕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27-1) 사탄이 유혹하여 너희 선조 아담과 이브가 어떤 나무 열매를 먹고 낙원에서 지상으로 내려 왔듯이

2) 아담과 이브의 빛으로 된 옷을 벗겨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그들 둘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으니

28-1) 불신자들이 행하였던 수치스러운 일들로 카으바 신전 주위를 돌 때(따와프) 옷을 벗고 따와프를 하곤 했었다.

2)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전통이요 관습이라고 변명하였다.

3) "하나님께서 옷을 벗고 따와프 하라 명령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 하겠느뇨?" 라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한편 「바이돠위」는 이들 불신자들의 2가지 거짓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그들 선조들이 그렇게 지켜 내려온 관습이요 전통이라 거짓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였다고 말한 거짓이라고 풀이하면서 전자에 관해서는 이들 불신자들의 사악함을 밝힘으로써, 후자에 대해서는 "무함마드여! 일러가로되 실로 하나님은 사악함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써 불신자들의 거짓을 일축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알바이돠위 p.189).

29-1) 「와즈흐」는 "얼굴"이란 뜻으로 예배를 드릴때는 마치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는 앞에서 드리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제2장 112절 및 해설참조).

2) 다음 2가지 기본원칙이 일치하지 아니한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 진실하다 할 수 없으니 하나는 어떤 일이든 샤리아(율법)에 일치하고 둘째는 쉬르크(창조주를 모독하는 가장 큰 죄악)로 부터 제외된 신앙이어야 한다고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13/2).

30-1) 그들이 행한 일들이 질문을 받지 아니 하니라 생각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을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무리들.

31-1) "단장"이라 함은 예배를 드리고 따와프를 할 때의 가장 적절한 의상의 몸차림을 의미하며 그 다음으로는 청결을 의미한다. 즉 남성이 예배할때 여성들에게 적합한 실크옷이나 몸치장을 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예배를 하는 순간은 바로 가장 훌륭한 전지 전능한 창조주 앞에 서게 되므로 가장 깨끗한 몸단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

2) 허락된 일용할 양식을 낭비하는 것은 곧 금기이다.

32-1) 무함마드여! 옷을 벗고 따와프(카으바신전을 도는 것)를 하며 허락된 일용할 양식을 금기하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말하라.

2) 깨끗하고 검소한 의상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라 하였으며 식물과 음료수와 일용할 양식을 일용하라 하였는데 누가 이를 금기하느뇨?

3) 현세에 있는 허락된 것으로 치장하고 허락된 일용할 양식을 이용하는 것은 신앙인들과 불신자들에게 동시에 허용되고 있으나 부활의 날 이후 부터는 신앙인들에게만 허용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14).

33-1) 이 절에서는 금기된 것은 다음 네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째 사회를 타락시키는 직접 또는 간접적 사회악과, 둘째 사람이 사람에 대한 적대 행위 또는 부

정, 셋째는 유일신 사상을 배제한 다신론적 사고와, 넷째는 미신적 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34-1) 「움마」는 공동체 또는 세대 또는 백성으로도 풀이 될 수 있으며 그들 시대에 왔던 움마가 선지자들을 부정한 죄악으로 멸망하였듯이 주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불신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로 본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92/4).

35-1) 모든 세대의 백성들이여! 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규범과 율법(샤리아)을 너희를 위해 설명하여 주리라.

2)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금기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그리고 슬픔도 없느니라.

36-1)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보여준 예증들을 거역하고 오만해 하는 이들에게는.

37-1)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부정한 이들만큼 사악하고 추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 선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약속된 것이라고 「무자히드」는 해석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15).

3) 죽음을 담당하는 천사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며 말하길,

38-1) 부활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2) 불지옥에 있게 될 위선자와 불신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며, "부활의 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리라"

3) 추종자들이 그들을 유혹했던 그들 우두머리들에게 말하길

39-1) 우두머리들이 그들 추종자들에게 말하길

40-1) 그들을 위해 그들이 행하였던 선행의 일들이 오르지 아니하며(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16) 그들의 어떤 선행이나 그들의 기원도 오르지 아니한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혼이 구류되면 하늘의 문들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 열리지 아니 한다고도 풀이되고 있다.

2) 심판의 날 불신자들이 천국에 들어 갈 수 없으니 그것은 마치 비대한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고 있다.

41-1) 불이 이글거리는 침상과 그 위에는 불이 이글거리는 덮개뿐이니

42-1)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일의 양이란 인간의 능력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것이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98/4).

43-1) 사랑과 애정이 깃들도록 그들의 마음을 질투와 증오로부터 청결케하니 "천국에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에는 증오가 없느니라"

44-1)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발견했는데 너희 불신자들은 너희 우상들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했던 너희 신들이 약속한 치욕과 수치와 응벌을 발견했느뇨?

45-1) 현세에 살때 하나님의 종교를 신봉하려한 백성들을 방해하며 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혹했던 이들.

46-1)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이란 천사들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상징으로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들을 알 수 있는 훌륭한 선지자들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2) 천국의 사람들과 지옥의 사람 두 무리사이에 베일 곧 하나님이 언급한 벽 또는 울타리-그들 사이에 벽을 비유하여 두시고 그곳에 문을 두어 지옥의 무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벽과 울타리에는 하나님께서 식별하여 주신 상징에 따라 천국의 백성인지 지옥의 백성인지를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꾸타다」는 하나님께서 식별하여 주는 상징으로 지옥의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색이 새까맣고 천국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다고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463/12).

3) 아스하브 알아으라프 부류는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나 그곳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부류이다.

47-1) "그들은" : 그들이 실천한 선과 악이 같으니 그들은 천국의 사람도 아니요 지옥의 사람도 아니기에 높은 벽 위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천국의 사람들을 볼때는 "그대들 위에 평온함이 있으소서"라고 인사하고, 지옥의 백성들을 볼때는 "저희를 죄지은 자들과 함께 두지 마소서"라고 하였다(알바흐르 알무히뜨 303/4).

48-1) 불신자들의 우두머리들

2) 어떤 것이 부활의 날에 너희를 유익하게 하더뇨? 너희가 축적한 재산이더뇨 아니면 믿음을 거역했던 너희의 오만 불손함이 유익하더뇨?

49-1) 현세에서 믿음이 약했던 자들.

2) 두려움도 그리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가장 완성된 기쁨과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영생하라(루흐 알마아니 126/8).

50-1) 그 남자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를 불러 말하길, "저에게 불이 붙어 타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을 부어 주십시요"라고 했을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금기 되었도다"라고 하였다(알따브리 473/12).

51-1) 심판의 날.

2)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불 지옥에 둔채 그들을 잊어버릴 것이니 이는 그들 불신자들이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만남을 잊었기 때문이다(루흐 알마아니 127/8).

52-1) 메카 백성들

2) 꾸란

3) 내세에서 불신자들에게 있을 그들의 불행과 손실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본절부터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서들을 보내 인류를 위한 복음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과 예언자들의 어른중의 어른(Sheik al Anbiya)인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후드의 이야기, 불신자들의 상황설명이 시작되고 있다.

53-1) 메카 백성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응벌만을 기다리고 있느뇨?

2) 심판날의 응벌

3) 현세에서의 선행

54-1) 일순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자 하였을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엿새 동안에 걸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일에 있어 피조물에게 그 예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고 「꾸르뚜비」는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19/7).

2) 권자에 오른것은 알려진 사실이나 그 방법은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 그 방법은 믿음으로써만 알 수 있는 것이며 그것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은 비드아(이설)라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21).

55-1) "드러내는 자"라 함은 예배보는 척 보이려고 예배중에 이야기를 하거나 소리를 크게 한다거나 오만하거나 거만함을 나타내는 자를 의미한다.

56-1) 하나님께서 정돈하였다는 뜻은 지상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 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었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22).

57-1) 메마른 죽은 대지위에 하나님 은혜중의 하나인 비를 내리게 하여 온갖 종류의 열매를 열리게 하듯 하나님은 무덤속에 있는 죽은자를 소생케 한다는 사실을 너희는 생각하고 믿을 것이라 "꾸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날을 비유함에 묵은 대지를 소생케 하시니 너희는 상기 하리라"는 뜻으로 「이브누 카써르」는 해석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써르 제4권 p.22).

2) 바람

58-1)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익한 열매와 일용한 양식이 생산되는 곳으로 창조주의 말씀을 믿어 그것으로 유용함을 찾고 믿는 신앙인들에 비유하고 있다.

2) 좋지 아니한 땅이란 돌과 자갈 그리고 소금기가 많아 유익한 열매와 양식이 생산되지 아니하는 나쁜 땅으로 창조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여 그것으로부터 유익함을 얻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비유하고 있다. 「이브누 압바쓰」는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옥토의 열매가 훌륭하듯이 믿음을 가진 자는 훌륭하며 그의 행위도 훌륭하다. 불신자는-돌과 소금기가 많은 땅이 유용하지 못하듯-추하며 그의 행위도 추하도다"(알따브리 497/12)

3) "감사하는 백성"이란 하나님의 메세지를 기꺼이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현세를 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을 일컬음.

59-1) 노아가 사악한 그의 백성들을 비난했을 때 노아는 그들로부터 조롱과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내세에 다가올 그 날을 그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이 하나님이 사악한 그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사 대 홍수를 맞게 되었으니 믿지 아니한 자는 익사하였다. 그러나 노아와 그리고 말씀을 믿고 그를 따랐던 이들은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다.

60-1) 선지자들에게 거역하고 현세에 탐닉하도록 유혹하며 권세만을 갈구했던 백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

2)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는 당신 「노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알바흐르 320/4).

62-1) 창조주의 말씀을 전하고 충고하며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 임무라고 「이브누 까씨르」는 말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8/2).

63-1) 내세에 있을 하나님의 벌에 대한 경고

64-1) 노아가 체류하던 기간 내에 노아를 거역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믿음으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올랐던 이들

3)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들이 도래한 것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은 봉하여져 있었다(알바흐르 323/4).

65-1) 아드 백성과 후드 예언자에 관한 얘기는 여러 절, 그 가운데서도 특히 26장 123-140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들에 관한 얘기는 아랍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들의 시조인 아드는 「샘」과 「아람」과 「아우스」 다음으로 노아로 부터 4세대째이다. 그들은 아라비아 남부의 넓은 지역 즉 페르샤만 입구에 있는 「움만」에서부터 「하드라마우트」 및 홍해 남단 예멘까지 이르는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민족은 키가 크고 또 건축에 능숙하였다. 또한 그들 영역안에 있었던 바람이 잦고 모래가 많은 지역(아흐까-프)은 운하로 관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한편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박해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3년에 걸친 기근이 계속되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드디어 무서운 폭풍이 몰아쳐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대지를 황폐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드와 사무드는 구제되었다. 그러나 그후 그들 백성도 그와 유사한 죄악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다. 예언자 후드의 무덤은 현재까지도 「하드라 마으트」 지역 위도 북위 16, 경도 동경 49 「무칼라」 북쪽 약 90마일 지역에 있는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역 7월인 라잡 달에 매년 이곳으로 순례를 가기도 한다.(Hadhramaut, Some of its Mysteries Unveiled by D. Van der Meulen and H. Von Wissmann, Leyden. 1932 참조)

68-1)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충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한 예언자로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

69-1) 너희가 하나님을 상봉하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응벌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중에서 한 사람을 선지자로 보내었다는 것이 이상하다 하느뇨?

70-1) 후드여! 우리에게 약속된 벌을 이르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숭배하던 신들과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2) 우리는 약속된 벌을 당신이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 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으리라.
71-1) 그 벌이 있으리니 기다리라. 나도 기다리는 자 중에 있느니라.
72-1) 후드와 그를 따라 믿음을 가졌던 이들
2) 그들은 불신과 거짓을 더하여 갈 뿐 회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몹쓸바람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아부 싸우드」는 말하고 있다 (아부 알싸우드 174/2).
73-1) 사무드 민족은 아드 민족의 문화와 문명을 계승하였다. 이들은 아드족의 사촌형제로 이들 얘기도 역시 아랍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사무드는 「아람」의 형제인 「아비르」의 자손으로 노아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메디나와 시리아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 북서쪽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산악지대와 광활한 계곡(와디)과 「꾸라」의 평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헤지라 9년째에 메디나에서 북쪽으로 약 400마일 떨어진 시리아로부터 침략하여 온 로마군에 대항하여 「타북」으로 원정에 나섰을 때 선지자와 부하들은 「사무드」의 유적지를 지나가게 되었다. 최근에 발견된 「페트라」 도시가 유럽학자들이 소위 「나바티」 문명이라고 부르는 「애굽」과 「그래고-로마」 문화와 관련된 건축양식이기는 하지만 「사무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사무드」 백성은 신을 믿지 아니하게 되고 오만하고 거만하였기에 지진으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75-1) 예언자 살레를 따라 믿음을 가졌던 이유로 박해를 받았던 백성들
2) 살레는 주님으로 부터 우리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로써 그의 메세지에 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알바호르 330/4).
76-1) 살레를 예언자로 믿는 것을 우리는 불신하도다.
79-1) 실로 나 살레는 너희에게 메세지를 전하고 이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벌이 있을 것이라 이미 경고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충고함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너희는 충고하는 이들에게 계속하여 증오하고 적대시 하도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27).
80-1) 롯이 소돔의 백성들에게(창세기 19장 24-26절 참조)
2) 창세기 19장 30-36절 참조.
81-1) 하나님께서 허락한 여성을 두고서 남성이 남성의 둔부에 성생활을 하도록 성욕을 조성했던 사악한 백성들.
82-1) 롯의 백성들이 롯에게 대답하길.
2) 롯과 롯을 따라 믿음을 가진 이들을 고을에서 추방하라. 그들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83-1) 롯
2) 미음을 가지고 롯을 따랐던 신앙인들
3) 하나님은 롯과 믿음을 가진 그의 가족을 구하였으나 롯의 아내는 롯을 기만하고 위선하며 하나님을 불신하였기에 벌이 롯의 백성에게 이르렀을때 멸망한 이들과 함께 멸망하였다(알따브리 551/12).
84-1) 9장 82절 및 15장 73-74절 참조
85-1) 마드얀은 부족 또는 도시 명칭으로 헤자즈로 가는 길목 마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말하고 있다.
2)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임을 확증하는 기적
3) 선지자들을 보내어 사탄의 유혹에 빠진 너희를 구제한 후
86-1) 오만한 무리들은 예언자 「슈와이브」에게로 이르는 길에 앉아서 「슈와이브」에

게로 가고자 하는자는 누구든 방해하며 그는 거짓말장이므로 그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치 후에 메카 꾸레이쉬 불신자들이 최후의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에게로 가려 한 자를 방해하였던 것과 같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338/4).

2) 이들 오만한 무리들은 그 당시 말하길, "이 종교는 이성과 지혜를 벗어난 그들의 무모한 오락을 따르는 종교라"고 하였다.

87-1) 믿는자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요 불신자에게는 응벌과 손실만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경고라고 「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340/4).

88-1)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오만하고 거만을 피우던 슈아이브 백성의 두목들은 선지자 슈와이브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그들 불신자들의 종교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만일 그렇게 아니한다면 추방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89-1)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숭배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희 종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거짓 중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불신자들의 요구와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

91-1) 대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 마드얀 백성의 운명도 사무드 백성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밤에 일어난 대 지진에 의하여 멸망되었으며' 그들의 집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되어 버렸다.

93-1) 내가 그들에게 메세지를 전하고 충고 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충고를 따르지 아니하니 슬퍼할 필요가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슬퍼한단 말이뇨? "하나님이 유일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하여 멸망케 된 백성에게 어떻게 내가 슬퍼한단 말이뇨?" 라고 「따브리」는 덧붙이고 있다(알따브리 571/12).

94-1) 인간은 최초에 순수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세상에 예언자 및 선지자들이 오게 된 것은 세상이 부패하고 부정이 있게 되자 창조주의 말씀을 전하여 이 부정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사회악과 대적하는데는 시련과 고난이 따른다는 점에서 예언자 및 선지자들은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예수도 말하길,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태복음 10장 34절)

95-1) 빈곤함을 풍요롭게 하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건강을 주어 강하게 하니

2) 오만한 백성들은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하길,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찾아 오는 일반관습으로 선조들이 그랬듯이 고난이 있으면 다음에는 편안함이 오는 것이나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내린 벌이 아님으로 우리는 우리 종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였다.

3) 그들 백성들에게 있었던 고난은 관습적 또는 으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행한 사악한 일들을 단념하게 한후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시려 하였다. 그러나 오만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니 그들에게 응벌을 내려 멸망케 하였을 뿐이다.

96-1)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되었던 그 고을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믿고 불신한 행위와 사악한 행위를 멀리하였다면.

2) 하늘로부터의 축복은 비를, 땅으로부터의 축복은 열매와 과실이라고 풀이되기도 하며 한편 「싸디」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다(알바흐르 348/4).

3) 선지자들을 거역했으니

97-1) 함자는 의문사로써 부정을 의미한다.

99-1) 진실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선을 실천하면서도 그것이 온전한 선인지 염려하고 기도하나 사회 또는 공동 사회에서 부정 부패를 행하는 이들은 오히려 태연하며 안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한다는 교훈이다. 모세시절 그 당시 지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국가들

가운데 애굽의 속박에 대항한 투쟁을 발견하고 그 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한 것과 그후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메세지를 가지고 도래한다는 것을 불신함으로써 그들을 방황케 한 역사적 사실들을 발결할 수 있다. 「하싼 바스라」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면서도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 하는 사람이나 불신자는 사악함을 행하면서도 안전하다고 믿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무크타싸르 38/2).

100-1) 이 절은 지나간 세대와 동시에 전 세대로 부터 대지와 권력을 물려받은 후손들에게의 교훈이요 경고로 풀이된다. 즉 전 세대로부터 계승받은 모든 것도 그들이 죄악에 빠질 때 전 세대와 다름없이 창조주의 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01-1) 무함마드

2) 앞절에서 언급된 고을

102-1) 많은 백성들이 성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벗어나 있었다.

103-1) 모세 이전에 보내어졌던 선지자들 이후

2) 이므란의 아들인 모세

3) 모세 시절 당시 애굽(지금의 에집트)의 왕

4) 기적들과 그밖의 예증들.

104-1) "피르아운"은 아랍어로 영어의 "pharaoh"가 우리 말로는 "파라오"라 번역되어졌다. 이것은 한 왕조의 연대를 일컫는 것으로 애굽의 어떤 특정왕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옛 상형문자 페라(Per-a)로 거슬러 올라 가는데 그 뜻은 "큰집"이란 의미이다. 모세 이야기에 나오는 파라오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기록된 자료의 부재로 알 수 없으나 토마스 1세(Thothmes I)는 B. C 1540년경 초기 18대 왕조의 파라오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The Glorious Quran, Translation and Commentary. Abdullah Yusuf Ali. p.372. Note No.1072)

2) 파라오가 제 스스로 주님이라 주장하였을 때 모세가 말문을 열고 말하길, "실로 나는 만유의 주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였다.

105-1)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들 선조들의 고향인 성서의 땅으로 가도록 파라오에게 요청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33).

106-1)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길

107-1) 모세가 던진 지팡이는 몸집이 크고 입이 뱀이되어 파라오를 향하여 재빨리 갔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34).

108-1) 모세의 두번째 기적으로 애굽 백성들을 당황케 만들었다. 모세가 그의 가슴에 걸친 마포자락속에서 그의 손을 꺼냈을 때 그 손은 태양 빛이 아닌 신성한 빛같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기적으로 나타난 모세의 손은 하늘과 땅 사이를 비쳐주는 빛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덧붙이고 있다.

110-1) 1) 모세가 행한 2가지 기적은 애굽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으니 모세의 기적은 일반 마술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세보다 훌륭한 마술사를 찾아 그들이 더 우세함을 보여 주려 하였다. 한편 파라오가 말한 것처럼 모세가 애굽인들을 추방하려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단지 애굽의 속박을 없애려 했을 뿐이다.

111-1) 그와 그리고 그의 형제는 모세와 아론을 가르킨다.

113-1) 파라오가 마술사들을 모아 데려오라 하여 대신들이 마술사들을 모아 파라오에게 왔을때 말하길.

2) 저희가 저희의 마술로 모세를 제압한다면

114-1) 그들 마술사들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더하여 줄 것이라 파라오는 약속하였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

115-1) 마술사들이 모세에게 말하길,
116-1) 모세와 아론은 가장 숙련된 애굽의 마술사들에 대항하여 고난을 겪에 되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갖고 침착하며 애굽 마술사들로 하여금 먼저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 마술을 보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애굽 마술사들이 보인 마술은 묘기와 요술에 불고하였으나 모세가 던진 지팡이는 애굽인들의 마술이 유혹과 허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7장 10-12절에서도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승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18-1) 마술사들이 보였던 요술
119-1) 파라오와 그의 추종자들
120-1) 만유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고
122-1) 모세가 믿은 하나님
123-1) 모세.
2) 모세와 마술사들
3)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된 마술사들에 대한 파라오의 위협이다.
124-1) 오른 손과 왼발 또는 왼손과 오른 발을 서로 교차되게 자른다는 뜻(알따브리 34/13)
2) 쌀라브의 의미는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둔다는 뜻이다.
125-1) 마술사들
2) 우리 마술사는 하나님께로 귀의하나니 당신 파라오가 우리를 위협하는 약속도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도다.
126-1) 모세와 모세를 따랐던 애굽인들은 파라오의 압박으로부터 인내하여 그들의 회개함이 진리임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모세의 임무는 충만하게 되었고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들이 믿음에 순교하니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 일신교사상을 실현하게 되었다.
127-1) 애굽왕이 산파를 통하여 태어날 남아들을 모두 살해하고 여아들은 살게하여 애굽의 종으로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두지 아니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36). 또 출애굽기 1장 15-20절에서 잘 나타나 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사내아이는 죽이고 여아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아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아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여인은 애굽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128-1)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말하길, “파라오와 파라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가하는 박해에 인내하라”
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속했던 애굽의 땅을 하나님의 진실한 종복들에게 상속하리라
129-1) 모세의 백성
2) 모세
3) 경멸과 노예의 속박으로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되어 팔레스타인에서 통치를 하였다. 다윗과 솔로몬은 훌륭한 왕들로 역사의 훌륭한 업보를 남겼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조건이 따랐다. 즉 그들이 행동하는 행위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백성

들에게 권능과 힘이 주어져 아랍민족에게로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 분의 율법을 지키고 경외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130-1) 종려나무는 한개의 열매 밖엔 열리지 아니했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46/13).

131-1)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행운과 재난은 모세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그들의 재난과 불행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32/9).

2) 그들의 거만함과 오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재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치 않고 모세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32-1) 파라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길

133-1) 「뚜판」은 여러가지 재앙으로 역병이나 대 홍수로 인명을 앗아간 재앙으로 풀이된다. 메뚜기 떼들을 보내어 곡식과 과일들을 먹어버리게 하였고, 나방들을 보내어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먹게 하였으며 개구리들을 보내어서는 집과 식탁에 가득차게 하여 누가 말을 할때 그의 입으로 개구리가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우물과 강을 피로 물들여 마실 음료수를 고갈케 만들었다. 구약 출애굽기 4장 3절, 9절, 15절 및 제12장 29절에서도 여러가지 재앙을 말해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출 4장 3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였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출 4장 9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출 4장 15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 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출 12장 29절)"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뚜판」을 농사와 곡식과 열매가 물에 잠겨 부패할 수 있는 많은 비라고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45/2).

134-1) 앞절에서 언급된 재앙과 벌

2) 모세는 파라오에게 2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박해하지 말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애굽을 나가도록 요구한 것이었다. 전자에 대한 요구는 조롱과 멸시로 비웃음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대역병과 재앙이 일어나 애굽인들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럴때마다 그들은 모세에게 약속을 하며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멈추어 달라고 구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구하여 주고 나면 그들은 다시 사악한 행동으로 돌아갔으니 이러한 죄악의 형태가 바로 모든 세대를 통하여 본 죄인들의 자세다.

135-1)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죄지은 그들 백성들을 일정기간 용서하여 주었으나 그들 백성들은 또다시 성약을 어기고 불신하기를 계속하였다.

136-1)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을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지중해와 가자지역을 따라 가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무기를 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적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시나이 황야로 가는 길에는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야만 했는데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있을때 파라오의 군대가 뒤를 추격하였으나 이들은 홍해바다에 익사하여 패하고 말았다.

137-1) 이스라엘 자손

2)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통치아래서는 훌륭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였다. 성역의 땅을 갖게 되었고 축복을 받아 땅과 백성이 번성하였으

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았다. 또한 그의 명성은 동서로 퍼지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은 한때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이때 거만하고 오만했던 파라오와 그의 백성은 격하되어 있었다. 그들이 기술과 거만으로 세운 찬란했던 비석들이며 기념비 또는 무덤들을 흙속에 묻히고 말았고, 그들의 훌륭했던 도시들, 테베(Thebes), 멤피스(Memphis) 또는 그밖의 다른 도시들도 그 찬란함이 존재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사라졌다. 고고 학자들은 그 유물들을 흙 속에서 발굴하고 있다. 세대를 부정 할 수 있는 거대한 스핑크스도 부분적으로 땅속에 묻혀 있었다. 1743년 리차드 포코크(Richard Pocock)는 그의 저서 애굽여행(Travel in Egypt. p.41)에서 "이 대부부분의 피라밋은 크게 파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138-1) 에집트 북동쪽에 있는 스웨즈 만에 있는 꿀잠 바다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37).

2) 그들이 신들을 모시고 있듯이 우리들 만이 숭배하는 신을 만들어 주소서(알바흐르 378/4)

139-1) 우상숭배

140-1) 그 시대에 있어서만 다른 백성보다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다(알따브리 84/13).

141-1)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하나님)가 파라오의 압박으로부터 너희를 구한 은혜를 상기하라.

2) 모세의 입을 통하여 계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첫째는 계속된 속박에서 백성들은 인내함을 배워야 했고, 둘째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겸손함과 참다운 선행을 배워야 한다는 교훈이다.

142-1) 본 절에서 신비적인 교훈과 교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슬람간에 매우 유사하면서도 계속 비교되고 있는 점이 보인다. 모세가 산상에서 40일밤동안 주님과 교화 한 것은 예수가 복음을 전파하기전에 광야에서 40일 낮 동안 금식을 했던것과 비유(마태복음. lv.2) 될 수 있으며 최후의선지자 무함마드가 복음을 전파하기 전 40년 동안을 준비 한 것과도 비유된다. 언급된 3가지 경우에서 공통된 점은 모세와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가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기 시작하기 전 까지는 그들의 백성들과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40일 동안의 기간은 30일과 10일로 분할 할 수 있겠는데 30일의 기간은 이슬람에 있어서 라마단 달의 30일 동안의 단식 기간을 그리고 10일은 둘 하지 달 10일로 본다.(The Glorious Quran. Translation Comemontary by Abdullah Yusuf Ali. p.381. Note No.1100)

2)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들이 공석중일 때 백성들을 지도하는 임무는 예언자들의 형제 또는 그 사회의 일원에게 이양되어 인간 사회적 측면에서 모든 임무가 계속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교훈으로 본다.

143-1) 모세

2) 주님, 하나님

3) 주님께서 중개자 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 주었을 때 모세는 주님을 보고 싶어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알꾸르뚜비 278/7). 한편 「압달라 유스프 알리」는 그의 꾸란해설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자 했던 것은 아직 그가 예언자로써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내었을 때 그의 손이 빛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다(vii. 108).

4) 현세에 사는 사람으로써 어느 누구도 당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당신 주님께 증언하고 제가 당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 달라고 한 저의 요구에 대해 회개하였으며 그래서 당신의 가장 위대하심을 믿는 가장 첫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144-1) "다른 사람위에 두었다"는 뜻은 그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위에 두었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메세지와 말씀을 계시받았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기 때문이다.

2) "내(하나님)가 그대 모세에게 직접 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였으되 온 누리의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지 아니한 은혜를 그대에게 베풀었으며 그 은혜를 선용하고 항상 감사하라"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아부 싸우드 195/2).

145-1) 구약성서를 기록했던 것.

2)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신앙생활과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교훈과 하람(금기된 것)과 할랄(허락된 것)에 관한 일반규정

3) 구약성서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규범

146-1) 하나님께서 창조한 대로 진리는 대지위에 정립되고 있다. 즉 자연은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자연 각각의 임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따금 그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선물로 인하여 지상의 균형을 그릇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과 거만 때문에 저질러 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증은 아니 없는 곳이 없다. 이러한 예증들이 인간의 거만함과 오만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창조주는 인간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거두어 가실 것이다. 믿음의 부재는 정신적 사실들에 대한 소경과 귀머거리를 유발시켜 하나님의 예증들을 보지 못하고 심판의 날과 부활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한다.「잠카샤리」에 의하면 본절은 오만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예증들을 회피하는 자 있으니 그와 같은 자 되지 말 것이며 만일 그와 같은자 있다면 그들과 같은 길을 가도록 하겠다는 종말에 대한 경고라고 덧붙이고 있다(알따브리 97/13).

147-1) 죽은 후 다시 살아 난다는 부활.

2) 인간이 현세에서 실천한 모든 선행은 그 인간이 믿음을 갖고 실천하였을때 보상이 있을 뿐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실천한 선행은 헛되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42)

148-1) 모세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뚜-르」산으로 갔을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다. 이 금송아지가 소리내어 울었다. "쿠와르"의 뜻은 소 울음소리 같은 것으로 송아지를 다루는 애굽 곡마단에 의하여 보여진 속임수였다고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51/2). 리튼(Lytton)은 그의 저서「폼페의 최후의 날」에서 고대 애굽의 여신의 승려들이 행한 허위였다고 말하고 있다.

149-1)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그들의 의식에 대하여 후회하였다.

2) 이절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그들의 죄악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관용과 은혜를 구하며 보호를 구하는 것이라고「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51/2).

150-1)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에서 돌아와

2) 백성들이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슬퍼하며

3) 모세

4)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던 백성들을 본 모세는 서판을 던져 그것을 깨뜨리고 그의 동생 하룬의 머리를 그에게로 잡아당겼다고 풀이되고 있다(따브리 123/13).

5) 아론

6)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을때 그들은 나를 억압하고 학대하며 나를 살해하려 하여 말릴 수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51-1) 동생 하룬의 힘으로는 우상숭배를 제지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된 형 모세는 그와 그리고 그의 동생 하룬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였다.

152-1)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주님의 노여움은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해 할 때까지 그들의 회개를 수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

다(알무크타싸르 52/2).
153-1)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귀의하여 믿음을 갖되 같은 죄악을 반복해서는 아니된다는 교훈으로 본다
154-1) 그의 형제 하룬과 우상을 숭배한 그의 백성에 대한 노여움
2) 계시받아 기록한 구약성서
155-1) 「따브리」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회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아니한 70명을 선발하여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곳에서 떨어진 장소에 그들을 두었다. 이때 그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지켜보고 있었으나 그들의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여 모세에게 대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때 까지는 믿지 아니하겠소(제2장 55절 참조)라고 하자 천둥과 번개가 그들을 멸망케 하려 했으나 모세의 기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156-1) 모세의 기원이다.
2) 벌을 주는 것은 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만 내리나 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피조물 모두에게 허용된 것이다.
3) 창조주의 존재를 불신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멀리하며 이슬람세를 바치고 모든 성서들과 예언자들을 믿는 이들을 위한 은혜와 은총이 내세에서 보장되어 있다는 약속으로 풀이된다.
157-1) "옴미"는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문맹을 일컫는다 특히 이절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최후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것으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이 율법을 계시 받은 유일한 선지자는 무함마드이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의 가문에서 왔다. 마찬가지로 신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라고 예수께서도 또 다른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다.
2) 무함마드
158-1) 지구상에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백성들이여!
2)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로 선택되어 창조주의 말씀을 계시받은 그를 예언자로 믿으라
159-1)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160-1) 열두 부족은 야곱의 열두 자손을 열두 부족국가로 분류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아부 하이얀」이 풀이하고 있다.
2) 각 부족은 그들의 우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각 부족은 다른 부족의 우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따브리」는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06/4).
3) 돌위에 내려 앉는 달콤한 것
4) 메추라기 종류
161-1) 이 고을이라 함은 성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즉 그 고을에 들어가면서
2) "하나님이여! 저희의 죄를 거두어 주소서!"라고 말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48).
162-1)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말씀을 바꾸더라"가 언어적 풀이나 본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말로 변경했다는 뜻이다.
2) 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한시간에 24,000명이 사망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아부 싸우드 205/2).

163-1) 유대인
2) 무함마드여! 유대인들에게 그들 선조들과 해변가에 있었던 그 고을의 일에 관하여 질문하여 보라 그 고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안식일 날 낚시를 하였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 고을은 깔잠 바닷가에 위치한 아일라 고을이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205/2).
3) 안식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낚시도 금지되어 있었다(제2장 65절 및 해설 참조).
4) 낚시가 금기된 날에는 물위에 물고기들이 떠오르도록 하고 낚시가 허용된 날에는 물위에 물고기들이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들을 시험하였다.
164-1) 하나님은 이고을의 백성들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이 고을 백성들은 다음 3가지 부류가 있었다. 첫째의 부류는 금지된 것을 넘어서 안식일 날(야우므 쌉트) 고기 낚시를 하였고 두번째 부류는 그것을 금지하고 파기하였으며 세번째 부류는 침묵을 지키고 행하지도 않고 금지하지도 아니하고서 말하길(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49). 2) 금지하고 충고하였던 두번째 무리
166-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기된 것을 넘어 죄악을 낳은 무리는 원숭이와 돼지가 되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50).
167-1)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 대한 저주는 신명기 11장 28절과 신명기 28절 49절에서도 계시되고 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신명기 11장 28절)"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날음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신명기 28절 49절)"
168-1) 유대인들의 분산은 세계사에 나타난 가장 큰 사건이다. 그들의 박해는 아직 끝나지 아니했으며 또한 아마도 끝나지 아니할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A. Yusuf Ali, The Holy Quan-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p.392. Note.1141.)
169-1) 구약
2) 성서에서의 약속 : 출애굽기 19장 5-8절 24장 3절, 34장 27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출애굽기 19장 5-8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법을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애굽기 24장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애굽기 24장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출애굽기 34장 27절)"
171-1) 뚜르 산을 흔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위에 올려 두었던 때를 상기하라.
2)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으로 구약성서의 규범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게서 뚜르산을 그들 머리위로 올렸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52).
3) "계시한 것"은 구약성서를 의미하며 "그 안에 있는 것"은 구약성서 안에 있는 율법을 의미한다(제2장 63절 및 해설 참조 비교).
174-1) 하나님의 성약을 설명했듯이
2)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 조상의 우상숭배 및 미신사상의 전통을 버리고 유일신

사상으로

175-1) 이 절은 무함마드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문에서 "그 사람의 얘기"란 「바우라」의 아들 「바랄암」으로 그는 성서를 많이 공부하였으나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모세를 괴롭혔고 파라오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 하고 있다. 한편 「이브느 마쓰우드」는 "그 사람"이란 이스라엘 자손가운데 한 사람으로 모세가 그를 「미드얀」 왕에게 선교사로 보냈을 때 그 왕이 그에게 재물을 주어 모세의 신앙을 버리라 하여 그가 그 왕을 따르게 되어 백성들을 방황케 하였다고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53).

176-1) 경건하고 덕망을 갖춘 학자의 위치.

2) 유대인을 비유한 것으로 그들에게 구약성서가 있었고 그 안에서 최후의 선지자가 도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최후의 선지자가 도래하매 그들은 이를 부정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곧 구약성서 (타우라)의 규범을 부정한 것과 다를바 없다.

177-1) 하나님의 말씀과 예증들을 거역한 백성들.

180-1)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99개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하나 하나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181-1) 본절에서의 공동체(Umma)는 무함마드의 이슬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54).

182-1) 꾸란.

183-1) 하나님

2) 하디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실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유예하였을 뿐 그들을 포섭하니 도주하지 못하도다"

184-1) 하나님의 말씀과 예증들을 믿지 아니했던 불신자들

2) 선지자 무함마드

185-1) "이것 이후"는 창조주께서 최후로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꾸란을 의미한다.

187-1) "만일 당신이 예언자라면 부활의 날이 언제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다오"라고불신자들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질문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꾸르뚜비 335/7).

2) 최후의 그때는 심판의 날과 부활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때가 온다는 사실은 확실하나 언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밝히지 아니하셨다. 만일 그때를 밝히셨다면 인간이 사는 생활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때를 밝히지 아니함은 또한 인간은 무거운 짐으로써 항상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가복음 13장 32-33절에서 예수도 그때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마가 13장 32-33절)

188-1)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어떤 해악이 되는 것을 내 스스로 밀어 낼 수도 없는 내가 하물며 보이지 않는 부활의 날이 언제 오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는 대답과 함께 그것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189-1) 한 몸이란 아담을 의미하고 배우자는 아담의 아내 하와를 가르킨다.

190-1)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 중 하나님을 불신했던 불신자들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58).

193-1)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이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길을 구하나 그 우상들은 피조물인 무생물이라 응답을 하지 못한다.

194-1)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것들이 너희 신들로 확신한

다면 너희에게 복을 달라 구하여 보고 너희에게 일어나는 재앙이나 불행을 제거하여 달라고 구하여 보라! 우상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무생물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195-1) 우상

2) 무함마드여 그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말하라.

198-1) 본문에서 "그것들은" 우상을 가르킨다.

199-1)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무함마드에게 명령된 것으로 세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① 박해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② 믿음을 전하되 그 믿음이 모든 행위에 적용되어야 하며
③ 선교를 방해하거나 진리를 음모하는 우매한 자들의 권모술수와 타협에서 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59).201-1) 하나님의 벌과 보상을 상기하고 기억하라.

203-1) 「아야」는 꾸란의 절을 말하나 여기서 의미하는 "아야"는 기적이나 예증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바사이르"는 영적 감각 또는 영적 시력이란 뜻이나 여기서는 빛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꾸란을 의미한다.

206-1) 천사들

제8장 수라트 알안팔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75절로 전쟁과 성전에 관한 이슬람법, 평화와 전쟁 그리고 포로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드르 전투 직후에 계시된 것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슬람의 역사에서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바드르」 전투는 이슬람력 2년 라마단 달에 일어났던 것으로 믿음으로 정신력이 강한 백성은 군사력이 크게 열세하여도 믿음이 없는 백성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7장까지는 인간의 초기 영혼의 세계를 단계적으로 묘사한 후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에 의해 새로운 공동사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한 반면 본 장은 이 새로운 공동사회에서 생활의 여러 단면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 나오는 「바드르」 전투의 교훈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둘째: 정의와 진리를 위한 전쟁에서 지켜야 할 전쟁의 윤리.

셋째: 승리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돌아온다는 것.

넷째: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패배자에 대한 사랑.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에, "그들이 전리품에 관하여 묻거든…" 이라고 계시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일부 교우들은 바드르 전투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하여 '바드르' 장이라부르기도 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62).

1-1) 바드르 전투에서 무슬림 군대가 승리하게 되자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때 전쟁에 참가했던 선지자 무함마드의 교우들이 그 전리품의 소속과 분

배에 관하여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162/9).

2) "전리품이 하나님과 선지자의 것이라"는 뜻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승리자는 물론 패배자를 위해 공익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전리품 분배에 대한 방법과 적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의 명령을 따르라. 전리품에 관하여 바드르 전투에 참가했던 무함마드의 교우들 간에 의견이 상반되자 하나님은 그 전리품을 우리 손에서 선지자에게로 일임하였고 선지자는 그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이바다 이븐 알싸미트」가 덧붙이고 있다(알타쓰힐 60/2).

2-1) 필요한 것을 구하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본절은 다음 3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려움, 신앙의 증가 및 창조주에의 의탁이다(알바흐르 457/4).

4-1) 1~3절 사이에 묘사된 자들로 믿음과 더불어 선행을 동시에 실천하는 신앙인들.

2) 천국에서의 높은 위치.

3) 실수로 인한 작은 죄.

5-1) 전리품 문제로 의견이 상반되어 혐오스러운 일이 있었듯이

2) 적에 대항하여 전투에 참가하기를 혐오하는 무리가 믿는자들 중에도 있었다.

6-1) 전쟁에 나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대 무함마드에게 논쟁하며 참전하기를 혐오하는 것은

7-1) 바드르 전투 바로 직전 메디나 무슬림들은 상거래를 하고 돌아오는 메카 꾸레이쉬족에 대항하게 되었는데 무장하지 아니한 40명의 군대를 인솔한 「아부 수피얀」의 대상들을 습격하는 대안과 전리품을 두고 메카로부터 잘 무장된 1000명의 꾸라이쉬 부대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행군하는 대안이었다. 무슬림 군대는 보잘것 없는 무기로 무장한 300여명의 군대에 불과 했지만 후자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진리와 정의가 확립되었다.

8-1) 이슬람이 승리하고 불신자들을 패망케 하니.

9-1)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수는 「바드르」에서 1000명, 「우후드」에서 3500명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이것은 실질적 숫자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적의 병사 숫자에 해당하는 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3장 123, 126, 126절과 비교). 선지자 무함마드가 불신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숫자는 1000명이었고 무슬림의 군대는 300명 정도 밖엔 되지 못한 것을 알고 카으바 신전을 향하여 그분의 두손을 벌리고 기원하였을 때 응답하였다고 전하여 지고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66). 또 500명을 인솔한 가브리엘 천사는 오른편에 있는 적들을 멸망케 하였고 또 다른 500명을 인솔한 미카엘 천사는 왼편에 있는 적들을 물리쳤다. 천사들이 적들을 멸망케 한 것은 바드르 전투에서 뿐으로 그 밖에는 적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무슬림의 숫자만을 증가하기 위하여 강림하였다고 일부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알잘라라인 118.2).

10-1) "그렇게"라 함은 하나님이 무슬림 병사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천사들을 보낸 것을 의미한다.

11-1) 「누아쓰」는 "졸음"이란 명사로 마음의 침착성 또는 평안으로 풀이된다. 침착성은 모든 위험상태에서도 그렇지만 전쟁에서는 가장 필요한 정신적 무기다. 마음이 흥분으로 동요될 때 잘 고안된 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 병력의 숫자면에서 월등히 적은 병력을 가진 무슬림이었지만 믿음과 마음의 침착성이 「꾸라이쉬」족의 병력을 계획성 있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장 154절 참조 비교). 본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한 기적으로써 가장 두려운 시각에 모든 사람들을 잠들게 한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67). 「이브누 카씨르」는 덧붙여 말하길,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시련이 있을때면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하였다고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90/2)

2) 또 다른 은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드르 전투에서 물이 없어 곤경에 있을 때 비를 내리게 하였으니 계곡들에 물이 흐르고 그 물로 청결케 하였다.

3) 하나님 원조에 의한 승리의 확신.

4) 모래속에 발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2-1)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여 승리하도록 하겠다는 창조주의 말씀이다.

2) 적 병사의 손가락을 잘랐을때 그 병사는 더이상 대항을 할 수 없으므로 생포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알타쓰힐 62/2).

13-1) 그러한 하나님의 응벌

14-1) 현세에서도 그러한 벌을 맛볼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영원한 응벌이 있으니 그것은 곧 불지옥의 벌이다.

15-1) 전쟁 및 성전(Jihad)에서

2)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무슬림들의 후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는 불신자들의 숫자가 무슬림 숫자보다 2배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이며 만일 2배이상을 넘을 경우는 무슬림의 후퇴 및 도주는 허용된다고 율법학자는 풀이하고 있다.

16-1) 적을 교란하여 재공격을 위한 준비.

2) 무슬림 군대에 합류하는 것.

17-1) 바드르 전투에 참전하여 불신자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 무슬림들이 아니라

2) 선지자께서 한줌의 흙을 집어 불신자들 얼굴에 던졌을 때 그들의 얼굴들이 더럽혀졌으며 그들의 눈들을 뜰 수가 없어지게 되자 그들 모두는 후퇴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해석하고 있다(알따브리 443/13). 즉 모래를 던져 그들을 후퇴하게 한 것은 그대 무함마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18-1) "그것이 사실"이라 함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믿는자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에게 승리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9-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승리 또는 전쟁의 승패 또는 판단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너희 불신자들에게는 패배만이 있을 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절의 "파트흐"는 정복 및 승리라는 명사로 승리, 승패의 결정 및 판단이란 뜻이다. 바드르 전투 날 아부 자흐르는 승리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대하였을 때 본절이 계시되었다고 「따브리」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67).

2) 선지자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단념하고 믿음을 갖게 될 때 현세와 내세에서 동시에 복이 있으리라.

20-1) 꾸란과 교훈

22-1) 지구상에 있는 동물 및 피조물

2) 진리와 정의를 듣지 아니하는 귀머거리와 그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는 벙어리. 본절은 「압두 다르」 자손의 무리가, "우리는 무함마드가 가져 온 것을 듣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아부 자흘」과 함께 선지자에게 도전하였을 때 계시된 절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69).

23-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한 위안의 절로 불신자들의 믿음은 부재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24-1) 영혼의 생명을 불러 일으키는 믿음으로 너희를 초대하는 선지자의 기원에 응답하라.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까타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꾸란으로 그 안에는 생명과 신뢰와 구원이 현세와 내세에서 보호된다고 덧붙

여 해석하고 있다(알따브리 468/13).

26-1) 메카에서 거주하던 무슬림들의 숫자는 이슬람을 박해하던 이들 숫자보다 월등히 적었다. 그리하여 소수 무슬림들은 생명에 대한 불안, 재산과 가족에 대한 불안속에서 안전한 안식처를 찾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메디나」이다. 이곳 메디나에서 「메카」 불신자들의 박해로부터 안식처를 찾아온 무슬림들인 무하지린에게 「메디나」 주민들은 안식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메카에서 온 이 주민들이 필요한 것까지도 제공하였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강한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승리하도록 한다는 교훈으로 풀이된다.

28-1) 대가족 즉 많은 자손은 권력과 힘의 원천이라고 간주된다(제3장 10, 116절 참조). 마찬가지로 시편 127장 4-5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시되고 있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재산과 자손은 이따금 정신적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곧 정신적 행복 즉 내세의 영혼이 행복하여지기 위한 시험으로 보고 있다. 하디쓰에서 그 사실을 보완하고 있다. 「아나쓰」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 전하길, 인간이 죽으면 3가지가 무덤까지 따라 가느니라 가족과 부와 업적이니라 그중 2가지는 돌아오고 1가지는 남는다. 가족과 부는 돌아오고 그의 업적만이 무덤에 남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니라(부가리와 무슬림이 전함).

29-1) "타끄와"는 마음속에 밝은 불을 밝혀주고 가슴을 열어주며 지식을 더하여 준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푸르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주는 식별이란 뜻으로 바드르 전투가 이슬람신학에서 "푸르깐"이라 불리워지고 있다고 알둘라 유스프 알리(A. Yusuf Ali)는 해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전투가 선과 악의 힘의 첫대결이요 시험이기 때문이다.(The Holy Quran-Text Translation & Commentary. p.422. Note No.1202)

30-1) 메카에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가해졌던 박해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① 메카 이교도들은 무함마드의 삼촌 및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무함마드를 복종시키려 하였으나 그들이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소수 무슬림 공동체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 굳어졌으며
② 그들이 무함마드에게 상처를 주거나 살해하려 했으나 무함마드의 겸손과 인내와 정의에 곧은 마음은 이슬람의 명분을 더해 주었으며
③ 그들은 무함마드와 무슬림을 박해하여 추방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메디나에 새로운 안식처를 구하여 메카는 물론 전 아랍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31-1) 꾸란의 절
2) 무함마드가 낭송한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꾸며낸 거짓이거나 선조들의 우화라고 불신자들은 말하였다. 이러한 불신자들의 표현을 「아부 싸우드」는 최악의 거만이요 오만이며 최후의 불신이라 덧붙이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73)

32-1) 이 꾸란이 당신으로 부터 계시된 진리라면
2) 롯 백성에게 돌비를 내렸던 것처럼

33-1) 예언자 및 선지자가 있는 공동체는 벌을 받지 아니했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알바흐르 489/4). 본절에서의 벌은 그 민족과 공동체를 근절시켜 버리는 벌로 이해된다.
2) 믿음이 약한 불신자들과 함께 하였던 이들이 용서를 구하였다.

34-1) 그들 불신자들이 후데이비야 해에 선지자 무함마드를 방해하였고 선지자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메카로부터 이주하지 않으면 아니되도록 하였듯이
2) 그들 불신자들은 말하였다. : 우리가 이 하람사원과 카의바 신전의 보호자이니 우리의 뜻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가 들어가니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74). 본절이 제시하고 있는 교훈은 그들 불신자들의 오

만하고 거만한 죄악으로 그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 멸망했어야 했지만 선지자를 높은 위치에 두고 믿음이 약했던 무슬림들에게 관용을 베풀고자 그들 불신자들에 대한 멸망을 유예했던 것으로 본다.

35-1) 무슬림들이 패배하였을 때 이들 불신자들은 손뼉을 치며 휘파람을 불어 그들의 예배를 대신하였다.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은 카으바 신전을 순례(따와프)할 때 옷을 벗고 휘파람을 불고 손뼉을 치며 순례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524/13).

2) 바드르 전투에서 그들이 살해되고 포로가 되었던 벌을 가르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74).

36-1) 그들의 재산을 털어가면서까지 이슬람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무함마드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하였다.

37-1) 좋은 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의로운 신앙인들을, 나쁜 것은 악마의 군대 및 사악한 불신자들을 가르킨다.

2) 불신자들을 차례로 쌓아올려

38-1) 무함마드여 불신자들에게 말하라.

39-1)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는 이슬람 종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말할때까지 사람들에게 성전하라"

2) 지하드의 목적은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여 모든 사회악을 추방하며 하나님이 만족해 하고 기뻐하시는 정의 사회, 윤리도덕이 물질주의에 앞서는 사회, 인간의 가치와 재산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도록 성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절의 "피트나"는 하 나님을 부정하는 것(쉬르크)으로 지구상에 한 사람의 불신자도 존재하지 아니할 때 까지 성전(지하드)해야 한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이브누 자리즈」는 믿는 신앙인이 그의 종교를 불신하지 아니할 때까지라고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538/13).

3) 그들 불신자들이 불신을 단념하고 이슬람에 귀의한다면

40-1) 그들이 불신을 단념치 아니하고 믿음을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압하여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들이여 알고 있으라

41-1) 전리품의 일반적 분배법은 1/5은 지휘관인 이맘의 권한으로 책정이 되며 이것은 곧 하나님과 선지자를 위한 것, 즉 자선사업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맘이 이를 관리한다. 나머지 4/5는 공동사회와 그 공동사회의 백성들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분배되고 그 기준도 이맘이 결정한다. 전시상태하에서는 나머지 4/5는 군대에 분할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리품은 전쟁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니라"고 우마르(Umar)는 전하고 있다.

2) 몹시 궁색한 근친들.

3) 두 부대가 만나 식별하는 날이란 「바드르」 전투에서 믿음을 가진 부대와 믿음을 불신한 부대가 싸웠을 때 믿음과 불신 곧 정의와 불의를 하나님께서 식별하여 정의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한 역사적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드르」 전투를 "푸르깐"(식별하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다. 8장 29절 및 해설참조

42-1) 메디나 주변 계곡 근처에 너희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을 때

2) 너희 적인 불신자들이 메디나에서 멀리 떨어진 계곡 주변에 있었을 때

3) 꾸라이쉬족의 대상들

4) 소수의 무슬림 군대가 「메카」 대군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메디나」를 떠나 「바드르」에서 계곡을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었는데 그때 꾸라이쉬 대상은 「바드르」에서 약 3마일 떨어진 바다 근처 저지대에 있었다. 이때 꾸라이쉬 군대는 메카로 오고 있는 대상을 구하고 무슬림들을 전멸하려 하였다. 무슬림 군대는 그 대상을 그대로 두었으나 메카 꾸레이쉬 군대가 공격을 하여 왔으므로 전투가 시작되었다. 숫자적으로 병력이 우수한 메카 꾸라이족의 군대는 패하여 실망을 하였으며 이 전쟁에서 순교한 무슬림 병사와 생존한 무슬림 병사의 승리

는 커다란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

43-1) 하나님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꿈속에서 적들의 숫자를 소수로 보이도록 하였고 선지자는 그분의 교우들에게 이를 알렸는데 그것이 입증되었다고 「무자히드」는 풀이하고 있다.

44-1) 무슬림 안중에 불신자들이 소수로 보인 것은 꿈속에서가 아니라 그들 안중에 그렇게 보인것으로 이처럼 적의 군대가 소수로 보이도록 한 창조주의 의도는 적과 대항하여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히 그리고 자신을 갖도록 한 것이며 또 적의 안중에 무슬림 군대의 숫자가 소수로 보이도록 한 것은 그들이 전쟁준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있었다고 해석되고 있다. "바드르 날 그들이 우리의 안중에는 소수로 보였다. 이때 나는 한 남자에게, : 그들이 100명이나 되는가? 라고 말하였다"(알따브리 573/13)

46-1)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순나에 순종하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순종하고,

2) "리흐"는 바람이란 언어적 의미이나 본 절에서의 뜻은 힘과 용기를 말한다.

47-1) 거만을 피우고 사람들 앞에서 오만함을 보이며 위험과 존경을 요구하는 자태로 바드르 전투에 나갔던 꾸라이쉬 불신자들 같이 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절은 「아부 자훌」의 언행을 가리키고 있다. 「아부 자훌」이 말하길, 바드르에서 승리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소를 잡으며 여가수들이 풍악으로 우리를 맞이할 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79).

48-1)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2) 무함마드와 그의 교우들과 군대들이 너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

3) 내가 너희 이웃으로 너희를 도와 승리하게 할 것이라.

4)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함은 사탄 이블리스가 믿음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무슬림들을 도와 승리하도록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111/2).

49-1) 외형적으로만 믿는 척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숨기고 있는 자들

2) 제2장 10절과 비교

50-1) 바드르에서 천사들이 불신자 죄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 상황을 보았다면

2) 불신자들에게 있을 내세에서의 벌을 가르키는 것으로 그들을 벌주기 위한 불로 된 회초리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매를 맞고 매맞은 상처는 불에 타게 된다고 묘사되고 있다(알바이돠위 p.215)

51-1) 그 벌은

2) 깟다마트 아이디쿰 : 그들의 손들이 제공한 것이라는 언어적 의미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얻은 것

52-1) 노아, 아드 및 사무드의 백성

53-1)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은

2) 꾸레쉬족은 구원할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무함마드를 불신하고 거역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함마드로 하여금 메디나로 이주하게 한 후 그들 불신자들에게는 응벌을 내렸다고 「싸디」는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9/8).

3) 말하는 모든 것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며 알고 계심이라

54-1) 불신자들을 멸망케 하사 명예를 저주스럽게 하여 멸망케 하고 돌비를 내리거나 바닷물에 익사케 하여 멸망케 하였다.

55-1) 본절은 유대인 「꾸라이자」의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으로 그들 가운데는 「카압 이븐 알아쉬라프」와 그의 동료들도 있었다. 이들은 선지자에 대항하여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약속을 하고서 그 계약을 깨뜨렸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81).

56-1) 유대인 「꾸라이자」 자손은 선지자 무함마드에 도전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였

다. 그러나 이들 불신자들은 그 계약을 깨뜨리고 무기로 무장한 후 공격하여 왔으니 그것이 바로 「바드르」전투이다. 그후 또 다른 불침범 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칸다크」 전에 합세하였다(알파크리 알라지 162/15).

57-1) 불신자들을 패배케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라.

58-1) 조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조약을 위반 할 기미와 그 증거를 그대 무함마드가 알았다면

2)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아니하며 계약을 하였으되 이를 깨뜨리며 협상을 하되 그것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59-1) 바드르 날 전투에서 도주한 불신자들이 우리를 능가하여 우리가 그들을 제압할 수 없으리라 생각지 못하게 했으니 그들은 패배하였고 주님을 좌절케 하지 못하고 주님이 그들을 멸망케 하였으니 하늘과 대지위에 하나님을 좌절케 할 자 아무도 없느니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82).

60-1) 성전을 위한 준비태세는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취해진다. 또한 모든 종류의 양식도 축적된다. 이러한 단계를 성전에 선행되는 것이지만 보상은 성전의 보상과 같다(최영길. 이슬람의 생활규범 p.183).

2) 「이브누 제이드」는 위선자들이라 하였고 「무자히드」는 꾸라이자의 자손 가운데 유대인들이라 해석하고 있으나 「무함마드 알리 알싸부니」 교수는 전자로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82).

3) 위선자들

63-1) 적의와 증오로 가득찬 그들을 사랑으로 대체하였으니

64-1) 그대는 하나님과 믿는 신앙인들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으로 「하싼 바쓰리」는 해석하고 있다.

65-1) 이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약속으로 믿는 신앙인들의 단체는 10배의 적들을 물리친다고 「아부 싸우드」는 해석하고 있다(타프씨르 아비 싸우드 247/2)

2)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

67-1) 전쟁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발생된다. 땅을 점령하고 경제 식민지 정책을 위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복수나 군사적 스릴의 쾌감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전쟁은 일시적 현세의 물질적 욕망일 뿐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지하드」는 이맘의 지휘아래 가장 엄격한 조건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신앙을 지키는 가장 순수한 방어전이다(최영길. 이슬람의 생활규범 p.183). 그러므로 속된 모든 동기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전리품이나 보상금을 얻기 위해서 적을 포로로 잡는 것도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전에서 승리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생명의 손실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적을 포로로 취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때 이맘은 그 포로들을 석방하거나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할 것인가 또는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할 수 있다. 「바드르」 전투에서 70명의 포로로 부터 보상을 받았으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허락되 되고 있다(68-71장).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지만 예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태복음 10장 34절)

68-1) 포로들로 부터 보상금 및 배상금을 징수하였다면 그 댓가로 무서운 벌이 있었을 것이라

70-1) 바드르 전투에서 붙잡힌 포로들

2) 선지자 무함마드의 삼촌 「압바쓰」와 알리의 형제 「아낄」은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압바쓰」는 압바쓰 조의 시조로써 그리고 알리는 이슬람역사에 공헌한 공헌자로써 그 업적들을 남겼다.

71-1) 바드르 전투에서 불신자들이 계약을 깨뜨리고 그대 부함마드를 기만하고 배반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대에게 힘을 주어 그들을 물리치게 하였으니
72-1) "무하지린"은 무함마드를 따라 메카 불신자들의 박해를 피하여 메디나로 이주
73-1) 무하지린, 안사르 그리고 믿음은 있으나 이주하지 아니한 무슬림들 모두 서로가 돕고 단결하지 않는다면
74-1) 먼저 이슬람에게 귀의하여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여온 메카 사람들
2) 메카에서 온 이주민들을 도와준 메디나 사람들
75-1) 후에 믿음을 갖고 제 이차로 메디나로 이주하여온 메카 사람들
2) 그들에 대한 은혜와 보상도 처음 이슬람에 귀의하여 이주하여 온 무하지린과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제9장 수라트 타우바

본 장은 꾸란 전체에서 유일하게 「바쓰말라」(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의 약자 :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로 시작하지 아니한 장이며 절이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 경고이기 때문이다.

본절에서 「바라아」은 책임면제라는 언어적 뜻을 갖고 있으나 여기서는 동맹 또는 계약의 의무를 해제한다는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이 무슬림들과 계약을 맺었을 때마다 무슬림들은 양심적으로 그 계약을 준수하였으나 이교도들은 그들에게 이익이 될 때는 이를 빈번히 위반하곤 하였다. 이러한 약속위반이 잦아지자 그러한 계약을 취소할 수 밖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달 동안의 유예를 주어 그들이 다시 계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매 동맹 및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129절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말씀 가운데 후미부분이라고 부카리가 전하고 있다. 또한 하피즈 이븐 카씨르에 의하면 첫 부분은 타북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계시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본 장은 중요한 두 가지 의의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성서의 백성들(구약과 신약을 믿는 사람들)과의 공동사회생활에 관한 이슬람법, 둘째는 로마 전투에 대비하여 많은 군인들을 징집하면서 보여준 무슬림의 정신력이다. 연대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1~29절까지는 이슬람력 9년 「샤왈」 달에 관련한 국가정책이 성지순례 때 발표되었으며, 나머지 30~129절은 이에 조금 앞서 계시된 것으로 이슬람력 9년 라마단에 관련하여, 그리고 이슬람력 9년 여름 선지자의 「타북」 원정과 관려하여 말씀이 계시되고 있다.

타북은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당시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시리아 지역 비잔틴 제국과 접하고 있었다. 메디나 북서쪽으로 350마일, 마안 남쪽 150마일에 있는 헤자즈 지역에 요새와 우물이 있었다. 당시 비잔틴 제국(로마)이 아라비아 반도를 침범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로마 황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경선 가까이 도착하였다는 소문이 떠돌자 선지자는 가능한 많은 군대를 이끌고 타북으로 향진하였다.

그러나 비잔틴제국은 아라비아 반도를 침략하지 아니 하였다. 그리고 선지자는 아까바만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및 기독교인부족과 동맹을 맺었다.

본장의 명칭은 여러가지로 불리우고 있는데 일부 해설가들은 14가지 명칭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1) 불신자들을 비롯 이슬람의 적들은 이따금 무슬림들과 상호동맹조약을 체결하곤 하였다. 무슬림들은 빈틈없이 이 동맹의 조약들을 준수하였으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조약을 몇번이고 위반하였다. 이러한 위반 사건이 몇년 동안 수 차례나 거듭되자 4개월 동안의 경고 기간이 지난 후 모든 동맹조약들을 파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2-1) 4개월이라 함은 옛 아랍관습에 따라 전쟁이 금기된 4개월 즉 라잡, 줄까으다, 줄힛자, 무하르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제2장 194절 및 해설 참조).그러나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직후의 4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절이 샤왈 달 초순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4개월은 샤왈, 줄까으다, 줄핍자, 무하르람이라 풀이될 수 있다.

2) 현세에서는 불신자들을 포로 또는 멸망케 하여 당황케 하고 내세에서는 무서운 벌로써 좌절케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3-1) 대순례의 날은 성지순례의 달(줄힛지) 9일째의 날(아라파트의 날) 또는 10일째의 날(회생제의 날)을 의미한다. 또는 「우므라」를 소순례라고 할때 아라파트에서의 의식과 회생제의 날은 대순례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다(알카샤프 245/2).

2) 다신론 신앙을 버리고 유일신 신앙으로 돌아온다면

3) 불신자들을 조롱하는 경고로써 그들에게는 무서운 벌이 있다는 것으로 「아부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8/5).

4-1) 무슬림

2) 형태와 종류에 관계없이 체결된 조약들을 준수하는 것은 이슬람 윤리의 기본핵심이다. 그래서 「알바이돠위」 학자는 조약의 완전한 이행은 정의(Taqwa)의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알바이돠위 218).

5-1) 살생이 금지된 성스러운 4개월이 지난 후 부터는

7-1) 멕카 백성들과의 조약 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한편 「이브누 이쓰학」은 바니 바크르 부족들과의 조약이라고 보고 있다(알바흐르 12/5).

2) 불침략 및 상호선린 우호조약이 무슬림들에게 이익이 될 때 교전국가와 상호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하디쓰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조약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그들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구원하라"(무슬림). 또한 일단 조약이 체결된 교전국가 그리고 상호 선린 우호조약이 체결된 이웃 국가의 백성을 살해하는 것을 선지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결코 나는 조약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전령을 투옥하지도 아니하니라"(아부다우드와 알나싸이).

13-1) 메카로부터 추방하려 음모하였으며

2) 올바른 신념과 믿음과 신앙이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 하지 아니하며

14-1) 메카에 와 이슬람에 귀의함으로써 그들 백성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은 예멘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이러한 고통을 말하였을 때 선지자께서 말하길,

"승리와 행복이 가까왔다는 복음을 알리라"(아부 싸우드 258/2)

15-1) 새로 시작하는 말로 「아부 쑤피얀」처럼 회개하고 이슬람에 귀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다.

16-1)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에 누가 정직하고 진실한지 시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리라 생각하느뇨?

2)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시험하여 좋은 것과 그른 것을 식별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17-1) 사원(모스크 또는 마쓰지드)에 관련된 "아마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

고 있다.첫째는 건물을 짓다 또는 증축 및 수선하다이며, 둘째는 유지 관리한다는 뜻이다. 셋째는 방문 또는 순례하다, 넷째는 빛과 생명과 생기를 불어 일으키는 것 등의 뜻을 갖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세번째 의미로 풀이하였다. 이슬람 이전에 이교도들은 사원을 짓고 수선하고 유지 관리도 하였으며 카으바 신전 주변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것으로 하여 수입을 얻기도 하였다. 한편 이슬람은 이를 부정하였으므로 이교도들은 무슬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추방하였고 카으바 신전도 무슬림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였다. 그러나 헤즈라 8년 무슬림들이 다시 탈환하여 사원을 정화하고 재 정립하였다.

18-1) 꾸란에 있는 모든 " 'Asa"는 의무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Asa라고 계시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 'Asa"는 꾸란 어느 곳에 있던지 의무이다. 전자는 「이브누 압바쓰」의 견해요 후자는 「아부 하이얀」의 견해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0).

19-1) 불신자들에 대한 교훈으로 바드르 전투에서 꾸라이쉬 지도자들은 모두가 포로로 생포되었는데 그들 중에 「압둘 무딸립」의 자손 「압바쓰」가 있었다. 선지자를 동반했던 사하바들 중 한 사하바가 그 생포된 포로들에게 가서 그들의 불신을 꾸짖고 「아비 딸립」의 자손 「알리」는 선지자를 살해하고 형제애를 단절하려 했던 사건에 대하여 압바쓰에게 비난을 하자 압바쓰가 말하길

"우리의 잘못만 상기시키고 우리가 보인 선행을 숨기려 합니까?"라고 하자, 다시 사하바가 말하길, "너희가 보인 선행도 있단 말이뇨?"라고 묻자 대답하길, "예, 있습니다. 우리는 하람사원을 방문하고 관리 하였으며 카으바의 덮개를 씌우고 순례객들에게는 물을 공급하여 주었으며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 되었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5).

2) 불신자들

3) 자랑 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것이라고 따바리는 말하고 있다(알따브리 94/10).

20-1) 지하드란 자기 희생의 한 형태로 하나님의 목적과 명분을 위하여 성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하드는 첫째 진실되고 성실한 믿음과 신앙생활로 자기 이익과 세속적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끊임없는 연속적 생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드는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기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지하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슬람의 생활규범. 명지대학교 출판부 p.183-206 참조.

22-1) 믿는 신앙인(무으민)에 대해 3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Im n)과 헤즈라(Hijrah)와 생명과 재산에 의한 지하드(Jih d)이다. 한편 이에 대한 보상도 3가지로 묘사되고 있는데 자비와 기쁨과 천국이다. 자비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요 기쁨은 지하드에 대한 보상이며 천국은 헤즈라에 대한 보상이라고 표현되고 있다(알바흐르 21/5).

23-1) 믿음보다는 불신을 택한 아버지나 형제들을 보호자로 선택할 때 그도 그들처럼 불신자가 된다. 왜냐하면 불신(쉬르크)으로 만족해 하는 자 곧 불신자이기 때문이다.

2) 메디나로 이주(헤즈라)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했을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한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형제와 아내에게 말하길, "이주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하자 그들 중에는 서둘러 그렇게 행하는 자 있었고 그들 중에는 아내와 가족을 선택하고 이주를 단념하는 자가 있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3).

24-1) 부모와 자식 그리고 재산과 명예 등이 하나님과 선지자에게로 이주하는 것보다 귀중 하다면

2)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부모와 형제와 자손과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와 명예에 집착하기 쉽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한다면 인간은 그

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25-1) 「후나인」은 메카에서 동쪽으로 약 14마일 떨어진 따이프로 가는 도로에 위치한 지역 이름이다. 헤즈라 8년 메카를 정복 당한 직후 이교도들은 선지자를 공격 하려고 타이프 부근에서 군대를 재정비하여 집결시키고 있었다.「하와진」과 「싸끼프」 부족이 메카원정의 준비를 하고서 그들의 힘과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고 있을 때 새로 입교한 메카 무슬림들은 열광적이었다.

적군은 4000명의 군대였으나 무슬림은 10,000~12,000명을 넘어선 큰 부대였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우월한 무슬림군대는 「후나인」 전에서 열세에 몰리게 되었다. 그것은 무슬림들이 이성과 믿음과 신념에 충실 하지 아니하고 열광적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많은 병사의 피해를 보게 되었으나 선지자의 지혜와 믿음과 침착으로 열광적인 군대를 재정비하여 적을 무찌르게 되었다.

26-1)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내리사 믿는 신앙인들은 그것으로 안정을 찾고 그 안에서 평온함을 갖게 되었다고 「아부 싸우드」는 풀이하고 있다(아부 알싸우드 263/2).

2) 천사들이라 이브누 압바쓰는 해석하고 있다.

3) 포로가 되고 살생이 되었다.

28-1) 그 불결함이 개나 돼지들처럼 불결하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비유하고 불신자들과 악수를 하였을 때는 우두를 해야 한다고 하싼은 덧붙이고 있다(알꾸르뚜비 103/8).

2) 헤즈라 9년으로 이 해에 「바라아」장이 계시 되었고 알리가 성지순례 기간에 그것을 선포한 해로 다음 하디쓰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금년 이후 어느 불신자도 순례 하지 아니하니라"(아무 알싸우드 264/2)

3) 메카는 아라비아반도 상인들이 순례기간에 상품을 가장 많이 거래하는 상업도시였다. 그런데 하람사원이 있는 메카에는 헤즈라 9년부터 불신자들의 출입이 금지 되었으니 상거래에 의존하던 그곳 무슬림들이 물질적 손실을 입게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이해되며 그대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인두세(Jijiya) 그들 무슬림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풀이되고 있다(알따브리 107/10). 전리품 및 인두세(Jijiya)에 대한 설명은 이슬람의 생활규범. 명지대학교 출판부 p.202-206 참조.

29-1) 아지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유대인 그리고 예수를 삼위일체설로써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어 창조주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창조주를 부정하는 불신자들.

2) 성서에 금지된 것들을 준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기된 술과 돼지고기를 허용하고

3) 타우라(구약)와 인질(신약)을 믿는 백성들

4) 전쟁 중 무슬림이 정복한 영토에서 비무슬림들이 이슬람사회에 거주하면서 이슬람에 귀의하지 아니하고 이슬람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이들이 매년 지불하는 세금을 인두세(Jijiya)라 한다. 그 금액은 금 4디나르 또는 은 40 디르함으로 성년 남성이 지불하며 여성과 어린이, 가난한 사람, 불구자, 노인 등 생활무능력자는 제외된다. 빈부에 따라서는 금 1디나르에서 은 10디르함으로 세율을 낮출 수도 있다. 이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선례에 따른 것으로 선지자 무함마드는 예멘 백성들로부터는 1디나르를, 시리아 백성들로부터는 4디나르를 징수하였다. 한편 무슬림과 조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지불하는 인두세는 그들이 무슬림이 되는 순간부터 정지되며 징수된 인두세는 무슬림들의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된다(이슬람의 생활규범. p.202-206 참조).

30-1) 아버지 없이 태어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그들의 주장.

2) 불신자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딸들이라 하였다.
31-1) 아흐바르 : 율법학자, 성직자, 목사, 사제 및 학자 등의 뜻.
루흐반 : 수사, 염세주의자, 은둔자 및 세상을 단념한 자.본문에서의 아흐바르는 유대인 율법학자 및 성직자를, 루흐반은 기독교의 율법학자 및 성직자로 이해된다.
32-1) 이슬람의 빛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해석.
2) 이슬람의 빛을 끄려 하는 것은 마치 태양의 빛을 끄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 하다는 뜻으로 본다.
34-1) 본장 31절 해설 참조
2) 칸즈의 언어적 의미는 모으다란 뜻이었다. 금이나 은을 저장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브리 학자는 땅속 또는 땅위에 저장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21/1).
3) 재물과 유산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세는 물론 선행을 실천하지 아니하며
36-1) 달 운행법칙에 따른 분류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9).
2) 성스러운 달은 곧 모든 살생 행위 및 전쟁이나 약탈 행위가 금지된 달로 라잡, 무하르람, 줄까으다, 줄힙자 4개월을 의미한다.
37-1) 한 해는 헤즈라 첫째달인 무하르람을 허락된 달로 하고 다른 해에 가서는 금기된 달로 하여
38-1) 전쟁은 「타북」전쟁을 가르키는 것으로 무슬림 병사들의 지하드를 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세적 욕망에 빠져 타북원정을 싫어하였다. 후나인 전쟁을 마치고 따이프로부터 돌아온 선지자는 로마원정을 위한 지하드를 백성들에게 촉구하였다. 그 당시는 가장 나쁜 환경으로 땅은 가뭄으로 황폐하였고 날씨는 혹더위가 계속되었을 때였다. 그후 농사(종려나무 열매 경작 및 일부 과수 농사)가 풍작이 되자 병사들은 시원한 그늘 아래서 편안한 생활을 원할 뿐 원정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8).
40-1) 「아나쓰」가 「아부 바크르」에 관하여 전하는 하디쓰를 「따브리」가 전하고 있다. 아부 바크르가 말하길, "동굴 안에는 저와 선지자 밖엔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발꿈치가 저희 머리 위에 있으니 선지자여! 그들 중의 하나가 그의 발을 든다면 저희가 그들 눈에 발각 될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께서 말하길, "아부 바크르여! 네 생각으로는 둘이나 하나님께서 그 둘과 함께 세번째로 계시니라"(알따브리 136/10)
2) 천사들로 하여금 동굴을 지키도록 하였다.
3)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라 일라하 일랄라"를 가르킨다.
4) 「타북」전쟁에 임하지 아니하려 주저했던 병사들이 있었지만 대다수 병사들이 믿음으로 그 전쟁에 임하였을 때 또한 선지자가 「메카」에서 여러 이교도들의 음모와 박해를 피하여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승리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지자는 메디나로 이주 하기에 앞서 그분의 추종자들을 미리 메디나로 보냈었으며 「알리」는 스스로 그의 집에서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다. 한편 선지자 무함마드는 「아부 바크르」와 함께 메카에서 약 3마일쯤 떨어진 「싸우르」 산 히라 동굴에서 3일밤을 숨어 있으면서 적들의 물샐틈 없는 경계와 탐색을 피했다. 동굴안에 같이 있던 「아부 바크르」가 "지금 우리 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무함마드께서 이르길,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니라"라고 대답하였다. 그러하므로써 그들의 믿음은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사 메디나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니 이것이 이슬람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41-1) 젊은이여 그리고 장년들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여 도보로 또는 승마하고

어떠한 환경에 있던 성전에 출전하여라.

2) 성전을 위한 원정과 지하드는 너희가 지상의 무상한 세속적 이익보다 나으리라.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현세의 이익이 적을 정복하여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라면 내세에서의 위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도 해석되고 있다(알바흐르 44/5).

42-1) 전쟁의 전리품을 획득 하기에 쉬웠고

2) 원정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3) 우리는 그대 무함마드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리품을 위해서 출정하였으리라.

4) 타북까지의 원정거리

48-1) 우흐드 전투에서 「이브누 쑬룰」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가버렸듯이(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25).

49-1) 선지자께서 「알잦드 이브누 까이쓰」를 「잘라드 바니 알아쓰파르」에게 초청하였을 때 그가 말하길, "선지자여 제가 원정에 나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를 여성들로 유혹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을 때 본절이 계시되었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25).

50-1) 전쟁에서 그대가 승리하거나 전쟁 노획물이 있을 때면

2) 그들은 믿음을 거역하리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26).

52-1) 승리 또는 순교

53-1) 위선자들의 무리여! 너희가 마지 못하여 내는 너희 재물은 하나님께서 수락하지 아니하시니라.

54-1) 그들이 바치는 것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를 첫째는 불신함이요 둘째는 예배에 게을리하며 재물을 마지 못하여 바치려 할 뿐 내세의 보상을 원하며 바치는 것도 아니요 내세의 벌이 두려워서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배는 육체적 신앙의 가장 훌륭한 행위로 재물을 바치는 것은 물질적 신앙의 가장 훌륭한 행위 중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53/5).

56-1) 너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믿는자들이라 너희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나

2)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불신으로 병들어 있으니 믿는자들이 아니라

58-1) 「싸다까」 :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선금을 말한다. 한편 이슬람세(Zakat)는 무슬림 공동사회에 정규적으로 내는 의무적 자선인데 상품일 경우는 2과 1/2%, 땅에서 재배되는 과실일 경우에는 10%가 일반적 관례이다.

60-1) 싸다까 : 구빈세, 자선금, 헌금 또는 세금이란 뜻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적용 받는 대상자, 수혜자, 적용비율은 세금이란 개념과 다르다. 꾸란에는 자카트, 싸다까 그리고 인파-끄 3가지 어휘로 표현되고 있다.

2) 가난한 자(푸까라아) : 자기 자신의 필수품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필수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들을 가르킨다. 여기서 필수품이라 함은 음식, 음료수, 옷, 주거지 등을 의미한다.

3) 불쌍한 자(미쓰킨) : 필요한 자 라고도 해석 될 수 있는데 가난한 자(파끼르)보다 곤경함이 덜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용되는 규정은 같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미쓰킨이란 어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미쓰킨은 한입 또 두입 또는 1~2개의 종려나무 열매를 위하여 사람들 사이를 배회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를 도와줄 부유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는 싸다까에 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에게 싸다까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4) 거기에 종사하는 자(알아밀이나 알레이하) : 이슬람세를 거두어들이는 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그의 직업이 사람들로 부터 이슬람세를 거두어 들이는 자,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종사하는 자, 관리자, 그것을 기록하는 서기등이 이

에 해당된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부유하다 하더라도봉급이 싸다까에서 지급된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싸다까는 다음 다섯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유한 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나니 : 거기에 종사하는 자, 그의 자금으로 그것을 구매하는 자, 부채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길에서 선전하는 자, 자카트로부터 싸다까를 받은 불쌍한 자가 그 싸다까의 일부분을 부유한 사람에게 선물했을 때이라"

5)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을 자(알무알라파 꿀루부훔) : 마음의 위안을 받을 자란 무슬림으로서 이슬람에 대한 신앙이 약하나 사회 또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한 부유한 사람에게도 자카트가 주어지는데 이로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 및 동정하고 그가 사회의 모범이 되며 동시에 죄를 제지하고 나아가서는 이슬람을 지원하도록작가들에게도 적용된다.

6) 노예(피 리까브) : 무슬림이 노예일 경우 자카트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며, 또 자유를 박탈당한 무슬림이 그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경우 그러한 무슬림은 자카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7) 채무자(가리무) :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 어떤 일로도 거역되지 아니하는 부채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부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부류의 채무자는 그가 지불해야 할 부채만큼을 자카트로부터 지불될 수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말하길, "싸다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일 경우니라. : 극히 가난한 자, 부채로 극히 시달린 자 그리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무슬림이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이라"

8)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피 싸비릴라) :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가장 좋은 행위는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는 행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는 비록 그가 부유하다 하더라도 자카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공단체 즉 성원, 병원, 학교 및 고아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행위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무기, 탄약, 양곡, 군대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9) 여행자(이브누 싸빌) : 외국이나 장거리 여행중에 곤경에 빠진 여행자는 비록 그 여행자가 본국에서는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카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가장 긴급한 필요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곤경에 빠진 여행자에게 필요한 여비를 대용하여 줄 사람이 없다면 더욱 더 그렇다. 곤경에 빠진 여행자가 그에게 여비를 대부해 줄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는 대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자카트의 혜택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61-1) 말과 행동으로 선지자를 괴롭히는 위선자들 가운데는

2) 듣는 어떤 소식이든 확신하고 믿으며 어떤 사람의 말이던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주눈」이라고 「잠카샤리」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29).

3) 좋은 것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실천하며 나쁜것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믿고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알려주는 소식들을 믿는 분이시라

4) 위선자들의 무리가 자기 생각대로 말과 행동을 하며 무함마드는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된 동기로 해석되고 있다(아쓰바브 알누줄 143).

63-1) 하나님과 선지자에 거역하는 위선자들

64-1) 그들 심중에 있는 위선

2) 이슬람을 조롱하던 위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위선을 들추어 내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다고 「잠카샤리」는 덧붙이고 있다(알카샤프 286/2).

65-1) 그대 무함마드가 위선자들에게 그들이 거짓하고 위선한 것들에 대하여 질문할 때면,

2) 타북으로 원정을 가는 길에 위선자들의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길, "샴 지역의 궁궐과 요새를개원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라"고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알려주었다. 예언자께서 그들에게로 갔을 때 그들이 말하길, "저희는 농담과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31).

66-1) 회개하고 개선하는 자

67-1) 위선은 남녀 구별없이 한 부류로 믿음을 멀리하는 그들의 위선은 유사하며

2) 불신과 거역

3) 믿음과 순종

4) 하나님을 위하여 자선을 하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있으며

69-1) 너희 위선자들의 경우는

2) 너희 이전 거짓하던 백성들의 경우처럼

3) 위선자들이여 너희가 세속적 물욕에 탐닉한 것은 너희 이전의 거짓했던 백성들이 그랬던 것과 같으며 그 이전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 위선자들도 그들처럼 멸망하리라(따브리 185/10).

70-1) 노아의 백성들은 대홍수로 멸망하였다.

2) 강풍으로 멸망한 아드의 백성

3) 벼락으로 멸망한 사무드 백성

4) 은혜를 부정함으로써 멸망한 백성

5) 은신처에 있던 날 벌을 받아 멸망한 백성

6) 롯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을들도 돌비 벼락을 맞아 멸망했다.

7) 기적들

72-1) 그들의 믿음으로 시원한 그늘이 진 천국과 나무들 밑으로는 강이 흐르는 천국

2) 그 주거지는 진주와 홍옥과 귀감락석으로 장식된 곳이라고 하싼은 풀이하고 있다(알카샤프 289/2).

3) 하나님의 기쁨을 사는 것은 위에 언급된 어느 보상보다 위대하니라. 천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기쁘고 만족하느뇨?"라고 물었을때, "당신의 피조물 어느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을 부여받은 저희가 어찌 기쁘고 만족하지 아니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을 때,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라고 천국의 백성들이 물었을때, "그것 이후에는 내가 영원히 화내지 아니할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라" (따바리 182/10)

73-1) 불신자들에게는 칼로 대항하고 위선자들에게는 웅변으로 대항하는 것이라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34)

선지자는 4종류의 칼과 함께 보내어졌나니

첫째 :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와 불신자들에 대항하는 칼과

둘째 : 하나님과 내세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와 불신자들에 대항하는 칼과

셋째 : 위선자들에 대항하는 칼과

넷째 : 폭군에 대항하는 칼이다(알무크타싸르 156/2).

2) 성전과 투쟁과 위협을 강화하라.

74-1) 위선자들

2) 위선자들의 한 무리로 이들은 타북으로부터 돌아올때 선지자를 살해하려 음모하였는데 그들은 대략 10명쯤 되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34).

75-1) 위선자들의 무리

76-1)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부유하게 하였을 때는 자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인색하였으며 성약을 위반하였고 하나님과 선지자에 순종하기를 거역하였다.

78-1) 인간의 오감으로 알 수 없는 모든 영역

80-1) 그대 무하마드가 위선자들을 위해

2) 불신자를 위해 관용과 자비로 충만한 선지자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와 기원을 하지만 그들이 불신상태에 있을때는 효용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81-1) 타북 원정에 출전하기를 거부하고 남아 있었던 위선자들은 기뻐하며

2) 「타북」전투에 참가하지 아니했던 위선자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열사의 기후에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 충동하였을 때 지옥의 불은 이 열사의 더위보다 더욱 강하고 무섭다는 것이 계시되고 있다.

3) 본절은 불신의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출전하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는 일, 성전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일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성전하지 못하도록 하는일(아부싸우드 286/2)

82-1) 현세의 삶은 짧은 것, 그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세속적 욕망을 즐기며 웃으나 순간의 현세가 끝나고 내세로 갔을 때 그들은 끊이지 않은 영원한 울음을 시작하여 계속하게 된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160/2).

83-1) 타북원정 때 위선자들의 무리에게 하나님이 그대 무함마드를 보내었을 때

2) 다른 원정에 출전시켜 달라 요청하였다.

3) 타북원정에 나가는 것

84-1) 무슬림이 사망하였을 경우 고인을 위한 예배를 근행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한다. 장례식에 참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믿음으로 매장할 때까지 무슬림 장례식에 참석한 자는 2캐럿을 얻은 다음 돌아오나니 각 캐럿은 우흐드 만큼이나 크고 장례식 예배후에 돌아온자는 단지 1캐럿 밖에는 얻지 못하니라"(부카리). 또한 무덤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신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위선자의 무덤 방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슬람의 생활규범 p.431-449 참조).

87-1) 「칼라리프」는 「칼리파」의 복수로 이 단어를 여성으로 볼 때는 타북전쟁시 출전하지 아니하고 집에 남아 있었던 여성들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그 여성들은 물론 출전하지 못한 환자들 및 노인들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38).

2) 지하드가 무엇이며 선지자에게 순종함으로써 오는 기쁨과 행복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역함으로써 그들에게 있을 불행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

88-1) 현세에서는 승리와 전리품을 얻는 은혜로 내세에서는 영원한 천국의 은혜라.

90-1) 타북원정에 출전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도록 허락하여 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아싸드」와 「가뜨판」은 부양할 가족이 많다는 핑계로 출전하기를 싫어하였다고 바이돠위는 풀이하고 있다(알바이돠위 230).

2) 현세에서는 살생되거나 포로가 될 것이며 내세에서는 지옥이라

91-1) 노인이나 환자는 출전하지 아니해도 죄악이 아니며 지하드를 위한 자선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선을 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 아니다.

92-1) 이 절은 남아 있으면서 선지자와 함께 전쟁에 임하려 원했던 그들에게 계시된 것이다. 7명의 「안사르」가 선지자에게 다가와 "전쟁에 임하기로 결심하였으니 당신과 함께 저희도 태워 데려가 주소서"라고 하였으나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을 태워갈 것들(짐승)이 없느니라"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돌아서 눈물을 흘렸다(알바이돠위 230).

2) 그들에게는 전쟁을 위해 재물을 바칠 것이 없었고 선지자에게는 그들을 태워갈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참전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죄악이 없다는 것으로 본다.

93-1) 지하드에 출전할 신체적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구실을 대고 지하드를 위해 재물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싫어하는 이들이 곧 죄인들이라는 뜻으로 본다.

94-1)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의 의미는 「타북」전쟁을 마치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거절했던 이들이 남아 있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를 가르킨다.

2) 너희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위선

3) 하나님

95-1) 위선자들

2) 타북원정에서 돌아왔을 때

3) 말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라지 164/16).

98-1) 그들이 지불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규정한 자선금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내야 할 자선금을 벌금이나 또는 하나님의 부담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그들은 미덕을 잃은 것이다.

99-1)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그것은 마치 태양이 언제나 빛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려 준비했을 때 인간은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그늘에 있던 사람이 준비하고 노력하여 밖으로 나갔을 때 끝없이 빛나는 태양빛을 만끽하는 것과도 같다.

100-1) 이슬람의 선구자는 곧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되 두려워 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무하지린과 안사르가 그 대표적 모범이다. 무하지린은 고향과 재산을 버리고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한 「메카」주민들을 일컫고, 「안사르」는 이 무하지린들을 즐거이 맞아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사회를 구성하는데 적극적 도움을 아끼지 아니한 「메디나」 주민들을 일컫는다.

101-1) 메디나에 살고 있던 위선자들 가운데는 「이브누 쑬룰」과 「잘라쓰」 및 「아부 아미르 라히브」가 그 대표적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이브누 알자우지 491/3).

2) 현세에서는 살생과 포로가 되고 임종할 때는 무덤에서 받게 될 2가지 종류의 벌

3) 그런다음 내세에서 지옥의 벌을

102-1) 믿음이 약하여 타북원정 때 무슬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무슬림들의 회개로 「라지」는 풀이하고 있다(라지 174/16).

2) 꾸란에 언급된 아싸('Asaa)는 모두 의무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라는 뜻이다. 아랍인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알따브리 12/11).

103-1) 이슬람의 생활규범 p.97참조.

2) 싸카눈 : 이브누 압바쓰는 은혜로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45).

104-1) 회개하는 이들

105-1) 그들은 「카압 이브누 말리크」, 「마라라 이브누 라비으」, 「힐랄 이븐 움미야」 등

107-1) "하나의 사원"은 위선자들이 지은 사원으로 「마쓰지드 디라르」 곧 해악의 사원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꾸바」는 메디나 중심부로 부터 남동쪽으로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마디나 외곽에 자리잡고 있다. 선지자께서 헤즈라로 메디나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선지자는 메디나에 입성하기전 4일을 「꾸바」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마쓰지드 따끄와" 즉 경건한 사원이라 불리우는 최초의 사원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선지자께서는 자주 이곳에 들리곤 하였다. 이때 「바니 가남」 부족 가운데서 위선자들이 「꾸바」에 사원 하나를 세워 이슬람이 발전하

는 것처럼 하게 하며 다른 음모를 꾸미려 하였다. 실로 이 위선자들은 가장 유명한 이슬람의 적인 「아부 아미르」 족과 동맹을 맺고 있었으며, 이 부족은 「우호드」 전투시 이슬람에 대항하여 싸운 적이다. 이들은 헤즈라 9년 「후나인」전쟁후 시리아에 남아 있었다.

108-1) 무함마드여 그 안에서 결코 예배를 근행하지 말라 그곳은 위선으로 세워진 위선자들을 위한 것이라.

2) 첫째날이란 선지자가 메카로부터 메디나로 이주하여 도착한 첫째날을 의미하고 정의로 세워진 사원은 선지자께서 몸소 건립한 꾸바 사원을 말한다.

110-1) 인간의 마음은 소망의 안식처요 또한 두려움이 거하는 곳이다. 곧 인간의 정신과 윤리 그리고 영혼의 반석이 곧 마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반석이 불안한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곧 산산조각이 되어 평온함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미신으로 흔들리게 됨으로써 인간의 영적생활이 무너짐과 동시에 현실적 생활도 붕괴되게 된다. 「하디쓰」에 "그곳이 건전할때 전체가 건전하며 그곳이 병들때 전체가 병드나니 그것은 곧 마음 이니라"라는 교훈도 이 절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111-1) 인간과 인간과의 물질 거래에서 구매자가 구입함으로써 얻는 것이 있고 판매자는 그것을 팔아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 진다. 인간과 신의 영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같은 원리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간의 의지와 영혼과 재산을 바쳤을 때 그 댓가로 창조주는 영원한 기쁨을 부여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투쟁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현세에서 인간이 바친 모든 것은 영원한 구원과 최고의 소망을 얻기 위해 파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꾸란」에서는 물론 모세의 율법인 구약과 예수의 복음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슬람의 구원론에서는 이 사실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여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그분의 유혈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독교 사관의 구원론이 배제되고 있다.

112-1) 하나님의 율법 모두를 준수하며 금기된 것을 단념하는 자

113-1) 「아비 딸립」에게 계시된 절로 해석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50).

114-1) 그의 아버지 「아자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제6장 74절 및 19장 47절 참조).

2) 아브라함

115-1) 불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무슬림들의 기도에 계시된 절로 그들을 위안하는 절이다(알타쓰힐 86/2)

117-1) 전투에 출전 하지 아니하려 했던 위선자들을 위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던 예언자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2) 가장 더운 열사의 시기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했던 어려운 시기

3) 타북 전투에서 다소간 실수와 오류를 저질렀던 무하지린들과 안사리들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118-1) 남아있던 세 사람은 「타북」 원정때 참전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카압」과 「힐랄」과 「마라라」를 말한다(알따브리 58/11).

119-1) 하나님을 섬기되 양심과 의도와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여

120-1) 선지자를 따라 타북 원정에 출전하기를 거절하였고

121-1) 그들이 실천한 일이 좋은 일이었다면 더 좋은 것으로 보상되나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보상을 선택 하였다고 「알올루씨」는 해석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47/11).

122-1) 전쟁이 불가피할 때 이맘의 지휘아래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말살하는 전쟁은 영광스러울 수 없다. 전쟁에 참가하지 아니한 여성들과

장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는 남아서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 가르치는 스승과 배우는 학생은 곧 지하드의 군인이기 때문이다. 지하드란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자와 공격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성전을 의미한다. 하디쓰에서는 지하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너희가 성전하라 부름을 받았을 경우 그 부름에 응하라"

124-1) 꾸란의 절
2) 위선자들 가운데 무리가 조롱하여 말하길
125-1)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위선으로 그들의 마음이 병든 자들
2) 위선에 위선을 더하고 불신에 불신을 더하여
126-1) 1년에 한 두차례 그들에게 계시가 내려 그들의 양심과 위선을 들추어 내는데도
127-1) 꾸란이 계시되어 위선자들의 양심과 위선을 들추어내니 선지자와 자리를 같이 하고 있던 이들 위선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며 말하길
2) 무슬림 가운데 어느 누구가
128-1) 아랍백성 중 꾸라이쉬 부족 중에서
129-1) 그대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믿지 아니하고 불신한다면
2) 하나님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 하지 아니 하니라.
3)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경배 받을 자 없으며

제10장 수라트 유누스

「요나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09절로 창조주의 존재, 성서들, 선지자들, 내세 및 부활에 관한 이슬람의 원리들을 언급하고 있다. 1~20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이 인간을 통하여 기적과 같이 아름답게 전달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시받으며 우주의 섭리를 고찰하면서 창조주의 섭리와 교훈을 얻고 있다.21~40절에서는 인간이 접하는 모든 종류의 선과 아름다움은 곧 창조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눈이 어두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41~70절에서는 창조주를 제외한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도래 하였으므로 종국에는 모든 것이 다시 창조주에게로 귀의한다는 말씀을 하였다. 71~92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말씀을 계시하였으나 노아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거역함으로서 멸망하게 되었고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파라오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으나 파라오는 거만을 피워 멸망하고 말았다. 한편 요나의 백성들은 서둘러 회개함으로서 구제되었다. 그래서 본 장의 명칭이 요나, 아랍어로는 '유누스' 장이라 불려지게 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57).

1-1)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신비적 상징 또는 기적의 하나로 이해된다.
2) 이것은 의혹이나 거짓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창조주의 말씀 꾸란이라.
2-1) 메카 꾸라이쉬 백성중에 무함마드를 선택하여 말씀을 계시하고 경고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 메카 백성들을 놀라고 당황하게 하였단 말이뇨?
2) 하나님께서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선택하였을 때 불신자들은 이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면서 말하길, :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그분의 선지자로 택한단 말이뇨? 하나님은 고아 외에는 그분의 선지자로 보낼 사람이 없단 말이뇨?" 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알꾸르뚜비

306/8).
4-1) 부활의 날 모든 인간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로 귀의하니
2) 처음에 창조를 개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복하사
5-1) 태양력과 태음력을 계산하여 날과 주일 그리고 달과 해를 알게하는 계산
10-1) 천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듯 "당신에게 평안이 있으소서 라고 인사하며 각각의 문으로 천사들이 들어오도다"
11-1) 회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죽음을 유예시킨 것이라고 「따 브리」는 해석하고 있으며(알따브리 91/11) 한편 다른 해설가들은 메카 불신자들에게 계시된 절이라 풀이하고 있다. 메카 불신자들이 말하길, "하나님이여! 이것이 진정 당신으로부터 온 진리라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돌비를 내려보소서"
12-1) 병이나 가난 등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
13-1) 멸망한 것은 죄악과 창조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14-1) 본절은 최초 꾸라이쉬족을 일컫는 것으로 이들은 「아드」나 「사무드」족이 창조주에게 거역했던 것처럼 꾸라이쉬족도 마찬가지로 창조주에 대하여 거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시는 꾸라이쉬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하룬 라쉬드」시대의 압바스 통치때나 스페인과 터키에서의 무슬림통치 때도 그러했다.
15-1) 꾸란 외에 다른 것을 낭송하시오. 즉 우리의 신들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꿈을 조롱하지 아니하는 다른 책을 읽으시요.
2) 응벌의 단어를 은혜로, 우리의 신들을 비난하는 곳에 극찬하는 영광의 단어로, 금기하는 곳에 허락이란 어휘로 대체하라. 이절은 메카 불신자들에게 계시된 절로써 이들이 말하길, : "무함마드여! 꾸란말고 우리가 지키는 다른 것을 낭송하라"고 하였을 때 계시된 것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131/5).
3) 하나님의 말씀
16-1) 꾸란을 낭송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꾸란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선지자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창조주 말씀을 전달받기 이전 40년 동안을 의미한다.
18-1) 무생물의 우상들
2) 우상들
19-1)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는 하나의 공동체 즉 하나의 종교 곧 이슬람의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여오다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종교와 공동체가 파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신은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매 복음의 전달과 동시에 경고자로서 보내게 된 것이다

본장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의 날까지 연기하여 줌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이 갖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풀이된다.

아담과 노아 사이의 연대는 10세기 이상이었으며 이 10세기 동안은 모두가 하나님 한분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슬람이었으나 그후 우상을 숭배하면서부터 서로가 견해를 달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경고자로써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보내게 되었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덧붙이고 있다(알무크타싸르 188/2).
20-1) 불신자들
2) 그전 예언자들에게 있었던 암낙타나 지팡이 또는 모세 손에서 일어났던 기적같은 것이 그대 무함마드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뇨?
21-1) 메카의 불신자들.
2) 하나님께서는 7년동안 그들 불신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기아상태

에서 멸망할 시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때 그들은 믿음을 약속하고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그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비를 내리게 하여 그들을 기아의 멸망으로부터 구하니 그들은 다시 창조주를 불신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

3) 조롱하고 거짓하니

4) 그들의 음모에 대한 응벌을 유예하였다고 무자히드는 해석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64)

5) 천사들

22-1) 육지는 탈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바다는 배를 이용하도록 하여 횡단하도록 하였다.

23-1) 현세를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귀의한다.

24-1)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 인간의 현세적 삶을 설명하고 있다. 하늘에서 내린 빗방울은 곧 땅에 스며든다. 그후 창조주는 견줄 수 없는 예능과 예술로써 대지위에 열매를 맺게 한다. 이모든 유용하고 아름다운 열매며, 채소며, 과일을 인간과 동물의 양식으로 만드셨다. 또한 대지는열매와, 과일과, 채소를 여러가지 빛갈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든다. 이때 뭇 인간은 이 모든 찬란함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영원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가뭄과 폭풍과 서리와 화산의 폭발로 또는 병충해로 모든 것이 헛되어 물거품처럼 될 때가 있다. 이때 어디서 어제의 거만함과 자랑함을 찾을 수 있는가! 인간의 현세적 삶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25-1) 슬픔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만끽하며 영생하는 천국

2) 이슬람

26-1) 천국의 보상과 더불어 창조주와 영접하는 보상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66)

27-1) 현세에서 사악한 행위를 저지른 무리.

2) 사악한 무리에 대한 보상은 그들이 저지른 만큼의 벌이 있으나 선행을 실천한 사람의 보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더욱더 증가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사악함은 그가 행한 것처럼 벌이 있을 것이요 선행은 은혜로 더하여지니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66)

28-1) 믿는 신앙인들과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해 함께 모아

2) 심판의 날 하나님은 우상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니 그 우상들이 말하더라 : "실로 우리는너희 불신자들이 우리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또한 너희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숭배하라 명령하지 아니했도다"(알꾸르뚜비 333/8)

29-1) 우상들이 부활의 날 우상 숭배자들에게 말하길 : "우리와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만이 증인으로 충분하니라. 우리는 너희가 우리를 숭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볼 수도 없으며 지혜도 그리고 영혼도 없는 무생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67)

30-1) 그 시각에 모든 인간은 그가 행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니 그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되리라.

2)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이 그들을 중재하여 주리라 주장했던 것들

31-1) 본 절은 우주만물을 창조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창조주의 유일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3-1)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성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메세지를 믿지 아니한 그들에게 그들의 오만과 방황에 대해 징벌이 있었으니

34-1) 우상들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후 다시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우상이 있

는지 그대 무함마드여 그들 불신자들에게 물어 보라.
37-1)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 아니며 위조되었거나 거짓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2) 이전에 계시된 것은 구약과 신약을 가리킨다.
38-1) 무함마드가 스스로 이 꾸란을 위조하였다고 불신자들이 말하더뇨?
2) 꾸란
39-1) 이들 불신자들은 꾸란에 대하여 거짓하고 부정하며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인지 아닌지 이해하려 하지도 아니한 채 죄악을 낳더라.
40-1) 이 꾸란을 믿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 자 있고
2) 믿지 아니하고 불신상태로 죽는 자 있으니
3) 하나님은 복음으로 인도될 자가 누구이며 방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방황하게 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심이라.
41-1) 이들 불신자들이 그대를 부정한다면
2) 나는 내가 하는 일로 보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행하는 일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
3)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할 수 없느니라.
42-1) 그대가 낭송하는 꾸란에 귀를 기울인자 있으되
2) 하나님의 뜻이 없을 경우 그대 무함마드도 하나님께서 봉하여 버린 불신자들의 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무크타싸르 195/2).
43-1) 그대가 창조주의 선택을 받아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는 분명한 예증이 있지만 그들 불신자들은 장님으로 보지를 못하니 그대 무함마드는 마음이 장님이 되어버린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뇨?
44-1) 죄 없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아니 하시니라.
2) 그러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신하고 죄악을 낳으니… 불신자들의 마음을 봉하고 장님이 되게 하며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되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봉하여 버린 것이라 따브리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20/11).
45-1) 부활의 날
46-1) 그들에게 있을 벌을 현세에서 그대 무함마드에게 보여 주거나
2) 그 이전에 그대를 임종케 한다 하더라도
3) 그들은 내세에서 결국 하나님에게로 귀의하여 징벌을 받을 것이라.
4) 하나님은 그들 불신자들이 행한 거짓과 위선과 불신과 사악함을 지켜보셨기 때문이라.
47-1) 모든 세대 모든 백성 및 공동사회에는 창조주가 보낸 메세지 내지는 선지자가 있다. 곧 창조주는 그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계시를 내린 것이다. 이때 그 선지자가 백성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거역을 당하거나 메세지가 잘못 사용될 때 심판의 날이 도래함으로써 공정한 심판이 있으며 온전한 진리가 밝혀지게 된다. 불신자들이 비웃어 말하길,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날이 오라 기도하여 보라!" 하니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르길, "때가 되면 오리라 누구도 그 날을 서둘러 오게 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 날을 지연시킬 수 없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하도록하거나 내가 너희를 해칠까 두려워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 그분께 있는 일이며, 내가 내 자신을 이롭게함도 또는 해롭게 하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것이니라"48-1) 메카 불신자들이 무함마드에게 말하길, : "그대가 우리에게 약속한 응벌이 언제 오느뇨?"
49-1) 나에게 일어나는 해악도 내가 방어 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을 유용하게도 할 수

있는 것도 나에게나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없으며 오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만이 있을 뿐이라.

2)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할 수 있지만 너희가 서두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뇨?

51-1) 불신자들이여! 하나님의 응벌이 너희에게 도래하였을 때에야 믿음을 갖겠단 말이뇨? 그 믿음은 이미 늦어 유용하지 못하니라(알따브리 122/11).

54-1) 황금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속죄 받으려한 자들 중에 있다 하여도 이는 수락되지 않을 것이며

56-1) 현세를 마치고 내세로 돌아가 너희가 행한 대로 대가를 받으리라.

57-1) 인간들이여! 너희를 위한 교훈이요 의심과 의혹과 무지로 병든 마음을 치료하며 방황하는 너희를 구원하는 꾸란이 복음으로 너희에게 도래하였느니라.

58-1)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꾸란이요 그분의 은혜는 이슬람이라고 이브누 압바쓰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171/5).

59-1) 불신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창조한 허락된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았느뇨?

2) 본 절은 불신자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계시된 절로 이들 불신자들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 또는 가축의 일부를 금기하거나 허락하기도 하였다(알무크타싸르 198/2).

3) 금기하고 허락하는 것에 대해 창조주로부터 허락이라도 받았단 말이뇨?

60-1) 일용할 양식을 비롯 선지자들과 성서들을 보내어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려는 은혜까지 내리셨으나

61-1) 너희 인간이 선이나 악을 행하는 모든 것

2)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과 악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거나 작은 것이나 무게가 없는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기록되어 그것에 따라 보상과 응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알따브리 130/11).

63-1)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고 두려워하며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64-1) 현세와 내세에서 기뻐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니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분의 은혜이며 내세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다.

2) 그분의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65-1) 이따금 불신자나 위선자의 말과 행위가 경건하고 겸허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거나 상처는 주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분노하거나 슬퍼할 가치가 없다. 그들은 그러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능과 명예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68-1) 「아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듯이 메카 불신자들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낳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아니하신 홀로계신 분이며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권능안에 있어 어느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76).

71-1) 무함마드여! 메카 주민의 불신자들에게 노아가 불신자들이었던 그의 백성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라. 제9장 25-48절, 제7장 59-64절, 제23-32절, 제26장 105-122절, 제37장 75-82절 참조.

2) 노아

72-1) 「무슬림」이라 함은 절대자인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을 말한다.

74-1) 후드, 살레, 롯, 아브라함 및 슈아이브

75-1) 9가지의 예증을 보낸 것으로 제7장 103-137절 사이에 언급 되고 있다.

76-1) 하얀손이 된 모세의 손과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기적

78-1) "당신"은 모세와 아론 두 선지자를 가리키며 "지상"은 애굽을 말한다.

87-1) 애굽에 거주할 집을 지으라는 계시는 파라오가 불러들인 마술사들이 혼돈을 일으키려 했을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세는 애굽에서 잠시 머물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기 이전에 해야 할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해야만 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대중이 예배할 곳을 허락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집을 짓되 끼블라를 향하도록 하였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사프와트 타프씨르 제5권 p.80).

2)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들의 집에서 예배를 근행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54/11).

89-1) 파라오와 그의 수장들에 대한 그대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대답하나니

2)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율법을 지키되 그대 모세와 아론은 강직해야 되니라

90-1) 「스위스 바다」라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81)

92-1)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멸망에 관하여 의심을 품자 하나님은 바다에 명령하여 시체를 드러내게 하니 그의 죽음과 멸망이 확인되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무크타싸르 206/2).

93-1) "아름다운 주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기간 방황중에 있다가 젖과 꿀(출애굽기 3장 8절)이 흐르고 있다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가르킨다. 그들은 그곳에서 번성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적 양식을 부여 받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진실되고 겸손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오만과 거만을 피웠으니 그것에 관해서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2) 하나님의 율법 타우라(구약)가 이르기전 까지는 종교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했다. 한편 따바리는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도래하기 전에는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그들에게 왔을 때는 그들 중의 일부는 믿었으며 일부는 부인하였는데 이처럼 그들의 의견이 달랐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알따브리 167/11).

94-1) 선지자 무함마드는 의심하지 아니했으므로 물어보지도 아니했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82).

2)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가 하나이다. 오늘날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유대인이였던 「압둘라 이븐 쌀만」 기독교인이었던 「와라까」나 「바히라」도 무함마드의 임무를 인정하고 있다(Abdullah Yusuf Ali, The Glorious Quran Translation and Commentary. p.508 Note No.1475).

97-1) 파라오가 멸망할 순간에 믿으려 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때서야 믿으려 하나 그때의 믿음은 그들을 유용케 하지 못했다.

99-1) 창조주는 인간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 "신앙에는 강요가 있을 수 없나니…" 라는 말씀에서도 계시되고 있지만 본 절에서는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신앙을 강요하지 않도록 계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83).

104-1) 너희 불신자들이 나의 종교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용하지도 아니하고 해악을 끼치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 신앙을 의심하라. 실로 내가 믿는 신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며 유익하게도 하고 해악을 끼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알따브리 176/11).

2) 하나님 한분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되 그 밖에 어느 것과도 비유하지 말라 명령을 받았느니라.

105-1) 신앙에 진실하고 충실하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키라.

106-1) 하나님 외에는 이익도 그리고 해악도 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108-1) 꾸란

2) 나 무함마드는 너희의 모든 행위를 기록 보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벌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경고하러 왔을 뿐이라.
109-1) 선지자에게는 위안을, 불신자들에게는 응벌을 제시하는 교훈으로 이해된다.

제11장 수라트 후드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23장으로 유일신 사상과 메세지 그리고 부활 및 보상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2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오만 불손함과 허세와 위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함이 언급되고 있으며, 25～49절까지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면서 보여준 헌신과 인간성 그리고 백성들이 신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웃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어 구제의 축복을 받은 반면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백성들은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50～68절에서는 아드와 사무드 백성에게 후드와 살레 두 예언자의 가르침, 65～95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롯의 충고, 슈와이브 백성과 미디안 백성들이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에 빠져 스스로 멸망한 사실, 96～123절에서는 폭군 파라오처럼 백성을 잘못 인도한 왕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였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이 '후드'로 불려지게 된 동기도 후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86).

1-1) 꾸란의 기적을 제시하는 철자의 복합형
2) 허용된 것(할랄)과 금기된 것(하람)이 무엇이며 피조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세분화 하였다.
2-1)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불지옥이 그들의 보상임을 경고하고
2)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보상임을 전하고
3) 최후의 선지자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3-1)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후 순종하고 정직하라
2) 현세에서 사는 기간동안
3) 선행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가 실천한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4) 심판의 날
4-1) 사망 후
2) 생명을 부여하시고 앗아가며 인간이 행한 업적에 따라 벌과 보상을 내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5-1) 본절은 「알아크나쓰 이븐 샤리크」를 향한 계시로 선지자 무함마드를 동행할 때나 자리를 같이 할 때면 선지자를 사랑한다고 맹세하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가 말한 것과 반대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선지자와 믿는 신앙인들에게 적대시 하였던 불신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행위의 모든 것을 숨기려 하였다고 「꾸르뚜바」는 덧붙이고 있다(알꾸르뚜비 5/9).

6-1)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2) 「무쓰타까르르」는 얼마동안 거주하여 사는 곳 즉 동물에 비유한다면 그 동물들이 죽기 전까지 세상에서 사는 삶을 말하고 「무쓰타우다」는 저장된다는 언어적 뜻이나 여기서는 생명화 되기까지의 달걀의 상태에서 존재 또는 죽은 후에 무덤에 묻힌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 될수 있다. 「이브누 압바쓰」는 죽어서 묻히는 곳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알바호르 204/5).
7-1) 천지가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권자는 물위에 있었다. 하늘과 대지가 창조되기 이전 권좌(알아르쉬)와 물이 창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알카샤프 380/2).
2)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련과 고통으로써 이따금 시험을 하는 것은 인간의 선을 향한 훈련과 인간정신 세계를 순화하는데 창조주의 뜻이 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던 은혜를 시험으로 거둬들일 때 신을 불신하게 된다.
3) 그대 무함마드가 메카불신자들에게 죽은 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그들 불신자들은 심판과 부활을 조롱하며 이 꾸란은 분명한 마술에 불과한 것이라 말할 것이라.
8-1) "무엇이 벌을 지연시키느뇨? 벌이 있다는 말은 무의미한 것이며 그러한 벌은 절대로 없느니라" 불신자들은 조롱하며 말할 것이라.
9-1) 건강과 평안 풍성한 양식 등 온갖 종류의 은혜를 베풀다가 이 은혜에 감사하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이를 거두어 갈 때면
10-1) 또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시험한 후 은혜를 베풀 때 그들은 그 은혜가 그들의 영리함과 지혜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며 창조주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거만을 피워 죄악을 낳는다. 본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는 절망하고 은혜를 받을 때면 거만해 하는 인간을 힐책하는 교훈으로 본다.
11-1) 믿음으로 어려울때 인내하고 은혜를 받을 때면 선행을 실천하는 이들의 잘못과 실수는 용서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하나의 큰 보상이 있나니 그것은 곧 천국이라.
12-1) 불신자들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하늘로부터 보물을 가져오던지 또는 천사들과 함께 오라고 제안하며 꾸란을 조롱하자, "그들이 그대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대 주님으로부터 계시되는 꾸란의 일부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빠뜨릴까 염려되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89). 본절은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하되 이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으로 본다.
13-1) 그대 무함마드가 이 꾸란을 만들어 스스로 위조하였다. 그들 불신자들이 말한다면
2) 이 꾸란이 위조된 것이라면
14-1) 이 꾸란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라.
15-1) 현세의 부귀영화만을 원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질적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나 내세에서는 그에게 줄 어떤 은혜도 없다. 그러나 창조주를 믿는 신앙인을 위해서는 그가 현세에서 실천한 선행에 대하여 내세에서도 보상을 준다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214/2).
16-1)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현세 생활로 만족하는 이들이 실천한 선행은 모두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다.
17-1) 증거는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을,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여 준 천사 곧 가브리엘 천사로 풀이 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91).
2) 구약성서(타우라)
18-1)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것.
2) "알아슈하드"의 언어적 의미는 "증인들"이란 뜻이나 여기서는 천사들을 가르킨다.

3) 라으나 :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추방된다는 뜻
19-1) 진리를 추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2) 심판의 날과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라.
20-1) 하나님의 재앙과 벌로부터 도피 할 수 없으며
2) 재앙과 벌이 있을 때 이를 막아줄 어떤 보호자도 없다.
21-1)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불지옥에 들어가는 불행을 받게 되는 자들이며,
2) 그들을 구원하여 주리라고 주장하면서 숭배하였던 우상들
22-1) 부활의 날
23-1) 믿음을 갖되 동시에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으로 선행이 없는 믿음과 믿음이 없는 선행 모두는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1) 믿는 부류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무리
2) 「잠카샤리」학자는 불신자들을 장님과 벙어리에 비유하였고 믿는 사람들은 보는 자와 듣는 자로 비유하였다(알카샤프 387/2).
25-1) 세상이 죄악으로 범람하자 창조주는 노아를 선지자로 보냈다.
2) 너희가 창조주를 믿지 아니할 경우 하나님의 응벌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려 왔느니라.
27-1) 노아의 백성
2) 이들 불신자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된 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여 그들 중에서 그를 선지자로 선택하여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였다고 잠카샤리는 풀이하고 있다(알카샤프 388/2).
28-1) 특별한 은혜로써 그것은 창조주로부터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을 의미한다.
2) 노아는 겸손하고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강직하고 확고한 마음으로 진실과 사랑으로써 그의 백성들에 다음 3가지 형태로 대하고 있다. 첫째는 그가 창조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둘째는 백성들의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것은 은혜의 메세지라 백성들에게 전하였으며 셋째 신앙에는 강요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The Glorious Quran, Translation & Commentary, Abdallah Yusuf Ali p.520 Note No.1519 참조).
29-1) 은혜의 메세지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가로 너희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니라.
2) 너희 불신자들이 요구 했던대로 나는 믿음을 가진 이 언약한 신앙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니라
31-1) 너희가 너의 재산을 믿고 나를 따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물이 나에게는 없으며
2) 내가 신이라 너희가 생각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며
3)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경멸했던 연약한 이들에게
4) 내게 하나님의 보물이 있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있으며 내가 천사라도 말하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경멸했던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없다고 말하였다면
32-1) 그대 노아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대가 우리에게 약속한 벌을 이르도록 하여보라.
33-1) 너희가 서둘러 요구하는 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이르게 하니라.
35-1) "무함마드가 이 꾸란을 스스로 위조한 것이라 꾸라이쉬 불신자들이 말하리니" 라는 뜻으로 대다수 학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븐 아띠야」와 「아부 하

이얀」은 노아의 이야기로 보고 인칭접미어 후(hu)를 노아의 백성들로 풀이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노아가 이 소식들을 위조하였다 말하리니"(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95).

2) 나 무함마드가 이 꾸란을 위조 했다면 죄는 나에게 있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3) 본절은 노아의 이야기가 메카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불신하고 거역했던 이야기들에 대조되어 설명되고 있다.

36-1) 이전에 이미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들을 제외하고는 그대 노아의 메세지를 따르려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그러므로 그들 불신자들이 그대를 부정 하더라도 슬퍼하지 말라. 나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케 하리라.

37-1) 하나님의 보호아래

2)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무자히드」는 본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라고 해석하고 있다.

3) 그들 불신자들을 위해 중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케 하리라.

4) 그들은 대홍수에 익사하여 멸망케 되리라.

38-1)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된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드니 불신자들이 노아를 "어제까지도 예언자라고 하던 그대가 오늘은 배나 만드는 목공이 되었지 않는가?" 라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39-1) 그 벌은 대홍수에 익사하는 벌을 가르킨다.

40-1) 약속의 명령이란 대홍수가 있어 하나님을 거역한 노아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리라는 약속을 가르키며 멸망될 자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 및 그의 가족 즉 그의 아들 「가나안」과 그의 부인 「와일라」을 포함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96). 노아의 950년 생애 기간중 소수만이 하나님을 믿고 노아를 따랐는데 「이브느 압바쓰」는 남녀 합하여 80여명이, 「카압」는 72명만이 노아를 따랐다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2/2).

41-1) 노아

2) 노아를 선지자로 믿고 그분의 메세지를 따랐던 신앙인들에게 노아가 말하길,

42-1)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땅에서 물이 솟도록 하여 산을 덮을 정도로 물을 범람하게 하니 방주에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익사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하씨야 알싸위 알잘랄라인 216/2).

43-1) 노아의 아들

44-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익사하여 멸망하는 자와 믿음으로 구제되는 일이 완료되었음이라.

2) 방주에 오른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지상의 백성 모두가 멸망하였을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전하여 지고 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던 한 여인에게도 홍수가 닥쳤다. 이때 이 여인은 그 아이를 가슴에 앉혔다. 물이 다시 그곳까지 차 오르자 아이를 그녀의 어깨에 올렸으며 물이 그녀의 어깨까지 차 올랐을 때는 그녀의 두손으로 아이를 들어 올렸다. 만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방주에 오른 신앙인들을 제외한 지상의 어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것이라 전하여지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62/12).

45-1) 가나안

46-1) 그대의 아들 가나안은 불신자이므로 믿는 신앙인들의 가족이 아니라.

2)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릇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일은 나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

49-1) 무함마드

2) 노아가 인내하였듯이 그대 무함마드도 인내하라.

50-1) 「아드」백성을 위해 보내어진 「후드」예언자에 관한 얘기는 65-72절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메카」주민들의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대했던 것처럼 다른 백성들이 그들의 예언자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가 기록되고 있다. 본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드」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후드」예언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케하여 구원하려 하였으나 그들 백성들이 고집하여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믿는 소수의 백성을 제외하고는 멸망시켰다.

51-1) 너희를 위한 나의 충고와 하나님의 메세지를 너희에게 전한 것에 대한 보상

52-1) 「아드」백성들의 불신으로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도로 하여 그들을 멸망케 하려 했을 때 「후드」예언자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그들에게 내려 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01).

53-1) 우상들을 숭배하는 우리의 신앙

2) 그대 후드를 선지자로서 믿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그대가 전한 메세지도 믿지 않느니라.

55-1) 본절은 가장 훌륭한 기적들 가운데 하나로 창조주를 배반한 모든 백성들이 대항하는 선지자 노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02).

56-1) 「아-키주 비-나씨하」는 아랍 이디엄으로 "말의 앞머리를 움켜잡는다"가 본래의 언어적 뜻으로 말의 앞머리를 움켜잡는 사람은 그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된다. 이 이디엄은 신의 말씀을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력은 무한대이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 밖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7-1) 진리와 복음으로 인도하는 나의 선교를 거역한다고 하여도

58-1) 하나님의 벌로써 가혹한 바람이 그들 불신자들을 멸망시켰다.

59-1) "루술"은 라술 즉 선지자의 복수이나 본절에서의 의미는 후드 선지자를 지칭하는데 언어적 측면에서 복수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후드 선지자 한분을 거역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복수로 계시된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03 참조).

60-1) 라으나 : 하나님의 은혜 및 모든 선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알파크르 알라지 16/18).

61-1) 흙에서 아담을 창조한 후 그로하여금 자손들을 두도록 하였다.

63-1) 나를 선지자로 선택하사 너희를 인도 할 메세지를 주셨으니

64-1) 불신자들의 요청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준 암낙타.

65-1) 3일을 더 즐기라는 것은 좀더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 그들을 구원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밤중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 그들을 멸망시켰다.

66-1) 창조주를 불신했던 살레의 백성들을 멸망케 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도래 하였을 때

67-1) 불신자들의 마음을 갈기 갈기 찢어버린 하늘에서 내려온 광음이라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04).

68-1) 하나님의 천벌로 멸망한 그들은 마치 그들이 그곳에서 살지 아니했던 것처럼 완전히 멸망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69-1) 「루술루나」 "우리의 선지자들"이란 언어적인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지자들"은 천사들을 가르킨다. 본절은 4번째로 언급되는 선지자의 얘기로 「롯」으로 하여금 말씀을 거역하며 거짓하는 그의 백성들을 경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아브라함이 낯모르는 손님으로부터 인사를 받았을 때 그는 곧 구운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였다. 이때 손님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천사들 이었기 때문이다. 동양 예법에서 대접하는 것이 거절되었을 때 그것은 곧 심상치 않는 일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하여

지고 초초함을 감추지 못하자 이 낯선 손님들은 그들이 롯을 경고자로서 돕기 위해 그들이 왔다고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백성의 아버지였다는 복음을 전하여 준 천사들임을 밝혀 주었다. 한편 롯의 백성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가르키고 있다. 한편 천사들은 가브리엘과 미카엘 그리고 이스라펠 천사였다고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62/9).

2) 그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라 해석되고 있다. 한편 잠카샤리 학자는 롯의 백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전자가 옳은 것으로 무함마드 알리 사부니 학자는 보고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05).

3) 아브라함도 서둘러 천사들에게 인사하였다.

70-1) 음식

2) 아브라함이 대접한 구운 송아지 고기에 손을 대지 아니 할 뿐 아니라 음료수도 마시지 아니한 그들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두려움이 더하여졌다. 아랍 관습에 따라면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한 음식을 손님이 먹지 아니할 경우 그 손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불운의 소식을 가져온 손님이라 생각하였다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71/12).

3) 이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길, "당신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아니한 우리를 보고 두려워 하지 마시요. 우리는 당신 주님의 천사들로 먹지 아니하며 롯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기 위해 왔을 뿐이요"라고 하였다.71-1) "그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바이다위(Baidhawi)에 의하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120살, 그의 아내 사라 나이 100살의 나이로 아이를 갖을 것이라는 소식에 놀라면서도 가능할까 하는 의아심에 미소지어 웃은 것으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05).

72-1) 기쁘고 놀라 말하길

2) 이런일은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닌 이상한 일이라.

73-1) 천사들

2) "가족들"이라고 호칭한 것은 아내와 가족 전체를 일컫는 인사예법으로 직설적으로 아내의 안부나 인사를 전하는 것 보다는 가족이란 호칭으로 인사 및 안부를 묻는 것이 예의 임을 시사하고 있다.

74-1) 이상한 손님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또 자손을 갖게 되리라는 복음을 들은 후 아브라함은 안정을 되찾고 죄지은 롯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원을 드렸다.

76-1)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길

2) "이것은" 멸망할 롯의 백성을 위한 자비를 간구하는 것.

77-1)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롯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였을 때

2) 아브라함

78-1) 구약성서 창세기 19장 14절과 31절에서 38절까지에서는 딸들이 아버지께 술을 먹인 후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큰딸에서 난 자손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 딸에서 낳은 자손의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으나 꾸란에서는 어느 곳에도 그러한 추행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본절에서 "내 딸들"이라고 롯이 얘기 한 것은 그 고을의 어떤 젊은 여성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직도 아랍사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에게 말을 할때 왈라디(나의 아들)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79-1) 백성들이 롯에게 말하길

81-1) 예언자인 롯의 부인은 그녀의 남편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신자였다. 뒤돌아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나 그녀는 그 말씀을 거역하여 뒤를 돌아본 죄로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다(창세기 19장 26절 참조).

83-1) 각 돌마다에 던진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라비의」는 풀이하고(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09) 그 돌은 대지 위의 돌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 주님으로부터"라는 절이 입증하고 있다고 「꾸르뚜비」는 덧붙이고 있다(알꾸르뚜비 83/9).

84-1) 본장에 언급된 얘기 중에서 6번째의 얘기로 슈아이브도 같은 마드얀 부족의 한 일원이었다. 그래서 슈아이브도 그들의 한 형제라 표현되고 있다.

2) 저울의 눈과 무게와 양을 속여 부자가 되는 너희를 보고 있도다.

3) 부활의 날

86-1) "바끼이야투 알라"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는 것이란 언어적 뜻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람(금지된 것)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할랄(허락된 것) 편에 남도록 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나 「무자히드」는 하나님에의 순종이라고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00/12).

2) 슈아이브

3) 나는 너희가 행한 결과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보상을 주는 자가 아니며 단지 충고하고 내세에서 있을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 주는 자에 불과하니라.

87-1)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되 무게와 저울 눈을 속여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슈아이브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길,

2) 기도는 종교를 의미한다.

88-1) 복음과 예언자로서 선택 받은 것

2) 허락된 재산, 슈아이브는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10).

89-1) 노아의 백성은 대홍수로 익사하였고 후드의 백성은 바람과 폭풍으로써 그리고 살레 백성은 공포와 전율로써 멸망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89).

94-1) 가브리엘 천사가 함성을 보내니 그들 육체로부터 영혼이 나가 버렸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92/9).

95-1)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그분의 은혜로부터 사무드 백성을 멀리 하였듯이 마드얀의 백성들도 그분의 은혜로부터 멀리 하지 아니했느뇨?(알따브리 9/12)

96-1) 모세의 이야기는 본장에서 7번째이며 마지막으로 언급된 예언자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보내고 지팡이나 손으로 기적을 낳도록 하였다. 그러나 파라오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파라오의 명령을 따름으로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의 대가로 바닷물에 익사하는 벌을 받았다

97-1) 파라오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하였다.

98-1) 현세에서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하며 앞서 갔듯이 부활의 날에도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에 앞서서 불지옥으로 가리라.

2) 아우라다 : 인도하다. 안내하다. 들어가게 하다.

100-1) 무함마드

2) 「까임」: "서 있는", 「하씨드」: "수확되어 넘어져 있는"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본절에서 이 두개의 어휘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벌하사 고을과 백성이 멸망되어 남은 것은 앙상한 형체로 보고 그것을 「까임」 곧 "서있는 것으로" 표현했으며,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하씨드」 곧 "수확되어 넘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101-1) 우리(하나님)가 그들을 멸망케 한 것은 그들 스스로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대가로써의 벌이라.

2) 그들 불신자들이 숭배 하였던 우상들은 하나님의 벌을 일푼도 막지 못하고

3) 오히려 그 우상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불신자들을 멸망하도록 부채질 하였을

뿐이라.

103-1) 예언자 및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소식들 가운데는

2)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 하고 내세의 벌을 두려워 하는 이들을 위한 교훈이 있나니

3) 모든 피조물이 모여 보상과 벌을 받는 날로

4) 하늘과 대지의 사람들과 먼저온 사람들과 후에 온 사람들이 증언하는 날로써(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15) 「이브누 압바스」는 의로운 사람과 사악한 자가 증언하는 날이라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96/9).

104-1) 부활의 날

105-1)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나니.

106-1) 따바리는 꾸타다가 전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불지옥에 들어간 불신자들의 소리는 당나귀 같은 소리로 첫번째는 한탄하는 소리요 마지막 소리는 통곡하는 소리와 같다고 해석하고 있다(알따브리 117/12).

107-1) 아랍인들은 영속적인 것 또는 영원한 것 등을 묘사하고자 할 때 "하늘과 대지가 존속하는 한 이것은 영원하니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따바리」는 설명하고 있다. 「이브누 제이드」는 "하늘이 하늘로서 대지가 대지로써 존속하는 한 그들이 그 안에서 영속할 것이며"(알따브리 117/12)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2)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백성들만이 제외될 것이라(알따브리).

109-1) 불신자들의 신앙은 실로 방황하는 것이거늘 그들 종교가 멸망하리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치 말라.

110-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약성서를 보냈듯이 무함마드에게도 성서 즉 꾸란을 보냈을 때 모세의 백성 가운데 일부는 그것을 불신하고 또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것을 믿었듯이 꾸란이 계시되었을 때도 그러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지연하는 말씀이 계시지 아니했다면 이미 그들은 그때에 심판을 받았으리라. 본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안하는 절로써 계시되고 있다. :

"무함마드여! 이들 불신자들의 거짓이 그대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대에게 푸르깐을 계시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타우라(구약)를 계시했을 때 그 성서에 관하여 그들 중의 일부는 거역하고 일부는 믿었으니 그대 무함마드의 백성들도 모세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였느니라"(알따브리 123/12)

2) 하나님께서 심판과 부활의 날까지 계산과 보상을 미루지 아니 했더라면 그당시 판결이 되어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보상을, 사악한 자들에게는 사악한 응벌을 이미 내렸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까다르」로써 보상을 심판의 날까지 미루었다.

3) 꾸란

111-1) 그대 주님께서는 믿는 신앙인들과 불신자들 각자에게 그들이 행한 결과대로 내세에서 보상을 주실 것이다.

112-1) 무함마드여!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대로 준수하고 실천하라.

2) 불신과 무신론의 상태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그리고 그대를 따라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실천하라.

114-1) "파즈르" 시간과 "아스르" 시간을 의미하며 "밤이 시작하는 이른 시각"이란 "마그립"과 "이샤"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선행이라 함은 하루에 5차례 행하는 예배로 하루 5차례 예배를 행함으로서 그날의 조그마한 잘못들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하디쓰가 입증하고 있다.

2)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며 예배를 지키는 이들

115-1) 무함마드여!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모든 불결함과 죄악에 접할 때 인내하라 실로 하나님은 그대와 함께 있으며 선행을 실천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은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 하시니라.

116-1) 본절에서 「라우라」는 후회나 슬픔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노아의 백성, 아드 및 사무드 그리고 그 이전 백성들처럼 인도받지 못한 옛 공동체에 대한 후회와 슬픔을 암시하고 있다(알바호르 271/5).

117-1) 하나님은 실수나 단순한 잘못으로 백성을 멸망케 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창조주를 불신하고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할 때 멸망케 한다.

118-1)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여 이슬람의 한 공동체로 하실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아니 하셨으니 거기에는 또다른 창조주의 지혜가 있었느니라.

2) 각 종파간의 이설과 논쟁

119-1) 「리달리카」에서 「람」은 결과를 나타내는 문자로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 사이를 다르게 하여 천국으로 이르는 무리와 지옥으로 이르는 무리가 있도록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알따브리 144/12).

2) 사탄을 따르는 모든 인간과 그밖의 피조물 모두를 지옥으로 들게 하리라.

120-1) 무함마드여! 우리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전 예언자 및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전하여 준 의도는 그대로 하여금 그 메세지를 실천함에 견고하고 그대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자 함이니 옛 예언자 및 선지자들이 인내하였듯이 그대 무함마드도 인내하라.

121-1) 너회 방법과 너회 계획대로 하여 보라는 뜻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

123-1) 하늘과 대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의 시야에 보이지 아니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나니

2) 너회는 너회의 어떤 일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으며 너회가 행한대로 보상을 받느니라.

제12장 수라트 유스프

본 장은 예언자들에 관한 메카 계시중의 하나로 111절로써 야곱의 자손 요셉에 관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다. 생명은 하나의 꿈과 환상으로 은유되어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 요셉이 그의 꿈에서 본 사건이 그의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에게는 못마땅했을 뿐이다.

이복형제들은 음모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우물안에 버렸고 그를 발견한 대상들은 몇푼의 돈을 받고 요셉의 애굽의 한 상인에게 팔아 버렸다(제7장 1~20절 참조). 그리하여 요셉은 그 상인을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아지즈」라고 하는 애굽의 재상 집에서 양자로 자라게 되었다. 요염한 그 고관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여 성적 사랑을 요구했으나 실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요셉은 불명예스럽게도 감옥살이를 치루게 되었다. 요셉은 옥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에 있는 여러 죄수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친절을 베풀었다. 요셉의 꿈

이 해명대로 한 죄수는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궁궐에서 술잔을 나르는 하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12장 21~42절).

어느 날 애굽 왕이 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다가 요셉의 해몽에 따라 왕의 하인이 된 그를 통하여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요셉은 고관의 부인과 관련된 모든 풍문이 공식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요셉은 누명을 벋고 왕으로부터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와지르의 직책에 임명되었다.

몇년 동안의 흉작 및 기근으로 시달리던 요셉의 이복형제들이 애굽을 찾았을 때 요셉은 이복형제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그들을 친절히 환대하면서 그의 친형제이며 가장 막내인「벤자민」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였다(12장 43~68절).

요셉은 벤자민을 전략적으로 구류시켜 놓은 다음 그의 이복형제제들로 하여금「가나안」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전 가족을데려오도록 이복형제들을 돌려 보냈다(12장 69~93절).이렇게하여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오게 되고 그곳에서 안락하게 정착하였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내세에서 완전히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12장 94~111절).

본 장이 계시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요셉의 이야기 및 야곱의 자손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질문하였을 때 본장이 계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7).

1-1)「아야」는 상징 또느 예증 및 꾸란의 절 등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전체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하나님 계획에 의한 예증 및 기적으로 볼 수 있다.

2-1) "꾸란"은 (1) 읽혀 지는 것. (2) 낭송 되는 것. (3) 선언 되어진 것 등의 언어적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절 또는 쑤라 또는 계시된 말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3-1) 그대 무함마드에게 그대 이전 세대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과 가장 훌륭한 설명으로써 이야기 하고 전하여 주나니

4-1) 요셉은 창주조가 선택한 예언자 중 한 예언자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큰 아들은 이스마엘로 제2장 124-129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아브라함은 모든 예언자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워지곤 한다. 한편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세 부인으로부터 10명의 자손을 두었고, 라벨(아랍어로는 아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부인으로 부터는 야곱의 나이가 들어서 두 아들 즉 요셉과 벤자민을 막내로 두게 되었다. 한편 이 이야기는 야곱의 나이 약 17세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며 야곱과 그의 회중이 거주한 장소는 가나안 땅이었다. 현재 나블루스 근처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30마일 쯤 떨어진 곳이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밀어 넣은 우물이 아직도 이 근처에 유적으로 남아 있다. 한편 요셉이 꿈에서본 11개의 별은 그의 11명의 형제들을, 해와 달은 그의 부모를 의미하며 그때 요셉의 나이 12살이었으며 그의 아버지와 애굽에서 만날 때는 그의 나이 40세로(사위 알라 알 잘라라이니 234/2) 풀이되고 있다. 한편 유스프 알리는 11개의 별이 그에게 부복하는 꿈을 꾸었을 그때 요셉의 나이 17세로 해석하고 있다.

5-1)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2) 어린 요셉은 순진하여 이복형제들의 증오와 교활함을 알지 못하였으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요셉에게 경고하였다.

7-1) 요셉과 그의 11명의 형제 소식

2) 아야트 : 꾸란의 절, 예증 및 교훈이란 뜻으로 본절에서의 의미는 교훈으로 이해된다.

8-1) 이복 10형제는 순진한 그의 형제 요셉과 벤자민을 시기하고 증오하였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어리석은 늙은이라고 멸시를 하였으나 야곱은 지혜가 있었으므로 어리며 순진한 두 아들이 보호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요셉의 정신적 훌륭함을 인식하였다. 본절은 요셉에 대한 첫번째 시련을 암시하고 있다.

9-1) 아무도 모르는 먼곳에 요셉을 버려두라.

2) 요셉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하니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리라(알라지 94/18)

3) 요셉을 살해하던지 아니면 아무도 모른 외딴곳에 버려둔 후 회개하면
10-1)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10명의 이복형제 가운데 가장 큰 아들 「야후다」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해설하고 있다. 한편 「까타다」는 「로벨」이라고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9)
11-1) 요셉과 벤자민을 제외한 형제들
2) 요셉에 대한 음로를 꾸민 후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보이려는 또 하나의 음모로 본다.
13-1) 아버지 야곱은 다음 2가지 이유로 요셉을 멀리 데리고 가는 것을 싫어하였다.
첫째 아버지는 요셉과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이 아니했으며
둘째 숲속으로 데리고 간 형제들이 그들의 노는데 정신이 팔려 요셉을 돌보지 못할 경우 늑대가 요셉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다(알카샤프 448/2).
15-1) "아버지가 형제들과 더불어 요셉을 보냈다"라는 뜻이 선행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9).
2) 요셉에게 그의 이복형제들의 음모가 있을 것이니 이를 조심하라고 요셉에게 말씀이 있었
16-1) 놀러갔던 형제들이 울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놀라면서 말하기를, "어찌된 일이냐! 요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10).
17-1) 저희 옷 및 짐꾸러미
18-1) 양 한마리를 살해하여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발라 그것을 증거로 늑대가 먹어 버렸다고 거짓하였으나 이때 야곱은, "늑대가 그를 먹었다면 옷이 찢어졌을 것이 아닌가? 늑대가 내 아들을 먹으면서도 옷을 찢지 아니하고 먹었다니 이렇게도 온순한 늑대가 있다니!"라고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다(알따브리 164/12).
19-1) 미드얀에서 애굽으로 가던 상인들이 길을 잘못들어 방황하다가 요셉이 빠져 있는 우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목이 말라 물을 떠올리려 두레박을 우물에 넣어 올리니 그 두레박 안에는 예쁘고 잘 생긴 소년이 들어 있었다. 물이 아닌 천사같이 천진난만하고 예쁜 소년이 있었으니 물을 긷던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은 곧 좋은 소식(부수라)임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10).
2)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감춘 것은 그를 애굽에서 상품으로 팔고자 했기 때문이다.
20-1) 요셉에 대한 두번째 시련으로 우물에서 발견한 어린 요셉을 대상들은 몇푼 안되는 20디르함에 팔아버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10).
21-1) 요셉은 이제 이복형제들의 증오와 질투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 상인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 도시에서 요셉을 팔았는데 이때 요셉을 산 사람은「까뜨피르」 즉 아지즈라고 하는 애굽의 한 고관이었다고 「이브느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75/2).
2) 아들을 갖지 못할 경우
22-1)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17～18세의 성숙지 못한 나이였으나 천성이 순진하고 선량하였다. 애굽에서 그는 운명의 변화를 거쳐 지식과 판단력 그리고 남성답게 성장하였다(Abdallah Yusuf Ali. The Glorious Kuran. p.557 주 1664).
23-1) 7개의 문이 있었는데 모든 문을 잠그고 그녀에게로 유혹하였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163/9).
2) 이 절은 요셉에 대한 세번째 시험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집주인이며 고관의 아내인 「줄라이카」의 요셉에 대한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다음 세가지 이유로 그 사랑을 거역하였다.

①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당신은 당신의 남편 「아지즈」에게 아내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② 나에게 친절과 예의와 존경으로 나를 맞이하여 준 당신의 남편이 나보다 더 훌륭함이요,

③ 당신은 열정의 하나만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신성함을 지켜야 된다는 세가지 이유로 본다.

4) 당신의 남편

24-1) 인간의 본능으로서 유혹을 받은 요셉도 관심과 욕정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요셉의 욕정과 관심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품은 의도적 욕정과 요셉의 인간 본능의 양심은 전혀 다른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13).

25-1) 그녀는 요셉에게 욕정을 품으매 요셉의 기도는 그녀에게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요셉도 한 인간으로써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격렬한 사랑과 그녀의 아름다움은 요셉의 신앙에 큰 시험을 주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호를 구하였으니 그녀가 욕정으로 눈이 어두워 아무 것도 보지 못하나 요셉의 영적 시야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즉 그녀는 문을 잠그면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요셉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시험을 물리쳤다.

2) 부인은 문쪽으로 피해가는 요셉의 등을 잡고 있었으므로 그 옷을 잡아당겼을 때 등쪽의 옷이 찢어졌다.

26-1) "아흘"이란 가족 또는 가문이란 뜻 외에도 아랍사회에서 남의 아내를 말할때는 "아흘"이라고 이따금 사용되고 있다.

2) 그녀 가족중에 한 증인이란 그녀 외숙모 아들인 요람에 있는 애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하게 하였다고 「이브느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93/12)

27-1) 만일 요셉의 옷 뒷부분이 찢어졌다면 그는 분명 쫓기고 있었으며 「아지즈」의 부인 「줄라이카」가 뒤에서 잡아당겼음에 틀림없는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위의 구경군들이 보았고 남편 「아지즈」도 그것을 시인하였다.

28-1) 남편

2) 사실이 모든 이에게 분명해지자 가장으로써의 「아지즈」는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어려웠다. 그는 국가의 한 고급 공무원이었으며 또한 그는 귀족출신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명예와 직위가 더욱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 「줄라이카」의 부정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을까? 그 고관은 자기 아내 줄라이카를 사랑했으며 또한 요셉의 순진함과 도덕과 충성심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일들을 한 여성의 간계함과 성적 사랑과 술책으로 다루어야만 했다.

29-1) 이 사실이란 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과 그 증거로써 요셉의 옷 뒷부분이 찢어진 것으로 보아 부인이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 등을 가르키는 것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여 줄 것을 남편 아지즈는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다.

30-1) 애굽의 도시에 있었던 여성들.그 여성들은 5명으로 물을 기르는 남자의 부인, 문지기의 아내, 동물을 돌보는 남자의 부인, 빵을 굽는 남자의 아내 및 감옥을 지키는 남자의 아내였다고 「이브누 압바스」 및 그밖의 학자들이 전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15).

31-1) 애굽의 여성들이 요셉에게 욕정을 품은 고관의 부인 줄라이카를 심술궂은 말로 조롱하자 그 부인은 사람을 보내 그 애굽여성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음식과 여러가지 과일을 대접하며 과일을 짜를 칼을 각각 주었다. 애굽여성들이 과일을 짜르기 시작할 때 고관 부인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여성들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애급여성들이 요셉의 남성미와 훌륭함에 놀라 과일 대신 손을 베어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요셉의 남성미에 유혹되어 있었다(질라루 알꾸란 232/12).

34-1) 이렇게 하여 요셉은 창조주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세번째 시험과 시련을 이겨냈다.

35-1) 요셉에 대한 4번째 시험이요 시련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요셉의 생애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련으로 그것은 바로 감옥생활이었다.

36-1) 요셉이 투옥되는 시기에 다른 두 사람이 투옥되었다. 이들 둘은 파라오 왕의 시중을 들던 공무원으로 파라오의 노여움을 사 투옥된 것이다. 이 중 한 명은 왕에게 술과 음료수를 마련하는 주요 임무를 맡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왕의 식사용 빵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전자는 그의 꿈속에서 다시 시중을 들어 술을 짜는 꿈을, 후자는 빵을 나르는 하인이 주인에게 이르기 전에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었다.

37-1) 요셉은 꿈의 해몽을 요청하는 두 사람에게 해몽을 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유일신 사상을 가르쳐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는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방법과 같았다.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도록 신의 뜻과 부여받은 능력으로 그들의 꿈을 해몽하여 주었다.

38-1) 예언자들 및 선지자들의 신앙을 따랐으며

39-1) 유용하지도 그리고 무용하지도 아니하며 구하는 자에게 응답도 못하는 우상들.

40-1) 백성들이여!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있는 것은 너희 선조들이 신들이라 이름들을 붙여논 것 뿐으로 그것들은 능력이나 권능을 소유하지 못하는 우상들이라.

2) 본문 안에서의 3인칭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한다.

41-1) 술을 만드는 것을 본 그는 감옥에서 출감되어 그의 주인에게 다시 술을 빚어 대접하게 될 것이며

2) 그의 머리위에 빵을 이고간 꿈을 꾼 그는 나무에 걸려 살해되니 새들이 그의 머리를 쪼아 먹을 것이라. 요셉이 이 두사람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자 그들은 이를 부정하고 꿈에서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전해 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18).

3) 그들 두사람의 꿈을 해몽한 것에 대해 그들이 믿었던 또는 부정하였던 그것은 해몽대로 되었도다.

42-1) 요셉이 곧 석방되어 술을 빚은 꿈을 꾼 그에게 말하기를

2) 본문에서의 주인은 왕을 가르킨다.

3) 나에 대한 일 및 꿈을 해몽한 것등을 주인에게 이야기 하면 주인께서 나를 석방하여 줄지도 모르니라.

4) 7년을 더 감옥에 있었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18)

43-1) 파라오 왕은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그 회의에서는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왕의 신임을 얻은 잔들이는 하인이 참석하였다. 파라오는 그가 꿈에서 본 일곱마리의 야윈 소가 일곱마리의 살찐소를, 메마른 일곱 이삭이 푸르고 풍성한 일곱 이삭을 탐식하는 꿈을 이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였다.

45-1) 잔들이는 하인이 기억을 드덤더니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 냈다. 요셉은 진실된 한 남성이었으며 잔들이는 하인은 요셉이 꿈의 해몽에 능숙하다는 것을 그와의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여 주게 함으로써 요셉을 석방시킬 수가 있었다. 만일 그가 솔직하고 정직하였다면 그 회의에서 곧 바로 요셉을 이야기하여 요셉을 파라오에게 이르도록 하였으리라 본다. 그러나 잔들이는 하인은 현세적 이익에 능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이득을 얻는 반면 동시에 요셉과 감옥에서 있었던 옛 약속을 이행하려 하였다. 요셉을 석방시킨다면 그의 좀스러운 양심이 만족하리라 생각하

였다. 또한 그는 그가 궁정에서 그에게 많은 관심을 얻으려 하였으므로 그는 요셉을 왕 앞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그가 그에게 가서 꿈의 해몽을 얻으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감옥으로 가 46절에 있는 대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2) 보내어 달라고 요구한것은 감옥이 성안에 있지 않고 도시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보내어 달라고 하였다(알따바리 229/12).

46-1) 그의 요구대로 그를 보내니 술잔을 나르는 하인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로 좇아가 "진실한 요셉이여!"라고 말을 시작하였다. 요셉이 해석한 그의 꿈이 사실대로 되었기 때문에 진실이란 칭호를 붙여 부른 것으로 이해된다.

2) 왕과 그분의 대신들에게로 돌아가 이 꿈의 해석을 알리고 당신의 은혜와 지혜를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면 당신을 석방케 할지도 모릅니다.

47-1) 요셉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재앙에 대처해야 될 방법까지 제시하여 주었다. 곧 7년동안 풍년이 되리니 열심히 경작하여 풍성한 수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수확 가운데 소량만 양식으로 사용하되 나머지 수확은 벼 이삭 그대로 창고에 저장하여 다가올 흉년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였다.

48-1) 7년 동안 풍작이 계속된 후 이어서 7년의 흉작과 기근이 계속되리니 창고에 비축한 곡식을 먹게 되리라 예언하면서 동시에 주의를 하고 있다. 기근이 계속되는 기간에 비축한 양식 전부를 소모하지 말고 다시 재배할 씨앗을 준비하라고 예시하고 있다. 나일강의 물이 다시 범람할 때 재배할 씨앗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49-1) 이 절은 7년의 가뭄과 기근이 지난 풍년의 한해를 상징하고 있다. 나일강은 상류로부터 풍부한 물이 흐르고 또한 하류에서는 비가 내렸을 것이다. 메말랐던 과일 나무들이 풍성한 물로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백성들은 그것으로 올리브 기름과 과일 음료수를 만들어 마시니 백성들의 정신이 새로워지게 되었다. 본문에서의 술은 포도 쥬스를 가르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50-1) 잔 들인 하인은 왕에게 꿈을 해몽한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 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왕은 요셉을 보고자 하여 사신을 보내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 왕의 사신은 어떤 죄인이든 왕의 부름에 기뻐할 줄로 기대했었으나 요셉은 부인들에 의해 모욕을 겪게 된 의심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요셉은 33절에서 묘사되고 있듯이 부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51-1) 왕은 여성들을 모이게 하고 부인을 불러 말하기를

2) 요셉의 메세지가 사신에 의하여 왕에게 전달되자 왕은 여성들에게 어떤 영문인가를 물었다. 그 여성들과 함께 있던 부인 줄라이카는 더이상 그녀의 허위를 숨길 수가 없었으므로 그녀의 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였다.

52-1) 왕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분의 아내를 유혹하지 아니 했다는 것을

53-1) 요셉은 왕의 부인이 그를 유혹했을 때 전혀 그 유혹에 마음의 감정 반응까지도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요셉도 한 인간이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 있었기 때문이다(알카샤프 480/2).

54-1) 요셉이 아직 왕 앞에 나타나지 아니 하였다. 50절에서 왕이 명령한 것은 요셉이 손들을 짜른 여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왕에게 여쭈어 보라는 요구에 왕의 명령이 있었다. 이제 요셉은 죄가 없어 결백하고 지혜로우며 진실하다는 것이 왕의 부인 줄라이카가 고백함으로써 입증되었다. 그래서 왕은 요셉의 지혜와 진실에 감동되어 그를 국무장관에 달하는 와지르 직책으로 등용을 하였다. 고관 아지즈가 다시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가 사망하고 요셉이 그 직위를 계승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이상의 직책과 힘을 가졌으므로 겹쳐오는 어려운 난관들을 수행해 나갔다. 그의 신임도는 더욱 높아져 수상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와지르 직책을 갖게 되었다.

56-1) 애굽의 땅

2) 신의 섭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들의 질투로 하잘것 없는 값에 노예로 팔려간 한 소년이 타국에서 가장 신임받는, 그 당시 장관급의 와지르 직급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게 되었으니 이는 스스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크게는 세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가장 훌륭한 정의의 모범이 되었다. 그때 요셉의 나이 약 30세로 전하여지고 있다(Abdallah Yusuf Ali. The Glorious Kuran. p.572 주.1717).

58-1) 요셉

2) 여러 해가 지났다. 풍년의 해가 지나고 흉년의 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 기근은 이웃 국가에서도 흉작과 기근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요셉은 양곡을 저장하여 기근의 재앙을 이겨냈으므로 애굽은 물론 이웃 국가들도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어 양식을 구입하여 갔다. 양식을 구하려 오는 모든 사람들은 환대를 받았고 양식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였다. 한편 요셉의 마음 한 구석에는 슬픔이 일고 있었다. 가난한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요셉)를 잃어 아버지가 슬퍼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고 또한 요셉의 어린동생 벤자민에 대하여 이복 형제들이 그(요셉)에게 대했던 것처럼 벤자민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이때 기근에 휩싸인 10명의 이복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양식을 구하려 왔다.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은 10명의 이복 형제들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 재무상이 요셉임을 알지 못했다. 그 형제들 생각에는 요셉이 어느 시골 가정의 하인이 아니면 벌써 기근으로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59-1)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관대히 대하였다. 아마 요셉은 자기 직위와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해 하면서 이들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으리라 본다. 열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을때 과연 그들이 두고 온 나이 많은 그들의 아버지를 생각했을까? 의

60-1) 요셉의 형제 벤자민

2) 나의 국가에 다시 올 수 없으리라.

61-1) 이복 형제들은 야곱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라 불렀던 것으로 보아 그들이 늙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속여 요셉을 데리고 나갔듯이 벤자민도 아버지를 속여 데려오겠다는 그들의 의도를 배제 할 수 없다고 본다.

62-1) 상품이라 함은 양곡값으로 교환된 상품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 그들이 다시 오도록 하는 요셉의 계획은 대단히 훌륭하였다. 그들이 다시 올때 요셉의 아우 벤자민을 데리고 오게 하는 계획이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양곡 값으로 지불된 상품을 그들 배낭속에 몰래 넣어 두었으니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하게 함으로써 다시 오도록 계획을 세운 것이다.

63-1) 집으로 돌아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야곱에게 이야기 하였으리라 본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벤자민을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며 아버지를 속여 요셉을 잃게 했던 그들을 믿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긴급한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65-1) 열명의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가 거절하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아니했다. 그들이 안낭을 열었을 때 곡식값으로 지불한 상품이 되돌아 왔음을 알고 이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곡식을 얻었음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재무상에게로 가되 그 친절한 와르지(재무상)만 기쁘게 하여 준다면 더 많은 곡식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재무상을 기쁘게 하는 길이 바로 그 재무상이 요구한대로 아우 벤자민을 데리고 가는 일이었다. 이들 형제들 또한 벤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아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늙은 아버지께 설명을 한 것이다.

66-1) "너희 모두가 죽는다면 그것은 변명이 되니라" :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무자히드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25).

68-1)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각기 다른 여러 입구를 통하여 들어 갔을 때

69-1) 요셉
2) 벤자민
3) 열 형제와 벤자민이 애굽에 도착하여 재무상을 기다렸다. 요셉은 그들을 그전보다 환대히 맞이하였다. 이는 그들이 요셉이 요구한 벤자민을 데려왔기 때문이다. 요셉은 예민하고 날카로우며 입증이 되는 질문을 하였다. 물론 벤자민은 다른 곳에 있었다. 요셉은 잔치를 베풀어 둘씩 자리를 앉게하고 벤자민은 혼자라 요셉은 정중히 옆에 앉도록 했다.

2) 요셉의 계획은 두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그들 이복 형제들을 놀라게 하고자 하였다. 물론 요셉이 그들 형제들에게 겪었던 고통에 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죄지은 형제들이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벤자민을 구류시킬 변명의 구실을 만들어 구류시킨다음 나이 많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길 매우 값진 금주전자를 벤자민 안장에 숨겨 넣게 한 다음 그를 도둑으로 간주하여 벤자민을 요셉 옆에 두게하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하는 것이 두번째의 목적이었다.
72-1) 뒤쫓아 왔던 사람들
75-1) 열명의 이복 형제들은 그들이 왕의 금잔을 훔치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런 죄가 없음을 단언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는 왕의 금잔을 훔칠 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했다. 이들 형제들은 벤자민이 재무상과 한자리에 앉게 된 것에 대단히 질투를 하고 있었고 또한 벤자민이 훔칠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벤자민이 그것을 훔쳐 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그들 이복형제들은 놀랄리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가 만일 그것을 훔쳤을 경우 그는 그곳에서 스스로 구류되게 되므로 그것 또한 자기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라 야곱의 사랑이 벤자민에게 미칠 수 없어 다행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찌니라(출애굽기 22장 3-4절)”라고 되어 있어 그것이 바로 그들의 관습법이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은 은근히 벤자민이 도둑으로 밝혀져 구류되기를 원한 것으로 본다.
76-1) 「아우위야」는 「위아운」의 복수로 본문에서는 “안낭”이라고 해석을 하였으나 여기서는 안낭 뿐만 아니라 물건을 넣는 상자나 궤짝 및 그릇, 호주머니 등 감출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2) 요셉
77-1) 이복 형제들의 요셉과 벤자민에 대한 증오는 또 다시 시작되었다. 이들은 벤자민이 사악한 자라고 하면서 요셉도 그와 마찬가지로 도둑이었다고 하면서 요셉을 모욕하고 그들의 양심을 잃어버렸다. 이들 이복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나 모든 위선이 곧 밝혀지게 된다. 또한 요셉은 여러가지 비밀을 감추고 있었는데, 첫째 그가 요셉 자신이라는 것과, 둘째 그의 동생 벤자민이 그(요셉)를 알고있다는 사실과, 셋째, 벤자민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며 모든 것은 요셉의 계획이라는 것, 넷째는 그들이 요셉의 계획안에 있다는 비밀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78-1) 이복 형제들은 벤자민을 두고 갈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노하실 것이 두려워 벤자민 대신 자기들 중의 한사람을 대신 두고 아버지가 왔을 때 돌아오려는 속셈으로 본다.
80-1) 장남의 이름은 꾸란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나 「로벨」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29). 그러나 성서의 풀이를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활동적이었던 형제는 나이들은 형제중의 하나로 유다였으며 유다는 로벤, 시몬, 레비 다음의 4번째 아들이다.
2) 애굽(현제의 에집트)

81-1) "벤자민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왕의 금전을 훔쳤는데 이러한 여건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 도둑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다른 9명의 이복 형제들을 위한 그럴듯한 변명이 되었다.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그곳에 남아 있었다.

82-1) 이야기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유다는 아홉 형제들에게 일러 아버지로 하여금 그들이 있었던 장소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대상들에게 그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래서 아홉 형제는 돌아와 유다가 가르친대로 아버지께 이야기 하였다.

83-1) 야곱은 아홉 형제들이 얘기한 것을 믿지 아니했다. 벤자민이 도둑질을 하리라고 믿지 아니하였고 또 벤자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아홉 형제들을 꾸짖었다.야곱은 그의 믿음과 신앙으로 비록 일어난 사건 전모를 보지는 아니했지만 벤자민은 무죄로 결백함을 보았다. 오히려 야곱은 더 큰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잃어버린 세 아들 즉 요셉과 벤자민과 유다 모두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87-1) 「라우흐」는 "조용하고 정적한 상태"라는 뜻을 내포한 하나의 은혜라는 뜻의 단어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속에서 발견되는 악의나 꾸며낸 이야기들은 무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용서를 하여 주고 건전한 충고를 하면서 이따금 그들을 심부름 보내어 그들의 번민하는 영혼들을 위안하기 위해 신의 놀라운 섭리를 그들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였다. 야곱은 또 그들에게 요셉과 벤자민을 찾아보라 하며, 아마도 애굽땅에 같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기도 하였다.

88-1) 요셉

2) 저희 형제를 돌려주소서(이브누 자리흐의 해석으로 따브리는 이 해석을 선택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31)).

89-1) 요셉은 그들 형제들에게 충고하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과거 죄악에 대해 회개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있다고 알바이돠는 풀이하고 있다(알바이돠 269).

91-1) 요셉

93-1) 12장 17~18절의 말씀에 있듯이 이복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늑대가 물어뜯은 것처럼 위장하여 피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감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감추려 하였다.그러나 이제는 이복 형제들이 그들의 죄악을 고백했고 또한 용서되었으니 이들은 요셉에 대한 기쁜 소식을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게 되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자기가 입었던 다른 옷을 주어 이복 형제들과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였다.

94-1) 야곱의 친척들 가운데 같이 있었던 친척들에게 말하기를,

95-1) "주위 사람들"이란 이복 형제들이 애굽에서 도착하기 이전에 야곱 곁에 있었던 손자들 및 가까운 친척들로 풀이된다.

96-1) 옷

2) 요셉의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한 형제는 벤자민에 대한 소식도 전했을 것이다.

99-1) 요셉

2) 드디어 모든 가족이 애굽땅에 도착하여 요셉과 재결합하게 되었다. 가족 모두는 기뻐하였고 가족들이 거주할 안식처도 제공받으며 한편 아버지는 특별대우를 받게 되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Rachel)은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나 숙모 레아(Leah)가 야곱의 자손들을 양육하였다. 물론 아버지 야곱은 레아와 결혼을 하였으므로 지금은 요셉의 어머니이다(Abdallah Yusuf Ali. The Glorious Kuran-Translation and Commentary. p.586 Note No.1779).

100-1) 파라오 왕 체제하에서 요셉은 고관의 직책에 있었으므로 그 직책에 대한 예의로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및 모든 형제들이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엎드려 절을 한 것은 경의와 존경을 의미한다.

2) 어렸을 때의 꿈에서 본 현실
3) 우물속에 버려진 이야기를 요셉이 언급하지 아니한 이유는 형제들이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접을 하기 위해서였다.
4)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사막에 있는 베도윈으로써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었다.
5)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으로 온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최소한 100명이었다고 따바리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34).
6) 야곱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24년을 살았으며 그분의 유언에 따라 샴지역에 있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옆에 장사를 지냈다. 한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별세한 후 애굽에서 23년을 살다가 그의 임종이 가까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리워 하였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34)

101-1) 여기 요셉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① 나는 한 인간으로 모든 권능과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며
② 그러한 모든 것은 오직 당신으로부터만 올 뿐이니 이는 당신이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이요
③ 당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할 수 없으며
④ 나는 현세와 내세에서도 당신의 보호를 구하며
⑤ 내가 임종할 때까지 당신께 남아있기를 원하며
⑥ 나의 영혼을 기꺼이 당신께 바치기를 원하며
⑦ 떨어진 나의 가족과 재결합하는 이 순간에 진실과 정의에 의한 정신적 재결합을 구원하며…한편 야곱은 요셉과 애굽에서 24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야곱의 유언으로 요셉의 할아버지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무덤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야곱은 샴지역에 매장되었으며, 요셉은 아버지 임종이후 23년을 더 살았다.

102-1) 요셉에 있었던 이야기
2) 무함마드

103-1) 본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메카 불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전하여 인도하려 하나 그들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104-1)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2) 꾸란

109-1) 창조주가 인간을 선지자로써 지상에 보낸 것은 창조주의 영감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택받지 아니한 일반 사람보다 더 진실된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선택된 인간은 사회 공동생활을 떠나 은둔하여 산다거나 수도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회인이다. 인간사회에 살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인간사회의 스승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11-1) 그들의 이야기는 요셉과 그의 이복 형제들에 대한 꾸란속의 이야기로 이것은 또 꾸란 이전의 성서에서 입증되고 있다.

第13장 수라트 라아드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43절로 메디나에서 계시된 여타 장들이 다루고 있는 신

의 유일성, 메세지와 부활 및 보상 등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신앙의 핵심인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과 하나님의 유일성이란 가장 중요한 과제를 시작으로 꾸란의 진리를 부정하고 창조주의 유일성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능력을 예증으로 보여주면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을 말해 주고 있다. 즉 하늘과 대지, 태양과 달을 창조하고 밤과 낮을 두었으며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능력은 죽은 인간을 다시 부활시킬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항상 창조주의 기쁨을 추구하여 평안을 찾으나 사악한 자는 창조주의 법을 깨뜨리고 믿음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벌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전자가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후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최후로 선택된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와 더불어 인류에게 보내어진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장을 끝맺고 있다.

본장의 명칭이 「라아드」라 불리워지게 된 동기는 창조주의 신비한 능력과 권능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라아드」란 천둥 또는 우뢰란 뜻으로 비가 내릴 때 이따끔 번개와 천둥이 동반되기도 한다. 창조주는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하셨다.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데 그 안에 은혜와 벌을 두셨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비를 내리게 하면서 때로는 번개와 천둥을 동반케 하였으니 이는 또한 창조주의 신비한 능력이요 권능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38).

1-1) "알리프, 밈, 라"를 「아브느 압바쓰」는 꾸란의 기적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이 신비적 상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이어서는 안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 문자를 이해하려는 가장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심이라"
즉 알라후 아을람 와 아르마(Good Knows best)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브누 압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 알라후 아을라무 와 아라"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으면서 보고 있느니라(알따브리 91/13).

2) 꾸란의 증표

2-1) 기둥도 없이 세워진 하늘을 너희가 지켜볼 때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예증이 되리라.

2) 창조주만이 오를 수 있는 높은 권좌위에 올랐으며 권자의 형태나 어떻게 올랐는가는 알려지지 아니하고 그에 비유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39).

3) 위에 언급된 능력으로만 보아서도 창조주의 능력은 죽은 인간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3-1)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열매는 두 종류가 있도록 하였으니 색깔있는 하얀색과 검은 색을, 음식에는 단것과 신것을, 능력에는 큰것과 작은것, 성질에는 더운것과 차가운것 등등이라고 「아부 싸우드」는 풀이하고 있다(아부 싸우드 90/3).

4-1) 끼따으 : 서로 다른 층계를 이루고 다양한 토질을 가진 땅을 가르킨다(꾸란 어휘 해설. 후스나이니 무함마드 마클루프 p.142). 기름진 옥토로 생산되는 땅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 생산되지 않는 불모의 땅이 있다는 표현으로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97/13).

2) 포도 나무가 많고 왕성한 정원.

3) 같은 물 같은 토양에서 열매가 열리나 그 맛은 서로 다르다.
따바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같은 땅에서 복숭아도, 살구도, 하얀포도 및 검은포도 그런가 하면 단것과 신것을 생산케 하고 어떤 과일은 다른 것보다 먹기에 더 좋도록 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40).

5-1) 그대 무함마드가 놀라 경악할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불신자들의 말로, "우리가 죽어 다시 부활할 수 있단 말이뇨?"라고 말하는 그들의 얘기라.

2) 이들이야말로 창조주 능력에 의한 부활을 부정하는 불신자들로
3) 부활의 날에
4) 부활하여 죽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저주 받은 이들이라.
6-1) 불신자들은 그대 무함마드에게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응벌을 재촉하고 있도다.
2) 이들 불신자들과 유사한 거짓하는 이들에게 이미 응벌을 보였으되 이들은 그 벌들을 교훈으로 삼으려 하지 아니 하느뇨?
3) 그들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응벌을 지연시키며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관용과 용서를 베푸시며
4) 회개하지 아니한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응벌을 내리시니라.
7-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은 무함마드에게 모세와 예수가 보였던 기적과 같은 예증이 없느냐고물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선택한 것은 선택된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에게 경고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어졌다고 계시되고 있다.
8-1) 태내에 있는 것은 암컷과 수컷의 성을 의미하며 부족한 것이란 9개월이 채 되지 못한 상태를, 넘는 것이란 9개월을 넘어선 상태로 풀이된다(이브느 압바쓰). 그래서 본문의 '알가이드'는 임신하여 채 달이 차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알이즈디야드'는 임신한 후 달이 완전히 차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0-1) 인간이 마음속에 품는 모든 것이나 혀로써 밖으로 나타내려는 모든 것.
11-1) 모든 인간은 숨겨 생각하던, 알리어 생각하던 또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행한다 하더라도 피조물의 모든 사고와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으므로 창조주의 감시를 피할 수는 없다(8절 참조). 또한 천사들도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사들을 '무으까바트'라 불리우게 된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의도와 행위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
12-1) 번개 및 천둥으로 두려움을 주고 풍부한 비를 내려 희망을 갖게 한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
13-1) 인간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할 수도 있는 천둥이나 벼락도 물론 창조주 안에 있으므로 모든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영광을 찬미하고 칭송한다. 본 장이 "라아드" 즉 "천둥"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동기가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2) 창조주의 존재 및 유일성 그리고 부활을 할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에 대해 논쟁을 했던 메카 불신자들에게
14-1) 「학끄」는 진리, 옳음, 적절함, 합당한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의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이나 별이나 자연의 위력이나 어떤 망령, 신들린 사람, 권력, 부, 과학이나 예술 등을 경배하거나 숭배한다면 그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노하심과 큰 벌을 받게 된다.
2) 목마른 자가 멀리 있는 물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물이 입에 이르도록 기원하나 그 물은 무생물이라 목마른 자의 기원을 듣지 못하여 물이 입에 이르지 못하듯이 사람들이 무생물인 우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5-1) 「따우완」은 좋아서, 「카르한」은 싫음에도의 뜻으로 좋아서 부복한다 함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기도함을 가르키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싫은데도 부복한다는 뜻으로 하싼은 풀이하고 있다. 또한 그림자도 부복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태양의 운행질서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는 짧아진다는 것도 곧 창조주께 부복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16-1) 본 절은 여섯 부문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각각의 두 부분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병행되고 있다. 그래서 다섯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각각 아랍어

의 "말하다"의 명령형「꿀」즉 "말하라"로 그 질문에 대답의 문장이 유도되고 있다.본문에서는 "말하라"의 명령형을 "일러 가로되"로 표현하였다. 한편 다섯째 부분은 직접 명령을 피하고 간접 명령으로 계시되고 있다. 본문의 요지는 만물의 창조주는 곧 홀로 계신 하나님에게 비유될 것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마치 암흑이 광명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우상들은 어떠한 것도 창조할 수 없다는 요지로 본다.

2)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가 누구냐고 질문하는 불신자들에게

3) 불신자를 장님으로, 믿는 신앙인을 보는자로 은유되고 있다.

17-1) 자바드 : 물위에 떠오르는 거품

18-1) 믿음과 순종 그리고 선행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의 보상은 천국이 될 것이요.

2) 그들은 불신자들로

3) 불신자들의 죄악은 모두가 계산되며 그 어느 일부분도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싼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46).

19-1) 「함자」와 「아부 자흘」에 관해 계시된 절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6).

20-1) 창조주의 명령을 준수하고 금기한 것을 회피하며

21-1)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과 실천을 함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하고 모든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우주의 신앙을 따름에 같이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22-1) 현세의 여행은 일순간의 체류에 불과하나 영원한 축복은 인간의 영원한 거주지인 천국이다.

23-1) 천국 각각의 문

24-1) 현세에서 창조주가 내렸던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인내하였으므로

27-1) 메카 불신자들이 무함마드에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 예수가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기적을 보이라 말했을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으며 선지자의 능력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계시하고 있다.

2) 무함마드여 그들 불신자들에게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여라.

28-1) 예증이나 기적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증이나 혹은 기적은 인간의 내부정신 세계에서의 경험에 달려 있다. 인간이 창조주에게 완전 귀의할 때 빛과 경험이 인간에게 이르나 창조주는 인간이 창조주에게 귀의하지 않는다하여 강요하지 않는다(Abdallah Yusuf Ali, The Glorious Kuran, Beirut, p.612 Note No. 1843).

29-1) 「뚜바」는 내적 만족 또는 말과 글로써 완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내적 기쁨의 경지를 말한다. 이 경지는 행운이나 역경을 통하여 스스로 반사되는 선인의 생활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항상 최후의 목적인 내세의 영원한 휴식처 곧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반사되는 것이기도 하다.

30-1)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시기에 맞추어 온 최후의 선지자로 그 이전에 온 선지자들의 메세지를 완성하여 가장 완전한 우주적 종교를 인류에게 전하였다. 이로 볼 때 전세계 통일의 진행이 시작된 것은 무함마드 선지자 이후가 확실하며 이 과정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으나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어갈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Abdallah Yusuf Ali, op. cit. p.612 Note No. 1845).

31-1) 모든 것은 가능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다. 창조주의 계획은 은혜로우며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으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명령한다거나 창조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모든 일에 대한 명령은 오직 창조주에게만 있으며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심과 또한 창조주

가 최고의 선을 위하여 그분의 세계를 명령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32-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그대 무함마드가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듯이 그대 이전에 왔던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도 조롱과 박해를 받았느니라.

33-1) 불신자들이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려하니 무함마드여 그들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이름을 말해보라 하여라. 그리고 그 우상들이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라.

34-1) 죄악에 대한 벌은 현세에도 있을 수 있으며 그러나 다가올 내세에서는 현세에서 있을 벌에 비교할 수 없는 최후의 벌이 있다.

35-1) 「아클」이란 「아칼라」 "먹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음식이란 뜻이나 본문에서는 물질적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과일과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어 본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였다.

2) 천국의 기쁨은 곧 사라져버리는 현세의 기쁨 같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천국의 기쁨은 순수하고 영원하며 인간의 오감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경지의 기쁨이다.

36-1) 하나님에게서 계시받은 이들이란 구약과 신약을 받은 이들과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임을 믿었던 「압달라 이븐 쌀람」이나 「나좌쉬」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들을 가르킨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52).

37-1) "그처럼"은 구약이나 신약이 계시되었던 것처럼 꾸란이 계시되었다는 의미다.

2) "그대"라 함은 물론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르키나 여기서는 모든 백성과 민족까지를 가르키는 것으로 본다(알꾸르뚜비 327/9).

38-1) 한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에게는 배우자가 있었고 자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한 선지자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다. 그러나 예수의 생애는 완전치 못했다. 그는 목자로써의 임무는 3년에 불과했고 그의 포교는 제한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조직화된 고도의 사회 또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문제들은 다루지 못하였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써 존경하나 그의 메세지가 선지자 무함마드의 메세지와 같이 전 우주적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압달라 유스프 알리는 풀이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Beirut. p.616 Note No.1861).

39-1)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보완하거나 대체하시나 죽음, 생명, 불행 및 행복은 이미 완료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53).

2) 창조주가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번역되기 이전의 성서의 원전을 가르킨다.

40-1) 불신자들에게 벌을 내리기 전에

41-1) 믿는 신앙인들의 영역을 넓히며 선지자로 하여금 불신자들의 영토를 정복하도록 하는 창조주의 뜻을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느뇨?

42-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그대 무함마드에 대하여 음모를 꾸몄듯이 그대 이전의 예언자들도 불신자들로 부터 음모를 당했느니라.

43-1) 메카 불신자들

2) 구약 및 신약의 진실한 율법학자들.

제14장 수라트 이브라힘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52절로 신앙의 기본교리를 다루고 있다. 즉 창조주로써의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말씀, 부활과 보상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선교를 다루면서 메카의 이교도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계시된 말씀은 인간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고 있으며 그 계시는 각 시대에 있었던 민족을 위해 그 민족이 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그 민족이 사용하던 언어로 계시된 것이다. 모세가 있었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다. 선과 악의 갈등이 있었지만 반드시 악이 멸망된다는 교훈이 1~27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가? 인간은 왜 방황을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불신자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였고 또한 메카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선과 악은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승리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 28~52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본 장이 '아브라함'(아랍어로는 이브라힘)이라 불려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예언자들의 아버지(Sheik Al Anbiya)라는 칭호를 갖고 있으며 창조주의 유일성을 믿어 이슬람 종교의 핵심을 지켜왔고 또 본 장에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55).

1-1) 최영길 꾸란해설. 이슬람문화센타. 사우디. 제1권 p.1참조
2) 꾸란
3) 모든 선지자는 스스로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허락으로 말을 한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것도 창조주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이며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다. 또한 본 절은 창조주 세가지 속성을 얘기하고 있다.
첫째, 창조주의 위치는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하고
둘째, 그분은 홀로 칭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셋째, 그분의 전능은 천지의 모든 곳에 있어 인간의 경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선은 선을 실천하는 인간과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하여 창조주는 그분의 의지와 계획을 수행한다.

2-1) 「와일」이란 어휘는 저주한다는 뜻으로 응벌 및 멸망에 대해서 사용되는 어휘라고 「주자즈」는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39/9), 즉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벌이 있어 멸망하리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3-1) 본절에서는 불신자의 속성을 세가지로 말해 주고 있다.
첫째, 그들은 덧없고 공허한 현세의 인생을 내세의 영원한 진리의 삶보다 더 추구하고
둘째, 그렇게 하여 스스로를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을 그릇되게 인도하며
셋째, 비뚤어진 마음으로 창조주의 옳은 길에서 그릇된 것을 찾으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욱 진리에서 멀어져 간다는 불신자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4-1) 창조주의 율법인 샤리아를 설명하고 그 뜻을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방황하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니2) 그분은 강하시고 현명하시니라
2) 선지자들의 임무는 메세지를 전하는 임무밖엔 없으며 복음과 믿음에 관한 문제

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분의 뜻에 따라 방황케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56-57).

5-1) "하나님의 날들"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특별히 베풀어진 날들을 의미한다.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지나 특히 어떤 개인과 어떤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의 특별한 경우로 풀이되고 있다.

6-1) 점장이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날 한 사내애가 장차 파라오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여 줌으로써 남자아이들을 살해하게 되었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7-1) 너희가 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나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요.

2) "카파라" : 믿음을 부정하는 것.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창조주의 예증을 거역하는 일, 선지자들의 임무를 부정하는 것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8-1) 창조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의 오만에 실망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이 불신한다 해도 창조주를 조금도 해칠 수 없다"고 모세는 이야기 하고 있다.

9-1)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했던 노아, 아드 및 사무드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2) 모든 선지자들의 이름마저도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그들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10-1) 선지자들은 두 가지의 의심을 밝혀 주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의심하는가! 그분의 섭리를 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기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 함이라. 마찬가지로 너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의 은혜로 구하시고자 하심이라"

11-1) 창조주는 그분의 뜻에 따라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로 선택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와 은혜를 더하시니라. 잠카샤리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그들 선지자들은 불신자들의 질문에 "선지자들도 너희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아니했으나 그 밖의 것은 그들 불신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알카샤프 544/2).

12-1)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말하길,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그 무엇이 방해하리요"

2) 하나님의 벌로부터 구제 될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으니

16-1) 불신자들

18-1)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재가 휘날려 가버리듯 불신자들이 현세에서 얻은 모든 업적도 사라져 버린다는 뜻으로 비유되고 있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53/9).

2) 가장 큰 손실이라.

19-1) 새로운 것을 창조할 능력이 있듯이 멸망케 할 능력이 있으시니라. 「이브누 압바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불신자들이여! 너희를 멸망케 하고 너희보다 훌륭하게 예의바른 백성들을 창조하느니라"

21-1) 오백년을 노여워하였고 오백년을 인도하였다고 「무가딜」은 해석하고 있다.

2) 심판의 날이 이르면, 믿음을 갖지 아니했거나 불신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잘못 인도되어 각 개인이 자신들의 책임을 맡게 되므로(제2장 134절 참조)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들을 잘못 인도했던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벌을 피하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둘째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의지했던 자들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벌로부터 그들을 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을 때 불신자들의 대답은 14장 22절에 있는 그대로 노골적이며 조소적이고 잔인할 뿐이다.

22-1) "일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업적에 따라 지옥과 천국으로 들어갈 심판이 끝났을 때" 라는 뜻으로 이 때에 사탄이 스스로 자신의 속성을 선언하였다. "내가 너희

를 기만했느니라. 실로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였으며 진실하였으나 너희는 하나님 보다는 나를 더 믿고 따랐으되 나에게는 너희를 다스릴 권능이 없도다. 내가 단지 너희를 부르니 너희가 나를 따랐을 뿐으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자신을 비난하라. 내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가? 나는 그렇지도 아니했고 또 결코 그분과 같이 될 수도 없다. 너희가 잘못했으니 벌은 너희가 받아야 당연함이라"

2) 부활의 날 이블리스는 불지옥에 있는 설교단에 올라 연설을 하며 이때 불지옥에 들어온 모든 피조물이 이 설교를 듣게 된다고 하싼은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56/9)

24-1) 훌륭한 말 한마디는 믿음으로써 좋은 한 그루의 나무에, 불신하는 말 한마디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나쁜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되고 있다. 이브누 압바쓰는 훌륭한 말 한마디를 '라 일라하 일랄라후'에, 좋은 나무는 믿음을 가진 진실한 신앙인에 비유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269/2).

25-1) 좋은 나무는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좋은 나무는 안정이 되어 뿌리가 단단하니 바람과 폭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좋은 나무는 그의 가지를 하늘로 뻗쳐 하늘로부터 햇빛을 받으며 새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사람과 동물에게는 그늘을 만들어 휴식을 갖게 하며 아름다운 나무는 풍성하고 달콤한 과일을 맺어 인간의 일용한 양식으로 하여 주니 좋은 말은 바로 좋은 나무와 같은 것.

26-1) 이브누 압바쓰는 좋은 한 마디의 말은「라 일라하 일랄라후 :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말에 비유되고 한 그루의 좋은 나무는「라 일라하 일랄라후」를 믿는 마음이며, 한 마디의 나쁜 말은 불신과 같은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27-1) 유일신으로써의 창조주의 존재를 확증하는 "라 일라하 일랄라후 :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그들을 안정케 하고 현세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니 그들은 유혹되지 아니 하니라. 한편 내세에서는 무덤에서 두 천사가 질문할 때 "라 일라하 일랄라후 와 무함마둔 라수룰라 :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시라"고 증언한다.

28-1) 메카 불신자들에게도 창조주께서 그들을 위해 그들을 인도할 선지자 무함마드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었으나 이들 불신자들은 은혜를 불신하였고 선지자를 거역하였다.

30-1) 하나님의 종교로부터

2) 현세의 물욕과 권세와 오락을 향락하라.

31-1) 심판의 날이 오는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그 가치성을 상실하게 된다. 현세에서 물질은 더 필요치 않게 되므로 누구에게 줄 수도 없고 받을 필요성도 없다.「바이으」는 모든 판매행위, 즉 물물교환이나 구매 및 판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심판이 오기 이전까지는 그 가치성이 있으므로 가치성이 있을 때 자선사업으로 소비하여 내세의 천국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심판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대신 할 수도 없으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35-1)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 이스마엘과 함께 카으바 신전을 건립하고 그곳에 축복을 내려 메카의 백성들을 평안케 하여 줄 것을 기원하고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기도하면서 이슬람의 유일성을 강구하였다.Abdallah Yusuf Ali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음 4가지로 요약 성명하고 있다.

첫째 : 35-36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둘째 : 37-38절에서 그의 자손 그 가운데서도 장남 이스마엘을 위해서

셋째 : 39-40절에서 개인적인 소망으로써 그의 가족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을 위해

넷째 : 41절에서는 자기자신, 그분의 부모 및 믿음을 가진 모든 신앙인 및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엿보인다(The Glorious Kuran, Beirut. p. 630 Note No.1912).

36-1) 저를 따라 창조주의 유일신을 믿는 이들은 저의 종교의 한 가족입니다.
37-1)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메카 계곡에 정주케 하였다.
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현재의 잠잠샘이 있는 곳에 아내 하갈과 젖먹이 이스마엘을 두고 어디론가 떠났는데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경작지나 우물하나 없는 계곡에 싸인 불모지로 바로 그곳은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마엘이 세운 카의바 신전이 있는 오늘날의 하람사원이었다.
39-1)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12살에는 이삭을 낳았다(이브누 압바쓰 : 자드 알마씨르 4/368 참조) 한편 창세기 21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에 백세라」 창세기 17장 24-25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에는 십삼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에 의하면 이삭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때 이스마엘의 나이 13세였으므로 그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때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삭의 자손은 이스라엘과 예수의 믿음을 따랐고 형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믿음, 즉 유일신 사상을 갈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오늘의 종교를 완성시켰다.
40-1) 아브라함의 여섯번째 기도이다.
41-1) 「왈리 다이야」나의 부모란 뜻으로 아브라함의 부모 특히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중의 한 분이었다(43장 26절 및 6장 74절). 그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유일신 신앙에 돌을 던져 학대하고 감옥에 투옥시켜 학대하였고(19장 46절), 하물며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곳에 던져버리기 까지 하였다(21장 52, 68절).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순하여 아버지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다.
42-1) 심판의 날
43-1) 그날 사람들의 얼굴은 하늘로 향할 뿐 어느 누구도 타인을 보지 않는다고 「하싼」은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77/9).
44-1) 무함마드여 부활의 날에 있을 무서운 응벌로 불신자들을 두렵게 하라.
46-1) 선지자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속여 살해하려 음모하였으나
2) 이 음모에 대한 하나님의 벌과 선지자와 믿는 신앙인들을 보호하였느니라.
48-1) 지구가 다른 것으로 변하고 하늘이 그러하다는 것은 새로운 대지와 새로운 하늘을 의미한다. 곧 종말의 날 모든 사물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일컫는다. 다음절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상징과 은유적으로 인간에게 묘사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와 정신적 세계를 말한다.
50-1) "까띠란"은 검은 액체 즉 소나무 및 석탄 등 주로 나무에서 나오는 증류 및 진 같은 것으로 불이 쉽게 붙은 물질을 가르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52-1) 본 절은 또다른 창조주의 유일성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 창조주는 홀로 계신 한분으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이어야 한다고 이해된다.

제15장 수라트 알히즈르

본 장은 알리프, 람, 라로 시작하는 여섯 장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장으로 메카에서 계시된 99절이다. 이 장은 메카 중반기를 조금 넘어선 후기에 계시된 것으로 이슬람의 핵심이 되고 있는 유유래되나 하나님은 항상 그 사악함을 관용으로 용서하려 하신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고 롯의 경우가 그랬다. 「아이카」나 「히즈르」 백성들

이 하나님의 예증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에 의해서도 입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오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시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원자로서 모든 인간을 그분께로 다시 귀의시킬 것이라고 15장 1~25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블리스의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야기된 사악함이 비록 당분간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 선지자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사악함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15장 26~5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은혜는 스스로 죄악을 낳은 롯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도록 선지자들을 보냈으며 사악함은 「아이카」의 추종자들에게 돌아갔다(15장 51~84절).

본 장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함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매 평생 섬겨야 한다고 15장 85~99절에서 끝을 맺고 있다. 본 장이 「히즈르」라고 불리워지게 된 이유는 창조주께서 「메디나」와 「샴」 지역 사이에 있는 「히즈르」라는 지역에 살면서 사건들을 일으킨 사무드 부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4).

2-1) 허위와 위선과 음모에 의해 유혹에 빠졌거나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자들이 스스로 무서운 참상에 빠져 있음을 알때가 필연적으로 오게된다. 그때서야 그들은 창조주의 의지와 섭리를 추구하여 진리의 길을 따랐더라면 하고 깊이 후회하고 바랄 것이다. 물론 그 시기는 각 인간에 따라 또는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빨리 올 수도 있으며 늦을 수도 있다. 또한 그 시기는 살아있을 때 일수도 있고 임종시나 심판을 받을 시기일 수도 있다. 인간은 서둘러서 회개해야 하며 늦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4-1) 「키타분」은 한권의 책 또는 기록이란 뜻이며 「마을루문」은 "알려진"이란 의미로 「키타분 마을루문」은 알려진 하나의 기록 또는 알려진 하나의 계율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더 많은 숨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각각의 사물과 인간에는 주어진 일정한 기한이 있다. 그들의 선택 능력은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 그들의 의지를 도약하고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게 하여 스스로를 창조주의 우주법칙에 종속시킬 수 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는 충분한 동아줄이 주어지며 그 기간이 지나면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둘째는 진리에 사는 사람도 또는 창조주를 불신하는 불신자도 그 기간을 서두르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창조주의 의지가 선행된다. 창조주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셋째는 한 민족이 멸망하는 것은 창조주 스스로 내린 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미 창조주의 율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5-1) 메카 백성들을 위한 경고로써 창조주의 존재를 불신하고 율법을 거역하는 죄악은 반드시 멸망케 된다는 교훈을 그들 불신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브누카씨르」는 해석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308/2). 6-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조롱하여 말하길,

7-1)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이 정도는 단순한 조롱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은 창조주로써의 하나님은 물론 천사들의 존재나 계시된 성서의 말씀도 부정하며 단지 물질적인 것에 집착되어 있을 뿐이다.

8-1) 천사들은 불신자들의 일시적 기분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지 아니하며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감으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래한다. 만일 천사들이 불신자들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곧 불신자들에게 벌을 수행하는 것으로 온 것이다. 천사들이 도래한 후에는 그들 불신자들에겐 유예의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압둘라 유스프 알리는 풀이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Beirut, p.638 Note No.1942-1943).

9-1)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이후 14세기가 지난 오늘날

까지 「꾸란」의 원본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또한 꾸란은 영원히 창조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다. 창조주는 계시한 꾸란의 증가 및 감소, 변경 및 대체되는 것을 막아 계시된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으로써 암기하도록 하였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5).

10-1) 「쉬아」는 「쉬아툰」의 복수 형태로 그 뜻은 "하나의 종파", "하나의 종교적 분파"란 의미다. 사람은 어느 때는 진리의 단편만을 보고 그 단편적인 것 또는 분파에 빠지곤 한다. 모든 선지자들은 이러한 단편적인 것과 분리된 것을 조화하여 진리의 천체를 보도록 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창조주 유일성의 진리와 복음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선지자 무함마드는 유대교와 기독교 및 이교도들 가운데 잔재하고 있는 많은 단편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을 통일하기 위해 창조주가 무함마드를 최후의 선지자로 선택한 것이라고 Abdallah Yusuf Ali는 해석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Beirut. p.638 Note No.1945).

11-1) 선지자

2)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 불신자들이 그대를 비웃듯 그대 이전 선지자 및 예언자들도 그 당시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느니라.

12-1) 조롱

13-1) 꾸란

15-1) 무함마드가 우리에게 마술을 걸었을 뿐이라. 하늘의 문을 열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오르도록 하여 그곳에서 창조주의 왕국과 능력과 권능을 보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 불신자들은 마술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불신하였을 것이라는 뜻으로 「라지」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알파크르 알라지 167/19).

16-1) 별들과 은하수로 장식하였으며

17-1) 지상위에 있는 하늘

20-1) 일용할 양식 및 음료수 등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21-1) 「카자이누후」 : 그분 즉 하나님의 창고 즉 귀중한 것들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양을 분배하여 주는 장소라는 뜻.

22-1) 인간 및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물을 내려 주는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서 내려진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것을 창조주는 강이나 지하수 및 우물등으로 그 물을 저장하여 모든 피조물로 유용케 하여 주고 있다.

23-1) 「왈와리쑤나」 : 상속자들, 계승인들이란 언어적 개념으로 천지의 모든 유산이 창조주 소유라는 의미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다.

24-1) "앞서온 자"란 아담 이후 멸망하여 죽은 모든 사람을, "뒤에 온자"는 아담 이후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사람과 또 심판의 날까지 남아 있을 모든 사람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해석하고 있다. 한편 「무자히드」는 "앞서온 자"를 무함마드 이전의 민족을 "뒤에온 자"를 무함마드 이후의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7).

25-1) 계산하여 보상하기 위해

26-1) 쌀 쌀-린 : 두드렸을 때 소리가 나는 도기류와 같은 마른 진흙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본장 26절과 29절을 분석하여 볼때 인간의 육체는 묽은 진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다음 그것이 말라 두둘기매 소리(곧 인간의 언어)가 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후 창조주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 인간의 말(소리)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Abdallah Yusuf Ali, The Glorious Kuran, Beirut, p.642 Note No.1966).

27-1) 창조주는 인류의 아버지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영마와 사탄들과 사탄중의 사탄 「이블리스」를 뜨거운 화염으로 부터 창조하였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 7).

28-1)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내가 검고 묽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리라" 말한 그때를 상기하라.

2) 창조주가 천사들에게 곧 인간을 창조할 것이라 예고한 것은 천사들로 하여금 인간에게 부복하고 불신과 오만과 시기함으로 가득찬 이블리스(사탄중의 사탄)를 멀리하게 하여 인간을 천사위에 높이 두고자 하는 창조주의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29-1) 싸즈다 :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30-1) 본 절은 다음 3가지 사항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창조주가 인간에게 창조주와 같은 지식과 의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주의 영혼을 불어 넣으므로써 인간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때 인간은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위에 있게 된다.
둘째, 악의 근원은 사탄의 오만과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간이 흙으로만 창조되었다는 형이하학적인 측면만을 보려하고 창조주의 영혼으로 생명이 있다는 형이상학적 측면을 보지 아니하려 한다.
셋째, 사탄은 그에게 복종하는 것들에만 다가온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섭리와 은혜를 넘어 설 수 없기 때문이다.

31-1) 이블리스가 창조주의 명령에 거역하며 아담에게 부복하지 아니한 것은
첫째, 이블리스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과
둘째, 천사들은 빛으로부터 창조되었거나 이블리스는 불에서 창조되어 오만과 기만과 시기심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33-1) 흙으로 빚어진 하찮은 아담에게 내가 어떻게 부복한단 말이뇨?

34-1) 하늘이라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8).
2)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추방된 자이다.

37-1) 사탄 이블리스도 죽은 후 다시 부활한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7/10).

39-1) 아담의 자손들
2) 복음의 길로부터 아담의 자손 모두를 벗어나게 하리라.

40-1) 당신께 순종함으로써 나 사탄의 힘으로 유혹할 수 없는 신앙인들은 제외됨이라.

42-1) 위선자 및 불신자들
2) 믿음이 강한 나의 종 신앙인들

43-1) 사탄 및 그의 추종자 모두

44-1) 지옥
2) 각자는 그가 행한 결과에 따라 각 문으로 들어가며 그가 행한 양에 따라 영속한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312/2).

45-1)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신앙위에 모든 음란한 행위를 멀리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2) 내세에 있을 천국으로 무르익은 과일로 풍성한 과수원과 물이 넘쳐흐르는 샘물과 쌀싸빌(천국에 있는 한 우물의 이름) 및 술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묘사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1).

47-1)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이 순화되니 과거의 모든 분노와 시기 및 질투심이 제거되고 진실한 형제애(Brothership)가 형성되며 각자의 존엄성이 존경된다.

49-1) 무함마드여! 믿음을 가진 나의 종복들에게, "실로 나 하나님은 회개하여 개심하는 모든 인간을 위해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다 알려 주어라"

50-1) 창조주는 항상 관용과 은혜를 먼저 베푸시되 그분의 율법을 부정하며 명령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분의 재판으로 벌을 내린다. 창조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의 메세지를 보내셨고 롯을 통하여는 안전의 메시지를 보냈다.

51-1) 손님이란 롯의 죄지은 백성들을 멸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10명의 천사들을 일컫는데 가브리엘 천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1).

52-1) 아브라함
2)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마실 음료수 및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러나 이 손님들은 천사들이었으므로 대접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니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53-1) 이삭
55-1) 천사들
57-1) 아브라함이 질문하니
58-1) 창조주를 불신하여 방황하는 롯의 백성들을 멸망키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59-1) 롯을 따라 믿음을 가졌던 그의 가족 및 신앙인들
60-1) 롯의 가족 가운데 그의 아내는 제외 되었으니 그녀는 불신자로 죄인이었기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6/10).
61-1)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추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을 아랍어로 "아알"이라 하며 민족 또는 후손이라고 할 때는 「아흘」이란 단어가 더 가까운 의미라고 풀이된다. 물론 「아-알」에도 예를 들어 「아알 무함마드」의 뜻은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과 더불어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른 추종자들이라 해석될 수도 있으나 「아알 루뜨」의 경우는 가족 및 후손이라기 보다는 롯을 따랐던 추종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63-1) 창조주께서 죄인들에게 약속한 벌이 온다는 것.
64-1) 당신의 민족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소식
65-1) 롯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거역하는 백성들을 두고 「샴」지역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2).
66-1) 죄인들 모두가 멸망하고 그들 중의 어느 누구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2) 롯
67-1) 「도시의 백성들」은 소돔의 도시 롯의 백성들을 가르킨다.
71-1) 나의 딸뜰이라 함은 롯의 백성가운데 결혼할 연령에 이른 처녀들을 말하며, 그들로 하여금 간음하지 말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라는 교훈으로 본다.
72-1) 무함마드여 그대의 생애를 두고 맹세하건데(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3) 하나님은 무함마드의 생애를 두고 맹세한 것 외에는 어느 누구의 생애를 두고 맹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알따브리 44/14).
2) 롯의 백성들은 길을 잃은 무지한 백성들이라
73-1) 사히하 : 지진 및 벼락 등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으로 제XI장 67, 94절에서는 격렬한 바람 및 유황비를 동반하며 약간의 화산 활동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Abdallah Yusuf Ali는 해석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p.650 Note No.1996).
74-1) 지옥의 불로 달구어진 진흙비 같이 돌비가 내렸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3).
76-1)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어 그 위치조차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아라아와 시리아 사이에 있는 대도로 오른편 광야에는 아직도 그 도시의 주춧돌이 남아 있어 사해 주변 국가들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죄악에 대한 벌의 결과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Abdallah Yusuf Ali는 풀이하고 있다.
78-1) 「아스하브」는 동료들, 「알 아이카」는 숲이란 뜻으로 「아스하브 알 아이카」는 "숲속의 백성으로 그 백성은 바로 예언자 「슈아이브」의 백성을 일컫는다"
2) 그들에게 보내어진 예언자 슈아이브를 부정하고 길을 방해함은 물론 무게와 저울을 속인죄(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3).
79-1) 7일간 혹 더위를 내려 거의 멸망할 상태에 두다가 그늘과 같은 구름을 그들에게 보내매 이들 백성들 모두가 혹더위를 피하려 그늘 밑으로 모였다. 이때 다시 창조주는 불을 내려 그들 모두를 멸망케 하였다고 풀이되고 있다.
2) 두 고을은 롯과 슈와이브의 도읍을 가르킴.

80-1) "히즈르"는 지역 이름으로 메디나 북방 150마일 쯤에 있는 돌산으로 시리아에 가는 도로에 있으며 이 지역은 사무드 백성이 살았던 곳이다 .이 사무드 백성들에게 "살레"가 그들의 예언자로 왔을 때 이를 불신한 이야기로 예언자 살레에 관한 4번째 이야기이다.
81-1)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들로 암낙타 등의 기적을 가르킨다.
84-1) 하나님의 응벌을 피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 산 위에 세웠던 그들의 성과 집들
85-1) 부활의 날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선을 실천한 신앙인은 그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요 사악함을 행한 자 또한 그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
2) 무함마드여
86-1) 모든 것을 창조한 조물주
2) 피조물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
87-1) 7절음 「파티하」를 말하여 이 7절은 예배할 때와 대화에서 자주 반복하며 낭송하기 때문이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창조주의 말씀은 무함마드를 통하여 꾸란에서 완성되도록 하였다.
88-1) 일부 불신자들이 현세적 물질로 향락하는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 그대에게는 훌륭하고 축복받은 자로 꾸란이 은혜로써 그대에게 계시되었느니라.
2) "날개를 낮추어라" 라는 것은 웃사람에게 겸손하고 아랫사람에게 친절하라는 은유법이다.
89-1) 무함마드여! 하나님의 벌을 그들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려 왔다고 말하여라.
90-1) "알무끄타씨미나"는 "부분으로 분리한 사람들"이란 언어적 뜻을 갖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성서의 백성들, 즉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두 무리에게 계시된 원래의 구약(타우라)과 신약(인질)의 일부를 믿되 또 일부는 불신함으로써 두 부분으로 분리되었다. 그래서 본문 해설에는 부분으로 분리한 사람들이 성서의 백성(아흘루 키탑)으로 풀이되고 있다.
91-1) 이슬람초기 메카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은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메카에 성지순례오는 순례객들에게 분배하여 주면서 선지자들을 험담하고 기만함으로써 꾸란을 조롱하였다고 Abdallah Yusuf Ali는 풀이하고 있다.
93-1) 현세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
94-1) 불신자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불신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갖지 말라.
96-1) 우상을 신과 같이 숭배하여 창조주를 불신하는 자.
99-1) 그대 무함마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제16장 수라트 나흘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28장으로 신관(울루히야), 계시(와히) 및 부활(바흐쓰) 등에 관한 이슬람의 근본사상(아끼다)을 다루면서 동시에 자연과 우주의 세계를 통하여 창조주의 섭리를 제시하고 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대자연을 인간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주의 유일성과 창조주의 진리를 16장 1~25절에서 인식시켜 주고 있다. 인간은 최후의 목적을 관찰하는 시력을 상실해서는 아니되며 창조주의 유일성을 깨우쳐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류를 위해 도래한 예언자 및 선지자들을 거역하거나 논쟁하지 말라는 경고의 내용이 16장 26~50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창조주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될 것이다. 구름을 형성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 가축으로 하여금 우유를, 벌들로 하여금 꿀을 인간에게 제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족과 사회생활의 아름다운 관계, 문명의 편리함을 갖게 한 창조의 섭리가 16장 51~83절에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은 그 진리를 거역한 모든 불신자들에게 증인이 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과 실천의 정도에 따라 심판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16장 84~100절에서, 그리고 꾸란은 진리의 복음으로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니 믿고 따르면 모든 생활이 보람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를 것이며 선을 실천하라는 명령이 16장 101-~128절에서 계시되고 있다.이 본장을 '나홀'이라 했는데 벌이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담고 있어 교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7).

1-1) "진리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그 하나님은 죄지은 자들에게 곧 벌을 내리지 아니한가?"라는 불신자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가까오니 서둘지 말며 그때가 오면 유예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최후의 희망마저 갖지 못하게 되는 때를 이해하지 아니하려는 불신자들이 어리석다는 대답이다.

2-1) 이바디히 : 그분의 종복이란 언어적인 뜻이나 본 어휘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예언자들 및 선지자들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8).

2) 계시(와히), 선지자로의 자격(누브와) 및 창조주의 뜻과 명령

3) 불신자들에게 나 하나님 외에는 경배 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4-1) 인간

2)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 가치만을 생각하고 가장 숭고한 생명인 영혼에 관하여는 게을리 하거나 이론을 주장하려 한다. "창조주의 인간 창조목적에 따라 한방울의 정액으로 창조되었건만 인간은 이에 논쟁을 일삼고 부활을 부정하려 한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창조주가 다시 환원할 수 잇는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브누 자우지」는 풀이하고 있다(자드 알마씨르 429/4).

5-1) 낙타, 소, 양등을 포함한 인간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가축들.

2) 가축의 털이나 가죽을 사용함으로써 추위를 방어함과 동시에 따뜻한 열을 얻고

3) 가축을 양육함으로써 새끼를 얻고 우유와 고기, 때로는 승마용등 여러가지로 그리고 다양하게 유용하도다.

6-1) 가축을 치는 목동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축들을 목장으로 인도하여 나갈때의 그 정신적 기쁨 그리고 풀을 먹인 후 석양의 햇살을 받으며 돌아 올 때의 정신적 기쁨.

8-1) 창조주는 말이나 당나귀, 낙타, 노새들을 창조하여 승차하고 또 짐을 실어 나르도록 하였으며 또 미래에도 운반의 도구로써 기차며,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 등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계시로 풀이된다.

9-1)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있으되 기독교와 유대교가 가는 길은 벗어난 길로서 온전한 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9).

2) 창조주께서 너희 모두를 믿음으로 인도하려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으리라 그러나 창조주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후르리야트 알이크티야르)를 주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9).

10-1) 창조주의 능력으로 구름을 형성케 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

11-1) 물

2) 물을 내려 온갖 과일을 생산케 하는 것은 곧 창조주의 능력과 유일성을 제시하여 주는 교훈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창조주의 창조 능력을 생각케 하면서 그것을 믿도록 계시를 내리고 있다.

12-1) 밤과 낮을 둔 창조주의 목적으로 낮에는 노동을 하여 생활을 하도록 하고 밤에는 잠을 자도록 하여 편히 쉬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태양과 달의 운행도 인간에게 편리하고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해석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20).
13-1) 여러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가지각색의 동물들이며 식물 및 광물 또는 무생물 등 대지에 있는 모든 것.
14-1) 진주 및 산호 등으로 바다에서 나는 모든 종류의 보석
2) 여객선 및 화물선
15-1) 산이 형성되기 전의 지구는 약한 원형형태로써 일반 궤도를 돌다가 산이 형성되면서 산의 무게가 구심을 향하게 됨으로써 산은 마치 지구를 받치는 기둥과 같은 기능을 하게되었다고 「아부 싸우드」는 풀이하고 있다(아부 알싸우드 167/3).
16-1) 「이브누 압바쓰」는 낮에 길을 안내하는 것은 이정표로, 밤길을 안내하는 것은 별들로 해석하고 있다(자드 알마씨르 436/4).
17-1)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유용하지도 못하고 다른 것에 해악을 끼치지도 못하는 우상들이 창조주와 같을 수 있느뇨?
20-1) 불신자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는 것들로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상들을 인간이 숭배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모순을 들추어 내고있다.
21-1) 하나님만이 유일신 창조주이며 최후의 실재자이라 그분을 제외한 우주의 만물은 그분에 의하여 창조된 것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22-1) 인간이 경배할 신은 오직 하나님 한분으로 이에 비유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창조주의 유일성을 제시하고 있다.
2) 부활과 보상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지 아니한 자들.
23-1)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유일성을 조롱하며 오만하고 거만해 하는 자.
24-1) 불신자들은 메카에 들어가는 입구에 머물면서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하여 조롱을 하곤 하였다. 메카에 성지순례 오는 순례단이 “무함마드에게 무엇이 계시되었느뇨”라고 물었을 때 “옛날 선조들의 우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임을 부정하려 하였다(알바흐르 485/5).
26-1) 위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창조주의 계시를 부정함과 더불어 창조주가 선택한 선지자들에 대하여 항상 음모를 꾸민다. 무함마드 선지자에게도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무함마드 이전의 예언자 및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은 창조주의 명령에 의해 멸망된다는 교훈을 본문은 제시하고 있다.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은 그들의 조직과 장비와 군대가 월등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신념을 갖고 「바드르」 전투에 임하였으나 패망하고 만 것은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27-1) “알라지나 우뚜 알 일무”는 “자식을 부여 받은 자들”이란 뜻으로 예언자 및 선지자들과 이슬람 학자들로 풀이된다. 학자들은 예언자 및 선지자가 될 수 없으나 예언자 및 선지자들은 동시에 학자이므로 분몬에서는 학자들로 해설을 붙여 보았다.
30-1) 성지순례 기간중에 한 순례자가 메카에 이르러 무함마드와 무함마드가 하는 일들에 관하여 그곳 불신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하나의 마술사이며 점장이로 거짓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불신자들은 대답하였다. 한편 그 순례객이 그곳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 그(무함마드)에게 길이요 복음인 꾸란을 계시하였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답하였다”라고 풀이되고 있다(알라지 23/20).
32-1)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한 이들
2)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사들이 평안의 인사(쌀람)를 하며 그들이 우편에 있는 동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알려 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01/14).
33-1) 그들은 두가지 사항 가운데 한가지 사항을 기다리고 있으니 죽음이 그들에게 이

르게하던지 또는 벌이 곧바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도록 서두를 뿐 그들 이전 불신자들에게 있었던 교훈을 상기하려 하지 않는다.

34-1) 창조주의 말씀을 불신한 죄악과 이로 인하여 그들이 저지른 모든 행위의 죄악

35-1)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2) 아랍사회의 이교도들은 고기에 관하여 임의로 금기하였다(제6장 143-145절 참조). 물론 이교도들에 의하여 금기된 것들은 이슬람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람이 임의로 금기를 한다거나 타부를 두어 종교에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3) 믿음과 인도는 창조주의 영역이요 선지자들의 임무는 창조주의 메세지를 전하는 것으로만 이해된다.

36-1) 창조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천국에 이르는 복음으로 초대했으니 이 초대를 수락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이 초대를 거역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황케 하였다.

2)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이여! 너희 이전 백성들 중 거짓했던 이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상기하라.

38-1) 일반적으로 이교도들의 신조는 창조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창조주가 자기들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 이교도들에게 진리를 밝혀 그들의 허위와 위선을 입증하게 된다고 풀이되고 있다.

41-1) 히즈라 즉 이주하면서 겪는 고통 그 자체는 특별한 의의가 없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헤즈라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이며, 둘째는 인간과 우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오는 박해를 겪었을 때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완성될 때 히즈라는 최고의 은혜와 경지에 이른다. 초기 무슬림들이 아비시니아(에치오피아)로 이주한 것과 메카 꾸레이쉬족의 박해로부터 메디나로 떠난 히즈라가 은혜를 받은 헤즈라로 「슈와이브」, 「빌랄」, 「캅바브」 및 「암마르」가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고 「꾸르뚜비」는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107/10).

2) 메디나를 안식처로 주어 헤즈라의 집으로 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

43-1)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 및 이교도들은 무함마드가 인간이라는 핑계로 무함마드를 선지자로써 부정하였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데 어떻게 인간이 그분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천사를 보냈는데…라고 우롱하자, 선지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으로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구약(타우라)과 신약(인질)을 계시받은 모세나 예수도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자들에게 물어 보라는 계시의 내용으로 본다. 본절이 계시된 동기도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인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선택했다는 것을 조롱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보고 있다(자드 알마씨르 449/4).

44-1) 꾸란

2) 모든 규범과 금기된 것과 허락된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라 하였느니라.

45-1) "까룬"이 부와 재산의 축적에만 광분한 죄로 땅 속에 매몰되었듯이 파라오왕의 수상이었던 "하-만"이 하나님에 대한 음모로 무서운 재앙의 벌을 받았고 또 파라오 왕이 익사하는 벌을 받았듯이 선지자들에 대하여 음모하여 사악한 행위를 한 불신자 및 위선자들도 벌을 받게 된다.

46-1) 위선자 및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장사나 어떤 이유로 여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벌이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이다. 또한 그들의 오만함과 거만함을 수치스럽게도 할 수 있다는 예시이다. "아부자홀"이 헤즈라 2년 「바드르」 전투에서 그의 군대가 무슬림 군대보다 3배나 우월하다고 하여 거만하고 오만하였으나 패하게 되매 그는 수치스러운 벌을 받게 된 것이다.

48-1) 산들이며 바다며 하늘이며 천지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숙고하여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이들 불신자들은 인식하지 못하느뇨?

51-1)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우주안에 강력한 두 신이 있는데 그 두 신은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한편 아랍사회의 이교도들도 한 쌍의 신 즉 지브트(요술의 신)와 따구뜨(악마의 신)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또 「사파」와 「마르와」 동산에 있는 「이사프」나 「나일라」 두 우상을 섬기곤 하였다.

52-1) 딘 : 순종하다, 복종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종교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56-1) 우상이나 가상적인 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물이다. 그런데 이교도들이 이 우상이나 가상 적인 신에게 때로는 자손을 바치는가 하면 가축이나 수확한 농작물을 바치거나 또 바치기 위해서 일정 양을 할당하는 것은 창조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57-1) 일부 아랍 이교도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딸들이라 불렀다. 이들은 다음 68, 69절에 있듯이 딸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여자 아이를 살해하곤 하였는데 그들이 남자 아이만을 좋아한 것은 남자는 전쟁에 있어 힘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58-1) 「무쓰와드」는 검은, 새까만 등의 언어적 뜻으로 괴로움과 슬픔이 은유적으로 비유되고 있다. 아랍인들은 좋지 않는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을 비유하여 "그의 얼굴이 검어졌다"라고 말한다고 해석되고 있다(알꾸르뚜비 116/10).

59-1) 나쁜 소식이라 함은 여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가르킨다. 한편 무지의 시대라고 불리워졌던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은 여아가 태어나면 생매장을 하곤 하였다.

60-1)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딸이 있다고 말하면서 창조주를 욕되게 하는 모든 사악한 자들.

62-1) 싫어하였던 여자아이.

2) 그들이 천국의 형제들이 될 것이라.

3) 무프라뜨 : 지옥으로 서둘러 앞서 들어가는 자라고 「까다다」와 「하싼」은 풀이하고, 「무자히드」는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버려진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31).

63-1) 각 시대에 있었던 각 민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어 옳은 길로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악한 사탄은 항상 그럴듯한 수단과 방법으로 백성들을 유혹하여 조상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선지자 무함마드 시대에도 그러했고 또한 사탄은 인간의 신앙이 약하여 질 때 인간을 그릇된 길로 유혹할 것이다.

64-1) 창조주가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성서(꾸란)을 계시한 목적을 크게 세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여러 잡다한 우상의 신을 믿어 파생된 여러 종파들을 홀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 신앙으로 인류를 인도하고, 둘째는 계시된 말씀이 인간으로 하여금 옳은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는 회개하여 순교하는 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67-1) "따므르"는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로 대추야자 열매와 형태가 비슷하다. 그 맛과 용도는 크게 다르다. "마실 것"은 나무열매 즉 종려나무 열매나 포도나무 등에서 짜낸 비알콜성분의 음료수 즉 식초나 포도즙 등을 가르킨다. 한편 "사카라" 단어의 원뜻은 발효된 술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 절은 메디나에서 술을 금지하는 계시가 있기 전에 메카에서 계시된 것이기 때문이다(알따브리 134/4).

68-1) "아흐와"는 "계시를 내리다. 영감을 주다"의 뜻이나 본문에서는 벌이 갖고 있는 직감력과 방향 감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9-1) 본 절은 창조주가 벌에게 내려주는 은혜로 모든 종류의 꽃과 열매에서 단것과 쓴것 그리고 신것을 양식으로 취하되 창조주의 능력으로 벌이 취한것 중에서 달콤한 꿈을 길러내고 또한 벌들이 멀리서 집을 찾아올 때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며 벌의 몸에서 꿀을 걸러내매 붉은색, 하얀색, 노란색의 꿀을 걸러내게 하여 사람들의 여러가지 병의 치료약으로 쓰이도록 하니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교훈이다.

71-1)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73-1) 리즈끄 : 인간의 일생생활과 성장을 위한 정진적, 물질적, 도덕적, 영적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6장 65-74절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우유와 과일과 같이 인간의 성장을 위한 물질적 양식이라고 한다면 가정생활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덕적, 사회적, 정신적 모범으로써 정신적 또는 영적 양식이라 할 수 있다.
74-1) 하나님께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라. 하나님께 비유될 것 아무것도 없느니라.
75-1) 우상을 비유하매 주인에게 예속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종에 비유하였고, 하나님은 주인으로써 모든 것이 그분에 예속되어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여 계시하고 있다.
76-1) 진리요 길인 하나님과 무익한 우상을 비유하사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 비교하고 있다고 「무자히드」는 해석하고 있다(알라지 93/20).
77-1)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사 "있어라 그러면 있느니라"(쿤 파야쿤) 하나님께서 종말을 원하여 있으라 명하실 때 눈깜짝할 사이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교훈으로 본다.
79-1) 창조주의 유일성과 능력에 대한 예증
80-1) 이브누 압바쓰와 무자히드는 죽을때까지라 하였고 「무까틸」은 그것이 완전히 부패할 때까지라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36).
83-1) 하나님의 은총이란 무함마드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한 것이나 불신자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받아들이기를 거역했다고 「알수디」는 풀이하고 있다.
84-1) 창조주는 선지자들(루술)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메세지를 전하고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심판의 날 증인으로 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선지자들을 불신했던 죄인들은 변명을 할 수 없게 되며, 다시 회개하여 선행할 기회를 간청하나 이미 회개할 시기가 늦었으므로 그 간청도 거절된다는 교훈으로 본다.
88-1) 이슬람으로 귀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2) 하나님을 불신한 죄악에 대한 응벌외에 또 다른 벌을 더하여 주리라.
89-1) 각 민족에 보내어졌던 그들의 예언자.
2) 그대 무함마드도 그대 공동체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느니라.
3) 꾸란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설명되어 있다고 「이브누 마쓰우드」는 설명하고있다(알무크타싸르 343/2).
90-1) 사람들간에 공정하고 모든 피조물에 선을 베풀라 명려하사
92-1) 본 절은 하나님과의 성약을 위반한 자를 비유하는 예문이라 해석되고 있다.
97-1) 가장 행복한 삶은 천국의 삶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며,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하며,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며, 불행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은 천국밖엔 없다고 하싼은 해석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41).
101-1) 불신자
2)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대체하는 그 지혜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무함마드는 오늘 어떤 일을 명령하고서 내일 그것을 금지하는 자로 이 절도 그가 스스로 꾸며낸 것이라"고 무함마드를 험담하고 조롱하였을 때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알라지 116/20).
102-1) "루흐 알 꾸드쓰" : 성령이란 뜻으로 모든 선지자에게 창조주의 말씀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를 가르킨다.
103-1) 무함마드
2) 무함마드
3) 불신자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무함마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브르 알 루미」라고 하는 비아랍인이 무함마드를 가르쳐준 것이라 주장하며 창조주의 말씀과 선지선지자 무함마드를 욕되게 하고 있으나 무함마드는 순수한 아랍어(루가 푸쓰하)를 사용하는 아랍사람인데 어떻게 비 아랍인이 무함마드를

그르쳤다고 하는 그들의 모독은 모순되고 있다.

106-1) 「암마르」의 아버지 「야씨르」아 그의 어머니 「쑤마이야」는 이슬람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에 불신자들로 부터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해야 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한편 「암마르」는 마음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했지만 그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부모가 당하는 고문에 대한 아픔으로 믿음을 불신한 것처럼 하였다. 그런 후 다시 선지자에게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는 그의 아픔을 위로하였고 또한 그의 믿음을 확신하였다.

111-1) 심판의 날이 되면 각자는 자기가 행하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그 날은 진리와 정의가 실현됨으로 불공평했던 현세의 일들은 시정되어 공평과 균형이 회복된다.

112-1) 본 절은 메카 백성들에게 비유된 것으로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보내어 은혜를 베푸니 그들은 그를 불신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렸으니 7년간의 가뭄과 기아로 죽은 시체와 뼈를 먹고 살아가는 벌을 내렸다(타프씨르 알카비르 20/128).

115-1) 제2장 173절, 제5장 4-5절, 제6장 121절, 138-146절 및 해설참조

118-1) 이전에 그대(무함마드)에게 언급된 것이란 「안암」장에 언급된 유대인에 대한 금기사항으로 소나 양의 지방과 발톱이 있는 짐승의 고기 등을 금기한 것으로 풀이된다(제6장 146절 참조).

120-1) 유일신에 대한 복음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정신적 진리의 주춧돌이었으며, 여기에 아브라함은 서부 아시아 및 전세계의 후손들을 위한 모범으로써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진리의 근원적 역할을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며 유일신의 복음을 망각한 민족의 한 백성이었으나 그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박해를 받아 그의 고향과 그의 백성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정주하며 살았다.

124-1) 안식일은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부터 비롯되었다고 유대인들은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완고하게 의견을 달리한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그 안식일을 깨뜨리는 무리도 있었다(제2장 65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고 있으며 기독교인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으나 그들 가운데 일파인 The Seventh Day Adventists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여 성서의 백성들 즉 신·구약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분쟁은 심판의 날이 이를 때 까지는 해결되지 아니하리라 본다. 반면 무슬림들은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는 금요일날 다 함께 모여서 합동예배를 보는 것이 있으나 이것 또한 유대인의 안식일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Abdallah Yousuf Ali는 해석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p.689 Note No.2159).

126-1) 피해자가 피해를 받는 것 만큼은 응징을 할 수 있으되 그 이상의 응징을 해서는 않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본 절은 「압둘 무딸립」의 아들 「함자」에 있었던 일로 계시되었다.불신자들이 「우흐드」 전투에서 그의 배를 잘랐을 때 무함마드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면 그들 가운데서 70명을 그렇게 하리라"라고 하였다. 또한 본 절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응징하는 것은 허락(무바하)되어 있지만 관용을 베풀어 응징하지 않는것(타르크)이 더 낫다는 율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17장 수라트 알이스라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11절로 제8장까지는 정신적 가르침 그리고 제7장에서는 새로운 이슬람 공동체(움마)의 형성을 묘사하고 있다. 제8장에서 제16장까지는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과 인간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간주하는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제17장에서 29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7장에서 21장 까지는 하늘여행(Mi' raj) 관한 예시와 함께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예언자들 및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제22장에서 제27장까지는 성지순례(Hajj), 경배(Ibadah), 예배(Salah), 이슬람세(Zakah), 사생활 등에 관한 각 개인의 정신적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고 제26장에서 제29장까지는 다시 옛 예언자들 및 지나간 역사로 돌아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발달과 각 개인 생활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을 제시하 고 있다.

제17장에서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밤여행(Isra')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 되고 있다. 메카 하람사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크사 사원으로 하루 밤의 여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증을 보여준 것이다. 대다수 꾸란 해설가들은 이밤을 성천의 밤(Lailah Isra')이라 부르고 있다. 무함마드의 어록인「하디스」에서 이 여행의 의의와 신비적 의미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루 밤 동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다시 일곱개의 하늘을 지나 가장 성스러운 권자에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정신적 신비 여행이 이루어진 것이다.마드리드 대학교 미규엘 아신(Miguel Asin) 스페인 교수는 이 「미으라즈」승천 문학이 유럽 중세문화에는 물론 특히 이태리 시인 단테(Dante)의 신곡(Divine Comedy)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으라즈는 메카에서 메디나로 떠나기 전「라잡」달 27일째 되는 밤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고 있다.

본 17장의 개요를 살펴보면 1~22절에서는 선지자의 영적 경험이 창조주가 보여준 예증으로 나타난다. 사악함에 빠지기 쉬운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23~40절에서는 인간의 진실한 신앙 생활과 일상 인간생활속에서 창조주가 나타나고 있다. 부모와 친척,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 대한 자선, 어린이에 대한 친절, 성생활의 순결성, 고아의 보호, 거래에 있어서의 성실 등을 다루고 있다. 41~60절에서는 창조주의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61~84절에서는 오만과 거만은 사탄에 유혹된 것으로 아담의 자손은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높은 경지에 있으나 믿음과 행위와 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며 예배는 정하여진 시간에 그리고 꾸란은 치료의 약이자 은혜라고 하였다. 85~111절에서는 꾸란은 하나님 은혜의 예증으로 인간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본장이 '이스라'(밤 하늘 여행) 장이라 불리우게 된 동기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 하람사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크사 사원으로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한 기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50).

1-1) 무함마드
2) 하람사원은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도시안에 있는 사원으로 본절에서 가르키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카으바」신전을 의미한다.
3)「아끄사 사원」은 모리아 산상「하드라트 우마르」라고도 불리우는 돌 구름 근처에 있는 모리아 산 언덕 위의 솔로몬 사원 지역을 가르킨다. 본 사원은 헤지라 이후 68년「압둘 말리크」통치자에 의해서 완성된 것으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성스러운 곳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 사원을 지배하게 되어 로마 황제 비잔틴시대에는 예류살렘에 한 주교 까지를 두었었다. 이 사원과 관련 주요 역사기록은 다음과 같다. B.C 1004년 경에 솔로몬 왕에 의해 마무리 되었다가 B.C 586

년경 네뷰차드 넷자르(Nebuchad nezzar) 통치하에 있을때 바빌로니아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B.C 515년경 에즈라(Ezra)에 의하여 파괴 된 후 B.C 167년 경 알렉산드리아 후계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에 의해 우상숭배의 장소로 변모되었다가 B.C 17년에서 A.D 29년 사이에 헤롯(Herod)에 의해 복구되었다가 A.D 70년 티투스(Titus) 황제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4) 40일 밤을 여행한 것으로 해설가들은 보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50).

5) 무함마드로 하여금 창조주의 권자, 천국과 지옥, 천사들과 예언자들 및 그밖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는 다른 것들을 보도록 하였으니

2-1) 모세에게 구약성경(Taura)를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암흑과 불신으로부터 빛과 믿음으로 구원하도록 하였다.

3-1) 믿음을 가진 자손들이여! 너희는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너희 조상들의 후손들이라. 하나님이 대홍수로부터 너희 선조들을 구하였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실로 예언자 노아는 항상 감사하였느니라.

4-1) 성스러운 지역에서

2) 팔레스타인 땅과 그 주변에서 있었던 죄악으로 첫번째 죄악은 요한 (야히야)을 살해한 것으로 「이브느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알리 유스프」 해설에서는 두차례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첫째가 유대인이 Nebuchadnezzar 왕에게 잡혀가 B.C 586년부터 50년이상 바빌론에 갇혔을 때 바빌론에 의해 멸망된 사건을, 둘째 사건은 A.D 70년 Titus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p.694 Note No.2174).

5-1) 본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번째 죄악을 저질렀을 때 Nebuchadnezzar와 같은 전쟁의 영웅과 바빌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멸망케 한 창조주의 약속을 가르킨다.

6-1) 바빌론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은 B.C 520년 경 다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그들의 신전을 재건하여 여러 개혁을 수행하면서 에즈라(Ezra)에 관련된 새로운 유대이즘을 세웠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얼마동안 번성하였다. 한편 그들을 속박했던 바빌론은 페르시아에 흡수되었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황제에 흡수되고 말았다. 서부 아시아 전체가 헬레니즘화 되면서 유대인들의 새로운 학파도 헬레니즘화 되었으며 알렉산드리아가 그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계속 거점으로 삼았다. B.C 167-63 Asmonaean 왕조하에서는 국가적 부흥을 맞게 되었는데 Maccabees라는 이름이 이들 영웅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밖에도 B.C 65년까지 유대인들이 영광을 누리다가 예수 시대에 창조주의 선지자를 배반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A.D 70년 Titus 시대에 그들의 신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7-1) 요한(야히야)를 살해한 죄악에 대한 경고

2) 예수의 메세지를 거역함으로써 유대인들은 그들의 명예를 잃게 되고 A.D 70년에는 Titus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 Titus는 로마황제 Vespasian의 아들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때에 왕위 계승자로써 Caesar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 그는 로마황제로써 A.D 79년부터 81년까지 통치하였다.

8-1) 본절은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 창조주 및 예언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성된 창조주의 말씀을 가지고 온 최후의 선지자를 거역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죄악을 계속 한다면 하나님의 벌은 그들에게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로 본다.

10-1) 9절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주는 동시에 본절은 믿음을 거역한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이다.

12-1) 창조주의 유일성과 권능의 표적으로

2) 밤에는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낮에는 노동을 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함이니

13-1) 「따이르」는 "새"라는 뜻으로 좋은 징조, 또는 나쁜 징조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한다. 이것은 옛 로마 백성들이 그랬듯이 아랍인들은 날아가는 새로부터 인간 운명의 신비를 알아보려고 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미신으로 운명을 점치고 있다. 하나님의 예증이 있다는 것을 앞절에서 보았으나 그것들이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현세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운명은 새나 어떤 길조나 별들에 의한 미신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곧 인간의 목을 둘러싸고 있다. 현세에서 행한 모든 것이 천사들의 기록의 의하여 심판의 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때 인간은 기록된 자기의 행위들을 빠짐없이 알 수 있게 된다.

14-1) 너희 각자 인간이 행하여 기록된 업적이 너희를 증언함에 충분하며 다른 증인이나 훌륭한 자가 필요치 않느니라.

15-1)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계시로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기독교 교리와는 모순이 되고 있다. 예수 이전 백성들에 대한 죄를 대신하였다고 할 때 예수 이후 백성들의 죄도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논제 역시 모순으로 이해된다.

16-1) 신의 은혜는 사악한 자에게도 주어지는데 이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은혜다.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악함을 거듭하여 갈 때 신의 증언은 필연적으로 있게 됨으로 신의 은혜와 정의가 동시에 실현된다는 교훈으로 본다.

17-1) 노아의 홍수를 시점으로 하여 수 많은 제국과 고을과 세대들이 그들의 사악과 죄지음으로 멸망되었다. 즉 아드, 사무드 및 파라오 백성이 멸망하였다. 이 절은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371/2).

19-1) 믿음으로 선을 실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보상을 받으리라.

20-1) 현세를 원하는 무리에게도 그리고 내세를 원하는 무리에게도

23-1) 본 절은 정신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를 병행시키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를 받을 존재이기 때문이며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이 아니다.(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24-1) 「자나하」는 "날개"라는 뜻으로 날개를 펴고 높이 날던 새가 폈던 날개를 모아 새끼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되 특히 부모가 연로하게 되면 어미가 새끼를 보호함에 날개를 모아 보호하듯 연로한 부모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장 12절)

25-1) 부모에 대한 효도에 이어 친척과 연약하거나 노약자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28-1) 친척이나 불쌍한 사람 그리고 여행중에 여비가 떨어진 여행자에게 줄것이 없었을 경우 인색하지 않는 친절한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29-1) "목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는 인색한 구두쇠가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며, "너무 펼쳐도 아니 되나니…"는 과분하게 자선을 하여 스스로 빈곤해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으로 인색하지도 말고 낭비하지도 말라는 교훈이다.

31-1)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자-힐리야)에서는 사내 아이는 힘의 상징으로써 보호를 받았으나 궁핍과 가난의 두려움으로 여자 아이가 생매장 되는 경우가 있었다.

32-1) 이슬람에서는 살인이 금지되고 있으니 국가를 배반한 반역자, 배교자,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자, 처녀를 간통한자 등은 사형이 허용되고 있다. 한편 살인을 당한 피해의 보호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끼싸쓰(동등한 형벌의 처벌)나, 디야(보상), 또는 아푸으(사면)의 형벌제도 가운데 스스로 서택할 권리를 갖게 된다. 한편 가해자

는 끼싸쓰(동등한 형벌)를 받을 의무가 있는 동시에 그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의 형법제도이다(제2장 177,178장 참조).

33-1) 반역자, 고의적 살인자 및 순결한 여성을 간통한자 등은 사형을 받을 정당한 이유라고 해석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58).

2)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살해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끼싸쓰(동등한 처벌)나 디야(보상) 또는 아푸으(사면)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3) 피해자가 받은 이상의 것을 가해자로부터 요구해서는 아니 되나니.

34-1) 이슬람에서 성년이라 함은 그의 재산을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나이로 18세에서 30세 사이로 보고 있다. 한편 어떤 목적상 법적 연령을 인도에서는 18세로 영국에서는 21세로 하고 있으며, 이슬람에서도 어떤 목적상 법적 연령을 18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Abdullah Yusuf Ali는 해석하고 있다 (The Glorious Kuran. p.704 Note No.2218).

2) 고아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잘 관리하고 그 재산을 잘 증식시키는 것.

37-1) 대지도 가를 힘도 없는 연약한 인간 너희가 오만하고 거만을 피울 이유가 없느니라.

38-1) 하나님이 금기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40-1) 천사들은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아랍 불신자들에게 계시된 절로 본다.

41-1) 교훈과 약속 그리고 경고

42-1) 불신자들이 주장한 대로

44-1) 하늘은 그의 푸르름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들녘은 그의 오곡으로 찬미하며 과수원들은 열매와 꽃들로, 나무들은 그의 가지들을 흔들어 소리로 칭송하고, 물은 그의 물소리로, 새들은

45-1) 내세를 믿지 아니 하려는 불신자들에게 무함마드 그대가 꾸란을 낭송할 때

46-1) 꾸란의 신비와 비밀 그리고 지혜

47-1)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 곁에 앉아 선지자의 꾸란 낭송에 귀를 기울인듯 하였으나 그것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창조주께서는 선지자를 위안하기 위해서 이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60).

48-1) 그들 불신자들은 무함마드를 마술사로써, 때로는 시인으로써 때로는 미친사람으로 비유하고는 하였다.

53-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54-1) 그대 무함마드를 보낸 것은 불신자들의 모든 행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에게 순종하는자 있다면 천국으로 이를 것이요, 거역한자 있다면 지옥으로 이를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대를 보냈을 뿐이라.

55-1)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신의 친구(Kholil)란 칭호를, 모세에게는 신과의 대화자(Khalim)란 칭호를, 그리고 무함마드에게는 승천(이스라와 미으라즈)을 두어 다른 예언자들보다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은 그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주어진 은혜로 풀이된다.

56-1) 창조주 아닌 너희가 주장하는 신들, 「하싼」은 천사들, 예수 또는 아지르를 의미한다고 덧붙이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64).

58-1) 불신자들의 고을

59-1)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예증이나 기적들로써 백성들을 두렵게 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교훈으로 받아들여 그분께로 귀의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09/15).

60-1)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무엇도 숨겨질 수 없도록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의도와 행위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며,

2) 승천의 밤에 보여준 모든 것.선지자 무함마드가 「이스라」의 밤에 목격한 것으로 꿈에서 본 것이 아니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해석하고 있다(알따브리 110/15).

3) 자꿈나무 :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라는 나무로 쓰디쓰고 불쾌하며 자극성 있는 나무로 묘사되고 있다.(제37장 xxxvii.62-65 : xliv.43-46 : lvi.52절) 참조.
61-1) 인사하고 존경하라 하니
62-1)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경배하는 아담의 후손들.
64-1) 창조주를 거역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소리(이브누 압바스). 「무자히드」는 유혹의 목소리를 퇴폐적인 노래와 유희도 이에 해당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18/15).
66-1) 멀리 여행을 떠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상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해
68-1) 롯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돌비를 내려 너희를 멸망케 하리라.
70-1) 이성과 지혜와 지식 그리고 말과 글
72-1) 장님이라 함은 광명이요 진리인 창조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인간의 마음으로 내세에 가서는 더욱 마음이 굳어져 크게 방황하게 된다는 뜻으로 본다.
73-1) 실로 불신자들의 상태 및 의도는 그대 무함마드가 계시받은 금기된 것과 명령받은 것으로 부터 그대가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유혹하고,
2) 그대에게 계시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하여금 조성하도록
74-1) 하나님이 그대를 진리로 지키지 아니 했더라면 그대 무함마드를 그들에게 기울려 그들이 요구한대로 쉽게 하였으리라.
75-1) 불신자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의지하였다면
2) 본절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70).
76-1) 메카 꾸레이쉬족 가운데 이교도 및 불신자들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위협하여 추방하려 하였 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를 제지하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읍을 옮겼다. 이로 볼때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쫓겨나 메디나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선지자 무함마드를 추방하려 했던 메카의 불신자들
78-1) 새벽에 읽는 꾸란 낭송은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디쓰는 전하고 있다. "천사들이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나니 밤과 낮이며 또 천사들이 모이나니 아스르 예배와 파즈르 예배이다" 또한 본절은 하루 5차례의 예배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해가 기울때"(둘루-크 샴쓰)는 「주흐르」예배와 「아스르」 예배를, "어둠이 질때"는 「마그립」 예배와 「이샤」 예배를, "새벽"은 「파즈르」예배를 예시한 것으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71).
79-1) 「타하주드」는 잠자던 한밤중에 잠에서 일어나 행하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본 절은 하루 다섯차례 의무예배 외에도 예배를 행하였던 예언자 무함마드를 가르킨다고 Abdallah Yusuf Ali는 풀이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p.717 Note No.2277).
80-1) 일생을 마치고 무덤으로 들어갈 때 선한 길로 들어가게 하고 부활의 날에 무덤으로부터 나올 때 좋은 길로 나오게 하여 달라는 뜻으로 「이브느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하산」과 「다하크」는 "진실의 문으로 들어감"은 메디나로 들어가는 것을, "진실의 출구"는 메카로 부터 박해를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81-1) "진리"는 이슬람을, "허위"는 불신 및 우상 숭배를 가르키는 것으로 메카를 정복하던 해에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 입성하였을 때 「카으바」신전 주변에는 360개의 우상이 있어 진리인 이슬람이 우상 숭배에 승리하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4대 칼리프 중의 한 사람인 「알리」가 카의바 신전 주변의 모든 우상을 파괴했을 때 예언자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71).
헤즈라 6년 메카 주민들은 무함마드와 체결한 휴전을 위반하였다. 그래서 무함마드를 지원하겠다고 호소한 한 아랍동맹군을 합류시켜 10,000명의 무슬림군대를 지휘하면서 예언자는 메카로 진격하여 갔다. 드디어 무슬림 군대는 승리하고 메카에 입성한 후 「카의바」 신전으로 가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 및 동상들을 파괴하도록 명령하고 예언자는 본 절을 암송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Hassan

Ibrabin Hassan, Islamic Hisfory and Culture. p.32-33.

82-1) 무지와 방황, 시기와 질투, 부패, 증오, 불결 등으로 가득찬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은혜

83-1) 모든 종류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이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순종하라 할 때.

85-1) 불신자들

2) "불신자들은 성령이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가져왔는가?"라고 질문을 한다. 성령(루흐)은 인간의 언어와 경험으로써 설명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영적 신비 가운데 하나로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이다. 성령인 가브리엘은 그의 뜻에 따라 오지 아니하고 단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이며 창조주가 그에게 명령한 것만을 전하여 계시할 뿐이다. "루흐"는 정신, 영혼 또는 성령이란 언어적 의미 까지를 함축하고 있는 어휘로 본절에서는 성령이란 용어로 옮겨보고자 한다. 본절의 언어적 풀이는 "성령은 내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라고 풀이 할 수 있으나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교수는 "루-흐"를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들"이라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72).

87-1) 가장 위대한 축복인 꾸란을 계시한 것을 비롯 축복받은 위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선지자로써 축복과 은혜를 내렸다.

88-1) 제6장 100절 해설 참조

90-1) 그대 무함마드가 메카의 땅에서 샘을 파 그곳으로부터 끊임없는 물이 나오게 할 때까지는 그대를 믿지 아니하리라.

91-1) 「종려나무」는 사막의 오아시스에 있는 나무로 이 나무에 열린 열매가 완전히 익기전 까지 는 그 열매를 「발라흐」라고 하고 완전히 익은 열매는 「타므르」라고 한다. 우리 한국의 대추야자와 모양이 약간은 비슷하나 그 맛과 색깔, 영양 및 나무의 생태는 전혀 다르다.

92-1) 불신자들은 첫째, 땅에서 물을 솟게 하라고 요구하고, 둘째는 종려나무와 포도나무 정원에 물이 넘쳐 흐르도록 요구하였으며, 셋째는 하늘을 산산조각 낼 것과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선지자 무함마드를 불신하는 오만으로 제2장 55절, 제5장 153절에 있듯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도록하여 달라는 요구와 제 장 8-9절에 천사들이 내려와 인간들에게 확증하여 달라는 요구는 불신과 다를바 없다.

95-1) 대지는 인간이 거주하는 곳으로 인간들은 여러 민족과 공동체와 국가로 분할되어 있다. 그 각각의 공동체에 선지자가 보내어졌는데 「아드」 백성에게 「후드」를(11장 50절), 「서무드」 백성에게 「살레흐」(11장 61절)… 등이 보내어 졌다.

96-1) 진실한 증인은 어떤 환상적인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 밖엔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언제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진실한 반성과 회개로 구원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인도하여 옳은 길을 보여 주시게 된다.

97-1)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행복한 길로 이 길로 인도받은 자는 이 길을 따르며

101-1) 아홉가지의 증표란 모세에게 있었던 것으로

① 지팡이(알아싸 : 7장 107절)
② 광채나는 손(알야드 : 7장 108절)
③ 가뭄과 물이 부족한 해(알씨니나 : 7장 103절)
④ 흉작(7장 130절)
⑤ 사람과 동물사이에 전염병
⑥ 메뚜기(알자라드)
⑦ 이(곤충)(알주말)
⑧ 개구리(알다파디으)
⑨ 물이 피로 변함(알담므)

103-1) 파라오가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추방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군대 모두를 바다에 익사케 하여 명말시켰다.

104-1) 애굽의 땅

2) 뒤섞인 군중이란 : 약속된 심판의 날이 되면 창조주는 무덤으로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든 불신했던 사람이든 모두를 함께 뒤섞어 모이게 하는데 이 때의 군중들을 가르킨다.

105-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이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불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라.

106-1) 부분적, 점차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꾸란이 계시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배우고 읽히는데 어려움이 없이 쉽게 암기하고 배우도록 하는데 있다.

107-1) 성서의 백성들(아흘루 알키탑) 가운데 꾸란 이전에 계시된 성서들의 진리와 진실을 읽었던 학자들은

2) 꾸란

110-1)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한 99개의 이름을 말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알라흐만	2) 라힘	3) 말리크	4) 꾸드-쓰
5) 쌀람	6) 무으민	7) 무하이문	8) 아지-즈
9) 잡바-르	10) 무타캅비르	11) 칼-리끄	12) 바-리운
13) 무싸우와르	14) 갓파-르	15) 카하-르	16) 와하-브
17) 랏자-끄	18) 파타-흐	19) 알림	20) 까-비드
21) 바-씨뜨	22) 카-피트	23) 라-피흐	24) 무잇즈
25) 무질루	26) 싸미-운	27) 바싸르	28) 하캄
29) 아들	30) 라띠-프	31) 카비-르	32) 할림
33) 아짐	34) 가푸-르	35) 샤쿠-르	36) 알리유
37) 카비르	38) 하피-즈	39) 무끼-뜨	40) 하씨-브
41) 잘리-루	42) 카림	43) 라끼-브	44) 무지-브
45) 와-씨으	46) 하키-므	47) 와두-드	48) 마지-드
49) 바-히쓰	50) 샤히-드	51) 학끄	52) 와킬-루
53) 까위유	54) 마탄	55) 왈리유	56) 하미-드
57) 무흐씨	58) 부므디유	59) 무이-드	60) 무히유
61) 무미-트	62) 하이	63) 까이윰	64) 와-지드
65) 마-지드	66) 와-히드	67) 싸마드	68) 까-디르
69) 무끄타다르	70) 무까디무	71) 무아키르	72) 아우왈루
73) 아-키르	74) 자-히루	75) 바-띠누	76) 왈-리유
77) 무타알-리	78) 비루르	79) 타와-부	80) 문타낌
81) 아푸우이크람	82) 와우프	83) 말-리크 물크	84) 주 잘랄와
85) 무끄씨뜨	86) 자-미우	87) 가니유	88) 무그띠
89) 무으띠	90) 마-니우	91) 다-르르	92) 나-피으
93) 누-르	94) 하-디	95) 바디-으	96) 바-끼
97) 와-리스	98) 라쉬-드	99) 싸부-르	

선지자 무함마드가 기도할 때, "야! 알라(오 하나님이여!)", 야 라흐만(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시여!)이라고 기원할 때 불신자들이 말하길, "무함마드는 유일신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더니 그는 두 신에게 기원을 하느뇨?"라고 조롱했을 때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p.78).

2)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꾸란을 낭송할 때 목소리를 높여 읽었다. 불신자들이 이것을 듣고 선지자와 꾸란을 계시한 분은 조롱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70/21).

제18장 수라트 알카흐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10절로 '알함두릴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미를 드리나이다」로 시작하는 「파티하」,「안암」, 「카흐프」, 「싸브아」,「파띠르」의 5장 가운데 하나이다. 「카흐프」장은 신앙을 같이했던 추종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 다음으로는 모세에게 생명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신비의 스승에 관한 이야기, 세번째는 두개의 뿔을 가진 통치자 「줄 까르나인」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다음의 세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리는 많은 재산과 권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으며,

둘째: 현세의 인생은 허무하나 내세의 인생은 영원하고,

셋째: 거만과 오만은 「이블리스」가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담에게 절하지 않 것과 같다. '카흐프'는 동굴이란 뜻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으므로 흐프'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5).

1-1)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으로써 꾸란을 계시하여 준 하나님께

2) 어휘나 표현 그리고 그 뜻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나 왜곡된 부분 또는 모순된 부 이 일점 일획도 없는

2-1)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2) 좋은 보상이란 물질적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최고 희열의 상태로 곧 천국을 가르킨다.

4-1)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를 부정한 불신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려 하나님이 자손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6-1) 꾸란

7-1) 대지위에 있는 금이며 자연이며 동물이며 이 모든 것들은 대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두었으며 그것은 별들이 하늘을 장식하는 것과 같다. 대지위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세를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8-1) 본 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것으로 그 뜻은 무함마드로 하여금 현세와 현세의 모든 것에 관심과 욕심을 갖지 말 것이며 그 현세는 곧 시험단계에 불과하다는 것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고 또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심판과 부활의 날이 오면 창조주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됨으로 그들의 불신이 무함마드를 해롭히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안을 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54/1).

9-1) 본 절에서 부터 동굴의 동반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카흐프」는 동굴이란 뜻이며, 「라낌」은 동굴에 있었던 동반자들의 이름이 쓰여진 기록을 말한다.

10-1) Gibbon의 로마 황제의 쇠퇴와 몰락(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이란 책에서 크리스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 크리스챤을 박해했던 로마황제 통치시절 「에피수스」 고을에 살고 있던 7명의 젊은 크리스챤이 그 고을을 떠나 근처 산 동굴로 은신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몇세대 또는 몇세기 동안 잠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닫혀 있던 동굴 문이 파괴되었을 때 젊은이들은 잠에서 깨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전에 살아

왔던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 젊은 7명 중 한 젊은이가 양식을 구하러 고을로 나갔을 때 비로소 전 세상이 변하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가 입은 옷과 그가 사용하는 언어와 그가 가져간 돈이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고을의 훌륭한 학자가 그 동굴을 방문하여 그 동료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입증하였다. 그 이야기가 로마제국 전국에 퍼지게 되었을 때 기록이 동굴 입구에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본장 9절 참조). 이 기록은 에페수스(Ephesus) 고을이 소아시아 서안에 잘 알려진 도시가 되면서 수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그후 칼리파 와씨끄(Khalifa Wathiq : 842-846 A.D)는 원정대를 보내어 그 장소를 조사 확인하였다고 Adballah Yusuf Ali는 해석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p.730 Note No. 2233).

2) 관용과 일용할 양식

11-1) "듣지 아니 하도록 하여"란 뜻은 잠들게 하여 모든 세속적인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2-1) "두 무리"는 동굴안에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기 위해 보낸 자들이라고 「무자히드」는 풀이하고 있다.

13-1) 그대 무함마드에게 기적인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증가하거나 축소함이 없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니

2) 그 젊은이들이 동굴 안으로 숨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런후 그들은 그 안에서 잠이들어 동굴 밖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14-1) 믿음과 인내와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으니

2) 불신자인 폭군의 왕들 앞에서서

3) 저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였다면 저희는 진리를 벗어났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게 되었으리라.

15-1) 우상들

2) 우상을 숭배하는 분명한 예증을 이르도록 할 수 없는 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가?

16-1) 젊은이들이여!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 백성을 피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려거든

17-1) 태양은 떠오를 때나 질때 동굴안의 믿음이 강한 청년들을 열사로 괴롭히지 아니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은혜요 자비라.

2) 동굴속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동굴속에서 안전히 피신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사(18장 16절) 그들은 이교도들의 박해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18-1) 젊은이들을 따라왔던 개가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것 같이 동굴입구에서 발을 뻗고 있으니

19-1) 이 동굴안에서 우리가 얼마동안 체류하느뇨?

2) 그들 젊은이들은 아침에 동굴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은 그 날이 끝나는 시각에 그들을 잠에서 깨웠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잠에서 깨었을 때 그들은 태양이 서산으로 진 것을 보고서, "우리는 하루 동안 이 안에서 체류하였다"라고 하였고, 아직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아니한 태양을 보고서 "우리는 하루중의 얼마동안 머물렀다" 말할 뿐 그들이 309년을 체류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10).

21-1) 「이렇듯」이란 동굴속의 백성들을 300년 이상 잠들게 한 후 다시 깨웠듯이 하나님은 죽은 인간을 다시 부활하실 능력으로 충만하시다는 교훈이다.

2) 동굴속 젊은이들의 일에 관하여 백성들이 논쟁함이라.23-1) 동굴에 있었던 젊은이들에 관한 질문을 받은 선지자 무함마드는 "내일 여러분들에게 대답

하여 주리라"고 대답하였으나 그에 관한 계시는 15일간이나 지연되었다. 그 이유로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415/2).

25-1) 309년을 잠자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26-1) 그들이 동굴안에서 체류한 정확한 기간을

28-1) 아침이나 저녁 및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가난한 무슬림과 연약한 무슬림들. 꾸라이쉬 부족의 지도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와 회합을 같이하였을 때 이들 부족장들이 요구하길, "우리가 그대 무함마드를 믿도록 원한다면 그대와 같이 있는 가난한 「빌랄」과 「카으브」 및 「수하이브」 등 그 밖의 사람들을 추방하라 실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고 싶지않으므로 그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 그들과 회합을 가지시요"라고 말했을 때 계시된 절로 전하여지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115/21).

31-1) 천국의 백성들은 그의 손에 다음 3가지 팔찌를 끼게되니 그것은 금팔찌, 은 그리고 진주로 만들어진 팔찌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14).

32-1) 두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두 형제로 한 형제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고 다른 형제는 불신자였다. 불신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두 과수원을 구입하였고 믿음을 가진 형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상속받은 재산 모두를 사용하였다. 이때 불신자 형제는 믿음을 가진 가난한 형제를 비난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형제의 재산 모두를 멸망케 하였다는 이야기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2) 가난한 사람들을 추방하라고 그대에게 요구했던 불신자들에게

3) 믿음을 갖지 아니한 불신자 형제

34-1) 불신자 형제

2) 믿음을 가진 형제

3)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는 믿음이 강하였고 한 형제는 신앙을 거역한 불신자였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불신자는 두 과수원을 구입하였고 믿는 형제는 하나님의 사업으로 사용하여 가난하게 되자 불신자 형제는 믿음이 강한 형제를 비난하였으며 또한 그가 가진 것으로 거만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신자 형제의 재산을 멸망케 하여 비유하고 있다.

35-1) 불신자는 믿음이 강한 그의 형제 손을 잡고 과수원으로 데리고 가 그 정원을 구경케하고 과수와 열매와 그 안에 흐르는 강물을 보여주며 이 과수원은 영원히 멸망치 않으리라고 자만을 부렸다.

37-1)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재산을 사용하여 버린 가난한 형제가 대답하여 말하길.

39-1) Abdullah Yusuf Ali는 불신자에 대한 신앙인의 대답을 다음 다섯가지로 보고 있다.

①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만한 인간을 충고하고

② 하나님 한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분은 항상 선이라는 것을 그의 영적 체험으로써 말하고

③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는 더 좋은 방법은 은혜를 베풀어 준 그분께 감사하는 것임을 제시하고

④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고

⑤ 오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40-1) 후쓰바나 : 천둥, 벼락 및 우뢰등의 뜻이나 본절의 일반적 개념은 모든 종류의 응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46-1) 알바끼야트 알살리하트 : 선행은 그 결과가 영원히 남는다는 뜻으로 「무함마드 알리 알싸부니」 교수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브누 압바스」는 다섯 차례의 의무예배와 좋은 언행과 행위는 내세를 위하여 남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스부하날라(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알함두릴라(모든 영광을 하

나님께 드리며),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며), 라 하울라 왈라 꾸와 일라 빌라히 알알리유 알아짐(가장 높이 계시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힘도 그리고 권능도 없느니라)"라고 보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18).

47-1) 현세의 생활은 덧없는 것으로 그 생이 끝나는 것은 오늘도 될 수 있으며 내일도 될 수 있는 유한한 것이다. 그의 생애가 끝날때 그가 소유한 재물도, 자손도 그에게는 필요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그것은 곧 하늘에서 내린 비로 자라난 잡초가 뜨거운 태양볕으로 시들어져 말라버리니 바람이 불어 가버린 것과 같다.

48-1) 예배를 근행할 때 줄지어 서는 것처럼 각 움마(공동체)는 줄지어 서게 된다고 「무까틸」은 말하고 있다(알꾸르뚜비 417/10).

2) 불신자들

50-1) 「쑤즈드」는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천사가 아담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타히야)하고 존경(타크림)하라는 뜻이다.

2) 제6장 100절 및 그의 해설 참조

3) 그와 그의 자손은 사탄과 그의 유혹에 빠져 사탄의 길을 걷는 모든 무리를 의미한다.

52-1)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너희가 주장한 대로 나 하나님의 벌을 제지하고 너희들을 구제하여 줄 우상들에게 구원하여 보라"

2) "마우비끄"는 사탄에 유혹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그 우상들을 분리시켜 놓는다는 뜻으로 지옥을 의미한다.

56-1) 선지자들을 보낸 것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달하고 믿음을 거역한 불신자들에게는 경고를 하기 위해 보냈으되 그들을 멸망케 하기 위해 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백성중에서 선지자를 선택한 창조주의 목적은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믿음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이 그들의 거주지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3) 꾸란

59-1) 지난 세대 즉 후드백성, 살레, 롯, 슈와이브 백성들이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함으로서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60-1) 「유샤 이븐 눈」이라는 그분의 젊은 시종에게

2) 홍해의 두 줄기가 만나는 곳, 예를 들어 「아까바」와 「수에즈」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이 시나이 반도를 에워싸고 있으며 그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년간을 방황하면서 보낸 곳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의 교차점 즉 모세와 키드르(khidhr)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 되기도 한다.

3)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카흐프」 장에 나오는 세번째 이야기로 다음 몇가지를 암시하고 있다.

첫째, 모세는 애굽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였으나 그 지식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현대의 지식이 과학이나 예술 그리고 문학에서 모든 지식을 망라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모세는 선지자적 신성한 임무를 받았음에도 그의 지식은 완전치 못하였다.

둘째, 시대의 흐름과 함께 지식은 꾸준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배우고 탐구되어야 하며, 이에 모세는 그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셋째, 그가 만난 신비의 남자(제18장 65절)-하디쓰에 의하면 키드르(Khidr : 푸른) 라고 하는 그 신비의 남자는 예언자가 아니라 성실한 하나님의 한 종으로 이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22).

61-1) 모세와 젊은이

2) 모세와 그의 추종자가 두 바다의 교차점에 이르렀을 때 추종자 「유시우」는 물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망각하고 모세에게 전하지 못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큰 바스켓에 물고기를 가져가되 그 물고기를 잃어 버린 그 장소에서 모세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그에게 가르쳐 줄 신비의 스승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62-1) 만나기로 약속된 두 바다가 교차한 점에.

2) 그들은 밤새 보행하고 대낮에도 보행하였다고 풀이되고 있다.

63-1) 추종자 「유사으 이븐 눈」

65-1)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된 신비한 지식으로 「알일무 알라둔니」라 하며 이 지식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되고 있다.

2) 물고기를 잊어 그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간 그곳에서 키드르를 만났는데 이때 그는 땅에 누워 있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66-1)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한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70-1) 키드르

71-1) 모세와 키드르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 배 한척이 있었는데 그 배의 주인은 키드르를 알고서 그 둘을 배에 태웠다.

2) 키드르

3) 배에 구멍을 뚫은 키드르를 본 모세는 그의 옷으로 뚫인 구멍을 막고서 키드르에게 "요금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태워 주었는데 의도적으로 배에 구멍을 내어 사람들을 익사케 하려 한단 말이요 실로 당신은 비난 받을 일을 하였소" 라고 말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23).

72-1) 키드르

74-1) 키드르

75-1) 키드르

77-1) 무너지려는 담을 무너뜨리고 키드르와 모세 둘이서 다시 세웠다고 「이브누 압바쓰」에 의해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24).

2) 모세는 「키드르」가 본 것에 관하여 질문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모세는 인내하지 못하여 세번째 질문을 하였다.

3) 담을 다시 세워준 것에 대한 보상

78-1) 키드르

80-1) 내가 살해한 그 소년은 오만한 불신자였다. 하디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키드르가 살해한 그 소년은 불신자로 그가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의 말씀에 거역할 불신자였을 것이라"(무슬림이 전함)

2) 그 소년

82-1) 배에 구멍을 내고 소년을 살해하고 무너질려는 벽을 일으켜 세운 세가지에 관하여 당신(모세)에게 이야기 하지 아니한 것

83-1) 유대인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줄까르나인」에 관하여 질문을 했을 때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꾸타다」는 보고 있다(아쓰바브 알누줄 172).

2) 문자 그대로 "두개의 뿔을 가진 자"란 뜻으로 두 뿔을 가진 왕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과연 그는 누구인가? 어느 시대의 인물이었으며 어느 곳에서 살았는가?

꾸란에서도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를 비유의 한 인물로 생각한다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줄까르나인」을 「알렉산더 대왕」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견해로써는 고대 페르시아의 한 왕이거나 또는 선사시대 이전 히마리트 왕으로 보기도 한다. 「줄까르나인」은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왕이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안에 있었던 것이다.

신은 그에게 힘을 주었고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동서의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는 약

자를 보호했고 사악한 이들에게는 벌을 주었다고 Abdullah Yusuf Ali는 풀이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p.753 Note No.2428).

84-1)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그(줄까르나인)을 지상의 왕으로 하여 지상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그 기간은 예수와 무함마드 두 선지자 사이라고 전하여 지고 있다. 지상을 통치한 네 무리가 있었는데 신자들이 통치한 시기와 불신자들이 지배한 시대로 「솔로몬」과 「줄까르나인」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통치자로, 「니므로드」와 「바크탄시르」가 불신자들의 통치자였던 것으로 전하여 오고 있다 (알바흐르 157/6).

86-1) 아인 하미아 : "아인"은 우물, 샘, "하미아"는 검은 진흙이란 뜻으로 "아인 하미아"는 검은 흙탕물의 샘이라는 언어적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뜻은 검게 보이는 깊은 바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166/21)

87-1) 줄까르나인

2) 믿음을 거역하고 불신을 고집하는 자는 살해할 것이며

3) 불지옥의 벌

88-1) 줄까르나인이 말하고 있다

2)오만하고 불손하며 거만했던 「파라오」와는 반대로 「줄 까르나인」은 겸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써 선행을 촉구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는 통치를 하였고 무겁고 어려운 임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다 공평한 기회를 주었다.

89-1) 동쪽을 향해서

91-1) 해가 지는 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줄 까르나인」은 해뜨는 곳에 거주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불신자들을 살해하였다고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교수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29).

92-1) 동쪽과 서쪽사이 북쪽으로 향하는 길.

93-1) 터키에 있는 한 지역으로 풀이되고 있다.

2) 사용하는 말이 서로 달라 통역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

94-1) 「야으주즈」와 「마으주즈」 부족이 아담의 자손이라는 사실 외에는 정확히 알수없으나 이 부족의 일부는 키가 너무 크고 그 일부는 키가 너무 작은 백성들로 살인과 약탈 그리고 도적을 일삼아 해악을 많이 끼쳤던 부족들이였다고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

2) 정복자 대왕은 지금 서로 말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한 백성에 이르렀다. 이들 원주민들은 금속을 만들고 그것으로 벽돌을 만들며 파이프등을 만드는 일에 능숙한 백성들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평화롭게 살며 근면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야으주즈」나 「마으주즈」 같은 살인적이며 약탈적인 부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95-1) 노동으로

99-1) 두번째 나팔

2) 「줄까르나인」에 관한 이야기는 98절에서 끝나고 본절에서 부터는 심판의 날과 부활의 날에 있을 무서움에 관한 말씀이 계시되고 있다.

102-1) 본절의 함자는 비난과 힐책하는 첨자로 나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 아지르, 마리아의 아들 예수등을 신으로 숭배하려 하느뇨? 그들이 나 하나님의 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뇨?

104-1) 이들은 목사 및 승려들로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유용하리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종이나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들로 창조주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는 신앙은 수락되지 아니한다고 「다하크」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1).

105-1) 꾸란과 부활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이니

107-1) 천국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천국으로 그것은 피르다우스이다.
109-1) 지상에 있는 바다를 잉크에 비유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기적들을 기록한다 하여도

제19장 수라트 마르얌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98절로 창조주의 존재와 유일성 그리고 부활과 심판 등 교리와 관련한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자카리야」가 현세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할 후계자를 갖고싶어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요한(Yahiya)을 주었고(1～5절), 사람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Maryam)를 간음한 여자로 중상모략하자 예수가 어머니를 변호하고 위로하였으며(제 16～40절),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두터운 믿음과 신앙생활로 박해를 이겨내고 더욱 큰 축복을 받았고, 이스마엘은 그의 가족을 믿음으로 양육하였으며, 이드리스는 그의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경건하고 진실하였다(제 41～65절).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고찰해 볼 때 인간은 내세를 불신하거나 창조주를 욕되게 해서도 아니 된다는 교훈이 66절부터 98절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다.

본 장이 '마리아' 장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요람에 있던 아기 예수로 하여금 어머니를 변호하도록 한 하나님의 능력과 남자의 몸을 스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 장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4).

1-1) 꾸란의 기적이요 신비. 읽을 때는 카프, 하, 야, 쇼드라 읽는다.
2-1) 하나님께서 자카리야에게 베푼 은혜는 여러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첫째는 그의 기도와 기원을 받아주고, 둘째는 요한(야히야)과 같은 아들을 갖게 하였으며, 셋째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사랑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써 세상을 위해 입하였던 것처럼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3-1) 소리를 내어 사람들에게 그의 신앙을 보이려는 위선적인 기도와 기원은 주님께서 거절하기 때문이다.
4-1) 그의 기도에서
2) 본 절은 「자카리야」의 강열한 신앙심을 제시하고 있다. 자카리야는 신을 모시는 가장 높은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의 사무실은 사원안이었고 그의 친척들은 그의 동료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 가운데서 진실로 신을 섬기는 동료들을 찾지 못하여 혹시 그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지 않나 하는 근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5-1) 자카리야가 아들을 원하였던 것은 단순하고 저속한 욕심이 아니었다. 그가 임종한 후 그의 삼촌의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 진리의 종교를 더럽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나이가 들어 임신이 불가능한 아내에게 자손을 달라는 기원이다.
6-1) 자카리야가 자손을 원했던 것은 다음 3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그는 나이가 들어 허약했기 때문이며,
둘째, 하나님께서 그의 기원을 거절한 적이 없었고,
셋째, 종교와 신앙을 위해서 자손을 원했던 것으로 본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181/21).

7-1) 천사를 통해서 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주리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랍어로는 야히야라 한다.
2) 요한이란 이름처럼 완전하고 은혜가 많이 담긴 이름에 비유할 다른 이름이 없다고 무자히드는 말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6).
8-1) 자카리아의 나이 120살, 아내의 나이 98세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소식에 자카리야는 놀랄 뿐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6).
10-1) 자카리야
2) 제 아내가 임신 할 수 있다는 예증
3) 밤낮을 포함한 3일 동안 그의 혀로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창조주를 칭송하고 타우라(구약성서)를 읽고 있엇다. 그 당시 인질(신약성서)은 아직 없었는데 이는 예수 탄생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그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려 하였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 「이브느 제이드」는 설명하고 있다.11-1) 자카리야
11-1) 자카리아
2) 그분께서 말씀하사 너의 예증으로써 3일동안 어떤 암시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리라.
12-1) 많은 시간이 흘렀다. 즉 요한이 태어나 나이가 들었으며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구약성서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기에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가 오는 것을 맞이 하도록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2) 요한의 나이 성년이 되기 이전, 어렸을 때에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요한에게 부여하였다고 따바리는 해석하고 있다(알따브리 55/16).
15-1) 인간이 가장 연약하여 창조주를 필요로 하는 때의 평안이라고 이브누 아띠야는 설명하고 있다(알꾸르뚜비 88/11).
16-1) 본 절에서 부터는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얘기가 계속된다. 마리아(Maryam)의 이야기는 본 마리아장에서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다음 두번째 언급되는 이야기로 그녀는 동정녀로써 예수를 낳았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녀를 중상모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문을 욕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녀의 아들 예수는 어머니를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도에 극진하였다. 예수는 충실한 신의 종으로써 그리고 예언자 및 선지자로써 축복을 받았으나 사람들이 그를 신의 아들(삼위일체설)이라 불러 하나님이 홀로 게심을 욕되게 하였다.
2) 동쪽 한 곳이란 마리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바이투 알무깟디쓰)에 있는 한 기도의 방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7).
17-1) 가브리엘 천사
19-1) 놀란 자카리아의 부인을 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길
21-1) 남편이 없이도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네 주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되리라.
22-1)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의 수태를 알려주고 또 마리아가 임신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65마일쯤 떨어진 나사렛 「Nazareth of Galilee」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마리아가 예수 아기를 출산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6마일쯤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이곳은 종려나무들로 숲이 우거진 곳이다.
본 절의 먼곳이란 이곳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Abdullah Yusuf Ali는 풀이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p.772 Note No.2475).
24-1)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발로 땅을 때리니 깨끗하고 순수한 샘물이 솟아나 흐르면서 냇물이 되었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8).
25-1) 그녀로 하여금 메마른 가지를 흔들어 죽은 가지가 살아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예증을 보도록 하였으며 그녀에게 보여준 예증들은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8).
26-1) 먹음직스러운 종려나무 열매를 먹고 달콤한 물을 마시고
2) 「까르리 아이난」은 "눈을 안정하라"는 언어적 뜻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

빠하라"는 이디엄으로 "이 아이의 출생으로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9).

3) 사람들이 너를 만나 그 아이의 출생에 대해 질문하거든

27-1) 처녀인 마리아가 가족을 떠나 얼마 후 아이를 낳아 데리고 왔으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이상할수 밖에 없었다. 특히 믿음이 없는 그녀의 친척들은 예루살렘과 나사렛에서 일어난 것은 아론의 가문을 모욕한 것이라 하였다.

28-1) 모세의 형인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성직자였다. 마리아와 그녀의 조카 엘리자베스(요한의 어머니)도 성직자 가문이며 아론의 자매이자 또한 이므란(아론의 아버지)의 딸이기도 하다(3장 35절 및 해설참조). 마리아의 가문은 훌륭한 혈통의 가문이었으므로 마리아는 그녀 부모의 훌륭한 윤리관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녀의 가문을 욕되게 하려 하였다.

29-1) 마리아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키며 예수에게 말을 걸어 물어보라 하였다. 예수가 젖을 빨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빨지 아니하고 고개를 사람들에게 향하여 말한 다음 아이가 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하여 질때까지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208/21).

34-1)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로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유대인이 주장하는 예수는 부정한 여자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아닌 그 이야기

36-1) 예수가 요람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내가 그들에게 전하매 하나님은 그의 주님이요 그들의 주님이니 그분 하나님만을 숭배하라 이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

37-1) 예수의 탄생에 관하여 어떤 무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어떤 무리는 예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라 하였다.

39-1) 천국으로 들어갈 무리와 지옥으로 들어갈 무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정되니라.

41-1) 마리아의 이야기와 예수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무함마드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상기하도록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유일신 하나님 대신 예수를 경배하고 아랍 불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경배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상기시키고 있다.

42-1) 아브라함

44-1) 아르라흐만 : 창조주의 속성 99개중 하나이며 그뜻은 자비로우신 분 또는 은혜로우신 분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46-1)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자르」가 대답하사

48-1)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한 그의 아버지와 백성들을 두고 고향인 찰데 지방의 우르(Ur of the Choldees)를 떠나 돌아오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어떤 타협을 할 수가 없자 추방당하여 고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49-1)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샴」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을 때 창조주는 예언자들의 계보를 구성하고 있는 이삭과 그의 자손 야곱을 주어 은혜를 베풀었다.

50-1) 재산과 자손 그리고 지혜와 풍성한 업적의 은혜를 베풀었고

51-1) 모세는 신의 선택을 받은 자로 애굽왕의 속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나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고 구름을 사이에 두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자(칼릴룰라)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예언자(나비)와 선지자(라술)의 임무까지를 갖게 되었다.

53-1) 모세의 기도는 다음과 같았다. "주여 저를 위하여 저의 형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여 주소서"

54-1) 이스마엘(다비훌라)은 신이 선택한 제단에 오를 희생자였으며 오늘날 아랍인들의 선조로써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의 선조이기도 하다.

55-1) 이스마엘

2) 신앙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에 순종하고 공동사

회 행복의 근원인 이슬람세를 통해서 창조주에게 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56-1) 이드리스에 관해서는 꾸란속에 두번 언급되고 있는데 본절과 제21장 85절에서 이다. 그는 노아의 할아버지로 아담이후 최초의 예언자였으며 또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으나 이드리스 때부터 바느질한 옷을 입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45).

57-1) 이드리스는 예언자로 신의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곁에 살아 있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45).

58-1) 언급된 이들 10명의 예언자 및 선지자는 「자카리아」로 부터 「이드리스」까지 모두가 예언자로 선택을 받았다. 즉 자카리야, 이드리스, 이스마엘, 이삭, 야곱, 모세, 아론, 자카리야, 요한, 예수와 함께 모두 10명을 의미한다.

2) 창조주의 예증들로 그들의 마음이 감화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꾸르뚜비」는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120/11).

62-1) 천국에 들어오는 행복한 신앙인들을 대접하는 천사들의 인사와 대접

64-1) 본절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얘기하고 있다.

66-1)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로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놀라고 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

67-1) 무에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 불신자들은 망각하고 있느뇨?

68-1) 사탄의 유혹에 빠져 심판과 내세를 부정한 그들

2) 지옥으로 이르는 여러개의 길이 있으며 여러 방향에서 오게 되는데 지옥으로 이르는 7개의 문을 비유한 것으로 Abdullah Yusuf Ali는 해석하고 있다(제15장 44절 참조).

71-1) 불신자들 가운데

73-1) 꾸란의 말씀과 분명한 예증 및 법칙

77-1) 「와일」의 자손 「알아씨」에 관해 계시된 절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48-49).

80-1) 인간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권세는 우주를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의 재산도 그의 가족도 그의 친구도 심판의 날에는 효용이 없으며 그의 업적만이 홀로 남아 심판을 받는다.

87-1) 아르라흐만 : 하나님의 속성 99개 중의 하나

2)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언한 약속(쉬하-다투 안 라 일라하 일랄라)

88-1)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 주장하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및 그밖의 사람들

97-1) 「비리싸-니카」 : "비 :~으로, 리싸-ㄴ : 혀, 카 : 당신의"란 3단어가 복합된 문구로 그 뜻은 당신의 혀로써, 더 나아가서는 무함마드가 사용하는 언어 즉, "그대 무함마드가 사용하는 언어 아랍어로써"가 본 뜻이다.

제20장 수라트 따하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35절로 종교의 원리, 신의 유일성, 예언자 및 선지자의 지위, 내세와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슬람력 7년 전에 우마르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후 이슬람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다. 우마르는 이슬람을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무슬림들을 박해하던 이슬람의 적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른 쿠라이쉬

족과 마찬가지로 예언자 무함마드를 살해하려는 음모까지 꾸몄다. 그의 여동생인 파티마와 파티마의 남편 싸이드는 이슬람에 대한 우마르의 박해가 가장 심하던 당시 비밀로 믿음을 지켜온 무슬림이었다.

우마르가 이들 집을 찾아갔을 때 우마르는 그들이 「따하」장을 낭송하는 것을 대문에서 엿듣게 되었다. 파티마와 싸이드는 자신들의 이슬람에 대한 믿음을 숨기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우마르는 그의 자매 파티마와 그녀의 남편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인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욱 굳게 보였다. 이때 우마르는 그들의 진실과 성실과 인내 및 용기에 놀라 그들이 낭송했던 것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읽어보라고 하였다. 꾸란의 낭송을 들어 본 우마르는 마음에 변화를 느끼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닿고 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영웅중의 한 인물이 되었다. 본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제 1절~8절), 모세가 어떻게 선택을 받아 그의 형제 아론과 함께 파라오에게 그의 임무를 수행하였는가(9절~36절),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아기 모세를 강물에 던져 파라오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아래 양육되어 파라오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게 되었는가(37~76절), 모세가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적들을 어떻게 진압하였는가(77절~104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므로

1-1) 「따하」는 선지자 무함마드 이름들 중의 하나로 그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그를 모욕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이렇게 본 장 서두에 「따하」라 계시됨으로써 「따하」장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따하」란 꾸란의 기적가운데 하나로 그 뜻은 "오! 인간이여"라는 것으로 풀이하는 후자도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54).

2-1) 무함마드에게 계시가 되었을 때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은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다. 이때 꾸라이쉬족들이 말하길, "이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은 그를 고생스럽게 하고자 함이라"고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3-1) 꾸란을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벌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을 위한 교훈으로써 계시된 것이라.

8-1) "실로 하나님께서는 99개의 아름다운 이름이 있나니 이것을 헤아리는 자 천국에 이르니라"(티르미즈가 전함. 제17장 110절 참조)

9-1)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꾸란의 여러 절에서 그 상황에 따라 언급되고 있다.

제2장 49절-61절 사이에서는 인류의 종교역사에 관한 단계가, 제7장 130절-162절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사회 즉 국가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모세 이후 시대까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제17장 101절-103절에서는 파라오의 오만함 속에서 영혼이 쇠퇴하는 양상을, 제20장 9절-24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한 임무속에서 영혼의 소생을, 제20장 25절-36절에서는 모세의 형제 아론과의 정신적 관계를, 제20장 37절-40절에서는 그의 어머니와 자매 그리고 후손과의 정신적 관계, 제20장 41절-76절에서는 파라오와의 정신적 투쟁을, 제20장 77절-98절에서는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의 정신적 투쟁을 이야기 하고 있다.

10-1) 그의 가족이란 그가 아내를 일컫는 것으로 아내를 호칭하는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아흘(가족)이란 단어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랍인의 예의이다.

2) 모세의 정신적 역사는 본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가 성장했을 때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을 떠나 시나이 반도 메디안 백성들에게로 갔다. 그곳에서 한 여성과 결혼을 하고 지금은 그의 가족과 그의 신도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임무를 맡게 된다.

11-1) 그 불에 왔을 때 초록색 나무에서 타고 있는 하얀 불을 발견하였는데 이때 그

의 주님께서 "모세야!"라고 불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55).
12-1)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예의로 겸손하라는 의미다.
2) 뚜와 계곡은 시나이 산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이곳에서 모세가 율법을 계시받게 되었다.
13-1) 모세 너를 선지자로써 선택하였으니
21-1) 하나님 내가
2) 모세가 기어가는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22-1)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한 기적 이후에 모세에게 일어난 두번째 기적이다.
26-1)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교하는 일을 가르킨다.
27-1)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제가 말을 할 때 더듬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가 본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29-1) 모세의 형제 아론을 일컬음.
32-1) 아론이
36-1) 말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주고 그의 형제 아론을 동반자가 되게 하여 달라는 모세의 간청
38-1) 요셉의 세대가 지난 오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오한 나머지 그들을 멸망시키도록 했던 파라오가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때 파라오는 이스라엘 후손이 태어난 대로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하였으매 모세의 어머니는 잠시 어린 모세를 오랫동안 숨길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 물에 떠내려 보냈다. 이것은 어머니의 어리석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양육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그 상자가 나일강을 표류하면서 파라오의 정원을 지나갔을 때 파라오의 백성들이 그 상자를 건지게 되었고 그 아이는 파라오의 부인에 의해 양육이 되었다.
39-1) 파라오는 창조주의 적이었으며 또한 모세의 적이기도 하였다. 그는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만해하였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오하여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2) 모세는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남자아이였기에 파라오 가족이 그를 양자로 양육하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양육함에 특별한 양식으로 보호하였으니 다른 여자의 모유를 먹지 아니하고 모세를 낳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양육이 된 창조주의 보살핌이다.
40-1) 어린 모세를 상자에 넣어 물에 띄워보낸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그 상자가 표류하여 가는 곳을 강둑을 따라가며 누가 그 상자를 건져 가는지 지켜보라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파라오 가족이 그 상자를 건져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파라오 가족 앞에 낯선 한 처녀처럼 나타나 말하였다. "제가 이 애를 양육할 유모를 찾아볼까요?!" 이 말은 바로 파라오 가족이 원하였던 것이었다. 이때 모세의 누이는 집으로 달려가 그녀의 어머니께 이야기 하였고 그래서 모세는 그를 낳아준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게 되었다.
2) 모세는 크게 성장을 하여 파라오 집안 교육에서 야외 교육도 받게 되었다. 어느날 모세는 이스라엘 거주지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일꾼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또한 모세는 한 애굽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는 가엾은 생각이 들어 그 애굽인을 때렸는데 그 애굽인이 죽고 말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모세는 파라오의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으므로 애굽을 도망쳐 나와 시나이 반도 메디안 부족들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곳 한 부족장의 딸과 결혼하여 그곳에서 수년간을 머물러 살게 되었다.
3) 그곳에서 오랫동안 조용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장인 양들을 돌보면서 어느 날 시나이 산 계곡 뚜와(아랍어로는 뚜르)란 계곡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에서 모세는 창조주의 계획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멀리서 불을 보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로 선택을 받게 되었다.

42-1) 예증은 모세의 지팡이와 하얗게 된 손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

43-1) 모세와 그의 형제 아론에게 주어진 첫째의 사명은 파라오에게 가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45-1) 모세와 아론

47-1) 이스라엘 자손들은 파라오의 모든 압박과 경멸과 냉대를 받아야만 했고 거기다가 무거운 노동일까지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서운 형벌의 매를 맞고 벽돌을 만들어야 했으니…(출애굽기 5장 6절-19절과 6장 5절 참조).

56-1) 창조주가 모세에게 부여한 9개의 기적, 즉 지팡이가 뱀이되고 호주머니에 넣었던 손이 하얗게 된 것, 대홍수 및 바다를 둘로 나누어 파라오의 군인들을 익사케 한 일 등 9가지 기적을 가르킨다.

57-1) 애굽의 땅

60-1) 12명의 마술사를 데려왔는데 각 마술사마다 밧줄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14/11).

63-1) 파라오가 살고 있는 애굽의 땅

2) 「따리까 알무쓸라」 모범적인 제도, 또는 훌륭한 전통이란 뜻이다. 즉「따리까」는 생활방법, 제도, 관습이란 뜻이고 「무쓸라」는 「암쌀」의 여성명사로 본보기와 모범이란 뜻.

65-1) 마술사들이

66-1) 파라오가 모집한 마술사들의 요술은 능란했다. 마술사들이 먼저 던진 밧줄과 지팡이가 구경꾼들에게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보였다.
그것은 물론 요술에 지나지 아니 했으나 모세의 마음에도 조금은 그렇게 보였으리라. 그러나 모세는 모든것을 창조주에게 의지했다.77-1) 애굽

71-1) 애굽을

2) 이스라엘 자손들

3) 파라오와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80-1) 시나이(자발무사) 오른편,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최초로 계시를 받은 장소이었고 또한 애굽으로부터 퇴거한 후에 율법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2) "만나"는 꿀 종류를, "쌀와"는 가장 맛있는 새 종류의 고기를 의미한다.

81-1) 허락된 양식

83-1) 모세가 산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길

2) 본 절은 모세가 40일간을 산상에 올라가 있을 때의 일이다(제2장 51절 참조). 모세는 아론과 함께 장로들을 두고 떠났다(출애굽기 24장 14절). 한편 모세가 산상에서 무아의 경지에 있을 때 그의 백성들은 밑에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이다(Abdullah Yusuf Ali, The Glorious Kuran, p.806 Note No.2604).

84-1) 모세는 먼저 서둘러 오게 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 후 백성들에 앞서 서둘러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85-1) 「사미리」는 황소를 숭배하는 백성 가운데의 한 마술사였으며 위선자였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모세가 산상에 올라가면서 그의 형제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일을 위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였다. 그런데 모세가 떠난 다음 「사미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하였으니 모세가 이들을 떠난 20일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67 참조).

86-1) 40일 동안을 보내고 구약성서를 계시받아 「뚜르」산으로부터 모세가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 슬퍼 화가났다.

2) 좋은 약속이란 "길이요 빛이 되는 구약성서를 계시하겠다는 약속을 가르킨 것

으로 본다"
3) 모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의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위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송아지를 숭배하여 약속을 깨뜨렸다고 아부 하이얀은 해석하고 있다(알바흐르 268/6).
87-1) 파라오의 장식품 및 귀금속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빌렸던 장식품들이었다고 풀이되고 있다.
2) 사미리의 명령에 따라 불 속에 던졌다고 해석되고 있다.
88-1) 사마리 사람
2) 최영길. 꾸란해설 제4부 p.40. 7장 148절 Note No.1 참조
3) Ibid
4) 모세
90-1) 모세가 그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2) 아랍어로는 하룬이라 발음한다.
3) 송아지
4) 나를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되 송아지를 숭배하지 말라.
92-1) 모세의 백성들은 모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치 아니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모세는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고서 분노와 슬픔에 찬 어조로 아론을 나무랬다.
93-1) 모세가 아론에게 일러둔 것은 꾸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모세가 그의 형제 아론에게 말했으니 "나의 백성의 일에 있어 나를 따라 의롭게 살되 해악을 끼치는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94-1)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2) 모세가 산상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만을 따르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하라는 요구를 아론에게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모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송아지를 숭배하고 백성들을 보고 화가난 모세는 오늘손으로 아론의 머리를, 왼손으로 턱수염을 세차게 잡아 당겼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69).
97-1) 사미리와 그의 무리는 만질 수 없는 문둥병 환자가 되는 현세의 벌로써 그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만질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를 멀리 하였다고 풀이하고 있으며(Abdullah Yusuf Ali, op. cit, p.810 Note No.2622) 이브누 압바쓰는 하나님께서 사미리 백성에게 벌로써 사람들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또 사람들이 그를 만지지 아니 하도록 현세에서 벌을 내렸다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제8권 p.69)..
2) 하나님의 노하심과 내세의 응벌(제20장 81절 참조)
3) 송아지
98-1) 본 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으로 신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99-1) 모세와 파라오 왕과의 있었던 이야기와 선조 예언자들의 이야기
2) 꾸란
100-1) 꾸란과 그 안의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
102-1) 이스라필 천사가 부는 두번째 나팔로 이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 모으니 그 죄인들의 눈들은 새파랗게 질려 있고 그들의 얼굴은 검은 얼굴이라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44/11).
105-1) 사람들이 심판의 날 산들은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가 질문할 때에 대답하여 일러 가로되,
108-1) 「다이」는 "부르는 자"란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들을 부르게 된다.
2) 「이스라필」 천사가 나팔을 크게 불고나면 "일어서라" 하는 조용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니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입을 다물며 오직 부르는 쪽으로 조용

히 걸어가는 소리밖엔 들리지 아니한다.

111-1)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의 얼굴

2) 다른 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불신한 자들의 얼굴들이 저주를 받느니라"

114-1) 가브리엘 천사가 그대에게 꾸란을 읽어줄 때 천사와 함께 읽으려고 서둘지 말고 경청하며 인내하라. 그리고 천사가 읽고나면 그대가 따라 읽으라. 꾸란이 계시될 때 선지자 무함마드는 가브리엘 천사를 좇아 서둘러 읽으려 하였는데 이는 계시된 꾸란을 암송하여 잊지 아니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금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제8권 p.73). 이는 다른 절에서도 보완되고 있다. "서두르기 위하여 그대의 혀를 움직이지 말라"(Ibid)

115-1)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였으나

2) 그렇게 하려는 결심 즉 의도가 없었다.

116-1) 인사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뜻으로 7회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117-1) 이블리스

2) 이브, 아랍어로 하와로 발음한다.

3)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 네가 천국으로부터 나간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피곤할 것이라 실로 그곳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한 안락한 생활이니라(알무크타싸르 496/2).

121-1) 아담과 하와

2)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의 열매

3) 아담과 이브는 빛으로 몸을 가리우고 있었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아부 알싸우드 327/3).

123-1) 아담과 하와(이브)

2) 천국에서 대지로

3) 성서들과 선지자들

124-1)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율법과 그 안의 규범

128-1) 선지자들을 거역한 메카의 불신자들

130-1) 불신자들

2) 파즈르 예배

3) 아스르 예배

4) 이샤 예배

5) 주흐르와 마그립예배

133-1) 무함마드

2) 지나간 세대의 소식들을 담고 있는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이 이르지 아니했느뇨

제21장 수라트 알안비야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12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유일성 및 부활과 보상에 관하여 다루면서 종말과 부활의 상황, 그리고 선지자 및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본 장의 개요를 보면 인간은 종종 꾸란을 조롱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있으나 하나님

의 심판이 시작되면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는 필연성을 제1절~29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보호와 은혜 그리고 정의의 확실성을 30~50절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탈피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51~93절까지에서, 비록 때가 이르기 전에 선을 실천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이 이를 때는 선과 정의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94~112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다.

예언자 및 선지자들에 관하여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언급되고 있어 본 장이 '안비야'(예언자들)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9권 op. cit, p.4).

1-1) 인간이 행한 모든 업적에 대한 계산
2)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들지 모르는 죽음이 창조주가 계획한 인간의 운명이건만 인간은 그것을 망각하고 또한 인간의 새로운 삶이 있으며 제 이의 삶으로 인도할 계시를 주었지만 망각하고 있다.
2-1) 무흐다스 : 새로운 계시
2) 꾸란. 새로운 교훈이 불신자들에게 계시 될 때마다 그들은 무지한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싼은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68/11).
3-1) 메세지의 의미를 숙고하지 아니하고
2) 불신자들
3) 무함마드
4) 메세지라 주장한 무함마드는 음식을 먹고 시장 거리를 걷는 너희와 똑같은 한 인간이 아니뇨?
5)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이 무함마드의 마술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불신자들이 생각한 이유는 천사가 아니고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그들의 아집으로 계시된 꾸란 역시 마술에 의한 것이라 고집하고 있다고 알올루씨는 풀이하고 있다(알올루씨 9/17).
4-1) 무함마드여
2) 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 또는 행동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 즉 그들에 대한 경고로 이해된다.

5-1) 꾸란
2) 무함마드
3) 모세가 보여주었던 지팡이의 기적이나 살레의 암낙타 기적 같은 예증.
7-1) 계시받은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들이거늘
2) 메카 주민들을 일컬음
3) 구약과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이전에 도래했던선지자들이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천사들이었는가를 물어보라.
8-1) 이전의 선지자들
2)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천사들처럼
9-1) 메카 백성들에 대한 경고
10-1) 랍 : 강조로써 아랍백서들이여!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가 사용하는 아랍어로 어떤 성서의 은혜와도 비유 될 수 없는 큰 은혜인 꾸란의 성서를 보내주었건만 너희는 이 은혜를 깨달아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을 믿어 신앙인이 되려하지 않느뇨?
11-1) 하나님의 메세지를 불신하고 그분이 선택한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부정한 백성들.
12-1) 회개하고 속죄할 기회가 있을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메세지를 거역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을 알아차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부터 피하여 도망하려 햇음이 다음 13절에 계시되었다.

14-1) 창조주를 불신하고 선지자들에게 거역한 죄인들.
17-1) 창조주가 자손을 두었다는 불신자들에 대한 대답이라고「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즉 창조주께서 아내와 자손을 원하였다면 천국에 있는 여성(후르아인)이나 천사들 중에서 가질 수 있었으리라.
18-1) 21장 22절에서 창조주에 비유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과, 2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아들이 있으며, 16장 57절에서는 하나님이 딸을 두었다는 등 창조주를 모욕하는 다른 묘사등을 가르킨다.
24-1)「꾸란」
2)「구약 및 신약」
신약이나 구약 그리고 꾸란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없는데 너희의 우상숭배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뇨?
26-1) 천사들을 하나님의 딸들이라 묘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후스나이니 무함마드 마클루프, 꾸란어휘해설, 다루 알피크르, 카이로, 1956, p.1982).
2) 천사들
28-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이브누 압바스는 쉬하다의 가족으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서한 신앙인들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제9권 p.9).
29-1) 천사들 중에
30-1) 하늘과 대지는 하나로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분리하여 하늘은 현재의 그곳으로 올려보내고 지구는 현재의 그대로 두었다는 뜻으로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교수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하산과 쿠타다 학자도 같은 해석으로 하늘과 대지 사이를 공기로 분리하였다고 말하고(알꾸르뚜비 283/11),「이브누 압바스」는 최초에는 하늘도 닫혀 있어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대지도 닫혀있어 식물이 생성치 아니 했으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대지를 분리하여 하늘로부터는 비를 내리게 하고 대지로부터는 식물이 생성토록 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자드 알마씨르 348/5).
2) 그래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려 하느뇨
32-1) 하늘은 대지를 위한 지붕처럼 두어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였으나
2) 하늘과 대지, 태양과 달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존재와 그 능력. 만일 인간이 이 모든 피조물을 보고 그 운행질서와 밤과 낮의 변화등 우주의 질서를 한 순간 만이라도 숙고하여 본다면 분명 위대한 창조주 유일신이 있다는 신념이 확립되면서 그 창조주와 비교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련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꾸르뚜비는 덧붙이고 있다(알꾸르뚜비 285/11).
34-1) 여기서 영생이란 현세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킴.
35-1) 강하고 부드럽게, 때로는 튼튼한 건강을 부여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며, 때로는 부유하고 가난하게, 때로는 허락된 것(할랄)과 금지한 것(하람)으로, 때로는 순종과 거역함으로, 때로는 인도하거나 방황케하여 인간을 시험한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508/2). 한편 이브누 제이드는 인간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는지 때로는 인간이 싫어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내하는지 시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이브누 알자우지 350/5).
36-1) 아부 자홀 및 그의 무리들 같은 메카 꾸레이쉬 부족중의 불신자들.
38-1) 불신자들
2)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무슬림들을 조롱하고 험담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함마드가 약속한 벌이 언제 우리에게 이를 것인가?" 라고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이다.

43-1)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우상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믿는 우상숭배자들을 보호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응벌을 막아 주겠느뇨?
44-1) 불신자들과 그의 선조들
2) 그들이 사는 고을과 그들의 선조들이 기거했던 대지를 선지자와 무슬림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였고 또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승리자들이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느뇨?
48-1) 진리와 부정, 선과 악을, 빛과 암흑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꾸란 역시 「푸르깐」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본절에서 의미하는 「푸르깐」은 모세에게 계시한 구약(타우라)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제2장 53절 참조).
51-1) 그가 어렸을 때
2) 아브라함은 진실한 믿음의 뜻을 함유한 「하니프」 명칭과(제2장 135절 참조),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칼릴룰라」라는 칭호를 받은 예언자였다(제4장 125절 참조).
53-1)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은 그들 선조들의 전통에 따른것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511/2).
57-1)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아자르」와 그의 백성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은 아무런 효용도 없고 또한 어떤 것을 해치지도 못하는 무력함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 주고자 했다.
58-1) 가장 큰 우상만 남기고 다른 우상들을 전부 깨뜨린 후 도끼를 가장 큰 우상의 목에 걸어 놓았다. 우상숭배하는 불신자들이 축제에서 돌아와 깨뜨리지 아니하고 남겨둔 가장 큰 우상에게 누가 그들이 숭배해오던 신들을 깨뜨렸는지 물어 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60-1) 아브라함의 청년시절까지 그의 조상들은 매년 한차례씩 모여서 축제를 가졌다. 아버지 「아자르」는 아브라함에게 그 축제에 같이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들과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가는 도중에 스스로 땅에 넘어져 다리가 아프다고 신음하자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두고 떠났다. 이때 아브라함은 소리내어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당신들의 우상들에게 계략을 꾸미리라" 고 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그말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이 우상들을 깨뜨린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일 것이라고 말했다.
61-1) 니므루드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63-1) 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파괴하지 않고 남겨둔 가장 큰 우상으로 아마도 우두머리 우상이 자기만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작은 우상들과 함께 숭배함으로 화가나 작은 우상들을 파괴하였으리라.
2) 그 우상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누가 파괴하였는지 물어보라.
64-1) 그들의 이성으로 돌아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서
2)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한 너희가 죄인들이라.
68-1) 한 달 동안 나무를 모아 땅에 굴을 파 그안에 나무를 넣고 불을 붙였다. 그때 불길은 너무나 강하여 그 불위로 날아가는 새들이 뜨거워서 타죽을 정도의 불길속에다 아브라함을 꽉꽉 묶어 던졌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제9권 p.17).
70-1) 아브라함을 화형시키는 음모.
71-1)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이락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초원이 많고 강과 나무들이 많으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샴 지역(가나안 또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및 시리아)으로 이주하였다.
72-1) 아브라함과 이삭 및 야곱
73-1) 예배는 가장 좋은 육체의 신앙이요 이슬람세는 가장 훌륭한 재물의 신앙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74-1) 아랍어로는 루뜨라 발음한다.

2) 예언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지혜와 지식을
3)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으로 보냈을 때 소돔의 백성들은 예언자 롯을 부정하였으므로 소돔 백성들을 멸망케 하였다(알무크타싸르 515/2).
76-1) 대홍수 때 노아를 따라 방주에 올랐던 신앙인들(제11장 25-48절 참조).
78-1) 아랍어로는 다우드라 발음한다.
2) 아랍어로는 술레이만이라 발음한다.
3) 다윗과 솔로몬.
79-1) 두 사람이 다윗에게로 들어가 그 가운데 한사람이 이 사람의 양들이 밤에 제 농장으로 들어와 곡식과 채소들을 먹어버리고 짓밟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리하여 농장 주인은 그 댓가로 양들 모두를 가져가기로 판결을 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문으로 나오다가 문옆에 서있던 솔로몬을 만나, 그의 아버지 다윗이 판결한 결정을 이야기 하였더니 그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 말하길, "하나님의 예언자여! 아버지께서, 이렇게 재판을 하였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라고 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길, "그것이 무엇이뇨?"하니 솔로몬이 말하였다. "양의 주인이 농장을 인수하여 씨앗을 뿌려 수확을 거둘때까지 그 농장을 가꾸고 농장주인은 그 양들을 인수하여 거기에서 얻은 우유와 털, 가죽 등을 이용하다가 농장의 수확이 되면 다시 그 농장의 주인에게 그 농장과 수확물을 돌려주고 또 그 양들을 양 주인에게로 반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두 사람 가운데의 분쟁은 해결 되었다.
2)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늘과 대지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제17장 44절, 제16장 48-50절, 제13장 13절…). 다윗의 시편 148장 7-10절에서도 마찬가지다 : 대지여, 주님을 찬미하라.
80-1) 역사상 최초로 갑옷을 만든 사람은 다윗이었다고 「까타다」은 말하고 있다(꾸르뚜비 11/320).
81-1) 나무가 많아 열매가 풍부하고 강이 많아 물이 풍부한 샴 지역
82-1) 깊은 물속이나 바다속에 들어가게 하여 보석과 진주를 캐내게 하고
2) 그밖에도 도시를 건설하고 궁전을 지어 백성들을 놀라게 했던 일
3) 거역했던 백성들
4) 솔로몬
83-1) 욥은 로마의 한 예언자로서 그는 많은 자손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재산 모두를 거두어 갔으나 그는 인내하였다. 또 자손들을 거두어 갔으나 인내하였고, 또 그로 하여금 병으로 신음토록 했으나 인내하였다. 그리하여 욥은 18년 동안을 하나님의 시험속에서 살았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아랍어로는 아이윱이라 발음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제9권 p.21).
84-1) 욥은 자손은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두었다가 하나님의 시험으로 다 잃었다. 욥이 시험에서 인내하였을 때 욥의 아내는 다시 7명의 남자 아이와 7명의 여자 아이를 낳았다고 「이브느 마쓰우드」는 풀이하고 있다.
2) 욥은 18년 동안 고난과 시험속에서 살았다. 이때 그의 아내가 어느날 욥에게 "당신께서 하나님께 구원한다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엿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풍부하게 살아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라고 욥이 묻자, "80년입니다"라고 아내가 대답하였다. 이때 욥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온 기간에 비해 시험속에 살고 있는 기간에 대해 하나님께 구원하기가 부끄럽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Ibid.
87-1) 「눈」은 생선 또는 물고기란 뜻이며 「자눈」은 「그 물고기의 사람」이란 뜻으로 유누스(요나)를 가르킨다(제10장 98절 참조).
89-1) 자카리야는 그의 나이 100살, 그의 부인 나이 98세가 되도록 자손을 갖지 못하

고 홀로 외로히 살고 있었다고 「이브느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9알라지 22/217).
90-1) 기도와 기원에 응답하사
2) 자카리야
3) 자카리야 부인은 태어날 때 비정상의 여인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정상적인 여인으로 되게 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해석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제9권 p.23).
4)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강구하였고
5)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 하였다.
91-1)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자카리아와 그의 아들 요한(야히야)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하여 계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요한은 젊어서 부인으로부터 자손을 얻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마리아는 남편없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이었기 때문이다.
2)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풀이하고 있다. Ibid.
92-1) 움마 : 같은 종교, 같은 언어, 같은 전통을 따르는 공동체로 여기서는 이슬람을 가르키고 있다.
93-1) 창조주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경배하도록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가 되었으나 인간의 아집과 서로의 견해 차이 및 다툼으로 유대교, 기독교, 마주스교 등의 종교가 파생된 것으로 이해된다.
94-1) 인간이 행한 선악의 업적을 천사들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였다.
95-1)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멸망한 백성은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96-1) 야만적인 무법의 부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18장 92절 참조.
2) 지구가 이들 무법의 부족들로 가득차게 되는 것은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예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Abdullah Yusuf Ali, op. cit, p.844 Note No.2753).
97-1) 부활의 날
98-1) 우상들
2) 하싸브 : 땔감으로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고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제9권 p.24).
3) 하나님은 우상들과 그것들을 숭배한 불신자들을 함께 모아 불지옥에 넣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Ibid.
99-1) 우상들
100-1) 지옥
2)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벙어리와 장님이 되어 집합되어지기 때문이다. "심판의 날 그들은 장님과 벙어리로 만들어 모이게 하리라"(꾸르뚜비 11/345)
101-1) 지옥으로부터
102-1) 불지옥의 촉감이나 불꽃의 움직임 및 소리
103-1) 심판과 부활의 날에 있을 무서움과 두려움
2) 천국의 문에 있으면서 믿었던 신앙인을 영접하고 인사하며
105-1) 모세에게 계시한 구약에서
2) 「자부르」는 다윗에게 내려진 시편을 의미한다.
3) 이 대지는 성실하고 믿는 사람들이 상속받을 천국이라 풀이된다. 한편 「이브누 카씨르」는 하늘과 대지는 무함마드 선지자에게 상속된 천국으로 그 안에는 성실한 사람들이 들어 가는 곳이라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524/2). 한편 시편 제25장 13절, 37장 11절 및 29절에서는 그 대지를 상속할 자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25장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37장 13절)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37장 29절)

106-1) 본 장에 언급된 소식, 약속, 경고 및 교훈과 예증들 안에는

107-1) 하디쓰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로 내가 은혜요 길이니 이 은혜를 받아들이며 감사드리는 자가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하니라"(알하피즈 이브누 아싸키르가 전함)

108-1) 내가 믿는 신도 하나님 한분이지만 너희가 믿어야 할 신도 하나님 한분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니라.

109-1) 이슬람을 거역하고 외면한다면

2) 내세가 온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111-1) 너희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지연되는 것

112-1) 무함마드

제22장 수라트 알핫즈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78절로 주로 이슬람법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성스러운 집 신의 집으로 알려진 카으바 신전의 영적 의미, 성지순례, 희생제, 진리와 정의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방어 및 성전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주요 요점을 보면, 제1절 125절 사이에서는 미래의 중요성,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필요성, 진리의 승리 그리고 그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 사악함에 그에 대한 벌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26～48절 사이에서는 청결과 순결, 예배와 예절, 순례, 희생제를 통하여 창조주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형제애, 진리와 정의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방어 및 성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 49～78절 사이에서는 사악한 사탄은 항상 선지자들의 사업을 방해하나 그 사업은 필연코 승리하며 창조주의 은혜와 진리는 확립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은 너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리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본 장은 아브라함이 카으바 신전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성스러운 집을 순례할 것을 촉구하매, 산천도 아브라함에게 겸손해하고 아브라함의 메아리가 전세계 방방곡곡으로 이르게 되자 "랍바이칼라 훔마 랍바이카"(하나님이여 제가 이곳에 왔나이다)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카으바 신전으로 순례를 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장을 핫지(순례)의 장이라 불려진 것으로 풀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9권 op. cit, p.29).

1-1)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 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준수하고 금기한 것을 회피하라. 따끄와는 하나님께의 절대적 순종과 더불어 금기한 것을 회피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 잘잘라 : 심한운동, 격동이란 언어적 의미로 이 단어의 어원은 잘라 이며 그 뜻은 "움직이다"라는 뜻이다.

2-1) 격동하는 심판의 날

2) 그 날의 무서움과 공포를 지켜보리니

3-1) 본 절은 불신자였던 「나다르 이븐 알하리쓰」에게 경고하기 위해 계시된 것으

로 풀이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창조주를 욕되게 하였으니 "천사들은 하나님의 딸들이요, 꾸란은 옛 조상들의 우화나 용담이며 죽은 후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였다.

5-1) 인간의 선조 아담을 흙에서 창조한 후

2) 태초에 인간을 창조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는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를 다시 부활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함이라.

6-1) 위에 언급한 인간 창조와 생물의 창조

7-1) 죽은 자를 살게하여 심판을 받게 하리라.

9-1) 현세에서의 치욕과 내세에서의 응벌

2) 창조주의 존재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탄의 길로 유혹한 죄의 댓가라.

11-1) 종교와 신앙생활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위선자들로 마음에는 신앙이 없으며 입으로서만 신앙생활을 하는척 하는 이들이라고 하산은 해석하고 있다.

15-1)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현세와 내세에서 승리하도록 아니할 것이라 생각하는자 있다면

2) 싸마아 : 하늘이란 언어적인 뜻으로 본 절에서의 의미는 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후스네이니 무함마드 마클루프, op. cit, p.204).

17-1)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무함마드를 최후의 선지자로 그리고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을 믿는이들

2) 모세에게 계시된 성서만을 따르는 유대인

3)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4) 예수에게 계시된 성서만을 따르는 기독교인들

5)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인들

6) 우상을 숭배했던 아랍 백성

19-1) 믿음으로 의로운 신앙인들과 죄악으로 가득찬 불신자들의 무리로 전자는 창조주의 승리를 원하고 후자들은 창조주의 빛을 끄려하였다고 무자히드는 해석하고 있다.

24-1)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과 꾸란을 가리킨다

25-1)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성지순례차 하람사원을 방문하는 신앙인들을 방해하는 자들. 한편 꾸르뚜비는 후데이비아 해에 하람사원을 방문한 선지자 무함마드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여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1/12).

2) 소순례(우무라) 및 대순례(하지)시 하람사원을 방문하는 순례객들

3) 메카 도시 안에 있는 하람사원

27-1) 아브라함이 카의바 신전 건축을 완료했을 때 그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순례하도록 알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주여! 제 목소리가 이르지 못합니다 라고 하자 "알려라"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 까비쓰 산에 올라 소리높여 말하길,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로하여 여러분을 천국의 보상으로 인도하며 불지옥의 벌로부터 구제하여 주시니라" 이에 사람들이 응답하여 말하길, "주여! 당신의 부름에 응답하였나이다" 라고 하였다(알라지 27/23).

28-1) 순례를 통하여 물질생활의 이익과 정신생활의 유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물질적 이익이란 전세계 방방곡곡의 형제들이 만나서 상품을 교환하고 거래하며 지식을 상호교환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며, 정신적 유용함이란 인간이 태초의 경지로 돌아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예언자 및 선지자들을 보낸 창조주와의 대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신성한 것들이다. 또한 순례를 통하여 힘과 형제애(이크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2) 헤즈라 달력 12월 즉 「줄하지」달 8일, 9일 10일의 3일과 희생제를 지낸 다음의 3일간(타슈리끄)을 합산한 6일 정도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줄 하지」달 첫

10일 간을 말한다(제2장 197절 참조).
3) 가축을 도살할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해야 한다.「줄 하지」달 10일 회생제(이둘 아드하)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어 제단에 올린 고기는 여러 형제들 및 특히 가난한 형제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것이 예의이며, 이 기간에 도살되는 짐승은 낙타, 소, 양 및 염소라 풀이되고 있다. 도살방법은 최영길, 하디스 40선(서울 : 신생사, 1982), p. 73-75 참조).
29-1)「타파싸」는 손톱, 머리카락 등 사람몸에서 자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은 이흐람 상태에서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순례가 끝나는「줄 하지」10일에는 제거해도 된다.
2) 순례는 외적 예식의 과정을 마쳤다 하여 순례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순례자는 우선 순례를 하겠다는 정신적 결심을 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맨 마지막 순례과정은「따와프」이다. 최영길, 이슬람의 생활규범(서울 : 명지대학교 출판부, 1985). p.131-180 참조).
3) 언어적 풀이는 오래된 집이란 뜻이다
4) 따와풀 이퐈파. Ibid.
30-1)순례의식
2) 일반적으로 금기된 음식에 관하여는 제2장 173절, 제5장 4-5절, 제6장 121, 138-146절 등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제단에 올린 음식과 고기 그리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이다.
32-1) 창조주께서 설명한 제반 규범으로 성지순례, 도살 및 도살된 고기로 예식을 행하는 일 등
2) 순례의식
3) 따끄와 : 본 절에서의 따끄와는 마음을 가르키고 있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56/12).
33-1) 회생제
2) 짐승을 도살하여 회생제를 지내는 곳은 메카「하람지역」및「모나」지역이다.
3) 하람사원 또는 모나지역
34-1) 회생제의 예식으로 아브라함 예언자 때부터 회생제의 장소로 규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6-1) 알부드나 : 몸의 크기가 큰 낙타를 일컬으며 낙타가 가장 좋은 회생제 짐승이라「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544/2).
2) 유용함은 현세이나 내세에서는 보상이 있다고「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
3) 죽어 쓰러지는 상태가 은유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37-1)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경건함
2) 가축들
39-1) 이 절이 성전(지하드)에 관하여 계시된 최초의 절이라고「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
40-1) 무함마드와 그분의 추종자들
2) 성전(히자드)의 계시
3) 사와미으 : 기독교 장로들의 경배장소
4) 비아으 : 기독교의 교회
5) 쌀라와트 : 유대인의 교회
6) 마싸지드 : 무슬림들의 경배장소인 사원
41-1) 이들이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들
2)「무하지린」과「안사르」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이브느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42-1) 본 절은 무함마드 선지자를 위안하는 계시로 이들「메카」의 불신자들이 그대 무함마드를 거역하고 있는 것은「아브라함」의 백성,「롯」,「슈와이브」백성들

이 그들의 예언자들에게 거역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위안의 절이다.
44-1) 그처럼 너희 메카 불신자들에게도 응벌이 있을 것이라.
45-1)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메마르고 건조한 국가에서는 우물이 곧 생명의 상징이요 주민들의 생활거주지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가장 이름난 우물이 메디나에 있는「비으르 알리」우물로서 물의 질이 좋던 곳이며, 또한「메카」에서「메디나」로 가는 길목 메디나로부터 약 92마일 쯤 떨어진 곳에 있는「아브야르 이븐 하싼」우물도 잘 알려져 있었다.
46-1) 여행을 하면서 또는 우주를 관찰하고 그 생성과 운행질서를 숙고하여 볼 때 이 우주의 창조주의 존재와 유일성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뇨?
47-1) 불신자들
49-1) 무함마드
50-1)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신앙인들.
2) 믿음과 선을 함께 병행하여 실천한 신앙인에게는 관용과 자비로운 은혜의 일용할 양식이 동시에 제고된다고 풀이되고 있다(알라지 47/23). 한편 꾸르뚜비는 자비로운 양식 그것은 곧 천국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550/2).
52-1) 예언자들에게도 부주의와 무관심이 있어 사탄의 유혹이 그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아부 싸우드는 해석하고 있다(아부 알싸우드 18/4).
53-1) 아부 자흘이나 알나다르 및 우뜨바 같은 불신자들
56-1)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지자들을 믿음과 동시에 선을 실천하는 신앙인들
72-1) 꾸란이 이들 불신자들 위에 낭송되었을 때
73-1)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온 불신자들이여!
2) 딸리브 : 우상으로부터 요구하는 우상 숭배자마뜰룹 : 우상언어적 의미로는 전자가 요구하는 자, 후자는 요구를 받는 자란 뜻이다.
75-1) 창조주가 천사들 가운데서 선지자를 선택한다는 의미는 인간 가운데서 선택된 선지자 및 예언자들과 창조주와의 교량적 역활을 할 천사를 하나님이 사도로서 보냈다는 뜻. 한편 선지자 및 예언자는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창조주의 말씀을 전하여 인도하기 위해 인간중에서 선택된 선지자들이다.
78-1) 너희 영혼과 재산과 너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라.
2) 꾸란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성서에서도

제23장 수라트 알무으미눈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18절로 신앙의 원리 즉 유일신 사상과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다루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겸손한 예배, 겸손한 자선행위, 허영과 욕망에 대한 자제, 성실과 정직을 겸비한 신앙생활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위선적인 동기로 말미암아 노아나 모세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고 중상 모략하였으나 이들 예언자들의 정직한 신앙이 승리한 것과 같다는 내용이 1~50절 사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예언자 및 선지자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형제애를 결성하게 되나 분열을 조성하고 믿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51~92절 사이에서, 사악한 마음과 행위 그리고 위선은 하나님에 대한 강직한 믿음 앞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천국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믿음을 불신하는 자들은 회개하기엔 너무 늦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내용이 93

~118절에서 제시되고 있다.

본 장이 '무으민'(믿는 사람들)이라 불려지게 된 것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무으민)은 번성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무으민 장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제9권 p.51).

1-1) 아플라하 : 어휘의 뜻은 완전히 승리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목적을 달성하다 또는 슬픔이나 어떤 재앙으로부터 구제를 받다 등의 여러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으나 그 조건은 믿음과 선행이 병행될 때라 이해되고 있으며 현세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으되 내세에서는 확실히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의 어휘「까드」가 뒷받침하고 있다.

2-1) 카시우나 :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두려워 마음과 행동을 겸손해하고 겸허해하는 이들

3-1) 거짓이나 험담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말.
라구으 : 불신하는 것 그리고 오만함과 무용한 언어나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이브누 무크타싸르 559/2).

5-1) 성욕을 유발할 정도로 살결을 드러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켜

7-1) 알아두나 : 허락된 것(할랄)을 넘어 금기된 것(하람)을 넘어선 자들
2) 아내 외의 다른 여성에게 욕망을 가지는 것은

9-1) 하루 다섯 차례의 의무예배를 정하여진 시간에 근행하는 자들이니

10-1) 믿음과 선행으로 의로운 신앙인은 대지를 상속받는다고 제21장 105절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본 절에서의 상속은 천국을 상속받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Muhammad Al-Mualim, Tafsir Al-Imam Al-Tabri(Al-Qairo, Dar Al-Shurq, 1977). p.382.

11-1) 피르다우스 : 가장 위에 있는 천국으로 그곳으로부터 천국의 강이 흐른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한다면 피르다우스를 구원하라 실로 그것은 중간과 가장 위에 있는 천국으로 그곳으로부터 천국의 강이 흐르니라" (무슬림이 전함)

13-1) 자궁

14-1) 알라까 : 피의 일부분
2) 무드가 : 세포 및 살의 일부분
3) 영혼을 불어 넣은 후 가장 훌륭한 형상으로 완전한 인간형태를 만들었으니

15-1) 그렇게 하여 창조된 인간은

16-1) 심판을 받기 위하여 무덤으로 부터 부활되며

17-1) 따라이끄 : 따리까의 복수명사로 아랍인들은 어떤 것 위에 어떤 것이 겹쳐 있을때 이를 "따리까"라 부르고 있는데 이때의 뜻은 궤도, 길 등의 언어적 의미이나 본 절에서는 하늘을 의미하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383).
2) 칠천 아래에 있는 것을 창조하는데

18-1) 비까다르 : 필요한 양 및 적절한 양.

19-1) 하늘에서 내리는 비

20-1) 모세가 창조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축복받은 산
2) 올리브 나무
3) "올리브 열매를 먹고 그것으로 물감을 들이라 실로 그것은 축복받은 나무이니라"(아흐마드가 전함)

21-1) 낙타, 소 및 양
2) 우유
22-1) 바다에서 배를 타듯 육지에서는 낙타를 타며 배가 바다의 유람선이라면 낙타는 육지 특히 사막의 유람선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23-1) 우상숭배로 죄지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아가 예언자로 백성들에게 보내어 졌을 때 그의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듯이 무함마드도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됨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위안의 교훈이 제시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제9권 p.56).
24-1) 노아의 백성중 불신자들의 우두머리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려 하였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를 보냈을 것이라.
27-1) 응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명령
2)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처럼 믿지 아니한 자들.
29-1) 방주로부터 육지에 내리면서 행한 기원이라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
30-1) 노아의 백성
31-1) 아드 백성
36-1) 하이하트 : 동명사로 그 뜻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내용으로 본문에서는 인간이 한번 죽어 흙이 된 후에는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로 본다.
41-1) 사히하 : 돌풍, 폭풍, 강풍이란 뜻이고 「학끄」는 진리, 정의, 진실이란 뜻으로 "정의의 폭풍"이란 언어적 개념으로 본 절의 의미는 불신자들이 정당히 받아야 할 적절한 벌로 이해된다. 가브리엘 천사가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폭풍을 일으켰을 때 그 폭풍은 대지를 휩쓸어 불신자들은 마치 홍수위에 떠내려가는 쓸모없는 찌꺼기 또는 거품 같았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제9권 p.58).
42-1) 살레와 아브라함의 세대, 롯과 슈와이브의 세대. 「이브누 압바스」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석하고 있다. Ibid.
45-1) 지팡이의 기적, 손의 기적, 메뚜기의 기적 등 9가지의 기적이라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
47-1) 모세와 하론의 백성.
2) 이스라엘의 자손. Mahammad Al-Mualim, op. cit, p.385
48-1) 바다에 익사하여 멸망되었다.
49-1) 파라오의 추종자들을 익사케 하여 멸망케 한 후 모세에게 구약(타우라)를 주었으니 이로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도록 하였다.
50-1) 예수
2) 루브아 : 높이 솟아있는 장소가 언어적인 뜻으로 이곳은 예루살렘이라 해석되고 있다. (Mahammad Al-Mualim, op. cit, p.386).
3) 다타 까라르 : 평평한 곳 또는 열매가 열리는 과실수가 있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4) 마이인 : 땅 위로 흐르는 물.
51-1) 허락된 음식.
52-1) 종교는
54-1) 메카 불신자들.
2)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면서 메카 불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55-1) 이들 불신자들.

56-1) Muhammad Al-Mualim은 "증가한다"로 해석하고 있다(op. cit, p.386).
2) 불신자들이 말하길, "우리는 더 많은 재산과 자손을 가지며 벌받지 아니 하니라"고 말한 불신자들에 대한 대답으로, 창조주께서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나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나 재물을 주지만 종교는 창조주가 원하는 자 외에는 주지 아니한다고 하디스는 전하고 있다(아흐만).
62-1) 인간이 행한 선과 악의 모든 행위가 쓰여진 기록장
63-1) 창조주를 부정하는 행위 이외의 것으로 창조주가 좋아하지 아니한 행위들.
64-1) 기아상태 및 살생되거나 전쟁포로가 되는 벌. 이브누 압바스는 7년간의 기아상태라 풀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바드르 전투에서의 살생과 포로가되는 벌로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387).
66-1) 메카의 불신자들
67-1) 「이브누 카씨르」는 꾸란으로, 「이브누 알자우지」는 하람사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제9권 p.63).
68-1) 창조주가 인간에게 메세지를 보낸 것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만 새로히 보낸 것이 아니라 아담때부터 계시하였다. 계시된 창조주의 말씀은 아담 때부터 계시되었으므로 새로운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Abdullah Yusuf Ali는 해석하고 있다(op. cit, p.886 Note No.2918).
69-1) 무함마드가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며 품성이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70-1) 선지자 무함마드
71-1) 학끄 : 진리 또는 정의라는 언어적 개념이나 본 절에서의 의미는 유일신 사상, 즉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않다 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Muhammad Al-Mualiam, op. cit, p.387).
72-1) 무함마드여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댓가로 보상을 요구했느뇨?
73-1)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이슬람.
74-1) 부활 및 보상 그리고 응벌.
75-1) 기아와 가뭄 및 그밖의 다른 고통.
76-1) 기아와 가뭄 그리고 바드르 전투에서의 살생 및 포로
77-1)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게 있었던 기아의 고통이나 바드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서 겪었던 고통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Muhammad Al-Mualim, op. cit, p.388 참조) 다른 한편으로는 내세에서 있을 무서운 응벌이라고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제9권 p.66).
79-1) 다라아 : 창조하여 번식케 하다.
81-1) 메카 불신자들
90-1) 유일신 사상과 부활 및 보상에 대한 진리.
95-1) 그대 무함마드를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경고된 응벌을 보여 줄 수 있으나 뜻에 따라 그 벌을 잠시 유예할 뿐이라.
96-1) 거짓하고 기만하며 위선하는 그들의 행위를
98-1) 제가 행하는 어떠한 일에도
101-1) 부활을 알리는 두번째 나팔이라는 해석은 Muhammad Ali-Sabuni학자의 견해요 첫번째 나팔이라는 해석은 Muhammad Al-Mualim의 견해이다.
102-1) 선행이 실수보다 많았을 경우 그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보상을 받는다고 풀이되고 있다.
105-1) 나 하나님의
109-1) 「빌랄」, 「카바브」, 「슈하이브」 등 그밖의 언약한 무슬림들이었다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154/12).

110-1) 아부 자흘을 비롯 그의 추종자들.
113-1) 인간들의 업적을 기록한 천사들이라 해석되고 있다(Muahmmad Al-Mualim, op. cit, p.391).
115-1) 아무 목적없이 무의미 하게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동물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벌이 없으리라 생각하였느뇨?

제24장 수라트 누르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64절로 이슬람법의 기본법칙과 윤리관을 다루고 있다. 공동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에 관한 일번 규범을 다루고 있는 본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 및 성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하며 또한 그에 대한 엄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허위로 음모를 조성하는 것도 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성을 가볍게 보는 언어행위도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 1절~26절 사이의 개요이며,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가장 훌륭한 모습은 그가 입고 있는 의상과 품위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제27장~34절 사이의 개요이다. 제58절~64절 사이에서는 예의범절, 즉 공공생활과 집단생활에서의 예의는 최고의 도덕이요 윤리이며 이것은 창조주에게 근접해 가는 인간의 정신적 일부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본 장이 '누르'(빛)장이라 일컫게 된 것은 창조주는 곧 만물의 빛으로 인간사회의 기본이며 핵심적 구성요소가 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일반법칙이 계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누르' 즉 빛 또는 복음의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트 제10권 p.5).

2-1) 하디스는 간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믿는자라면 간통하지 아니 하니라"(Bukhari and Muslim) 가장 혐오스러운 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선지자께서 말씀하길 "그것은 너희 이웃의 아내와 간통한 것이니라" 간통에 적용되는 형벌은 간통한 자가 미혼 남성이거나 결혼 서약을 했으나 아직 아내와 부부관계를 갖지 아니 했을 경우 이에 적용되는 형량(Hudud)은 100대의 가죽 태형과 1년간 추방이며, 미혼 여성일 경우는 미혼 남성 간통자에게 적용되는 100대의 가죽 태형이나 추방은 제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추방되었을 경우 그 사회에서 또 다른 간통을 하게 됨으로써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 해석되고 있다(최영길, 이슬람의 생활규범, 명지대학교 출판부, 1985. p391-392 참조).
2) Ibid, p.392-395 참조.
4-1) 하디스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선지자께서는 중상모략자들에게 80대의 가죽형을 가하였다(Sahiih) 중상 모략자들에 후드드(Hudud)가 적용되는 목적은 무슬림의 명예와 위엄을 보호하고 사회악이 번지는 것을 막는데 있으며 중상모략에 후드드가 적용되는 조건으로는 ;
① 중상모략자가 성인으로 건전한 무슬림일 것.
② 중상모략을 당한 사람이 사회에 좋지 않은, 그리고 풍문이 없는 사람일 것.
③ 피해자는 후드드를 요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중상모략자를 용서할 권리도

가진다.
④ 증상모략자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4인의 증인을 출석시킬 수 없을 경우이다.

5-1) 회개한 후 중상 모략을 되풀이 하지 아니한 자

6-1) 남편이, "나는 부인이 간음한 것을 목격하였소" 또는 "나는 그녀가 임신한 것이 나로 인한 임신이 아니오"라고 부인의 간음을 말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을 「리안」이라 하며 이 경우 남편은 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리안은 하디스에 의해서도 합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메이르 아즐란('Umaer Al-Ajlani)과 그의 아내, 또 힐랄 이븐 우마이야(Hilal Ibn Umayyah)와 그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리안에 대하여 말하길, "리안(Lian)에 있는 부부-무타라이난(Mutalainan)-는 한번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아니하니라"이에 대한 목적 및 규정은 최영길, op. cit, p.333-334 참조.

8-1) 간음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벌-후드드(Hudud)-이 면제되며

11-1) 이 중상 모략은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움물 무으미닌)라고 불리우는 아내 「아이샤」에 대한 사건으로 헤즈라 5년 중순 경 「바누 무스탈리끄」에 원정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중상 모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군 명령이 발표되었을 때 「아이샤」는 그녀가 떨어뜨린 귀중한 목걸이를 찾으러 나가고 그녀의 천막에 없었다. 또한 그녀가 묶고 있는 곳이 숨겨져 있었으므로 군대가 다음 진지의 휴식처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가 천막 안에 없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한편 그녀는 이미 군대가 떠나버린 캠프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누군가가 그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리라 기다리고 있다가 밤이되어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사프완」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이때 「사프완」은 혹시 진지에 남겨두고 온 것이 있을 경우 그것들을 모아오기 위하여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프완」은 「아이샤」를 그의 낙타에 태워 군대가 타고 갔던 낙타의 발자국을 따라갔다. 「샤프완」이 「아이샤」를 그의 낙타에 태우고 갔던 이것이 적들에게 중상모략을 할 기회를 주게된 것이다.

2) 「아부 바크르」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따르는 신도들3) 「아이샤」에 대하 중상모략은 오히려 다섯가지 측면에서 교훈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첫째는 순결한 여성을 보호하는 율법이 계시되었다는 것과,
둘째는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인 아이샤의 순결이 증명되었다는 것과,
세째는 「아이샤」의 순결이 입증됨으로써 더욱 큰 인품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넷째는 모든 신앙인에게 교훈이 되고,
다섯째는 중상 모략하는 자에게는 벌이 가해진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13-1) 하나님의 율법에서 볼 때

14-1) 실수하여 아이샤(Aisha)를 중상 모략했던 일로 인하여

15-1) 본절에서는 세가지 유형의 책망이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사악한 또는 욕된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혀를 더럽힐 이유가 없는데도 사악한 말을 하는 경우,
둘째, 확실한 근거도 없이 또는 아는 바 없이 남을 의심하는 경우,
셋째, 가볍게 또는 소홀히 어떤 것을 다룸으로서 남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경우이다.
사람들은 위의 세가지 유형을 가볍게 볼 수 있으나 창조주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신앙이 두터운 여성의 명예에 대한 것일 때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Abdullah Y. Ali는 풀이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r. p.900 Note No.2968).

16-1) 「아이샤」에 대한 중상 모략

18-1) 이슬람법(Sharia), 훌륭한 예법 및 일반 생활규범에 대한 예증들

19-1) 중상 모략하기 위해 추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특히 순수한 여성을 중상모략하

기 위한 방법으로 그녀가 간통을 하였다고 퍼트리는 추문
2) 현세에서는 이슬람 법에 따라 형량(Hudud)이 적용되며 내세에서는 지옥의 법이 적용된다.
22-1) 제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는 정신적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은 것은 물론 축복받은 그것으로 이슬람과 무슬림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외숙모 아들 「미스따하」도 아부 바크르의 도움을 받았다. 미스따하는 메카로부터 메디나로 이주하여 온 무하지린 중의 한 사람으로 바드르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아부 바크르의 딸 아이샤(Aisha)에 대한 추문을 미스따하가 퍼뜨렸을 때 아부 바크르가 미스따하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을 때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본절이 계시된 후 아부 바크르는 곧 바로 회개하였으며 이전에 자선을 베풀었던 것처럼 미스따하에게 자선을 베풀었다고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w, Tafsir Al-Imam Al-Tabri, Qairo, Dar Al-Shurq, 1977, p.393).
23-1) 본절에서 의미하는 저주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아내를 중상 모략한 자에 대한 것으로 그의회개는 수락되지 아니하나 그밖의 회개는 수락된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14). 본 절은 메카 불신자들에게 대하여 계시된 절로 여성들이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하기 위해 나갈 때면 불신자들이 이들 여성들을 중상모략하였다고 아부 함자는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440/6).
25-1) 본절에서의 「딘」은 계산 및 보상을 의미한다.
26-1) 「아이샤」와 「사프완 이븐 알무앗딸」로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394).
2) 중상 모략하는 무리들
27-1) 한 남자가 선지자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들어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함이라"라고 대답하자 그 남자가 말하길, "저 외에는 어머니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데도 들어갈 때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라고 하자, "그대는 옷을 벗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자 하느뇨?"라고 말하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그렇다면 어머니라 할지라도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지고 있다(알바이돠위 57/2).
29-1) 거주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 거리에서 들여다 보도록 위치하고 있는 집으로써 여행자나 보행자를 위해서 지어진 집이거나 대소변을 위해 세워진 집 또는 필수품을 판매하는 가게 또는 여행자들이 묵고 갈 수 있는 여관이나 호텔 등으로 본다.
2) 본 절이 제시하고 있는 교훈을 「아부 싸우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옷을 벗고 있을지도 모를 가정에 들어갔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성적 유혹과 타락을 예방하는데 있다"(아부 알싸우드 55/4)
31-1) 외부인에게 성욕을 일으키는 것
2) 암흑시대 즉 이슬람이전 시대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욕을 유혹하는 옷차림으로 가슴 및 여성의 몸을 밖으로 드러내곤 하였다.
3) 여성 무슬림은 같은 여성이라도 무스림이 아닌 불신자들에게는 몸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무하지드」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17).
32-1) 아야마 : 배우자가 없는 남녀를 가르킨다고 따바리는 덧붙여 해석하고 있다(알따브리 98/18). Abdullah Y. Ali는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였거나 과부 및 홀아비들까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op. cit, p.905 Note No.2988).
33-1) 위선자의 우두머리였던 「압둘라 이븐 술룰」은 「무싸이카」와 「아미마」라는 두 하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매춘행위를 강요 하였다. 그리하여 이 두 하녀는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자 본 절이 계

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18).

35-1) 하늘의 빛이란 별들 및 빛을 발산하는 항성들로 하여 하늘을 비추고, 땅의 빛이란 샤리아(Sharia)와 규범 및 선지자들을 보내어 대지를 밝게 한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Ibid. p.396).

2)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빛, 또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빛 또는 꾸란의 빛으로 이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396).

3) 선지자 무함마드의 마음에 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는 꾸란에 비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Ibid).

4)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가슴 속

36-1)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곳. 즉 사원이라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써르 알카비르 3/24). 한편 일부 학자들은 메카의 「카으바 신전」, 메디나의 「예언자 사원」, 예루살렘에 있는 「아끄사 사원」을 일컫는 것이라고 풀이하도록 있다(Abdullah Y. Ali, op. cit, p.908 Note No.3005).

2) 꾸란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을 예배라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13/18).

37-1) 예언자 무함마드를 따랐던 추종자들이 시장에서 상품거래를 하다가도 예배시간을 알리는 아잔의 소리를 들으면 하던일을 그만두고 사원으로 달려와 예배를 드렸다. 본절은 바로 이들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풀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p.22).

38-1) 그들이 현세에서 실천한 선행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함은 물론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러히 용서하며

2) 현세에서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며,

40-1) 불신자는 다음 5가지의 암흑속에서 있게되니 그가 말을 하나 암흑이요 그의 행위도 암흑이며 그가 들어가는 입구도 암흑이며 그가 나가는 출구도 암흑이요 그의 최후 목적지도 암흑으로 부활의 날 불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16/18).

41-1) 아담의 자손이 행하는 기도와 예배로 찬미하며(Muhammad Al-Mualim, op. cit, p.399)

2) 천사들을 비롯 하늘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 ; 사람이며 동물이며 그리고 곤충 및 고기, 그밖의 공기와 새들도 창조주가 부여한 제 기능에 따라 창조주를 찬미한다. 그들 각자는 제나름대로의 기도와 찬미하는 방법을 창조주로 부여 받았기에 스스로를 표현하는 행동과 방법으로써 창조주의 영광을 인식하고 칭송한다.

42-1)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왔으니 창조주안에 귀속되어 있어 다시 창조주에게로 귀의하게 된다.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다.

43-1) 와다끄 : 비
킬라리히 : 구름사이로

44-1) 밤과 낮의 길이를 길게 또는 짧게 때로는 같게도 하고, 낮과 밤을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서로 교체하며,

46-1) 진리의 종교 이슬람

47-1) 위선자들. 외형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척 하나 마음으로는 불신한 위선자들에게 계시된 절로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25).

49-1) 위선자들

50-1) 그들 심중에 위선이 거하고 있는가?

2) 그분이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에 의심을 하는가?

53-1) "집과 재산과 가족을 두고 떠나라고 명령하였다면 우리는 떠났을 것입니다"라고 위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말하자 "너희의 맹세는 위선이요 거짓이니 맹세하지 말라" 하였다.

2) 순종이란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으로 위선자들의 수종이란 마음이 없는 혀로 그리고 실천이 없는 말로써만 하고 있다.
54-1) 메세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임무
2) 선지자에게 전달된 창조주의 메세지에 순종할 의무
3) 행복의 길
55-1) 믿음으로 창조주의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인들에게 약속된 것 세가지가 있으니 첫째, 지상을 다스리는 힘과 권능을 상속받을 것이요
둘째, 창조주가 선택하여 준 진리의 종교가 확립됨으로서 모든 사악함과 박해를 제압할 것이며,
셋째, 의로운 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58-1) 본 절은 가정 사생활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고 있다. 하인은 주인과 가정의 시중을 하느라 가정을 자주 드나들게 되고 아이들 또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게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정의 이곳 저곳을 다니는데 큰 예의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허락을 받아 드나들어야 할 경우가 있으니 밤중이 그렇고, 새벽예배(파즈르) 이전과, 여름철 한낮에 오침(까이룰라)을 할 때와 밤중예배(이샤) 이후에 가정을 드나들 때가 그 경우다. 이 세 경우는 휴식을 취하고 또 잠을 자기 위해 주로 옷을 벗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년이 가정을 드나들 때는 항상 허락을 받아야 한다(제24장 59절 참조).
61-1) 쌀라무 알레이쿰 : 그대에게 평안이 깃드길!
62-1) 칸다크 참호를 구축할 때 계시된 절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꼭 필요한 경우 허락을 얻어 자리를 떠났으나 위선자들은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떠나곤 하였다고 해석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32).
2) 믿는 신앙인들이 그들의 일로 그대 무함마드에게 허락을 구할 때
63-1) 무함마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대신에 예언자여!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여! 라는 호칭으로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64-1) 마음속에 있는 상태 즉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는 위선적인 신앙인지 또는 불신하고 있는 상태

제25장 수라트 알푸르깐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77절로 신앙의 기본원리와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 꾸란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차단하며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광명과 암흑의 사이를 지식과 무지, 선과 악, 정신적 발전과 퇴폐의 상징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본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미래의 진리를 얻을 수 게 되었다는 것을 1절~20절 사이에서 다루고 있으며, 심판의 날이 도래할 때 창조주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경고하였기 때문이라는 교훈을 21절~44절 사이에서, 음지와 양지, 밤과 낮, 죽음과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모든 사물에 적용할 때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교훈을 45~77절 사이에서

다루고 있다.

본 장이 '푸르깐'이라 불려지게 된 것은 창조주께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성서가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로써 진리와 허위, 광명과 암흑, 믿음과 불신을 분별하여 주기 때문에 푸르깐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35

1-1) 선지자 무함마드
2) 푸르깐 : 진리와 허위를 식별하여 주는 것이란 뜻으로 꾸란을 가르킨다.
2-1) 본 절은 다음 4가지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둘째는 그분만이 영원히 경배받을 권능을 가진 분이며
셋째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넷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3-1) 우상을 숭배한 불신자들
2) 돌이나 나무를 새겨서 만든 무생물의 우상들이라
4-1) 유대인들로 Muhammad Al-Mualim은 풀이하고 있다(op. cit, 403).
5-1) 불신자였던 「나드르 이븐 알하리스」 및 그의 추종자들이 말한 것으로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481/6).
7-1) 우리가 음식을 먹듯 무함마드도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걷듯 그도 먹을 것을 구하려 시장을 배회하며 걷는 인간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뇨?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천사가 될 수 없으므로 무함마드도 선지자가 될 수 없지 않느뇨?
8-1) 하늘에서 보물이 내려와 무함마드를 부유하게 하지 아니하며 과일을 먹일 수 있는 과수원도 없느뇨?
2) 불신자들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말하길,
9-1) 불신자들
2) 불신자들은 선지자를 여러가지로 조롱하였다. 때로는 시인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마술사, 때로는 미친사람이라고까지 조롱을 하였다.
11-1) 불신자들
13-1) 지옥의 가장 협소한 곳에
16-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현세에서 그들 주님께 강구했던 것으로 "주여! 당신께서 당신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주옵소서!"라고 구원하였다(Muhammad Al-Mualin op. cit, p.404).
17-1)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즉 천사 또는 예수 그밖의 우상들을 불러 백성들이 방황하게 된 이유가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천사들 또는 예수 또는 우상들이었는가? 아니면 백성들 스스로가 방황하게 되었는가를 묻게 된다고 「무자히드」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38).
22-1) 불신자 및 죄인들에게는 천국에서의 평화로운 기쁨과 영원한 삶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현세 생활에서 창조주에 대해 오만해 하고 불신한 죄악 때문이다.
23-1) 불신자 그리고 위선자들이 현세생활에서 허위와 위선의 가면을 쓰고 행하였던 모든 그들의 행위는 바람에 휘날려 버린 먼지처럼 될 것이라.
24-1)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위안의 계시로 꾸라이쉬 백성가운데 불신자들을 적이 되도록 한 것은 무함마드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에게도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서 불신자들을 적이 되게 한 것과 같다. 이 불신자들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위안의 계시로 풀이 된다.
27-1) 그 죄인은 「우끄바 빈 아비 무이뜨」를 의미하나 모든 죄인이 이 범주 안에 속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브누 카씨르는 본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

다. 선지자의 길을 이탈하여 생활한 죄인이 부활의 날에 와 후회하나 그 후회는 회개로서 수락되지 아니하니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며 더욱 후회한다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트 630/2).

29-1) Abdullah Y. Ali는 하나님의 메세지로 풀이하고 있으나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및 Muhammad Al-Mualim은 믿음으로 풀이하고 있어 후자의 해석을 따랐다.

30-1)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2) 마흐주르 : 꾸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것.

3) 본 절이 제시하고 있는 교훈은 불신자들이 꾸란을 외면한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예언자들이 구원할 때면 창조주는 이에 응하사 지체하지 아니하고 벌을 내린다는 교훈을 불신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42).

32-1) 구약(타우라)과 신약(인질)이 한번에 계시되었던 것처럼 꾸란도 한번에 계시되지 아니했는가? 라는 불신자들의 질문으로 풀이된다.

2) 꾸란이 점진적으로 계시된 것은 다음의 주요 3가지 이유로 본다.
첫째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자 하였다 우상숭배가 지배적이었던 아랍 사회를 선도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이슬람을 전하기 위해서는 초인간적인 인내와 마음의 불변, 강직함, 인내의 지구력 등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자질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사건과 필요에 의하여 23년동안 계시됨으로써 인간이 살아갈 완성된 지침서가 된 것이다. 셋째는 질문에 따라 창조주의 계시를 받게 됨으로써 점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계시가 되었다.

35-1) 구약성서(타우라)

36-1) 파라오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의 백성

2) 파라오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예언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역하였기에 우리(하나님)는 그들 백성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7-1) 노아의 백성들이 거역한 선지자는 노아이나 선지자들, 즉 복수로 계시된 이유는 한 선지자를 부정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를 부정한 것이요 선지자들을 부정한 것은 유일신론과 이슬람을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아부 싸우드는 해석하고 있다(아부 알싸우드 9/4).

38-1) 「라스」의 의미를 "오래된 우물" 또는 "움푹 파여 물이 고인 곳" 또는 "죽은 시체를 매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설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 곳은 어떤 고을 또는 장소명으로 보인다. 라스의 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창조주께서 그들을 인도할 예언자 「슈아이브」를 보냈으나 이들은 그의 가르침을 거역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43).

40-1) 메카와 샴 지역을 왕래하면서 상거래를 하던 메카 꾸라이쉬족

2)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로 꾸라이쉬족이 상거래를 하기 위해 샴 지역에 갈 때는 항상 하늘에서 돌 벼락이 떨어져 멸망된 소돔의 고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43-1) 돌을 숭배하던 한 불신자가 있었는데 그가 숭배하던 돌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숭배하던 돌을 버리고 발견한 두번째 돌을 숭배하곤 하였다. 이렇게 자기 취미와 감정에 따라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 예언자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45).

45-1) 태양을 뜨게 함으로서 그늘이 있다는 예증

46-1) 아침예배(파르르) 시각부터 태양이 돋는 그 시각 사이라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2/19).

47-1) 옷을 입혀 몸을 감싸주듯 그늘을 두어 너희를 감싸주고

51-1) 많은 예언자를 각 고을마다 보내어 선지자 무함마드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었지만 무함마드를 마지막 예언자로 보내어 지구상의 모든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한 것은 무함마드를 다른 예언자들보다 높은 위치에 두도록 한 것으로

본다.무함마드가 선지자로서 선택을 받은 것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53-1) 민물과 짠물, 강과 바다

56-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그리고 믿음을 거역한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자로서 보내어졌다.

59-1) 「따쓰알 비히 카비란」 : "비히"에서 접미대명사인 "히"는 2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학자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히"가 바로 하나님을 가르키는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61-1) 태양을 가르킴

68-1) 의도적인 살인자, 간음자, 종교를 버리고 공동체를 이탈한 자, 이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72-1) 「라구」는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여 그 행위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언어 및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문에서의 「라구」는 유흥장소, 극장, 도박장, 외설이 담긴 음악 등을 의미한다.

第26장 수라트 슈아라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227절로 종교의 원리 즉, 유일신 사상, 하나님의 메시지, 부활 등에 관하여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밖에 신앙의 기본원리 및 원칙을 계시하여 주고 있다. 본 장에서는 특히 모세가 파라오 왕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밖에도 아브라함, 노아, 후드, 살레, 롯, 슈아이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본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불신자였던 파라오가 믿음이 강한 모세 앞에서 무의미했던 것처럼 불신은 믿음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파라오의 마술사들은 진리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파라오와 그의 군인들이 바닷물에 익사하였다는 교훈(1~69절),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진리를 거역함으로써, 노아의 백성들이 믿음을 불신함으로써 멸망하였다는 교훈(70~122절), 후드는 그의 백성에게 물질적 힘에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살레는 창조주를 모독하는 경고하였으나 백성들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다는 내용(123~159절), 롯은 마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을 다루어야 했고 슈와이브는 부정한 거래를 다루어야만 했다. 백성들은 이들의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거역한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160~191절),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 있을 때 그곳의 불신자들이 선지자에게 저항하였으나 진리가 승리한다는 교훈(192~277절) 제시되고 있다.

본 장이 '슈아라'(시인들) 장이라 불려진 것은 시인들(슈아라)이란 어휘가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무함마드가 예언자로써 메카에 나타났을 때 그곳의 불신자들이 그를 한 시인으로 묘사하면서 조롱하자본 장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55).

1-1) 창조주께서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기적을 보여 강제로 믿음을 갖도록 하지 아니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신앙에는 강요가 있을 수 없나니…"라는 구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1) 꾸란

3-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서 불신자들이 믿음을 거역하더라도 슬퍼하거나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본다.
4-1) 「아으나끄」는 「우느끄」의 복수명사로 목 또는 목덜미란 뜻이며 "그들의 목들을 구부리도록 하였을 것이다"라는 본문의 언어적 해석이나 본절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순종케 하였으리라"는 뜻으로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선택에 의한 신앙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창조주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해된다.
10-1) 파라오의 백성
13-1) 그들이 저를 거역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2) 그들에게 당신의 메세지를 전달하려 하니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15-1) 모세와 아론
2) 너 모세를 살해하지 아니할 것이거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17-1)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샴 지역으로 가도록 하여 달라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하고 있다.
18-1) 약 30년 가량 거주한 것으로 「무까떨」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57).
21-1) "나를 살해할까 두려워 「마드얀」 지역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43-1) 파라오가 불러 모은 마술사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먼저 던질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먼저 던질 것인가"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먼저 던져보라"고 하였다.
49-1) 오른 손과 왼발을 자르거나 또는 왼손과 오른 발을 자른다는 뜻.
50-1) 모세와 대적했던 마술사들이
53-1)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각 고을로 사람을 보냈다.
57-1) 파라오와 그의 추종자들
69-1) 무함마드여
71-1)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의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
86-1)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었으나 아버지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했다(싸위 알라 잘랄라이니 제3권 p.175).
103-1)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안에는
111-1) 노아의 백성
114-1) 연약하고 가난한 신앙인들을 내가 멀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나의 모임에서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 하리라. 메카 꾸레이쉬 불신자의 우두머리가 연약한 신앙인들을 추방하라고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요구한 것과 같다고 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32/7).
115-1)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경고자이니라.
119-1) 노아의 홍수, 11장 36절-48절 참조
123-1) 아드 백성도 그들에게 온 예언자 후드를 부정했으니 모든 선지자들을 부정하였도다.
127-1) 메세지를 전하는 대가로
129-1)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상에서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148-1) 사무드 고을은 과수원, 우물, 종려나무로 풍성했던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71)..
152-1) 이 부류에 속하는 무리의 종류를 따브리는 꾸란을 이용한 9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 도시에는 지상에서 해악을 행할 뿐 개선하지 않는 아홉 무리가 있었으니"(알따브리 63/19)
154-1) 인간인 살레 네가 어떻게 창조주의 선지자라 주장하느뇨?
2) 네가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할 기적을
155-1) 창조주의 능력에 의하여 단단한 바위에서 나온 암낙타가 나의 기적이라. 살레

의 오만한 백성들은 단단한 바위에서 임신한 암낙타가 나와 그들 앞에서 새끼를 낳도록 하라는 제언을 하자 살레는 앉아서 명상하고 있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내려와 말하길 "2라카아 예배를 하고 네 주님께 암악타를 구원하라"하자 살레는 그렇게 하였다. 그랬더니 암낙타가 나와 그들 앞에서 새끼를 낳아 그들 손에서 축복을 받았으매 살레가 그들에게 말하길, "백성들이여! 이것이 암낙타이라"(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72).

2) 어느날 암낙타가 너희의 물을 마실 것이요, 어느 날은 너희가 그 물을 마실 것이라. 어느 날 암낙타가 그들의 물을 마시니 전부 마시고 암낙타가 마시지 아니한 그날 그들이 마실때는 그 안에 있으니 그것 또한 또다른 하나의 예증이라 꾸타다는 풀이하고 있다.(Ibid)

157-1) 그들이 후회한 것은 뉘우치고 개선해서 후회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벌이 두려워 후회하였다고 「알파크리」는 해석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라지 60/24).

171-1) 예언자 롯을 따르지 아니하고 뒤에 남아 머뭇거렸던 롯의 아내를 가르킨다(제7장 83절 참조).

176-1) 「아이카트」는 "잎이 우거진 나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메디얀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가르킨다(따브리 65/19) (제15장 78절 참조). 2) 슈아이브 예언자를 가르킴

177-1) 제7장 85절 참조

189-1) 「줄라」는 불신자들을 어둡게 하여 버린 구름이란 뜻으로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혹서를 보내니 그들은 숨을 쉬기에 갑갑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밖으로 도피하여 나왔으나 이때 창조주께서는 다시 태양을 가리워 어둡게 하여 버리니 그들은 추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한곳으로 모이자 그들 모두를 불태워 버린 무서운 벌이었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196-1) 꾸란과 그에 관한 소식

2) 「주브르」는 옛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던 성서들을 일컫는 것으로 본다.

197-1) Abdullah Ibn Salam 및 Mukhairiq 같은 유대인 학자 등은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은 창조주로부터 계시된 메세지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Abdullah Y. Ali는 풀이하고 있다.

215-1) 친절하고 겸손하라는 표현이다(제17장 24절 및 제15장 88절 참조).

218-1)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경우

219-1) 여러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경우

224-1) 시와 예술 그 자체의 기능을 벗어나 그것이 신앙생활을 저해하고 혼돈케 할 때는 위험스러운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제27장 수라트 나믈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93절로 신앙의 기본원리, 즉 유일신 사상, 하나님의 메시지와 부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슈아라」장 및 「끼싸쓰」장과 거의 비슷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제1절~14절 사이에서는 모세가 본 불기둥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볼 수 있으며, 제15절~44절에서는 솔로몬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의 뜻을 알고, 현명한 개미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과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으며, 제45절~58절에서는 살레와 롯의 이야기, 그리고 음모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좌절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제59절~9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과 최후는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

하고 불신은 믿음에 굴복하게 됨으로 계시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의존해야 한다는 교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장이 '나믈'(개미)이라 불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믈」 즉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나믈」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1권 op. cit, p.3).

1-1) 꾸란의 기적. 제26장 1절 참조
2-1) 1절과 2절에서의 계시는 다음 3가지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사실을 설명하고 창조주의 속성, 인간의 위치 그리고 정신적 세계관을 설명하고 둘째, 그것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며 셋째,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용서하고 순결케 하여 구원을 한다는 기쁜 소식의 내용이다.
4-1) 부활
7-1) 모세의 아내
2) 모세의 마음에 말씀이 계시되는 여명의 순간으로 보여진다(제20장 9-24절 참조). 모세는 메디얀에서 그의 가족을 데리고 시나이 반도를 건너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춥고 어두운 밤이 되자 길을 잃었다. 이때 모세는 빛을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불빛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빛은 곧 하나님의 신비로 계시 초기의 여명기로 풀이된다.
8-1) 창조주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와
2) 천사들
3) 모세가 창조주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은 창조주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계시하고 그가 선지자임을 알려 준 위대한 사건이었다고 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56/7).
10-1) 그 자리를 피하여 돌아오지 아니 했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학자도 있으나 본절에서는 꾸타다의 해석을 따랐다.
2) 모세가 예언자 및 선지자로써 창조주의 선택을 받고 있다.
12-1) 아홉가지의 기적으로 꾸란에 언급된 그 기적은 다음과 같다.
① 지팡이의 기적, ② 손의 기적, ③ 메뚜기의 기적, ④ 기생충인 이의 기적, ⑤ 개구리의 기적, ⑥ 대홍수의 기적, ⑦ 피의 기적, ⑧ 돌의 기적, ⑨ 파라오와 그의 재물을 멸망케 했던 기적(제7장 133절 해설 참조).
2)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기적과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을 때 하얗게 된 기적을 가르킨다.
15-1) 다윗에게는 19명의 자손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가장 많은 은혜가 베풀어졌다.
16-1)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로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새나 동물이 지저귀는 소리도 알아 듣는 지혜를 부여받았다.
18-1) 샴 지역에 있는 개미가 많은 계곡
22-1) 예멘에 있는 한 도시 이름으로 「사나아」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오늘날의 「하다라마우트」 지역에 있었던 한 도시로 풀이되고 있다. 유명한 「마아리브」 댐의 힘을 입어 문명이 크게 번성했었고 그 당시의 여왕 「사바」는 솔로몬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거만해 하였다.
23-1) 「사바」의 「빌끼스」 여왕을 가르킴.
24-1) 사바아 백성들
2) 하늘과 태양 및 별들을 숭배하던 「마주스」 종교
27-1) 새
28-1) 사바의 빌끼스 여왕과 군대
2) 빌끼스 여왕이 족장들에게 이 서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할 때 족장들이 무엇이라 응답하는지

3) 오디새는 그 서한을 빌끼스 여왕에게 가지고 가서 그녀의 머리 위를 날다가 그녀가 있던 곳에 떨어드렸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35-1) 빌끼스 여왕이 백성들에게 말하길, 솔로몬이 우리가 보낸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현세를 원하는 왕이므로 그를 살해하고 그가 그 선물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을 수 있는 예언자라 그러므로 그를 따르라(무크타싸르 이브누까씨르 471/2).
36-1) 솔로몬에게 지혜와 권능이 부여되고 예언자로서의 선택을 받은 은혜
2) 물질적 풍요로움의 은혜
3) 너희가 내게 준 선물에는 내가 기뻐하지 않으나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에 너희는 기뻐할 것이라.
37-1) 빌끼스 여왕의 사신들이 솔로몬으로부터 돌아와 소식을 전하니 그녀는 그가 왕이 아니며 솔로몬의 힘을 막을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사신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여왕 자신이 솔로몬에게 가 솔로몬이 인도하는 신앙을 따르겠노라 하였다. 그리고 1만 2천의 족장들이 함께 솔로몬에게로 갔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1권, op. cit, p.12).
39-1) 이프리트 : 몸이 거대하고 힘이 센 요정 가운데 하나로 사악하고 교만한 요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40-1) 성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이븐 바르키야」라는 사람이라 풀이되고 있다.
41-1) 사람들이 위장하여 알지 못하도록 하듯이 그 여왕이 옥좌의 형태를 변경하자 그녀가 그 의자를 보고 그녀의 옥좌인가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느니라.
42-1) "이것이 당신의 옥좌입니까?"라는 질문에 여왕이 "예",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와 비슷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그녀는 영특한 지혜와 지각이 있는 여왕이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해석하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673/2).
45-1) 믿는 사람들의 파와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의 파.
47-1) 살레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48-1) 9명은 그 고을 족장들의 자손들로 그 고을에서 해악을 끼쳤던 자들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브누 압바스는 암낙타를 살해한 그들로 풀이하고 있다.
2) 살레의 고을로「히즈르」라는 도시였으며
49-1) 그들이 칼로 무장하고 살레의 집에 왔을 때 천사들이 돌을 던져 그들을 살해하였다고「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1권 op. cit, p.16).
50-1) 살레를 살해하려 했던 음모.
54-1) 소돔의 백성
59-1) 선지자 무함마드
61-1) 소금이 들어 있는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지 아니 하도록 따로 흐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63-1) 여기서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한다.
65-1) 부활이 언제이냐고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였던 불신자들에게 계시된 절로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
71-1) 무함마드와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절로 풀이된다.
82-1) 의견을 달리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및 아랍 백성 가운데의 불신자들
87-1) 세 차례의 나팔이 울리는데 그 첫번재 나팔은 죄인들을 놀라게 하는 공포의 나팔이요, 두번째 나팔은 천둥과 광음의 나팔이며, 세번째 나팔은 만유의 주님께로 부활하는 나팔이라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433).
89-1) 선을 행하는 자란 믿음 곧 라 일라하 일랄라(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를 믿고 선을 실천하는 자
2) 현세에서는 물론 내세에서도 천국의 보상을 받으며

90-1)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는 불신자
91-1) 무함마드
  2) 메카

제28장 수라트 알까싸스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88절로 하나님의 일위일체설, 하나님의 메시지와 부활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본 장의 계시목적은 「나믈」 및 「슈아라」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계시된 시기는 메카 후기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기 전에 계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파라오는 오만하고 거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가 그지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데 있었다. 모세는 그의 유년기부터 그가 해야 할 임무를 준비하였으며 청년기에 들어와서는 주님께 의존하여 인도를 받고 그가 추방당할 때는 도움과 사랑을 받았으며 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다(1절~42절).

선지자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계시된 말씀은 그 이전에 계시된 말씀에서 이미 확인되었다(43절~60절).

내세는 회개하고 선을 실천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61절~75절).

그러나 인간은 마치 「까룬」처럼 그가 가진 현세의 물질적 재물로 자만하고 있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며, 한편 항상 겸손하고 진리의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한다(76절~88절).

본 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그가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신기한 사건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 '끼싸스'(이야기들)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1권 op. cit, p.27).

1-1) 꾸란 기적 중의 하나
3-1)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4-1) 애굽
  2) 이스라엘의 자손
  3) 파라오는 어느 날 그의 꿈속에서 커다란 빛이 예루살렘으로 부터 애굽 땅으로 와 이스라엘 자손을 제외한 꼽트 백성을 불태워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점장이에게 해몽을 명하니 점장이들이 말하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아가 태어나니 그가 당신의 왕권을 빼앗고 당신을 멸망시킬 꿈입니다"라고 했다. 이로 인해서 그때부터 태어난 남자아이는 살해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여아는 그대로 살려두게 한 것은 그에게 봉사하고 그를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5-1)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섬멸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보호하여 신앙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파라오가 군림하는 그 땅을 상속케 하고자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대지로 인도하였다.
6-1) 애굽과 샴 지역
  2) 이스라엘 자손

3) 파라오 왕의 대신으로 구약성서 에스더스 3장 1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7-1) 파라오는 애굽의 모든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남아는 살해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구제되어 그의 어머니가 그녀의 가슴에 안고서 모세에게 젖을 빨렸다. 그러나 모세가 발견될 위험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모세를 상자 안에 넣어 나일강 물에 띄워 보냈다. 그 상자는 왕궁 옆을 지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발견된 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때까지 보호를 받았다.
9-1) 아내의 말에 파라오가 대답하길, "당신에게는 은혜가 되겠으나 나에게는 도움이 되거나 기쁨의 대상이 아니요"라고 하였다(알따브리 22/20).
10-1) 어머니가 모세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였다면 이스라엘의 자손 모세가 파라오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살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신앙으로 침착하였다.
11-1) 모세의 어머니
2) 모세
3) 모세의 누이
4) 모세
12-1) 궁궐 안에 있는 어떤 유모의 젖도 빨지 아니하자 궁전 밖에서 유모를 찾던 중 모세의 누이를 보았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14-1) 이때 모세의 나이 40세로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435).
15-1) 사람들이 쉬는 오침시간
2) 애굽의 만파 도시(Muhammad Al-Mualim, op. cit, p.435).
3)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과 그의 무리
4) 파라오의 편으로 꼽띠의 한 사람과 그의 무리
5) 모세는 파라오의 편인 꼽띠 중의 한사람을 살해하려 하지 아니했으나 모세의 주먹에 맞아 죽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때려서 죽게 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알꾸르뚜비 261/13).
16-1) 사탄의 유혹에 의한 실수로 인하여 사람을 살해하였으니 적의 실수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18-1) 실수로 꼽트인을 살해했던 그 도시
19-1) 모세와 그의 편이었던 이스라엘 자손 중의 한사람
2) 또 다른 꼽트인
3) 적이
20-1) 파라오의 백성 중에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 이 시기에는 이미 왕궁으로부터 모세에게 사형이 내려져 모세를 불러들일 시기로 풀이된다.
22-1) 마드얀은 슈아이브의 도시로 애굽으로부터 그 당시 8일쯤 걸려서 도착되는 거리로 모세는 그쪽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였으나 천사가 내려와 그를 그쪽으로 인도하였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1권 op. cit, p.33).
23-1)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다.
2) 아버지가 연로하여 양들을 먹일 수가 없어 우리가 양들을 먹이고 있으나 약한 여성들이기
24-1) 모세가 애굽에서 예언자 슈아이브의 땅 마드얀으로 7일을 걸려 오는 동안에 땅에서 나는 마늘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 마드얀에 도착했을 때는 피곤하고 지쳐 나무 그늘에 앉아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구원의 기원을 하는 상태로 본다고 「다하크」는 풀이하고 있다(알라지 240/24).
25-1) 애굽으로부터 이곳으로 피하여 온 이유를 이야기 한 것으로 본다. 즉, 파라오와 그의 백성 꼽트인들과 모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 한 것으로 풀이된다(Muhammad Al-Mualim, op. cit, p.437).

26-1) 저희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사람으로 고용하소서.
28-1) 결혼하여 8년을 봉사하든지 10년을 채우든지 하는 두가지 조건으로
29-1) 8년의 기간을 마친 다음 2년을 더하여 10년을 채운 것으로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
2) 모세의 아내를 가르킴
3)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던 길이었다.
4) 아내에게
30-1) 모세가 불을 발견한 그곳에 왔을 때 불은 발견하지 못하고 빛만을 발견하게 되었다.
32-1) "그대의 날개를 가까이 하여 두려움으로부터 멀리하라"가 원래의 언어적인 뜻으로 새가 어떤 일로 두려움을 느꼈을 때 날개를 펴 날아갈 태세를 하다가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할 때면 날개를 접어 평안과 안정을 찾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 지팡이의 기적과 손의 기적
33-1) 파라오 백성의 한 꿉트인.
36-1) 모세의 지팡이와 손의 기적
2) 파라오와 그의 백성
38-1) 하만이 최초로 진흙을 사용하여 벽돌을 만든 사람이라 전하여지고 있다. (Muhammad Al-Mualim, op. cit, p.439).
2) 파라오
3) 모세
39-1) 심판이나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이나 보상도 없다고 생각했도다.
43-1) 노아, 아드, 사무드, 롯 등 모세 이전의 예언자들을 불신했던 백성들
2) 이스라엘 자손
44-1)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던 장소로 뚜와 계곡의 서편을 가르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그러나 그대 무함마드에게 그것을 계시하니 이는 그대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되도록 함이라.
45-1) 모세 이후 여러 세대를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하고 그 율법을 변조하거나 위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하여 창조주께서 무함마드를 최후의 선지자로 선택하시어 최후의 말씀을 계시하게 되었다.
46-1)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무함마드 그대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여 그 소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그대 이전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하나님)가 그대에게 그 이야기를 계시하나니 이로 하여 그대 이전 예언자들이 오지 아니했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내용이다.
2) 예수와 무함마드 선지자 사이는 약 600년 간으로 이 기간에 살았던 백성들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1권 op. cit, p.40).
47-1)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48-1) 꾸레이쉬족 불신자들
2)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
3) 모세의 지팡이와 손의 기적
4)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5) 구약성서와 꾸란은 마술사들에 의하여 꾸며진 것으로 구약 및 꾸란의 마술사가 서로의 진리를 입증하고 있을 뿐이라고 불신자들이 불신하고 있는 상태이다.
49-1) 구약성서와 꾸란
2) 무함마드
50-1) 불신자
51-1)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및 유대인들

2) 그들 이전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52-1)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되기 전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성서와 예수에게 계시된 신약이 계시된 후 이 두 성서를 진실로 믿었던 이들
2)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될 것이라는 것
53-1) 꾸란
54-1) 그들의 성서 즉 구약과 신약의 믿음에 대한 보상과 꾸란을 믿는 것에 대한 보상
2) 그들은 불신자들의 모욕과 조롱 및 조소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하였다.
55-1) 구약과 신약을 거짓없이 믿었던 이들
56-1) 무함마드를 사랑하고 길러주었으며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무함마드에게 대항하여 올 때면 그를 보호하여 주었던 그의 삼촌 「아부 딸립」이 임종할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아부 딸립」을 이슬람으로 귀의시키려 하였으나 「아부 딸립」이 거절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126/7).
57-1)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61-1) 천국의 약속을 받은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신앙인들
2) 불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
3) 전자와 후자를 비유하여 「함자 빈 압둘 무딸립」, 「알리 빈 아비 딸립」, 그리고 「아부 자흘」로 전하여 지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443).
62-1) 너희 불신자들이 숭배한 우상들.
63-1) 사탄들
64-1) 현세에서 너희 불신자들이 숭배하여 왔던 우상들에게
66-1) 혼돈과 실망으로 불신자들의 마음이 몽롱하여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거역했던 지나간 그들의 과거가 믿어지지가 아니하는 듯 싶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그들의 현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됨으로 그들은 당황하고 정신이 흐려져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대답하여야 할지 서로가 서로에게 의논하는 것 조차도 할 수 없게 된다.
69-1) 불신자
73-1) 일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낮을 두었으며
74-1) 불신자들
75-1) 각 공동체에 보내어진 예언자
76-1) 「까룬」은 구약성서 민수기 16장 1절-35절 사이에 나오는 「고라」로 그는 모세 삼촌의 아들이었다. 한편 고라는 그를 따르는 250여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였으며 특히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로써 백성들 앞에서 오만해 하고 거만해 하였다고 Abdullah Y. Ali는 풀이하고 있다(op. cit, p.1023 Note No.3404).
2) 모세의 백성들에게
3) 모세
78-1) 고라
81-1) 고라
85-1) 무함마드가 꾸라이쉬족의 박해를 받아 메디나로 이주한 후 메카를 정복하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다하크」는 무함마드 예언자께서 메카를 떠나 「주흐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메카가 그리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본 절이 계시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1권 op. cit, p.51).
86-1) 꾸란

제29장 수라트 알안카부트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69절로 신앙의 기본원리 즉 유일신 사상과 하나님의 메시지, 부활 및 보상 그리고 유혹과 시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현세와 내세에서 신앙인들에게 부여될 커다란 은총과 축복은 반드시 저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거친 다음에야 주어진다는 내용이다. 본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앙은 항상 현세의 생활에서, 그리고 실천행동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 노아의 생애 950년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은 믿음을 거역하였고 아브라함의 세대는 아브라함을 불태워 위협하였다(제1절~27절).

롯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며서 공공연히 공격하였으며, 아드와 사무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잘못 이용했고, 고라(까룬)와 파라오와 하만은 그들의 지나친 거만과 오만으로 멸망하였다(28절~44절).

꾸란은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것을 가르치며 내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45절~69절).

본 장은 하나님께서 '안카부트'(거미)를 비유하여 말씀을 계시하고 있어 안카부트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1권 op.cit, p.54).

1-1) 꾸란 기적중의 하나. 제2장 1절 참조.

2-1) 본 절은 믿음이 약한 백성들에게 계시된 것으로 그 중에는「암마르 이븐 야시르」를 위시하여 그밖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이 이슬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서 입으로만 믿음이 있는척 하는 위선자들과 구별될 수 있다는 교훈으로 풀이되고 있다(알타스힐 113/3).

4-1) 창조주를 부정하는 불신자들

5-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위한 위안으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

6-1) 신앙생활을 지키는 과정에서 유혹을 멀리하고 욕망을 자제하는 것은

8-1) 부모

9-1)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10-1) 신앙이 약하여 어떤 재앙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신앙이 약한 때문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벌로써 생각하며, 한편 승리하여 어떤 물질적인 것이 눈에 보일 때면 "우리도 함께 하였으니 그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무리가 있다"

14-1) 노아와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제11장 25절-48절과 26장 105절-122절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노아가 950년 동안의 오랜기간을 체류하였다. 한편 창세기 9장 28절-29절 사이에서는 노아가 950년을 살았고 그 가운데 350년간은 대홍수 이후의 삶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노아가 그 백성을 인도하려 하였으나 백성들의 오만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었다.

16-1)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절에 기록되어 있다. 제21장 51절-72절에서는 그가 불 속에 던져졌으나 안전하게 구제된 이야기가, 제19장 41-49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한 아버지의 고향을 스스로 떠나는 이야기가, 제29장 16절-18절에서는 그의 백성이 그를 불태우겠다고 위협한 이야기가, 제29장 25절에서는 악은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제29장 26절-27절에서는 선을 따르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등이 여러 절에서 여러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24-1) 아브라함

25-1) 아브라함

26-1)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의 가르침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던 고을을 떠나기로 하였다.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여러 시리아 및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여 왔으니 하나님은 그가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하였다.

2) 아브라함(Tafsir Al-Jalalain, Maktabah Al-Malah, Dimasg—, p.527).

3) 아브라함

27-1) 아브라함

2)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야곱은 그의 손자였으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이었다. 이들 각자는 예언자로써의 선택이 되어 말씀을 계시받은 원조가 되었으니 이삭과 야곱은 예언자 모세의 선조요, 예언자 무함마드의 선조는 아브라함의 장손 이스마엘이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란 명칭을 갖게 되었다(창세기 32 : 28, 35 : 10).

3) 아브라함

28-1) 제7장 80절 참조.

29-1) 롯

30-1) 롯

31-1) 소돔과 고모라의 고을

32-1) 아브라함

2) 천사들

3) 롯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디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녀는 사악한 백성 중에 속하여 있었으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37-1) 슈아이브

38-1) 아드와 사무드 백성

40-1) 롯의 백성

2) 사무드와 슈와이브의 백성

3) 고라(까룬)

4) 노아와 파라오의 백성

45-1) 꾸란

2) 「틸라와」는 소리내어 읽는 것, 즉 낭송을 의미하는 것이 언어적인 뜻이나 여기서의 「틸라와」는

① 꾸란을 낭송하되 계속하여 그것을 전 세계로 전달하는 것이며

② 스스로를 위하여 읽는 것이며

③ 성서가 인간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며

④ 그것을 생활의 지침과 지식으로써 항상 숙고하는 것 등을 내포하고 있다.

46-1) 꾸란

2) 구약(타우라)과 신약(인질)

47-1) 꾸란

2) 구약 및 신약을 믿었던 기독교인 및 유대인들로 진실한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서 그들의 종교가 완성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슬람에 귀의한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압둘라 이븐 쌀람」과 「무카이리즈」 등의 유대인 의사가 있었다. 헤즈라 6-7년에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아라비아반도 주변국가, 비잔틴제국 수도인 콘스탄틴노플 및 페르르시아 제국의 수도 마다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거리에 있는 사사니안, 시리아, 아비시니아

및 애굽에 사절단을 보냈다. 페르시아를 제외한 이 모든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들이었다. 마찬가지로 아라비아반도 헤자즈 동쪽에 있는 야마마 국가에 사절단을 보냈으나 이곳도 물론 기독교인 「바누 하니파」 부족이었다. 이 모든 국가들은 아비시니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무슬림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아비시니아에도 상당한 무슬림들이 있다.

3) 메카 꾸라이쉬 백성

48-1) 꾸란

2)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되기 전에 그가 글을 읽을 수 있었고 글을 쓸 수 있었다는 불신자들은 꾸란을 계시된 것이 아니라 무함마드 스스로가 기록한 것이라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 꾸란

50-1) 불신자들

2) 무함마드

3) 살레에게 있었던 암낙타의 기적, 모세에 있었던 지팡이 기적, 그리고 예수에게 있었던 식탁의 기적 등을 의미한다.

51-1) 불신자들

53-1) 불신자들

60-1) 메카 불신자들이 신앙인들을 박해하자 선지자 무함마드는 메디나로 이주하라 하였다. 이때 믿음이 약한 무슬림들이 "거주할 집도 그리고 일용한 양식은 물론 마실 우물도 그곳엔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알꾸르뚜비 360/13).

61-1) 불신자들

65-1) 비행기나 배를 타고 여행 중 즉 어떤 위험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요청하나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

67-1) "서로가 서로를 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포로로 만들며"라고 다하크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63/13).

2) 메카

3)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69-1) 이슬람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전(Ijh d)은 죽이고 죽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사기 위해 육체적·물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가르킨다.

제30장 수라트 루움

본 장이 계시된 연대는 성도 이전 7~6년(서력 615~616년)경 페르시아가 로마제국을 정복하고 있을 때 계시된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 정복으로 인하여 로마와 그리이스는 페르시아에게 예루살렘 영유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기독교는 쇠퇴하게 되었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몇 년 안되에 그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후에서 나타난 페르시아와 로마제국간의 현세적 권력의 흥망성쇠는 외적 사건에 불과하지만 선과 악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관한 심오한 내적 의미는 1~19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세적, 도덕적, 육체적, 정신적 변화는 바로 자연과 종교 안에서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인 자연의 조화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홀로 존재하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고 20~40절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인간은 부패

하고 과오를 범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자연의 세계에서 그러듯이 윤리의 세계를 정화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한다. 그러므로 실망하지말고 인내할 것을 41~60절에서 가르치고 있다. 현자 루끄만이 보여준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는데 그것은 중용에서 비롯된다고 1~19절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다. 지혜와 지식은 확고하고 영속적이며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도록 하여 준다는 교훈이 20절~30절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1-1) 제2장 1절 참조
2-1) 헤라클리우스(Heraclius) 통치하에 있던 로마제국은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로마는 물론 그 지배하에 있던 대다수 아시아 지역까지 잃게 되고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의 외곽도 함락당하였다.
3-1) 파리로 이르는 가까운 지역이란 뜻으로 페르시아를 말한다.
2)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은 로마가 페르시아에 패망 되었을 때 이를 그들의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4-1) 3년에서 9년 사이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페르시아와 로마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로마를 정복하였다. 이 소식이 선지자 무함마드와 추종자들에게 전하여지자 불신자들 및 이교도들은 이에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성서를 믿지 아니하고 「마주스」란 종교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불신자들은 선지자의 추종자들에게 말하였다. "성서를 믿지 아니한 우리가 성서를 믿는 당신들 위에 승리하였도다"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1권 op. cit, 6).
2) 바드르 전투(헤즈라 2년 서력 624년)는 오만했던 꾸레이쉬족의 환상을 무너뜨린 전투로 하나님을 섬기던 무슬림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제3장 13절 해설참조).
5-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성서의 백성(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에 기뻐하니 하나님을 믿는 성서의 백성들은 불이나 우상을 믿는 이들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날은 바드르 전투와 일치하고 있는데 바드르 전투도 우상숭배자들과 배화교인들에 대하여 승리한 날이었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니 알사부니, 제11권 op. cit, p.7).
7-1) 현세에서 살아가는 일, 즉 언제 씨앗을 뿌려 언제 수확할 것이며, 어떻게 모종을 하고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가! 라는 현세적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7/14).
8-1) 모든 피조물의 현세적 생명은 제한되어 있으나 내세의 생명은 영원하다. 천국에 이르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지옥에 이르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거주하게 된다.
9-1) 신체적으로 강하였지만 많은 재물과 자손들도 더 많았으며
2) 농경지는 물론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번성하였으며
3) 말씀과 더불어 많은 기적들
10-1) 현세에서는 파멸이요 내세에서는 불지옥이 그들의 말로라.
2) 꾸란
11-1)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2)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13-1) 우상을 숭배한 불신자들
2) 그들이 숭배하였던 우상들
14-1) 창조주를 믿는 무리와 창조주를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불신자들로 구별되어 전자는 우편으로 하여 천국으로 이를 것이요, 후자는 좌편으로 하여 불지옥으로 이르니라(Muhammad Al-Mualim, op. cit, p.456).
15-1)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써만 충분한가? 본절에서는 꾸란의 여러 절에

서 천국에 이르는 것은 믿음과 함께 노동과 선행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16-1) 꾸란을 불신하고 죽은 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17-1) 인간의 노동이 현세를 살아가는 생활 수단이라면 예배생활은 현세 생활의 정신 순화와 내세에 이르는 가교라 볼 때 잠에서 깨어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드리는 예배(파즈르)로부터 정오에 드리는 예배(주흐르)와, 한낮에 드리는 예배(아스르), 그날 일과의 마무리를 알려주는 해가 진 후에 드리는 예배(미그립)와 잠이 들기 전에 그날 하루를 반성하면서 드리는 예배(이샤)의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순화와 조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메디나에서 의무화 되었다. 제6장 114절, 제17장 78-79절, 제20장 130절 참조
18-1) 하늘의 가족과 대지의 가족 모두(이브누 압바스)
2) 마그립 예배시간부터 땅거미가 일때까지
3) 주흐르 예배시간이 시작되는 시간
20-1) 아담
2) 아담의 후예들로서
21-1) 아담의 뼈에서 이브를 창조한 후 남녀가 배필이 되도록 하여 인류를 번성케 하였다고 풀이되고 있다(Tafsir Al-Jallalain, p.536).
25-1) 이스라펠 천사가 부는 나팔소리에 무덤으로부터 부활하는 것.
28-1) 종 또는 하인
2)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위에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이 자기 소유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하인이나 종이 그 사람의 재산을 동등한 조건으로 균등 분배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창조주를 경배함에 있어서 창조주와 동등하게 숭배 받으려는 피조물이 있다면 이것은 더욱 말할 나위도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유로써 제시하고 있다.
3) 인간은 끊임없는 불안과 교전과 전쟁상태에 있는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안해 한다. 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인간은 지도자를 두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들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권한에 순종하고 그 권
한을 존경해야 하며 자신들의 평안과 안정도 이 권한에 의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두려워 한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소유하고 있는 하인이나 종들을 존경하지 아니한다. 인간은 창조주의 섭리에 달려있다. 그리고 창조주는 최고의 영원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인간이 진실로 두려움 없는 평온과 안정을 원한다면 최고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창조주의 권능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만이 인간이 갈구하는 평안이 올 것이라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30-1) 하니프 : 그릇된 모든 종교를 떠나 진리의 종교인 이슬람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해 주고 있다. 자석의 바늘이 북극을 가르키는 것처럼 진실되고 진리인 종교는 올바른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제2장 135절의 "하니프"와 비교).
2) 모든 피조물은 본성(피뜨라)을 갖고 창조되었다. 그래서 본성을 갖고 창조된 인간의 본성에 근본을 두고 확립된 종교가 바로 진실된 이슬람 종교이다. 하디쓰에서도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태어나는 모든 것은 본성에 따라 태어나느니라.
32-1) "시야란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무리"가 언어적 해석이며, 시야파란 알리 빈 아비 딸립 추종자들의 편견에 따라 알리만이 선지자 무함마드 이후 무슬림 공동체를 다스릴 대리권인 칼리파직을 계승할 유일한 합법적 인물이라 주장한 무리를 말한다. 이들 시야파들은 아부 바크르, 우마르 등 선지자를 따랐던 추종자들을 험담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선지자께서는 "하디쓰를 험담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시야파들의 험담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 시야파 무

리는 12파가 있어 그중 일부는 신화적 우화로 끝났고 일부는 다신론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또 일부는 원래의 계시가 알리에게 있었다고도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논평을 받고 있다.

33-1) 본 절은 불신자들의 추한 모습과 위선적인 그들의 종교생활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께 구원할 뿐 그 후에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34-1) 불신자들

35-1) 의문사는 부정과 힐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숭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8-1) 친척과의 계속적인 연락과 상호협력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여행 중에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연락 두절로 곤궁에 빠져 귀가할 수 없게 된 여행자에게 자선금(싸다까) 또는 다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

2) "와즈하알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언어적 풀이로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한다(제2장 112절 및 제6장 52절 참조).

39-1) 리바는 비합법적 방법과 수단에 의한 증액 또는 증가분을 의미하며, 고리대금업, 뇌물, 부당이익, 부정거래에 의한 이익 등을 일컫는다(제2장 275-277절 참조). 이러한 방법과 수단에 의해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비리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며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익을 얻는 원칙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비용으로 얻어져야 하며, 타인의 노력과 타인의 댓가를 치루어 얻어지는 것은 곧 "리바"다. 인간은 그의 적극적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창조주가 위탁한 재산과 능력으로 필요로 하는 인간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의 이익은 보상으로써 나타나며 그 보상은 내세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2)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가장 순수한 사랑을 의미한다. 제2장 112절 및 제6장 52절 참조

41-1)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는 순수하고 좋은 것이었다. 모든 재앙과 부패는 사탄의 유혹에 의한 오만과 이기심 때문이다(제30장 30절 참조).이러한 재앙이 있게 되자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관용으로써 그 재앙을 정지시키려 하였다. 사악함의 말로는 사악함의 결과일 수밖에 없어 "인간의 손들이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벌이 제시되며 미래를 위한 경고와 함께 회개의 문으로 들어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하나님의 정의와 벌의 최후목적은 인간을 사악함으로부터 구하여 인간이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의 순수함과 선으로 회복시키는데 있다.

42-1) 지나간 역사와 경험을 숙고해 볼 때 사악함과 부패는 그들 스스로를 멸망케 하였음을 인간은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을 경배함에 그릇된 행위와 그릇된 목적의식으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43-1) 인간은 너무 늦기 전에 사악함과 허위에 의해 무너진 질서와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진리의 가치가 지배할 그날이 도래하면 그 사악함과 부패와 허위는 파멸하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개선하는 것 외에는 사악함의 말로를 피할 수 없다. 진리의 날이 도래할 때 회개하는 것은 이미 늦기 때문이다.

2) "카"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르키는 인칭접미대명사로 여기서는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3) 천국으로 이르는 무리와 지옥으로 이르는 무리

46-1) 바람을 일으켜 비를 담은 구름을 보내어 비를 내리게 하니 식물이 자라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매 이는 더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라.

2) 제7장 57절 및 제27장 48절 참조. 비를 내리어 메마른 땅을 적셔주어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여 일용할 양식으로 하고 비를 내리어 신체구성의 기본인 물을 맛보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

3) 선박을 이용한 여러가지의 편리함.

47-1)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위안과 위로의 말씀으로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오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권리요 의무라는 것이다.
48-1) 바람이
52-1) 불신자들을 비유함에 죽은 자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또한 장님이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불신자들은 진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함을 비유하고 있다.
54-1) 미액의 정액으로 창조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할 때의 상태는 인간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약한 시기이다.
2) 청년 시절의 강한 힘
3) 노인 시절
58-1) 불신자들이 제의한 지팡이의 기적, 암낙타 및 손의 기적 등

제31장 수라트 루끄만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34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원리 즉 하나님의 유일성, 예언자의 도래 및 부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서의 말씀과 무함마드의 기적을 언급하면서 인도받아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패망하여 구걸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며, 현자 루끄만이 보여준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는데 그것은 중용에서 비롯된다고 1~19절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다.

지혜와 지식은 확고하고 영속적이며 하나님이 창조주의 목적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도록 하여 준다는 교훈이 20~30절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본 장은 지혜가 기여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비밀을 갖고 있는 현자 루끄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루끄만' 장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무함마드 알리 알 사부니, 제12권 op.cit, p.21).

1-1) 제2장 1절 참조
2-1) 본 장은 지혜에 관한 것으로 꾸란은 지혜의 성서 또는 지식의 성서라고 불리우고 있다. 제12절에서는 현자 루끄만에 관한 절로 현자는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 이때 그 사람의 지식은 정확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다.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상은 선지자 안에서 크게 완성되었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성서 안에서 완성되었다. 지혜로운 성서는 꾸란 명칭가운데의 하나이다.
4-1) 본절에서 의로운 자는 다음 3가지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다.
첫째, 이들은 선을 갈구하되 의무와 사랑과 그리고 예배로써 갈구한다.
둘째,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선을 베푼다.
셋째, 그들은 미래의 확신된 희망 속에서 자신들의 평안과 휴식을 찾는다.
6-1)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에 「나디르 이븐 알 하리쓰」라는 한 이교도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메세지 보다는 페르시아 유희를 더 좋아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곳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반대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여자 가수들을 사들여 그녀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 했던

꾸레이족의 한 남자에게 계시된 절로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462).

12-1) 현자 루끄만의 생애에 관하여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가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의 호칭 "무암마르" 즉 장수라는 것에서 추측할 수 있다. 그는 아드 백성 가운데 나이 많은 몇 사람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제7장 65절 참조). 그는 지혜를 겸비한 형태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회에서 초라한 지위로 하인 또는 목수였을 것이라 전하여 지고 있다. 그는 언제나 세속적인 힘과 권세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하디쓰에서도 루끄만은 현자였지 예언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루끄만은 예언자가 아니나 사색이 깊고 믿음이 확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베풀었다(알꾸르뚜비 59/14).

13-1) 루끄만은 지혜를 겸비한 자의 모범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현명한 생활을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내적생활의 가장 고귀한 가정생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슬람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진실한 인간의 지혜를 역시 신성한 지혜로 보고 그 두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의 시초는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고 있다(제31장 13절).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부모에게 효도함과(제31장 14절) 더불어 사람에게 의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무는 곧 하나이기 때문이다.

15-1) 부모에게 효도함이 가장 큰 하나님의 율법이요 윤리라고 계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상을 숭배 하도록 강요하는 부모의 말씀에는 순종해서는 아니됨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불가능한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 하디쓰에서도 우상숭배와 무신론은 가장 큰 죄악이라 말하고 있다.

16-1) 루끄만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길,

17-1) 아부 하이얀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첫째, 가장 큰 죄악인 불신을 금지하고

둘째,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창조주에 순종하되 예배를 근행하고 선을 행하며 악을 멀리 할 것과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교훈이 제시되고 있다.

20-1) 본절은 유대인들에게 계시된 절로 한 유대인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와서 말하길, "그대 주님은 어떤 것인지 내게 알려주오"라고 요구하자 광음이 그를 덮쳐 갔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으며(알꾸르뚜비 74/14),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해 아무런 지식이나 예증도 없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논쟁을 일삼던 나드르 이븐 하리스 및 아비 이븐 칼프에 대하여 계시된 것으로도 이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2권 op. cit, p.30).

24-1) 인간이 현세에 머무르는 기간은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악함에 대한 최후의 벌은 영원한 것으로 심판이 이르렀을 때의 회개함은 이미 늦어버린 것이다. 하디쓰에서도 현세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현세에서 사는 것은 마치 그대가 여행자의 입장에서 어느 지점을 지나가는 것 같이 살지어다"

또한 그대가 밤을 맞이했을 때엔 아침을 기다리지 말며, 그대가 아침을 맞이했을 때는 저녁을 기다리지 말 것이며, 그대가 건강할 때 그대의 질병을 생각하고, 그대가 살아 있을 때 그대의 죽음을 생각할 지어다(부카리). (최영길, 하디스 40선 해설, 신행사, 1982, p.175)

34-1) ① 언제 심판의 날이 도래 할 것인가?

② 구름과 비를 구성 하는 것

③ 생명의 탄생

④ 매일 매일의 육체적 생활

⑤ 죽음등에 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제32장 수라트 싸즈다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30절로 전장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인 창조주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 내세와 성서들 그리고 선지자들 및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루고 있다. 창조의 신비, 종말과 내세의 신비는 외적 형상으로 나타나 있기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그리고 겸허한 예배와 기도생활을 통해서 그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영적 축복받을 수 있다. 그 축복은 비가 내려 죽은 땅이 생동하는 것과 같다는 교훈이 제1절~30절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본 장이 알리프. 람. 밈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장이기도 하다. 본 장이 '싸즈다' 장이라 불리게 된 것은 본 장 15절에 있듯이 창조주에 대한 가장 겸허한 자세는 엎드려 예배보는 것(싸즈다)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말씀이 낭송될 때 우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부복(싸즈다)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도다"(본장 제15절).

1-1) 제2장 1절 참조
2-1) 꾸란
3-1) 무함마드
2) 무함마드가 꾸란을 기록한 것이라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으나 꾸란은 무함마드에 의해서 기록될 수 없었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는 것은 다음 사항으로 보아 분명한 사실이다.
첫째, 꾸라이쉬족이나 무함마드를 비난했던 어느 누구도 그가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둘째, 그는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문맹인이었기 때문에 무함마드가 그 성서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며,
셋째, 무함마드를 통하여 말씀이 계시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결정적 요인이 있었다.
모세와,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구약 및 신약이 위정자들에 의해 오역이 되었거나 창조주의 말씀을 삭제 및 때로는 말씀을 증가하여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어 새로운 신의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고 인류 공동체에 선지자를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4-1) 제7장 54절 참조.
눈 깜박할 사이에 충분히 창조 할 수 있었으나 뜻이 있어 6일 동안에 걸쳐 창조하였으니 서둘지 아니함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싼은 해석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2권 op. cit, p.36).창조기간은 창조한 첫째 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6일간으로 풀이되고 있다(Tafsir Al-Jalallain, Maktaba Al-Millah Dimasq, p.548).
2) 창조주의 벌을 막아줄 보호자가 창조주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중재할 수 없는 중재자.
7-1) 아담
10-1)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2)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
11-1) 죽음을 담당하는 천사는 이즈라엘 천사로 알려지고 있다.
15-1) 숫자단 : 부복하여, 엎드려가 그 언어적인 뜻으로 최대의 겸손과 깊은 신앙의

표현이다. 본장이 싸즈다라 불리우게 된 동기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16-1) 밤늦게 잠을 자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해설가들은 한밤중 이후 아침 시각에 들기 전에 12 라카아를 드리는 예배인 타하주드를 가르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7-1) 꾸르라트 아이유니 : 눈의 기쁨, 눈을 위한 위로, 등의 언어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디엄으로 최대의 기쁨과 최대의 만족을 주는 관용구로 사용된다.
18-1) 믿음을 가진 신앙인과 믿음을 갖지 않는 불신자가 현세에서 보상이 같지 아니하듯 내세에서의 보상도 결코 같을 수 없나니
21-1) 최후의 벌은 내세에서 온다는 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세의 벌 즉 심판이 이르기 전에 현세에 사는 동안 조그마한 재앙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물론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큰 마음의 상처나 슬픔일 수도 있다. 이러한 조그마한 재앙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회개할 기회이다.
23-1) 구약성서(타우라)
2) 리까이히에서 "리까이"는 만나다 라는 뜻이나 접미어 "히(hi)"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다. 첫번째 견해는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성서를 가르키는 접미대명사로 보는 견해와 두번째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이스라 밤 하늘에 승천하여 만난 모세로 보는 견해다(Muhammad Al-Mualim, op. cit, p.469).
24-1) 이스라엘 자손중에서
25-1) 종교, 부활 및 보상과 응벌에 관하여 신앙인들과 불신자들간에 의견이 달랐다고 따바리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71/21).

제33장 수라트 알아흐잡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73절로 이슬람 공동체 생활에 관한 이슬람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무슬림의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을 언급하면서 사회생활의 근본이 되는 가족에 관한 규범을 자세히 다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에서 벗어난 전통과 관습 그리고 미신을 배격하고 있다. 본 장의 개요를 크게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침서 및 이슬람의 예의

둘째: 규범과 이슬람법

셋째: 아흐잡과 바니 꾸라이자의 침략에 관한 이야기

메카 꾸라이쉬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무슬림들을 중상 모략하고 박해하였다. 그래서 일부 무슬림들은 에티오피아(Abyssinia)로 그리고 일부는 메디나로 떠났다. 이것을 이주(Hijrah)라고 한다.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충돌은 이슬람력 2년 9월 라마단 달 바드르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 전투에서 꾸라이쉬족의 군부대는 완전 패배하였다(제3장 13절). 메카 꾸라이쉬족은 바드르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슬람력 3년 10월 샤왈 달에 메디나를 공격하여 왔다. 메디나 근교 우흐드에서 전투가 벌어졌다하여 우흐드 전투라 하는데 이 전투에서 메카 꾸라이쉬 군대가 무슬림 군대에 심각한 피해를 주긴하였지만 꾸라이쉬족의 군부대는 패망하여 다시 메카로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이슬람력 5년 10월 샤왈 달과 11월 둘까으다 달에 1만명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구성하여 메디나를 공격하여 포위였다(제33장 9～27절). 이 포위상태는 2～3주간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무슬림 병사들은 고통과 굶주림 그리고 추위 속에서 끊임없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화살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투 역시 연합군의 패배로 끝났으며 그 이후 이슬람의 세력은 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명령에 의해 살만 알파라씨가 구축한 참호(Khandaq) 덕분이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참호전쟁 또는 연합군의 전쟁(Gazawah Al Ahzab)이라고도 불리운다.

한편 선지자 무함마드의 부인들 및 무슬림 여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험담과 모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여성들의 위치를 지켜나갔다. 특히 무함마드의 부인들은 스스로 사회 봉사에 앞장서서 여성 무슬림 교육에 헌신하면서 여성 무슬림들의 사회봉사를 증대시켜나갔다. 자이납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부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전쟁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병사들과 무슬림들을 위한 간호가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는 19살로 이슬람력 3년 우흐드 전투에서 아버지를 간호했고, 루파이다는 이슬람력 5년 연합군에 의해 메디나가 포위되었을 때 상처를 입은 싸아드 이븐 무아즈를 간호하였다. 이슬람력 7년 카이바르 원정 때에도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참전하여 봉사하였다.

미신적 관습은 제거되어야 하며 남성과 여성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명예와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 1~8절 사이에서, 9~27절 사이에서는 참호전과 그 교훈이, 28~52절 사이에서는 선지자 무함마드 아내들의 위치와 품행이, 53~73절 사이에서는 선지자의 가문을 존경하는 것은 무슬림의 의무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본 장이 '아흐잡'(연합 또는 동맹)이라 불리우게 된 동기는 불신자들이 연합하여 무슬림들을 공격하였다 하여 「아흐잡」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2권 op.cit, p.45).

1-1) 헤즈라 5년째 되는 해는 이슬람 초기 역사에서 외적으로 중요한 한해였다. 그래서 본장을 이해하는데는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장 서문에서 설명했듯이 대규모의 부족 연합군이 이슬람에 반대하여 메디나를 침공하였으나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 연합군은 메카 꾸라이쉬 불신자들과 중앙 아라비아의 사막 유목민들, 반역행위로 메디나로부터 추방당했던 유대인들, 메디나 안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압둘라 이븐 우바이가 이끄는 위선자들(제4장 43-110절 참조)로 구성되어 있었다.이들이 연합한 목적은 이슬람을 증오하고 이슬람에 대적하기 위해서였으나 그들의 목적은 실패하고 말았다.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3가지 요점은,

첫째, 유대인들은 이슬람을 수호할 그들의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였다. 그들 대다수는 이미 하나님의 메세지가 다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째, 믿는 여성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아이샤에 대한 중상모략이 있은 후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정에 하나의 명예가 주어졌으니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이란 칭호였다.

셋째, 자이나브의 이야기에 근거를 둔 성관계의 순결이 제시되었으며 자이나브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란 명예를 얻게 되었다.

4-1) 본절은 교만한 꾸라이쉬족 가운데 한 남자에 관하여 계시된 것으로 "그는 그의 몸 안에 두 개의 심장이 있어 그 두 심장 각각은 무함마드의 심장보다 그 지혜로움이 우월하다고 주장했을 때 내려진 계시라고 "무자히드"는 풀이하고 있다 (알꾸르뚜비 116/14).

2) 이것은 사악한 옛 아랍관습의 하나로 남편은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그의 아내로부터 아내로써의 권리를 박탈하곤 하였다. 그렇게 하여 아내에게 재혼할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의 노예처럼 자기에게 부속시켜 놓았다. 이것은 "아내는 그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러한 종속관계가 발생하였다. 그 후엔 그 여성은 부인으로써의 권리도 요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재혼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폐습은 용서 될 수 없는 것으로 가장 엄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절의 내용이다.

3) 양자로 택한 아들은 자기가 낳은 자손이 아니므로 자기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아들을 자기 자손이라 한다는 것은 진리가 진리

아니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리와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이다.

5-1) 노예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상실하여 자기 아버지의 본 이름을 찾아 낼 수 없을 경우 아들 또는 자손이란 용어 대신 가까운 우정관계를 의미하는 ～의 "마울라"라는 용어로 부르거나 형제(Broth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교훈으로 본다.

2) 그를 낳아 준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믿음을 가진 형제나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이 의도적일 때는 죄악임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6-1) 예언자 및 선지자들은 정신적 관계에서 타인을 사랑함이 자기 자신과 그의 혈육관계에 있는 자들보다 더 커야 하며 이때 신앙인들은 정신적 지도자로써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으로 본다.

2) 혈육관계에 있는 이들은 상속을 받음에 있어 무하지린과 안사리에 우선한다는 것이며,

3) 그러나 무하지린 및 안사르 그리고 그들에게도 유산의 분배가 허용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7-1) 제3장 81절 참조 및 비교

2) 연대 순으로 선지자들의 이름이 계시되지 아니하고 무함마드의 이름이 선행되어 계시된 것은 무함마드의 임무에 대한 은혜 때문이라고 바위돠위는 풀이하고 있다(알바위돠위 114/1).

8-1) 부활의 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들 백성들에게 메세지를 전한 것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함이요.

9-1) 꾸레이쉬, 가뜨판, 꾸라이자 유대인과 바니 나디르 부족으로 구성된 연합군

2) 그 당시로써는 대 부대인 1-2만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이끌고 공격하여 왔다. 헤즈라 5년 메디나에서 있었던 칸다크 전투를 말한다.

10-1) 동쪽으로부터는 아싸드와 가뜨판이 이끄는 군대가 계속 위에서 공격하여 왔고

2) 서쪽으로부터는 꾸라이쉬, 카나나, 아우바스 군대가 공격하여 왔으며 여기에 바니 꾸라이자가 합세 하였다.

12-1) 「무으타브 이븐 까쉬르」는 말하길, "무함마드는 페르시아와 로마를 정복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일개 분대를 퇴치할 능력이 없으니 무함마드는 우리를 기만하지 아니했는가?"라고 하였다(알씨위가 전함).

13-1) 아우쓰 바니 꾸라이자 및 우바이 이븐 쑬룰과 그들을 따랐던 위선자들

2) 메디나 도시의 옛 이름

3) 메디나 시 외곽 참호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던 중 일부 위선자들은 시내의 자기 집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도주하려 하였다.

14-1) 위선자들

15-1) 칸다크 전투 이전 그리고 바드르 전투 이후 위선자들은 전투에서 도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으니 실 때 누가

18-1) 무함마드를 따르지도 말고 그와 함께 전투에 임하지도 말라고 말한 위선자들을

2) 그들 위선자들이 잠시 전투에 임한 것은 그들의 신앙에서가 아니라 위선에 불과했도다.

19-1) 전투 및 전쟁

2)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만을 위해 믿는 척하였던 위선자들이었을 뿐이다.

20-1) 위선자들

2) 싸우지 아니하고 피하기 위하여 메디나에 남지 아니하고 사막으로 도망가서

3) 어느쪽이 승리하였는지를 탐지하려 할 뿐

22-1) 불신자들로 구성된 연합군

2)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의 시련은 하나의 시험으로 그 시험에 인내할 때 적에 대

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선지자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약속하셨느니라.

23-1) 전쟁이 발발하면 선지자와 함께 순교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는 신앙인들

2) 아나쓰 이브누 나디르와 함자처럼 순교할 것을 맹세하고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신앙인들

26-1) 연합군

2) 불신자들을 도와 준 바누 꾸라이자 유대인들

3) 800~900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음

4) 여성과 아이들

본 절은 바니 꾸라이자 유대인에 대하여 계시된 절로써 바니 꾸라이자는 선지자 무함마드와의 성약을 위반하고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에게 합세 하였다. 한편 이들 불신자들이 패배하자 이들 꾸레이쉬족은 메디나로부터 도주하였고 꾸라이자는 포위되어 사아드 이븐 무아즈 판결이 적용되었으며 남자들은 살해되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포로가 되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2권 op. cit, p.57).

싸아드 이븐 무아즈는 유대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온화한 판결을 적용하였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신명기, 22장 13-14절) 그래서 바니 꾸라이자 부족의 남성들은 살해되었고 여성들은 전쟁 포로로서 팔려갔으며 그들의 영토와 재산은 무하지린 사이에 분배되었다(Abdullah Y. Ali, op. cit, p.112 Note No.3704).

27-1) 바니 꾸라이자

2) 바니 꾸라이자를 패배시킨 후 정복한 카이바르 지역,카이바르는 메디나 도시 북쪽으로 90마일쯤에 위치하고 있다.

28-1) 선지자 무함마드의 순결한 배우자들(아즈와즈 무따따하라)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무함마드의 첫번째 결혼은 무함마드의 나이 25세 되었을 때 그보다 15세 위인 카디자와 결혼 하였다. 카디자는 여성 중의 여성으로써 그리고 아내 중의 아내로써의 역할을 다하였다. 물론 이때는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기 전이 일이었다. 이들의 결혼생활 25년은 상호 헌신한 가장 고상한 부부생활의 기간으로 정신적 사회적 모범이 되었다. 한편 싸우다 같은 미망인은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되었다. 제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의 딸 아이샤는 여성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의 지도자로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꾸자이마 딸 자이나브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하쉬의 딸 자이나브 등은 그 공동사회의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다하였다.

30-1) 큰 죄악이나 한계(핫드)를 넘어선 죄악, 이브누 압바스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양이 없는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2) 일반 여성에게 주어지는 벌보다 2배 이상의 벌이 주어지니

32-1) 선지자의 부인들은 일반여성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결혼이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들 선지자의 부인들은 이슬람으로 귀의한 새로운 무슬림 여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책임이 있었다. 이슬람은 생활의 한 방법이며 무슬림은 한 가정의 일원이다. 가정을 지킨다는 점에서 남성 못지않게 여성의 위치가 높고 크다.

33-1) 이슬람 이전의 시대

2)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족을 일컫는 것으로 딸인 파티마, 사위인 알리, 손자 하싼과 후세인을 가르킴

35-1) 이슬람의 미덕을 제시하고 있는 절로서 다음 9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① 하나님에의 믿음과 그분에게의 의탁 그리고 소망
② 실생활에서의 헌신과 봉사
③ 사랑과 실천
④ 인내
⑤ 겸손
⑥ 자선
⑦ 자기 극복 및 자제
⑧ 순결한 성생활
⑨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열중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36-1) 본 절은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결정하거나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결정을 위반해서도 아니 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선택권이 없다고 풀이되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97/3).

37-1) 제이드를 종의 굴레에서 자유의 몸으로 하여 준 것 즉 "제이드 이븐 하리싸"는 암흑시대(자힐리야)의 한 소년이었다. 그런데 "카디자"는 그를 사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그를 이슬람으로 귀의시켜 양자로 한 후 그를 "자하쉬"의 딸 자이나브와 결혼시켰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2권 op. cit, p.62).

2) 처음에 이슬람에 귀의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리싸의 아들 제이드로, 제이드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종으로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또한 선지자는 그를 아들처럼 사랑하여 조카 딸 자이나브를 그에게 결혼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 결혼은 불행하게 되었으니….

3) 제이드는 헤즈라 8년 전 메카에서 선지자 무함마드의 조카인 자흐쉬의 딸 자이나브와 결혼을 하였으나 행복한 생활이 되지 못했다.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이나브는 하인이었다가 자유의 몸이 된 제이드를 멸시 하였다. 그 두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이들 또한 선지자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상호상반된 점이 있었으니 이것이 결혼생활에 치명적이었다. 제이드는 그녀와 이혼하려 하였으나 선지자께서는 이를 말렸고 제이드는 그에 따랐다. 자이나브는 선지자의 가까운 친척이었고 또 제이드와 결혼을 위해 훌륭한 결혼선물도 주었다. 그래서 그 결혼이 파혼되면 자이나브의 명예가 파멸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 것이 선지자 무함마드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되었다.

4) "이딛트" 즉 이혼 이후 재혼하기 전에 기다려야 할 법정기간을 의미한다(최영길 이슬람의 생활규범, op. cit, p.335-339 참조).

38-1) 하나님의 순나란 "무함마드 이전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 허락을 하여 주었던 것처럼"이란 뜻이다. 다윗에게는 100명의 여자와, 솔로몬에게는 300명의 여자와 결혼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뜻으로「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195/14).

40-1) 선지자 무함마드가 "자이나브"와 결혼을 했을 때 사람들은 말하길 "무함마드는 그의 아들의 부인과 결혼했다"고하면서 험담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티르미지」는 전하고 있다.

2) 무함마드 이후에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오지 아니 한다는 계시로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이며 꾸란이 최후로 완성된 하나님의 성서임을 말해주고 있다.

43-1)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은혜는
① 증인으로써, ② 복음의 전달자, ③ 경고자, ④ 모든 백성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초청자로써, ⑤ 어두운 길을 밝혀 주는 등불로 풀이된다(아흐잡 45, 46절 참조).

44-1) 천국에 들어온 신앙인들의 인사

45-1) 모든 공동체에 대한 증인

2) 신앙인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전달자로써,

3) 불신자들에게는 불지옥이 있다는 경고자로써

49-1) "이닫트"는 이혼한 여성이 재혼하기 전 기다려야 할 법정기간으로 3개월이나, 동침하기 전에 이혼을 하였을 경우는 임신의 여부가 없으므로 기다려야 할 필요성이 없이 바로 재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영길. 이슬람의 생활규범, op. cit, p.335-337).

2) 지참금 절반 이상(제2장 237절 참조)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참금이 결정되지 아니 했으면 큰 선물 등으로 보상해야 한다(제2장 236절 참조).

50-1) 사회를 구제하고 선교의 수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는 아홉 부류의 부인이 허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2권 op. cit, p.66).

2) 결혼할 때 무슬림은 여성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슬람의 결혼이다(제4장 4절 참조). 마찬가지로 선지자 무함마드도 지참금을 지불할 것은 다른 무슬림과 차이가 없지만 4명 이상의 여성과는 결혼 할 수 없다는 일반 무슬림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이(제4장 3절) 선지자에게는 제한이 되지 아니했다.

3) 불신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어지는 여성들

4) 선지자 무함마드와 함께 이주(히즈라)하여온 삼촌의 딸, 고모의 딸, 외삼촌의 딸, 외숙모의 딸과도 결혼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하나님과 선지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스스로를 위탁한 여성들을 의미하며,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움무 알마씨킨)라고 불리우는 "쿠자이마" 딸 "자이나브"와 무함마드의 삼촌 "압둘 무딸립"의 딸 "자이나브 빈트 자흐쉬" 두 여성 외에는 하나님과 선지자를 위해 스스로를 의탁했던 다른 여성들은 없었던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6) 무슬림 남성이 무슬림 여성에게 결혼할 때 지참금(마흐르)을 지불해야 되나 선지자 무함마드는 하나님께서 제외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무슬림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제2장 221-235절 사이, 제4장 3-4절, 19-25절, 34-35절 참조.

7) 일반 무슬림이 해야 할 의무 즉 결혼할 여성에게 지불해야 할 자선금, 지참금, 약혼식 및 결혼식 때의 증인, 4명 이상 부인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등

52-1) 허용된 9명의 부인

2) 본절은 헤즈라 7년에 계시되었으며 그 이후 선지자 무함마드는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애굽의 기독교인 "무까우까쓰"가 선물로 보낸 꼽트 기독교인이었던 하녀 "마리아"는 제외되었다. 마리아는 아브라함을 낳았으나 어려서 죽고 말았다(Abdullah Y. Ali, op. cit, p.1123 Note No.3754).

53-1) 사회적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절은 다음 6가지 사항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① 친구의 집도 허락을 얻은 후 들어가는 것이 예의이며
② 식사에 초대 받았을 때 너무 일찍 가서 음식을 기다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③ 초대받아 약속된 시간에 그곳에 도착되어 있어야 하며
④ 식사 후 어느 주인과 너무 많은 환담을 피하는 것 특히 주인 자리와 손님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많은 환담을 피하는 것이 예의이며
⑤ 너무 오래 체류하여 주인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⑥ 주인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를 이해하여 주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55-1) 베일을 쓰지 아니해도

56-1) 선지자의 이름이 언급될 때 "알라 홈마 쌀리 알라 무함마드 와알리히 와 쌀람 타쓸리만 카씨란"(주여, 무함마드와 그리고 그분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평안함을 주옵소서) 또는 "알라 홈마 쌀리 알라 무함마드 와 알라 알리 무함마드 카마 쌀라이타 알라 이브라힘…"(주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듯이 무함마드와 그리고 그분의 가족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인사하는 것이 선지자에 대한 예의로 풀이 되고 있다.

59-1) 질라바브 : 몸 전체를 감추게 하는 또는 목에서 가슴을 가리는 넓은 옷을 가리킨다. 외출할 때 이 넓은 옷으로 여성의 몸을 가리우는 것은 여성의 노출된 부분이 가리워지므로써 남성으로부터의 유혹과 간음을 예방하는데 있다.
2) 여성의 순결을 보호하고 공동사회의 윤리를 파괴하는 간음을 예방하는 것으로 남성은 여성에 대한 어떠한 유혹이나 간음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이다.
60-1) 그 도시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거주했던 메디나를 가르키며 메디나에 거주했던 위선자들은 교사 선동 하는가 하면 여성에 대한 간음 그리고 풍문을 퍼뜨리곤 하였다.
63-1) 심판의 날과 내세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69-1) 모세의 백성들은 종종 모세를 괴롭히고 험담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역행되는 언사를 하곤 하였다. 민수기 제12장 1절과 8절-13절 사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민수기 12장 1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따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느니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민수기 12장 8절-13절).
이처럼 모세가 그의 백성으로부터 험담을 들었던 것처럼 선지자 무함마드도 "자흐쉬"의 딸 자이나브 와의 결혼으로 험담을 들었다.
72-1) 우두, 대정, 예배, 회사, 단식, 성지순례 등 그밖의 의무들을 제시했으나 그것들은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보였다. 즉 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의 사항이었기에 수행 할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라 이해된다.
2) 아담
3) 산이나 대지는 하나님 창조목적에만 순종할 뿐으로 창조주가 산이나 대지에게 예배, 회사, 단식… 같은 행할 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주어진 임무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임무는 수행할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은 오히려 그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인간ㅇ조 목적에 벗어난 일를 선택하여 행하므로서 정직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제34장 수라트 싸바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54절로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의 일위일체의 하나님, 선지자의 도래 및 부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30절에서는 선과 진리는 영원한 것이나 인간의 권력과 번영은 덧없이 지나가 버리나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는 영원하여 심판의 날 모든 인간에게 그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다는 교훈이, 제31~54절에서는 믿음과 불신은 인간의 위치를 결정짓게 되는데 허위는 무능하나 진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였다.

본 장이 '싸바아' 라고 불려지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싸바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3권 op. cit, p.3). 싸

바아는 예멘의 옛 왕국의 이름으로 이 왕국의 백성들은 축복과 번영과 형제애 속에서 기쁘고 화목하게 살았다. 그런데 머지않아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불신하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 주었던 '마으리브' 저수지를 붕괴하여 사악한 그들을 멸망시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 되게 하였다.

2-1) 땅 속에 묻혀 있는 모든 것 : 물, 보물, 지하자원…
2) 땅에서 재배되는 모든 것 : 곡식, 식물, 우물, 샘…
3) 비가 내리고, 천사들이 강림하고 은혜가 내리고…
4) 지상에 거주하는 동안 인간이 행한 선행들과 진실한 예배와 기도…
3-1)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부활이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자들은 조롱하고 있다고 바위돠위는 풀이하고 있다(알바위돠위 122/2).
2) 하나님께서 사실에 대해 선지자로 하여금 맹세하도록 한 3가지 중의 하나로 두번째는 요한(유누스)에 있었던 것이고, 세번째는 부활에 관한 것이다(이브누 카씨르 알무크타싸르 121/3).
6-1)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을 따랐던 추종자들과 학자들
2)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
7-1) 인간이 죽어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흩어져 없어진 후
2) 죽은 후 다시 부활되리라.
3) 심판의 날과 부활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조롱하여 일컫는 절로 풀이된다.
8-1) 무함마드에 대한 불신자들의 조롱
2)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써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여 주고 있다.
9-1) 까룬에게 그러했듯이
2) 아이카의 우두머리들에게 그러했듯이
3) 정신세계가 건전하지 못하여 어두운 영역을 걷고 있는 인간은 언제나 심판의 날과 내세를 비웃고 조롱한다. 그 까닭은 그들이 살고 있는 우주의 창조와 그 안에 펼쳐진 삼라만상을 창조
10-1)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로서는 : 예언자로써 선택한 은혜, 그리고 시편을 계시받은 은혜, 산과 새들로 하여금 그에게 순종케 하고 쇠를 녹여 갑옷을 만들도록 지혜를 받은 은혜 등이 있다(제21장 79-80절 참조).
2) 다윗은 쇠를 다루매 마치 반죽처럼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쇠를 불 속에 달구어 쇠망치로 때릴 필요가 없었다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
11-1) 다윗은 쇠를 반죽하여 다루기를 불 위에 놓인 초를 다루듯 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라. 그리하여 다윗은 철을 다루어 갑옷을 만든 최초의 인간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3권 op. cit, p.7).
12-1) 본 절에서의 영마는 솔로몬의 감독과 지휘아래 신전을 짓던 기술이 뛰어난 노동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Abdullah Y. Ali, op. cit, p.1137 Note No.3805). 제27장 17절 참조
13-1) 영마(Jinn)들
2) 솔로몬
3)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장소를 변경시킬 수도 없는 큰 솥(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124/3).
14-1) 그들 영마들이 오랜 기간동안 일하였던 힘겨운 노동.
15-1) 싸바아(지금의 예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불신자들을 멸망케 하여 그후 세대들을 위한 교훈으로 하였던 것으로 본다.
2) 솔로몬과 빌르끼스 여왕 시대에 예멘의 이곳은 번성하였다. 특히 "마아리브"

댐의 도움으로 모든 곡식과 과수가 풍성하였으니 이들 주민들의 생활 또한 풍요로웠고 그 댐의 양쪽 주변에는 나무가 무성하여 경치 또한 아름다웠다.

16-1)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커다란 은혜를 망각하며 선지자들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홍수로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정원을 불모지로 만들어 버렸다.

17-1) 불신자 외에는 벌을 받지 아니하니 신앙인은 그의 잘못을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나 불신자들은 그의 사악한 행위마다 그에 대한 벌을 받기 때문이라고 무자히드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샤프 455/3).

18-1) 샴 :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 등을 가르킨다.

2) 예멘과 샴 지역을 왕래하는 대상이나 여행객들이 밤이 되면 그곳에서 머물러 쉬었다 갈 수 있는 고을로 풀이되고 있다.

19-1) 싸바아의 이야기는 은혜를 불신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적인 교훈이다.

21-1) 이블리스

22-1) 하나님 유일신 외에 불신자들이 믿는 우상들.

26-1) 공정하게 판결하사 천국에 드는 자와 지옥에 드는 자로 구별하시는 절대적인 분

29-1) 불신자들

2) 예언자 및 믿는 사람들

32-1) 복음

34-1) 그 고을의 불신자 우두머리

37-1) 줄파 : 가까이 두다.

2)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선을 베푸는 믿음이 건전한 자라는 것이다.

45-1) 성서의 백성들(유대인 및 기독교인) 그리고 싸바아(예멘)의 백성, 아드와 사무드의 백성들은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부를 이교도인 꾸라이쉬족보다 10배 이상 누렸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를 거두어 가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는가! 이것은 바로 선지자 무함마드의 후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에 순응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46-1) 본장의 46절-50절에 걸쳐 선지자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으나 선지자는 그분의 성실과 진리로써불신자들의 논쟁에 대처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언자는 제 정신을 벗어나지 아니했고 어떤 마술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예언자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메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무서운 정신적 경고를 할 수 있는 인간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뿐이다.

47-1) 두번째 논쟁은 예언자가 불신자들로부터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세지는 그들 스스로를 위한 복음이다. 예언자는 박해와 모욕을 감내할 의지가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48-1)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광대하여 인간으로써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의 은혜로 그 분의 종을 선택하였으니 그의 백성들을 가르키기에 충분함을 그들은 알고도 남으리라. 예언자도 영감의 신비를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다. 이것이 3번째 논쟁이었다.

49-1) 4번째의 논쟁은 진리가 최후라는 것이다. 진리는 흥망성쇠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사실이다. 이따금 진리가 패배한 것처럼 나타날 지는 모르지만 그 진리는 다시 돌아와 진리의 균형을 회복한다. 그러나 위선과 허위는 그렇지 못하다. 위선과 허위의 속성은 멸망할 운명에 있기 때문이다(제17장 81절 참조).

선지자 무함마드의 신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판명되었고 그 분의 신뢰는 물

론 메카에서 말씀이 계시되기 전부터 분명한 사실이지만 메디나에서 이슬람이 발전함으로써 전 세계에 더 확고히 나타났다.

50-1) 예언자가 스스로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볼 때 그것은 단지 그에게만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틀림없이 그분의 인격에도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개성과 믿음은 불변하였으며, 오히려 더욱 강하여져 친척과 이웃과 백성을 사랑하고 계속 헌신했다. 그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겠는가? 이것은 본 장에 있어서 마지막 5번째의 논쟁이다.

51-1) 진리와 사실이 승리한다는 논쟁이 있은 후 진리가 정립될 때 그 진리를 외면하고 억압했던 이들의 위치를 인간은 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이 때 그들은 그 상황과 위치에서 도피하려 할 것이나 이미 때가 늦어 불가능하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굴레를 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2-1) 그들이 이제사 진리를 믿겠다고 고백할 것이라 말할지도 모르나 그들 고백의 진가는 무엇이겠는가. 이미 모든 것은 분명하며, 그들 앞에 개방되어 있다. 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소원하다.

53-1) 그들은 창조주의 영역인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전파자 즉 예언자 및 선지자들에 대하여 갖가지 허위와 위선 그리고 악을 퍼트렸다.

54-1) 본문 51-54절은 진리와 부정 사이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즉 내세에서의 영원한 위치와 현세 삶의 비교와 메디나에서 이슬람의 승리와 메카 초기 이슬람에 대한 학대, 세계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리는 항상 부정에 대하여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진리를 감추고 그들의 사악함과 현세적 권세와 이익에 동참시키려 하나 그들은 양쪽 다 좌절될 것이며, 그들의 의도와 행위는 스스로 분노와 벌을 자초할 것이다. 정의와 허위, 진리와 부정 사이의 영원한 갈등 속에는 그것을 가름하여 주는 창조주의 섭리와 법이 있기 때문이다.

3) 제14장 9절 참조

제35장 수라트 파뜨르

본 장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하기 바로 직전에 메카에서 계시된 45절로 메카에서 계시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 만큼 이슬람의 기본원리, 즉 하나님의 유일성을 촉구하고 창조주 존재에 대한 예증의 확립 및 우상숭배의 멸망 등을 다루면서 마음의 순화와 윤리를 촉구하고 있다.

창조주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우주만물의 창조, 천사와 인간 그리고 영마의 창조와 부활에 대한 예증의 확립 등을 제1~26절에서, 암흑과 광명, 열사와 그늘, 장님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불신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벌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제27~45절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다.

'파티르'는 하나님의 99개 속성 중의 하나로 그 뜻은 창조주란 의미이다. 본 장이 '파티르'(창조주)라 일컬어지게 된 동기는 본 장이 주로 창조에 관한 말씀이 계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3권 op.cit, p.23).

1-1) 인간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권능이 선을 위해서 수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2) 본 절에서의 "파띠르"는 초기의 창조를 의미하면서 그 이후의 창조과정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더하여 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를 무한정으로 더해 가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3) 천사들이 둘 또는 셋 또는 넷의 날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아니라 한 쌍의 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낸 전령들로서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만 행할 뿐 자유의사에 따라 행하는 능력이 주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2-1)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써 그리고 모든 일용할 양식의 수여자이며, 또한 모든 피조물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여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저지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이다.그분은 그분의 의지와 계획과 목적이 있을 때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수행한다. 어떤 피조물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4-1) 진리를 거역하고 허위를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었으며 또 있을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좌절되지 아니한다. 최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귀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한다.

5-1) 본장 3절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기준을 두었고 본절에서는 미래에 기준을 두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한 인간은 현재 살아가고 있으나 미래에는 또다시 그분에게로 귀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국과 지옥을 약속하셨으며, 이 두 약속은 수행되어 진다는 것을 인간은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어느 쪽의 약속을 따라야 할 것인가?

6-1) 사탄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므로 적으로써 대하여야 한다. 이따금 사탄은 스스로를 위장하여 친구로써, 또는 같은 부류인 것처럼 다가온다.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 또는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역시 마찬가지의 부류이다.

7-1)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곧 모든 은혜와 선을 저버리는 것이다.

10-1) 가장 크게 대조되는 것은 선과 악이다. 선은 결코 손실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옥좌 앞으로 이르게 되며 이때 말과 행동에서 가장 겸손했던 선이 가장 높은 곳에 머무르게 된다.

2) 음모는 사탄의 근성이며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

11-1) 인간 육신의 근원은 흙에서 빚어 만들어진 보잘것 없는 것이며, 인간이 부끄러워 하고 수줍어 하는 곳에서 나온 정액의 결합으로 태어난 인간 또한 다를 바 없어 인간으로부터 완전함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영광과 권능과 권세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안에 홀로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제18장 37절, 22장 5절, 30장 20절 참고 및 비교).

2) 인간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신비와 비밀 등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인간에게 불가사의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 탄생하는 신비(31장 34절 참조), 성(Sex)의 신비, 삶과 죽음의 신비, 그밖의 모든 신비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신비를 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다.

3) 인간의 지식은 노력으로써 얻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인간에게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과 달라 그분에게 짐이 되지 아니한다(33장 19절 및 30절 참조).

12-1) 바다의 물과 강이나 호수 그리고 지하의 모든 물은 계속적인 자연운행에 따라 만나게 된다. 바닷물이 증발하여 하늘에서 구름으로 만나게 되기도 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 만나기도 한다(제25장 53절 참조).

2) 바다와 강, 그리고 호수에서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다. 대다수의 물고기는 신선하고 부드러웠으며, 그 중에는 독특한 맛과 향기를 주는 생선도 있다(제16장 14절

참조).

13-1)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고 달은 그 빛을 받아 인간을 위해 낮과 밤을 비추어 준다. 태양은 계절을 만들어 주고 열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며 모든 생물에게 기본적 양식의 원소를 제공한다. 태양과 달은 이미 고정된 운행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두신 일정기간 안에서이다.

2)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그리고 영광은 몇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려 하는 어리석은 무지는 인간을 위선과 유혹의 길로 유인하여 진리로부터 더욱 멀게 한다.

3) "끼뜨미르"는 종려나무를 싸고 있는 엷다랗고 하얀 세포질로 본문 해설에서 "지푸라기"로 표현하였다. 즉 아무 가치가 없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14-1) 우상은 어떠한 목적도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한다. 그래서 우상숭배자의 기도와 구원에 답하여 줄 수가 없다.

2) 진리가 회복될 때 모든 위선과 허위는 멸망한다. 그런데 어이하여 현세생활의 삶에서 진리를 따라 진실한 은혜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가?

17-1) "아지즈"는 창조주의 무한한 창조능력을 의미한다.

18-1) 자신의 책임과 죄악은 타인에게 전가될 수 없으며, 또 전가되지도 않는다. 부모가 아들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다.

19-1) 믿는 사람(무으민)과 믿지 아니한 불신자(카피르)를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20-1) 믿음과 불신은 빛과 암흑에 비유된다.

21-1) 진리와 부정이 같지 아니하고 복음과 방황함이 같지 아니함은 시원한 그늘과 작렬하는 열사가 같지 않다는 것을 비유함으로써 천국과 지옥이 다르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22-1) 단계적으로 비유되고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앞을 보는 사람, 암흑과 빛, 그늘과 열사, 그리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비유하고 있다.

23-1) 예언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도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며 일상생활 속에서 유혹되기 쉬운 사탄의 사악함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예언자는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수락하고 메세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

25-1) 본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이러한 불신은 무함마드에게만 있었던 불신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계시되었던 성서들 즉 구약(타우라), 신약(인질), 시편(자부르)이 계시되었을 때도 불신자 및 위선자들은 예언자들을 불신했다.29-1) "티자라"는 무역, 거래, 상업이란 뜻이나 본절에서는 비유되어 표현되고 있다. 훌륭한 사람들의 자선은 그가 쓰고 남은 잉여분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그에게 부여한 것으로도 자선을 베푼다. 본 절은 다음 2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의 재산은 영원한 절대적인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기간 그에게 위탁한 것이다.

둘째, 그 재산의 일부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대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인이 그의 재산을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얻듯이 인간은 그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 사업에 투자할 때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30-1) 완전한 인간은 없다. 그래서 누구든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의 최선을 다하려 노력할 때 그의 결점들은 제거되어 실수를 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대우를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31-1) 선지자 무함마드 이전에 계시되었던 모든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꾸란은 계시된 모든 성서의 원본을 그대로 확증하고 있다.

32-1) 마지막 선지자로 선택받은 무함마드

2) 꾸란

3) 인간
33-1) "잔나트"는 "잔나"의 복수형으로 천국이나 낙원 또는 정원 등으로 해석되나 여기서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복수형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천국이 하나 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피르다우스 천국, 에덴의 천국, 나임 천국, 마으와 천국, 칼라드 천국, 쌀람 천국, 일리인 천국 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3권 op. cit, p.37).
34-1) 본장 30절에서 "하나님은 관대하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도다"라고 계시되었다. 본 절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은 목적에 이르러 약속된 것이 사실임을 발견했으며, 그들의 희망은 달성되었으며 그들의 슬픔도 끝났다(제35절 30절 참조).
35-1) "다루 알마까마" : "다루"는 "집", "마까마"는 체류, 즉 체류하는 집은 곧 천국을 가리키고 있다.
2) "나싸브"는 육체적 피로
3) "루구브"는 육체적 피로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를 의미한다.
36-1) "나르"는 불지옥으로 "잔나"(천국)의 반대 개념이다. 천국은 안락하고 평안하며 모든 것이 만족하나 지옥은 불안과 고통과 고난과 수치뿐이며, 천국의 모든 것이 영원하듯 지옥의 모든 것도 영원하다.
37-1) "슈와이브"라고도 전하여 지고 있으나 본 절에서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8-1) 본 절에서는 불신자들이 불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앞절에 대한 강조로서, 그들을 다시 현세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은 선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 하여도 그들은 금지되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니라"(꾸르뚜비 355/22)
39-1) "칼리파"는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지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써, 둘째는 이전 전세대의 계승자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제6장 165절 참조).
40-1) "아 라아이툼"에서 "아"라는 의문사는 불신자들에 대한 힐책을 의미하며, "라아이툼"은 너희가 보았는가? 라는 뜻으로, 즉 "너희가 숭배했던 너희들의 신들(우상)에 관하여 내게 말해보라"는 뜻이다.
43-1) "형제를 위해 만든 구덩이에 그가 묻힌다"라는 아랍격언은 바로 본 절을 입증하고 있다.

제36장 수라트 야씬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83절로 다음 세 가지 기본적인 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활에 대한 믿음
둘째: '인따키야' 고을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셋째: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예증

꾸란의 진가를 시작으로 선지자 무함마드와 메카 꾸라이쉬 부족 사람들의 불신을 다루면서 이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인따키야' 고을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불신하자 믿음이 강한 '하비브 낮자르'를 통하여 이들에게 충고하자 그 고을의 불신자들이 그를 살해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을 멸망시켰다. 태양과 달 그리고 우주의 법칙을 통해서 창조주의 능력과 유

일하심을 입증하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갈 부활의 날을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이 꾸란의 기적을 가리키는 철자 '야 씬'으로 시작된 것이 동기가 되어 '야씬' 장이라 불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3권 op.cit, p.43).

1-1) 꾸란 기적 중의 하나로 풀이된다.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야씬"에서 "야"는 "오! 인간이여!"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야씬"은 선지자 무함마드 칭호가운데 하나라고 전하여지고 있기도 하다. 또는 "야씬"의 뜻은 "인류의 지도자여!"라고 "아부 바르크 와라끄"가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4/15).
2-1) 창조주 하나님께서 꾸란을 두고 맹세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꾸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무함마드는 계시받은 선지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1) 메카 꾸라이쉬 불신자들이 무함마드에게 말하길, "무함마드여! 그대는 선지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대를 우리에게 보내지 아니했도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무함마드가 선지자 중의 한 선지자임을 이 꾸란에서 맹세하고 있다(꾸루뚜비 해설 5/15).
4-1) 하나님이 홀로 계심을 믿는 이슬람의 길
5-1) 꾸란은
7-1) 그들의 오만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불신자들 위에 불지옥의 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11-1) 은혜로운 보상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보상으로 그것은 천국에 있는 보상들이라 (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156/3).
12-1) 선행 및 악행. 그의 발이 사원으로 행한 흔적들이라고 풀이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99/22).
13-1) "인따키야" 고을로 서력 초기 시리아 북부지역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고을 중의 하나라고 많은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2) 이 고을에 3명의 선지자 즉 "싸디끄", "마쓰두끄", "샤무운"이 보내어 졌다고 풀이되고 있으며(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3권 op. cit, p.47),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보낸 전령들이라고도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497).
14-1) 예수가 보낸 2명의 전령(Ibid)
15-1) 사도행전 제14장 14절-15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뇨, 우리가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19-1) 너희의 흉조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불신과 거역함과 너희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다.
2)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께로 너희를 초청했음에도
20-1) "하비브 낫자르"는 명주실을 짜는 한 남자로 도시 외곽에 거주하면서 선지자들을 믿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498).
24-1)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신으로 숭배한다면
25-1) "너희를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을 내가 믿나니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충고에 따르시오"라고 그 남자가 말하자 불신자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으므로 그 남자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풀이되고 있다(Khalid Tafsir Al-Jalallain, op. cit, p.583).
26-1) "하비브 낫자르"가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믿고 믿음을 가지라고 충고하자 불신자들이 그를 살해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순교자로써 "천국으로 들어가라"라고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3권 op. cit, p.49).

2) 그 남자는 현세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충고하였고, 죽어서까지도 그의 백성들에게 충고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해석하고 있다.(Ibid)
28-1) 하비브 낮자르의 백성에
2) 천사
29-1) "하비브 낮자르"가 살해되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무서운 질풍을 일으켜 그 고을을 멸망케 한 것으로 "무함마드 알리 사부니" 교수는 풀이하고 있다.(Ibid)
32-1) 지나간 모든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
41-1) 태양과 달의 운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예증으로써 아담의 자손들을 노아의 방주에 각각의 쌍을 태운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42-1) 그 이후 바다 건너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여 주는 노아의 방주처럼 유사한 배를 인간으로 하여금 만들도록 부여한 지혜라고 풀이된다.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그와 유사한 배"를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 또는 그 밖의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그것을 바다의 교통수단인 배와 같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전자가 타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45-1) 하나님에 대한 불신 및 선지자들에 대한 거역으로 하나님이 멸망케 한 선조들의 교훈
2) 내세에 있을 하나님의 벌
46-1)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인 모든 기적들
48-1) 심판의 날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벌이 있다는 약속
51-1) 하디쓰에 의하여 죽음을 담당하는 천사는 이스라필로 그가 나팔을 불게 된다. 그러나 이 천사 이름은 꾸란에 직접 언급이 되지 않고 있으나 트럼펫은 자주 언급되고 있다(제6장 73절).
52-1) 무덤
2) "아르라흐만"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란 뜻으로 99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의 하나이다.
69-1) 무함마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메세지가 무함마드가 쓴 시 라고 꾸란을 거역했던 메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다.
70-1) 꾸란
2) 꾸란을 믿는 이들
3) 믿음을 거역한 불신자들에게는 벌이 있다는 말씀
75-1) 불신자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은 심판의 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불신자들은 그 우상들에게 이용을 당하게 된다.
76-1) 무함마드는 시인이요 마술사일 뿐이라고 하면서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메세지를 거역하는 그들의 말
77-1) 이 절은 "우바이 이븐 칼프"에 관하여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어느날 부패한 죽은 사람의 뼈를 가지고 선지자 무함마드 앞에 나타나 그 뼈를 다시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린 다음 조롱하며 묻기를 "무함마드여! 우리 인간이 이처럼 산산조각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선지자께서 대답하길, "그렇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활하게 하사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느니라"라고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3권 op. cit, p.62).
78-1) 부패한 뼈를 가지고 비유한 것
79-1)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처럼

제37장 수라트 사파트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82절로 이슬람의 핵심 부분인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 계시 그리고 부활과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배의 구심점이 되는 일직선(사파트), 악마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이 들어갈 지 옥, 부활과 보상 그리고 부패한 육신의 부활을 언급한 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하나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후 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엘, 모세, 아론, 일리야스 및 롯 등 일부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스마엘을 제단에 바치는 과정에서 겪는 시험과 믿음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천사들이 끊임없이 밤낮으로 일직선으로 줄을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데서 '사파트' 장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파트'란 예배를 드릴 때 일렬로 좌우 일직선을 이룬다는 뜻이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4권 op. cit, p.5).

1-1) "그들은"하늘에서 열지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항상 말씀을 염원하는 천사들을 가르키고 있다고 "이브누 마쓰우두"는 말하고 있다. 하디쓰에서도 천사들이 주님곁에서 열지워 예배하는 것처럼 너회는 열서지 아니한가?우리는 말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앞줄을 채우고 그리고 열을 채워라(무크타사르 이브누 카씨르 174/3 참조).하디쓰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말씀하셨나니 : 인간에게 3가지 은혜가 주어졌으니 천사가 열지워 서는 것처럼 우리가 열지워 서고, 대지 모두가 우리를 위한 사원이요 물을 발견치 못했을 때 흙을 깨끗한 것으로 하여 주었느니라.

3-1) 제1-3절의 그들은 천사들을 가르킨다.

4-1) 메카의 불신자들

5-1) "마샤리끄"는 동쪽을 가르키나 서쪽(마가리브)까지 포함하여 동서를 가르키는 것으로 따바리는 풀이하고 있다.

7-1) 별들은 다음 3가지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까타다"는 말하고 있다. 첫째는 사악한 악마로부터 보호하고, 둘째는 그것으로 길을 인도받으며, 셋째는 하늘을 장식하는데 있다.

8-1) 악마들

11-1) 무함마드여! 사탄인 불신자 또는 위선자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물어보라.

2)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써는 당연하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탄은 죽은 자를 살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2-1) 그대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에 관하여 놀라 찬미를 드리나 사탄들은 부활을 비웃고 그대의 감탄과 찬미를 조롱하고 있다.

2) 사탄들

13-1) 꾸란의 복음과 교훈과 경고를 받아 두려워 하여야 할 그들은 숙고하지 아니하며,

17-1) 부활이 된단 말이뇨?

19-1) 무덤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이스라필"의 나팔소리.

21-1) 천사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28-1) 죄인들이 추종했던 사탄의 우두머리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불신한 것은 사탄의

우두머리들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우상을 숭배하였던 불신자들은 그들을 유혹하여 방황케 하였던 그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길, "당신들은 진리의 편에서 우리에게 온 것으로 알고 믿었는데 우리를 유혹하여 기만하였도다"

29-1) 이때 사탄의 우두머리들은 죄인들에게, 그것은 스스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대답하고 있다.

30-1) 사탄의 우두머리들

36-1)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라고 촉구하였을 때 불신자들이 말하길, "제 정신이 아닌 시인 무함마드의 말 때문에 우리 선조와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포기하란 말이뇨?"37-1) 무함마드

41-1) "마을 루문" "잘 알려진"이란 뜻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에 맛이 있으며, 냄새를 맡으니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일용할 양식이라고 "아부 싸우드"는 풀이하고 있다(아부 싸우드 268/4).

45-1) 마임 : "자리야" 즉 고여 있지 아니하고 항상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알따브리 34/23).

47-1) 천국에 있는 술은 현세의 술과는 같지 아니하여 취하지도 아니하고 아픔의 고통을 주지도 않는다. 현세의 술은 두통과 복통과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지만 천국에 있는 술맛은 현세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

48-1) 천국에서 만날 아내는 남편 외에는 다른 남성을 욕정의 눈길로 바라보지 아니하며(이브느 압바쓰), 눈은 크고, 몸은 아름다우며, 마음은 순결한 아내로 "히와르 아인"이라 부른다.

49-1) "바이드 마크눈" : 즉 보호를 받고 있는 달걀이란 언어적인 뜻으로 여기서는 굴 속에 있는 진주가 보호를 받아 더욱 진주의 가치가 있듯이 천국에 있는 아내는 굴 속의 진주처럼 보호받은 아내이므로 진주보다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은유로써 묘사하고 있다.

50-1) 현세에 있었던 그들의 생활에 관하여 서로 물어보며 추억을 더듬고 그들이 신앙에 충실했던 보람을 현세에서 유혹했던 것들과 비유하면서 추억을 더듬고 있다.

51-1) 천국에 사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 "제가 현세에서 살 때 부활을 부정한 친구가 있었는데"

52-1) 그가 저에게 말하길, "당신은 부활과 보상을 믿습니까?"

53-1) "우리가 죽어 흙이 되고 뼈가 부패하여 버린 후에도 부활한단 말입니까?"라고 말을 하였다.

54-1) "한 음성이라 함은" 천국의 신앙인들(무으민)의 음성으로 "지옥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싶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55-1) 그래서 그와 그리고 신앙인들은 타오르는 불지옥에 있는 현세에 있었던 불신자 그의 친구를 보았다.

56-1) 그리고 신앙인들(무으민)과 그가 지옥의 친구에게 말하길, "네가 우리를 유혹하여 나를 멸망케 하려 나에게 접근했도다"

57-1)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너를 따라 이 불지옥에 있었을 것이다.

59-1) 그는 계속하여 그의 친구 불신자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한번 죽으면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며 심판도, 그리고 보상도 없다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는가?"

60-1) 이 은혜

2) 천국의 백성들이 얻는 승리.

61-1) 천국의 영광과 기쁨 그리고 보상을 위해서,

62-1) "자꾸무" : 지옥에 있는 쓰디쓴 나무로 천국에 있는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대조되고 있다(제17장 60절 참조).

63-1) "자꾸무" 나무

66-1) 불신자들은 배고파 인내할 수 없어 그 자꾸무 열매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
73-1) 무함마드여, 이들 위선자 그리고 불신자들의 종말이 어떠했는가를 보고 믿는 사람들의 교훈으로 하라.
76-1) 노아의 대홍수, 제9장 25-48절 참조
77-1) 노아가 만든 방주에 오른 자손들은 번성하였으나 그밖의 백성들은 멸망하였다. 그때 방주에 올랐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남녀 합하여 80명이었다고 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이브누 압바쓰"는 그의 백성들이 몰락한 이후 지상에는 노아의 후손만 남았으며(알바흐르 알무히뜨 해설 364/7), 이 후손이 그 후에 햄족, 셈족, 야비쓰족으로 되었다.
83-1) 본 장에 언급되고 있는 9명의 예언자(본장 서문 참조) 중 노아의 이야기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얘기가 언급되고 있다(제21장 51-73절 참조). 노아와 아브라함 예언자 간의 차이는 2640년으로 그 사이에는 두명의 예언자 "후드"와 "살레"가 있었던 것으로 "알바이다위"는 풀이하고 있다(알바위다위 141/2).
84-1)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욕심이 없으며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한 순결한 마음.
85-1) 그의 아버지 "아지르"와 그의 백성.
86-1) "이프쿠"는 가장 사악한 허위와 거짓이란 뜻이다.
87-1) 여러분이 숭배했던 신을 만났을 때 그 우상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여 줄 것인지…?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았는지…?
90-1) 다음날 축제가 있어 아브라함에게 그 축제에 나가자고 하니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축제에 내가 나간다면 나는 몸에 병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그의 가족과 백성들은 그를 비웃고 축제를 위해 나갔다.
91-1) 우상에게 음식을 바쳐 제사를 지낸 후 그의 백성들이 떠나자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다가갔다.
93-1) 아브라함은 우상들에게 다가가서 가지고 있던 도끼로 우상들을 부서버렸다.
94-1) 아브라함에게 달려와 "우리가 숭배하는 우리의 신들을 네가 부수워 버렸단 말인가?"
98-1) 장작을 모아 아브라함을 묶은 후 불을 붙혔으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추워져라 「바르단 와 쌀라만 알라이히」라는 말씀으로 안전하게 구제되었다.
2) 그들의 또 다른 음모도 실패하였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시리아 및 팔레스타인 땅에서 번성하였다(제21장 71절 참조).
99-1) 샴 지역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이 최초의 무하지린 이었다고 풀이하고 있다(알꾸르 뚜비 97/15).
101-1) 이 소식은 아브라함이 기름진 땅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있었을 때이다. 그때 태어난 아브라함의 첫 자손이 이스마엘이었다. 이스마엘 이름의 근원은 "싸미아" 즉 "들었다"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구원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은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이스마엘을 낳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창세기 16장 16절 참조).
102-1) 아브라함
2) 그때 나이 13살이었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3) 메카 또는 메카 근처에서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한편 일부 해설가들은 메카에서 북쪽으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며, 매년 헤즈라역 12월 즉 하즈달 10일째 회생제를 지내는 미나의 계곡이라고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이 어린시절을 보냈던 마르와 동산 근처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103-1) 한편 구약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제단에 올렸던 자손은 이삭이었다고 말하고 있다(창세기 22장 1-18절).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태어났고(창세기 21장 5절), 한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태어났으므로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나 위였다. 이 14년 동안에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독자였다. 구약성서 22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분께서 말씀하사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에 올리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임을 알 수 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그의 형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라고 할 수 없다. 독자는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 14년 동안 혼자였었던 이스마엘을 가르킴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이라고 후에 이야기하고 있으나 "모리아"는 이스마엘이 어린 시절을 보낸 메카에 있는 "마르와" 동산임이 밝혀졌다.

107-1) 천국에 있는 어린양 한 마리로 이스마엘을 대속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브누 압바쓰"는 "어린양 한마리가 천국에서 40차례의 가을철을 거치면서 길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무크타샤르 이브누 카씨르 187/3).

2) 이스마엘.

112-1)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때 "사라"에서 태어나 유대 백성들의 선조가 되었으며, 장남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때 "하갈"에서 태어나 아랍백성들의 시조가 되었다.

114-1) 선지자로써 선택받은 것과 계시를 받은 것 그리고 적이 공격하여 왔을 때 그들 적들을 홍해 바다에 익사케 하고 그와 그의 백성을 구하여 준 은혜.

115-1) 남아들을 살해하고 여아들을 살려 애굽인들의 하녀로 두려했던 그 재앙들

2)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그들을 구하고,

116-1)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장 114, 115, 116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3단계로 구조되었다. 첫째는 모세와 아론에게 신성한 임무가 주어졌고, 둘째는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 났으며, 셋째는 홍해바다를 무사히 가로 질러가고 파라오의 백성을 멸망케 했다.

117-1) 타우라트(구약).

123-1) "일리야스"는 구약성서 열왕기상 17-19, 열왕기하 1-2에 나오는 "엘리자"를 말한다. 엘리야는 아하브(Ahab : B.C. 896-874) 통치시절과 아하지아(Ahaziah : B.C. 874-872), 이스라엘 혹은 사마리아 왕국의 왕의 통치시기에 살았던 성 요한 같은 한 예언자였다. 아하브와 아하지아 백성들은 시리아에서 숭배했던 태양의 신 "바올라"를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자연 숭배의 하나로 인도사람들의 링감(Lingam) 숭배와 같은 것이다. 아하브 왕은 시돈의 사악한 한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남편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바올라"를 숭배하도록 유혹하였다. 엘리자는 모든 아하브인들의 죄악과 아하지아인들의 죄악을 비난하여 그는 그의 생명을 위해 피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125-1) 본장 123절 해설 참조.

133-1) 사해(Dead Sea)에 위치한 평원의 도시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게 보낸 선지자로 그 곳을 백성들이 그에게 거역하고 그를 추방하려 위협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을 가졌던 자들을 구하였다(제7장 80-84절 참조).

135-1) 롯의 아내로 그녀는 믿음을 거절했던 불신자였다(제7장 83절 참조).

137-1) 시리아를 잇는 고속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도읍으로 아랍대상들이 밤낮으로 그 곳을 지나면서 그 고을 백성들이 불신으로 멸망된 그 흔적지를 너희 메카 불신자들도 지나가면서 불신자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139-1) 요나(유누스)는 사악함에 몰두하여 있는 니네베(Nineveh) 고을에 임무를 띠고 왔다. 그러나 요나도 백성들에 의해 거역을 당하고 박해를 받자 하나님께 노하셨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아니했다.

140-1) 요나는 속박상태에서 도주하는 한 노예처럼 니네베(Nineveh)로부터 도주하였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스스로를 몰두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피하려고나 하듯 배로 달려갔다.

141-1) 바닷가에 정박하여 있던 그 배는 많은 물건으로 가득실려 있었으며, 나쁜 일기로 인하여 정박하고 있었다. 선원들은 그들의 미신에 따라 그 불운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내기로 하고 점술을 던졌는데 그 점술이 요나에게로 떨어져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져 버렸다.
142-1) "후뜨" : 상어 또는 악어일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2) 본 장 140절 및 해설 참조
143-1) "당신 외에는 신이 없나니 당신께 영광이 있으소서. 실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하였다(제21장 87절 참조).
144-1)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너의 뱃속을 감옥으로 하였을 뿐이며 내가 그를 너의 음식으로 두지 아니했느니라"라고 계시하였기에 그(요나)는 안전하게 그대로 보전되었다고 "아따"는 풀이하고 있다(아비 싸우드 277/4).
146-1) 그의 위로 넝쿨과 잎이 넓은 나무를 자라게 하여 그늘을 만들어 열사로부터 보호하여 주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건강은 쇠약해 있었기 때문이다.
147-1) "니네베"는 하나의 큰 도시였다. 구약성서 요나 3장 3절에서, 니네바 도시는 3일간 여행권의 도시며, 인구는 2만 이상의 도시라고 요나 4장 11절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둘레가 45마일, 인구는 10만에서 20만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149-1) 메카에 있던 아랍의 이교도 및 불신자들은 딸을 갖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여 아들을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함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딸들만 있을 뿐이라 하였다. 즉 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 하였다.
158-1) 하나님과 진이 결혼하여 딸들인 천사들을 낳았다는 불신자들의 미신을 일컫는다.
172-1)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나니 나와 그리고 나의 선지자들이 승리자가 되리라"
173-1)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써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교훈이다.
175-1) 벌을 받는 그들 불신자들을 지켜보라. 그들도 그들의 불신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176-1) "그들도 지켜보리라"라는 계시가 있었을 때 불신자들은 조롱하여 말하길, "언제 벌이 올 것인가?"라고 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제38장 수라트 솨드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88절로 메카에서 계시된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제다루고 있다. 공부를 하지 못한 예언자에게 꾸란이 간헐적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함을 받은 최후의 예언자이며 선지자임을 확증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유일성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 무함마드로 하여금 그들을 유일신 사상으로 인도하도록 하면서 메카 불신자들에게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선조들의 멸망을 본보기로 설명하고 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아이윱, 이삭, 야곱, 이스마엘 등 일부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와 선지자의 직책과 기본 임무를 얘기하고 있다.

'사드'는 아랍어 철자 중의 하나로 여기서는 꾸란의 기적을 가르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드'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4권 op.cit, p.27).

1-1) 아랍어 철자 중 한 철자로 어떤 단어의 생략부호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본 장에서의 "사드"는 "낏싸"(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본 장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철자는 제2장 1절에서 풀이되고 있듯이 꾸란의 기적으로 인간이 지혜로써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2-1) "피 잇자" : 진리에 관하여 거만하고 오만함.

2) "쉬 까끄" : 하나님과 선지자에 관하여 이론을 조성하면서 불신함(알바이돠위 해설 146/2)

4-1)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선택되어 그들을 위한 경고자로 임하였을 때,

5-1) 메카 꾸라이쉬 불신자들이 회합을 가진 후 "아비 딸립"에게 "당신의 조카를 우리로부터 제지하시요. 그가 우리의 종교를 비난하고 우리의 신들을 욕되게 하여 우리의 꿈을 어리석게 하고 있도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부 딸립"은 그(무함마드)를 불러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무함마드는 "삼촌이여! 제가 그들에게 한마디 말만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아부 자흘"과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자. 우리는 그것과 그리고 열마디의 말을 함께 주겠노라"라고 했을 때 무함마드는 말하였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라고 말하시요"라고 하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그들의 옷을 쥐고 일어서면서 "그가 여러 신들을…"라고 말하자 다음 절이 계시된 것으로(따브리 해설 79/23 그리고 알바흐르 알무히뜨 382/7에서) 풀이되고 있다.

7-1) "밀라트 아키라"의 뜻은 이슬람 이전에 있었던 종교들을 가르키는 것으로, 기독교에서의 삼위일체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함마드는 하나님을 한분이라 주장하는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유일신 사상을 거역하려 하였다.

9-1) 그들에게 메세지가 내리지 아니하고 무함마드에게만 계시가 내려진 것에 관하여 불신자들이 조롱하며 거역하려 하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써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11-1)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으며 특히 영적 세계에서는 그들이 사탄의 연합군으로 대항한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의미다.

13-1) "알 아이카"는 많은 나무가지가 엉켜진 나무로 여기서는 "슈아이브" 백성들을 가르킨다(제15장 78절 참조).

2) 본장 11절 참조

15-1) 이스라필 천사가 부는 나팔소리(제36장 29절 참조).

16-1) 이들 불신자들은 조롱하여 말하길, "무함마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한 벌을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이라도 내려보라"는 오만한 말이다.

17-1) 앞절에서 불신자들이 무함마드를 조롱하고 거역하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한편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본절이 계시되고 있다(하쉬야 알사위 알라 잘랄라이니 353/3).

2) 다윗은 신앙에 강했을 뿐만 아니라 몸도 튼튼하였다. 그리고 그는 거인 골리얏을 살해하였다(제2장 249-252절 참조).

3) "알아우와브" : "하나님께로의 귀의"라는 뜻으로 불신자들의 언행이 종교와 신앙생활을 비웃고 조롱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 및 아이유브 예언자의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면서 예언자 및 신앙인들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계시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390/7).

18-1) 그는 다윗을 가르킴

2) 다윗과 산천이 합창하여 하나님께 찬미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예언자에게 내린 기적이었다. "산들이여! 그와 그리고 새들과 함께 순종하라"(제21장 79절 참조)

19-1) "아우와브"는 순종 또는 복종으로 풀이된다.
20-1) 상대편에 얘기한 것을 이해시켜 주는 분명한 언행이라고 "잠카샤리"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알꾸르뚜비"는 문제의 파악과 이해라고 말하고, 또 꾸르뚜비 해설 162/15에서는 진리와 부정을 가려주는 해설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과 다스리는데 있어서 가장 완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무함마드 알리 사부니" 교수는 풀이하고 있다.
22-1) 말다툼을 하던 두 사람이 정문도 아닌 담을 넘어 조용히 그의 기도실에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던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 다윗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23-1) "아키"는 "형제"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혈연의 형제가 아니라 친구를 의미한 것으로 본다.
2) "나으자"는 새끼 양의 암컷을 가르키는 것으로 여성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26-1) 하나님의 율법
2) 심판의 날과 부활
28-1)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에서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와, 죄악을 낳은 죄인들, 진실을 말하는 자와 허위를 일삼는자, 정직한 자와 부정을 일삼는자가 심판과 보상에서 절대로 같지 아니함을 제시하고 있다.
30-1) "와하바"는 주다, 수여하다는 뜻으로 본절에서는 예언자로써 선택받은 것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받았으니…"
31-1) 솔로몬
2) 알아쉬 : 오후 즉 "아스르" 이후를 가르킨다.
3) 샤파나트 : 멈추어 있을 때는 안정하고 달릴 때는 신속하게 달리는 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의 장점인 안정성과 기민성을 말해주고 있다(알카비르 리자리 해설 204-26).
32-1)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도 모든 일에 세속적 욕망을 그의 마음에 허용하지 아니한 정신적 미덕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말들을 좋아하였고, 또한 그에게는 많은 군대와 재산이 많이 있었으나 그것 모두를 하나님 사업에 사용하곤 했다(제27장 19절 및 40절 참조비교). 그가 전쟁을 했을 때도 어떤 재물이나 권력을 탐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분을 위해서였을 뿐이다. 그가 말들을 아끼고 사랑한 것은 일반 기수들과는 달리 정신적 요소가 그 안에 내재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처럼 말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정신적 사랑 가운데 하나였다.
33-1) 솔로몬
2) 준마
3)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기 위해 말들을 도살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그 말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 하나님을 염원함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싼"은 말들이 그에게 돌려지니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너희(말들)는 내가 나의 주님을 경배함에 방해하지 말라. 그런후 명령을 하였다. 그리하여 말들은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앗싸디"도 그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34-1)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과 재산 그리고 명예는 그에게 주어진 정신적 시험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몫을 지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에 신조가 깊었고 진실하였다. 그가 가진 부와 권력과 명예를 그의 사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였다(제8장 28절 참조).
2) 세속적 권능-그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그것이 하나님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생명과 영혼이 없는 시체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우상을 제거함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예루살렘에 사원을 건립하였다.

또한 사바의 여왕 빌끼쓰(Bilqis) (제27장 40절)를 우상숭배함으로부터 구제하였다.

35-1) 그가 예언자임이 증명될 수 있도록 권능을 구하고 있다.

36-1) 제21장 81절 참조.

37-1) 목수로 하여금 웅장한 집들을 짓게 하고 잠수부로 하여금 바다속의 진주와 보석을 건져 올리도록 하였다.

38-1) 불신자들이 심판의 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죄인들.

41-1) "욥"은 "아이유브"를 말한다.

42-1) 욥은 그의 재산과 가족과 그의 건강에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었고 아직 그 시련은 18년이나 남아 있다. 이로 인하여 욥이 기도하니 발로서 땅을 때리라 하여 그가 땅을 때렸더니 깨끗한 우물이 솟아 나왔다. 그래서 그 물로 몸을 씻으니 그의 몸이 건강해졌고 그 물을 마셨더니 마음의 병이 치료되었다(예언자들의 이야기 참조).
한편 대다수 해설가들은 그가 발로 땅을 두드렸을 때 2개의 우물이 솟아나 한 우물로 몸을 씻고 다른 우물의 물을 마시니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01/7).

43-1) 라지는 죽은 그의 자손들을 다시 소생케 하고 양식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가장 가까운 견해로써는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재산을 풍부하게 하여 주었다. 그후 그는 자손을 많이 낳게 되니 그전보다 두배 이상의 자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44-1)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여 풀다발로 그의 아내를 때려 순종하도록 하였다. 욥은 만일 그가 아내를 풀다발로 100번 때려 그의 병이 낫는다면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병중에 있을 때 아내가 그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병이 심하여 지면서 더 악화되자 이때 사탄이 그 부인을 유혹했다."언제까지나 인내하렵니까?"라고 사탄이 부인에게 말하자 부인은 슬픔으로 안절부절 하여 욥에게로 와 말하길 "이 시련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요?"라고 하자 그는 화가나 만일 그가 아내를 10번 때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줄 것이라고 맹세하였다. 100번이라는 숫자는 풀 숫자가 100이라는 뜻으로 아내를 때린 것은 1번이라고 전하여지고 있다.

45-1) 신앙에 강하고 지혜가 많은

48-1) 이스마엘은 아랍민족의 조상으로 제37장 101-107절 사이에서 인내자의 모범으로 언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그들 백성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다른 예언자들도 언급되고 있다. 엘리샤(아랍어로는 알야싸아로 발음되고 있음)도 그중 한분으로 제6장 86절에서 언급되고 있고 "줄키풀"은 제21장 85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내한 모범의 예언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50-1) 천국의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믿음으로 선을 실천했던 이들을 발견하면 천국의 문들을 열며 그들에게 평안(쌀람)의 인사를 하며 최상의 대접으로 그들을 천국의 안으로 인도한다고 묘사하고 있다(알카비르 해설 221/26).

52-1) 아뜨라비 : 자기 남편 외에는 다른 남성을 바라보지 아니한 여성, 즉 "히와르아인"을 가르킨다(제37장 48절 및 제36장 56절 참조).

53-1) 심판의 날 또는 부활의 날.

55-1) 제38장 49절에서 축복받은 곳에 대조되는 어휘로 저주받은 지옥을 의미.

57-1) 알하미므 : 최고도의 열을 발산하는 상태로 여기서는 최고도의 열로써 들끓고 있는 액체 또는 물을

58-1) 이미 언급된 벌 : 잠하리르, 쑤뭄, 아쿨루 자꾸무 벌 외에도 다른 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60-1) 사탄의 유혹 그리고 오만하고 거만했으며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한 위선자들을 따랐던 추종자들이 지옥에서 서로가 만나니, 이때 추종자들은 그들을 지옥

으로 유혹 했던 우두머리에게 저주를 하고 있다.

61-1) "주여! 이들이 저희를 방황케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불지옥의 벌을 더하여 주소서" 즉 "다아프"는 증가하다는 뜻으로 그와 같은 벌을 더 증가하여 달라는 표현이다.

62-1)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로 이부느 압바쓰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불신자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아부자흘이 말하길, "빌랄은 어디에 있으며, 슈아이브는 어디에 있느뇨? 그리고 암마르는 어디에 있느뇨? 그들이 천국 피르다우스에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부자흘은 너무 초라했다. 그의 아들 아크라마, 그의 딸 주와이리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제가 이슬람에 귀의했지만 그 혼자만 불신 하였다.

63-1) 불신자들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이 지옥에 들게 된 것이 현세에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왔으며, 또는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지옥에 함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없는 것은 우두머리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

69-1) 천사들이 아담을 창조한 의도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을 때 그것에 대해 내게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알겠느뇨?

72-1) 천사들로 하여금 창조될 아담에게 경배하라 명령한 것은 아담을 맞이하라는 인사를 말한다(알꾸르뚜비 해설 227/15).

75-1) 비야다이야 : 나의 두손이란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르키며 곧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스스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임을 가르키고 있다.

77-1) 낙원

86-1) 무함마드

2) 꾸란

3) "무타칼리프"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척, 없는 것을 있는 척 하는 위선자로 예언자는 그러한 범주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39장 수라트 주마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75절로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신앙의 근본임을 말해주고 있다. 꾸란이 「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가장 훌륭한 기적이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유일성에 관한 예증으로서 하늘과 대지, 낮과 밤, 태양계와 우주의 법칙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며 불신자들과 죄인들이 받게 될 대가는 곧 지옥으로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징벌을 맛보게 됨으로 늦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본장이 '주마르'(군집)라 불리워지게 된 것은 본장 71절 및 7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 행복을 누릴 천국의 백성들과 불행과 저주 속에서 영생할 지옥의 백성들이 각자의 집단을 이루어 영생할 것이라는 것에서 '주마르'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4권 op.cit, p.46).

1-1) 이 꾸란은
3-1) 우상을 숭배하거나 창조주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4-1) 그러나 자비로우신 그분은 자식을 둘 필요가 없었다.
6-1) 아담. 제4장 1절 참조
2) 하와 즉 이브.
3) 양, 염소, 낙타, 소의 각 쌍 즉 8마리의 암컷과 수컷을 가르키고 있다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
8-1)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또는 사회적 명예에 관한 재앙
9-1)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가 믿는자(무으민)와 같을 수 없다는 뜻이다(꾸르뚜비 해설 238/15).
2) 믿는자와 불신자가 같을 수 없듯이 아는 자(알림)와 모르는 자(자힐)가 같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자(무띠으)와 거역하는 자(아시)가 같을 수 없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4권 op. cit, p.50).
3) 본 절은 2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부분에서는 실천(아말)을 언급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식(일무)을 얘기하고 있다. 실천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것(까누뜨), 엎드리는 것(쑤두드), 일어서는 것(끼얌)을 언급하고 있고, 지식으로서는 "아는 자가 모르는 자와 같을 수 있느뇨?"라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이절은 완전한 인간을 이 두 범주로 제한하고 있다.
10-1) "아비 딸립"의 아들 "자으파르"와 그의 동료들이 "하바샤"의 땅으로 이주(헤즈라)하려 결심 했을 때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Idid., p.51)
2) 내세의 보상 즉 천국
3) 하나님의 왕국은 넓으므로 불신자들의 고을을 떠나 믿음의 고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다.
13-1) 부활의 날
15-1)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불신에 대한 말로는 어떠한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다.
23-1) 꾸란이 가장 훌륭한 말씀으로 계시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비스밀라)으로 계시가 시작된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성서라고 "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
2) 언어학, 수사학 및 균형에 있어서의 유사함을 가리킴
3) 교훈, 규범, 할랄과 하람(허락과 금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등을 반복하여 계시하고 있음을 말함.
4) 신체를 의미한다.
24-1)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불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 같을 수 있느뇨?
29-1)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와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는 믿는 자가 같지 아니함을 비유하고 있다.
32-1) 예언자 예수를 신격화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 즉 성부=성자=성신의 삼위일체설로써 하나님의 유일성에 모순을 자아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저하시킨 죄악으로 풀이된다.
2) 꾸란과 이슬람법인 샤리아.
33-1) 예언자 및 선지자들
2) 그 진리를 믿고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37-1) "주 인티감"은 "응보 또는 대처하다"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적과 불신자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의미한다.
39-1) 하나님
47-1) 꾸란을 부정하고 선지자를 거역한 불신자들
48-1)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현세에서 생각지 아니했던 모든

종류의 벌과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아부 쑤우드"는 풀이하고 있다.
49-1) 죄지은 인간이 구원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인간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또 다시 오만하는 가를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50-1)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은 내가 가진 지식 때문이라" 라고 말하곤 했었다.
55-1) "아흐싸누"는 "하싸느" 명사의 최상급으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과 영혼으로 인도하여 줄 복음 즉 꾸란을 의미한다.
59-1)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었다면"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보내어 주었으나 불신했다는 뜻이다.
2) "카"는 2인칭 남성 단수 인칭어미로 본문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거역한 불신자들을 가르키는 것으로 본다.
61-1) "마파자트"는 안전 또는 구제의 장소 또는 승리와 행복, 희망과 소망을 성취하는 장소 등의 여러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는 어휘로 천국을 의미한다.
63-1) "아야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준 모든 기적들을 의미한다.
65-1) 무함마드 이전의 선지자들에게 계시가 내려졌듯이
68-1) "싸이까"는 "시들어지다, 쇠퇴하다 또는 의식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으로 첫번째 나팔이 이스라필 천사에 의하여 울려 퍼지면 우주의 만물이 의식을 잃고, 두번째 나팔이 울리면 하늘과 대지위의 생명들이 죽게 된다고 풀이되고 있다 (이브누 카씨르 229/13).
2) 또 다른 나팔은 생명의 나팔이다.
73-1) "주마르"는 서문에서 설명했듯이 "그룹을 지어, 또는 군집하여 또는 단체로"라는 뜻이다.
2) 그들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열려져 있다. 에덴의 천국의 문들이 그들을 위해 열려져 있도다
3) 천국의 문을 지키는 천사들은 선을 실천하였던 의로운 자들이 도착했을 때 놀라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며 환영의 인사를 한다.
74-1) "우리(하나님)가 유산으로 약속한 그 천국은 의로운 우리(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니라"

제40장 수라트 가피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85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처럼 이슬람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증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논쟁을 언급한 후 내세와 종들에 대한 보상, 즉 모든 인간은 그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는 약속에 따라 선은 선의 보상이 될 것이요 악은 악으로 보상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믿음과 불신에 관한 이야기로써 모세와 오만하고 거만하였던 파라오를 비유하고 있다. 오만한 파라오를 바다에 익사케 하고 모세와 믿음을 가졌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언급하다가 믿는 자와 불신자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한 장님으로 비유하고 거짓하는 자와 위선자들에 대한 벌을 묘사함으로써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하나인 '가피르'(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분)가 언급되고 있어 '가피르' 장이라 불려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죄를 사하여 주사 회개를 받아 주시는 분" "실로 내(하나님)가 너희를 권능과 관용으로 초대하노라", 한편 파라오 백성

가운데 신앙인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 '무으민'(믿는 사람) 장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4권 op.cit, p.17).

1-1) 제2장 1절 참조
2-1) 본 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39장 1절과 같다. 제39장 1절에서 "지혜로 충만하신" 절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하킴"으로 묘사되면서 우주의 질서와 운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본절에서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드러난 부분과 숨겨진 부분도 다 알고 계신다는 "알림"으로 묘사되고 있다.
3-1) 응벌에 앞서 용서와 관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의 풍성한 은혜를 가르키는 것으로 본다.
4-1) 현세
2) 궁궐과 권리와 재물로써 유혹하는 것
5-1) 메카 불신자들
2) 아드, 사무드, 그리고 파라오의 백성등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거역한 그밖의 백성들
3)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선지자를 살해하였고 불신자 중에는 선지자를 살해한 자도 있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해석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35/3).
6-1) 위선자 그리고 불신자들의 거주지는 불지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제39장 75절 참조)과 그것은 그 이전 불신자들에게 실현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7-1) 천사들로 그들의 숫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으며 이들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피조물들로 해석되고 있다.
9-1) 관용을 베풀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본절의 기원은 천사들의 기원(두아)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라 알사부니, 제14권 op. cit, p.73).
2)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
10-1) 심판의 날 천사들이 불신자들을 불러 "너희가 현세에 있을 때 믿음으로 초대되었으나 이를 거절함으로써 너희 스스로를 욕되게 한 것보다 너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응벌이 더 큰 것이라"(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36/3)
11-1) 지옥의 무서운 벌을 본 불신자들
2) 첫번째의 죽음(마우트)은 아직 탄생하기 전의 무의 상태를, 두번째의 죽음은 인간으로 창조된 후 현세에서 맞게되는 죽음을 의미하고, 첫번째의 생명(하야)은 살아 있을 때의 생명을 두번째의 생명은 심판의 날 부활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이브누 마쓰우드" 및 "이브누 압바쓰", 그리고 "까따다"는 다음 꾸란 구절을 인용하여 풀이하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하느뇨? 너희는 죽은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사 또 너희의 생명을 앗아간 후 다시 생명을 주느니라"
3) "현세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리니 이 불지옥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라고 불신자들은 말하고 있다.
12-1) 알라트, 알웃자 및 그와 유사한 우상들
13-1)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여 열매와 씨앗을 맺게 하는 비
15-1) 인간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선택하고 메세지를 내리니
2) 하늘의 백성과 지상의 백성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그날로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38/3).
17-1)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업적을 계산한다. "한시간 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한시간 내에 계산한다"고 꾸르뚜비는 해석하고 있다. 또 「카바르」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천국의 사람이 천국에 들고 지옥의 사람이 지옥에 들 때까지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느니라"(타프씨르 알꾸르뚜비 301/15)

18-1) "아지파"는 부활이란 명사로 그 부활의 날에 징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라는 의미로 "이브느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39/3).
19-1) 금지된 것을 몰래 훔쳐 넘어보는 기만하는 인간의 눈
21-1) 그대의 백성 메카의 불신자들
2) 궁전과 강한 군대와 적을 막을 수 있는 많은 성루
23-1) 본 절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박해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였던 파라오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유일한 선지자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본 장이-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무으민"(믿는 사람)의 장이라고도 불리워지게 된 동기이다.
2) 구약성서(타우라)
3) 손과 지팡이의 기적 등 모세가 보여 주었던 모든 기적을 가르킴.
24-1)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기적들을 보이자 그들은 모세를 거짓하는 마술사에 불과하다고 조롱하면서 거역하였다.
25-1) 파라오에 의한 이스라엘 자손 학살을 일컫는 것으로 제28장 4-6절 참조.
2) 오만한 파라오와 그의 군대에 보내어진 벌은 여러가지 형태의 벌이 있었다. 개구리(다파디으), 기생충 종류의 이(꿈말), 피(담), 홍수(따우판) 등의 벌로써, 그리고 그들을 바다에 익사케 하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제한 것 등이 있었다(하씨야 싸위 6/4).
26-1) 하나님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모세가 그의 임무를 띠고 파라오의 궁전에서 파라오 앞에서 선교를 하려 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알리 유스프의 꾸란해설 p.129, 제20장 49절, 57절 및 63절 참조).
2) 일부 파라오 백성들은 파라오와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모세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
27-1) 심판의 날과 내세
2) 파라오를 비롯한 그밖의 모든 불신자
28-1) 이 남자는 파라오의 삼촌 아들, 즉 조카로써 그는 꼽뜨교인으로 그의 신앙을 숨기고 있다가 파라오가 모세를 살해하려 위협하는 말을 했을 때 이를 듣고서,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말한 것을 이유로 한 남자를 살해하려 합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4권 op. cit, p.78).
29-1) 위에서 언급한 그 남자는 28절에서 파라오에게 충고한 후 본절에서 파라오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충고하고 있다.
2) "내가 본 것이란" 파라오의 자기 고집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으니 내가 본 것은 아는 것으로 너희를 지휘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이 옳은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
30-1) 제38장 11-13절 및 40장 5절 참조.
31-1) 롯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거역했던 백성들
34-1) 요셉
36-1) 파라오는 그의 대신인 하만에게 높고 웅장한 궁궐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다. 파라오가 가족중의 믿는 한 남자가 충고를 했을 때 파라오는 그 남자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다(꾸르뚜비 314/15).
2) 하늘에 이르는 방법과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기 오만과 거만을 보이고 있다.
37-1) 파라오는 모세를 살해하려 음모하였고(본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살하였으나(본장 25절) 그 음모는 자신과 그 음모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돌아왔으니 그들 모두는 홍해에 익사하여 멸망되었다.
43-1) 본절은 다음 3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세와 내세에서 또는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서도 경배받을 권리는 하나

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둘째 인간의 최후 귀착지는 오직 하나님 뿐이며, 셋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숭배한 모든 인간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불지옥으로 인도될 뿐이라는 것이다.

45-1) 현세에서의 벌은 그들을 바다에 익사케 하고 내세에서는 불태우는 벌. 모세시절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은 많은 재앙을 당하였다(제7장 130-136).

46-1) 본 절에서 불(나르)은 "심판의 날에 이르면… 최악의 벌로 들게 하라"는 절로 미루어 보아 무덤속에서의 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 사부니, 제14권 op. cit, p.82).

49-1) 유혹되어 죄악에 빠진 자들은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재하여 달라 구원하나 천사들은 그들을 감시하는 것 외에는 중재할 수 없다. 오히려 천사들은 그들의 천진난만한 말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이르러 경고하지 아니했느뇨?"라고 묻는다(제39장 71절 참조).

53-1) 이므란의 아들 모세에게 베풀어진 것은 기적과 성서와 율법이었으며,(아비 싸무드 해설 12/5)

2) 구약성서(타우라)를 가르킨다.

56-1) 술탄 : 권력, 능력이란 언어적 뜻을 갖고 있으나 여기서는 "근거" 또는 "예증"이란 뜻으로 이해된다.

57-1) "라칼꾸"에서 "랍" 철자는 시작(start)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것 이전에 하늘과 대지가 창조된 위대함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59-1) 내세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이들은 심판과 부활을 믿지 아니한 인간들이다.

63-1) 본 절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 그 뜻은 "무함마드여! 그대 백성의 불신과 조롱으로 슬퍼하지 말라. 그들 이전 백성들도 그랬느니라"는 뜻으로 "싸위"는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싸위 13/4).

67-1) 본 절은 인간의 창조단계와 일생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은 후 하와(이브)를 배우자로 둔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수정 성장케 한 후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태어난 유아가 성년이 되고, 성년이 된 인간은 다시 노인이 되며 이 노인을 다시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 인생의 과정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며 제이의 탄생과 삶을 두셨다. 첫번째의 탄생은 삶의 순간에 불과하도록 하였지만 두번째의 탄생은 삶을 영원하도록 하셨다(제22장 5절 참조).

68-1) 제16절 40절 및 제36장 82절 참조.

70-1) 꾸란

2) 하나님의 선지자 및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성서들

73-1) 우상들

77-1) 약속된 벌이 현세에서 불신자들에게 있기 전

78-1)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 선지자들 중에는 그들의 이름이 꾸란에 의해서 알려진 선지자가 있었고 그 이름들이 알려지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있다(제4장 164절 참조).

2) 주어진 시간이 완료되어 불신자들에게 주어질 벌이 결정되는 때

80-1) 가축, 털, 우유, 버터, 지방질 등

2)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것. 즉 낙타는 사막의 유람선이라 할 만큼 사막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였다.82-1) 메카 불신자들의 병력보다 숫자가 더욱 많았고

83-1)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예증들을 거역하며 조롱했던 불신에 대한 벌이 그들에게 내려졌다.

제41장 수라트 푸실라트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54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인 하나님의 유일성, 그분의 메시지 및 부활과 보상 등 주로 믿음의 근본을 다루고 있다.

꾸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것은 자비로우신 분, 즉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는 예증과 더불어 무함마드 선지자에 대한 진실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내림으로써 예언자 및 선지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과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섭리를 숙고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증 그리고 선지자들을 거역한 아드의 백성과 사무드 백성이 멸망한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과 종교에 따라 행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의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징표들을 분류하여 제시하면서 그 안의 하나님을 발견할 예증들을 밝혔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에 대한 증거를 확립하고 있어 '푸실라트'(분류)장이라 불려지게 되었다.

한편 본 장을 '하밈' 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다른 '하밈'과 구별하기 위해 '싸즈다'를 첨가시켜 '하밈 싸즈다'라 부르고 있으며 또한 제32장의 '싸즈다'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하밈'이 첨가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중복된 것을 피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푸실라트' 장이라 불려지고 있다고 알리 유스프는 해설하고 있다(Abdullah Y. Ali, op.cit, p.1286).

1-1) 제2장 1절에서 언급했듯이 꾸란의 기적 또는 신비의 뜻으로 풀이된다(꾸르뚜비 해설 341/15).
2-1) 하나님의 99개 속성중 2가지 속성을 가르킨다.
2) 꾸란
3-1) 현세와 내세의 복지를 위한 모든 것이 담겨진 성서로 목적과 규범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충고와 경고 또는 교훈을 통하여 규범과 예로써 모든 것이 제시되고 있다.
4-1)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무으민"에게는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불신자(카피르)에게는 지옥의 벌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5-1) 선지자 무함마드가 믿음으로 초대했을 때 불신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닫혀져 있어 그대가 인도하는 유일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도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5).
6-1) 선지자 및 예언자는 천사도 아니요 신은 더욱 더 아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인 무함마드와 백성들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아니된다. 그러나 그는 인류에게
7-1) 6절에 계속되는 절로써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이슬람세를 내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으리라"는 뜻이다.
10-1) 물과 곡식과 과일과 가축 등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11-1) "두칸"은 연기란 언어적 뜻이나 이브누 카씨르는 대지를 창조할 때 그곳에서 위로 올라간 수증기로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07/3).
12-1)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첫번째의 하늘

2) 대지 위를 비추어 주는 별빛을 비롯 빛을 비추어 주는 모든 항체
3) 사탄이 천국의 회담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하였다.
13-1)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들이 믿음을 거역한다면
14-1)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대 무함마드를 보내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보냈을 텐데…"라고 불신자들은 메세지를 거역하고 있다.
16-1) 아드 백성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와 그들의 죄악 그리고 죄지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후드" 선지자가 그들에게 보내어진 이야기로 제26장 123-140절, 제7장 65-72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2) 리흐 싸르싸르 : "리흐"는 바람, "싸르싸르"는 극도로 추운상태 그리고 부는 바람소리만 들어도 추위를 느낄 정도의 바람을 동반한 추위를 의미한다.
17-1) 제26장 140-159절 및 제7장 73-79절 참조.
2) 빛대신 암흑을, 행복대신 불행을, 믿음대신 불신을 택했다.
3) 예언자 살레를 거역한 죄
21-1) 피부들
23-1)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24-1) 그들이 불지옥의 벌을 참아 피하려 하나 그때는 이미 늦어 피할 수 없어 불지옥이 그들을 위한 주거지가 된다는 뜻이다.
25-1) "꾸르나아"는 "까리느"의 복수로 친구, 동료 배우자 등의 뜻이나 본문에서 의도하는 것은 그릇된 길 또는 유혹의 길로 유인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사악한 모든 유령 또는 악마 그리고 그것들을 추종하는 모든 인간(제6장 100절 참조).
3)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것.
26-1) 하나님께서 아드와 사무드 그리고 그밖의 백성들의 불신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메카 꾸라이쉬 불신자들에 관하여 이야기 했을 때 그들은 꾸란을 거역하였다. 즉 불신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꾸란을 낭송하는 무함마드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오히려 무함마드가 꾸란을 낭송할때 크게 소리내어 소음을 피워 다른 사람들이 꾸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의 종교가 승리할 것이라 말하였다.
무함마드가 꾸란을 읽을 때면 "아부 자흘"은 그가 읽는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도록 무함마드 앞에서 고성방가 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전하고 있다(꾸르뚜비 356/15).
30-1)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의로운 자.
32-1) 하나님의 속성 99개 중의 2가지 속성이다.
33-1)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과 행동과 품행과 그의 의로움으로 실천에 옮기어 이슬람을 그의 신앙으로 하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말" 또 "가장 좋은 말"이라고 "무함마드 알리 싸부니"교수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브누 까씨르"는 선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을, "잠카샤리"는 다음 3가지, 즉 첫째 이슬람을 믿는 신앙인(무으민)으로써, 둘째 선을 실천하는, 셋째는 믿음과 선의 실천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12).
34-1) 화가 날때 인내로써, 무지는 지식으로써 막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브느 압바쓰"는 " 무지하게 대하는 무지는 그대의 지혜로 퇴치하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꾸르뚜비 361/15).
2) 왈리 윤 하밈 : 상대방의 일에 관심을 갖는 가까운 친구라는 뜻.
38-1) 불신자들
2) 천사들
3)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거역한다 하여도 인간의 그 오만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42-1)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방향으로 부터 보호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앞

에서와 뒤에서 공공연히 또는 비밀리에 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꾸란의 진리를 그릇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43-1) 불신자들이 그대 무함마드 이전의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을 거역했던 것처럼 무함마드를 거역하였다는 뜻이다.44-1) 꾸란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멀리서 부르는 것을 듣는 것처럼 그 꾸란이 인도한 것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45-1) 모세에게 구약(타우라트)이 계시되었을 때 모세의 백성들이 거역하고 이론을 제기하며 부정하려 하였듯이 그대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에 대해 백성들이 이론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슬퍼하지 말라는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위로(타슬리아)의 계시라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70/15).

2)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날까지 심판을 유예하지 아니 했다면 그들은 이미 현세에서 멸망하였으리라.

3) 모세의 백성들이 구약에 관하여 의심했던 불신자들도 꾸란에 관하여 의심을 하고 있다.

46-1) 모든 인간은 그가 행한 것이 옳거나 그릇된 것을 막론하고 그의 개인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47-1) 심판의 날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날로 본 절은 46절에 있는 "선을 행하는자 그의 영혼을 위해서요 악을 행하는자 그의 영혼을 위해 역행하는 것이니…"라는 절이 계시되매 "언제 그날이 오느뇨?"라는 질문에 "그날은 하나님외에 아무도 모르는 날"이라 계시가 된 것으로 "무함마드 알리 싸부니"교수는 풀이하고 있다. "유스프 알리"는 모세의 백성이 멸망하게 된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의심이 하나의 이유였다고 풀이하고 있다.

49-1)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을 추구하고 기원함에는 피곤해 하지 아니한다. 즉 재산을 추구하고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는 지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난이나 또는 병환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실망과 절망을 하기 쉽다.

51-1) 주님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 자만하고 거만해 한다.

52-1) 꾸란

제42장 수라트 슈라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53절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인 유일신 사상과 메시지 그리고 부활과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서두에서 계시와 메세지의 시원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그것은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전하여 불신과 방황의 길에서 복음과 믿음의 길로 인간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다. 일부 불신자들의 상태를 묘사하다가 다시 계시와 메시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의 종교만을 보내셨다고 하였다. 이 종교가 바로 노아와 모세 그리고 예수 그밖의 다른 나머지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이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후 꾸란을 부정하는 자들과 부활과 보상을 조롱하는 자들에 무서운 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에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였다. 심판의 날이 되면 그때는 자식이나 재물도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본 장을 끝내고 있다.

이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가장 완전하고 모범이 되는 '상호협의'(Shura)에 따라 사생활과 공동생활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장이 '슈라'(상호협의)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cit, p.21).

1-1) 하밈으로 시작하는 7개의 장(쑤라)중에서 3번째 시작되는 절이다(제2장 1절 참조).
5-1) 지상의 믿는 신앙인들을 위한 관용.
6-1) 예언자나 선지자가 그렇듯 무함마드도 선지자로서, 또는 복음의 전달자 그리고 경고자로써의 임무 같은 것 외에는 불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7-1) 그대 무함마드 이전 선지자들에게 계시했듯,
2) "움무 알꾸라" : "움무"는 어머니, "알꾸라"는 그 도읍 또는 마을들이란 뜻으로 메카를 가르킨다. 이 메카를 도시 또는 도읍이라 불리우게 된 것은 그 안에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있고 또 아랍인들은 모든 것의 근원을 어머니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맘 알 파크르"는 해석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22).
3) 전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8-1) 일신교 믿음에 바탕을 둔 하나의 공동체, 즉 이슬람 공동체
9-1)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으로부터 구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은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피조물을 숭배하여 보호를 구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행위로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에 응답할 수 있으며 심판의 날 하나님이 내리실 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10-1) "믿는 신앙인들이여! 세상 일과 내세의 일에 관하여 논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탁하여 결정하라. 그분은 그분의 성서와 예언자의 전통에 따라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23).
12-1) 비를 내리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등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창고의 열쇠
13-1) 하나님의 종교는 본질과 근원이 같다. 즉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및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에 이르기까지 이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려진 종교는 곧 하나님이 보낸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2) 하나님만을 홀로 경배하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분의 성서들과 선지자들과 부활과 보상을 믿는 이슬람을 가르킨다.
3)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것.
14-1)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 및 그밖의 백성들은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분명한 예증이 그들에게 이르렀는데도 그들의 이기적 욕심과 시기때문에 분열하고 있다.
2) 심판의 날.
3)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곧바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심판의 날까지 유예한 것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제10장 19절 참조).
15-1) 유대인 및 기독교인 그리고 그밖의 백성들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교에 관하여 의심하고 논쟁하며 분열한 이유. 그래서 본 절은 지구상에 분열되어 있는 교파들이 하나님의 복음 즉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연성을 제시하면서 세속적 또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아니되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16-1) 이슬람에 귀의 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유혹했던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계시된 절이라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513).
17-1) "미잔"은 저울이란 뜻으로 본 절에서는 공평, 균형, 공정한 처리 등의 뜻을 암시하고 있다(이브누 압바쓰). 또한 다른 해설가들은 균형을 저울로 표현한 것은 저울이 항상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라 풀이하고도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26).
18-1)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과 부활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다. 그들은 또 말하길 "만약 심판의 날 벌이 있다면 지금 그 벌이 있도록 하라"고 한다. 그러나 믿는 신앙인들은 내세를 두려워하고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20-1) 땅을 일구어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며 보살피는 농부는 계절이 되면 씨앗을 뿌린 만큼 수확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수확을 위해 내세의 경작지를 일구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수확을 더하여 주나 현세의 경작만을 원하는 자는 현세의 수확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내세의 수확은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21-1) 보상과 벌을 심판의 날로 유예하지 아니 했다면 이미 그들 불신자들에게는 현세에서 벌이 내려졌으리라.
22-1) 현세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은 심판의 날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있다는 당연성
23-1) 복음인 메세지를 전하는 대가
2) 친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내가 내 주님의 메세지를 전할때까지 나를 방해하지 말라. "이브누 카씨르"도 같은 내용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선교와 충고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도다. 다만 내가 주님의 메세지를 전할때까지 나를 방해하지 말라 요구할 뿐이라(무함마드 알리 아랏부니, 제15권 op. cit, p.28). 라지는 친척을 파티마, 알리, 하산과 후세인으로 풀이하고 있다.
3) 잘못을 용서함에 너그러우시고 자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뜻으로 많은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작은 선행이나 크게 보상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24-1) 메카 꾸라이쉬 족의 불신자들
2) 만일 무함마드가 불신자들이 주장한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였다면 그대 마음을 봉하여 이 꾸란을 망각하도록 했을 것이라. 그러나 그대 무함마드는 거짓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대를 도와 승리하도록 하였도다.
25-1) 어떠한 죄라도 늦기전에 진실로 회개할 때 이 회개와 참회는 수락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7-1) 지나치게 재물이 많을 때 그것은 항상 사탄의 유혹에 휩쓸려 가기 쉽다. "이브느 카씨르"는 "필요 이상의 것을 부여한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죄악을 낳으리라" 또 "까타다"는 "가장 좋은 일용할 양식은 향락하지 아니하게 하고 낭비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29).
30-1) 모든 종류의 사악함이나 슬픔, 고통과 괴로움은 스스로 발생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따금 일어나는 재앙이나 불행은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써 나타나는 인과응보의 관계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것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 시켜서는 아니된다.
32-1) "알자와르" : 달리는 배들, "알아을람" : 큰 산 또는 높은 궁전이라는 뜻.
33-1) "역경이 있을 때 보다 많이 인내하고 은혜를 받음에 크게 감사하는 인간"이라고 "싸위"는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싸위 39/4).
36-1)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고 일순간의 향락을 버리고 인내하는 것.
37-1)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쉬르크), 살인(까틀), 부모에 대한 불효(우꾸끄 왈리 다이니)
2) 부끄러운 행위란 간음이라 "이부느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3) 훌륭한 인품이란 화가 날때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나 그러나 그 자비는 수

치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위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이다. 하나님의 성역을 침범한 것에는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그때는 화를 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샤피"는 "화를 내야 할 곳에 화를 내지않는 것은 당나귀"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한 시인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곳에 자비를 베푸는 청년은 바보"라고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32).

39-1) 36, 37, 38절 및 39절에서는 다음 9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①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
② 매사에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③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위, 즉 간음을 피할 것
④ 관용과 자비를 베풀 것
⑤ 하나님의 부름과 예증에 항상 귀를 기울일 것
⑥ 항상 예배하고 기도할 것
⑦ 어떤 일이든 상호협의하여 처리할 것
⑧ 자선을 베풀 것
⑨ 불의를 발견할때 이를 저지할 것

44-1) 현세로 돌아가는 길. 그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다시 현세로 돌려보내 달라 요구하나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꾸르뚜비 해설 46/16).

45-1) "따르프 카피" : 두려움으로 쳐다보는 것 그리고 살해하기 위해 칼을 앞으로 내려치는 것을 볼 때 놀라움으로 쳐다보는 것 등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까타다"와 "싸디"는 가장 큰 두려움으로 훔겨보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알카비르 해설 178/27).

47-1) 심판의 날.
2) 믿음과 순종.
3) 심판의 날에는 어느 누구도 그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에 대하여 회피할 수 없다. 또한 부인할 수도 없으며 타인에게 전가할 수도 없다.

48-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하여도 그대 무함마드의 임무는 그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하는 임무일 뿐이라 위로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525/7).

50-1) 하나님은 인간을 4가지 형태로 두었다. 하나는 여아만을 주고, 둘째는 남자 아이만을 주며, 셋째는 남자아이와 여아를 같이 주며, 넷째는 남자 또는 여자에게 홀로 임신할 능력을 주지 아니하였다(무크타싸르 이부누 카씨르 283/3).

51-1)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경로가 3가지로 묘사되고 있다. 첫째 현몽 또는 영감으로써 계시된 것으로 예언자들의 현몽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있다 : 내가 꿈에서 나를 회생하는 것을 보니
2) 두번째는 "와라아 히잡" 즉 베일 뒤 또는 가리개 뒤에서 말씀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과 같다.
3) 세번째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내렸다.

52-1) 빈디나르 왕이 묻기를, "꾸란의 백성들이여 꾸란이 너희 마음에 무엇을 심어 주느뇨?"라고 하자, "비가 대지의 봄이듯 꾸란은 마음의 봄이라"하였다(꾸르뚜비 55/16).

제43장 수라트 주크루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89절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와 교리, 즉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 그분의 메시지, 부활과 보상을 다루고 있다.계시의 근원을 시작으로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꾸란이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홀로 존재하심을 하늘과 대지, 산과 바다, 강, 하늘에서 내리는 비 등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존재와 전지전능한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무지의 시대라 일컫는 이슬람 이전 사회에서는 우상과 미신에 노예가 되어 여아가 천대를 받았다. 당시의 불신자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딸들로 간주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불신을 제거하는 말씀이 계시되고 아브라함이 우상을 파괴였다는 이야기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에 대한 불신자들의 자세 그리고 모세와 파라오의 이야기가 다시 재연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내세의 상태와 내세에 관한 이야기로 본 장이 끝나고 있다. 훌륭한 비유의 하나로써 현세는 내세에 도달하기 위해 단지 지나가는 한 과정으로서 '장식'(주크루프) 된 것에 불과하나 내세는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단지 스쳐 지나가는 현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 현세는 장식된 날에 불과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주크루프'(장식)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cit, p.39).

1-1) 하 밈으로 시작하는 7번째 절 중에서 4번째로 꾸란 기적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제2장 1절 참조).

4-1) 제3장 7절, 제13장 39절 참조.옴무 알키탑 : "옴무"는 어머니, "알키탑"은 그 책이란 뜻으로 계시의 근원이란 의미로 이해된다. 즉 계시는 하나님께 보존된 기록판으로 부터 계시된 것으로 이해된다.

5-1)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선지자를 통하여 20년 동안이나 선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꾸란을 통하여 정하여진 그날까지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해석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285/3).

6-1) 인간의 거만함과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옛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 백성중에는 그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무리들이 있었다.

7-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그대 무함마드 이전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대에게도 있을 뿐이니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40).

8-1)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2) 선지자 무함마드 이전 백성들로 그들에게 임했던 예언자 및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던 불신자들은 메카 꾸레이쉬 족의 불신자보다 힘이 더 강했음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강한 백성들도 하나님과 선지자들에 대한 불신과 거역으로 멸망케 되었다는 교훈이다.

9-1) 이 부류의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지식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보살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제29장 61절 및 31장 25절 참조).

10-1) "미하드"는 카페트, 침상, 또는 요람이란 언어적인 뜻으로 본문에서는 "휴식처"로 풀이를 하였다.

11-1) "미끄다르" : 필요한 양 "바이다위"는 "피해를 주지 아니하며 필요한 양에 해

당하는 유용한 양"이라고 풀이하고 있다(알바이다위 177/2).
2)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리게 하여 생물이 돋아나게 하듯 죽은 인간을 부활의 날 다시 영원한 삶으로 부활 한다는 뜻.
12-1) "아즈와즈" : 쌍 또는 짝이란 언어적인 뜻으로 본문에서는 동물이나 식물 또 그밖의 모든 종류의 자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위에 언급한 것 뿐만 아니라 달고 쓴것, 검고 하얀 것, 남성과 여성 등 자웅과 상대적인 것 까지를 가르킨다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41).
13-1) 바다에서는 배를 이용하도록 하고 하늘에서는 비행기를, 육지에서는 자동차를, 사막에서는 낙타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
15-1) 하나님께 아들이 있으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 묘사하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41).
16-1)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다. "하나님은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아니했느니라"
17-1) 딸들이 태어나면 증오했던 불신자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딸들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있게 되면 그들은 슬퍼하였다.
19-1)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불신자들의 거짓 증언을 기록케 하여 심판의 날 그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한다는 뜻으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한편 해설가들은 불신자들의 불신을 3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다. 첫째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조롱으로 불신하고, 둘째 하나님께 딸들이 있다는 조롱으로 불신하고, 셋째 천사들은 여성이라고 말하면서 꾸란을 3가지 형태로 불신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42).
20-1) 천사들이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아니 했을텐데 하나님이 원하여 그것들을 숭배하였다고 말하며 그들은 더욱 그들의 불신을 더해 갔을 뿐이다.
21-1) 꾸란
2) 꾸란 이전에 계시된 성서에 천사들이나 우상들을 숭배하라 계시되어 그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꾸란 이전에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성서가 그들에게 계시되었단 말인가?(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43).
28-1)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유일신 사상. 「무자히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로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사르 이브누 카씨르 288/3).
2) 불신자들
29-1) 메카 백성들
2) 아브라함의 후손
3) 꾸란
4) 선지자 무함마드
31-1) 메카와 따이프(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45)
2) 메카의 "알왈리드 이븐 알무기라"와 따이프의 "우르와 이븐 마쓰우드 싸카피"를 의미한다고 풀이되고 있다.
32-1) "꾸란이 불신자의 지도자들에게 계시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고아인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었느뇨"라고 조롱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뜻대로 하시니 현세에서 일상생활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부유하게도 부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시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3-1) "옴마 와히다"는 "하나의 공동체"란 언어적인 뜻으로 본문에서는 현세에 집착하고 현세만을 좋아하여 불신을 추종하는 무리라는 뜻으로 풀이 된다(꾸란의 어휘 해설… p.308).
35-1) 주크루프 : 금, 장식

2) 33절과 34절 및 35절은 현세의 향락에 대한 탐닉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유혹에 빠진 불신자들이 원한대로 재물과 재보를 부여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분의 종들을 사랑하사 원하는 대로 주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또는 가난하게 하여 시험하듯 불신자들도 부유하게 또는 가난하게 하여 시험하도록 하여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불신자들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아니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46).

36-1)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있을 때 곧 사탄이 그를 뒤따른다는 뜻.

37-1), 2) 하나님의 교훈을 외면하는 불신자들

38-1)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와 그를 유혹한 사탄

2) 사탄을 따랐던 무리와

39-1) 심판의 날

2) 불신자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그를 유혹했던 사탄과 함께 있게 되며 불지옥으로 이를 때 까지 헤어지지 아니 한다고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47).

40-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한다 하여 슬퍼하지 말라는 뜻으로 무함마드가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진리에서 멀어져 더욱 방황하였을 뿐이다.(Ibid. p.43)

41-1) 사망한 이후

42-1) "그대 무함마드의 생존 기간에도 불신자들에게 약속한 벌을 그대로 하여금 보게하니라" "이브누 압바쓰"는 바드르 날 그(무함마드)에게 그것(벌)을 보여 주었다고 풀이하고 "이브누 까씨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적들에 대한 벌을 확인 시켰다"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사르 이브누 까씨르 290/3).

43-1) 천국으로 가는 길

45-1) 유일신 하나님 만을 경배하라는 계시에 그대 무함마드가 의심한다면 : 라는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풀이 된다.(Ibid. p.48)

47-1) 제17장 101절 참조

48-1) 모세가 그들 백성들에게 보인 예증(기적)은 9가지였다. 제7장 133절 및 제17장 101절 참조. 그래도 불신자들은 그 예증들을 마술이라 조롱하였으니 그들의 죄악은 더해만 갔을 뿐이다.

50-1) 그들을 벌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려 모세를 통하여 말씀과 예증을 보여 주었다.

51-1) 나일강으로 그 당시 나일강 물은 애굽의 번영을 자랑하는 상징이었다.

52-1) 모세

55-1)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이 참회하지 아니하고 더욱 사악하여지니 후세대에 교훈이 되도록 벌을 내렸다(제7장 136절 참조).56-1) 파라오와 그의 백성을 멸망케 하여 교훈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메카 꾸라이쉬족을 응벌하여 그 이후 세대를 위한 교훈이 되도록 하였다(꾸르뚜비 102/16).

57-1) 꾸란에 언급된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교훈

59-1) 하나님은 예수에게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메세지를 보냈을 뿐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신의 자격으로서 온 것은 아니다. 다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아버지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교훈으로 하기 위해서 일 뿐이다. 그것은 아담을 아버지와 어머니도 없이 창조한 목적과 똑같다(타프씨르 알카비르 222/27).

60-1) 아버지 없이 태어난 예수가 다른 예언자 및 선지자들 보다 위에 있다고 말한다면 부모없이 창조된 천사들은 더욱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는가? 특히 천사는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세속적 운행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 더욱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천사들도 보다 높이 있지 않다.

61-1) 예수의 재림은 곧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부누 압바쓰"와 "꾸타다"는 "예수가 태어나는 것은 내세를 알리는 징후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얼마 전에 하늘로부터 예수를 내려 보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51). 또한 부카리가 전하는 하디쓰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재림하리니…"

2) 나의 복음 즉 꾸란.

63-1) 종교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논쟁했던 것. 「이브누 주지」도 선지자들이 세상에 온 것은 일상생활의 논쟁을 밝혀 주기 위해 온것이 아니라 종교에 관한 논쟁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65-1) 예수에 대한 분쟁으로 어떤 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다른 무리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 하였으며, 어떤 무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2) 심판의 날

67-1) 아킬라우 :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과 함께했던 동료들.

69-1) 꾸란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자들.

77-1) 지옥의 문을 지키는 천사

2) 불지옥의 고통에 못이겨 지옥의 문을 지키는 천사 말리크로 하여금 주님께 구하여 생명을 거두어 달라 부탁하나 그들 죄인들은 그러한 고통의 상태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 대답하고 있다.

79-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들 불신자들은 무함마드에 대하여 음모를 꾸몄다.

2)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에 대하여 무함마드를 보호하고 불신자들을 멸망케 하여 승리하도록 하였다. 이 절은 클럽에 있는 무함마드에 대한 음모를 꾸미려 했을 때 계시된 것으로 "무까띨"은 풀이하고 있다(꾸르뚜비 해설 118/16).

80-1)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심이라

2) 이 절에서는 "루술"은 천사들을 일컫는다.

3) 이 절은 "알아크나쓰 이븐 슈라이크" 또는 "알아쓰와드 이븐 압두 야구쓰"에 관해 계시된 것으로 모임에서 "알아크나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밀을 들은 것을 보았는가!"라고 말하자 "알아쓰와드"는 "우리 모임의 이야기는 듣지만 우리의 비밀을 듣지 못하니라"라고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55).

81-1) 모든 권능과 지혜와 진리와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은 아들이 필요치 아니하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86-1) 중재는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진리를 증언한 자의 중재는 유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설가들은 진리를 증언할 이들은 "예수와 아지르 그리고 천사들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언할 것이라"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56).

88-1) 예언자 무함마드의 외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을 때 무함마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외침이라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Ibid. p.56).

89-1) 그들의 죄악과 불신에 대한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뜻.

제44장 수라트 두칸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59절로 유일신 사상,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믿음의 근본을 다루면서 다른 메카 계시들과 유사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기적인 꾸란에 관한 이야기와 인간을 대지의 상속자로 두었으되 모든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귀의한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축복 받은 밤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이야기와 최후의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에게 최후의 성서를 내리셨다는 이야기, 꾸란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의 상태와 그들에 대한 징벌, 파라오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 부활을 불신한 메카 꾸라이쉬 부족의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다가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의 말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경고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이 '두칸'(연기)의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두칸'(연기)으로 하여 불신자들을 두렵게 하였다.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칸'(연기)을 보내 그들을 거의 질식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cit, p.58).

1-1) 다섯번째로 언급되는 꾸란 기적중의 하나(제2장 1절 참조).
2-1) 꾸란
3-1) 축복받은 라마단 달 축복받은 밤에 계시되었다. "라마단 달에 꾸란이 계시되었나니…" 어떻게 계시되었는가에 대하여 「이브누 주지」는 "그 달에 그것(꾸란)이 대지의 하늘로부터 한 문장으로써 계시된 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조금씩 연차적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었다"고 풀이하고 있다.
4-1) 축복 또는 위대한 밤
5-1)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보내도다.
10-1) 하늘이 짙은 연기로 가득차 불신자들에게 가해지는 응벌을 그대 무함마드여 기다려 지켜보라! 어느 누구도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이라.
12-1) 이 벌을 거두어 준다면 무함마드와 꾸란을 믿는 신도들이 되겠다는 불신자들의 위선적인 얘기다.
13-1) 응벌이 내려진 그때에 그들이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 믿음을 갖겠다는 말인가? 진리를 밝혀주는 메세지와 더불어 선지자가 그들에게 왔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했지 않는가?(Ibid. p.61)
14-1) 메카 불신자들은 무함마드에게 꾸란이 계시되었을 때 그들 불신자 가운데 일부는 "무함마드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라 말하였고, 다른 일부는 "무함마드는 미친 사람"이라 말하였다.(Ibid. p.61).
16-1) 이 날에 대하여 "이브누 마쓰우드"는 "바드르 날"이라 풀이하고"이브누 압바쓰"는 "부활의 날"이라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브누 카씨르"와 그밖의 해설가들은 "이브누 압바쓰"의 해설인 "부활의 날"이 더 근거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풀이하고 있다.
17-1) 파라오 백성인 애굽의 꼽트교인들
2) 모세
18-1)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박과 박해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풀이됨. "이스라엘 자손을 박해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보내 주소서"

2) "그러므로 나의 충고를 따르라"하는 내용이 함축된 것으로 풀이됨.
20-1) "타르자문" : "돌을 던지다"라는 뜻으로 상처를 입히다 또는 비방하다는 의미로 유프스 알리는 풀이하고 있다. 꾸란 어휘해설에서는 돌로써 살해하다는 뜻으로도 풀이하고 있다(꾸란어휘 해설 p.312).
21-1)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예증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를 해치지 말고 나의 길로 가도록 두라"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62).
22-1) 그래도 그들이 거역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23-1) 파라오와 군대의 추적
2) 이스라엘 백성
24-1) 파라오와 그의 군대
2) 모세가 바다를 건넌 후 다시 그의 지팡이로 바다를 때려 갈라진 바다를 하나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갈라진 채 두라 하셨으니 파라오와 군대가 뒤쫓아 오다가 그 안에서 익사케 하고자 하였다.
26-1) "마깜 카림" : 거주하고 휴식을 갖기에 좋은 장소(알바흐르 알무히뜨 36/8).
28-1)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그들이 가졌던 것으로 자랑하고 거만을 피웠던 과수원, 정원, 우물, 전답, 살기 좋은 거주지 그리고 풍요한 양식 등도 그들의 오만과 불신으로 바다속에 익사시켜 멸망케 함으로써 그 후세 백성에게 상속되었다.
2) 애굽 꿉트족의 통치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하게 되었다.
30-1) 남자아이들을 살해하고 여자 아이들은 파라오 백성들의 하녀로 이용했던 것과 그들에 대한 박해와 학대.
32-1) 이스라엘 자손
2)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다른 백성 중에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다. "꾸따다"는 그들 시대의 백성위에 선택된 것일 뿐 무함마드 백성위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해설하고 있다. "너희가 가장 훌륭한 공동체로 백성들 위애 나타났느니라"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64).
33-1) 바다를 갈라 놓은 것,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만나와 쌀와를 내려 준것 등 그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지 아니했던 예증 또는 축복이라고「라지」는 풀이하고 있다.
34-1) 꾸레이쉬 부족
35-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은 내세와 부활을 거역하고 있다. "그것은 오직 한번 죽는 것 뿐이라"
36-1) 선지자 무함마드와 믿는 신도들을 조롱하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로 인간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을 떠난 자기 선조들을 부활시켜 되돌려 달라고 말하고 있다.
37-1) 예멘 사바아 왕국의 "아비 카라비 알하미리 시대"를 가르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꾸란 어휘 해설집 p.313).
2) 아드와 사무드 백성이라고 아부 싸우드는 말하고 있다.
38-1)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들의 무지와 현세에 대한 탐욕 때문이다.
43-1) 불지옥에서 자란 가장 저주받은 나무.
47-1) 죄인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자바니야" 천사에게 내려질 명령
49-1) 지옥으로 들어가는 죄인에 대한 조롱과 경멸로써 표현되고 있다.
50-1) 이 벌은 너희가 현세에서 불신하고 의심했던 것으로 오늘 이것을 맛보라.
54-1) 히와르 아인 : 천국에서 창조된 청순하고 눈이 크며 현모양처의 여인.
56-1) 현세에서의 죽음

제45장 수라트 알자씨야

본 장은 메디나에서 14절, 메카에서 23절이 계시된 총 37절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유일성, 최후의 예언자로서의 무함마드, 내세와 부활 그리고 보상을 다루고 있어 다른 메카 계시와 유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꾸란을 계시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행복과 천국으로 이르는 길을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꾸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넓고 넓은 하늘과 대지, 인간 창조, 가축 및 그 밖의 모든 피조물, 밤과 낮, 바람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유일성을 예증하여 주고 있다. 꾸란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은혜, 예언자 및 선지자들에게 거만을 피운 백성들의 이야기, 심판의 날은 공정한 날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백성 두 무리로 분류될 것이라는 교훈으로 본 장은 끝맺고 있다.

본 장은 '심판의 날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공포와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고'(자씨야)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는 내용에서 '자씨'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cit, p.70).

1-1) 하밈으로 시작하는 6번째 절이며 꾸란 기적 중의 하나로 풀이됨(제2장 1절 참조).
2-1) 꾸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3-1)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예증.
5-1) 비구름을 생성케 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 이 물로 하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 물로 하여 곡식을 재배하고 식물을 재배하여 인간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여 주는 것.
2) 황폐된 불모의 땅.
3) 동서남북으로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더운 날씨, 시원한 날씨 그리고 추운 날씨가 되도록 변화 시키는 것.
6-1) 이러한 예증으로써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어떤 말을 믿을 것인가?
12-1) 무역을 통하여 은혜를 구하고, 바다속으로부터 보석과 광물을, 고기등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제16장 14절 참조).
14-1) 무함마드여! 한계를 넘어 해악을 미치는 불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믿는 신도(무으민)들에게 말하여라. 한편 "이부누 까씨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불신자들 그리고 성서의 백성들(기독교인과 유대인)이 무슬림들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그들을 인도하라 그것도 그들을 위한 사랑이라" (무크타사르 이부누 카씨르 309/3) 또한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날들"이란 내세를 믿지 아니한 이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벌로 보며 본절이 계시된 동기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한 불신자가 오마르를 중상모략 했을 때 혹시 중상모략한 그는 오마르가 복수를 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였다. 이에 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절이 계시된 것으로 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73).
16-1) 구약성서(타우라)
2)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

3) 누부와 : 예언자로써의 자격 또는 선택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예언자 및 선지자 들로 풀이된다.
4) "그 당시의 다른 백성에 우선하여"라는 뜻
5)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 하는 절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선지자로 하여 구약성서를 보내었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나 모세의 백성들은 이에 감사하지 않고 오만하고 거만하며 예증을 거역했다. 그대 무함마드의 백성들이 그대의 메세지와 꾸란을 불신하려 한 것도 모세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과 같은 것으로 무함마드를 위로하고 있다.
17-1) 구약성서(타우라)와 이슬람법(샤리야)에 관한 것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것.
18-1) 이슬람 법
21-1) 믿는 자는 믿는 자로 부활하며, 불신자는 불신자로 임종하고 불신자로 부활한다(꾸르뚜비 166/16).
23-1)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4가지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첫째는 향락 또는 유혹에 따라 믿는 숭배, 둘째는 지식과 사실에서 벗어난 방황, 셋째 청각과 마음을 봉함, 넷째 시력을 봉함(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76).
29-1) 하나님은 천사에 명령하여 인간의 업적를 기록하는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30-1) 라흐마 : 은혜라는 언어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최후 은혜는 곧 천국을 가르킨다.
31-1)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 했느뇨?

제46장 수라트 알아흐까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35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인 하나님의 유일성, 메시지 및 부활과 보상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꾸란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라는 것을 시작으로 불신자들이 숭배한 우상들, 불신자들의 꾸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에 대한 예증들을 다루고 있다. 바른 길을 걷는 인간의 유형과 방황의 길을 걷는 유형의 인간, 의로운 사람, 부모에 대한 효도 등을 언급하면서 믿음과 부활과 보상과 소망을 비웃는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도 언급되고 있다.

후드와 오만한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강한 질풍에 휩쓸려 멸망한 사건을 메카 꾸라이쉬 부족 불신자들에게 교훈으로 경고하면서 꾸란의 낭송을 듣고 그것을 믿으며 사람들게 경고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무리에 대한 이야기로 본 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불신과 오만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아드족의 거주지는 예멘과 하드라마우트에 인접한 모래 언덕으로 길게 구릉을 이루고 있다. "아드의 한 형제 후드를 상기하라. 그는 굴곡진 모래언덕(아흐까프)에 거주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노라" 라는 절에 기인하여 '아흐까프'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6권 op.cit, p.5).

1-1) 하밈으로 시작하는 7절 가운데서 마지막 7번째로 언급되고 있다(제2장 1절 참조).

2-1) 꾸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제45장 2절 참조).
4-1) 꾸란
7-1) 제37장 12-15절 참조
8-1) 내가 꾸란을 위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시어 위조한 대가로 내게 벌을 주시리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벌을 막아 줄 수 없나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말씀을 위조하고 내가 스스로 벌을 받으려 하겠는가?
2) 꾸란에 관한 그들의 논쟁, 선지자 무함마드를 시인, 마술사 또는 위조자라고 모욕한 것.
10-1) 너희가 부정한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 사실이요 진실일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느뇨?
2) 그 증인은 이스라엘 자손 "압둘라 이븐 쌀라"으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여 왔을 때 "이브누 쌀람"은 무함마드를 찾아와 그가 선지자인가를 시험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무함마드가 기다렸던 예언자였음을 알아차리고 3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브누 쌀람"이 질문하길, "예언자 아니고는 알지못한 3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심판의 첫째 조건은 무엇이며, 둘째, 천국의 백성들이 먹을 최초의 음식은 무엇이며, 셋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의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자 선지자 무함마드는 이에 대답하였다. 이때 "이브누 쌀람"은 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제가 증언하나이다"라고 하였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 318/3).
11-1) 가난했던 빌랄, 압마르, 슈하이바 그리고 카바바 등 이슬람에 귀의하여 예언자 무함마드를 따랐던 허약한 자 또는 하인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 318/3)
2) 메카의 불신자들
12-1) 꾸란
2) 구약(타우라)
3) 꾸란
4) 구약(타우라)
13-1) 믿음으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 샤리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
15-1) 인간의 온전한 행복이 3가지로 묘사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
셋째, 자손들을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
(하-씨야 알바이돠위 : 336/3)
18-1) 그들 죄인들은 지옥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2) "이맘 파크리"는 말하였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길, 이 절은 "아브 바크르 시디끼"의 아들 "압두 라흐만"이 이슬람에 귀의하기 전에 그에 관해 계시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어떤 특정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종교로 인도할 때 그것을 거역하고 혐오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Ibid. p.11). 물론 "압두 라흐만"도 그의 아버지의 인도로 이슬람에 귀의하여 무슬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타파씨르 카-피르 23/28).
19-1) 믿음을 가진 자(무으민)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등급이 있고 불신자(카피르)에게는 지옥에 머물러야 할 등급이 있다는 뜻
20-1) 음식, 음료수, 의복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21-1) 이흐까프 : 예멘 국가에 있는 모래로 된 구릉. "이브누 까씨르"는 그것을 모래로 된 산이라고 말하고, "까타다"는 예멘의 사막 유랑민들의 한 거주지라고 풀이하였다(Ibid. p.46).

2) 백성들에 대한 후드의 경고
23-1) 불신자들에게 응벌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하자 그의 오만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벌이 언제이뇨?"라고 후드에게 묻자 "응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것으로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24-1) 후드가 그들에게 말하길, "그것은 너희가 주장했던 비가 아니라 너희가 서둘러 재촉한 응벌이라고 말하였다.
25-1) 제7장 65절 참조
26-1) 메카 꾸라이쉬 족의 불신자들
2) 아드 백성
3) 메카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
27-1) 메카 불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아드, 싸무드, 싸바아 그리고 롯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경고하고 있다.
28-1) 3)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
2) 불신자들이 멀리했던 하나님의 응벌이 내려졌을 때 그들 불신자들이 숭배하였던 우상들은 왜 하나님의 벌을 막을 수 없었는가!
29-1) 나프르 : 3~10명 사이
영마 : 제6장 100절 참조
2)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영마도 꾸란을 듣고 믿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알고 있거늘 너희는 불신으로 거역한단 말인가!(꾸르뚜비 해설 210/16)
31-1)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선지자이다. 선지자께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초대할 때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어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고 부활의 날 고통스러운 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교훈이다.

제47장 수라트 무함마드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38절로 다른 메디나 계시처럼 전쟁 또 살생의 법칙, 포로, 전리품 그리고 위선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성전에 관한 이슬람법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적들인 불신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슬람에 도전하여 선지자 무함마드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성전을 언급하고 있다. 불신자들에 대항하여 성전하라는 명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지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부패와 부정을 막아야 하며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종교를 지킬 때 승리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지나간 옛 세대의 오만하고 거만했던 백성들에게 메카 불신자들을 비유하면서 위선자의 권모술수는 이슬람과 무슬림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의 승리를 약속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브누 압바스와 까타다는 본 장이 무함마드가 메카를 빠져나와 슬픈 마음으로 살던 집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계시된 장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이 두 학자를 제외한 다른 학자들은 메디나 초기에 계시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후자의 의견이 가까운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장은 '성전의 장' 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이브누 까씨르 제4권, p.172).

1-1) 하나님과 이슬람에 적대시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19).
2-1) 꾸란

2) 종교와 현세에서의 그들의 외적 그리고 내적 상태의 상승
3-1) 그들의 행위 및 업적을 헛되게 하고 방황케 하는 이유
4-1) 파 다르바 리까브 : "다르바"는 때리다, "리까브"는 목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살해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46/4).
2) 적들을 살생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또는 포로로써 완전히 제압하여 적들이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을 때는 나머지 적들을 포로로 잡되 살생하지 말라는 뜻이다.
3) 아무런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4) 아군이 적들의 공격으로 피해가 많을 경우
7-1) 너희 발을 확립하라 :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치를 확립하여 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9-1) 하나님께서 계시한 모든 성서들 및 율법. 한편 "잠카샤리"는 꾸란과 율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6권 op. cit, p.21).
10-1) 아드, 사무드 그리고 롯의 백성 등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만하며 거만했던 그밖의 백성들.
13-1) 메카의 백성들
2)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나와 히라 동굴에 숨어 있다가 메디나로 이주(히즈라)하기 위해 동굴에서 나와 메카를 바라보면서 말하길, "그대 메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읍이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도읍이라. 메카의 백성들이 그곳으로부터 나를 추방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아니할텐데 라고 말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하쉬아 알자말 알라 알잘랄라인 145/4).
15-1) 믿음으로 의로움을 실천하는 자들(무따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된 천국
2) 물의 냄새
3) 오랜 기간이 지나도 냄새나 맛이 변하지 아니하는 달콤한 우유
16-1) 위선자들
2) 무함마드의 동료들이면서 학자들이었던 "이브누 압바쓰"나 "이브누 마쓰우드"로 위선자들이 그들에게 묻기를, "무함마드의 심판에 관하여 방금 무엇이라 말했느뇨"라고 물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6권 op. cit, p.16).
18-1) 예증 가운데 하나로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도래하였다.
2) 후회도 그리고 회개도 유용하지 못할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위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9-1) 현세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
2) 내세에서 거주할 곳
20-1) 믿음과 충성심을 가진 남성들은 그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려 명령을 기다린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생명과 현세의 삶을 두려워 할 뿐이다.
2) "쑤라"는 장(chapter)을 의미하나 본절의 "쑤라"는 성전(지하드)에 대한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Ibid. p.25).
3) 의심과 위선
22-1) 이슬람을 외면하고 옛 무지의 시대(자힐리야)에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가 지상에 해악을 퍼뜨리며 친척과의 유대를 단절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려 하느뇨?(Ibid.) 하나님의 성서를 거역하며 살생하고 금기된 것을 탐닉했으며 친척들과의 혈연을 단절하며 하나님께 거역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너희는 보지 아니했는가?
23-1)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 그들로 하여금 방황토록 버려둔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25-1) 믿음을 가진 후 다시 불신하는 자
28-1) 그러한 응벌이 내리는 이유
2) 위선에 탐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과 성전을 증오하는 행위

29-1) 위선자들
2)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증오
31-1) 시험과 시련은 인간 스스로의 영적 승화발전을 위한 것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의 행위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다(제34장 21절 및 제3장 154절 참조).
32-1) 하나님의 말씀과 예증들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2) 이슬람에 귀의하여 무슬림이 되려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34-1) 하나님은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귀의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관용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으나 하나님과 비유하여 우상을 숭배한 불신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35-1) 패자가 되어 불신자들과 휴전을 원하는 그러한 약자가 되지 말라
2) 왜냐하면 너희는 믿는 신도들로 그들 위에 있기 때문이라
3)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는 절은 적들에게 꼭 승리한다는 말씀(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338/3)

제48장 수라트 알파트흐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29절로 이슬람법과 일반거래, 신앙과 윤리 등 다른 메디나 계시와 동일한 목적을 띠고 있으면서 이슬람법의 일부분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이슬람력 6년 선지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합의 조인되었던 후데이비야 휴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최대의 승리라 일컬어지고 있는 메카 정복에 관한 이야기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심어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선지자를 따라 신도들과 함께 성전에 출전하지 아니한 위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선지자가 잠에서 본 꿈을 추종자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기뻐하였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와 무슬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메카에 입성한다는 꿈이었다. 그 꿈이 실현되면서 믿는 신도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소순례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분의 추종자들을 위한 축복을 기원으로 본 장이 끝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믿는 신도들에게 분명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알려 줌으로써 본 장이 '알파트흐'(승리 또는 정복)의 장으로 불려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6권 op.cit, p.30).

1-1) 메카의 정복
2) 본절은 후데이비야 휴전을 가르키는 것으로 이 조약에 의하여 오랫동안 이슬람에 대적하여 오던 메카 꾸라이쉬족들은 이슬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아라비아 반도 전체는 물론 전 세계에 이슬람이 자유로히 퍼져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 것이라.
3-1) 이 후데이비야 조약의 결과는 다음 3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
둘째, 선지자로써의 명예를 충만케 하였으며
셋째, 올바른 길 곧 이슬람의 문이 열리면서 메카는 이슬람의 상징적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8-1) 심판의 날의 증인으로써, 믿는 신도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써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불지옥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10-1) 후데이비야 협상에서 메카 꾸라이쉬족이 메카에 파견된 선지자의 대표단에게 대우를 잘하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했는지가 확실하지 못하여 1400~1500명이 군집하여 있던 무슬림 야영지에서 소란이 일고 있었을 때 그들은 크게 열광하며 아랍 관습에 따라 손에 손을 얹고 선지자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였다. 이것 자체로써도 도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 힘의 승리를 뜻하였다. 이슬람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맹세(Biat Ridwan)라 것이라 부르고 있다 (Abdullah Y. Ali, op. cit, p.1393).
2)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위치를 지켜보며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
11-1) 후데이비야의 해 무함마드를 따라 출전하지 아니했던 위선자들
12-1) 살해되어 영원히 고향과 가족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14-1) 죄인에게는 그 사악함에 대한 응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속으로 들어옴으로써 그 죄인의 사악함은 용서된다. 하나님의 정의는 벌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관용이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회개하는 자를 위해 응벌보다 관용이 위에 있다.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시니라"
15-1) "후데이비야"의 해 선지자 무함마드를 따라 출전하지 아니했던 위선자들
2) 여러분과 함께 "카이바르"에 출전하여 전투에 임하도록 허용하여 주소서
3) "카이바르"의 전리품은 "후데이비야" 백성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 위선자들이 변경하려 하였다. 하나님께서 메카 정복에 대한 승리의 대가로 "카이바르"의 전리품들을 후데이비야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다(꾸르뚜비 해설 제16권 p.35).
4) "카이바르"의 전리품은 후데이비야에 출전했던 신도들을 위한 것이라.
16-1) 후네이파 자손들
18-1) 후데이비야의 나무그늘 아래서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을 그대 무함마드 앞에서 맹세하였던 신도들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다. 이 맹세를 하게 된 이유와 동기에 관해 해설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후데이비야에 도착하였을 때 "오스만 븐 아판"을 메카로 보내 우무라(소순례)를 행하기 위하여 이곳 메카에 오게 되었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스만이 그곳에 갔을 때 메카 꾸라이쉬족이 그를 구금하여 오스만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는 신도들에게 메카에 들어가 싸울 것을 촉구하자 모두가 선지자에게 맹세하였다. 이 맹세를 "바이아트 리드완"이라 한다. 한편 이 소식이 메카에 전하여지자 그곳의 불신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오스만을 석방하고 무함마드에게 내년에 와 메카에서 3일간 체류할 것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무함마드에게 맹세했던 신도수는 1400명 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19-1) "카이바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
20-1) 카이바르 주민 및 "바니 아싸드"와 "가뜨판" 동맹군의 힘을 제지하여 믿는 신도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였다.
2) "후데이비야"에서의 승리는 믿는 신도들을 위한 승리와 단결의 상징이었다.
21-1) 이슬람의 승리와 더불어 물질적, 정치적 승리는 물론 도덕적 그리고 정신적 승리를 일컫는다.
2) "아하-따 알라 비하" :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에워싸다"가 언어적 해석이나 "준비하여 주다 또는 그들을 간직하여 주다"의 뜻으로 풀이됨.
23-1) 순나 : 방법, 길, 관습.
24-1) 메카 성역 가까이 있는 후데이비야에서 불신자들의 손들을 제지하였듯이 메카 불

신자들의 손들을 제지하였으며,
2) 믿는 신도들로 하여금 하람사원에서 살생을 하지 아니하도록 믿는 신도들의 손들을 제지하였다.
25-1) 하나님과 선지자를 거역한 오만했던 메카 꾸라이쉬 불신자들
2) 후데이비야 해의 우무라(소순례)을 수행하기 위해 믿는 신도들이 하람사원에 들어가려 했을 때 메카 꾸라이쉬족 불신자들은 이를 막았다.
3) 메카 주민들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두려워 그들의 믿음을 감추었던 허약한 남녀 신도들이 없었다면
4) 이들과 불신자들이 뒤섞여 있어 누가 믿는 신도인지 알 수가 없어 잘못 믿는 신도까지 살해할 수도 있을 불행
5) 믿음을 가진 자들과 불신자들이 완전 구별만 되었다면
26-1) 그들 마음속에 오만함이 생기자 평화협상 서한에 제일 먼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명칭과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표현 기입을 거절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랐을 것이요"라고 말하면서 "당신 이름과 당신 아버지 이름"을 쓰라고 하였다.
2) 칼리마트 타끄와 : 의로운 말씀이란 해석으로 유일신(타우히드)의 말씀 즉 "라 일라하 일랄라후"라는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27-1) 선지자 무함마드는 그의 꿈속에서 그와 그리고 동료들이 메카에 입성하여 카으바 신전을 돌며(따와프) 예식을 행한 후 일부는 삭발을 하고 일부는 머리카락을 짧게 깍았던 꿈을 추종자들에게 이야기 하자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무함마드가 추종자들과 "후데이비야"로 나갔을 때 메카 불신자들은 메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선지자의 꿈을 조롱하며 "이 꿈이 어디서 온 꿈이요?" 라고 비웃자 일부 무슬림들의 마음속에도 위선이 잠재하게 되자, "실로 하나님께서 그 현몽이 사실임을 입증시켜 주었으니…"라고 계시되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6권 op. cit, p.41).
2) 우무라(소순례)를 수행하기 위해 메카에 들어가 소순례를 행하고 머리를 삭발하거나 짧게 자르는 것
3) 후데이비야 협상
28-1) 이슬람
29-1) 그의 종교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것이요 종교에 충실하며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이 있을것이라(아부 싸우드 86/5).
2) 부복하여 예배를 많이 드려던 흔적
3) 불신자들에게는 고난이, 믿음으로 예배를 많이 행하는 신도들에게는 자비가 있다는것

제49장 수라트 알후즈라트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18절로 교육의 현실과 윤리를 다루고 있어 윤리의 장이라 부르는 일부 학자들도 있다. 하나님께서 믿는 도들에게 제시하는 예의범절로써 하나님의 법과 선지자에 대한 예의를 시작으로, 선지자와 대화를 할 때 목소리를 낮추는 예의, 일반 사람들에 대한 예의보다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예의범절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그분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 것과 험담과 음모, 중상모략, 믿는 신앙인에 대한 사악한 생각 등을 경고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참 신앙인이란 믿음과 정직, 성전과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자임을 끝으로 묘사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이 '후즈라트'(방들)로 불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드 가정에 대한 성스러움을 언급하였는데 바로 그곳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는 신도들의 어머니들이 거주했던 방들이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6권 op.cit, p.45).

1-1) 하나님과 선지자가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예의범절로 음식이 나올 때 먼저 먹지 아니하며, 선지자와 함께 걸을 때 선지자 앞에서 걷지 아니하며,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는 예의를 가르킨다(Ibid. p.49).
2-1) 또한 선지자 무함마드를 부를 때는 이름이나 별명(쿤야)으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예언자여!(야 나비얄라), 도는 하나님의 선지자여!(야 라술룰라)라고 부르는 것이 예의임을 제시하고 있다.
4-1) 믿는 신도들의 어머니이며 선지자의 부인이 있는 방
2) 바니 타밈의 부족을 대표하여 우나이나 후세인과 알 아끄라아 이븐 하-비쓰가 한낮에 침대에서 편히 쉬고 있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찾아와 "무함마드, 우리에게로 나오시요"라고 크게 소리쳐 불렀다고 전하여 지고 있으며(알바이되위 해설, 367/3) 이로하여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6권 op. cit, p.45).
9-1) 하나님의 율법
10-1) 이슬람의 형제애는 믿음의 결합으로써 이슬람의 가장 큰 사회이념이다. 이 이념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마지막 순례 때 행한 연설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이 이념이 성취될 때까지는 이슬람이 완전히 수행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5-1) 온전한 신앙인이란
첫째,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고
둘째, 의심하지 아니하며
셋째,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지하드)하는 것으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제50장 수라트 까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45절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인 하나님의 유일성과 메시지, 특히 부활에 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은 꾸라이쉬 부족의 불신자들이 믿기를 거절한 내세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에 관한 계시를 시작으로, 부활을 부인한 불신자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하늘과 대지, 물과 식물, 열매 등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전 세대들 가운데 있었던 위선자 또는 거짓말쟁이들에 있었던 징벌을 교훈으로 메카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심판의 날에 있을 벌을 얘기한 후 모든 인간은 그의 업적에 따라 대가를 받게 된다는 교훈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본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꾸란 기적 중의 하나인 '까프'로 시작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1-1) 제2장 1절 참조
2) 그대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부활은 사실이라(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 16권 op. cit, p.55).
2-1)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을 전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응벌을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5-1) 꾸란
2) 때로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시인이라, 때로는 마술사라, 때로는 점장이라 하는가 하면 꾸란에 대해서는 마술, 시 또는 선조들이 우화라는 등으로 조롱하면서 그들 스스로 혼돈 속에 빠져버렸다.
10-1) 싸-비 까-트 : 높은
2) 나 뒤-드 : 위 아래로 겹치어
3) 딸운 : 아직 완전히 익기전의 종려나무의 열매
11-1) 무덤에 있는 시체를 부활시키는 것은 죽은 불모의 대지에 비를 내려 식물이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부활한다는 비유
12-1) 제6장 24~48절 참조
2) 제25장 38절 참조
3) 제26장 123~158절 참조
13-1) 제26장 123~158절 참조
2) 제2장 49~50절 참조
3) 제7장 80~84절 참조
14-1) 제15장 78~79절 참조
2) 제44장 37절 참조
15-1) 최초 창조에 결함이 없이 완전하였듯 죽은 자를 다시 창조하는 것은 더 쉬운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Ibid. p.57).
16-1) 인간 생명의 혈관보다 천사들이 인간에게 더 가까이 있다고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 즉 인간 마음속에 있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것으로 천사들이 이를 기록한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17-1) 두명의 천사로 한 천사는 우편에, 한 천사는 좌편에 앉아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되 우편에 있는 천사는 그 인간의 선행을, 좌편의 천사는 그 인간의 죄악을 기록한다고 풀이되고 있다((Ibid. p.58).
18-1) 아티-드 : 인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항상 인간과 함께 한다는 뜻
19-1) 싸크라트 알마우트 : 아직 생명이 끊어지기 전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
24-1) 하나님께서 두 천사(인도하는 천사와 증언하는 천사)에게 오늘 계산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 모든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던지라 하였다(Ibid. p.59).
27-1)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자, "주여! 사탄이 저를 유혹하여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탄은, "제가 유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황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29-1) 불신자들에게 응벌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35-1) 더 많은 은혜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라고 풀이하고 있다(Ibid. p.61).
36-1) 메카 꾸라이쉬 족의 불신자들
37-1) 강한 세대들을 멸망케 한 이유
38-1) "하나님께서 하늘과 대지를 6일만에 창조하사 첫날을 일요일(아하드)이라 하고, 마지막 날을 금요일(주므아 : 모이는 날)이라 한 후 피곤하여 토요일(쌉트)에는 편히 휴식을 취했나니 이날이 휴식의 날이라"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를 부정하고 본 절을 계시한 것이라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사르 이브누 카씨르 378/3).
39-1) 유대인들이 38절에서 말한 것과 그밖의 메카 꾸라이쉬족 불신자들의 험담
40-1) 하루 다섯 차례의 의무예배 외에도

41-1) 무나-디 : 부르는 사람 또는 소환하는 자의 뜻으로 본절에서는 이스라필 천사를 가르킨다(아비 싸우드 해설 96/5).
42-1) 심판을 받기 위해 무덤에서 나오는 날
44-1) 무덤으로부터 나와
2) 심판을 받기 위해

제51장 수라트 자리야트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60절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며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믿음과 의로움을 신앙의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장은 구름을 움직이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움직이는 바람과 배로 하여금 물위에 순항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메카 꾸라이쉬 부족의 불신자들, 꾸란과 내세를 불신한 그들에게 내세에 가면 불지옥이 그들의 주거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믿음을 가진 의로운 신앙인들에게는 내세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준비되어있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유일성과 인간창조,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 오만하고 거만했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징벌, 아브라함과 롯, 모세, 아드, 사무드, 노아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후 인간과 영마,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본 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어휘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먼지와 구름을 움직이는 바람
2-1) 무거운 비구름
3-1) 아담의 자손들을 태워 안전하게 순항하는 배
4-1)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며 피조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배하여 주는 천사들로 가브리엘 천사는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미카엘 천사로 하여금 양식과 은혜를, 이스라펠 천사로 하여금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하고, 이즈라엘 천사로 하여금 영혼을 거두게 하는 등 천사들에게 각각의 임무가 부여 되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6).
8-1) 불신자 중 어떤 무리는 무함마드가 마술사라 얘기하고 어떤 무리는 시인이라 얘기하며 어떤 무리는 미친 사람이라 서로 다르게 선지자 무함마드를 욕되게 하였다.
9-1) 꾸란과 무함마드를 믿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진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으로부터 멀리 유혹된다.
10-1) 예언자 무함마드를 시인, 마술사, 미친사람 또는 거짓말장이라 말한 불신자들
2) 까뜰 : "살해하다"가 언어적인 뜻이나 본절에서는 저주라는 의미로 본다.
11-1) 내세의 일에 관하여 무관심했던 자들
17-1) 잠을 자되 많이 자지 아니하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19-1) 마흐룸 : 필요하지만 요구하지 못한 사람. 즉 부끄러움과 수치로 요구하지 못한 사람, 정신적 풍요로움 속에 있어 그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여 요구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신적 장애로 요구할 줄 모르는 자 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물론 요구할 줄 모르는 동물까지도 포함된다(제2장 177절 및 273~274절 참조).

22-1) 모든 것을 생동케 하는 비
2) 보상과 응벌
24-1) 가브리엘, 미카엘, 그리고 이스라펠 천사들(꾸르뚜비 해설 36/8)
25-1)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와 인사하매 아브라함도 그들 천사들에게 인사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당신들은 어디서 온 누구들입니까?"라고 하면서 인사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8).
26-1) 손님을 대접할 때는 손님이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하게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대접하는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28-1) 그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부인 싸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으로 이 아이는 이삭이라고 풀이되고 있다(Ibid. p.9).
29-1) 어떤 이상한 일로 여성이 놀랄 때 습관적으로 그녀의 이마를 때리는 습관
2) 그때 싸라의 나이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120세였다(하-쉬야 타프씨르 알잘라라인 : 126/4).
31-1) 어떤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여러 천사들이 한번에 내려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내려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질문하였다(알바위다위 해설 167/4).
34-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징벌이 율법안에 표시된 것처럼 모든 죄악은 그 죄악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제11장 83절 참조).
35-1) 롯의 백성이 거주한 고을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서 발견된 의로운 사람들이란 그들에게 보내어진 선지자 롯과 그를 따랐던 가족 및 추종자들 만이 구제되고 사악한 백성들 모두는 빗발치는 돌 벼락에 멸망되었다고 "알리 유스프"는 풀이하고 있다(Abdullah Y. Ali, op. cit, p.1425 Note No.5013).
36-1) 롯과 그의 두 딸로 그의 아내는 롯을 따르지 아니하여 멸망하였다(무자-히드). (제11장 81절 참조)
40-1)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 애굽인들 모두가 멸망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 모두는 그들을 잘못 인도한 것으로 파라오를 비난 하였다. 파라오에 대한 이 비난은 당연하였다. 이때 파라오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었다.
45-1) 무서운 광음을 피하여 도주할 수도 없었고 그 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었다.
46-1) 노아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대홍수에 의해 멸망되었다(7장 59-64절 참조).
47-1) 아이드 : 능력 및 힘
49-1) 남자와 여자, 단 것과 쓴 것, 하늘과 대지 태양과 달, 낮과 밤, 빛과 암흑, 선과 악 등 서로 대조되는 것을 의미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7권 op. cit, p.13).
50-1)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또는 불신으로 인하여 닥쳐올 응벌로부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만끽하게 될 보상으로 귀의하라((bid. p.13).
52-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그대를 시인이요, 또는 마술사요, 또는 미친자요"라고 욕되게 한 것으로 슬퍼하지 말라. "그대 이전에 온 선지자들도 그들 백성들로부터 그와 같이 욕됨을 받았느니라"라고 위안하고 있다.
53-1) 거짓하는 행위
59-1) 선지자 무함마드에 거역한 불신자들은 그들의 선조였던 노아나 아드 그리고 사무드 백성들이 받았던 응벌과 비슷한 벌들을 받게 되니라

제52장 수라트 뚜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49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인 하나님의 유일성, 메시지, 부활과 보상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내세에서 불신자들에 있을 고통스러운 벌은 당연한 것으로 어느 무엇도 그 벌을 막아 줄 수 없다는 경고를 시작으로,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천국에 들게 되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온갖 행복을 맛보게 되매 아름다우며 순결한 아내(Hoor Ain)와 자손과 온갖 음식과 음료수와 과일과 고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지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는 불신자들에 대한 견책과 경고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함에 부딪치는 모든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뚜르' 산을 시작으로 본 장이 계시되었다는 점에서 '뚜르' 장이라 불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cit, p.16). 뚜르는 일반적인 산 또는 시나이 산으로 알려져 있다.

1-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시나이 산
2-1) 하나님께서 최후의 선지자에게 계시하여 기록된 꾸란
4-1) 매일 70,000명의 천사들이 내려와 경배하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 다시 그곳으로 오지 않는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388/3).
5-1) 싸끄프 : 언어적 해석으로는 천정이란 뜻이나 본 절에서의 의미는 대지를 침상으로 비유할 때 하늘을 집의 천정으로 비유하고 있다.
14-1) 현세에서 거역했던 내세
15-1) 지옥으로 인도하는 "주바니야" 천사가 지옥에 들어온 불신자들에게 말하길, "현세에서 너희가 꾸란이 낭송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은 마술이라 했듯이, 이 불지옥의 응벌이 마술인가? 아니면 너희가 장님이라 보지를 못한가?"라고 말하고 있다.
16-1) 이슬라우하 : 그곳에 들어가 불지옥의 타오르는 불에 태워져라
20-1) 히와르 아인 : "히와르"는 아주 새하얀, "아인"은 눈이 큰 이란 뜻으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여성을 의미한다.
23-1) 천국에 있는 술은 머리가 아프지 아니하고 배도 아프지 아니하며 이성을 흐르게 하지도 않는 술이라고 풀이되고 있다(Ibid. p.20).
26-1) 아흘리나 : 언어적인 뜻은 우리의 가족, 가문이란 해석이나 본절의 의도는 대지 위에서 살았던 현세를 가르키는 것으로 그들은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 하였다((Ibid).
28-1) 천국의 백성들이 말하길, "실로 우리는 현세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의존하였으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응답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도다"라고 하였다(Ibid. p.21).
29-1) 선지자로 선택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메세지를 받은 은혜
2) 불신자들이 그대를 조롱하고 욕되게 하는 점장이도, 시인도, 미친자도 아닌 은혜받은 자라.
30-1) 불신자들
31-1) 내가 죽기를 너희가 기다리듯 나역시 너희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32-1) 무함마드가 시인이요, 점술장이요, 또는 미친자라 말하는 그들의 거짓행위
34-1)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낭송한 그와 같은 말씀
35-1) 창조주께서 창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창조되었다는 뜻으로 불신자들은 창조주의

존재와 창조주의 창조를 부인하려 하였다.
37-1) 카자이누 : 하나님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
"이브누 압바쓰"는 비와 일용할 양식으로, "아크라마"는 선지자로서의 선택받음이라고 각각 풀이하고 있다(꾸루뚜비 해설 74/17).
38-1) 천사들의 이야기와 계시
39-1)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하나님께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간의 세계로 끌어 내리려 하고 있다. 옛 아랍 미신에 의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딸이라 묘사하였다. 이는 그들이 딸을 갖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딸이 있다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정하려 했기 때문이다(제16장 57～59절 참조 및 Abdullah Y. Ali, op. cit, p.1439 Note No.5073 참조).
40-1)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하고 종교의 규범을 가르쳐 준 대가
41-1)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역
45-1) 공포의 날, 즉 심판의 날
49-1) "파즈르 예배 전에 행하는 두 라카아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브누 압바쓰 무크타싸르 395/3)

제53장 수라트 나즘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62절로 하나님의 메시지와 부활 등 다른 메카 계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무함마드의 천상여행(Mi' raj)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왕국에 초대되어 그곳에서 목격한 신비한 것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불가시계의 영역과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런 후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미신과 우상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우상이나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모두 다 무익한 것으로 의로운 자는 그의 의로운 행위로 진리의 보상을, 사악한 자는 그의 사악한 행위로 사악한 대가를 받게 될 심판의 날 전개되는 상황 그리고 전자에게는 천국의 보상이 있는반면에 후자에게는 불지옥의 벌이 있을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

이 공정한 보상은 하늘에서 계시된 성서들, 그중에서도 최후로 완성된 꾸란에 의해 계산된다는 교훈과, 생명을 주사 다시 거두어가고 또다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거역했던 아드의 백성, 사무드, 노아, 롯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메카 불신자들에게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본 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어휘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넘어가는 시각, 즉 별들이 지는 시간. 한편 하싼은 "별들이 사라지는 심판의 날" 일 것이라고 풀이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시나 피조물은 창조주 이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27).
2-1) 메카 꾸라이쉬족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절로서 너희 백성과 함께 거주한 선지자 무함마드는 진리의 길로부터 방황하지 아니하였고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한 가장 훌륭한 안내자임을 메카 불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Ibid).

3-1) 선지자 무함마드가 그의 어떤 욕망이나 개인적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4-1) 와히 : 계시, 영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본 절의 의도는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된다. "바이돠위"는 하나님이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말씀으로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바이돠위 171/4).

6-1) 훌륭한 지혜와 강한 체력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28).

7-1) 동쪽에서 해가 솟아 오르는 하늘의 지평선. "이브누 압바쓰"는 "우프끄 아을라"를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88/17).
한편 "카지느"는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 무함마드에 나타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인간의 형태로 나타났으니 그것은 무함마드 이전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았다. 가브리엘 천사는 두차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났으니 한번은 대지 위에서였고 한번은 하늘에서 나타났다. 그때 대지에서 나타난 곳이 "우프꾸 아을라"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213/4).

8-1) 선지자 무함마드

9-1) 까우싸인 : 활 양끝의 사이 또는 그 이하의 거리란 뜻으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신옆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으로 풀이됨(타프씨르 알알루-씨 48/27)

11-1) 무함마드

2) 선지자 무함마드가 인간의 형태로 본 가브리엘 천사. 선지자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를 형태로서 보았을 때 600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브누 마쓰우드"는 전하고 있다(이맘 아흐맏이 전하고 있음).

12-1) 「이스라」와 「미으라즈」에서 본 것을 선지자 무함마드가 이야기했을 때 메카 불신자들은 이를 불신하였다.

14-1) 시드라 문타하 : "시드라"는 나무이름, "문타하"는 맨끝이란 언어적인 의미로 그 나무는 아리쉬 가까이 7번째 하늘에 있는 나무이며 뿌리는 강물에서 돋아난 것으로 아리쉬 우편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나무이며 그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고 일부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28).

16-1) 그분께서 시드라 나무를 보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이 그 나무를 가리워 버린 것일거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Ibid. p.29).

17-1) 무함마드

18-1) 미으라즈가 있었던 밤에 선지자 무함마드는 하나님 왕국의 신비한 것들과 시드라 나무, 베이툴 마으무르, 천국과 지옥,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등 그 밖의 여러가지를 보았다(Ibid. p.29).

19-1) 메카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우상의 이름

20-1) 메카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우상 이름. 라트는 타이프에 있었던 우상, 웃자는 가드판에 있었으며 "칼리드 이븐 왈리드"가 깨뜨려 버렸고, 마나트는 카자에 있어 메카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우상(타파씨르 알카진 218/4)
카으바 신전 주변에서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우상의 웃자는 대략 360개 이상으로 메카 정복시에 파괴되어 버렸다. 이중 가장 잘 알려진 우상들로는 "라트", "웃자"와 "마나트"였다. 메카를 정복하던 해에 선지자 무함마드는 "칼리드 이븐 왈리드"를 보내어 "웃자" 우상을 파괴하여 버린 것이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36).

26-1)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들의 중재도 하나님이 허락되기 전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부여하지 아니한 우상들이 그들 불신자들에게 유용하겠는가?

27-1) 천사들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묘사하여 신의 속성을 저하시키려는 의도

32-1) 하나님을 불신하는 무신론 및 하나님에 비유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 살인 및 고아의 재산을 부정하게 갈취하는 것
2) 간음, 간통
3) 입맞춤, 눈짓 연애, 눈요기(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23)
33-1) 믿음과 복음을 외면하는 이 사악한 자를 무함마드여! 나(하나님)에게 일러다오.
34-1) "왈리드 이븐 알무기라"에 관하여 계시된 절로 무자히드는 해석하고 있다(Ibid. p.33).
35-1)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 있어 그의 동료가 그를 대신하여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라도 있단 말인가?
36-1)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성서 속에 기록된 것.
37-1)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달하라는 명령
2) 와파 : 약속을 지키다, 수행하다. 이행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실때 아브라함이 이행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느 무엇도 명령하지 아니했다고 "하싼"은 풀이하고 있다. 그것을 입증하는 꾸란의 말씀으로는 "그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명령)들로 시험하사 그는 그것들을 수행하였도다.
38-1)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으며 또한 타인의 죄를 자기가 대신할 수도 없다는 뜻
39-1)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듯이 보상은 그가 노력하여 얻은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보상을 더하여 줄 수 없다는 뜻(타프씨르 알자-지 223/4)
41-1) 인간의 업적에 따라 완전한 보상이 있으니 곧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보상이요 믿는 신도들에게는 천국이라
43-1) 천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하고 지옥의 사람들로 하여금 울게 한다(무하-지드 : 알바흐르 알무히뜨 168/8).
49-1) 무지의 시대에 숭배했던 별 이름
50-1) 사악하고 오만했던 아드의 백성에게 "후드" 예언자를 보냈으나 그들은 그를 거역하였으므로 소스라치는 바람을 보내어 멸망케 하였다.
55-1) 인간들이여,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심을 의심하고 거짓하려 하는가!

제54장 수라트 알까마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55절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를 다루면서 특히 꾸란의 말씀을 거역한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일어났던 여러가지 기적 중에서 우주의 신비와 달의 기적을 시작으로 불신자들에게 닥칠 내세의 여러가지 상황을 묘사한 후 노아 백성들에게 있었던 교훈을 메카 불신자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거역한 죄로 멸망했던 아드, 사무드, 롯과 파라오의 백성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선지자들을 거역한 불신자들에 있을 징벌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온 신앙인들에는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복음의 소식도 전하고 있다.

1-1)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일어났던 기적 가운데 하나로 다음 3가지 뉘앙스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메카 계곡에 있었던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분의 동료들 그리고 믿는 일부 신

도들이 보는 앞에서 달이 두 갈래로 분리되었다는 것
둘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예증으로서 달이 두 갈래로 분리될 것이라는 것
셋째, 달이 두 갈래로 분리되듯 모든 것들은 진실과 허위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유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둘째 해설은 가능성이 아주 약한 것으로 대다수 해설가들은 보고 있다(Abdullah Y. Ali, op. cit, p.1454 Note No.5128).

2-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

2) 메카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말하길 "그대가 진실이라면 달을 두 부분으로 분리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리라"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달이 뜬 어느날 밤 선지자는 그들 불신자들이 요구한 대로 하여 줄 것을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달은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한 부분은 "사파" 산 위로 기울고 다른 부분은 "사파"산 맞은편 "까이까안"산으로 기울었다. 그러자 이들 불신자들은, "이것은 무함마드가 우리를 마술에 걸리게 했을 뿐이도다"라고 말하고서 이것은 단지 우리들에게만 마술이 가능할 뿐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이때 "아부 자홀"이 말하길, "잠깐 기다리라. 내가 모든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을 데려 오리라" 그리하여 모든 유목민들이 도착하여 말하길, "이 기적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자 "아부 자홀"과 불신자들은 다시말하길, "이것은 계속해서 있었던 마술에 불과 하니라"고 말했을 때 계시된 절로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39).

3-1) 선지자 무함마드를 불신하고 달이 두 갈래로 분리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한 것

2) 모든 것은 그의 행위에 따라 보상과 대가를 받게 된다. 그의 행위가 선이었다면 결과도 선일 것이요 그의 행위가 사악한 것이었다면 그 결과도 사악한 것이라는 것.

4-1) 선지자들을 거역하여 멸망했던 선조들의 이야기

6-1) 다-이 : 부르는 자, 선교사, 초대하는 사람 등 여러가지 뜻으로 본 절에서는 이스라펠 천사를 가르킨다(Ibid. p.39).

12-1) 하늘의 물과 대지의 물이 모여 불신자들을 멸망케 했으니, "불신자들은 익사할 것이라"(Ibid. p.40)

15-1) 방주를 만들게 하여 노아와 믿는 신도들을 태워 구제하고 불신자들을 익사케 하여 멸망시켰던 대 홍수의 사건

17-1) 하나님께서 꾸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에 쉽도록 한 것은 꾸란을 가르키고 그것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알카지누"는 말하고 있다.

19-1) 사르사라 : 춥고 모진 강풍, "이브누 압바쓰"는 혹추위, "싸디"는 격렬한 소리의 뜻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23-1) 그들의 예언자 살레를 거역하였다.

25-1) 제26장 141~158절 참조

27-1) 제7장 73절 참조

2) 살레여 인내하며 그들을 지켜보라

28-1) 계곡을 흐르던 물이 사무드와 암컷의 낙타 사이에 분배되니, "이브누 압바쓰"는 "그들이 마실 그날에 암컷의 낙타는 물을 조금도 마시지 아니하고서 우유로 그들의 갈증을 식혀주자 그들 모두는 편안하였으며, 암컷의 낙타 날에 암컷의 낙타는 물 전체를 마셔버리고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아니했도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40/17)

29-1) 사무드 부족이 저주받은「끼다르 이븐 살-리프」를 데려왔을 때 그는 그 암컷의 낙타를 살해하여 그 고기를 먹어 버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43).

34-1) 하-씨브 : 돌

2) 믿음으로 롯이 전한 메세지를 따랐던 신앙인들

37-1) 천사들

2) 천사들이 롯에게 나타났을 때 롯은 천사들을 손님으로 맞이하였다. 이때 롯의 오만한 백성들이 롯에게 달려와 천사들을 욕되게 하려 하자 천사들은 문을 잠구어 버

렸다. 그러자 이들 불신자들이 문을 부수려고 시도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문밖으로 나가 날개로 그들의 눈들을 때리니 장님이 되어 버렸다(타프씨르 라-지 808/7).

43-1) 노아, 아드, 사무드, 롯 및 파라오 백성들의 불신자들
2) 하늘로부터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성서들
44-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
45-1) 메카 불신자들이 바드르 전투에서 패하여 후퇴한 것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이브누 자우지"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이브누 알자우지 100/8).
49-1) 적절한 크기로
50-1) "있어라"(쿤) (꾸란어휘 해설 p.344)
2)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전혀 없이 무엇이든지 뜻하시는 대로 행하는 전지전능하심을 의미.
52-1) 천사들에 의해 기록됨

제55장 수라트 라흐만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78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처럼 꾸란의 진수와 이슬람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은혜 가운데 하나는 꾸란이다. 이 꾸란 교육에 대한 촉구를 시작으로 태양과 달, 별, 나무들, 하늘과 대지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종류의 과일과 곡식과 열매를 주어 인간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언급하고, 내세의 상태, 즉 불신자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과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에게는 있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언급한 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것에 진수가 있나니 꾸란의 진수는 라흐만이라"라는 무함마드의 어록에 근거하여 본 장이 '라흐만'(은혜 또는 은혜로운 분)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cit, p.58).

4-1)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능력 곧 표현의 방법으로써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부여하고 인간에게 여러가지 다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Ibid. p.48).
6-1) "나즘"은 별이란 뜻도 있으나 본 절에서는 식물들을 가르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7-1) 주고 받을 때 제 몫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저울)을 두었다.
15-1) 천사들은 빛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영마는 화염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아담은 너희에게 묘사된 대로 창조되었느니라.
19-1)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과 음료수로 적합한 강물이 각각 흐르게 하다가 다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게 하고 있다.
20-1) 하나님의 능력으로 짠 바닷물과 달콤한 음료수의 강물이 서로 만나지 아니하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유용케 한 하나님의 은혜.
26-1) "모든 것은 멸망하되 그분의 얼굴만은 제외이니라"에서 그분의 얼굴은 곧 하나님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문의 "와즈후"(얼굴)도 하나님을 의미한다.

29-1) 쿨라 야움 : "매일"이 언어적 해석이나 본 절의 의미는 피조물들이 양식을 요구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마다 시간에 관계없이 순간순간 그리고 언제나 행하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52).

2) 이 절은 하나님께서 토요일(야우무 쌉트)에는 아무 것도 행하지 아니 한다는 유대인들의 말에 대하여 계시된 것으로 알루-씨는 111/27에서 풀이하고 있다.

31-1) 싸깔라-니 : 인간과 영마의 두 무리

33-1)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응벌을 피하려 하나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35-1) 심판의 날에 있을 응벌의 하나로 화염의 불길

2) 누하-쓰 : 불길이 없는 연기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3) 심판의 날 너희가 하나님의 응벌을 피하려 도주하나 천사들과 지옥을 안내하는 "자바-니야" 천사가 화염과 연기를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피하지 못하고 구원자도 발견치 못하도다(무크타싸르 타파씨르 이브누 카씨르 419/3).

37-1) 심판의 날 하늘이 분리되어 벌어지는 것은 천사들이 강림하기 위해서라고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55).

2) 응벌로서 내려지는 불의 뜨거움이 은유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39-1)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죄인의 얼굴은 새까맣게 되고 눈알은 청색이 되어 죄인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맘 파크리"는 말하길, "어느 누구도 그의 죄악에 대하여 질문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네가 죄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라고도 질문받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가운데 누가 죄인인가?라고도 질문받지 아니하고 단지 검게 된 그의 얼굴과 그밖의 것으로 알게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53).

41-1) 심판의 날 죄인들의 피부색은 새까맣게 되고 눈은 청색이 된다. "우리(하나님)가 그날에 죄인들을 청색으로 하여 모이게 하리라" "얼굴이 하얗고 검게 되는 어느 날"(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75/17)

2) 천사들이 죄인들의 머리와 발을 붙잡는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p.53).

46-1) 그가 영주할 천국과 그의 아내(히와르 아인)라. 하녀가 거주할 천국, 즉 현세의 왕국에서 왕이 거처하는 왕실과 왕비와 하녀들이 거주할 왕실이 각각 있듯이 천국에서도 그와 같다고 "알 파크르 라지"는 풀이하고 있다(Ibid. p.54).

50-1) 두개의 천국

58-1) 배우자들

60-1) 현세에서 행한 선은 내세에서 반드시 선으로써 보상 받는다.

62-1) 본장 46절에 나오는 두개의 천국

2) 본장 46절의 두개의 천국과 62절 주 1)번에 나오는 두개의 천국이 지나간 세대를 위한 천국이라면 본절의 두개의 천국은 우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천국이라고 유스프 알리 및 무함마드 알리 사부니 교수는 풀이하고 있다.(Abdullah Y. Ali, op. cit, p.147 Note No.5205 및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56 참조)

64-1) 많은 물이 흐름으로써 나타나는 짙은 초록색이라고 루-흐 알마 아니 121/27에서 풀이하고 있다.

68-1) 천국의 종려나무와 석류와 그 뒤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과실일 것이라고 알을 루-씨는 말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122/27).

72-1) 히와르 아인

제56장 수라트 알와끼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96절로 부활의 상태 그리고 그때 인간들은 세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우편의 사람들, 좌편의 사람들, 선행에 앞장서는 무리로 분류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 공정한 보상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간 창조, 온갖 식물을 생성케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위에 언급한 세가지 부류에 대하여 행복한 가족이 있고 불행의 가족이 있으며 선행에 앞장서는 은혜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브누 마스우드,에 의해 전해지고 있는 선지자 무함마드 어록에 의하면, 와끼야 장을 매일 저녁 낭송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결코 그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알와끼야'(불가피한 사건) 명칭에 대하여 이브누 압바스는 부활 이름 가운데 하나라고 풀이하였다(타프씨르 알무히뜨 202/8).

1-1) 와끼아장 : 서문 참조

3-1) 하나님의 적들은 불지옥에서 굴욕의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은 천국에서 찬양을 받으리라

7-1) 우편의 가족, 좌편의 가족 그리고 앞서는 가족. 앞서는 가족이란 선행을 행함에 남보다 앞서서 행하는 자들로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되며, 우편의 가족은 천국에 사는 자들이고, 좌편의 가족은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61). 또 마이무나 이븐 마흐란은 둘은 천국에 있는 자들이며 나머지 한 무리는 지옥에 있는 자들이라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카씨르 478/3).

8-1) 사하바 : 동료, 무리, 친구 또는 동반자

2)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속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너희는 알고 있는가?

10-1) 싸비 꾸나 : 앞서는 자들이란 언어적 뜻으로 본 절은 선행을 행함에 앞장서는 자들로 천국의 보상도 앞서 받는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61).

17-1)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을 무칼라둔이라 하는데 "윌다눈 무칼라둔"은 변하지도 아니하고 나이가 더 들지도 아니하며 항상 그대로 있는 상태의 소년이라고 아부 하이얀은 말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05/8).

19-1) 천국의 술은 현세의 술과는 달리 취하지도 아니하고 이성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62).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술(카므르)을 4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첫째 취하게 하며, 둘째 두통을, 셋째 구토를, 넷째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것으로 천국의 술은 이 4가지 불결한 것이 없는 술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430/3).

22-1) 히와르 아인

23-1) 움무 쌀마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이것(히와르 아인)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지, "그것은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굴속에 잘 보관된 진주와도 같으니라"고 대답하였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89/4).

27-1) 본장 8절 참조

28-1) 제34장 16절 참조

29-1) 딸흐: 바나나 나무일 것이라고 사프하트 타파씨르 제17권, p.63에서 풀이되고 있다.

34-1) 그 높이는 하늘과 땅 사이의 높이이며 거리는 500년 걸리는 거리라고 하디쓰는 언

급하고 있다.

41-1) 와끼아 장 서문 및 본장 7절 참조
52-1) 저주받은 나무로 제17장 69절 및 제37장 62절 참조
53-1) 자꿈나무를 많이 먹음으로써
57-1) 무에서 너희를 창조했듯이 다시 너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날을 믿으려 하지 않느뇨?
61-1) 너희를 멸망케 하고 다른 백성들로 대체한다는 뜻으로, "그분(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너희를 앗아가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나니…"
2) 부활의 날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 지혜가 이르지 못하는 창조를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들을 멸망케 하고 다른 세대를 오게 하며, 부활의 날에는 다시 그들을 부활시킨다는 뜻으로 내세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91/4).
69-1) 비를 생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23/4).
70-1) 우자자 : 아주 짠 또는 소금기가 아주 많아서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금기가 많은 물(이브누 압바쓰) (제25장 53절 참조)
72-1) 제36장 80절 참조
73-1) 무끄윈 : "무하마드 알리 사부니" 교수는 "여행자들"로 풀이하고 있다. "이브누 압바쓰"도 같은 내용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무자히드"는 현재에 있는 사람, 여행자 그리고 그 불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풀이하고(무크타씨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38/3), "알카지느"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과 사막의 여행자들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24/4).
75-1) 라 : "아니다"라는 아랍어의 부정사이나 여기서는 강조를 의미한다.
77-1) 너희 불신자 및 위선자들이 조롱한 것처럼 꾸란은 시도 아니요 위조된 것도 아니며 마술에 의해 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보여준 기적들 중의 가장 훌륭한 기적으로 유용함과 진리와 축복으로 가득찬 성서의 꾸란이라(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70).
79-1) 불신과 죄악과 잘못이 없는 천사들, 또는 우두를 하여 깨끗한 사람. "이브누 우마르"와 "아무루 이븐 하즘"이 전하는 하디쓰에 의하면 "우두를 하여 깨끗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꾸란을 만져서는 아니된다"고 전하고 있다.
81-1) 불신자들
2) 꾸란
85-1) 영혼을 앗아가기 위해 천사들이 와 있으나 너희는 보지 못한다.
87-1) 스스로 이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는가? 즉 너희 불신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부활도 계산도 그리고 보상도 없다면 죽음이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는 왜 그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느뇨? 너희가 주장한대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져라(타프씨르 알카-진 27/4).

제57장 수라트 알하디드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29절로 이슬람법 및 이슬람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구축과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이슬람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장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우주와 삼라만상은 창조주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으며
둘째: 하나님 종교와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슬람의 명예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며

셋째: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은 지나가는 유희와 오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 장은 창조주의 위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속성들과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하여 불신자들은 그것들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헌신과 관용, 하나님 사업과 이슬람의 명예를 위한 물질적 기여를 촉구하면서 믿음을 가진 신도들은 당연히 스스로 노력하고 재물을 바쳐 현세의 행복은 물론 내세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나 위선자들은 어두운 암흑속에서 음모와 거짓,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다. 현세의 실제와 내세의 실제를 비교할 때 현세는 영원하지 못하고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니 그것은 마치 뿌려 논 씨앗이 강한 비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나 내세는 영원히 사는 곳으로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전에 온 선지자들과 에언자들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 무함마드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짓고 다리를 만들며 힘의 상징인 칼을 만드는 등 힘의 상징인 '하디드'(철 또는 쇠)가 본 장에 언급됨으로써 '하디드'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cit, p.74).

1-1) 타쓰비흐 : 말과 행동을 일치하여 하나님께 비유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한편 본 절의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 즉 태양과 달과 지구… 등 이러한 삼라만상이 찬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1) 현세에서 생명을 탄생케 하고 죽은 자를 내세에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뜻으로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36/17).

3-1) 하나님의 존재는 시작이 있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고
 2) 그분의 존재하심이 끝까지 존재하심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
 3) 믿음과 예증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인식으로 나타나시나
 4) 하나님의 실제적 존재는 보이시지 않는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75).

4-1) 빗물과 시체 등 땅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2) 광물 또는 식물, 물 등 땅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
 3) 비, 천사들, 은혜와 응벌 등
 4) 천사들과 의로운 선행들

9-1) 선지자 무함마드
 2) 꾸란

10-1) 제3장 180절, 제6장 165절, 제15장 23절 참조
 2) 메카를 정복하여 승리하기 이전에 재물을 바치고 선지자 무함마드와 함께 성전에 참여했던 이들
 3) 메카 정복 이후에 재물을 바치고 성전한 이들로 필요할 때에 재물을 바치는 것과 성전하는 것이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4) 맨처음 이슬람에 귀의한 "아부 바크르"에 관하여 계시된 것으로 아부 바크르는 또한 재물을 바치고 성전에 참여한 최초의 무슬림이었다(타프씨르 알카-진 32/4).

11-1) 본 절이 계시되었을 때 "아부 다흐다하 안사리"는 말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여! 실로 하나님께서 저희로부터 까르드(재물 또는 대부, 차관…)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으니, "그러하니라. 다흐다하 아버지여!"라고 대답하자, 그는 또 말하길, "하나님의 선지자여! 당신의 손을 저에게 보여 주십시요"라고 하니 그분(선지자)은 손을 펼쳤다. 이때 그는 말하길, "실로 제가 주님께 600두의 종려나무가 있는 과

수원과 가족을 바치겠나이다"라고 말하고서 집으로 돌아와 다흐다하 어머니를 불렀다. "다흐다하 어머니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내가 주님께 재물과 가축을 바치겠다 약속했나니 그것들을 꺼내시요"라고 하였을 때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하였고 그리하여 그의 재산과 가축들이 그곳으로 옮겨갔다(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알 무크타싸르 448/3).

14-1) 현세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금식하며 같이 금요예배에 참석하였으며 같이 전쟁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현세적 목적이었을 뿐 마음속에는 위선과 음모와 계략과 책략으로 가득차 있었다.
2) 가루르 : 인간을 유혹하고 기만하는 사탄
16-1) 모세를 통하여 구약(타우라)을 받은 유대인과 예수를 통하여 신약(인질)을 받은 기독교인들
2) 예언자들과 함께 있었던 기간이 지난지가 오래된 후
3) 세속에 물들어 성서들을 외면하고 특히 꾸란의 말씀을 외면하여
4) 성서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서의 교육을 거절하였다.
20-1) 제6장 32절 참조
2) 제39장 21절 참조
3) 제3장 185절 참조
21-1) 서둘러 회개한 후 믿음을 갖되 하나님의 명령에 서둘러 순종하라는 뜻으로 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25/8).
22-1) 한발과 기근, 지진, 농작물의 피해
2) 가난,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불임, 일반적인 병
23-1) 현세에 있었던 은혜가 사라져 소멸되는 것에 대한 슬픔
2) 하나님이 현세에서 베풀었던 영광
24-1)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가진 재물을 바침에 인색하고 타인에게도 그렇게 종용하며 또 바치기를 외면하는 자들
25-1) 여러 기적들 및 예증
2) 하늘에서 계시된 성서들과 규범
3) 미잔 : 저울이란 뜻으로 "공평함"을 의미한다.
4) 철, 쇠(본장 서문 참조)
5) 하디드 즉 쇠를 내려준 것은 이것으로 무기를 만들어 하나님의 적들과 투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자
26-1) 예언자들의 원로로 노아를, 예언자들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보내고 그 두분의 후손들 가운데 예언자의 자격을 주어 구약(타우라)와 신약(인질)과 꾸란을 보내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85).
27-1) 모세, 일리야스, 다윗, 솔로몬, 요한 등…
2) 루흐반니야 : 장로 및 목사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해 창안한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한 것(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7권, p.86) "아부 하이얀"은 여성과 세상 물욕을 떠나 은둔생활을 하게됨으로써 수사의 방이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바흐르 알무히뜨 228/8).
3) 예수를 따르고 무함마드를 믿는 의로운 자들
4) 많은 기독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났다.

제58장 수라트 알무자달라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22절로 주로 이슬람 이전에 있었던 이혼 형태, 그에 대한 보상, 비밀회담의 규범, 대화 및 회담에 있어서의 예의와 자세, 선지자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할 때 자선금을 내는 일, 적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이슬람법과 위선자들 및 유대인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슬람 이전 시대에「카울라 빈트 싸을라바」라는 여인의 남편에게 적용된 관습에 따라 금지되었던 이혼 문제를 시작으로 본 장의 계시가 시작되고 있다. 이 여인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찾아와 남편의 학대에 못이겨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여! 남편이 저의 재산을 삼켜 버렸고 저의 청춘을 빼앗아갔으며 저는 저의 배가 커질 때까지 남편에게 제 자신을 바쳤으되 제 자식과 단절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그것은 금기된 것이라고 선지자가 대답하였다. 그녀는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여! 남편이 저에게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이혼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번에도, 그것은 금기된 것이라고 선지자는 대답하였다. 이때 "주여, 제가 당신께 호소합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원을 들어주사 그녀의 슬픔과 호소를 거두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에 대항하여 변론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그녀의 진술을 수락하셨나니…" 라는 계시가 내려졌다. 또한 본 장이 '무자달라'(변론 또는 논쟁)로 불려지게 된 동기로도 볼 수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cit, p.5).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 이전 시대의 이혼에 대한 보상 규범, 비밀회담의 규범과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위선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증오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본 장이 끝나고 있다.

1-1) 싸미아 : "들었다"는 언어 해석상의 뜻으로 본 절에서의 "싸미아"는 듣고 그것을 수락하였다는 뜻까지 포함된다. 한편 잠카샤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감사하는 자의 모든 것은 항상 듣고 있다고 한다(타프씨르 알캬샤-프 150/4).

2) 아우스 이븐 싸미드의 아내 카울라 빈트 싸을라바에게 발생했던 문제에 대하여 계시되었음(본장 서문 참조 및 제33장 4절 참조).

2-1) 지하르 :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하려는 의도로, "당신은 나에게 제 어머니 등과 같이 내가 어머니 위에 있는 것이 금기인 것처럼 당신 위에 있는 것도 허락되지 아니합니다"라는 말로 이혼을 하려했던 이슬람 이전 아랍사회의 관습이었다. 이 형태의 이혼 즉 지하르는 다음 4가지 조항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그녀들 즉 아내들은 어머니가 될 수 없으며
둘째,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
셋째, 그것은 위선이며 위증이고
넷째, 잘못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푼다는 것으로 볼 때 금기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 99절, 제22장 60절 및 최영길, 이슬람의 생활규범, op. cit, p.328-329참조)

3-1)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규범이므로 믿는 신도들은 지하르를 버리고 다시 그런 방법으로 이혼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4-1) 지하르를 취소한 자가 부인과 동침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가 없을 경우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사서라도 해방시키는 일
둘째, 제1항이 불가능할 경우 계속하여 2개월간 단식을 행하고
셋째, 제1항 및 제2항이 병환이나 노쇠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경우 60명의 불우한 사람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고 계시하고 있다(제4장 92절 참조 및 비교).

5-1) 허락된 것(할랄)과 금기된 것(하람)이 있으며 의무사항(파라이드)과 규범(아흐캄)들
2)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메카 불신자들이 분파를 일으켜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항하려 하였을 때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9).
6-1) 제5장 51절, 108절 및 60절, 제9장 94절 참조
8-1) 유대인과 위선자들로 그들은 그들끼리 비밀모임을 갖고 믿는 신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간에 눈짓을 하자, 믿는 신도들이 이를 선지자에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선지자께서 그것을 금기하자 그래도 그들 유대인과 위선자들이 음모의 모임을 계속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꾸르뚜비"는 해설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91/17).
2) 그들 위선자들은 선지자와 믿는 신도들에게 "앗쌀라무 알라이쿰" 대신에 "앗싸-무 알라이쿰"이라고 인사하였다. 유대인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와서 "앗쌀라무 알라이쿰"(당신께 평안이 깃드소서)라는 평안의 인사대신 "앗싸-무 알라이쿰"(당신께 죽음이 있기를!)이라는 저주의 인사를 하였다. 그때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인사하길 "와 알라이쿰"(그리고 당신들 위에도)라고 만 인사하고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부인 "아이샤"가 어느날 "알라이쿰 앗싸-무 와 라으나"(당신에게는 죽음과 저주가…)라고 하자 그들 위선자들은 떠나버렸다. 그때 선지자께서 아이샤에게 말하길, "서둘지 마시요, 하나님께서는 혐오스러운 말을 싫어하오"라고 하자 부인께서, "그들이 무어라 말한지 아십니까?"라고 하자, 선지자께서 부인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어라 말했는지 듣지 아니했소? 나는 단지 와 왈라이쿰(그리고 당신들 위에도…!)라고만 했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사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사 내게 그렇게 하지 아니했소"라고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10).
10-1) 너희가 셋이라면 둘이서만 의논하지 말고 너희 둘의 한 친구와 함께 하라. 그렇게 (둘이서만 의논)한다면 그것은 그(친구)를 슬프게 하는 것이라(부카리와 무슬림의 전함).
11-1) 사람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의 모임에서 앉을 좌석에 대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리를 넓혀 주어야 한다는 명령이 되었다고 "무자히드"는 풀이하고(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96/17) "카지누"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겸손과 겸양을 명령하사 선지자 옆에 앉아 영광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리를 넓혀서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50/4). 하디쓰에서는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그곳에 앉아서는 아니되며 자리를 넓혀 같이 앉아야 하니라"(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고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2) "학식이 있는 자가 학식이 없는 하인보다 낫거늘 그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위에 떠오른 온달과도 같도다" 또한 하디쓰에서는 "심판의 날 3가지가 중재되나니 : 선지자들과 학자(울라마)들과 순교자(슈하다)들이라"(타프씨르 알꾸르뚜비 300/17)
12-1)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금(사다까). 이 사다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의로운 자와 위선자들과 구별이 되며 현세의 사랑과 내세의 사랑을 구별시켜 준다(타프씨르 알올루씨 30/28).
13-1) 선지자
2) "믿는 신도들에 대한 충고로써 그렇게 할 수 없다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시니 이로 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리라"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p.14).
18-1) "하나님께 맹세하사 저희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현세에서 그들이 거짓말했듯이 심판의 날에도 그러한 거짓말을 하려 하나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징벌을 더하여 줄뿐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305/17).

22-1) 바드르 전투에서 그의 아버지 자라하를 살해한 "아비 우베이다"에 관해서 계시되었고
2) 아부 바크르의 아들 압두 라흐만의 살해에 관해 계시되었고
3) 그 당시 우메이르 아들 우베이드 형제를 살해한 "무스이브 이븐 우메이르"에 관해 계시되었으며
4) 바드르 전투에서 우뜨바, 샤이바, 왈리드 이븐 우뜨바를 살해한 함자, 알리 및 우베이다 이븐 하디쓰에 관해 계시된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67/3).
5) 비록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같이 살아온 형제 또는 친척 또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일 경우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마음속에 믿음과 불신이 같이 결합되어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과 미움이 한 마음속에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59장 수라트 알하쉬르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24절로 다른 메디나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선지자 무함마드와의 조약을 위반한 유대인들과 관련하여 선지자께서 메디나에서 추방했던 바니 나디르 전투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브누 압바스'는 본 장을 '바니 나디르' 장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또 유대인들과 합세한 위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 '전투와 성전'이라는 표현이

본 장은 우주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과 무생물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과 유일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남긴 자취로써 오만했던 유대인들에게 징벌을 내려 멸명케 했던 이야기, 세금율과 전리품, 그에 관한 조건 및 법칙에 관한 이야기와 선지자 무함마드의 추종자들에 대한 우정 및 메카 이주민과 메디나 토박이 후원자들에 관한 이야기, 심판의 날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속성들을 다루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메디나에 왔을 때 바니 나디르는 예언자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하겠다고 화해를 제의하고 바드르 전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함마드는 구약성서에 승리자로서 그리고 그분에게 대적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된 선지자입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던 그가 우흐드 전투에서 무슬림들이 패배하였을 때 조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아브 이븐 아쉬라프는 40대의 말을 가지고 메카로 가서 아비 수피안에게 합세하였다.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는 무함마드 이븐 무쌀라미에게 그의 형제 카아브를 살해하라 명령하였고 그는 그렇게 실천에 옮겼다. 그리고 대다수 유대인들과 위선자들은 샴 지역으로 추방되었으며 그들은 카이바르 지역에 이르러 다수가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과 이유로 본 장이 '하쉬르'(집합되어 추방되다) 장 또는 '바니 나디르' 장 또는 '전투와 성전'의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5-1)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바니 나디르 유대인 무리를 포위하였을 때 예언자들의 일부 동료들은 유대인 소유의 종려나무를 절단하고 불태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도록 하였다. 이때 그들은, "무함마드여! 이것은 해악이 아니요 당신이 해악을 금기하고서 나무들을 절단하라 명령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뇨?"라고 했을 때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44/8. 무크타싸르 이븐 까씨르 471/3).

6-1) 하나님께서 바니 나디르 부족의 유대인들을 추방케 하고 그 재산을 전리품으로써 선지자에게 돌려 준 모든 것
2) 하나님
7-1) 까리자, 나디르, 파다크 및 카이바르(타프씨르 알카-진 60/4)
2)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불신자들의 재물로 이 재물을 '파이'라고 하며, 전쟁을 통해서 불신자들로부터 획득한 재물을 '가니마'라 부른다. 한편 '파이'와 '가니마'의 전리품을 분배하는 규범도 각각 다르다(제8장 1절 및 41절 참조).
3)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사업에 쓰도록 하되 무슬림들을 위한 공익이 되도록 선지자로 하여금 관할케 하며,
4) 바니 하심가와 압둘 무딸립 등 하나님 사업을 위해 성전하는 친척 등
5) 여비가 떨어진 여행가
6) 무지의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은 전투에서 전리품을 획득하였을 경우 지휘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1/4를 갖고 그리고 남은 여분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6/18).
7) 선지자 무함마드는 "바니 나디르" 부족으로부터 획득한 재물(파이)을 무하지린들에게만 분배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여 왔을 때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와 가진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안사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자 일부 안사리들이 말하길, "저희들도 이 재물(파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22).
8-1) 불신자들로부터 획득한 재물 "파이"와 "가니마"의 일부는 메카 불신자들의 박해를 받아 재산과 가정을 두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여 온 메카주민(무하지린)들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9-1) 본절에 나오는 "그들"은 모두가 "무하지린"을 가르킴.
2) 본문에 나오는 "자들"은 "무하지린"이 오기 이전부터 가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메디나 원주민들을 말하며 메카에서 온 주민들을 "무하지린"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이곳 주민들은 "안사리"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3) 안사리들은 무하지린을 그들 가정에서 살게 하였고 가진 재산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카진"은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62/4).
4) 전리품(가니마)을 무하지린들에게 분배하는 것에 대해 안사리들은 욕심을 갖거나 증오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바니 나디르" 유대인 부족으로부터 획득한 재물(파이)을 분배할 때 안사리 3사람 외에는 모두 다 무하지린들에게 분배하였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24).
5) 샤후 : 그가 갖고 있지 아니한 것에 눈독을 들이고 또는 욕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쉬야 알싸위는 풀이하고 있다.
10-1) 뒤늦게 메디나로 이주하여 온 자들 또는 늦게 이슬람에 귀의한 자들을 가르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제7장 43절 참조 및 비교
11-1) 선지자 무함마드의 메세지를 거역한「바니 까리자」와「바니 나디르」부족의 유대인들
2) 본절은「압둘라 이븐 아비 이븐 술룰」과 위선자들에 관해 계시된 것으로 이들은 "바니 나디르" 부족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같이할 것이며 그리하면 그들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알타쓰할 리울움 알탄진 110/4).
12-1) 바니 나디르 부족의 유대인들
2) 압둘라 이븐 아비 이븐 술룰 및 위선자들
13-1) 무슬림들
2)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꾸르뚜비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35/18).
14-1) 위선자들은 항상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그들의 주장을 달리하면서

진리의 백성들에게 적이 되자는 것에는 함께 모이는 자들이라고 "까타다"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35/18).

15-1) 바니 나디르 부족의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메카 불신자들이 바드르 전투에서 패하여 포로들이 되었듯이 바이되위는 바드르에 있었던 불신자들처럼 유대인도 그렇게 될 것이며 지나간 세대가 멸망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바위되위 478/3).

17-1) 위선자들과 유대인들의 말로

18-1) 타끄와 : 제2장 2절 참조

2) 부활의 날을 위해 어떤 선행과 의로운 일들을 하였는지, 이브누 까씨르는, "너희에게 약속된 날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어떤 선행을 저축하여 두었으며 그날 너희 주님께 제시할 저축된 선행이 무엇이뇨"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77/3).

19-1)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일

21-1) 지혜와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에 대한 비유로써 이성과 지혜가 없는 산에다 계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 산은 하나님이 두려워 겸손하고 명령에 순종하였을 것인데 지혜와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아니 하는가? 라는 뜻으로 풀이됨.

23-1) "꾸두쓰"는 피조물의 속성을 벗어난 부족함도 그리고 잘못도 없는 가장 완전한 속성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알타쓰힐 리올룸 알탄진 111/4).

24-1) 무사위르 :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상을 만드는 분이라는 뜻으로 "태내에 그분의 뜻대로 너희의 형상을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라는 말씀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카진"도 "원하는 대로 형태를 창조하는 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73/4).

2) 제7장 180절 및 제17장 110절 참조

제60장 수라트 알뭄타히나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13절로 이슬람법의 일면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증오,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를 공격할 것이라고 메카 주민들에게 편지를 썼던 「하띠브 이븐 아비 발타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적과 무슬림에 대한 살생을 금기하고 있는 규범, 메카로부터 이주하여 온 여성 무슬림들에 대한 규범과 그 여성들에 대한 시험 등 이슬람법의 일면을 담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의 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무슬림들을 박해하여 가정과 재산을 두고 메카를 떠나게 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적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현세에서 함께 사는 친척이나 자손이나 친구들 어느 누구도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직 유용한 것은 믿음으로 선을 실천했던 것뿐이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모범으로 소개하고 있다. 믿음을 가진 신도들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그들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더불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여성들의 믿음이 사라져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는 교훈을 얘기한 후 하나님의 적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본 장이 '뭄타히나'(시험받고 조사 받는 여성)로 불려지게 된 이유와 배경은 우끄바 이븐 아비 무이뜨의 딸 움무 꿀쑴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로 이주하였을 때 그녀의 믿음이 사실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데서 '움타히나' 장으로 불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본

장 10절 참조).

1-1) 선지자 무함마드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2) "너희가 나(하나님)의 후원자들이라면 나의 적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라는 뜻으로 올루씨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올루-씨 67/28).
3) 본절은 「하띠브 이븐 발타아」에 관하여 계시된 것으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를 정복할 준비를 하였을 때 "하띠브"는 메카 주민들에게 선지자 무함마드가 공격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좌이나」-여행가는 한 여성-편으로 그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가 내려졌으며 그래서 선지자는 「알리」와 「주베이르」, 그리고 「미끄다드」를 보내면서 말하길, "서둘러 가서 그 여자가 가지고 가는 서한을 가지고 「라우다 카크」까지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 라우되까지 왔는데 그때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그 서한을 내노라고 하였더니, 그녀가 말하길, "저에게는 어떤 서한도 없습니다"라고 하자 그녀에게, "그 서한을 내놓지 아니하면 피해를 보리라"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뒷머리 댕기에서 그 서한을 꺼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한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와 펼쳐 보았을 때 그 서한에는 메카 불신자들에게 선지자 무함마드의 일들에 관한 것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1) 구타하고 살해하기 위해서(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33)
3-1) 메카에 있는 가족과 친척을 빙자하여 선지자와 믿는 사람들을 기만했던 하띠브에 관하여 계시된 절(Ibid. p.34)
4-1) 아브라함의 인도에 따라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들(제9장 114절 참조)
2) 하나님은 신앙인들(무으민)에게 명령하사 신앙을 갖되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들의 모범을 따르고 불신자들을 대하되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범을 따르라고 충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앙(이만)은 하나님의 적들과 그들의 적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bid. p.34).
3) 제9장 114절 참조
5-1) 제8장 25절그리고 제2장 102절 참조
6-1) 아브라함과 그와 같이 했던 신앙인들
2) 내세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응벌을 두려워 하는 자
8-1) 이 절은 「카자아」에 관해 계시된 것으로 그들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화해를 구하고 그분에게 대적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Ibid. p.36).
10-1) 선지자 무함마드와 메카 불신자들 사이에 있었던 후데이비야 평화협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메카 거주민 가운데 무슬림들이 올 경우는 돌려 보내지 아니하나 메카 거주민 가운데 불신자들이 올 경우는 돌려 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우끄바 이븐 아비 무이뜨」의 딸 「움무 쿨쑴」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로 이주하여 왔을 때 그녀의 형제 「움마라」와 「왈리드」가 그녀를 뒤쫓아 와 서지자께 말하길, "그녀를 우리에게로 돌려 주시요"라고 하자 선지자는, "조건에 남자 또는 여자라는 조건이 없었도다"라고 대답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Ibid. p.36) 이브누 압바쓰는 그녀는 남편을 증오하고 세상 욕심을 위해 이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지자를 사랑하여 이슬람에 귀의하기 위해 이주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바흐르 알무히뜨 256/8).
2) 믿는 여성이 불신자 남성에게, 믿는 남성이 불신자 여성과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3) 불신자가 그의 아내에게 지불했던 지참금. 아내가 이슬람에 귀의했을 때는 그녀의 남편이 아내에게 지불했던 지참금을 돌려 줌으로써 불신자 남편에게 아내와 재산

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풀이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57/8).

4) 이주하여 온 여성에게 지참금을 지불한 후 결혼하는 것은 무슬림들에게 허용된다(타프씨르 알카진 79/4).

5)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배우자가 불신자가 될 때는 너희가 지불한 지참금을 요구하고

6) 불신자들은 이주하여 간 아내에게 그들이 지불한 지참금을 요구하라.

11-1) 무하지린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떠나 불신자가 될 경우 전리품에서 그 남자에게 그가 그녀의 아내에게 지불했던 지참금과 같은 만큼의 액수를 주어야 한다고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명령하였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86/3).

12-1)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를 정복하였을 때 메카 여성들이 선지자에게로 와 남성들이 이슬람에 귀의하겠다고 맹세했듯이 그녀들도 이슬람에 귀의하겠다고 맹세를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37).

2)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에 살았던 아랍여성들은 과부가 되고 가난이 두려워 여자 아이들을 살해했었다.

3) 메카 정복 이틀째 되던 날 남성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맹세한 후 여성들도 "사파" 동산 위에서 맹세를 하였다. 이때 선지자는 산위에 있었고 우마르는 산 아래에 있었다고 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Ibid. p.38).

13-1) 「하싼 바스리」는 "노여움을 받지 않는…"라는 절로 보아서 유대이들이라고 풀이하고, 이브누 압바쓰는 모든 불신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갖게 됨으로 그들은 메카 불신자들이라고 보고 있으나(알바흐르 알무히뜨 259/8) 본 절에서의 "노여움을 받은 이들"이란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고 보는 견해고 일반적이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90/3).

제61장 수라트 사프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14절로 하나님의 적에 대항한 성전, 하나님의 길에서 신앙생활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자기 희생, 현세와 내세에서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될 수 있는 사업 등을 다루면서 주로 성전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대열에 서서 전투를 한다는 점에서 본 장이 '사프'(전쟁의 대열) 장이라 불려지게된 동기로 보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cit, p.41).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되게 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위반하지 말라는 충고와 함께 하나님의 적에 대항하여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세와 예수의 선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 모세와 예수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 겪는 어려움과 고난 등의 이야기를 언급하여 메카 불신자들에 대항하여 선교하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고, 하나님과 예언자들의 승리는 물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믿는 사람들의 사업이 날로 성공하고 번창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2-1) 실천할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교훈으로, 약속을 하고 말을 하고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이브누 까씨르는 풀

이하고 있다. 위선자의 예증으로 3가지가 있나니 "약속을 하고서 위반하는 것,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믿으면 속이는 것이라"고 부카리와 무슬림도 전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91/3).

3-1) 말을 하고 약속을 하면 꼭 실천해야 한다는 교훈

4-1) 하나님의 길에서 그리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 성전할 때는 견고한 건물처럼 자리를 지키며 적을 맞이하여 싸워야 한다는 교훈으로 적과의 전투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821/18).

5-1) 모세의 백성들은 이따끔 모세에게 거역하고 고통을 주며 때로는 그를 욕되게 하였다(제33절 69절 참조). 또한 구약성서 민수기 제12장 1-13절에서도 모세를 욕되게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본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모세가 그의 백성의 모욕과 조롱을 인내했듯이 무함마드도 메카 불신자들의 모욕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는 위안으로 풀이된다.

6-1) 유대 백성에 대한 예수의 임무는 마태복음 제10장 5-6절, 제15장 24절(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노라…), 제15장 26절(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 아호맏 또는 무하맘드는 "찬양받는 자"란 언어적 의미로 그리스어의 Periclytos로 번역되어 있다. 요한복음 제14장 16절, 제15장 26절, 제16장 7절에 나오는 "Comforter"는 그리스어의 Paracletos의 의미(주창차, 돕는 자, 친절한 친구…)는 Periclytos가 잘못 발음되어 Paracletos로 발음되면서 그 뜻이 영어의 Advocate로 번역되었다. 예수가 말한 원래의 말씀에서는 아호만(Ahmad)란 이름을 가진 예언자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였다(꾸란 제21장 107절, 제9장 128절 및 제3장 81절 참조).

한편 하디쓰에서도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름은 다섯가지로 그 중의 하나가 이호만이라고 전하고 있다(내게는 다섯가지의 이름이 있으니, 무함마드, 아호만, 하쉬르, 마히 그리고 아끼브)

3) 예수

4)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장님과 봉사를 치료한 예증 등 하나님의 허락으로 예수가 보였던 모든 기적

8-1) 꾸란을 마술이라 욕되게 하여 하나님의 빛인 이슬람을 거역하려 한 불신자들의 행위

10-1) 티자라 : 거래, 무역이란 의미로 어떤 것을 주고 그가 바라는 것을 얻은 것을 말한다. 즉 본절에서의 거래라 함은 우리 인간이 주는 것은 소량이나 인간이 내세에서 받을 약속받은 양은 너무나 많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풍성함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제9장 111절 참조).

11-1) 성전(지하드)은 다음 3가지로 묘사되고 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유혹을 자제하는 것
둘째,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
셋째, 하나님 적에 대항하여 자신과 재산을 바쳐 하나님의 종교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맘 파크리」는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 카비르 316/29).

13-1) 적들에 대한 승리 또는 메카정복에 대한 승리라고 풀이된다. 이브누 압바쓰는 페르시아와 로마의 정복에 대한 승리라고 말하고 있다.

2) 내세에서의 보상으로, 현세의 진리는 내세의 은혜로 연결하여 주는 교두보이다(타프씨르 알바흐르 알무히뜨 263/81).

14-1) 마태복음 제16장 24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다(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 제3장 52절 참조. 예수의 12제자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언급되고 있

다. 또한 "바위되위"도 예수를 따라 믿음을 가졌던 12제자라고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알바위되위 492/3).

제62장 수라트 알주므아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11절로 이슬람법의 일면과 금요 합동예배의 규범을 언급하면서 믿는 신도들의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함마드를 최후의 선지자로 보내 암혹과 방황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인간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메시지를 보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을 비유하사 책들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당나귀에 비유하고 금요예배에 대한 규범, 예배시간을 알리는 것(Azan)과 예배시작을 알림(Iqamah) 소리를 들으면 상품판매 및 거래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본 장이 '주므아'(모이는 것 또는 금요예배)라고 불려지게 된 배경은 본 장 10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믿는 사람들이여! 금요일 예배의 아잔이 들릴 때면 서둘러 하나님을 염원하고 거래를 중단하라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위해 복이 되니라."

2-1) 읽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었던 그 시대의 아랍인들을 "움미"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그들 사회에는 "움미야"(무학)라는 용어가 잘 알려져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도 그 당시의 아랍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아니한 백성들로 쓰지도 아니하고 계산도 아니하도다"라고 말한 것이 하디쓰로 전하여 지고 있다.
2) 꾸란
3) 믿음으로 마음을 순결케 하는 것
4) 꾸란과 하디쓰

3-1) 부활의 날까지 이슬람에 귀의할 모든 인류. 「싸위」는 그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백성 및 그들 이후에 올 모든 백성으로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은 그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까지 올 모든 백성들에게 계시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 잘라라인 204/4). 또한 "무자히드"는 아랍백성 외에 선지자를 인정한 모든 외국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498/3).

5-1) 유대인들
2) 구약의 율법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책을 짊어지고 다니는 당나귀처럼 성서를 짊어지고는 다니나 아무 효용이 없어 그 책들이 유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꾸르뚜비」는 비유하고 있다.

6-1)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써 그분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있는 내세는 자기들 만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유대인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들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내려 그들이 거짓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52).

7-1) 불신하고 오만하며 선지자 무함마드를 거역했던 그들의 행위

9-1) 싸이 : 달려가지 아니하고 차분히 걸어가는 것이라고(알타쓰힐 리움룸 알탄질

119/4) 풀이되고 있다. 또한 하디쓰에서도, "예배를 행할 때 차분히 걸어오라. 차분히 걷는 너희에는 평안함이 있느니라"라고 전하여 지고 하싼은 예배를 드리려올 때 평안하고 침착하게 오되 마음과 의도와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 금요 합동예배를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리면 금요예배의 설교(쿠트바)를 경청하고 예배를 근행하기 위해 하던 일들 즉 상거래 행위를 멈추라는 교훈이다.

10-1)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는 그분을 염원하는 자라. 그러나 그분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가 하나님을 많이 찬미하였다 하여도 그는 하나님을 염원한 것이 아니라(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52).

11-1) 자베르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설교단(민바르)에서 금요 합동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대상이 왔다. 이때 선지자의 추종자들 중 자베르와 아부 바크르 그리고 오마르 등 12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대상을 맞이하려 서둘러 나갔다. 이에 관하여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Ibid. p.53).

제63장 수라트 알무나피꾼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11절로 다른 메디나 계시들이 다루고 있는 이슬람법과 규범 그리고 이슬람법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선과 위선자들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본 장의 명칭이 '무나피쿤'(위선자들)의 장이라고 불려진 것으로 본다(Ibid. p.55).위선자들의 속성, 즉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며 입으로는 그럴 듯하게 말하나 마음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와 무슬림들에 대한 기만, 이슬람을 믿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슬람에 귀의하지 못하게 하는 권모술수 등이 바로 그들의 대표적 속성이다.

하나님은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위선자들의 못된 언행과 자세를 언급한 후 현세의 사치와 오락에 탐닉하여 하나님을 잊고 멸망의 길에 빠져 있는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믿는 신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1-1) 「압둘라 이븐 술룰」 및 그의 동료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찾아와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위선으로 가득차 있었다(제3장 167절 참조).

2-1) 사람들로 하여금 선지자 무함마드를 믿는 것과 성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 따브리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종교와 하나님의 법인 샤리아를 외면하게 하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69/28).

3-1) 믿음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제2장 7절 참조).

4-1) 이브누 쑬룰은 화술이 뛰어났다. 그가 말을 할 때 선지자와 모임에 참석했던 선지자의 추종자들은 그의 외모와 화술에 놀라기도 했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208/4).

2) 외형은 있으나 혼이 없으며 육체는 있으나 꿈이 없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3)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들의 베일을 걷어내고 그들의 비밀을 밝혀낼까 두려워하고 있다.

6-1)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지자로부터 벗어난 자들을 위한 기도는 아무런 효용이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7-1) 선지자 무함마드와 함께 메카로부터 이주하여 메디나에 거주한 무하지린은 메디나에 거주했던 안사리들의 환영과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메디나에 있었던 위선자들은 무하지린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무하지린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떠날 때까지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말라고 까지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58).
8-1) "이브누 쑬룰"이 말하길, "우리가 이 전투-바니 알무쓰 딸라끄-에서 메디나로 돌아가면 더 강한 우리가 더 천하고 보잘 것 없는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을 추방하리라"고 하였다(Ibid. p.59).

第64장 수라트 타가분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18절로 이슬람법과 메카 계시의 내용과 유사한 이슬람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발자취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간과 하나님을 불신한 인간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역했던 지나간 백성들이 멸망한 것을 교훈으로 제시하면서 부활은 진리이니 반드시 도래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을 불신하고 조롱한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의 부름에 거역해서는 아니 된다는 경고, 성전과 메디나로의 이주를 방해했던 몇 아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언급한 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재물을 바치되 인색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사업을 위해 재물을 바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였다.

본 장의 명칭은 9절에, "군집하는 어느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집합시키는 그 날은 너희 가운데 잃은 자와 얻은 자가 있게 되는 날로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일을 행한 자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과오를 거두어 주사 강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영생하리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에서 '타가분'(잃은 것과 얻은 것)의 어휘가 계시되어 있어 '타가분'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본다.

4-1)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 보상과 응벌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뜻(타프씨르 알바흐르 알무히뜨 277/8)
5-1) 메카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절로써 아드나 사무드 백성이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했듯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는 경고이다.
9-1) 이날은 군집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왔던 인간에서부터 마지막에 온 인간까지 모두를 집합시키는 날이라 이브누 까씨르는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65).
2). 믿음을 불신한 자들에게는 손실과 파멸이, 현세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충실했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나타나는 날을 야우무 타가분이라 하고 있다.
11-1) 자신에게 또는 재산과 가족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13-1)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그분에게만 보호를 구하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뜻으로 싸위는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212/4).
14-1) 일부 메카 주민들은 이슬람에 귀의하여 이주(헤즈라)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내

와 자손들이 이주하여 가는 것을 말리자 얼마동안 이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후 이들이 이주하여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이르러 종교를 이해하고 이주(헤즈라)를 말렸던 아내와 자손들을 나무랬다. 이로 인하여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63).

16-1) "너희에게 어떤 것이 명령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행하고 금기한 것을 피하라"(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고 하디쓰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17-1) 까르드 : 빌려 준 것, 차관 등 여러가지 언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절의 까르드는 하나님께 바치는 자선과 사랑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제2장 245절 참조).

제65장 수라트 딸라끄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12절로 부부관계, 이혼, 이혼한 후 기다려야 할 법정기간과 보상, 주거문제, 유아 양육에 대한 규범 등을 다루고 있다.

이혼 절차, 합법적 이혼과 비합법적 이혼, 이혼할 때 가장 좋은 방법, 부부생활을 계속할 경우의 규범, 이혼시기 등의 규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서 가장 좋지 일이므로 피할 수 없는 이혼이라 할지라도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만 이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혼한 후 재혼하기 위해 기다려야 할 기간, 임신하기 전과 임신한 여성이 이혼할 경우 기다려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딸라끄'(이혼)란 말에서 본 장의 명칭이 딸라끄' 장으로 불려지게 된 것으로 본다.

1-1)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일반 규범으로 선지자의 위치를 높이 두기 위해 선지자를 불러 계시하고 있다. 꾸르뚜비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불러 촉구하는 모든 어휘는 곧 모든 인류 전체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70).

2) 생리 중에 있지 아니한 깨끗한 기간. "무자히드"는 성생활을 아니한 동안의 깨끗한 기간이라고 하디쓰를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그녀와 접촉하기 전 깨끗한 상태에서 이혼하라. 그것이 여성과 이혼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기간이라"(부카리와 무슬림), 또 다른 해설가들은 생리 중에는 여성과 이혼하는 것을 금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충격으로 기간(옷다)이 길어져 그 여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3) 옷다 : 기혼 여성이 이혼하게 될 때 여성의 임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제2장 185절 및 228절 참조)

4) 이혼은 후회이며 기다리는 법정기간(재혼하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기간)에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71).

5) 본 절이 계시된 동기를 부카리는 하디쓰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압둘라 이븐 우마르는 생리중에 있는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서 그 이야기를 선지자께 하였더니 선지자께서 화를 내시며 말씀하길, "부인에게로 돌아가 생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요. 또 생리를 하면 기다리시요. 그리고 이혼하고자 한다면

부인과 접촉하기 전에 이혼하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기간이요"(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2-1) 그녀와 재결합을 하던지 아니면 정하여진 기간이 만료되어 그녀가 스스로를 관리하도록 두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71).

2) 건전하다는 뜻은 큰 죄악이나 조그마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한 자로 간통 및 간음, 술 및 이자놀이 등으로 방탕한 자는 결혼의 증인으로 수락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 왈리(Waliyy)-결혼할 여성의 보호자-와 2명의 정직한 증인이 없이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Bayhaqi and Daraqatni)

4) 이혼시 또는 정하여진 기간에 다시 재결합을 하거나 이혼한 여성이 재혼할 경우 종교가 같으며 신임을 받은 두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증인제도에 관하여 아부 하나피는 만둡(그럽게 행하면 더 좋은것)이라 하였고 재결합시의 증인제도는 와집(의무)이며 이혼시에는 만둡이라고 샤피는 말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82/8).

4-1) 나이가 많이 들어 생리의 기간이 끝나버린 여성

2) 나이가 어려 아직 생리를 하기 전의 여성

3) 제2장 228절 참조

6-1) 정하여진 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무로 남성이 생활하는 집으로부터 내보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남성이 생활하는 것처럼 그 여성이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

2) 학대하고 박대하여 그 여성이 집을 나가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3) 젖을 먹이는데 대한 보상은 물론 그로 인한 다른 생활비까지도 지불해야 한다고 풀이되고 있다(알타쓰힐 129/4).

4) 어머니는 젖을 먹일 의무가 있으며 또한 남편은 젖을 먹이는데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꾸르뚜비는 보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69/18).

7-1) 아내와 자식에 대한 남편의 의무규정으로써 남편의 능력과 재력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 사람의 환경과 조건이 다름으로써 지불규정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29/4).

10-1) 일부 해설가들은 "낭송할 한 선지자"라는 절을 인용하여 본문의 교훈을 선지자 무함마드로보는 견해와 꾸란으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74-75).

11-1) 이 절로 보아 10절의 견해 즉 교훈은 꾸란을, 선지자는 무함마드라는 것이 분명하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86/8).

2) 천국에 있는 그들을 위해 일용할 모든 양식과 그들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준다는 뜻으로 따브리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98/28).

12-1) 층을 두어 일곱개의 하늘이 창조되었으나 대지도 일곱 단계의 층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본절의 꾸란과 하디쓰를 근거로 칠층의 하늘과 일곱 단계의 층으로 대지가 창조되었다는 견해가 다수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75).

제66장 수라트 타흐림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12절로 선지자 가정에 관계되는 규범,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로써의 선지자의 아내들, 무슬림 가정에서의 인사예법, 행복한 가정을 위한 완전한 모범 등을 제시하고 있다.선지자와 그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선지자의 가문

에 누를 끼쳤던 「하프사」와 「아이샤」 두 부인, 특히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며 추종자인 제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와 부인들의 실수가 선지자 무함마드를 크게 실망케 했던 이야기, 실수와 과오를 발견했을 때 즉시 참회하고 선행으로 속죄할 때 하나님은 다시 믿는 사람들을 위해 천국을 마련하여 두셨다는 이야기, 불신자들에 대한 교훈으로써 노아와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 파라오 아내의 이야기와 순결을 지키고 믿음에 충실했던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얘기를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이 '타흐림'이라 불려지게 된 동기와 배경은 믿는 신도들의 어머니이라 불리우는 선지자 부인들의 실수가 선지자를 크게 실망시키고 곤경에 빠뜨리자 아내와 잠시 단절(타흐림)하려 했던 것이 그 이유라고 풀이 할 수 있다.

1-1) 하나님께서 허락한 여성(부인)들로 선지자의 가문은 일반 사람들의 가정과는 다르다. 선지자의 아내들은 품행과 덕성이 다른 일반 여성들보다 더욱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였다. 물론 부인들은 보다 훌륭한 일들을 수행하였다(제33장 28절). 그러나 선지자의 부인들도 결국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성(性)에 허약함은 어쩔 수가 없어 무엇인가가 실수한 것이 있었다.부인 아이샤의 무례함(제24장 11절 참조)이 한때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켜 이것으로 선지자 무함마드는 대단한 비탄에 빠져 얼마 동안 부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것은 더욱 가장 신뢰하는 동료 제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 시디끼의 딸 아이샤와 제2대 칼리프 우마르의 따라 하프싸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지자께서 부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려 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78-79 및 Adullah Y. Ali, op. cit, p.1569 Note No.5529 참조).

2-1) 선행으로써의 속죄(카파라) (제2장 224절 참조)

3-1)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하프사 부인에게 어떤 기밀을 이야기 하고서 그 기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30).

2) 무함마드가 아내인 아이샤에게 그 기밀을 이야기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3) 선지자 무함마드

4) 선지자 무함마드

5) 하프사는 아이샤가 그것을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알릴 것으로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하였다.

4-1)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때 우마르가 선지자에게로 와 "하나님의 선지자여, 여성의 문제가 당신을 괴롭히나니 당신께서 그 부인들과 이혼한다 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가브리엘 천사와 아부 바크르아 우마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 말한 것에 관하여, "천사들도 더욱 그분을 도우리라"라고 계시된 것으로 하디쓰에 의하여 전해지고 있다(알 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31/4).

5-1) 선지자 무함마드

2) 믿음에 충실하지 못하고 게을리하여 선지자의 가문에 오점을 남기는 부인들에게 경고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녀들과 이혼하게 되면 믿음과 품행 모든 것이 더 나은 부인들로 결혼케 하여 주겠다는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다고 꾸르뚜비는 해설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93/18).

6-1) 제2장 24절

2) 지옥을 다루는 천사 "주바니야"젖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듯 회개한 후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122/4). 한편 학자들은 진실한 회개는 다음 3가지 사항이 결합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째 죄를 짓지 아니하고, 둘째,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후회하며, 셋째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결심이라고 풀이하면서 거기에 하나를 첨가한다면 친구에게도 그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82).

9-1) 제9장 73절 참조
10-1) 제9장 36-48절, 42-46절, 81절, 제7장 83절 참조
2) 노아와 롯의 아내들의 행위라 함은 종교상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해설가들이 말하듯 간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아와 롯은 선지자였기 대문에 그들 부인들이 성적 간음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지 않고있다(Ibid. p.83).
11-1) 하나님의 적 파라오에게 대항했던 한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는 천국 높은 곳에 있을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아씨야 빈트 무자힘」로써 모세를 믿었다고 풀이되고 있다(타프씨르 아비 알싸우드 176/5).
12-1) 유대인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간음한 여성이라 비난하였으나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정녀의 몸에서 선지자 예수를 낳았다(제22장 27-28절 참조).
2)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인간의 형상으로 하여 보낸 후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혼을 불어 넣으라 명령하니 그 혼이 마리아의 자궁으로 들어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씨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525/3).
3) 제21장 91절, 제19장 16-29절, 제32장 9절, 제15장 29절 참조

제67장 수라트 알물크

본 장은 메케에서 계시된 제30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유사한 이슬람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다. 본 장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생명을 주시고 앗아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 둘째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서 홀로 존재하심을 여러가지 예증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셋째 불신자들에 대한 징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생명을 주사 앗아가시는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사 별들을 하늘의 등불로써 장식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써 하나님이 크게 노하실 것이요 그들의 거주지는 지옥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을 비교하면서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어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에서 온 누리의 주님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소유한다는 '물크'란 어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다. 티르미지는 본 장의 명칭을 '와끼야' 그리고 '무나지야' 라고도 부르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cit, p.5).

1-1) 비야디히 알물크 : 그분의 뜻에 따라 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허약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사 앗아 가시며 풍성케 하사 가난케 하며, 베풀어 주시고 금기하는 뜻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06/8).
4-1) 완전하게 창조된 하늘과 우주를 눈으로 보고 또 보라. 너희는 피곤하여 너희가 원했던 것을 보지 못하고 겸손하고 순종한 시력으로 돌아올 것이라(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7).이맘 파크리는 여러 차례 보더라도 너희가 원하는 오점이나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겸손하고 순종한 시력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풀

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리타-지 58/30).
5-1) 하늘을 맞대고 있는 제일천
2) 하늘의 별들. 하나님은 별들을 3가지 뜻을 두고 창조하셨나니 그 첫째가 하늘을 장식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탄을 물리침에 유용하며, 셋째는 바다와 육지에 그것으로 길을 알도록 함에 있었다고 "까따다"는 이야기 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99/8).
7-1) 땔감이 불속에 던져지는 것처럼,지옥을 지키는 천사인 주바니야 천사에 의해
9-1) 경고자로서의 한 선지자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였으나 저희는 그를 거역하고 그의 메세지도 거역하였습니다.
11-1) 다시 스스로의 위치로 돌아오려 하나 후회가 필요없는 그때서야 후회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528/3).
13-1) 불신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무함마드의 신이 듣지 않도록 숨어 말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숨겨질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카-진 126/4).
17-1) 강한 강풍을 보내어 롯의 백성을 멸망케 하고 또 코끼리의 군대를 멸망케 한 것처럼 돌폭풍을 보내어 멸망케 하였다고 교훈으로서 경고하고 있다(제17장 68절, 제29장 40절 참조).
18-1) 제22장 42-44절 참조
20-1) "내(하나님)가 너희에게 벌을 주려 할 때 나(하나님)외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뇨"라는 뜻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126/4).
22-1) 불신자들(제27장 90절 참조)
2) 믿는 신도들
25-1) 불신자들
26-1) 심판과 부활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응벌과 심판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 올 것인가는 그것을 계획하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으로 선지자의 의무는 단지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임무밖엔 없다(제22장 47-49절 참조).
27-1) 천사들의 말씀

제68장 수라트 알깔람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제52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와 믿음을 다루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첫째 메시지와 메카 불신자들이 무함마드의 선교에 대항한 비유, 둘째는 과수원의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불신자들에 비유한 이야기, 셋째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는 믿음에 충실한 무슬림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과 죄인들을 위해 준비한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선지자의 능력과 품성에 관한 묘사를 시작으로 죄인들의 선지자 선교에 대한 자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준비한 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 하고, 메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는 오만불손함,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최후의 선지자를 보냈으나 배척한 그들을 비유하사 풍성한 과일을 수확한 과수원 주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절대 같을 수 없으며 불신자들의 어떠한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박해도 참고 이겨내라고 하면서 잠시 인내하지 못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벌어졌던 얘기를 소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연필로 글을 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본장 제1절의 '깔람'(연필, 펜, 붓…)이란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1-1) 제2장 1절 참조
2) 선지자 무함마드의 진리성에 대하여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과 그 기록한 연필의 이름으로 계시를 내림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하였다.
4-1) 지혜롭고 온화하며 수줍어 하심이 크고 신앙생활에 충실하여 관대하시고 인내심이 강하시며 감사함에 인색치 아니하시며 항상 중용을 지키시고 세속에 무관심하시며 자비로우시고 훌륭한 거래와 예의가 바르신 분이라고 무슬림이 전하고 있다.
5-1) 메카 불신자들
6-1) 무함마드가 정신이상자이며 미친자라고 말했던 「왈리드 이븐 무기라」와 「아부자홀」에 관하여 계시된 절이다(타프씨르 알꾸르뜨비 229/18).
9-1) 메카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그대가 우리의 신들을 숭배한다면 우리도 그대의 신을 숭배하리라"고 말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알타쓰힐 리올룸 알탄질 138/4).
11-1)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나니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이라(무슬림이 전함).
12-1) 스스로 선행을 하기는 커녕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사업을 위해 재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17-1) 온갖 과일이 열린 과수로 풍성한 과수원 주인들을 시험하였듯이 메카의 백성들을 가뭄과 기아로서 시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였다. 즉 과수원의 주인들로 하여금 풍성한 온갖 과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라 했듯이 메카 부유한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였다.
사나아 도시 근처에 살고 있는 한 무슬림이 있었는데 그는 온갖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는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확기가 되어 가난한 농부들 및 일군들을 불러 모든 과일을 수확하게 하고 그들에게 넉넉한 대가를 지불하고 크게 대접을 하여 주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자손들이 그 과수원을 재배하면서부터 자기들의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것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른 아침에 수확하여 버릴 것을 맹세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과수원에 불을 보내어 모든 과수를 태워 멸망케 하여 버렸으니 그들은 후회하였을 뿐이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18).
18-1) 그들의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그들도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다(제68장 17절 참조).
19-1) 잠든 사이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보내 불태워 버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25-1) 가다와 : 아침 일찍 떠났다.
2) 아라 하르딘 : 가난한 사람들 몰래
26-1) 과수원이 완전히 멸망되어 황폐한 불모지가 된 것을 본 그들은 이 과수원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33-1) 바드르 전투에 출전했던 메카 불신자들이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과 믿는 신도들을 살해하지 아니하고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술과 춤과 음악으로 그들 우두머리들에게 맹세했던 자들이 살해되고 포로가 되어 완전히 패배하여 돌아온 이들을 과수원의 주인들에게 비유한 것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46/18).
38-1) 너희 불신자가 가진 책에서 너희가 희망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을 배우기라도 하였느뇨?(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20)
39-1) 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537/3 참조
40-1) 한국어 해설에 나오는 "그대"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르키고 있다.

42-1) 싸끄 : 정강이란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본 절의 의도는 재앙 또는 부활의 날에 있을 아주 엄한 응벌을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꾸란 어휘 해설 p.377).
44-1) 하나님
2) 제7장 182절 참조
46-1) 제3장 4절 참조
47-1) 제3장 41절 참조
48-1) 요나는 사악한 도시 니네베(Nineveh) 백성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받았다. 그러나 그 도시의 사악한 백성들의 지역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들의 박해를 피하여 배를 타고 피하였다. 그런데 폭풍우가 일어나 배는 바다에 침몰이 되었고 바닷고기가 요나를 삼켜 버렸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하였으므로 그 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고 용서를 받았으며 또한 그 도시의 백성들도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 제21장 87-88절, 제37장 139-148절 참조

제69장 수라트 알하까

본 장은 메케에서 계시된 52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다루고 있다. 부활과 심판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는 하나님 만이 아시는 영역이며, 아드, 사무드, 롯, 파라오와 노아 시대의 이야기, 꾸란의 진실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사실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실제의 날, 즉 심판을 위한 부활의 그날이 무엇인가를 질문의 형태로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오만불손했던 사무드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실제의 날에는 온 세계가 파괴되고 산들이 진동하며 하늘이 쪼개진다는 이야기, 이 실제의 날부터 행복하게 될 사람과 불행하게 살 사람들을 비유하였으니 우편에 기록을 가진 자는 천국의 사람들이요 좌편에 기록을 가진 자는 지옥의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다.

꾸란의 진실과 무함마드의 사실을 언급하면서 꾸란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시나 마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후 꾸란을 영광되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불신자들에게는 큰 슬픔이니 위대한 주님의 이름으로 꾸란을 영광되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이슬람의 기본 원리요 믿음의 핵심인 '하까'(실제의 날, 실제, 사실, 현실), 즉 심판의 날에 관하여 주로 언급되고 있어 '하까' 장으로 불려지게 된 것으로 본다.

1-1) 부활의 날 명칭 가운데 하나로 현세에서 있었던 실제의 모든 일들이 사실대로 밝혀지는 날로 의심할 바 없는 날 임을 의미한다.
3-1) "부활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 무함마드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그대는 그대가 알지 못하고 관계없는 것 그리고 그대가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것은 가르치지 말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25).
4-1) 까리야 : 부활의 날
2) 사무드 백성은 예언자 살레를, 아드 백성은 후드를 거역했다.
5-1) 제7장 65절 및 73절 참조
9-1) 롯의 다섯개 고을이 멸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240/4).

13-1) 이스라펠 천사가 부는 나팔소리로 세상이 파괴되는 신호를 알리는 소리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

17-1) 천사들이 여덟겹으로 하나님의 권좌를 지탱하고 있으나 그 천사들의 숫자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27).

30-1) 지옥을 담당하는 천사 주바니이야 천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풀이되고 있다(Ibid. p.28).

37-1) 죄인들이 지옥에서 먹을 양식은 불지옥의 죄인들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과 부패물들 뿐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이브누 압바쓰의 말을 따브리가 인용함 : Ibid. p.37).

38-1) 라 : 부정의 "라"가 아니라 맹세(까쌈)에 대한 강조다(Ibid. p.37).

39-1) 보이지 아니한 것, 이맘 파크리는 내세, 영혼과 진, 그리고 보이지 아니한 은혜라고 풀이하고(알타프씨르 알카비르 리라-지 116/30) "까타-다"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라고도 풀이하고 있다.

47-1) 만일 무함마드가 너희들을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면 우리(하나님)는 무함마드를 벌하였을 것이며 이때 너희는 어느 누구도 그 벌을 제지할 수 없으리라(타프씨르 알카-진 148/4).

제70장 수라트 알마아리즈

본 장은 메케에서 계시된 44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부활을 다루면서 내세에서 행복하게 사는 자들과 불행하게사는 자들에 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의 믿는 신도들과 죄인들과의 상태 그리고 부활을 불신한 메카 불신자들의 선지자 무함마드 선교에 대한 조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세의 벌을 경고한 선지자 무함마드를 조롱한 메카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늘이 분리되고 산들이 양털처럼 그리고 이상한 여러가지 색깔로 변하는 그날 죄인들에 닥칠 이야기, 어려울 때 침착하지 못하고 재앙에 직면할 때 크게 슬퍼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인색해 하는 인간의 내면세계, 믿는 신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의 소식, 그리고 이 천국을 비웃은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후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맹세하사 부활과 보은 의심할 바 없는 필연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장이 끝을 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3절에 언급된 '마아리즈'(승천의 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1-1) 메카 불신자들이 자기 자신들과 그들의 백성들에게 응벌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한 질문자라함은 메카 지도자 중의 한사람이였던 「나다르 이븐 알 하리쓰」이며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하나님의 응벌이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경고했을 때, "이것이 그대로부터의 사실이라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돌벼락 아니면 고통스러운 응벌을 내려보라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드르 전투에서 멸망케 하고, "…불신자들을 위한 응벌에 관한 것으로…"라고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p, p.34).

3-1) 마아리즈 : 오르는 길, 계단 등의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본 절에서의 의미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르내리는 길이란 뜻으로 보아 우리 말로는 승천의 길이라 풀이하였다.

4-1) 하루의 길이가 5만년 길이와 같은 길이로, 이브누 압바쓰는 그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5만년의 길이로 그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여 지옥의 하루가 현세의 5만년 길이처럼 살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82/18).

2) 루호는 가브리엘 천사를 가르키며 가브리엘 천사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든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여 주는 가장 훌륭한 천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34).

5-1)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위로의 말씀으로 그대 백성들의 불신과 오만과 거만에 대하여 인내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6-1) 부활과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은 부활과 심판이 없음으로 응벌도 없다고 하면서 오만해 하고 있다.

9-1) 알이혼 : 붉은 색깔의 털, 또는 여러가지 색깔의 털이라는 뜻

11-1) 서로가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개되어 알게 되나 서로가 서로를 피한다는 뜻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음(타프씨르 알따브리 46/29).

15-1) 그때에 하나님의 벌은 그 어느 무엇으로도 회피될 수 없다는 뜻

17-1)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을 외면했던 자들을 지옥으로 부른다. 이브누 압바쓰는 불신자들, 위선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불신자여 내게로 오라, 위선자여 내게로 오라"라고 불러 모으게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89/18).

18-1) 재물을 축적한 후 하나님 사업을 위해 규정된 이슬람세를 바치지 아니하며 인색한 자들에 대한 경고

19-1) 할루우 : 조급하고 성급하게 원할 뿐 인내함이 없다는 뜻.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장 훌륭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어느 한계까지 주어졌다. 이 자유 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그의 본성을 허약하게 만들게 되며(제4장 28절), 또는 조급하고 서둘며(제17장 11절), 또는 본 절에 언급된 것처럼 침착하지 못하게 되어 그의 행위에 의하여 이것들이 그 인간의 성격이 되어 버린다.

21-1) 「이브누 키싼」은 인간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좋아하고 그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은 회피하며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기 싫어하며, 좋지 아니한 것에 인내하는 것이 인간 속성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바가위 151/4).

31-1) 자기 아내외에 성생활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자로 그는 하나님의 응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36-1) 불신자들은 줄을 지어 선지자 무함마드 주변에 몰려들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 그분과 그리고 추종자들을 비웃으며, "무함마드의 주장대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들 앞서 들어가리라"고 말했을 때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타프씨르 아비 알싸우드 195/5 및 타프씨르 알카-진 152/4).

39-1) 한 방울의 정액으로부터 응혈이 되게 하고 세포가 되게 하여 만들어진 인간은 오만하고 거만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됨.

43-1) 유피두나 : 서둘러 가다.

2) 우상을 숭배하던 무지의 시대에 숭배했던 우상들(꾸란어휘 해설 p.385).

제71장 수라트 누흐

본 장은 메케에서 계시된 28절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를 다루면서 예언자들의 어른이란 불리우는 노아의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노아의 선교 그리고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 등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에게 노아를 보내 하나님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희생과 노력으로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대중 앞에서 때로는 비밀리에 선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불신이 더해가자 노아는 웅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성 그리고 능력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충고하여 백성들을 인도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거역하고 사악한 음모를 꾸몄다.

노아는 950년 동안을 선교에 열중하였으나 백성들의 불신이 더하여 가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기원하고 오만하고 거만했던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멸망을 바랬다.

본 장의 명칭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노아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 '노아' 장이라 불려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cit, p.40).

1-1) 예언자들의 어른(쉐이크)인 노아는 아랍 반도에 거주했던 백성들에게 보내어졌으나 쿠파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울루씨는 풀이하고 있다(루-흐 알마으나 69/29).

2) 현세에서는 대홍수의 벌과 내세에서는 불지옥의 벌

2-1) 노아는 예언자들의 어른(쉐이크)이요 최초의 예언자였으며 꾸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50년을 살아온 현세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던 예언자였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그는 이 기간동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였으나 소수만이 그를 따라 믿음을 갖게 되었다. 본 장의 명칭이 누흐(노아)라 불리워 지게 된 동기는 본 장의 첫 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노아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 누흐(노아)의 장이라 불리워 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백성들을 대홍수로서 멸망케 했다. 또한 노아는 훌륭한 5명의 선지자-노아, 이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중의 한 선지자라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41).

4-1) 이슬람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들

2) 하나님이 정한 일정 기간까지 현세에서의 응벌을 지연시켜 주신다는 뜻으로 풀이됨.

7-1) 듣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 한다는 내용이 은유법으로 표현되어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338/8).

8-1)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지도자들에 대하여 촉구하였습니다.

9-1) 노아는 선교의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하나님의 메세지를 그들에게 들려 주려 하였다. 그래서 여러 대중이 모인 대중앞에서도 선교를 하였고 비밀리 개인적인 선교 방법도 강구하여 보았으나 모두가 실패였다.

13-1)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미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뇨?"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59/29).

14-1) 제22장 5절, 제23절 12-17절 참조

21-1)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그들의 지도자들

22-1) 백성들을 그들의 우상 숭배로 강요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종교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노아를 해치려 했던 음모라고 울루씨는 풀이하고 있

다(루-흐 알마아-니 76/29).
23-1)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의 이름이다. 그밖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으며 본 절에서 언급된 우상들이 대표적 우상들이었다고 싸위는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251/4).
25-1) 물에 익시하고 불지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불신과 다른 죄악들 때문이었다고 풀이되고 있다(알타쓰힐 이룰룸 알탄진 151/4).

제72장 수라트 알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28절로 하나님의 유일성, 메시지 및 부활과 보상을 영마와 대화를 통하여 다루고 있다. 한 무리의 영마들이 꾸란 낭송 소리를 듣고 난 후 그들의 무리에게로 돌아가 믿음을 촉구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에게는 아내도 그리고 자손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 영마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의 소식을 엿듣는 이야기, 그리고 하늘은 천사들로 가득차 있으며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온 다음에 하늘의 소식을 엿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이야기, 영마의 종류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을 가진 영마들과 믿음을 불신한 영마들이 있어 이들 각자의 영마들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 선지자 무함마드 선교에 대한 이야기, 불가시계는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에서 15절 사이의 계시가 영마와의 대화를 통하여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마' (진) 장이라 불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1-1) 무하맘드여 그대 백성들에게 말하라. "실로 나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계시하사 내가 그 말씀(꾸란)을 낭송하는 것을 한 무리의 영마가 들었도다. 이때 한 무리의 영마가 말하길, "실로 우리는 아름다운 꾸란을 들었으니 그것은 그(무함마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48)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새벽 예배에서 꾸란을 읽고 있을 때 이들 한 무리의 영마가 이것을 듣고 있었으나 선지자 무함마드는 그들이 주위에 있으면서 듣고 있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하고 계시를 통하여 그 소식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전하여 졌다고 풀이되고 있다(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하는 하디스를 이브누 압바쓰가 전함).
4-1) 사피흐 : 우매한, 바보스러운이란 뜻으로 본 절의 사피흐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으로 유혹하는 이블리스라고 무자히드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9/19).
5-1) 하나님이 아내와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 즉 우리가 이 꾸란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거짓말 할 어떤 사람도 그리고 영마도 없으리라 생각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49).
6-1) 영마의 무리 중에 있는 인간
7-1) 영마의 무리. 즉 너희 영마의 무리가 부활을 불신했던 것처럼 너희 인간의 불신자들도 부활을 불신하였다(Ibid. p.49).
8-1) 영마들이 말하길, "우리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사는 자들의 말씀을 듣고자 요구하였으나 하늘은 그것을 보호하는 수많은 천사들로 가득차 있음을 알았다"(Ibid. p.50)
9-1) 영마들의 이야기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오기 전 까지는 하늘의 문을 두드려 그곳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여 줄 수 있었으나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온 이후 하늘의 소식을 엿들으려 하는 자는 화염에 쌓여 멸망된다는 것(Ibid.

p.50).
10-1) 영마의 무리
2)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행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호자들로서 하늘을 가득 채워 지상의 백성들에게 어떤 벌을 주시려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려 하는지 영마들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Ibid.).
13-1) 꾸란을 믿고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확증하고 메세지를 믿는 자들은 그의 명예에 손상이 있을까 두려워 하지 않는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6/19).
14-1) 이슬람에 귀의하여 선지자를 따르는 자는 행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된다.
15-1) 진리와 믿음을 이탈한 불신자들에 대한 대가는 불지옥의 연료가 되어 태워진다는 이야기로 여기서 영마의 이야기는 끝난다고 대다수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51).
16-1) 메카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서 이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법 샤리아를 준수하였다면 풍성한 양식을 부여받았을 것이라는 뜻
17-1)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
2) 싸아드 : 쉴틈이 없는 응벌(타프씨르 알따브리 73/29)
18-1)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회중과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비유하곤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와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사원 안에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다고 무자히드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1/19).
19-1) 선지자 무함마드가 주님께 경배하고 있을 때 무리의 영마들이 꾸란의 낭송소리를 들으려 크게 혼잡을 이루며 선지자 무함마드 주변에 몰려 들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52).
21-1) 너희를 위해 재앙을 막아 주고 너희를 유용케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라.
24-1) 불신자들이 약속받은 응벌을 지켜보게 될 때 단결된 무슬림이 약한지 아니면 그들 불신자들이 약자인지를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천사들은 항상 믿는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숫자에 있어서도 훨씬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5-1) 선지자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벌을 경고했을 때 이들 불신자들은 선지자에게 이 응벌이 언제이며 심판의 날은 언제냐고 물었다. 이때 선지자는 그 시각이 언제인지 가까이 왔는지 아니면 멀리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52).
27-1) 하나님은 천사들을 수호자로 보내어 영마로부터 그(선지자)를 보호하도다(타프씨르 알따브리 77/29).

제73장 수라트 알무잠밀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20절로 선지자 무함마드 생애의 일면을 다루면서 밤중예배, 꾸란 낭송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 무잠밀(망투속에 싸여진) 장이라 불려지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cit, p.54).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헌신하라는 계시를 받고 있다.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교하되 밤에는 가정생

활에 충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불신자들의 해악과 모욕에 대응하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불신자들에게는 부활의 날 무섭고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1) 무잠밀 : 둘러 감아 씌운
2)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선지자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 안에 있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 계시를 내리기 시작했으나 무함마드는 천사가 그에게 계시를 내리기 시작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가득차 그의 부인 카디자에게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길, "나를 무엇으로 덮어 감싸 주시요, 나는 지금 두렵소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아내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다(사히흐 알부카리).
4-1)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일어서되 밤중의 절반 또는 절반 이하 또는 그 이상이라야 한다는 뜻으로 밤중 예배와 경배하는 시간은 밤 전체의 1/3이상 2/3이하로 풀이하고 있다. 최초에는 밤중에 일어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는 의무였지만 후에 그것은 권장 사항으로 되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알무라-지 171/30).
6-1) 잠을 자며 편히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각에 일어나 예배하고 신을 찬미하며 경배한다는 것은 대낮에 실천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또한 밤중 시간은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정신이 맑아 낭송을 하기에는 적합한 시각임을 말해주고 있다.
7-1) 낮에는 그대 무함마드의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밤에는 그대 주님을 경배함에 열중하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됨(알타쓰힐 리울롬 알탄질 157/4).
8-1) "일상생활의 일을 마쳤을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564/3).
10-1) 무함마드는 마술사요 시인이며 미친 사람이라고 거짓하고 욕되게 하는 불신자들의 말.
2) 히즈르 자밀 : 그와 같이 따라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한 것. 상대편이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나 거기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버리다 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이브누 까씨르 564/7).
15-1) 하나님을 가르키고 있으나 나로 표현하였다.
20-1) 밤중에 일어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가볍게 하여 주었다는 것으로 풀이됨(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60).
2) 꾸란을 읽는 것은 예배와 경배의 일부분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밤중예배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는 의무사항으로 남아 있었으나 선지자의 추종자들에게는 임의 예배로 되었다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88/29).
3) 밤중예배를 가볍게 또는 임의로 하여 주면서 특히 환자, 거래와 무역 등으로 멀리 여행중인자,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에게 밤중예배를 임의로 하여 줌으로써 은혜를 베풀었다.
4) 예배는 종교의 기둥이며 예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대화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신체적 신앙이기도 하다. 또한 이슬람세도 종교의 기둥이며 그와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이며 가장 중요한 물질적 경배이므로 예배와 이슬람세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
5) 이슬람세 이외의 자선으로 친척과의 우호관계, 손님대접, 그리고 그밖의 자선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171/4).

제74장 수라트 알무다씨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56절로 선지자 무함마드의 인품과 성품의 일면을 묘사하고 있어 '무다씨르' 장이라 불려지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cit, p.62).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선교의 임무를 부여하고 불신자들에게는 경고를 하면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벌을 받게 될 부활의 날을 언급하면서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불신자 왈리드 이븐 무기라가 꾸란을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꾸란을 마술이나 시에 비유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한 불지옥, 믿는 사람들과 지옥에 들어갈 죄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불신자들이 믿음을 거역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1) 선지자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안에서 명상에 잠겨 있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읽으라"의 계시가 최초로 내려졌다. 이때 선지자는 두려운 가슴으로 가정에 돌아와 아내 카디자에게, "나를 감싸주오, 나를 감싸주오"라고 했을 때, "망투속에 싸여진 그대여! 밤에 일어나 예배하라…"라고 계시가 내려졌으며 그후 계시가 오래 계속되지 아니하여 선지자는 슬퍼하였다. 그런데 그가 걷고 있던 중에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보니 그때 히라 동굴에 있을 때 내려왔던 천사가 하늘과 대지 사이에 있는 권좌에 앉아 있었으며 그 천사들이 두려움으로 선지자에게 임하였을 때 선지자는 가정으로 돌아와 "나를 덮어 주오. 나를 덮어 주오"라고 말하자, "망투를 걸친 자여! 일어나 경고하라"는 계시가 내려졌다(Ibid. p.64)

4-1) 의상을 청결케 하라는 것은 마음을 청결케 하여 어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6-1) 필요 이상의 은혜는 그 가치가 감소된다는 뜻(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60/4). 필요한 양만큼만 주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Abdullah Y. Ali, op. cit, p.1640 Note No.5781).

8-1) 부활을 알리는 나팔소리

11-1) 꾸란을 거역한 불신자 「왈리드 이븐 무기라」에 관해 계시된 절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66).

12-1) 낙타와 말, 염소, 풍성한 과실이 열리는 과수원 등 풍성한 재물을 베풀었다. 또한 그(왈리드 이븐 무기라)는 농토와 상업까지 하였다고 바위돠위는 말하고(타프씨르 알 바위돠위 492/2), 이브누 압바쓰는 그 당시 그의 재산은 메카에서 따이프 사이에 이를 만큼 많았다고 풀이하고 있으며 무까떨은 그 당시 그에게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속해서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트 198/30).

13-1) 10명의 자손이 여행이나 어떤 이유로 떨어져 생활하지 아니하고 함께 생활을 하였으며 그중 칼리드, 히샴 그리고 왈리드는 이슬람에 귀의하였다(하-쉬야 알샤하-브 274/8).

15-1)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는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신하며 더욱 욕심만을 갖는가?

17-1) 지탱할 수 없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재앙, 산에 오를 때 힘이 점차 약해지듯 그의 힘이 점차 쇠약하여져 지탱할 수 없는 재앙

18-1) 선지자와 꾸란이 진리라는 것을 숙고하여 알면서도 꾸란에 이론을 제기하면서 선지자를 욕되게 하였다.

21-1) 꾸란에 관하여

23-1) 믿음을 외면하고 복음과 진리에 대항하여 오만해 하였다.
28-1) 피와 뼈 그리고 살 등 어느 무엇도 남기지 아니하고 불태워지며 또한 불신자는 어느 누구도 제외없이 그와 같이 불태워 진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묶마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p.68).
30-1) 주바니야 천사를 비롯한 그곳 지옥을 담당하는 19명의 천사라고 풀이되고 있다(Ibid. p.68).
31-1) 주누드 : 군인들이란 자구적인 의미로 본절에서는 천사들을 가르킨다. 즉 천사들의 숫자나 천사들의 힘과, 창조의 목적 등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아부 자흘이 무하맘드에게, "그대 주님의 수호자는 19명 밖엔 아니된다 말이뇨?"라고 조롱한 것에 대한 절로써 해석됨(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70).
32-1) 지옥의 모든 것이 사실임을 달을 두고 맹세하사
37-1)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선행을 앞서 행하려는 자나 유예하는 자. "원하는자 믿음을 갖게 할 것이요 원하는 자 불신케 하리라"(알바흐르 알무히뜨 379/8). 또 이브누 압바쓰는, "원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요 원하는 자 그의 찰못으로 그것을 지연시키리라"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103/29).
38-1) 인간은 책임을 대리자나 구세주 또는 성인에게 떠 맡길 수 없다. 그가 구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올바른 수단과 방법과 행위로 꾸준히 노력해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은 구제될 것이며 우편에 있는 동료들과 합류할 것이다.
39-1) 믿음을 가진 행복한 무리들로 이들은 믿음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여 부활의 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47-1) 죽을 때까지 심판의 날을 부정하였다는 것(제15장 99절 참조).
51-1)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보고서 도망치는 것은 마치 야생의 당나귀가 사자를 보고 도망치는 것과 같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리라-지 212/30).
52-1) 무함마드 선지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시되었듯이 그들 죄인들도 하나님의 성서가 그들에게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72)
56-1)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타끄와)이며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진리라고 울루씨는 풀이하고 있다(Ibid. p.72).

第75장 수라트 알끼야마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40절로 믿음의 기본 가운데 하나인 부활과 보상을 다루면서 특히 부활과 그 양상 그리고 시각과 고통, 이날에 있을 인간의 상태, 불신자들이 내세에서 직면하게 될 고통과 재앙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장이 '끼야마' 즉 부활의 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cit, p.73).

부활의 날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라는 맹세로 시작하여 그 증세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달이 가리워지고 눈이 현혹되며 해와 달이 하나로 겹쳐지니 이는 불신자들에게 큰 벌을 내리기 위한 징조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전할 때 암

송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계시된 말씀을 암기하기 위하여 서둘러 성급히 혀와 입술을 움직이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인간을 두 부류로 분류하여 행복한 사람은 그의 얼굴에서 빛이나고 불행한 사람은 그의 얼굴이 검어지며 근심과 고뇌에 빠진다고 하였고 인간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상태를 묘사한 후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부활케 할 능력이 없겠느냐는 반문으로 본 장이 끝나고 있다.

2-1) 라 : 부정의 "라"가 아니라, 맹세에 대한 강조이다.

3-1) 본 절은 앗디 이븐 라비아에 관하여 계시된 절로 그가 어느날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찾아와 말하길, "무함마드여,부활의 날에 관하여 그리고 언제 어떻게 오는지에 관하여 이야기 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때 선지자는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길, "내가 그날을 목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를 믿지 아니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뼈들을 다시 모아 부활하느뇨?"라고 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75).

5-1) 이렇듯 인간은 과거에 그랬듯이 동물적 욕망에 탐닉된 나머지 남아 있는 여생의 기간까지도 부활의 날을 불신하면서 사악한 행위를 계속하려 한다.

9-1) 불신자들에게 응벌을 내리기 위해 태양과 달이 함께 만난 다음 바다로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응벌이 될 것이라고 「아따」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113/29).

12-1) 모든 피조물의 최후 거주지는 하나님께로 귀의하며 그분 외에는 은신처도 그리고 피난처도 없다고 알루씨는 풀이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140/29).

13-1) 인간이 살아 있을 때 행하였던 크고 작은 그리고 훌륭하고 비열했던 모든 그의 행위의 결과와 죽은 후로 미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그날 인간은 알게 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76).

14-1) 그가 행한 추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증인은 자기 스스로의 증인만으로 충분하여 다른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날 너희에의 계산은 네 자신으로 충만 하리라" 이브누 압바쓰는 "자기 혼자만의 증인으로 충분하다. 그가 들었던 귀가 증언할 것이요, 그가 보았던 눈이 증언할 것이요, 걸어갔던 두 다리가 증언할 것이요, 행하였던 손등이 증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115/29).

15-1) 그날의 어떠한 변경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변명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날의 증인은 자기 스스로가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222/30).

16-1)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계시를 받을 때 다급하여 서둘러 암송하지 말라는 뜻(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77).

18-1)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대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읽은 후에만 따라 읽되 천사가계시를 전하고 있을 때는 조용히 경청하되 혀와 입술을 움직이지 말라는 뜻(Ibid. p.77).

19-1) 계시의 뜻과 규범을 설명하여 준다는 뜻으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계시를 접하고 있었을 때 그 계시를 암송하기 위해 그의 혀와 입술을 움직였을 때(…그대의 혀를 서둘러 움직이지 말라…)고 계시가 내려졌고 그후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에게 계시를 전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대로 읽었으며(부카리와 무슬림 그리고 아흐맏이전함), "우리가 그것을 모아 그대로 하여금 암송케 하리라"고 계시한 후 다시 "우리(하나님)가 그것을 읽은 후에 그대가 따라 읽으라"고 계시한 후, "우리(하나님)가 그것을 설명하여 주리라"고 계시된 것으로 그 계시의 배열 순서가 묘사되고 있다(Ibid. p.77).

26-1) 죽음에 이르니, "타라끼야"는 가슴의 최고 윗 부분이란 뜻으로 영혼이 목구멍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표현임.

28-1) 죽음의 천사에 끌리어 세상와 가족과 재물과 이별할 시각.
31-1) 꾸란의 진리를 확증하지 아니하고
32-1) 꾸란을 거역하고 믿음을 외면하였으며
35-1) 불신자 아부 자홀과 그밖의 불신자들에에 대한 경고
36-1) 부활과 심판과 보상이 없을 것이라 불신자들은 생각하느뇨

제76장 수라트 알인싼

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31절로 내세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면서 천국의 생활, 특히 현세에서 믿음을 갖고 의롭게 살았던 자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면서 그분은 인간에게 청각과 시각과 그 밖의 은혜를 주고 인간을 시험하고 있다는 계시를 시작으로, 천국에서 거주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이 은혜속에서 거주하게 될 행복한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로 묘사하면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 마실 음료수, 입을 옷들, 휴식을 취하는 장소 등을 제시한 후 꾸란은 진리를 따르는 신앙인들을 위한 복음으로 묘사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인간이 창조되기 까지의 기간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싼'(인간) 또는 '다흐르'(기간)의 장으로 불려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1-1) 존재하기 전의 무의 시대. 그 기간에는 인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또한 존재하지도 아니했던 기간, 이브누 까씨르는 인간의 추함과 허약함으로 아무 것도 언급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재하도록 하였다는 하나님의 소식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580/3).
2) 어머니 태안에 있는 기간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리라-지 235/30).
2-1)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혼합된 것
2) 하나님의 법(샤리아)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지 아니면 불신하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3) 청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시각은 하나님의 예증들을 지켜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3-1) 바른 길과 방황의 길, 선과 악의 길을 알려주었고 또 선지자들과 성서들과 성서들을 보내어 인간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으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한 것, 그 은혜에 감사하고 불신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있다는 것으로 인간에게는 능력과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83).
5-1) 현세에서 의롭게 삶을 영위했던 자들이 내세에서 술을 마시되 그 술은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로 「카푸르」가 혼합된 것으로 "카푸르"는 향기가 좋은 것이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23/19), 이브누 압바쓰는 천국에 있는 샘물이 「카푸르」라 해석하고 있다.
6-1) 카푸르

2) 믿음을 갖고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
7-1) 나다르 : 실천하도록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배, 이슬람세, 성지순례 및 자선이라고 풀이되며(타프씨르 알따브리 129/29), 사위는 하나님께서 이행하도록 의무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241/30).
12-1) 제22장 23절 참조
17-1) 냄새가 향기로운 것.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자들이 천국에서 마시는 우물의 이름이라고 까따다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바흐르 알무히뜨 140/19).
18-1) 천국에 있는 우물 중의 하나로 달콤한 물
22-1) 현세에서 믿음으로 실천하였던 의로운 일들에 대한 보상
24-1) 「우뜨바 이븐 라비아」와 「왈리드 이븐 무기라」에 관하여 계시된 절로 해설가들은 보고 있다. 이들 둘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찾아와 말하길, "그대는 여성과 재물을 원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을 그대에게 충족시켜주리라" 말하였다. 우뜨바는, "나는 나의 딸을 그대에게 결혼시켜 줄 것이며 지참금도 없이 딸을 데려다 주겠소"라고 말하고 왈리드는, "그대가 원하는 것 만큼 재물을 주겠소"라고 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258/30, 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47/19, 하쉬야 알싸위 278/4).
27-1) 불신자들
2) 부활의 날

제77장 수라트 알무르쌀라트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50절로 이슬람의 기본 교리, 즉 내세, 하나님의 능력과 유일성 그리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역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각각의 임무를 맡은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면서 불신자들이 직면할 벌과 부활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라는 계시를 시작으로, 죄인들에게 약속된 벌이 도래하는 상황, 즉 산들이 먼지가 되어 휘날리고 하늘이 갈라지매 천국으로 갈 의로운 자들과 불지옥으로 갈 죄인들이 구별된다는 이야기,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능력이며, 불신자들에게는 헤어나지 못할 불지옥이 그들의 주거지가 되나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실천한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여러가지 은혜 속에서 영생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본 절의 명칭이 '무르쌀라트'(파견된 것들)라 불려지게 된 동기 및 배경은 본장 1절(연이어 보내는 바람을 두고 맹세하자…)에서 언급되고 있는 '무르쌀라트' 어휘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수라트 알무르쌀라트1-1) 사악하고 오만하며 거만한 자들을 멸망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응벌의 바람

3-1)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의 하나인 비구름을 나르는 것을 담당한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91)
4-1) 진리와 부정, 할랄(허락된 것)과 하람(금지된 것)을 구별시켜 주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알바흐르 알무히뜨 404/8)
5-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전하여 준 천사(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91)
7-1) 부활, 계산과 심판 그리고 보상

2) 은혜와 벌을 운반하는 바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한 천사, 폭풍우 등 위에 언급된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한 보상과 응벌이 있을 부활의 날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265/30).

12-1) 선지자들의 모임은 부활의 날까지 유예되었으며(타프씨르 알따브리143/29), 그 시각에는 그들 시대의 증인들이 참석하는 시각이라고 무자히드는 말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269/30).

13-1)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던 백성들을 분류하는 그날

16-1) 노아나 아드 그리고 사무드의 백성들 같은 선조들

17-1) 롯, 슈아이브 및 모세의 새로운 세대들을 두었다.

19-1)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21-1) 여성의 태내에

22-1) 출생할 때까지의 기간

23-1) 그러한 하찮은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되 가장 아름다운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는 하나님 능력의 은혜가 얼마나 훌륭한가?

24-1)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듯이 죽은 인간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임을 제시하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280/4).

25-1) 살아 있을 때는 너희가 대지위에 있게 하고 죽어서는 대지 안에 있도록 하지 아니했는가? 대지의 내부는 죽은 자를 위하여 그리고 대지의 외부는 산 자를 위한 것으로 두었다고 「샤아비」는 말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588/3).

29-1) 현세에서 믿지 않했던 불지옥

50-1) 이 꾸란 이후에 어떤 말을 믿으려 하느뇨?

제78장 수라트 나바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40절로 부활과 보상 그리고 불신자들이 조롱한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본 장이 '나바아'(소식) 장이라 불려진 동기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5).

부활과 보상에 관한 소식을 시작으로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증들을 제시하면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며, 부활의 시작은 최초에 왔던 것부터 최후에 온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천국으로 인도될 무리와 지옥으로 인도 될 무리로 분류되는 시간부터이다.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한 지옥과 여러가지 응벌의 형태에 관하여 언급하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다가 일생을 마친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다시 내세에 관해 언급하면서 불신자들이 흙으로 돌아 갔으면 하고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 안마(Anma)는 Ma+An의 축약된 단어로 밈(Mim)이 눈(Nun)에 동화되어 알리프의 음가가 생략된 상태이다.

2) 불신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활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였다.

2-1) 대단히 중요한 소식인 부활에 관한 소식(알바흐르 알무히뜨 409/8 및 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81/9)
4-1) 불신자들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부활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것이요 그들이 조롱했던 결과를 맛보게 되리라(사프와트 타프씨르, 제20권 p.6).
6-1) 6절 부터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예증들로 부활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으로 보아 의심할 바 없다는 것을 예시하여 주고있다.
2) 대지는 안식처로 거주하도록 하고 모든 일용할 양식을 그곳으로 부터 얻도록 하였으며
8-1) 인간을 창조하되 남녀를 두고 이들이 결혼하여 자손을 두도록하여 땅을 관리하는 신의 대리자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9-1) 잠과 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신체의 휴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10-1) 의상이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듯 밤을 둔 것은 너희를 감싸 주도록 하였으며(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73/4)
11-1) 낮을 두되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며 거래와 그 밖의 일들을 이행토록 두었으며(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590/3)
13-1) 태양을 두되 빛과 열을 두어 대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용하도록 하였으며
14-1) 무으씨라트 : 비가 쏟아지기 직전의 구름. 아스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쥬스가 되기 전의 상태처럼 무으씨라트는 물로 되어 비가 내리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73/4).
17-1) 계산의 날 또는 보상의 날로 이날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한정된 시각이므로 앞서 오지도 아니하고 유예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는 날(제37장 21절, 제36장 59절 참조).
18-1) 이스라펠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덤에 있던 모든 피조물은 무덤으로 부터 나와 계산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제39장 68절 참조).
21-1) 제6장 128절 참조.
23-1) 끝이 없이 영원히 계속 영주하는 것(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8)
24-1) 불지옥의 뜨거움을 식힐 찬 것이나 시원한 것도, 그리고 이러한 작열속에서 그들의 갈증을 식혀줄 음료수도 없으며,
25-1) 그 이상 뜨거울 수 없는 최고로 뜨거운 액체와 지옥의 백성들 몸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상처의 고름들 뿐이며,
27-1) 계산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보상하리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28-1)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예증들과 꾸란의 말씀을 부인하였으며
31-1) 현세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의로움을 실천한 그들에게는 승리의 장소인 축복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32-1) 그들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과실들이 있으며
33-1) 천국에서 기다리는 「히와르 아인」이 있으며, 「카와이브」는 「카이브」 단어의 복수형태로 가슴이 나온 여성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74/4).
34-1) 순수한 술로 가득찬 잔. 본 절의 「카으쓰」는 술을 의미한다고 꾸르뚜비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81/19).
38-1) 루흐 :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한 가브리엘 천사

제79장 수라트 나지아트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46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내용이 비슷한 이슬람 기본원리인 유일신 사상, 메시지와 부활 및 보상을 다루면서 부활의 시각과 상태, 그리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의 주거지와 불신자들의 주거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신앙인들의 영혼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인도하는 천사와 불신자들의 영혼을 무자비하게 끌고 가는 천사 두고 맹세하는 말씀으로 계시가 시작되어, 불신자들과 부활을 조롱하는 자들이 부활의 날에 직면할 상황, 스스로 주님이라 자칭하는 오만 불손한 파라오와 꼽트교 백성들을 익사케 한 이야기,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항하여 계략과 음모를 꾸민 메카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 불신자들이 조롱했던 부활의 시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나지아트'(사악한 자들의 영혼을 무자비하게 끌고가는) 라는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1-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불신자들의 영혼을 가장 무섭게 끌어가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2-1)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영혼을 가장 편안하게 인도할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인도할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사 가장 무섭게 끌어갈 천사와 가장 편안하게 인도할 천사를 두고 맹세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595/3).

3-1)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 즉 하나님의 명령들을 물에서 수영하는 것 같이 수행하는 천사를 두고 맹세하며(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2)

4-1)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였던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5-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람, 비, 온갖 곡식 등 세상사의 모든 것들을 운용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6-1) 모든 것을 동요하게 하는 첫번째의 나팔이 부는 날.

7-1) 계속하여 두번째 나팔이 울리니 이는 무덤으로 부터 부활시키는 나팔소리이다. 「라지파」와 「라디파」가 있는데 전자가 첫번째 나팔이며 후자가 두번째 나팔로 첫번째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모든 것이 완료되고 두번째 나팔이 울릴 경우는 하나남의 허락에 따라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풀이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93/19).

8-1) 부활의 상황을 지켜 본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가 묘사되고 있음.

10-1)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뇨?

12-1) 부활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죽어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불지옥에 있게 되니 더욱 손실이 아닌가?

13-1) 무덤으로 부터 부활을 하는 것은 단 한번의 나팔소리 만으로 수행된다.

16-1) 시나이 산 아래에 있는 축복 받은 계곡 이름

20-1) 모세가 오만한 파라오에게 찾아가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려 하였으나 파라오가 믿음을 거절하자 기적들로써 그 예증을 보였다. 그때 보였던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니 그 뱀이 기어갔던 기적이었다. 꾸르뚜비는 큰 예증을 기적들로 풀이하고 이브누 압바쓰는 지팡이의 기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02/19).
모세의 기적들에 관해서는 제20장 22-23절, 제17장 101절, 제7장 133절 등 참조.

21-1)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진 분명한 기적들을 거역하였다.
22-1) 뱀을 본 그는 두려워 서둘러 떠났다.
23-1) 마술사들과 군대와 부하들을 불러 모아
25-1) 제20장, 78-79, 제7장. 125-137절 참조.
27-1)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절로써 하늘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더 쉬운 것이며 하늘과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부활케 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라. 그래도 너희 불신자들은 부활을 거역하느뇨?
29-1) 밤은 어둡게 하고 낮은 빛을 두어 밝게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4).
30-1) 하늘을 창조하신 후 대지를 넓다랗게 두어 휴식처인 거주지로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4).
34-1) 부활의 날이 올때면
43-1) 부활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그대 무함마드에게 부활에 관하여 묻는 것은 그대를 조롱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선지자를 위로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46-1) 부활의 날을 지켜 본 불신자들은 그들이 현세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저녁이나 아침 정도의 한시간 밖엔 체류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처럼 현세의 무상한 인생은 그날 하루의 저녁이나 아침시간 정도밖엔 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

제80장 수라트 아바싸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42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인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증, 인간과 식물 등 모든 일용할 양식을 창조한 홀로 존재하신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과 그 양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장님 압둘라 이븐 움무 마크툼이 메카 꾸라이쉬 부족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설교중에 있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찾아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오만불손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예증, 일용할 양식을 얻는 지혜와 길을 안내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의 '아바싸'(선지자께서 얼굴을 찌푸리시고 등을 돌리셨나니)라는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한 장님이 선지자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영역인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얼굴을 찌푸리며 그로부터 등을 돌렸다. 그 당시 선지자 무함마드는 메카 꾸레이쉬 지도자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하느라 분주하였다.그때 장님 「압둘라 이븐 움무 마크툼」이 선지자에게 와 말하길,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십시요"라고 하면서 선지자께서 분주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질문을 반복하였다.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는 계속되는 그의 말을 자꾸 단절시키는 그에게 얼굴을 찌푸리며 등을 돌렸을 때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292/4 및 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10/19).
2-1) 1절 해설 참조.

3-1) 장님
5-1) 그가 가진 재물만으로 충분하여 하나님과 믿음이 필요치 않다는 자들에게
6-1) 경계하고 대적하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7-1) 불신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여 순결케 하지 아니한 것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며 또한 그대가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도 아니며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대의 책임이라.
8-1)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선을 추구하기 위해 그대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12-1) 하나님의 종들 중에 원하는 자 있다면 꾸란으로 부터 교훈을 얻어 그것으로 지침서가 되도록 하게 하라
13-1) 하나님께 있는 영광스러운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15-1) 하나님과 선지자들 사이를 오가며 일을 맡은 천사들에 의하여
18-1)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무엇으로 창조했기에 그들이 오만하고 거만해 하는가
19-1) 하찮은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한 후 그가 먹을 양식을 베풀어 그가 살아갈 기간과 그가 해야할 일들을 부여했다고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00/3).
20-1) 태내에서 일정기간 인간으로 형성된 후 태내에서 세상으로 출산하는데 그 과정을 순탄하게 하였다.「하싼 바쓰리」는, "두 줄기로부터 나온 인간이 어떻게 오만해하고 거만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16/19).
22-1)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하여 계산하고 보상한다(타프씨르 알카진 210/4).
31-1) 압브 : 짐승들이 먹는 풀이라고 꾸르뚜비는 해석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20/19).
33-1) 부활을 알리는 소리

제81장 수라트 타크위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29절로 부활의 실제와 계시 및 메시지의 실제 두 가지를 크게 다루고 있다. 부활의 실제로써 태양과 별, 산들과 바다, 대지와 하늘, 가축과 야생동물 및 모든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변화를 제시하는 계시를 포함해서 계시의 실제,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품성, 이 계시로 불신자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구하려 했을 때 이들 불신자들의 자세, 꾸란을 불신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꾸란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훈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본장 1절의 '타크위르'(태양이 은폐되니 그의 빛이 사라지고…") 라는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7-1)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끼리 천국에서 함께하고 사악한 사람은 사악한 자들끼리 지옥에서 함께한다(사프와트 타피씨르, 제20권 p.23).
8-1) 산채로 매장된 여아에게 이렇게 된 그녀의 죄악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을 받는다(제16장 58-59절 참조).
9-1) 마우다트 : 이슬람이전 무지의 시대에 아랍사회에서 있었던 일로 일부 아랍 사람들이 여아를 싫어한 나머지 생매장을 하여 죽인 경우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부활의 날 그 생매장된 여아로부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질문을 받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알타쓰힐 리울룸 181/4).

10-1) 인간의 업적이 기록된 기록부가 심판을 받기 위해 펼쳐질 때.
11-1) 양가죽이 벗겨지듯 하늘이 제자리를 벗어날 때.
15-1) 낮에는 사라지고 밤에 나타나 빛을 발하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사(타프씨르 알따브리 48/30)
17-1)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24 참조.
19-1) 실로 이 꾸란은 하나님의 사도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24).
20-1) 가브리엘 천사
22-1) 꾸란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무함마드는 너희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미친자가 아니며 꾸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강조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215/4).
23-1) 무함마드
2) 선지자 무함마드는 태양이 뜨는 동쪽 하늘 제일 높은 곳에 형체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를 본 것은 히라 동굴에서 계시를 내린 이후의 일로 하늘과 대지 사이에서 천사를 보았으며 그때의 형체는 600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 동쪽과 서쪽 사이를 막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34/8).
25-1) 이 꾸란 또는 너희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사탄의 말이 아니매
26-1) 무함마드의 말도 아니요, 사탄의 말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꾸란을 시기하고 또는 마술이라 욕되게 했던 너희들은 이제 어디로 가려 하느뇨?

제82장 수라트 알인피따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9절로 '타크위르' 장과 내용이 동일한 부활의 날에 있을 우주의 변화, 그 날에 일어날 사건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의 상태를 다루고 있다.

우주의 변화로써 하늘이 갈라지고 별들이 흩어지며 바다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어 뒤엎어지며 업적의 계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는 설명을 시작으로, 인간의 불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천사들을 보내 인간 각 개인의 모든 업적을 기록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은 두 부류로 분류되는데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영생할 신앙인들과 지옥에 들어가 무서운 벌을 받을 사악한 자들에 대하여 언급한 후, 심판의 날에 있을 보상과 징벌 그리고 그 날에는 업적 외에는 아무 것도 유용하는 것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인피따르'(하늘이 갈라지고)라는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이 갈라지면서 천사들이 내려온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27).
3-1) 모든 바다가 열리고 바닷물이 서로 혼합되어 하나의 바다가 되어 버리며(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27).
4-1) 무덤이 열리고 뒤엎어지니 무덤속에 있는 것이 무덤 밖으로 나오고 무덤밖에 있었던 것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며,

5-1) 이전에 행하였던 선과 악의 모든 행위의 결과와 미루었던 것으로 그 이후에 행한 것들(타프씨르 알따브리 54/30)
7-1) 무에서 유를 창조한 후 균형있는 감각기능을 부여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다.
8-1) "실로 우리(하나님)가 인간을 창조하사 가장 좋은 형상으로 창조하였느니라"
10-1)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45/19).
11-1) 인간이 입으로 말하는 것. 몸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며 기록한다고

제83장 수라트 알무따피핀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36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심판의 날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저울의 무게와 눈금을 속이는 자들(무따피핀)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계시를 시작으로 내세에 가서 불신자들이 겪게 될 고통과 불행, 그들에게 내려질 벌과 믿음을 갖고 의롭게 사는 신앙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세에서 불신자들은 신앙인들을 비웃고 조롱했으나 내세에 가면 정 반대로 불신자들이 신앙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불행하게 살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무따피핀'(무게와 눈금을 속이는 자들)이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무따피프 : 무게와 눈금을 속여 가볍게 하는 자.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메디나에 왔을 때 무게와 저울을 속이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저울을 속이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지니…"라고 계시가 내려졌으며 그 이후로 무게를 제대로 달았다고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13/3).
5-1) 부활의 날
7-1) 사악한 자들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보관되는 제일 밑에 있는 좁은 장소(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31).
9-1) 숫자가 쓰여지면 잊혀지지도 아니하고 지워지지도 아니한 기록부.이브누 까씨르는 "씻진"은 씨진에서 파생된 단어로 아주 좁은 곳이라 풀이하고 사악한 자들의 귀착점은 지옥의 가장 낮은 곳이며 한번 숫자로 기록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더할 수도 없으며 감소시킬 수도 없다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14/3).
15-1) 불신자들은 내세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샤피는 말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32).
18-1) 일린 :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축복받은 곳
21-1) 천사들
23-1)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은혜와 축복
25-1) 의로운자들 외에는 열 수 없는 봉인된 술.
26-1) 미쓰크 : 좋은 향을 풍기는 것으로 제일 마지막에 마시는 음료수
2) 서둘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27-1) 축복받은 높은 곳에 있는 우물로 천국의 백성들이 마시는 음료수
30-1) "아부 자홀"을 비롯한 그밖의 꾸라이쉬 불신자 지도자들에게 계시된 절로 "알리 빈 아비 딸립"과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지나갔을 때 그들 불신자들은 비웃고 조롱하였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86/4).
34-1) 부활의 날
35-1) 비웃고 조롱했던 불신자들을 쳐다보면서
36-1) 현세에서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으나 내세에서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34).

제84장 수라트 알인쉬까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25절로 부활의 날에 있을 공포와 이슬람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메카 계시들과 유사한 내용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내세에서 전개될 상황의 일면을 묘사하면서 부활의 시기에 일어날 우주의 변화에 대한 계시를 시작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과 그들이 현세에서 행한 선행과 악행의 결과에 따라 공정한 판정과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꾸란을 부정한 불신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그들은 준비된 불지옥에서 고통스러운 벌을 맛보게 되리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인쉬까끄'(하늘이 산산히 갈라지니) 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부활의 상태와 양상을 설명하여 주는 절로써 하늘이 산산히 갈라진다는 것은 우주 질서의 붕괴를 가르키며 동시에 부활의 날에 있을 공포를 예시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78/30).
2-1)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부활의 공포로 말미암아 해야 할 하나님의 권리를 수행한다.
3-1) 산들도 그리고 건물들도 모두가 없어지며 편편하게 되는 상태
4-1) 땅속에 있던 죽은 자들과 모든 보석과 광물이 밖으로 던져지며 안에는 텅비게 된다. 꾸르뚜비는 땅속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쫓겨나와 텅비게 되는 것은 마치 임신한 여성이 태안에 있던 것을 내보내는 것과 같으니 부활의 공포도 그렇다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68/19).
6-1) 아담의 자손 인간들이 행한 선과 악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이르러 선의 결과에 대한 보상은 선이요 악의 결과에 대한 보상은 악이 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7-1) 행복한 인간과 불행한 인간으로 분류되면서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행복한 인간임을 암시하고 있다.
9-1)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기쁨으로 천국에 사는 자들에게 돌아간다.
13-1) 현세에서 유희와 오락과 재물과 권력에만 몰두하고 탐닉했을 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아니했으며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을 뿐이다.
14-1) 주님께로 귀의하지 아니하며 죽은 후에는 부활하지 아니함으로 계산도 보상도 없으니 현세에만족하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오만한 생각이었다.
16-1) 샤파끄 : 해가 진 후 지평선에 나타난 황혼

2) 라 : 맹세에 대한 강조
17-1) 마 와싸까 : 밤에는 대지위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나 낮에는 모든 피조물이 제 할일을 찾아 흩어진다. 그래서 낮에 제 할일을 찾아 흩어진 모든 것을 모아 맹세하사 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37).
19-1) 죽은 후에 부활의 단계와 그 부활의 상황으로 옮겨 진다는 뜻(루흐 알마아니 82/30) 「알따브리」는 부활의 날 부활의 여러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타프씨르 알 꾸르뚜비 80/30).
22-1) 꾸란을

제85장 수라트 알부루즈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22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와 함정을 만든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엄청난 별들의 궤도를 가진 하늘과 부활의 날 증언할 자들을 두고 맹세하는 형태로 계시가 시작되고 있다. 불신자들의 사악한 행위와 믿는 신도들에 대한 학대를 경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예고하고 있다. 오만하고 거만했던 파라오가 멸망했던 이야기를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부루즈'(별들의 궤도를 둔 하늘을 두고 맹세하사)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2-1) "하나님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하나님)께서 의심할 바 없는 부활의 날 너희들을 모이게 하리라"
3-1) 부활의 날 그들의 백성들에 관하여 증언할 선지자 무함마드 및 그밖의 모든 선지자들, "그때 우리(하나님)가 어떻게 각 움마에 증인을 이르게 할 것인가. 우리(하나님)는 그대를 이들에게 한 증인으로 이르게 하느니라"는 절에서 그대는 바로 무함마드 선지자를 가르킨다.
2) 증언을 받는 모든 공동체. 이 밖에도 "샤히드"와 마슈후드"에 관한 학자들 간에 많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무함마드 알리 싸부니" 교수는 위에 언급한 대로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0).
4-1) 우쿠두드 : 참호처럼 땅속에 길고 넓게 파 놓은 것이라고 꾸르뚜비는 말하고 있다.
2) 꾸틸라 : 저주하다. 꾸란에 나오는 꾸틸라의 의미는 모두가 저주한다는 뜻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해석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84/19).
3) 땅속에 참호를 만들고 그곳에 불을 던져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괴롭혔던 그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5-1) 불신자들은 그들이 만든 참호속에 화염을 던져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불태워 살해하려 하였다(타프씨르 아비 알싸우드 252/5 참조).
7-1) 불신자들이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믿는 신도들을 불태우려 했던 그 사악한 그들의 행위를 증언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0).
본 절은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이들은 이슬람에 귀의하는 자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그래서 함정을 만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것으로 풀이된다.
8-1) 불신자들은
2) 메카 꾸라이쉬족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

11-1) 깨끗하고 순수한 술과 우유와 꿀이 흐르는 강물이라고 따브리는 묘사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88/30).
13-1)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6-1) 원하는 것을 행하시니 그분(하나님)이 행하려 원하시는 것은 어느 것도 방해 될 수 없다고 꾸르뚜비는 해석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95/19). 「아부 바크르 시디끼」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의사가 진찰하였느뇨?"라는 말이 아부 바크르에게 들려왔다. 그래서 아부 바크르는 "예"하고 대답하였더니, 다시,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뇨?"라는 말이 들려 왔을 때 "실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였다고 아부 바크르는 대답하였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까씨르 625/3).
22-1) 하늘에 있는 완전히 보호된 곳에 보관되여 있는 것으로 꾸란의 한 획이라도 더하거나 감소하지 못하며 삭제하거나 대체 할 수 없는 교훈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2).

제86장 수라트 따리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7절로 이슬람 기본원리의 일면을 다루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증을 들어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그것으로 어두운 육지와 바다에서 길을 찾도록 하여 주는 별들이 있는 하늘과 모든 인간을 감시하며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기록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는 계시로 시작하여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 인간의 정액으로 후손들을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여러가지 예증을 제시하고 있다.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비밀이 부활의 날 밝혀질 것이며 그 때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한 고통스러운 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의 '따리끄'(하늘과 따리끄를 두고 맹세하사)란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1-1) "따리끄"는 별들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밤에 나타났다가 낮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밤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따리끄"라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4).
3-1) 태양, 달, 별들과 그것들의 운행에 관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강조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본다(루흐 알마아니 97/30).
4-1) 인간의 모든 선과 악의 행위의 결과를 기록하는 천사모든 인간에게는 보내어져 인간을 감시하는 자가 있다고 이브누 까씨르는 덧붙이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까씨르 629/3).
7-1) 등뼈와 늑골은 남자와 여자의 몸이 비유되어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꾸라어휘 해설, p.416).
8-1) 태초에 무에서 인간을 창조한 후 그 창조된 인간의 정액으로 부터 인간을 창조하도록 하셨듯이 죽은 후에도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

여 주고 있다.
9-1)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비밀
11-1) 라즈으 : 하늘에서 대지로 계속해서 보내어지는 비(꾸란 어휘해설, p.416).
12-1) 비를 내리는 하늘과 그 비를 받아 모든 식물과 열매를 생산해 내는 대지를 비유하사 정액을 보내는 아버지와 그 정액을 받아 자손을 번성케 하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5).
13-1) 꾸란

제87장 수라트 알아올라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9절로 하나님의 속성, 제일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유일성에 대한 확증,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내리면서 암송하기 쉽도록 한 배려, 꾸란의 교훈은 마음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며 꾸란을 믿는 그들이 바로 믿음의 가족으로 행복을 만끽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 주셨으며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꾸란을 계시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암기하기에 쉽도록 하였으며 꾸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빛이 되도록 하였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아올라'(가장 위에 계시는 그대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라는 어휘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1-1) 본 절을 읽고 수브하나 랍비얄 아올라(가장 위에 계신 나의 주님께 영광이 있으소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상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디쓰는 전하고 있다.
3-1) 가축에는 가축의 기능을 주고, 식물에는 식물의 기능을 주며 광물에는 광물의 효용을 주어 인간으로 하여금 유용하게 하도록 하였다. 모든 피조물과 동물에게 각자가 해야할 일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유용하도록 인도하였다는 뜻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104/30 및 알타쓰힐 리올룸 알탄질 193/4).
7-1) 이 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한 기적으로 그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자이었으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전하여 준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암송하였다. 이것은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가 계시를 읽되 그것을 잊지 아니하니라"라고 약속을 하셨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30/3).
8-1) 가장 쉬운 하늘의 율법 즉 샤리아법으로 하여 주리니
12-1) 큰불은 최후의 불지옥 즉 내세의 불지옥이며 작은 불은 현세의 불이라고 하싼은 말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59/8).
13-1) 죽지도 아니하니 쉬지도 못하며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응벌속에서 있게 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8).
19-1) 모세의 수흐프는 구약성서(타우라)가 아니라 10편의 수흐프로 모두가 이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아부 다르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질문하길, "모세의 수흐프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것 모두는 이브리어로 되어 있도다"라고 선지자께서 대답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8).

제88장 수라트 알가쉬야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26절로 부활의 양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불신자들이 직면할 고통과 징벌 그리고 믿음으로 선을 실천한 의로운 자들이 만끽하게 될 행복과 축복을 제시하고 있다. 부활의 날에 있을 재앙에 관한 소식을 시작으로 낙타와 하늘과 산들과 대지 등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부여한 임무에 따라 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귀의하며 각자가 행한 선행과 악행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가쉬야'(저항 할 수 없는 재앙의 소식이 그대에게 이르렀느뇨?)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가쉬야 : 공포와 재앙이 모든 인간을 에워싸는 부활, 공포와 재앙이 모든 피조물을 에워싼다는 뜻에서 가쉬야라 부르게 되었다고 해설가들은 말하고 있다.
3-1) 쇠사슬을 끌고 불지옥으로 갈때의 고통과 노동
4-1) 우마르 이븐 카탑이 샴지에 왔을 때 나이가 많고 얼굴이 새까만 한 장로가 우마르에게 왔다. 그 사람을 본 우마르는 울어버렸다. 이때,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여! 무엇이 그대를 울리느뇨?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이때 우마르는, "심한 노동으로 지친상태에서 불지옥으로 들어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바라서 울었소"라고 대답하였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32/3).
6-1) 다리으 : 가시가 많은 식물로 꾸라이쉬 족은 그것을 "샤브리끄"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불결하고 가장 불쾌한 음식을 가르킨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32/3). 불지옥에 들어가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다리으, 자꿈 그리고 기썰린 등이 있을 뿐이다.
9-1) 현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선을 실천하였던 의로운 일들
11-1)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말이나 허황된 어떤 말도 듣지 아니한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타파씨르 알따브리 104/30).
13-1)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이 그 의자에 앉으려 원할때는 그 의자는 그에게 순종한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33/3).
22-1) 인간을 감독 지휘하고 믿음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되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써, 믿음을 불신한 죄인들에게는 불지옥의 응벌을 경고하는 경고자라는 것.

제89장 수라트 알파즈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30절로 다음 세가지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역한 아드, 사무드 그리고 파라오 백성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현세에 사는 인간들을 시험하사 때로는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감사하도록 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시련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원하도록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내세의 양상, 부활의 날

행복하게 될 인간과 불행하게 될 인간을 구별하는 계시를 마지막으로 본장이 끝을 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의 '파즈르'(새벽의 여명기를 두고 맹세하사)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2-1) 하지달 1일부터 시작되는 10일간의 밤은 축복받은 밤으로 성지순례의 예식을 행하는 기간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55).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날 가운데 이날들이 있나니 하지 달 열흘이라(부카리)"
3-1) 홀로 있는 것과 자웅으로 있는 것이 있나니 창조주와 피조물이라. 모든 피조물은 암컷과 수컷 그리고 음과 양의 짝으로 되어 있으나 창조주 하나님만을 홀로 존재하신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55).
6-1) 제7장 65절 참조
7-1) 오만과 하드라 마우트 사이에서 거주했던 백성
8-1) 메카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그들 백성처럼 강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멸망케 되었는데 하물며 허약한 메카 불신자들을 멸망케 하기란 말할 필요도 없이 쉽다는 것이다. 아드 백성들에게 선지자 후드를 보냈으나 이들 백성들이 거역하여 오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케 하여 후 세대를 위한 교훈으로 하였다.
9-1) 최초로 돌을 빚어 집을 지은 부족이 사무드 부족으로써 이들은 돌을 다듬어 그들의 집을 지었는데 1700개의 도읍을 모두 돌로써 그 고을 계곡에 지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타파씨르 알꾸르뚜비 48/19, 알바흐르 알무히뜨 470/8).
10-1) 많은 군대와 필요한 군수품이 풍성하여 힘이 강한 것을 아우따드(기둥들)로 표현하고 있다고 아부 싸우드는 말하고 있다(타파씨르 아비 알싸우-드 262/5).
11-1) 아드, 사무드 및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
13-1) 아드 백성은 강한 폭풍으로써, 사무드 백성은 광음으로써, 파라오 백성은 그의 군대를 익사케 하여 멸망케 했다.
14-1) 미르싸드 : 관측하는 곳, 관측소란 언어적 뜻을 갖고 있으나 본절의 의미는 모든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감시하고 계심으로 메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경고이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97/4).
16-1)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는 그들의 능력과 행운으로 얻은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그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타파씨르 알꾸르뚜비 51/19).
21-1) 지진으로 모든 건물이 파괴되어 사라질 때(타프씨르 잘랄라인 318/4)
23-1) 현세에서 인간이 행하였던 그의 모든 업적을 회고하고 회개하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제90장 수라트 알발라드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20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유사한 내용과 목적, 즉 이슬람의 기본 이념과 믿음의 근원 그리고 계산과 보상에 대한 믿음, 의로운 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다.

메카를 두고 맹세하는 계시를 시작으로 그곳은 선지자의 고향이며 축복 받은 안전한

곳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선지자를 박해하는 불신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메카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진리를 거역하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욕되게 하여 선지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재산을 바친 불신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바친 재물이 하나님의 벌을 막아 줄 것이라 생각한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부활의 양상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실천한 선행 외에는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수락을 받지 못한다. 부활의 날에는 믿는 자와 불신자 두 부류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천국에 들어갈 행복한 자들이요 후자는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불행한 자들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발라드'(도읍을 두고 맹세하사)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성역인 메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요람지로 하여 두사 안전한 성역으로 하였으니 하늘과 대지를 창조한 이후부터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60).
2-1) 축복받은 메카의 성역에 거주하는 축복받은 그곳의 주민이라는 뜻으로 알바위돠위는 풀이하고 있다(660/3).
3-1)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과 의로운 그의 자손들. 무자히드는 아담과 아담 이후 모든 후예들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40/3). 한편 카진은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후예 중 예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248/4).
4-1)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노력하며 살도록 창조했으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며 젖을 먹이는 일, 일상생활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는 일, 그리고 죽는 것 등(타프씨르 알카-진 248/4). 본 절은 메카 불신자들의 박해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던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절로 아부 싸우드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아비 알싸우드 265/5).
5-1)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제압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뇨?
6-1)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항하여 많은 재산을 바쳤다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거만하게 말할 것이라
7-1)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항하여 그의 재산을 탕진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느뇨?
9-1)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며 또한 소리를 내는데 유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하도록 한 것이다(타프씨르 알카-진 249/4).
10-1) 선과 악의 길, 인도와 방황의 길, 행복과 불행의 길
11-1) 그는 선과 의로운 일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아니하려는가?(꾸란 어휘해설, p.422)
18-1) 천국에 들어갈 의로운 자들

제91장 수라트 샴쓰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5절로 선과 악, 예언자 살레가 암낙타를 살해하지 말라고 말하였을 때 이 충고를 거역한 백성이 멸망한 이야기와 함께 진리를 거역한 불신자들에게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가운데서 일곱가지를 언급하면서 맹세하고 있다. 태양과 빛, 달, 밤, 낮, 하늘, 대지 그리고 인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외에는 어느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승리한 자라고 말하면서 예언자 살레의 충고를 거역한 사무드 백성이 멸망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언자 살레로 하여금 암낙타를 만들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는데도 불신자들이 믿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였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샴쓰'(태양과 그 빛을 두고 맹세하사) 란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2-1) 빛과 열을 발산하는 태양과 그 빛을 반사하는 달을 두어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크게 유용케 하였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323/4).
5-1) 마(Ma) : 관계 대명사로써 만(Man)을 의미한다. 즉 하늘과 그 하늘을 기둥도 없이 세우신 만유의 주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64).
8-1) 1절에서 17절까지 언급된 태양, 달, 밤, 낮, 하늘, 대지 그리고 인간 등 일곱가지 요소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홀로 존재하심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9-1)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스스로의 영혼을 정화하고 모든 죄악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스스로를 청결케 하는 자
12-1) 예언자 살레는 하나의 예증 내지는 상징 또는 하나의 시험으로써 암낙타를 만들어, "하나님의 이 암낙타가 너희를 위한 하나의 예증이라. 그러므로 그 낙타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지 위에서 풀을 뜯어 먹은 후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서운 벌을 받으리라!(제17장 73절 참조)고 말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암낙타를 살해하려 음모를 꾸며 그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까다르 이븐 쌀리프」를 보내어 사악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91).
13-1) 예언자 살레
14-1) 살레

제92장 수라트 라일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21절로 믿음과 노력에 따라 인간은 축복 받은 천국 아니면 저주 받은 지옥으로 들어가 최후의 삶을 갖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밤과 낮 그리고 모든 것을 자웅으로 창조하신 주님에 대한 맹세를 시작으로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 의로운 길과 불의의 길, 천국의 백성들과 지옥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사용하는 재물은 부활의 날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한 메카 불신자들에게 타오르는 불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믿는 사람들은 재산을 사용하되 좋은 일을 위하여 사용하며 스스로자성하고 회개해야 한다면서 노예였던 빌랄을 해방시켜준 아부 바크르 의 모범을 좋은 실례로 들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라일'(어두어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사)이란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5-1) 하나님께서 자선을 베풀라 명령한 대로 자선을 베풀며 모든 일 하나 하나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46/3).
6-1)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을 확증하는 것.
9-1) 천국을 거역하는 자
14-1) 하나님
19-1) 이 절은 아부 바크르 시디끄에 관하여 계시된 절로 전하여지고 있다. 「빌랄」은 「옴미야 이븐 칼라프」의 노예였다. 그런데 빌랄이 이슬람에 귀의하였다고 하여 주인은 빌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뜨거운 대낮에 밖으로 쫓아내어 메카 바뜨하 지역에서 등을 땅에 대고 얼굴은 하늘로 향하게 하여 뜨거운 열사에 시달리게 하는가 하면 큰 바위를 가슴에 놓고서 "이러한 벌을 네가 죽을때까지 아니면 무함마드를 불신할 때까지 계속되리라"하였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빌랄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라고 말을 하였다. 이때 아부 바크르 시디끄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불신자들은 그때까지도 그에게 그러한 박해를 하고 있었다. 이때 아부 바크르는 주인 우미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오?"라고 하자 그는 "당신이 보다시피 당신이 그로 하여금 나에게 피해를 주도록 하였소"라고 하자 아부 바크르는 빌랄을 사서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에 불신자들이 말하길, "실로 아부 바크르가 빌랄을 해방시킨 것은 그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326/4 또는 타프씨르 알카-진 256/4).

제93장 수라트 두하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1절로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현세와 내세에서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고아였던 무함마드를 살피고 가난했던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법을 계시하여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아들을 사랑하며 구하는 자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두하'(아침을 두고 맹세하고)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2-1) 아침과 저녁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동이 트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과 그날의 노동을 마치고 어둠이 찾아들어 휴식을 취하는 밤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49/3).
6-1) 어머니 태내에 있을 때 아버지를 잃고 태어나 여섯 달이 되면서 어머니를 잃어 완전한 고아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압둘 무딸립으로 하여금 무함마드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무함마드 나이 8세에 세상을 떠나자 삼촌인 아부 딸립으로 하여금 무함마드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11-1) 고아이며 가난하였고 하나님의 법(샤리아)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그대에게 보호자를 두어 보호하게하였고 가난했던 그대를 부유하게 하였으며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여 행복의 길로 인도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하는 자에게 인색하지 말며 주님께서 그대를 인도하였듯이 인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타파씨르 알올루씨 164/30).

제94장 수라트 샤르흐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선지자 무함마드의 위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푼 여러 가지 은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가슴을 펼쳐 믿음을 심어주고 지혜를 주어 모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였다. 이 모든 은혜는 불신자들의 박해와 학대에 시달리고 있던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함마드에 대한 불신자들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일과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전념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샤르흐'(하나님이 그대의 마음을 펼치사)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무함마드의 마음을 열고 믿음과 복음과 꾸란의 빛을 넣어 주었다. 아부 하이얀은 지혜로써 가슴에 빛을 비추고 가슴을 열어 계시를 받도록 하였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 무함마드가 어렸을 때 가슴을 넓혔다고 전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바흐르 알무히뜨 487/8).

2-1) 위즈르 : 모든 죄악에 대항하여 싸워야 할 무거운 짐과 선지자로써 메세지를 전하면서 직면하게 될 여러가지 고난

5-1) 메카 불신자들이 선지자와 믿는 신도들에 박해를 가함으로써 선지자와 그분의 추종자들은 어려운 곤경에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였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75).

8-1) 일상생활의 일이나 업무를 마쳤을 때 주님을 경배하는 진실된 의도와 소망으로써 신앙 생활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653/3).

제95장 수라트 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은혜와 업적에 대한 계산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를 내린 안전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예루살렘과 시나이 산 그리고 메카를 언급하면서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인간이 가장 비천한 자라고 강조하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증거들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역하고 부활을 조롱한 불신자들에 엄한 벌이 내릴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틴'(무화과와 올리브를 두고 맹세하사)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용할 양식중 2가지에 관하여 이브누 압바쓰는 그 유용성

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 그것은 너희들이 먹을 무화과요 올리브는 그것으로 너희가 기름을 만드는 것이라(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10/19). 아크라마는 무화과와 올리브의 생산지를 두고 맹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디마스끄에서 그리고 올리브는 예루살렘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89/8).

2-1)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축복받은 산, 나무와 열매가 많은 모든 산들을 씨닌 그리고 씨나이 라고 부른다고 카진은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266/4).

3-1) 성스러운 메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매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모세를 보내매 시나이 산으로 보냈으며 무함마드를 보내매 가장 안전하고 성스러운 메카의 도읍으로 보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77).

5-1) 소년시절과 왕성한 청년시절을 거쳐 아주 허약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다하크는 풀이하고(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15/19), 알울루씨는 불신자가 부활의 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가르킨다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울루-씨 176/30).

제96장 수라트 알알라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9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는 과정, 인간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려는 행위, 그리고 선지자 무함마드의 기도생활을 방해하고 차단하려 했던 아부 자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에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영원한 기적인 꾸란이 계시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재물로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려는 오만하고 거만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업적에 따라 받게 될 보상과 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오만하고 거만함이 파라오 폭군과 다름없었던 아부 자홀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협하고 그의 기도를 방해하면서 우상숭배를 강요한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와 신앙생활에 더욱 충실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2절의 '알라끄'(하나님은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란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또한 제1절의 '이끄라'(만물을 창조한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란 어휘에 근거하여 '이끄라' 장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79).

1-1)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지향한 최초의 말씀으로 읽는 것과 쓰는 것 그리고 지식으로 인도하고 있다. 무함마드여!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꾸란을 읽으라.

5-1) 1-5절까지가 꾸란 전체 가운데서 제일 먼저 계시된 절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에서 명상중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 "읽어라"라고 말하자 "저는 읽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또 천사가 말하길, "읽어라…"라고 계시가 내리기 시작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81).

7-1)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아부 자홀이 그 재물로써 선지자 무함마드를 박해하며 그 재물로써 이슬람의 가르침을 방해하였으며 특히 선지자 무함마드가 카으바 신전에 나가 신앙생활에 충실하려 했던 것을 방해하였다. 그의 오만과 자만은 계속되었으

나 바드르 전투에서 벌을 받아 죽음을 맛보게 된 후 그의 오만과 자만은 끝났다.
10-1) 아부 자흘
2) 선지자 무함마드
15-1) 제9장 56절 참조
19-1)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복하여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디쓰는 전하고 있다(무슬림).

제97장 수라트 알까드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5절로 영원한 기적인 꾸란과 어느 날 어느 달 보다 은혜와 축복이 많이 내린 거룩한 밤, 천사들과 가브리엘 이 강림하여 새벽 동녘까지 머무르며 믿음을 가진 모든 신앙인들에게 평안하기를 인사하는 성스럽고 위대한 이 거룩한 밤이야 말로 천개월 보다 더 훌륭하고 축복받은 밤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까다르'(실로 하나님은 거룩한 밤에 이 계시를 내리나니)란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1-1) 능력의 밤, 훌륭한 밤 또는 성스러운 밤 또는 위대한 밤 등의 여러가지 뉴앙스를 함축하고 있다.
2)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늘에 보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기 시작하여 23년간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전달하였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59/3 또는 타파씰 알꾸르뚜비 130/19).
3-1) 이 거룩한 밤에 행하는 의로운 일은 이 거룩한 밤이 아닌 천개월 동안의 밤에 행하는 어떤 일보다 훌륭한 것이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84). 또한 무자히드는 말하길, "이 거룩한 밤에 행하는 선행과 금식과 기도생활은 천개월의 밤 동안에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59/3).
5-1) 이 축복받은 거룩한 밤에 천사들이 내려와 믿는 신도들에게 항상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인사한다는 뜻.

제98장 수라트 알바이이나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지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믿음, 내세에서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운명 등을 다루고 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 무함마드의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자세, 최후의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이 그들의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메시지와 더불어 최후의 선지자가 도래하였을 때 이를 불신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말과 행동과 모든 품행이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이루어질 때 바른 신앙생활이라하면서 사악한 자는 진리를 부정한 백성들과 불신자들로 그들의 최후

운명은 지옥이나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영원한 주거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이이나'(분명한 예증이 그들에게 이를 때까지)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며 '람 야쿤' 장이라 불려지기도 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83).

1-1) 유대인 및 기독교인
2)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하고 불신하며 우상을 숭배한 자들
3) 선지자 무함마드
2-1) 암기하여 낭송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선지자 무함마드는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알지 못한 문맹자였기 때문이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47/29).
4-1) 분명한 예증이 이르기 전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무함마드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하다가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서에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212/4).
5-1)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명령받은 것은 하나님 한 분 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 헌신하라 명령받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최초 말씀을 변경하고 대체하여 하나님 아닌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들의 주교들을 믿게 되었다.
2) 하니프 아브라함이 지켜왔던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써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에 계시되어 완성된 최후의 종교 이슬람을 가르킴(제2장 135절참조).
3) 본절에서는 3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헌신하며, 둘째 기도를 드리고 셋째 이슬람세를 바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기본요소임을 말해주고 있다.

제99장 수라트 질잘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동일한 내용과 목적, 부활과 그의 양상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부활의 날 대지가 크게 진동하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시체와 보물들이 밖으로 나와 현세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가 현세에서 행하였던 업적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흩어져 들어가게 된다. 대지가 크게 흔들리는 부활의 날에 있을 심판에서 인간이 행한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으며 그가 행한 대로 보상과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 '질잘'(대지가 심하게 진동을 하며)이란 어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다.

1-1) 첫번째 나팔이 울릴 때 대지가 크게 진동하니 이때가 바로 부활의 시작이다.
2-1) 땅속에 있는 모든 시체와 보물들이 땅밖으로 나온다고 문지르 이브누 싸이드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울루씨 209/30).
4-1) 부활의 날 대지는 대지위에서 행하여졌던 선과 악의 모든 소식을 알려 주리니… 즉 모든 인간에게 그가 지상에 있을 때 행하였던 모든 것을 증언 할 것이라고 아부 후라이라는 전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90).
6-1) 무덤에서 나와 심판을 받기 위해 다같이 모여 그들이 행했던 업적에 따라 계산된

후 천국과 지옥으로 흩어져 가게 된다(꾸란 어휘해설, p.431).

제100장 수라트 알아디야트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1절로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적을 향해 돌진하는 말, 질주하며 불꽃을 튀기는 말, 새벽에 공격하는 말 그리고 먼지를 일으키며 적 깊숙이 돌진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는 계시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만과 거만을 피우며 재물에 탐닉한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모든 피조물은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귀의하며 이때 인간이 탐닉했던 모든 재물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선을 행한 의로운 일 밖에는 유용한 것이 없다는 교훈을 제하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아디야트'(질주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사)란 어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다.

1-1) 하나님의 적을 향하여 소리치며 돌진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사(아부 알싸우드 280/5)
2-1) 세차게 질주할 때 말굽과 땅에 있는 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꽃
5-1)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적을 향해 돌진하는 말, 질주하면서 불꽃을 튀기는 말, 공격의 시각을 새벽으로 바꾼 말로써 하나님은 맹세를 하고 있다.
6-1) 인간은 주님이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내린 시련만을 생각한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60/20).
9-1) 무덤속에 있는 시체들
11-1) 부활의 날

제101장 수라트 알까리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1절로 부활과 그 양상, 내세와 그 양상, 그 날에 있을 무서운 재앙, 무덤속에 묻혀 있던 인간들이 밖으로 나와 나방처럼 여기 저기 흩어지며 산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양털처럼 되는 부활의 날 인간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암시하면서 믿음으로 선을 실천한 의로운 자들은 천국에 사는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나 믿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까리아'(부활의 날)란 어휘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본다.

1-1) 까리아 : 부활의 여러 명칭가운데 하나로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가장 무서운 재앙(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94).
9-1) 하위야 : 불지옥의 이름 가운데 하나

제102장 수라트 타카쑤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 재물과 자손과 권력에 탐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부활의 날 이들은 분명한 징벌, 즉 불지옥을 스스로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현세에서 탐닉했던 모든 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그에 따른 보상과 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타카쑤르'(축적한 것들이 너희를 벗어나게 하리니)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일하 : 향락과 오락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것으로부터 외면하는 것이 언어적인 의미로, 본 절의 교훈은 재물과 자손들과 군대로 거만하고 오만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내세를 위한 준비를 외면한 인간들에 대한 경고로 본다.

2-1) 죽어 무덤에 묻힐 때 까지 재물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내세를 부정하려 하는가?(타프씨르 알꾸르뚜비)

제103장 수라트 알아스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3절로 행복의 근원과 불행의 이유 그리고 현세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 인간의 일생을 좌우하는 세월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증을 제시하고 있다. 믿음과 선행,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를 전하고 권고하는 일, 신앙생활, 인내 이 네 가지 기본요소를 지키지 아니한 인간은 내세에서 모두 실패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1-1) 아스르 : 인간의 나이를 좌우하는 세월이라고 풀이된다.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시간으로 해석하고, 까타다는 낮 동안의 마지막 시각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00), 꾸란어휘 해설에서는 선지자의 시대라고 풀이하고 있다(꾸란어휘해설 p.434). 또한 아스르는 아스르 기도 시간으로 풀이되기도 한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79/20).

3-1) 믿음과 선행, 진리의 권고 그리고 인내 이 4가지 요소를 실천한 자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교훈을 암시하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추종자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날 때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아스르"장을 읽지 않고서는 헤어지지 아니했으며, 이 아스르장을 읽은 후 서로가 인사한 다음 헤어지곤 하였다고 하디쓰가 전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00).

제104장 수라트 알후마자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9절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는 자들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 축적한 재물로 영원히 살리라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무서운 벌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은 뜨거운 불지옥이다. 그 지옥의 뜨거움을 식힐 수 있는 바람이 들어가지도 그리고 나오지도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빗장을 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후마자'(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란 어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1-1) 본 절은 중상모략과 모사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과 사건을 일으키게 했던 「아크나쓰 이븐 샤리끄」에 관하여 계시된 절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00).

2-1) 재물만을 모아 계산하여 축적할 뿐 하나님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적만 하는 것(타프씨르 알따브리 189/30).

3-1) 돈과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며 내세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현세만을 생각하도다.

제105장 수라트 알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5절로 카으바 신전을 파괴하기 위해 예멘의 왕 아브라하가 코끼리를 탄 군대를 메카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새 부리와 양다리에 세개씩의 돌을 단 새들을 보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려 한 적들을 멸망시킨 이야기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서력 570년에 무함마드가 태어난 역사적인 날이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필'(그대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했느뇨) 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그대 무함마드여! 하나님의 집 하람사원을 침범한 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코끼리 무리로 적들을 물리친 그 소식이 그대에게 이르지 아니했느뇨? : 예멘의 왕 「아브라하 알아쉬람」은 사나아에 교회 하나를 짓고 그곳으로 성지순례객들을 유치하려 하였다. 이때 가니나에서 한 남자가 그곳에 이르러 밤에 대변을 보고 또 벽에다 그 대변으로 더렵혀 그를 저주하였다. 그리하여 예멘의 왕 아브라하는 화가나 카으바 신전을 파괴하려 결심하고 코끼리들과 군대를 인솔하고 메카로 왔다. 이들 군대가 메카 가까이 왔을 때 메카 주민들은 군대와 코끼리들에 놀라 두려운 나머지 산으로 피하여 갔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하 군대에게 새들을 보냈고 각각의 새들의 입과 양 발에 3개의 돌을 가지고 와, 아브라하 군대와 코끼리들을 멸망시켜버렸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96/13 및 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87/20). 이러한 사건은 바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태어난 그해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아부 싸우드 285/5).

5-1) 본 장의 모든 절은 카으바 신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메카 꾸라이쉬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해가 선지자 무함마드가 태어날 곳이였고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512/8).

제106장 수라트 꾸라이쉬

메카에서 계시된 4절로 메카 꾸라이쉬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경고를 있다.

꾸레이쉬 부족의 대상들은 겨울철이 되면 예멘으로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샴 지역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 여행을 오갔다. 하나님은 이들 꾸라이쉬 대상들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다. 안전과 평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상들로 하여금 이익이 남는 상거래를 하도록 한 은혜였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꾸라이쉬'(꾸라이쉬 부족의 보호를 위하여)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2-1) 겨울철에는 예멘으로, 여름철에는 샴지역으로 무역거래를 위해 대상을 하는데, 거래에서나 여행에서나 꾸라이쉬 대상들이 하나님의 집 카으바 신전 바로 이웃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 하여 그 대상들은 존경을 받아가며 안전하게 상거래를 하게 되었다.

3-1) 카으바 신전

4-1) 꾸라이쉬 대상들의 여행과 거래를 안전하게 하여줌으로써 이들 대상들은 많은 이익을 보게되고 그럼으로써 메카 꾸라이쉬족들은 번성하게 되었다.

제107장 수라트 알마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7절로 두 가지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오만하고 거만을 피우며 부활의 날에 있을 심판과 보상을 부정하는 자들과, 사람들 앞에서만 믿는척 하는 위선자들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다.

불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기는 커녕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색하는 자들이며 위선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는 사람들로 내세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7절의 '마운'(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한 자들이라)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딘 : 종교, 심판의 날, 또는 내세 등의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3-1) 핫드 : 촉구하다는 뜻으로 본절의 언어적인 의미는 불쌍한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한 자라는 뜻이나 음식을 제공하지도 아니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도록 촉구하지도 않는다는 2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80).

제108장 수라트 알카우싸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3절로 현세와 내세에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베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기도와 제물로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선지자의 적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모든 희망이 단절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카우싸르'(하나님이 그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나니)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카우싸르 : 풍성한 은혜, 양과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카우싸르"라 아랍인들은 부르고 있다.본 절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이다.

2-1) 낙타를 잡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제109장 수라트 알카피룬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6절로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그들이 숭배한 우상들을 1년간 숭배하면 자신들도 무함마드가 경배한 신을 1년간 경배하겠다고 유혹했을 때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계시가 내려져 믿음의 백성과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의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카피룬'(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우상을 숭배하라고 유혹한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2-1) 너희 불신자들이 숭배한 우상들을 결코 내가 숭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우상들은 유익함도 그리고 해악을 끼치지도 못하는 무용한 것이라. 꾸라이쉬 부족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그들이 숭배한 우상을 1년간 숭배한다면 그들 불신자들도 무함마드가 경배한 신을 1년간 경배하겠다고 말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제110장 수라트 나스르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3절로 무슬림의 영광이요 아랍 반도에 이슬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메카 정복에 대한 승리와 이 승리로 인하여 전쟁과 싸움도 치루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하나님의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서 이슬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우상을 숭배한 불신자들이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나스르'(하나님의 원조로 승리하는 그 때에)란 어휘로부터 유

래된 것으로 본다. 한편 고별의 순례시 미나에서 본 장이 계시되었다 하여 고별이란 의미를 가진 '타우디' 장이라 불려지기도 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15).

1-1) 그대 무함마드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 메카를 정복하는 승리를 가져다 줄 때,
2-1) 단체로 이슬람에 귀의하는 백성들을 보리라.
3-1) 그러므로 적에 대하여 승리토록 하여 주고, 메카를 정복하여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이슬람에 귀의하도록 하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제111장 수라트 알마싸드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5절로 하나님의 적이요 선지자의 적이었던 아부 라합의 멸망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 아부 라합은 가장 사악한 불신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제쳐놓고 선지자 무함마드의 뒤를 쫓아다니며 무함마드의 선교를 방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의 아내는 남편보다 사악함이 더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녀의 목을 동아줄에 묶어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 장의 명칭은 제5절에 '마싸드'(그녀의 목에는 단단한 동아줄이 감기리라)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아부 라합' 또는 '탑바트' 장으로 불려지기도 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16).

1-1) 아부라합 : 화염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선지자 무함마드 삼촌의 별명이며 그의 본명은 압둘웃자 이븐 압둘 무딸립이었다. 그는 너무나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인 기질로 초기이슬람적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였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꾸라이쉬 부족과 그의 가족 그리고 친척들을 모아 포교를 하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했을 때 화염의 아버지 아부라합은 화를 내며 선지자를 저주하고 선지자가 멸망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아부라합의 선지자에 대한 저주는 아무런 효용이 없었으며 그의 힘 그리고 재산도 무익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슬람은 매일 더욱 번성하여 갔을 뿐이다. 아부라합은 바드르 전투 이후 바로 일주일만에 사망하였는데 그의 분노와 불길같은 그의 기질을 참지 못하여 죽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본 절에 계시된 동기도 아부라합이 무함마드를 저주하여 멸망하기를 원했을 때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260/30).
2-1) 이브누 압바쓰는 아부라합의 자손들이라 풀이하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 하였을 때 아부라합은 말하길 "나의 조카(무함마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나의 자손으로 그 벌을 면제 받으리라"고 말하자 본 절이 계시되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90/3). 아부라합에게는 3명의 아들 우뜨바 무으따브, 우테이바가 있었는데 두 아들은 메카 정복의 날 이슬람에 귀의한 후 후네이나와 따이프 전투에 참가하였고 우테이바는 이슬람에 귀의하지 아니했다고 알올루씨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18).
4-1) 아부라합의 아내는 아비 수피얀의 여동생 움무자밀로 그의 남편과 더불어 선지자 무함마드를 박해하였다. 무하맘드가 가는 길마다 가시덤불을 갖다 놓아 상처를 입히곤 하였으며 사람들 사이에 모사와 중상모략을 꾸민 대표적 여성이라고 알올루씨는 말하고 있다(알올루씨 263/30). 또 어느날 본 장의 말씀이 그녀의 남편 아부

라합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는 돌을 주어 카으바 신전에 아부 바크르와 함께 앉아 있던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로 와 돌로써 선지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선지자를 볼 수 있는 시력을 빼앗아 버렸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17).

제112장 수라트 알이클라스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4절로 하나님의 속성과 유일성, 하나님의 완전성과 영원성, 하나님이 자손을 두었다는 유대인들의 주장과 기독교인들의 삼위일체설 그리고 일부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에게 딸이 있다는 이 모든 신성모독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특히 본 장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어 짧은 장이면서도 꾸란 전체 내용의 삼분의 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1) 일부 불신자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말하길,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요. 그대 주님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은, 아니면 자바르자다(귀 감리석), 아니면 루비로 되어 있습니까?" 말했을 때, "일러 가로되…"라고 계시되었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17). 불신자들이 믿는 우상도 아니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성부=성자=성신)의 신도 아닌 오직 한분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2-1)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이 귀착하는 곳은 곧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뿐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3-1) 유대인들은 아지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불신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 묘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정으로써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20).

4-1) 이클라쓰장을 읽는 자는 꾸란 전테의 1/3을 읽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디쓰는 전하고 있다. 꾸란의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면 유일신 사상과 규범 및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클라쓰장은 유일신 사상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맘 아흐맏 및 이싸이가 전함). 그래서 이 장을 읽을 때의 보상도 꾸란 전체의 1/3을 읽었을 때의 보상과 다름이 없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21).

제113장 수라트 알팔라끄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5절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는 가르치고 있다. 초기에 계시된 장으로 미신과 자연현상으로 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포, 사악한 음모와 모사,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모든 종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강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팔라끄'(일러 가로되 나는 동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며)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팔라끄 : 아침, 새벽, 여명기 즉 밤의 어둠을 깨고 하루가 시작하는 시각
2-1) 인간을 시험하기 위하여 창조된 사악한 모든 것
4-1) 실로 매듭을 만들어 그 안에 바람을 불어 마술을 부리는 행위로 이 요술로써 믿음을 가진 자들을 괴롭혔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혼케 하기도 하였다.

제114장 수라트 나쓰

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6절로 외적 현상에서 오는 유혹과 두려움 그리고 내적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유혹과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에게 강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나쓰')일러 가로되 나는 인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고)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1-1) 팔라끄장에서는 미신과 특히 자연과 외적 현상에서 오는 유혹과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본 장은 주로 인간의 내적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유혹과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3-1)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음 3가지 견해에서 다루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주님이요
창조주로써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에게는 그의 노력에 의하여 모든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하였으며 외적 그리고 내적인 유혹과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하나님은 만물의 왕국을 지배하는 왕이요 통치자로써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인도할 권능이있어 인간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셋째 인간의 최후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귀의되며 인간이 현세에서 행하셨던 선과 악의 모든 업적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보상과 응벌을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유혹과 사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한 글 색 인

≪ ㄱ ≫

《 ㄹ 》

≪ ㅁ ≫

≪ ㅇ ≫

≪ ㅈ ≫

≪ ㅋ ≫

≪ ㅌ ≫

≪ 표 ≫

≪ ㅎ ≫

꾸란에 언급된 25명의 예언자 및 선지자

1. 아담 (Adam) : 한글색인 1317쪽 참조

2. 이드리스 (Idris)
진실한 예언자. 19 : 56
하나님은 그를 승천시킴. 19 : 57
인내하는 자. 21 : 85

3. 노아 (Noha) : 한글색인 1291쪽 참조

4. 후드 (Hud)
아드 백성을 위한 예언자로 보내어짐. 7 : 65, 26 : 125
불신과 조롱을 받다. 7 : 66, 11 : 53, 11 : 59, 26 : 136-137
백성들에게 충고. 7 : 68, 11 : 52, 26 : 126-135, 46 : 21-26
우상숭배금지. 7 : 71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되다. 7 : 72, 11 : 58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심. 11 : 54

5. 살레 (Saleh) : 한글색인 1310쪽 참조

6. 아브라함 (Abraham) : 한글색인 1318쪽 참조

7. 롯 (Lot) : 한글색인 1295쪽 참조

8. 이스마엘 (Ismael) : 한글색인 1330쪽 참조

9. 이삭 (Isac) : 한글색인 1329쪽 참조

10. 야곱 (Jacob) : 한글색인 1321쪽 참조

11. 요셉 (Joseph) : 한글색인 1325쪽 참조

12. 욥 (Job) : 한글새인 1326쪽 참조

13. 줄키플 (Zulkifli)
인내심이 강함. 21 : 56
선인으로 선택받음. 38 : 48

14. 슈아이브 (Shu' aib) : 한글색인 1314쪽 참조

15. 요나 (Jonah) : 한글색인 1325쪽 참조

16. 모세 (Moses) : 한글색인 1297쪽 참조

17. 아론 (Aaron) : 한글색인 1318쪽 참조

18. 엘리야 (Elias)
의인중의 한사람. 6 : 85
선지자로 선택받음. 37 : 123
백성들에게 충고. 37 : 124
우상숭배금지. 37 : 125
유일신 사상 강조. 37 : 126
불신당함. 37 : 127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37 : 129-132

19. 엘리샤 (Elisha) : 한글색인 1321쪽 참조

20. 다윗 (David) : 한글색인 1292쪽 참조

21. 솔로몬 (Solomon) : 한글색인 1313쪽 참조

22. 자카리아 (Zachariah) : 한글색인 1335쪽 참조

23. 요한 (John) : 한글색인 1326쪽 참조

24. 예수 (Jesus) : 한글색인 1323쪽 참조

25. 무함마드 (Muhammad) : 한글색인 1299쪽 참조

각 장의 명칭순서 및 메카와 메디나 계시

장(Surah)	순서	계시장소	장(Surah)	순서	계시장소
알파티하	1	메카	알안카부트	29	메카
알바까라	2	메디나	루움	30	메카
알이므란	3	메디나	루끄만	31	메카
니싸아	4	메디나	싸즈다	32	메카
알마이다	5	메디나	알아흐잡	33	메디나
알안암	6	메카	싸바아	34	메카
알아으라프	7	메카	파띠르	35	메카
알안팔	8	메디나	야씬	36	메카
타우바	9	메디나	사파트	37	메카
유누스	10	메카	솨드	38	메카
후드	11	메카	주마르	39	메카
유스프	12	메카	가피르	40	메카
라아드	13	메디나	푸실라트	41	메카
이브라힘	14	메카	슈라	42	메카
히즈르	15	메카	알주크루프	43	메카
나홀	16	메카	두칸	44	메카
알이스라	17	메카	알자씨야	45	메카
알카흐프	18	메카	알아흐까프	46	메카
마르얌	19	메카	무함마드	47	메디나
따하	20	메카	알파트흐	48	메디나
알안비야	21	메카	알후즈라트	49	메디나
알핫즈	22	메디나	까프	50	메카
알무으미눈	23	메카	자리야트	51	메카
누르	24	메디나	뚜르	52	메카
알푸르깐	25	메카	나즘	53	메카
슈아라	26	메카	알까마르	54	메카
나믈	27	메카	라흐만	55	메디나
알까싸스	28	메카	알와끼아	56	메카

장(Surah)	순서	계시장소	장(Surah)	순서	계시장소
알 하 디 드	57	메디나	따 리 끄	86	메 카
알무자달라	58	메디나	알 아 을 라	87	메 카
알 하 쉬 르	59	메디나	알 가 쉬 야	88	메 카
알뭄타히나	60	메디나	알 파 즈 르	89	메 카
사 프	61	메디나	알발라드	90	메 카
알 주 므 아	62	메디나	샴 스	91	메 카
알무나피꾼	63	메디나	라 일	92	메 카
타 가 분	64	메디나	두 하	93	메 카
딸 라 끄	65	메디나	샤 르 흐	94	메 카
타 흐 림	66	메디나	티 틴	95	메 카
알 물 크	67	메 카	알 알 라 끄	96	메 카
알 깔 람	68	메 카	알 까 다 르	97	메 카
알 하 까	69	메 카	알바이이나	98	메디나
알마아리즈	70	메 카	질 잘	99	메디나
누 흐	71	메 카	알아디야트	100	메 카
알 진	72	메 카	알 까 리 아	101	메 카
알 무 잠 밀	73	메 카	타 카 쑤 르	102	메 카
알무다씨르	74	메 카	알 아 스 르	103	메 카
알 끼 야 마	75	메 카	알 후 마 자	104	메 카
알 인 싼	76	메디나	알 필	105	메 카
알무르쌀라트	77	메 카	꾸 라 이 쉬	106	메 카
나 바 아	78	메 카	알 마 운	107	메 카
나 지 아 트	79	메 카	카 우 싸 르	108	메 카
아 바 싸	80	메 카	알 카 피 룬	109	메 카
타 크 위 르	81	메 카	나 스 르	110	메디나
알인피따르	82	메 카	알 마 싸 드	111	메 카
알무따피핀	83	메 카	알이클라스	112	메 카
알인쉬까끄	84	메 카	알 팔 라 끄	113	메 카
알 부 르 즈	85	메 카	나 쓰	114	메 카

▩ 최 영 길 (崔 永 吉)

● **학 력 및 전공**
- ♦한국외국어 대학교(아랍어 : 문학사)
- ♦한국외국어 대학교(아랍어 : 문학석사)
- ♦사우디 왕립 메디나 이슬람대학교(이슬람학 전공)
- ♦수단 옴두르만 국립이슬람대학교(이슬람학 : 문학박사)

● **경 력**
- ♦이슬람문화원 전임강사(사우디 아라비아)
-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대학교 초청 객원교수(사우디 아라비아)
- ♦(現)전세계 이슬람총연맹 최고회의 위원(사우디 아라비아)
- ♦(現)Al-Masjid Magazine 필진(사우디 아라비아)
- ♦(現)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이슬람회의기구 집행위원(말레이시아)
- ♦(現)성천문화재단 〈동서인문고전강좌〉 교수
- ♦(現)명지대학교 아랍어 아랍지역학과 교수
- ♦(現)명지대학교 인문대학장

● **저 서**
- ♦꾸란의 이해
- ♦꾸란해설
- ♦이슬람문화
- ♦16억 이슬람인의 역사와 문화
- ♦이슬람의 거래와 관습
- ♦이슬람의 생활규범
- ♦이슬람(단식과 성지순례)
- ♦무함마드의 생애
- ♦무함마드 전기
- ♦무함마드 어록 200선
- ♦아랍어 - 한글 사전
- ♦생활아랍어 회화
- ♦Arabic Language I(공저)
- ♦Arabic Language II(공저)
- ♦Islamic Thoughts

● **논 문**
- ♦한정사를 수반한 아랍어 명사의 분류와 용법
- ♦기독교와 이슬람교리의 비교연구
- ♦이슬람 신학사상
- ♦무함마드 승천에 관한 연구
- ♦꾸란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교과서에 왜곡 소개된 이슬람실태 연구
- ♦이슬람사상에서 본 아담의 원선설
- ♦이슬람의 결혼관
- ♦꾸란에 나타난 이슬람인의 인사말 연구
- ♦Al Daw'a Al Islamiya in Korea
- ♦Al Islam in Korea
- ♦Korean & Islamic Common Traditions
- ♦ Prospect of Islam in Korea
- ♦The Status of Islam in South Korea 외 다수

♣홈페이지:
http://www.krislam.wo.ro
♣전자우편:
kychoi@mju.ac.kr

إنّ وزارة الشؤون الإسلامية والأوقاف والدعوة والإرشاد

في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المشرفة على مجمع الملك فهد

لطباعة المصحف الشريف في المدينة المنورة

إذ يسرّها أن يصدر المجمع هذه الطبعة من ترجمة معاني

القرآن الكريم إلى اللغة الكورية

تسأل الله تعالى أن ينفع بها الناس

وأن يجزي

خادم الحرمين الشريفين الملك فهد بن عبد العزيز آل سعود

أحسن الجزاء على جهوده العظيمة في نشر كتاب الله الكريم

والله ولي التوفيق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이슬람 · 아우까프 · 다우와 · 지도부

메디나 소재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은

신성한 꾸란의 의미를 한국어로 출간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서가 모둔 분들에게 유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더블어

두성지의 수호자 파하드 이븐 압둘아자즈 알 사우드

국왕에게 신성한 하나님의 성서출간을 위한 크나큰 헌신에

가장 훌륭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후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신성한 꾸란의 의미번역이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의
이슬람·아우까프·다우와·지도부
총감독하에 메디나 소재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에서
발간되었습니다.
H.1425

신성한 꾸란의 의미번역 출간 지침
두 성지의 수호자 파하드 이븐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

우편사서함 6262 알메디나 알무나와라

Website: www.qurancomplex.org
E-mail: kfcphq@qurancomplex.org

ⓒ مجمع الملك فهد لطباعة المصحف الشريف ، ١٤٢٣هـ
فهرسة مكتبة الملك فهد الوطنية أثناء النشر
مجمع الملك فهد لطباعة المصحف الشريف
ترجمة معاني القرآن الكريم إلى اللغة الكورية بدون نص قرآني .
- المدينة المنورة ، ١٤٢٣هـ
٩١٢ ص ، ١٤ × ٢١ سم
ردمك : ٧ - ٥٢ - ٨٤٧ - ٩٩٦٠

١- القرآن - ترجمة - اللغة الكورية أ- العنوان
ديوي ٢٢١,٥١٩ ١٤٢٣/٥٦٨٢

رقم الإيداع : ١٤٢٣/٥٦٨٢
ردمك : ٧ - ٥٢ - ٨٤٧ - ٩٩٦٠

(٤٠٠٠ / د ٢٥ - ٢) (٦) (٠١)
ردمك : ٧ - ٥٢ - ٨٤٧ - ٩٩٦٠

의미 번역

꾸란

한국어

본서는 두 성지 수호자의 기증서
파하드 이븐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왕
비매품